

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1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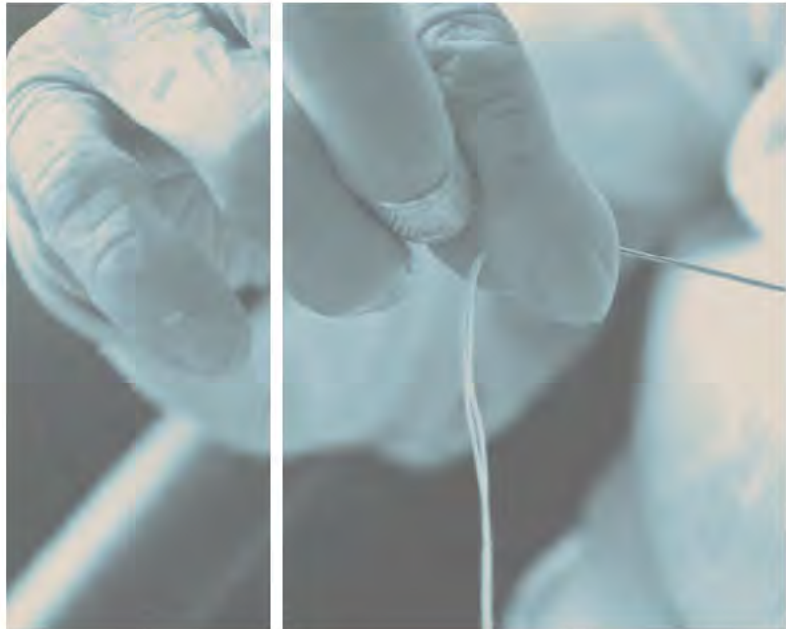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3
- 제주 전통 옷 구슬 자료집

시집을 때 입어난 장옷 죽영 가명도 입곡

2021

연구 책임 김미진

공동 연구 김순자 권미소 김보향 고순희 현혜림



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14-01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3
- 제주 전통 옷 구슬 자료집

시집을 때 입어난 장옷 죽영 가명도 입곡

2021

연구 책임 김미진
공동 연구 김순자 권미소 김보향 고순희 현혜림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차례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7
2. 연구 기간	7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7
4. 연구진	9
5. 주요 연구 내용	9
6. 기대 효과	10
7. 자료 사진	11
7.1. 현장 조사 모습	11
7.2. 주 제보자	17
7.3. 의생활 관련 도구	19

II. 제주 전통 옷 구슬 자료

1. 서귀포시 하원동	25
2.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13
3.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237
4.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01
5.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97
6.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465
7. 제주시 일도1동	599
8.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695
9.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57
10.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837

1.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초가’, ‘목축’, ‘구덕’, ‘갈옷’ 등을 통해 독특한 전통문화를 만들어 왔음. 이러한 제주 전통문화는 민속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방언학적으로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음. 그러나 제주어로 된 원형 자료로 제주 전통문화 자료가 구축된 바가 드물어 조사가 시급함.
- 이에 사라져가는 제주의 전통문화와 관련한 전승자를 대상으로 제주의 전통문화 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나아가 소멸 위기의 제주어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이 사업은 제주 전통의 ‘옷’과 관련된 자료를 현장 조사를 통해 제주어로 채록하여 제주 지역의 의생활 관련 문화와 어휘를 모아 제주어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기간

2021년 3월 22일~2021년 12월 31일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 연구(조사) 지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제주시 일도1동,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등 10개 지역임.
- 연구(조사) 대상: 제주의 전통 옷과 관련된 일을 했거나 전통 방식의 의생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음. 주 제보자가 12명, 보조 제보자가 8명, 총 20명이 조사 대상임.

<표 1> 제보자 현황(가나다 순)

번호	제보자	성별	출생 연도	조사 지역	비고
1	강만옥	여	1932년생	서귀포시 하원동	주 제보자
2	강성자	여	1950년생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	김설자	여	1940년생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4	김순생	여	1942년생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주 제보자
5	김순애	여	1944년생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6	김치호	여	1927년생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주 제보자
7	박문선	여	1956년생	제주시 일도1동	

번호	제보자	성별	출생 연도	조사 지역	비고
8	박성지	여	1933년생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주 제보자
9	송순원	남	1937년생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주 제보자
10	송심자	여	1951년생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주 제보자
11	송월순	여	1952년생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2	송희순	여	1939년생	제주시 일도1동	주 제보자
13	안인옥	여	1964년생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4	양은순	여	1934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 제보자
15	오순만	여	1941년생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주 제보자
16	정복순	여	1944년생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주 제보자
17	정인권	남	1948년생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주 제보자
18	조순병	여	1936년생	서귀포시 하원동	
19	허정열	여	1924년생	서귀포시 하원동	
20	홍달표	남	1931년생	한림읍 귀덕리	주 제보자

○ 연구(조사) 방법: 문헌 조사, 현장 조사

- 1) 문헌 조사: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제주의 전통 옷’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정리하고, <제주어 구술 채록 조사 사업>(20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질문지 가운데 의생활과 관련된 문항을 기초로 연구진 회의를 통해 <제주 사람들의 전통 의생활 질문지>를 개발함.
- 2) 현장 조사: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제보자를 직접 만나 질문지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함. “옛날은 어떤 종류 옷감이 있어난마씨?”, “호상옷이엔 허여, 저승옷이엔 허여?”, “미녕으론 보통 무신 옷 멘들앗수과?”처럼 의생활 관련 내용을 제주어로 묻고 제주어로 구술하는 형식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의 전통 옷과 관련한 어휘와 문화가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또한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어휘나 관련 내용 등이 나오면 추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함.

○ 연구(조사) 범위:

- 1) 옷감의 종류-명주, 무명, 삼베, 모시 등
- 2) 옷감 만드는 과정
- 3) 옷의 종류 (1) 평상복, 노동복(갈옷, 목자옷, 물옷 등)
- 4) 옷의 종류 (2) 예복(혼례복, 상복, 수의 등)
- 5) 손질과 도구
- 6) 신발과 모자

〈표 2〉 현장 조사 현황(조사일 순)

번호	조사 일시	연구(조사) 지역	연구(조사) 내용
1	4. 23.	서귀포시 하원동	옷감
2	5. 27.	서귀포시 하원동	옷의 종류, 손질과 도구
3	6. 3.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옷감, 옷의 종류
4	6. 4.	서귀포시 하원동	옷의 종류-수의
5	6. 11.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옷감, 옷의 종류, 손질과 도구
6	6. 11.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옷감, 옷의 종류, 손질과 도구
7	6. 16.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신발과 모자-정당벌립
8	6. 24.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옷의 종류-우장
9	6. 26.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옷감, 옷의 종류, 손질과 도구
10	7. 1.	제주시 일도1동	옷감, 옷의 종류, 손질과 도구
11	7. 18.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옷감, 옷의 종류, 손질과 도구
12	7. 30.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감물들이기, 손질과 도구
13	8. 1.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옷의 종류-수의
14	8. 1.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손질과 도구
15	11. 16.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옷의 종류
16	11. 16.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신발과 모자-짚신, 옷의 종류
17	12. 18.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옷의 종류
18	12. 18.	서귀포시 하원동	옷의 종류

4. 연구진

〈표 3〉 연구진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연구 역할
연구책임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총괄, 조사, 전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공동연구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조사, 자료 확인, 자문
	권미소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조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김보향	제주대학교 강사	조사, 전사, 집필
	고순희	제주대학교 강사	조사, 전사, 집필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사진 및 영상 촬영, 전사, 집필

5. 주요 연구 내용

- 녹음 및 촬영 장비: 녹음기-소니 PCM-A10, 캠코더-캐논 FDR-AX100, 사진기-캐논 EOS-800D를 주로 사용함. 필요에 따라 휴대 전화 등도 보조 장비로 활용함.

- 자료 전사: 10개 지역에서 채록한 자료를 한글로 전사함.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은 **로 표기했고 제보자 외의 인물 중 실명이 거론된 경우는 ○○으로 표기하였음. 띄어쓰기 및 표준어 발화 표기는 「한글 맞춤법」을 준용함.
전사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를 의미함. 조사자가 여럿일 때는 @1, @2...처럼 표시하고, 제보자가 여럿일 때는 #1, #2, #3...처럼 나타내었음.
- 결과물: 책자 발간, 전사 자료 활용,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 구축
 - 1) 제주의 전통 옷 구술 자료집 《시집을 때 입어난 장옷 죽영 가명도 입곡》
 - 2) 제주 전통 옷의 언어와 민속 《제주의 옷, 그리고 제주어》
 - 3) 구술 전사 자료 《제주어대사전》 어휘 및 용례 자료로 활용
 - 4) 음성, 사진, 영상 자료 확보, 《제주어대사전》 및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 구축

〈표 4〉 조사 지역별 성과물

구분	조사 지역	성과물			비고
		녹음(시간)	영상(시간)	사진(점)	
1	서귀포시 하원동	5:55:29	5:39:22	958	
2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57:40	18:02	99	
3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2:13:16	1:54:14	53	
4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09:17	2:12:22	6	
5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43:00	1:27:08	552	
6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4:28:33	4:00:28	38	
7	제주시 일도1동	2:37:35	2:23:41	39	
8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16:53	2:00:09	41	
9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46:00	2:42:46	147	
10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27:39	1:25:31	357	

6. 기대 효과

- 제주의 전통 의복과 관련한 제주어 구술 자료를 구축하고 전통 옷 관련 문화와 어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사라지는 제주의 전통 의복과 관련한 제주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제주의 전통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음.
- 옷감 제작 과정, 옷의 종류 등 전통 의복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함으로써 제주어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와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함.
- 구술 채록된 자료는 전사하여 제주어 자료로 구축하고, 관련 어휘와 용례, 사진 자료 등은 《제주어대사전》 발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7. 자료 사진

7.1. 현장 조사 모습(조사일 순)



서귀포시 하원동 조사(2021. 4. 23.)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조사(2021. 6. 3.)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조사(2021. 6. 11.)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조사(2021. 6. 11.)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정동벌립' 조사(2021. 6. 16.)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우장' 조사(2021. 6. 24.)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조사(2021. 6. 26.)



제주시 일도1동 조사(2021. 7. 1.)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감물들이기' 조사 (2021. 7. 30.)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수익' 조사(2021. 8. 1.)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짚신 조사(2021. 11. 16.)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조사(2021. 11. 16.)

7.2. 주 제보자(가나다 순)



강만옥 씨(서귀포시 하원동)



김순생 씨(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김치호 씨(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박성지 씨(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송순원 씨(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송심자 씨(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송희순 씨(제주시 일도1동)



양은순 씨(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오순만 씨(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정복순 씨(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정인권 씨(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홍달표 씨(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7.3. 의생활 관련 도구



강만옥 씨 소장 '바농상자와 '줄레'



강만옥 씨 소장 골무



강만옥 씨 소장 '속돌'



강만옥 씨 소장 '씨부르는 물레'



강만옥 씨 소장 북



김치호 씨 소장 골무



박성지 씨 소장 재봉틀



양은순 씨 소장 '기지'



양은순 씨 소장 '바농상지'와 '줄레'



송심자 씨 소장 '도고리', '덩드렁마개', '돌혹'



송심자 씨 소장 '미녕 솔'



송심자 씨 소장 '윤디', '다리웨'



송월순 씨 소장 '다으개'



홍달표 씨 소장 '송곳'

II. 제주 전통 옷 구슬 자료

1. 서귀포시 하원동

(1)

- 조사 일시: 2021년 4월 23일, 5월 27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고순희
- 제보자: #1 강만옥 #2 조순병 #3 허정열

(2)

- 조사 일시: 2021년 6월 4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고순희
- 제보자: #1 강만옥

- 조사 일시: 2021년 4월 23일, 5월 27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고순희
- 제보자: #1 강만옥 #2 조순병 #3 허정열

성장 과정

@1 계난 옛날에 이런 거 만들어난 거영.

#1 이런 거 옛날엔 우리 어무니가 드러 이디 그자 밤낮 영 우리 어무니 미싱도 안 허고 손으로만.

@1 계난.

#1 느랑 이디서 헤난. 나 처녀 때에, 처녀 때에 계속 어머니허고 혼 방에 자곡 허멍 그 걸 느랑 봐난. 난 드러 혼펜이서 자당 보민 어머니 밤이 이디 저 호야불이엔 허민 알 건 가?

@1 예, 알주마씨.

#1 호야 모를 거라, 이 사름덜.

@1 따끄는 거예?

#1 알아져?

@1 예, 예.

#1 막 예려, 그거, 호야엔 헛 거 막 예려. 계민 기신 거 영 다끄다근에 보씩허민 벌러지고 허는 거. 싸기도 허꼭 허는 거. 그 남포동을 이 가운데 영 돌아메영 요만큼 그것에 허여 근에.

@1 계난 그 말 곱아 주렌 허는 거. 완전 좋아. 그 말, 그 말 듣젠 온 거.

#1 곱아 쥘 몰라. 옛날 사진이나 찍영 놔둔 거 영 봐시민 알카.

@1 겐.

#1 우린 어무닌 경만 허영 살앗주. 경허난 난 자당 보민 어멍 일 험고 돌르는 것도 저슬 예쯤은 장계가는 새시방네 어멍, 시어멍 뉘 사름이 오랑 메뉴리 줄 옷도 멩지, 옛날 멩지베 끼 엇이난 멩지 아경 오라근에 메뉴리 치메저고리도 몰라 줍서. 아덜 바지저고리도 몰라 줍서.

@1 아.

#1 아덜 도폭도 몰라 줍서 허주게. 경허민 우리 어무닌 앗앙 영 낮이 그걸 막 몰라줘. 몰라 주는 거 드러 앗앙 보고.

@1 계난 그 말 들어보젠 허는 거.

#1 경허난 난 오라방은 네 개고 나 하나만이난.

@1 천천히, 천천히. 삼춘 천천히. 우리 이거 녹음도 좀 하고 저 비디오로도 좀 찍어도 뉘쿠과? 요거 어디 방송에 나가는 건 아니고 삼춘. 방송 안 나가는 거. 우리가 잊어볼카부

텐 이거 다시 보명 책으로 만들젠 허멘. 삼춘이영 또 다른 디 바농질허는 삼춘이영 몇 명
행예, 옛날 바농질 영 헤낫저 허는 거 책으로 멘들젠 허난.

#1 어명이 느랑 어무니가 허는 거 낮이도 밤이도 봐나난 나 배우지도 원 안 헤도 영 허
여 밝주게.

@1 손재주가 타고 난 거지.

#1 배우젠도 안 헤 받.

@2 게난 눈으로 배운 거 아니파, 보명.

#1 일 재우난, 우리 어무니네 일 재우난.

@2 일 재우난.

#1 일만 못 허난 원 이 바농질허는 건 난 배우젠 안 허연. 봄만 헤난, 봄만 헤난.

@2 으, 봄만 헤난예.

@1 뭣도 헤난?

#1 경해도.

@1 베클 짜는 것도 헤난?

#1 아이고, 허곡 말곡.

@1 게난, 게난.

#1 베클도 영 발로 영 등기곡 흐루해원 영영영영 막. 아이고, 흔착으로 영 등기민 이착
으른 꼬리북이엔 현 거 있어, 요만이 현 거. 꼬리북 어디 싶저, 우리 집이. 그걸 영허게 영
데끼민 이짜더레 가민 이짜 손으로 확 마트고.

@1 맞아.

#1 탁허게 영, 영허민 또시 확 등기곡 허명 순환허명 양착으로 미녕도 나 막 차고.

@1 그거, 그거 물어볼 거.

@2 우리 완전 잘 와져신게.

#1 우리 어머니네.

@1 삼춘 완전.

#1 우리, 우리 집인.

#3 옛날엔 다 미녕 찻주.

#1 우린 우리 집인 특별히 저 대정면 신도에 가민 알주만은 옛날에 켜당은 하지 안헤도
강침이 우리 하르바님은 옛날에 글소장 헤나고.

@1 와.

@2 글소장.

#1 소장, 한문.

@1 훈장, 훈장.

#1 으, 말짜엔 훈장ㄱ장, 당훈장ㄱ장 허고. 대정향교 알아져?

@1 예, 알주마씨게. 사계에 이신 거예?

#1 대정향교, 대정향교에 매날 하르바님이 가. 매날 가곡 그디 글은 우리 하르바님네 찢
레 헤영현 두리막 입곡 현 하르방덜은 막 우리 집이 오라. 우리 할머님네 사는 집이 오민
막 밥 허영 멕이곡 우리 할머니가. 그추룩 허는 거 느랑 봐낫주게. 느랑 보고 우리 하르바

님이 흐 육십, 칠십 현 때, 현 때에 어디 막 여름에 ㄱ물아. 비가 원 안 오랑 비가 안 오민
기우젤 허여.

@2 으.

#1 기우젤 허여. 허민 건 어떻 허영 허느냐 허민, 기우제 허민 우리 세계에선 물어리오
름이엔 현 디가 잇주게.

@1 무슨 오름?

#1 물어리오름.

@2 물어리.

#1 그 오름 아래 바당이라, 저디. 이제 그 오름 우이 육각정 짓어졌어, 고산.

@1 고산에 이신 거? 그 오름이?

#1 차귀도 예염, 차귀도 예염에.

@1 예, 예.

#1 그 물어리오름이엔 현.

@1 수월봉?

#1 수월봉이엔 현 디가 물어리오름이엔 헛주게, 옛날에. 우리 아인 때. 경허민 그디 물어
리오름이엔 현디 이젠 수월봉 짓어도 그디 엄막 메어. 그디 오름이라. 오름이고 저쪽은 막
지픈 바당이라. 바당이민 그 물어리오름 아랜 저 바당으로 허민 산물이 막 나고 그 궤 닭
은 디로 산물이 막 나민 여름인 물 맞으레 막 가민 물 맞으레 가근에 물 막 맞앙 박박 털
영 얼민 바당더레 나강 물 베껏더레, 물 영 소곱에서 맞앙 시앙시앙현 디서 맞앙 얼민 요
디 베껏더레 나오민 돌 빌레 앞더정 막 몸 풀령 또 들어강 맞고 그 물어리오름이 잇주게.

@2 그거 백중날 현 거?

#1 이젠 그 오름에 나 노인정으로 간 보난 육각정 짓엇언게.

@1 맞아, 맞아.

#1 나 드러 탕겨난 디.

@1 계난 삼춘은 원래 고향은 어디?

#1 신도삼리.

@1 계난 신도서 고산까지 물 맞으레 간 거?

#1 으, 그디 옛날에 물 맞는 디가 그디가 젤 잘, 맞는 좋은 디난 영 아래.

@2 영 아래.

#1 바당으로 가민 영 알이라. 곤는 거 몰라. 지네 안 봐나난 몰를 거라.

@2 맞으레 다녀났수다.

#1 어?

@2 물 맞으레 가난마씨.

#1 어느 디라, 고향이?

@2 저디 구완디예, 우리는 하도 가신디. 삼춘 그거 백중날만 간 거, 아니면 다른 때도?

#1 백중날, 백중날.

@2 그지예, 백중날.

#1 어명이 다른 날에 가지 못허게 허주게. 저르정.

@2 아, 맞수다. 저르정.

#1 백중날 가젠 허민 어멍 ㄱ라 아이고, 백중날랑 요 아무 아이도 가켄 험서. 나 가쿠다양, 가쿠다양 드러 스정허영.

@2 맞수다, 나도 가쿠다. 나도 가쿠다예. 좋아, 그날 가민 먹을 거도 가정 가고.

#1 개역 허영 옷곡게. 옛날은 새당대죽이엔 현 거 있어.

@2 예, 맞수다.

#1 그거 뒤에 마릿대 막 싱것당 막 허민 두어 모작씩 건 ㄹ디 요만씩 허는 거난. ㄹ디 ㄹ디 요만씩 동 즐랑 무경 옷곡 개역 현 거, 항구에 개역 헤영 옷곡 헤영 물 맞으레 백중날이나 가주, 그날사 다른 날사 가지느냐, 일허젠 허민. 못 가 당최. 계난 우리 어무니넨 일이 워낙 하 부난 바당에도 영 못 가게 허난 바당에도 가 본 도래 엇곡이.

@2 밧이 막 하낫구나, 삼춘네.

@1 부자라낫어.

@2 밧이 막 하낫어. 삼춘네예?

#1 어?

@1 부자라낫어.

@2 밧이 막 하낫어?

#1 밧이 하곡 식게 멩질이 하곡 종손이라부난.

@1 부자집이랏어.

#1 종손이라부난 막 슬허여 낭 항아리에 담곡 드러 다끄곡 고소리에 앓정.

@2 들을 거 하수다.

#1 경혜사 식게도 허고 또시 대소상 돌아오라 가도 막 아이고, 나 선선행 곤지 못 현다.

@1 하하하.

#1 경허명 막 살아낫주. 생전 놀레 흔 번 못 가 보고 아이고, 고생 죽게 고생허영 살았저. 이제 일 한 집이라부난. 경허명 우리 하르바님은 그추룩 행 살곡 허난 종손이고 식게 멩질이 막 하주게. 우리 어머님네. 경혜 불민 아이고 식게 멩질헐 거 소주 허영 다끄곡 줍 썰허영, 조 익영 ㄱ슬 들민 조 허영 ㄱ루 ㅂㅅ. 남방에에, 남방에에 영 영 허명 ㄱ루 ㅂㅅ 오메기 허영 솟디 숲양 누룩 허영 서경 막 날ㄱ라 찌렌 막 허연. 드러 찌나고. 항에 술 허여 노민 그거 청주로 허영 앓정 우이 거 장물 닳아. 별정허고 장물 닳은 거 우이 거 거렁 놔뒤사 또 집이 식게 헐 때도 씨곡, 또시 어디 누게 엇텐 허민 줌도 허곡 그추룩 허명 술을 다끄는 술 트나고 청주 허는 술 트나게 허는 거 것도 경. 청주허는 술은 오메기허영 찌명 허는 건 누룩도 보리쌀 곶앙 티와사 누룩도 허고 또시 다끄는 술은 곶보리 곱저근에 차룽에 불랑 누룩 허엿당 허곡 나 아니 허여 본 것이 엇이.

@1 계난.

#1 집이 살명 문딱 헤나난 문.

@1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보쿠다예.

@2 천천히, 천천히.

@1 겐 물어보는 거 곶아 줍서예.

#1 나 모르켜.

@2 천천히, 천천히. 우리 물어보는 거. 하나씩.

제보자 정보

@1 삼촌 이름은 무신거마씨?

#1 이름?

@1 으.

#1 강.

@1 강.

#1 일만 만, 구실 옥 제.

@1 와, 이름도 완전.

#1 으게.

@1 구슬이 만 개?

#1 으게, 으게.

@1 이제 나이 올리 멧 설이파?

#1 삼십이 년생이난 우리 나이로 구십이여게. 만으로도 팔십구 세나 뒤텔일 거여.

@1 무신 헤치라?

#1 즌나비띠, 원생이띠. 띠는 원생이띠.

@1 학교는 뎡겏수파?

#1 학교는 이제 일제시대에 무릉리 뎡기젠 허난 막 머난.

@1 으.

#1 신도삼리 저 고산 남군, 북군 경계 현 디여게.

@1 예, 예.

#1 무릉리꺼장 허민 막 멀어. 머난 옛날은 신도 고무신이 엇언.

@1 으.

#1 찍신 삼양 주민이 발칙이 문 뵈겨지민이 저 머리터럭, 우리 어머님 머리터럭 저 빗어 나민 영 모영 낫당 머리터럭으로 이디 문 감아주민 그 찍신 신영 일본에, 저 일본 학교 가 낫져. 경허명 발칙이 뵈겨지민 신 맨발에 벗고 신은 들르곡. 경허명 뎡기단 실프난 설러변.

@1 잘헛수다.

@2 계난 얼마나 뎡긴 거라 멧 학년꺼지? 일 년?

#1 흐 삼 학년 초 나난, 삼 학년 초 나난이 일천구백사십오 년.

@1 해방뒤텔난.

#1 팔월 십오일날 낮 열두 시에 해방이 뒤텔. 해방 뒤텔난 우리나라 글을 이젠 좇앙 흐다 허난이 아이고, 아이 뎡견.

@1 하하하.

#1 일본 학교 뎡겨난 디도 칠십멧 년 뒤텔어 노난 잇어불곡이. 살렘살노렌 허난 막 바쁘게 살곡 기뻝히게 살아 부난 옛날 공부헌 건 생각허여 볼 시간이 엇영 못 허여라게. 다 잇어 뵈 몰라.

@1 계난 멧 설에 시집옴디가?

#1 스물두 설에.
 @1 스물두 설에. 이디 하원 사름?
 #1 으.
 @1 하르부지는?
 #1 으, 으. 이디 하원 사름. 스물두 설.
 @1 중간에 어디 육지 나강 살아 봅디가?
 #1 아니, 육지도 아무것도 우린 안 해 본 사름. 아은 때도 원 장시엔 현 거 안 해 보고
 일만, 집이서.
 @1 물질 같은 것도 해난?
 #1 으?
 @1 물질해 받?
 #1 아이고, 어느 제 물질허고.
 @1 바다엔 한 번도 안 가 받?
 #1 물질할 줄도 모르고, 우리 하르바님이 바당 못 가게 한다, 이젠. 물질 당최 어느 저르
 에.
 @1 계난예.
 #1 하늘 노픈 더레 씨 삐염젠 허명 바당에 물질허는 거 우리 하르바님은 막 춤 바깥 안
 허, 못 허게.
 @1 아까 무신 거렌?
 @2 하늘에 뭐? 바당 하늘에 뭐?
 #1 예, 예 못 들어지건 속숨허여.
 #3 영 즘수털 영 기들민.
 @1 아.
 #1 하늘러레 씨 삐얌젠 허명. 해너, 해너 허는 사름 메누리도 안 허여, 메누리도 안 허
 여.
 @1 천허게 방예?
 #1 어, 추접힌 거엔 헤영. 이제난 스뭇 하늘 우터레 모섬주. 나라에서 스뭇. 옛날엔 경
 안 헛저게. 계난 바당에 그냥 메역 툄으레도 가지 못허게 허여, 바당. 빠정 죽으카 부덴산
 디. 우리 어무니가 더 못 가게 헛주. 하르방보단.
 @1 계난 아부진 신도 사름?
 #1 으게, 우리 친정. 우린 하르바님이영 그디 본토베기.
 @1 아, 본토베기.
 #1 이디도 시집오란 보난 이디도 멧 대 본토베기.
 @1 계난 바느질은 멧 설 때 배웁디가?
 #1 멧 설에 뭐, 여남은 설 육아가난 어멍 허는 거 드러 봐나난 거주, 나 배와 보진 안
 허여. 본 거뿐.
 @1 본 거뿐.
 #1 문여 때 온 사름은 저 양제혹교 무신 거, 멧 회 무신 졸업생으로 나옴디가 헛게 양제

학원이 뿔산디. (모두 하하하) 문여 온 사름 경도 들어라. 들어 갖저.

@2 할머니 진짜.

@1 계난 다 어무니안티서 배운 거지예?

#1 어, 어명안티 뭐이든지. 줌수 속곳도 나 잘헤진다.

@2 물에도 안 들어신디 어명 속곳을 만들었어. 늬의 거?

#1 으?

@2 물에도 안 들어신디 속곳을 만들었어?

#1 으.

@2 늬의 거?

#1 물레 아이 텅겨도 드리 속곳은 잘 헤진다. 속곳도 잘 헤진다, 나.

@1 주로 무신 옷, 무신 옷 이제까지 만듭디가? 호상옷, 저승옷 허고?

#2 옷 헤 봤어. 일만 허단에 일 설르난 옷 시작헷주.

@1 아.

#1 아니, 젊을 때 일 재왕.

#2 농서 짓단 설러 부난 헷주.

@2 계난.

#1 허리 수술허연 이, 팔십 나난 팔십에 허리 수술 허연. 서울 강남 강 허리 수술 허난 일을 못 헷주. 밧덧일을 못 허연.

@1 으.

#1 늬의 일 허레 강 일당 벌레도 못 텅기고 경허게 뒸난 그 전이 바느질은 흐썰썰 헷주 만은 이추록 전업으로 허진 안헷주게.

@1 나이 들어서?

#1 나이 들고 일 못허게 뒸고 허리 수술헤 부난 드룻일 못 허게 뒸난 이거 허여 가난 흐 사름 오락 두 사름 오락 허영 그자. 나 옷 헤 가난 수정 세지도 못허크라.

@2 아이고.

@1 계난 주로 이거 수의 허는 것만 많이 헷수파?

#1 어게, 수의 허는 거 많이.

@1 수의엔 곶아? 호상옷이엔 허여, 저승옷이엔 허여?

@2 옛날말로 곶읍서.

#1 옛날은 저승옷이엔만 곶앗주게. 이젠 수의라고 허여.

@1 옛날말로.

#1 옛날말은 저승옷.

@1 저승옷예.

#1 우리 어무님네 헐 때 저승옷이엔만 헷주.

@1 계난 저승옷도 허고 물옷도 허고 갈중의도 허고 다 만들어 줘수파?

#1 어, 갈중의도 허고 갈적삼도 허고 막. 그건 더 허기 좋주 뭐.

@1 이런 옷 만드는 게 돈 하영 법니까?

#1 아이고, 못 번다게. (모두 하하하) 옛날 우리 어명 헐 때도이 저승옷은 막 헐허여. 돈

얼마 안 줘.

@1 저승웃은 헐허여.

#1 우리 어무닌 돈은 안 받안 그자 일만 빌어 헤라게, 일만 빌영.

@1 아, 일로.

#1 그냥 일만 빌영 허고. 우리 어무니도 동네에서 오랑 허여도라, 허여도라 허민 허주 일 재와근에 경 허지도 못허주만은 미녕 질쌘 하영 허고 어무니가 허난 그자 경 돈이나 받 앙 허진 안허여, 우리 어무니도. 그자 일이 재우난 밧덧일 허지 못허난 이런 거 헤 주민, 남저 어른덜 소게 놓게 옛날은 바지저고리 혼불 헤 주민 일 하루씩 헤 준다.

@1 아.

#1 또시 장게가는 사름 도복도 하나 헤 주민 일 하루 헤 주고. 그추룩만 헛주게. 또 미녕도 메도렌 허민 늬의 집이 강 미녕도 영 메는 알아지카, 느네?

@1 예, 예.

#1 영 영 썰명.

@1 밑에 뭐?

#1 영 영 썰고 아래 불살르고.

@1 ㄱ시락불 살황.

#1 으, ㄱ시락불. 알암구나, ㄱ시락불. ㄱ시락불 살황 허난 그거 하루 메어 주민 정 혼 근씩 좇아 준다. 경허민.

@1 무신 거 헤 준다고?

@2 정 혼 근?

#1 소게 영 폐운 거.

@1 소게 영 한 거?

#1 영 영 미녕 좇는 거.

@1 어, 어 그거를.

#1 그런 거 혼 근씩 좇아 줘. 미녕 강 하루 메어 주민. 우리 어무니 강, 우리 어무닌 워낙 기술이 좋아 노난 못 허는 것이 엇주게. 막 잘허영. 계난 하루 강 늬의 집이 강 메어 주민 정 혼 근을 좇아 줘. 경허민 서 근이민.

#3 좇는 건 알아져?

#1 좇는 건 알아져?

@1 영 영 허는 거.

#1 어, 실 빠는 거. 경허민 그 정이 서 근이민 혼 빌을, 마흔 잘 멘들아.

@2 서 근이민 혼 빌.

#1 혼 빌이 마흔 자고.

#3 서 근이민 혼 빌 현다.

#1 서 근이민 혼 빌 현다. 경허난 동넛 할망이 메어 도렌 허민 메어 주민 정 혼 근씩 좇아 준다게. 경허민 우리 어머니 미녕도 혼 열 댓 빌 현다. 겨울 봄ㄱ장 허영. 허곡 일 년 열두 달 베클은 설르지 안허여, 우리 어머니. 밧거리에 영 정지 잇고 구들 잇고 밧거리 저펜이 쉼막 잇고 허민 이 정지엔 옛날, 이제 부억이 정지엔 허주.

@1 예, 예.

#1 정지엔 문펜이 흰헌 디 베클을 노민 만날 설르지 안허여. 일 년 열두 털 삼 년 스 년 그냥 놔 뒤.

@2 그냥 놔 뒤.

#1 만날 걸어 놔 마에도 아래 불 화리에 불슬라근에 마에도 미녕 차고 항상 경허영.

@1 음.

#1 일만 못 행 살아나난 난. 경허민 그 안넨 부억, 밧거리 정젠 요딘 베클 놓고 안넨 남 방에 큰 거 남방에 놔. 경허민 그디서 ㄱ루 뺏으멍 식게 멩질 때만 남방에, 남방에 놓고. 경행 밧거리에 생전 베클 끄치지 안허영 느랑 싱근 냥 놔 두서 경 미녕을 윈. 시상에 마에 도 허고 여름에도 허고 설를 때가 엇어, 엇어. 어떤 할망은 또 늙은 할망이 메지도 차지도 못허는 할망 좃음은 허주게, 좃음은 허영 허민 미녕 헤 도렌 허민 혼 서너 빌, 멧 빌 헌 거라도 허민 우리 어머니 ㄱ라 마탕 헤도렌. 마탕 헤 도렌 허민 마탕 헤 쥘 허민 또 일 빌 영 허고. 그런 식으로만 허명 막 저르지게 난 살아나난.

@1 계난 이거 옷 허는 게 나쁜 점이 무신 거가 나쁜 건고? 눈 나빠지지 안헤?

#1 난 눈 나빠지지 안헤. 몰라, 그런 거.

@1 손콧도 다 헤싸지고 안 험니까?

#1 어뎡 안 헌다.

@1 에이구, 윈 천직인게.

#1 경 하영 안 험세계. 이땅 흥나 두 개 오민 놀당 허곡 쉬멍 허난. 건 걸어놔 밤낫허곡 아칙이 시작허민 어둑도록 허곡 그런 것이 아니. 나 흥끔씩베끼 안 험세. 흥루해윈 앗앙 허 지 못헌다. 허리 문 오그라지고 다리 오그라지고 견지 못허여. 계민 혼 멧 시간 허당 나가 근에 저디 강 흥썰 뎡기고 이레 그냥 녹곡 누윙 허리 폐우고 경 많이 허지 안험주게. 허지 못헌다, 나 아팜.

웃감 종류

@1 요즘은 다 공장에서 나오고 허지만은 옛날은 이런 웃감이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잇 어마씨?

#1 옛날 스뭇 옛날 일제시대엔 웃곰이 윈 엇엇저게. 엇으난 광목도 어려와. 광목도 엇언 나 시집올 때, 나 스물들에 시집올 때 저 웨아울, 저 웨울 미녕이엔 헌 거 싯저. 웨울, 올 실 멘들아 논 거 막 가림으로 헤단 풀앗어, 옛날. 그런 거 사단에 우리 어무니가 베클에서 짠 그거 문 실 문 미녕츄록 문 허영 놀앙 문 메연에 미녕 허는 식으로 웨울 사단 미녕 허 영 그거 바레연에 나 시집올 때 이불안 헛저. 광목도 어려완. 광목도 엇언.

@1 계난 미녕 허고 멩지 허고.

#1 멩진 우리 세겐 안 허여. 이딘 시집오란 보난 이딘 누에 질렁 멩지 험선게.

@1 아.

@2 신돈 안 허고?

@1 신돈 안 허고?

#1 신돈.

@1 화순은 허고? 아니 여기 하원은 허고?

#1 어.

#2 하원으로 저 동더레만.

#1 이딘 멩지 허염고, 오란 보난.

@2 예, 예.

#1 누에 밧도 잇고.

@1 계난.

#1 저딘 옛날에 우리 할마님 때엔 우리 할마님은 멩지 허연에 허난에 멩지 우리 할마님은 누에도 질러나고 멩지도 행 차나고 헤난에. 누에도 싯, 누에낭이 셔, 누에낭이 그 저 뽕낭이. 우리 집이 뽕낭이 막 셔. 겨난 나 역은 후제 멩질 아이 질라라. 아이 질환 미녕만 헤라. 경허민 미녕은 허민 제주시에 가근에 우리 아버지가 강 풀아와. 미녕은.

@1 아.

#1 제주시에 강. 걸영 강 옛날에, 걸영.

@1 모실포장에 안 허고.

#1 모실포장에도 가도 제주시에 강 옛날에 하영 풀안게. 제주시에 강. 전짐으로 지영 강 풀고. 아버지가 경헨게. 사례도 움도 허곡.

@1 무슨 짐으로 정 갖다고?

@2 전짐?

#1 미녕을 허민 저 짐으로 지영.

@1 그걸 전짐으로 정?

#2 포따리에 싸근에.

#1 걸랭이로 지영 아버지가. 일주도로로, 이제 일주도로로 아이 강 어디 산으로 감젠 허여라, 옛날에. 우리 아버진 제주시에 텅겨나난. 제주시에 가근에.

#2 무사 시엔 브딜 거우다, 신도서. 호근리선 산으로 가민 낮전이 간텐 허주, 아척 인척 가민.

#1 경해도, 경해도 우리 아버지도 산으로 감젠 허여.

#3 이디서 걸영 우리 할머님이 유수암을 자꾸 가.

#1 유수암. 우리 아버진 걸어근에 산으로 감젠 허여.

#2 산으로가 브디지. 할락산으로가.

#1 으, 일주도로로 감젠 안 허여. 겐 미녕 강 풀아오고.

#2 산으로가 브딜 건디 시에난.

@1 계난 옛날엔 아까 멩지하고 미녕하고 모시, 삼베 이런 건 엇어났수과?

#1 그런 거 안 허여.

#2 저 동더레가 헛주. 삼베 갈아근에 영 벳경 숲앙 벳겨근에 또 뽕앙 헤영케.

@1 음, 음.

#1 뽕고 그건 막 손으로 채명이 영 영 허명 막.

@1 맞아.

#2 다리에서 영 영.

- #1 공들어. 어디 육지 그런 디, 삼베 허는 디 실 거라. 이제.
- #2 제주도도 ㅎ씩ㅎ씩 ㅎ수다.

명주

@1 ㅎ나씩 다 다시 물어보쿠다예. 멍지부터 차례대로 물어보면 멍지는 무신 멍지, 무신 멍지 ㅎ라 종류 잇수과?

#1 아니, 이디서 누에 질룬 거 그자 이디서 토멍지엔 허엿주게.

@1 아, 토멍지엔 곱앗수과?

#1 으, 토멍지엔 ㅎ날 허엿주게. 누에 질랑.

#2 잇엇어, 막 줌진 거.

@1 아니, 뭘 이거 생멍주 이런 건 ㅎ엇수과?

#1 익이지 안허민 생멍주엔 ㅎ고 ㅎ앙 익이민 그냥.

@1 멍지엔 ㅎ고?

#1 멍지엔 ㅎ고. 생멍지엔 ㅎ 건 저 왕상허영 곧 짜 낸 것이 생멍지주게.

@1 음.

#1 누이지 아년 거.

@1 누이지 안헌 거.

#1 누이지 아년 거. 누여사, 누여사 영 저승웃 허는 거.

@1 누이는 건 어떻 허는 거과?

#1 거 ㅎ갓국 허영 ㅎ는 거?

@1 ㅎ갓국?

#1 저 불치, 불치.

@1 불치.

#2 재에 물 삭삭 꿰민.

@1 곁 ㅎ갓국이엔 곱옵니까?

#2 ㅎ갓국이엔 곱주.

@1 아.

#1 물.

@2 재 ㅎ 물 ㅎ 꿰민 거?

#1 음.

@1 물 꿰민당 재 ㅎ, 아니면 ㅎ치 ㅎ 꿰여?

#1 아니, 물이 드뚝허게 데왕.

@2 예.

#1 저 다라에 퍼 ㅎ. 퍼 ㅎ 불칠 놓지. 노민 활활 ㅎ이민 우린 미녕 ㅎ을 때도 경헌다. 활활 ㅎ이민 우이 불경도 트곡 무신 나쁜 버랭이 닳은 것도 아래 ㅎ라앗을, 추접헌 ㅎ덜 서. 티도 들고 경허민 저 무신 ㅎ날 차룽으로, ㅎ 차룽으로라도 영 그곁 영 ㅎ던데레 영 거려 노민 곱인 건 그 차룽데레 앓곡 곧.

@2 물만.

#1 그 재 물만 알려레 골라. 겐 골르민 다라에 큰 장테에서 미녕이나 멩지나 너비 다 풀어. 짓 부병 다 빨아놔사. 그냥 생멩지로 허는 것이 아니라. 미녕도 경허고 멩지도 난 경헝 허여낫어. 나도 경. 영헝 털어근에 영 영 물장테에서 영 영 골로로 잣물을 골로로 맥여. 골로로 맥여근에 즈근즈근 즈근즈근 맥이멍 즈근즈근허게 낡 골로로 다 물 맥여 놔근에 장테서 허여근에 솟더레 답아근에 물도 하영 놓고 허영 뉘씩 가리척 무신 낭으로나 부지뎡이 로라도 무신거 부지뎡이 검은 걸로 허민.

@1 더러워 불어.

#1 검은 걸로는 안 뉘고. 깨끗헌 낭으로 허여근에 영 뉘싸 낡도 허고 둘렁도 숲고 경헝 막 숲아사 뉘는 거. 경헝사 익은 멩지 뉘영 이추룩 뉘는 거.

@2 아, 게민 그.

#1 그걸 또시 숲아 노민 꼬골꼬골허곡 막 배 모양으로 뉘주게. 숲앙 그추룩 헤 노민, 빨곡 누리곡 막 허당 보민 경 꼬골꼬골 허민 그걸 이제 저 곤썰 풀, 멩지 곤썰 풀을 곤썰을 썩 죽쳐룩 헤영 주머니에 짜근에 멩지에 걸 풀 허영 막 잘 막 두드렁 영 너비 앓곡 개곡 허영 안반, 돌안반 허영 이디 딱 지들랑 놔두고 뽕곡, 또 막 낼은 오늘 경에 헝 낼은 또 앓아내영 또 영 헤영 고비 베졌더레 가난 고빈 안터레 가게 허곡 건 어뎡 허영 경 허냐 허민 지러길 영 허영 요만큼 처음엔 이만큼 질게 심영 개엇당 말짜엔 요만이 즐르게 개엇당 경허민 고비가 다 서꺼지멍 베졌더레 가난 거 안터레 가게 다 경허는 거라. 경허민 문 불르멍 멩지 푸답허젠 허민 막 공들어. 막 힘들어. 그 경허영 으라 번 돌 안반으로 막 지들락 지들락 막 허당 뱃디 강 널영은 안 뉘는 거. 안에서만 경 손 보멍 막 두드리멍 허다근에 말짜엔 거자 문 물람저 허게 뉘민 흥짓대엔 현 거 알카?

@2 예, 긴 거.

#1 으.

@2 낭 긴 거예?

#1 으, 깨끗허게 다듬은 거, 이만큼 현 거. 그것에 막 잡아 멩기멍. 혼자만은 거 잘 안 뉘어.

@2 감앙.

#1 마주 앓아근에 영 멩기멍 빵빵허게 감아근에 무시걸로 딱 허게 꼬네끼로 딱 실로라도 딱 즐라메영 뉘고 두드려사 멩지라.

@1 음.

#1 막 두드려사 그 멩지 올발이 납작허여근에 빈직빈직빈직허게 곱곡 경 제라허게 더 이제 그추룩 제라허게 다듬는 사름은.

@2 그거 물릴 때는 그늘에서만 물려야 뉘 거?

#1 처음 풀 맥영 넌 때 베졌디서 물류고 시득시득 물려가민 들여다근에 그늘에서만 헤사. 다시 뱃디 가문 당초 두드려도.

@2 왕상헤불어.

#1 두드려도 왕상헤영 안 뉘는 거.

@2 예, 그 잣물에 담글 때는 그 잣물 식은 후에짜? 아니면 딱뚝할 때.

#1 딱뚝헌 때 헤 가민 문 식어.

@2 아, 예, 예.

#1 계민 식어도 그냥 담아 놔. 물도 노고록이 빨래보단 흐썩 우터레 치박치박 올리게 허영 숭아사.

@2 계민 잣물, 잣물 헨 거 그거 다 행구지 안행 그냥 물에 낵 숭을 거?

#1 어, 다라에 거 다 비와 놓고 물이 족암직허민 그냥 한 물이라도 더 낵 노고록이 물 놔근에 뉘썩가리착 숭아사, 경혜사 뉘는 거.

@2 으.

#1 경혜여근에 또 빨아도 뽐도 잣국을 얼른 허게 빨아지지 못허게 또 빨앙 놔두민 옷이 뉘 삭아부는 거.

@2 거 다 행귀 내야 뉘 거예, 잣물 이신 거예?

#1 막 잣물 엇이 잘 행구고 이제 오닐 빨민 이 저녁은 큰 다라에 그거 영 등가근에 우려. 물 두어 번 새 물 곶아 노명 우려. 내일, 널 아침사 널고 우리고 깨끗허게 혜사 저승옷으로 오래 백 년이라도 놔두고 경허는 거주.

@1 계난 이게 멍지지예?

#1 이거 멍지. 이진 이제 육지 기계로 허연 흙치 다듬으멍 이제 푸는 거여게.

@2 경행 헨 게 멍지잖아예? 계민 토멩지는 뭐가 달랑 토멩지렌 불르는 거?

#3 ㄴ사 허듯 헨 것그라 토멩지.

#1 토멩지엔 헨 거 이디션 누에 질탕 이녁으로 헨 것이 토멩지.

@2 계난 우리가 만든 걸 토멩지렌 허고, 이런 거랑 비교행 토멩지렌 허는 거고.

#1 이진 육짓멩지게, 기계로 뉘.

@2 으.

@1 겐 멩지론 주로 어떤 옷 뉘들아마씨?

#1 멩지론 주로게.

@1 아까 저승옷도 허고.

#1 저승옷 다 멩지로 뉘들고 베로 허는 사름도 시메. 베로 허는 사름, 삼베로 허는 사름도 싯고 어디 삼베 고단엔 베로만 허고 멩지로 허지 안허여. 다 삼베로.

@2 제주도도 베로 허는 디 잇수파?

@1 삼베 고단 잇수파?

#1 삼베 고단 육지.

@2 계니까 육지 말고 제주도, 제주도?

#1 제주도는 엇어.

#2 비쌍 못 허여.

@2 계난 제주도도 베로 허는 디가 이실 건가, 엇일 거라예?

#1 제주도 베 허는 디가 엇일, 모르켜게. 우리 성산포레 저레 가 보지 안허난 모르켜.

@2 예, 예.

@1 멩지로는 저승옷 말고 다른 옷은 어떤 거 만듭니까? 시집갈 때 입을 거?

#1 옛날에 시집갈 뉘게 멩지르게 뉘은게 장옷도 허여 주고 바지도 헤 주고 치메저고리도 헤 주고 다 헛주게. 옛날은. 겐 멩지에 물 들어근에 이불겍죽도 다 헤 주고. 옛날은.

@1 이불도?

#1 기계 엮은 때난게.

#2 기계 엮은 때난.

#1 계난 멩지로 다 시집갈 때에. 우리 시집갈 때엔 멩지 이불 겹죽 나 안 헛저.

#3 나 만딱 멩지로 행 가났어.

@1 부젯집인가 봐.

#1 난 멩지로 해영 안 오랐어.

#2 흥뽀 앞이우다게.

@1 삼춘 뒤로 헛수과, 멩지로 안 행?

#3 저 ㄱ뽀 헛에 가, 아니 흥뽀 나가.

#2 앞이 갓수다게.

#3 흥뽀 앞이주, 흥뽀 앞. 열여답에 가난.

#1 열여답에 간.

#3 그 해에 음은 허고.

#1 어근지근허게 왔어.

@2 어근지근.

#1 경헌디 난 멩지로 안 헛어. 이던 멩지 이녁 손으로 허난에.

#3 짓은 붉은 거 허고 꺾데긴 푸린 거 허고.

#1 으, 경헛주게. 다 계난 멩지로 헛어. 이 근처에, 이던 멩지 질루는 디난.

보조 제보자 정보

@1 계난 삼춘은 멩 설이나 뽀 삼춘이과? 이 삼춘이영 비슷한 거 닳다.

#3 아니, 아니. 나 네 설 알.

@1 네 설 알. 팔십육 세.

@2 열여덜에 시집간?

(모두 하하하)

@1 삼춘은 멩 설이과?

#2 난 삼스년 생.

#1 이 할망은 막 늦게 완.

@1 삼십사 년생. 두 살 밑에.

#1 이 할망은 막 늦게 온 할망이난.

#2 난 늦게 완.

@1 계난 삼춘은 일름이 뽀?

#3 나?

@1 으.

#3 조순병.

@1 조순병. 남자 이름 닳다.

#3 병자 생이난에.

@1 삼춘은?
 #2 난 허정열.
 @1 허정열 삼춘.
 @2 좋다, 좋다. 오늘 좋다.
 @1 다 이디 하원 삼춘덜이파?
 #3 난 하원서 나고 하원서 시집오고.
 @1 시집오고.
 #2 난 호근리.
 @1 아, 호근리. 호근리 삼춘인디 이디 하원에 시집완?
 #2 으.

누에치기

@1 아, 기구나예. 자 아까 허던 거 다시예. 누에치기, 누에는 옛날에 어떻 질르는 거파?
 #1 몰라. 이 사름덜이 질헛주.
 #2 뽕 헤근에 뽕 툇아당 좀박에 영 칸칸 메어.
 #3 체얌으로 허민 그 저기서 온 거가 잇주게. 무시거 시민.
 @2 알, 알. 누에 알.
 #3 알이 이시민 그거 올라와.
 #2 흔 봉지 두 봉지.
 @2 게니까 누에 알을 멧 판이나 살 거?
 #3 흔 판, 두 판 허주게.
 #2 흔 판 이만은 헤실 거라.
 #2 겨민 흔 종지, 두 종지 헤낫어.
 @1 흔 종지, 두 종진 뭐라. 그 판 허고 뭐가 달라.
 #3 그 판 ㄱ튼 거라도 흔 종지가 그것가.
 @1 아, 판이엔 곤지 안허영 흔 종지엔 곱앗수파?
 #2 흔 판은.
 #3 흔 판은.
 #2 스물으담 종지산디.
 #3 서른 종지 산디.
 @1 속에 종지가 잇구나.
 #2 삼십 종일 거라.
 @1 계란 한 판이네.
 @2 이제 한 판이 삼십 종지.
 #3 경허민 족영 현 사름은 흔 일곱 종지 도라. 열 종지 도라 허주게.
 @2 계민 볍서예, 이 방 하나에 키울 거라.
 #3 경허민 나오라.
 #2 이디 흔 반 들 거라. 칸칸 메주게, 종간 메영.

@2 이디 칸칸 메는 건 뭐렌 헤여?

#1 층기층기 메어근에 그디.

@1 잠깐만예, 한 명씩 한 명씩. 헛갈려. 삼춘이 먼저.

#3 왕대 헤 갖고 커 카면은 누에가 요만씩 커 가면은, 그 족을 때는 영헌 거 차롱에 놔서 키우다가 막 커 가면 그 종간 메어.

@1 종간이 메어.

#2 여기.

@1 종간이 무신 거파?

#1 집 짓는 디 칸 영 영 허듯이게.

@2 선반, 선반 메는 거예?

#1 으, 선반.

#3 이만이헌 것에 놔근에, 누엘 놔근에 썩 찢러다근에 주젠 허민 꺼내영 뽕 쥘 썩 들이 밀곡 허단 또 그거 다 허민 다 먹어근에 크면은 그거 올릴 때가 돼지. 올릴 때가 돼 가민 알아지주게. 영 영 영 영 누에가 고개 막 돌려. 경혜 가면은 그레 이레 한 칸씩 우에로 그 무시거.

#1 마부세 멘들아.

#3 마부세 만들던가 뭐.

@1 마부세가 뭐?

#1 그 짝으로 영 흐 줍씩 그차근에 저 노곳에 꿩영 영 뽕뽕 돌려가민 카스카스허여.

#3 경허민 그거 줍박더레 놔근에 올르는 것만 갈리멍 툽툽 허게 그레 놔두주게.

@1 예.

#3 놔두민 지대로 그거 고치가 요만씩 짓어. 경혜여근에 가근에.

#2 기쟁이로 싸주게, 불습으멍.

@1 으.

#3 숲으멍 흐착 손으로는 영 영 흐착 손으로는 영 영 둘루멍 싸.

@2 삼춘, 삼춘 그 누에 질룰 때 기르는 과정이 기간이 길잖아예. 한 달은 질러살 거 아니?

#3 거자 흐 털 허주.

@2 게민 줍자는 것도 곱아줘야 돼고, 누에 먹이 주는 것도 촌촌히 곱아 줘야 돼. 한꺼번에 통으로 곱아 주지 말앙 츠츠츠츠. 게난 이거 판이렌 허민 판에 어떻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선반 만드는 것도 잘 몰라.

#3 줍자는 거.

@2 예.

#3 누에가 줍자는 동안에는 뽕도 안 주고 ㄱ만히 놔두민 줍 흐루쳐낙좁.

#1 흐룻밤 흐루.

#3 흐룻밤 흐루좁 자면은 것가 깨어나. 깨어나민 또 알아져. 또 먹을라고.

#1 먹젠 고꺄 영 영 들르지.

#3 경 안 헐 때는 ㄱ만히 줍자. ㄱ만히 줍자고.

#2 경 즈잘 땀 먹을 거 주지 안히고.
#1 문을 영 더끄민 고치가 닳아 불영 못 싸, 열아야.
@1 무신거 해 불어?
#3 아니, 건 마지막이주만. 헤영허영 그거 크민 네 번 자신가 세 번 자신가?
#1 네 불 즈 잣젠 헛수다.
#3 네 번, 네 번. 네 번 자실 거라. 네 번 자근에 헤영 또 혼 메칠 뽕읏 먹으민.
#1 드러 질좌낭 어멍 허는 거 보곡 해도 모르커냐?
@2 계난예.
#3 나 잊어불언. 나가 질좌나도 잊어불언.
@2 계난.
#1 아이구 찼.
@2 뽕서예, 누에 씨를 샷수다예?
#1 어.
@2 요만 합니까?
#1 썰 그보다.
@1 아니, 아니. 씨, 씨.
#1 씨 그만씩 허주게. 거보다 족아, 흐썰.
#3 붉은 거 만이도 안 험주.
@2 붉은 거 만이도 안 헤예?
#1 막 족아.
@2 아이네 사 가지고 메칠 놔 똥 메칠 즈자민 얼마큼 클 거?
@1 아까 네 번 잔다고?
#3 네 번 자.
@2 땀 처음에 여기 낫수다예. 그때 올 때는 여기 아직 안 만들 거예?
#1 안 만들주게. 차룽에 낳.
@2 그때는 차룽에 헝 요만이 잇어. 메칠 지낫수다.
#3 메칠 지나근에.
@2 메칠, 계난 메칠?
#3 것도 잊어불어주게.
#1 혼 일주일.
@2 일주일 지남 야이가 얼마나 커?
#2 어멍네 허는 거 드러 봐나지 안헌다?
#3 나가 질좌낫수다게. 아이구, 나 하영 질좌.
#2 계도 몰라?
#3 저 알동네 살 때 나가 질좌.
#1 아간 요보단 더 컷다근에.
@2 더 컷당.
#1 이주일 질루민 요만은 헛당.

@1 요만은 헛당.

#1 또 세 주일 질루민 요만은 헛당 네 주일 질러 가민 이만은 헤여. 이만은.

@1 아, 한 달 질뤼 가민 요만이에요?

#1 으.

#3 경허여근에.

@2 경허영 혼 즈 잘 때도 영 헤영 먹는 날도 잇고? 혼 즈 잘 때 안 먹어?

#3 안 먹어. 고개 영 들렁 자.

#1 두 번 잘 때도 안 먹지?

#3 즈잘 때는 안 먹어.

#1 경헌디 폭리가 들민 그 누에 터주앙 그 소곱더레 이제 그 쉬 싸 불민 그 고춘 못 써.
겨난 문을 안 열어야.

@1 아, 파리가 들민.

#1 으. 쉬폭리가 들민.

@2 게난 즈잘 땐 안 허는디 이 즈자는 날짜는 며칠 자? 먹는 날짜는 며칠?

#3 나 그거 웨완 놔뒀어? (모두 하하하)

#1 그 저 즈자는 날은 흐룻밤 흐루 잠실 거라.

@2 흐룻밤 장 다음날 일어나민 왕상왕상 먹읍니까?

#3 어, 먹젠 막.

#1 뒷날 먹지 안허영 뒷날 흐썰 어두워 가사 먹으나 히고.

#3 먹젠 영 영 허주게.

@2 예.

#1 또시 저 거시기 다신 이제 그 즈자난 깨나민 쫓다근에 똥을 하영 싸민 자릴 치와.

@1 똥 치와 쥐야 뉘?

#1 으, 영 영 손으로 집어 놔두고, 그룻더레 집어 놔뉘 그 똥을 비왕 눈에 강 놓곡.

@1 걸름허여?

#1 으, 막 걸주게. 경허민 또 똥은 물 부튼 거 먹으면 그 고름 누에가 뉘 죽어불어.

@2 따까쥐야 뉘.

#1 비 온 날을 툰으면 막 따까근에 뉘령 쥐사.

@1 아.

#1 공들메. 경해도 우리 어릴 때 늬의 일허는 것보담 고치 상 멩지 허민 것이 나사.

@2 게난 게민 똥의.

#1 질루지 안행양.

@2 똥의 툰아 오민 요만헌 거 얘기 때는 요만헌 거 그냥 주지 않잖아?

#1 썰영 썰영 칼로 썰영.

@2 썰영예.

#3 체얌인 막 즈질이.

#1 즈질이 썰영 체얌 주곡.

#3 얘기 때는.

@2 얘기 때는.
 #1 흐끔 커 가민 요만이 썰어 가단 버금은 요만이 허단 버금은 또 요만이 행 쥐도 돼어.
 @1 버금은. (모두 하하하)
 #3 세 불 줌줌 자 가민.
 @1 완전 좋아.
 #3 세 불 줌 자 가민 썰지 안허영 그대로 쥐.
 @1 겐 그다음엔 만들어야지.
 @2 이걸 언제 만들, 몇 불 줌잘 때 만드는 거라?
 #1 아, 그거는 두불 줌 잘 때부터 만들어사.
 #3 만들앙 놔둬사주.
 @2 우리 이거 방에 한판 길림수다예.
 #1 으.
 @2 짹 허게 만들 거 어떻 만들 거?
 #1 이디 영 칼르민 혼착은 사름 앓고 혼착으로 헤여근에 동간 메영 혼 여덟 칸이나 열 칸이나 만들주게.
 @1 뭘로 멘들아?
 #3 왕대.
 #1 왕대. 경허민 줌박은 저 젓자리만씩 허주게. 족은 젓자리만씩 허민.
 @2 줌박은 얼마나 큼니까? 이 정도 헤?
 @1 젓자리만큼.
 #3 저 저 의자만씩은 헤.
 #1 저 거세기 젓자리만씩은 허여. 계민 영 구듯이 빠내영 영 들이멍.
 @2 계민 이거 젓자리 이시민 이거 선반 이신 디 영 담앗당 먹이 줄 때 빵 조조조조 주고 영 담앗당 헐 거예?
 #1 으, 경허는 거.
 @2 계민 이게 줌박?
 #1 으, 줌박.
 #3 종간, 그진 줌박.
 @1 이진 줌박이고 저진 종간이고?
 #1 으, 경허는 거?
 @1 저 종간은 뭘로, 종간이 왕대로 만드는 거?
 #1 왕대로.
 #3 왕대로.
 @1 줌박은?
 #3 줌박도 왕대로.
 #1 왕대로 여끄는 거. 고망 이만씩 버릉버릉허게 헤근에.
 @1 차룽추룩?
 #1 차룽보다 더 크게.

@1 크기는 큰데 차롱추룩 만드는 거?
 #1 으, 으.
 @1 고망 버릉버릉허게.
 #1 으.
 @1 털어져 불지 안해?
 #1 무사 털어지주. 그디 종이 낄아야.
 @1 아, 종이 낄앙.
 #1 종이 낄앙 누에 낄주.
 @2 차롱처럼 얼멩이처럼 영 성글에 엮는 거라예?
 #3 으.
 #2 얼멩이도 알암저이.
 #1 얼멩이보다 막 크게 고망 이만씩.
 @1 더 크게.
 @2 얼멩이보다 크게 겐 네모나게.
 #3 네모나게.
 @2 경행 누에 질르는 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네 밤 자젠 허민?
 #1 흔 덜 걸려신가? 나 확실히 몰르켜.
 #3 흔 덜 넘어 걸렷주.
 #1 게메.
 @2 흔덜예.
 #2 겐 누에 한 밤 먹듯 헌덴.
 #1 흔 덜이라 네 주난예. 네 불 즘자민 올림주게.
 #2 말이 누에 흔 밤 먹듯 행.
 @1 겐 종간에 행 그걸 한달 동안 헤마씨?
 #3 아니, 채얌부터.
 @1 저기는?
 #1 차롱에 낄, 한 건 두 차롱에 허고 족은 건 흔 차롱에 낄 허다근에 커 가사 종간에 메어. 줌박예.
 @1 줌박예 멘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해?
 #1 그다음엔 뽕 주고 자리 치우단 자리 치우단.
 #2 저디 무시겨 허연게게. 제짓낭 막 세완예.
 #1 아니, 제짓낭도 굿도 슝끼 꼬와근에 이제 저 요만씩 저 거세기 찍을 짤라. 짤라근에 그 고망에 영 벌려근에 요런 고망더레 뽕뽕뽕뽕 돌려가민 까슬까슬 까슬까슬 허주게. 게민 그디서 현 거 누에가 싹이 좋고, 제줏낭이나 동박낭에 현 건 오줌싼 거 젓어 불어 막 싸지 굿어. 난 흔 일주일씩 싸낫주게, 고칠.
 @1 고치 싸는 건 어떻 행 싸는 거파?
 #3 삶으멍.
 #1 고치 싸는 건 삶으멍 가레기 영 헤근에 가레기 영 두 개 허민.

#3 찢 빠는 거.
 #1 걸려근에 저 이 이디 가름 해근에 영, 불숨앙.
 #2 고치 꺾는 물에 불 숨앙.
 #1 들이청 하시질 허명 영 영 젓으명.
 @2 솟디 물 잇어?
 #1 물 놔근에.
 @2 물 낱. 게민 거기 누에 낱, 고치 낱?
 #2 으, 하영 노민 슬지게 나와 불고.
 #3 흔착 손으론.
 #2 죽영 놔사, 너미 죽영 노민 깎늘고.
 @2 여기 솟이우다예.
 #2 으.
 @2 이 솟 옆이 물레를 놔예?
 #2 으.
 @2 솟디 여기 낱 실 영 한 줄 나오게 행.
 #1 으.
 @2 여기 부쳐 낱, 야이는 돌리명 야이는 영 영 젓으명.
 #1 으.
 @2 아이고, 바쁘다. 여기 불은 누게가 숨을 거라?
 #1 이녁냥으로 숨으명.
 #3 게난 그거 싸는 것도 참 바빠.
 #2 아니, 헤여 줘사. 늣 빌영 허민 임제가 숲아 줘사.
 #3 아니 경헌 디, 이제 허는 딴 드물어.
 @1 예.
 @2 자, 여긴 큰 솟은 얼마나 큰 솟에 허는 거?
 #2 큰솟?
 #1 솟은 헤끄만헌 거.
 #3 냄비, 큰 냄비만은 헤끔 돼어.
 #2 견디 저 고추가 저 멧 개씩 안 들이쳐.
 @2 게민.
 #3 흔 번에 흔 다섯 개씩.
 @2 게민 여기에 물 흐끔만 낱 고추 몇 개 놔. 드리쳐?
 #3 흐끔만 낱은 안 돼어, 재기.
 @1 하하하.
 #1 하영 놔도.
 #2 ㄱ득 놔야.
 @2 하하하. 물을 영 놔뒤.
 #3 반은 놔사.

#1 많이 노면은 썰이 슬지게 나오는 따문.
 @2 아, 계민 고추 몇 개씩 놔?
 #2 흐, 고치 흐 하영 노민 흐 열 개.
 @2 열 개 낵예, 영영.
 #2 경 아녀민 일곱 개.
 @2 영영영 으, 하당 야이, 야이가 엇어지믄 고칠 더 놔?
 #2 아니, 그것가.
 #3 으, 고두리 건져 불민게 므 벗어지민.
 #2 저, 브뜨게 놓질 아녀야 뉘어. 들이쳐가명 앓아가명 헤야.
 @2 그니까 들이쳐가명 여기, 여기.
 #2 그것가.
 @2 번데기, 고주리?
 #2 으.
 @1 고주리?
 #1 고주린 앓아가곡.
 @2 고조리 앓아가명.
 #3 하시 접아가명.
 #2 젓가락으로.
 #3 들러가곡 헐 거주게.
 (모두 하하하)
 @2 저 하시로 앓아가명? 하하하.
 #3 으.
 #2 저, 나무젓가락 헤영.
 @2 예.
 #2 요만이 허게 영.
 @2 하시로 영 야이 접아가명. 야이 놔가명, 야이 돌려가명.
 #1 하하하.
 @2 불 습아가명.
 #2 어, 경헐 거.
 @2 아이고.
 #1 바빠, 아이고, 춤.
 @2 바빠.
 #2 흔착 손으로 영.
 #3 계난 늬이일 헛당 허민 더 지쳐.
 #2 들이명 여기 영 들이치곡.
 @1 예.
 #3 내 맞히곡.
 #2 계민 이것가 아파.

@2 봅서예. 우리 처음에 여기 누에 흰 판을 깨운 거잖아.
#3 으.
@2 게른 야이, 이 고치가 얼마나 돼어?
#3 잘 돼민게 하곡, 안 돼민 족주게.
#1 경 헤도게.
@1 죽어불기도 하고.
#1 오늘 싸곡, 남으민 내일 싸곡.
@2 아, 흐루에 다 못허겠구나.
#2 아이고, 흐루 얼마 못 헤.
#1 흐루 얼마 못 허여.
@2 어.
#2 많이 허는 사름은 서 말?
@2 요거허는 것도 며칠?
#3 으섯, 으섯 판은 못 씹니다. 네 가림베끼 못 싸.
#2 아니 겐디 ○○ 어명게.
@1 네 가림베끼 못 싸? 흐루에?
#3 으.
#2 서말까지 싸났어.
@1 가림은 어느 만이 현 거봐?
#3 가림은 기자 이만은 허주?
#2 에에, 이만은 헤여. 지력이.
@1 어.
#2 영 등글락헌 영.
#3 영 등글락허게 뽕뽕 즈룩 돌리주, 영.
@1 등글락허게?
#1 그 영 물레 닳은 것이 싯주게.
@2 이거 네 개?
#1 영 들루는 거. 싯 감아지게 허는 거, 영영영.
@1 음.
@2 예.
#1 흐착으로 들렁 가명 하시로 영영영 손 봐가명, 불 숨아가명 경 헨게.
@1 음.
#1 난 온 후제 현 거 봐난.
#3 삼도 거세기 웨, 웨클로 차는 디도 잇곡, 손클론 못 차.
@2 웨클 이거 아니야?
#1 나 온 때보난.
@1 멩지 허는 거나 똑ㄹ릅니까?
#3 ㄹ트주게.

#2 마트주.
 @1 아, 멩지 허는 거나 그거나라?
 #3 응, 똑마트.
 #2 멩지 그걸로 허는 거난.
 @1 이런 거?
 #2 어, 그걸로. 그걸로. 옛날.
 @1 이거? 이런 걸로?
 #1 이런 거.
 #2 어, 어. 그거, 그거.
 #1 이런 걸로.
 #2 으, 그거주.
 @1 멩지 허는 거나 다 똑마트구나예?
 #2 이것가 멩지 허는 거주.
 @1 멩지나, 미녕이나.
 #3 아니, 미녕은.
 #2 아이, 다 똑마트 거.
 @1 미녕은.
 #3 가례기로 영 들르멍 영 썸 멘네 드리치멍 영 등젯주게.
 #1 미녕은 저걸 안네 낵 만날 걸어놔도사 그자 불도 아이 슴곡, 춤 경.
 #2 저거, 저거 멩지 허는 거.
 @2 가례기 어느 거? 가례기.
 #1 가례기 헤영 싸는 거난 저, 저, 미녕사게.
 @2 가례기 이거? 여기에.
 #3 으, 좇는 건 그런 거.
 @2 으, 계민 여기에 영 행, 영 행.
 #3 거 미우쟁이, 미우쟁이 그거 거세기.
 #2 영.
 @1 미우쟁이.
 @2 이거 미우쟁이예?
 #3 어.
 @2 여기 영 꽃앙.
 #1 꽃앙.
 #3 어.
 @2 여기 막, 여기 꽃앙 이시믄 여기 돌려가믄 이거 말아질 거?
 #1 막 슬지민 영 빠내 불곡.
 #2 영 행 등경, 영 이만이 허민 영 헛다근에 영 허민 또 들어가곡.
 #1 계난.
 @2 계난 이거 얼마, 얼마만큼 크게 만듭니까?

#2 구분하든 막 크주게, 슬져.
 @2 이거 한 이 정도 허게예?
 #1 아이, 그건 크게 허는 사름, 족게 하는 사름도 시민.
 #2 으, 기력이, 지력이 그만이 거자 해도.
 #1 이녁 기술만씩 허메.
 @1 음.
 @2 어.
 #1 족게 허는 사름은 난 날 존존혈 때 빠곡. 크게 허는 사름은 이만큼 크게 허는 사람
 잇곡 경 허메.
 @2 이만큼 크게 허는 사름이 잇곡.
 #1 이녁만씩.
 @2 경 행 하루에 아까 네 개 정도? 네?
 #2 아니, 아니.
 @2 흐루에 하는 건 몇 개나 헤?
 #2 우린 요거, 요거.
 #3 요건 멍지 싸는 거.
 #2 멍지 싸는 건 네 개.
 @2 아.
 #2 잘 싸는 사름은 으섯 개.
 @2 아, 잘 싸는 건 네 개.
 #3 싸기 존 건 하영 짹니다.
 #2 서 말, 너 말꺼지 싸났어 잘, 좋은 건.
 #1 예.
 @1 이, 이건 멍지 싸는 거엔 허는구나예?
 @2 으.
 #1 흐 가림이민 두 뉘?
 #2 두 뉘.
 @2 흐 가림.
 #1 흐 가림 두 뉘 잡안게.
 #3 기자 두 말 보통 헨게.
 #2 ○○ 어명은.
 @1 잠깐만, 아까 요, 요게. 잠깐만예. 그 흐 가림이 두 뉘?
 #1 으.
 @1 뉘가 두 뉘라?
 #1 흐 가림, 멍지썰 흐 가림이민.
 #2 저 고치 씨가.
 #1 두 뉘 생각해여.
 @1 고치가 두 뉘를 헤야?

@2 아.
#1 으.
@1 멩지실 흐 가림이 만들어지는 거?
#1 으.
@1 근데 흐 가림은 아까 요만은 현 덴 헤신디, 썸 가락, 가레기에 담은.
#1 이것에 담어진 거.
#3 저거 미녕, 미녕.
@2 아, 이진 나중예?
#3 좇은 거.
@2 이진 나중예예?
#3 으.
@2 아, 이게.
#1 이게 멩지 허는 거, 이거.
@2 이게 영 행 몇 개? 난다는 거?
#1 이거, 이거.
#2 두 뉘, 두 뉘가 흐 번.
#1 이거 흐 도레기 허든 두 뉘치룩 계산해라게, 영 현 거 하나민.
@2 어, 이게 나중이고 여기에 낱 감아질 거?
#1 어.
@2 어, 어.
#3 두 뉘. 두 뉘허는 건 감아지는 거. 흐 번에.
@2 예.
#2 경허민 또 내일은 또 새로 허곡.
@2 으.
#2 경허는 거.
@3 거난 고치 두 뉘가.
@2 으.
@3 예? 누에고치 두 뉘를?
@2 이거 하나.
@3 이거 하나에 감는다, 이 말이지.
@1 음.
@2 이거 하나.
@3 다 뉘든 또, 바꿔 또 하고.
#1 두 뉘에치, 두 뉘에치 다 싸지민, 어느 정도 가림도 영, 영 물레 닳은 이, 이, 동글락 현 것에 썰도 만이 감아지곡 허민 이거.
#3 테어근에 걸어뉘근에.
#1 테어근에 이거 떼어뉘근에 새로 또 허곡 경 헤연게.
@1 계난 이거 영 이디 감아진 게 가림?

#3 가림.
 #1 가림.
 @1 이게 혼 가림?
 #1 것이 가림이엔 하여.
 #3 혼 관이, 저, 멩지 혼 빌. 경허민 두 관 사오민 두 빌 반 뉘주게, 경허민 혼 관 반은 점점.
 #1 아이 저, 고치가.
 #3 혼 관이민 멩지 혼 빌.
 #1 혼 관이민 혼 빌?
 #3 혼 빌 허민 즘질게 허민 두 관 사오민 두 빌 반 허민, 혼 빌 폰 건 이녁 쓰곡, 또 관 반은 폴양 또 고치 사주게. 게민 고치 잘 싸민 썰이 좋곡 잘못 싸민 싸지 못하여, 굿어.
 @2 음.
 #3 문 더꺼 불민 우에 올릴 때 문을 열어야, 쉬프리 안 들게.
 @2 음.
 #2 경헨 혼 번 얼떡어났어.
 #3 난 느랴 멩지 고치 사명.
 #2 고치 올령.
 #3 어명넌 기자 집잇 건 혼 장 반씩 질루난게. 집잇 건 질루곡 또 상 싸곡 허민 밑등에 찻지.
 @2 음.
 #3 밑등에 앓지곡, 정지 앓져.
 #1 아이고, 솟 양펜이 곁엉?
 #3 으.
 #1 하하.
 #3 경허민 멩지 헨 건 테영 쓰곡 저 아이덜 학교 오래비덜 헨 때 학교 허곡. 미녕은 혼 꿈만 헤여. 혼 댓 빌만 허곡.
 @1 음.
 #3 저 쓸 폴양 쓰곡. 쉼, 도새기 질룬 건 또 굴름도 뉘주.
 @1 그 멩지썰 만들민 그다음 미녕도 집이서, 아니 미녕이렌 험저, 멩지도 집이서 차, 차 낫수과?
 #3 창 풀주게.
 #1 저.
 #3 서귀포에 가민 자첸 안 산 난 고산까지 풀레 가났어.
 @2 음.
 #1 집이서 멩지게.
 @2 이제 이거 감아시난 이거 감은 다음엔 뭐 헨 거?
 #3 이젠 딱시 기갱이로 감아.
 #1 이걸.

@2 응.
 #3 기쟁이로 감아근에.
 @2 어느 거 기쟁이?
 @1 그거 아니.
 @2 이거 아니? 으.
 #3 건 멘네 브르는 거 닳다.
 @1 으, 멘네 브르는 거.
 @2 위엿 거 멘네 브르는 거, 밑엿 거.
 #3 기쟁이로 감아근에 또.
 @1 이걸 차는 거.
 @2 차는 거 아니.
 #2 어느 거?
 @1 감는 거 없는데.
 @2 이거?
 @1 그게 그거야. 똑같은 거야, 없어.
 #2 옛날엔 그.
 @1 감는 거 엿어.
 @2 이 담에 뭐에 감을 거?
 #2 이것에 영.
 #3 이거, 이거, 손으로 차는 거게.
 @1 예, 손으로 차는 거.
 @2 어.
 @1 계난 영 해근에 썬 멘든 다음에 그다음 어땡 해?
 @2 이거.
 #3 감아근에 또.
 #2 동글락헌 거, 이거.
 #3 매어.
 #2 동글락헌 거, 저거, 끼우는 것가 잇어.
 @1 예.
 #2 잇으면은 밤에고, 낮이고 트명만 나민.
 #3 기쟁이로.
 #2 이제 기계 아이 난 때.
 @1 기계 아이 난 때.
 #2 옛날에.
 @1 으.
 #2 그 이제 뭐.
 #3 장통.
 #2 조림?

@2 간츠메, 간츠메, 으.
 #2 깡통 닮은 것에.
 #3 종이 감양 우트레 감주게.
 #2 감아.
 @2 으.
 #1 차명 그냥 베클러레 차는 거.
 #2 막 감아근에.
 #3 놀아근에 또 메곡.
 @1 놀앙, 늑는 것부떠 곶아 줍서. 놀젠 허민?
 @2 아니, 여기서 감양 그다음에 놀 거예?
 #1 으. 감양.
 @2 예, 게민 이거에 감아진 거 영 끼울 거?
 #2 다른 것덜에.
 @2 끼워?
 #2 다른 거 감는.
 #1 감는 기계도 셔.
 @2 감는 기계 셔.
 #1 영, 영 동글락헌 거.
 #2 동글락.
 @2 예.
 #2 뽕뽕 두는 거.
 #1 뽕뽕 두는 거.
 @2 예.
 #1 감는 거.
 @2 거기에 끼워 깡통 우이 이걸 영영영 손으로 감아?
 #2 으.
 @2 이렇게 감아?
 #2 계속 감아.
 #3 기쟁이 엇이든 손으로 감아.
 @2 기쟁이 엇이든 손으로 영영 감아.
 #2 으.
 @1 기쟁이도 잇구나.
 @2 아.
 @1 음.
 @2 게민 이거 감은 후에 요걸 가지고 놀 거?
 #2 놀아.
 #1 놀아.
 @2 예. 늑는 거 곶아 줍서, 이제.

#3 놀민 또 영 허주게.
#1 놀민 메꼭게.
#3 장통 멧 개 노민.
@2 이거 장통 멧 개.
#3 또시 저펜이 낭까쟁이로 영 코쟁이 밧앙 영 세울 거주게.
@1 예.
@2 코쟁이 여기 세웁.
#2 저레 쪽허게.
@2 여기 세웁예. 야이 줄 뽕 요기 영 무꺼?
#3 영, 돌아오랑.
@1 돌아오랑.
#3 돌아오랑, 돌아오랑.
@2 돌아오랑 무꺼.
#1 놀, 놀 때도 거는 사름이 정신 출령 걸려사 뉘어.
#3 걸리민 안 뉘어.
@1, 2 하하하.
@2 게민 이걸 막 으라 개 세워?
#1 으.
#2 경허민 막 마당에 가 네 빌 허민 네 골.
@2 으라 개 세워.
#3 으라 개 아니.
#1 흔 멧 개.
@2 멧 개, 음. 세우곡, 세우곡, 세우곡.
#2 다섯 빌허민 다섯 깃질 헤사.
@2 으, 다섯 깃지.
#3 다섯 깃지 맞아.
@2 다섯 깃지, 여기 끼웁서.
#2 여기 가져가는 사름이 머리가 좋아야 뉘어.
@1 게난 영 강.
@2 어떻게 돌아?
@1 영 가져왔어, 그다음 어땡 헤?
#3 또 느려 가.
@1 또 여기 서 행 또, 또 가? 계속 같은 걸로?
#3 으, 경 허영.
@2 헤 봐봐.
@1 헤 보크라예, 요렇게?
#1 아이, 즘진 걸로 흐지 말앙.
@1, 2 하하하.

#1 굵은 실로 허라.
 @1 예, 예, 예.
 #1 멍지 늑는 건 영 험다, 영.
 @1 예.
 #1 미녕 늑는 거나 마찬가지로.
 #3 미녕 늑는 거나 마찬가지.
 #1 저디 고정이하고.
 @1 여기 고정이하.
 #1 깡통은 이디 낡 낡.
 @1 깡통 이거.
 #1 나는 미녕 늑는 사람이라.
 @2 어.
 #3 영 앓아근에.
 #1 영허민 기쟁이하 앓아근에 허민제, 이거 영 걸리는 사람이 딱로 잇주게.
 @2 예.
 #1 난 영 행 이디서 영 뽑아 노민 이딧 사람은 으정 가, 이걸. 이 실 나가 뽑아 노민 으
 정 강, 일로 츠레, 츠레로 영 걸령.
 @2 으.
 #1 요레 오랑 또.
 #3 걸령.
 #1 요거 걸령.
 @1 으.
 #3 저레 강 걸려.
 #1 또 요레 오랑 걸려.
 @1 아. 계속 가는구나.
 #1 계속 경허주게.
 @1 아이고.
 @2 하하하.
 #1 영 영 행 계속 걸리민.
 @1 으.
 #1 영허영 걸려가당.
 @2 예.
 #2 또 이딧 할망 고지 잇어.
 #1 그 사람. 경 행 걸령 딱시 이레 이젠 저디 강 걸리민 마지막 아니라?
 @1, 2 예.
 #1 마지막 허민 딱시.
 @3 어땡.
 #1 이걸 영 걸리지 말앙 이걸, 예.

@3 잠깐만예, 어떻.

#1 영 허영 걸려 이레 와사 뉘어.

@1 아.

@2 거꾸로?

#1 으, 어프지 말앙 영 허영 일로 행 영 헤영. 이레 와사 뉘어.

@1 아이고, 그럼 곳?

#1 이레 영 오민 또 이레 오랑.

@1 아, 또 가, 계속.

@2 아.

#1 또 요레 수 백 번, 수 천 번 헤사 뉘는 거여.

@2 아, 헛갈리지 말아야 뉘겏다. 게민 경행?

#1 으, 게민 걸령 이디, 이디 걸령은에 요레 강 이걸 영 걸려근에 요레 올 츠렌디.

@1 음.

#1 이걸 이디랑 아이 걸령 버금은 이 고쟁이가 거져 부뜨주게, 요영 부떠 불민.

@2 아.

#1 영 느렘시든 허주만은 경허민 이디 걸릴 츠렌 걸 요레 강 걸려 불민.

@1 하하하.

#1 큰일나, 큰일. 하하. 아이고, 춤 걸리는 사름 막 정신 출려사 뉘곡.

@2 음.

#3 사름 하민 안 뉘어, 말 꼴으멍.

@1 하하하.

#1 사름 하민 아이 뉘어.

@2 게난 영 행 이거 다 걸렸수다. 그다음 어떻?

#1 경허민 영 허민 이디서 난 영 행 허다근에 영 행 이걸 영 허멍 이거 마딱 새줏아, 영 새줏아사, 영 올렛당 느렛당 멍지가 차지는 거주. 경 아녀든 못 차.

@2 뭐?

#1 영 새줏아근에 이레 영 꺾어. 이 고쟁이레 영 행 영 허민 또 일로 영 허영 일로 또 영행 이레 이레 걸려가곡.

@2 으, 음.

#1 이디 허민 이레 걸려가고, 이디션.

#2 계속 경 허는 거.

#1 처음에 영 걸리지 말앙 영 걸려사 뉘곡.

@2 음.

#1 나 앓인 디서 허곡 저던 가든 또 저영 걸리지 말앙. 영 걸려사 이레 돌아 옉곡게.

@2 예.

#1 하이고, 복잡허여. 하하하.

@2 이제 다 걸련.

@1 삼춘 아까 새줏은 건 어떻 허는 거?

#1 새춧으는 건게, 이거 이디서 뽑아근에 이걸 이 손가락으로 영 허멍 이거 썰이 하나 메기라게. 이디 흐.

@2 여러 개, 막 여러 개, 여러 개.

#1 막 으라 개주게.

@2 으.

#1 장통이 이거 열 개 아이른 쓰무 개 험실 거라.

@2 어.

#1 미녕도 경허메, 미녕도.

@1 응.

#1 경허믄 썰 좇아, 영.

#2 하나씩.

#1 하나씩 하나씩. 썰 좇앙 영 허영 문딱.

#3 여기 막탱이 끼주게.

#1 문딱 헨 이레 이 고질에 막 빼어, 영 헨. 빼민 이것이 머리 처음.

@1 응.

#1 시작헤여근에 이제 벨 때도 게믄 돈은 말자에 영 허믄 말자에 이딧 거부며 문여 벗겨 근에 영영영 영영영 허멍 영행 코글레기 짓어, 짓어근에 영 행 막 행 저꺼장 문딱 막 헤가. 말짜에 풀민 절로 둥기민 싹 풀어져.

@1 음.

#1 경 허게 허여.

@2 이거 묶는데.

@1 응.

@2 무꺼지지 안허게 묶네.

#1 으, 무꺼지지 아녀게.

@2 계난 이 영 들리는 걸, 영허는 걸 새춧는텐 허는 거?

#1 응, 새춧앙 영영 새춧아, 손부리로 새춧은 걸.

@2 어.

#1 이 나 앞이 고쟁이레 영 허영, 영.

@2 끼와? 어.

#1 영허영 영영영 이추룩 들어오주기.

@1 어, 어.

#1 수 천 번, 수 만 번을 경 허여사 뉘는 거지. 이디 오민 새춧곡.

@2 어.

@1 이디 오민 새춧고, 처음 시작할 때마다 새춧고.

#1 이딘 올 때마다 새춧곡.

@2 어.

#1 이 엄지손가락으로.

@2 음.

#1 우리 어무니 느랏 허는 거 나 느랏 봐나난.
 @2 경 영헨 다 헤수다. 영 다하믄 그다음 뒤 헐 거?
 #1 계난.
 #3 돈 쥬어 이젠.
 @2 어.
 #1 돈 쥬어, 영.
 @1 돈 쥬는 건 어떻 허는 거라?
 #1 영영 허멍 돈을 쥬영, 이걸 문이 그 이거 범벅정 뒤어게?
 @1 계난.
 #1 아이고 이치락. ** 이 사람덜 어떻 허당.
 @1 하하하.
 @2 아니, 이거 할 때 영 불 쏘이는 건 아니? 나중에?
 @1 풀 맥영.
 #1 내중에.
 @1, 2 아.
 #3 늘 때 건.
 @2 아.
 #1 경헨 이걸 영영.
 #3 돈을 쥬사주.
 #1 이디 새 좃은 델로 문여 이걸 영 심어근에.
 @2 음.
 #1 영헤근에 영영 영영 허멍 문딱 이거 벅경 문딱 이걸 문딱 이추륙.
 @2 무꺼?
 #1 영영 여까가명.
 @2 엉키지 않게, 이렇게 접는 거.
 @1 아.
 #1 저까지 문딱 헤당에 꼰렁이 영 헛다근에 말짜엔 또 그 꼰렁이 확 등기민 문짜 풀어
 저.
 @2 음.
 @1 음, 아까 이건 무신 거 헨다고? 돈.
 #3 돈 쥬는 거.
 @1, 2 돈 쥬는 거.
 #1 새 좃아, 이디 새 좃는 거.
 @1 여긴 새 좃는 거.
 #1 어, 새 좃아.
 @1 그다음에 이거 영영 허는 건 돈 쥬는 거?
 #1 돈 쥬는 거.
 @2 돈 쥬수다, 이젠. 영.

#1 경허민.
 @1 하하하.
 @2 영행 돈 쥬.
 #1 어.
 @2 이젠 어떻 헐 거? 그다음 이걸로.
 #1 영 허민.
 @2 어.
 #3 말짤에 메젠 허민 브디에 이거 새 좇은 털 꺾어살 거주게.
 #1 다 이추룩 허메, 다 이추룩. 돈 쥬 땀 영 허메.
 @2 어.
 #1 계민 이추룩 막 하민 우리 어무닌 돈 쥬멍 이디 탁 허게 둘러메곡.
 #3 어, 독지더레 둘러메어.
 #1 둘러메멍. 영 행 문딱 쥬메, 영. 영행 문딱 쥬민 꺾뎡이 강 풀민게 무사 꺾작을 지어
 게? 꺾작질 리가 엇주게, 영 허영.
 @1 아. 경허는 게 돈 쥬는 거파?
 #1 문 돈 쥬멍 막 꺾뎡이 꺾장 돈 쥬멍 개는 거.
 #3 차에 짐 시끌 때 영.
 #1 베.
 #3 허주게.
 @1 어.
 #1 튜럭에 안 뵈다? 그런 식으로 행 마지막엔 영 행 허민 이걸 마지막 코걸이에 가민 꺾
 뎡이에 아이라, 다 꺾뎡이 영 허영 놔두주.
 @1 으.
 #1 영 행 놔두민 말짤엔 이 돈 쥬 걸 이제 또 숲아.
 @1 예.
 @3 그 상태로.
 #1 숲아, 다.
 #3 어, 미녕 숲아.
 #1 미녕은 또 풀 뵈여근에 메는 거주, 그냥 안 뵈는 거라.
 #3 불살랑 메엄주. 멍지는 경.
 #1 경허민 이걸 영 행, 영 흘타 논 거. 이영 빼어 불민. 이거 영.
 @1 와.
 #1 싹 허게 클러지게.
 @1 음.
 #1 튜럭에 짐베[짐베] 요거 잘못뵈엇저.
 @1 짐베.
 #1 쫄라메어.
 @1 하하하. 트럭에 짐베 헐 때도.

#1 으.
 @1 경허는 겨우과?
 #1 응, 그런 식으로 한다.
 @1 으.
 @2 계난 영 무꺼지민 잘못된 거라예?
 #1 으, 무꺼지민 잘못된 거.
 @2 어, 못한 거, 예. 하하하.
 #1 하하하.
 @2 아 영 행 다.
 #1 으.
 @2 썩 허민 풀어지게예.
 #1 썩허게 풀어져.
 @2 아.
 #1 요 곳텅이 등기민 썩 풀어져.
 @2 예.
 #1 그 돈 쥬겔 걸 또 큰 솟덜 담앙 숲아사 쥬다.
 @2 돈 쥬 상태로 숲아넨.
 #1 응.
 @2 영 행 아까 돈 쥬 상태에서 숲아넨.
 #1 숲아내사.
 @2 그다음?
 #3 미녕 숲안 헤신가? 나는 모르키여.
 #1 그냥 들른 것에 풀 맥여집니까? 숲지 아녕.
 @1 잠깐만예. 이제 우리 멩지 아직 안 썩나고예. 미녕 흐뎡 이땅 혈 건디.
 @2 순서대로 가게.
 @1 멩지.
 #1 으.
 @1 아까 멩지도 이렇게 다 돈 쥬어?
 #3 돈은 다 ㄴ타.
 @1 그다음에 멩지 먼저예. 멩지 돈 쥬 다음에 뭐 헤?
 #1 이사람덜티 들어보라.
 #3 돈 쥬당 풀영 ㄴ사추룩 경.
 #2 미녕 허는 거 똑ㄴ타.
 #3 저 거세기 ㅅ디에 영 행 이쪽 고망더레 ㄴ 쥬어근예.
 @1 그걸 뉘헌덴 ㄴ아? 메는 거?
 #2 메는 거.
 #3 으, 메는 거.
 @1 메는 거? 아까 건 ㄴ는 거?

#3 으.
#2 궤사.
@1 아까 건 늑는 거고.
#2 으.
@1 여기 저 도투마리에?
#2 으.
@1 도꼬마리에?
#3 어.
#2 어, 도꼬마리에.
@1 도꼬마리에 허는 건, 메는 거?
#3 으.
@1 도꼬마리에 여기 메언.
#3 으.
@1 쟁.
#3 쟁헨 웨클로 차는 사람이 하주, 손클로는 차는 미시거 못 차.
#1 멩진, 멩진 저 웨클로 차사.
#3 웨클로.
@1 웨클은 뭐고, 손클은 뭐짜?
#3 손클은 허리에 차근에 발로 영.
#1 손클은 요런 것이 손클.
@1 아, 이게 손클.
#1 으.
@1 옛날 거예?
#1 으, 옛날 거.
#2 손클.
@1 웨클은?
#3 웨클은.
#1 웨클은 영영 영영 영영 행.
#3 뷁디집도 쟁 막 트나.
@1 아.
@2 이것도 손클?
#2 기계로 쟁 뒤는 거.
#1 계곡.
@2 우에서, 우에서 영영 등기는 거?
#1 잉에도이, 웨클은 잉에도 쉼 하리 갈래고.
@2 어.
#1 이건 저, 미녕 쉼로 이런 쉼로 잉에도 현다, 잉에가.
@1 잉에가 어느 거짜?

#1 잉에렌 현 건 요거.
 @1 음, 요게 잉에.
 #1 으. 이견 이런 썰로 현다, 이런 썰로.
 @1 아.
 #2 발 영 등기명 흔 착씩.
 @1 요, 요, 나무가 잉에?
 #1 으, 그.
 #2 썰.
 #1 아이, 썰, 썰. 그것 아이.
 @1 썰이 잉에.
 #1 잉에썰이엔 현다, 잉에썰.
 @1 아, 잉에썰, 요 썰이.
 #1 미녕 늑는 것도 아이고, 정신 출려사.
 #3 *은 안 차곡, 것도 춤 헤사주.
 @2 그다음?
 @1 하하하.
 @2 우리 또 들어 보러 와야 뉘크라.
 @1 오늘 다 못 허크라. 일단 저.
 #1 미시거.
 @1 웨클 말고.
 @2 으.
 #3 손클.
 @1 손클로 헐 때예, 옛날예?
 @2 그걸로 물을게.
 @1 저 영, 어뎡 영.
 #3 영 탁 두드령 영 데끼민 일로 확 심곡. 또 영 확 심곡 헛주게, 북으로.
 #2 저것가 저 처압으로 굴아사주, 두 개 잇잖아.
 @1 뭐가 두 개라?
 #2 이, 이.
 #3 북, 북.
 #1 이거, 이거, 이거. 이거허곡 두 개지이?
 @1 예.
 #2 두 개니깐 흔 착 발 영 허면은 흥나가 영 허민 들러지곡, 또 영 낡 이짜 영 등기민
 딱시 허곡.
 @1 음, 이견 똑같애? 미녕 허는 거나 멩지 허는 거나?
 #2 멩지 허는 거나.
 @1 음.
 @3 똑같은 거.

@1 멩지는 게민 흐루 허민 얼마나 헤집니까?
 #3 사름, 멩지도 썰에 메곡 저 기술잔 서른 자도 차곡 쓰무 자도 차곡.
 @1 하루에?
 #2 건 기계로 헐 때.
 @1 아이 기계로.
 #2 기계로 헐 때주, 저런 거는.
 @1 손클로 헐 때.
 #2 손클론 열 자, 열댓 자, 그자 난 흐 번 헤보난 대 자베끼 못 차난.
 #1 하하하.
 @1 대 자는 뭐? 다섯 자? 어.
 @2 아.
 #3 건 서툰 때.
 @1 건 서툰 거? 잘하는 사람은 이런 손클로 헐 때도.
 #2 열댓 자씩.
 @1 열댓 자씩?
 #2 응. 그 기계로사는 어떻사 스무 자도 더 짜. 서른 자.
 @1 아. 경 영 짜지민 영 감아? 이레 영 감아?
 #3 으, 감주게. 이레 영.
 #2 다 짜지민.
 #1 벳데기레.
 @1 벳데기레예. 음. 이거 흐꿈 이땅 미녕헐 때 다시 한 번 물어보쿠다예.
 #2 아이고, 미녕 허는 거민 나 잘 헤질 거.
 @1 게난 삼춘한티 다시 물어보쿠다예.
 #3 옷 허지 말앙 미녕 험서.

무명

@1 자, 이제 멩지 그만허곡 미녕 허쿠다예. 미녕은 종류가 무신 종류, 무신 종류 이수과?
 #1 무신 종류 셔게, 옛날.
 #3 멘네 갈앙 종류가 멘네뿐이주게.
 @1 멘네 아니고, 미녕, 미녕.
 #1 미녕?
 @1 응.
 #1 미녕은 종륄 미시거 저 노랑멘네 셔났어. 노랑멘네.
 @1 멘네 말고 미녕 차민 토목, 뭐 생목 이런 거 엇수과?
 #1 아이, 그런 거 웃어.
 @1 게민 닷새 미녕, 옷새 미녕.
 #1 으게, 닷새 미녕, 옷새 미녕. 닷새 미녕은 막 훤은 거.

@1 음.
#1 훌개 짠 것가 닷새 미녕.
@1 으.
#1 옷새 미녕은 흐썰 좀 즘질곡, 보통.
@1 응.
#1 일곱새 뉘민 막 즘질앙, 저, 막 즘질앙.
@1 으.
#1 즘질앙 미시거 바지저구리라도 행 입곡 헛주게이. 일곱 새 뉘민, 옛날은.
@1 으.
#1 광목 옷, 광목 엇인 때난.
@1 으답새 미녕도 잇어나수과?
#1 으답새 미녕은 엇엇어.
@1 으, 일곱새 미녕이 좋은 거예.
#1 일곱새 미녕이, 좋은. 일곱새 미녕.
@1 아, 계난 이거 아까 토멩지 허는 거추룩 이것도 토목, 생목 이런 거 안 헛니까?
#3 무사 안 헛어?
#2 지쳇미녕.
@1 지쳇미녕은 무신 거라?
#1 지쳇미녕은 재국 아녕, 숲지 아년 것이 지쳇미녕.
@2 음.
@1 아, 아까, 토멩지, 저.
#1 어, 어. 생멩지추룩.
@1 생멩지추룩? 지쳇미녕예?
#1 또 숲으민 또 누.
#2 발레사, 메난.
@1 숲으민 미신 미녕이우파?
#1 누인 미녕이엔.
@1 누인 미녕?
#1 으.
@2 누인 미녕. 누이다.
@1 응.
#1 누여. 누엇젠 허는 거.
@2 누엇젠 허는 거예.
@1 누엇젠 허는 말예.
@2 으.
@1 응, 미녕으로는 보통 무신 옷, 무신 옷 멘들아마씨?
#1 미녕으로 뭐, 하근거 다 헛주.
#3 옛날 갈옷도 허곡 기자 옷도 허곡 보선도 줍곡 안 헛 거 엇엇어.

#1 몸빼, 저, 바지도 뒤, 치메도 뒤.

@1 전부.

#1 다 헛주, 뒤. 남자 바지저구리도 허곡. 옛날엔 옛인 사름은 미녕 두리막도 저실에이 멩질 먹으렌 오랏어렌 허멍 막 곤는 사름도 셤계, 옛인 사름은.

@1 아, 옛인 사름은.

#1 으.

@1 미녕으로.

#1 두리막도 행 입엿.

@1 으.

#1 멩질 먹으레 오랏어라, 전이 곶으난 나 막 들어났저.

@1 으.

#1 웃인 사름은 무신 경도 광목 어, 두리막 못 허민계.

@1 으.

#1 이젠.

#2 거자 미녕.

#1 검은 것덜 잇이난 벨헌 양복도 두리막도 옛날 그런 거 잇이난 막 광목들 막 헤영헌 거.

@2 맞수다.

#1 겨울에.

@2 겨울에예.

#1 으, 우리 하르바님은 때 광목 두리막, 옥영목 두리막 그런 거 막 헤영헌 것만 입언계, 옛날엔.

@2 으.

@1 옥양목은 어떤 거라?

#1 옥양목은 줌진 거, 광목 닳은 거.

#3 막 고운 거.

@1 아, 광목 닳은 거라?

#1 멘으로, 멘으로 헌 건디, 줌진 거 옥양목이엔 헌 거.

@1 으.

#1 셔났저, 계난. 그런 걸로 두리막 헤라, 옛날은.

@1 아.

#1 경헌디 이젠 다 늙은이곡 젊은이고 검은 거 양복 기지, 좋은 걸로덜 이젠 다 그런 것들로 헤뒤.

‘홍세미녕’

@1 옛날에는 결혼힐 때 홍세미녕도 헤낫덴 헹게마는?

#1 홍세, 옛날엔 미녕 두 빌. 홍세 놔났주게. 그 함 허영.

@1 응.

#1 두껍이 더끄난 함 행 옛날은 놔나신디, 이 중간에 경 함 허지 안허영.
#2 나 시집간 때 저 멩지 혼 빌허곡 미녕 두 빌 낭 전 오란.
@1 아.
#1 아, 미녕도 두 빌허곡 멩질도 낫?
#2 예.
#1 아.
#2 ○○이 각시 전이.
#1 아.
#2 뭇 탄에.
@2 하하하.
#1 아, 하인이 그걸 경헌 거난.
@2 하인이 정 오는 거?
@1 으.
#2 하인.
#1 하인이엿 허믄 알아지느냐?
@2 예, 예, 예.
#1 하하하.
@2 예, 예.
@1 그믄 그 흥세미녕은 무신 거 허렌 경 싸주는 거고?
#1 옛날은 미녕은 두 빌 주민 살렘 밀천허렌 허멍 새각시에, 췌젠.
@1 어.
#1 경해도 그 흥세로 딱 친정에 저, 친정에 아저 와이?
#2 아니우다.
#1 안 아저와?
#3 안 아저웁니다.
#2 친정엘 아저가질 아녜수과, 씨집이서. 씨집이서 친정엘 아전 갖주게.
#3 새각시침이 아저가.
#1 아이, 난 ○○ 풀 때 시에 으져가난 아저오란.
#2 계난 다 아전 웁니다.
#1 또 딱시 저, ○○인, ○○이도 딱시 어, 저디 ○○이 풀 때도 아전 가난 이디 씨집이 아저 오란.
#2 경허민 아정 오민 옛날 하도 어른이 새각시 주민 그걸로 풀아근에.
#1 으, 살렘 밀천.
#2 살렘 밀첨 허렌 아정 가는다.
#1 예.
#3 엿인 사름도 마찬가지로.
#2 엿인 사름은 씨어멍도 주도 아녀.
@1 아 씨어멍 가져 불어?

#2 새각실 안 줘.
 @2 하하하.
 #1 씨어명이 아저 비어?
 #2 어.
 @1, 2 하하하.
 #1 예, 옛날 살림 밑천으로 준텐 헌 말 나 친정에 들었저.
 #2 옛날엔 저 오민.
 @1 으.
 #2 잘 사는 사름은 풀앙 거시기 허렌 영 주는다.
 #3 옛인 사름은 빌언도 줘주.
 @1 음.
 #2 놈이 거 빌영도 낫다근에.
 @2 아, 빌영. 그냥 형식만 취행. 하하하.
 @1 어, 보기만 허꼭 다시 가져가.
 #2 쟁행 가정 오면은.
 #1 옛날 우리 아은 땀 우리 어멍 할마님네영 들어 곤는 말 들언 보난 살림 밑천으로 헛 주게.
 @2 으.
 #2 살림 밑천으로 잘 거시기 헌 집인.
 @1 어.
 #2 새각시 주민 그걸 풀아근에 걸로 밑천으로 헤나신디.
 #1 으 경헌 말만 들어났어.
 #2 이젠.
 @1 으.
 #2 그 저, 못사는 집이는 그 미녕 두 빌도 흐썰 시민 놈의[노미] 거 빌엇다근에.
 @1 으.
 #2 저* 사름은 안 줘.

면화

@1 미녕 허젠 허믄 멘네부떠 갈아삽니께.
 #1 으게, 밧디 갈아사주.
 @1 건 어뎡 헨에 허는 겨우짜?
 #1 밧디.
 @1 몇 월달쯤에 멘네 씨 피어?
 #1 봄, 봄이 멘네 갈민, 봄이.
 @1 으.
 #1 봄이 갈민 멘네 씨에 저.
 @1 무신 거 서꺼?

#1 불경.
 @1 불경?
 #1 멘넨 영 털어정 서 부뜨, 부뜨주게, 씨가.
 @1 어.
 #1 영 부뜨는 따문 불체 영헨 마당에 불첼 멘네 씨 농곡 불첼 나. 불체 농곡, 옛날은 항에 오즘을 받아놔저게.
 @1 응.
 #1 계민 오즘을 아저다근에.
 #2 장갑은 찌카.
 @1 하하하.
 #1 장갑은 찌, 맨손으로 막 부벼.
 @1 어.
 #1 오즘 농곡 불치 논 멘네쉴 마당 가운데 땅에, 흑. 옛날은 다 콩고리가 엇언에 흑이주게.
 @1 응.
 #1 막 부벼근에 경허민 멘네씨가 방울 방울 방울.
 @1 으.
 #1 막 경.
 @1 쥐똥추룩 뉘큰게예?
 #1 으, 쥐똥추룩 다 지만씩 갈라전.
 @1 으.
 #1 다 갈라지민 그거 우린 영 줄줄이 빠질 아녕, 고량 밧 갈아 노민 영 밧고지에 허민 고량더레.
 @1 으.
 #1 툽툽 허게 이건 밧고지라이.
 @1 으.
 #1 고량더레 이레 줍아 서너 방울 불체에 서꺼지주게.
 @1 으.
 #1 불체에 서끄민 이레 서너 방울, 이레 서너 방울 툽툽툽툽 줍아 노명 매 고량에 경만 우린 저레 갈아놔어.
 @1 음.
 #1 이딘 어떤사 헛는디 몰라.
 #2 이디도 경 허여.
 @1 이디도 경 허여?
 #3 경헨 즈지민 뽑아 불곡.
 #1 어, 즈지민 뽑아 불곡.
 @2 이거.
 #1 하나씩만 놔둬사.

@2 고지. 여기 고양이에 넣을 거?
 #1 고양이, 으, 고양이.
 @2 으.
 @1 쟁 흑 영 더꺼줘야 될 거 아니?
 #1 경 허영 흐쩔만 발로 툽툽툽 발로 거시민 물어져.
 @1 아.
 @2 아 게민 툽툽 발로 영 차?
 @1 하하하.
 #1 아이 그차라 안 해도.
 #2 살살살살.
 #1 살살살살살 발로 영영영영.
 @1 으.
 #1 걸어만 가민 물어져.
 @1 으.
 #1 발 큰 간 디게, 고지 영 노프주게, 이디 높으민 고양이레 툽툽 줘야 노민 이딘 오란
 나 아이 같아 보난 몰라도, 우리 세젠.
 #2 섬비로도 끄어났어.
 @2 섬비로도 끄언예.
 #1 어.
 @2 예, 예.
 @1 섬비로도 끄곡.
 #3 고치 씨 뵈어근에 서견.
 #1 어, 고치씨도.
 @1 고치 썬 무시 서경 해연?
 #1 고친 올민 타먹젠게. 하하하.
 @1 아. 흐나씩.
 @2 아.
 #1 으.
 @2 음.
 #1 흐나씩 뵈민 멘네 낡 푸지에 든 건 멘네 낡 즈꿏드레 메 불곡. 멘네 낡 엇인 트명에
 강 놔두곡 게가문.
 @1 음.
 @2 아.
 #1 검질메명 문딱 다 소팡. 하하하.
 @1 아.
 #1 경허곡 툽툽 줘야 논 멘네씨가 하나, 두 개만 드느냐게 서너 개도 들곡, 서너 개 낡
 영 뵈웁직헌 걸로 하나 놔뵈, 남은 건 메어 불곡 요디도 가민 뵈웁직헌 걸로 방 벌영
 쪽허게 뵈웁직헌 걸로만 쪽허게 놔두곡. 경 허민 경 트명에 ㄱ치 낡도 벌것벌것 올앙 익어.

@1 응.
#1 경허민 멘네 타레 강, 거 흔 뉘 타고고.
@1 아.
@2 계난 경 멧, 소파 주는 건 흔 번 험니까?
#3 으, 흔 번 소끄주게.
#1 으. 흔 번에 소끄주게, 소끄는 건.
@2 으.
#1 검질은 멧 번 메사 뉘곡.
@1 아.
@2 멧 번, 멧 번 메사.
#1 경허고 딱시 흐쉴 영 멘넛님이 요만큼 커가민이 또 쉼로이 그 고지 이령을 영 갈앙.
@2 으.
#1 갈아근에 흑을 양쪽더레 영 행 곳 올려지게.
@2 곳 올려지게, 예.
#1 경행 허민 좋곡 경헌다게.
@2 어, 검질 다 메낭?
#1 으, 검질은 갈앙 경 허여도 또 메곡, 검질은 갈 때도록 메사 현다.
@1 음.
@2 아 막 으러 번 메는구나게.
#1 서너 번은 메사 헤여.
@2 으.
#1 세 번은.
@2 으.
#1 경혜사 멘네 익영 가을 들영 타레 뎡이주게. 팔월[팔월] 나가민. 케어 영 문여 연 것 부떠. 케어 가문 타레 뎡여.
@1 건 어뎡 탈 거파? 무신거 들렁 가?
#1 아, 옛날 송키구덕 허영 영.
#3 허리에 차곡, 차.
#1 차근에이.
@1 음.
#1 다 스뭇 타근에 다 이레 농곡. 아이고 아이고 우린 멘네 헤양케 올앙 저 케영은에 자 게 가지 못행 저르져 내불민 헤양케 시민 식전이 새백이 강 이슬진 때에 각지째 확확 훌터 큰 창 네 개 담양 문 아저당 계민 썩상그리도 문 영 집 일영 밤이 영 불에 마리에서 영 까 민이, 뒷날은 멘네 널쟁 보민 그 입상지도 문 멘네영 문 흔디 까지곡 밤이 까민. 경 각지 훌터당 허곡.
#2 각지째 현 건 잘도.
#1 경 아년 사람은 핀 거 강은에 이디 송키구덕 차근에.
#3 흐나씩 툽툽.

#1 영 핀 거 탕 이레 놓곡. 경허영 이딴 거 그득아 가민 저레 강 큰 그릇데레 비우곡 허 명 그치룩 타근에 든 각지 든 벨르명 막 경허른 해원도 타곡게.

#2 손이 아파 장갑 안 찌난.

#1 장갑이 어디 셔게, 옛날은.

@2 계난 멘네가 영 열리민 영 필 거 아니?

#1 으게. 영 헤사주.

@2 하얀 거 잇어예. 거난 시간 이시민 요것만 썩.

#1 으게.

@2 까는 거곡 경 안 허민 영 각지채.

#1 으게, 으게.

@2 여기까지가 각지채예.

#1 일 한 사름은 바쁘민 우선 초곤헌 때, 이슬진 때에.

@2 예.

#1 건 무사 경 헤시민 이슬진 때에. 그 셔부쟁이가.

@2 어.

#1 두루 벗어정. 저, 흐쉴 멘네에.

@2 젓어사, 아.

@1 바싹바싹 안 하니까.

#1 바싹바싹 안 혀난, 경허난.

@2 이슬진 때에 행.

#1 세백이 가근에 훌터오고. 우린 밧디서 경 굽영 타본 디가 잇어, 난. 다 훌터다근에만 집이서만 밤이만 까곡.

@2 각지째 트당.

@1 그거 트다근에 뭐 먹는, 찰랑 먹는 멘네드레기?

#3 드레기 어랑진 건.

#1 어랑진 건 막 먹어져. 먹어져도이. 멘네드레기 먹으면 나력 난텐 허명이 옛날 어른들이.

@1 못 먹게. 하하하.

#3 겨난 안 먹주게, 뭐 경.

@1 나력 나카부덴.

#1 경헌 것산디 아닌산디 몰라 우린.

@1 하하하. 시도는 헤 보지.

#1 옛날.

@1 나나 안 나나.

#1 어?

@1 나력 나나 안 나나 먹어볼 거 아니우파게. 하하하.

@2 먹어도 안 나.

#1 이젠이 나력 나는 사람은 엇어게.

@2 엇어.

#1 이젠 나력나는 사름은 엇인디 옛날은이 아이고, 우리 할머니넨 옛날 어머니네이 그추
룩만 골아라게. 멘네드레기 먹으면 야계기 나력 난텐 허멍.

#2 우리 씨아바님.

#1 경 헨 생전 아이 먹엇주게.

#2 씨아바님 나력으로 갓주게.

#1 아.

#3 옛날이난게.

#1 이디도 경 골아냐?

#2 나력으로양.

#1 아.

@2 진짜 나는 거? 아니지예? 진짜 아니.

#1 멘네드레기 먹어 불카 부덴.

@1 예.

#1 경 ㄱ는 거 아니라?

@1 맞아.

#2 나력병이 잇어났어.

@1 병은 잇주마씨.

#1 예, 옛날은 나력 막 셔났어.

#2 우리 씨아바님은 나력으로 돌아간.

#1 우린 문 동기간이나 원 초상이나 경 나력 나는 건 본 디 웃어도. 나력병 막 셔어, 이
디 우리 시누이도 나력병이엔.

#2 그런 병은 이셔도 일름사 거시기 험사신디 몰라.

#1 이젠 나력이 엇어게.

#3 아니우다게, 주사가 조난, 약이 조난 안 낫어.

#1 나력 말이 엇어, 이젠.

@1 예.

#1 옛날엔 멘네드레기 먹으면 나력 난텐 허멍 어느 절에 먹어서.

@1 하하하. 쟁 그거 탕 왓어예, 이젠 집이서 들련.

#1 막 들랴사.

@1 흐 변, 흐루만 들령 안 뉘어?

#2 안 뉘어.

#1 흐, 아이고, 아이고. 벳 나민.

#3 벳 나민 죽게 물려사주.

#1 죽게 물려.

#2 죽게 물류민 문 티 다듬곡 멘네 문 다듬아놔사 불리는 거.

#1 멘네 강 영 헤영헌 거 영 벌어진 디 영 멘넬 타와도이, 그디 또 죽은 씨 안 깨어 잇
는 거 싶나, 죽은 씨.

@2 음.

@1 죽은 씨?

#1 죽은 씨가 잇나께. 멘네 씨가 다 음지 아녕.

@1 아.

@2 안 깨진 거.

#1 으, 것ㄴ라 아께, 아께엔 현다.

@1 아께.

#1 아께엔 현 걸 다듬아놔서, 다듬아놔사 또 멘네 불르는 것에 영 불르곡. 두루 물리민 불르지도 못한다.

@1 아.

#1 막 잘 물려사.

@1 음.

#1 아이고 멘네, 미녕.

씨아

@1 멘네씨 빠는 거는? 멘네씨 빠는 기계 잇수께.

#2 저거.

@1 이거 아니고 씨 빠는 거.

#1 씨 빠는 거.

#2 ㄴ사.

@1 씨 빠는 거 이수께, 이수다.

#1 우리 집이 멘네 부르는 거 잇저. 저 우리 집이.

@1 잇수과?

@2 하하하.

#3 남이 집 짓을 때 데껴 비언.

@1 멘네 씨 빠는 거.

#1 어, 이거, 이런 거 셔. 즈룩은 엇어, 이거 다 셔, 이거.

@1 다 이수과?

@2 아.

#1 저 즈룩은 어드레사 강 데껴 벼신디 이견 셔, 이견.

#3 즈룩사 멩글믄 뉘주.

@1 즈룩사 멩글믄 뉘주.

#1 이거 짚아 앗앙, 짚아 앗앙 영영 드러 문 요 일로서 못 전명 껍껍 소리나곡 현다, 불려가민.

@1 아.

#1 껍껍, 껍껍.

@1 자, 어땡. 자예, 요디 멘네를.

#3 ** 사오난 막 잘 블라전.

@1 어드레 집어 넣을 거?
#1 요레, 요레.
@1 요레 멘네를.
#1 영 메기민 터럭도 들은 거난 영 헤가민 확 허게 그레 물영 들어가주기게.
@1 아.
#1 씨만 남으명.
@1 씨는 어디 셔?
#1 씬 이레 바끄명 이레.
@1 밑으로 떨어지고.
#1 이레 떨어지명.
@1 뒤에는? 멘네만?
#1 멘네 들른 것만 저 뒤테레 밋밋밋밋 구름거치 나가는 거라.
@1 음.
#1 잘 들와사 블라지주, 두루 들리른 블르지 못한다.
@1 이진 영 들리는 거?
#1 으, 영영 들리는 거.
#2 손으로 돌리곡, 흔착은 멘네 영.
#1 영 맥이고.
@1 헨난 맥이곡 헨난 돌리고?
#1 으게, 으게. 경허민 나 앞더렌 영영영 씬 도록 도록 털어정 뒤트렌 밋밋밋 구름꺾치 저레 나가곡 경허는 거 아이가.
@1 음, 이, 이진 뭐엔 굴읍니까? 야인 이름이 뭐파?
#1 브르는 물레영 허주, 브르는 물레.
@1 브르는 물레예.
#1 으, 브르는 물레.
@1 브르는 물레.
#1 좇는 물레.
@1 예.
#1 좇귀. 하하하.
@1 좇귀는 뭐?
#1 좇권 미녕찰 때 요디 영 버치는 거.
#3 들르는 거, 벌겨지게.
@1 아.
#1 그걸 좇귀 엇이민 미녕 못 찬다.
@1 아.
#1 좇귀가 영 브쳐져사 브디가 제대로 오랑 탁탁 잘 미녕 차지는 미녕이 뉘느네.
@1 음.
#1 그것이 좇귀 엇이민 영 줄아져근에.

@2 벌어, 벌려지는 거.
 @1 벌려지는 거. 으.
 #1 아이 뉘다.
 @1 자, 요기서 요거, 요거 영 잡앙 들리는 건 요건 무신거엔 곱아?
 #1 즈룩계.
 #3 즈룩.
 @1 즈룩예.
 #1 으. 물렛즈룩.
 @1 물렛즈룩.
 #3 물렛귀.
 #1 브르는 물렛귀.
 @1 귀.
 #1 으.
 @1 요단?
 #1 브르는.
 #3 멘네 브르는 거.
 #1 브르는 쌀.
 @1 쌀.
 #1 으.
 @1 으, 가운데 쌀.
 #1 즈룩.
 @1 즈룩.
 #1 요건.
 @1 요단 귀.
 #1 귀.
 @1 으.
 #1 요건 버텅. 요것ㄴ라 버텅이엔.
 #3 곱아 앓는 버텅이.
 @1 곱앙 앓는 게 버텅?
 #2 어, 것 곱아.
 #1 버텅.
 @2 버텅.
 @1 으, 요건?
 #1 이거 몰르켜. 뭇인지사.
 @1 아, 곱아 앓는 게 버텅예.
 #1 어, 이거 곱아 앓아사 뉘어.
 @1 이거는 기둥 무신거엔 곱는 거 엇수과?
 #1 게, 이건 몰르켜. 요거허고 요건.

#3 브르는 물렛 지둥이엔 곱으믄 뉘주.
 @1 아 물렛 지둥예.
 #1 지둥이엔 곱아보진 아녀곡.
 @2 네, 네, 네, 네.
 #3 아이고, 이디서만 혜정 가켜. 다른 디 강.
 @2 아니, 우리 오늘 여기서만 헐 거.
 @1 여기서만 할 거.
 #3 아.
 @2 하하하. 예, 예.
 #1 우리 집이 이거 싶저. 도라무짱 안네 싶저, 이거.
 @2 이거 찍으쿠다.
 #3 도라무짱 안네 시민 문 삭아 불니다. 문 돌렛다근에 옛날.
 #1 예, 예.
 @1 요 밑에가 요디가 안 막아젧수과?
 #3 아니.
 #1 이던 널착으로 막아지난.
 @1 게난.
 #1 널착으로.
 @1 널착으로 막아지지에?
 #1 으, 막아져.
 #2 막아져야 뉘.
 #1 널착 다 알룬 걸로 요디 다 영 뵙여, 막아지게끔 요디 흠파근에.
 @1 아.
 #1 메와진 것이 셔. 막아져사주. 씨영 불르는 거영.
 @2 맞아.
 @1 서꺼져 불어.
 #1 사둔, 사둔 뉘 베.
 @2 사둔 뉘 베.
 #1 으, 그거 막아진 거 있나.
 @1 막아져사 따로따로.
 #1 막아져사 뉘는 거.
 @1 으.
 @2 음.
 @1 막아져사 사둔 뉘는 거 아니민 엇어야.
 #1 으, 막아지지 아녀민 혼 둔 뉘민 씨영 저레 불른 거영 어, 서꺼정 안 뉘.
 @1 으, 그게 사둔 뉘는 거?
 #1 사둔 뉘어.
 @1 서꺼지는 게 사둔 뉘는 거?

#1 으게, 사둔 뉘엿 아이 뉘어.
 @1 게민.
 #1 우리, 우리 집인 저거 막아진 거 셔.
 @1 씨, 씨 다 툄랏어예, 이제예.
 #1 으.
 @1 예, 그다음에 어뎡 헐 거우꽈? 씨 불른 다음?
 #1 씨 불르민 멘네가 이디 나왔주.
 @1 으.
 #1 저, 소게, 소게 님은 거.
 @1 예.
 #1 나오민 그 딱시 씨 까먹은 것이 셔, 이거 블라가민.
 @1 예.
 #1 씨 까먹은 거, 거 멘네 문딱 일일이 영영 줍아 보멍 베리씨멍 씨 까먹은 거, 다, 다 다듬아 뒤근에 또 파씩 툄류왕.
 @1 음.
 #1 툄류와근에 태우는 솜틀 태우는 디 강.
 @1 응.
 #1 테왕, 테운 거 보그락헌 거 나오민 정대엔 헌 거 있어, 대죽.
 @2 으.
 @1 대죽으로 만든 거?
 #1 대죽 꾀뎡이, 꾀뎡이.
 @1 으.
 #1 그거 아정 가근에 멘네 테와진 거 보그락헌 걸 요만이 영 놉근에 영 나오민 놉근에 이거 영 낡 영영 삭삭 툄아.
 @1, 2 으.
 #1 툄아근에 정대 확 빠불곡 영 농곡. 또 영 등경 확확 툄앙, 확 빠근에 영 농곡 빠근에 허영 이거 요만큼만 흐 줍씩 무꺼.
 @1, 2 응.
 #1 저, 그, 정 멘들아논 멘넛정으로 이, 이걸 딱 무꺼. 흐 문씩 무꺼, 흐폼씩.
 @2 으, 으.
 #1 무꺼근에 이만씩 헌 거 네 개민 흐 근 뉘메. 이거 정 녀 증.
 @2 으.
 #1 듄뚱허게 녀 증이민 흐 근 뉘곡.
 @1 녀 줍? 녀 증?
 #1 녀 증, 증, 증. 네 개.
 @1 흐 증? 음.
 #1 무꺼 거 네 개민 흐 근 뉘어. 흐 근 뉘곡 그것이 세 근, 셔 근이민 멘네 흐 빌 뉘 거. 흐 빌, 미녕 흐 빌 뉘 거.

@1 어.

@2 으, 서 근이민?

@1 으.

#1 씨채 건 씨채 불르지 아녕 씨채 건 열 근이 혼 빌레기.

@1 아.

@2 예.

#1 정 뒤민 서 근 뒤어.

@2 예.

#1 씨챗 건 열 근이 혼 빌레기.

@2 응.

@1 응, 게민 영.

#1 씨 물려근에 테와근에 정 열, 서 근이민 혼 빌레기, 마흔 자. 이젠 미녕 마흔 자. 혼 빌 뒤는 거.

@1 예.

#1 경 허믄 정 허여다 낡 드러, 드러 좇을 거.

잣기

@1 예, 그다음에 좇을 거.

#1 좇아.

@1 이런 걸로 좇을 거?

#1 이런 건디 이거 닳은.

@1 흐끔 트나?

#1 이거영 똑 닳은 거여만은.

@1 응, 달라?

#1 으, 이거, 이거 닳은 건계.

@2 요거?

#1 가레기.

@2 가레기 이신 거.

#1 가레기 이신 거, 요것가.

#3 건 좇는 건계.

@2 으, 가레기 이신 거.

#1 이것가 딱 맞은 거여계.

@2 예, 예.

#1 이것가 가레기 이신 거.

@2 가레기 이신 거.

#1 요디 썬 감아정도 이신계계.

@2 예, 썬 감아진 거.

@1 요계 줌 더 커.

@2 이저, 이저, 이저. 이저, 이저.
 #1 으, 이저.
 @2 이저, 이저, ㄱ튼 거.
 #1 이저 ㄱ튼. 미녕 좇는 거.
 @2 미녕 좇는 거.
 @1 아, 그제 미녕 좇는 거?
 #1 이저 ㄱ튼 미녕 좇는 거, 요거.
 @1 어느 게 가례기꽈?
 #1 요거, 요거, 요거. 요디 볼록 슬진 것이 요꺼장 꾀텡이 나신 게, 가례기. 요거 앞이도 영 셔사 뉘는 거라.
 @2 응.
 #1 앞이도 못 보민 안 뉘어. 이 썰이 요디만 감아져근에 예, 요 썰이 요 가례기 꾀텡이 ㄱ장 감아져사 썰이 잘 뽑아정 나와. 영영.
 @1 응.
 #1 이 썰을 꾀텡이레 올려면 썰 나오질 아녀. 못허, 안. 썰이 나오질 아녕.
 @2 그럼 이, 이 정 아까 ㄱ튼 거를 어디 놓을 거?
 #1 정이사.
 @2 어디 놔두민?
 #1 이거 차룽.
 #2 손에 심어사.
 @2 아 옆에.
 #1 풀 브른 차룽에.
 @2 풀 브른 차룽에 낵.
 #1 옛날에 풀 브른 차룽에 정을 영 놔근에.
 @2 으, 낵?
 #1 으, 놔근에 하나씩 앓이멍.
 @2 어.
 #1 영헤영 미녕을 드려 좇는 거라.
 @2 예.
 #1 가례기영.
 @1 뉘에 끼울 겨우꽈?
 @2 이저, 이저 어디, 이걸 어디 꾀일 거? 영 썰 가져왕?
 @1 가례기, 가례기.
 #1 무시거?
 @2 이 가례기에?
 #1 이거, 이디 미신.
 #2 거 감아져신게.
 #1 저, 조, 조남텡이에 거 영 벳겨다근에 요영 가례기에 영 끼운다게.

@1 예.

#1 끼와근에 우테레 씨를 이레 부찌근에 드러 감앙, 저 둘러가민.

@2 어.

#1 영 정 허여근에 둘러가민 씨이 드러 나와.

@2 어.

#1 정 허영 정, 이딛 걸 풀 불른 차롱에 영행 낫당 이딛 거 하나 앓앙 영허영 영 일로 둘러가민 요레 씨로 허영 영허민 이레 영 올리곡 허명. 이거, 씨, 가레기 씨도 막.

@1 감아져수다.

#1 감아진 건디 이거 잘 아이 뉘 거여.

@1 게난. 잠깐만예, 아까 정, 멘넛정에서 씨이 빠정 요레 씨이 감아질 거 아니?

#1 으.

#2 게메 경.

#1 감아지민 막 슬지지?

@1 예.

#1 하영 감아가민 슬지민 빠.

@1 응.

#1 씨 허당 끊어 뒤근에 영 빠민.

@1 응.

#1 빠뒤근에 따시 즈깃쟁이에 미시거 영 벳겨온 것가 셔. 그걸로 요레.

#2 가레기레 낄 거주.

#1 가레기레 영 끼와근에.

@1, 2 응.

#1 또 씨 뽑은 걸 이디 싯주게, 이디 허당도 끊은 거 이디 정에 부뜬 것가.

@1 응.

#1 그걸 이레 특허게 영허게 영허게 특허게 부찌근에.

@1, 2 하하하.

#1 영영 둘러가민 감아지명 이, 요 정으로 헨 등겨가민 씨이 나온다게.

@1 아.

#1 겨곡 이 고주기영 현다, 고주기.

@1 어느 게 고주기?

#1 요 씨 감아진 것 곶아 고주기영 허는다. 고주기가 이거 윈 못허는 아, 고주긴 메두리도 아녀. 고주기가 이거 아녀. 멩지클에 영영영영 차는다.

#3 예, 그거사.

#1 허는 건게, 이거.

@1 음.

#1 경 멩지 차젠 허믄 영 멘들앙 뉘게.

#3 예, 예.

#1 이 ○○ 어멍 허는 거 보난 똑 이 모양으로 멘들앗어.

#2 으, 그 모양으로.
 #1 영영영영 허는 거 이거 미녕 좇는.
 @1 잘못 뻘구나.
 #1 고주기가 아니, 아니.
 @2 그림 잘못 그렸구나.
 @1 으.
 #2 미녕은 질게 감아지는 따문 허곡 그자.
 #1 이거 미녕 좇는 사름은 이추룩 고주기 멘드는 사름 엇어. 우리 느랑 늑 빌어근에 다 미녕 좇았어.
 @1 게믄 어떻 해야 됩니까?
 #1 이 앞인 슬지곡.
 @1 앞인 슬지곡.
 #1 앞인 슬지곡 뒤엔 꼬늘게 헤영.
 @1 아.
 #1 이 앞인 막 뽕그랑허게, 막.
 @2 야인게, 야이 영 행 깰늘게?
 #1 아이 그추룩, 그보담도 더.
 @2 더?
 #1 이디가 더 슬경 이딘 막 깰늘게.
 @1, 2 아.
 #1 멘들주, 이건, 이건 저 멩지.
 #3 차는 디, 저.
 #1 차는 꼬린게. 멩지 차는 꼬리, 꼬리.
 @1 으.
 @2 아.
 #1 멩지썰 저 영영 허는 디 차는.
 @2 어렵다.
 #1 꼬린게, 이거 보난 알아져.
 @1 게믄 요거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엔 어떻 헐 겨우파?
 #1 예?
 @1 그다음 무신거 헤?
 #1 이거, 이거 허민 또.
 @2 이거 행, 썰 창.
 #3 놀아근에게.
 @1 이건 무신거렌 꼴아? 아까.
 #1 고주기.
 @1 고주기엔.
 #1 고주기에 따시 감아사 썰을 또시 감아사 동글락허게.

@1 음.

#1 쏘꿍에 우린 보멸 딱지나, 돌썰기 동골락헌 거.

@1, 2 음.

#1 보멸 딱지나.

@1 보멸 딱지나.

#1 보멸 딱지나 돌썰기 쩌그만헌 거.

@1 응.

#1 공기, 공기.

@1 예, 예.

#1 공깃돌 닳은 거 헤다근에 이 고주기에 이 썰을 영 사발에 낀, 옛날에 영 영 사발에 낀 감앗주게. 영영 감아지민 사발에 영 노민 영영 감아. 영 감앙 이만큼씩 감아.

@1 음.

#1 썰을 감아뇌근에 어, 열 개 허영도 놀곡, 열 다섯 개엔 놀곡, 스무 개 행도 논다. 경 허민 열 갠 헤영 놀민 예, 두 시간 걸령 놀, 두 시간 걸릴 건디 스무무 겔 돌게 스무 개 멘들양 허민, 예, 두 시간 걸령 놀 건디 혼 시간이민 놀아지메.

@1 음.

#1 수정 으라 개 헤영 스무 개 딱 맞게 허민 영 새긋으멍 그거 다 계산행 옷새 미녕이 민 멧 번 새긋은 거 다 나오랑 문 경 헤영 옷새 브디에 꿰어근에 미녕 메곡 차곡 경허주 게게. 건디 이거 문딱 도르기로 문 도르기로 감아사 놀곡. 놀아뇌사 돈 췌엇당 메곡. 경 행 차는 건디 꼬리도 또시 이 고주기엿 거 꼬리도 또시 영 췌영, 영 꼬리도 딱시 감곡. 또 놀 거, 놀 헐 건 도레기로 감곡. 꼬리로 영영 차는 건 이제 꼬리로 감곡.

#3 꼬리로 감아사.

#1 트나게 감아사. 문딱 도레기로 감아도 안 뒤는 거.

#3 숲양 뇌두민 저 씨어 불곡.

@1 하하하. 놀 건 도로기로 감아사 헌텐 헤신디.

#1 으.

@1 도르긴 어멍 행 감는 겨우파?

#2 동글락허게.

#1 도르긴 어멍.

#3 이만이 행.

#1 공깃도르기레게.

@1 아 똥글랑허게 감는 거.

#1 어게.

@1 그게 도르기로 감는 거? 음.

#1 똥그락허게 미신 이추록 썰로 영 행 드러 감아가민게, 영허민 이, 이추록 감으면이.

@1 음.

#1 이거 할 거 아이가?

@1 예.

#1 이거 또 다시 이걸.
 @2 공깃돌.
 #1 또 이레 돌려근에 요디.
 @1 아, 공깃돌을, 으.
 #1 이레 돌령 허여지곡.
 #3 공거치 동골락허사주.
 #1 요레, 요레 돌려가명.
 @2 예.
 #1 감곡 저레 돌령 감곡 막 허당 보민, 이만이 크주게.
 @1 예, 놀 건 도레기로 감곡. 아까.
 #1 꼬리는.
 @1 꼬리는.
 #1 손에 쥐영 꼬리.
 @1 응.
 #1 영 소랑허게 영, 꼬리.
 #3 영영 감주, 영영 감아.
 @1 이렇게, 이렇게?
 #1 어, 경 감아사 꼬리.
 @1 감는 건 꼬리.
 #1 꼬리.
 #3 숲아근에 저 차사 허여.
 #1 숲아.
 @1 음, 꼬린 흐뎡 이땅 감을 거고예. 놀, 아까 새줏는 건 어평헌 겨우파? 새줏는 거.
 #3 새줏는 건 문차 굳지 아녜어? 멍지 좇는 거나, 미녕 좇는 거나 ㄹ튼 거.
 #1 새줏는 건 놀 때에, 놀 때에, 놀 때에.
 @2 음, 아까 이거 영영.
 @1 아, 이렇게. 어, 맞아, 맞아.
 #1 엄지손구락 영영 새줏는 것이.
 @1 예, 예, 예.
 #1 경 헝 새줏아사.
 @1 아까 똑같이 놀 거잖아예? ㄴ 다음에 그다음에는?
 #3 메어사주게.
 #1 돈 쥐영.
 @1 메는 건, 아, 돈 쥐영 숲앙.
 #1 숲앙.
 @1 그다음에?
 @2 메는 건 뭐?
 #1 메는 건 풀 맥영.

@1 잠깐만예.

#1 바지허곡.

#2 난닝구 엇이난 요런 디 터주와근에 저 무시거 멘들안 입어나지 안헛수과?

#1 게, 옛날.

@ 무신거 멘들앗수과?

#2 난닝구 엇이난 젓만 막아지게 이디 영허곡 요던 요만씩허게 허영 요레 하나 부찌곡
요레 하나 부찌곡 해근에 입어났어.

@1 그냥 티로?

#1 옛날 난닝구 대신게.

@1 난닝구 대신에.

#1 막 거 더운 때, 더운 때. 막 더운 때.

#2 더운 때 여름에.

#3 마고지, 마고지.

@2 여기 단추 멩? 뭐 여기 뭐 들메기 멩?

#2 단추 안 메영.

@2 뭐 메?

#2 요런 거 영 험벅 하나 부찌고.

#1 험벅으로 영.

#2 터지게 이레.

@1 아, 조끼처럼?

#2 경헝 가슴 막아지고 등아지만 흐뎡 막아정 쩌끄만허게 헝 입어.

@1 건 뭐엔 굴읍니까?

#2 그거 뚝바데엔 굴아신가?

@1, 2 뚝바데.

#2 뚝바데엔 안 굴앗어. 거 무신.

#1 뚝바데엔 헛주 무시거.

@1 아.

#1 뚝바데주, 옛날.

#3 계난 뚝 나가난 뚝 받는 거. 쩌끄만허게.

@2 맞아.

#2 기지 엇곡 허민 요만큼 허여. 뚝 하도 나가난 뚝 받은 거.

@1 그 우에 뭐 안 입영 그거만 입어?

#2 적삼 입엇주게, 적삼.

#1 여름에게 집이서, 집이서.

#3 어드레 나갈 땀 입엄주게.

@1 아.

#1 집이서 요새 난닝구 입는 식으로 경헝 우리 어머니네도 느랑 경헝 입어난.

#2 옛날 옷 그거 이서났어.

베매기

@1 아까예, 곤단에 그 실 놀아근에 밑에 그시락불 살랑 도뚜마리 영 감고 허는 거 안 골아쨌덴.

#1 그건 미녕 메는 거영 허주.

@1 계난 그건 어떻게 메는 거짜?

#1 거 거 돈 쨌 걸 숲아근에, 숲아근에, 영 걸쳐근에 물 빠쨌 막 물 빠주민 말짜엔 저 가시, 우리 어머니 느랑 경 가시리에 모인 좁쌀 낱.

@1 응.

#1 경 말치에 큰 말치에 막 가시리 놓고 모인 좁쌀 낱 막 죽추룩 썩.

@1 응.

#1 썩근에 숲은 거 돈 쨌 거 물 빠져근에 시득시득 물 거의 빠져근에 영 걸치민 돈 쨌 거 숲은 걸 걸청 물 거제 빠진 걸 그거 문딱 그자 돈 채 낱 막 그 다라에서 그 죽 낱 막 풀 맥여.

@1 응.

#1 그걸 막 풀 메영 막 놀리다근에 영 풀어근에 영영 홀트명 풀어근에 조그만헌 멩텅이 에 찍 하영 길앙 멩텅이 굽에 찍 하영 길앙 경 안 혀민 그 풀이 문 느려근에 멩텅이가 다 젓곡 허난. 멩텅이 굽에 찍이나 조찍이나 막 길아근에 그 우트레 문딱 홀트명 풀 맥인 걸 홀트명 풀 맥인 걸 홀트명 골로로 맥여져시냐? 말아시냐? 다 막 놀리명 행 돈 풀어근에 문 딱 멩텅이레 다 담앙. 담아근에 저만이, 구실퀴엔 헌 게 잇주גיע.

#2 영 가달 든은 거.

#1 영 가달 든은.

@2 예, 남가지 영 행, 영 행?

#1 응, 구실퀴엔 헌 게 또시 영 이만이 노프게 영.

#2 즈룩 이신 거.

#1 즈룩 영 세우곡 헌, 양 가달 든은 것이 영혀근에 낭 혀영은에 구실퀴엔 헌 게 셔. 그거 혀근에 저 올레레 낱 그 멩텅이에 담은 풀 맥인 걸 담은 걸 구실퀴 우이 농곡 그레 착을 탁허게 구실퀴 우이.

#2 지들라.

#1 지들랑 탁허게 그레착 놔낱 그 우터레 멩텅이에 그 풀 맥인 걸 놔근에 구실퀴 즈룩 에 그 풀 맥인 걸 딱 무껴. 무끄민 멩텅이에도 잇곡 이 이펜터레 도꼬마리 쪽터레도 오게 허곡 혀근에. 경헤근에 영 아랜 불 살랑 도꼬마리 이디 또시 말목 영 두 개 박아근에 요 레 도꼬마리 농곡 행 저디 구실퀴 시민.

@2 여기 구실퀴 이수다.

#1 응, 겨 구실퀴 시민 그 구실퀴 츠츠츠츠 등겨 오라.

@2 응.

#1 불살른 쪽드레 도꼬마리 신더레.

@2 응.

#1 등겨 오명 이디 불 살른, 아래 불 살르민 우인 영 솔로 영영 솔로 빗지명.

#2 솔비치락도 푸는 거.
 @2 예, 영 동그란 거 이수다예. 솔이 이만큼 이서예.
 #1 으게. 솔 솔.
 @2 예, 이렇게 텡 영영 빗을 거?
 #2 얼레기 ㄹ찌 영영 빗져.
 #1 테레비에도 요 댓새 전이 드러 나라, 베, 베.
 @2 게난 영 생겨십디다.
 #1 응, 그추록 현 거.
 @2 손잡이 잇고 여기 털 잇고 영영 빗질 거예? 으.
 #1 거 숨부기발로 멘드는 거.
 @2 숨부기발. 예, 좋수다.
 #1 숨부기발로 멘드는 거.
 #3 난 무신걸로 멘드는 거 몰르고.
 #1 숨부기발. 바당에 숨부기.
 @2 숨부기.
 #1 숨부기발로 멘든 거. 그 솔장시도 풀레 텡기주기게.
 @2 그거 숨부기발로 만든 거 몰란.
 #1 그거 영 쓸쓸 영 빗지명 느리와근에 그디 브디에 영 느리와근에 이디 몰르민 도꼬마리에 저디 가근에 영 등기명 또 영 감아. 도꼬마리, 드러 감아 물리운 걸. 베영대 영 노명. 베영대 아이 낳도 아이 뒤어.
 #3 부떠 불영게.
 #1 부떠. 경 베영대 노명 문딱 도꼬마리에 문딱 감아근에 등기명 또시 도꼬마리가 불 슬른 즈꼳더레 ㄹ져오라가민 또 이제 그 이 구실퀴 즈룩에 무꾼 걸 클러근에 멩텅이 들르 곡 구실퀸 저레 따시 올레레 저레 멀리 꺾어다 낳 또 경허명 등경 메영, 도꼬마리에 문딱 감주기게. 감으민 베클러레 아져다 뇌근에, 잉에 걸어근에 잉엔 실로. 실 잉에 허영 걸어근에 경헤근에 차는 거주기게. 경허민 발로 영 등기명 그 책에 ㄹ사.
 @1 예, 예, 예.
 #1 발로 영 등기명.
 @1 겐디 아까 구실퀴는 뵤로 멘드는 거마씨?
 #1 낭으로.
 @1 어떤 낭, 무신 낭으로?
 #3 질긴 낭으로.
 #1 질긴 낭으로 삼 가달 영 허여근에 멘든다게. 영허영은에 이 낭이 이거 이만이 쫄랐다고 허민 영허영 이걸랑 일로 ㄹ차 불민 이추록 허민 이딘, 이딘 영 행 세우는 게 셔. 이딘. 영행 이만이 슬진 낭 이 든든하게 딱 이디 싱거지민, 싱거근에 요딘 또시 요만이 헤영 낭 행 이디 부뜨게 멘들곡 헤근에 그 우이 ㄹ레착 딱 낳, 그 우이 그 풀 뵤인 거 멩텅이에 거 탁 놓곡 헤영 허는 거주. 경행 불 살라근에 솔로 빗지명 도꼬마리에 감아근에 베클에 아져다 낳 차는 거주.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2 아이고 저 아니여.
 @1 어떻게?
 #1 영 생견. 영.
 @1 하하하.
 #1 영 이디 딱 지둥이 셔. 이 우터레, 이디 영. 이거 너미 별겨젯저, 요만이 행. 계민 이
 우이 ㄹ레착 탁 놓앙. 베개, 베개시리. 경행 벤 거 벤 거 둥기명 도꼬마리에 감아사 든든
 허게 베영대 노명 감아지주. 경 안 허민 복삭행 안 뉘주게.
 #2 베영대엔 허민 몰르주.
 @1 계난 베영댄 무신거파?
 #2, 3 대로 만든 거게.
 #1 대, 대, 대.
 @1 대는 댜데 베영대.
 #1 대, 이만큼 이보단 흐솔 독지나 이만큼 현 거 요만씩 끊어다근에 딱 도꼬마리에 맞게
 끊어다근에 그걸 영 노명.
 @1 아. 도꼬마리에 말 때 같이?
 #1 툄르민, 툄 때. 새에 영.
 #3 그거 안 노민 부떠 불주게. 실덜이 부떠 불어.
 @1 아.
 #1 경해도 흐 도꼬마리 멧 번 감아사 그거 흐 번 영 농곡 허주. 매번 흐 번 감으민 영
 농곡 허영은 당추 아이 뉘어.
 #3 당허질 못허주.
 #1 도꼬마리가 요멘인 크질 안 허난 베영덜 많이 쓰민 미녕 흐 도꼬마리 하나에 네 빌이
 나 닷 빌 감젠 허민 막 아이 뉘어.
 @1 아.
 #1 계난 흐 멧 번 감아와사 베영대 하나씩 영 농곡. 경허영 허는 거.
 @2 이거 그림 그린 거, 요렇게 잇는 건 이진 바닥에 잇는 거?
 #1 요진 요진 보션이고.
 @1 이거 흐폼 잇당 물어볼 거.
 @2 아니, 이거 삼춘. 이렇게 뉘 거 바닥에 잇는 거? 이거 바닥에 잇는 거?
 #1 땅바닥에 낵.
 @2 이거 땅바닥에 낵?
 #1 응, 땅바닥에 영 낵.
 @2 영 낵 여기 우에 ㄹ레착을 지들르는 거라, 쓰러지지 말렌?
 #1 ㄹ게. 이디도 또시 이디 새에 허는 낵도 딱 받착사여.
 @2 이거 영 세우고?
 #1 ㄹ, 경 세우곡.
 @1 무사 세웁니까?

#2 흠뻐만 영 즈룩 심어지게.
#1 계민 이것더레 무꺼사여. 풀 맥인 걸 저.
#2 즈룩 딱 손에 심어지게만.
@2 이거 즈룩?
#2 응.
@1 요기 영도 허고?
#1 영허영 이디 딱허게 이것도 낭 이거 영 받치는 것도 셔사여. 이디 영허곡 이딘 또시 이거 막 든든헌 낭 이디 셔사.
#2 ㄱ레착 엇이민이 납작헌 돌이라도 뒤는 거난, 거.
#1 납작해도 켁 무거와사 뒤어.
@1 ㄱ레착은 어레 놓는 거파?
#1 이 우터레 탁 낭 또시 이 우틴 풀 맥인 멩텅이 영 낭. 우터레 낭 요디 졸라메어근에.
@2 불은 어디 피울 거?
#1 불은 이 도꼬마리 앞이게.
#2 도꼬마리 앞이.
@2 아, 저기? 저기 도꼬마리가 이서?
#2 저레 잇는 거주.
#1 이건 영,
@2 아, 돌릴 건게. (모두) 하하하.
#3 머리뺏펜이 잇는 거주게.
@2 영행 여기 지들랑.
#2 경행 등기명 허는 거주.
#1 이디 영허믄 도꼬마리 영 제쳐근에 또 우티 말목 박아젓어. 들러근에 말목더레 탁 허 게 낭 확 감아, 감아근에 또 이레 탁 세우곡. 감곡 경허는 거. 이디서 감으멍.
@2 계민 실이 여기서 영 나갈 거?
#1 으게.
@2 아, 여기서 여기서 나갈 거?
#3 불은 저 가운디 살좌.
#1 요딘 불 살랏주. 도꼬마리 이디 잇고. 불 살좌.
@2 아, 도꼬마리 앞에 불 살좌?
#1 으게.
@1 계민 실은 흥 가닥만 갑니까?
#3 아니, 문딱.
#2 문딱 가사 도꼬마리에 갑주.
#1 이만이 슬지주. 문 풀 맥인 것이 이만이 슬져. 미녕 너비 이만이 넓게 실이 허쟁 허 민.
#2 흥 으답 친 헤사 미녕 너비주게.
@2 계민 줄이 멧 가닥이 갈 거?

#2 문딱 갈 거주게.
 @2 문딱 갈 거?
 #1 실 수정 세어지느냐?
 @2 아, 한꺼번에 쪽?
 #2 흔꺼번에. 눈 거 흔꺼번에 쪽.
 @2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만 그래도 조금은예. 예, 예, 예, 예. 또 오게.
 #1 이디 도꼬마리 쪽쪽 등기명 물리명 빗지명, 물류명 이디 브디허영 영 누리와가명.
 @2 계민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다시 풀칠도 할 거?
 #1 풀칠은 아녀.
 @2 계민 이거 언제 쓰는 거?
 #1 그냥 빗지는 거. 빗지는 거.
 #2 그거 영영 빗영 저.
 @2 아, 이진 빗지는 거? 풀칠하는 게 아니고?
 #1 응. 빗지는 거.
 @2 풀은 아까.
 #1 풀은 이디 다라에서 다 맥영 흙치 멩텅이에 담아 노민게.
 @1 풀칠하는 게 아니었어.
 @2 이진 정리하젠 빗지는 거구나.
 #1 아이고, 흐는 걸 봐사 알주기.
 #2 영 부뜨는 거 떼는 거.
 #2 골은 걸론 모를걸.
 @1 그러면 이때 ㄹ스락불을 밑에 허는 거.
 #1 이 아래 허는 거게. 도꼬마리 이디 잇고.
 #2 도꼬마리 이디 시민 요만쯤에 살좌사주. 이디 살황 안 뉘어. 요만쯤 살좌사.
 @3 축축허게 풀이 잇고 여기서 쪽쪽 오면서.
 @2 젖은 상태에?
 #1 이디 말코지가 또 든든헌 말코지가 이디 두 개 딱 세왕.
 @1 말코지. 물 하나 더?
 @2 이거 말코지.
 #1 말코지가 이디 딱 세우민.
 #3 저 자라근에 도꼬마리 허고.
 #1 도꼬마리 이디 영 허민 이딘 불 살좌지고 이딘 영 빗지명 물리왕주게, 물리왕서.
 @2 아, 예.
 #1 계민 이디 빗지명 허단 사름이 기술자라 가근에 이 도꼬마리 이디 심영 영 갖혀. 영 갖혀근에 영 들렁 우리 어머니 느랑 경. 이레 탁허게 놔 영. 경행 영 허영 감앙 이레 탁 이레 세우주.
 #3 ㄹ스락불 피왕.
 @2 여기 ㄹ스락불.

#1 경 우리 어머니 항상 늙 미녕 메레 강 오라도 경허주. 요 실 하나라도 그친 거, 그차진 거 실은 드리 그차지주게. 그차지민 거 아무드레나 잇어도 안 돼주게. 똑 제 질레 지 갈 델 가사 돼는 거라. 게난 영 미녕 혈 충 몰르곡 뒷 물론 명챙이덜은 가민 불만 숙데겨. 막 불만 숙데기명. 와락와락.

#2 불은 거 재게 몰르렌 짓엄주게. 하하하.

#1 출리지 못 행 스뚝 화륙허는디 불만 숙데긴덴, 명칭헌 것덜은. 미녕 메는 디강 실 하나 곶령 즐라멜 충은 몰르고.

@1 이거 미녕 놀 때영 뭇 때영 어디 사름 화륙화륙 오민 안 돼고, 이런 거 이수과? 늙 이 사름 오민 오민 안 돼고?

#1 시끄르왕 이추룩 말 곧고 헤 불민 틀령 아이 뉘다.

@1 조용해야 돼?

#1 조용히. 도꼬마리 이거 도꼬마리 이디 널른 낭이주. 널른 널이주게. 이딘 빈 디고. 게민 싹 잣혀, 싹 잣히민 영 이레 낡 탁 허게 낡. 이 말목이, 말코지가 든든헌 거 허여. 이만이 슬진 거 행 두 개 탁 허민 이디 받으면. 게민 저 벤벤헌 그레착이영 그 문 이 말코지 으지로 꺾어와주게. 영 이디 영 세운 거 싹 잣히민 이 주르르허게 옹곡 주르르허게 옹곡 경허영. 요 깃장만 불 살좌진 어염 깃장 오민 클러근에 따시 저레 강 낡 또 동겨옹곡 그추룩 허명 미녕 메어. 예우. 경허민 흥 네 빌쫂, 흥 닷 빌쫂 허민 아이고 스뚝 도꼬마리가 이만이 슬져. 송애기만이 슬져.

@1 그레착은 뭇 허는 거마씨?

#3 그레 옛날 그레 영 가는 거.

@1 그레착은 여기서 어떤 데 필요한 거?

#1 베렌, 베렌. 베곡 납작허곡게.

#3 무거우렌 그레 지들루는 거.

@1 이게 그레착? 이게 이렇게 끌려가?

#1 응, 꺾어와사 돼는 거.

@1 이렇게 잇는 게 끌려가는 거야? 저기까지?

#1 응.

@1 그문 다시 또 여기 갖다 놓고 영 끌어가민 또 갖다 놓고 이렇게?

#1 응.

@1 아이고, 참 어렵다예.

#1 미녕, 질쌘. 아이고, 나 어려와.

@1 그다음 받디허고 받디집엔 어떻 허는 거파?

#1 이?

@1 받디집허고 받디.

#1 받디집은게, 미녕 찰 때사 받디집이 필요허고.

@1 아.

#2 흥 겁씩 꿰는 거주게.

@1 게니까 그거 흥 겁씩 언제 끼는 거파? 이레?

#2 문딱 메영 문 감아지민 이거.

@1 도꼬마리에 다 감았어?

#1 다 감아지민 베클러레 탁허게 낡.

@1 그다음엔.

#1 이제 차사할 거난. 차쟁 허민 잉에 걸어살 거주.

@1 예.

#1 잉에 거는 딴 앓앙 영 허영 웨올로 만딱 웨올, 우실 알실 문딱 허영 문 영 하나 영 실 하나 영 이레 등겨동 이펜 이 실 하나 허영 잉에 영 잉에 걸곡. 요만이 베영대 두 개 허영은에 영 허메. 베영대 두 개 허여근에 실허여근에 이 알실 영 하나 영 이레 췌허동 이 펜 실로 영 잉엿실을 확 걸러다근에 이 우터레 영 대 두 개 허영 영허영 그 수정 다 걸어 사주기게.

@1 응.

#1 그 수정 다 걸영 미녕 혼 너베기 다 걸어근에 허영 잉엘 다 걸어와사 이젠 말짜엔 이레 영 앓아근에 미녕을 차쟁 허민 처음에 차쟁 허민 요만이, 요만이 올을 녀겨뒤근에 올 로 허영은에 이디 곳텅이 챗번 시작이 곳텅이에 녀경.

#3 잉에가 두 개주게. 두 개민 영 올랐다 흐나 올랐다 흐나 느렸다.

#1 올랐다 느렸다. 경허멍 허여. 아이고.

#2 게난 브디에 꺾는 것도.

#3 눈으로 안 뺨은 설명헌 건 몰라.

@1 이디 허리에도 영 무신거 창은에 험니까?

#2 건 손으로 영 자는 거 허리에 영 딱 허주게.

@1 허리에 허는 건 무신거엔 곱읍니까? 곱는 말 엇수과?

#1 허리에 허는 건 거 뵈이엔 현다, 나 잊어불언 몰르켜. 이디 감는 건 물케엔 허곡.

@1 아, 이게 물케과?

#1 돌아진텐 현 소리라, 물케엔. 영 이레 감앙 이레 감앙 이디 허리에 영 헤근에 찍으로 멘든 거라.

@1 이게 물케구나?

#1 이것이 물케.

#3 므는 거난 물케.

@1 이거추룩 낭으로?

#1 경헌 거 닳아. 물케엔.

#2 낭이주게.

#3 곳쟁이 영 코쟁이 든은 거라.

#1 낭이라도 그냥 낭으로 안 허여. 이디 흙 질러. 흙 질렁, 물케.

#3 흙 질르곡 곳쟁이도 두 가달.

@1 흙 질른 건 어뎡 현 거과?

#2 흙 파지는 거게.

#1 이디도 거리곡. 이디도 가달 영 거리게 멘들곡. 양곳텅이.

@1 양꿏텅인 가달 영 거리게 멘들곡 가운 텐 흠지곡?

#1 경허영 허여사 이디 이 허리에 거 허여당 친 허여다근에 훅허게 감앙 이레 대어. 이디 가달 아니 허영은 이디 허리에 무끄지 못허여.

@1 응.

#1 경헝 그냥 이디 허여근에 그냥 영 톡허게 이레 걸질 안헤. 이디 이 들케에 가달 이디 트명 내왕 이디 파근에 이 낭 하나 이런 동골락헌 낭인디 가운디 영 팡 영 두 가지, 두 가 달로 영 뒤게 허메. 양꿏텅이.

@1 아.

#1 계난 이건 들케영 허고 뒤에 건 허리띠엔 헤신가. 뵘이엔 헤신고.

@1 밑에도 짚신 하나 영 잇지예?

#1 짚신. 짚신. 짚신.

@1 건 짚신이엔 그냥 곧고예.

#1 짚신 저 도꼬마리 두으로 저 뒤우로 허여근에 영 등기곡 영 놓곡.

@1 그림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짚신 하나 잇고 요게 들케.

#1 으게 이추룩. 게메. 이거 허리에 헤신게.

@1 허리에 헨예.

#1 경헌 거 이거 들케엔 현 거. 이디도 이 꿏텅이에 거리 뒤게 뒤엇어, 양쪽에. 옛날 우리 미녕 차는 식으로 뒤은 헤신게.

모시

@1 그다음에 모시, 모시도.

#1 모신 몰라.

@1 모신 몰라? 모시도 옷 멘들앙 입어났지예?

#1 모시로 옷 멘들안 입엇주게.

@1 무신 옷 멘듭니까?

#1 모시로 멘든 옷이 뒤 땃 개씩.

@1 보통 하영 멘드는 거.

#1 다 이 할망덜 모시옷 다 잇주게.

#3 적삼도 헝 입고.

#2 창옷도 허곡, 적삼도 허곡.

#1 남저 창옷 허곡.

#2 치마도 허곡. 또 소미 졸른 거세기도 허고.

#1 남저덜 남방도 허곡. 남저 호서와친 중의 적삼도 허곡 모시로 다 허여. 호서와치.

@1 모신 여름에 입는 거 아니?

#1 여름에, 한여름에.

@1 한여름에예. 모신 제주도에서 헝니까?

#1 아니. 몰라.

@1 제주도에서 모시 안 헝어예?

#1 모시, 난 그런 거 몰라. 모시 허는 건 모르켜.
#2 안 헤봤수다. 모시.

삼

@1 삼은 이 동네선 안 헛지예?

#1 뭐?

@3 삼베, 삼베.

#1 삼벤 아니.

#3 옛날에, 옛날에 우리 두린 때 삼 갈아낫어.

#2 옛날에 호근리는 흐끔 헤낫어.

@1 아, 헤낫수과?

#1 우린 알지 못헌다.

#2 흐쓸 갈안에.

#1 우리 나기 전이덜 헛주.

@1 삼베는, 삼베론 무신 옷 멘들앙 입는 거과?

#1 삼베로 못허는 옷. 삼베로게 증의적삼도 허고 죽으민 무꺼감도 허고 두건허고 상복허고 삼베로 뭐.

#2 치마도 헝 입고.

#1 다 여저 치메허곡 뭐 다 헛주게.

#3 죽으민 막 옷덜 안 입어? 거 삼베라.

#1 거 삼베 좋은 거주, 삼베. 다 옷 헛주게.

#2 두건이영 문.

#1 옛날은 저 사름 죽으민 남저 상복도 다 삼베 제라헌 거 옛날 헛주게. 이젠 삼베엔 헝게 엇어도. 옛날은 다 그런 걸로 헛어. 증의 적삼도 헝 입곡, 적삼도 헝 입곡. 다 그런 걸로 헛주게.

남자 옷

@1 게민 이번엔 옷 종류예. 남자 옷은 무신 옷, 무신 옷 입엇수과? 옛날 옷, 젤 속에 거부터예, 젤 속에 무신거 입읍니까? 남자는?

#1 남저?

@1 응.

#1 젤 소꼽에 무신 옷 입은.

#2 내의도 입어시카?

#3 옛날엔 반스가 엇어낫수과?

#1 엇엇어, 옛날에 반스 엇엇어.

#2 아니라. 우리 어린 때 깃장은 반스 잇엇어. 스뭇 옛날엔 엇어도.

@1 우에 거부터예. 런닝군 엇인 거 아니과?

#3 난닝구 엇인 거.

@1 거민 난닝구 엇이민 쥬 소곱이 뭐 입어났수과?
 #3 아무것도 안 입어.
 #2 저고리.
 @1 그냥 저고리.
 #1 우리 아버진 어떻게 거 몰라도 우리 하르바님은 느랑 여름에, 여름에 적삼, 베적삼
 우이 소곱에 무시거 들려지는 거 무시거산디.
 #3 뚝바덴가?
 #1 무신, 무신거.
 #2 어깨마리 만들안 여잔 입었수다.
 #1 낭발 닳은 거 깨는 걸로 여까진 거 하여튼 허고 그런 거 우리 하르바님 느랑 입어났
 어 여름에. 나 두린 때 느랑 봐났어. 우리 아버진.
 #2 비오는 날 즈세긴 입어났저, 우산 엇이난. 비오는 날 즈세긴 써났어. 새로 여깁.
 @1 즈세기? 즈세기가 어떤 거라?
 #2 새로 여까근에 영행 탁행.
 @1 도롱이. 도롱이.
 @3 비웃, 비웃.
 @1 요기 밑에 입는 거 아니민 우에 쓰는 거?
 #2 입는 거.
 @2 어깨에.
 @1 즈세기엔 곱읍니까?
 #1 접세기엔 현 거.
 @2 접세기.
 #1 새로 여깁게, 저깁이 창 이디 영 훌타지게 영 이딘 안 허고 이레만 허는 거 아니? 이
 로 알르레만 우산 엇이난게. 경헤났주, 새로, 새로.
 @1 남자 옷에, 처음에 적삼 입었어에. 그다음.
 #1 적삼 소곱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옛날에, 적삼 하나 입으민 그거.
 #2 저술엔 저고리 허나 입으민 또시 그레 후루메나 이시민.
 #3 적삼에 쥬께 안 입었수과?
 #1 적삼에 쥬께 입었주게. 쥬께사 입었주마는 난닝구 소곱엔 엇엇어.
 @1 적삼 입고, 쥬끼 입고 그다음에.
 #1 집이선.
 @1 어디 놀레 갈 거라. 외방 가젠 허민?
 #3 외방 가젠 허민 창옷.
 #1 외방 갈 땐 적삼 입영 쥬께 입고 우이 두리, 저 창옷이엔 현 거. 우이 입어.
 @1 우이 창옷 입읍니까?
 #1 응, 창옷. 겨울엔, 여름엔 창옷 겨울엔 두리막.
 @1 아. 여름엔 창옷.
 #1 겨울엔 안 부쩍 거 두리막. 여름엔 외겍현 거 창옷.

@1 외곬헌 건 창옷이렌 근는구나예.
#1 으. 외곬은 창옷, 안 부찢 건 두리막. 경헛주게.
@1 응, 그거 기진 무신 기지로 허는 거라?
#1 광목.
@1 광목으로.
#2 미녕 허고. 어디 서게? 옛날에.
#1 다른 건 엇어. 광목. 또 여름에 잘 헌 사름, 잘 출리는 사름이나 저 무신 즘지룽헌 베 노랑도 안 행 해뚜룩허고 헌 그 그 베 무시거엔 현다마는.
#3 조페.
#1 그런 베로나 창옷 행 입엿 텡이주. 다른 거.
#3 옛날 삼 출리곡.
@1 밑에 바지는 무신거 입어? 그냥 바지?
#1 바진 무시거 입어? 중의도 입고.
#2 즘른 바지. 즘른 바지 동무릅 더끄나마나 헌 거.
#1 여름엔 베중의 입고, 봄인 광목중의 입고, 겨울엔 광목바지 입고 옛날은 경헛주게. 다른 거 기지가 엇어.
#3 미녕 바지도 입엇수다.
#1 미녕바지 하르방덜은 미녕바지 입고.
@1 중의허고 바진 트난 거짜?
#1 중의 외곬짜리. 바진 안 부찢 거. 저을엔 소게 농곡 행 옛날은 헛주.
#2 짚레 저고리.
@1 아까 삼춘 곶은 거 이거 썩른 바진 뭐라?
#2 반바지.
@1 아, 반바지 옛날말로 썩른 바지.
#3 썩른 중의엔 헛주. 어디.
#2 썩른 중의.
@1 썩른 중의.
#2 난 바지엔 잘못 곶아전.
@1 아니, 나가 잘못. 썩른 중의, 응.
#1 갈중의도 허민 즘른 중의 잇곡, 진 중의 잇곡. 감 들인 거.
@1 즘른 중의, 진 중의. 응.
#2 누빈 저고리도 잇엇어.
#1 진 중의 남저덜 진중의 다림 청 텡여.
@1 다림 청 텡기고.
#2 저 누빈 저고리 이서났어. 누빈 저고리.
#1 즘른 중의 요만이 뜨게.
@1 거난 여름엔 경허고. 겨울엔 아까 누빈 거예.
#2 저 봄이.

@1 봄이.

#2 누빈 저고리. 그거 헐어가민 튼영 아기 지성귀허곡.

#1 니비 저고리 허영 입는 사름도 드물어. 흐썬 정채 출린 사름 니비 옷도 입주.

@2 니비 옷.

#1 손으로 다 낀 니비 옷도 아무나 입지 안헛저. 우리 어머니 니비 저고리 코 저고리도 헨 코 저고리 허민 요새에 코 듣는 식으로 코 저고리, 니비 저고리. 요디도 겨을 들민 영 소매 받으메. 이디 받아. 뜯 험벼행 반앙 빨 땀 튼영 빨곡.

#2 아, 튼영 빨아.

#1 튼영. 이디 그냥 니빈 저고리에 이디 배알은 받아. 험벼으로 영 반앙.

#2 자기 허난게.

#1 흐썬 영 그냥 대강 호앙 반앙 양착 다 헛당 봄 나민 빨젠 허민 그거 튼영 빨곡 경헤라, 우리 어머니 느량.

@1 그건 뉘엔 곱읍니까? 받는 거는 곱는 말은 엇어마씨?

#1 받는 건 무시거산디 경.

@1 아까 요기 배알이엔 곱안게마는 배알은.

#1 배알.

@1 배알은 이디가 배알이파?

#1 응, 배알.

@2 소미 아랫부분.

#1 도련.

@1 요긴 도련.

#1 도련이엔 허고.

@1 이딘 배알. 이딘 소미.

#1 소미.

#3 계난 옛날엔 소곱에 아무것도 안 입으민 겨울에도 영허민 이디가 등땡이가 스뭇 별경허게 나오고.

#1 얼언 살아져시카이.

#3 어떻사 헤신디 옛날 어른덜. 허리치메허곡 영.

@2 허리치메허고 저고리 입으난 이 사이가 비엿다는 얘기.

#1 이디 준등이가 나완게.

@2 준등이가 나완.

#1 저고리 즐르고 치메 알르레 느리민.

@2 아, 예. 저고린 즐르고.

여자 옷

@1 아까 남자 옷 곱고 이젠 여자 옷예. 여잔 어떻 속에 무신거 입읍니까?

#1 여자도 저고리 하나 행 입으민 말암주. 내복이 셋어? 소게 낡 저고리 헤.

#3 밑엔 속곳.

@1 밑엔 속곳 입을 거 아니.

#1 응, 밑엔 속곳. 우리 어머니 속곳 잘 안 헤여. 굴중의 즈르게 요만이.

@1 굴중의 쪼르게.

#1 응. 쪼르게. 그거만 헨. 즈른 중의가 있어. 즈른 중의. 속곳 대신 입는 즈른 중의가 시메. 이 굴은 이디 미녕도 두 곱허여근에 굴은 트나게 허고. 바지 굴허듯 행. 우리 어머니 느랑 그런 것만 행. 펄락허게 너르게.

#3 월 아무도 그 바지 입젠 허민 굴중일 입엇주게. 이 바지가 알 터져부는 따문.

#1 바진 케삭허난 바진 케삭허난에 옛날은.

#2 난 옛날 영 단추 들안. 옆이.

#3 이디 터져 부난.

#1 우리 어머니 속곳을 안 헨.

@2 계난 이만한. 속곳 안 입영 이만한 중의를 입영.

#1 응, 소곱에.

#2 여긴 체어젯주게. 영 앓이민 강알 베려지주게.

@3 사이가 찢어진.

@1 강알 터진.

#2 치멜 영 더끄지 안행 앓이민.

#1 헤싹헤 분다게. 영허민 헤싹헤 부난 우리 어머니 느랑 그 중의만 입어라. 중의. 속곳 안 입영.

#3 옛날엔 판스 서서게.

@ 고쟁이.

#2 엇인 사름은 중월 안 입영 그 바지만 입으면 항상 조심허지 안허민 보여났어.

#3 속곳은 헤벤 사름만 입엇수다. 헤벤 사름만 입영 속곳 입으면 헤벤 사름이여 헤벤 사름이여.

#1 그 바지만 입영사 살아져.

#2 경헌 사름도 서났수다.

@1 쪼른 중의 입고 그다음 뭐 입어?

#1 바지.

@1 그다음 바지.

#2 강알 터진 거 영 그자 앓앙 오줌 싸지는 거. 하하하.

#1 계난 그 즈른 중의 우리 어머니 이착 가달도 미녕 세 폭, 이착 가달도 세 폭 허민이 그냥 바진 헤싹허고 일로 확 등기민 오줌 그냥 싸져. 이디가 세 폭씩 허영.

@2 아, 넓으니까.

#1 넓영. 널르게.

#2 아, 경 널르게.

#1 우리 어머니 느랑 그추룩만 헤라. 그 중의 나 이제 헤 점직허여.

@2 계난 중의는 다 꼬매진 거라예.

#2 꼬매진 거주게.

#1 이디 다 막아져.
 @2 그민 여기로 헤싸. 오줌쌀 때.
 #2 아니, 알로.
 #1 일로 싸져.
 @2 일로 헤싸.
 @3 경 통 크게 하면 이 안으로, 안으로.
 @2 바지는 안 꼬메진 거난 이것만 확 헤쓰민.
 #1 바진 지냥으로 갈라져 불곡 영 등이민 확하게 이 가달이 널렁 이디 세 폭, 미녕 세 폭, 이디도 세 폭 헛어. 세 폭 안 허민 앓인 냥 오줌똥을 못 싸. 우리 어머니넌 속곳을 안 헤봤어. 옛날에 속곳을 안 입어봐. 그런 것만 뗏 개 허영 그런 것만 입언게.
 #2 아니, 기자 즘벙이ㄴ찌 멘들앙.
 #1 계난 어떻 즘수덜이나 속곳 입주. 경 안 현 사름사.
 #2 옷드리 사름덜은 속곳 안 입엇어.
 #1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넌 속곳 나 안 헤봤어. 즘수덜은 속곳 헤영.
 @2 응. 중의에 바지.
 @1 즘벙이는 어떤 거라, 계민?
 #1 즘벙인 남저 즘벙이주, 여잔.
 @1 아, 여잔 안 입고.
 #1 즘벙이엔 안 곺아.
 #3 다림 아이 치게 현 옷ㄴ라 즘벙이엔 헛수게.
 #2 동무릅 더끄나마나 현 것이 즘른 즘벙이
 #3 남저, 남저 요만이 허민 다림 못 현 것ㄴ라 즘벙이.
 #1 즘른 즘벙이.
 @1 응, 그른 여잔 우에 무신거 입을 거짜? 그냥 저고리 입어?
 #3 저고리, 저고리.
 @1 아까 뽕바데나 이런 거 안 입어?
 #3 안 입어.
 #1 뽕바덴 여름에 입엇주.
 @1 아, 건 여름에 입고.
 #1 여름에 집에서나 입주.
 #2 옷이 헛 게 핫어? 멩지 허고 미녕 허른 폴아근에 돈만 허젠 헛지.
 @1 하하하.
 #3 겨울에 솜 뉘근에 저고리 하나. 겨울엔.
 #1 미녕도 그추룩 하영 헤도이, 마흔 자 ㄴ득은 건 절대 입지 안현다게.
 #2 플젠만 허주.
 #1 플젠만. 영 베클에 문 차다근에 흐쉴 자치 남은 거나 누여근에 무시거 옷 허영 입젠 허주.
 #3 이 할망 일당 물어뵈 가사켜. 옷 못 허연.

@2 예, 맞수다.

#1 멧 번 그전에도 느랑 이 사름덜이 오주게. 오라도 말만 곧주.

@2 맞수다.

@1 게른 치마저고리 여자 입어살 거 아니짜예?

#1 치마저고리 입곡게. 이 독다림 영영 치는 중의나 싯주, 제라헌 거 여저게, 여름에 입는 거.

#2 일혈 땀 독다림 첫주. 갈중의 입영.

@1 독다림은 요디 동무릅예?

#3 아니, 아래까지 풀락허게 영영 헨 즐라멧주게.

#2 이 아래 귀마리에.

@1 귀마리에? 요기 아니고 요기 밑예?

#1 영행 즐라매는 게 잇나, 중의, 여저.

@1 여저도 독다림 치는 거지예. 남자만 허는 게 아니고.

#3 굴중의가 이만은 너른 거. 영행 딱 즐라 매영.

#1 굴중의가 이착 가달도 미녕 세 폭. 굴중의 이착 가달도 미녕 세 폭 허곡 강알도 막아진 것이 있주게. 그거 여름에 밧디 덩기는 사름, 그거 입곡 집이서도 느랑 그거 입으면 무똥에 무똥에나 마리 영 옆뎡이에 휘 매영 치메 탁 허게 걸엇다근예.

@2 누게 오민, 나갈 때.

#1 어디 동네침이 말 곶으레도 가젠 허민 치메 확 앗아근예 영 독다림 친 중의 우트레 확 허게 치메 입영 말 곶으레도 가곡.

@1 집이선 그냥.

#3 응, 치메 안 입영은 베짖드레 못 나가.

#1 집이선 치메 벗어 비영. 치메 벗영 탁허게 어디레 걸어 비어. 우리 어머니.

#3 아무도 베짖디레 치메 안 입영은 못 나가.

@2 응. 못 나가예. 밧디 갈 때도?

#1 밧디 갈 때도.

#2 밧디 갈 때 입영 가도 벗영 놔뎡 일헛주게.

#3 낭 우이 벗영 놔뎡.

@2 치메 벗어나동 중의만 입영 일허고. 치메 영 말아올려 가지고.

#2 아니, 안 뉘어. 검질 매날 매난 안 뉘어.

#1 어디 또 무시거 어디 드르에 가근예 무시거 예점 강 무시거 일이나 혈 땀 허게 뉘민, 치메 입영 가민 앞이 확확허게 허영 영허영 무꺼뉘근예 무시거 예점 허영 오고. 갈 때에 치메 안 입영은 아이 가주.

@2 안 뉘예.

#1 우리 어머니 느랑 경헤라.

#2 아니, 다 경헛수다게. 이 중간예.

#1 우리 어머니 속곳이엔 헌 건 헤보지도 안허고. 중의만 저 즈른 중의 무신 것이라 무신 바툼중의엔산디.

@2 바툼중의.

@1 바툼중의.

@2 나왓수다, 바툼중의.

#1 이 강알 허는 딘 밋이 그대로 몰라근에 두 곱 허여근에 현다. 이제 그런 옷 원 안 허여. 우리 어멍 허여난 입어난 옷 이젠 영 일절 엇어.

남자 옷 부분 명칭

@1 남자 옷인디예, 아까예, 요딘 배알이렌 현텐 헛고예. 그다음에 또 다른 거?

#1 다른 거 무시거.

@1 아까 요기는 뭐라고 밑에.

#1 이거 도련, 앞섭, 짓.

@1 이건 도련 똑같이 요긴 앞섭.

#1 이거 무시거엔 써져시?

@1 앞섭이엔 써젯수다.

@3 앞섭인데 걸섭. 걸으로 보여서 걸섭 안으로 들어가난 안섭.

#1 으, 이거.

@1 이디선 제주도선 앞섭.

#1 옛날 말로 기자 이디민 안이고 베젯이고 앞섭이엔 현다.

@1 응, 그다음 이딘 짓.

#1 짓이엔 허고.

@1 요디 다는 건.

#1 동전.

@1 동전?

#1 동전.

@1 아, 동전. 그다음에 요거는 곱.

#1 곱.

@1 곱도 진 곱, 졸른 곱 험니까?

#1 으게. 진 곱 졸른 곱.

@1 어느 게 집니까?

#1 짓 부튼 디가 진 곱.

@1 짓 부튼 디가 진 곱.

#1 짓 아이 부튼 디 찻른 곱.

@1 찻른 곱.

#1 이제도 다 경험주, 그건.

@1 그다음에 요기 뉘엔 곱읍니까?

#2, 3 즈깁이.

#1 거 진동이엔 허여. 진동.

@1 진동 예. 요기는?

#1 소미.
 @1 그냥 소미?
 #1 응, 소미. 소미부리엔.
 @1 아, 소미부리.
 #1 소미부리엔 허고.
 @1 그다음에 다 뻤나?
 @3 이 앞쪽은 여기.
 @1 요기.
 @3 몸통 잇는 데.
 #1 이몸. 이몸이엔베끼 더 허여? 이몸.
 @1 양쪽 다 이몸? 이쪽도 이몸, 이쪽도 이몸?
 #1 응, 이몸.
 @1 이몸예. 뒤쪽에 판은 여기 뒤판은 뭤엔 꺾는 거 이수과?
 #1 뒤판도 다 흐디 부튼 거난 이몸.
 @1 다 이몸. 뒤판도 다 이몸예.
 #1 이몸이엔 허여.
 @1 이번엔 바지에.
 #1 바지, 요 허리.
 @1 이견 허리.
 #1 울로 요건 밧이엔 무시거엔 써져시?
 @3 밀위.
 @1 밧이엔 써젧수다.
 #1 이? 밧이 맞아게.
 @1 그다음.
 #1 상복.
 @1 이견 상복.
 #1 진 셋복. 요건 즈른 셋복이엔 허는디 뭤엔 써져시?
 @1 예, 맞아. 즈른 셋복.
 #1 경 써젧?
 @1 작은사폭이엔 써젧.
 @3 예, 큰사폭, 작은사폭.
 @1 즈른 셋복.
 #1 즈른 셋복. 이디 옛날 말로 즈른 셋복. 진 셋복, 즈른 셋복, 상복, 허리 계민 매기주, 무신. 바지사.
 @3 여기 밑에는?
 #1 밑에 무시거 다림 치는 디.
 @1 이디 다림 치는 디 이던 뭤엔 곶아?
 #1 몰르켜.

@3 부리.

#3 바짓부리엔 허주, 무신.

@1 바짓부리엔도 꼴옵니까?

#1 게메, 나 모르키여.

@1 여딘 뒤엔 꼴아?

#2 그디사 꼴아?

#3 그딘 그 셋복으로 현 거 무신거엔 안 꼴아.

@1 곧는 말 엇어예.

#1 난 모르켜.

@1 혹시 까마귀 머리 허는 말 이수과?

#1 까마귀 머리 난 그런 건.

@1 그런 건 엇어. 남자 바지에 요기 밑 이신 디 요기보고 까마귀 머리엔 현텐 허는디.

#1 경 써져시냐?

@1 육지 거, 이진.

#1 난 그런 말 들어보지 아년.

여자 옷 부분 명칭

@1 이진 남자 거고. 이번엔 여자 거예.

#1 치메. 어깨메기 허여신게.

@1 예, 이진 어깨메기.

#1 어깨메기, 허리, 끈, 곱이주, 곱.

@1 허리, 곱. 요기는?

#1 치메길이주, 아메난.

@1 길이. 이것도 영허민 하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난 밖으로 들어갑니께.

#3 계난 깍치멘게.

#1 육지식은, 깍치메. 육지식은 웬깍치메 입곡 이디 식은 노단깍치메 입고.

@1 아. 이디 식은 노단깍 이쪽으로 영 잡아댕겨야 뒤.

@3 오른쪽으로.

#1 이쪽더레 베꺸터레 허리 베꺸터레 가게 허는 거 노단.

@1 노단깍.

#1 노단깍치메. 육지는 웬깍치메 왼쪽을 베꺸터레 가게 경헌텐 허는 거. 제주도 옛날식은 노단깍치메.

@1 아.

@3 지금은 다 왼쪽으로 하거든.

#1 이젠 다 웬깍치메.

@1 육지식으로.

#1 육지식으로 경허는 거 닥아라.

@1 나 결혼할 땐 오른쪽으로 헛는데.

#3 이 제주도는 다.
#1 노단깍치메.
@3 왼쪽, 왼쪽 이젠.
#1 이젠 웬깍치메 허는 거 닥안게.
@1 이젠 웬깍치메만예. 이런 건 깍치메엔 허고. 뒤에 다 깍 엇인 건 뭤엔 험니까?
@3 통으로 똥 거.
#1 통치메.
@1 건 통치메.
#1 깍치메 체지 안해영 건 통치메엔 허고.
@1 통치메 깍치메예.
#1 건 통치메. 체지 안헌 건 통치메.
@1 요 깍치메에서 요 밑에는 뭤엔 곶아?
#1 알도련이엔 허주.
@ 알도련.
#1 치메 알도련이엔.
@ 그다음 요런 거는 치메 하나 허젠 허민 멧 폭이나 해근에 허는 거짜?
#1 멧 폭은 뭤 요새 나는 기진 뭤 몰란게. 세 폭짜리도 허고 거. 으섯 폭짜리도 허고.
#3 아, 옛날에 해난 거 말이주.
#1 옛날엔 대강 으섯 폭.
@1 요숫 폭 험니까?
#1 저승웃 치멘 으답 폭.
@1 아, 저승웃은 여털 폭.
#3 결혼헐 땐 다 으답 폭 치메허여.
#1 저승웃은 으답 폭 치메.
@1 결혼헐 땐?
#1 옛날은 그 으답 폭 치메 옛날은 다 헛주게.
@1 아, 시집갈 때나 결혼헐 때는 여털 폭허고.
#1 이젠 다 으섯 폭.
@3 일반적으로는 여섯 폭. 여섯 개 붙이는 거. 오십오 센치씩.
#1 게 멧 폭이엔 헤시니?
@1 이디 안 써전마씨. 몰르켄.
#1 몰르켄. 옛날은 다 으답 폭이고 이젠 저승웃은 으답 폭허고 남은 거 다 으섯 폭 이제.
@1 그믐 이제 저고리에. 저고리도 이디도 이름 이수게예, 아까 요건 똑같이 배알.
#1 으게, 배알이고.
@1 요던?
#1 도련.
@1 아까 도련. 요건 진동.
#1 응. 남저거나 똑ㄴ타.

@1 똑ㄱ타. 이딘 짓.
 #1 동전이영 다 마찬가지로.
 @1 동전. 아, 이거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엔 골아?
 @3 화장.
 @1 표준어 화장인데.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영 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게메, 건 모르켜. 건 모르큰게.
 @1 아까 요건 똑ㄱ치 앞섭. 앞섭 말고 안에 들어간 건 뭘엔 골읍니까?
 #1 몰르켜.
 @3 것도 똑같텐 아까.
 #1 우린 기자 앞섭이민.
 #3 안앞섭, 밧앞섭.
 #1 밧앞섭 행 그거주.
 @1 아, 안앞섭, 밧앞섭 영 골읍니까?
 #1 안앞섭, 안트레 가는 건 안앞섭, 베꿏디 건 밧앞섭 헤도 기자. 앞이 건 앞섭이엔만.
 창웃 ㄱ튼 거나 안앞섭이여, 밧앞섭이여 허주. 이거 저고리 여자 것사 무신.
 @1 아.
 #3 경헤도 그거 안앞섭 잇는 거주. 족아도 잇는 거주.
 @1 요기, 요기, 아까 요기추룩 색동 노민 요런 건 뭘엔 골읍니까?
 #1 건 색동.
 @1 이건 색동.
 #1 색동저고리엔 허주 무신.
 @1 거민 요기만 놓는 것도 이수계.
 #1 꾀동, 꾀동저고리.
 @1 꾀동저고리.
 #1 건 꾀동이엔 허여.
 @1 아, 혹시 요기 뒤에 요기 등에 영 뭘 대는 천 대는 것도 이수과?
 @3 바데, 바데. 어깨랑 이런 데.
 #1 엇어. 저고리엔 엇어.
 #2 적삼에 이서.
 @1 적삼에, 남자 적삼에는?
 #2 여자 적삼에도.
 #1 적삼엔 짓바데가 잇는 거지.
 @1 짓바덴 어느 정도 험니까?
 #1 짓바덴 이거 저 영 요 실밥ㄱ지 다 허는 사름 잇곡 요만이 썩르케 허는 사름 셔.
 @1 어디까지 헤? 밑에는 어디까지?
 #1 난 다 요 실밥더레 부쩌져. 짓바데가 셔야 혼적삼도 허는 거라.
 @3 여긴 어디까지 험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

#1 앞인 막 요 헤끄만 나오게 허곡 뒤레 하영 가게 헤.
 @1 뒤론 어느 정도 나가? 뒤에 어느 만이 험니까? 짓바데.
 #1 연필 이레 도라 보게. 앞인 요만이 허게. 뒤엔 흐쓸 너르게 요만이 허고.
 @2 짓바데가 셔야 혼적삼도 허여.
 @3 앞인 어느 정도. 뒤로 생각허민 여기 어디마씨?
 #1 뒤로 생각허민 요만이.
 @1 얼마 차이 안 나는구나.
 #1 뒤로 뒤터레 흐쓸 널르게 허고 앞드레 족게.
 @3 족게예.
 #1 족게 가게. 우린 이 실밥더레 다 부찐다, 난. 난 다 영 부찌는디 어떤 사름은 험 거 보난 요만이 허영 이만이 허영 짓 드는 디 흐쓸 베끼디레 허난 아니험 사름도 셔라. 늬이 적삼 아저온 거 보난. 난 이 실밥더레 다 부찌준다, 이레. 짓바데 널르게 허곡 적삼은 똑 짓바덴 꼭 헤사. 짓바데 안 허민 안 뉘어. 혼적삼을 헤도 짓바데가 셔사 뉘는 거.
 @1 짓바데는 무슨 역할 허는 거짜?
 #1 옛날부떠 옛날 어른덜이 죽으민 혼적삼이 드는 거주게.
 @1 예.
 #1 혼적삼은 들령 저레 나강 죽은 영혼 불러 오는 건디.
 @1 보, 보 허는 거.
 #1 불러오는 건디. 불러 오민은 그 불른 때 그 영혼이 이 짓바데 소곶에 싸오라지는 거.
 @1 아.
 #1 경허민 혼 불러나민 그 적삼은 으저당 죽은 사름 얼굴러레 톱 흐 번이라도 더끄는 거라. 더껏당 앓ومه. 더끄는 거. 죽은 사름 우터레 얼굴러레 톱 더겨.
 @2 그거 그냥 잠깐만 더끄는 거지예. 오래 안 더끌 거예?
 #1 오래 안 더경 입지지도 안허고.
 @2 예, 예.
 #1 그거 트로 허엿다근에 영장 문을 때 물어부는 사름 잇고 헤 물어 비어. 다.
 #3 옛날엔 아니 문영.
 #2 거 혼백상 앞이.
 #3 흐루 세 번.
 #1 경허민 그거 당추 안 뉘는 거.
 #3 우리 시하르바님넨 흐루 세 번 밥 올려근에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허고 그거 안 문은 사름은 삼 년 동안 그걸 헤사.
 #1 그걸 물어야주, 거 안 문으민 산 사름 일량으로.
 @2 계난 그거 차롱착 우에 놔 가지고 상식허는 디 우에 놔 가지고 헛덴 험디다.
 #3 혼백 소곶에.
 #1 그거 아이 문으민이 이불도 개어 놓곡 신도 아척인 돌려냥 나가는 세엔 허고 저녁엔 돌려냥 들어오는 세엔 허곡. 거 안 뉘는 거. 옛날 경헤났주. 옛날도 매 사름 경 안 허고 막 정성허는 사름이나 경헛주. 옛날도 매사름 경 안 험.

#3 밥 올리민 아이고, 아이고 허고.
 #1 당추 경. 이젠 경헌 식 엇나.
 @1 이견 두루마기에.
 #1 이?
 @1 두루메기.
 #1 응. 두루메기. 요건 밋이엔 헌 거.
 @1 어느 게 이게 밋.
 #1 벌어진 건 요거 밋이엔 헌 거. 뵈이엔 써져시?
 @3 무.
 @1 무. 표준어로 헌 건디.
 #1 무엔?
 @2 아니, 아니. 삼춘 말이 맞는 거.
 @1 삼춘 말이 맞는 거. 밋.
 #1 밋.
 @1 그다음에 요 가운데. 이 가운데 건.
 #1 가운데 건 이몸이난애.
 @1 요기도 섭이수게. 요 섭은 무신 거라?
 #1 거 썸이주게.
 @1 그냥 썸예?
 #1 응, 밋섭, 안트레 들어간 건 안섭. 이견 창웃. 안섭, 밋섭 허는 거.
 @1 아, 이견 밋섭, 안섭허는 거.
 #1 응, 창웃에. 소민 이거 다 ㄴ뜨고 짓광 동전도 다 ㄴ뜨고.
 @1 곱도 다 ㄴ뜨고예.
 #1 요건 양펜더레 영 헌 건 밋이고.
 @1 아, 양펜 헌 게 밋.
 #1 무엔?
 @1 표준어. 육지사름덜 경 근덴.
 #1 아, 육짓사름은 무엔 허여. 아.

버선

@1 이번엔 보선.
 #1 보선.
 @1 보선도 말 큰는 말 잇주예? 이름예.
 #1 보선.
 @1 요딘 코.
 #1 코지엔.
 #1 코지.
 #1 요건 치기.

@1 여긴 치기.
 @2 칩. 그냥 칩.
 #1 앞수눈이엔. 앞 수눈.
 @1 여기 앞 수눈.
 #1 수눈이엔 써신게, 요거.
 @1 앞 무신거?
 #1 수눈.
 @1 아니 이거 말고 삼춘 곤는 말.
 #1 수눈이엔 허여. 수눈. 보선 앞 수눈.
 @1 앞 수눈.
 #1 코.
 @1 이던 코, 코지?
 #1 으.
 @1 뭤엔 곶아?
 #1 코엔. 보선코엔 헨다.
 @1 보선코.
 #1 보선코고. 이건 수눈이엔 허고.
 @1 이던 수눈이엔 허고. 이디 뭤엔.
 #1 치기.
 @1 그다음에 요기 흐뵂 영 들어가는 딘?
 #1 애특이엔 허고.
 @1 애특이엔 허고. 그다음 발 밑에는? 요디, 요디.
 #2 발창.
 @1 그냥 창?
 #1 창이엔 허주, 몰르키여마는.
 @1 요기.
 #1 목이엔 허주, 목.
 @1 보선에서 요디.
 #3 보선목이주게.
 #1 응, 보선목이엔.
 @1 들어가는 디는?
 #1 모르켜. 들어가는 디 나 모르켜.
 #3 보선목이엔 허는 겨주.
 @1 보선목이 들어가는 입구짜? 아니민 요 앞이짜?
 #3 아니, 아니. 들어가는 입구.
 #1 보선목이엔 헐 거라게. 들어가는 디. 이거 애특이엔 허고게. 치기게, 수눈. 코 다 뉘
 신게게.
 (잡담)

아기 옷

@1 아기 옷은, 애긴 무신 옷 입젓수과?

#1 아기 무신 옷사 입져져신디 몰르키여, 키울 때. 무시거 저고리도 허영 입지꼭게 바지.

#3 처음 나민 입지는 붓데창옷이 잇주게.

#1 그것사 곧 나민 입지는 거.

#2 베로 만든 거.

#1 우린 생멩지로 아니 익은 멩지라. 익은 멩진가.

#3 우린 베로 만들안 입어났어.

#1 우린 멩지로 우리 시어멍 우리 ○○이 나난 멩지로 헤 쥘게. 이제 셔, 이제. 이제 ㄱ만이 셔. 우리 애기 다 난 때 입져나고. ㄱ만이 셔. 소미도 옷너비 다 낫 혀고.

단추

@1 오늘은 단추부터 물어보쿠다, 단추.

#1 죽음에 입는 옷은 단추 든 옷은 엇으메.

@1 아, 대신에 뭐 들메기라도?

#1 대신에 영 무끄는 거, 무끄는 거.

@1 아.

#1 친, 친.

@1 친으로?

#1 으, 친. 저 영.

@2 아이고.

#1 친게, 친.

@2 바농상지 봅서.

#1 거 바농상지.

@2 이거 진짜 바농상지.

#1 이거 우리, 우리 시어멍 물려쥘, ㄱ는대들랭이.

@2 예.

@1 들랭이.

#1 풀 안 툄른 때 판쥘, 새 거.

@1 으.

#1 옛날에 들랭이엔 현 거주게. 들랭이엔 헛주게. 저 서터레 족은밧ㄱ라 들랭이렌 헤.

@1 맞아, 맞아.

@2 우리 동펜이.

#1 견디 이디는 오란 보난 이것ㄱ라 들랭이, 들랭이.

@1 으.

#1 겨민 이보다 흐썰 더 크고 훗은 대로 줄은 건 승키구덕이엔 혀고, 요만이 큰 건.

@1 으.

#1 이거 들랭이 우리 시어멍 바농상지로 나 시집오난 사 쥘게 오래 써가난에 헐언.

@1 으.

#1 헐고 검영 허난 블름 시작해연, 블름 시작해연. 풀 블르기 시작해연. 이진 난닝구에
헌 거 나 죽영 가민 입을 건디 이거 이거 자꾸 보명 허는 거주.

@1 으.

#1 친 이런 걸로 허주. 들마게, 막작단추나 그냥 단추 일절 안 허여. 죽은, 이런 걸로만
허여.

@1 친으로만예?

#1 친으로만.

@1 음.

#1 신도 이거 나 건 저디 다 봉헤 잇주만은 이거 험벅텡이 봐지난 그냥 여유로 영 기자
멘들앙 놔뒀신디 신도 이거 친으로, 친으로. 이추룩 친으로만. 모든 거 다 험벅 기지로만
허주이, 단추엔 헌 게 웃나. 죽은 옷엔.

@1 으.

#1 단춘 안 허여.

@1 죽은 옷에 말고 다른 옷에는?

#1 다른 입는 옷엔 다 단추 잇주게.

@1 게난.

#1 제도 죽영 가는 것에 단추 일절 안 허여. 죽은 후제 옛날 베적삼 입단 거라도, 옛날
어른덜 베적삼 입던 거라도 빨앙 죽으민 관에 놓젠 허주게.

@1 예, 예.

#1 보공이렌 허여.

@1 무신거엔 헤?

#1 보공이엔 헤, 관에 그냥 관 ㄱ득이게 놓는 거.

@1 으, 옆에.

#1 보공이라고 허는 디 그 보공 허는 것도 베적삼 입단 거라도 놓젠 허민 옛날이 켜당덜
이 영 보명 관덜에 켜당 어른이 남저 어른이 노명 그 단출 드나 허민 다 끈어불고.

@1 아.

#1 막작단추 허고 해도 끈어 불고, 단춘.

@1 허민 안 뒤는 거예?

#1 죽어도 썩지 생전 안허는 거난 일절 안 놔.

@1 예.

#1 경허영 이거 이추룩 헤근에 이거 친으로만 헌다, 친으로만.

@1 아, 친으로만, 으. 삼춘 잠깐만예.

#1 솟강알에 거 허여다근에 솔박에 거려다 놓고.

@2 으.

#1 짹, 짹 옛날에 나룩짹. 나룩짹 허여근에 솔박에 나룩짹으로 영허영 영 수세미 멩글앙,
수세미 멩글앙 영 즐라메근에 몽독허영 즐라메영 수세민 멩글앙, 이제 거트민 수세미주게.

@2 예.

#1 그거 허여근에 물 적정, 찍에 물 적정 손에 영행 줘어근에 솔박에 불체 논 걸 젖은 거 영 허민 이레 불체가 막 부뜨지. 부뜨민 그걸로 막 안네영 바꿨디영 밀어, 팔월에, 팔월에 잘 뱃겨져, 팔월에. 늦그릇 다끝 댄 팔월에. 팔월 멍질 돌아와 가민 막 그추룩 허멍 밀어났어, 나.

@1 으.

#1 경헌 거 이젠 늦그릇 다끄는 약 잇젠 헨게.

@1 하하하.

#1 것도 무사 약 신 것사 모를 건디, 나 절간에도 아이 텡기고 아무 디도 아이 텡기난 모를 건디 우리 집이, 우리 시어머니 식게 멍질 헐 때 늦그릇 해난, 늦그릇이 이만이 훑주게. 이제 사름덜 밥 하영 아이 먹고 스텐덜 나 가난 늦그릇은 ㄱ만이 내불어뵤.

@1 으.

#1 스텐으로 다 산에 허난 그 다꿈 여*가 엇주게, 요즘은.

@1 맞수다.

#1 경 허는디 옛날은 우리 힘들영 막 허게 따까나신디, 친정에서 경해나신디 시어명, 이디 시집오란 보난 시어명네 늦그릇이 멧 그릇 선게, 국그릇, 밥그릇, 그릇 선게 스텐 허여 가난 나가 저 향아리, 향아리에 저 창고에 ㄱ만이 담안 내베틀어.

@1 으, 아직 안 팔앙, 안 데껴 불엇수파, 잇수파?

#1 아이 데경. 늦그릇 사례 텡기는 사름 엇어라. 향아리 사례 다니는 사름 셔도.

@1 아직 잇어.

#1 향아린 다 풀아 먹고이.

@1 으.

#1 향아린 다 풀아 먹고 그 늦그릇 사례 텡기는 사름 셔시민 풀 건디 사례 텡기는 사름이 엇언. 게난 늦그릇은 향아리에 담앙 저 창고에 신디 작년산디 재작년이 청소허멍 나가 청소허멍 늦그릇을 향아리 거 앓아냉 보난 파랑케 막 녹슬어 낡.

@1 아이고.

#1 영 불 나위가 엇언, 행펜이. 아이고, 이거 어떻헿 좋으코 이거 내불어도 다깡 놔뵤사 켜 이거 어떻허리? 헨 우리 큰똥 와시난 이만헌 늦그릇이 막 퍼렁케 녹슬고 볼품 엇어라. 아이구 절간에서 늦그릇 따끄는디 약 사다근에 헨게 막 쉬웁니텐.

@1 으.

#1 그거 사다근에 헿서. 다까 놔뵤어. 일후젠 아덜이라도 손지라도 오래.

@1 약 사다 줘야지, 딸이. 딸이 약 상 오지 안헤십디가?

#1 아니, 사 완게.

@1 상 오렌 글읍서.

#1 사단 허렌만 헿.

@1 상 오라.

#1 난 어디 강 사는 것도 모르주. 게난 이제 따끄젠 허여 가민 똥ㄱ라 사오렌 허나 메뉴 리ㄱ라 사오렌 허나 헐 거주게. 난 늙고 어디 잘 견지 못허고 허난 매일시장을 가도 나 살 거, 갈 때에 톱 필요헌 거 멧 가지 살 거라 허민 것만 사지민 확 돌아오주. 이디 저디 견지

못허난 잘 안 돌아다녀. 경헨 저 항아리 잇주. 늦그릇 다끄는 그 약 잇젠. 확 허게 다까지는.

@1 그 단추 곧던 말 다시 곶을게예.

#1 으.

@1 아까 그 들마기 거는 요런 천으로 헝 멘드는 거지예?

#1 멘드는 거주게. 어드레 가니? 아니, 요거.

@2 이거, 하하하.

@1 어떻 멘드는 건지 흐꼼만 보여 주셔도 됩마씨?

#1 보아 줘도 느네 멧 번 곶아도 못 현다.

@1 하하하.

#1 허여지카 부텐. 아이고, 이 들마기가 막 셔나신디 어디 가벤 엇다.

@2 어, 이신게. 예.

#1 이거 말앙 막.

@2 이거, 이거.

@1 만듭서.

#1 이거, 이거. 이거 잇주게. 이디 막 으라 개 셔나신디.

@1 이것도 잇고.

#1 음.

@2 이거 들마기 만드는 거.

@1 들마기 만들젠 허민 어떻 만들어마씨? 한번 만들어 봅서.

#1 그디 시라 보게.

@1 예.

#1 이디도 실 거라. (찾는 중) 믱작단추.

@1 으, 이게 믱작단추예. 옛날 말은?

#1 들마기.

@2 아이고, 막 멩심헝.

#1 적삼, 여저 적삼, 남저 적삼 막 헤여낫주게. 게민 이런 건 시간 이신 때 다 허영 뇌뒤 사 뉘는 거주, 인닥 당허민 못 허여. 인닥 당허민 못 허여.

@2 뉘 헝 못 허여?

@1 인닥 당허민?

#1 그때 당허민 허기가 바쁘다고.

@2 아, 예.

#1 시간 이신 때, 시간 한결헌 때.

@1 계난 그걸 아까 무신 거옴 곶아마씨?

@3 인닥 당.

#1 인닥.

@1 인닥.

#1 인닥. 그때 딱 당허면은.

@1 음.
#1 이런 거. 여저 적삼엔 요추룩.
@1 아.
#1 남저도 또시.
@1 흐끔 커?
#1 큰 건 또시 남자 흐쓸 베옷 거튼 거 두더운 옷 허는디 흐쓸 큰 거.
@1 음.
#1 또시 멩지 적삼 허는 디 요런 거.
@1 뭐가 다른 거파?
#1 어?
@2 크기, 크기.
@1 크기가 달라? 멩지 적삼에 건 뭐가 달라?
#1 멩지 적삼엔 멩지로 멩글아야, 베적삼 베로, 베 멩글아야, 베로 해야 뉘고. 광목 적삼에는 광목으로 해야 뉘고.
@1 으.
#1 그 기지로 해야 뉘어.
@1 요건 여자, 여자 거?
#1 이거 광목 적삼 거튼 디 여자 적삼 허는 디 이런 거 흰 거.
@1 으음.
#1 경혜영 허느네. 물색 옷은, 물색 옷은 이추룩 물색으로 허곡.
@1 아, 물색 옷은 또 물색으로.
#1 으, 물색도 그 색깔로 다 허민. 그 옷 보멍 다 헤사지. 물색 옷 보멍.
@1 물색 옷은 물색 옷으로?
#1 이런 옷은 허민 이런 색으로 헤여사.
@1 으, 으.
#1 요런 색 옷은 허민 요런 거 헤사.
@1 크, 맞아 맞아.
#1 겨허민.
@1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들어 보민 안 뉘마씨?
(생략)
@3 손싸개, 손싸개.
@1 그니까 호상옷에 거.
#1 이것도 죽은 사름 다섯 개 든다. 이것도 옷 허여 주민 이거 다섯 개씩 다 채와 쥐살 거.
@3 손가락.
@1 음.
#1 이것도 죽은 디 드는 거. 다 옷 세트로 헤 노민 이것도 사진 쳐 갈 거지, 이것도 그때. 이거는 다섯 개 들어, 다섯 개.

@1 이거는 손톱 깎아 놓는 거.
 #1 손톱 요거 흔착, 요거 흔착, 요거 흔착.
 @1 아, 요거 손톱 하나에?
 #1 이거 발가락에 하나.
 @1 으.
 #1 요 발가락에 하나.
 @1 으.
 @2 네 개민 뉘큰게.
 @3 다섯 개, 다섯 개.
 @1 머리.
 #1 머리 허멍 하나 허민 다섯 개 들어.
 @1 머리는 무신거 답아? 머리카락?
 #1 머리 이디 상곡대기에 거 끈영.
 @1 아.
 #1 요 주멍이 하나레 답앙.
 @1 음.
 #1 머리뻑더레 뇌라. 허는 거 보난 경헤라. 장의사가 오랑 허는 거 보난.
 @1 아.
 #1 요착에 건 발콍 그치민 저 주머니레 답앙 요레 영 즈지곡, 손도 그추룩 이착에 끄친 건 주머니에 답앙 이착더레 영 즈지고 다 경헤라. 장의사 허는 거 봤저. 난 몰라.
 @1 거 찍으라고 준 거야.
 @2 가져갈 거.
 @1 아니, 주라고 밑에 거. 질문지, 질문지.
 #1 찍을 건 저디 아저가시냐?
 @1 예, 예. 들마게 허나 멘들아 도렌 허난, 삼춘.
 #1 으?
 @1 허나 영 멘드는 거 보고장 헨에.
 #1 경 얼른 못 멘든다.
 @1 얼른 못 멘드는 거구나. 그민 예점 영 허민 뉘다 영 헤근에.
 #1 백 번 곶아 줘도 베와 주젠 헤도 못 허여라게.
 @1 계난예.
 #1 다른 사름 베와 줘 보젠 나가 막 허여 봐도 그 사름 당채 못, 삼춘 아멩 시켜 주고 아멩 멧 번을 헤 봐도.
 @1 으, 헤 보세요.
 #1 집이 강 헤 보젠 허난 생전 못 헤렌.
 @1 으.
 #1 이거 영 허민 영 쉼주게. 영 쉼민 이 손부리로 확 허게 감앙, 감앙 영허게 코골레기 허여, 이레 영.

@1 으.

#1 코플레길 영 허민 요거 영 데우테져. 요거 데우테경 요 끄텡이 요레 영 허여. 영 허민 요걸 츠레로 영 헤 낭 영 뒤싸 놔.

@1 으.

#1 뒤집어. 뒤집으민 요걸 요 트멍으로 빼어 내고.

@1 으.

#1 이 끄텡인 요 트멍으로 빼어 내고 경허영 요 가운데 걸 영 우터레 심영 등겨야 뒤주. 영 헤사 경 츠레 츠레로 막 쥬와 가민 요추룩 뒤어.

@1 쥬는 건 어떻 허는 거파?

#1 백뜨다 말이야, 백뜨다.

@3 잡아 당겨.

@1 아, 잡아 땡겨근에?

#1 잡아 땡겨. 츠렐 알앙 잡아 땡겨야 허여.

@1 그니까.

@3 맞아.

#1 뜬여 잡아 땡긴 걸랑 내블어 땡 내중에 잡아 땡길 걸 땡겨 불민 당최 안 뒤는 거.

@1 으.

#1 계난 베와 주젠 아멩 허여도 못 베와렌 이 동네 사름이 날그라 삼춘 멧 번 곶아주곡 멧 번 허여 봐도 집이 강 허젠 허난 노시 못 험디텐. 이거 멩지가 생멩지라부난 잘 접아지지 안허켜, 기지가.

@1 으음.

#1 친 들마기.

@2 할 수 있겠어요?

#1 서, 서툰, 아녀난 사름 못 험다. 단추 찍어난 걸랑 이레 뜬 아져 오라.

@1 단추 찍어시민 이레 가져오렌.

#1 영 허영 놔두민.

@1 다른 옷 할 때는 또 이런 들마기 말고도 단추는 다른 걸로도 단추도 허지예? 그냥 바지저고리 헐 때? 이런 호상옷 헐 때 말고.

#1 바지저고리 입는 거 헐 때에 요즘 신식으로 요디 영 허여근에 다님 치는 대리로 막작 단추 허여.

@1 거 말고도 여기 마고자라도 허민 이디 뒤?

#1 마고자 허민 단추 들주.

@1 예, 그건 무신 단추로 허는 거파?

#1 건 마고자 허민게 푸는 단추 사단 헐 수도 있고 옷 형편 보멍 막작단추 헐 수도 있고 허고. 옷 형편 보멍.

@1 보석 같은 것도 이렇게 허지 안험니까? 호박 단추 막 이런 거 헤근에 막 지랑허게 돌멩이추룩 허나 달고들 험니께.

#1 경헌 건 안 헤난.

감물 들이기

@1 경헌 건 안 봐난? 그다음에는 갈옷. 갈중의?

#1 으, 갈중의.

@1 갈중의는 하영 만들어났지예?

#1 옛날 갈중의 하영 멘들앗주. 감 들인 거.

@1 예. 그건 허젠 허민 어떻 허는 거?

#1 몸, 몸빼 또시 우이 일복 입는 거. 야계기 영 돌랑 감 들영 입는 거, 몸빼, 남저 우이 거, 감 들일 걸로 광목으로 이디 계와 양쪽에 남저 거, 지레기 질게 허고 우이 거 멘들고 아랜 중의 멘글고. 양복식으로도 아래 거 멘글고. 옛날 막 헛주게. 켄디 이젠 감 들영 잘 안 입어. 푸는 옷이 하도 싸구리 하 노난.

@1 하하하.

#1 이젠 안 허여.

@1 감 들이젠 허민 이제, 이제 흐뎡 이시민 들일 거파?

#1 칠월 나민, 백중 스시에 감 들이는 거.

@1 아.

#1 게도 백중 전이만 들여, 이젠. 저 새지 안헌 때 어랑진 때 들여사 옷이 부드럽곡 질 기곡.

@1 음.

#1 감 새영 들이민 야림에 꺼꺼지곡. 새민, 감이 새민 옷이 야려. 백중 전이만 들인다 이젠.

@1 그 감옷, 옷에 물들이젠 허민 먼저 천에 물들이는 거파 옷 멘들아난 다음에 그디 물 들이는 거파?

#1 천에도 들이고 멘들앙도 들이곡 현다.

@1 옛날엔 어떻 헤낫수파?

#1 옛날엔 천에 잘 들영 멘들앙만 들였어. 옛날엔 미녕 허영 중의적삼 허곡 일허영 입을 땀, 우리 촌엔 멘들앙만 감을 잘 들여.

@1 음.

#1 미녕으로 멘들앙.

@1 미리 옷을 먼저 만들앙?

#1 만들앙.

@1 그다음엔.

#1 그다음엔 미녕, 지첻미녕이민 미녕 빨지 안허영 숨지 안허고 미녕도 허여 노민 재 허여 낡 솟디 막 숨주게.

@1 예.

#1 막 뒹씩 가리착 허멍 막 숲앙 막 빨앙 경허영 걸로 허민 그자 영 감들일 때엔 영 물 적정 뿔만 허엿다근에 감 뿔앙 므른 형태에, 므른 때에 뿔앙 감을 들여.

@1 으.

#1 경헌디 지첻, 지첻미녕 허영 옷을 허여 노민, 옷 허여 뇌근에 갯국 허영 솟디 막, 저

막 뒤씩 가르착 허멍 미녕 습듯 막 옷 허영 멩글아 논 걸 숲앙 빨앙 막 우리곡 잿물 막
내어 똥 빨아 똥 헤영케 허여 똥 말짜엔 감 들이곡 경허여.

@1 게민 감 이제 들일 거라예. 거민 어멍 감 따 와근에 도고리에?

#1 도고리게 마께로 뽏으나 쟈 안 허민 방에에 방엿귀로 탁탁 뽏으나. 경허영 지릿 지릿
들이는 거주기제.

@1 쟈 아까 만든 옷을 가정 왕 이디 왕 어멍 허여?

#1 만든 옷 아정 와근에게 다라에 뽏아 노민 어멍 똥 다라에선 그 뽏은 걸 옷을 영 층
곡층개어 낱, 우리 혈 똥 경헛주제. 영 개영 옷을 똥 다라에 영 개어 노민 뽏인 걸 이
레 탁 허게 놔근에.

@1 으.

#1 영 영 영 영 몰아근에 드러 놀려, 영.

@1 아.

#1 경 허민 감물어, 감을 뽏인 것가 이디 물 질금질금헌 거난 막 헤 가민 이것이 다 젓
어.

@1 예.

#1 경 막 문탁 젓으민게 막 놀리멍 영 영 영 막 놀리멍 영행 영 즈질아근에 들일 때엔
또 뒤싸근에 실밥을 안터레 갈 걸.

@1 아.

#1 감들일 때 베껏더레 나오게 뒤집어근에 감 들인다.

@1 음.

#1 원 입는 층레로 영 실밥을 그냥 안터레 간 채로 그냥 영 행 낱 들어 불민 감 주시엔
헌 것가 싶주제.

@1 예.

#1 주시가 데작데작 부텅 아이 똤어. 게난 감들이젠 허민 우선 옷을 탁 뒤집어근에.

@1 예, 똤쌍.

#1 똤쌍근에 실밥을 바껏더레 나오게 뒤집어근에 이디 영 똥 다라레 개어 놔근에 감 뽏
인 거 영 놔근에. 우리 남방에 옛날에 시난에 남방에서 방엿귀로 탁탁 뽏이민 이디 또 영
허게 그 가운데 오가리 잇고 뽏는 디 잇곡 이디 영 너른 디가 잇주제. 그디 우리 느랑 우
리집이선 경헤낫주. 이디서 빨민, 뽏이민.

@1 아.

#1 이디 너른 디레 옷을 영 개어 낱.

@1 예, 예.

#1 이디 거 영 파 낱 영 드러, 그추룩 허멍.

@1 다라 두 개가 필요 없겠네.

#1 그뎌 다라, 다라 하나토 필요 없어.

@1 남방아에서 다 헤지난예.

#1 경헌디 우선 감들이젠 허민 옷을 뒤집어 들어사 그걸 알아사.

@1 그다음에 널어?

#1 경허민 널어. 널어도 인척이 감 들어사 허여. 늦엉 낮 때에 허민 질 더운 때 허민 벅디 마르진 안허고 벅디 열로, 열 받아근에 감 누려근에 곱지도 아녀.

@1 색깔이?

#1 계난 감 들임도 멩심허곡이 감웃도 요망지곡 착헌 사름이 즐바로 행 입주 황당헌 건 즐바로 허도 못허여.

@1 아침 일찍이 행 널어야 뉘?

#1 감 타는 건 쯔 일어낭 새백이 밥 안 먹은 때 새백이 일어낭 감 타사 뉘곡. 감 탕 흐 썰 내붙어도 쓰지 못행 버려 불고.

@1 바로 해야 뉘?

#1 바로 허여.

@1 오.

#1 이젠 냉장고 시난 곧 타 가민, 우리도 저 낭에 서너 콘테나씩, 작년엔 아니 폴아도 올리도 서너 군데 폴아질 거라. 념은해 안 열어나난 은 거 님은게.

@2 음.

#1 이디 거 곧 장사꾼 사민 곧 시꺼 강 냉장, 냉장고에 이제 남주게.

@1 아.

#1 그런 식으로 행 다 못 씻어. 아니 뉘메. 쟈디 이제 냉장고 시난 또 냉장고 싣고 냉장고 탕 간 거 놔두고 거 기계로 짜근에 물 환타 펴으로 질영 문 폴곡, 이젠 경 허는 거 님아. 난 경 사 보지도 안 허고.

@1 계민 흐 번만 영 널민 뉘는 거 아니잖아예?

#1 아이고, 계민 인척이 행 감물 들어주게, 산도록혈 때 들여근에 영 널민 벅 낭 낮 뉘 가민 거저 시들어. 거저 몰르민 영 반주롱허게 작대기라도 꿰어근에 찌부러지지 안 허게 잘 널어사 뉘어.

@1 으.

#1 세답베라도 요디 줍지고 요디 줍지고 영 허게 허영 몰르민 몰라 가민 과상이 몰르기 전이.

@1 으.

#1 풀 허영 손 보는 거지 안 헤나난 몰를 거라게. 시득시득 몰라 가민 들여당.

@1 으.

#1 들여당 이걸 영 영 영 영 을 바로. 을을 토라지게 말앙 영 영 영 영 허영 감 들인 옷도 손 봐사게.

@1 예.

#1 손 뺑, 영 영 영 영 손 뺑 개어 놔근에 무신 현 옷이라도 빨아 논 거 깨끗헌 거 허영 놓아근에 영 싸.

@1 으.

#1 싸근에 막 올라상 불르나 경 안 허민 옷에 그추룩 포파리에 싸근에 그추룩 탁탁탁탁 마께로 독독독독 풀헌 옷 두드리듯 두드려근에 또 폐와근에 영 영 영 영 손 보멍 잘 허여 낭 영 널민 반주롱허게. 저 오고라지지도 안너고.

@1 으.

#1 꿩와지지도 아녀고. 경헌디 그런 거 잘, 그런 거 물정 잇게 허는 사름네 옷 입영 텡기는 거 보든 옷이 똑 바르게 실밥도 토라지지 아녀게 꿩꼭 헐 층 물론 사름은 막 물려 낡고사리추룩 헤 노민.

@1 하하하. 거 한 번 해근에 색깔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꾸 들엇당 널어야 됩니까.

#1 계난 곧 들인 날은 감 들여도 헤영허주게.

@1 예.

#1 헤영허민 그걸 뒷날 그날 처낙도 널영 밤이. 날만 조민 밤이 널영 이슬 맞추고.

@1 밤이도?

#1 밤이 널영 이슬을 맞춰.

@1 아.

#1 이슬, 밤이 널영 이슬 맞창 널엇당 뒷날 또 그냥 내불민 흐루만 널어나도 색깔이 뜨나고, 흐루만 널어나도 색깔이 뜨나고. 옷이 영 허난에 이거 멘든 옷이민 중의민 영 허영 이추룩 허영 벅을 오늘 벅을 맞았다. 밤이 영 헛당 뒷날은 이걸 따시 이진 별정히고 이 소 곱엔 헤양허여.

@1 예.

#1 겨민 뒷날은 또 이걸 뒤집어 낡.

@1 꿩싸근에.

#1 그거 영 보명 옷 보명. 아이구, 요디 두루 바랏구나 허민.

@1 으.

#1 뒷날은 그걸 벅 바르게 놓고 또 경 이슬 맞추명 허당 아니 꿩어 가민 또 낮이도 벅나 가민 물류민 이제 이슬 맞춰도 확 허게 물랑 낮 꿩민 열두 시 꿩민 바싹 므르민 다라에 물 받양 영 듬복이 커.

@1 예.

#1 영 놀리지랑 말고.

@1 음.

#1 듬복이 켁 쏸쏸 누리떠근에 막 옷이 다 물 젖엇저 허민 툭툭 털어근에 또 반주룽이 널영 경 물 적정 널영 발레고.

@1 음.

#1 밤이 널영 발레곡 거 정신 출령 경헤사.

@1 겨민 메칠이나 경 발레민 됩니까?

#1 아이고, 흐 열흘 널어사 쉼 거라.

@1 경 오래?

#1 어게. 여러 날.

@1 여러 날 허는 거구나예.

#1 으, 옷 서늱 보명. 서늱 보명 잘 발민, 일기 좋고 잘 발민 흐 열흘. 경 안 허민 더 열흘 더라도 발레사 꿩꼭 영 보민 별경케 잘 빨앗저 허민 어어 그만 물르주 헝 별경케 잘 발민 다신 안 허고 경. 옷 보명 허여사 꿩어.

@1 으.

#1 오늘 이추록 영 막 벳 맞춰 나민 뒷날은, 오늘 영 헤나민 그날은 이 안착은 헤양현
냥 희뚜룩허여. 틀러, 틀러. 틀리민 또 물 적정 경 췌 거. 경혜사.

감옷

@1 계난 감옷은 주로 일헐 때 입는 옷이지예?

#1 어, 일헐 때만. 노동복이지, 옛날. 겨난 촌엔 감낭을 막 질러.

@1 일부러예.

#1 일부러 키왔어. 올레 안에 질탕 막 감 들영 감옷을 주장으로 입어났주. 경헐 헤신디
이젠 감 필요었어. 멘든 옷이 하도 싸노난이 거 경.

@1 일부러 뽀으로덜 헝 입엄수께게.

#1 으?

@1 뽀으로덜 헝 입엄서.

#1 요 증간에 스뭇 흐엿주. 요즘 또 안 험서.

@1 요즘 또 안 험수파?

#1 감옷 입영 텅기는 사름 본 디 엇고 전이 저 절간에 간 보난 감옷 우알 입은 사람 나
아메도 노동복으로 봐져라.

@2 아, 노동복.

@1 요즘엔 다예, 노동복 아니고 뽀으로, 일부러덜 헝 입어.

#1 거 이젠 요즘은 베 걸로 험주만은 우린 옛날 사름으로 경헌디 입영 가난 잘, 좋아 뵈
지 안헝게.

@1 음.

#1 절간에 스십구제 헐 때 입영 간 사름 셔라, 옛날에. 전이 막. 파동날 때 경헝주. 이젠
저 감 사래 다니는 사름도 잘 엇어. 감 시세 엇어. 우린 큰딸이 무신 무신 그룹이이 무신
그룹이여 허명 우리 딸이 오랑 잘 사위영 오랑 타당 날 풀아 줘. 우리 딸은 뭘 불교대학이
여 무신거여.

@1 음.

#1 나 윈 알지도 못허는 그룹이 하, 우리 딸이.

@1 음.

#1 그런, 그런 디 감옷 허명. 염색허는 디도 식고.

@1 맞아, 천연염색 일부로들.

#1 이상헌, 막 가라 쳐지는 염색허는 디도 막 가고. 우리 딸이 경헝 이런 마후라도.

@1 만들영 와?

#1 알룬알룬헌 무신 멍지 닳은 거 염색헌, 그 무신 푸십새 숲앙 경헌덴 우리 딸 말이.

@1 맞아.

#1 거 침 머리 좋다.

@1 삼춘은 염색은 안 헤 봄디파?

#1 아니, 안 헤 받.

@1 으.

#1 옛날은 감옷이영 감, 침 감 들이는 거영 하간 거 다 헤 봤주만은.

@2 물감 사당도 안 헤 봤마씨?

#1 옛날은 검은물 사단 미녕에 들여근에 몸빼 행 입곡 헐 때에 옛날 검은물 사단 들여낫 주게. 것도 막 솟디 소금 놓고 행 숲아사 뒤어. 검은물도.

@2 으.

#1 숲아사. 막 므큰 잘 숲아사 시꺼명케 벗어지지 안허주게. 경 헤낫저만은 이젠 경 복 잡허게 안 허여.

@1 검은물만 상 들입디가? 다른 색깔은 안 들여 받?

#1 아니, 그 옛날 처년 어명네 집이 살명 스무남은 나도록 사난에 경 드러 검은물 들이 명 몸빼 행 입어도 이제 미녕 행 설러 불고 이제 이디 오란 사난 요 중간에 요 혼 십 년, 십오 년 전이 서귀포장에 간에 그 감색 물.

@1 음.

#1 광목에.

@1 예, 예.

#1 감물 사단 들여 봤저.

@1 아, 저 감 타근에 안 허고?

#1 으, 경허여도 그 감물 들이고 감물만 들인 건이 터력정(?) 북삭해라. 경허난 감물 사 단 들여 놓고 감 탄 맥연에 그 감 현.

@2 두블, 두블?

#1 으, 두블 경허민이 풀 안 해도 뒤고 터력도 안 일고 막 좋주게. 약 힘에 밧디 일험도 막 좋고.

@1 아.

#1 두블 허영 그거 좋아. 감 바레젠도 안 허고.

@1 음.

#1 감색 헤 불민 바레젠을 안 헤여. 감물만 맥여 불민 그냥 입으민 뒤어.

@1 음.

#1 계난 좋아라게. 경 헤 봤저.

@1 감물 들이민 이게 옷감이 버짜헙니께?

#1 바짜허주게.

@1 그믄 가시도 안 들고예?

#1 으, 가시도 소소헌 가신 이겨내어, 쳐 내어. 겐 처음엔 이런 디도 굵어 뱀저 뒤 허염저.

@1 아.

#1 경현다만은 이젠 감옷덜 안 입으난. 감옷 행 무시거 신경 써. 신경 씨명 감 허영 들 영 바레저 대저 이제 사름덜 안 현다. 펜안허게만 사는 거.

목자웃

@1 그 이디 하원에도 옛날에 사냥허고 허는 사름덜 잇어낫수과?

#1 뭐?

@1 사냥, 사냥? 사농. 핑 사농?

@2 노루영.

@1 노리 사농. 잡으레 텅기는 사름덜.

#1 전인, 옛날에 셔낫주, 옛날에.

@1 그 사름덜은 그거 해근에 가죽 벗겨근에 가죽 옷도 맨들앙 입곡 해난?

#1 아이고, 이던 경 몰르켜 난.

@1 그런 건 몰르고.

#1 몰라, 몰라.

@1 나가 이디서 나곡 커시민 이거 구십 년 뉘난 대강 알 거여만은 나 이십 년에 와 부
난 이디 오난 몰르큰게. 우린 또 저 대정면이난 아주 산이 머난 그런 거 일절 모르고.

@1 아. 그런 거 입영 텅기는 사름도 안 봐 보고.

#1 안 봐 보고. 거 아주 옛날이난게. 이제, 난 그거 못 봐봤어. 거 말만 들엇주. 당초.

@1 가죽으로 뉘 뉘 신발 같은 것도 신영 텅기곡 헌덴 헨게만은.

#1 옛날 경 노리 가죽이여 무슨 쉼가죽이여 허명 해낫주 몰라. 우리 어머니 옛날에 거
가막창신이엔 현 거 창에 쉼 영 동글락동글락 박아진 거 요던 우단으로 뉘고, 거 가죽 아
니고 우단이라, 우단.

@1 건 우단이라?

#1 우단으로 현 거 옛날 우리 어머니 나 아인 때 신는 거 느랑 봤주. 외방 갈 때 그거
낫당 푹 신어.

@1 으.

#1 가막창신 잇어, 옛날에.

@1 예, 예.

#1 그거 봐낫주, 아이 봐난. 몰라.

@1 예. 그 비 올 때, 산에.

바느질 도구(1)

#1 그 즐레엔 현 거.

@1 어느 거 즐레짜?

#1 저 즐레라. 그것 ㄴ라 뉘인에 허는고, 손부리 바느질헐 때.

@1 골미.

#1 골무, 골 뉘?

@1 골미.

#1 골미. 요거가 제라현 거주.

@1 요거가 제라현 거주게. 쉼로 뉘 거. 반지처럼 생긴 거.

#1 이거 옛날, 이거 아메도 현 나가 구십 년이난 현 백 년 뉘실 거라. 우리 어무니.

@2 아.

@1 쉼로 뉘 골미.

#1 저거 옛날 거.
 @2 게민 이거는 얼마나 된 거.
 #1 신식 거 이제.
 @2 신식 거.
 #1 요것가 제라헌 거주. 이거 우리 어멍 쓰단 거난 나가 구십이난게. 흔 백 년도 넘어신 디사 모르켜. 나 이디 딱 즐라메영이 생전, 이제 일러불지 안허영, 일러불지 안허게 험저.
 @1 골무엔 헤, 골미엔 헤?
 #1 골무 아니.
 @1 골무.
 #1 골미라?
 @1 아니, 삼춘 곤는 말.
 @2 삼춘 곤는 말.
 #1 우리 곤는 말은 골무.
 @1 으, 골무.
 #1 어멍 거난게 저거.
 @1 어멍 허단 거난.
 #1 옛날 우리 어무니도 바농질허난 우리 어무니신디 저런, 저보다는 알룬 것도 저런 썬 로 된 거 시난게.
 @1 반지 같아.
 #1 알룬 거 어무니신디 싯고 저거 흐썰 죽고 두더운 거라. 옛날에. 게난 우리 어멍 죽은 거난 날궤라 아지렌 이결랑 느 아지라 죽은 거.
 @1 하하하.
 #1 게난 나가 빌언 아인 때부터 보단 거난 백 년도 넘엇일 거여.

‘접세기’

@1 그 비 올 때 산에 썬 보레 갈 때 입는 옷들 잇수게?
 #1 썬 보레 갈 때 옛날 접세기 아니가, 옛날에.
 @1 예, 접세기.
 #1 저 새로 여꺼근에 영 씨영 텅기는 거.
 @1 예, 접세기에.
 #1 우 조라지게 허고 이디 이 부락 사름 다 그런 거 씨영 텅겨났어.
 @1 아. 그 접세기는 밑에까지 오는 거파, 아니민 쫓른 거파?
 #1 접세긴 이 영동이 알까정 느리게 현 거라. 영 사민 영동이 알까장 느리게. 경 아래꺼 장 느리게 안 헛어.
 @1 으, 영딩이 알까지만예.
 #1 으, 경현 거 드러 봐났어. 나가 이디 오랑 살명.
 @1 그거 험 땀 모자, 머리에도 무신 거 써야 험니까?
 #1 머리에도 무시거 써실 거라, 무시거. 몰라 무시거. 밀집모저나 여름에 밀집모저나 썬주.

@1 그 접세긴 누계 아버지라도 멘드는 거 봐납디가?

#1 아이 봐봤저. 난 아이 봐봤저. 우리 시아버님은 그런 거 아이 멘들아. 멘들 총 모른 하르방.

@1 음.

#1 술만 먹는 하르방이난.

@2 하하하.

#1 멘들 줄을 몰라, 우리 시아방.

@1 그게 이중으로 뒤편 잇지는 않지요?

#1 으?

@1 하나만 이렇게 뒤편 잇는 거지요? 우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 이렇게 뒤편 건 아니지요?

#1 아이고, 하나로 새가 경 질여근에 그추룩 허느냐? 올로 혼 도리 허곡 이 우이로 혼 도리 허곡 이 우이로 더 좋아지게 혼 도리 허곡 행 츄츄츄츄. 우, 우가 좋아지게 허영 영 씨영 뎡겨난 거주.

@1 음.

#1 계난 두 도리 안 허민 세 도리쯤 여꺼실 거여.

@1 이디서부터 이디까지 오진 안헛구나. 겨난 이 밑에 이디 여꺼진 건 지레기가 이레 누려울 거 아니라. 요만이 그치곡 알로 그차 불곡 경헛주. 나 잘 몰라. 경해도 쓴 건 봐났어.

@1 이거 손에 쥘은에 어떻 헤근에 허는 거마씨?

#1 이거 영 허영.

@1 경헛? 바농 하나 쥐 봐봐.

#1 바농.

@2 바농 다 녹실어신디.

#1 바농쥘레에, 바농 다 일러볼언 바농 요거 하나 메기여.

@1 자, 바농 이시민 그걸로 허영 어떻 허영 허는 거파?

#1 나 허여 보켜, 옛날 허는 식으로.

@1 으.

#1 이디 독진 실이 어디 신고?

@1 독진 실?

#1 독진 실을 꿰어사.

@1 어떻 안 헤, 독진 실 안 헤도 괜찮아마씨.

@2 요거 알론 실이라도.

#1 게메.

@1 근데 그거 바농귀 꿰와점수파?

#1 예. 바농귀 못 꿰영 바농질 헤지느냐게.

@2 그지요?

@1 나 바농귀 이제 못 꿰크라마씨.

@2 하하하.

@1 안 보여.

#1 무사 못 꿰어?
 @1 안 보여서. 하하하.
 #1 바농귀 못 꿰민 바농질을 헤져게.
 @2 허지 말아야지예?
 #1 으, 허지 말아사주.
 @2 야, 금방 단번에 끝냅니다.
 @1 침 불량 막.
 #1 아니, 안경 썸시네게.
 @1 안경 써도 안 보여. 돋보기 써야 허크라.
 #1 거 어뎡헌 말고? 느네 아으덜이.
 @2 아이덜이.
 #1 영 허민 이추룩 허여근에 영. 이걸 영 허민 실을 영 허민 바농귀가 바농질허젠 허민
 요레 오라, 요 고망더레.
 @1 예.
 @2 아, 저쪽 손에 끼는 거구나.
 @1 반대 손에 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지?
 @2 나는 왼손에 끼와 가지고 여기 허는 줄 알았는데, 뒤에?
 #1 왼손에 꿰엉?
 @2 아, 예 예.
 @1 달라.
 #1 이거게. 영 허민.
 @1 바농귀 뒤에 받쳐 주는 거.
 @2 예, 예.
 #1 특 허게 받아지느네. 이불 헐 때 이거 헤야 좋나. 이불 헐 때. 이런 거 헐 땀 안 헤
 도 뉘고.

바느질 방법

@1 이렇게 허는 게 무슨 질? 무신 바농질?
 #1 이거 호오는 거. 호오는 거 또시.
 @2 손 영 잠깐 손 들어 봅서.
 @1 손 들러 봅서.
 @2 예. 예. 뉘수다.
 #1 ㄴ새 어디 가니? 이 썸 그치게.
 @2 ㄴ새, ㄴ새 여기.
 #1 요거 ㄲ치라. 올로 ㄲ치라.
 @1 올로 ㄲ치라.
 @2 올로 ㄲ치라, 예.
 #1 겐 이진 호우는 거. 또시 이 영 허영 매번 혼 번 더 빠내명 영 또시 이거는 이거 뎡

침히는 거.

@1 텅침히는 거.

#1 이건 이건 텅침. 이거 텅침 이추룩 허는 거 텅침.

@1 음.

#1 든든히 허는 거 이거 텅침이엔 허주. 으, 알아지크냐?

@1 뒷바농질이영 텅침이영 똑ㄴ튼 거?

#1 으, 뒷바농질 허는 게 거 텅침.

@1 똑ㄴ튼 거?

#1 옛날 말로 텅침이엔 허는 거.

@1 음.

#1 또시 시끔이엔 현 건. 시끔이엔 현 거 곶아 주저. 시끔이엔 현 건 영.

@1 크게?

#1 크게 영 현 건 시끔, 시끔 실이엔 허고, 시끔이엔 현 거. 영 행 시끄는 거.

@1 으.

#1 호우는 거, 텅침히는 거.

@1 음.

#1 이건 감치는 거.

@1 건 감치는 거.

#1 으, 영 허영 이거 영 허는 건 감치는 거.

@1 이게 감치는 거.

#1 으, 경 현다게.

@1 이 단, 이거 단 요렇게 접으면 요거 혈 때는 어떻게?

#1 이거 혈 때는 어떻 헤? 이거 그냥 미싱으로 영 박아 불민 뉘난. 경 안허민 이거.

@1 미싱 안 허고 손바농질허젠 허민.

#1 잘허젠 허민.

@1 으. 세발뜨기 이런 거 하네. 이건 뭐엔 곶아?

#1 모르켜, 난 이진. 영 허영 알단, 알단 영 허영.

@1 계난 그거 그거 곤는 말은 엇어, 이거?

#1 이진 난 몰라.

@3 세발뜨기.

@1 건 표준어고.

@2 제춧말로 안 들어본 거 같다예.

#1 안 들어봤어.

@1 안 들어봤어.

@2 시 발?

#1 영 허영, 영 허영 허는 거라.

@1 그거 단 혈 때예.

#1 단 혈 때 이런 식으로 허고. 잘허젠 허민.

@1 음.

#1 경 안허민 영 바라 불고. 경 안 허민 또 미싱으로 허는 거민 미싱 그런 거 알 단 허는 미싱은 그 폴안게.

@1 으, 맞아.

#1 이런 미싱이 아니주게.

@1 음, 음.

@2 맞아요.

#1 실 서너, 서너 가지로 걸엿, 실도로기 세 개로 걸엿 흔 번 쥐 가민 싹 뒸는 그런 거.

@1 이렇게 뒸는 거예?

#1 으, 경허는 거.

@1 따로 기계가.

#1 쓰봉 알단 허는 건 이추록 박으나 요런 나 ㄱ사 허는 식베끼 나 모르크라.

물웃

@1 옛날에 그 해녀들, 즈녀들 해근에 입는 그것도 잇수께?

#1 어게, 속곳.

@1 속곳예. 그것도 만들어낫주예?

#1 만들곡 말곡.

@1 그건 어뎡 허영 멘드는 거라?

#1 ㄱ작 그런 거 다 허곡.

@1 으, 단추예. 단추 달고예?

#1 것도 몰랑 멘드는 거주. 어뎡 어뎡. 그런 속곳은 이제 엇어 부난 베와 주지도 못허큰 게. 옛날엔 우리 어무닌 그 속곳 입어보지도 안헛저만은 난 헐 층은 다 알아진다. 영 허여 나난.

@1 이거 소중의 사진 가져 와신디예, 옛날에 헤난.

#1 맞다, 이거.

@1 이런 소중의도 이딘 뒸엔 ㄱ고 이딘 뒸엔 ㄱ고 허는 이름도 잇지예? 요거 어깨끈?

#1 요건 허리엔 허엿주게. 밋친은?

@1 이건 밋친?

#1 밋친, 허리.

@1 허리.

#1 단추. 이 들마기 단추 문.

@1 요디는?

#1 이건 첫이렌 헤실 거라, 첫?

@1 첫?

#1 으. 속곳 첫.

@1 속곳 첫.

#1 딱로 낵, 요거 딱로 낵 영.

@1 예, 딱로 멘들지예?

#1 딱로 멘들앙, 딱로 멘들앙 허는 거라.

@1 요기 두 겹으로 헤?

#1 이디?

@1 으.

#1 아니, 두 겹 안 허여, 두 겹 안 허여.

@1 두 겹 안 헤?

#1 이것이 미녕 너비민.

@1 예.

#1 너비민이, 미녕 너빈 너미 너른다.

@1 으.

#1 미녕 너비 일곱 치 뉘난, 일곱 치 뉘난. 혼 다섯 치쯤 허영, 으섯 치쯤 허영 영 흐썰 이디 떨어 뉘근에, 너비에서 미녕 너비 거트민 떨어 뉘근에 요 너비민, 영 현다. 영 허영 들르민, 영 허영 들르민 요디, 요디는 웨겍 뉘고이 첫은 딱로 뜯 거 끈영 첫은 요디 영, 이레 영 박주게.

@2 아, 뜯 걸로 해근에?

#1 뜯 걸로 영 허고 이 강알 이딘 멧 곱, 이딘 두 곱 뉘주게.

@2 아, 강알은 두곱 뉘고?

#1 두곱 뉘고 이딘 혼 곱씩 뉘곡. 요딘 겹쳐지난 두곱 뉘고.

@2 요거 울로 계난 혼 다린 요레 들어가고 다리 혼난 요레 영 들어갈 거파?

#1 으, 요레 영 들어오랑 요렌 막작으로 해근에 막작으로 행 영 멘다. 메곡 첫 헤영 요레 영 허여근에, 첫 허영 첫 허여 놉근에 허리 들곡 밋친 들곡 윗으로 들마기만 우이영 아래영 허민.

@1 들마긴 멧 개씩 돌아?

#1 곱 허영 허곡 줌순 영 허민 들마기 요디도 세 개 아래.

@1 아래 세 개? 우에는?

#1 우에도 이꺼장 손박허젠 허민 세 개.

@1 세 개. 두 개 허는 사름도 잇곡.

#1 이 즈깁이알로 솜박허게 허리 막 넓게 허영 현다, 줌순. 우리 어머니네 시태에 집이 서 입는 할망덜은 이거 이추룩 영 허영 속곳을 허민 허리가 첫은 들곡, 첫은 돌아야 뉘곡 허리는 반열이 밋친도 아녀고 즈복이 첫, 첫 영 허민 허리 요만인 허여.

@1 아.

#1 요만이 반 허리 허민 밋친도 안 들곡 그냥 곱 요디, 요디 곱 들민 곱으로 똑 무끄민 뉘어. 할망덜 옛날은. 줌수 안 현 사름덜 경허고 줌수는 이디 영 허민 이디 곱 들앙 또시 허고 우이도 단추 막작단추 세 개.

@1 음.

#1 요디, 요디도 세 개.

@1 으.

#1 이디 세 개허고 이딘 우인 허민 흐썰 이디 아이 텡 세 개씩 으섯 개주. 빈주룽케 허여. 즈수덜은.

@1 이쪽 다리 강알허고 이쪽 강알허고 다리 허고 곤는 거 무신 굴, 무신 굴 영 험니까?

#1 게, 몰라. 속곳 굴이엿은, 이디 속곳 굴이엿은, 속곳 굴이엔 해났어. 옛날에.

@1 굴예. 요디도 굴, 요디도 굴. 다리 빠는, 다리 들어가는 디예?

#1 음.

@1 이거 산굴이여, 죽은굴이여 뭐 암굴이여, 솟굴이여.

#1 경은 안 허여.

@1 경은 안 곺아.

#1 속곳, 속곳 굴이엔 헛어, 옛날. 속곳 찻, 속곳 찻.

@1 속곳 찻.

#1 찻이엔 허고.

@1 허리?

#1 허리.

@1 밋친?

#1 이디 건 밋친.

@1 밋친예.

#1 경허민 요 고망허고 요 고망, 이디 똑 ㄱ뜨게 허영 몰라났주, 우리가 헛 때. 영허영 이추룩 맞좌 보멍 몰르곡 몰를 때에. 경허고 요쪽은 단도 영 오그려근 영 양쪽을 다 오그려근에 영 단 박고.

@1 아.

#1 경허명 난 허여났주.

@1 삼춘 이디 전체가 다 허리?

#1 이디 전체가 다 허리.

@2 가슴까지 다 올라오는 거를?

#1 허리. 즈쟁이알까장 다 가게끔.

@1 아.

#1 즈수덜은 경 허고 즈수 아닌 사름은.

@1 반 허리만.

#1 반 허리만 허여근에 요 곱으로 무끄민 뉘메.

@1 아. 겨믄 속곳으로 입는 거, 속곳으로?

#1 속곳으로 옷 소곱에, 바지 소곱에.

@1 예, 예.

#1 옛날에 입엇주. 우리 어무닌 속곳 아니 입으난 그런 거 아이 봐봤저만은 우리 어무닌 저 소곱에 입는 중의 허여, 중의. 너른 거.

@1 이거 허민 이 들마기 오른착이, 오른착이 이착이파?

#1 오른쪽에, 오른쪽에 들마기.

@1 이쪽에 들마기 허는 거예?

#1 으.
 @2 친은, 친은 어느 쪽이 길게?
 #1 깊은.
 @2 상관엇어?
 #1 아니, 이 앞쪽이 질어사 이레 돌아오랑 앞이 강 메어, 요디서 메사주. 어디 이디, 아
 니 이디 메어.
 @2 으.
 #1 이디, 이쪽에 질게 헤사.
 @2 앞이 거를 질게 헤사.
 #1 으. 경허고 요쪽에 건 즈르게 헤영 요디만 오민
 @2 예, 예.
 #1 경헤져실 거라. 나 헤여 나도 잘 모르켜. 오래 뉘난.
 @2 으.
 #1 속곳도 막작이영 드러 헤영 헤어나난 이제도 막작을 헤염주, 옛날에 드러 헤나난.
 @2 이 물웃 헐 때 모자 닳은 것도 쓰곡 헤낫수파?
 #1 수건, 수건.
 @2 수건 썩 헤난?
 #1 으, 수건. 옛날은 물웃 적삼이 섰어, 적삼. 물적삼.
 @1 으.
 #1 물적삼이엔 현 건 몸에 바짝 맞게 허여근에 소매도 깰게 허고. 게민 물적삼, 헤영
 현 물적삼 입곡. 이딘 거명케 검은물 들영 미녕, 미녕으로 옛날은 미녕베끼 엇이난 미녕으
 로 거명케 물 들여근에 속곳허곡 헤영현 물적삼 입곡 또시 우이 수건, 헤영현 수건 씨곡.
 즈수덜 헛주. 우린 즈순 안 헤 봤저만은 그 옛날 우리 클 때에 경 헤라, 그추룩.
 @1 아, 게난 물적삼은 여기 딱 부트게 허는 거구나예?
 #1 으, 부트게, 부트게. 막 부트다시피 깰게허여. 깰게 물적삼허영 이디 고무도 아이
 놓고 그냥 경허고 이디도 막 바짝 맞게. 너르게 안 허여. 바짝 맞게 허고.
 @1 게민 물웃 소곱이 입는 거파, 아니민 물웃 우이 적삼을 입는 거파?
 #1 이 속곳 소곱에 물적삼을 입을 거 닳아, 나 생각으론.
 @1 게민 이 밋친이 적삼 우이로?
 #1 밋친은 적삼 우이로 갈 거주게. 난 물질 안 헤 부난 몰라도 나 생각에 적삼이 우터레
 안 입은 거 닳아. 적삼이 소곱더레 입은 거 닳아. 경행 밋친은 우터레 겸영현 걸로 밋친은
 우터레 허곡 경, 경 들마기 쪽 허곡 나 눈에 경현 것만 닳아 뉘여.
 @1 예, 예.
 #1 우린 좀수 안헤나난 몰라도.
 @1 경헤도 잘 알암신게, 봐나난예?
 #1 봐나고 저 멘들아나난게. 웃, 그 물웃을 멘들아난. 경 안허민 멘들아나지 안허민 몰
 라, 생각 아이 나.

혼례복

@1 그다음에 이번에는 결혼식할 때 입어난 옷 잇잖아예? 신부 옷이영 신랑 옷이영.

#1 결혼식 할 때에?

@1 으.

#1 결혼식 할 때에 무시거게. 멩지 치메저고리 우리 시집갈 땐 기지가 엇으난 우리보다 옛날은 다 멩지 치메저고리만 입곡 장옷 씨곡 행 갖주게. 난 우리 시대에, 게도 나 시대엔 비로도 치메도 나고 나 시집갈 때에 유동치메에 저고리에 입언 시집갓저마는 우리보다 앞 이 사름은 멩지 옷만 허영 시집갓어게. 미녕 옷만 입언 살단 시집간 날은 멩지 옷. 멩지 장 옷 해주고.

@1 장옷도 멩지옷, 멩지로예?

#1 으, 옛날은 다 경.

@1 장옷만, 장옷 말고 뭐 이런 저런, 저런 원삼 같은 거 이런 건 안 입어났수파? 이것도 장옷?

#1 옛날은 푸린 물 들이곡 허영, 이거 옛날 우리 아인 때 방 우리 동네에서 헤난 옷은 아닌게.

@1 으.

@2 이렇게 아니?

#1 이추룩 소미 너르게도 안 허메. 이추룩 허메.

@2 이추룩예.

#1 이추룩 허여, 이추룩 허는디 푸린 물 들여근에 허주게. 붉은 꽃동 허곡 붉은 짓 허곡.

@2 이거 색깔 다 바렌 거. 푸린 건디.

#1 으?

@2 이거 푸린 거.

@1 색깔 바렛텐 오래 뒹 부난.

#1 아.

@2 원래는 이런 푸린 색예?

#1 어, 이보단도 더 퍼렁해났주. 옛날 이추룩 헛어, 이추룩. 옛날 침, 이제도 안 허여, 소미 영 너르게 안 허여서 옛날은.

@2 예, 맞수다.

#1 겨고 이진 이디가 벌어지지 아년에 우리, 난 이런 거 안 봐봤저. 이런 거만 봐봤저. 이것이 비슷허다. 색깔은.

@1 쪼금 달라도예. 겐 이거 하나 입곡 하나 쓰곡 경 헉니까?

#1 으, 하난 빌어당 씨어.

@1 하하. 하난 나 거, 하난 빌어다근예.

#1 하난 어명네가 행 주주. 입지곡 치메 저고리도, 멩지 치메 저고리도 입저 주곡.

@1 으.

#1 겨민 죽어 갈 땐 또 그거 행 치메 저고리 낫당 입곡 시집갈 때 입어난 걸 경헛주게. 어떤 사름은 그자 입을 거 엇이민.

@2 아, 치메저고리도.

#1 시집강 후제도 다듬으멍 멩지 치메저고리도 입영 잔치 먹으레도 가곡 쁼당칩이도 불 일 보레도 텅기곡 뵤곡 풀허고 드러 허당 불민 혈어도 불고 경 안 현 사름은 ㄱ만이 낫당 시집가난 때 입어난 거 죽영 가멍 입곡. 장웃 이거 하난 멘들아 주주게, 부모가.

@1 음.

#1 멘들아 주민 씨는 건 빌어당.

@1 아.

#1 다, 부제칩이고 가난허고 다. 두 개 안 헤 줘.

@1 아, 하나로예. 하나는 입곡 하난 씨곡. 거 혈 때 머리는 어멍 험니까? 머리로 어멍 여찌근예?

#1 머리 옛날은 머리 마딱 여져났어. 우리 아은 때.

@1 으.

#1 난 시집갈 때 여찌지 안헨예 그냥, 머리 여찌는 건 총각 머리를 어멍 허영 영 몰안 예.

@1 뭐 돌리라도 영?

#1 영 들안에 멘사포 씨와라.

@1 아, 멘사포 씻구나, 삼춘은. 족두리 안 허고?

#1 아니, 족두리 안 헨. 멘사포 씨곡 몰아라. 총각 머리 이만이 무경 뇌난 거 몰안. 경허 민 옛날은 부모네가 잔치허젠 허민 쁼당칩이 강 아이고, 지집아 저 머리 거찌젠 험수다 경 허멍.

@1 머리 거찌젠 험수다?

#1 잔치 험수다. 딸 푸는 거.

@1 머리 올린텐 현 말을 제주도에선 경 곧는구나.

#1 옛날 촌에서 우리 세젠 경헤, 쁼당칩이 강 잔치, 아무 날 아무 날 잔치.

@2 시집보내젠 험수다.

#1 딸 풀젠 험수다 허는 소리가. 아이고 아무 털 아무 날은 지집아으 머리 거찌젠 험수 다, 잔치 먹으레 읍서 헤연.

@1 머리 거찌젠, 거시젠?

#1 머리 거찌젠 험수다 경헨. 경 곧곡 헤났저, 옛날 어른덜.

@1 그 머리 영 여찌곡 허는 건 어멍 허는 거마씨?

#1 여찌는 건 이착더레 영 헤신가? 나 잘 모르켜. 우리 어머니날 매날 빗영 영 여찌곡 곳 텅이레 머리창 허영 막 다멍 영 허곡 느량 헤도 나 몰라. 머리에 찌는 거 모르켜.

신랑 웃

@1 그른 남자, 결혼헨 때 남자는 어떤 거 입읍니까, 웃?

#1 으?

@1 남자 웃, 결혼헨 때? 장게갈 때 입으는 웃?

#1 곳사 도복 헤네?

@1 예.

#1 그거 우티 바지저고리 입곡.

@1 멩지로?

#1 멩지로 옛날.

@1 허영헌 거 그냥?

#1 허영헌 거 남전 부모네가 헤여 줏주. 메뉴리 짝시도 멩지 치메저고리 헤 주고 옛날을 경헛저. 멩지베끼 엇이난.

@1 시집가젠 허민 친정어무니가 멩지 저고리 혼 벌 헤주고, 시어머니가 멩지 저고리 혼 벌 헤주고 두 벌은 잇는 거네.

#1 두 벌 뒤주.

@1 남자는?

#1 시집이서 새각시 신도 사 주고.

@1 아, 신도 사 줘?

#1 신도 사 주고.

@1 무신 신 받읍디가? 고무신?

#1 난 고무신 받아신가?

@1 하얀 거?

#1 아, 경혜실 거라. 잇어변 모르켜만은 드러 저 새각신 신 허는 건 드러 봐나고 우리 웨하르바님을 신을 워낙 곱게 잘 좇주, 저 멘들주게. 계난 고무신 못 산 사름은 우리 웨하르바님신디 오란 우리 웨하르바님은 우리 동네, 우리 집 즈꿏디.

짚신

@1 짚신예?

#1 짝신이라도 첨 잘도 곱게 멘들아. 짝베설로만.

@1 짝베설로만.

#1 느네 곱아도 물론다게.

@1 경해도 곱아줘 봄서게.

#1 곱아줘 봄서.

#1 짝베설로만 빵, 짝베설이 노랑허주게. 노랑허민 손부리로 막 베 꼬듯 꼬아, 스뭇.

@1 으.

#1 꼬아근에 깎을 멘들앙 하이고, 잘도 곱게 멘근다. 계민 아들 픈는 사름이, 부모가 오랑 맞추앙 헤 줏센 허영. 드러 멘드는 걸 나가 봐났어. 웨하르바님 허는 걸 봐났저. 옛날 예.

@1 옛날예.

#1 그거 경허영 새각시 신 주곡 치메저고리 헤 주곡 시집이서 경헛저.

@1 그 짝세기, 짝신, 초신 헐 때.

#1 에이구, 이거 꼭거레기 닳은게.

@1 예, 옛날, 옛날 초신 헐 때?

@2 잘 만들었수파, 이거?
#1 으?
@2 잘 만들었수파?
#1 에이, 못 만들었어.
@2 이것보다 더 곱게 멘들안?
#1 에이구 이것사, 이거 이거?
@1 시집갈 때는 더 곱게 멘들지예?
#1 이거 으정 오람직허다.
@1 아까 짝 멘드는 건, 아까 어디가 짝이파?
#1 요것이 신평이엔 허지. 손부리로 데우멍 이거 멘그는 거지.
@1 아, 손부리로 데우멍 멘드는 거?
#1 으, 신평이엔 무시거여, 이건 앞쪽이엔 허고. 하나 두 개, 세 개.
@1 색깔 다른 거?
#1 으, 앞쪽은 탄난 거 헤메. 흐썰 탄난 거 서꺼근에. 요런 걸로만 안 허여. 요런 거 멧
개 네 개.
@1 무시거 서끝니까? 천? 형겅?
#1 무시거산디.
@1 천 안 헤? 색깔 들인 거?
#1 탄난 걸로 헤라, 우리.
@1 모르켜. 탄난 거로 헤라, 우린.
#1 앞쪽은 멧 개, 세 개쯤. 요짝도 세 개쯤, 요짝도 세 개쯤. 토난 걸로 허고 요레 똑
뽀 거로 영 허메.
@1 음.
#1 영헤도이. 이것사 이거 꺾버랭이주, 이거 신평 무신.
@1 꺾버랭이라 이거? 허허허. 요건 짝이고 요거 뭐엔 헉니까, 요디?
#1 게메, 거 뺏이엔 헤신고 요거? 신평이엔 허곡.
@1 이던 신평이엔 허고 그다음에?
#1 요디 슬진 거 요건 엄추리엔 허여.
@2 엄출?
#1 엄추리.
@1 무사 엄추리엔 곱습니까?
#1 몰라. 엄추리엔 헉다.
@1 무사, 무사. 뭘 허는 디파?
#1 요거 딱난 거라, 이거. 이거 슬진 거로 헤메, 이거. 영 내어 낫어.
@1 요 밑에 게 엄추리?
#1 으, 그것
@1 으.
#1 창.

@1 으.

#1 이 초신은 신당 반 신어지민 뉘쌍 신곡 허는 거주게.

@1 예, 놀 나오기 전에.

#1 으. 놀 나오기 전이.

@1 놀은 무신 거로 멘듭니까, 놀?

#1 놀, 놀 무신거로? 옛날은 뭐, 무시거로 신사라 뭐, 신사라 옛날에 신디 신사라로 허고.

@1 놀을?

#1 으, 놀을.

@1 아.

#1 놀은.

@2 더 질긴 거예?

#1 질긴 거로 헛어.

@1 놀은 멧 개에 해근에 해야 뉘마씨?

#1 놀 네 개 아니라?

@1 아, 놀 네 개?

#1 네 꺄 거여, 녁 즐.

@1 녁 즐 해근에 놀.

#1 경행 요 신각은 요 꺄텅이에, 이견 코걸이 해진 디주게. 짝베설로 코걸이 해진 델로 영 켈 걸로 허곡 요 알 창더레 간 거 꺄꺄허게 꺄꺄이 다 나오게 양쪽으로 나오게 잘행, 경행 멘듭메. 하르방델 옛날.

@1 으.

#1 우리 웨하르바님은 침 일류로 잘해났어, 신. 새각시신 느랑 맞창 허는 거 나 즈꺄디서 봐났주. 우리 어무닌이, 이 집이서 요 질 하나 꺄리에 요 정자만이 현 디 시집가났주게. 앞뒤침이 시집간 허난 그 동네서 우리 하르바님 그자 즈꺄디 살멍 나 봐났주, 허는 거 봐났주. 거 엄추리엔 허여. 앞꺄이엔 허곡.

@1 앞꺄.

#1 앞꺄. 요 엄추리엔 허는 디 요건 무신 거엔, 요거 이디 영 허는 거 이견 뉘이엔사 허는디 모르켜 난.

@1 텅기?

#1 이것도 무신 말이, 일름이 실 거라. 나 잘 모르큰게.

상복

@1 그다음에 상나실 때 누게 돌아가섯을 때 입는 옷예. 그 호상 말고 상제덜 입는 옷.

#1 상제들 옷은게, 상복이주기 상복게.

@1 것도 아텔 상복 뜨나고 사위 상복 뜨나고 큰상제 옷 뜨나고 험니게.

#1 아니. 아텔은 큰상제고 죽은상제고 아텔옷은 뜨나고.

@1 응.

#1 아덜웃은 큰상제고 죽은상제고 소단이엔 허여. 요디 창웃추룩 요디 ㄱ늘게.
 @1 소단?
 #1 소미 소미.
 @1 소미를?
 #1 ㄱ늘게 허곡. 사위허곡 손지. 손지나 조케나 이제 사위 죽어 불민 사위 대신 아덜 시
 민 웨손지라도 사위대신 허민 그건 또 ㄱ뜨게. 도복추룩 우머니 이만이.
 @1 이 밑에가 우머니파?
 #1 응, 우머니. 또시 이 아덜 상제는 소단.
 @1 소단.
 #1 죽은, 창웃추룩 이디 등기지 안헌 거.
 @2 등기지 안헌 거.
 #1 큰아덜이고 죽은아덜이고 아덜은 똑ㄱ찌. 경허고 또 이 무시것고.
 @1 뒤에 날개 든진 것도 특난덴 헨게마는.
 #1 이딘 절대 늘개 안 부찌. 이 세계.
 @2 아.
 @1 늘개 안 부찢니까?
 #1 나 저 친정에선 늘개 부찌고 이딘 완 보난 늘개 안 부찌.
 @1 아덜 것도?
 #1 아덜 거고 딸 거고 아이 부찌. 아무것도. 사위고 아무거고 늘개 부찢 것이 하나도 엇
 어.
 @1 아.
 #1 하나도 엇어.
 @1 그 저 입관허기 전이는 어깨도 흔착 내놓고예 두건도 터진 거 쓴덴 헨게마는.
 #1 그거 관 찰 때.
 @1 관 찰 때.
 #1 이젠이 의료원에서 허민 곧 목심만 털어지민 날만 아이 걸민 스뭇 장의사덜 불령 흔
 저 흔저 흔저 관드레 낳 묻어 불젠 허는 때난 사흘이민 확 치와 불고 허는 때난. 그 흔 짝
 걸치고 통두건 쓸 시간이 엇영 이젠 안 헌다.
 @1 하하하.
 #1 안 헌디 옛날은 죽은 영장 구들에 놔두서 관도 마당에서 장막 청 차곡 뭉 허난 이
 마리에선 웃도 허곡. 경행 옛날은 장막 청 마당에서 관 차명 자귀 소리가 나사 웃을 틀란
 해낫주기.
 @1 예.
 #1 옛날은. 경허난 미리 행 놔두는 버릇이 엇어 옛날은.
 @1 경행 허난 그자 마리에선 웃 허민 남저 상젠게 소단으로 허곡 여자 상젠, 사위상젠
 이디 그것ㄱ라 직량이엔 허여. 이디.
 @1, 2 직량.
 #1 응, 직량이엔 허영 허여도 우리 세젠 다 이디 등어리에 영 이만이 들리주게. 등어리

에 들리는디 이던 경 안허여. 아녀는 디라라.

@1 마리에 앓앙 두건도 다 좁아사주예?

#1 응, 좁아사.

@1 두건은 어떻게 좁는 거파?

#1 두건은 어떻게 어떻게 뭐 두건 험이사 무신 눈 곱아두서 허주.

@1, 2, 3 하하하.

#1 바느질 헐 총 모른 사름도이 정제라도 두건 들른 거 내청 정제 구석에라도 앓앙 바느질 못허는 사름은 두건 맨들곡.

@1 만드는 거 곱아 좁서. 우리도 혼번 해보게.

#1 흐쓸 허는 사름은 옷 허는 사름은 마리에 앓앙 옷 들르고. 옷 하나 들르민 야, 아무 어명이랑 그 동네서 흐쓸 옷 헐 줄 아는 사름 알주게.

@2 응.

#1 아무 어명이랑 마 이거 아덜 상제옷 하나 혼 사름 거 들랏저. 우선 이거 마탕 멧기 곡.

@1 아 영 말라근에 다 찢른 다음에 주는 거라?

#1 다 찢르민 혼 사름치 다 들라지민 영영영영 들아근에 야 아무 어명 이거 마탕 허라.

@2 아, 찢른 걸.

@1 거문 바농질허는 거라?

#1 바농질허렌 허곡 도시 옷 들르는 사름이 마리 앓아 두서 경허민. 그 마리 앓아 두서 허당 마리 족으민 또 족으민 저 구들에 강도 허곡.

@1 응.

#1 큰옷 하나씩 마탕 문 허주게.

@1 응.

#1 허문 동네 사름이 문 모다든다, 옛날은. 경혜영 문 그치룩 허명 허는 거. 우리 어머닌 옷 들르레만 뎡기는 사름이주게. 게민 옷 들르레 가민 옷 들라 주민 저 일뿔날은 떡공정 혼 차롱씩 으져오고. 떡.

@1 떡공정.

#1 떡, 떡.

@1 응. 떡으로예. 옛날 돈 안 주고.

#1 돈이 어디 셔. 떡으로 주곡 소상헐 때도 떡 대상헐 때도 떡, 들라 주민. 떡만 으져오라, 떡공정. 공정.

@2 그걸 일뿔날 가져옵니까?

#1 일뿔날.

@2 영장 다 낫나사 가져오는.

#1 아니 일뿔날. 영장허기 전이 떡허민게.

@2 아, 예.

#1 문 공정 설르주, 설르주기. 신 삼은 사름도 떡공정 주곡, 분 가온 사름도 주곡, 정시 칩이도 아저가곡 정시 옛날 돈도, 돈 엇엇저.

@1 응.

#1 정시칩이도 떡으로 정시칩인 땅 보아준 사름신디 꺾기도 흔 두어 서너 근씩 토막으로 아저가고 우리 어머니 옷 돌른 건 젓갈로 목적도 흔 고지, 도야지고기도 흔 고지.

@1 하하하.

#1 적으로 아저, 꺾영 아저온다.

두건

@1 응. 두건 흔 번 어떻 허는 건지 곶아 줘서.

@2 너무 족으파?

#1 두건 어떻 허여.

@1 이거 천으로 허민.

#1 이거 천이민게 영허민 어떻 흔 자 흔 치 헤사 두건이 뒤는 거주게.

@2 너무 족아.

@1 아, 너미 족아, 천이.

#1 자 흔 치 뒤민 두건이 뒤는 거난.

@2 자 흔 치.

#1 영허민 막 널른다게.

@1 흔 치민 어느 정도 뒤는 거파?

#1 자 흔 치민 이거주기게.

@2 이 길이.

#1 이것가 자주.

@1 아, 자 흔 치민 저 정돈 헤야. 응.

@3 오십 센치.

@2 아. 흔 치가 두건.

#1 이거 쫄아져 부난 뒤크라게. 자 흔 치 허민.

@1 경헝 짤랑.

#1 영허영 영허영 이거 일로 영 주워근에 주워근에 영허민 이것가 ㄱ진복이민 영 ㅋ똥허 게 줘볼 거 아니라. 주민게 이제 요거 영 줍곡 요거 영 줍곡 헤근에 또 이디 곡대길 멩그는 거라.

@2 만들아지켜.

#1 영 멘들아근에 요디 또 영 알로 거꺼근에 테씨민 뒤어.

@1 밑에는 뒤 안 허여마씨?

#1 안 허여. 계난 일로 영 처음에 줍곡 이거만 영 오그려냥 위만 잘 주민 뒤어.

@1 우 주는 건, 우 다 줘난 다음 데썬니까?

#1 우에 다 주어냥 데씨곡 요딘 터진 디주게.

@1 예. 그딘 터진 디고.

#1 터진 디민 이딘 또시 두건 영 요레 씨는 디난 이디 또 미녕 너베기 너르난에 영 오그령.

@1 아.
 #1 경허는 거주. 거 미시거 두건 허곡대곡.
 @1 아니 그 두건, 통두건 허민 통두건은 위에서 이렇게 줍던데.
 #1 아니여. 두건 ㄹ진복 허민게.
 @1 ㄹ진복은 뭐?
 #1 ㄹ진복은 온 너비 다 헤영. 이거 이추록 헤시네게 이거 보라.
 @1 잇었네.
 #1 바농질허는 사름신디 다 잇나.
 @1 하하하.
 @2 만들어지크라.
 #1 곡대기 주어서네 영 오그령.
 @1 곡대기. 응.
 #1 곡대기. 곡대기가 너미 널르민이 너미 널르민 불쌍 엇어.
 @1 어.
 #1 이거 영허영 요 트멍 흐폼만 나게 헤영. 자 흐 치 기지 재어낭.
 @1 예.
 #1 요 트멍 흐폼만 나게 헤근에.
 @1 양쪽에 줍고.
 #1 영행 주어. 이디 흐 밧디만 쫓어. 요거만, 요거만 쪽허게.
 @1 응.
 #1 자 흐 치씩, 자 흐 치 흐쉴 더 놔사 뉘 요즘 머리덜 커 부난.
 @1 커. 하하하.
 #1 경행 이거 영 두건사 허곡대곡. 이것가 두건 아이가게.
 @1 이것가 두건 아이가게.
 @2 이 상태로. 응.
 #1 그 통두건은 그 영만 허메게. 이거 이것가 너베기민게 이만이 헤영 영 주민 온 너비 이레 쪽허게 온 너비 다 주지 말앙게 요만이만 줘근에게 더러 영 거끄민 이레 영 씨민 이레 다락이 우인 드러눕주기게. 우이 우트레ㄱ장 줍지 안헤 부난 드러눕게 허는 거주. 게난 그거 통두건이엔. 경행 쫓다근에 관 차나민 어가라 바농질허는 사름신드레 줘근에 그걸 제라헌 두건 멘들앙 상제가 큰아덜이 쓰는 거주.
 @1 응.
 #1 관 찰 때 그건. 창옷 흐착 것도 어멍 죽으민 웬착 내우곡 아방 죽으민 어느 착 내우곡 것도 다 츠레 시메.
 @1 아.
 @2 그것도 다릅니까? 어멍 아방이.
 #1 응. 것도 창옷 영 일로 영 내어근에 그 흐 착 소민 꿰지 못행 옛날 하도 바쁘난에 옷도 졸바로 못 입는 식으로 경헌텐 현디 경허는 거. 어멍 죽은 땀 어느 착 내우곡 아방 죽은 땀 어느 착 내우곡 것도 다 분쉬 이서.

@1 아.

#1 경허곡 두건도 아덜 아방 죽은 두건은 이 두으로 실밥을 허고 어멍 죽은 두건은 보통
늪이덜 켤당 친척 주는 거추룩 읍뎡이로 실밥 내우곡.

@1 아, 틀리구나예, 그것도예.

#1 틀리곡. 아방은 죽으민 이 우이도 저추룩 주어근에 소곱드레 가게 오그리지 아녕 우
로 영 그냥 쥐불곡. 아방.

@1 아방 죽으민.

#1 아방 죽으민 큰상제가.

@1 큰상제가.

@2 게민.

#1 아덜 건 경허메.

@1 아덜 건.

@2 저건 어멍 죽엇을 때 두건이파?

#1 응. 저건 어멍, 어멍 죽영. 저건 복친 두건, 복친 두건.

@2 아, 복친 두건 예, 예. 게민 복친 두건은 어멍 아방 다 똑같애.

#1 응. 복친 두건은 어멍 죽은 땀 복친 두건이영 똑그타.

@2 똑그타 예.

#1 아방 죽은 때 쓰는 두건은 틀려, 틀리게 줍아사 뉘.

@1 큰상제 것만예.

#1 응. 틀리게 멘들아산다.

여자 상복

@1 아, 그른 남자 상제 옷은 뵈고. 이제 여자 상제 옷은?

#1 여즈 상제 옷은 베치메에 뉘 광목 저구리 닳은 거 뉘 거 입으민 뉘주.

@1 치메는 베치메에 우에는 광목 저고리?

#1 응. 옛날은 베 어려운 때 옛날은 광목 치메도 상제 허연 입어나고 데드릉 치메도 헤
연 입어나고 베 대신.

@1 데드릉은 뉘?

#1 데드릉이엔 현 기지 잊저게. 광목 닳은 거 무신 인주 닳은 거 트난 거 잊저.

@1 아.

#1 풀도 안 행 입곡 허는 거, 헤양현 거 데드릉이엔 현 거 섯저.

@1 머리에 무신거 씌니께, 여자상제.

#1 여저, 남저 침 메누리고 뜯이고게 이디 건대엔 현 거.

@1 응, 천 하나 영 허고 건대 그 이런 걸로 짜진 거.

#1 천은 니귀방장현 베 무시거 요만이 지러기 허민 뉘는 거.

@1 예예.

#1 건 간단허주. 수건은 흔 석 자 흔 두 치 세 치 헤사 수건 씨주기. 경허는다.

@1 응.

#1 수건 하나 허민 네 개나 멘들주. 다섯 개나 멘들주.

@1 뭐를 멘들아?

#1 건대.

@1 아, 건대에 거.

#1 우이 거.

@1 응.

#1 수건 하나, 흐나 사름 영 쓰젠 허민이 석 자 세 치 두 치 허여사.

@1 아, 무꺼야 뉘난예.

#1 무끄곡 코걸이도 싯고 헤사 헐 거난.

@2 치마는 얼마나 듭니까? 베치마 흐 사름 거 허젠 허민.

#1 흐 사람 거 허젠 허민 베치메 저 옷 북 한다. 옷 북 허는다.

@2 응.

#1 저 치메 자 으답 치씩 낡 한다게. 즈르게.

@2 자 으답 치.

#1 즈르게. 저 그땐 우이 진 옷 입곡 허민 우터레 치멜 입지 못허주게, 이레 영.

@2 아, 허리로만 행.

#1 경허난 자 으답 치 낡. 상제 여저 치메 자 으답 치 낡 보통 한다, 나도. 허여도렌 허민.

@2 남자 거 허젠 허민 남자 상복은 얼마나 들어?

#1 남저 상복은 사위 건 이 우머니 커 부난 하영 들곡 그디 두건도 씨어야곡 띠도 헤야 뉘곡 행경도 헤야 허곡 허는 따문 흐 스무 자 너머 들어, 스물 흐 뉘 자 들어.

@2 한 사람 거, 하나 허는 디예.

#1 응, 흐 사름 거 스무 자로 못 한다. 스무 자 더 들어사 뉘다.

건대

@1 아까 그 건대는 이 천도 건대엔 험니까? 요렇게 이런 걸로 짜진 것만 건대 아니? 동글랑허게.

#1 이 영 동글랑허게만 짜진 것이 건대라. 천은.

@1 천은 뉘엔 곤는 말은 엇지예?

#1 천은 무시거엔 곶아 보지.

@1 이거 이거 건대.

#1 응, 요거만 이거 건대엔.

@1 그제 건대에.

#1 건대엔 허민 천이 이디 부땡 땡여.

@1 부땡 땡겨. 아.

#1 부땡 땡여. 이거 건대.

@1 건대도 이거 건대천 영헤근에 밑에 거 다르게 곶옵니까? 건 아니?

@2 무끄는 거.

#1 아니 이거. 건대엔만 허난 이거. 건대엔 허난 다 이거 영 나왔어.
 @1 이건 여자 상제 거?
 #1 여자 상제 거 닳은게.
 @1 남자 상제 건 트납니까? 똑같애?
 #1 남저 상제도 제라허게 이디 건대 영헌 것이 잇주게, 이런 거.
 @1 응. 이디 가운디.
 #1 두건 썬 우이 영 허는 거.
 @1 이디 가운디 영 이렇게 생긴, 올라온 것도 이선게마는, 두건 앞이. 그건 엇수과? 큰 상제.
 @2 삼각형으로 영 세와진 거. 영영. 여기 두건이고.
 @1 가운디 영 세우는 거 이수게, 남자 상제 거.
 #1 그거 세우는 거 종이로 허메. 헤영헌 종이로 과짝허게.
 @2 과짝허게. 예.
 #1 그거 건대. 이것에 부뜨는 거 아니라, 이거.
 @1 아.
 #1 이거, 이디 친만 잇저. 이디 건대 우이 과짝허게 종이로 창호지로 허여.
 @1 응.
 #1 창호지로 두터운 걸로 버짝허게. 으라 곱 처근에 이디 거딱허게 두건 우이 영허게 헤지는 거.
 @1 예, 예, 예.
 #1 그거 건대엔 허는 건디.
 @1 거까지 다 흠치 건대예.
 #1 응, 건대엔 허난, 이거 건대엔 허민 그거 부땡 나오는디 이건 엇인게, 이딘.
 @1 응.
 #1 이딘 하나도 엇다. 이건 무시거라.
 @1 그거는
 @2 여자 치메.
 @1 복치멘게.
 #1 복치메.
 @1 여자 복치멘게.
 @2 광목으로 헌 건게.
 #1 광목으로. 여자 복치메 여디 어뜨난 영 체어전.
 @1 찢어져신고. 게메. 하하하. 잘못 놔둔 모양이라.
 #1 곱 요디도 맞이고 요디도 치메 하나 닳은디 요것이 어뜨난 영허엿저.

‘복친’ 옷

@1 이거 상제들 거는 경행 허고 복친들 입는 것도 이수게.
 #1 복친은 입는 거 엇나게.

@1 이젠 무사 몸빼도 하나 행 주곡 허는다.
 #1 몸빼만 준다게.
 @1 옛날엔 무신거 해낫수과?
 #1 복친, 옛날은 수건 줏주게.
 @1 아, 옛날은 수건.
 #1 이젠 수건 안 씬다. 빠마, 무신 머리 뿔라진덴 허명 안 씬덴.
 @1 하하하.
 #1 게 아이 써가난 광목 몸빼만 다 줘. 조케덜이고.
 @1 거난 이젠 가민 몸빼 주잖아.
 @2 게난 광목 몸빼 나오기 전에는 수건인데 그거 베로?
 #1 베로.
 @2 베로, 응.
 #1 ㄴ게.
 @1 광목 아니고?
 #1 옛날 베 웃언 우리 나 이디 시집오란 산 후제 베 막 어려완에 삼베가 어려와가고 그 무신 싸구리 베가 안 나온 때엔 수건도 데르릉 수건 주고 광목 반 베 싹싹 브리멍 광목 반 베 광목 수건 주고 헛저. 복친, 켜당덜.
 @1 응.
 #1 다 경혜신디 이젠 막 중국 베 싹 거 하영 나오난 켜당도 다 베로 준다게. 베 주는디 이제 베 아이 써가난 광목 몸빼만.
 @2 몸빼.
 #1 몸빼로만 험시네. 이젠. 이제 수건 베 사는 할망이 엇어.
 @1 하하하.
 #1 수건 베 상 놔둔 할망도 다 풀아 비엄서. 아이 써가난.
 @1 남자덜은 남자 복친덜은 뭐 줏니까?
 #1 두건 하나.
 @1 밑에 행경도 주는 데도 잇지 안험니까?
 #1 행경은 거 손지나 웨손지나 성손지나 띠 하나 주곡 행경 주는 거. 그건
 @1 손지.
 #1 손지덜. 조케, 손지.
 @1 아. 조케 손지덜은 행경허고, 띠허고, 두건허고.
 #1 이거 허곡 행경허곡 띠. 경허민 경혜진 건 아이고 이건 성손진가 웨손진가 손지로구나.
 @1 아, 손지로구나.
 #1 이제 다 경헌다. 손지로구나 행.

‘호상옷’

@1 이제는 삼춘 전공인 호상옷을.
 #1 호상옷은 문딱 헤지건 오라.

@1 헤지건 올 건디 헤지건 오는 건 오는 거고. 사진으로 보명 곱아 줘서.
 @2 종류가 몇 개 있어.
 @1 검은 호상.
 #1 검은 호상?
 @1 응. 머리부터 차근차근. 머리엔 무신거 쓰고. 그때 다시 들어도 오늘 그냥 흐끔 약식으로 들엉 가게.
 #1 검은 호상 이런 거.
 @1 다 이신게게.
 #1 이거 우리 어멍 나 서른셋에 아프난 이거 사오란.
 @1 응?
 #1 날 쓰렌 사오란.
 @1 아프민 그거 쓰민 낮옵니까?
 #1 아니 죽으카 부덴게, 죽으카 부덴.
 @1, 2 하하하.
 #1 치메저고리영 옷이영 다 허여 오명게.
 @1 죽으카 부덴.
 #1 서른셋에 이거 사오란. 겨난 나 밍성부르난 이거 데껴 불고. 걸로 이레 내불고 헤양헌 멍지로 나냥으로 헤지난 멍지로 헨 놔뒀저.
 @1 아. 어뜬 사름은 검은 거 허고 어뜬 사름은 멍지로 허는 거파?
 #1 옛날은 다 이추룩 헛주게. 안은 붉은 거 허고.
 @1 아, 안은 붉은 거 허고.
 #1 응. 옛날은 경헤신디 이젠 멍지로만 헤. 꺾사 그거 아이 받다? 이거 이거.
 @1 예, 예. 그거 얼굴에 씨우는 거?
 #1 ㄹ게. 머리밖에 씨우는 거. 우리 어멍 사완 이거.
 @1 건 안엔 무사 별경헌 걸로 허는 거?
 #1 모르켜. 옛날 경 허여라.
 @1 응.
 #1 우리 어머니 건 이디도 흐쉴 막 살그랑헌 거, 갑사엔 헌 걸로 안, 붉은 갑사로 안, 우리 어멍 건 헤신디 이건 무신 공단 닳은, 공단이라 공단. 문질문질 헌 거.
 @1 예.
 #1 우리 어머니 사완 나 서른셋에, 옷이영 뉠 허여 오명.
 @2 서른셋에 호상옷.
 #1 아판게 아판.
 @1 계난 검은색으로 안, 아이고. 검은색으로 안 허민.
 #1 계난 나 이거 데껴 불젠 영.
 @1 이게 앞이, 이게 앞이, 이게 뒤에.
 #1 ㄹ게.
 @1 긴 게 뒤에.

#1 응. 이거 영행 영 무끄는 거.
 @3 목도리처럼.
 @1 이진 무신거엔 곱습니까?
 #1 친계. 친.
 @1 그냥 친.
 #1 응. 이거 영 씨왕 영 무끄는 거주기계.
 @1 응. 이진 따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르는 이름 엇지예. 요 앞인 뭐엔 허고 뒤엔 뭐엔 허고 이런 거 엇지예?
 #1 이거 호상이엔 현다.
 @1 그냥 호상예. 검은 거 말고 아까 멩지로 만든 거 그냥 호상이엔 곱아? 검은 호상이엔 안 헐 거 아니꽈? 이진 검은 거난 검은 호상이엔
 #1 그냥 호상이엔 허여. 희고 검고 다 호상이라.
 @2 쥐 봄서. 사진 찍영 오계.
 #1 예에 거 씨지 마. 그런거 안 현다. 그런 거 허는 사름 엇일 거여.
 @1 검은 호상. 그다음 이진 악수엔 씨젯수다.
 #1 악수 옛날 거. 장갑이주계, 이제. 악수 옛날.
 @2 이젠 손 모양으로 우리 전자렌지 장갑처럼 하하하.
 #1 아이고 우리 어멍 이런 거 멘들아난.
 @1 아, 옛날엔 영헤낫수과?
 #1 ㄴ계. 이거 다섯 개 헤시네.
 @1 응, 다섯 개 이거.
 #1 이거 이거 맞다계.
 @1 이진 무신거엔 곱아?
 #1 우리 어멍 이추룩 친 들고 헛저. 손에 허는 거엔 허멍.
 @1 아, 이진 악수는?
 #1 응 손에 허는 거.
 @1 손에 허는 거.
 #1 이거 주머니.
 @1 이진 무신거엔 곱아. 이름은?
 #1 이거 주머니주계. 무시거라.
 @1 그냥 주머니.
 #1 응 주머니. 이진 뵈인고? 이것도 다섯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1 모르겠는데. 요렇게 만들엇텐 현 말 아닌가?
 #1 계메, 몰라.
 @1 만들엇텐 현 말 같애.
 #1 이거 나 본 디 엇인 거여.
 @1 요걸로 요거 멘들앗텐 현 말인 거 닙아.
 #1 이진 다 알아지켜마는.

@1 응.
 #1 이거 우리 어머니 이거 행 갖어. 이런 거.
 @1 이젠 이런 거 안 해?
 #1 안 해. 우리 어머니 튼머리도 다 헨 놔뒀어.
 @1 여자 머리.
 #1 여자 머리.
 @1 죽영 가는 사름도 튼머리 헙니까?
 #1 옛날 할망이난 머리가 시난게, 질게 영허영 시난, 이녀 죽으면 험 걸로 튼머리엔 헨 영 즈지 체완에 저승웃에 혼디 놔뒀. 나 죽으면 이거 흘 거여 경허멍.
 @2 아. 머리도.
 @3 아.
 #1 봐났저.
 @1 이거는 이름 그냥 주멩기?
 #1 주머니.
 @1 주머니예.
 #1 이거 신게.
 @1 그건 무신 신이엔 헙니까?
 #1 이거 저 멩지 버선 우이 신으는 신인게게.
 @1 영 별경헌 색으로 헙니까?
 #1 별경헌 것도 뉘곡.
 @1 아까 삼춘, 아까 삼춘 보여준 건 그냥.
 #1 흰 거. 이건 흰 거고 거 ㄹ튼 거주게.
 @1 응.
 #1 이런 거주게.
 @1 아까 요기 이선게.
 #1 이건 칙이고 요건 앞부리.
 @1 아. 어디가 칙이파?
 #1 이것가 칙이라.
 @1 이쪽에 칙이가 영 널러?
 #1 응.
 @1 아, 요렇게.
 #1 이거 영 허고.
 @1 여긴 코고.
 #1 응, 이건 코고. 이거 ㄹ튼 거. 색제만 트낫주.
 @1 건 그냥 신발이엔 곱습니까? 뉘엔 곱습니까?
 #1 신.
 @1 그냥 신.
 #1 신, 신.

@1 거기 사진 엿어마씨. 게민 차례차례 곱아 보게마씨. 이거는 저 가족으로 멘든 옷. 가족 옛날에, 가족 감티. 호상옷은 사진이 아까 거베끼 엿인디. 삼춘이 곱아 줘서. 머리부터 차근차근. 아니민 젤 속에서부터. 무신거 무신거.

@2 호상옷 헐 때 죽으면 입히는 거, 뭐부터 입져? 입지는 걸로 생각헐.

@3 여자 먼저.

#1 여자 건 질 처음에 입지는 거. 장의사 오란 입지는 거 보난 모욕 시겨나난 우선 젤 처음에 뺏스 하나 입져라.

@2 예.

#1 하나만.

@1 응.

#1 입져뒀에 그루후젠 바지 고장중의하고 바지하고 끼완에 또 입전.

@2 게민 고장중의 입지고 바지 입지는 거예.

#1 응.

@1 그다음.

#1 경헐 그다음엔 우이 건 난닝구 입전. 저 거세기 장의사 오란 허는 거 보난. 입전. 또 그다음엔 치메 두 깬 곱이천 허리 영 딱 부쩍에 꺾 허연에 흔꺼번에 자로 영영 밀리멍 허리 영 디물안 영 고만이 누난.

@3 흘치마하고 곱치마.

#1 곱치마 속치마 흠치.

@2 하하하.

#1 저고리 적삼도 흠치. 경헐 문 입져라. 다 두 깬 경 허고 말짜엔 질 내중에 장옷 입젿어.

@1 응.

#1 보선 신져두고 말쨌 신 신지고.

@2 응. 머리 싸우고. 손.

#1 경헐 모욕 다 시긴 다음에 경헤난에 말짜엔 머리에 이제 그 호상 싸우고. 경헐 허는 거 봐전게. 경 봤어, 우리 육춘 동세 헐 때.

@3 손가락.

#1 말짜엔 장갑 허고. 또 머리 그 주머니도 꺾치멍 문딱 경 허는 거 봐지고. 보고 경헐주.

@3 손싸개. 주머니 손가락.

#1 게, 손가락은 장갑 허난에 장갑 허기 전이 이디 거 쓰메끼리로 흐쉴 다듬안에 주머니 하나에 답안 어떻헐시고 허난 이 손가락드레 영 요레 요레 요레 허는 거 닳앗어. 영 끼우고. 이착은 이레 거 다듬안에 또 요레 영 끼우고 발도 그추룩 헐 발가락드레 끼우고 양짜. 게 뒀 말짜엔 머리 또 상감에 거 끈언 하나에 답안 또 머리레 놓고. 경허여라.

@1 그게 아까 주머니.

@2 젠디 베개도 잇고, 이불도 잇고, 손수건도 잇고 험디다.

#1 손수건은 저승옷에 손수건은 멘들지 안헐신디. 손수건은 어떻 헤신고?

@2 엿어?

#1 응.

@2 이불은? 깔기도 해? 덮기도 하고.
 @1 아까 이불. 까는 건 뭐엔 골아?
 #1 이불은 이디. 천금 지금이엔 허여.
 @1 뭐가 천금이라? 더프는 게?
 #1 덮, 천 하늘이난 더프는 게 천금이고.
 @1 더프는 게 천금이고.
 #1 아래 ㄱ는 건 지금이엔 허지 안험신가? 천금 지금이엔 허여, 하에튼 요허고 이불이.
 천금 지금이엔 곤다. 경해도 나 생각으로 천이민 하늘이나 더끄는 거 우이 거고.
 @1 응.
 #1 나중엔 그 이불도 더끄고 경험게. 입전 허는 거 보난.
 @1 베개도 이서?
 #1 베개도 잇주.
 @1 베개 뭐엔 곤는 말 엇수과?
 #1 베개.
 @1 그냥 베개.
 #1 그냥 베개엔.
 @1 응. 어느 정도 크게 멘들아, 베개는?
 @2 손수건 크기랑 같은게.
 #1 이걸로 딱 기지 으답 치 낱 허여 우리. 기지 으답 치 낱 주영.
 @1 반 허민 네 치.
 #1 멘네숨 담양.
 @1 아, 멘네숨 담양예.
 #1 이제 이디 허여놔두민 오라허민 온 때 다 실 거여.
 @2 여긴 손수건은 안 헛구나.
 #1 손수건 허는. 허여보질 안험.
 @1 저 뭐 이수게. 동심줄?
 #1 동심줄은 그거 동심줄은 아무나 멩글지 못허여.
 @2 동심줄이 뭐?
 @1 가운데 색깔 해 가지고예, 매듭 같은 거.
 #1 동심줄 거 아무나 멩글지 못헌다. 그 장의사가 멘들앙 다 낱실 거여.
 @1 아, 삼춘네가 멘들아 주는 게 아니고.
 #1 응, 우린 나 멘들 총 몰라.
 @1 응.
 #1 동심줄 나 건 험 놔두긴 해도. 사단 놔뒀저. 나 허지 못허여. 헤보지 안허난 못허여.
 동심줄은.
 @1 엄두는 뭐마씨?
 #1 엄투?
 @2 이게 쓰는 게 엄두.

@3 엄두, 엄두, 모자, 모자.

#1 엄투 저고리엔 헌 게 옛날은 우리 어머니네 저승옷 헐 때, 우리 어머니네 바농질헐 땀 엄튼 저고리엔 헌 거 해낫저. 소게 놓고.

@1 건 무신거짜?

#1 그거 이젠 안 해.

@1 엄튼 저고리?

#1 엄튼 저고리 허여근에 거 반 꼬차근에 이 이레 영 바튼덴. 이거 호상 씨우멍. 엄튼 저고리엔 헌 거 남저 저고리추룩 흐쓸 소게 놓고 지러기 질게 허영 여저 저고리보단 질게 허영 허여라. 우리 어머니 저승옷 헐 땀. 바농질 헐 때 허는 거 보난 허연게 이젠 엄투 저고리가 엇어. 목도리가 셔. 목도리.

@1 아.

#1 멍지솜 농곡 목도리 헤여.

@1 이젠 목도리 험니까?

#1 목도리 행, 나 닐모리 허민 멍지솜 농곡 목도리 헐 츠리.

@1 예.

#1 목도리 머리 싸기도 잇곡 이제. 전이 엇인 거 막 으라 가지.

@1 아, 생젧수과?

#1 옛날은 난닝구도 엇엇주마는 난닝구도 이제 허고.

@1 과두엔 헌 건 무신거마씨?

#1 응?

@1 과두.

#1 과두.

@1 그런 건 엇어?

#1 과두엔 헌 거 모르켜. 과두.

@1 대림포.

@3 대림포.

#1 대림포엔 헌 건 싸는 걸 말허는 거.

@1 아, 쥬 처음에? 맨 마지막에?

@3 맨 마지막에.

@1 옷 다 입혀냥, 호상옷 다 입혀냥, 입져냥.

#1 응. 다 옷 다 입혀냥 싸는 거.

@1 아. 그거 무끄기도 험니께.

#1 그거 무끄, 그거 싸냥 따시 베도 들메, 무끄는 베도.

@3 삼베로.

@1 꺼냄저. 나왓서 이제. 하하하.

#1 어디 가시니. 나 거 신디.

@2 요긴 하나. 요기 하나 요기 하나.

#1 베가 대림포렌 험구나이. 이런 거 헤도렌 허는 사름 이시민 헤줍시네게, 나가게. 경허

는 따문 이걸 이디 놔둬사주. 이거 나 허여 갈 건디.

@1 보물창곤데 여기. 하하하.

#1 허지렁헌 게 한다.

@1 하하하.

#1 이거 이젠 옛날이난에 막 좋은 베라. 이젠 이런 베 엇나. 이거 좋은 베. 이거 싸는 거 이거. 이것도 막 하영 들어. 으라 자 들어. 이거 대립포엔 험구나, 이거.

@3 대립포.

@1 소림 대립혈 때. 대립예. 이거 그믐 어떻게 됩니까?

#1 허는 거 보난 영 허연에 이거 이걸 묻저 헤신가, 어떻 헨 문여산디 말짤 영헨 더끄고 헤라.

@3 그다음 여기 무껴야 뉘. 이렇게.

#1 경혜여난에 질베, 무끄는 질벤 질베 대로 들언, 이걸로 영영허멍 헨 멩지, 미녕 흐 빌헨에 침 베 흐 빌 따시 허연에 영헤연 다 헤연 만딱 무껴라.

@1 멧 밧디 무껴?

#1 멧 밧디산디사 일곱밧디 산디 베 일곱 너비 허연에. 이추록 영허영 이거 너비민 일로 영 디물아근에 건 옛날 무끄는 식이주게. 이런 거 엇인 때 무끄는 식 옛날 식 영 무껴근에 멘돏늘로 영 채곡 영 채곡 양착으로 챙 영 무경계게.

@1 어디가 머리꽈? 저기가 머리, 여기가 머리?

#1 머리가 어디산디 나 모르켜.

@1 응.

#1 몰라.

@2 짹은 쪽이 머리.

@1 짹아, 이쪽이. 이쪽이 끝까지 안 가.

@2 머릴 거 같애.

#1 진 디도 잇고 쯤른 디도 이시난 어느 것가 즈른 짹에 머릴 가게 헤신가 진 짹을 머리 가게 헤신가 거 모르켜, 나. 봐남은 헛어. 드러 이거 허는 거.

@1 이게 대립포예.

#1 응. 허여 도렌 허는 사름은, 베 아정 오랑 허여 도렌 허민 이거 보멍 헤짹시네게. 아 니 보민 알아질 것가 이거.

@1 게난예.

#1 이거 영 이추록 진 가달도 잇고, 즈른 가달도 잇곡 헤 부난.

@1 응.

#1 게민 이것에 맞창 몰라근에 헤여주곡 험시네. 게난 이디 놔둬시네. 이거 나 헤살 거여. 하하하. 이것가 대립포엔 험신게. 옛날에 이런 거 엇엇저.

@1 아, 엇어났수과?

#1 으 우리 어떻게 혈 때 옛날에 이런 거 엇엇저. 질베 흐 빌이민 탁 쌍.

@2 게민 그냥 장웃 입은 상태에서 무껴 볼 거?

#1 으게. 옛날은 경헛주게. 싸지 안헛게.

@2 그치예.

#1 경허난 이거 영 싸난에 튼튼하게 좋음은 헤라. 보기에.

@1 응.

#1 좋음은 헤라마는. 이것도 베 값, 요새엔 뭐 싸구리로, 싸구리 베로 허난에.

@1 응.

#1 무신 돈은 하영 안 들주마는. 이제 헤도렌 허는 사름은 이거 보명 헤 줍시네게. 어멍 허여.

@1 응.

#1 이견 이것도 첨 나 사건디 막 오래난 베가 막 좋은 거. 요 베 때 아니, 이거. 제라헌 옛날 삼벤 아니라도 요것도 좋은 거. 아이고. 영 낫다근에 헤도렌 허민 이거 아이고.

상복

@1 그다음에 아까 상복힐 때 흑시 아덜 상복은 무신 옷이여 뭐 사위 상제는 무신 옷이여 곤는 말 이수과?

#1 사위 옷은 직량이엔 허고 아덜 옷은 소단이엔 허고.

@1 아, 아까 옆에 소매가 그렇다는 거지예.

#1 응, 소미보고 소단. 소미보고 직량.

@1 아.

#1 너른 건 직량 죽은 건 소단. 소엔 허민 알아지크네.

@1 예, 죽덴 현 말예.

#1 작을 소난게.

@1 하하하.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밑단을 접지 않고.

#1 아버지 돌아갈 땐 아래 단을 허지 아녕 아랫단 그랑그랑 힐 거 아니가. 저 올 풀어지곡. 요영 흐쉴 안트레 오그려근에이. 감쳐, 나 감치는 식으로.

@1 아까 감침질 현 거추룩.

#1 감쳐. 영영. 아덜 옷은 감치곡 사위, 저 손지덜 옷은 조케옷은 아이 감쳐. 어멍 죽은 때 추룩 현다.

@1 어멍 죽은 땐.

#1 단으로 영.

@1 단 접어?

#1 줍앙.

@1 안에 그냥 접기만 헤?

#1 어멍 죽은 땐 아덜도 영 쥐 비어.

@2 아, 쥐 불어.

@1 접어근에 쥐 불곡.

#1 아방 죽은 땐.

@1 감침질허곡.

#1 아덜 건 이디 영 오그령 줍질 아녕 흐쉴만 그랑그랑현 실만 영 안트레 오그려근에

영영영영.

@1 감쳐 불곡.

#1 감쳐만 불고.

@2 아, 영 밖으로 감칩니까? 이렇게 감치는 거 아니?

#1 아니, 아니. 베겏으로 베려지게.

@2 베겏으로 보이게.

#1 보이게, 보이게. 영영 인칙 나 감치는 식으로.

@2 예, 예.

#1 것ㄴ라 감침이엔 허여 감침.

@1 호상웃까지.

재봉틀

#1 천천히 알아맞춰 팽겨알 건디 팽기지 못해부는 따문 ㄴ작허는 걸 ㄴ작허는 거 줍지 못헤여. 게난 발미싱이 막 좋주. 겨난 발미싱 어디 간 누게 아저당 쓰렌 아저오난 저디 발미싱 신디 요것이 엇인 거라노난.

@1 하하하.

#1 아이고 난장.

@1 요거 이시민 뭐가 좋아?

@2 천 여기 땡.

#1 웃기지 요레 놔사 바농질을 허주기게. 저거 이것이 엇인 거라노난 저거 늘개 껴끼진 겨난 허지 못헬저.

@2 아아. 이것이 셔야 뉘.

#1 발로 블라 보난 잘 돌아가긴 현디.

@2 옆에 책상이라도 놔사 여기 올려 낵.

#1 으게. 이거 기질 이레 놔사 허느네게. 아이고, 난장. 주켄 행 돈도 안 받고 앓다 아저 움자락 헤연.

@2 아.

#1 주켄 허명 안 써점젠 헨. 막 판데기영 막 깨끗헤여. 곳아서라만은 어평허난 이것이.

@1 으나 돌아도렌 헤. 누게 아덜신디 요거 으나 돌아도라 영헿.

#1 아이고, 우리 아덜은 그거 험 줄 몰른 멍챙이덜.

@1 하하하.

#1 어느 절에 허지 말렷만.

@2 아, 이거 허지 말렷.

@3 맞아.

#1 바농질 허지 말렷만.

@1 삼춘 이거 물예.

#1 못허게만 현다.

경험담

@1 아까 호상옷 멘드는 거 해신디 그 삼춘은 호상옷은 언제부터 멘들안마씨?

#1 나 호상옷은 저 혼 칠십에부떠 멩글아져실 거라. 드러 늬의 일당 버을레 서레레 마농 허는 디영 다마네기 싱그레 영 드러 텡이명도 들어오민 허곡 또 버을레 가질 땐 버을레 가곡 드러 해시난. 칠십아홉에 팔십 뉼 때에 허리 수술을 허엿주게.

@1 아.

#1 겨난 그전에도 허리 수술허기 전에도 허엿어. 드러 허여신디 많이 허진 안해도 가끔 해신디 허리 수술 허난 이젠 미깡도 못 버을고 늬이 일도 돈 벌레 못 텡기고 허난 그자 ㄱ만이 앓안 영 사난 들어오는 냥 허여 도렐 허민 영 아져 읍서 허멍 헛주. 그전인 바빠근에 못헙네다게. 친척 쁼당 거나 허여주곡 인정뉼 디나 가까운 디나 해주곡 아이고, 나 저르 전 못허쿠다 못허쿠다 헛주 전인.

@1 응.

#1 가끔 흐뵍씩만 해신디 이젠 허리 수술 현 후제 팔십부떠 드룻일도 못허고 일당 벌레도 못 텡기고 허난에 앓안 심심 노난에 허여 도렐 허민 계진 가정 읍서 허멍 헛주게. 겨난 혼 십 년.

@1 이거 허민 돈 흐뵍 하영 벌어집니까?

#1 하영 못 벌어.

@1 저거 혼 벌 다 허민.

#1 녀은 해 윤들이난에 혼 거자 삼백만 원 벌어진 거 닙아라. 윤들이난.

@2 몇 개 행. 몇 벌 행. 몇 사람 거 행.

#1 거 수정 세지크라. 두, 서방 각시 거 원 엇인 사름은 으답 빌씩 가져 오주게. 경헌디 혼 댓 사름 댓 집이 거 허고 흐뵍씩 현 거 도복 하나씩 무시거 허는 것도 수정 못 세어. 몰라.

@1 게문 보통 그 옷감은 다 행 가정읍니까? 다른 사름이.

#1 다른 사름이 다 상 아져와.

@1 아, 삼춘은 바느질쌌, 바느질만예.

#1 몰랑.

@1 몰랑 바농질 허는 것만.

#1 으게.

@1 옷감 값 따로예.

#1 응. 겨난 혼 사름이 네 빌이난에 네 빌 들르고 허민 혼 빌에 육 만 원씩이난에 이십 스만 원이주게. 경 받암주게.

@1 아, 만들어주는 값이 혼 빌에 육 만 원.

#1 응. 겨난 네 빌이민 혼 사름 치가 육 만 원이라. 쟁 또 여자라도 허민 아이고 나 장 옷은 이수다 허민 장옷이 혼 빌 든다게. 안팓겅 행. 게민 세 빌 으정 오민 이제 삼육십팔 십팔 만 원. 그추록 험시네.

@2 아.

#1 저기선이 서귀포선이 십 만 원 안틀로 못 멯겨. 경허난 이디 왓주.

@1 아, 흥 빌에 십 만 원 안틀론 못 멧겨.

#1 응, 못 멧겨. 저 서귀포에선.

@1 서귀포에서는.

#1 겨난 그 서귀포 포목집에서 멧지 푸는 집이서 멧겨된 갑서, 멧겨된 갑서 해도 아니 멧건 아저왓주게.

@1 삼춘이 싸게 해주난.

#1 이 근처에 사름은. 겨난 그 근처 사름은 비싸도게.

@1 몰르난.

#1 몰르난게, 멧겨주게. 게 법환이 사름도 흥 우리 큰딸이 법환이 사난애, 넘은해 난 그 중도 모른디 법환이 사름이 우리 동네 딸 저 ㄱ튼 동네 사름이 아이고 멧지 사례 보멍 포 목집이 서귀포 가난애 매일시장 가난 멧지 사난 멧겨동 가렌.

@1 응.

#1 겨난 어디 강 멧길딘 허멍 멧겨동 가렌 허난 아이고, 게민 경이라도 허쿠다. 얼메민 멧겨지코마씨, 네 빌 허는 디? 흥 빌에 십 만 원씩 허민 스십 만 원, 이거 스십오 만 원 쥐사 멧겨진덴.

@1 응.

#1 경 곶으난 아이고 경 할 말이파게. 경 하영 말이파. 경허멍 허연 아이고 집이 강 생 각해 뵙 동네에서 못 허민 아저오쿠다. 경헨 아전 왓고렌 허멍 우리 딸신디 전화완, 옛날 전이 느네 어멍 저승웃 헌덴 소문 들어전게 이제도 어멍 허여점시냐 허멍 전화왓젠. 우리 딸 말이.

@1 응.

#1 경허멍, 어멍 이만저만헌 동네 사름이 경 곶압수다. 멧기젠 허난 경 하영 도렌 헨 스 십오 만 원 도렌 헤렌 험디다. 허멍 허난. 이딘 난, 어멍은 얼메 험수과? 육 만 원씩 반암 저게 겨난, 게민 보내쿠다. 게건 보내라게 허난 그 사름 오란 말이 경 산 집이서 멧겨주켄 허멍 멧겨동 가렌 헨 경 하영 도렌 헤렌.

@1 삼춘도 흥꿈 올려도 뉘크라.

#1 에에.

@1 흥 팔 만 원 받아도 뉘크라.

#1 에에, 겨난 난. 에에.

@1 언제부떠 육 만 원 현 거짜? 십 년 뉘지예?

#1 에에 경 안 헛저. 십 년 그때엔 멧지 흥 빌에 삼 만 원씩 반암 헤연.

@1 아, 흥꿈 올렸구나. 경해도예.

#1 네 빌 이민 십이 만 원 반암 헤시네. 칠십대 뉘 때 전인.

@1 응.

#1 삼 만 원씩 반앗저. 경허단 또 스 만 원 허단 오 만 원 허단 이제 막 올련 육 만 원 허난 더 이상 못 올려.

@1 아. 저거 흥 사름 거 허젠 허민 메칠이나 걸려?

#1 아이구, 메칠산디 나 낮전씩베끼 안 허곡 허난.

@1 아니, 흐끔 열심히 헐 땀. 윤들 해근에 막 사름덜 헤 도렌 허민.
 #1 열심히 헐 때는 열이틀, 열사흘 허민 흐 사름 거 허주게. 열심히 헐 땀.
 @1 아, 이주 정도 걸리는구나예.
 #1 으. 이주 걸려. 이주 걸려사 흐주.
 @1 멧 개 못 허큰게. 흐 달 헤도.
 #1 멧 사름치 못 헤여.
 @1 계난. 두 사름, 세 사름 거 허민.
 #1 그거 들르곡이 공든다게.
 @1 계난.
 #1 계곡 들름도 또 낮인 우리 집이 놀레덜 오는 따문. 낮인 못 들른다게.
 @2 응. 맞아.
 #1 옷 므르는 게 신경 죽영 썩 꼬침은 쉬와도이 부짚은 어렵나.
 @1 아.
 #1 겨난이 밤이만 들름은 험시네게.
 @1 밤이만.
 #1 조용허영 사름 엇인 때. 나가 밤이만 옷은 들른다게.
 @1 응.
 #1 낮인 안 들른다. 낮인 들르당 보민 사름이 들어와.
 @1 계민 밤이, 지금 밤이라예. 옷 들르젠 허민 어떻게야 됩니까?
 #1 어떻게는 어떻. 조용허곡 테레비도 꺼 불곡 조용허영 전깃불에 허민 그자 머리가 흰허 곡 실수엇이 잘 헤지주게.
 @1 겨난 천 어떻게 꺼내근에.
 #1 천은 무신거 꺼내곡 대곡.
 @1 기지 꺼내근에.
 #1 이디 탁 벌겨냥.
 @1 탁 벌겨냥. 뭘로 그립니까?
 #1 응?
 @1 뭘로 그려? 기레? 영영 그려야 짤를 거 아니?
 #1 그 사름 영 보민 아 이 사름은.
 @1 나 거 헐 거라예. 나 거 흐나 헤 줍서 행 왓어. 게문 어떻 헤야 뉘?
 #1 경허민 느 보민 알아진다. 재지 안헤도.
 @1 안 재도 뉘. 하하하.
 #1 짐작허영이.
 @3 겨난 소중대로 험주게.
 #1 남저 옷이고, 여저 옷이고이. 아이고, 우리 아기 아방은 도복 헤사컬. 아기 아방 저 키가 백 멧 십이라? 얼마라 허민 백팔십이우다. 아이고, 크다. 백칠십오우다 허민 아, 백칠 십삼이우다. 오, 백칠십이우다, 백칠십이우다 허민 아이고, 죽다.
 @1 하하하.

#1 다 남저 것도 키 아이 봐도 다 허는 사름이 다 알앙 허곡.

@1 경해도 몸무게도 알아야.

#1 아, 몸무겐 괜계 없고.

@1 키만.

#1 저승옷은 품이 널렁 큼만 허민 뉘난 그 품에 맞게 입어근에 멩질에 입영 가곡 허는 옷 아니난이 큼만 허민 뉘난.

@1 키만 알믄 뉘는구나예.

#1 응. 경만. 품이 널러사만 뉘난 죽은 사름은 품 족으민 저쟁이로 브려정 옷을 입지지 못허여.

@1 아.

#1 겨난 품이 널러사만 허곡 장옷 ㄱ튼 거 여즈나 남저 도복 ㄱ튼 건이 소곱에 옷 다 입어낭 말짜에 입는 거라부난 항상 품이 막 널러사. 겨난 품 널르게 허곡 지러긴 장옷도 여저가 요만이 떠도 뉘곡, 요만이 떠도 뉘곡 막 질게 허민 요만이 가도 뉘난이 흐끔 즐라도 뉘곡, 질어도 뉘곡 허난 경.

@1 딱 맞추지 안해도 뉘는구나예.

#1 딱 맞추지 안해도 뉘는 거.

@1 게민 천 꺼내 가지고 멩지 꺼낸에 요디 영 낫어예. 그다음 어떻게?

#1 어떻게? 감아진 거 어디 시니?

@2 감아진 거 여기 이수다.

#1 이거민게, 이것도 이제 멩지 장옷 들들 걸로 뇌뉘주게.

@1 물르젠 허민.

#1 물르젠 허민 이것가 꽃뎡이가 영 뉘 부난 무시거 즐라나난 영 뉘주마는. 자 어드레 가니?

@1 자 어드레 가니?

@3 저 어디 갖지?

#1 ㄱ새라도 두 개라도 막 못 좇을 때 잇나게. 거 바농이라?

@1 바농도 아니고. 큰큰헌 거.

#1 영허영 아이고 저구리가 여저는 으답치 반에 허주게. 저구리가 여저. 으답치 반이민, 으답치 반이민 요거 아니가게. 게민 너비가 끈어 부난 모르켜.

@1 응.

#1 겨민 으답치 반이민 요만이, 요만이 허민 저구리민 영행 들랑. 이거 영 ㄱ똥허게 영 쉼어근에.

@1 응, 여덱 치 반짜리가 멩 개 이서야 뉘?

#1 네 개.

@1 네 개.

#1 네 개 허민 이몸.

@1 아, 그게 이몸.

#1 이몸. 이거 네 개 허민 이몸이민 이거 지러기 일로 싹 끈어 내어.

@1 응.

#1 끈어 내어근에 영 으답치 반 영. 영허민 품이라.

@1 예.

#1 혼 치, 두 치, 세 치, 네 치, 다섯 치, 으섯 치, 으섯 치민 이거 이거 네 개난에 일로 요거 혼 복, 요거 혼 복 뉘민 앞가지에, 뒤가지 허난에 네 개가 뉘는 거주게.

@1 예.

#1 겐디 영허민 이거 으섯 치난에 요디 으섯 치, 요디 으섯 치민 이디가 자 두 치 뉘어. 열두 치가 뉘어.

@1 응.

#1 자 두 치민 충분허여, 여즈가. 경허난에 자 두 치 멩글젠 허민 하나 둘 셋 넷 다섯 으섯 치 허여근에 울로 영행 요거 으섯 치민 일곱 치 넘은 멩지주, 너비가.

@1 예.

#1 계난 울로 영 헤 불민 일로 헤근에 이디도 실밥, 등실밥도 허여가곡, 즈깁이 알 실밥도 헤가민 품이 열두 치가 아이 뉘어. 열두 치 아이 뉘민 그 여산허영 요레 더 뉘. 요레 더 영. 으섯 치 넘어 요레 요만이 뉘근에 연필로 영행 영 허여.

@1 응.

#1 그릇을 허여뉘근에 이젠 또시 요걸 영허민 울로 그릇헌 디민 영허민 요걸로 이거 영 톱 올 맞창 끈어냄이 어렵주게. 경허난.

@2 아, 줄자에.

#1 하도 이디 바농을 하도 찢러난 이거 혈언에 이거 다 혈언 안 뉘켜.

@1 새로운 줄자 사와야 뉘크라.

#1 사와야 뉘켜. 영허영 요추록허영 톱톱 허게 표실 허여 요레 영.

@1 아, 찢르젠 허민.

#1 톱톱 표시허여근에 영헤근에 영허영 썩허게 끈어 불어.

@1 예.

#1 영헤영 끈어 내비어. 경허민 이거 네 복 허민 이몸이 뉘는 거라.

@1 예.

#1 경허영 또 소미힐 거 요만이 소민 요만인 허민 혼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혼 자 너비 허민 요샌 ㄱ늘아, ㅎ썰. 게민 혼 자 더허젠 허민 요만인 허게 뉘근에 요디 끈어분 딜로 영행 뉘근에 요만인 헤영 일로 이렌 또 소밀 들라사 뉘어. 요레 맞창. 소미만 온복으로 요걸로 요레 허영 ㄱ차내곡 경헤사느네. 게민 밤이 허민 조용허게 잘 헤진다. 경행 연필로 표시허곡 요걸로 허곡 자들민 민딱 허여.

@3 조용허게 헤야주예.

#1 바지도 경 남저 바지도 경행 몰르곡, 도복이나 뉘이나 그추록허명 들람세게. 놀레 ㄱ사도 오랑 가네.

@1 계난.

#1 즈물아가민 ㄴ 온다.

@2 사람 이시민 헛갈리크라.

@1 응. 그니까 밤에 해야 돼겠네.

#1 밤이베끼 못 허크라. 낮인 못 헐다. 계난 밤이만 난 돌른다게. 우리 집이 사름 ㄱ득는 따문, 원.

@1 다 말랑 놔두민 경헝 다 마르면.

#1 즐라근에 옷 하나씩 돌르명 뱅뱅뱅뱅 돌명 무시걸로 똑똑 즐라메어. 즐라멩 **이.

@1 놔뒤.

#1 놔뒤다근에 하나씩 무꾼 거 하나씩 앓아내명 허염시네게.

@1 하나씩 앓아내민 그거 뭐 무신 본 이서근에 영 선으로 연필로 그린 것도 아니고.

#1 아니여, 짐작으로.

@1 짐작으로.

#1 짐작으로 다 헤져.

@2 모르는 게 아무나 못허는 거지. 바농질이야.

(잡담)

빨래

@1 삼춘, 이제 옷 다 헤시난예. 빨래허는 거. 옛날에 빨래허젠 허민.

#1 빨래 옛날에 허젠 허민 비누 엇어 부난.

@1 거난 어떻 헝 빨았수과?

#1 저 막 아이고 겨울엔 미녕 허영 허곡 광목베끼 엇곡 허민이 막 겨울에 입영 불 습곡 헤 불민 이런 디영 오죽 버무느냐.

@1 응.

#1 빨민 비누도 엇곡 헤 부난 테가 잘 안 저.

@1 응.

#1 겨난 옛날에 원 어떻 헝 빨아신고? 무시거 빨안 계나제나 재, 잿국 허영 불채 낭 막 숲는 거라, 우리 어머니네. 숲아근에 바레역 바레역 물에 빨명만 비누 엇이난게 경헤영은에 물에만 강 빨아당 널영 물리곡 널영 물리곡 드리 헤가민 흰 것이 헤양케 흐솔 바라. 경헤도 요 도련 글테가 깨끗허게 지질 안헤라.

@2 응.

#1 경허민 올리 영허영 입어난 거 지지 안허민 새해 헐 때민 걸 빨앙 든 올올이 튜영 저고리 헤난 거나 바지 헤난 거나 남저 옷이든 여저 옷이든 다 튜어근에 팔월[팔월] 나민 든딱 푸답허영 풀헤영 든 흥짓대에 감으명 막 다듬곡 허영 허민 새해 옷 헐 때엔 다음에 옷 겨울에 옷 헤사 겨울에 입을 거난 다음에 옷을 허젠 허민 팔월[팔월] 풀헌 건 가을 들어가민 저실에 입을 걸 허주. 소게 놓곡 옷 허쟁 허민 베깃디레 가난 걸 안터레. 옛날 미녕이나 광목은 안팍 것이 엇이난.

@1 데쌍.

#1 안트레 가난 걸 베깃디레 가게 돌렁 허곡 그치룩 허명 이 앞섭도 헤난 거민 알러레 가난 것이 우터레 가게 데쌍 줍곡 부찌곡 경허명 허영 우리 어머니네 그치룩 허명 허연 저 옷을 허더라게, 옛날엔.

@1 응.

#1 겨곡 머린 김젠 허민 여름 나민이 꿰 막 커근에 이 다음에 막 텃곡 허민 더운 때엔 꿰입이 셔. 꿰입 막 툃아다근에 머리에 막 문대겨근에.

@1 아, 비누 대신에.

#1 비누 대신에 경허영 머리 김곡 워낙 세답이 추접허게 버문 건 또시 그 막 오줌항에 옛날은 항에 오줌을 받안에 썩여근에 밧디.

@1 걸름으로.

#1 걸름으로 헛주기게. 경허민 오줌을 영 썩은 오줌을 거려다근에 막 추접허게 버문 건 장태에 옛날 옹기 장태베끼 엇주게.

@1 예.

#1 옹기 장태베끼 엇곡 도고리 낭으로 멘든 것베끼 엇이난 그 장태에 막 워낙 버문 건 장태에 썩은 오줌에 컷당.

@1 응.

#1 컷다근에 또.(잡담)

@1 경행.

#1 경헤영 그거 헤영 컷다근에 또 뺏는 것도 봐나곡.

@1 응.

#1 원 어떻사 헤신디 잘 모르켜, 원. 경 비누가 엇어 부난 옛날에.

@1 맞아. 삼춘 멧 살 때쯤 비누 나왔수과? 시집오난 비누 이션?

#1 시집. 시집오기 전이 제국시대 망허여가난 비누 나왔주, 무사. 제국시대 나가 일천구 백 사십오 년 팔월이난에 해방뎡 때난. 나 열니 술엘 거라.

@1 그때 뉘가난 비누 나왔수과?

#1 그때 해방 뉘어가난 비누가 나왔어. 경 우리 아은 때엔 섹유지름도 그추룩 어려왕. 섹유지름도 비루뎡으로 하나에 얼메썩 주멍 사당만 쓰곡.

@1 거 뉘에 쓸 거라? 섹유지름.

#1 섹유지름 각지에 낵 백각지에 낵 그거 허곡 남포등 허영 호야에 남포등 허여근에 또 영 뇌근에 우리 어머닌 밤이 영 돌아메영 바농질 허곡. 남포등엇 불은 막 불아.

@1 백각진 뉘? 각진 알겠는데.

#1 각지게.

@1 백각진 뉘라?

#1 백각지엔 현 거 엇이나? 그 등판 멘들앙 등 우이 영 뇌근에 불 쌍 베롱이 싸는 거.

@1 각지불이영 똑같아?

#1 응. 백각지엔 현 거 모르느냐?

@1 각지엔도 허고 백각지엔도 허고?

#1 흰 것이 백각지.

@1 아, 백.

@2 하얀.

#1 각지게. 저 우리 집이 저디 실 거라. 각지. 저디 우리 집이 실 거라.

@1 이제 팔월 멧질 허젠 허민 저 우리 집이 아방 옷도예, 어뎡 풀칠헿 준비헿 놔뒤사 헉니께.

#1 경혜사 허주께.

@1 그건 어뎡헿 허는 거짜? 풀 맥이젠 허민.

#1 풀 맥이젠 허민 어뎡 허여. 모시 창옷 팔월[팔월]에.

@1 응.

#1 모시 창옷이나 증의적삼이나 광목적삼.

@1 응.

#1 증의적삼 남전 경 입으민 증의적삼도 광목이나 허민 침 이젠 비누 나난 비누 맥영 빨곡 테 아이 지민 비누 맥영 솥곡 허민 헤영헿 거고. 겨민 빨앙 팔월 멧질 돌아오라가민 이 추록 붉곡 일기 좋은 날은 봉가근에 걱정뉘어. 팔월[팔월] 멧질 뉘가민 여즈는.

@1 응.

#1 겨민 풀은 곤살을 막 죽으로 막 쉼. 우리 어머니 풀 하영 헿 때엔 풀궤엔 헿 거 잇저.

@1 예.

#1 그 곤살을 물 등강 오늘 즈낙이 물 등그민 널 아칙은 막 물우쭈기께.

@1 예.

#1 불어나민 그걸 이젠 그릇에 낭푼이, 남박에나 무신 장태 죽은 것에라도 헤영 곤 그릇에 무시것에 쓸을 아정가근에 우리 집엔 풀궤가 엇엇어. 남방엔 셔도 겨난 늬이 집이 풀궤 시난 그디 가근에 그거 영 손가락으로 겨려 노명 영영 곶민 문젼이 곶아진 걸 아정 오랑 집이 오랑 쉼.

@1 응.

#1 쉼근에 그거 쉼도 또시 또 풀주머니 허영 싸, 그거 짜.

@1 응.

#1 짜근에 그거 허영 맥여근에 풀 맥영 드러 놀리멍 빨래허는 식으로 놀리멍 허영 물리왕 그거 허영 시득시득 몰라가민 들여당 막 저 불라근에 다리웨로 다려, 옛날은. 다리곡 게 안허민 안반에서 드러 흐살 두드리멍 손보멍 두드리멍 그추록헤영 헤도 여름 증의적삼은 저 실밥이 동고실 허곡 쉼는 따문 두드리지 못허여.

@1 동고실은 뉘?

#1 영 오그려낭 줍곡 그냥 빨멍 빨멍 드러 입쟁 허민 막 아주 든든히 실밥을 감아 노명 감아 노명 두불 세불을 줍나. 헿 실밥에, 여름옷은.

@1 예, 예.

@3 깨끼 바느질처럼.

#1 응. 그 깨끼 옷쳐록 경허영 허여 노민 이 실밥이 막 딱딱허곡 똑지주께. 똑지민 그 개어 낭 마께로 두드려 불민.

@2 터져.

#1 그디 문 느너져근에 헿어 비영 안 뉘어. 겨난 두드려도 슬썩슬썩슬썩 두드리고 항상 발로 불르곡 종을종을 등기멍 발뉘곡 손 보멍 불락 손 보멍 불락 서너 번 손 봐근에 영

돌류민 돌랑 시득시득 돌라가민 들여당 불랏다근에 다리민 반쭈릉허게 뉘어. 옛날도 다루웨로 불, 솟 살랑 아이고 요새사 스뭇 호강이주기게.

@1 전기 꽃기만 허른예.

#1 으게, 아이고. 요새 일협사 일가? 아이고. 경허명 난 우리 아버지네영 하르바님네영 막 하간디 막 우리 하르바님은 글 하영 허곡 막 상교영 하영 텅기곡 옷을 막 두리막이영 자꾸 버물곡 서민 할머닌 아프곡 허민 우리 어머니가 뭇 그런 거 허는 거 드러 봐났저. 멘 들곡 드러 허는 거.

@1 하하하.

#1 큰집으로 허영. 우리 아버지가 종손이곡 우리 하르바님이 종손이고. 우리 아버지 다섯 성제라도 우리 아버지가 질 뭇이난.

@1 응.

#1 경허명 얼먹게 스뭇 헨 살아났저마는. 즈끗디 사름덜 보민이 옷 허영 입는 거라도 나 두린 때라도 보민 어똥 사름은 송그막작허게, 짓털이영 알도련이영 송그막작허게 이상허게 허영 입영 텅기곡 허더라게.

@1 하하하.

#1 경허명 허영 창옷도 그추룩 모시창옷도 경 아무상 잇이 경 무신 돌 우이나 낡 바락바락 밀곡 착착 마께로 두드령 당추 빨지 못허주게. 모시 창옷은 슬쩍슬쩍 허영 아래 돌이라도 누실민 옷이라도 흰 옷 낱앙, 낱앙 그디서 놀리곡 그디서 독독독독 두드리명 모시창옷 빨곡 풀 행 맥임도 풀주머니로 짜근에 곤쉴 허여근에 풀주머니로 짜근에 경 낱사 광목옷 허듯 허영 손보명 헛당 말짜엔 다루웨로 다려근에 경허곡 그추룩헤사 뉘곡.

@1 예.

안반

@2 저 살레 옆이 세와진 거 안반이파?

#1 응?

@2 여기 정지에.

#1 응, 안반, 안반.

@2 그거 언제부터 쓴 거라? 그 안반 언제서부터 쓴 거라? 살레 옆이 요만허게 세와정 이십디다.

#1 저 안반 저거 육짓돌.

@2 육짓돌예. 언제 현 거?

#1 나 혼 설남은 슬에 사져신가?

@2 어디 강 산 거라? 육짓돌을.

#1 저 나 모실포 우리 아기 아방이 순경으로 살아났주게. 겨난 제주시도 살아나고 한림도 살아나고 다 살아신디 모실포 지서에 오란 살 때. 늬이 집을 빌려 살았어. 사난에 그 주인이, 우린 밧거리 살고 주인이 남저 선생, 흑교 선생이라났어, 옛날에. 흑교 선생이난 그 선생이 젊은 때에 각시영 젊은 때 육지 간 선생질을 허난 각시도 따라간 선생 허는 디 간 ㄱ찌 살렘을 사는디 육지서 저결 막, 막 아까와 베난 돌을 샷고렘. 저 육짓돌을, 안반을.

@2 응.

#1 그디서 안반덜 허연 푸는 디 시난. 아메도 그디서 헨 풀아나신고라 육지. 저 육짓돌 이라.

@2 경헨 사온 거.

#1 응. 계난 돌 안반이라도 늬이 거 답지 아녕 사락 아녕 멘질락 민짜 현 거.

@2 응. 대리석처럼 똥.

#1 막 좋은 돌이라. 겨난 그 주인 할망이 막 늬으난 하르방도 죽어 불고 막 늬으난 그 하르방, 할망은 아덜이 엇인 할망이라. 딸만 션. 겨난 딸 성제산디 세 성제산디 시난 아이 고 이 돌 안반은 나 필요 엇덴. 경허명 날꺾라 사렌 허난 나가 그 주인안티 샷주게. 모슬포 살 때 나 서른쫘 혈 땀 거라.

@2 그때 산 거예. 그 전에 시집오기 전에 고산 살 때는 어떤 안반 썼수과?

#1 그뎨 우리 어머니네 흥짓대영 저, 낭 안반.

@1 낭 안반예.

#1 이만이 큰 거.

@2 계도 넓어예, 그계예.

#1 막 크주게. 저건 막 께끄만허영. 경허난 난 살렘 산 후제 저거 돌 안반 사고 우리 시 어머니도 이디 완 보난 흥짓대도 잇고 안반도 낭 안반 셔고.

@2 응.

#1 신디 식젯날 떡 해난 저 앞이 낭 셔낫주. 감낭 셔나고 수돗물 시난 감낭 아래 떡 해 나난 안반에서 떡 해나난 저디 아전 간 수돗물 아래 간 막 떡 부튼 거 싯엇어. 저디 간 감 낭 아래고 그늘이고 허난 싯언 그 감낭 엠에 담줄이 시난 영 헨 그디 세완 놔두난 어떻 헨 산디 원 그 저꺾디 무신거 어떻 우리 집 아기 아방도 산 때예.

@2 가져가 불언?

#1 아니 불살라부난 오꼳 안반이 받은 카 비언.

@1 누가 그디 강 불살라 불언?

#1 우리 집잇 아방이 술만 먹고 허난 어떻헌 산디 하여튼 궁상이라. 낭 안반을 받은 카 비언. 경허난 데껴 불엿주게. 경허고 순경 산 때 저거 산 거 시난 저꺾가 필요허연 저꺾 에 안반에 들른 마꺾도 꺾는 거 두 개 싯주게. 영영영영.

@2 아, 마꺾도 싯곡.

#1 응, 싯고 허난.

@2 그것도 나중에 사진 찍으쿠다예.

#1 저꺾이 필요허연에 그자 허난 저 마꺾 두 갠 이제 못 쓰게 똤언. 쓰지 안헨 내부난 돈딱 줌고망 난.

@2 계도 싯긴 싯지예?

#1 응. 셔. 싯긴 셔.

@2 예,

#1 두 개, 두 개.

@2 예, 좋수다. 그거 예전에 고산 살 때 서답 허레는 어느 물에 강 서답을 헷수과?

@1 고산 아니. 신도.

#1 우리 신도고 계난.

@2 서답허레 갈 때 어디 갔수과?

#1 야이가 고산, 누계가 고산.

@3 나.

#1 지가 고산이라?

@3 예.

#1 아, 아 이던 호근이엔 헛저. 찜. 아, 우린 나는 물 우리 동넨 엇이난 나는물 허젠 허민 바당에 세답을 지영 강. 정 강 해원 그디서 빨명 우트레 널어근에 발레영 오메.

@1 아, 거기서 빨명 발레명.

#1 응, 그디서 해원 살명 밥 으정 강 점심 먹곡 빨아근에 산물에 바당에. 바당에 물 나는 디 시난에 쟁 바당 가젠 허민 멀주게. 이디서 저 바당에 감만이 머난 막 하영 흘 거 한 때 발렐 거 실 때에만 미녕 하영 발레곡 필요한 때만 가.

@2 아.

#1 계안헌 땀 우리 동넨 죽은물이난에 그냥 물통허영 막 너른 물통이 뗏 개 시난 그 물에 쉼도 멕이곡 빨래도 허곡 막 물이, 통 판에 나는물 엇이난 부락에서 돈 멘들안. 경헨 또 먹는 물은 먹는 물대로 막 트로 파고 경헨 그추룩헤영만 질어당 먹곡. 빨래도 그 죽은물에 허곡 헨 살앗주게. 산물 필요한 때엔 막 빨래 바렐 걸 한 때엔 똥 뜨는 사름은 하간 거 미녕이여 무신거 발렐 땀 바당에만 강 바레곡. 경헨 살앗어.

@2 그 죽은 물통 이름은 뉘파? 일름 몰르크라.

#1 일름은 뉘이엔.

@2 엇어.

#1 뉘이엔 안 행 무시거엔 몰라. 무시거엔사 헤신디 잊어비언 모르큰게. 이제 그 물도 다 메와 비언 우리 동네 하나도 엇어.

@2 메와 비언 엇어예. 거난 아까 서답헐 때.

#1 우리 동넨 죽은물이엔 허난 그 옛날에 법이서산디 오란 요추룩 힌 거 세완에 영영 푸끄민 물 나오는 것도 멘들아 주고.

@2 우물, 우물예. 맞아, 맞아. 계난 아까 그거 서답 정 가젠 허민, 그냥 들렁 못 가큰게 예. 정 가사큰게.

#1 정 감주게. 므른 거 하영 저지메. 들랑 정 오곡. 므른 거 정 가곡. 멀어도 바당에 강 세답헤 오민 시원허메. 하루해원 살앙 오민 하간거 깨끗허고.

@1 구덕에 답아?

#1 응, 질구덕에.

@1 질구덕에.

#1 질구덕에. 이제 무신 콘테나 옛날 셋어게.

@2 계민 숲는 것도 그디 물 이신 디서 솟 앓져냥 숲을 거과?

#1 숲음도 허곡. 그런 사름도 잇곡. 그 즈갓디 동네 사름은 막 그추룩 허주게. 솟 아정 강 숲곡, 진을커도 지어 가곡 아이고, 등짐으로만 지명덜.

@2 계난 아까 옷 헐 때 저고리 뜯어놔 빨아놔 다시 멘들 거?

#1 으. 짓이 가지가지 문딱 뜯엉.

@2 가지가지 문딱 뜯엉, 이불만 뜯는 게 아니고 옷 멘든 것도 뜯엉?

#1 멘든 거 문딱 뜯엉. 썩도 요멘이 현 거 안섭, 밧섭 트로 다 뜯엉. 데싸 맥여, 데싸사 바농질을 허여. 이 골테가 문 깨끗하게 지지 아녀. 옛날은.

@1 골테가 뭐? 골테.

#1 입어나민 이 그릇이 그냥 있어. 빨아봐도 비누 엇어 부난 옛날에.

@1 거난 거명허게 이디 때 문은 걸 골테엔 곤는 거?

#1 응, 골테. 지지 안현 짓이 싯나게.

@1 지지 안현 게 골테. 응.

바느질 도구(2)

@1 이번엔 바느질 도구 물어보겠습니다.

#1 으.

@1 바느질허젠 허든 저 바농쌍지에 무신거, 무신거 담양 이십니까?

@2 으.

#1 바농쌍지에 바느질 허젠 허든 우선 싹.

@1 응.

#1 ㄴ새, 바농.

@1 응.

#1 그것이 질 그것만 허민, 시민 허주게. 바농 잇곡, 싹 잇곡, ㄴ새 잇곡 허민 허주게, 자허곡 허민 재명게.

@1 아까 골무허곡?

#1 골문, 으, 골무도 이불헐 때나 허곡 허주, 그냥 옷.

@1 안 허여?

@2 계난 이거는 어무니가 바농질 전문으로 허난 잇엇주.

#1 으, 허난.

@2 일반 사람들도 다 가정 잇는 건 아니라예?

#1 일, 일반 사람덜 다 엇엄서.

@2 엇엄서예, 으.

#1 엇엇어. 이거 우리 어무니가 준 거. 이거 족은 걸랑 느 앓으라, 허명.

@1 응.

#1 우리 어무니 건 이것보담 흐쉴 더 크고 알룬 거라. 이건 두꺼운 거라.

@2 아.

#1 경허명 아저 오란 이거 백 년도 넘은 걸 거여.

@1 요, 요 바농, 아까 이거 돌랭이렌 곤는다고? 바농쌍지는?

#1 돌랭이.

@1 돌랭이. 바농쌍지엔도 곶아?

#1 바농쌍지엔도 허곡.
 @2 원래는 돌레인데.
 #1 하하하.
 @2 풀 킬랑 부짱 바농상지로 쓰는 거 아니?
 #1 아, 몰라게, 어떻게.
 @1 응.
 #1 먼 처음 돌레기, 돌레기 허난.
 @1 응. 게문 거기에 아까 저거 바농 끼와진 건 뭐?
 #1 즐레게.
 @1 즐레.
 #1 으, 바농즐레.
 @1 바농즐레.
 #1 바농즐레엔 허주.
 @1 그 쪽엔 미시거 답아수과?
 #1 머리, 머리터럭.
 @1 머리카락.
 #1 으, 머리터럭 옛날은 어른덜 머리가 질주게.
 @1 응.
 #1 우리 어무니도 빗어나민 머리 허민 영영영 헤영 놔두고 놔두고 모이는 디가 시메.
 @1 으.
 #1 그때 데껴 불지 아녕.
 @1 응.
 #1 계난 그거 모인 거 이거 허곡. 옛날 우리 나 여남은 설 난 땀 째신 허민 이디가 뱃겨 저게.
 @1, 2 으.
 #1 겨민 머리터럭 그거 모인 걸로 우리 아버지가 영영영 감아줘서 신어났어, 나도.
 @1 아, 뒤치기에?
 #1 어. 이디 막 뱃겨지난.
 @1 아 그믄 안 뱃겨져?
 #1 아, 몰라 어떻게. 답아짱 신어난 거, 기억이 나. 하하하.
 @1 음. 바농도 크기에 따라서예, 다릅니까? 이름이?
 #1 다르지.
 @1 이름, 불르는 이름은 엇수과?
 #1 이름은 엇어, 큰 바농, 족은 바농이주, 더 엇어.
 @1 어, 바농은 보통 멧 개나 잇어야 됩니까? 허젠 허민.
 #1 멧 개나 잇어? 서너 갠 잇어야 됩곡, 또 흔 솜으로 사당 놔둬사 썸주게. * 위로 아 이 사메.
 @1 하하하.

#1 바농 위로 풀지도 아녕.
 @1 예, 저, 아까 속들도 잇언게.
 #1 어, 속들도 잇주게.
 @1 으.
 #1 바농질허젠 허믄 속들도 셔사 뒤어.
 @1 으, 건 어디 강 봉가 읍데가?
 #1 몰라. 어디 강 가완 봉가와져신디 전이부떠 시난.
 @1 응.
 @2 옛날 영 바농 풀레 안 다녔수과?
 #1 으?
 @2 바농 풀레.
 #1 아, 옛날에 바농 풀레 집집이 바농 샅서는 안 해도 부락에 옛날, 미신 큰일칩 대소상 허는 올레쫘 가민 미신 도매상 벌겨냥 푸는 디, 바농도 풀곡 얼레기챙빃도 풀고.
 @1 으.
 #1 그런 사름 드르 셔낫어.
 @1, 2 으.
 #1 경 헤낫어, 옛날은. 큰일칩, 소상칩 올레에, 대상칩 올레에.
 @1, 2 으.
 #1 저 이제 ㄱ트민 그자 미신 점빵, 고망치기로 크지 아녕 흐끔헌 점빵 허는 사람처럼 지영 뎡기명 이 부락, 저 부락 뎡기명.
 @2 계난 옛날에 막예, 뒤 얻어 먹으려 뎡기는 사람 바농 하나 들렁 뎡기명 이거 주크메 밥 얻어 먹어난 사름 엇어난?
 #1 옛날 경도 아녀곡 밥 얻어 먹어난 사름, 그냥 밥 흐쉴 줍서, 허멍 뎡엿주, 미시거 주멍 뎡이는 사름 엇어.
 @2 아, 엇어.
 #1 계도 요 중간인 예, 중간에 흐, 십 년 전이 계도 십 년 동안은 미시거 오란 양말 사라, 미시거라 바늘 뎡기명 다니는 사람 엇어라.
 @2 아, 이젠예.
 #1 이젠 엇어.
 @2 아.
 #1 나라에서 하간 거 잘 행 줍서라. 나라에서 계, 불구자덜이영 못 사는 사람이영 드르 잘 주지 아녜서? 기초수급자영 미시거영 다 분리허멍게. 주난예, 옛날추룩 얻어 먹으려 뎡이는 사름 엇어.
 @1 가위도, ㄱ새도 하나민 뒤어?
 #1 ㄱ새 하나로 못 써.
 @1 몇 개 잇어야 뒤어?
 #1 몰라.
 @1 몰라? 삼춘은 전문가난.

#1 난 두 개라도 족나.
 @1 아, 두 개라도 족아? 하하하.
 #1 이디 두 개 놔둬도 좇지 못헿.
 @2 좇지 못헿 더 필요한 거라.
 @1 저거, 저건 이름 뭐렌 굴읍니까? 저건.
 #1 미시거?
 @1 이거.
 #1 이거?
 @1 으.
 #1 바농줄레[쫄레]주, 미신.
 @1 것도 바농줄레라?
 #1 으, 요건 문여랑.
 @1 똑ㄴ타?
 #1 으.
 @1 이름은 똑ㄴ타? 그거, 그거, 아까 멩지, 아니 저 썰.
 #1 이거 썰?
 @1 응.
 #1 이거 미신 이건 훙은 썰이난 이불허는 썰, 아니?
 @1 응, 이불 허는 썰.
 #1 응, 훙은 썰, 줌진 썰.
 @2 삼춘도 신식으로 여기 무껍은에 헤뵈디가? (전화)
 #1 무신 옷?
 @2 안 헤?
 @1 아까 그 바농쌍지에 잇인 거, 안 굴아진 거 엇인가? 혹시 형겍들 삼춘 형겍들.
 #1 으.
 @1 형겍들 모양 냐두지 아냅니까?
 #1 뭐 더?
 @1 뭐, 그, 고녕이포 영헌 거 엇어, 이딴? (잡담) 응?
 #1 고녕이포?
 @1 으, 고녕이포 이런 건 엇어? 이건, 이건 무신 거 허는 거파? 이건.
 #1 지남철.
 @1 지남철은 무사 이디 이수과?
 #1 바농, 바농 좇는 거.
 @1 이건 그냥 반지.
 @2 바, 바농 좇는 거.
 #1 바농 좇는 거.
 @1 아, 바늘 좇는 거. 아, 바늘 이렇게.
 @3 자석.

@1 그치, 바느질 도구에 대해서는 더. (잡담)

신발

@1 옛날 신발은 무신 신발, 무신 신발 신어나수과?

#1 풀르켜게.

@1 주로 초신 신곡.

@2 어린 때.

#1 아 옛날 아은 때 초신 신어난.

@2 으, 아은 때.

@1 초신 신곡, 그다음에.

#1 그루후젠 고무신, 검은 고무신, 코구리신이여 신엇주게.

@1 코걸이신?

#1 코고리신.

@1 코구리신은 뭐?

#1 코 든은 거.

@1 아 코 든은 고무신.

#1 어.

@1 코부리신.

#1 검은 것에 흰 바위 영 들랑 코신 잇어났어, 우리 아은 때.

@1 아.

#1 검은 것에.

@1 응.

#1 붉은 색깔도 잇곡, 검은 색깔도 잇곡 행 이디 흰 바위영 트로 들라진 거.

@1 응.

#1 코 든곡 현 신, 우리 옛날 아은 때 경 현 신 셔났져.

@1 아.

#1 경허곡 그루후제 또 뭐.

@1 남신도 신어났수과?

#1 남신 들어보젠 헤나도. 난 아이 신어 봤어.

@3 남신 신어났텐.

@1 하하하. 삼춘 남신 신어뵈?

#1 들어뵈주게. 들어뵈 경 허민 등어리 꺼꺼져.

@1 등어리 꺼꺼져, 맞아.

#1 들어뵈주게, 나막신.

@1 응. 그 아까 새각시신 저, 초신은. 신는 초신은 혹시 일름도 트나게 불릅니까?

#1 아니, 새각시신이엔 허영 곱게 멘들메, 막 곱게.

@1 아.

#1 이 째 베설로 이 째도 내곡 막 곱게.

@1 음, 그건 다른 재료로 허는 건 아니고? 뭐.
 #1 짝으로 허여게.
 @1 것도 짝으로 헤?
 #1 응, 짝 베설로 깎 허곡 저 잘도 곱게 멘든 모양이여.
 @1 그것도 물들영 허는 사람도 잇덴 헨게마는.
 #1 게메, 게메.
 @1 그건 아니?
 #1 게메. 난 물들여난 건 몰르켜, 몰르켜.
 #2 노란 물들연.
 @1 노란 물로예. 무신거로 노란 물 들엿수과?
 #2 그때는 몰라, 치지로.
 @1 치지로.
 #1 몰라, 난 어떻사 헤신지. 멘든 걸 들어나 봐남은 헛어.

모자

@1 응, 모자는? 옛날에 모자는 무신 거 써났수과? 여름에.
 #1 여름에 무시거 써. 저, 모잔 페랭이주.
 @1 여름엔 페랭이에.
 #1 페랭이.
 @1 페랭이도 삼춘이 직접 행, 막 만들언 써났수과?
 #1 멘들도 막 들여났어, 막 밀남으로.
 @1 밀남으로예.
 #1 으.
 @1 밀남으로 만들젠 허믄 어떻 멘들아?
 #1 잘 멘들아져게, 옛날은 나도.
 @1 우에, 우이[에] 것부떠 동그랑헌 거부떠 먼저 멘들아?
 #1 으.
 @1 요거 곤는 말 이수게.
 #1 건.
 @1 무시거 방식?
 #1 너른 건 망이엔.
 @1 생이방석?
 #1 망이엔 허곡 무신.
 @1 아, 너른 건 망이엔 허곡.
 #1 베깃드레 미신 뿤이엔 산 디 난 몰르켜. 하하하.
 @1 건 거난 저. 아까 밀남으로 다 짱은에 영 손으로 짜?
 #1 으, 손으로 짜, 밀남으로.
 @1 밀남으로 손으로 짱.

#1 손으로 짬도 하루에 하영 짜져.
 @1 손으로 짬 다음에.
 #1 밀낭 영 윗것만 다 장만해 노면 확확 끼우멍 막 짜게 해져.
 @1 아, 다 쓰는 게 아니고 위엿 것만 쓰는 거예.
 #1 위엿 것만.
 @1 응.
 #1 위엿 것만 요만씩 끊영 허민 영 꼭꼭 끼우멍 드러 짜는 거주게.
 @1 아, 길게 끼우멍?
 #1 으, 끼우멍, 끼우멍.
 @1 쟁 세 가달로 짜?
 #1 다섯 가달이주, 세 가달 아이라.
 @1 다섯 가달로 짜.
 @2 계난 밀낭 헐 때는 그거 두드리거나 허지 안허지예?
 #1 두드리지 아녀주게.
 @2 예, 그냥.
 #1 그냥게.
 @2 예.
 #1 똥그락, 똥그락헌 채로.
 @2 어.
 #1 경 헝 끼와근에 그거 다 납작허게 들여놔.
 @2 어.
 #1 손에서.
 @2 어, 손에서, 으.
 #1 두드리지 아녀.
 @1 쟁 다 짬 다음에 이거 막 길게 짜면, 그다음에는 바농으로 영 꼬메?
 #1 바농으로 꼬메고. 그거 그 페랭이 밀찢모자 형, 형을 뉠 내와사주게. 손으로 뉠 멘들
 명.
 @1, 2 응.
 #1 경 헝 바농으로 줍곡게.
 @1 밀낭은 잇젠 허면.
 #1 옛날은 밀덜 하영 가난.
 @1 갈앗수과?
 #1 갈앗주게. 응, 밀덜 하영 가난게. 밀낭 순 툷안 요맨씩 툷안 해놋주.
 @1 응, 거 밀 다 헤난 다음에 허는 거지예?
 #1 미시거?
 @2 밀 테작 다 헤난.
 @1 밀 테작 다 한 다음에 쓰는 거지예? 아니면.
 #1 밀 영 훑어나민게.

@1 응, 훤아나민예, 짝엿 거예.
 #1 으, 훤아나민.
 @1 겨울엔 미신 모자 써? 추우민.
 #1 추우민 겨울에 미시거 써? 수건만 쓰곡 그 영 행 소게 넣곡 미시거 행 멘들안 써낫어
 계.
 @1 그건 미신거엔 곱아?
 #1 건 미신거엔 험사신디.
 #2 휘양, 휘양.
 @1 휘양.
 @2 건 여름에, 아니 겨울에도?
 #1 남저는 휘양 허영, 영 허영 띠 돌르곡 헤영 제라허게 허곡, 여저는 영 헤근에 고녕이
 꺾치 영 즐라메영 쓰곡 소게 놉근에. 남저 휘양은, 휘양은 툃로 셔.
 @1 응.
 #1 그건 아무나 돌르지도 못허여, 휘양은.
 @2 어.
 #1 영 띠도 허영 돌르곡. 우리 어무니는 그런 것도 막 잘헤낫어.
 @1 응.
 #1 휘양, 남저 어른덜 씨는 휘양.
 @1 거는 무신 천으로 멘들아?
 #1 광목으로.
 @1 것도 광목으로?
 #1 흰 광목으로.
 @1 무신 그디 안에 솜이라도 담아?
 #1 솜 낱, 막 듯이게 멘들아.
 @1 응.
 #1 요디 요영 메곡 춤 쓰민 굿진 아녀.
 @1 응.
 #1 보기에 하르방덜 다 경헨 씻주게, 옛날.
 @1 그믐 겨울 옷은 솜 놉근에.
 #1 어게.
 @1 이거 누벼야 웰 거 아니우짜예?
 #1 별로 누비질 아녀.
 @1 누비질 안허여?
 #1 응. 겨울옷, 누비옷게, 겨울옷 누빈 옷도 입곡. 소게 낱 누비지 아년 것도 헤끔 누비
 옷도 황당헌 사람은 허지도 못허여.
 @1 누비옷은 어떻 행 누비는 거짜?
 #1 어떻 행 누벼게, 소게 노곡.
 @1 응.

#1 안이영 겁죽이영 가운데 소게 놔근에 똑 올바르게. 허튼 사람은 황당한 사람은 누비
웃 허지도 못허여, 좀 익숙고.

@1 거긴 무신 바느질해?

#1 손바놓질.

@1 거니깐 바놓 뉘.

#1 바놓에 썰.

@1 흙, 흙질, 아녀면.

#1 썰 꺾엉.

@1 응 흙질해, 아니면 아까 뎡침해?

#1 뎡침 아니, 그냥 영영영 호아.

@1 호아.

#1 우리 어무니 허는 거 보른 경 허여.

@2 어.

#1 뎡침 아녀.

@1 뎡침 안 헤예. 호우는 건 그 깔레이블, 깔레웃이라도 허젠 허민 호는 건.

#1 이거 영 행, 우리 어무니는 느량 경 행.

@1 가운데 솜 낮어예.

#1 올바르게 트라지지도 아녀꼭 올바르게 굳작 이추룩 허멍 아래 이, 뚝이영, 위 뚝이영
똑ㄱ트게.

@1 어.

#1 경 서튼 사람은 니비웃도 누비민 곱게 누비지도 못허메.

@1 어.

#1 이 간격을 위영, 아래영 똑 ㄱ트게.

@1 응.

#1 쪽허게 올발을 트라지게 누비민 뿐이 엇꼭. 올 굳작 바르게 허튼 사람은 누비웃 허민
곱지도 아녀.

@1 응.

@3 거른 이거 헐 때, 이거 썰 하나 빼지 아녘니까, 여기? 센치 재근에.

#1 아니, 빼어.

@3 하나 빼근에 이 사이로.

#1 아니 아니.

@3 아, 경 안 헤마씨? 그냥?

#1 기냥, 기냥 게도 굳작. 와치덜은 굳작 트라지지 아녀게.

@2 와치덜.

#1 와치덜, 우리 어무니들은 허는 거는.

@1 어무닌 바놓질와치?

#1 와치.

@2 바놓와치?

#1 으.
 @2 바농와치.
 #1 바농질와치.
 @1, 2 바농질와치.
 #1 미녕, 미녕 허는 와치.
 @2 미녕 허는 와치.
 #1 경 헤여난.
 @1 아.
 #1 으, 새각시 씨집갈 때 머리 여찌는 와치. 하하하.
 @2 아, 머리 여찌는 와치.
 #1 옛날은 경 해난 나헌티.
 @1 어.
 #1 새각시 씨집갈 때에 머리 여찌주는 사름.
 @1 어.
 #1 경허곡 해났어. 게난 올 흐나도 트라지지 아녀게 깔레이불도 다 누벼. 우리 어무니 손으로 다.
 @1 어, 이추룩, 이추룩 허는 거 아니? 요론 디예.
 #1 으, 이추룩, 이추룩. 깔레이불덜 다 올 트라지지 아녀게, 굳작.
 @1 게믄 이쪽으로만 헤? 요던 아녀고?
 #1 경은 안 허여, 이쪽으로만.
 @1 이쪽으로만예.
 #1 응.
 @1 응.
 #1 굳작 경허영 올 흐나도 트라지지 아녀게 허메, 와치덜은.
 @1 깔레이불 허젠 허민이.
 @2 하하하.
 @1 얼마나 품이 하영 드는 겨우과? 시집갈 때 깔레이불 행 간 덴 헨게마는. (잡담)
 #1 우리 어무닌 춤, 동네서 막 해났어. 하하하.

경험담

@2 질삼바치.
 @1 삼춘 이거 허명은에예, 막 힘들엇거나예, 바농질 허명 이제꺼지 살명예. 막 보람을 느끼거나 재밋엇던 추억, 이런 거 엇수과?
 #1 예, 난. 그자 허는 거라렌 허는 거곡. 그자 경 바농질헌 거 경 어렵다 헤지지도 아녀곡.
 @1 응.
 #1 좋다 헤지지도 아녀곡.
 @1 응.

#1 (전화) 허는 거라렌 허는 거.
 @1 응, 누가 만들어쥬 막 고맙수다 헤근에 영 좇아 온 적은 엇어?
 #1 아니, 허여가민 고맙수덴 곶으멍 가명은 허여.
 @1 하하하.
 #1 하하하. 그때뿐이주게.
 @1 바농질도 허여근에 돈도 하영 벌엇수과?
 #1 에에, 미시거게.
 @1 밧도 사곡.
 #1 에, 어느 짚에.
 @1 것도 못헨?
 #1 난 폼만 헨 사는 사름.
 @1 응.
 #1 밧 폼만 헨. 이제사 늡으난 바농질허곡, 이제사 돈 아기덜 허영 다 나가 불곡 문 떠
 나 부난 허엿주, 그전인 아이덜 돌아 앓앙 공부시기곡 헨 때에 밧만 낭 스뭇, 밧만 풀멍
 살안. 어느 짚에, 윈.
 @1 바농질허난 어디 손 막 아픈 딴 엇수과? 어디 특별허게.
 #1 에? 어디 아픈 디 엇어. 아프게 경 흐루에 험서게.
 @1 경해도게.
 #1 에에.
 @1 뭇, 일단 눈이 좋아야 뉘곡, 바농질허젠 허믈예.
 #1 눈은 좋은 생이라.
 @1 게난, 그다음에 아까 뭇야 손재주도 잇어야지.
 #1 손재주? 몰라.
 @1 아무나 못 하주마씨.
 #1 무사 못 허여, 아녀난 못 험주. 허민 다 허주.
 @1 성격도 약간 차분헤야 뉘는 거 아니?
 #1 몰라, 어떻사.
 @1, 2 하하하.
 #1 그런 거 몰라 난 허는 거라렌 허난, 기자.
 @1 으.
 #1 경 어려와 베도 그자 윈, 심드령이 기자 경 바쁘게 험서게, 나가.
 @1 으.
 #1 기자 놀멍 자멍, 흐루에 두어 시간, 서너 시간 허곡.
 @1 응.
 #1 못허는 날은 기냥 놀곡. 놀레덜 영 오민 놀곡.

- 조사 일시: 2021년 6월 4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고순희
- 제보자: #1 강만옥

‘호상옷’-머리싸개·목도리·베개

@1 오늘 유월 사일이고 하원에 강만옥 할머니, 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뭐마씨? 이름이.

#1 이름이 이건 휘양, 영 머리에 씌우는 거, 휘양.

@1 휘양.

#1 휘양.

@1 머리에 씌우는 거예?

#1 어, 머리에 씌우는 거, 이거. 머리에 쓰는 거.

@1 어.

#1 요거는 머리 소곱에, 이거 소곱에 영 머리 싸는 거.

@1 건 이름 뭐라?

#1 머리팍 싸는 거엔, 머리싸개엔 허여.

@1 그냥 머리싸개?

#1 으, 머리싸개.

@1 음.

#1 머리싸개엔 허곡.

@1 이거는?

#1 이거는 목도리.

@1 이건 목도리.

#1 목도리 솜 농곡 멩지솜 농곡 허는 목도리, 이건.

@1 아, 이거는?

#1 베개.

@1 이건 베개.

#1 으.

@1 게믄 죽으, 사람 죽으면 요거 머리엔 요거 네 개를 허는 거구나예?

#1 어, 어. 머리엔 다 이거 네 개. 주머니에 장갑에 머리 꼬창 노민 주머니 하나만 이디 주머니 이디 실 건디.

@1 예, 그건 나중에. 게믄 요거 먼저 제일 처음에 헐 거?

#1 으.

@1 제일 쏘곱엔 이거 허는 거?

#1 으, 머리싸개, 모욕 시켜나민.
 @1 모욕 시켜나민.
 #1 머리 모욕 몸이영 모욕 시기민 머리 이거 싸 낳 버금엔 요 목도리 헤 낳 버금엔 이거
 우티 씨와.
 @1 아.
 #1 맨 마지막엔.
 @1 일 번, 이 번, 삼 번.
 #1 으.
 @1 그다음에 베개에 눕져.
 #1 으.
 @1 어.
 #1 베개 질 나중예.
 @1 제일 나중예예.
 #1 음.
 @1 요건 게민 어떻 행 쓰는 첩이파, 머리가 어디로 갈 첩이파?
 #1 몰라, 난. 몰르, 몰르키여. 어떻 행 난 몰라. 이거 멘들긴 헤도.
 @1 멘들긴 헤도.
 #1 영, 영 허영.
 @1 음.
 #1 영 허영 허는 건가, 원.
 @2 긴 게 위에서 내려올 거.
 #1 어.
 @2 예, 예, 예.
 #1 어, 영 행.
 @2 으.
 @1 저게 더 긴데.
 #1 영 허영 내부는 거 닳아.
 @1 어.
 @2 아니, 피면 이게 긴 거, 이쪽에 긴 거.
 #1 어.
 @2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으니깐.
 #1 어.
 @2 짧은 게 목더레 강.
 @1 으.
 #1 어, 계난. 장의사가 다 알앙 현디. 이건 어떻 옛날은 우리 어무니 현 때예.
 @2 예.
 #1 저런 거허고이, 이 머리싸개도 엇곡, 목도리도 엇엇저.
 @2 으.

#1 목도리는 건 었투저구릴 헤연 저구릴 헨 멘들앗어, 소게 농곡 헤연.
 @2 으.
 #1 경 헤신디 혼 이십 년 전이 나가 이디서 영 살멍 어멍 헨 신문을 영 봤어.
 @2 으.
 #1 신문을 보난에 신문에 제주시청에, 시청에서 이제 어떤 할무니가.
 @2 으.
 #1 시청에서 바느질헬젠, 수의웃을 헬젠.
 @2 음.
 #1 시청에서, 제주시청에서 수의웃을 허는디.
 @2 으.
 #1 그 할망이 영 자로 영 기지도 재업곡. 텔레비, 저, 신문에 보난.
 @1, 2 응.
 #1 아이고, 이제 신식으로 수의 허는 걸 강 봐시민 좋켜, 나가 헤전.
 @1 아.
 @2 으.
 #1 옛날에 막 이십 년도 더 뵈저.
 @1, 2 음.
 #1 겨난 일부러 제주시청엘 나가 그 신문 아정 좃안 갓어.
 @1, 2 응.
 #1 강 보난 할망 서이가 바농질을 헬서라, 제주시청에.
 @1 음.
 @2 대단허다. 그렇게 그거 좃아갓덴.
 #1 서이가 바농질 허는디 미싱 세 개, 두 개산디, 미싱 농곡.
 @1 이걸 허민 끈으로 안 무껴?
 #1 끈으론 아이 무껴.
 @1 끈으론 안 무껴예.
 #1 영 헤서라.
 @1 어.
 #1 경허난 그 할망신디 거, 나가 새로 난 건 우리 어멍 헨 땀 안 헤여난 거 다 산 와서
 네, 나가.
 @1 아.
 #1 산 오란 이런 건 나가 사 왓어.
 @1 이걸 원래 그러면 어머니 헬 땀 안 헤난?
 #1 안 헨, 옛날.
 @1 옛날엔 엇어난 거?
 #1 목두리도 엇곡, 목두리 대신 소게 넣고, 저구리 헤연, 남자 저구리추룩 었투저구리엔
 허여.
 @1 었투저고리?

#1 응, 엄투저구리로 옛날 헤나신디 우리 어명 헐 때, 헤나신디. 그르후젠 보난 신문에 경 낮어.

@1 음.

#1 나시난 영 신문에 나난 제주시, 나 젊은 때주게, 나 젊은 때. 막 일헐 때, 돌아뎡기난 활동헐 때난 제주시청에 가난 할망 서이가 험선게.

@1 음.

#1 이걸 뵙 오랑은 모르지, 나가.

@1 음.

#1 모르니까 나도 웃고 허난, 나 헐 것도 웃고 허난 상 왓어. 상 온 거이 멩지가, 멩지 아닌 무신 곤장(?) 닳은 거 저디 이제 모범으로 보멍 이거 멘들암저.

@1 아. 하하하.

@2 계난 요건 맨 먼저 얼굴에 씌워 낭.

@1 이거 먼저, 이거.

@2 아, 이거 먼저?

#1 으.

@2 계민.

#1 든저.

@1 이거 먼저 그다음 저거.

@2 어.

#1 그다음 이거, 이거. 목도 이, 야게기부떠.

@1 아, 여기? 일 번, 이 번, 삼 번.

#1 삼 번.

@2 예, 예, 삼 번.

#1 아이고, 그거 부치젠?

@1 아니, 아니, 먼지 잇언.

@2 음.

#1 게메, 먼지 이신 거 저레 먼지 허는 거 이신 걸게.

@1 아, 먼지 허는 거 이수과? 따로 또?

@1 삼춘 이거 안네 솜 답앗네예.

#1 으, 솜, 멩지솜, 멩지솜. 저건 미녕솜.

@1 이건 미녕솜. 이건 멩지솜.

#1 목화솜, 요건 목화솜, 목화솜.

@1 멩지도 솜이 잇구나예, 멩지솜예.

#1 하이고, 싯주게. 멩지솜이 막 질기곡.

@1 아.

#1 멩지솜이 비싸곡.

@1 음.

#1 멩지솜 흐 장애, 흐 장애 칠 만 원. 이건 흐 장애 목화솜은 만 원.

@1 아, 비교가 안 돼네.
 #1 어, 비교가 아이 돼.
 @1 야인 길이가 얼마나 현 거짜? 요거.
 #1 거, 자로 두, 현 자 우리 바느질자가 이십 센치라.
 @1 예.
 #1 경 현디 두 자 반.
 @1 두 자 반.
 #1 으, 목두린 두 자 반 낱 허여.
 @1 목두린 두 자 반 낱 허는 거예.
 #1 게, 제주시에 시청에 간 나가 문 허연 포따리 베 포따리도 그디서 산 오곡. 이십 년 더 뒤실 거여.
 @1 음.
 #1 제주시청에 간 나가 문 그 보, 베 보따리도 산 오곡. 나 우리 어멍 안 헤난 거, 웃인 건, 모른 건 그디서 허는 디 강 문 산 왓저, 나가.
 @1 음.
 #1 산 오란 보멍 험시네. 그디 신문에 나서라. 갱 신문에 영 으정 강 그 시청에 좇안 간 흐룬 역벌영 간에 산 오라시네, 문. 베 싸는 포따리영.
 @1 예.
 #1 사단 이젠 그대로 나가 그거 보멍 그대로 험저게.
 @1 현 번만 더예, 야인 이름이 뭐라고마씨?
 #1 그건, 그건 옛날에부떠 우리 어무니 현 때부떠 호상이엔 허여, 호상. 머리에 씌우는 거.
 @1 야의가 호상.
 #1 호상.
 @1 응.
 #1 이거 안넛 건 머리싸개.
 @1 저건 머리싸개.
 #1 응.
 @1 요건 목도리.
 #1 으, 목도리.
 @1 요건 베개. 예, 요렇게 해서.
 #1 머리싸개, 머리싸개.
 @1 요렇게 해서 머리 쓴 건 다 꺾났습니다.
 #1 다 꺾나난.
 @1 머릿 거 다음에, 다른 거.
 #1 찍어난 거랑 현 편더레 모여 노라, 모여 노민, 나가.
 @1 다시 정리 하신데.
 #1 잘 정리, 나가 나대로 허여사. 옷 경 트로 노라.

윗옷

@1 그다음. 머릿 거 다음에 그다음 우의 옷부떠 허카? 속에 옷?

#1 우의 옷부떠 허카?

@1 음.

#1 우의 옷부떠 허민 이건 적삼.

@1 요건 적삼.

#1 어, 요건 저구리.

@1 요건 저고리.

#1 요건 난닝구.

@1 아이고, 난닝구, 순서대로.

@2 맨 안에 입는 것부떠, 난닝구부터.

@1 난닝구 먼저 입곡.

#1 으.

@1 그다음에 적삼 입고.

#1 으.

@1 저고리 입고. 영 순서대로 입을 철이우파?

#1 으. 폐와 놓지 아녀도 뉘어.

@1 폐올 거 이제.

@2 이게 난닝구?

@1 요게 난닝구.

#1 으.

@1 난닝구 폐와 보면.

#1 영 입는 차례로.

@1 난닝구가 적삼인게.

#1 아이고 게, 보라. 할망덜 오란에 스뭇 뒤죽박죽, 막 보젠 허곡.

@1 아이고, 이게 무슨 난닝구야, 그냥 적삼이네.

#1 하하하.

@2 적삼인게, 속적삼.

#1 으.

@1 음.

#1 이거 여자 거.

@2 이거 난닝구렌 허는구나.

#1 남저, 남저 건 뜨나게 한다.

@2 이거 지금 난닝구렌 허곡 옛날에도 난닝구파? 적삼이우파?

#1 옛날은 적삼 엇곡 저구리만 입젿저게.

@1 이거 안 입져났구나예.

#1 으, 엇어, 엇어.

@1 음. 이건 근데 곱이 두, 이층으로 뉘저예? 곱을 두 번 메어?

#1 으, 두 번. 풀을 벌겨사 허주 아녀?
 @1 풀을 벌겨사 허지 안허여?
 @2 다 안 들어가.
 #1 이견 여자 거, 여자 거난, 여자 거여. 남자 건 지러기도 더 흐썰 질게 더 질게.
 @1 아.
 #1 검은 것에 노난 선명하게 잘 나왕.
 @1 예.
 @2 음.
 @1 이견 뭐 곰이영 이름 다르게 곤는 건 엇수과? 요기서는.
 #1 아니, 그냥 난닝구엔만.
 @1 난닝구엔만? 난닝구에는 짓이나 뭐 이런 건 안 허는 거지예?
 #1 으, 엇어, 영 바위만 돌라.
 @1 바위만 영 돌른 거, 요거는.
 #1 남잔 또 이, 이 짓을 트나게 헤.
 @1 요디도 뭐, 앞섭, 이런 건 하는 건 아니지예?
 #1 으, 아녀.
 @1 경해도 안은 이렇게 담아신게예?
 #1 으, 툃 단, 툃 단.
 @1 다른 거네.
 @2 천이 달라.
 @1 재질이?
 #1 툃 단 허여 헤사 허여.
 @2 툃 단 허연.
 @1 아, 이견 툃 단으로 허는 거?
 #1 으, 툃 기지.
 @1 요거.
 @2 어느 게 툃 단이라?
 @1 요거는 무슨 천으로 헨 거파?
 #1 그것도 멩주.
 @1 아, 멩진 멩진디.
 @2 으.
 @1 천이 딱난 거.
 #1 어, 이견 바로 이디서 저 베클에 짠, 옛날에 누에 질랑 헨 멩지, 요건.
 @1 아, 옛날 멩지.
 #1 으, 게난 노리롱허곡 허네.
 @1 요건 이제 새로 나온 거파?
 #1 응, 이견 저건이 옷 임제가 저런 걸 아져완.
 @2 옛날 멩지 가져완?

#1 기지 가져완.
 @1 해도렌?
 @2 그걸 보관하고 잇었다예.
 @1 음.
 #1 으, 옛날 거.
 @2 옛날 멩지, 구멍 내완.
 #1 으, 이디서 누에 질판, 이 동네서 누에 질판.
 @1 아.
 @2 이거 짜투리 남은 거 엇수과?
 #1 엇어.
 @1 어떻 봉가 가보젠?
 @2 으.
 #1 옛날에이.
 @1 음.
 #1 이 동네 사름이 뜰을 장옷을 해주난.
 @2 어.
 #1 시집갈 때 허여 주난. 이걸로 껍죽허곡 몸엔 무신 시령목 헨 안 허난.
 @2 으.
 #1 그 사름이 아전 왕 시령목은 테연 데껴 불곡, 이 껍죽 헤난 제라헌 건 안 허영 헤 도
 렌 헨 허엿저. 이디 나올 거여.
 @1 음, 요건 요거는 따로 또 대수다예.
 #1 이거, 저, 이거 저 짓, 저, 짓바데엔 허여, 이건 짓바데엔.
 @1 음, 이게 짓바데.
 @2 음.
 #1 짓바데.
 @2 음.
 #1 게도 이건 난닝구는 관계 엇어.
 @1 음.
 #1 겨도 저 적삼은이.
 @2 길게.
 #1 혼적삼은이.
 @1 음.
 #1 짓바데 엇이른 혼 싸오지 못허는 거난.
 @1 아, 거난 난닝구에도 짓바데를 허는구나예?
 #1 으, 허여, 이거. 나도 늣 빌영 옛날 허여 오난 이추룩 놓앗어라.
 @1 아.
 @2 음.
 #1 놓아시난 나도 똑 허연 대로 험저게.

@1 그 요기 안네 솔기도 다 요롭게예 다 싸신게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네.
#1 흔 번에 못 현다.
@1 이거, 이거 어떻 해근에 두 번, 두 번 행은에 싸는 거?
#1 두 번, 두 번. 다 두 번 헤사 뉘다.
@1 다 두 번 헤사 뉘는 거? 한 번에 그냥.
#1 이견 산바위난 두 개 부짱 흔 번에 뉘곡, 산바윈.
@2 음.
@1 이.
#1 저견 죽은바위난 두 번, 저 흔 번에 못 현다.
@2 음.
#1 흔 번에 허민 올 풀어정 그랑그랑헤영 안 뉘.
@2 음.
@1 이디가 산바위, 이디가 죽은바위?
#1 으.
@2 음.
@1 죽은바위가 올 풀어지는 디?
#1 으, 올 풀어지는 디.
@2 짤른 디, ㄹ새질헌 디예?
#1 으, ㄹ새질헤 부난.
@2 음.
#1 옷 너비로 허면은 이 품이 너미 널런 안 뉘니깐.
@2 음.
#1 이거, 이견 그냥 옷 너비라이.
@2 음.
#1 요디서 요디.
@1 요기서 요긴 천 그 옷 너비.
#1 계난 이거 진동알이렌 현다. 진동알은 트로 헤야주. 품이 너미 널런 아니 뉘어. 두 곱
다 허면은.
@1 계난 요디가 진동알?
#1 으.
@1 요기까지? 아님 요디만?
#1 그 알러레, 그 진동.
@1 아 요기.
#1 어.
@1 요기가 진동알.
#1 어, 진동알이렌 곤나. (기침) 옛날 말로 진동, 진동알.
@1 음.
@2 진동이 어디, 뉘짜?

#1 몰라, 진동이.
 @1 여기가 진동. 여기가 진동.
 #1 이것이.
 @2 어, 진동인데 진동. 아, 여기 진동.
 @1 알.
 @2 예.
 @1 여기, 이디도 배알이렌 헤여?
 #1 이거 배알.
 @1 이디 배알예.
 #1 소미 배알.
 @2 모든 다 배알예.
 #1 배알.
 @2 다 소미 배알예.
 #1 으, 적삼이나 저구리나.
 @2 다 소미 배알.
 #1 으, 배알.
 @2 으.
 @1 여긴 소미. 여긴 배알예?
 #1 으.
 @2 으.
 @1 소미 배알이 따로 잇는 건 아니지예?
 #1 이던 소밋부리.
 @1 이던 소밋부리.
 #1 요건 배알.
 @1 요건 그냥 배알예.
 #1 으, 배알이엔 허민. 요디, 요디로 다 간주허주, 생각허주.
 @1 음. 이 골룸도 뭘 위에 골룸 뭘엔 곤곡, 밑에 골룸 뭘엔 곤곡 험니까?
 #1 아니.
 @1 건 아니예?
 #1 으, 아니.
 @1 음.
 @2 이, 이거는 지레기 다 똑거치 허는 거?
 @1 어느 거 길곡 찌르지 안헤?
 #1 아이, 똑ㄴ치 헤도 뉘곡. 또 흔 쪽은 진 걸로 두 개 허여 뉘 흔 쪽은 영 즐라, 요만이 즐라도 뉘곡.
 @2 즐라도 뉘고예, 예.
 #1 ㄴ따도 뉘곡.
 @2 ㄴ따도 뉘곡.

#1 으, 난 이거 장옷 겹죽 해난 거, 저, 미시거 동전 해난 거영 저, 테기 남으난에 이 사
름 거난에 요 헛, 그걸로 헛주. 요 안, 요 안 현 거영 ㄱ튼 거게.

@1 음. 그거 테기 남은 거엔 끝습니까? 이거 흐끔 허당 짝 남은 거를.

@2 짜투리 남은 거.

#1 어, 짜투리 남은 거.

@1 걸 테기 남은 거엔 끈는구나예?

#1 어.

@1 음.

#1 테기, 옷 몰던 테기 조금 남안, 영 허주게.

@1 아.

#1 옛날 말로.

@1, 2 으.

@2 그거 좋은 거, 옛날 말.

@1 하하하.

@2 예.

@1 잘 개서 놔주십시오.

@2 예.

적삼

@1 그다음 적삼 보겠습니다.

#1 으, 적삼.

@1 여자, 여자, 여자 적삼.

#1 으, 여자 적삼.

@1 으.

#1 영, 영 해근에 짓 잘 베려지게.

@1 음, 역시 전문가.

@2 하하하.

#1 짓 잘 베려지게.

@1 짓 잘 베려지게.

#1 으.

@1 이걸 일름이 그냥 적삼?

#1 적삼.

@1 음, 거난 속에 넝구 입어난 다음엔.

#1 이거.

@1 적삼 입는 거예?

#1 으, 이 적삼에 저구리 흐디 끼와근에 흠치 입져라.

@1 아.

#1 저, 장의사가.

@1 예.
 #1 두 번에 안 입져.
 @2 으.
 #1 혼디 끼왕 막 흙치, 혼디 끼왕 허여.
 @2 계난 넌닝구가 이 지레기가 길다예.
 #1 으, 흐끔 질어.
 @2 계민 넌닝구 입영 치마로 입어냥 이거 위에 끼워 볼 거?
 #1 으.
 @2 예.
 #1 난닝군 지레기 지난 요레 허난에 치메 난닝구 우터레 영 행 치메.
 @2 무꺼 볼 거.
 #1 입져 불주기게.
 @2 으.
 #1 저구리치메 저구리영 적삼은 베짖디 나오게 허곡.
 @1 예.
 @2 으.
 #1 입질 때.
 @1 음.
 @2 맞아, 맞아.
 @1 이거 적삼에 요것도 이름도 곶아 줍서, 삼춘.
 #1 이, 이름은게. 이건 요건 밧섭.
 @1, 2 응.
 #1 요, 요건 안앞섭.
 @2 응.
 #1 안앞섭.
 @1 예.
 #1 앞섭인디 안넛 거엔 허는 소리 안앞섭.
 @1 아.
 #1 요건 밧섭.
 @2 응.
 #1 요건 짓. 동전, 배알, 예, 저 도련.
 @1, 2 응.
 #1 배알.
 @1 응.
 #1 소밧부리.
 @1 응.
 #1 그거주게. 또 이진, 이거 짓바데. 이거 푹 짓바덴 헤사, 적삼엔. 꼭 짓바데, 이추륙.
 @2 응.

@1 부치지 안허네, 아까 건 다 부쳐선게마는.
#1 뭇 줍지 안헤.
@1 으, 뭇 줍지 안헤.
#1 으, 저거 낸닝구 주워도 이건 뭇 줍지 안헤.
@2 뭇 줍지 안허여.
#1 적삼은 절대, 남자 거고 여자 거고.
@1 양착 다?
#1 다, 다.
@1 양착 다.
#1 다 이추록 구멍나게 헤여.
@1 아, 경 헤야 혼이 다 담아진다고.
#1 혼이 싸 온다. 혼이 싸 오는 거난.
@1 응.
#1 적삼은 경 허는 거여. 옛날부떠 우리 어무니 헐 때부떠 옛날부떠 다. 적삼은 으, 이거
짓바테로 영 허는 거.
@1 짓바테 보이게 찍어 주세요.
#1 요디 영, 요걸 영.
@2 뭇 줍지 안헌다.
#1 뭇 아이 주워.
@1 줍지 안헌다고.
#1 줍지 안허여. 요디만 줍곡, 이, 이레 부찌시네. 이, 이디 강 부찌시네. 이디 강 영 부
찌시네.
@1 응.
@2 어깨 선에.
#1 영 부찌근에.
@1 한번만 뒤집어 보게예.
#1 하이고 킴킴이 빨저, 느네.
@2 와, 알겠다, 안 부튼 거 알겠다.
@1 으, 여기 안 부치고.
#1 요거 고망 난.
@1 아이고, 아이고.
#1 고망 나신게, 이거. 아이고, ㄱ새 껏텅이로 어뎡 행 어씩 헤엇저.
@1 아이고.
#1 난 이거 몰라신디 이제 이거 검은 것에 헤난 알아점저.
@1 응.
#1 이거 꼭 부찌.
@1 으, 이, 이건 무신거 이던 무사 요건 부찢?
#1 짓바테엔 허여.

@1 아, 요건, 젓바데.
 @2 젓바데.
 #1 으, 젓바데.
 @1 겨드랑이에, 저쟁이에 잇덴 젓바덴가?
 #1 으, 젓바데.
 @1 어.
 #1 요건 젓바데 적삼엔 꼭 낚사 뒤어.
 @2 으.
 #1 이거 적삼은 남자 거고 여자 거고 똑 이추룩 이거 셔샤.
 @1 어.
 #1 저 포목점에 강 굿 허젠 허난.
 @1 응.
 #1 굿 허젠 허난 적삼을, 혼적삼을 허젠 사 오랏젠, 서귀포 사름이.
 @1, 2 응.
 #1 사 오난 푸는 건 싸구려난에 이, 이 짓바데를 아이 낫어렌. 아이 노난 우리 집이 아
 정 오란, 오란 짓바데 낚 가라.
 @2 하하하.
 @1 짓바데 따로 낚 간.
 #1 짓바데, 사난 짓바데 엇인 거엔 허멍.
 @1 응.
 #1 굿 허젠 허난 짓바데 허여 오렌 헛젠, 심방이.
 @1 응.
 @2 아.
 #1 짓바데 헤사 혼 싸오는 거엔. 쟁 오라 헤여 가라, 서귀포렌 허멍.
 @1 아.
 @2 게민 이거 짓바데 놓젠 허면 다 튼영 새로 헤야 뉼 건게.
 #1 튼영 새로 헤사주게.
 @2 응.
 #1 튼영은에 이추룩 허질 안헛어라게. 푸는 옷은 그냥 영 주원 내불엇어라게.
 @2 뜯어 불젠 헨.
 #1 아이, 그건 고름 들젠 허난 약허난, 바데 논 거.
 @1 바데에다가.
 @2 응.
 #1 저구린게, 아이고 적삼이난, 웨겍이난.
 @1 아, 웨겍은 적삼이고.
 #1 어, 저구리, 저구리.
 @1 으, 저고린 두 겹은 저고리구나예?
 #1 접저구리, 두 곱 헤엇저, 영. 저구리, 접저구리엔 허여.

@1 접저고리.

@2 게난 하난 건 웨저고리 싯고, 베로 허는 것들은? 아니?

@1 웨저구리도 셔? 흔 겹으로 현 거.

@2 엇어?

@1 흔겹으로 허민 무조건 적삼?

#1 으, 웨겹으로 허민 적삼, 무조건.

@2 어, 이해.

#1 베고 광목이고 멩지고.

@2 예.

#1 웨겹은 적삼.

@1, 2 응.

#1 짓바데 저 젓바데 문 짝젠 허난 뒤집언?

@1 예.

#1 아이고, 콤콤이도 험저.

저고리

@1 자, 그다음 이거는?

#1 저구리.

@1 이건 저고리.

#1 어, 이거 저승옷 헤여근에 스몯 멧 해 즘잔 거 문 풍산허멍 베와 주지 아냐나, 누게.

@1, 2 게난.

#1 당추 아이 베와 준다. 누게가 그걸 문 풍산허멍 베와 주느니.

@2 고맙수다, 고맙수다.

#1 난 서른셋에 아프난, 나가 아프난.

@1 응.

#1 우리 어멍 나 죽으카 부텐.

@1 응.

#1 멩지 치메도 두 개, 소게 낵 저구리, 문 저승옷 헤 오란. 휘양은 검은 거, 검은 거 사 오곡.

@1 응.

#1 죽으카 부텐 허난 이거 서른셋에 아픈 때, 이거 멧 년이고, 저승옷 헤연.

호상

@1 아까 호상을 휘양이렌 곱읍니까?

#1 휘양이엔 현다만은 것ㄴ라 휘양이엔도 곱곡, 저.

@1 호상이엔도 곱곡?

#1 호상이엔 현다, 옛날 말로 호상.

@1 거 검은 색깔로 현 건 다 검은 호상.

#1 으.
 @1 이, 이거는 요즘에는.
 #1 이젠 다 흰 거.
 @1 아 이젠 검은색으로 안 허는구나예?
 #1 다 흰 호상, 이젠.
 @1 응.
 #1 그래 다 내볼라, 다 개어난 대로 다 나가 개사주. 느네 잘 못 갠다.
 @2 예. 계난 그때 서른 몇 설에 어무니가 해 준 것도 가지고 잇고?
 #1 이제도 ㄱ만이 서. 아뭇치도 아녀, 나 죽으면 입젠 ㄱ만이 나뒀주게.
 @2 그거 우리 베와 쥐도 뵈 거?
 #1 아이고 배우지 못한다.
 @2 폐우진 앓고 영 접어진 걸로 한 번만.
 #1 에에.
 @2 예, 예.
 #1 돈 스뭇.
 @2 예, 알앗수다.
 #1 딱 스뭇.
 @1 요건 짓바데가 없네, 저고리는, 예?
 #1 저구리는 그 안네 엇나게.
 @1 어. 다른 건 다 미싱질해신디 요거는 손바느질 헛저? 예?
 #1 손으로 경 현다, 거.
 @2 응.
 #1 안짓, 그디.
 @1 이젠 무신거라고?
 #1 목고데만은.
 @1 아, 목고데.
 #1 으.
 @2 계난 이쪽.
 #1 그디ㄱ라 목고데.
 @2 미싱 박은 거 울로 뒤집은 거.
 #1 으.
 @2 예.
 #1 다 멘들아냥 일로 뒤집엉 마지막에 이거 손으로 영.
 @2 예.
 #1 이렇게 뒤편다게.
 @1 응.
 #1 쟁 이것ㄱ라 목고데엔 현다.
 @1 목고데.

#1 목고데.
 @1 응.
 #1 안짓이엔도 허곡.
 @1 안짓이엔도 허곡?
 #1 으, 안짓은 요것^ㄱ장 다 현 것이 안짓이곡.
 @2 응.
 #1 이건 목고데엔.
 @1 응.
 #1 안네사 무신거 찍을 게 셔?
 @1 아까 목고데.
 #1 하하 목고데.
 @1 안짓, 목고데.
 #1 목고데 문^ㅁ딱 해^ㅅ냥 울로 뒤집^ㅅ엄세.
 @1 아, 요렇게 뒤집어.
 @2 여기 이렇게 다 박아 ^ㅅ냥예.
 #1 으, 이건 마지막 허는 거.
 @2 맞아.
 @1 그다음에 이것도 이디 짓.
 @2 응.
 @1 요건 동전.
 #1 으게, 것 다 적삼이나 마찬가지로.
 @1 요거는 아까.
 #1 맞섭.
 @1 맞섭.
 #1 안앞섭.
 @1 안앞섭.
 #1 도련.
 @1 도련.
 #1 짓.
 @1 짓.
 #1 동전 문.
 @1 으.
 #1 이축.
 @1 요건 딱 다른 소매 부^ㅅ쨌수다.
 #1 다 일반, 이건 저.
 @1 요건 다른 거 부^ㅅ천? 다시 부^ㅅ천?
 #1 아이구, 저구리는 더 질^ㅅ게 해사주.
 @1 아, 질^ㅅ게 해야 ^ㅅ똤어?

#1 으, 적삼은 꽃동 아이 부짱 험다, 그냥.
 @1 응.
 #1 이거 흐 넙이 부찌민 그냥 허꼭 적삼은. 쫄르게 입는 거난.
 @1 아.
 #1 경허꼭 이디 쫄라도 뉘난 이 저구리보단 이 안네 거 나오면 안 뉘는 거주게.
 @1 예, 계난 이거 흐뵂 길게 허젠 부친 거구나예?
 #1 으, 길게 허젠.
 @1 이거 꽃동?
 #1 꽃동이, 이거, 이거 영 헤사 제라헌 거라.
 @1 응.
 #1 저거 적삼은 막 즐른다, 입으민 요만인 험다.
 @1 아, 요거 색깔 안 놔도 요롱게 다른 천으로 허민 꽃동이렌 곱읍니까?
 #1 으, 꽃동, 꽃동저구리.
 @1 예, 색깔 다른 색깔 놓으면.
 #1 옛날, 다른 색깔 꽃동저구리, 옛날은 막.
 @1 예, 예.
 #1 아으텔이영 다 행 입젓주, 꽃동.
 @1 으.
 @2 계난 이 폭이 족으난 어쩔 수 엇이 덧대게 뉘난 넣는 거 아니면 일부러 넣는 거?
 #1 폭이 좁앙.
 @2 폭이 좁으난예, 아예 길게 못 강, 예, 예.
 #1 으, 폭이 좁앙.
 @2 응.

치마

@1 자, 그다음에 바지, 아니 치마.
 #1 으, 치마.
 @1 치마 허젠 허민.
 #1 저 요 장갑은?
 @1 장갑부터?
 #1 으, 장갑부떠 허카?
 @2 예.
 #1 이 저구리에 헤, 저구리에 든 거난 장갑부떠 헤사.
 @1 으.
 #1 버금은 치메 두 개. 이거 영 보민 첨 아이고. 이 옷 입제 보민 스뭇 욱험직허다.
 @1 아.
 @2 아니, 가기 전이난 어땡 안 헤.
 #1 계난, 계난 속숨험.

@1 속속혜근에.

#1 옷 입제 보민 스뭇 세기 사름 왕 자랑헬젠, 옥헬직허다.

@1 거꾸로 뒤집어 봐.

#1 꺼꾸로 뒤집으면 저 친이영 다 봐질 거여.

악수

@2 장갑은 친이 들려났구나.

@1 장갑에 친은 무사 드는 거?

@2 무끝 거.

#1 무꺼야주게.

@1 아, 장갑한 다음에 친을 이렇게, 으.

#1 장갑친은 더 질게 헬곡 헬다게.

@1 아.

#1 영 흐쓸 색 떨어지게 허라게.

@2 아 색 떨어지게.

#1 어, 경혜사 양착 뚜렷허게 알아질 거 아니가.

@2 으.

@1 저건 이름 뭐엔 곶아? 장갑은?

#1 장갑이엔 허주, 무신.

@1 장갑이엔 헤?

#1 으, 으.

@1 그 뭐 악수 영 허는 말도.

#1 악수. 그건 옛날 악수.

@1 옛날 말이 악수.

#1 으, 악수. 우리 어무닌 친 돌아난 악수 허연 갓저.

@2 친 들안 악수 허연.

#1 우리 어무닌 옛날에 저거 못 헬 땐 악수 경.

@1 악수는 저렇게 나눠지지 안헤? 버버리장갑처럼 안 뉘곡 하나로 뉘 잇어?

#1 하나로, 녀작허게 허영 친 돌아근에.

@1 응.

#1 버금은 치메 두 개.

속치마

@2 버금은 치메 두 개, 속치메부떠 줍서.

#1 으, 속치메.

@2 속치메영 곶치메영 영 뵙 어떻 알아질 거파?

#1 지러기 즐르고이.

@2 속치메가 지러기 즐라.

#1 으.
 @2 폭은?
 #1 폭은 이거 여섯 폭이구이.
 @2 어, 속치메 여섯 폭.
 #1 이거 베꼈디 거 지러기도 길곡.
 @2 지러기도 질곡.
 #1 으답 폭이.
 @2 으답 폭, 예.
 @1 폭이 더 넓구나.
 #1 치메, 치메 두 개 ㄱ짜 낱 찍어사. 치메 두 깰 ㄱ짜 낱 찍어사 헐 거 아니? 아이고.

아래웃

@1 이거 치멘 요기는 뭐엔 곤는 말 엇수과? 요디.
 #1 주름.
 @1 요건 주름이곡, 요 위엿 거.
 #1 허리.
 @1 요건 허리.
 #1 으.
 @1 요거는? 고름? 친?
 #1 곱, 곱계.
 @1 요거.
 #1 치멧곱.
 @1 치멧곱.
 #1 으, 치멧곱이엔 허여.
 @1 으, 치멧곱이엔예?
 #1 어, 흐쓸 알 벌어지게 노라.
 @1 알 벌어지게 노렌. 하하하.
 @2 네.
 @1 속치메도 어깨에 안 허고 그냥 허리에 허는구나예?
 #1 어게, 허리.
 @1 요즘 속치마는 무사 다 허리, 어깨마리 행 어깨에 험니께.
 #1 입는 건 경 허주만은 저승엔 안 허여.
 @1 아, 끼우기 힘드니까, 으.
 #1 옛날부떠 이추룩 허여, 저승웃은 치메 허리.
 @1 이거 주름은 허젠 허민 어뎡, 어뎡 행 만드는 거마씨?
 #1 손으로 영영, 손으로.
 @1 손으로.
 #1 어, 손으로 저, 싹 꿰엄 바놓 손으로 다 맞져사.

@2 이거 손으로 행 시침실, 시침바농질해 농곡 손으로.
#1 으.
@2 경 행 미싱질 박을 거지예?
#1 어, 경 행 박는 거.
@2 예.
#1 경 허는 거여.
@2 예.
@1 이게 간격이 일정허잖아예?
@2 으, 비슷.
@1 거 다 눈짐작으로 그냥 허는 거마씨?
#1 으게, 눈짐작으로. 흐 치쭈 차이 잇게 헨다게.
@1 흐 치민 어느 만이 뉘는 거?
@2 요거 성냥깨비 하나?
@1 요거? 요만이?
@2 으, 오 센치? 사점[사점] 몇.
#1 으, 곱살 하나.
@1 곱살 하나예? 응. 폭은, 아까 폭은 저건 여섯 폭, 이건?
#1 으답 폭.
@1 으답 폭. 두 폭 차이구나예?
#1 베갯던 건 지러기도 질곡.
@1 으.
#1 폭도 더 농곡.
@2 한 폭에 얼마? 찾아 볼게요. 하하하.
@1 흐 폭이 몇 센친지.
#1 흐 폭이, 흐 너비.
@1 흐 너비.
#1 흐 너비씩 헨 거 여섯 개, 거 족은 건 속치메, 이건 으답 개.
@2 치마가 예쁘다.
@1 똑같은 건데 왜 예쁜 거야?
@2 걸치마가 더 예쁜게.
@1 예빠야 정상이지.
@2 히히.

속웃

@1 밖에 입는 거여서. 자 치메 다 헤시믄 이제 그다음 거 허카마씨? 다음에는 무신거 입질 겨우파?
#1 다음엔 바지영 살마다영 고장중의.
@1 응.

#1 아래게.
 @1 이거 입고 입었어야 했는데.
 @2 괜챦아요, 알고 있습니다. 맨 속에 입는 거부떠, 팬티부떠.
 @1 팬티부떠.
 #1 팬티부떠?
 @2 예, 맨 속에.
 #1 자, 요거.
 @1 요거 팬티.
 @2 어머 진짜 팬티네이. 끈 잇는 게 앞에?
 #1 어, 앞이.
 @2 예.
 #1 끈도 영 베끼딜 나오게 허라.
 @1 그니깐 못 나오크라, 졸란. 나중에 데쌍허든지 해야 뉘크라.
 #1 영 베끼디 흐썰 나오게 허민 뉘어, 경허민 뉘어.
 @1 계난 이, 이진 무신거렌 곶아?
 #1 뽀스엔 허주.
 @1 뽀스엔 허여?
 #1 옛날 제주시에 나 보레 간 뽀 그 할망 속곳 험서라, 속곳.
 @1 어.
 #1 저승옷 속곳.
 @1 속곳예.
 #1 이추록 안 험서라.
 @2 그면 그냥 뽀스렌 곶앗수과? 팬티엔?
 #1 이진 뽀스고, 옛날 속곳은 뽀나주게, *** 허연.
 @2 맞아.
 #1 옛날 속곳은 이디 막작허곡 툃나, 툃나.
 @2 어.
 #1 당추 이추록 안 허여.
 @1 아, 옛날에는 그.
 #1 줌녀.
 @1 줌녀들 허는 그 속곳으로 헛는데.
 #1 으.
 @1 이젠.
 #1 시에 간 보난 그 할망 경 험서라.
 @1 거난 시엿 할망은 속곳추록 허는데, 삼춘은 무사 이걸로 험수과?
 #1 이제 어디 속곳 입는 사름 잇니?
 @1 하하하. 아.
 @2 이, 이거 살마다렌 안 불르고?

@1 살마다는 그다음 게 살마다?

@2 아, 아니 이게 살마다.

#1 이걸 소곶에 거고 버금엔 이거.

@2 중의.

@1 저건 뽀스나 살마다우다만은 뭤엔, 옛날에 삼춘 곶아난 말은 뭤우짜?

#1 옛날은 소중기엔 헛주게.

@1 아, 소중기.

@2 소중기, 계난 나중에 허젠 허난 뽀스엔 불림신게.

#1 으, 이젠 뽀스엔 험세. 이추록 멘드난 허곡. 소중긴게 속곶ㄹ라 소중기엔 허주.

@1 응.

@2 맞아.

#1 즘네 입는 건 소중기난.

고장중의

@1 응, 이걸 이름이 뭤?

#1 이거 고장중의.

@1 고장중의.

@2 오른쪽이 터젯수과, 웬쪽이 터젯수과?

#1 이, 이.

@2 예.

#1 오른쪽으로 터전. 이 곶 이거 오른쪽더레 허는.

@1 어.

#1 이거 고장중의엔 허여.

@2 으, 계민 야의도 앞이 곶이 긴 디, 둘렁 오는 거?

#1 응.

@2 영 한 바퀴 둘렁 이 앞이서 무끌 거?

#1 으, 계난 이거 입질 땀이 이것도 이쪽에 터지고, 이것도 이쪽에 터지민 흐디 끼왕 입 지주게, 이걸 이 안터레 끼왕 입지민 곶 두 개 흐디 쥬영 영 행.

@2 계난.

#1 헤 불어라게.

@2 터진 곶, 앞에 곶이 길어요.

#1 으.

@2 앞에 곶이 뒤로.

#1 ㄴ단쪽, ㄴ단쪽에 이, 이거 아구아질 내난, 아구아질이엔 허여, 이, 이거.

@2 아구아?

#1 아구아질, 옛날 말.

@1 예? 다시 곶아 봄서, 무신거라?

#1 아구아질.

@1 어느 게 아구아질 현 거라?
#1 이, 이.
@2 입 벌렸텐 말 같은데.
@1 으.
@2 아구아?
@1 잠깐만예, 요거 요렇게 똥 거를 똥엔 다시 곶아 줘서.
#1 아구아질. 옛날 말로 아구아질. 하하하.
@1 으, 아구아질 어떻 헛텐 곶아?
#1 이젠 아구아질 어딜로 내어? 영.
@2 아.
@1 아구아질 어드레 내어? 영 곶아?
#1 어딜로 내어?
@2 어딜로 내어?
#1 어느 쪽으로 내어, 현 말.
@1 어.
#1 아구아질, 요것가 아구아질.
@1 아구아지?
#1 으, 아구아질. 옛날 말, 우리.
@1, 2 아구아지.
#1 아구아질. 옛날 소중기 입으면이.
@1 응.
#1 이거 옛날 식으로 이디 터주왕 헤시네.
@1 응.
#1 계난 이젠 막으난 살마다, 막앙 허난, 살마다로 막 다 막앙 험세.
@1 응, 옛날 험 땀 살마다도 안 막고, 이것도 다 안 막아?
#1 아이 막아.
@1 응.
#1 소중기 입으면 이거 아이 막아. 터주왕 영 헤씩 앓이민 갈라지게.
@1 이거는?
#1 난 갈라지게 허난에 옛날 현 거난 갈라지게 헤영, 우리 어떻 헤와시난 난 영 끼왕 주
워 빗저.
@1 하하하. 아, 옛날 삼춘 거는 갈라져났구나예.
#1 갈라전.
@1 응. 이젠 이름 미신거라마씨?
#1 바지.
@1 그냥 바지.
#1 으, 요 웨겍은 고장중의, 요건 바지.
@2 아, 고장중의는 웨겍이과?

#1 으, 웨겁.
 @2 예.
 #1 적삼처럼 웨겁.
 @2 예.
 #1 요건 두 겹 행 저구리추룩.
 @1 저고리추룩 두 겹.
 #1 바지.
 @2 저것도 다시 펴야겠다. 길이 같이 봐야돼겠다. 길이도 트나예?
 #1 길이도 트나, 이견 막 즐르게 허곡.
 @2 막 즐르게 허곡예.
 #1 이견 막 질게 허곡.
 @2 예, 계난 요렇게, 계난예 이.
 #1 건 즐르게 허곡.
 @2 즐르게 허곡.
 @1 두 겹이니까.
 @2 으, 바지 두 겹. 적삼이랑 저고리 하는 것처럼.
 #1 으게.
 @2 으.
 @1 야인 아까 저, 저고리 헐 때추룩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딴 어디파? 어디로 뒤집을 거파? 데싸는, 데쓰는 디가?
 #1 아이, 데쓰는 디, 허리. 허리가 말짜에 들암주.
 @2 으.
 #1 이거.
 @2 맞아.
 #1 허리가 말짜에.
 @2 맨 말짜에 들 거.
 #1 맨 말짜에 이거.
 @2 이거는 밑엿 거 다 행 뒤집으난.
 @1 어.
 @2 으, 말짜에 이거 달 거.
 #1 말짜에, 제일 말짜에 허리. 이견 웨겁이난 원 뒤집고 웨곡 헐 나위 엇주.
 @2 응.
 #1 거난 이거 즐르네, 이거 보라.
 @2 예.
 @1 으, 길이가예.
 #1 즐라.
 @1 같이 잇으면 구분 안 될 거 같애, 따로 놔야 될 것 같은데.
 @2 좋아, 길이.

#1 옛날 소중기 속곳행 헐 때, 제주시에 강 보난 속곳 험선게, 가난.
 @1 옆에 거 보이려나?
 @2 그 정도 좋아요.
 #1 강알 영 헤씩 별겨진 바지, 고장중의도 헤씩헌 거.
 @1 응.
 #1 옛날은 경 헤난. 이젠 다 강알도 막고 이거 뺌스.
 @1 아, 이 바지는 그 뭐헐 때처럼, 사복허곡 상복허곡 큰셋복, 족은셋복 안 허곡 그냥 멘듭니까?
 #1 이?
 @1 바지는 만들 때에 그냥 저고리 헐 때에는, 예? 상복허곡 셋복허곡 막 이렇게 나눠서 허던데, 이진 그렇게 안 헤?
 #1 상복?
 @1 으.
 @2 여기 폭, 옆에 영 폭 두곡, 요기 농곡. 재단, 므를 때, 므를 때. 이, 이진 그런 거 엇어.
 @1 응, 그런 거 엇어, 그니깐.
 @2 이진 앞뒤로만.
 #1 상복 엇나, 상복 엇이 이거 남저 바지나 상복 잇주. 요디도 혼 복이곡, 요꺼정 헝 요디도 요거 혼 복.
 @2 아.
 @1 아, 남저 바지만 허는 거파?
 #1 요디 거 영 툃안에.
 @1 어.
 #1 요레 영 부짱, 밋을 영 부찌시네.
 @1 응.
 @2 요깃 거 툃엉.
 #1 ****기.
 @2 이 폭에, 으.
 #1 어, 픉는 바진, 픉는 바진 이거 아이 부짱이.
 @1, 2 응.
 #1 곧짜허게 고쟁이추룩 헛어, 사온 옷.
 @1 요, 요거 밋이엔 곱읍니까?
 #1 밋, 밋.
 @1 아.
 #1 밋 부찌시네.
 @1 밋 부짱 거.
 #1 밋 부찌난 요디 거 툃 거허곡, 요디 거 툃 거 합청 요거 영 멘든 거.
 @1 아.

#1 요것도 또 조그만이 밧 부껴시네.

@1, 2 응.

#1 영 쏘곱에 입는 거난 이것처럼 너르게 안 허여. 이젠 푸는 바지, 푸는 바진 곧짜허게 밧 아이 부짱 바지산디, 뭐 옷산디.

@1 하하하.

#1 옷 답지도 아녀라.

@1 어.

#1 급하게 영장나난 우리 켤당네 급허게 죽으난 확 사온 거 보난.

버선·신발

@1 저거 다음에 이제.

@2 우이.

@1 이거.

@2 어, 신발 신으카?

@1 아까 신발 안 헨?

#1 신발은 질.

@1 아까 저거. 보선이영 신발?

@2 응.

#1 보선은 신 보선에 혼디 신은 부뜨는 거난게.

@2 보선 먼저 짚고 신 짚을게요.

#1 게, 신도 클러근에 혼 착씩 별겨낭 허라.

@1 예.

#1 장갑 허는 거처럼.

@1 요것도 끈은 다른 천으로 헛다예?

#1 그 사름 그 장옷 안네 남으난 짜투리 남으난 헨 거주.

@1 그 다른 때는 원래 다른 걸로 헛니까? 그 사름 안 주민 어떻 허여?

#1 다 이런 기지로, 이런.

@1 똑 ㄱ튼 기지로.

#1 으, ㄱ튼 걸로 허주.

@1 아.

#1 이거 저, 겹죽 허여단 허여난 걸 안 허난.

@1 응.

#1 곱 허여 난 것도 남곡, 동전 헤난 것도 남곡 짓 헤여난 거 남으난.

@1 응.

#1 여유 이시난 이것들 친덜 헤시네게.

@1 응.

#1 경 안 허믄 이 기지가 하영 들 거주게.

@1 아. 저 신발에도 앞코지영 뒤치기영 이렇게 이름 다르게 불릅니까? 어디가 앞드레 갈

철이우파?

#1 앞은 코젍이엔 허주.

@1 코젍이.

#1 어, 보선도 앞을 코젍이라고.

@1 아 요긴 코젍이엔 허곡.

#1 요건 코젍이, 저건 뒤치기.

@1 뒤치기에, 요딘 뒤엔 곤는 거 엇수과?

#1 건 애틡.

@1 요게 애틡 아니?

#1 그게 애틡.

@1 이건 애틡. 그딘 엇어?

#1 몰라.

@2 뒤수다, 이제 우에 입을 거.

#1 이제 저 여자 장옷, 여자 장옷. 이거 그 안네, 겁죽해난 거로 안 헤시네.

@1 안 헛다고.

#1 어.

@1 원래 거를.

@2 어.

#1 이거 어머니 허연 씨집간 때 저 몸에 놔 놓곡 행 허여 줘난.

@1 음.

#1 씨집간 때 입어나난 막 버물곡 투색허곡 이추룩 헤여서라만은.

@1 이딘 이거, 으, 안쪽에 이신 거구나.

#1 안 이시네.

장옷

@1 예, 예. 요것도 안네. 요건 장옷예.

#1 장옷, 여저.

@1 여자.

#1 옷 입진 다음에.

@1 제일 마지막에 입질 거?

#1 마지막에 입지는 거.

@1 응, 이거 결혼헛 때도 이거 입는 거? 장옷.

#1 옛날엔 다 입엇주게, 이젠 면사포 허난에.

@1 예.

#1 옛날에 다 하난 어명이 주곡, 하난 씨는 건 늡의 집 거 빌영.

@2 빌려당, 으.

#1 다 경헛저, 다 빌려주곡 다.

@1 예, 이 장옷에도 여기 따로따로 부르는 이름 흑시 이수과?

#1 엇다.
 @1 그냥 요건, 요건 짓.
 #1 저구리 ㄱ뜨게 짓, 동전.
 @1 짓, 동전.
 #1 으게.
 @1 이거 앞에 곱, 이건 곱?
 #1 곱.
 @1 이건?
 #1 저건 미엔 허주.
 @1 아, 미엔 곱습니까?
 #1 미, 미, 요건 미엔 허곡.
 @1 어, 미가 뜨난 거네. 다른 것보다 저고리엔 없었던 거예?
 #1 어. 미가 뜨나, 미가.
 @1 응, 요 고름은 무신 고름이엔 곱습니까?
 #1 젓고름.
 @1 젓고름.
 #1 젓고름이엔 한다.
 @1 젓골름.
 #1 젓골름, 젓고름.
 @1 응, 젓고름.
 #1 적삼 거 어떠한 고망 낮어라이.
 @1 아, 아까, 응.
 #1 ㄱ새가 느실아 노난 어썩 허민, 나 몸빼도 드리 그차져.
 #1 아이고, 버물다. 옷 그레 가문 버물켜, 그디 다 버물어신게. 거 밀어 부난 버물엇저.
 멍심허라, 옷 버물민. 늬의 거라부난.
 @1 예. 이진 장옷을 허젠 허민.
 #1 멍지 흔 빌 들어.
 @1 멍지 흔 빌.
 #1 어, 안팓겓.
 @1 안엇 거영 박에 거영 다 합치민 흔 필은 잇어야 됴는 거예?
 #1 으게, 안네만 스무 자, 벳깃디만 스무 자 경 됴는 거.
 @1 흔 필은 멍 자?
 #1 마흔 자.
 @1 흔 필은 마흔 자.
 #1 이십 센치가 마흔 개.
 @1 응. 이, 이게 젓골름.
 #1 으, 젓고름. 거 그거 가르청사 칩영 뒹헐 거여?
 @1 아니, 속에도 어떻 됴신지 불려고. 장옷 헐 땀 조심헤야 됴는, 뒹, 꼭 헤야 됴는 거

나 뭐 이수과?

#1 미시거?

@1 장옷 헐 때 이걸 꼭 해야 돼어, 이런 거 잊어?

#1 아니여, 아무것도 잊어.

@1 응.

#1 저구리, 적삼 헐 때나 마찬가지로.

@1 예, 아까처럼 여기도 깃바데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니지예?

#1 으, 깃바데 엇다.

@1 아까 이디도 목고데?

#1 목고데 저 말짜에 뒤집어근에 허는 마지막허는, 목고데.

@1 으, 이디도 목고데는 잇고예? 여기예? 나중에 손으로 손바느질로 혜근에 마무리 허는 거?

#1 으게, 손바느질혜근에 마무리허는 거. 아이고 바농질허는 집이난 부엌이고 어디고 그 자 헛헛헛 아이고, 싹 꽃뎡이만.

@1 예, 삼춘 몸빼에도 막 부뎡수다.

#1 으게, 막 부뎡, 막 부뎡, 드리 털당 봐도 부뎡.

천금 지금

@1 그다음에 아까 요거 주뎡기?

#1 으, 주머니. 요, 천금 지금.

@1 천금 지금도 잇네.

@2 나 못 개쿠다, 삼춘.

#1 어, 어. 못 갠다게.

@2 개본 사름이 개는 거주.

#1 나 이거 이제 개어난 대로 이제 스뎡 시간 잡아 먹으뎡 개어 놔살 거. 임제 오란 아저가렌 허젠.

@1 다음에 아까 이거. 어느 게 천금이고 어느 게 지금?

#1 천금이 우잇 것이 천금일 거라게.

@1 거난 뭐가 달라?

#1 이거, 이거, 너른 거.

@2 옆에, 옆에 폭이 넓은 거.

#1 너른 거, 이불, 이불.

@2 깃이 넓은 거.

#1 이불, 이불.

@2 어.

#1 폭이 널러, 이거. 지러기는 ㄴ뜨꼭.

@1 아, 폭이 널러.

#1 폭이 널러, 널러.

@1 이게 우엿 거예?
#1 어, 우엿 거.
@1 이건 천금, 우에 더프는 이불인 거지예?
#1 어.
@1 음.
#1 천금.
@2 이것도 색깔 달리행 하나지 안헨? 색깔 안 놔난?
#1 전인.
@2 붉은 거, 푸린 거.
#1 응, 붉은 거, 푸린 거 막 헛어. 옛날은 경 헤신디, 이젠 경 안 헤.
@2 으.
#1 다 희게만.
@2 옛날에는예, 예.
#1 이젠 희, 희게만 헨다.
@2 계난 그것도 이불은 붉은 거 허곡, 저기 바닥에는 푸린 거 허곡 그런 것도 있지 않
우파?
#1 이불은 푸린 거 허곡, 붉은 건 밑에 요.
@1 요가 붉은 거.
@2 어.
#1 계곡 요, 요것도 붉은 것도 요것만 허주.
@2 그지, 위엿 것만예.
#1 안은 흰 거 허곡 옛날도.
@1 요, 요것만.
#1 으게.
@2 진짜 우리 이불 만들 때처럼예?
@1 어, 이불추룩.
#1 이불, 저, 이불 꺾죽, 요 꺾죽 안 허냐.
@1 예.
#1 너베기가 죽나, 아래 ㄱ는 건.
@1 아. 야인 지금예?
#1 지금. 천금, 지금 허여 어땡 허여.
@1 응, 이것도 옛날부터 잇어난 거예?
#1 옛날부터 셔난. 옛날 소게 놔근예. 난 소게 낳 헛저.
@1 아, 소게도 놔낳수과?
#1 난 옛날에 소게 낳 헛저.
@1 어, 진짜 이불추룩예?
#1 어, 진짜 이불추룩 행 놔뒀저, 난.
@1 어.

#1 나 혜영 갈 거.
@1 하하하. 나 행 갈 거.
#1 옛날이난, 옛날.
@2 거난, 좋수다. 폭신하게 행 가게예.
#1 게메. 죽어 불민 폭신헌 거 알카?
@1 게메.
#1 저디 도복 헐엇젠 허멍 즈깁이 벌어젯젠 고쳐 도렌 현 거 저거 고침신디, 이 임제 거.

오냥

@2 이거 무신 거, 이름?
#1 주머니게, 주머니.
@1 기냥 주머니엔 곱읍니까?
#1 어게, 그냥 주머니.
@1 주머니엔.
#1 주머니 다섯 개 들어, 흔 사름이 꼭 다섯 개, 주머니.
@1 이거 무신거 허는 거파?
#1 발톱에 하나, 요디 하나, 두 개. 이디 하나, 요디 하나, 머리에 하나, 다섯 개 딱 들어.
@1 손톱도 다 깎아?
#1 어, 다 쓰메끼로 다 깎아근에 주머니 하나에 이착, 주머니 하나에 이착, 이거 다 줍저라.
@1 응.
#1 장의사 오란 허는 거 보난.
@2 응.
#1 우리 씨누이 죽언 헐 때 보난.

도복

@1 아, 그다음 저거는 뭐마씨?
#1 이진 남저 거난.
@1 남저 것도 찍어보게마씨.
#1 저 도복 임제가, 이진 죽영 갈 때에 입을 거엔 저건 입영 갈 나우가 엇텐 문 헐엄젠.
@1, 2 응.
#1 게멍 저거 허여 도렌 이거. 이거 도복에 남저 거 이진 남저 거.
@2 남자 도복예?
#1 으, 남자, 남자 도복이라 이진.
@2 예, 계난 어쨌든 속에 바지저고리 다 입저 낱 맨 마지막에 입히는 도복만예.
#1 어, 여저 거뜨민 장옷이주게, 장옷.
@1 예.
#1 저건 남자 거.
@1 가인 이름이 뭐라고?

#1 도복.
 @1 그냥 도복?
 #1 으, 남자 도복.
 @1 남자 도복예. 이진 여자, 여자 장옷이영 뭐가 달라?
 #1 여자 거영 다르지 아녀, 소매만 달.
 @2 완전 넓은 게.
 @1 우머니가 막 넓게 뉘 거?
 #1 어. 우머니가 지난 해염주, 여자 거랑 마찬가지로. 이 미도 이거 미가 뜨나곡. 여자가
 현 건 아주 틀, 이것이 굴룬 거 또 있고, 굴룬 거 영 들곡.
 @1 아, 굴룬 것도 들곡.
 #1 여자 거영 아주 틀림은 허여.
 @1 아.
 #1 기지도 막 여자 거보단 막.
 @1 하영 들 거 닳다예.
 #1 이진 안 없이 웨겍이라.
 @1 아, 이진 웨겍.
 #1 웨겍이라도 서른 다섯 자 들어.
 @1 아까 여자 건.
 #1 웨겍이민 쓰무 자면 뉘주게.
 @1 어.
 #1 안팍 헤여 부난.
 @1 아, 안팍 헤 부난 마흔 잔디. 이진 안 엇인디도.
 #1 큰옷이라고 허여, 큰옷이라고. 남저 도복은 큰옷이엔 헤여.
 @1 응.
 #1 큰옷, 큰옷.
 @1 큰옷은 원래 죽영 갈 때 입는 거 말고 남자들은 또 언제 입읍니까?
 #1 식계멩질 때 입으난 저거 헐언.
 @1 아, 식계멩질 때도.
 #1 으게.
 @1 제지, 제 보젠 허민 입는 거?
 #1 식계 제사헐 때, 절허젠 허민 입는 거.
 @1 아.
 #1 겨도 요즘 사람덜 다 양복테기 그냥.
 @1 응.
 #1 그전이 헤어나니깐, 헤여 달렌 허민. 이진 남자 거라, 이진 남자.
 @1 예.
 #1 남자 거난 이진 굴루이, 이, 이것이 남저 거라.
 @1, 2 아.

#1 업을복이라고.

@1 그게 업을복.

#1 으, 업을복이라고 하여, 이거 업을복이라고 등에 굴룬 거난.

@2 아.

#1 거 업을복 트로 찍으라게.

@1 예, 뒤집어근에 찍젠, 요건 지금.

#1 저 큰옷 허민 곳어, 막 불편해여.

@1 큰옷 허기가 힘들어.

@2 손이 많이 가예.

#1 이거, 이, 도복 허곡.

@1 응.

#1 이 우머니가 영 커 부난. 하이고, ㄱ만이 개어 낫단 걸 ㄷ 뒤집언 뒤죽박죽해 노난 게, 이제 개영 뇌난 대로털. 그전이 혼 멧 년 전이 낫술 먹은 아줌마가 제주대학교에서 왔다고 허명 이 부락에 오란에 노인회장 좇안 완, 이제 수의옷 허는 집 이제 이수젠 허난 옛날 할망털 수의옷 하는 할망 이수젠 허난 우리 집이 가렌 헤렌 경허명 혼 육십 난 애기 엄마가 오란 제주대학교.

@1 삼춘, 삼춘 요거는 요기가 앞섭?

#1 앞섭게.

@1 이제 저 밑에까지 다 앞섭?

#1 으, 앞섭.

@1 아.

#1 이건 또 안앞섭.

@1 안앞섭.

#1 밧앞섭.

@1 이건 밧앞섭?

#1 짓 다 일반이라.

@1 요건 무사 요롱게 뗏수과?

#1 아, 다 경 허는 거.

@1 아, 경 헤사 뉘는 거?

#1 으, 경 헤사 짓 돌아지곡.

@2 요건 안 다듬어도 뉘?

@1 요건 안 헤도 뉘? 마무리 안 헤도?

#1 안 헤도 뉘는 거.

@1 이것도 젓골름 이신 거 뉘다예?

#1 잇주.

@1 요거예? 요쪽엿 건?

#1 다 잇주.

@1 요거? 응. 이 옷에서 제일 중요헌 거 업을복?

#1 업을복, 업을복 뒤에.

@1 어, 뒤집어 볼까요?

#1 경 허영 잘 안보이커라.

@2 몰르크라.

@1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겹이 더 들어간 거야.

#1 육십 난 아기 엄마가 오란 저 거세기 저 노인회장 좇안 오난 이디 가렌 나 오랏수다. 수의옷 험네까? 허난 허염주게 허난. 이수겐. 아, 요새 흐는 거 엇이난 엇덴 허난 할머니 거 험 놔두지 안험덴 수의옷. 나 건 행 놔뒀주게. 2만이 놔뒀던 거 문 꺼내영 배우난 아 이고, 이제 남저 수의옷을 어디 강 받아올 철이렌. 게난 그 사름은 마리 이추룩 따다닥 짝 으명 문 이레 착착 짝은 거 내쫓아 불곡. 나 거 다 헤난. 남저 옷은 또 필요허덴 남저 옷 허켄 허난. 나 우리 아덜 거, 큰아덜 거 다 행 놔뒀주게.

@1 응.

#1 아, 게난 우리 큰아덜 거 다 베와 쫓어. 나 다 행 놔뒀. 게난 우리 큰아덜 것에 나 것에 낡이 구들 하나 다 별겨 놓곡. 아이고, 저승옷 미리 행 놔두민 오래 산다고. 오래, 윤 털에 저승옷 허민 오래 산다고. 아이고 우리 큰아덜 순허곡 막 줍니다. 건디 큰아덜 남자 거 또 못 받 막 허연 남저 거 어디 강 빌리명 막 다 뒤가난, 영 우리 큰아덜 거 헤난 보내 난 문 털지 안허난 다시 생각 엇어라, 다신. 아이고 난.

대님

@1 그다음에 다른 거, 남저 옷, 대님이영 저거.

#1 도복에 따르는 거, 이거.

@1 아, 도복에 따르는 거? 저거 어디다 부짖 거우파?

@2 뭘 거.

#1 이디 영 허곡.

@2 예, 다리에.

#1 이디 영 드리에 무끄곡.

@1 아, 다님 차는 거? 행경?

#1 도복에 꼭 따르는 거,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 하이고, 경험 풍산 나 것에 아덜 것에 다 풍산해 노난 개영 또 들여 놓젠 허난 나도 부에 데싸지곡. 다시는, 절대고. 보아 가는 거, 보아 가는 거. 이, 이거 남의 사름이 마친 건디, 이거 나 거 아니곡.

행진

@1 삼춘, 요건 일름이 뭐마씨?

#1 행경.

@1 행경예?

#1 띠.

@1 저건 띠.

#1 띠. 행경.

@1 행경은.

#1 행경은 이디 허는 거.

@1 저 바지 입어난 위에 허는 거예? 어느 게 우에파? 이게 우에파?

#1 에에, 우, 알 엇어. 친은 반듯이 영, 영, 영허는 거주.

@1 어, 친 든 게 우에예.

#1 영 행.

@1 경 해야 무꺼지지예?

#1 영 행 무끄는 거.

@1 아, 행경.

#1 그 도복에 딱 따르는 거.

허리띠

@1 저거 끈, 저건 끈예.

#1 어.

@1 가운데 허리띠, 허리띠예?

#1 띠, 저건 띠.

@1 응.

#1 쟁 다 봤저게, 다 봤저게.

@2 다 봤.

@1 저 아까 입던 것도 사진 한번 찍을까요?

#1 에에, 입던 것 현 거 무신.

@1 현 걸로?

#1 에에, 찍지 말라. 고침시네, 고침서. 짓이영 다 뜯어 부난 못 현다.

@2 응, 삼춘.

#1 응?

@2 삼춘 거랑 말고 옛날 입어난 치마저고리 엇수과? 오래된 거.

#1 옛날 입어난 거 핫주만은 아이고, 나 그거 어디 못 현다.

@2 못 허여?

2.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 조사 일시: 2021년 11월 1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권미소
- 제보자: # 오순만

- 조사 일시: 2021년 11월 1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권미소
- 제보자: # 오순만

제보자 정보

@1 삼촌 일름은 무신꺼마씨?

오순만.

@1 오순만.

일름도 굿어. 일름도 굿어부난 나 일름은 하나 불르는 일름 혼디 손 들르민 엇어. 영자, 옥자 그런 일름이 막 하.

@1 기지. 완전 좋은 이름 아니?

옥자, 영자 그런 일름들은 막 하영 준디 나 일름은 엇어.

@2 아니, 그게 좋은 거.

@1 삼촌 일름이 더 좋은 이름 아니?

에에. 좋지도.

@1 한번 들으민 잊어불지 안허지. 약간 남자 일름 닳다예.

옥잔 막 하부난. 저 막 무시거 어촌계서 무슨 일 헐 때 바깥은에 행덜 난리허주게.

@1 어느 옥자산디예.

오옥자가 하부난. 성이라도 틀렘시민 헐 건디. 그튼 찌리덜이주게. 바당에 텅기는 사름 덜이난.

@1 오순만 할머니. 몇 년생마씨?

저 사십일 년이나?

@1 사십일 년생. 무신 헤치?

저 거시기. 용띠.

@1 아, 용띠. 용띠 제주도 말로 무신 띠엔 곱읍니까?

용띠주게.

@1 용 말고 다른 말도 곱아?

다른 말은 아니.

@1 미르 영헌 말도 써? 그런말 안 써?

용띠.

@1 그냥 용띠예.

범띠가 아니고 용띠.

@1 위미서 낭 위미서 자란?

아이고, 요 집이. 요 집이서.

@1 요 집이서 살단 이 집이 시집완?

저곳디. 저 아래 할망네 집이난 저 아래서. 오라방네덜은 이디덜이주게. 이거 기.

@1 아. 게문 그 옆집이 시집은 거구나.

응.

@1 할아버진 멧 살 차이라났수과?

하르방? 아, 우리집이 아방? 흐 슬 우. 토끼띠. 토끼띠 용띠 안 좋은 생이라. 약혀 토끼띠가.

@1 토끼띠가 약혀. 맞아 띠가예.

우리 용띠가 세어. 유월에 나 놓고 허난. 막 너미 활발혀여.

@2 계난 삼춘가 이겼구나.

응, 경혜 부난 거라.

속곳

@1 삼춘 이걸 무신거엔 꼴아? 무신 옷이엔 꼴아?

속곳, 속곳. 옛날에 속곳.

@ 속곳. 이거 무신거 헐 때 입는 옷?

이거 고동 잡을 때, 메역 즈물 때.

@1 아.

천추헐 때. 육지 아경 가민 이거 서너 개씩 행 가도 다 헐어 비어. 새걸로 헤 아경 가도. 뱃물질 강 헤나민. 배에서 영 널어근에 일로 알로 불 추곡 그거 막 그슬영은에 몰라사 입영 또 흐 번 들어나민 또 입을 거난. 저 한산. 한산, 이순신 장군 살아난 섬에 간 우리 살앗주게.

@1 아, 육지 물질 가났구나예.

저 대부도 가나고.

@1 이거는 평상시엔 안 입고 물질헐 때만 입는 거과?

물질헐 때만 입곡 집이서도 입엇주게. 옛날에 반스 안 입영.

@1 집이서도 입어?

반스 안 입영.

@1 반스 대신에.

응. 속곳만 입영 물 질레도 가고. 두린 때게. 흐쫄 커가난 속곳만 입언 안 텅져주, 두린 땀 입언 돌아텅겨신디.

속곳 부분 명칭

@1 이것도 혹시 이름이 다 이수과? 요거는 무신거여.

응. 저건 메친.

@1 요건 메친.

요건 곱.

@1 요건 곱. 곱도 진 거영 쫄른 거영 이수다.

진 거 졸른 것사 영 돌아오젠. 하나, 흔착은 돌아오고 흔착은 이쪽으로 메고.
 @1 게민 이견 진 곰 이견 졸른 곰 험니까?
 # 진 곰은 이레 영 뱅허게, 헨난 진 곰 헨난 졸른 곰.
 @1 요건 무신거엔 험니까?
 # 들메기, 들메기.
 @1 이견 들메기. 들메긴 영 여섯 개 험니까?
 # 응. 으숫 개, 으숫 개나, 허구정현 사름은 하영 헛자 으숫 개가 정답, 정상이주게.
 @1 젤 정상. 요거는?
 # 코, 코.
 @1 그냥 코.
 # 들메기코.
 @1 들메기코. 응.
 # 들메기 들이멸젠 허민 코.
 @1 요 들메기 단 데 요거는 무신 뭐 달앗수다예.
 # 응, 그건 역불 이거 주썩주썩 나오난에 보기 싫으난 영 든 거주게.
 @1 요던 무신거엔 곶아?
 # 이거 밋창, 밋창.
 @1 이견 밋창.
 # 두 곱으로 허는 거, 이거.
 @1 밋창은 두 곱으로 현 거파?
 # 응, 두 곱으로.
 @1 요건 요던 무신거엔 곶아?
 # 요건 허리. 아, 요것가 허리.
 @1 요것가 허리.
 # 응, 이거는 밋인가 뭐. 요던 허리.
 @1 요거가 밋, 요건 허리. 요거는 처지?
 # 응.
 @1 삼춘이 곤는 말.
 # 이거 이디 부찌는 건 처지. 영, 허리에, 허리 저꿏디, 허리에 갈 거.
 @1 아.
 # 두터레영 앞터레영 똑ㄱ찌.
 @1 아. 요기 가달 요레, 다리 두 개 끼울 거잖아예.
 # 헨나만 끼우고 이레 헨나 허고.
 @1 요레 하나 끼우곡 요레 하나 끼우곡예.
 # 요건 끼와냥 메곡.
 @1 끼와냥 메곡.
 # 이견 그대로 찢러냥 이거 가달 찢러냥 올론 요거 메블민 텔 거.
 @1 요던 무신거 곶이엔 곶읍니까?

응, 굴, 굴.
 @1 혹시 산굴, 죽은굴 영허는 말도 씀니까?
 # 아니, 아니. 이진 굴이엔.
 @1 그냥 굴만.
 @2 암쿨, 수쿨 이런 말도 엇어?
 # 이거 이진 암쿨.
 @1 아, 이게 암쿨, 이진 수쿨.
 # 응.
 @2 터진 게 암쿨예.
 @1 터진 게 암쿨예, 요기 터진 게예.
 # 아, 이거 빌어간 사름 풀린 사름이고 바당에 헨 사름도 풀린 사름이랏구나.
 @1 하하하.
 # 난 그 사름이 그 사람이카부덴 허난.
 @2 우린 문여 온 사람, 문여 온 사람. 여기서 막 놀암시난 들어왕.
 # 어, 어, 어.
 @1 게민 이진 평상시에도 입고 물질힐 때도 입고예?
 # 물질힐 때 입엇주게. 그때 뽀스 엇이난 그로후제 살단 보난 이런 뽀스가 나오난 입엇주.
 @1 이렇게 허리 엇인 것도 이수과?
 # 아니, 다 이거.
 @1 다 이거 똑같애.
 # 응, 똑ㄹ타.
 @1 요기 허리 엇이 요렇게 짧게.
 # 저 우이거 허리난 허리로 허주게.
 @2 계난 삼춘 집에서 입는 것도 이거랑 똑ㄹ찌 만들안?
 # 똑ㄹ찌 만들안.
 @2 알뜰게도 아니고?
 # 어, 똑ㄹ찌. 경허단 물 들레 갈 때 그자 강 입영 밧디 밧 메당 그냥 이거 입은 냥 물
 에 들어가곡 여름에, 여름에.
 @2 응.
 # 계난 허난 아정 가야주. 두 개 아정 가야. 허난 입곡 허난 아정 가야 물에 들어나민
 그거 입을 거.
 @2 삼춘은 어떻 이거 물 안 들영 입엇수다예.
 # 무사 물 안, 물 문 들여. 물들여, 검은물 들이주.
 @2 검은물 들영예.
 # 들인디 이진 막 마주막에 어떻헨 이거 흰[신] 차 헤젓어게. 검은물 들여. 검은물 들인
 거 허나 새 거 서신디 건 우리 스춘 저, 광목으로 만든 거. 다치민 쉼똥 구워근에 올렛주
 게. 옛날 약 엇이난.
 @2 맞아.

이런 검은 속곳에 험벽 엮이난 속곳에 이런 것에 해연 허난 그거 아정 간에 세상 서방은 저 각시 영 올린, 올려나난 불술아부난 가이 또 광목으로 물들연 아저왓곤 무사 들연 아저완디, 아저완디 허멍 창지 브뜨게 웃엇주. 데껴부는 거 무시겏 허레 아저완디? 엮이난 게 험벽덜 엮이난 검은 속곳 옛날 입어난 거 헤여근에 쉼똥 뜨뜻허게 불 구워근에 그것에 쌍 속곳에 싸근에.

@2 물 여기 맨 거.

이 아픈디 올린.

@1 응, 처맨.

@2 응, 처맨 거.

응, 처맨 거. 경행 또 구워근에 또 허곡. 게 난 저 밧디 간 헤낫주게. 밧디 강 불 사랑 구워근에 올려도근에 또 그레 진곡. 이거 신 것이 막 그맨 저 물들이지 못허난 신 거 헤난.

@2 게난 이거 막꿏디 입은게 삼춘 멧 살에까지 이 속곳을 입어진 거 닷으꽈?

이거 우리 저 거시기 스물, 스물두까장 입어져실 거라. 이거.

@2 스물두까장. 삼춘 시집.

응, 그루후젠 고무옷 나부난 고무옷 입언 헛주게.

@2 결혼을 멧 살에 헨?

열아흠에.

@2 열아흠에. 경행 결혼행 삼 년 사 년까지도 이런 거 입은 거라에.

응.

@2 스물, 사십일 년생이민 스물둘, 육십삼년. 너무 빠르데? 서른 아니? 스물?

스물, 스물아흠에.

@2 스물아흠이민 맞아.

아, 열아흠에 시집간 땐 열아흠에.

@2 시집간 때 열아흠에 이 속곳은.

우리집이 아방 죽은 땐 아흠에. 저 서른 아흠에.

@2 게민 그때는 서른아흠에는 고무옷 막 한창 입을 때고.

아이고, 서른아흠이엔 험네, 서른아흠이 아니라 서른, 스물아흠에.

@2 스물아흠에.

@1 할아버지 돌아가셧?

응, 서른 낭. 서른 나자마자 돌아갓주게.

@1 아이고.

@2 게민 그때 고무옷 입은 철이꽈?

아니 그때 고무옷 안 입은 때.

@2 봐봐. 서른까지도 안 입언.

안 입언, 안 입언. 그루후제, 그루후제사 난. 막 그루후제.

@2 그때까지도 이거 입어난 거예.

응.

@1 칠십 년대 초까지는 입엇단 얘기네. 요디는 단단허게 요거 박앗수게.

요거 바데 낀, 논 거주.
 @1 이거 바데 논 거. 바데 낀에 이렇게 영.
 # 질기렌.
 @1 영영 바느질 헛수다.
 # 응, 영영 이것도 해졌구나, 난 바리지 못하난.
 @1 영영 바느질 헤신게.
 # 헛쓸 질기렌, 질기렌.
 @1 아, 이 미싱으로 박아신게예.
 # 응. 미싱으로.
 @1 요렇게 엑스 자로 영 요렇게, 마름모가 가운데.
 # 막 쟈 할망은 듯날 아침이 미역 즈물레 감 전이 이거 흐나 멘들앙 입영 갓젠 헤불민 창지 보뜨게 웃어.
 @2 하하.
 # 아침이 물에 들레 갈 건디, 오전이 미역 즈물레 갈 건디.
 @1 가기 전이 멘들아.
 # 응. 그자 막 만든 거주게.
 @2 완전 빨리 만들어신게.
 @1 거니까.
 # 빨리 그자. 이추룩 안헨 막 기자 아멩케나 손으로 막 쥘. 우리 종손할망 배설 다 보판 경헤낫젠 허멍. 그 할망 이제 죽지 안헨 양로원에 갓주마는.
 @1 경해도 요기도 이렇게 단해근에 요 안에도예, 다 요렇게 박앗수다예. 단단하게예.
 # 안 박으민 안 뉘지, 야려.
 @1 아, 야려근에.
 # 응, 역불 질기렌. 질기렌 박은 거.
 @1 요기 밋도 두 단, 두 개, 두 겹으로 한 게 단단하라고 한 거지예?
 # 응, 단단허렌. 재기 험카 부덴.
 @1 물웃은 속곳은 지나가겠습니다. 속곳이엔 허는 말 말고 다른 말은 안 해? 소중이 영은 안 해?
 # 응, 소중이도 무사 소중이도 기주.
 @1 소중이엔도 곶아?
 # 응, 할망덜은 소중이, 소중이.
 @1 소중기, 소중이?
 # 우린 속곳, 속곳허고 또 우리보단 우잇 할망덜은.
 @1 소중이, 소중이.
 @2 아, 우잇 할망덜이 소중이렌 곶아.
 # 우리보다 나 한 할망덜이.
 @1 네. 자, 다른 옷.
 # 옛날은 물질 아녀민 죽을 거만이 멩겅주게. 돈이 날 거 잇이난 미역 즈물아 오고 물질

안 현 사람은 야코 죽엄 살지도 못했어. 물질 안현 사람은 야코 죽어근에 미역 즈물아와근
에 미역 으답 근 쥐사 좁쌀 흔 말 산 먹어난 거 나 잊어볼지 아녀.

@1 아.

@2 삼촌 물질 잘 헛수과?

아니, 아니 잘 못헤여. 막 상군털은 막 상군이주. 우린 그자 중톨파리.

@1 무신 파리?

중톨파리.

@1 중돌파리. 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2 중간 가는데도 그거에도 돌파리.

상군털은 막 잘 허는 사람은 막 잘 허주. 이제 우리 동세네도 막 잘 허여.

@1 중간인데 돌파리.

@2 중간인데도 돌파리렌 험다. 못허는 사람만 돌파리렌 안 행예.

응.

@2 중돌파리.

@1 이 옷은 언제 입어난 거파?

이거 시집갈 때. 시집 가는 날.

저고리

@1 시집가는 날 입은 거.

양단. 아, 이거, 저디 요도 잊주게. 요 ㄱ튼 거 양단으로 무시거 허레 헤여. 이 비싼
양단이주게. 경주양단이엔 헤여근에. 그때 이거 저 부산 저 거시기 국제시장 간 사온 거.
육지 간 오단. 육지 간 오명 저거 산 온 거주게.

@2 누가 사온 거?

나가 산 왓주. 우리집이서 시집이서도 헤주는 건 또 풀리고.

@2 물질 강 오명 상 온 거?

응.

@1 이거영 이거영 흔불이파?

이거 아니.

@1 이거 아니파? 밑엔 무신 색이라?

아 이추룩 신 거, 신 건디 건 어디 간 증 몰르켜.

@2 엇덴 헨.

@1 엇덴.

@2 저고리만 남앗덴.

@1 저고리만 남안. 응. 이 색깔 똑ㄱ튼 거예?

어, 똑ㄱ튼 거.

@1 이건 양단이엔 곱읍니까?

응, 양단. 경주양단이엔 헨 막 비싼 거주게, 옛날에. 이거 얼마나 비싼 거주.

@1 이견 어디서 만든 거라? 누계가 만들어 준 거파?
 # 이디서 쥬 바농질 잘허는 사름.
 @1 이 위미리 바농질 잘허는 사름안티 멧견?
 # 응.
 @1 천으로 상 완, 계난?
 # 천으로 산 왓주. 흐나 ㄱ슴, 흐 불 ㄱ슴 딱딱 주주.
 @1 흐 불 ㄱ슴 딱 상 완. 말긴 거예. 이 한복도 요딘 무신거엔 곱읍니까? 요디.
 # 모르고.
 @1 요기.
 # 아, 이견 앞섭, 앞섭.
 @1 응. 요거는?
 # 이것도 앞섭게, 두 개.
 @1 두 개 다 앞섭.
 # 큰 앞섭, 족은 앞섭이주. 이거.
 @1 아, 큰 앞섭, 족은 앞섭.
 # 요건 족은 거. 요건 께끄땡게 노난 요건 큰 거. 요건 우터레 영 더꺼지는 거.
 @1 요디 줄도 하나 잇수다. 끈. 이견 어디 무끄는 거라?
 # 젓곰, 젓곰. 안네 이거 메어사 풀락허지 말렌. 이거 메어냥은에 요거 막곳에 메는 거.
 요거 막곳에 메는 거.
 @1 계난 젓곰은 이디도 잇고 요기도 이신 거구나예.
 # 응, 응. 두 개.
 @1 두 개 무꺼야 쥬 거난예. 요 저고리 허민 이디도 뭐 요딘 무신 말이여 요딘 무신 말
 이여 허는 말도 이수과?
 # 응. 요건 이견 스미, 스미.
 @1 이견 스미, 스미. 요디는? 배알?
 # 스미 알.
 @1 스미 알. 그다음에.
 # 거 흐 번 헨 빨안 흐 번 헤져실 거라.
 @ 요 안에 천은 무신 천이파? 요거는.
 # 것도 망사.
 @1 이견 망사.
 # 아이고, 옛날에사 명주 ㄱ튼 거 비쌌어게.
 @1 계난.
 # 이거 다 이제 던져볼기가 바쁘디. 아이고. 이견 그자 입젠 해난예.
 @1 그거 그자 입젠 해는 거.
 # 응, 그자 입젠 해난예.
 @2 이거는 삼춘이 행 온 거고예.
 @1 이견 시집을 때.

@2 삼촌이 입영 온 거고예 시택에서 해준 것도 하나 이수게.
 # 으, 이거, 이거. 시집이서.
 @1 시집이서 해 준 거.
 @2 구분해 주십시오. 이거는 삼촌이.
 @1 시집을 때 행 온 거.
 @2 입고 온 거. 웨딩드레스로 입은 거지예.
 # 이거 이디서 해 준 거.
 @2 아니, 시집에서 온 저고리부터. 시집에서 해준 저고리부터. 시집을 때.
 # 아이고, 그 노랑헌 거.
 @2 요기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요건 여기 들어 잇었던 거.
 @1 이젠가.
 # 응, 노랑헌 거 길 거라.
 @2 이거는 여기 저고리에 겁니다.

저고리치마

@1 시집을 때 계난 아까 건 삼촌이 헌 거고, 이거는?
 # 시집이서 헌 거.
 @1 시집이서 해 준 거. 이거 무신 천이파?
 # 이것도 그런 거, 이것도 무신 경주양단인가 무시것산디.
 @1 이젠 웨딩드레스 대신 입은 거, 이 우이 맨사포 썬?
 #1 아니, 아니 맨사포 아니. 이것가 입영 왓주게. 그런 거 아니.
 @1 족두리 썬?
 # 아니, 아니. 저 미시거 건지 여썬.
 @1 건지 여썬.
 # 그런 거 아녜. 웨딩드레스 아녜. 이거 입언 온 거. 이거 이거.
 @2 계난 저 저고리 입고 이거 입은 거파? 이거 입고.
 # 아니, 저거, 저거 입영 오는 거. 시집이서 오는 거.
 @2 자기가 입영 왕, 입영 왕.
 # 친정에서 입영 온 거.
 @2 이거예예. 경행
 # 하난 데맹이에 쓰는 거 머리에 쓰는 건 늬이 거 빌영. 다 빌영 헛주게. 두 개 해도 빌려주도 아녀.
 @1 맞아.
 # 이것도 엇인 집이선 이런 것도 해주지 아녀. 이거 엇어근에 두 개 다 빌영 어떤 사름은.

장옷

@2 아이 불르는 일름이 뭐파?
 # 장옷, 장옷.

@2 장옷예.

웨딩드레스 엇어, 우린.

@1 웨딩드레스 엇어. 요거 입고 그다음에 저거 입고 건지 여찌고 헨에 온 거네예, 시집 올 때예.

@2 삼촌 결혼할 때 사진 엇수과?

사진이 어디 서? 사진도 찍꼭 혀? 아니.

@1 하하하. 사진도 찍꼭 해?

@2 그 결혼행 올 때.

그루후젠 막 흐쓸 살아가난 차로도 허고 사진도 찍고 헛주게.

@2 아니, 결혼할 때 영 왕 신랑집이 와 가지고 가마 탕 왓지예?

응.

@2 신랑집이 들어오민 신랑이랑 영 절허고 그런 거 엇수과?

아이고 당취.

@ 당취, 그냥 방에 들어강 신부상 받으민 곳?

으, 방에 들어가민 막 아이들이 막 담아들주게. 밥 흐 직 얻어 먹젠게. 새각시 보켄 허 명 허고 이불 헤 온 거 보켄 허고. 영행 밥 흐 순구락씩 다 주주게. 게민 흐 순구락씩 다 먹는 거라. 아이덜이 소박, 방 안에.

@1 방 안에 소박.

방 안에, 방 안에 다 왓일 디 엇이민 베꿏디덜 무뎡에덜 조랑조랑 막 사주게. 게민 밥 덜 문딱 흐 순구락씩. 우리도 시집 안 갈 때 얻어먹으레 가낫젠 허난. 우리 종손침이도 그 디 시집갈 중 몰란 그디도 가난. 애기 업영. 애기 들명 가. 새각시 왓젠 허명.

@2 게난 삼촌은 사진 안 찍은 거라예?

아니, 사진이 어디 서.

@2 예, 사진이 어디 서예, 예 알앗수다.

@1 치마는 나중에는 요기 어깨 영 달령 나옵니께.

응. 그뎡 어깨 안 들린 때.

@1 어깨 안 들릴 때. 어깨마리. 어깨마리 안 힌 거.

응, 그루후젠 어깨마리 다 헛주.

@1 거난 이거 헐 뎡 그런 거 엇어난 거예.

어깨마리 엇언. 그루후젠 어깨마리 나완게, 벗어져 불카부덴 어깨마리 다.

@2 열아홉 살 육십 년도에 입엇던 겁니다.

(중략)

@1 장옷 잠깐만 보게요. 이거는.

이거 게난 새로 문딱 헤완 헤영현 걸로 간 돈 막 하영 들연 헤완. 이건 이건 필요 엇 인 거.

@1 이걸로 헨에 저기 뭐 호상옷 허는 거 아니과?

아, 이거 헤도 이건 던져 불 거. 죽으민 어떻게 할 티 슬아사 줄티 던져봄사 할 티. 새 걸로 간 문딱 간 헤완.

@1 아, 호상옷은 다 따로 해난.
 # 이제사 간 요작이 작년에부떠.
 @1 작년에?
 # 작년 기자 윤들 드는 해. 재작년인가 작년이라신가?
 @2 뭐로 헛수과?
 # 멩지로.
 @1 멩지로.
 # 잘도 존 멩지로 헤 낫주게. 백 얼마 들연 헤져실 거라.
 @1 옛날엔 이걸로 호상옷 헤낫수과?
 # 아이고, 이걸로 죽으민 이걸로 ㄱ만 낫당 입전 갖주게. 이제덜은 다 너미 돈덜 이서노 난덜 저것덜 험주게. 이걸 우리 집이서 만든 거. 할머니가 짜멍 만든 거.
 @1 할머니가 누에로 짜근에 만들어 준 옷.
 # 누에, 누에로 돈딱 저 뽕남 해당 맥여. 뽕썩 헨 맥연. 돈 누에 뵈에 이거 만든 거.
 @1 요기는 무사 빨경헌 색 영 헛저예?
 # 이거 고련 영헌 생이라. 옛날 할망덜토.
 @1 이걸 무신 뉘 꿇동이엔 곤는가?
 # 응, 꿇동, 꿇동.
 @1 요디는.
 # 짓, 짓.
 @1 짓. 짓히고 꿇동은 자주색으로 헤수다예?
 # 응 다 경헤연, 다 보민. 우선 고련 이거 현 거주게.
 @1 응, 맞아.
 # 야 이걸 흥번 영 현 때나 내난 뵈주. 뵈서?
 @1 요 안에는 요거 베로 헤신가?
 # 아니, 아니. 시마지.
 @1 시마지.
 # 시마지도 막 그리왓주게. 아이고, 옛날에 기뻐혀, 기뻐혀. 우리 할망넌 퀴차녀게 살앙 그 쫄 사례덜 막 와난 거 막 헤져. 우리 집이 ㄱ만이 시민 쫄 사례덜 와근에.
 @1 삼춘네 쫄 많이 이서낫구나. 남은 게예, 창고, 고팡에 쫄이 하낫구나.
 # 우린게 저 하르방이 돈 돈허게 사난게, 할망도.
 @1 아, 쟁 늬이 집이서 쫄 사례 집이 와난.
 # 막 와.
 @2 부제칩인게.
 @1 계난.
 # 무시거 엇이난 저 저녁 ㄱ슴 엇수텐 허멍 계민 할망 두 뉘도 주곡.
 @1 이거 장옷은 요거는 뉘엔 곤고 요기는 뉘엔 곤고 허는 말 엇수과?
 # 이걸 앞이, 이걸 두에 두판.
 @1 요디 옆에 요딘 뉘엔 곤는 거 엇수과?

이견 밋 부짚 거.
 @1 밋 부짚 거. 미 부짚 거, 밋 부짚 거?
 # 밋 부짚 거게. 부찌사주, 안 부찌민.
 @1 폭을 부찌사 뉘니까.
 # 부찌사 흐쓸 펠락해사주. 저 우에영 ㅋ짚행 안 뉘.
 @1 이거 멧 폭이나 행 만듭니까? 이런 건. 혹시 알아집니까?
 # 멧 폭 신가. 아, 요것이 흐 폭.
 @1 예, 그게 흐 폭.
 # 아, 계난 네 폭 닳다. 이런 거 부짚 거 말아 네 폭.
 @1 그거 부짚 거 말앙 네 폭.
 # 요디 두엔 두 폭.
 @1 앞뒤로 두 폭씩.
 # 계난 앞인 요런 거 흐쓸 무시거 앞단 부짚에 흐쓸 커사 영 막아지게 두에는 ㅂ짜 막 아져도 좋은디 앞이 두에영 ㄱ땅 안 뉘 거주. 일로. 앞섭 부짚에 앞섭.
 @1 아, 요긴 앞섭.
 # 요거 앞섭. 올로 요레 부짚 거. 올레 요레 흐 폭. 절로도 흐 폭.
 @1 요긴 아니. 요기도 부짚 거.
 # 계메 경해사 요레 풀락해사 이렌 퍼져살 거난 알르레 우인 막곡.
 @1 예, 예. 계문 요거 요것도 요거는 곱.
 # 곱, 곱.
 @1 요거는?
 # 젓곱게, 문여.
 @1 요건 젓곱. 아까 그거예. 여기 영행예.
 # 풀어져 불카 부덴.
 @1 풀어져 불카 부덴예. 이디는 뉘엔 곤는 말 잇수과?
 # 짓, 안짓.
 @1 안짓.
 # 응.
 @1 요디만 트나게 부떠수다.
 # 응. 거 트나게 부찌야.
 @1 이거 무신거라?
 # 거 안짓게.
 @1 안짓이라 이계. 뉘 짓바데 영허는 말은 엇수과?
 # 짓바덴 몰라. 짓바덴.
 @1 짓바덴 몰라예.
 # 응.
 @1 그냥 안짓.
 # 아이고, 이거 물색 제법 노명 물색 아이고, 어이 엇영 못 살주.

@1 요거는 무신거엔 곱아?
 # 이거 저 무신 초록색. 옛날은 초록색 초록색 허명.
 @1 그믐 보통 장옷은 다 이 색으로.
 # 다 이 색.
 @1 머리에 쓰는 것도 이 색.
 # 응, 늪이 거 빌어오민 이런 거.
 @1 빌어와도 이런 거.
 # 으, 똑ㄱ튼 거. 옛날엔 신 거 아녕 물들영 다 물들영. 이거 이디서 물들영.
 @1 이거 무신거 물들이민 이 색 나오니까?
 # 초록색. 무신 몰라 무신 물사 들어신디. 이거 다 집이서 멩진디 물들영. 옛날에 허젠 허민 아이고, 그 광목털 문 발레고, 아이고.
 @2 삼춘네 시집 보낼 때는 집이서 헨 멩지는 안 해낫구나. 이미 쫓낫구나.
 @1 이거 집이서 헨 거.
 # 집이서 헨 거, 다 집이서 헨 거.
 @1 할머니가 헨 거렌.
 @2 치마저고리는 상 온 거고.
 # 응. 이거 이건 다 집이서 헨 거.
 @1 치마는 양단이고 이거만 멩지.
 # 바지도 멩지. 바진 옛인게, 어디 바진 돌아나비신게. 멩지바지.
 @1 옛인디.
 # 거 어디 갓어. 아 이디 혼디 뉘져신가? 아 시집을 때 해난 거 어디가비시니 거.
 @2 아, 헨 헨. 이거는 왕 갈아입은 거.
 # 응. 밥 먹어나민 옷 갈아입젠 허민 이 사름 저 사름 막 이건 누게여, 이건 누게 거여 허명 막.
 @1 인사허렌?
 @2 아니.
 # 시어명만 해주지 아녕 큰시어명도 해주곡 족은시어명도 해주곡 옷으로 헤쫓주게.
 @2 아, 여러 개 헤쫓구나.
 # 요건 누게 옷이여. 요건 누게 옷이여 허명 요건 누게 짝세여, 누게 짝세여. 옛날엔 옷을 다 헤준 거라.
 @1 천으로 헤준 게 아니고.
 # 천으로 아녕 옷으로. 옷 입져 보는 거라. 다 입져봐.
 @1 옷을 멩 번 갈아입엇수과? 게민.
 # 멩번 갈아 입든 말든 문딱 즈근즈근 다 입져봐. 헤은 옷은 다 입져봐.
 @1 아, 패션쇼네이.
 # 누게 헤은 거여, 누게 헤은 거여 막 곱으멍.
 @2 게민 그 옷털은 다 데껴분 거?
 # 게난 그 옷털은 다 어디사 가신디 몰라.

@1 멧 벌이나 받았수가? 계난.
다섯 불 받아져신가, 큰시어명이영.
@1 큰시어명이영. 죽은어명이영.
막 으라이 서부난.
@1 누가 옷 갈아입혀 주는 사람은 누게?
대반 앓인 사름.
@1 대반은 누게가 앓입니까?
친촉에서 젼 잘 사는 사람으로 앓아.
@1 아, 아무나 앓이는 거 아니?
아무나 못 앓아. 우리 ㄱ쁜 거 대반 아이 잡아.
@1 우리 ㄱ쁜 건 어떤 거라?
무사냐민 미룻 저 아방 엇넨. 그거 막 봤주게. 아무나 대반도 못 앓아.
@1 아무나 대반도 못 앓아예.
우리 시아주방덜 장계갈 때도 난 젼 문여 와도 흐나 앓젠도 안허고 아시 윈 베리지도 안허곡. 야코 죽영 얼마나.
@1 아이고.
대반도 아무나 앓게 허카부덴. 계난 대반도 잘 사는 사람으로 앓져.
@2 다 ㄱ춘 사름예?
이젠 경 대반 안 헤도 그 대반이 문딱 거시기 ㄱ쁜 거.
@1 대반은 흐 명만 앓아?
응, 흐 명만. 흐 명 앓이민 그 사름 막 지치주게. 그 문 밥덜 흐 슌구락씩 다 주젠 허민.
@1 흐 슌가락 주는 거 다 대반이 허는 거파?
응, 따시 저 거시기 그디 친촉덜은 가지깡이 두께에 밥 놓곡 고기 흐 점씩 노명 주곡 슌이 아이덜 막 온 딘 그자 밥 흐 슌가락씩 주문 허주. 그 고기 다 어디.
@1 계난.
아이고, 고기가 얼마나 돌아시민 계랄도 슌아 노민 아무나 주지 아녀근에 새각시 상에 거 득 올리고. 득에 계랄에 톱. 그 옛날에 무사 득 헤신고.
(잡담)
@1 계난 결혼헐 때 흐 번 입영 이거 흐 번도 안 입어봤수과?
이거 무시거 허레 입어?
@1 옛날에 어디 갈 때 안 입어?
아니, 아니.
@1 외방 갈 때.
아니, 아니.
@1 딱 시집갈 때 흐 번?
시집갈 때 딱 입영은에 죽영 가민 입을 거옌 ㄱ만이 놔두주, 안 입어.
(잡담)

‘정벙이’

@2 이진 뭐 헐 때 입어난 치마파?

@1 바진데.

#1 멍지바지 시집갈 때 입은 거. 강알 터지고.

@1 이거 무신거엔 낄읍니까?

바지.

@1 그냥 바지?

응. 정벙이, 정벙이 허는디 옛날은 바지.

@1 정벙이?

바지 응, 정벙이가 바지주게. 영 터전 이거 계난 천을 아까우난 그대로 안터레 낯에 강알만 터준 거주.

@2 이거 오른쪽이파, 이거 왼쪽이파? 영?

@1 입어봐.

ㄴ단쪽더레, ㄴ단쪽더레. 응.

@2 ㄴ단쪽더레.

경혈 거.

@2 실제 경험을 한번.

@1 경험을 한번, 강알 터진 바지를.

강알 터진 바지.

@1 아니, 오줌 싸젠 허민 옷 안 벗어근에.

옛날에 이거 입어낫주게. 이거. 계난 굴중 살단에 이런 것덜 안 허고.

@1 이진 굴중인 아니지예?

바지, 바지.

(잡담)

흥번 입어보지 안헛저. 그때 입어난 냥.

@1 못 벗으크라.

난 ㄴ느난게 허리가 족으난.

@2 어쨌든 다 찢어전.

다 찢어진 거. 소꿉에 천은 막 오그려 낫저 시방. 기차불지 아년. 찢르민 그디 밧 부짱 찢라불 건디 안 찢랑.

@1 아까 속곳 입영 그다음 이거 입는 거?

응.

@1 그다음 우에 치마저고리 입고?

응. 속치마 입고.

(잡담)

‘후루메’

@1 이진 무신 옷?

아, 이견 후루메 기자. 우리 아이 시집갈 때 현 거주게.
 @1 후루메.
 @2 아이 시집갈 때민 삼춘 멧 살이파? 멧 살 난 아이 시집갈 때?
 # 저 가이가 멧 살에 가신고?
 @ 이제 멧 설이파?
 # 가이 이제 저 거시기 토끼띠난에.
 @1 토끼띠난에.
 @2 육십삼 년생. 오십일 년생?
 # 우리 사위가 첫보단 알이난 쥐띠난에 육십셋이라. 우리 사위가. 가인 그보단 알이주게.
 @1 거난 이거는.
 # 역불 만든 거. 툇 시집갈 때 입어난 거.
 @2 육십삼 년생이면 팔십삼 년도 정도, 팔십오 년도 정도네. 딸은 멧 살에 시집갓수과?
 # 아이고, 가이 멧 살에 가신 중도 몰르켜.
 @2 모르크라예, 어쨌든 가이 시집갈 때 입어난 거.

치마저고리

@2 이 치마도 오래 뵈 거 닳은디.
 # 응.
 @2 이거는 재질이 뭇파?
 # 무시겨 것ㄹ라 아이고, 이거 무시겨엔 현다마는.
 @1 이견 여름 거 닳다예.
 @2 이거 저고리는 어느 거라? 야이 저고리는?
 # 가이 저고리. 어디 신디.
 @2 야이 저고리 맞춰봅서.
 (잡담)
 # 이거라신가, 이거라신가?
 @1 아, 꽃치마네.
 @2 파란색이 어울릴 거 같은데.
 @3 이거 파란 천 이거에 거.
 # 이거에 건가? 옷이 하난 원.
 @2 요건 아니파? 여름 거.
 # 여름 거 아니.
 @2 엇어.
 @1 요건 뭇 혈 때 입어난 거파?
 # 아니, 그자 입언, 만들명 입어난. 어느 거라신고, 원. 거에 이거라신가?
 @1 어느 거에 짝인지 원.
 # 요거에 요거 맞다.
 (잡담)

@1 절간에 갈 때? 이거 잘도 곱다예.

절간에 이거 입영 가민 허리도 곧작힐 때난 아이고, 허리 곧작허난 느 어떻헨 처테가 경 좋니? 허멍 두루 입은 것이 너미 좋텐 허멍 헤낫주게. 이제 그 사름덜 보민 저디 외가 사름도 야야야 느 어떠난 경 뉘시, 경 뉘시 허멍, 경헤여. 환장해. 경허난 창피허영 저 잔치 먹으레 가는 것도 부주만 보내주, 안 가. 요 집이 잔치 해신디 어제사 부주 보내언.

@2 이 치만 이제도 입어지쿠다.

잘 알암저게. 난 어느 거 어느 건지도 모른다.

@1 거난. 어떻 삼춘보다 더 잘 알암수다게.

@2 흔 번 가르켜 주민 뉘. 이거 저고리 뭐 없는 거. 편헌게.

@1 고름 없는 거. 곱 엇이 해수다예.

곱 엇이 저 거시기 브리찌.

@2 이거 멧 살에 입엇던 거?

아, 이거 막 오랬어.

@2 막 오래, 생각해봅서. 아이털 멧 살쯤에.

아이털 시집 안 간 때난.

@1 아, 시집 안 건 때 입어난.

응. 우리, 이제 애기 저 현 아이 큰꼴도 시집 안 간 때 입어난 거. 가네 시집 안 간 때. 가네 시집 안 간에 학생인 때 이거 입어난 거. 막 오랬주게.

@1 저거 곱 엇인 건 아까 무신거렌 꼴아라, 삼춘?

브리찌, 브리찌.

@1 브리찌?

@2 브리찌 영 메다는 게 브리찌디.

응 메다는 거. 메다는 거.

@2 아, 브리찌를 헛다고.

@1 브로치를 여기다 달앗다고. 아, 저때는 그게 유행이라났수과?

응, 그거 유행, 곱 안 들안.

(잡담)

@1 그거 저거 입을 때는 그게 유행이라났구나예. 곱 엇이에.

응, 곱 엇이.

@1 곱 엇이민 편허지 안헤?

편허여.

@1 더 편힐 거 닳아예.

저디 다 돌아전 잇주. 실허연에, 문.

(잡담)

아이고, 동전이 이추록 ㄹ늘게.

@1 응. 옛날에예.

옛날엔 완전. 이제 옷허는 것이 까다롭지 안허여.

@1 응.

(잡담)

@1 이걸 언제쯤 입어난 거? 아까 절에 갈 때 입어났텐 골아신디.

응, 절간에 텅길 때. 막 옛날부터 절간에 텅기난게. 아이덜 중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입어난 거.

@2 삼촌 어느 게 먼저?

이것이 먼저.

@2 보라색이 먼저.

(잡담)

어제 검질메단 흐 파니 남아신디.

@1 흐 파니 남안?

응. 흐 칸 남아신디. 미깡은 못 타난 널모리 가네가 와근에.

@1 계난 이걸 절에 갈 때 입은 걸로 옛날 더 옛날부터 입어신디.

막 옛날부터.

@1 최근에까지. 켈 나중에도까지도 입언? 그때만 입고 안 입언? 나중에도 계속 입언?

막 입어신디 한복도 안 입언. 그루후젠 몸빼덜 절간 몸빼덜 나난 그것덜만 입언 텅견.

@1 응. 어디 외방 갈 땐 치마저고리만 입읍니까?

사둔칩이, 사둔칩이 갈 땐 막 입어났주게.

@1 우에 뭐 후루메도 입영 가?

이젠 안 입어.

@1 이젠 안 입어도 옛날에 어디 갈 땐 후루메도 입영 가?

아니, 후루메 저거 잔치, 친축네 잔치나 현 땐 입영 갖주게.

@1 후루메허고 두루막은 딱난 거짜?

무시거, 두루막이영 거영 ㄱ뜬 거, ㄱ뜬 중.

@1 ㄱ뜬 거?

응. ㄱ뜬 종네기.

@1 ㄱ뜬. 뭐가 틀려?

ㄱ뜬 거라. 일름은.

@1 일름은 달라도 ㄱ뜬 거?

@2 뭐 여자 건 후루메여 남자 건 그런 것도 엇고. 겨울 건 후루메여 여름 건 그런 것도 엇고 똑ㄱ뜬 거?

남저사게 저 후루메도 입고 무시것도 입주마는. 뭐니.

@2 두루마기도 입고.

두루마기, 응.

@2 여자 거는 똑ㄱ뜬 거라?

응, 여잔 기자.

@2 남자는 틀려? 두루마기랑 후루메랑.

두루메기 엇이난.

@1 한 겹은 두루마기고, 두 겹은 후루메엔도 곱읍디다.

응, 응.

@1 그게 맞아?

맞아. 옛날 사위덜 똑 그거 해줬주게. 이제덜은, 시에 사름덜은, 난 안 해 줘 봐. 육지 사위고 시에 사위난 시엔 그런 거 안 헌텐 허멍 두루메기 저 모시로 허는 거게, 그거 안 해 줘.

@1 아, 모시로 헌 건 두루메기.

응, 그건 아니 줘어. 아니 줘 내빚주.

@1 후루메만 해 줘.

응, 후루멘 장계갈 때 허는 거.

@1 계난 사위안티 후루메 해줬구나예.

문 해줬주, 옛날에. 장계갈 때. 이제 2만이 이서. 으저가지 안헤연.

@1 사위 것도 그냥 이수과?

응, 입언 텅기단 그땐 막 저 멧질에영 입언 헛자 이젠 안 입언. 이젠 안 입어, 일절 안 입어. 다려 놓고 아저당 입으렌 허난 내뵈서 안 입으쿠다.

@1 하하하.

(잡담)

@1 이거 속치마 아니?

아니, 속치마 아니.

@1 속치마 아니. 이건 뭐?

우이 거. 우이 치마.

@1 그냥 하얀 치마?

응, 기자 치마게 그때 헨에 무사사 해전에 상제 된 때 입어났저, 그거.

@1 상제 헨 때 입어났다고?

@2 아, 하얀 거. 저고리 찾읍서, 그거에 저고리.

저고린 몰라, 건 아무거나 저고린 아무거나 입어실 거라.

@1 저고린 아무거나 입언.

아이고, 이진 베, 이진 뽕로구나. 베알라 혼디 들언.

@1 응, 베가 다 나와신게. 이 치메 우에 건 뽕라? 이것도 옛날 거 닳은디.

아, 이진 아이 거.

@1 이진 아이 거. 삼춘 거 아니고. 이진 언제 입어나신고? 상복으로 입은 거라고?

아, 입언 텅긴디 그때 치마 상복 치마로 입엇주게. 막 그때. 상복 치만 해 줘신디 어디 갈 땐 이거 입언 가낫주게.

(잡담)

검은 색깔. 이디 사름덜은 멧질 먹을 때 검은 두루막 입언 텅기는디게.

@1 이제도 텅깁니까, 이디?

요샌 이 코로나 걸려노난 하나 멧질 먹으레 텅기는 디가 엇어. 나 멧질 헨 때 어이 엇어 못살아. 전인 이디서 갖다왔다 갖다왔다 요 베꽃디서 설거지허젠 허민 사름덜이 막 걸어 근에덜 문 권당칩이덜 갖다 왔다 허는 게. 이젠 원 너무도 아이고, 진짜 너무도 사름 하나

ㄱ딱 안 텅겨. 그자 이녁집이서 이녁만 해 먹엉은에 설러 부는 따문.

@1 계난예. 영헌 세상이 올 중 알았어예.

베

@1 베수건, 머리에 수건 일부러 천 산 게 아니고.

돈 주멍 살 생각. 거 돈 친촉집이덜 돈 가민 수건 하나씩 다 주난.

@1 아. 쟁 그거 모아 논 거파? 해 낫당 뭐협니까? 저거.

뭘 뭐. 거시기.

@1 저 벤 모아 낫뒤당 무신거 멘들아?

베개 허단 이젠 베개도 실증 난.

@2 이진 무슨 베로 허젠 영 물들영 놔둔 거? 이거.

@1 이것도 벤디 분홍 색깔.

아, 이진 제라헌 춤베. 건 이불 더껍 누는 거 여름에.

@1 이진 이불 더껍 누는 거.

여름에.

@2 제라헌 춤베.

건 가짜.

@2 이진 가짜.

중국베.

@2 중국베. 저건 춤베.

@1 이거는 베갯입은 무신걸로 멘든 거?

아기덜 베개 해난 거.

@1 요렇게 수건으로 현 걸로 헨 아니민 이거 두건.

이 우이, 우이만 현 거 저 우트레, 이 우트레 씨왓당 벗어불고.

@1 계난 원래 이거는 수건 아니민 두건?

아, 죽은 건 두건.

@1 이진 죽은 건 두건. 천이 틀린게. 요게 흐뎡예 거칠거칠허고 요거는 흐뎡 보드랍고.

이진 중국베, 저건 흐쌀 좋은 거.

@1 아, 이게 좋은 거.

거칠헌 거 저거 만든 거 춤베.

@1 그믄 이게 두건?

거 춤베.

@1 춤베. 두건으로 현 게 아니구나.

두건으로 안헨에 허단 남은 걸로 이시난에 헛주. 이진 흐쌀 존 거, 건 굷인 거. 그건 중국 것덜 굷인 거.

@1 아, 이게 중국 거 나쁜 거파?

응, 나쁜 거. 뎡랑뎡랑헌 거.

@1 계난 이거는 아까 그 저기 수건 해난 거. 그 수건 무신 수건이엔 곶아? 복수건.

복수건. 잘 알았신게, 복수건. 이젠 복수건털 안 줘 저 몸빼 하나씩 줘.
@1 예, 예.
이젠 우리 가지도 안허주마는.

3.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 조사 일시: 2021년 6월 3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 제보자: #1 김치호

- 조사 일시: 2021년 6월 3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 제보자: #1 김치호

제보자 정보

@1 오늘 유월 삼일이고 저희는 김치호 할머니댁에 와 있습니다. 할머니 멧 년생이파? 저 번이도 곶아 쥐신디.

#1 멧 년생산딘 몰르고 아흔 다섯.

@1 예.

@2 무슨 헤치?

#1 토끼헤치.

@1 토끼헤치.

#1 토끼헤치. 아흔다섯.

@1 이제 다섯이나 뉘 철.

#1 아흔 다섯.

@1 와 금방 백 살이네.

#1 저승체시 들레 오지 안허난 못 감주게.

@1 저승체시. 하하하.

#1 나 드러 놀래 불르주게. 날 데려 가거라, 날 데려 가거라. 저승사자야 왕 날 데려가거라.

@2 멀엇수다. 오젠 허민.

#1 멀엇어? 하하하.

@2 예, 예. 멀어수다.

@1 완전 정정하신게마씨.

#1 정정헌 걸론 몰라.

@1 경허긴 허지예. 삼춘은.

#1 강○○이 잘 알건디게.

@1 잘 아는디 오지 말렌. 이름 영 행 허는 거 싫덴.

#1 나도 게 전이도 오지 말라 오지 말라 헤도 오라근예. 이상헌 할망이여 오지 말라 오지 말라 헤동 잘 곶아줍은 험젠.

@1 계난.

@2 경허난 온 거주.

@1 거난 삼춘은 와도 내쫓진 안헐 거라 영헨에 왓주마씨.

#1 난 무신 말을 들으민 다 머리에 저장이 뉘어 어뜨난산디.

@2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구나.

#1 저장이 딱 돼어. 동네 누게네 집이 누게 식계가 메칠날 다 알아.

@2 아.

@1 삼춘 썬준 콩죽 먹어나신디 이디 완.

#1 으게.

@2 콩죽도 먹엇었다고요?

@1 할머니가 만들어주셨어요. 삼춘 원래 이디 창천이파? 어디서.

#1 친정은 저 옷목을 상창.

@1 상창. 상창에서 이디 시집완예.

#1 상창에서 나는 저 아이고 난 글 알아점시민 책으로 하나 다 쓰지 그르와. 세 술에부
떠 새어머니영 살았어. 새어멍 허여오난 아덜만 다섯 성제 난. 겨난 그 왜정 때에 비바리공
출 헌텐 드리 일본덜 헌텐 헤낫주게. 옛날에, 왜정 때 제국 때에. 경허난 나 열으담 술에
우리 하르방은 열여섯 술에 우리 시아바님 혼번 와시난 우리 친정 아바님이 다 알아지난에
그자 스주 확 쥐부난 으경간 택일허연 아이고 동짓돌 스무일렛날 결혼식 허연 살멍 스물하
나에부떠 아기 난. 스물하나에 나고 스물넷에 나고 스물일곱에 나고 스물아홉에 나고 서른
둘 나난 이제 알침에 사는 아덜 나고 세 번채 딸은 이제 서른다섯에 나고 두 번채 아덜은
서른일곱에 나고 네 번채 딸은 서른아홉에 나고 마흔셋에 나고 마흔다섯까지 열 개 나서.

@2 어멍 술술술술 그걸 다 곶암서. 술술술술. 계산을 다 해뉘. 곤젠.

@1 잇어불질 안헤, 삼춘.

#1 경허연. 체암에 스물하나에 난 건 네 술에 가불고 네 번채 난 건 스물아홉에 난 건
으숫 술에 가불고.

@1 에.

#1 경헨 이제 딸 으숫 개에 아덜 두 개 팔남매라.

@1 옛날에 바느질도 헤낫지예. 옷도 멘들고예.

#1 바느질 늬의 옷덜 드리 헤엿주게.

@1 삼춘이 직접 헝 옷도 만들엉 늬이 것도 헤줍디가?

#1 늬이 것도 헤엿주게. 늬이 거 허연에 하영 벌엇어.

@1 아. 뉘 저승옷 같은 것도 만들어난?

#1 저승옷은 허는 거 아무것도 아니. 남저덜 입엉 그 모시 창옷, 멩지 창옷.

@1 그런 것도 만들어난?

#1 응, 멩지 증의적삼 도복 새서방 옷허레도 드리 텅겨나고.

@1 아이고, 전문가네예. 쟁 멩 살 때부떠 바느질은 헤진 거 닷으파?

#1 멩 슬 때부떠산디 건 몰르크라 윈.

@1 누게안티 배운 거라?

#1 누게, 시집오란에 멘네, 저 시어멍이 멘네 주멍 미녕 허렌 허연 불란, 테우는 디 간에
정 멘들안에 그거 좃안. 저 친정할망신디 간 좃아 줍센 헨에 모둥이 감고. 모둥인 허여근에
흔 열댓 개 고망에 께영 영 놀아근에 영영 새긋으멍 놀앙 저디 강 공쟁이 멩 개 박앙 걸
리는 사름 잇고 질쌘은 흐뵂도 비틀어지민 안 돼주게. 저디 사름도 베리곡 나도 베리곡 헤
영 영영 새긋으멍 멩 새, 멩 새 헤여근에 경헨 미녕 헤연 봄 나난 이젠 빨안 잿물에 숭안.

시어머님이 옷을, 이제 남펜 중의적삼을 허렌 들라주난 헐 중을 알아계. 난어멍 난어멍은 나 스물들에 벤 때 풍 걸런 오꽃 편편허난 우리 아버지가 정이 었으난 일본 도망가 불언. 왜정 때난.

@1 응.

#1 고완은 안 혀고. 계난 외할망 하르방이 어멍 돌아단에 의원 돌아단에 침 놓고 허여가 난에 오꽃 쓸러불언. 흐 착, 오른짜 다리 풀 문딱 쓸러불언.

@1 응.

#1 경헨 살암시난에 우리 아버님이, 경헨 일본 간 므음이 펜안헤사 돈도 별주계. 돈도 못 벌고 므음 불안허난 오란 날 보레 외가침이 가시난 외할망 하르방이 먹을 걸 당허나 돌아가나 허렌 허난 날 흰허게 업어 가불엇젠. 우리 어멍 말이.

@1 응.

#1 경허난 그 어멍이 재혼헨 어디 간 살단에 남펜 돌아가부난 상창 오란 살앗어.

@1 응.

#1 경허난 그 시어머니 옷 들라주난에 그디 간 어멍ㄱ라 이거 어멍헉니젠 허난에 영 부찌근에 아이고, 요렇게 부찌근에 영 소왕소왕소왕 쥐나근에 또시 요렇게 오령 텅침을 허여. 텅침이엔 허여. 허영 텅침허여낭 요 바위 브끼 준 어염으로 그차뵈 또시 이렇게 오그령 감쳐. 문.

@1 아이고 멧 번 허는 거라?

#1 세 번. 흐 실밥을 세 번을 쥐. 경헨 베왓주계. 경허단에 친정에 저 오라방 풀 때 체암이는 늙은 어른 빌어단에 도복이영 바지저고리영 허여신디 그 오라방이 올케가 안 살안 나가부난에 그 옷이 버무난에 우리 새어멍이 늙은 할망ㄱ라 어멍 또 읍서 갑서 허느니, 영 나 골아주건 허라 허연에 영 부찌고 영 허라 허난에 경헉서 허연 그거 헤어나난 아는 거라.

@1 아.

#1 경헨 또 족은오라방 풀 때는 또 이젠 날ㄱ라 어멍이 요영요영 허영 그창 허라 허난에 그거 베완에.

@1 손재주가 있네.

#1 몰라.

@1 눈썰미도 있고. 한번 보면 이거를 딱 다해가지고예.

#1 경헨에 살암시난에 어디 저 동동네 박침이엔 현 디 아덜 하나 이신디 풀젠 허난 나ㄱ라 도복이영 바지저고리영 헤도렌. 나 늙이 거 허여보지 안허난 당초 못헉네다, 못헉네다 헤도 게도 허여나난 허여진다 허난, 체암으로 늙이 혼섯옷 허레 가난 므음이 달달달달 떨리지.

@1 하하하.

#1 경헨도 잘못 그치진 안헨 제대로 그찬 만들어나난 아, 그로후젠 아덜덜 풀젠 허민 헤도라, 헤도라 허민 멧 밧디 텅기멍 허엿주계.

@1 전문가네.

@2 전문가네. 잘 와신계 우리.

#1 쟁 나이 들어가난 쑤는, 아덜 쑤는 디 허여도렌 헤도 아이고, 이젠 나 못헌다, 못헌

다 경헨 설러붙엇주게.

옷감 종류

@1 옛날에는 옷감이 어떤 옷감 어떤 옷감 이서났수과?

#1 옷감이게 광목이엔 헌 건 사오라근에 허고 미녕 멩진 집이서 누에 질좌근에게 누에 질좌근에. 이 집 체암으로 짓언 이디 초가집이라났어. 요디 짓언 늬이 집만 드러 살단 그 스슴스건에 나산 저 던남밧디엔 헌 디 살단 소가이 오라나난 저 열리 뜬드르엔 혼 디 간 살단에 올라오난 이거 칠십삼 년채라, 스슴스건이.

@1 와.

#1 경헨 올라완 늬이 집만 드러 살단에 이디 오란 집 짓으난 누엘 막 질랐주. 새집인 누에 잘 뉘는 거라. 제우 구들 하나만 놓고 마라도 널 엇이난 못 놓고 구들 하나 마리하나 켓방 구들 헌디 누엘 질루난에 막 잘 뉘언. 경허난 그 뽕 허여단 막 질루멍 아이고 우리 족은아덜 물애긴 때.

@1 응.

#1 경허난 우리 동생도 빌언에 뽕허레 가오고 우리 하르방도 어떻헉니까, 목숨 산 거 데 꺼블도 못허고 헤연 저 산에 간 허여단에 질란 누에가 잘 뉘난 그 유채낭 잊지. 유채낭.

@1 예.

#1 구들에 과짜허연에 누엘 드러 올리난 헤양케 집 짓언. 겨난 그거 난 그거만 안 헤봤어. 누에 싸는 거.

@1 아.

#1 고치 싸는 거. 누에고치엔 허주게. 그거 요디 싸는 할망 시난 빌언 짚에 영헌 것에 영 가림허영 끼와근에 뱅뱅 감앙 놀안 메여근에 찬에 옷 헛주게.

@1 멩지도 있고 미녕도 있고.

#1 미녕은 멘네 갈아근에게 블라근에 테우는 디 강 테와당 좇앙 실 멘들아근에 감아근에 허곡게 그추룩 헛주게, 옛날은. 경허멍 살앗주게.

멩주

@1 멩지부터 허쿠다예. 멩지는 종류가 무신 멩지 무신 멩지 이수과?

#1 아, 그자 멩지엔만 허여.

@1 아, 그냥 멩지엔만 허여.

#1 응. 멩지.

@1 혹시 토멩지여, 생멩지여 허는 말은 뉘파?

#1 생멩진 빨지 안헌 것ㄴ라 생멩지엔 허곡 누인 건 누인 멩지, 빨아근에 문 풀허영 다 듨곡.

@1 아.

#1 그것ㄴ라 누인멩지. 생멩지 누인멩지 것베끼 엇어, 이딘.

@1 것베끼 엇어. 멩지론 주로 무신 옷 멘들아마씨?

#1 무시거 헤게. 새서방 바지 저고리도 허고 도복도 허고 증의도 허고 적삼도 허곡 여저

덜토 이제 치메저고리 옛날은 그걸로 멘들양 입영 텅젓주게.

누에 기르기

@1 응. 아까 잠깐 곱아신디 누에 질루는 거 자세히 곱아줘봅서. 어떻게신지.

#1 누에 질루는 거?

@2 알서부터. 알 사는 거부터.

#1 아, 그 영허영 누에 저 멧 종지 허민, 저 요 똑 종지 어픈 거만씩 허영 뵙들락뵙들락 허게 허민 멧 종지 허주게. 난 그때 반 장이 으답 종지라. 경헨 저디 아시ㄴ라 들어보도 안허고 아시영 혼디 질루겐 허젠 반 장을 청구허연 누에씨 나오난 아시ㄴ라 곱으난 난 안 허쿠다.

@1 하하하.

#1 아, 경허난 그거 문딱 깨우난 깨우민 영 득터럭, 득깃으로 종이레 영 털어낭 종이 차 룡에 곱아근에 허영 뵙 복작 썰영주민 먹으민 즘자. 먹영 즘장. 초불즘 자곡 두불즘 자곡 네불즘 ㄱ장 자민 막 먹으민 그 누에가 막 먹영 썰 나오게 돼민 영 들르민 모가지에 얼랑얼 랑얼랑허주게. 경허민 올리민 그자 집 짓어근에 허는 거.

@1 어드레 올려?

#1 ㄴ사 안 곱아냐? 유채낭 곱아근에.

@1 유채낭 곱아근에.

#1 그 우터레 올렛주게.

@1 그냥 올려주기만 허민 돼마씨?

#1 그레 비우민 그자 지네냥으로 멧기멍 고망 좃앙 집 짓어.

@1 아.

#1 경헨주게.

@1 뭐 무신 영, 저 뭐.

@2 여기 대나무로 헹 짜진 안 헤여, 선반 짜진 안 헤여?

#1 그건 차룡 엇인 사름.

@1 응.

#1 난 아래도 허곡 차룡에 헷주게, 차룡에.

@1 그냥 차룡에.

#1 ㄴ, 고량착에.

@1 고량착에. 그냥 집이 이신.

#1 ㄴ.

@1 거 너미 족지 안헤?

#1 족으민 바닥에도 허여근에 문 허곡.

@1 아.

@2 계난 삼춘은 뭐 영 짜놓진 안헷구나.

#1 응, 그런 건 안 헤난.

@1 그냥 방에.

#1 응, 경현 집이도 서. 영, 영영영 칭계칭계 허멍 짝으로 영허영 멘들아근에 그레 영 낡 그레 누에 올리민 고망 좃이멍 집 짓어. 난 그건 안 해뵈.

@1 그믄 유채낭만 영 세왕.

#1 응, 응. 경헤연에.

@2 줌팍도 안 만들고?

#1 으게. 경허옛주게. 아이고 침 옛날추룩 행 살렝 허민덜 이제 못 살아.

@2 거 몰라부난 그걸 들으레 온 거.

#1 게 맞추게. 몰르주게.

@1 그 뽕잎은 얼마나 자주 줘야 뉘는 거마씨?

#1 막 한밥이엔 허영 막 꿀즙 잔 땀 영 먼저 준 건 돌아상 보민 판짚 먹어.

@1 아.

#1 뉘구리만 이서. 뽕이파리가 뉘구리만 이서. 막 주민 비오는 거추룩, 먹는 소리 와시시 시허게 막 나누게. 뽕 먹는 소리. 고개 좃으멍 울로부며 행 조근조근조근 먹곡 또 올라강 조근조근조근 먹곡 허여근에. 경행 막 먹어가민 비오는 소리 닳아.

@1 아, 비오는 소리 닳아.

#1 으, 와사사사사

@1 그거 얼마나 질루민 집 짓읍니까?

#1 얼마? 네불 줌 자도록 질람주. 애기줌 자곡, 두불줌, 세불줌 경허민 줌 장 깨민 흘 벗어. 흘 벗어근에 츄츄츄 경 줌 자다근에 줌잘 땀 아이 먹어. 쟁 네불 줌 자근에 막 먹어 지민 집 짓주게.

@1 그민 흐 일주일만 키우민 뉘어?

#1 아니여.

@1 게믄.

#1 흐 보름 뉘주.

@1 아, 잠을 하루에 한번 자는 게 아니구나.

#1 아이구.

@1 하하하.

@2 보름이민 큼니까? 흐달 아니고?

#1 보름, 흐 보름.

@1 보름이민 커. 응.

#1 옛날은 경허멍 다 옷그슴을 멘들안 옷헨 입엇주게. 아이고.

@1 아까 뽕잎 타레 간 것도 곱아줍서.

#1 뽕잎 타레?

@1 응.

#1 뽕잎 타레 난 아기따문 가보지 안헤영 하르방이영 딸이영 보내뉘근에 저 늬 전인 우 녀ng 신사름은 우녕에 뽕낭을 싱건에 헛주게. 싱경 허민 막 툄아나민 그 소독에 흐 두 앞상 귀, 세 앞상귀 신 거 아기 업곡 행 강 그거 툄아당 줘근에 먼저 준 건 보민 판짚 먹곡 경 이제 어두워가난 뽕 마중 갖주게. 또.

@1 예.

#1 마중 가난 저 동넛 할망이 이제 아이고 아지방 가난 낭에 올란 나대로 막 그차 느리 우난 우린 아래서만 톤안 좋아라, 좋아라.

@2 응.

#1 경혜연 그 누에 허연에 마리에 이제 뒷무똥에서 혜연 참시난 요디 요 동동네 애기 엇인 할망이 친구라 나영. 오란에 아이고 멩지도 곱다. 적삼행 입어시민 고우켜, 고우켜. 하도 경허난 나 그 할망 적삼 하나 허여 안네고.

@2 아이고.

#1 경허난 그 할망이 아기 엇인 할망이난 우린 아무것도 집도 첨 집만 이디 오란에 늬이 집터에 샳 물멍 곡석으로, 곡석으로 샳, 요 서넉집이 하르방네 신디 샳 물멍 살앗주게.

@1 응.

#1 경허단에 그 하르방 할망네가 당신네 냥으로 밥을 못 행 먹어가난 곡석, 돈 환산허여 근에 돈으로 도렌. 경헨 돈으로 드러 물단에 그 아덜네가 풀켄 허난에 돈 빗전 이거 그때 땅 이백오십만 원에 산. 아이고.

@2 이백오십만 원에

@1 이젠. 하하하. 이제 멧 배 똥주.

#1 이디 오건디 딱 쉰아홉 해여.

@1 아.

#1 쉰아홉 해. 경허난 그 할마니가 애기 엇이난 그자 날 뜰추록 허민 나도 막 잘허연 허난 그 할망 허는 말이 아이고, 나 저승 가민 느네 잘 똥게 허켜, 잘 똥게 허켜, 드러 경 곱 아났어.

@1 응.

#1 우리 때 먹을 땐 아이덜 으답 개에 우리 두갓허민 열 식구 아니라게. 아방 쯤 상, 외상 허영 안네둥 옛날은 낭푼이에 퍼냥. 모다앗앙 먹엄시민 그 할망은 푹 밥 먹을 땐 잘 와.

@1 하하하.

#1 아이고 요것덜 섬자리ㄴ찌 보고고고 허다 허민 나 어디 경 큰 자리 십디가 경허명.

@1 하하하. 섬자리 죽은 거짜?

#1 죽은 거주.

@1 무사 섬자리엔 큰 거? 그냥 자리도 아니고.

#1 몰르켜게. 게민 그 할망은 농담으로게 경 하도 식귀도 하곡 허영 모다앗앙 뱅허게 돌 아앗앙 먹엄시민.

@1 부러워서.

#1 응. 먹엄시민 농담으로게. 아고 요 섬자리만씩헌 거덜 보고고고허게 모다앗앙. 경허민 난 어디 경 큰 자리 십디가? 경허명 그 할망이 저 올레로 오멍 아이덜신디 어멍 시냐, 어멍 시냐 경허명 오라근에 나신디 오라근에 무시겨 먹으민 장이 들텐 드러 허여.

@1 응.

#1 장 들텐 허민 그 할망은 못 민영 고리카부텐 막 짜게만 허민 이 똥장도 간이 맞아서 주 너미 짜민 맛이 엇주게. 칠칠허영.

@1 아까 누에 다 헤근에 현 말 다시 들어보쿠다. 집 다 짓언. 계민 그다음엔 어떻게?

#1 그다음엔 어떻 허여게. 문 다 집 짓영 굳으면 타근에 그 누에 본데기 겹테기가 잇주게. 그거 문딱 다듬아근에 들류와. 막 들류왕 싸는 사름신디 강 빌어근에 실을 만들어 왓주게.

@1 그 싸는 사름은 어떻게 실 멘들아마씨? 물 꿰여, 숲아?

#1 담 영 다근에 그디 웅조리새끼 앓정 흔 펜으론 영 낭으로 불 숲곡 저펜인 기계 놓곡 요펜인 할망 앓아근에 누에고치 영 놔근에 그 대막뎡이 젓가락추록 허영 두 개허영 영영 젓으민 실이 대막뎡이에 올라오주게. 부뎡.

@1 아.

#1 경허민 그 기계에 영영허여근에 발에 감아냥 발이 네 개라, 그 기계도. 즈록. 경헤영 빙빙빙 감주게.

@1 발이 네 개가 있는 게 기계에.

#1 응, 기계에 즈록.

@2 영 돌리는 거.

#1 응, 즈록. 경헝 흔 펜이 발은 영 부찌 따로. 경 부찌민 멍지실 영 감으민 지깍허주게. 경허민 발 흔착은 영허영 즐라뎡당 튼으민 그 실이 누그러지민 테어근에 허여동 따시 경허민 지깍허민 이 독무릅에 영허여근에 그걸 문따 테어사여. 따르기 전이.

@1 부떠 붙어?

#1 응. 부떠 붙어. 부떠 붙어. 바짝 들르민 부떠 붙어. 경헤영 문 떼어근에 저 공장에 헤영 베꿏디 들르게 그늘에 걸어뒀근에. 또시 싸근에 허민 또 누에 9정간 사름은 독무릅에 영 끼왕 일일이 그, 그 즈록신디 가난 디만 영현 딘 경 안허고.

@1 아, 그쪽애가.

#1 즈록 신 디 가난 디만. 네 밧딜 경 딱 허주게. 겨민 몰라볼민 테지 못허고 문 찾아질 겨난 젓은 때에 헤여근에 저디 걸영 놔두민 들르민 또시 그 감는 기계헤여근에게 즈록 팽엔가 대바지엔가 찢러근에 끼와근에 감주게. 얼마나 공들어.

@1 계난예.

@2 즈록 신 디라고 이야기한 건 영 동그란 디 이시민 여기 네 밧디를 얘기허는 거?

#1 응, 응.

@2 여기가 즈록 신 디렌 끈는 거짜?

#1 응게, 영영 실 감아지게 즈록을 허여사 그레 감아지주게. 즈록이 엇이민 이 손으로 흔들르는 건 또 옆이 즈록이 잇고. 즈록이 이서사 손으로 영영 흔들르주게. 겨난 웬착손으론 영영 흔들르민 실이 나오명 감아지곡 이 오른쪽으로 드러 젓곡 이제 문저 논 거가 거자 뒤가민 또시 췌어 놔근에 또 헤영 또 인술, 인술 헤영 그레 부찌곡.

@1 인술, 인술은 뭐?

#1 잇어지게.

@1 아.

@2 실 나오민 영영영영.

#1 잇어지게 잇어지게. 그 문저 거영 잇어지게. 경헝 헛주.

@2 계난 요만요만요만 현 것털이 물에 노난 그거 풀어지명 나옵디다예.

#1 으게. 경현 거. 아이고 침.

@1 쟁 그거 현 다음 다 말린 다음에 그것도 메고 날고 험니까?

#1 경허난 나 낫사 안 골아냐게. 대 허여근에 네 밧디 대허영 그레 독 실가림 끼와근에 게 그 장통에 감았어. 장통에. 장통에 감아근에게 놀 때엔 저디 현 열두 개나 열다섯 개나 낡. 이제 나 그거 잊어불영 몰르켜. 멧 새, 멧 새 헤영. 놀아근에게.

@1 늑는 거 다시 현번 잘 골아줍서. 어떻 행.

#1 늑는 거?

@1 예. 메고 놀고 허는 거.

#1 늑는 거 메는, 저 늑는 건 요디 요디 요디 공쟁이 박곡 요디 박곡 이딘 새 흘 디 세 개 박아. 영 허여근에 영 꼽아근에 꾀쟁이 즐라메영 요디 걸어뒤근에 저레 강 저펜으로 츠레로 걸어오면 여기선 또 썰 좇아, 새.

@1 새좇는 건 어떻 허는 거?

#1 새게 그 뷔디 끼우곡 허는 거, 새 영 실, 우알실 영영 가게 썰 멘들아야주게. 경헤영 영영 허여근에 이레 영 끼와근에 멧 새 현 새, 두 새 허민, 이레 새 갈라지게 새나 검질께 기 놘근에 다음엔 또 허여근에 또 현 새 헤지민 또 검질께기 놓곡 경헛주게.

@1 현 새 어만이 현 거?

#1 어?

@1 현 새 허민 어느만이 실이 어느만이 정도 뉘마씨?

#1 현 새, 현 새 허민 게메 잊어불언 건 모르크라 이젠 원. 잊어불언. 드려 허어나신디. 늑이 것도 드려 놀레 가고 메레 가고 차레 가곡 드려 허어나신디 그걸 이젠 허렌 허민 몰르크라.

@1 메는 거부터 허는 거과? 늑는 거부터 허는 거과?

#1 놀아놔사게.

@1 놀아나사 그다음 메는 거.

#1 으. 놀아놔사.

@1 늑는 거부뉘 허게마씨. 저디히고 올레, 올레에서 마당에서?

#1 마당에서 검질 판칙 근어뒤근에.

@1 응. 근어 뒤근에.

#1 말톡 박아근에.

@1 말톡 멧 개나 박아?

#1 경허난에 으라 개 하영 잣술 하영 허젠 허민 말톡도 여라 개 들고, 잣수 하지 안허민 하영 안 들고 경헛주게. 실 꿩는 거 영허영 질게 허영 고망 문 뜰라근에 이디 영 지둥 박 앙 가운데 영 벌러근에 그레 그 실 꿩는 거 톱 접져두서 절로 이레 꿩민 이디서 마타근에 즈근즈근즈근 쿵똥하게 심어 놘근에 톱 즐라메어근에 경헛주게. 마당에서.

@1 마당에서예. 멩지실허는 디도 풀칠허곡 물리곡 험니까?

#1 게. 그거 마찬가지. 미녕이나 그거 마찬가지.

@1 풀칠은 어떻행 험니까?

#1 풀칠은 어땜. 가시리풀 썬근에.
 @1 가시리풀 썬근에.
 #1 응, 영 그 솔이 잇주게, 솔. 영 뻬이는 거. 그걸로 적아근에 영 뻬영 삭삭삭 훑터근에.
 @1 솔로 영영 뻬여?
 #1 응. 솔로 뻬영. 경 문딱 적정 경혜사 털이 엇어근에 차주게.
 @1 밋테 무신 불도 살라?
 #1 불 사르주게. 멩지는 알루난 벧 나민 벧에도 물류는디 미녕은 물똥 피와근에 물똥 일로 저만인 허게 이만인 너베기 허곡 지러긴 일로 저레 만이 허영, 물똥 피왕 문딱 부떠사 곳불은 나민 안 뉘주게. 실 카불어근에.
 @1 곳불은 불 막 올라오는 거?
 #1 응. 잉경이만 잇게.
 @1 아. 그건 미녕힐 때는 물똥으로 허고.
 #1 으, 멩지는 그스락이나 불 피왕 약간만 약허게. 멩지는 실이 그느니까 잘 모르주게. 경헝 허고 경헝주게. 미녕은 또 그 다라에 풀 놉어근에 영 풀어냥 잘강잘강 놀려.
 @1 아, 미녕허고 다르구나. 멩지허고.
 #1 다르주게, 메는 건. 도꼬마리 귀클이엔 현 거 허영 가달 든은 거 허어근에 즈룩 박앙 저레 강 낡 미녕을 그레 가근에 영 뱅뱅 감앙 즐라메영 그레 딱 지돌라근에 경혜영 들르민 그 도꼬마리엔 현 거 대 툃툃허게 새에 부뜨지 안허게 주멍 막 등기멍 감고 경헝주게.
 @1 건 미녕이고.
 #1 멩지도 경. 미녕도 경.
 @1 아, 멩지도 경.
 #1 응, 메는 건 마찬가지로.
 @1 아.
 #1 마찬가지로.
 @1 느는 건 영 마당에 이렇게 허는 거고 메는 건 도꼬마리에 감는 거파? 풀칠혜근에.
 #1 으게.
 @1 무사 느는 거마씨? 메기 위해서 느는 거?
 #1 늑음게 미녕 뉘게 멘들랴고 현 거주게. 멘들랴고. 미녕 그 물건을 멘들젠 허난에 맞 환. 옛날 어른덜 침 머리가 좋아. 그거 현 거 보면. 나는 시집완 보난 시어머니가 그런 걸 허염시난 혼디 뉘 때 허라 허난에 영. 브디도 두 개 허여.
 @1 예.
 #1 깍브디, 머릿브디. 경혜근에 깍브딘 문 허어근에 저 찰 때 영 흐뎡 차민 물건이 뉘거든. 경허민 울로 꼬차뉘근에 깍브딘 앗아불곡 차는브디만 차곡 경헝주게.
 @1 브디가 두 개라?
 #1 두 개주게. 두 개.
 @1 이렇게 허는 거밖에.
 #1 앞브디, 뒷브디.
 @1 아까 깍브디. 깍브딘 뉘 허는 거파 계난?

#1 개세 느류는 디 가는 거. 개세엔 허여.

@1 개센 뭐라?

#1 그 이상허여. 그 미녕도 메어보민 살림이 막 살기 좋은 사름은 개세엔 현 게 솔솔 느려가는데 굳작 놀 땐 느려신디 살림 굿인 사름은 그 실이 영영 감아지멍 그렇게 힘이 들어. 경허민 옛날 어른덜은 질쌘 해보민 알아진다, 알아진다. 살림 굿은 사름은 질쌘도 그렇게 허기가 굿어, 뭘 때. 경허민 깍브던 흐뎡 차근에 그 물건이 뉘면은 울로 꼬차근에 깍브던 빠불고 뒷브디는 막 무거우민 지름 불르멍 짜주게. 지름 불르멍.

@1 브디에 지름을 블라?

#1 경혜사 게부와.

@1 아, 기계니까 그것도예.

#1 응. 경 멩지는 실이 그느난 막 브디가 게부와.

@1 아.

#1 흐는 거 확실히 봐야 알주. 꿀양 몰라.

@1 하하하.

#1 그 늙이엔 현 건 그 바둑을 문 멩글젠 허난 시작허는 거주게. 시작허는 거.

@1 예. 그 브디에 실도 다 끼와야 뉘는 거 아니?

#1 끼와야주게. 브디 두 개 해여근에 그, 그것도 어류와. 브디 두 개 해영 고망에 하나도 걸르지 안허게. 고망 걸르민 미녕 짜민 질 나부려. 흰허게.

@2 질 나불어.

#1 고망이 흰허게 나불어. 겨난 질쌘추룩 올바른 건 엇어. 똑 지 고망에 살아사.

@2 아.

#1 차다근에 실이 끈어지면 잘못 꿰지주게. 그 실 신 고망더레 꿰지민 안 뉘어.

@1 두 개 들어가민 안 뉘고예.

#1 두 갠 들어가주게. 흐 두 개 들어가야 우터레 갖다 알러레 갖다 허민 그 스이에 북을 질러근에 짜는 거주게.

@1 응.

@2 그 브디도 고망이 트난 것들이 으라 개 이십니까?

#1 게 으라 개 잇주게.

@2 게민 그 고망에 트나게 따라가지고 실이.

#1 경허난 고망에 툄라근에 그 늙대에 실 수정을 맞춷주게.

@2 경행 멧 새, 멧 새 허는 거?

#1 응, 응. 경허영.

@2 그 고망 크기에 따라.

#1 미녕은 옷 새, 일곱 새 허고 멩지는 열흐 새, 열두 새. 난 열두 새 헤낫어.

@1 멩지는.

@2 게민 여섯 새가 좋은 거파, 일곱 새가 좋은 거파?

#1 일곱 새가 좋은 거주게. 더 즘질아,

@2 즘질아.

#1 실이 더 ㄱ늘아.

@2 예, 예.

@1 이때 아까 말한 일곱 새 여덟 새 허는 거는 뭐가 일곱 개가 뭐가 여덟 개엔 허는 말 마씨?

#1 실게, 실.

@1 실이 일곱 개 들어가는 거? 어디에 일곱 개가 들어가?

#1 멧 새, 멧 새 허는 거. 혼 새, 두 새 경허영 허는 거. 경허민 옷 새, 일곱 새. 일곱 새가 실이 흐쉴 ㄱ늘앙 고와. 옷 샌 실이 독져근에 혼 건 옷 새 미녕이엔 허고.

@1 그제 여섯 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1 아니, 아니. 실 하영 들어가주게, 무신.

@1 거난 여섯 개나 일곱 개가 들어간덴 허는 말이 아니고 그냥 옷새 미녕, 일곱새 미녕 곤는 거파?

#1 ㄱ게.

@1 아까 멧지는 열한 새나 열두 새 헌덴 허명예?

#1 응, 난 열두 새 헤여난.

@1 건 더 가는 거지예.

#1 ㄱ느난에게 열두 새 허는 거주게. 경허난에 그 ㅼ디영 난 ㅼ디도 드려 헤여나난 두 개나 이서났어. ㅼ디엔 혼 건 ㅼ디집 영 낭으로 뉼 거 영 끼완에 영영 짜난 거. 저 알층에 열두 새 ㅼ디호고 끼완 주난 누게 쥐불어사신디 누게 ㄱ져사 가불어신디 엇인 거 닐아.

@1 엇어마씨.

@2 물어방 놔둬서예.

#1 물어방 뒗허여?

@1 이시민 사진 찍젠.

#1 경헨 이디 하나 ㅼ디도 엇고 혼 거 싯단 우리 다섯 번째 사위가 옛날 물건 막 좋아 허주게. 게난 가네 쥐불엇어.

@2 쥐불엇덴.

@1 그 집이 사진찍으레 가사크라.

#1 그 사위네 집이 간 보난 초가집이 창문헤난 거 ㄱ져간 게 문 기념으로 마리에 문 세 완 놔뒗선게.

무명

@1 응. 게민 이젠 미녕예, 미녕헤 보게예. 미녕은 어떻헤근에 처음부터. 멘네부터 헤야뉼 거 아니?

#1 멘네 갈아근에게.

@2 가는 거부터 쪽쪽쪽쪽 곱아줍서.

@1 어떻헿 갑니까? 무신거 불치에 서경?

#1 불치에 서경.

@1 멧 월달에

#1 멘네 씨허영 버물령.

@2 멘네는 몇 월에 가는 거라?

#1 봄이.

@2 봄이.

#1 봄이 갈주게. 봄에 갈양 고랑에 영허영 솔솔솔 삐영 검질 멘네 나면 좇이민 안 뉘난 적당이 놔뉘 메어 붙어. 너미 한 거는 메어뉘 이만이 크민 고장 피주게. 고장 피민 그것이 고장 가불민 열매가 뉘영 드레엔 허여 드레.

@1 응.

#1 경허영 그것이 막 익으민 케어. 벌러져 영 다 가름. 경 벌러정 바름바름하고 오래민 또 이레 지랑허게 등기고.

@1 아.

#1 경허여근에 타다근에게 드러 물류왕 멘네 영 불르는 물레 허여근에 물렛살 두 개헤여 근에 영 맥영 영영 흔들르민 썬 앞더레 털어지고 멘넨 저레 구름꺾 미밋 나가곡. 경행 또 물류왕 태우는 디 가민 멘네정이엔 허여근에 이만씩허게 허영 영영 밀어근에 뉘주게.

@1 응.

#1 경허민게 그 물레 허영 또 좇앙 실 멘들아.

@1 그 좇는 건 어떻행 허는 거파?

#1 좇는 것도게 저 영허영 크게 물레 멘들앙 나 그것도 멘들안 허당 놔뉘시민 이제 헐 건디.

@1 계난.

#1 멧 밧디 스슴사건에 설런 땡기명 다 데껴불언.

@1 하하하.

#1 경허고 요펜인 또 족은 거 허영 가레기엔 현 거 메와. 가레기엔 현 거 메우고 이딘 큰 물레 허곡.

@1 가레긴 뉘로 만든 거파?

#1 쉘로.

@1 쉘로 뉘 거파?

#1 응. 쉘로.

@1 쉘로 이런 거?

#1 쉘로 톱 이추룩 허게 허영 이 가운데 추승을 찢러. 이디 가운데 찢러.

@1 무신걸 찢러?

#1 추승이엔 현 거.

@1 추승이 뉘라?

#1 뉘산디 추승이엔 현 거 잊저. 그 경허면은 요디허곡 요디허곡 허민 께허영 물레에 메와근에 이레 끼와 경허민 그 께가 요레도 안 가곡 요레도 안 가게 코쟁인 이추룩 올로도 나곡 올로도 나곡허게 이만인 것꺾라 가레기엔 현다.

@1 예.

#1 가레기 허여근에 영영 허영 그 이딘 또시 저 어욱 겁테기. 어욱 겁테기 헤당 찢러근

에 실을 채암엔 영영허영 밀어근에 요레 흐뎡 감아근에 영 물레 둘러근에 영허여가민 실이
졸졸졸졸 떼와지명 실이 나오주게.

@1 예.

#1 영허영 조록허게 올리곡.

@1 하하하. 거민 실이 이레 감아질 거, 가레기레?

#1 응, 가레기레 감아지주게.

@1 감아지고.

#1 감아정 ㄹ득으른 또 빠뒤근에.

@1 ㄹ득으른 어떻 빠?

#1 어떻 빠게. 영 빠민 빠지주게.

@1 그믐 췌 그냥 잇고 어욱 꺾데기만.

#1 췌 그냥 잇고 어욱 꺾데기만 빠뒤근에 다른 거 다시 끼와근에 또로 허곡 경.

@1 어욱 꺾데기에 실 감아질 거 아니예?

#1 응.

@1 그거 빠동 다시 또 어욱 꺾데기 끼왕.

#1 또시 좃앙.

@1 또시 좃앙.

#1 경허영 영영 흔들르민 조로록조로록 행. 아기 발로 영영 자랑자랑자랑.

@1, 2 하하하. 아기 흥글명.

#1 발로 흥글명. 발로 흥글명 자랑자랑.

@1 발 다 따로, 손 따로구나.

@2 실 안 그차집니까? 경행.

#1 아이 그차져. 서툰민 그차져. 서툰민 그차져도 경허당 만일에 가운데 흐설 부푸레기
가 이성. 경허민 이 손 내불어뒤근에 영 헤영 영 흐뎡 영영허민 풀어져 부푸레기가.

@1 아.

#1 경허명 허엿주게. 어떻행 허여. 아이고 춤말로.

@1 이 어욱 꺾데기 감아, 실 감아지민 이진 그다음엔 어떻힙니까?

#1 그진 어떻허여. 또게 놀젠 허민 돌세기 헤여근에 놀 건 모둥이로 감곡.

@1 아, 안에 돌세기 놔근에.

#1 응. 돌세기로 행 감앙.

@1 모둥이로 감고.

#1 모둥이고 감아근에 영 돌아가명 영허고 정허곡 허곡 또시 북에 놀 건 꼬리 막텡이 꼬
리 똑 이만인 현 거 허여근에, 똑 이보단 흐뎡 크주, 영허여근에 막텡이로 허영 요디 영 가
려근에 요레 실 췌정 뱅뱅뱅뱅 감아근에 종ㄹ득으민 놔두민 북에 미녕 찰 땀 울로 실 나오
랑 북에 놔근에 북으로도 옆으로 고망이 잇주게. 경허민 울레 드리치고 울레 드리치곡.

@1 하하하.

#1 경헨 헤세.

@1 이진 날고 메고 다 헤난 다음 허는 거 아니예?

#1 으게. 아니 놀고 메고 다 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 내음 시초, 시초.
 @2 맨처음.
 #1 처음. 멘네 허영 만들어 오면 실 멘드는 게 처음.
 @1 근데 북에는 젤 나중에 놀 거 아니? 북에도 먼저 놔?
 #1 북엔 ㄹ찌 영.
 @1 꼬리 감는 거.
 #1 게 꼬린 게 미닝을 멩글젠 허민게 영 허염주게.
 @1 꼬리 감고 허는 건 실 다 풀칠 해난 다음에 허는 거 아니?
 #1 으게. 그건 짜는 건 다 메어냥.
 @1 응.
 #1 겨난 죽으멍 굴아도 모른다게.
 @2 아니 잘 굴아줘야 우리가 이해를 헤마씨. 우리 그거 다 풀어야 돼. 몰라.
 @1 잘 설명을 다시 들어보게.
 @2 모르크라.
 @1 이거.(잡담)
 #1 아, 이거 좇는 물렌게게. 이거 좇는 물레.
 @1 좇는 물레.
 #1 맞다게. 좇는 물레 행 이 께, 이것 ㄹ란 께엔 현다.
 @1 아, 이게 께.
 #1 으, 께. 경허여근에 영영 흔들르민 이레 가레기 끼와근에 허민 ㄹ사 어욱께데기 이레
 찢러근에 영영영영 좇아근에 실 문 요만이 허민 나오민 요레 조록허게 헤뒤근에 또 영행
 또로 허고. 경헛주게.
 @1 게난 지금 삼춘이 앓아근에 이거 실 헐 거다 허민 좇을 거다 허민 이거 물레 영 놀
 찢이파, 영 놀 찢이파?
 #1 아니, 영 놔. 이것이 츠레주게.
 @1 이것이 츠레예. 게문 실 모둥이가 여기 이서.
 #1 영게. 이거 이렇게 허고.
 @1 멘넛정.
 #1 영 헐 거주게, 영.
 @1 영허고 그문 실이 영 감아져근에 요레 와근에 영영영 감아.
 #1 무사 이레 감아져게. 이 어욱 끼운 것더레 바로 영 실 내우민 이레 조록기 허여뒤근
 에 감아져블민 또 영 잡아 텅경 이거 드러 둘러가민 실이 나오민 또 요레 영 허곡 경헛주
 게.
 @1 실은 이디 감아질 건디 요디는 뭐 감아져?
 #1 감아지질 안헐 거주게. 이딘 그자 실 내우는 기계주게. 이건 기계, 기계 아니가?
 @1 아. 예.
 #1 이건 께, 께엔 헛저.
 @1 이건 께. 뭘로 멘드는 거?

#1 실 으라 가지 곱이쳐근에 무시거 저 민들민들허게 그 옛날은 그 별 주시, 영영 헤영
멕엇저, 경허민 민들민들허게 헤여근에 허민 이레 돌아, 돌앗주게.

@1 응.

#1 문 그림 그런 뎡점구나게.

@1 예.

@2 이게 께.

@1 께렌.

#1 이진 브르는 물레. 다 그림 그런 뎡점구나게. 누게가 그린 거라?

@1 사진, 사진.

#1 사진 찍은 거.

@1 어떤 삼춘 집이서 쓰던 거 박물관에 기증헌 거.

#1 겨난 이것은이 즈룩이 이레 영 오민 이 영 이거 즈룩 흔들러가민 이것가 막 흔들주게.
겨난 이진 영 길앙 앓이민 디깍허여근에 올로 멕이민 두터레 나간다. 이진 브르는 물레.

@1 브르는 물레.

#1 멘네 브르는 물레.

@1 멘네 브르는 물레. 요거는 좇는 물레.

#1 좇는 물레. 옛날 거 선에 간 사진 찍언.

@1 예, 박물관에 기증헌 거.

#1 아, 박물관에. 박물관엔 강 보민 첨 옛날 거 다 이신다.

@1 예. 데끼지 안행 박물관에 기증헌 거.

(잡담)

@1 아까 그 어욱 껍데기에 감아진 거 보고 무신거엔 곱읍니까 그건?

#1 고지기엔 허느냐, 고지기.

@1 고지기.

#1 고지기엔 헤실 거라, 고지기. 영허영 돌생기에 감은 건 모둥이.

@1 건 모둥이.

#1 응, 이진 고지기.

@1 그 영 감아진 거는 어욱 껍데기에 실 영영 감아진 건 고지기.

#1 고지기. 영 감은 건 꼬리. 또시 대에 영영영영 현 건 꼬리.

@1 예, 대에 영영영 헤근에 꼬릿박에 담을 거예.

#1 응. 꼬리, 그건. 아이고 이제도 껏나지 안헛구나. 난 껏나시카부덴.

@1 아까 멘네 타레, 멘네 그 피기 전이 막 타떡기도 허지예?

#1 으게. 그 막 멘네 굳기 전인 타 먹으민 막 맛좋아. 돌코롬행.

@1 맛좋아, 돌코롬헤.

#1 우리 네 번째 뜰 멘네 타난 말 드러 곤나, 이제.

@1 뭇엔 곱읍니까?

#1 아이고, 나 어멍 멘네 갈앙 강 멘네 타라, 타라 허난 간 막 멘네 타멍 헤낫어 허멍.

@1 멕엇젠 말은 안 곤고.

#1 응.

@1 막 먹어 불민 그거 옷 행 입을 건디 먹어 불엇젠 옥도 허고 막 해낫넨 헨게마는.

#1 으게. 그거 멘네 뉘민 든 탈 걸 게 타먹어 불엇젠게. 옛날은 아이덜 먹을 것도 엇고 허민게 검질 메명 타 먹엇주게.

@1 거 무신거에 타 놓니까? 구덕 가정강?

#1 구덕 ㄴ정강게.

@1 그냥 영? 차는 거?

#1 으게, 차는 거.

@1 찰구덕, 출구덕.

#1 승키구덕 엇어나시냐? 고사리 거끄는 옛날, 거 차근에게 영헨 타낫주게. 그 인척이나 굴은 요디 할망이 저디 남당물이엔 현 어염에 드르깡이가 셋저게. 우린 엇이난 그 밧을 빌언 가난 그 할망이 멘네 갈라 멘네 갈라 허연에 혼 삼 년을 갈았어, 멘네. 경헤낫저.

@1 겐 잘 뉘디가 그디 멘네?

#1 응, 잘 뉘언.

@1 멘네도 잘 뉘는 디가 잇고 안뉘는 디가 이신 모양이라예?

#1 흑발 센 디가 잘뉘다. 흑발 센 디가.

@1 아, 북군드렌 멘네 잘 안 갈드라고마씨. 남군드레가 많이 갈고예.

#1 응.

모시

@1 이디 모시도 해낫수과? 모시.

#1 아니여, 모신 안허여.

@1 모신 안허여예.

#1 모신 안허여. 어디 육지나 헛주. 모신.

@1 모시로 옷은 행 입읍니까?

#1 옷은 허영 입고 죽영은 안 입엇저.

@1 아, 죽영은 안 입어. 무사 안 입는 거라?

#1 죽으민 모시옷이 들어가민 아기 즈손에 머리가 흰덴. 경허연 안 입어낫저.

@1 저승옷엔 모시로 안 허는구나예.

#1 모시옷은 서도 안 입젿어, 옛날은. 멩지허고 미녕만 입엇주.

‘홍세미녕’

@1 아, 아까 안 물어본 거 이신게. 결혼식헨 때 홍세미녕.

#1 홍세미녕은 그거 두 빌. 마흔 자가 혼 빌이엔 현다. 마흔 자가 혼 빌. 그 두 빌 함, 저 차롱, 함이 이섯어, 옛날. 미녕 놓는 거 함. 노랑 포파리에 싸근에 새서방 새각시 들레 갈 땐 하님이엔 헤영 그거 저근에 물 탕 앞이 새서방보단 앞이 가낫저.

@1 거 무사 무사 가정가는 거?

#1 몰르켜. 무사사 ㄴ정가신디. 경헤영 말짖 좃아다근에 문 시집이서 문 옷행 입고 경

@1 아, 옷행 입으렌 허는 거구나예.
 #1 으, 경헌 식으로 허여신고라.
 @1 삼춘 결혼할 때도 흥세미녕 이런 거 담앙 읍디가?
 #1 게, 담아갓주게.
 @1 뜰 시집 보낼 때도 담아근에 보내고?
 #1 아, 우리 뜰 헐 땐 안 허고.
 @1 뜰은 안 헐.
 #1 응. 뜰 헐 때 거 옛날이주. 난 옛날에 가메 탄 갖저.
 @1 가메 탄 읍디가?
 #1 응. 이불 하나 요 하나 허연 은 영허연 끌고 이불은 이 등뎡이에 영 낀 직산허라, 직산허라 허멍.
 @1 가메 안네서?
 #1 가메 안네서 경 헛저.
 @1 도께 탄 왓덴 헐 삼춘도 이선게 마는 가메허고 다른 거지예?
 #1 아니, 거 ㄱ튼 거.
 @1 아, ㄱ튼 거.
 #1 도께가 가메여. 도께가 가메.
 @1 아, 사름이 들러 아니민 뜰에 메와?
 #1 뜰.
 @1 뜰에 메어.
 #1 암물은 아니 허영 솟물에만. 경허민 그 아덜 풀젠 허민 어디 솟물 신 디 강 비느네, 뜰을. 빌어근에 영 ㄱ정가주게 하인덜이.
 @1 응.
 #1 ㄱ정강 도께 새각시 앓져근에 영 들렁 나오민 뜰이 페라우민 막 그 메움이 어려와.
 @1 아.
 #1 겐 나 아은 때 누게산디 모르켜. 노시 하인덜이 거 메우질 못허연. 뜰이 그레 노시 들어사질 안허연. 도께 안트레. 게난 새서방이 도복허연 뒤트레 탁 즐라메두고 뜰 간 영 녹대 심언 귀 딱 무난 뜰이 꼬딱 못 헤라.
 @1 사름이 뜰 귀를 물언?
 #1 으, 새서방이. 경허난 뜰이 ㄱ만이 사난 하인덜이 그레 간 특허게 메와라게. 경허난 그때 야, 잘도 으망진 새서방이여 그런 소리 들어났저.

무명 날기, 메기

@1 그 아까 미녕헐 때 솔 이수게, 솔. 그건 무신걸로 멘드는 거마씨?
 #1 거 뒫산디 그런 게 이섯어, 옛날. 솔입추룩 앙상헌 거. 경헤영 그거 허여다근에 영허영 메영 이 덩체기 즈꾼 즐라메곡 이딘 벌겨지게 헤여근에 쏘쏘쏘쏘 쏘엿주게.
 @1 응, 아까 저 미녕, 멩지헐 땐 영 쏘쏘 쏘고 미녕헐 때는 어뎡허는 거?
 #1 미녕헐 때도 그걸로 써. 그걸로.

@1 솔 허기 전에 무슨 도고리에 낳 영영허는 건 뭐?
#1 그건 짓맥이는 거, 미녕.
@1 미녕 짓맥이는 거.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1 짓게 가시리플 썬근에 도고리에 놔근에게 미녕 영영 된 풀어놔근에 짓을 막 들어가게 찌사 그 꺼럭 안 일어근에게 헐 거 아니가.
@1 아, 그걸 짓맥이는 거엔 곱읍니까?
#1 으, 그것가 짓맥이는 거 아니가? 꺼럭 문작허게 헤영 경허민게 불 살황 물류와근에.
@1 멘 다음에.
#1 메멍, 메멍.
@1 메멍.
#1 응, 메멍.
@1 그거 헝 다시 한 번 곱아줍서. 그거 헝 풀 막 짓맥영 그다음 무신거 우트레 낳 도고 리 아까 무슨.
#1 도고리, 다라에 도고리에 낳 저디 말코지 허여근에 그레착 지들른 드레 다라 채 영 심영 다라 들르곡 영헝 강 그레 영 즐끈허게 허주게. 이펜인 도꼬마리 헤근에 양펜이 막앙 그 들르민 대 놓멍 감는 거 허난.
@1 응.
#1 그레 강 허영 즐끈 메어근에게 이 머리 도꼬마리 어염으로 물류멍 그 머리 복디 헤 영 솔솔 누리왕 꺼럭 안 일게 파씩 들르게 허민게 대 영 놓멍 새에 새에 놓멍 막 등경 감 아시네.
@1 계난 도고리에.
#1 경헤근에.
@1 실이 이시난.
#1 문 가깝게 오면은 이젠 그 도고리에 실 영 누게 강 심곡 도시 그 저레 꺾어 강.
@1 다시 또.
#1 저레 꺾어다 놔근에 도시 그걸 또 다라 들르곡 영 쥘어근에 그레 강 또 즐라메영 또 이레 허여오곡 경헝주게.
@1 쟁 그거 영 이디 다 감는 거파?
#1 으, 으.
@1 도투마리에, 도꼬마리에?
#1 도꼬마리에.
@1 경 헤난 다음에 실 날 거지예.
#1 도꼬마리에 헤근에 베클이엔 현디 놔근에 또 잉엘 걸어사주게. 실이 우알 실이 영 고 망 뜰라지게 잉에 중간에 걸어근에 경헝 이디 대 메영.
@1 안 보일 거 같은데 잠깐만예.
#1 잉에 걸어사 그 북 들어가는 고망 허젠게. 잉에엔 현다 거 잉에.
@1 응, 잘 안 보일 거 같긴 한데 비슷한 사진 하나. 잘 안 보였지예.
#1 거무릉만 허다.

@1 거무릉만 헤.

#1 응, 거무릉.

@1 베클 짜는 거.

#1 어 이걸 베클인게. 이것도 어디 간 사진 찍언.

@1 예, 똑ㄱ튼 거.

#1 이거 잉에 아나가, 요디 잉에. 이디 것가 잉에. 잉에 영 문 허여노민 도꼬마리에 이추
록 허여근에 뇌근에 영혜영 이 알로 또 신허영 영 등기민 잉에가 우터레 올라가곡 알르레
느려오곡 허민 그 새에 꼬리 북을 드물암주게.

@1 꼬리클. 꼬릿박, 꼬릿박이엔 험니까? 북이엔.

#1 북, 북.

@1 북이엔 곱아.

#1 북이엔 곱나.

@1 북 안에 꼬리 놓는 거지예

#1 응. 경허영 그 북에도 대, 꼬리 뇌근에 대 얹게 혜영 이 **판 요 고망 이시민 그 대
알름게 허영 끼와사 경 안허민 걸리곡 튀어나.

@1 아, 꼬리 감은 거 그 안에 놓고 그다음 또 대도 놔야 튀?

#1 우이 대로 허영 영 증가사. 북에.

@1 고망에 북 고망에 실 끼우는 거 아니?

#1 고망 이펜드레 미녕 짜지는 건 이 옆으로 고망 일로 허곡 그 북 저 꼬리 튀어나지 안
허게 대허연 끼와저. 경 안허민 걸리곡 실 걸리곡 허주게.

@1 응. 족아서 안 보염지예 이거 북. 너무 족지예.

#1 그자 거무릉만 허난. 서눔은 북 닳다.

@1 서눔은 북 닳아. 요건 ㅂ디, ㅂ디집.

#1 응.

@1 베도 짜낫수과? 이 동네.

#1 엇다. 베가. 삼 허여사 베주게.

@1 삼은 어떻게마씨?

#1 모르켜.

@1 이 동네서 안 헤?

#1 이 동네서 안 헤봤저.

여름 옷

@1 아, 그문 아까 모시는 옷 행 입을 때 무신 옷 행 입는 거파?

#1 옷 행 입을 때게 육지서 불러근에 모시 허영게 곱게 잘사는 사름은 그것도 허영 입고
못사는 사름은 그것도 못 헛주게. 모시.

@1 여름옷이지예, 그건예?

#1 응. 여름옷.

@1 그 막 여름에 팔월 멩질 땡가 이럴 때 두루막덜 행은에 그거 모시 아니파?

#1 으게. 창옷게. 팔월추석에 중의적삼에 창옷에 경 입고 여즈덜토 잘사는 사름은 치메도 허곡 적삼도 허곡.

@1 응.

#1 나도 적삼허연 입단에 데껴불엇저.

@1 무사 데껴불엇수과?

#1 아이 데껴불주게. 거 필요 엇인 거. 나 손으로 흔 멍지로 그자 다 치메저고리허고 하르방 도복 바지저고리 다 허연에 겨난 우리 딸덜 치메저고린 족으난에 육지 멍지 산 허고 치메저고리 해주난 우리 셋플 요작이도 완 데껴불지도 못허고 이디서 현 멍지난 너미 아깝고 어멍신디 아져오건 아무거라도 험서. 나 무시거 허느니 험 것가 엇다. 경허난 너미 아깝덴. 데껴불험에도 이디서 현 멍지난 그때 플안 돈 써불주 허멍.

@1 응. 삼으로는 그럼 베로는 또 무신 옷 멘들안 입는 거과?

#1 베도게 모시나 흔 가지로 저 중의적삼 멘들안 입엇주게 중의적삼. 베로 사근에. 사근에.

새 좇기, 돈 짓기

@1 응. 새좇앙 뭐험 거?

#1 새 게 그 꼬리 디멀젠 허민게 우알실 허영 영영 헤사게 기지가 뉘 거 아니가. 기지 멍글젠게 새 좇앙 우실, 알실 허여근에게 우이 거가 아래 가고 아래 것가 우레 가곡 경헤 사게 그 새에 꼬리 디면 걸로 물건이 뉘는 거 아니가.

@1 새 좇는덴 허는 말이 어떻 허는 건지 잘 몰라서.

#1 게 영 허영 션 멘들암주게 우알실.

@1 우에 실 잇고 아래 실 잇게.

#1 으, 경허여근에.

@1 어디다 끼와 뭐에 끼와?

#1 뭐에 끼와게. 손가락에 영영 션 좇앙.

@1 응, 션 좇아.

#1 좇아근에 공쟁이레 박앗다근에게.

@1 공쟁이레 박앗다근에.

#1 실로 말짖 그거 저 안 뉘카부텐 문 실 으라 곱 허여근에 즐라메어. 울로 즐라메곡 이펜으로 즐라메곡 허민 가운딘 영 새가 뉘주게. 영 우이 거 아래 거 가근에. 것그라 새옌 허주게. 경허여사 그 꼬리가 들어갈 거 아니가. 쟁 말짖 문 헤영 베클에 노민 또 잉에 걸어 근에게 허민 그것이 새가 뉘어근에.

@1 게난 아까 이게 일곱 새 여덟 새 험 때 새영 똑그튼 말이과?

#1 그튼 거. 그건 그튼 거.

@1 새 좇는덴 허는 말이 그 일곱 새, 여덟 새 허는 그 새 좇는 거과?

#1 으게.

@1 그 돈 짓은덴 허는 말도 험게마는. 돈 짓영.

#1 아, 돈 짓는 건 미녕은 놀민게 영허여근에 그거 어떻 허느니, 문 영영허여근에 문 돈 짓어근에게 엇날은 저 문전에 바짖으로 대문에 턱 걸엇다근에 이제 솟디 뉘근에 재 놓곡

숯아. 경허민 숯양 장태에 건경 우이 옷 더경 그 불채레 특허게 어평 놔두민 물이 들각 빠지주게. 경허민 들리왓다근에 메어근에 헤시네. 그 돈 짓는 거.

@1 실 상태에서, 실을 돈 짓는 거지예?

#1 으게, 영 놀아 논 거 돈 짓는 거주게. 놀아 논 거. 실을 다 멘들안에 영 차게 허여 논 거. 경헌 거주게.

@1 다 멩 다 놀아난 다음에 돈 짓는 거파?

#1 으, 놀앙.

@1 놀앙 풀칠도 다 해근에.

#1 아니여게. 풀칠은 땀 때, 땀 때 허는 거고 놀앙 돈 짓어근에 허는 건 놀아근에 그걸 경 영 돈 짓지 안허민 그 작산 실을 어평허느니. 영 손굴레 ㄱ찌 영영영 허영 문 족게 멘들 앓다근에게 숯아근에. 그 숯지 안허민 짓을 잘 먹지 안허주게. 경허난 숯앗다근에 짓 맥여. 땀 때엔 짓 맥연에 험시네.

@1 아까 문전에 거는 건 무신 말이파?

#1 문전 모른 공스 엇다고 문전에 그 질쌘허멍 바찌는 거.

@2 질쌘허멍도 경 제를, 올리는 거라, 보고허는 거라.

#1 응, 보고허는 거. 옛날은 경헛저. 때문에 강 톱 걸영.

@1 그디 뭐 공장이라도.

#1 아니 문에 그자 톱 걸친다.

@1 아, 문에 톱 걸쳐.

#1 응, 문에 걸쳐났저게.

@1 그 미녕 영 헌 거를, 돈 짓은 거를.

#1 으.

@1 그레 영 걸청 뭐 절도 안허고?

#1 으게. 그냥 걸침만 헛저.

@1 말멩도 안 허고?

#1 줌줍헿 강 톱 걸쳤다근에.

@1 걸쳤당 그냥 꺼내?

#1 응, 꺼내영게 ㄱ사 안 꼴아냐. 숯아근에게 장태에 건저근에 우이 옷, 갈웃이나 더경 불채에 어평 놔두민 물 들각 빠지주게.

@1 아까 멩지 노이는 것도. 멩지 누이는 거.

#1 멩지 노이는 건 그 메명 풀 뚱여노난 생멩지로 그 물에 풀을 ㄱ쿨 빨아. 빨아근에 솟디 재 놔근에 물 궤면은 풀풀풀풀 허게 놔근에 숯으민 문작허게 노여지는 거주게.

@1 한번만 숯으민 뒤어?

#1 으게.

@1 어느 정도 숯아? 불은 어느 정도 약허게?

#1 그자 문작허민 말 거주게. 그자 중불로.

@1 중불로. 재 놔근에.

#1 재 낵. 재 아이 노민 노여지질 아녀주게.

@1 노여진텐 허는 말은 문작허게 뉘텐 현 말이파?

#1 으.

@1 색깔도 달라져마씨?

#1 색깔도 헤영허고.

@1 색깔도 헤양허고. 응.

#1 저디 우리 아시엔 현 사름 아덜덜 옷 헤줍센 드러 일만 뎡기난 나 젊을 때 옷 헐 때 난 돈 주멍 멩지 세 불 사다근에 아덜 세 성제 창옷에 증의적삼 헤줍센 현 생멩지로 사단 헤연 주난 느 허여질 때 저, 누이라, 누이라 허난 솟디 난 숲으난 왕그랑허고 막 줄어들어 불언.

@1 하하하.

#1 이만이 오는 창옷이 이만인 와불언.

@1 우엣옷 뉘불언.

#1 경허난 나신디 완 이거 봄서 이거 봄서 허멍 허난 아이고 저 물건 장시신디 가근에 들어봐근에 잘허라 헐. 물건장시신디 으경 가난 우리 아신 그추룩 허난 막 기분 나쁘게 말 현 생이라. 타물락타물락 허멍 용심내멍 경헤연 도로 아전 오랏어. 으전 와시난 나가 증문 이 장에 으전 간에 그 사름신디 이거 놓이라도 빌영 잘 허여 주민 잘 헤준 깎 주켄 허난에 경헤영 다음 장에랑 아져오렌 헤연. 다음 장에 간 보난에 놓 빌언에 무신 오만 원 쥘에 미 깡냥 전정현 거 막 손 재 난에 두 시간인가 숲고렌 허멍. 막 문작 헐어. 경허난 이젠 썩 풀 허연에 이젠 문 다련에 빨래 너는 것에 요디 문 마리에 스톱 머르지 안헌 때난 널어시 난 동네 할망 완 봐 아이고 잘도 곱다, 잘도 곱다. 제대로 늘어나고.

@1 늘어나마씨? 옷이.

#1 늘어나라. 그때 두루 숲으난 경 좋아들어 불언.

@1 아.

#1 육깃 멩지난. 이딧 멩진 경 안 현다마는.

@1 쟁 다시 숲으니까 늘어나근에 입어전.

#1 으, 늘어난. 제대로 뉘언.

@1 다행이네.

#1 으게.

@2 *****도 아니고.

#1 이녁냥으로 못허는 사름은 놓 빌어사 헐지.

@2 계난 뭐가 쥘 기술이 필요헌 거파, 느는 거랑 메는 거랑.

#1 느는 것도 필요허고 메는 것도 필요허주게.

@2 계난 삼춘은 뉘 못헐다고, 아까?

#1 멩지 실 멘드는 거.

@2 실 멘드는 거. 솟디 낡 영영영.

#1 누에 싸는 거.

@2 누에 싸는 거.

#1 그것만 안 헤판.

@2 그니까 그게 누에 싸는 게 솟디 낵 끌리멍 실 나오민 영영 돌리멍 영영 헝 그거.

#1 으, 그것만 안 해봐.

@1 그것만 안 해봐.

#1 응. 아기도 나보고.

@1 하하하.

#1 비영 밧디서 막 물르면 강 영 혼 안음 혈 만씩 아시날 강 든 메와놔. 메와노민 남저
털은 쉼영 들이영 허영 멍석 시경 강 멍팅이영 멍석이영 시경강 멍석 대여섯 질 끌앙 이제
그 모덜 그것ㄴ라 저수에질이엔 허주게. 그것도 여저덜 아무나 못헤여.

@1 가운데 영 뒤집는 거.

#1 으 아니 영헤영 날라오랑 옆이 놓면은 이레 영 등겨놔근에 이만인 허주 이만인.

@1 응.

#1 영 옆더정 안앙 그 양펜이 남저덜 셋씩 둘씩 상 두드리주. 그 도께 두드리는 스에 싹
허게 싹허게 페우민 남저덜이 기분중앙 가달 털싹허멍.

@2 으싸 두드리고.

@1 하하하. 두드리고.

#1 어야도 호 경허멍.

@1 노래도 잘블러, 우리 삼춘.

#1 하하하.

@2 그민 저수에질은 거 사이에 갖다 놓는 게 저수에질?

#1 응. 그것ㄴ라.

@1 치우기도 해야텔 거 아니?

#1 으 경 치울 때에는 날라온 사름덜이영 모다들영 털멍 허주게.

@1 잘못허민 탁 맞기도 허켜.

#1 게 맞추게. 서툰민 맞추게.

@1 게난 도께에 맞앙예.

#1 게. 경허난 그 이펜 사름, 이펜 사름 두드리는 스이 그 도께 안 논 트멍에 안앙 탁허
게 페우민 소로기 놀아당 앓는 거추룩 허민 침.

@1 소로기 놀아당 앓는 거추룩.

#1 나 그것도 잘헤낫저 춤말로.

@1 몸이 쟈게예, 몸이 막 빠른게, 거난 그거 허지 둔헌 사름 헤집니까예?

#1 굵픈 사름 못허주게. 뜬 사름.

@1 맞아 굵픈 사름 허당은에 혼 대씩 맞앙.

#1 맞아.

아기 옷

#1 게메 아무나 못허민 드러 놓 벌민 난 늬이 거 아기 구덕 지곡 허영 텅겨낫저.

@1 아까 그것도 곶아, 다시 혼번 곶아줍서.

#1 뭐?

@1 그늘케헌 거.
 #1 그늘케 헌 거.
 @1 아까 녹음 못헨.
 #1 그늘케 헌 건게 그 옛날.
 @1 그늘켄 뭘로 허는 거.
 #1 대.
 @1 광목?
 #1 대영 낭이영.
 @1 대 멧 개 세와?
 #1 우산추룩헌다. 우산추룩 허영 크게 헤영 톱 우산추룩 멘들아.
 @1 아. 그른 이 가운데 살 같은 것도 어떻게.
 #1 그 대.
 @1 대낭 하나만 이시민 뉘?
 #1 대 무사 하나로 허느니게. 존쌀, 진쌀.
 @1 어. 쌀.
 #1 가운데 나무로 허곡.
 @1 우산추룩, 진짜로 우산추룩.
 #1 으, 진짜 우산추룩 영 페우민 우산추룩허곡 지우민 또 우산추룩 뉘곡 허게.
 @1 아.
 @2 천막 생각해신디 아예 만들엇구나.
 #1 장통 멘들앙 장통. 그 우산추룩허여근에 그 장통 우이도 허여사 그 실 허영 꼬아근에 대 고망 톱랑 그레 우산추룩 허게 허고. 그 존쌀도 톱 우산추룩 톱 우산 닳나.
 @1 그거 밋테 땅에 박아?
 #1 말톡, 말톡 굴룬 거 허영 강 땅에 박앙 그레 영 부짱 베로 즐끈 무껏주게, 무꺼.
 @1 아.
 #1 무꺼근에 경허민 더끝 것가 있느냐. 옛날은 이불 안이나 이불 겹데기나 아기구덕에 담앙 경가근에 그거 영 더짱 할망털토 옛날은 치메 입영 갖저.
 @1 예.
 #1 치메 입영 가시민 그 이불 겹데기만 더끄민 막 알라근에 막 카주게. 거민 그 할망 치 메털 벗영 놔둔 것도 그레 저레 막 더끄고.
 @1 하하하.
 #1 그추룩 해났저.
 @1 응, 경행 그 밋테서 얘기.
 #1 응, 아기. 업개 들앙 강 흥글고, 올어가민 강 또 젓 맥이고.
 @1 응.
 #1 그추룩 헛주게.
 @1 아까 곤는 거 다 안 굴아줘신디. 뭐 허민 재수 엇넨.
 #1 아, 그건 그 얘기가 좋젠 허면 그 혼 번 매곡 따시 두불이엔 허영 메레 가주게.

@1 응, 검질메레예.

#1 검질을 두불을 메어. 강 보면 그 아기 허영 그늘케 허곡 앓앙 점심 먹어나민 그댄 막 멩그려정 든 죽어. 두불 메레 강보민 그 아기가 좋젠 허민 ㄴ치 커. 살아나.

@1 풀이, 검질이.

#1 검질이 아니고 곡석이.

@1 아, 곡석이.

#1 조이고 산디고. 경 ㄴ찌 크고 그 아기가 안 좋젠 허민 그대로 삭아져불고.

@1 그늘케 헤난 디는 곡석이 삭아져불영.

#1 경허영 또, 경 안허민 또 아방이 집이서 아기 들명 낮인 또 업영 젓 맥이레 갖주게. 젓 맥이레 밋디.

@1 집이서 놀다근에. 애기 보다근에.

#1 놀다근에. 옛날은 우유도 엇곡 허난게. 경허명 키왔저 아기.

@1 아방은 ㄴ찌 강 검질 안 메고?

#1 아기 들젠 허민 검질메어져게. 아긴 누게가 돌아게.

@1 하하하. 할망.

@2 큰똥.

#1 큰똥도 옥아사 컷주게. 두린 때사게 아이고 골아도 물론다.

@1 게메.

#1 춤스미로 요만이 줍곡 이던 안 쥬. 영 그창 허민 아이 똥똥 춤스미 헤사 춘말 행영 잘살덴 헤근에. 그 물애기게 요멘인 현 거게 베 너비 이만이 현 거 그냥 허민 오죽 지느냐 게. 경허민 요만인 줍곡 일로 이레 줍지 안 허민 영 허게 헤여근에. 무사 경험신고 허난 춤스미 헤사 애기가 좋넌 헤연 헤낫저, 베로. 나민 베로.

@1 춘스미, 춤스미?

#1 춤스미엔 현다 젓ㄴ라. 그치지 안허난 춤 거엔.

@1 춤 거엔.

#1 ㄴ뜬 거, ㄴ뜬 거.

@1 어.

#1 춘 거.

@2 그냥 베에 혼 푹 허민 ㄴ세질 허지 말렌.

#1 어, 어.

@2 허는 말이잖아예?

#1 어.

@2 쫄르지 말렌?

#1 쫄르지 말앙 그자 헤사 그 애기가 좋넌. 등 ㄴ롭넌 헤영 체암 나민 푹 베적삼을 헤영 그추룩 헤영 입젓주게.

@2 으.

@1 그 옷이 무신 옷이파, 이름이?

#1 붓디창옷.

@1 붓디창옷.
 @2 것도 만들어 보고, 삼촌?
 #1 거 아기 나 봐시냐, 거 만들게.
 @1 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안 해마씨?
 #1 어렵지 아녀주게, 손으로 영 영 허게 주민 간단허주게.
 @1 그거는 아까 스미 허는 거만, 스미가 긴 거 말고 다른 특징은 엇어마씨?
 #1 어게.
 @1 끈?
 #1 이디도 끈 아이 줍나, 이디도 요만인 줍곡.
 @1 아.
 #1 등뎡이로도 요만인 줍곡 기자 손으로. 거 무신 멘들아근에.
 @1 아.
 #1 그 등 ㄱ릅넨 허명 처음에 물애긴 뎡 똑 그 베적삼을 입지더라.
 @1 메칠 동안 입히는 거파? 애기 나민?
 #1 흐 열흘.
 @1 흐 열흘. 그 붓디창옷도 애기 잘 큰 애기 건 막 빌어당 입곡 헌덴 헨게만은.
 #1 어, 어. 복 존 아기.
 @1 복 존 애기.
 #1 것도 공연한 소리.
 @1 공연한 소리?
 #1 공연한 소리주게. 이 배속에서 그렁 태어나는디 무신, 놈 입어난 복 존 아이 옷 입엇
 다고 굿인 팔자가 좋아?
 @2 하하하. 배속에서 다 정해지는 거?
 #1 아이 배속에서 그릴 때 어떻게 살라, 어떻게 행 고생허라, 어떻게 행 잘살라, 어떻게
 살당 어떻게 죽으라 다 마련허영 좋은 사람은 좋은 날 좋은 시에 태어남시네, 즈동으로.
 @2 아.
 #1 경허는 거 뵙 이제 역불 좋은 날 좋은 시 봉그민 뉘느냐? 즈동으로 뉘사주.
 @1 하하하. 요즘은 다 수술행 좋은 날 좋은 시에.
 #1 게메 그거 안 뉘여, 안 뉘여.
 @2 안 뉘여.
 #1 뵙속에서 다 볼써 마련허영 태어나는디. 우리 생각엔 경헌다.
 @1 음. 그 붓디창옷은 끈도 영.
 #1 끈 허영 골름.
 @1 친?
 #1 실 허영.
 @1 아, 실로?
 #1 어, 실 영 여라 곱져근에.
 @1 골름을 아, 형겘으로 안 하고?

#1 형겔도 허고 실로도 허고 허엿저.
 @1 아. 거 긴, 긴 것도 잇고 졸른 것도 잇수과?
 #1 어게. 허여지는 냥 그건.
 @1 아, 허여지는 냥 그냥?
 #1 으, 허여지는 냥.
 @1 거긴 단춘 안 다는 거지예? 붓디창옷은예?
 #1 어게, 그때 단추가 어디 시니게.
 @1 아니 들메기라도.
 #1 들마기도 거 아무나 혈 줄 모른다. 사름마다.
 @1 하하하.
 #1 들마기 게난 사름마다 혈 줄 알아지카 분덴 험다?
 @1 삼춘네 그때 들마기 헨 거 나 막 사진 찍고 해난 거 닳은디. 으, 와근에.
 #1 들마기 잇저, 저디 미승에.
 @2 찍을 거우다, 그거예. 나 여기 잣대.
 @1 잣대.
 @2 이 자 찍엇수다.
 #1 잣대도 찍엇어?
 @2 예.
 #1 그건 막 곱지도 안 헨 잣대.
 @2 이런 거 옛날 거.
 @1 애기 옷은 아까 붓디창옷 입언에 흐뎡 지나민 그다음에 무신거 입집니까?
 #1 그다음 아무거라도 미녕이고 무시거. 미녕이라도 허영 저거 안 부찌곡 허영 저고리추
 룩 멘들앙 입젧주게.
 @1 으. 뭐 그 강알터진바지나 뭐 이런 건 안 헤?
 #1 그런 건 안 허고게. 지성긴 아방덜 그 옛날은 저고리영 바지영 바놓으로 누비연에 허
 영 입어났저. 그거 틀어근에 지성귀 허고.
 @1 지성귀 허고.
 #1 게, 경헛주게.
 @1 으.
 #1 그거 틀영. 야, 그디 골메도 잇저, 골메영.
 @1 맞아, 골메도 잇어.
 @2 예, 찍젧습니다.
 #1 골메도 필요허건 아경 가라, 느네.
 @1 아경 가긴 무슨. 사진만 찍으민 뉘주. 삼춘 건디. 애기들 어렸을 때 입히는 옷?
 #1 어렸을 때 무시거 입지느니, 아무거라도 그자 어멍 아방 입어난 걸로 헤영 틀어근에
 멘들앙 무시거 멘드는 체 헹 입져주게.

남자 옷

@1 계민 남저 어른이예 어디 외방 갈 때 다 출령 입을 거라예.

#1 으.

@1 계민 젤 소곱이서부터 차례, 차례 무신거부터 입읍니까?

#1 무신거부터 입어게.

@1 이젠 런닝구도 입주만은 옛날엔.

#1 난닝구가 어디 셔게.

@1 계민 그런 거 옛이난 무신거부터 입어?

#1 무시거 소곱에 입어서게. 바지저고리 입고 두루막 입엇주게, 남저덜은.

@1 바지저고리 입고.

#1 두루막 입고.

@1 두루마기 입고.

#1 모저 쓰고.

@1 모저 쓰고. 창옷은 언제 입는 거파?

#1 창옷은 여름에, 추석에.

@1 아, 두루메기 대신?

#1 두루메긴 겨울에.

@1 두루메긴 겨울에, 창옷은 여름에.

#1 으.

@1 으, 으. 삼춘 흐뎡 일어났당 앓으쿠과? 허리 아프파?

#1 괜찬허다. 자이 들마기 좃암세.

@1 강 저거 사진 찍으카마씨? 잠깐 쉬었다가.

여자 옷

@1 아까 남자옷 곁아신디 이번엔 여자 옷. 여자 삼춘이 어디에 다 출령 입어 어디 갈 거라, 외방. 계민 제일 속에서부터 무신거부터 입을 철이파?

#1 바지 입곡, 치메 입곡, 저고리 입곡 허민 뉘주.

@1 바지 입어? 무신 바지 입어?

#1 그 강알 터지운 바지게.

@1 강알 터지운 바지?

#1 옛날 강알 터지왕 허리 들곡 허민게 여저덜은게 오줌 싸젠 허민 강알 터지운 바지 입 주. 증의고 바지고 여저 옷은.

@1 아. 치메 소곱에 입는 거?

#1 어.

@1 바지 입곡 치메 입곡.

#1 저고리.

@1 저고리 입고 그다음은?

#1 거 매기주, 무시거라게.

@1 옛날에 속곳 같은 건 안 입었?
 #1 잘사는 사름이라사 소증이 허연 멘들안 입었저, 소증이.
 @1 소증이?
 #1 옛날 줌수 입어난 거.
 @1 아. 줌수 입어난 거. 우에꺼지 영 끈도 다 돌아지게?
 #1 어게, 옆이 들마기 들앙 줌아근에 일로 이레ㄱ장.
 @1 건 잘사는 사름이라사 입는 거?
 #1 건 아무나 못허여.
 @1 무사 천만 이시민 만들 거 아니?
 #1 천이 셔게. 천이 엇이난 못 허는 거주.
 @1 하하하.
 #1 천이 시민 무사 못허여게.
 @2 천이 엇이난.
 #1 천이 엇이난 못허는 거주.
 @1 으. 그믐 그 우이는 또 치마저고리 입은 우이 입는 거 잇수과?
 #1 무시저 잇어? 시집갈 땐 장옷이나 입주.
 @1 시집갈 때 장옷 입고. 어디 뭐 외방 갈 때 두루막 같은 건 안 입어?
 #1 안 입어.
 @1 여전 두루막 엇어?
 #1 엇어. 어느 저르에. 치메저고리 헐 것도 엇인디 두루막 ㄱ튼 거.
 @1 하하하. 치메저고리 말고 또 일헐 때나 갈중이나 뭐 일헐 때 입는 것도 잇, 굴중이나 뭐?
 #1 게, 일헐 때 굴중이게. 감, 미녕에 감 들여근에 굴중이 멘들아근에, 막 이디 너르게 헤근에.
 @1 으.
 #1 다림 첫주게. 영 헤영 올령 다림 치고.
 @1 으.
 #1 우인 치메 입곡 허영 밧디 가곡.
 @1 겐 밧디 강 일헐 땐 그 치메 벗어 똥?
 #1 으, 치메 벗어 똥근에.
 @1 일허고 일 꺾낭 집이 올 때 또 다시.
 #1 계난 이 왜정 때에 이디 사름덜이 일본 간 오란 이 몸빼를 일본서 허난에 일본식으로 몸빼 허렌 허난 막 종앙 몸빼 행 입어세.
 @1 아.
 #1 계난 몸빼도 체얌인 이 허리 두 개 들앙 앞이 하나 들고 뒤에 하나 들고 허영 앞이 건 골롬 멘냥 허곡 오즘이나 므료우민 앞이 거 골롬 풀렁 두이 것만 내령 밧디 가도 오즘 싸고 경헛저. 허리 두 개 들앙.
 @1 허리 두 개 드는 게 어떻 허는 거과?
 #1 오즘 싸젠 허민게 이거 맨드락이 허민 거세기 허난에.

@1 으.

#1 고무 노민. 울로 허여근에 글쟁이 또 두 밧디 허영 앞이도 들곡 뒤에도 들곡 허영 허리 두 개 허영 오줌 들류민 앞이 골름 클렁 두이 것만 뇨류왕 오줌, 볼일 봐낫주게.

@1 이제 앞에 거영 뒤에 거영. 앞에 건 안 내려가고 뒤에 것만 내려가게 되는 거라.

#1 어, 어. 옛날엔 경헛저 초담에덜은.

@2 계난 고무줄 놓기 전이 얘기라예?

#1 어, 어.

@2 고무줄은 그 후제사 놓고.

#1 어게. 글후제사 고무줄 노난 그자.

@2 으. 계메 뉘지 알쿠다게. 여기 터지민 요 앞으로 무끄고 요 뒤로도 무끄민 오줌 놀 때는 이 뒤에 거만 풀렁.

#1 아니. 이 앞이 건 뒤터레 강 메곡 뒤에 건 말짜 요 멧당 앞이 거 클르민 뒤에 거만 뇨려오민.

@2 아, 예.

@1 끈이 앞으로 묶는 거, 뒤에 거는?

#1 뒤에 걸 말짜에 무껴. 경혜근에 오줌 싸낫주. 경허단 이 고무줄이 생기난에 허리 안 돌앙 고무줄 난 헛주.

@1 그런 바지는 무신거엔 다르게 불러낫수과?

#1 몸빼주게, 몸빼.

@1 것도 몸빼?

#1 게. 몸빼주게.

@1 것도 몸빼고 그냥 이것도 몸빼고예?

#1 어.

@1 고무줄 논 것도 몸빼고예?

#1 어게.

저고리 부분 명칭

@1 그다음에 아기덜 옷 헛고, 옷에도 이름이 다 잇수께, 뉘 동전도 잇고 짓도 잇고 영 허는 디 저고리 허민?

#1 저고리게 짓 들고 동전 들곡.

@1 짓 들곡 동전 들곡. 요디, 요디는? 이거 스미?

#1 짓스미 꺾동 놓고.

@1 짓스민 이디 끝에?

#1 어. 이디, 이디.

@1 이디가 짓스미?

#1 어.

@1 꺾동 놓고?

#1 어, 그거 꺾동이고 짓스미주게.

@1 짓스미. 짓스민 요기만, 요기 전체가 아니고?
 #1 아니, 이디만.
 @1 이디만 짓스미?
 #1 으.
 @1 이 밑엔 뭐엔 곱읍니까?
 #1 무시거엔 곱아, 저고리엔 곱주.
 @1 뭐 배알 영 허는 말 엇수과?
 #1 아니여.
 @1 그런 말 엇어?
 #1 엇어.
 @1 이디 저고리 멘들젠 허민 이디 들레나 이디 곱는 말 엇수과? 이런 디. 이디 판은 이
 몸 뭐 이런 말 엇어?
 #1 자로 막 치 마련허명 이 짓도 얼마 멧 치 허민 딱 맞을 거.
 @1 으.
 #1 이 스미도 멧 치 허민 딱 맞을 거. 지러기도 얼마, 자로 다 헛주게, 자로.
 @1 음.
 #1 이 품도 얼마 허민 맞을 거. 경허영 남저 옷이나 여저 옷이나 경행 해낫주게.
 @1 음. 여기 섭도 앞섭 잇고 뭐 이런 거 잇지 안 험니까?
 #1 안섭, 밧섭. 이 안터레 가는 건 안섭.
 @1 밧터레 오는 건.
 #1 밧섭.
 @1 으, 밧섭.
 #1 저고린 이디가 밧섭이주게. 이건 안섭이고. 겨민 밧섭은 넓게 허고 안섭은 족게.
 @1 밧섭은 웬짜펜이?
 #1 으.
 @1 웬짜펜이가 밧섭.
 #1 밧섭은 넓게 허고 안섭은 족게.
 @1 밧섭이 웬짜펜이. 오른쪽에 거 영 안으로 들어갈 철이구나예?
 #1 으.
 @1 게민 이 뒤에 등 이신 던 무신거에 곱으는 말 엇수과?
 #1 등뎡이.
 @1 그냥 등뎡이.
 #1 으.
 @1 이 등 목 우에 적삼 거튼 거 험 때는 뒤에 등바데나 뎡바데나 험니까?
 #1 적삼은 바데 잇엇주게, 바데.
 @1 바덴 어느 만이 길게 허는 거과?
 #1 요만이 길게 허여근에 이디광 맞게.
 @1 어계광 맞게.

#1 창웃이나 적삼이나 허젠 허민 짓바데엔 행 똑 낫주게.
 @1 이 짓바데는 길이는 어느만이 긴 거짜?
 #1 이디 이만이.
 @1 이디서부터 요디는?
 #1 어게 이디만이.
 @1 요디서부터 요디까진데.
 #1 죽으민 그 짓바데 엇이민 안 뉘덴 허여.
 @1 무사?
 #1 죽으민 그 혼 불르민 그 짓바데에 혼이 든덴 허명 옛날은.
 @1 아, 짓바데 소꿉에 혼이 들어가는 거라?
 #1 옛날은 사름 죽으민 적삼 으져 가근에 올라근에.
 @1 으.
 #1 저 서북더레 돌아사근에.
 @1 으.
 #1 아무가이 보 행 불르주게.
 @1 으.
 #1 겐 영 허영 적삼을 영 허영 이건 꺾데기고 이건 안이면 짓으로 이렇게 이렇게 영 심
 어근에 영 보 허명 영 허영.
 @1 그 안에 싸는 거라?
 #1 으, 혼 쌈으로.
 @1 아.
 #1 경행 다시 이제 폐와근에 보 허명 또시 영 헤영. 경 세 번 불러근에 옛날은 이 지붕
 위이 강 허영 올라간 딜로 아니 헤근에 아랫 사름은 산태 다른 디레 강 노면 다른 딜로 느
 려오고 경헛주.
 @1 아, ㄴ튼 딜로 안 느려오고?
 @2 반대로.
 #1 반대로 느려오꼭 경헛주게.
 @1 음.
 @2 근디 이 적삼에는 짓 안 놓는 거 아니짜? 저고리에 짓 놔도?
 @1 꺼꾸로.
 @2 꺼꾸로?
 #1 무사 저고리에도 짓 놓고 적삼에도 짓 부치는 적삼도 잇고 그냥 마고제엔 헤근에 짓
 엇이 허는 것도 잇주게. 짓 엇이 간단허게 입젠, 마고지.
 @1 으, 마고지.
 #1 겐 남저덜은 적삼 입고 쪼께 입곡.
 @1 쪼끼도 잇구나예?
 #1 으, 계와 들곡 허영, 쪼께에.
 @1 아, 쪼께에 계와 들앙?

#1 으. 계와 양펜이 영 들앙.
 @1 그건 밖으로 영 나오는 거꽈, 아니면 속으로 영 들어가는 계와꽈?
 #1 아니, 켈 우이 입어.
 @1 아니 계와가 안으로 영 들어가는?
 #1 이디 들어가게, 이추룩 들고 이 남저덜은 족은 계와 요, 큰 계완 이딘, 족은 계완 요 디 들앙 곽 놓는 거 곽.
 @1 곽, 이디 곽 놓는 거?
 #1 성냥 놓는 거, 옛날.
 @2 담배 필 거.
 @1 담배 피우는 곽 놓는 거.
 #1 계민 조께에도 이딘 영 ㄱ뜨게 큰 계와로 들고 웬짜엔 손 오른쪽으로 영 허게.
 @1 음.
 #1 경행 헛주게. 나 저 우리 아덜 옷 문딱 그추룩 행 뇌뒹어.
 @1 음.
 @2 아들 그 뭐에도 조께가 다 이십니까?
 @1 호상옷에도?
 #1 아니, 호상옷엔 조께 필요 엇고.
 @1 그니까.
 #1 산 때.
 @1 아, 산 때 입을 걸로.
 #1 추석에 입으렌 흰 걸로 중의적삼 허고.
 @1 모시로?
 #1 아니.
 @1 멍지로.
 #1 멍지로 창옷 허고.
 @2 그건 보여 줘도 뒹큰게.
 #1 헤에, 말아.
 @2 말아?
 #1 하하하.
 @2 호상옷이야 뭐 허주만은 그런 입을 옷이사게. 삼춘 만든 거렌 행 한번만 딱 찍어도 뒹큰게. 잇당예, 꾀나걸랑 예, 예.

바지 부분 명칭

@1 겨믄 아까 저고리 헛고 바지는? 바지도 이디 큰 사폭, 족은 셋폭 영 허는 말 잇수 곽?
 #1 어게.
 @1 어느 거라?
 #1 계, 남저웃은게 영행 들라근에.

@1 으.
 #1 큰 셋복, 작은 셋복 해근에 셋복을 들렁 영 가달 멘들아근에.
 @1 으.
 #1 두 개 양펜으로. 앞으로 하나 뒤우로 하나 멘들아근에 이 가운데 상복 부찌사 중의고 바지고 뒤엇주게.
 @1 상복 딱로 잇고.
 #1 상복 딱로 몰라사.
 @1 셋복도 딱로 잇고?
 #1 으, 딱로 몰라야.
 @1 다른 거파, 상복이영 셋복은?
 #1 다른 거주게.
 @1 큰 셋복도 잇고 작은 셋복도 잇어?
 #1 어게.
 @1 큰 셋복, 작은 셋복, 상복. 세 가지가 잇는 거?
 #1 어, 나 몰르는 거.
 @1 아, 뭔가 보여주는. 줍는 건 아무나 해도 몰르는 건 아무나 못 헌덴 험디다.
 #1 어게.
 @1 이거 바지, 바지 몰르는 거? 저고리 몰르는 거?
 #1 이렇게.
 @2 아하, 바지 똤.
 @1 바지 똤 버렸는데.
 #1 이렇게 부찌고 상복은 또시 이렇게 부찌.
 @1 아, 그럼 어느 게 큰 사폭이라?
 #1 이거. 이진 큰 셋복 이진.
 @1 작은 셋복. 이진 상복.
 #1 이진 상복.
 @1 아.
 #1 경허는 거 아이가.
 @1 게민 이거 멧 개 잇어야 똤는 거파?
 #1 이거 두 개, 이추록 두 개 허곡 이것도 두 개 헤사 율이 하나씩 부찌고 이거 앞뒤에 허곡 허는 거 아이가.
 @1 으, 허리는?
 #1 허린 딱시 딱로 헝 부찌야주, 이레 영.
 @1 아.
 #1 허리.
 @1 허린 딱로.
 #1 경허민 요것이 작은 셋복이 요 영 허민 가달이 왕색이 벌겨지지 안허고 이렇게 허민 가달이 이추록 앙색이 벌겨지고. 요 영 허게 작은 셋복을 이추록 헤사 저 벌겨지지 안 허

여근에.

@1 음.

#1 경허는 거 아이가.

@2 사이를, 가달을?

#1 으, 가달을 영 부짚을 잘 부찌야. 요렇게, 요렇게 헤사 조긱허영.

@1 이진 영 부칠 거?

#1 이진 옆으로 부칠 거. 이런 거 하나 더 허영게 율로 부찌고, 일로 부찌고 허영 상복.

@1 음.

#1 알아지크냐?

@1 예, 예. 작은 사폭, 큰 사폭 그다음에 마루폭은.

#1 허리 난중에 행 들곡계.

@1 허리 따로 들곡?

#1 으. 경허민.

@2 두 번 허민 뉘크라.

#1 영 허영 작은 셋복을 영 허민 좋고, 영 허민 입으민 이 가달이 응알응알 허게 굿주게. 요렇게 헤사 좋아.

@1 크, 눈 안 보염젠 허는 말 거짓말인게. 이것도 다 뉘고 무신 안 보염젠 허는디 다 잘라지고.

#1 녁둥베기 노는 할망이 날ㄴ라, 성님 못 베린텐 헤도 거짓말인게.

@1 못 봐진텐 헤도 거짓말인게. 다 봐점신게.

@2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부찌민 앞뒤가 뉘는 거라?

#1 으.

@2 예.

#1 이추룩 물르는 것도 시어머님안티 혼 번 배우난 알아져라. 허젠 허난산디.

두루마기 부분 명칭

@2 아니 바지 물르는 건 삼춘 허는 거 보난 막 어려운 건 아닌디 저고리나 두루마기나 더 힘들거 아니? 물르는 게?

#1 두루메기 혼엇이 어렵지 안 험다게. 두루메기도 미, 두루메기.

@1 하하하, 두루메기 이번에는.

#1 이렇게.

@2 그냥 확확 접어볼멘.

#1 요렇게 허민 이것이 미라. 이런 거 두 개 헤영 네 개를 헤사 이 두루메기 옆이 부짚다.

@2 미.

#1 이 어난 건 옆더레 이몸에 부찌고 이 가운데, 미 두 개난 가운데 실밥은 구짜헌 걸로 부찌고 경헤사 경허는 거주게. 영허민 미 두 개가 뉘는 거라. 영 영 허영 물르면 이거 두 개가 뉘는 거 아이가. 요디 요거 영, 요거 혼 착 부짚 거, 이거. 이거 혼 착.

@1 미가 어디에 부트는 거?
 #1 옆이, 두루마기.
 @1 옆이.
 @2 요거.
 @1 요게 미?
 #1 으.
 @1 그다음 가운데 있는 건?
 #1 아이고 나 건 베리지 못 허켜.
 @1 베리지 못 허민 요디 영 부치는 게 미?
 #1 어.
 @1 두 개예?
 #1 네 개 헤사.
 @2 앞뒤 다?
 #1 양 옆이 허주게.
 @1 예, 예. 그다음에 가운데 요디 판에는 뭘엔 곶아?
 #1 건 이몸.
 @1 이건 이몸, 옆이 부찌는 건 미.
 #1 으. 이건 미, 네 개.
 @1 미 네 개?
 #1 으.
 @1 아이고, 그 하나로 다 뉘는구나.
 #1 부찌민 이추룩 뉘는 거라, 이추룩.
 @1 으.
 #1 이거 어난 건 이몸더레 가게, 이착도 이모더레. 가운데 구짝헌 걸로 부찌면 이추룩 뉘는 거라.
 @1 어난 건?
 #1 어난 건 옆더레 가게.
 @1 옆더레 가게 부찌고?
 #1 어.
 @1 요기 이건?
 #1 구짝허게.
 @1 이몸더레 부찌 이건?
 #1 아니게 가운데 미 두 개.
 @1 미 두 개.
 #1 부찌민 이추룩 뉘는 거, 부찌민. 두루마기 딱 이추룩 뉘는 거.
 @1 이거 두루마기라예, 계민 이디가 미 아니?
 #1 어게.
 @1 계민 이디 가운데 이몸?

#1 이몸.

@1 그믐 삼춘 그 만든 건 어떻 부칠 거파?

#1 어떻 부칠 거라게, 이추룩 뉘덴 허난 부치민 요렇게 뉘덴 허난 저깁이에 요렇게. 요
렇게 뉘여 요렇게.

@1 이렇게?

#1 어.

@1 요렇게 하난 앞에 하난 뒤에?

#1 어게.

@1 아니 이거 흔 펜이 가는 거, 다.

@2 네 갠디?

#1 아니 네 갠민 두 갠 이펜이 오꼭게.

@1 아, 두 갠 이펜이 오고 두 갠.

#1 가운데 부찌진 거난.

@1 이렇게?

#1 으.

@2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1 으, 경허는 거. 어난 건 옆더레 이몸더레 가게 허꼭.

@1 어난 게 이몸더레 오는구나예?

#1 어, 어. 경혜사 옷이 영 알로 허민 코똥허여, 알이 코똥허여.

@1 아, 영혜사 알이 코똥허여?

#1 어, 알이 코똥허여. 이만이 허주, 이만이. 두루마기 이만이 허게.

@1 음.

#1 겨민 큰일 집이 강 보민 어떤 사름은이 험 중 몰라근에 일로 이몸더레 가게 부찌불
어. 일로.

@1 계난 꺼꾸로 부쳐질 거 닥아, 나도.

#1 꺼꾸로, 꺼꾸로.

@1 계난.

#1 경허난 읍로 부찌야, 이몸더레 가게 부찌야 험 거.

@1 으.

#1 계난 어떤 사름은 몰라근에 일로 부찌불어, 이몸더레. 계민 뜰어야지. 계민 안 뉘여.

치마 부분 명칭

@1 아. 다음 치마는, 여자 치마는 멧 폭이나 헝 허는 거파?

#1 치멘?

@1 으.

#1 이거 한복이면 옷 폭, 이거 으섯 개.

@1 여섯 폭?

#1 으, 으섯 개 혜영 부찌. 옛날, 옛날은 시집갈 때 이거 으답 개 헝 부졌저, 으답 개.

@1 아, 시집갈 땐 더 하영?
 #1 어, 더 하영. 이제 영장 나근에 복치메 옷 폭에 험저, 이거 으섯 개.
 @1 그거 여섯 개.
 #1 으섯 개 허여근에 허리 들곡 단 헤영 오그령 미승에 박곡 경헛주게.
 @1 음. 치메도 옛날에는 허리 어깨 엇인 그냥 치메도 잇고 어깨 이신 것도 잇잖아예?
 #1 어깨 든 건 속치메.
 @1 아, 속치메?
 #1 어. 속치메.
 @1 속치메만 어깨 다는 거파? 이젠 한복도 다 어깨마리 헤근에 허는디?
 #1 이젠 경헛주만은 것치멘 허리 들앗저, 허리.
 @1 그냥 허리 들앙예?
 #1 으. 이제 한복 소꿉에게 속치메 입젠 허민 허리덜 허염주, 허리.
 @1 예, 예.
 #1 참, 저 어깨달이.
 @1 어깨달이. 어깨달이?
 #1 어깨.
 @1 마리? 어깨달이?
 #1 어깨, 어깨.
 @1 그냥 어깨.
 #1 기주. 어깨 치메.

버선

@1 보선.
 #1 보선은 어떻헤, 저승 보선은 멩지덜로 허여근에.
 @1 저승 보선 말고 그냥 신는 보선?
 #1 그냥 신는 보선은 미녕으로 허연에 영 손으로 쥘에 신엇주, 옛날 미승 엇은 땐.
 @1 그건 어떻 영 허는 거파? 누게가 말라 주는 거파?
 #1 누게가 달라 쥐게?
 @1 게민 어떻헛?
 #1 물론 사름은 들를 중 안 사름 빌어근에. 영 굿어근에.
 @1 본 엇이 헛니까? 본 엇이 그냥?
 #1 옛날은 본 헤낫주, 종이로 보선추룩 떻다근에 그거 놔근에.
 @1 으.
 #1 그거 낱 줄로 영 굿으멍 연필로 줄 쥐근에. 경헛주, 옛날은.
 @1 아.
 #1 본 헤낫저, 우리 어떻넨.
 @1 달력 종이라도예?
 #1 으. 본 엇이민 짐작을 못 허주게.

@2 음.

@1 보선에도 이름이 잇수과?

#1 무신 이름이 있어?

@1 요 앞에, 앞에 무신거?

@2 코지.

#1 코지주게, 잘 알암신게. 코지.

@1 뒤엔?

#1 치기.

@1 치기. 요 가운데?

#1 건 몰라.

@2 요디 들어가는 디?

@1 요디 들어가는 거?

#1 몰르켜. 보선 그냥 보선이민 보선이엔 헛주 경.

@1 아니, 벗어지지 안히게 특 진 디.

#1 거 애톡.

@1 봐, 애톡 나왔서. 하하하, 알명 안 곶아줍서.

#1 허허허. 애톡이 엇이민 벗어정 안 뒤여.

@1 게난. 애톡.

#1 으.

@1 그다음에 요디?

#1 벨 걸 다 물엄저.

@1 요디, 버선목.

#1 어, 보선모게기.

@1 모게기. 요기 밑에 뭐 보선발, 그런 건 안 헤? 보선창.

#1 보선창.

@1 보선창.

단추

@1 옛날에 엇일 때는 단추가 엇일 때는 단추는?

#1 단추 엇이난게 들마기 못안에 써시네게.

@1 아.

#1 단추가 엇이난 험벅 플로레기 헤근에 영 쥐근에게 들마기 헝 돌아시네. 적삼에도 들마기.

@1 예.

#1 모시 적삼에도 들마기.

@1 예.

#1 소중이에도 들마기. 경허단 단추 나난에 단추 헛주.

@1 그 마고자나 쪼끼 같은 거에도 들마기 험니까? 그건 단추 달지 안헤?

#1 그건 단추 헛주게.

@1 단추 엇일 때도 그건 헛수파?

#1 몰르켜, 그건 원. 그 시절, 그때에 나가 나지 안 현 때난.

갈옷

@1 으. 그다음 갈옷? 갈중이?

#1 갈중이 어떻?

@1 건 어떻헝 멘드는 거파?

#1 어떻헝 미녕 허여근에 갈중이 멘들앙 감 들영 바레여근에 입엇주게.

@1 옷 멘들앙, 옷 다 멘든 다음에 감 물들이는 거마씨?

#1 어.

@1 감물 들이젠 허민 어떻 허여?

#1 감 타당 뽏아근에 물 헤끔 농곡 허영 드리 쥘어근에 경헤영 물 아이 노민 너미 세주게, 풀이. 경헤근에 데싸근에. 데쓰지 안 허민 그 감 뽏아진 거 든 부뜨난.

@1 으.

#1 영 데쌍 개여 놘근에 그레 낄앙 감 뽏은 거 영 가운데레 낵 영 영 허민게 문딱 곶로로 들어지민 탁탁 털영 ㄴ다쌍근에 이젠.

@1 널 땀 ㄴ다쌍 널어?

#1 어. 경헤여근에 무신, 대에나 께여근에 영 널엇주게.

@1 대에 끼워?

#1 으, 제민 풀 막 부떠 불어근에 안 돼지. 그냥 저런 디 낵 그냥 널면은 풀 부떠 불어.

@1 앞에 거영 뒤에 거영 영 부터 불어?

#1 어.

@1 그거 감은 언제 썸에 따근에 뽏으는 거파?

#1 여름에 칠월 나근에.

@1 이제 험 때 뽏수과?

#1 아니여, 이제 새 털 나사.

@1 새 털 나사?

@2 겐 음력 칠월? 양력 칠월?

#1 양력 칠월.

@1 양력 칠월. 게른 그거 강 감 타다근에 뽏로 뽏아?

#1 뽏로 뽏아게, 마께에.

@1 마께로.

#1 벵에후에 낵 딱딱 뽏아근에.

@1 벵에후에 낵 딱딱 뽏앙.

#1 경헛주게.

@1 도고리에 놘근에 물들여? 아니민?

#1 도고리, 도고리에 놘근에 들이주게.

@1 아.

#1 옛날은 남뽕이, 남뽕잇혹에 강 뇌근에 뽕잇귀로 뽕앙 헛주만은 이제털은 ㄱ는 기계도 시난 ㄱ는 기계에도 꼴앙 오곡 험실 거여, 이제.

@1 음. 삼춘도 감물 들이곡 헝 입어났지예?

#1 입단도 버섯주게.

@1 요새도 헝 입어났수과, 최근에도?

#1 어.

@1 갈중이도 해근에 그냥 입기도 해? 일헝 때만 입는 거 아니고예?

#1 핑시에도 입엇주게. 입을 게 엇이난.

@1 음.

#1 여름엔 갈옷베낀 엇이난. 베웃허고 갈옷베낀 엇엇주게.

@1 갈옷이 좋은 게, 무사 좋은 거파?

#1 모르켜 감 초락진 거난 몸에 좋덴 허난.

@1 음. 뭘 잘 몸에 부트지도 안 허고.

#1 부트지도 안 허고 저 비누 아이 들어도 빨아지곡게.

@1 비누 안 들여도 빨아져?

#1 이젠 비누 들여사 빨암저.

@1 음.

#1 난 옛날에이, 이상헌 말 꼴으켜. 갈옷 헤영 체암 입영 감자 싱그레 갓단 비오난 오란 빨안 널어 텨 어디 간 완 보난 누게 오꼴 ㄱ져가 불언. ㄱ져가 불언. 말짖 이젠 입을 사름을 좇안. 에이구 도렌 허연 막 싸우명 해낫저. 경헝 좇앗저 나.

@1 삼춘이 만든 건 줄 어땡 알아?

#1 이녁 만든 거 모르느냐? 경허난 일러 분 사름은 열 죄, 아져간 사름은 혼 죄라고 일러분 후젠 어디 할망 새 갈중이 입언 저레 감시난 조름에 들란 간 바레보난 흙치 나 솜씨가 아니라.

@1 음.

#1 나 솜씨가 아니라. 에이고.

@1 일러분 사름은 열 죄?

#1 으.

@1 일러분 사름이 잘못된 거구나.

#1 게. 이 사름이나 으져가신가? 저 사름이나 ㄱ져가신가?

@2 다 의심허는 거라?

#1 의심허난 열 죄.

@2 아.

#1 가져간 사름은 혼 죄.

@2 하하하.

@1 이디 창천리도 그 사냥허는 사름들 해근에 가죽으로도 옷 멘들앙 입곡 해낫수과?

#1 모르켜, 그거.

@1 그런 건 안 봐난?

#1 경헌 거 몰라. 옛날에 시집온 때 동네에 저 어딘디 가족 감태 썬 하르방은 봐났지만은 건 몰라.

우장

@1 비 올 때 허는 게 잇수게? 줍세기?

#1 줍세기. 비 올 땐게 우산 옛날은 옛이난에 새로 비 아이 들게 덩체긴 소꿉더레 가곡 그 이파린 베끼더레 가게 허영 여깁 문 멘들앙 톱 써근에 다가리엔 드룻밧디 정동.

@1 으.

#1 정동 해당 페랭이추룩 멘들앙 그거 쓰곡 어디 므쉬 보레 가젠 해도 그거 줍세기 행 톱 쓰민 비 아이 맞앗주게. 침 옛날은, 옛날 어른덜이 머리가 영리허영 그거 멩글 생각이 나근에.

@1 허허허.

@2 기라예.

#1 줍세기 줍세기 헛어.

@1 줍세기 안에는 어떻 뒤 바농질힙니까?

#1 아니여.

@1 어떻 그걸로 여껴?

#1 어떻사 행 여까신디 경 여까. 안넨 덩체기 가게 베끼던 이파리 가게 허영 칭칭칭칭 허게 헤영 물 아이 들게 허여근에 므쉬 보레 가민 경 그 정동으로 멩근 건 병긋이엔 헛저, 병긋.

@1 우에 쓰는 거?

#1 어.

@1 병긋, 정동으로 멘든 병긋?

#1 으, 병긋.

@2 병긋.

@1 병긋.

#1 그거 쓰고 줍세기 쓰곡.

@2 으.

물웃

@1 아. 물웃?

#1 으.

@1 아까 속곳, 속곳예, 해녀들 줍수들 입는 속곳?

#1 어.

@1 그런 어떻 행 멘드는 거파?

#1 그건, 가만 시라.

@1 이거 새 걸로.

#1 그건이, 요렇게 한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레 굴룬 거 맞게 헤영 부찌.
 @1 굴룬 거, 이거. 맞게 행 부쳐.
 #1 맞게 영 허영 부찌, 영 허영 부찌 양펜이로 허여근에 허민 이레 허리 들주게. 요던 막아졌지?
 @1 으.
 #1 막아지고 요던 터지민.
 @1 으.
 #1 요디하고 요던 가달. 이던 허리난. 일로 들마기 헤영 돌아근에 오줌이나 므류우민 들마기 클룬 싹주게.
 @1 요던 막아지고 요던 터졌젠 헛잖아예? 산굴 죽은굴 영 험니까?
 #1 아니여. 소중인 이추룩 헛저, 소중이.
 @1 이디 굴이엔 안 굴아? 다리 들어가는 딘?
 #1 굴, 요디도 굴, 요디도 굴.
 @1 아, 무신 굴, 무신 굴은 안 허고?
 #1 어게, 다리 들어가는 디 굴이주게.
 @1 요던 뒤엔 굴아, 요딘?
 #1 이던 그자 이디 영 툃아지난 허리 영 맞게 똑허게 허여근에 그창 부쳐근에 허엿주게. 이추룩.
 @1 게민 이던 뒤 처지엔 안 굴아?
 #1 아녀.
 @1 아녀.
 #1 겐 이디 메큰 돌아근에.
 @1 이디 허리 먼저 달고.
 #1 허리 돌아와근에 메큰 돌아근에.
 @1 메큰 들앙예?
 #1 으, 흔착만 메큰 돌아.
 @1 어느 짝에 돌아?
 #1 오른짝이고 왼짝이고 들고 이던 터지난 들마기 행.
 @1 이디 들마기 든 짝에 메큰 돕니까, 아니민 요 쪽에 돕니까?
 #1 요쪽에 들주.
 @1 요쪽에.
 #1 나 소중이도 드러 멘들아났저.
 @1 으.
 #1 멘들안 입어났주게, 옛날에.
 @1 물질도 험디가?
 #1 으?
 @1 물질도 험디가?
 #1 물질 안 헤도 소곶에 입을 것가 엇이니까.

@1 아, 속곳으로.

#1 속곳으로 맨들앙 입었지. 들마기도 늬신디 영 베완에, 베완에 영 허는 거로구나 행 못안에. 베 적삼에, 모시 적삼에도 들마기 들앙 입곡.

@1 음.

#1 베 적삼에도 들마기 들앙 입곡. 경허단 이제 입어지지 아녀난 다 쓰레기 케우멍 케와 불언.

@1 흐끔 빨리 왔으면 뉘 걸. 요디 들마기 다는 쪽이 오른쪽?

#1 어.

@1 들마긴 멧 개나 달아?

#1 흔 대으섯 개 돌아사주게.

@1 밑에 세 개.

#1 우이영.

@1 우이 세 개?

#1 어.

@1 켜 한 여섯 개 정도 답니까?

#1 으섯 개 정돈 돌아사주게.

@1 음.

#1 그 소중이 막 듯아.

@1 듯아.

#1 몸에 딱 부터근에.

@1 겨울에 따뜻하게 행 입는 걸로 행 입어야켜예?

#1 으, 겨울에 입엇주게. 막 듯은다, 소중이.

@2 집에서 입는 것도 경 급게 들앙 입엇수과?

#1 으게, 집에서고 아무거고 저을엔 그거 그자 듯으고 허민 소곶에 내의 엇이난 그거 만 들앙 입엇주.

@2 아.

@1 그거 입으민.

@2 오춤 쌀 때 어떻힐 거라?

@1 들마기 풀민 뉘 철이파?

#1 들마기 풀믈게 바진 강알 터지난게 영 허민 잘잘잘잘 나오지.

@2 여기까지 안 풀어도 뉘는 거난.

@1 어떤 삼춘털은 우에 안 달아근에 밑에만 헛젠 헤라?

@2 집에서 입는 거.

#1 허리 안 들민 뉘는 거라?

@2 어깨만 안 들고, 허리까진 하고.

#1 으.

@2 어깨만 안 돌아.

@1 메큰 안 헤근에.

#1 경헌다, 게 경헌 사름도 셋주게. 게민 이 젓도 막아지고 허주게. 허리 들민, 젓도 막아지꼭게.

흔레복

@1 결혼헐 때 입는 옷. 삼춘 나가 시집갓주만은 시집갈 건디 옷 하나만 헤 줍서 와서예, 이디예, 삼춘안티. 게민 어떻 헐 거파?

#1 어떻 허여?

@1 뭐 영 치수 재야 될 거 아니?

#1 다 재여근에 멘들아 줘야주게.

@1 게난 어떻헐 만들거라?

#1 자로 다 치 마련허멍게 치메영 저고리영 만들주, 어떻헐 만들 거라.

@1 게난 나가 시집가젠 허난 옷 하나 멘들아 줍서 헐 왓어예. 겨른 뭐 자로 헤가지고 여기 재?

#1 아니, 이 자로 허영 기지 멧 자 얼마 허민.

@1 으.

#1 이 남저 두루메긴 막 키 큰 사름은 두 자 세 치.

@1 음.

#1 보통 사름은 두 자 두 치 경허민 딱 맞나.

@1 음. 여자는?

#1 여자도 지례에 들라근에 흔.

@1 게난 나만이 현 사름은?

#1 두 자, 두 자 흐썰 남으민 뉘고.

@1 흐폼 영 살쩍?

#1 슬진 사름은 폼을 더 놔야지게.

@1 그니까.

#1 허여근에 자 흔 치 넘게, 멘들앙.

@1 아.

#1 들른 맨 반 자 흔 반 자 반 치 더 놔.

@1 흐폼 슬진 사름은?

#1 으, 경혜사. 사름에 들랑 헤사주게.

@1 겨른 겐 옷 멘들아 주렌 헐 왓어예. 그거 헤근에 다 만들어근에 주젠 허민 얼마나 걸려. 나 다음, 오늘 유월달이난 칠월달에 결혼헐 거우다. 한 달만에 만들어져?

#1 기지 아져오느네. 기지 아져오민게 흐루민 멘들주, 흐루민.

@1 잉?

#1 흐루민 치메저고리 흐루민.

@2 다 만들어?

@1 흐루예?

#1 아이고, 허단도 버치주.

@1 에, 하하하.

#1 미승에 주는 거사 경 어렵느냐?

@1 아니, 손으로. 미승에 줘는 거?

#1 손으로 하여도 새스방 옷 강 누게 흐쓸 손 댄 허민 바지저고리하고 도복하고 나 흐루에 헤낫저, 흐루에. 흐루에 헛어. 흐루민 하여.

@1 흐루민 하여.

#1 누게 빌주게, 켤당이나 누게. 그 도복 헤 도렌 행 가면 방상에 켤당이나 누게 동성이 나 시민 흐디 오랑 흐쓸 ㄱ찌 허면 물라근에 바지저고린 안팎을 다 물라사 헐 거 아니가.

@1 음.

#1 다 물르고 도복 물르곡 허영 난 도복 허고 그딘 사름덜은 그 안이라도 부찌, 손으로 부찌곡 허민 흐루민 하여.

@1 그 천 가정오민 멘드는 값은 얼마나 행 줘니까?

#1 모르켜게 그 시시때때 행 받았주.

@1 으.

#1 이디 놀레 오는 할망도 아덜 풀 때 도복이영 그 바지저고리영 헤 줘셴 허난 허레 가와신디 이제 생각허명 무시거 나신디 놀레 오명 하간거 가정 온다. 먹을 거, 무시거 야채영 가져오민 가정 오지 말랑 헤 가민 빗 무노렌 허명. 그때 일당 하영 드리지 못허영 미안허영 미안허영.

@1 하하하.

#1 경행 그뎐 그뎐 시세주. 무슨 그런 말 험시니 허명 헨다게.

신부 옷

@1 음. 그믐 여자는 치메하고 저고리하고 그다음?

#1 적삼도 입고, 소곶에.

@1 소곶에 적삼도 입고 속적삼, 속치메도 허고?

#1 어게. 보선 신곡.

@1 보선 신고. 속바지도 허고?

#1 어.

@1 그다음 우에 무신거 입읍니까?

#1 장옷.

@1 장옷.

#1 결혼헐 때.

@1 결혼헐 때예.

#1 파랑헌 장옷.

@1 파랑헌 장옷. 거 삼춘 시집을 때 거 잇수과? 데껴불엇수과?

#1 시집을 때 가난허난 어느 절에.

@1 예.

#1 도세기도 못 잡안 독 흐나 잡안 시집오랏저.

@1 하하.

#1 새어명에 살곡.

@1 계난 장옷 안 해 줘디까?

#1 장옷 안 해 주난 나냥으로 뜰 봉건으로 해 주난 싶저.

@1 아, 그 저심옷으로 ㄴ치 놔둬디까?

#1 으. 우리 시어머님이, 우리가 두 번째 아들이여. 큰시아주방은 ㄴ 마흔에 돌아가부난 살단에 우리 집이 아흔들에 돌아단에 백, 동짓덜, 음력으로 동짓덜 열으셋날 돌아갓저. 옷을 난 드리 일 멩겨도 할망이 저승옷 팔월 나민 흐끔 췌와살 건디 췌우질 아녀.

@1 음.

#1 흐번은 집이 들어지난 벧 나고 허난 췌우젠 앓아냉 보난에 우리 시어머님이 시집을 때 헤나신ㄴ라 시집을 때에 거 초록 거죽 헤난 거 즐르난 안 허고 육지 멩지, 분 멩질 산에 거죽허난 ㄴ딱 좀 쳐 불언 대체 뷌터라게. 대체 원.

@1 하하, 대체.

#1 ㄴ 축엇이 대체.

@2 음.

#1 적삼도 보난에 흰 멩지로 허연 저고리 소꿍에 끼와선게 토멩지 적삼이 이신디, 토멩지 적삼은 그대로 ㄴ만이 잇고 그 육지 멩지 적삼 멘들안 저고리 소꿍에 끼운 건 장옷추룩 ㄴ치 딱 대체 불언 원 불나위가 엇언.

@1 토멩진 이디 거짜?

#1 으, 이디 것ㄴ라 토멩지엔 현다.

@1 아.

#1 경현디 보난 불 나우가 엇언. 아이고, 이제 ㄴ 튼언 쓰레기레 데껴된 장에 간에 붉은 멩지 두 자허고 푸린 멩지 장옷 하나 헐 거 사고 허연 ㄴ 멘들앙 내난 우리 시어머님이 막 지꺼전.

@1 음.

#1 아이고, ㄴ 손으로 허여지난 영 허염저. 아이고 이거 널젠, 췌우젠 힘이 다행이주 어머님이 돌아강 이거 앓아냉 이추룩 헤시민 어떻힐 거짜, 어떻힐 거짜 허멍 드리 허엿저.

@1 음.

#1 계난 우리 시어머님이 날 저승 가도 막 도웨 췌 나가 복 받안에 이추룩 건강험신가 경 헤진다.

@1 하하.

#1 아이, 실제로 예휴. 육짓 멩지 옛날은 풀 쭈지 안 허영 생플 허는 따문 그추룩 좀을 먹어 불어.

@2 음.

#1 이젠 육짓 멩지라도 경 안 허는디 옛날은 막 멩지도 얇고 생플 헤영 먹이민 그추룩 좀 일영.

@1 생플은 뭇로 맥이는 거짜?

#1 쭈지 안허영 맥이는 것ㄴ라 생플이엔 현다게.

@1 계민 그냥 쓸 골아근에 그냥 해?
 #1 그냥 밀궤루 칸에 그냥 현 거난.
 @1 밀궤루 칸에.
 #1 밀궤루도 영 썩근에 해야 허는디.
 @1 으, 으.
 #1 궤루 그냥 칸 허난 그추룩 원 요멘이도 궤진 디가 엇인 거라. 골로로 골로로 그렇게
 도 고망 나 불어.
 @1 음. 계민 신부는 장옷 허나민 뵤니까? 치메저고리허고 장옷?
 #1 어게.
 @1 우에 머리에 영 쓰는 건 엇어?
 #1 머리에 쓰는 건 엇고.
 @1 장옷, 장옷 머리에 썩텐 골아라.
 #1 장옷 썩주게.
 @1 하난 입곡 하난 쓰곡?
 #1 어, 게 잘 알암신게.
 @1 아니, 다른 디 할머니가 골아 준 거지.
 #1 엇이민 늬의 거 빌영이라도 머리에 썩저게.
 @1 음. 머리 어떻 영 여찌?
 #1 여젓주게.
 @1 어떻 여집니까, 머리는?
 #1 툃머리 허여근에.
 @1 으.
 #1 툃머리 허여근에 여정 이디 이만이. 난 툃머리 허연에 뵤날 시집갓단에 뵤날 친정에
 갈 때도 머리 여정 가났저. 아방 무스완.
 @1 아방 무스완?
 #1 으.
 @1 무사?
 #1 머리 안 여정 가민 혼날 거난.
 @2 아.
 @1 무사 시집강 그날 궤나민 이거 내려부는 거 아니?
 #1 내려볼건디 머리 여정 오랜 허난 안 여정 가민 혼나카 부덴 아방 무서완 여정 갖저.
 @1 어디 갈 때도 여정 다녀났수과?
 #1 아주 옛날은 예정 텅겨저. 시집이 텅기명.
 @1 아.
 #1 아주 옛날은. 우리보단 막 우이 어른덜은.
 @1 으, 삼춘넌 경 안 허고?
 #1 으.
 @1 이 여진 머리 빼불민 그다음 쪽진 머리꽈?

#1 이넉 머리께.
 @1 이넉 머리.
 #1 총각, 총각 찾주께. 빈네 찢르고.
 @1 무신 거 차서?
 #1 낭지 찬.
 @1 빈네 찢르고. 이넉 머리만 흐뎡 죽으면 이디 더 부청 이디 더 크게 이디 이만이 허
 게 허지 안 험니까?
 #1 어.
 @1 빈네 찢르는 디?
 #1 어.
 @1 그건 무신거옌 곱아.
 #1 모르켜. 뗏이엔사 곤는다. 경 옛날도 옛인 집인 침, 곳인상에이 물짐치 하나 놓고 득
 세기 숲양 벧경 두 갠가 세 갠가 놓고. 새서방 상에 득 잡양 흐 다리 놓고 경행 잔치헛저.
 @1 물짐친 무신거라?
 #1 늣뵤로 허여근에 물짐치 엇이나?
 @1 지금 물짐치 허듯이?
 #1 어, 경행 보시에 하나 올리고.
 @1 으, 고깃ㄱ루 안 늣으로 현 건가?
 #1 고깃ㄱ루도 아이 놓고 소금에 죽엇단 그자. 찢지그릉허게.
 @1 아.
 #1 득세기 숲양 벧경 두 개나 세 개나 놓고.
 @1 신랑상에?
 #1 돛궤기 흐나 놓고 허민 쩍시 세 개민 그거라. 국, 밥 허고.
 @1 쩍시 세 개. 이젠 막 상다리 휘어지게 허는다.
 #1 하이고. 게메 이젠 너미 출려.

신랑 옷

@1 음. 신랑은 무신거 입을니까?
 #1 신랑은?
 @1 시집갈 때, 아니 장계갈 때 입는 옷?
 #1 도복 입곡 관복 입엇지, 관복 빌어단.
 @1 도복허고 관복은 트난 거?
 #1 트난 거지께.
 @1 속에 도복 입고 그다음 관복 입어?
 #1 소곱에 바지저고리 입곡 두루메기 입곡 도복 입고, 관복 빌곡 모저도 건사한, 그 이
 제 테레비 아이 남시냐?
 @1 예.
 #1 그거 모저도 이추룩 현 거 쓰곡.

@1 으.

#1 경허영 돌 타근에 처가침이 가민 가운데 도고리 툇 허게 폐운다. 경허민 도고리레 툇 허게 느려.

@1 이 허리에도 무신거 허리띠 거튼 거 잇어마씨.

#1 게 그거 관복에 거게.

@1 관복에 거?

#1 관복에 거주게.

@1 그 관복은 어디서 해근에, 자기 거 맞추는 거 아니지예?

#1 빌어 왁주, 삭 쥘.

@1 어디 강 빌어 와?

#1 어디사 강 빌업신디 거 나 아느냐?

@2 마을 거 아니, 마을 거? 무슨 제로 행?

#1 아니, 마을에 거 엇일 거여.

@2 엇일 거라?

#1 어디 강 빌엇주.

@1 아. 신발도 다른, ㅋ난 거 신옵니까?

#1 신발도 거 관복에 들른 신이 잇지, 새서방은.

@1 음. 여자도 고무신이, 그 장옷에 들른 건 엇고?

#1 엇어, 여잔.

@1 여잔 엇고.

#1 난 시집갈 때 째세기 삼앗단 쥐라, 째신.

@1 음. 경행 흐끔 곱게 줍앙 쥘수과? 새각시 거는 흐끔 물들이곡 행?

#1 우리 스춘 시누이 화순 사는디 저 드남뵈디엔 현 디라. 나 시집간 디가.

@1 으.

#1 저 열리레 느려가는 디 손 왼쪽에. 그디 가신디 그 우리 스춘 시누이 잔치 먹으레 오 멍 그 험벽신, 옛날.

@1 험벽신?

#1 어. 험벽으로 멘든 신, 가막창신추록 현 거.

@1 으.

#1 험벽신 멘들안 와시난에 집신 으져옴은 미안허난에 그 신 빌연 아전 오란. 꿩께 탄 신영 간 뒷날 올 때 째세기 주난 신언 와났저.

@1 빌련에, 새각시 건디 늬의 거 빌련에 영 신으렌 곱읍디까?

#1 어. 그땐이.

@1 이번에는 누게 죽언예.

#1 으.

상복

@1 게민 그때 옷 행 입져살 거 아니파? 그거 어떻행, 무신 옷 무신 옷 잇수과? 남제 상

제부터, 남저 상제 뭐 입습니까?

#1 뭐 입어게. 베로 허영 상복 허영 입엇주, 남저.

@1 남저 상복도 아덜 거 트나고 사위 거 트나고 영 험니까?

#1 어. 사위 거, 아덜 건 이추룩 그자 우머니가 엇고. 사위 건 우머니가 이만이 등기주 게. 베 두 자 허영, 스미 혼 자민 허는디 사위 건 우머니 돈경, 거 우머니엔 현다.

@1 음, 밑에 여기가 우머니?

#1 으, 이거 그추룩 허민 거 트나게 허주.

@1 무사 사위 건 이만이 허게 험신고?

#1 트나게 힘으로, 아덜허고 사위 트나게 힘으로.

@1 이디 무신 거 담기도 허고, 저 부지 받으민 이레 영 반안게만은 아니꽂?

#1 그 우머니레 담앗주게.

@1 기지예.

#1 으.

@1 사원 이디 담아도 뉘고 아덜은 담을 디 엇네.

#1 아덜은게 그디 부지 봉투 디가 싯주, 상을 낚주게.

@1 아.

#1 옛날 집이서 험 때도 소상, 창문 베끼딜로 허지 안헤사, 장막 쳐근에.

@1 으.

#1 경허민 그디 상을, 봉투 놀 상을 족은 상 하나 밥상츄룩 현 거 낚주게.

@1 아, 상에 절허는 사름들.

#1 으, 상에 절허는 사름 봉투 강 그레 상더레 낚 절헬주게. 사원 벨도로 사위 조름에 온 사름 주민 이레 들이치고 경헬세.

@1 아. 아덜 건 상에다 허고.

#1 으.

@1 계민 이 우머니만 트납니까?

#1 계. 우머니만.

@1 아덜 거랑 사위 거는?

#1 우머니만 트나주게. 경헬 나 저디 다 멘들앙 놔뉘저.

@1 상복도 멘들앙 놔뉘니까?

#1 계.

@1 아들들, 딸들 입을 거?

#1 계. 손지영.

@1 혼번 풀어야 뉘크라. 뒤에 여기 날개 돌지는 건?

#1 이젠 그건 안 허여, 이딘.

@1 아, 옛날엔 헤낫수과?

#1 옛날엔 제복이엔 헤연에 그거 입어사 상제 닳앗저, 옛날은.

@1 으.

#1 그거 허여근에 막 오래민 시커명헌 거. 사름 죽영 영장 나민 그것 강 빌어 와. 빌어

당 우이 입어.

@1 아, 상복 우에다가 다시 또 제복을 입어?

#1 어, 어. 입어난디 어떤 집인 그자 뒤에 하나 복 두 개 영 양펜이 뒤에 돋경 입어나신 디 이젠 경 안 현다. 그자 복옷만 입영.

@1 제복 대신에 뒤에 놀개 돌지는 거랏수파?

#1 으, 으. 거 제복 대신에.

@1 아, 경혜신디 이젠 그것도 안 행 그냥.

#1 으, 으.

@1 복옷만 입영?

#1 으.

@2 이거 복 돌지는 거렌 곶앗수파? 뒤에 놀개 돌리는 거?

#1 모르켜 무슨 것산디.

@2 아까 삼춘 곶을 때 복.

#1 제복, 복옷. 우리 할망신디 그런 제복이 셔났어.

@1 어.

#1 계민 부락에 영장 나민 그 제복을 빌어가.

@1 어.

#1 영 존등이에 무끄는 건 베 혜영 노 낀 거고.

@1 으.

#1 우리 아인 때 보민.

@1 으.

#1 빌어강 아저을 땐 또 그 무신 궤기가 흐 반이나 떡이 흐 반이나 무신것에 싸근에 그 제복에 으져왔더라.

@1 아, 빌려준 값으로?

#1 빌려준 값으로.

@1 으.

#1 거 봐났주게.

@1 아버지 돌아가실 때영 어무니 돌아가실 때영 이 복옷 멘드는 것도 특납니까?

#1 특나지 아년다. 두건은 뜨난다.

@1 두건만 특납니까?

#1 두건은 그자 영 허여근에 아방 죽은 때 우로 그냥 줍곡.

@1 으.

#1 어멍 죽은 땐 소곱으로 그자 영 췌 뉘쌍 낡 우로 줍곡 경현다.

@1 아, 어멍은 두 번?

#1 어, 두 번을 줘.

@1 어멍은 두 번 주고?

#1 으, 아방은 흐 번.

@1 흐 번만 주고. 음. 두 번은 어멍행 접는 거파?

#1 안으로 문밖 쥐나근에 뉘싸근에 곡대기 또시 혼 번 쥐.
 @1 아.
 #1 계난 이것도 사름마다 몰라.
 @1 계난.
 #1 그자 허는 게엔 허주. 좁는 거 영 허주.
 @1 이런 디 감치는 것도 아부지 돌아가셨을 때 어무니 돌아가셨을 때 틀리덴 헨게만은?
 #1 무시거?
 @2 밑에 이 단, 단.
 #1 그자 단 아방 죽은 때는 그자 감침만 허곡 어멍 죽으면은 이렇게 오그려근에 단 허곡.
 @1 어멍 헐 때는 단 허고?
 #1 어.
 @1 어멍 죽을 때 흐뎡 더 든든하게 허는 거 닳다예?
 #1 아방 죽은 땀 그냥 그냥 바위 그냥 감취, 영 영 영.
 @1 아.
 #1 어멍 죽은 때 영 영 오그려근에.
 @1 단 해근에.
 #1 허곡 경한다.
 @1 그 두건도 입관허기 전이는 이디 터진 두건 현덴 헨게만은?
 #1 옛날은, 옛날 식으로 갑자기 돌아가난 두건 좁곡 하간 거 헐 저르가 엇은 의미로 바우로만 흐뎡 쥐근에 요만이만 해영 이딘 좁지 안 해영 이레 영 해영 써나시네.
 @1 아.
 #1 그런 의미로 그건.
 @1 이디 어깨도 영 혼 착만 걸치고?
 #1 으. 그건 성복도 허기 전이. 깎자기 돌아가난 입을 저르가 엇어.
 @1 으.
 #1 문 입을 저르가 엇이난 혼 착만 입어근에 골로 메영 뎡겨시네.
 @1 으.
 #1 성복을 허여야 츠레 출려근에 입어.
 @1 으.
 #1 겨난 나 생각에. 어른덜 경 곱아났어.
 @1 으.
 #1 그 의미로 다 옛날은 문 지어낸 거.
 @1 그 상복 입을 때 여기 허는 것도 잇수께. 짝으로 영 허는 거?
 #1 그건 건대.
 @1 건대.
 #1 건대.
 @1 이건 건대. 이디 영 가운디 세우는 것도 잇지 안해?
 #1 게메, 그건 남저 건대.

@1 아, 요기꺼지가 다 건대.

#1 여저덜은 영 뵙들락허게만 허영 베 썩 요만인 허게 썩 그것도 건대.

@1 아, 여저 것도 건대, 남저 것도 건대. 그민 여저 상복은? 남저 상복은 경허고, 여저 상복은? 여저 상제, 며느리, 딸?

#1 딸은 그냥, 그냥 적삼인가 치멘가 허영 입엄주게.

@1 적삼에 치메 헤여근에, 음.

자

@2 왜정 때 게 오래 뉘 거?

#1 어.

@2 누게가 준 거?

#1 우리 큰동세 처녀 때 일본 강 살단 열여답에 오명 아정 오란.

@2 으.

#1 쓰난에 우리 동세 옷을 안 허고 난 옷 허난에 성님 이거 날 줍서 허난 으저가라 허 난 으저 왕 그걸로 헛주게.

@2 으.

#1 하르방 멘들아 줘도.

@2 으, 옛날 이거 잣대 만들젠 허민 요기가 혼 치라예?

#1 어게. 곱살 하나씩 낱.

@2 예, 곱살 하나씩 낱예? 하하하.

#1 사진 찍엄다?

@2 잣대 허젠 허민 이거 옷 멘들 때 영?

#1 자로 옷 헤시네, 자로.

@2 자로예.

#1 자, 치 마련헤영.

@2 자, 치 행.

#1 으, 멧 치, 멧 치.

@2 그면 여기 저고리 허젠 허민 줄로 행 영 허는 자도 잇어나시쿠다?

#1 아이, 난 그런 건 엇고 이걸로만 허연.

@2 이걸로만 헨?

#1 으.

@2 품 허는 거는 눈으로?

#1 품 허는 것도게 영 허영 혼 자 혼 치.

@2 혼 자 혼 치.

#1 멩글지 안 현 때 반 자 반 치만 허민 멩들민 혼 자 혼 치 뉘게 허엿주게.

@2 음.

#1 자가 옷을 헛어, 자가.

@2 자가 옷을 헛어?

#1 으.
 @2 계난 꼭 바농이영 자만 꼭 이시민 뉼 거라?
 #1 어.
 @2 삼춘 바농상지는 엇수파?
 #1 바농상지 데껴 불언.
 @2 데껴 불언. 옛날에 바농상지 어떻 행 써낫수파?
 #1 어떻사 행 써져신디 몰르켜.
 @2 하하하. 이거는 얼마나 뉼 거? 삼춘 골메렌 곶읍디다예?
 #1 어, 골메. 거 손가락에 끼와사 바농으로 안 끼와정 좋앗주게.
 @2 그치예. 이거는 얼마나 뉼 거파, 야이는? 땃 설이라, 이 골메?
 #1 그 골메 흔 육십도 넘어실 거여.
 @2 육십 넘어서. 아이고야, 이거 할머니구나. 삼춘 골메 영 짝어, 께 뵈서, 손가락에.
 #1 이거 필요가 엇어, 이거 윈.
 @2 필요가 엇어.
 @1 이제 바농질 안 허니까.
 @2 잠깐만예, 손가락 영, 경 허지 말앙예, 영 헉서. 영 헤 뵈서. 흐뵈 굽어 뵈서. 바농 질, 바농 심은 거추룩.

‘윤디’와 ‘윤디판’

#1 손으로만 허단 미승 사난예, 큰뉼 스물다섯에 사난예 이거 언제고?
 @2 윤딘 엇인디 무사 윤디판은 잇수파?
 #1 윤디 데껴 불어세. 그거 데껴 불지 안허영 놔뉼.
 @2 뉼 허젠?
 #1 뉼 허젠산디. 오뵈 뵈러전, 널착이. 뵈러지난 튼언예.
 @2 옛날에도 윤디판에 영 천덜 씨윙 썻수파?
 #1 어게. 경헛주게. 윤디 화리에 불살뵈근예.
 @2 예.
 #1 진엇다근예.
 @2 계난 윤디판도 다 낭으로 헤근예 집이서 만들영 썻어예?
 #1 어게. 낭으로 허영 그디 소게 흐썻 감앙.
 @2 소게 흐썻 감앙?
 #1 어.
 @2 폭신평신히게 만들어신게.
 #1 어게. 게 어떠난 이진 데껴 불지 안헛저. 나 막 데껴 불엇저게, 하간 거. 흔저 가젠.
 @1 흔저 가젠.
 #1 치와 뉼. 아, 진짜로.
 @1 뉼 가큰게, 아직 가젠 허민 먼 거 닳아.
 #1 계난 들레 오지 안허영 뉼 감저.

@2 우리안티 안 돌아부난 이제 다 돌아사, 아직 많이 남았수다, 하영 남안. 게민 이 윤 디를 언제까지 씻수과, 삼춘?

#1 윤디?

@2 으.

#1 다리미 나기 전이 씻주게.

@2 다리미 삼춘 멧 설 나난 다리미 산 거 닐아?

#1 멧 설산디.

@2 멧 설산이에. 윤디는 어뎡 씻수과, 옷 만들 때?

#1 어뎡 써게, 화리에 불 살좌근에.

@2 그걸로 뭐 다렸어?

#1 질엇다근에.

@2 질엇당.

#1 옷 허멍. 이 혼서 옷도 허멍게.

@2 으.

#1 실밥을, 손으로 주민 꼬글꼬글 허민게 이것에 놔근에 윤디 쪽 허게 누뜰민 판짚 폐와 젓주게.

@2 게난 윤디는 영 바느질헌 디 그디 쪽 늘르는 거라예, 요런 디예?

#1 어게.

@2 예, 예.

#1 경허난 다리미 난 후젠 아니 썬에. 어떠난 이견 데껴볼지 안 헨에. 쓰레기 케올 때랑 케와 붙어사켜.

@2 음.

#1 들마기 짝언?

@2 짝언. 지금 들마기 만들렌 허민 만들어지쿠과?

#1 에휴, 못 헌다.

@2 못 헌다.

@1 만들지. 삼춘 저번에 만들엇는데. 그때 이 년, 삼 년 전에는 만들엇는데. 이제 눈 어 두어부난?

(잡담)

@1 저 족은 도라이버들은 무사 이신 거?

#1 미승 무시거 고장나민. 난 미승도 쓰멍 경허난 어뎡 할망덜은 미승 고장났젠 허멍 날 그라 봐도렌 허민 고장 안 나.

@1 아, 고장 안 난.

#1 고장 안 난. 쓰멍 쓰멍 요령을 얻엉.

궤

@2 저 궤는 얼마나 된 거과?

#1 저 궤, 우리 큰년 스물다섯에 산 이제 이른 돌이난 멧 헤라?

@2 아니, 저 옛날 퀘?

@1 더 옛날 거 아니?

@2 족은 거?

#1 아, 족은 거?

@2 어.

#1 그거 막 오랫동안.

@2 물린 거라?

#1 물린 거 저거. 물리지 안 행 이만 원 쥘 산. 우리 시어머님신디 하하하.

@2 시어머님신디 이만원 줬어?

#1 어.

@2 무사?

@1 시어머니가 공짜로 안 줬?

#1 도렌 허난에 어떻게.

@1 이거 미승질 설른지 얼마나 뻗수과?

#1 미승 설르건디?

@1 으, 아직까지 다 이신게. 실이영

#1 흔 사오 년. 흔 구십ㄱ장은 헛주, 구십ㄱ장.

@1 아이고. 그때까지 옷도 멘들고?

#1 으.

@1 늬의 것도 멘들아 주고?

#1 어게. 수의영 나 옷 하영 헛저.

‘플ㄱ레’

@2 플ㄱ레는 뭐 헐때 썻수과, 그것도 옷 헐 때 쓴 거 아니?

#1 옷에 풀허젠 허민게 그것에 곤썰 물 컷다근에 굴안에 풀 썻에 헤시네. 옛날은게.

@2 맞아, 맞아.

@1 계난 풀ㄱ레는 옷에 헐 풀 쓸 때 허는 거구나예?

#1 어게. 계난 풀ㄱ레엔 험세.

@1 아, 계난 풀ㄱ레.

@2 콩 킬 때도. 먹을 걸 헐 때도 쓰지 안헐?

#1 먹을 거 헐 때 안 썻저. 먹을 거 헐 때 그냥 ㄱ레가 잇엇주게.

@2 그냥 ㄱ레로만 허고. 어쨌든 풀 쓸 때만 헐 거라? 아.

#1 계난 우린 두 번째 아덜이난 저것가 우리 짝세에 들지, 뉘지 앓을 건디 스삼스건에
느려갓당 올라오난 우린 어디 저디 사름 우리 집 사 오명 간에 풀ㄱ레아올라 흔디 시꺼와
부난 우리가 훗아왔주게.

@1 음.

‘호상옷’

@1 삼촌 저승옷은 삼촌이 만든 거?

#1 게, 나냥으로 허주 누계가 허느니. 하르방 것도 다 나냥으로 멘들안 입전 보내고.

@1 아. 아덜덜 것도 멘들앙 놔뵤.

#1 게 아들 것도 멘들앗주게. 족은아덜 멘들앙 족은메느리ㄹ라 아저 가렌 허난 요디 내 노난 기분이 이상허덴 허명 안 아정 가.

@1 하하하.

#1 아이구, 침.

@1 그거 꺼내근에 바람도 쐬고 햇빛도 쐬고 해야 뵤지 안헤?

#1 포따리에 싸근에 곱닥헌 비닐에 딱 쌍 놔두민 마 아이 들엉 좋아. 멧 헤가 뵤어도.

@1 아.

#1 그냥.

@2 일 년에 한 번씩 안 꺼냄수파?

#1 아이 꺼낸. 게난.

@2 윤달에도 안 꺼냄수파?

#1 아니 꺼낸. 것도 실평, 간세로.

@1 우리 사진 찍어질 건가 헨에. 하하하. 파내기 귀찮아?

#1 아니, 싫어 싫어.

@1 싫어, 싫어. 그건 아니.

@2 일단 순서만 다 끝아줘 봅서. 뭐 뭐 뭐 뭐 이신디.

#1 나 죽영 가민 헐 거 그자 다 헨 거주게.

@1 음.

#1 아덜 사위 옷도 멘들앙 놔두고 치메도 멘들앙 놔두고 나 입을 거 다 헐고.

@1 음.

#1 나 죽으민 저 생꼬허고 초베긴 돈 들 거 엇어.

@1 하하하.

#1 관 널허고 개판허곡.

@1 개판하고 또 하나 뵤?

#1 관, 관

@1 관허고 개판허고.

#1 으, 그거베긴 살 거 엇어.

@1 요즘 장의사에서 다 알아근에 장례식장에서 다예.

#1 장의사 돈 버실젠 거 이제 산 때에 할망 하르방 화장도 혼 번 안 헤 본 어른덜 죽으민 거 돈 받아가젠 그 화장헬주. 그거 뵤 화장헬서. 나 그거 쥬 실러.

@1 그거 쥬 싫어?

#1 싫어, 싫어.

‘결렁이’

#1 거이 옛날은 결렁이엔 헛저.

@1 결렁이.

#1 우리 뜰덜 국민학교 땡길 때 치메 행 입어난 거.

@1 아하.

#1 그거 데겨봄 아까왕 튼엉 잇으멍 잇으멍.

@2 잇으멍 잇으멍.

#1 드리 고비천에 결렁이 멘들앗주게.

@2 으.

@1 고비치는 건 어땡 허는 거?

#1 오고리는 거.

@1 아.

#1 드리 저추룩 오고리는 것그라 고비치는 거엔 현다. 경행 전이 큰일 허단 거 오뿔 일러 불언, 결렁이가. 간 데 온 데 엇이 일러 불언.

@1 으.

#1 저 열리 어디 절간에 간 보난 우리 결렁이가 있어.

@1 하하하.

@2 거기 강 놔뿔 온 거 아니?

#1 아니. 어땡허난 이 결렁이가 이신 허난 창천리 거리에 땡기단 보난 질에 있어렌.

@2 아.

@1 봉간?

#1 봉가 간. 나도 우리 큰일게 여라 번 허난 큰일 때 뿔 휘 사발이영 빌레 으정 땡기단 흘쳐 불언.

@1 음.

@2 이 결렁이 뿔 헐 때 씬수과?

#1 무시거 질 때?

@2 뿔 질 때?

#1 쓰레기 버릴 때도 툭 허게 저근에 강. 이제 버릴 것도 엇어 만뿔 버련.

@1 으.

@2 게난 옛날에는 이런 결렁이로 구덕덜 저낫어예?

#1 게. 아주 옛날은 결렁이도 엇음 베.

@2 베.

#1 짝으로 끈 베로.

@2 으.

#1 우리 친정아방도 나 두린 때 베로 업엉 저 외가침이 강 머쳐 된 일 땡겜젠 헤라.

@2 게난 천으로 영 행 멘들민 결렁이렌 허는 거고?

#1 으, 으.

@2 그 짝으로 멘든 건 결렁이렌 안 곶아?

#1 베.
@2 그건 다 베렌 꼴아?
#1 짐페.
@2 짐페.
#1 짐 경 땡기는 거난 짐페.
@2 옛날에 구루마에 영 무꺼잖아예?
#1 으.
@2 그것도 짐페렌 꼴앗수파?
#1 아니, 그건 쉘앗베.
@2 쉘앗베.
#1 쉘에 쓰는 거난.
@2 쉘에 쓰는 거난.
#1 쉘앗베엔 헛저.
@2 계민 천으로 만든 것만 걸렁이렌 허는 거구나?
#1 으, 으. 걸렁이. 질빵이엔도 허고 걸렁이엔도 허고.
@2 으.
#1 질빵이엔 헛 말은 요셋말. 옛날은 걸렁이.
@1 걸렁이로 얘기도 업어나지 안헛수파?
#1 걸렁이로 얘기도 업고 얘기구덕도 지곡 헛주게.
@2 으, 맞수다.

4.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 조사 일시: 2021년 6월 2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제분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고순희
- 제보자: # 김순생

- 조사 일시: 2021년 6월 2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제분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고순희
- 제보자: # 김순생

제보자 정보

@2 어, 허는 거 뺑 그냥.

어, 그냥 만드니까 졸바로 못 만들어도.

@2 아.

그때는 열 설이니까 칭찬받을 거 아니?

@1 예.

많이 이제 칭찬받으니까, 그것이 듣고 보니까 그 옷이 졸바로 뒤 안했더라고.

@1 음.

게메. 그 멧지는 푸답을 해야 허는 거니까 푸답도 졸바로 못 허고 어머니, 어머니는 안 해 주고 허니까.

@1 음.

그러다가 광목으로 따시 다음 광목옷을 헛잖아.

@1 음.

겐 두 번차는 켜참여게 뒤고.

@1 오.

@2 아.

@1 누게 베와 주지 안해도?

어. 그거 어머니네 허는 것을 좀 흐쉴 봐나니까 어머니네 거. 겐 경행 그자 그추룩 허 멧 행 입엇주.

@1 하하하. 손재주가 좋으신 모양인게예.

거 바농질. 계난 그쯤에는 어머니가 안 해 주더라고.

@1 음.

나대로 이제 저고리도, 몸빼 잇잖아?

@1 예.

옛날 할머니털은 그 굴중이엔 현 거가 잇엇어이.

@1 예.

알아?

@1 예.

그 굴중이를 입영 이런 디 영 다님 처근에 일허는 거. 이디 막 이만한 지금 퍼, 나팔 바지거치 행 허면 어른덜이 이제, 우리 어린 때도 검질메젠 허민 여기 이렇게 해서 낡 끈

행, 그 꼭 잇잖아. 밧디 가민 꼭 행 걸로 무꺼근에 검질덜 뗏어, 어른덜이.
 @1 아.
 # 경허민 거 가을 들엉 저 조 불리잖아, 조 불령 조 비어나면은 그디 푸께.
 @1 예.
 @2 하하하.
 # 푸께 알지이?
 @1 예.
 @2 따 먹을 거.
 # 푸께를 그 어머니네가 일행 여기 담아 낡 왕 주는 거 아냐.
 @2 하하하.
 # 그러면은 그것이 맛있더라고.
 @1 하하하. 아, 이디 밑에 영 무끄민 이레 영 담앙?
 # 으, 이레 담아놔근에 이레 영 털어지니까. 이만은 어머니네가 이만큼은 헤 아정 와.
 @1 하하하.
 @2 아이덜 주젠 타 왁구나게, 역불로.
 # 으, 아이덜 주젠. 그것이 맛있어. 또 튀냐면 간절기 알아?
 @1 예, 예.
 # 그 간절기도 타당 먹고.
 @1 아.
 # 경행 허민 그 나는 뭐 탄 건 엇고 그 외는 그자 몸빼 ㄹ튼 것도 그 광목 행 입고 따
 시 검은 광목에.
 @1 예, 예.
 # 광목에 물을 들이잖아.
 @1 예.
 # 염색을 허면은 그것을 치메를 만들어.
 @1 음.
 # 치메를 그거 두 쪽 헤근에 치마를 만들면은 거 아래 띵 돌라. 흰 띵. 요만큼 치메가
 요만큼 허면은 요 정도 헤근에 이 흰 띵을 놔. 겨민 그것이 얼마나 이빠 벨 거라.
 @2 아.
 @1 하하하.
 @2 치마 밑에?
 # 으.
 @2 뿐으로 헌 거마씨?
 # 으.
 @2 겨민 그거 허민 학생덜토 그추록 행 텅기고 따시 우리 거 아이덜도 행 텅기고 허지.
 @1 밑에 단을 아예 하는 게 아니라?
 # 단을 헤.
 # 단 헤 낡 요런 디레 부찌는 거.

@1 색동 하듯이?

으, 부찌는 거야. 꽃동 놓듯이.

@1 예, 예.

@3 옛날에 장식으로 해났어예?

어. 요만큼 해근에 요 정도 해근에 요만큼 요, 요 정벙이.

@1 치마 밑에.

으, 부쳐. 그거 얼마나 이쁘지 몰라.

웃감 종류

@1 하하하. 옛날에는 웃감이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웃감이 주로 잇어났수과?

주로는 저 멩지.

@1 으.

우리는 영 보민 멩지히고 그 삼베 잇잖아?

@1 예.

그것을 보니까 저 이 울타리에 그 베를, 삼을 갈아.

@1 어.

삼을 갈면은, 삼이엔 허여, 거.

@1 예, 예.

삼을 갈면은 이제 그 지금 시절이 아니고 봄, 조금 일어서 흔 지금 생각이면은 흔 오월, 오월달쯤. 오월달쯤 뒤편은 그걸 비어.

@1 으, 삼을.

으, 거 비어 노민 비어근에 그 썸 다 따 두고 그것을 뭐로 허느냐 허면 대, 대를 이렇게 영 잡아근에 요걸 두 개 잡아근에 요것이 기지.

@1 예.

요것이 기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른덜이 허면은 그것이 갈려져.

@1 아, 꺾데기 벳기는 거파?

어, 꺾데기.

@3 이게 뭐렌 헛지?

@1 대나무.

@3 아, 대나무.

꺾데기를 벳겨지면은 이제 그것을 톨류와. 벳디 톨류왕, 그 꺾데기를 톨류와서 이제, 그걸 또시 뺏이엔 허니 허면은 잣물에 숲아.

@1 예.

잣물에 숲아근에 막 그 물, 물도 뭐 요즘은 뭐 이디 저디 잇지만은 그 요런 연뭇이 잇잖아?

@1 예.

못에 가서 막 이렇게 흔들명 그거 헤다가 게민 것이 저 그 때가 다 저.

@1 으.

그 겹데 다 벗어지면은 그 실이 나와.
 @1 음. 그 겹데기에서 나오는 거구나예?
 # 으, 이런 대나무, 거 나무 겹데기에서 나와. 게민 그디 그 꺼풀이 있어.
 @1 예.
 # 그것이 막 흔들어 가. 잣물에 삶아서 막 이렇게 돌이가 상 막 영, 어머니네가 막 영 흔들어 가면은, 그렇지 혼자만이라도 이렇게, 경하면은 큰 것은 아주 길어. 우리 발로 두 발씩 하여.
 @1 어.
 # 그거 경 아무 밧디 뉘도 안 허고 울타리 싱그민. 우리 어머니네가 싱경 우리도, 나도 그거 헤 밧어. 이추록 행 두 발씩은 하여. 두 발 정돈 거의 뉘.
 @1 예.
 # 경하면은 그거 허면은 그 웨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헤 놓고 큰 것은 큰 거. 저 긴 것은 긴 것대로 헤 놓고 허민 그걸 이제 물에 가서 막 잣물에 강 삶아근에 막 저 흔들영 빨앙 오면은 헤영하여.
 @1 으.
 # 희진 안해도 그 누리짚(?) 게민 그걸 이제는 들류와서 어떻게 허느냐 허면은, 이제 거 손으로 까. 손으로, 어른덜 손으로.
 @1 예, 예.
 # 요렇게 허민 찢는 거지. 요렇게 해서.
 @1 예, 예.
 # 그 줄기를 쪽 쪽 쪽 쪽 빼어. 쪽 쪽 쪽 쪽 빼어근에 이젠 따시 그것을 이제 아, 그거 허는 것은 자세히 몰라. 그거 이젠 쪽 쪽 빼어 나서 이제 그것을 또시 삶는 거야.
 @1 음.
 # 막 이빨로 그거 연결을 시켜.
 @1 그걸 삼는덴 곱습니까?
 # 어, 삼는 거.
 @1 어.
 # 이런 다리 거튼 디 놓고 헤근에.
 @2 이렇게.
 # 으.
 @1 막 비비고.
 @2 하나씩 행.
 # 으. 경행 이빨로 그것을 금 내왕 그레 실 연결허듯이.
 @2 예, 예.
 @1 어.
 # 연결해서 이젠 그걸 흔쪽더레 다 놔. 놔두민 거 텔레비에도 나오던디. 이제 우리는 뭐 거. 이런 거 헤밧어, 삼는 거.
 @1 아.

어머니영 같이.

@1 음.

그것은 조금 해 보고 그러면은이 그것을 연결해 노면 영 감는 게 있어.

@1 예.

@2 실 감는 거?

어. 막 큰 거. 이 마리 요거, 그자 이 마리 하나 낱 그자 빙빙 감아. 죽 죽 감으면은, 그것이 이제 또시 그걸, 또 그걸 또 숨는 거야. 숨아서 허면은 이제 그거 또시 이제 숨아 낱 또시 저만큼 막 멀리 대를 꼽아.

@1 예.

대 꼽으면은 대가, 댕 나무, 나무지 대가 아니고. 꼽아서 이제 그 실을 이제 다 널영 죽 죽 해 놔. 경행 그 허면은 그 베틀 잇잖아.

@1 예.

그것을 어찌다가 그 베틀에 꼽아. 우리는 그 꼽아 보지는 안헌디.

@2 으.

베틀에 그걸 해다가 꼽으면은, 꼽아서 그 꼽는 것은 자세히 몰라.

@1 예.

자세히 모르고 그 꼽아 노면은 그 베틀에 낱 베 짜주, 벨.

@1 으.

계민 그 짜른 것은, 짜른 거 짜른 것대로 해근에 또 그걸 또 삼아. 삼아 노면은 그건 꼬리엔 해근에 그디 영 놓는 통이 있어.

@1 예, 예.

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해 낱 그걸, 으 요런 거민 요렇게 요렇게 감아.

@1 예, 예.

겐 감아 노면은 이제 그것을 그 요런 통이 있으면은 요런 통더레 놔서 허민 이것을, 우리 그건 해 봤어. 거 그거 브디, 브디 허멍 그 이런 실 꼽는 건 이런 것가 있어. 이런 거.

@2 요만큼 힌 거?

으, 요런 디 다 걸, 걸 어떻게 힌 줄은 몰라.

@1 으, 끼와 보지 안헐구나예?

으, 끼와 보지 안헐. 그걸 다 끼와 노민 이제 그것에 허민 이 허리에 차. 차근에 허민 그 한착 손으로 이레 착 들이 돌아근에 이걸로 탁 때리고 따시 이거 행 한착 손으로 탁 들 이밀영 허민 영 떼곡 허면은 그것이 바르게 가면은 그 베가 곱는다.

@1 예.

영 때려도 바르겔 안 가더라고, 우리는.

@1 음.

계민 어무니네가 말렌 허여.

@1 하하하.

@2 허지 말렌.

으, 허지 말렌. 거 토라지면은 그것이 큰 손해.

@1 예.

경험에, 경허면 그걸로 옷 행 입지. 경허면은 그것에 감 들여근에, 감물 들영.

@1 아, 베에도 감물 들여?

어. 하이고, 감물 들이지. 우선. 뭐 염색이 없어. 다 감물이지. 감물 들이면은 그걸로 적삼도 행 입곡, 이제 또 남저 어른덜은 바지도 헤 오고, 정벙이.

@1 음.

경허민 미녕은 안 헤 받.

@1 아, 미녕은 안 헤 받디가?

으, 미녕은 안 헤 보고 경 그걸로 베 헤영 허민 그걸로 뭐 베적삼 허곡 그것이 지금 뭐 뭐 최고급 옷이니까. 어디 갈 때, 게민 그것이 훗게 펜 건 이제 멧 세 베, 멧 세 베 허여.

@1 예, 예.

경허면은 이제 훗게 펜 거는 훗은 베.

@1 음.

줌질게 깨진 거는 줌진 거. 경허면은 줌진 거 헤진 건 지금 그트민 어디 외출 나갈 때.

@1 아.

그런 건 입는, 곤옷으로 입곡. 따시 굶은 것은 검질멜 때도 입고.

@1 아.

@2 베옷 검질멜 때마씨.

어. 베옷.

@1 그 동넨 베가, 삼이 하영 웬 모양인게.

으, 베옷으로 경험 우리 어린 때는 입더라고.

@1 음.

무명

경허고 따시 미녕은 그 멘을 갈았어이.

@1 예.

미녕은 헤 보지 안 허고, 난 미녕은 안 헤 받.

@1 어.

어무니네가 미녕은 안 허니까, 베만 헤부니까. 미녕은 그 멘네 잇잖아?

@1 예.

늣 허는 것만 봐신디 멘네 헤근에 허민 그 씨 불르는 게 있어이. 요추룩 행 허면은 요런 것에 톡 허게 걸 들이밀면은 영 행 돌려가면은 그것이 나오는 그 멘네 씨를 까 나오더라고. 경허민 그걸 막 벳디 낱 막 때려.

@1 음.

탁, 탁, 탁, 탁 나도 동네 허는 거 보니까. 그걸 때려근에 이제 그걸 요만큼 저 요추룩 소름소름하게서리 헤 노면 경허면은 거 영 돌리는 것가 있어이.

@1 예.

거 늣이 집이 허는 것만 봤지. 그걸 심어근에 혼 밧덜로만 쪼만큼 쓸쓸하게 대영, 영

대여근에 흐 번만 좀 그래만 대면은 요렇게 요렇게 돌리면은 요렇게 영, 영 심어근에 요렇게 요렇게 허민 그 실이 나와.

@1 으.

요만큼 헤지민 따시 썰 영 감아 두고 따시 이제 요디 보면은 감앙 이레 오면은 또시 요렇게 따시 감으면 이젠 또시 요만큼 오면은 이제 감곡 행 그걸로 이제 그 베 짜는 식으로 경해근에. 경허민 그거 미녕 허면은 미녕에 감 들영 입곡. 미녕도 막 즈진 미녕이 있어.

@1 예.

막 즈진 미녕은 곤웃으로 입고.

@1 음.

게민 그걸 어떻게 행 허느냐, 다 그 손으로 주어, 손으로. 웃을. 미승 허는 디가 별로, 우리 어린 때는 흐 부락에 흐 집도 엇어. 겨민 어디 탄 부락에 미승 허는 디 강 옷 멧경. 건 잇는 사름덜.

@1 예.

첨, 부자칩이덜이나이. 그런 디 강 멧겨근에 행 오고 우리 어린 때는 다 할마니들 손으로만 다 허잖아. 게민 옷이 그 미녕이, 요즘은 옷을 안 헐어도 옛날에는 옷이 빨리 헐어. 옷이 여라 개 엇고 옷이 딱 하나니까.

@1 하하. 그것만 입영.

어, 것만. 것만 입어 노면은 일헐 때도, 그것이 막 헐면은 그것이 주워. 주면서 입어.

@1 아, 터지민 쥐야지.

어. 쥐야지. 켜 밧디 텅기당 밧디 가민 뭐 나무에도 걸리고.

@1 으.

가시에도 걸리고 허민 찢어져 얼마 안 입영.

@1 하하하.

경허멍 살앗주게.

@1 으.

경허민 거 바느질을 그렇게 손으로만 허니 힘이 들었어.

@1 그 흑시 그 멧지도 허는 집 잇어났수과?

아이, 난 멧진 안 헤 받.

@1 삼춘은 안 헛수과?

으, 멧지 허는 건 안 봤어. 누에 질루는 거는 어머니네가 누에를 질락.

누에 기르기

@1 아, 누에 질락난 얘기 곶아줍서, 어명행?

누에는 저 체얌은 그 누에 새끼가 켜켜허여. 요멘큼 현 걸 사오면은 그것이 이젠 그 뽕, 뽕 막 즈질게 썰어근에 뽕입을 썰영 내 노민 거 츄츄츄츄 먹당 보면 거 훑어.

@1 으.

훑으면은 이제 거 막끗데 가 가면은.

@1 으, 으.

뭐 저런 영 지금 이 사름덜이 뭐 헌 그 평상 잇잖아?
 @1 예, 예.
 # 사다리, 그물이 망사 닳은 거. 그런 걸 이제.
 @2 산태 같이 생긴 거예?
 # 으, 그걸 일층, 이층 해근에 놔. 이런, 저런 벽에이.
 @1 아, 벽에.
 # 벽을 허던가 그자 공간을 해근에 영 지등 세왕을 허던가 허면은, 그 저런 벽에 허면은 어른덜이 골으민 쥐가 맥넌 허여. 쥐는 다 흑집이니까 쥐가 많잖아.
 @1 예.
 # 계민 그 공간을 띄와근에 허민 이 뭐 하영 질루면 혼칭, 두칭, 세칭 뭐 영 칭칭이 놔 근에 허면은 그 누에가 커 가면은 그거 잘 먹어, 뽕입을. 계민 체얌은 원 두 번찬 뽕 밥이 엔 몰라도 막 그 세 번차 먹어 가는 것은 한밥, 한밥 어른덜이 허여. 경허면은 그 뽕을 해 다 노면은 잘 먹으면은 그것이 그 집을 지어.
 @1 예.
 # 하나에, 다 이넉만씩. 집 지면은 요만큼인 저것이 잇잖아, 걸 따서.
 @1 으.
 # 우리 어무니도 그것은 해났어.
 @1 으.
 # 따근에 허면은 그걸 물에 놔서 끓이잖아.
 @1 예.
 # 끌려근에 따시 그 아까 실 뽕듯이 따시 뽕아.
 @1 으.
 # 경허곡 따시 경 안 허는 딴 따시 그 꼬치, 꼬치 해. 그 누에꼬치, 누에꼬치.
 @1 예.
 # 그걸보고 겐 그 꼬치차 푸는 디고 잇고. 뭐 경허는 거. 겐 멍지는 지금 썰크.
 @1 예, 예.
 # 썰크지.
 @1 예, 예.
 # 멍지는.
 @1 그 아까 사다리 영해근에 그디 영 무시거 담은 거짜?
 # 무시거?
 @1 차롱이라도 영 해근에, 무시거 짜근에 뭐?
 # 아, 아. 그거 체얌은 거 누에 족은 때는 뭐 옛날 어른덜 차반지 잇잖아?
 @1 예.
 # 그것에도 낡 허곡, 해 가당 막곳데는 뭐 침 그대로 뭐 그 사다리를 해근에 사다리ㄴ치 행 뭐 망, 지금이면은 뭐엔 허민 뉘 건고? 대로 쪼금 뭐 영 영기게 해근에 영 기자 영 갈 판 ㄴ치.
 @2 만들양?

어, 만들앙 영 노면은 이제 자기네대로 다 거기 집을 지어.
 @1 으. 그런 거, 그런 거 뭘엔 낚는 말은 엇수짜? 그디 거는?
 # 그거 누에, 누에 거 그건 몰라. 그것은 모르는데 야튼 누에는 거기서, 거 뭘 들어보도 안 하고. 그자 영 이런 베개 ㄱ튼 디 요런 공간에 기자 고치 해근에 허민. 거 누에 질루는 걸로 해근에 쥐도 못 들게 허곡.
 @1 쥐가 그 저 누에 벌레를 먹어 부는 거마씨?
 # 으. 경허는귀라 그 쥐도 못 들게 허고 계근에, 경허민 그것이 그 밥 먹엉, 한밥 어른덜 이 곶으민 아이고, 누에 한밥 먹언, 한밥 먹언 허민 먹는 소리가 바슬바슬바슬.
 @1 음, 그 뽕입 타레도 가 뽕디가?
 # 뽕입 타레는 안 가 보고.
 @1 아.
 # 우리 어린 때니까.
 @1 아.
 # 어머니네는 다녀. 어머니네는, 우리 어머니네 뽕입 허레 텅겨난 말을 영 들어보면은, 이제 성산읍에서 표선 쪽을, 저 이 가시리, 이 성읍 우에 그까지 와.
 @1 으.
 # 지금 물찰 잇잖아?
 @2 물찰오름?
 # 으. 거기까지 와 간 말해.
 @1 아, 뽕입 타레.
 # 으, 뽕 타레, 뽕입 허레.
 @1 집에서 질루기도 헛덴 헛디다, 뽕나무를?
 # 뽕나무 집이 질루지. 이 첨 이 울타리나 이 한 디덜은 집에서 길루면은 거기서 뽕 따 먹곡. 우리 어머니네는 안 길러도 우리 큰아버지네 집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었어.
 @1 어.
 # 경행 그 뽕나무 우리는 강 뽕은 따 먹지.
 @1 하하하.
 @2 맛있지.
 @1 멧 월덜에쫘에 강 타 먹는 거짜?
 # 으?
 @1 뽕입은.
 # 내달, 지금, 지금이지.
 @1 으.
 # 오월덜쫘 따 먹어실 거라. 오월 단오에 우리가 가서 뽕 따 먹고, 앵두 따 먹고.
 @1 오.
 # 앵두는 매 집, 우리 집이도 잇으난게 앵두는 먹엇주만은 뽕은 경 먹기가 어려웠어.
 @1 그지.
 # 계도 우린 큰아버지네 집이 뽕이 있으니까 뽕은 따 먹어, 뽕이 그렇게 맛있었어.

명주

@1 하하하. 멩지도 종류가 잇수가? 무신 멩지, 무신 멩지 허는?

어, 종류도 잇주, 이실 거라, 멩주는. 이제 토멩지엔 현 것은 이제 이녁대로 이제 기루는 것가 그 토멩지고.

@1 으.

따시 그자 또 허는 건, 토멩지 아닌 건 뉘 멩지엔사 현디 몰르겠어. 그자 멩지엔 허민 멩지엔.

@1 으.

토멩지허고 베도 토페, 마페.

@1 아.

베도 토페.

@1 어.

마페.

@1 예.

마페엔 현 것은 육지서 나온 베보고 마페엔.

@1 으.

멩지도 토멩지, 육지서 나온 거라 이제 그갓 멩지, 여기서 현 거 토멩지.

@1 으.

게 질이 틀려.

@1 아. 어느 게 좋은 거라, 육지 게?

토멩지가 좋아.

@1 우리 게 좋은 거로구나예?

으. 지금 우리가 토멩지로 현 것이 좀도 잘 안 먹어.

@1 아.

우리 이십, 사십 년, 오십 년. 그 토멩지로 옷 헤 논 것이 오십 년이랴어. 오십 년이 더 뉘지. 오십오 년, 오십오 년 뉘 옷도 좀 안 찼어.

@1 거 혹시 지금도 잇수과?

아니, 엇어. 건 아버지가 입언 가 버련.

@1 아, 저승옷으로 씻구나예. 혹시 생멩지엔도 곱읍니까?

거 생멩지는 토멩지에서 거 풀 아년 것이 저 풀 아녕 생멩, 건 생멩지.

@1 으.

건 생멩지엔 현 건 풀 안 헤근에 옷 허면은 생멩지 옷.

@1 으, 풀 안 현 거?

어. 그거 풀은 헤도 숲, 멩지를 멩지를 이제 그 토멩지엔 현 걸.

@1 으.

이제 더러 숲아. 뉘어, 뉘어 허여. 그 펜 물에 듬강.

@1 예.

그거 건져 내근에 푸담헌 것은 이제 토멩지에서 푸담헌 거.

@1 으.

생멩지는 쏘지 아녀고 그대로 빨아.

@1 아.

으, 쏘지 아녀. 그대로 빨아근에 그대로 푸답헤근에, 푸답을 안 허고 그대로 살랴. 걸 그대로 빨앙 그대로 풀을 헐 거 아냐. 겨민 그 푸답허는 멩지는 토멩지엔 헨 거 영 숲은 멩지는 풀을 헤서 막 때려.

@1 아.

거 족게 때령도 안 돼어. 막 다듬이 이거 잇잖아, 이거.

@1 예.

이걸 막 다듬이면은 그것이 반짜반짜 열이 나고 그거 저 그갓 멩지로 옷 헨 거, 생멩지로 옷 헨 건 거 때리지 아녀고 이제 그 푸답을 풀 허잖아. 풀 허면은 쌀 숲앙 풀 허면은 그것이 침 살아 있어.

@3 흐물흐물.

으.

@3 생멩주는 약간 흐물흐물예?

으. 살아.

@3 소재가 얇고, 토멩주는 이제 풀을 칠헛기 때문에 좀 뽀뽀하고.

으, 뽀뽀하고. 그자 부들부들헤근에 살살 헨 김이 잇어. 사락사락헨.

@3 훨씬 고급이주게.

어. 경허민 그걸, 그것은 생멩지엔 헤근에 거 잘 손, 풀 풀헤근에 막 뭐 때리도 안 허고 잘 손을 봐. 손을 방 싹 다리미질허면은 그것이 흔들흔들허주. 경허민 그것이 생멩주면은 돌아가실 때는.

@1 예.

그걸로 이제 뽀를 허느냐 허면 창웃을 헤.

@1 멩지로예?

어. 멩지 창웃을 허면은 그 멩지 창웃을 헤면 돌아가실 때는 옛날에는 그 창웃을 입지잖아?

@1 예.

그러면 그제는 생멩지로 헨 것은 돌아가는 디 안 입져.

@1 아.

돌아가시는 데 안 입히고 이제 그것을 돌아가실 때 뽀면은 물에 쏘아.

@1 음.

쏘아근에 이제 걸 또 푸답을 헤.

@1 아, 생멩지베끼 엇이민.

어.

@1 음.

걸 푸답을 헤근에.

@3 토멩지로 만들려고.

@1 만들려고.

푸담을 해근에 또 허지만, 이 푸담을 해근에 또 새로 그 창옷을 만들어.

@1 아.

그거 다 뜯엉. 만드아근에 그걸 돌아가실 때 입지. 또 요즘은 미승에서 허잖아?

@1 예.

저 창옷 거튼 것은 미승에서 헤 노면은 이제 저 뜯지 못허면, 우리도 경행 자네 아버지 보내신디.

@1 으.

생멩주 옷이니까. 생멩주 옷은 창옷은 생멩주로 허여. 증의적삼이엔 현 잇잖아?

@1 예.

증의적삼도 생멩지로 허고.

@1 어.

바지저고리는 이제 그 푸담헌 걸로 허고.

@1 으.

거 저 증의적삼이엔 현 거는 또시 그 홰, 홰거.

@1 예.

짓그라 증의엔 허는 거라, 어른덜은.

@1 으, 여름에예?

으. 여름에 입는 거. 그것은 또시 거 생멩지로 허는 거지. 쏘지 안허영.

@1 음.

계민 그거 푸담을 그거 경 행 돌아가실 때는 그거 쏘아서 이제 또시 그거 푸담해근에, 뭐 이제는 뭐 이런 디 것도 허고 허면은 그대로 손 잘 봐근에 쪼금 뭐, 쪼금 때리던가 뭐 경 안 허민 쪼금 밝음이라도 잘 밝양 다리면은 그것이 뉘.

@3 무사 영 허는 거마씨?

그거.

@3 생멩주로 쓰고 토명주로 이렇게 따로따로 옷을?

으.

@3 아까 얘기했잖아예. 증의적삼은 생멩주로.

생멩지로 허고.

@3 아까 바지저고리는.

바지저고리는 겨울이 입고.

@3 그니까.

설 때에.

@1 생멩지로 현 게 시원해, 옷이?

생멩지로 현 것은 오월 단오, 팔월 추석.

@3 그때 하는 거마씨.

으, 그제 허는 거.

@3 아.

따시 조문 가실 때도 어른덜은 다. 지금은 이 창옷을 안 가정 땡겨도 지금 코토 대신에 창옷을 가정 땡겼어.

@3 그지.

중의적삼 입곡 하르방덜이 게민 그, 중의 적삼에 그 토페 멩지 그거 입어근에 조문 가는 분덜이 없어.

@2 어.

별로 없지. 그것은 집이서 침, 제사 때덜 입곡. 베론, 베는 그런 거 있어. 베창옷도 그 창옷은 쏘지 아녕 그 푸답을 아너근에.

@3 베도?

으, 베도 그래. 또시 그 베로 큰옷덜 잇잖아?

@2 큰옷.

어, 큰옷 허는 것은 푸답헤근에, 경행 입고.

@1 게난 보통은 입을 때 생멩지로 헤근에 입곡 흐끔 고급은 토멩지로 맨들앙 입는 거파?

아니.

@1 아니.

토멩지, 멩지는 완전 고급이라. 겨민 이제 설 멩절, 설 때.

@1 겨울에만?

으, 그런 때는 저 토멩지 헤근에 푸답헌 거.

@1 음.

바지저고리.

@1 으.

따시 오월 단오, 팔월 추석은 이제 저 생멩지.

@1 어. 게민 토멩지가 뚜꺼운 거파?

똑ㄴ튼 거.

@1 꼭 같아?

어.

@2 겹으로 허는 거고?

으, 바지저고리는 겹이고.

@2 중의적삼은 훌, 훌. 한 장.

생멩지는 하나 허는 거.

@2 으. 그건 생멩지로 허고.

생멩지로.

@1 그 아까 뉘는 건 어뎡 행 허는 거마씨?

뉘는 것은 거 잣물이 잇잖아? 멩지도.

@1 무신 재로 헤근에 허는 거라.

잣물, 재.

@1 게난 무신거 테운 재로?

저 옛날에는 ㅁ물체.

@1 아.
ㅁ물체 테운 것이 켈 좋아.
@1 ㅁ물 재?
메밀체. 메밀쌀 곱아난 거.
@1 예, 베개 놓고?
어. 그런 거 헤영 재 또시 이 나무재라도 깨끗헌 거 쪼금 걸 일어 낡. 그것이 뒤 험벅
에 낡 짜 놔근에. 쟁 것에 쏙는 거.
@1 재, 재도, 잣물을 재를 같이 놓고 삶는 게 아니라?
아니, 쟈 물 짜근에.
@1 재를 형겅에 헤근에 짜근에 그 물만 쓰는 거다예?
어, 물만 쓰는 거.
@1 재 이거 묻으른 안 됩니까.
어. 따시 깨끗허게시리 이제 ㅁ물체 ㄱ튼 거 노민, 어머니네 허는 거 보면은 또 그대
로도 낡 쏙아도 대층 거 뒷에 낡 걸러야, 그 찌꺼레가 있잖아?
@1 그니까.
경행 허영 입어낫주게.
@1 쟁 ㅎ 번 쏙으기만 허민 됩니까?
으, 그거 쏙앙 걸.
@1 어느 정도 쏙아? 막 오래.
아니, 오래 안 해. 보글보글만 끓영 허민.
@1 보글보글만 끓영 허민.
어. 끓이면은 거.
@1 그거 건져근에 찬물에 씻어?
어, 씻어. 그거 널엇당 이제 ㅁ르면은 풀허는 거라. 풀허면은 이제 거 바지저고리 허젠
허면은 것을 때려야지.
@1 무신걸 때?
그 다듬이.
@1 예.
@3 때려야 뒤.
이거 이거.
@1 아, 때려야 뒤.
@3 풀은 뭘로 헨마씨?
풀?
@3 예.
옛날에는 쌀풀. 죽 썰.
@3 아, 쌀풀.
죽 썰.
@2 곤썰 잇엉?

아니, 곤썰 해근에.
 @1 곤썰 해근에.
 # 멩지는 곤썰 해사.
 @3 아, 그냥은 안 해낫수짜?
 # 으.
 @3 고급이난 풀도 고급으로.
 # 어. 쌀베긴 없으니까, 쌀풀 해근에 그거 죽 썬근에 그거 막 짜잖아.
 @1 쌀로, 갈지 안행 쌀로 썬?
 # 어, 쌀로 밥행, 죽 썬.
 @1 으.
 # 거 잘리에 담아.
 @1 으.
 # 담아근에 막.
 @3 아, 문질러근에.
 @1 으.
 # 아이고 막 담아근에 허면은 그거 이제 거 풀해근에 때리잖아.
 @1 으. 거 풀헐 때는 뭐 다라라도 놔근에 영 영.
 # 다라가 어딿나?
 @1 하하.
 # 남, 나무도고리 잇잖아이?
 @1 예, 예.
 # 나무, 나무 도고리, 도고리라고 잇어. 그것에서 허는, 옛날에는 그것에서 많이 허고, 그것에서 많이 허고.
 @1 그것에서 어떻 어떻 허여.
 # 그것에 물 놔근에 그 믈른 거 믈른 이제 멩지 놓고.
 @1 으.
 # 그 짠 풀물 놔근에 막 놀려.
 @1 음.
 # 주물주물주물해서 이제 걸 너는 거야. 널면은 거 다 아니 들른 때에 그거 다 짹짹 페우고 멩기고 해근에 막.
 @1 으.
 # 이런 디서 놔근에 싹 때려. 때리민 반들반들 헤. 다 때려 노면은 따시 요렇게 이런 나무가 잇어.
 @1 음.
 # 그 이거 감는 나무, 흥깃대.
 @1 으, 흥깃대.
 # 어, 흥깃대. 그것에 감앙 막 때려.
 @1 아.

돌리가.
 @1 밑에 있는 건 무신 거파?
 # 밑에 있는 건 저 이런 나무, 나무.
 @1 이름 무시거라?
 @2 이름?
 # 저 무시거니 저.
 @2 안반 불러수파, 돔베렌 헛수파?
 # 돔베.
 @1 그냥 돔베?
 # 어.
 @1 다듬잇돔베?
 # 어, 다듬잇돔베.
 @1 어.
 # 경허민 다듬이마께 해근에 이런 것에 막 두드린다. 돔베에서 낡 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는 그 돌판에서 안 헤 봐신디.
 @1 으.
 # 그 어디 시내 거튼 디 왕 보면은 그 돌판이 있어.
 @1 아.
 # 으, 다듬이들. 그걸로털 때려근에 허는 디도 잇고.
 @1 옛날엔 낭으로 해신디?
 # 어, 다 낭이지. 우리는 다 낭으로.
 @1 그 낭, 낭돔베는 다듬이 헐 때만 쓰는 거파?
 # 아니, 아무거 헐 때라도 쓰지 나무 돔베가 어디 셔 경. 하질 안허니까?
 @1 아.
 @2 떡헐 때도 쓰고?
 # 떡헐, 으, 떡헐 때는 쓰고 이 칼질은 못 헤.
 @1 으.
 @2 맞아.
 # 칼질은 못 히고 이 떡 막 밀잖아.
 @1 으, 으. 떡 밀 때 쓰고 두드릴 때 쓰고.
 # 겐디 거 매집이 잇어.
 @1 아.
 # 그 흥짓대도 매집이 없어.
 @1 음. 그믄 빌리레도 가?
 # 빌레 가야주게.
 @1 하하하. 흥끔 빌려 줘서 해근에.
 # 으, 빌려당. 그러면은 결혼식을 허잖아.
 @1 예.

결혼식 헐 때는 주로 멩지지.

@1 음.

이불도, 이불 껌데기도 멩지.

@1 음.

광목도, 광목은 이불 안. 이제 따시 치마저고리도 이제 멩지.

@1 음.

광목. 따시 이제 또 새서방칩이도 이제 새스방 이제 바지저고리.

@1 예.

따시 큰옷.

@1 으.

경허젠 허면은 우리 막 그 저 다듬이허레 다녀낫잖아.

@1 아.

@2 늬의 집이 거?

으, 늬의 거. 친구네 거.

@1 시집갈 때?

으. 친구네 거 막 다듬이.

@2 ㄱ치 강 허는 거라예?

으, ㄱ치 강. 그거 경 막 다듬으멍 경 감양 그 답으면은 그 다듬으면은 침 잘도 좋아.

@1 아.

반들반들허지.

@1 계난 주로 멩지는 결혼식 헐 때 입는 옷 허고?

으.

@1 창옷 하고?

으.

@1 이불?

그런 거 많이 췌주.

모시

@1 으.

경허고 또시 모시가 있었어.

@1 예.

모시 허는 건 우린 안 보고. 모시옷으로 또 창옷도 헤. 겐디 모시옷은 이 죽음에 안 입혀.

@1 음.

@2 맞수다.

@1 음, 무사 안 입힙니까?

그거 허민 자손덜이 머리 흰텐.

@1 이제 머리, 우리 서방 막 머리 희어신디.

아이고, 다 희어서.
 @1 자손, 자손에 옛날에 모시 저승옷 입언에 누게 가신가?
 # 몰라.
 @1 하하하.
 # 모시옷은 허민 경은 헌텐.
 @1 하하하.
 # 모시, 올케로 모시옷 입어근에, 모시.
 @1 예.
 # 모시로 또 창옷 허고 그 저 중의.
 @1 음.
 # 그 정벙이적삼 헤근에.
 @2 여름에예?
 # 으, 여름에. 여름에는 주로 모시, 베.
 @1 으.
 # 또시 멩지 창옷 못 입는 딴 베, 베창옷.
 @1 아.
 # 베 정벙이.
 @1 창옷허고 큰옷은 다른 거짜?
 # 다르지.
 @1 어떻 다른 거마씨.
 # 큰옷은 이제 영 우머니 이디 영 잇잖아?
 @1 예, 예.
 # 그거 큰옷. 그것이 큰옷인디 건 큰옷. 따시 창옷은 이 기자 이렇게 죽은 거.
 @1 아, 우머니가 엇인 거구나예?
 # 엇인 거.
 @3 창옷도 입어났구나예?
 # 어, 창옷 입주게.
 @2 큰옷은 언제 입고, 창옷은 언제 입어?
 # 큰옷, 창옷은 이제 바지저고리 입어나면은.
 @1 으.
 # 그 우이 창옷을 입잖아.
 @1 으.
 # 창옷 입으면 또 그 우에 큰옷 입엄 제사를 지내지, 옛날은.
 @3 도폭?
 # 으, 도폭.
 @1 으, 큰옷이 도폭이구나예?
 # 도복.
 @1 으.

옛날엔 경행 지내세.
 @1 아, 제지널 때예?
 # 으, 제지널 때.
 @1 어디 갈 때는?
 # 어디 갈 때는 그자 그.
 @1 우에 창옷까지만.
 # 어, 여름에는 창옷 가정 가곡, 겨울에는 후루메.
 @1 아.
 # 겨울에는.
 @1 후루멘 어떤 거파?
 # 후루메는 광목으로 헤.
 @1 아, 이진 광목으로?
 # 으. 흰 광목으로 허는 디도 잇고.
 @1 으.
 # 따시 검은물 들영 허는 사름, 할망덜토 잇고.
 @1 으.
 @3 후루메가 이게 두루마기 아니예?
 # 두루마기엔 허는 거주.
 @3 뉘렌, 뉘렌 얘기헙니까?
 # 거, 이거 후루메.
 @3 두루마기를 후루메라?
 # 어, 두루메기가 후루메.
 @1 이 후루멘 어떻 어떻 흰 건디마씨, 어떤 모양?
 # 후루메도 거 그자 그 창옷.
 @1 이 우머니 어떻?
 # 우머니 아니. 그대로. 창옷거추룩 두 겹 친 거.
 @1 아, 창옷이영 같은 건데 이진 겹으로.
 # 으, 두 겹.
 @1 그민 창옷은 흰 겹이파?
 # 창옷은 흰 겹.
 @1 아.
 #3 후루메가 제주도 사투린 아니잖아예?
 # 사투리라.
 @3 사투리?
 @1 옛날 말.
 @2 삼춘은 계난 후루메렌 골앗수파, 두루메기란 말은 안 쓰고?
 @3 수의 그 할머니도.
 # 두루메기 쓰곡, 후루메 쓰곡.

@3 경허니까.
 @2 두루메기 말도 쓰곡, 후루메라는 말도 쓰곡?
 # 으. 그자 어른덜이 그자 두루막?
 @3 겹 두루마기를 이제 후루메렌 하드라고.
 # 으. 겹친 것은 후루메.
 @3 으, 그 두 장, 겨울에 입는 거.
 @1 게민 두루마기엔 현 말도 쓰고 후루메도 쓰고.
 # 어, 후루메엔도 허고. 후루메 허고 두루메기가 따지.
 @1 같은 걸로 쓴 거파?
 # 따, 따.
 @1 달라?
 # 어.
 @1 어떻 달라.
 # 두루메기는 웨겹.
 @1 음.
 @3 흘.
 # 후루메는 두 겹.
 @1 어.
 @3 겨울에 입는 거. 두루마기는 이제 봄가을에.
 # 으.
 @1 게민 아까 어디 갈 때 창옷만 입영 간텐 헤신디.
 # 그거 창옷은 여름에 갈 때. 겐 또.
 @1 두루마기는?
 # 두루마기에는 저 두루마기는 이제 겨울에, 그 후루메는.
 @1 후루메 겨울에.
 # 으.
 @1 겹이니까.
 # 으.
 @1 근데 창옷도 한 겹 두루막도 한 겹이믄.
 # 그 두루막 흔 겹 아니여, 두 겹 해야지.
 @1 두루막도 두 겹. 그럼 두루막이영 후루메영 ㄴ튼 말로 쓴 건가?
 # ㄴ튼 말이라도 틀리잖아.
 @1 뭐가 ㄴ난 거파?
 # 두루메기는 흔 겹.
 @1 그니까 아까 한 겹.
 # 저 후루메는.
 @1 두 겹.
 # 두 겹.

@1 그민 두루막도 여름에.
 # 두루막이 후루메야.
 @1 아, ㄹ튼 거라.
 # 으, 두루메기가 후루메.
 @1 그럼 한 겹이 아니네.
 # 두루마기 ㄹ라는 후루메엔 ㅎ는 거. 창옷 ㄹ라는 어른덜이.
 @1 으, 창옷은 한 겹인데.
 # 으, 한 겹이고 바지, 중의적삼도 ㅎ 겹이고. 바지저고리는 두 겹이고.
 @1 예, 예, 예. 계난 삼춘도 시집을 때 멩지 치메저고리 ㅎ 입영 읍디가?
 # 아니, 난 우리는 멩지 치메저고리를 벨로 안 ㅎ어. 안 ㅎ디 우리 시할머니가 ㅎ ㄹ어.
 @1 아, 시집갈 때?
 # 으. 우리 시할머니가.
 @1 으.
 # 것도 토멩지로.
 @1 직접 집이서 ㅎ근에.
 # 몰라, 그 집이서 ㅎ 거 안 ㅎ 거 몰라도 우리 할마니가 베를 많이 ㄹ데.
 @1 으.
 # 계난 이제 큰손지니까, 자네 아빠 이제 큰옷.
 @1 으.
 # 큰옷도 ㅎ 주고 나 이제 베 치메 적삼도 ㅎ 주고.
 @1 베로?
 # 아니, 아니. 멩지로 치메저고리.
 @1 으, 치메저고리에?
 # 으.
 @1 그 시집갈 때는 친정에서도 멩지 치메저고리 ㅎ 주고, 시집이서도 멩지 치메저고리 ㅎ 주고.
 # 어, 그런 일이 잇지.
 @1 삼춘네 그렇게 ㅎ서 안 ㅎ고.
 # 아니, 우린 안 ㅎ어. 이제는 우리 갈 때 ㄹ지는 그 멩지 치메저고리를 벨로덜 안 ㅎ어.
 @1 그때 무신거 ㅎ수파?
 # 양단.
 @1 양단, 음.
 # 양단, 경도 양단.
 @1 경도 양단.
 # 으, 잘헌 사름은 거 경도 양단이엔 ㅎ 게 일본서 왕.
 @1 그제 좋은 거파, 경도 양단이?
 # 그제 좋아.
 @2 신주꾸 양단 아니고 경도 양단이라?

으, 우리 헐 때는 경도 양단.
 @1 같은 말이야? 신주꾸랑?
 @2 아니, 어디서 신주꾸 양단 나오더라고요.
 @1 아, 다 일본에서 온 거구나?
 @3 일본에서 온 거니까. 으, 으.
 @1 경도는 어디라?
 @2 저기 우리 오사카 옆에 교토.
 @1 하하하.
 @2 교토.
 # 여기서는 경도 양단이엔 허멍 것이 젤 좋은 거야.
 @3 일본 거.
 @2 상표로.
 # 여기서는 경도 양단. 비로도 치마.
 @2 비로도 치마.
 @1 음. 삼춘네 결혼할 때 그런 거 헛구나예?
 # 으, 비로도 치마. 봄, 봄 비로도.
 @1 봄 비로도 뭐라?
 @2 봄에, 봄에.
 # 봄 비로도는 무늬가 있어.
 @1 아.
 # 거 겨울 비로도는 거 민짜허지만 꺼문꺼문헌 거나 노린 거나 헌디 요 사이에, 그 검은 것 사이에 알룬 무늬가 있어.
 @1 아.
 # 거 실이 안 박아. 거 털, 털이 안 박아졌어. 깃ᄇ란 춘추 비로도.
 @1 춘추 비로도. 그 비로도도 종류 하구나예?
 # 으, 춘추 비로도. 또시 곤는 사름 봄 비로도, 춘추 비로도 경허멍 곤나.
 @1 그 멩지 치메저고리 입고 결혼할 때 뭐 다른 것도 영 입지 안헛니까?
 # 입주.
 @1 무신 거?
 # 창옷.
 @1 창옷?
 # 장옷. 건 장옷.
 @3 장옷.
 # 으, 건 장옷.
 @1 영 씨?
 # 입곡 쓰곡.
 @1 하나 입곡.
 # 으, 하난 쓰곡.

@1 삼춘도 그거 행 시집읍디가?
 # 아니, 우린 면사포.
 @1 면사포 썸?
 @3 면사포.
 @1 그러면 치마, 치마저고리 입고 면사포 쓴 거?
 # 으, 으.
 @1 하얀색 치마저고리 입고 면사포 쓰고예?
 # 으, 으. 그거.
 @1 우에 창옷은 안 입고?
 # 으, 안 입고.
 @1 으.
 # 옛날털은 꼭 같아, 대충. 이제털은 뭐 그러저러.
 @1 아까 미녕은 안 헐넌 헐게만은 경해도 옆에서 허는 것털은 봐났지예?
 # 으.
 @1 미녕은 또 무신 종류, 무신 종류 이십니까?
 # 아, 기자 미녕은, 미녕은 거 자세히 몰라. 미녕은 멧, 거 존 미녕, 존 미녕도 잇고 굿은 미녕도. 겐디 이 또 베는 멧 세 베가 잇어.
 @3 멧 세 베.
 @1 여섯 세, 일곱 세예?
 # 으, 열두 세 베.
 @1 아, 베는 열두 세 베 헐니까?
 # 으, 일곱 세.
 @2 미녕덜 할 때 그 옷 할 미녕덜은 안 해도 저기 이불 만들젠 그런 것도 안 헐난?
 # 아, 이불 헐 건 사당.
 @1 상?
 # 사단.
 @2 예.
 # 멧지 좋은 거.
 @1 그럼 미녕으로는 무신 옷 만들앗수파?
 # 미녕도 갈, 갈정벙이도 허고 감물도 들이고.
 @1 음. 갈정벙이 허고.
 # 따시 미녕으로도 뭐, 헤이고 그때는 뭐이 후루메도 미녕 후루메덜토 허고.
 @1 아, 엇이민?
 # 엇이민.
 @1 미녕 후루메?
 # 미녕 바지저고리.
 @1 으.
 # 대충은 미녕 베가 많이 입엇주. 미녕허고 베. 광목도 헐썰, 광목도 벨로, 저 입게 뒤도.

광목

@1 광목은 나중에야 나왔수파?

으, 미녕 나와난 다음에, 미녕 해단. 경허단 우리가 조금 역았을 때, 우리 어린 때는 보민 다 미녕, 베.

@1 으.

경헌 거 가튼디 조금, 우리가 조금 무시거 허난에 광목으로, 이제 몸빼도 행 입곡.

@1 음.

어머니네도 또시 광목으로 이 중의적삼덜토 허곡.

@1 광목은 미녕허고 무신거가 달라마씨?

즘질지.

@1 더 즘질아.

얹아, 얹아.

@1 이견 기계로 멘드는 건가, 사름이 안 허고?

몰라, 그것은. 그것은 모른디 얹아. 광목은 얹고 미녕은 저 미녕도 막 두터운 미녕이 잇고 얹은 미녕이 있어. 베그치 것도 이제 멧 세가 있는 거라게.

@1 예, 예.

멧지도 그러는 거 가타 뷔. 멧지도 멧 세 베.

'홍세미녕'

@1 맞아. 홍세미녕이엔 현 말은 무신 말이과?

홍세미녕 몰라. 아, 홍세, 미녕으로 홍세는 놓지.

@2 하하하.

@1 그건 무신 말이과?

결혼식 헐 때.

@1 예.

그거 몰라? 홍세, 홍세 잇잖아?

@1 예.

천 담양 가는 거.

@2 함.

으, 함 담양 가는 거, 그거. 그것은 멧지 못 허는 사름은.

@1 음.

그거 홍세 놀 때 미녕을 헤.

@1 아, 원래 멧지가?

으, 멧지로 허지. 부жат칩덜은. 엇인 디덜은.

@3 미녕 허고.

미녕으로 다.

@3 아. 천 아니 그냥예?

으.

@3 천 이렇게 놔근에.
 @1 어느 정도?
 # 두 빌, 두 빌.
 @1 두 빌.
 # 그것에, 혼 빌이 마흔 자야. 베도, 이제는 스무 자엔 허지만은 옛날에는 베도 혼 빌이 민 마흔 자.
 @1 음.
 # 멍지도 한 빌이민 마흔 자. 지금 멍지는 혼 빌 마흔 자로 나와.
 @1 음.
 # 따시 미녕도 마흔 자 혼 빌. 게민 그거 두 빌.
 @1 두 빌 놔 주는 거구나예?
 # 으. 부갓칩이는 두 빌. 엇인 디는 한 빌.
 @1 아.
 # 따시 흥세 못 놀 가정에는 아니도 놓고. 거 다 때에 따라.
 @1 이거, 이진 흥세에 행 가정 가민 무신거 허는 거마씨?
 # 시집갈 때 거 신랑칩이서 가져 오는 거.
 @1 아, 신랑칩이서 신부칩이?
 # 으, 신부칩이 가정, 그것이 여장 잇잖아?
 @1 예.
 # 여장 놓고. 그 우이 여장 놓고. 함이지, 함.
 @1 그민 그 우이 흥세, 그 미녕은 흥세에 들어잇는 미녕은 신부칩이서 가지는 거?
 # 아이 것도 시집이 가져와.
 @1 또 가져와?
 # 하하하.
 @1 또 시집이 가정 오민 그거 뭐 허는 거파?
 # 거 가정 오민 뭐 옷덜도 행 입고.
 @1 게민 거 신부 거?
 # 신부 거 주는 사름도 잇고.
 @2 시어머니가.
 @1 시어명 가져 부는.
 # 또시 친축 집이서 그런 거 놔 주잖아.
 @1 예.
 # 혼 빌씩 놔 주민 허곡 경 안 현 딘 어디 옛날, 옛날덜은 영 보민 뭐 누계네 집이, 어 른덜 말헐 때에는이 누계네 집이 흥세 빌어단 낫젠 헤라.
 @2 아, 예.
 @1 음.
 # 경허영 그거 돌려야지, 빌어온 거.
 @1 으.

그런 말도 우리 들어난. 얼마나 어려와시?
 @1 그냥 형식적으로예?
 # 으. 경행 또시 경헛다가, 이제는 또 여장 같은 것도 엇고 뭐 아무것도 엇지.
 @1 음. 경해도 저 시집갈 때도 여장, 그거 흥세함 해근에.
 # 그렇주.
 @1 뭐 시령목 닳은 것도 담양.
 # 시령목은 좋주.
 @1 계난.
 # 그 미녕, 멩지 대충은 그래도 이 쪼금만 허민 다 멩지로 놔 줘.
 @1 으.
 # 흥세덜은. 멩지로 놓지만은 그 살아가는 과정이 다 틀리잖아. 계민 미녕 놓는 디, 흥세 놓는 디, 침 늬의 거 빌엉 노면은 또시 무시거 허곡.
 @1 으.
 # 거 다 때에 따라.
 @1 그거, 그걸로 해근에 뭐 버선도 만들엉 테왓저.
 # 보선도, 계민 우리도 보선은 만들앗어.
 @1 만들앙 다 테왓수파?
 # 다 테와. 친척덜.
 @2 하하.
 @1 친척덜예.
 # 거 계민 정초에 즘을 못 자.
 @2 그거 만들젠.
 # 거 다 손으로 만들어야지.
 @1 설 때 선물로 드리는 거파?
 # 어, 어.
 @1 시집은 다음에?
 # 어, 어. 요즘 양말 혼 배 사 가듯이.
 @2 양말 혼 배.
 @1 으.
 # 양말 혼 배 사 가. 보선 해근에 손으로 그거 다 줍잖아.
 @1 아.
 # 그 뿐 낱, 아이 힘들어, 힘들어.
 @1 하하하.
 # 계민 따시 멩지웃을 또 신랑웃을 거 뜯어야 헐 거 아냐. 거 뜯고 이녁도 웃을 빨고 풀 해야 입을 거 아니라. 계민 구물어 가민 밤이 즘 못 자.
 @1 음.
 # 거 바농질헤야. 옛날 ㄱ트민 바농질 어디 미승칩이나 앓아 텡기주. 짓도 못 허고 다 자기네대로.

@1 무사 옷은 뜯어근에?
 # 거 이제 거 다 호안에 거 손으로 만들어 논 거니까.
 @1 음.
 # 호아 논 거는. 거 그대로 허면 거 옷 입지 못해. 그대로 빨앙 그대로 못 입으매.
 @1 아.
 # 그거 다 이제 저 즐기마다.
 @1 으.
 # 다 뜯어. 뜯어근에 그거 이제 또 푸담허는 거야.
 @1 경행 다시 또?
 # 어. 또 에이구.
 @1 바느질이 단단허지 않아서 그런가?
 # 아니, 아니.
 @1 그럼 무사?
 # 그거 그대로 빨면은 옷이 바르지 못해.
 @1 아.
 @3 대충 꼬멘 거라부난?
 # 으. 아니, 아무리 잘 꼬메도 바르지를 못해. 그 멍지는. 멍지나 베나 현 건.
 @1 다 뜯어근에?
 # 어. 다 뜯영 거 풀을 해야. 풀 행 거 다듬이.
 @1 이제 거트민 그냥 벗영어?
 # 아이고.
 @1 그털 거 닳은디.
 # 계난 거 생멩지로 현 것은 침 그대로 이제 미승에서 허난에 요즘은 미승에서 허난 빨
 아근에 뭐 그대로 들민 뉘주만은.
 @1 으, 으.
 # 그대로 헛주만은 그 전에는 손으로 허곡 헤 노면은 못 해.
 @1 다 뜯어근에?
 # 계민 바지저고리 해야지. 후루메는 이제 거 매날 안 빼, 일 년에 혼 번 안 빨아도 뉘.
 바지저고린 일 년 혼 번 빨아야 헤.
 @1 음.
 # 멍지라 노니까.
 @1 음.
 # 계민 그거 뜯영 허지. 보선 쥐야지.
 @1 으.
 # 에이, 안 뉘.
 @1 하하하. 아니, 음식은 언제, 어느 저를에 허고.
 # 야, 음식이야 뭐 대충 허지 경 무신.
 @1 옷은 어느 저를에 허고 농사는 또 어느 저를에 짓곡 하하하.

정월 선덜, 이 십이월덜, 음력 십이월덜 뉘 가민 바빠.
 @1 장도 그때 담근덴 헨게.
 # 어. 장도 그제 담고.
 @1 십이월은 숨실 틈이 엇이크라.
 # 아이, 게 요즘 펜안허주.
 @1 예. 모시도 혹시 그 밭에서 길러근에 허는 거마씨?
 # 건 육지서는 몰라. 제주도서는 모시 별로 안 헤실 거라. 우리 세계는 아니 헤 봤어.
 @1 안 헤 봤어예.
 @3 어디 헛덴 현 디도 얘기 안 들어 봤수꽂?
 # 으, 헛덴 현 디도 엇고, 육지서 베 모시.
 @1 제주도는 모시 안 허는 생이라예?
 # 몰라, 어디사 허고 안 허는 건 물론디, 우리 저 이 세계는 모시 허는 디가 엇은 거 가 타 뉘어.
 @1 겐 주로 모시는 여름 옷이지예?
 # 여름옷.
 @1 여름에 입는 모시옷은 어떤 어떤 거 만듭니까?
 # 모시옷도 거 두루메기.
 @1 으.
 # 창옷.
 @1 으.
 # 멩지 창옷 입는 사람 잇고 모시 두루메기 입는 사람 잇고.
 @1 아.
 # 이제는 두루메기엔 허지만은 그제는 모시 창옷이엔 허주게. 게난 모시로 중의적삼 행 입는 사람도 잇고 허여.
 @1 으.
 # 따시 베로 허는 사람도 잇꼭 따시 시기에 따랑이.
 @1 모시가 쪼금 고급 아니꽂?
 # 멩지가 고급이주만은?
 @1 여름에 입을 거는?
 # 여름에 입을 거는 멩지가 고급은 고급인디 모시가 좀, 저 모시보다는 저 멩지보다는 시원하고 따시 손 보기도 좋고.
 @1 손 보기가 모시가 좋아? 멩지보단예?
 # 좋지.
 @1 음.
 # 이 모시는 풀, 것도 쓸풀이니까 쓸풀 해근에 모시 허면은 그자 침 손 잘 보아근에 다 리민 뉘는 거.
 @1 음.
 # 멩지는 그 더, 더 봐사 허여.

삼

@1 아. 켜 삼춘 삼 하영 해낫텐 허는 거 닳은디 삼은 언제 씨 영 뿌려근에 키우는 거마씨?

언제 키우는 건 몰라. 아마도 가을에쯤 뿌리는 거 닳아 뷔.

@1 아, 전 해에.

으.

@1 언제쯤 거뒤 들이는 거라?

거 모시 삼은 이 혼 오월달.

@1 으.

지금 나 생각에는. 그 전인 뭐 멧 월달인지 모르지.

@1 으, 으. 아니 여름 가을 이런 걸로 허민.

이쯤이라.

@1 지금쯤.

으. 지금은 이르고, 늦고.

@1 늦고.

@2 보리헐 때구나.

어, 어. 그 시기 보리 빌 시기가 맞아. 그제쯤 닳아 뷔어.

@1 보리영 비슷하게 뿌리고 거뒤 들이고 허는구나.

우리 그거 해나건 디가 우리 일고으담 설 때.

@1 어. 계난.

사삼사건 이 시기에 우리가 봤지계. 일고으담 설 때 보난.

@1 삼도 밧 해근에 밧디 갑니까, 아니면은?

으. 아니, 거 울타리털 대충 갈아.

@1 요, 요 무슨 요 옆드레 이런 디마썸?

으, 이착더레 경행 가난.

@1 우연에라도.

으, 우연에, 우연에.

@1 우연에.

으, 우리 어머니네는 우연팻이 시니까 그자 우연에 갈고 늬의 집이털도 그제는 뭐 두 집이 혼 집이 아니라 뭐 멧 집 간다 해도 거 과언이 아니지.

@1 아, 집마, 집집마다?

어. 이 울타리 신 디털은 그자 울타리털 갈아. 엇인 딘 못 가는 거. 아니 가는 사름털도 있어.

@1 으. 이거는 검질도 안 메 주고 어땡 안 해도.

검질메고 안 메는 것도 모르고.

@1 하하하.

우리 뭐 그 일고으담 설에, 아흠 설 때니까. 아흠 설 때니까, 아흠 설 때니까 기자 어머니네 허는 거 삼 비영 허민.

@1 그 두 발이민 막 크켜예?

두 발, 두 발은 안 뒤편 아메도 우리 발로.
 @1 우리 키보단 흐뎡 큰 거 아니꽈예?
 # 아니, 크지. 우리 들어사민 우리 들어사민 못 봐. 나가 지금 큰, 못 봐.
 @1 아.
 # 경허고 또시 존 것도 잇주게.
 @1 예, 예.
 # 우리 우연엔 경 키와났어.
 @1 으.
 # 계민 그거 뱃겨난 것을 어떻게 허냐 허면은 거 나무대가리. 나무대는 그걸 이제 소걸
 림 잇잖아.
 @1 예.
 # 소걸림에 물어.
 @1 어.
 # 그것을 썩혀. 익혀.
 @1 아까 꺾질을 뱃겨난 걸?
 # 어.
 @1 그 속에 잇는 거?
 # 어.
 @1 어.
 # 그 소걸림 통에 노면은 그것이 익혀.
 @1 어.
 # 익히면은 이제 걸 가져낸 거 아니? 어느 정도 행 내노민 것이 물을 거지. 물르면은 밤
 이 불을, 거기 불을 부쳐.
 @1 으.
 # 불부청 어디 동네칩이 갈 때민 요렇게 요렇게. 하하하.
 @1 아.
 @2 아, 경 오래 탑니까?
 # 오래 타지.
 @1 아니, 다른 덴 저기 미, 미비쟁이로 행인에.
 # 미쟁이도 허지.
 @1 예, 예.
 # 미쟁이 이거 해근에.
 @1 무꺼근에.
 # 무경 앓아 멩이고. 그걸로 이젠 여름에 백중 잇잖아.
 @1 예.
 @3 백중 때.
 # 백중에는 이제 이 지붕 우에 호박덜 열잖아.
 @1 예.

호박 열망, 안 열아 가면은 지붕 우이 올라가근에 막 저 그 호박을 때려.
 @1 때려?
 # 어. 호박줄을 막 때리멍 열매 열렌 때리면.
 @1 하하하.
 # 재미있는 거 잘 허여.
 @1 하하하, 올라 강 거 때리민 잘 열아?
 # 으, 잘 연텐 허멍 강 때리렌 곶아.
 @1 무신걸로 때려?
 # 무시거 거, 거 저 삼 것ㄴ라 열남, 열남 헤.
 @1 열남?
 # 어, 거.
 @1 삼 속에 있는 속대?
 # 어. 속대 열남이엔 헤여.
 @1 어.
 @2 열남.
 # 으, 열남 헤여근에 불부찌근에.
 @1 불부찌.
 # 불부찌 동네.
 @1 불부찌 거 아니예?
 # 어, 경허영 동네 멩겨. 동네 갈 때는 그렇게 거 불이 펠롱펠롱 질 봐지잖아.
 @1 이것도 멧 개 무꺼근에?
 # 어.
 @1 여러 개 무찌?
 # 무끄긴 워 무꺼. 그자 영 췌어 아저근에.
 @1 이거 흐나만 즘 앓을 거 아니파?
 # 어. 약허민 두 개나, 세 개나 경헤여근에 여라 개도 못 헤여 거 어려왔어.
 @1 아.
 # 경헤영 거 부찌 아저근에.
 @1 불이 잘, 확 타 불지 안허는 모양이다예?
 # 어, 안 타주게.
 @1 아.
 # 계난 그거 은근허게시리 거 좀 저 그대로 놔두민 무시거 허고, 은근허게 놔두민 그것
 다, 얼른, 얼른 몰사 헌디 어멍사 헌디 거 췌걸름 우이 낫다근에 앓아 내어.
 @1 아.
 # 경헿 허민 그거 헿 불부찌 영 놀레 갈 때민, 어디 동네 말 곶으레. 이젠 오도바이에
 차에 잇지만은 그전인 걸영 갈 때면은.
 @1 후라시 대신에, 하하하.
 # 따시 그 미 있잖아?

@1 예, 예.
거 역사.
@1 예.
그거 해근에 돌아근에 그것은 막 오래 가.
@1 음.
그건 오래 가면은 이제 밥해 먹을 때는 그거 불을, 불 담으레나 못 가면은.
@1 음.
뭐 성냥도 엇고 아무것도 엇이면은 그걸 이제 불싸근에 놔둬. 어디 부억 엠에.
@1 예.
경헛다근에 밥헛 때는 그것에 불 일좌근에 밥헛고.
@1 그거 무신 거엔 곱습니까?
거 화승.
@2 예.
@1 화승.
@2 미삐쟁이 헛 거 화승이렌 허는 디.
@1 아까.
열납, 건 열납.
@1 아.
@2 아, 재밋다.
@1 화승이영 똑ㄴ튼 역할을 하는 거지.
게메. 그것은, 열납에는 불부쟁 놔두진 못허여.
@1 아, 어디 갈 때만예?
으. 갈 때만.
@2 계난 미삐쟁이가 더 오래 가는 거?
@1 음.
미삐쟁이는 감양 놔두면은 불도록 거 아츰이, 저녁 때 감으면은 길게 감으면은 아침까지 잇주.
@2 아. 열두 시간.
@1 계난 밧디 갈 때도?
남저 어른덜은 그거 앗앙 강 담배 피고.
@2 아.
@1 경 곱안게.
따시 옛날 간고등어 잇잖아. 너네덜 먹어 봤어?
@1 이제 간고등어베끼 안 먹어 봐신디.
완전 간이야.
@1 으.
간에 담아 논 거.
@1 소금 막 하영 낡?

그거 행 가근에 그 화승불 맛앙 가근에게 이제 그걸로 이젠 불부찌근에 고사리 해근에 불을 부찌. 그민 새카망해도 맛있어.

@2 아.

그거 짬어근에 그거 익도록 구면은 새카망해.

@1 으.

먹을 수가 엇어도 경해도 그게 맛있게 먹잖아. 경해도 땡 안 걸렸잖아.

@1 게메. 하하하. 그거 그민 고사리 그거 꺼꺼다근에.

고사리 그 므른 것가 있지, 예염 비어 논 거.

@1 예.

비어 논 거 시민 그거 해근에 그레 이거 허고 그레 검질 혼 덩이 놓고 그레 고길 놔.

@2 아.

이제 그 고사리 해근에 놔근에 이제 불을 때는 거주, 숨는 거주.

@1 이제 뭐 호일이라도 영 싸근에.

아이고, 호일.

@1 이제마썸, 이제라시민.

호일. 뭐 그대로 이제 불 숨아근에 따시 이젠 또 뒤집는 거야.

@1 으.

#1 뒤집어근에 또시 그거 귀 노민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1 그 간고등어는 집이서 행 소금헌 거짜?

아니, 사다근에.

@1 아, 사다근에.

사당도 허고 집이서도 해당 허주만은 거 어떻허당 팔면 옛날 할망덜 므물도 한 뒤 쥘 그거 사고. 돈은 어디 셔?

@2 장시 오민?

으, 장시 오민. 경헛당 반찬 헐 걸로.

@1 아이고 옛날은 고등어 잘 안 먹엇텐, 다 데껴불엇텐 헛게만은.

아이고, 데끼긴 어디 강 데껴. 잇는 디나 거주.

@1 삼춘넌 바닷동네가 아니구나.

아니. 계민 그런 장시 오민 어무니털이 상 놔뒀당 반찬 허젠 허고.

@1 으.

따시 봄은 나면은 성산 잇잖아. 성산 그 썸짜꾸, 썸짜 허멍 그 고등어 배가 와. 고등어 배가 오면은 그 고등얼 사다가 거 성산 지금 거 성산일출봉 엠에 강.

@1 으.

그 모래밭에 가근에 사다근에 이제 거 소금을 해.

@1 으.

소금 해근에 향아리에 담아.

@1 으.

소금 행 들령. 고사리 꺼꺼당 고사리 비어다근에 들러근에 놓고 그 고기 혼 도리 놓곡 행.

@2 아, 틱틈이?

으, 틱틈이 낡 뇌뒹당 그거 따시 이제 놓이나 빌영 헐 때면은 그거 하나 앓앙 강 구웁
반찬허고.

@1 음.

계난 이 절대 도시덜은 그런 생활을 안 헤 봤어.

@1 예.

@2 하하하.

@1 맞아마씨.

삼

@1 아까 저 삼 헤근에 썰 허는 거 곶아주긴 헤신디.

으.

@1 좀 자세히, 천천히 한 번 더, 예, 물어보쿠다예.

어.

@1 그 삼을 베젠 허민.

어.

@1 예? 뭐 호미로 벨 거짜?

호미로 비어.

@1 호미로 비어?

으.

@1 갱 허민 어느 정도 행, 집이서 허젠 어느 정도 양을 어느 정도 헤근에 우연엿 거라
도 허젠 영 들리민 영 어디 이 마당에 흐나 널만이 나와?

마당에 널주.

@1 어.

베 메영도, 베 메영. 그거 계민 길잖아.

@1 예.

영 무꺼근에 흐 줍씩 무꺼.

@2 응.

@1 아, 말리, 말린 다음에?

으, 들리쟁 허면.

@1 아.

@2 들리젠 허면 하나씩 아니고.

(기침) 그자 체암은 영 널어.

@1 예.

널엇당 막끝에는 쏘앙 오면, 체암은 그 막 벨, 저 벨 메어. 베 메영이, 지붕이. 이 집
광 저 집 사이에 그 안거리광 밧거리.

@1, 2 으.

그 사이에.

@2 으.
줄을 메어, 그걸 널엉.
@2 으.
널엇당 이젠 그걸 들르민 또 씹젠 허민 그것을 또 무꺼 딱시 손에 쥘엉.
@1 예.
흔 줍씩 무꺼근에 이젠 졸랑 무꺼, 이, 이런 딜로. 경혜근에 거.
@1 잠깐만예.
@2 삼춘, 그 베, 그 삼을 비어 오면 즐기잖아예?
으.
@2 깎는, 깎는 한 줄.
으.
@2 긴 거, 거기서부떠 그거 장만허는서부떠 굴아줘야 뉘. 아깐 너는 건 줄, 실.
으, 줄 너는 건 곤잖아.
@2 으.
거 대.
@2 이거, 이거 비영 왕.
으, 비영 왕.
@2 그다음 어떻게 할 거?
거 썸을 다듬아.
@2 예, 우에 썸들예.
썸 다듬아뉘.
@2 으.
썸 다듬아뉘근에 이, 요것이 삼이다, 요것이 그 삼이면은 이것은 대나무.
@1 으.
이거 이렇게 허영, 영, 영 짹허면은.
@2 벗겨져?
것이 벗겨져.
@1 으, 음.
벗겨지면은 이제 그걸 이제 딱시 베에 널어야지.
@1 벗겨진 걸 베에 너는 거마씨?
으, 널어.
@1 마당 바닥에 너는 게 아니고?
바닥에도 널곡 바닥은 검질 길아 불민 널 디[티]가 엇잖아.
@1 아, 거난 이디 집.
@2 베 메영.
@1 베 메영 그디 영 너는 거라예?
으.
@1 으, 꺾데기가 흐터져 불지 안행 꺾데기 길게 뉘니까?

아이, 짹 짹 나와.
 @1. 2 아.
 # 으, 그거 지금은 어떤산디 몰른디, 아 그거 영혜근에 힘내근에 우리 두린 땀, 우리 족은 걸로 노곡 허주게.
 @1 예.
 # 영 허면은.
 @1 으.
 # 그것이 이, 이것이 덩카리.
 @1 쪽 벗겨지는구나, 음.
 # 영 쪽 허면은 그것이 꼭대기꺼지 쪽 나와. 씹 푹푹 다듬아뿔 허민.
 @2 우리 삼 길이가 이만큼 뿔 거잖아?
 # 으.
 @2 이거 하면은 요 대나무로 쪽 굽으면.
 # 으, 으.
 @2 이 길이, 그만큼 나와?
 # 나와.
 @2 중간에 안 찢리고?
 # 으, 나와, 나와.
 @2 예.
 @1 음, 안 찢라지고.
 # 으, 안 찢라정 나와.
 @1 거난 쪽에 잇는 대만 벗겨지고?
 # 으, 대만 벗겨져.
 @1 이 호수처럼 뿔다는 거구나?
 @2 으.
 # 경허면은 이제 쪽허면은 거.
 @2 쪽쪽쪽.
 @1 어.
 # 갈를 때는 어떻게 갈르냐면은 이제 그걸 모뉘.
 @1, 2 예.
 # 모뉘근에 쪽허게시리 그 대나무로 이러, 이것이 그 대남, 이것이 그 삼나무면은.
 @1 예.
 # 그레 영 행 뿔 찢러근에.
 @1 으.
 # 영 쪽허면은 그것이 나와.
 @2 음, 벗겨져서, 쪽허게.
 # 으, 쪽 밀언 뉘근에 그, 거 행 벗겨질 거 아냐?
 @1 예, 예.

그거 벗겨지믄 그레 영 대산디 건 몰라.
 @1 예, 이름도 모르고.
 # 그거 쪽허면은 그것이 갈라져.
 @1, 2 음.
 # 계민 그걸 널잖아. 널엇당 그거 어느 정도 몰르민 딱시 손에 다 무껴. 흔 줍씩 허영.
 @1 흔 줍씩 무껴, 예.
 # 쟁 그거 물류와근에 거 쏘는 거야, 쏘는 거.
 @1, 아.
 @2 이거 영 벗겨 내면.
 # 응.
 @2 이제 올, 올, 올, 올로 하나씩 다 올이 됩니까?
 # 아니. 벗겨내엉 쏘아.
 @3 쏘아야.
 @1 나중예, 나중예.
 @2 아.
 # 건 쏘아근예, 이제 그 잣물에 쏘앙 거 빨아당 널영.
 @2 그 후에 올을.
 # 그 후에 이제.
 @2 예, 예.
 # 손으로 까는 거야.
 @1, 2 아.
 # 손으로 어떻게사 까는지, 그 올케 즈질게, 깨.
 @1, 2 으.
 # 계민 즈질게 깨민 열두 새 베, 뭐 옷새 베.
 @1 으.
 # 으답 새 베.
 @2 으.
 # 그건 경 차이가 이시난. 건 어떻게 헨 증 몰라.
 @2 으.
 # 쟁 짜넨 거 보민, 열두 새 베는 솔직히 멩지영 그튼 것이 할랑할랑할랑.
 @2 열두 새가 가는, 으.
 @3 계민 그런 거끼리만 모아마씨?
 # 어.
 @3 열두 새 베는 열두 새 베 끼리만 다 골라내근에 다 모으고.
 # 어, 골라 내고.
 @3 아, 두꺼운 건 두꺼운 거대로.
 # 두꺼운 건 두꺼운 대로 골르고.
 @3 경행 그걸로 옷, 천을 만드는 거구나?

으, 천을 만들지.
 @2 으.
 # 계민 거 열두 새 베는 정말 알랑알랑해. 계민 그런 디는 어무니가 못 닿게 해, 우리.
 @3 하하하.
 @1 아, 상품이니깐.
 # 어.
 @1 강 풀아야 돼는 거. 하하하.
 @2 어.
 # 우리 어무니네도 그 베를 많이 짜는디.
 @1 으.
 # 거 옷 새 베엔 헌 건 막 훑은 베야.
 @1 으.
 @2 어. 하하하.
 # 그런 디는 앓앙 짜렌 해.
 @2 하하하.
 # 막 그것이 신기해 웨어, 우린. 일곱, 으답, 으답 새, 아홉 새. 지금 우리 아이털 막 그런 거 우리 아이들 들어. 지금 어린 아으털 막 그거 허젠 허민 말라, 말라 허는디이.
 @1 예, 예.
 # 우리도 그거 막 헤보젠 어무니 엇인 때쫘 헤근에 허민.
 @2 아.
 # 그것이 바르질 안해.
 @2 아.
 # 겐 욱 쳐들어.
 @1 하하하.
 # 계도 그거 재밋어.
 @1 예.
 # 거 베틀이 막 그 저 테레비 나오잖아, 베틀이.
 @1 예.
 # 길어, 길어 노른.
 @1 그믐 그 아까 이거 벗겨논 거 말린 거를 삶을 때는 다른 거 뭘 첨, 더 넣는 거 엇어 마씨?
 # 엇지.
 @1 그것만 삶아?
 # 것만 삶주게.
 @1 아까 잣물이나 이런 거 안 넣고?
 # 잣물 넣곡.
 @1 아, 잣물, 여기도 잣물로 넣고 삶아마씨?
 # 으, 다 잣물이야.

@1 아, 천 만들기 전에.
 # 천 만들기 전에 잿물로 거 삶는 거.
 @2 아.
 @1 아, 그냥 그 껍데기, 삼 껍데기 삶을 때도?
 # 으.
 @1 잿물 놔근에.
 # 으, 잿물 놔.
 @1 ㄹ치 삶는구나예?
 # 잿물 삶으민 거 껍데기 다 떨어져.
 @1 아, 껍데기 떨어지고 밑에 안에는 섬유질만 남는구나예?
 # 으, 으, 으, 경허는 거.
 @1 그믐 그거 삶아근에 무꺼근에.
 # 으.
 @1 솟드레 드리쳐.
 # 으.
 @1 잿물 낡.
 # 으.
 @1 삶아.
 # 으, 삶아.
 @1 얼마나 삶아?
 # 건 몰라, 얼마나 삶는 중 몰라도, 아마도 거 아마도 좀 삶아야지.
 @1 오래 흐끔.
 @3 삶아야될 거 같애, 질경.
 # 삶앙 거 건져 아정.
 @1 건정, 그다음에는?
 # 물에 가근에 빨아.
 @1 이거 건정 어디 다라 아까 남도고리에?
 # 다라 좋아하네.
 @1 하하하. 남도고리에.
 # 남도고리 좋아허네, 남도고리도 잇엉은에 거 구덕 잇잖아.
 @1 예.
 # 구덕 놔근에 곶레기 바뵤근에.
 @1 예.
 # 지영 앓엉 가근에, 저, 그 물통에 강 빨아.
 @1 아.
 # 물통에 강.
 @1 구덕에 놔근에 곶레긴 무신걸로 멘든 곶레기파?
 # 무시거 혀, 구덕에 행 뵤, 초석 ㄹ쁜 거, 미시거 기자 물 안 세계끔 그자 또꼬망으로

물이 짹짹 나와.

@2 하하하.

@1 예, 그 구덕 밑에 받치는 거지예? 꼴레기는데?

어, 경 행 허민.

@1 등까지 오는 거 아니고, 구덕 밑에만 받치는 거지예?

밑에만 바치주.

@1 으, 으, 으.

경혜근에 그거 혜근에 허민, 그거 혜다 놔근에 그 문 그 손으로 이젠 갈르는 거야.

@1 음.

갈라근에 구분을 혜근에 요건 존 거, 굶은 거 구분혜근에.

@2 아.

따시 요만씩 현 것가 있어, 그것은 그 꼬리 차는 거.

@1 예, 예, 예.

거 행 꼬리 차는 걸로 허곡.

@1 물에 강 빨민, 가이도 말려야 될 거 아니우파예?

것도 들려야주.

@1 그건 어디 강, 어디서 말려?

것도 집이 왕 베에서 들리우곡.

@1 마당이 베 멘 거예?

거 밤이도 널었다가 이 돌담[담]에도 널었다가.

@3 어.

베 메영도 널어 봤다가 에이그.

@1 응. 그거, 그거 헐 때는 며칠이나 들려야 돼어?

몰라, 그것도. 기자 뭐 들리당 보민 벳 나민 이제.

@1 흐뎡 오래, 오래 들류와 돼는 거파? 바싹?

으, 바싹 들리주, 오래 걸리주. 뭐 언제사 가는디 기자 혜다 노민, 기자 어무니네 허민.

@1, 2 하하하.

일고으담 설 때.

@1 으.

아홉 설 때난 미시거게, 거.

@2 아.

우리 어무니네도 나 으담 설 때까지 헨에 아홉 설 사삼사건 후에는 안 헤 받.

@2 아, 사삼사건 전에만?

으. 그자, 봄만 현 거주.

@1, 2 아.

경해도 그자 벨 짜났으니깐.

@1 하하하. 그, 저 그것도 영 아까 낭 양쪽에 박아근에.

어.

@1 예? 영 날 거 아니우파예?
어.
@1 그건 마당에서, 올레에서 허는 거파? 집 밖?
그건 마당에서 헤여, 마당에서.
@1 마당에서예.
마당에서 그 축허게 그 축허게 돌리, 손으로 죽허게 거 삼 영 삼아 낱.
@1 예, 예, 예. 막 길게 행예.
어. 이제 막 차반지에 막 놓지, 영 칭칭 놉근에 허민 그것을 이젠 그걸 감는 거야, 쪽 쪽 허게시리.
@1 응.
빙 돌리민 흐 번씩 영 돌려.
@1 어. 여러 개 박지 아녀고, 하나만 박아?
네 바퀴, 네 바퀴.
@1 한 쪽에 네 개?
아니, 여기, 여기, 기자.
@1 이제 두 개?
네 개 가타 뵤어.
@1 네 개 정도예? 응.
우리, 우리 지금 앓인 사이만은 허지.
@1 응.
@2 아, 경행 돌릴 거?
으, 경해근에.
@2 아 두 개만 왔다 갔다 아니고.
응, 경행 요롱게.
@1 아, 요롱게 네 개, 예.
영 돌리민 것이.
@3 경해야 이제 뭐가 안 됩니깐.
어.
@1 응.
경 헨 그것이.
@3 꼬이지 않으니깐.
것이 어떻게 해서 거 ㅼ디에 현 것가, 그 삼베 틀에 ㅼ디 그.
@1 예, 예.
구멍. 그 고망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 그건 몰라.
@1, 2 아.
어른덜은 그것에 다 헤여.
@1 계난예.
그것에, 그것에 꿰나근에 그 짜기 전이 뭘 허냐 풀 잇어.

@1 예.
 # 가시리풀.
 @1 응.
 # 가시리풀.
 @2 바닷가?
 # 으, 가시리풀을 숨아근에 그 솔이 있어.
 @1 예.
 # 솔로 해근에 그 베틀에 메와 낵, 그 ㅼ디에 다 끼와낵, 그 베틀을 싹싹허게 그, 저.
 @3 풀칠허는 거?
 @1 마당에서 안 허고?
 # 마당에서, 그 베틀에서, 마당에서도 허곡 그 아, 베틀에서 헤여.
 @1 아 베틀에서 헤?
 # 으.
 @1 마당에서 헿 가시릿불 밑에 슬루는 거 아니고?
 # 으, 불살르지 안헤, 그자, 그거.
 @1 가시리풀만 ㅼ이고. 그 밑에 ㄱ시락불.
 # ㄱ시락불은 안 헤.
 @1 응.
 # 그거 풀 ㅼ키는 거니깐 오래 가지 아녀.
 @1 ㅎㅼ름 말려야지, 풀.
 # 거, 그건 난 집안네서 ㅼ헿 ㅼ겘로 알아져.
 @1 아.
 # 베틀 메와 낵.
 @1 베틀 메와 낵?
 # 베틀 메와 낵, 그거 막 저.
 @1 응.
 # 것이 바짝 허잖아.
 @1 예.
 # 바짝 허면 그 솔이 ㅼㅇ그란 솔, 요만이 헿 게 셔.
 @1 으.
 @2 예, 동글락헤.
 # 으, 경헿 그겘로 풀 해근에 ㅼㅼ ㅼㅼ 허게시리.
 @1 아.
 # 경 해근에 밀어 ㅼㅼ근에 그 벨 ㅼ는 것 가타 ㅼㅼ어.
 @1 으.
 @3 그 ㅼ은 조금 ㅼ리 이겨를.
 @1 말릴려고.
 @3 말릴려고 하눈예, 그니깐 지금 삼춘 같은 경우는 그겨를.

@2 베틀에서 허면은.
 @1 붙어 붙 거 같애.
 @2 붙어 붙 거 닳은데.
 @1 금방 말라야지, 음.
 @2 어, 미리일 것 같아요. 실 만드는 단계에서 풀칠은 하고.
 @1 근데 베는 또 모르니까.
 # 거 베틀에, 거, 베틀에서 거 흔 거 같애. 그 ㅼ디ㄱ지 다 끼와냥 헤.
 @1 끼와냥, 예, 예, 예.
 # ㅼ디ㄱ지 끼와냐야 그것이 바짝허게 발라지잖아.
 @2 어.
 # 겨민 그 뒤에가 경헤민 아마도 물리긴 물류왓지.
 @2 으.
 # 막 것이 꼬아냥 잇어.
 @1, 2 으.
 # 꼬아냥 시면은 거 마흔 자니깐.
 @1 예.
 # 흔 번에 못 허니깐 꼬아냥 잇으면은 그것이 흔 번 풀어놔근에 얼만큼 짜, 짜지면은 그 거 흔 번 풀곡 허난 그거 나 생각엔 꼭 베틀에서 메와나신가?
 @2 으.
 # 베깃디서 메왕 그레 감, 어떻 현 건 그건 몰라.
 @1 예, 예, 예.
 # 그 풀맥이는 거ㄱ진 알아.
 @1 예, 그럼 베로는 주로 행 입는 옷이, 예? 중의적삼허곡?
 # 으, 중의적삼허곡 갈적삼, 갈웃.
 @1 으.
 # 기자 베웃은 그자 지금 기자, 우리 나이롱 옷, 티샤스 입듯이, 입는 거.
 @1 으. 아니, 성산 쪽에는 이게 베가 좀 많이 현 모양이라마씨, 다른 데는 다 미녕으로만.
 @2 으.
 @1 갈중의.
 # 아, 그건 맞아.
 @2 없었어요, 다른 데는.
 # 다른 덴 베가 없지?
 @1 예.
 # 저 대정 쪽더렌 베가 없으니까.
 @1 그니깐 미녕으로만 주로.
 # 어, 미녕.
 @1 갈중의 입엇텐 헛주마씨.
 # 어, 그거주. 성산 쪽에는 베 많이 잇어.

@1 아 거난 베로 갈중의를예?
 # 으. 여기도 영 보면은 베가 많이 있어나는 것 가타 뵈는다. 몰라, 여기는 자세히 몰라도.
 @1 음.
 # 성산 쪽에도.
 @1 성산 쪽에가.
 # 우리 나 살아난 동네는 베가 많이 있어.
 @1 으.
 @2 어.
 # 계난 그디서는 우리 집이서는 우리 살아난 디는 두 집에 아마도 두 집에 흔 집은 베 짜.
 @1, 2 어.
 @3 어, 많이 헛엇구나.
 @1 으.
 # 여기는 이젠 가시리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가시리도 베가 많이 헤난 거, 우리 씨할마니
 가 베 많이 헤낫더라고.
 @1 어, 헛 이진 팔기도 헛니까?
 # 베?
 @1 으, 입힐 것만?
 # 풀지.
 @1 음, 풀아마씨?
 # 풀아야주.
 @1 그건 어뎡 흔 빌씩 헛 푸는 건가?
 # 마흔 자 흔 빌.
 @1 아.
 # 마흔 자 짜지면은 그거. 몰라 흔 빌에치 그거 허는 건지 그건 몰르곡, 그자 마흔 자
 흔 빌 헤근에 기자 거 짜근에게.
 @1 어.
 # 풀곡, 시.
 @1 좋은 건.
 # 어.
 @1 열두 새짜린 강 풀곡.
 # 으.
 @1 쯤 안 좋은 건 집이서 애들 옷 입지고.
 # 으.
 @1 헛 입지곡 영 헛구나예?
 # 그렇지.
 @1 음.
 # 베웃에 감을 들여, 감물 맥여 봐, 좋아.
 @1, 2 어.

상글상글헝 그것이 검어이, 요즘은. 너무 잘 안 빨아 불민 검주만은, 참 좋아, 감은.

@1 응. 미녕에만 들이는 건 줄 알았주게.

아니, 베옷에 감 들이면은 거 모양은 굵어도.

@1 응.

그렇게 상글져.

@1 음. 게근 주로 여름에는.

여름에, 으.

@1 베옷에, 예. 감물 들여근에 입는 거구나예?

감물 들여근에. 검은 물도 어디시냐, 감물, 완전 고급이라사 검은물 사당 들였주.

도구

@1 그 이번에는 도구에 대해서 물어볼 건디예, 아까.

응.

@1 그 멘네 타근에 영 씨를, 씨 빠는 거 잇잖아예?

으.

@1 그건 일름 미시거엔 곱읍니까?

아이고, 그거 멘네 짜는 거, 아이고 거 몰라, 거 뉘엔 허드라만은.

@1 무루웨?

아, 물루웨, 물루웨.

@1 물루웨? 음.

으, 물루웨.

@1 물루웨엔 곱는구나예?

예.

@1 그 이 물루웨는, 이.

씨 빠는 거.

@1 씨 빠는 거예? 혹시 이것도 뭐, 영 손잡는 딴 즈룩이엔 곱곡, 밑엔 뭐, 받침은 뉘엔 허곡.

그건 몰라.

@1 요디 짜는 건 뉘엔 헨 말.

안 들어봐.

@1 건 몰라예?

으.

@1 음.

거 기자 씨 불루, 물루웨로 씨 불르는 거만 봐주.

@1 아.

조금덜 갈아. 조금 갈면은 거 따다근에 그 물레에 그것에 허는 거 본디.

@1 응.

미녕 짜는 것은 난 안 봐난 거 닐아.

@2 응.
 @1 그 멩지나 미녕은 그 씨을 영 빠, 빠, 빠근에 아까 그 누에에서 씨 빠근에.
 # 으.
 @1 영 돌려근에 이디 감곡, 예.
 # 어.
 @1 허잖아예?
 # 어.
 @1 멘네도 영, 영, 정 헤근에 그것에서 씨 빠근에.
 # 어, 것에서 씨 빠.
 @1 예.
 # 계민 것에서 양말도 짜곡 그런 건 헤낫어.
 @1 그, 그믄 그 씨 빠는 그, 건 뭐엔 곱습니까?
 # 그건 아이고 그것ㄴ라 미신 돌이렌 헨다만은, 그건 몰라, 잘.
 @2 아.
 @1 예, 양말은 아까 무신 말이파?
 # 그 양말은 뉘냐믄 그 멘네로 그거 돌령.
 @1 으.
 # 씨 빠잖아.
 @1 어.
 # 계민 그, 것에 감자나, 도레기. 것ㄴ라 무시거엔 그 도레기에 감아 낵.
 @1 으, 으.
 # 이젠 따시 그것을 이젠 노리왈로나 경 안허면은 그 꼬리를 감아.
 @1 응.
 # 이제 뭐, 체암에 놔근에 이런, 저런 것들 영 감아근에게.
 @1 응.
 # 그걸로 양말도 짜곡, 어린 때는 우리.
 @1 뜨개질을 헨 거파?
 # 으, 뜨개질이이지.
 @1, 2 아.
 @2 뜨개질 맞아.
 @1 그, 어무니는 옆에서 베틀 짜곡, 난 영 앗앙.
 # 으, 그거, 그거.
 @1 걸로 목도리 짜듯이.
 # 어, 짜근에, 양말도 짜.
 @1 아.
 # 장갑도 짜곡.
 @1, 2 음.
 # 거 자파리, 우리넨.

@1 거 뭐, 코바늘로 험니까, 아니민.
아이, 대바늘로.
@1 대, 대바늘로?
으, 대바늘.
@1 응.
@2 자파리?
으, 자파리지.
@2 하하하.
@1 계믄 그 계믄 아까 썰 감는 거에, 베는, 베는 그렇게 썰 감는 거 엇수과?
아, 베는 썰 감는 거 없어.
@1 아.
그 큰 것만 허곡.
@1 어. 베도 베틀.
베틀.
@1 베클은 허잖아예?
으.
@1 베클에는 아까 ㅼ디하고 ㅼ디집.
으.
@1 이거 북. 이거 꼬릿박?
으.
@1 꼬릿박허곡.
으, 꼬리채.
@1 꼬리채?
꼬리채엔 허여. 으.
@1 꼬리채는 이 안에 썰 잇곡.
으, 으.
@1 여기 잇는 거 다 합청 꼬리채지예?
으, 으.
@1 꼬리채, ㅼ디.
ㅼ디.
@1 그것말고 또 다른 건 이름 엇수과?
몰라, 거 영 발 디디곡 저 영 땡기는 건, 그건 몰라, 거 뵈이엔.
@1 아, 이름 몰라마씨?
으.
@1 발, 발, 초신 님은 거, 영 신언계.
으, 신어근에 찰씩찰씩.
@1 예, 예, 예.
땡지 짜는 건 보니깐, 그거 아니더라고. 우리 동네 땡지 짜는, 짜는 사람 잇어.

@1 어, 어.
 # 착착착착 때리멍 짜드라고.
 @1 아, 때리멍?
 # 으.
 @1 음.
 # 기사 영 행 착 때리곡, 착 때리곡. 우리 사춘 동서가 거 멩지를 짜나신디.
 @1 응.
 # 그건 우린 봐나진 안했어. 가시리서 우리 사춘 동서가 멩지를 짜나신디.
 @1 응.
 # 그 어른은 지금은 못 해도, 멩지 그거 본 사람들은 있어.
 @1 응. 이디도 뭐, 허리도 영 미신거 허곡, 앞이도 뭐 영 허든데.
 # 멩지 짤 때?
 @1 아니, 베도.
 # 베는 그 띠가 잇잖아, 이거.
 @1 계난 이 띠예?
 # 으, 띠 헤사, 거 저, 반도, 지금 ㄹ트민 반도지, 그걸 메야.
 @1 으.
 # 그것을 땡겨근에 영 착착 허지 그것 엇이민.
 @1 응. 그거 영 감아져 잇는, 예? 이 싹 감아경은에 뒤에 영 또 미시거여 곤는 건 엇수과?
 # 몰라, 것도.
 @1 아, 그건 이름은 몰라예?
 # 어, 몰라.
 @2 도꼬마리엔 안 들어봐마씨?
 # 어?
 @1, 2 도꼬마리.
 # 도꼬마리 몰라, 것도.
 @1 어.
 # 것도 모르고, 기자 우리 아홉 살 때부떠는 안 허니까.
 @1 아.
 # 계난 기자 춤 장난감이주.
 @1 응.
 # 우리 동넛 어른덜은 그거 확실허게 그거 아는 어른덜이 있어.
 @1 가시리에?
 # 응, 있어, 거 어디.
 @1 멩지 차났수과, 가시리에선? 벤 안 현 거 닭곡. 베도 헛수과?
 # 베도 헤나고, 멩지도 짜난 사름 있어.

바느질 도구

@1 응. 그다음에는 바느질에 대해서 여쭙 볼게요. 바느질허젠 허민예?

으.

@1 칩이 바느질허는 상, 뭐, 뭐, 구덕이라도 하나.

잊주게.

@1 예.

바느구덕.

@1 바느구덕, 바느상지?

으, 바느상지.

@1 바느상지엔 곱습니까?

으, 바느상지.

@1 예, 바느상지 안에 무신거 무신거 들어 이십니까?

미신거 실허고 바느허곡 ㄱ세허곡.

@1 으.

따시 저, 접제기허곡.

@1 접제긴 뭐허는 거파?

거 그자 놔근에 무시거 뽑음도 허곡.

@1 뭘 뽑아?

거 찢이라도.

@1 아, 집게.

으, 집게.

@1 하하하.

거 접제기주게.

@1 접제기, 예.

옛날 거 접제기야.

@1 예, 접제기허곡, 그다음 또.

그거주, 무시거라?

@1 바느.

저, 속들.

@1 아, 속들.

하하.

@1 속들은 무시거 허는 거파?

바느 ㄱ는 거.

@1 바느 어떻 허민 ㄱ는 거라?

바느 ㄱ미잖아.

@1 예.

ㄱ미민 그 속들에 낱 쏘솔 밀민 곱아져.

@1 어, 머리에도 영영 헉니까?

머리엔, 머리엔 바놓이 안 들 때.
 @2 어.
 # 이머니도 쓸곡, 머리에도 쓸곡.
 @1 아 요기도? 이견 무시거? 이마니?
 # 이멩이.
 @1 이멩이.
 # 이멩이에도 쓸곡 머리에.
 @1 이멩이에도 쓸곡 머리에.
 # 머리엔 그전에, 지금은 몰라도.
 @2 이멩이에도 쓸어? 하하하.
 # 어, 이멩이도 쓸곡. 이런 머리 그 돛박지름이 블라냥 이디서.
 @1 아.
 # 머리에 쓸어. 경해야 바놓이 잘 들잖아.
 @1 바놓이 잘 들어예?
 # 바놓 하나 행 쓰당 브며 불민 속돌 바당에 가근에 속돌 봉가다근에 거 일부러 봉가.
 @1 음.
 # 봉강 걸로 삭삭 굴면은 그것이 벗어지주.
 @1 음, 속돌은 사는 게 아니고 바당에 강 봉그는구나?
 # 바당에 강 좃어와.
 @1 음.
 # 바다, 바룻 갓당 속돌 올리면은 거 좃어다근에 이제 팔월 추석 때도 이제 그, 그룻 따
 끄곡.
 @1 속돌로 그룻도 다끄고?
 @2 가루내영?
 # 못아.
 @2 못아.
 @1 못아근에?
 # 응. 이젠 뭐 약도 있나.
 @2 약.
 # 미신 쎄멘 허엿닥 헛주만은 그전인 속돌 뵈아근에 체로 처근에.
 @2 으.
 # 그 늦그룻 따깁.
 @1 늦그룻 따끝 때예, 음.
 @2 그거 체로 청 가루에 헐 때도 산디쪽으로도 허곡?
 # 으, 산디쪽으로 허주게.
 @2 예.
 @1 음. 그른 아까 속돌까지 굴앗고, 그다음 바놓 영 끼왕 영영영 끼우는 거?
 # 바놓쩨레.

@1 바농절레.
으.
@1 바농절레 무신걸로 멘드는 겨우짜?
바농절레는 쏘곶에 머리카락 답아.
@1 아, 쏘곶에 머리카락 답아.
으.
@1 이 밖에는?
밖엔 아무런 험벅, 곱닥헌 험벅 헤근에.
@2 으.
@1 어.
멘들앙 그, 저, 바농즐레도 곱게 헤영 요만은 허게.
@1 응.
요보담 족게도 허곡 요만이 여기 멧 가지 부쨌, 찜. 곱게 험에.
@1 곱게 험으로.
으, 곱게 험으로 막 이,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1 으.
부쨌 허는 디도 잇곡. 또 바농절레 안 혀는 사름도 잇곡.
@1 하하하.
거, 경험 그 바농 그, 구덕 잇잖아.
@1 예.
바농상지.
@1 예.
그 꼭데기에 걸 돌아 메어.
@1 아.
@2 바위레예?
으, 바위더레 메민 것도 이빠.
@2 어, 예.
바농상지 요만헌 거 헤근에 사다근에.
@1 예.
그것도 아무, 아무나 못 사, 아이고.
@1 하하하. 바농즐레.
무신 쿡박세기도 그런 거 노는, 농앙도 허곡.
@2 아.
@1 아, 구덕 엇이민?
구덕 엇이민.
@1 쿡박세기라도.
으, 바농은 주루 씨얏 거고. 바농썰은. 썰도 없어, 썰도 없어, 아이고.
@1 응.

찢이라도 이시믄, 찢 사.
 @1 바농질레에 머리카락 놓는덴 헤신디 머리카락 잇이민 뭐 다른 거라도 놓니까?
 # 몰라, 건. 우린 머리가락만.
 @2 응.
 @1 머리카락은 모양 놔둬?
 # 하이고, 머리털이 하잖아.
 @1 어.
 # 게믄 머리 끊엉들.
 @1 아, 끊어, 일부러 끊어?
 # 으, 일부러, 이 머리털 너미 길민 끊잖아.
 @1 어.
 # 겨민 거 바농질레 헐 것털은 끊어 놔두주게.
 @1 음.
 @3 그믄 그건 평생 그걸로 씌니까?
 # 걸로 쓰지, 흔 번 허면, 그것이.
 @3 아. 머리, 다시 다른 머리로 안 하고?
 # 아녜. 그걸 그냥 흔 번 담으면은 그게 오래 쓰주게. 몇 년이나 써게, 헤여단 데껴 부는
 겨주.
 @1 하하하.
 @3 응.
 @1 그거 말고 다른 건 잇수과?
 # 다른 건 뭐, 별로.
 @3 골무 같은 거, 손가락 골무.
 # 골무는 우린 안 헤판.
 @1 아.
 @3 췌로 뵈 거나 요런.
 # 아니 것도 아녜고.
 @3 것도 아니고?
 @1 음.
 # 기자 이 골무, 우리 이 세계더렌 골무 베랑 안 혀.
 @1, 2 음.
 # 게난 골문 자세히 몰라, 육짖 분덜 그자 골무 경.
 @1 예.
 # 우리는 아무 걸로도 손으로만.
 @1 응.
 # 수 놔도 손으로.
 @1 응. 바농도 좋, 큰 거 잇곡, 죽은 거 잇곡 헐 거 아니우파예?
 # 으. 이불 끼우는 거 큰 거.

@1 이불 끼우는 거 큰 거.
 # 그다음은 족은 거.
 @1 보통 쓰는 거예.
 # 딱시 이, 텅침.
 @1 예.
 # 텅침 그 영 겹 바놓질.
 @1 예, 예.
 # 그거 허는 건 족은 거.
 @1 아, 그건 족은 거.
 # 으, 건 족은 거.
 @1 바놓은 세 개는 잇어야 뉘켜예.
 # 으, 세 개 잇어야주.
 @1 음, 이거 따로따로 무신 바놓이여 곤는 말 이수과?
 # 음. 잇주게.
 @1 뉘엔?
 # 큰 바놓은 이불바놓.
 @1 이불바놓.
 # 으, 그갓 건 바놓.
 @1 그냥 바놓.
 # 또 텅침바놓.
 @2 텅침바놓.
 @1 텅침바놓. 으, 큰바놓, 텅침바놓.
 # 으.
 @1 이불바놓, 텅침바놓.
 # 텅침바놓, 그자 바놓은 텅침바놓.
 @1 어, 따로따로예? 그거 세 개만 이시믄 뉘 철?
 # 그거 세 개민 뉘어.
 @1 고녕이포 영 현 건 뉘과?
 # 아, 고녕이포는.
 @1 응.
 # 이제 험벅덜 놓곡.
 @1 응.
 # 거 고녕이포는 삼각형 나게시리.
 @1 응.
 # 네 걸 낫어 이렇게 꼬부려, 화장지 엇나?
 @1 잠깐만예, 종이 하나 드리카마썸?
 # 이것이 기면은 고녕이포는 요롱게 해서 접는 거야. (접는 중) 이것이 우트레 가얄 건디.
 @1 하하하.

@2 나가 접어보쿠다. 여기 끝에만 열고, 여기 영 닫혀지면은 될 거 아니?

으, 으, 으, 맞아.

@2 영 행 요기 곳만 삼각형.

아이, 삼각형 나게시리 해영.

@2 예, 예, 예. 영허민 뉘쿠다.

어, 경행 맞아.

@2 여기 끈 들앙예?

으, 끈 들지 아녕게, 이 쏘곶에 놓는 거야.

@2 아.

바늘 ㄱ튼 거.

@2 예.

바놓상지 거 출리지 못허면.

@1 응.

이 쏘곶에 놔근에 이제 이것을 영 들앙 이 끈을 돌아.

@1 응.

끈을 돌아근에 이걸 영 해근에 답아.

@1 응.

경해근에 그거 바놓상지 대신.

@1 바놓상지 대신.

어.

@1 험벅 답는 게 아니고?

어, 거기 뭐 싹 ㄱ튼 거.

@1 싹이영 바놓이영.

@2 허꺼지지 말렌.

으, 어디 봉그기 쉽게.

@1 응.

@2 아.

바놓상. 겨꼭 따시 영 가면은 어디 놀레 갈 때 잇잖아.

@1 예.

바당이 갈 때도 이걸 앓앙 가사 허여.

@1 거 가져강 뭐 해?

췌가시 들잖아. 성계가시.

@1 아.

@2 바놓 가정 가젠 허난 이걸 해야.

하하하.

@1 이걸 하나 어떻게 들고 가나.

아이고, 거 호주머니에라도 낵 가야지, 바놓.

@1 으, 이걸 답앙 여기에.

어, 경 안 허민 딱시 거 바농을 꼭 바당에 간 때는 빙을, 빙도 이제야 나주만은 바농을 가정 가지.

@1 뤼, ㄹ메기라도.

으, 쟁 고녕이포 멘들든 그렇게 멘들아이.

@1 으.

여기, 이제 요 등어리에 요, 요 사이에 요거 흔 가지.

@1 응.

요거 영 흔 가지 부찌놔근에 요롱게, 요롱게 똑 부찌이.

@1, 2 응.

네 개 부찌. 딱시, 여기는 딱시 이제 삼각형 나게시리 세 개 부찌이.

@1 음.

경혜근에 요디 딱시 또 판 험벽을 부찌.

@1 여러 가지로 허는구나?

어. 끈을 돌아.

@1 으.

끈을 짝 들면은 그것도 자파리게.

@1 하하하.

쪽 돌아근에이.

@1 으.

영 행 감아근에 여기 놔근에 그것이 좋아.

@1 아.

이거 아무나 안 헤.

@1 어.

아무나 안 헤. 아무나 허지 경 허곡 시픈 사람이 없어.

@1 음.

우리는 이거 헤낫어.

@1 음.

아, 나는 어땡 행 어린 때부떠 거 바늘질에 거.

@1 관심이.

으, 경허난 앓이면 이제는 다 허기 싫어도 이런 거.

@1 응.

옷 만들기.

@1 응.

견디 우리 동생이, 우리 밀엿 동생은.

@1 응.

형제라가 절대 이런 거 허질 안헤.

@1 아.

바농허당 버리곡.

@1 어.
 # 따시 옷도 주워 입으렌 허면은, 옷 바르게 못 주워.
 @1 응. 하하하.
 # 똑같은 험벽을 대어도, 험벽을 해도 비틀어지게 놔.
 @2 난 잘 해. 하하하.
 @1 난 못 해. 하하하.
 # 비틀어지게 놔. 비틀어지게 낡 주워, 우리 동생이.
 @1 어.
 # 따시 옷을 행 입으렌 곱앙 놔두민 옷도 줄바로 못 행 입어.
 @1 으.
 # 겨난 절대 이런 것에 관심은 없어.
 @1 응.
 # 나는 이런 것에 관심 잇곡. 앓이민 해 보구정 허곡 옷도 영 만들어 보구정 허곡, 해도
 거 사름 성질로 가.
 @1, 2 아.
 # 이런 것은 수 논 거튼 것도, 원.
 @1 응.
 # 우리 동생은 못 해.
 @1 아, 수도 많이 놔낫수과?
 # 어, 수 놓지.
 @1 어떤 수 놔낫수과?
 # 아, 거자 책상 포 ㄱ튼 거. 거게 장난으로 거 미신 거 뭐 허여 보진 아녀고.
 @2 커텐.
 @1 아.
 # 커텐은 안 해보곡. 건 너미 거창허니깐.
 @1 어.
 # 경 커텐허게시리 천이 없잖아.
 @1 으, 맞아.
 # 손수건 어무니네 현 거 어디 강 어무니네 강 해 오른 거 경 천이 어려우니깐.
 @1 예, 예.
 # 요만헌 거 보면은 요것에 멧 가지 수를 놓잖아.
 @2 아.
 @1 하하하.
 # 십자수 거, 따시 거 미신 수니, 흘수냐 그거 길게 놓는 거.
 @1 어.
 # 그런 거.
 @2 계난 색깔 실은 경 잇엇수과?
 # 짚은 잇어.

@2 어.

썰은 혼 코 사오른 멧 가지 썰이 잇잖아, 거.

@1 응.

영 여꺼진 거 혼 코에 얼마 헨에, 그 돈도 없어, 거 살 돈도.

@1 혼 코 허민 어느 만이 현 거짜?

혼 멧 개 겹쳐정 다 진 거 있어.

@2 어.

쓸쓸허게 머릿결 따지듯이, 영.

@1 아.

@2 그, 일회용 썰.

어, 어.

@2 일회용 썰 영 멧 개.

으.

@1 아, 색깔 여러 가지 합쳐져근에?

어.

@2 어.

그거 요만이 현 거 요만씩 혼 번 꺾는 거 그거 멧 가지 허민 수 얼마나 놔.

@1 아 수 썰로 따로 사는 거구나?

어, 거 수 썰로 사.

@1 어.

계민 그거 얼마나 헤지나 거.

@1 으.

어무니, 거 어무니신디 돈 빌령 욱 헤영 안 뒤어.

바느질 방법

@1 하하. 그 바느질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실 거 아니우파예?

그렇주.

@1 어떻 영영 주우는 건 무신거?

아 영 행 줍주.

@1 거난 거 무신거옴?

호우, 텅침, 호웁는 거.

@1 흡는 거.

텅침 박는 거.

@1 텅침 박는 거.

어. 경 행 거.

@1 거 두 개뿐이우파? 영 시침질허는 거? 시치는 거?

거 시치는 건 몰라, 그것ㄴ라 몰라.

@1 아 그건 몰라? 이불헐 때 영 크게 허는 거.

어, 거 이불 끼우는 거.
 @1 건 그냥 이불끼우는 거?
 # 어.
 @2 이 밑에 영영 돌리는 거?
 # 아, 돌리는 거 모르는데, 나도 그건 해.
 @2 감치는 거?
 # 어, 감치는 거. 아 뽕뽕하는 거, 감치는 거.
 @1 어. 단 영 접어근에 영, 저, 영허는 거.
 # 거꾸로 허는 거?
 @1 아니, 세발뜨기거치.
 # 아 그건, 그것은 뭐엔 허는 중은 몰라, 그건 해도.
 @1 허긴 해도, 으. 그믐 주로 허는 게 호는 거 허고 텅침허는 거구나예?
 # 으, 옛날은 그거지. 이 세발뜨기로 허는 것도 있어, 세 개 요렇게 요렇게 허는 것도 이
 제야.
 @1 아 이제야 나온 거라예?
 # 이제야 험서.
 @1 음.
 # 몰라 나 알기로는.
 @1 예, 예. 게믐 텅침은 어떻 행 허는 거우파?
 # 텅침은이, 요, 요 바늘이 요꺼지 오면은.
 @1 예.
 # 요디서 요기 왕 딱시 일로 또 이레 나와야 해.
 @1 어.
 #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나오면,
 @1 예.
 # 다시 일로 나올 거 아냐?
 @1 예.
 # 여기에 나오면 다시 이걸 또 주워.
 @1 으.
 # 요레 오면은 딱시 요거 줍곡.
 @1 응.
 # 그러면은 미승바늘, 미승바늘 닳잖아.
 @1 아 그믐 이 사이가 다 이렇게 이어져 잇어마씨?
 # 어, 이어지지.
 @1 이렇게, 이렇게 뉘지 앓고, 이렇게, 이렇게 부껴져 잇어?
 # 어 부껴져 잇지.
 @1 이렇게 떼어져 잇지 앓고, 이 사이가 떼어지지 앓고?
 # 어, 어. 이 호움바늘질은.

@1 예.
 # 호음바농질은 떼어지주만은, 텅침은.
 @1 부찌져 가지고예? 미싱으로 박은 거 닳은.
 # 미싱으로 박은 거 닳아.
 @3 *박음질?
 @1 응.
 # 계민 그것이 이 적삼 ㄱ튼 거 허젠 허면은.
 @1 예, 예.
 # 멧, 멧 가지, 이것이 멧 올이 해야, 멧 올 들어가야 미녕이면은 미녕이 멧 올 들어가야 이것이 맞겠다, 허여근에 허민.
 @1 어.
 # 딱시 광목도 이거 어느 정도 멧 올이 들어가야 이거, 텅침이 곱고, 고운 거.
 @1 어.
 # 겨민 이 적삼 이런 디, 이 적삼 ㄱ튼 것도 이거 다 텅침 아니라.
 @1 예.
 # 다 이거 영 헝 텅침을 박잖아.
 @1 어.
 # 이것이 혼 번만 박잖아.
 @1 으.
 # 처암은 이것이 호읍는 거야.
 @1 처음힐 땀예.
 # 어, 요렇게 놔근에, 이렇게 놔근에 이것을 영 호아.
 @1 예.
 # 호아근에 따시 그다음에 이제 요 바우로 똑 끊어 두곡.
 @1 응.
 # 그다음 딱시 이것도 적삼 바위, 모시 ㄱ튼 거, 베 ㄱ튼 거, 멧지 ㄱ튼 거 요 정도로 꼬부려.
 @1 아.
 @3 깨끼바느질마씨?
 # 어. 이정도로 헤근에 이젠 뭇 바농질.
 @3 깨끼바늘질.
 @1 하하하.
 # 어, 깨끼렌 곶아? 텅침이엔 허여, 텅침.
 @3 텅침?
 # 경헝 쪽 헤 노면은 이쁘게시리 멧 올이다, 현 걸 계산을 허지.
 @1 멧 돌이가?
 # 멧 올, 올.
 @1 멧 올.

@2 어.

어. 흐두 번만 맺 을을 영 해근에 짐작행 대충. 어, 이것이 세 을이민 세 을 걸릴까. 두 홀을 헐 거니깐. 이 홀을, 홀을 이, 씨을.

@1 예.

두 개, 두 개를 걸릴 건가, 세 개를 걸리느냐 해근에.

@3 요런 거, 이게 두 개 걸릴 건지, 세 개 걸릴 건지 아니?

으.

@3 씨 영 부터져.

어, 그것을. 걸리면은 걸령 허면은 이 미싱이 엇어.

@3 저게 실이 더 많이 들 거거든.

@1 씨 이렇게, 이렇게 뭉텅이로 영 감아진 거를 흐 을?

아이고 감아진 것가 어딴어?

@1 하하하.

@3 풀어진 거?

풀어진 거 영 풀영 그거 해다근에 이것에서 감아.

@1 영영 똥 한.

어, 어, 어, 어, 그거 행 이디.

@1 이디서 영영예?

어, 어, 그거 줌진 거 사당은에 감아.

@1 그문 이거 한번 무꺼진 거 뭐엔 굳는 거파?

거 흐 꼬랭이, 씨.

@1 흐 꼬랭이.

으, 흐 꼬랭이, 씨 흐 꼬리.

@1 게문 어디 강 흐 꼬리 사당.

으, 사다근에 그거 풀어근에 허는 거.

@1 씨 흐 꼬리? 꼬랭이?

으, 씨 흐 테.

@1 흐 테? 이렇게, 이 뭉쳐진 거를 흐 테.

으. 흐 테 사다근에.

@1 씨 흐 테 사다근에.

걸 감아근에.

@1 게문 어디 씨패라도.

씨패에 감아. 씨팬 저, 무신 험벅덜 해근에.

@1 으.

그래.

@1 영 감양예.

감양 끊으멍 해야.

@1 끊으멍은에예.

으.
 @1 그 아까 흔 올리렌 현 말은?
 # 어, 올은 천, 천, 천.
 @1 아, 천.
 # 으, 천 이것, 이거 같잖아.
 @1 으.
 # 이거면은 이제 요, 요 사이, 이 사이를 말히는 거, 이정도 뉘게. 요 사이 요정도 뉘게.
 요거, 요것보담 쪼그마잖아.
 @3 이걸로 험서.
 # 아 요거.
 @1 하하하.
 # 요 사이에, 요 사이, 요 사이 바농질을 해야 해. 이 사이, 이 사이로.
 @1 음.
 # 이 사이로 바농질해야 해. 이레 드레 물곡 이레 나왕 요로 나왕 드레 물곡.
 @1 음, 그믄 흔 올, 두 올은 어느 거짜?
 # 아, 경허믄 그것이 이제 얼마큼 뉘다 현 거 이거 올 수정은 이거, 이거. 천 이거 들어
 가는 거게.
 @1 어.
 # 이 천이 기자 올로 생각하는 거지, 썰로.
 @1 음.
 # 계민 기자 이것이 어느 정도, 요 정도는 해야 일로 들어가곡 나오곡 해야.
 @1 응, 응.
 # 바듯허곡.
 @1 응.
 # 경 안 허영은.
 @3 촌촌허게 해야.
 # 어, 존존허게 허지 아녀믄 이 적삼 이런 도련, 도련 헤여이.
 @1 예.
 # 그것이 곱질 못해.
 @1 응.
 # 계난 그걸 허면 제일 힘든 거.

남자 옷

@1 남자 옷은 제일 쏘곶에 어디 외방 갈 때.
 # 어.
 @1 제일 쏘곶에서부터 차례차례 얘기허믄 미신 옷부떠 입어마씨? 옛날엔 넌닝구가 엇어
 낫지예?
 # 저 적삼.

@1 제일 속에 적삼 입곡, 그 우엔?
 # 그 우엔 저, 그 요 옛날은 기자 적삼만 입언.
 @1 아 적삼만 입언.
 # 적삼 입어근에 저, 후루메 입잖아.
 @1 후루메.
 # 후루메를 입으나. 겨울에도 이제 저.
 @1 저고리 입곡.
 # 어, 저고리 입곡 후루메 입곡.
 @1 후루메 입곡 보통 어디 외방갈 땐.
 # 어, 외방 갈 때.
 @1 어.
 # 따시 그 저 여름에쫘은 남저들 보기가 싫어.
 @1 음.
 # 팬티 하나, 팬티도 즐바른 팬티가 아니고 광목 팬티쫘 행 시커멍힌 거 입곡 허곡.
 @1 예.
 # 모시나 베나 입으면이.
 @1 안에 다 보여. 하하하.
 # 경 해도 입엉 가야. 적삼은 우리, 우리는 어깨마리를 옛날은이.
 @1 예.
 # 어깨마리, 어깨마리 허잖아. 그것을 행 입엇지만은 어른 할망덜은 그걸 못 입엇잖아.
 @1 음.
 # 할망, 하르방덜은 적삼 하나.
 @1 응.
 # 적삼 하나 입곡. 어디 가믄 이제 두루메기나 입엉. 어디 갈 땐도 이런 허리가 다 나와, 할망덜이.
 @1 예, 우에 게 짚구나예.
 # 어, 짚주게, 적삼 헤근에게.
 @3 적삼.
 # 적삼, 소중의 입어근에 저 거 굴중의 입곡 허민게, 어디 경 허리가.
 @1 응.
 # 굽으민 다 나오지.

여자 옷

@1 게민 여자는 제일 쏘곶에 무시거 입읍니까?
 # 여자도 적삼.
 @1 적삼. 그 쏘곶에는?
 # 그 쏘곶엔 안 입어.
 @1 어.

안 입지.
 @3 가슴, 가슴싸개나.
 # 가슴은, 가슴은 어디 싸냐 할망덜.
 @1 밑에 뭐 속곳.
 # 밧에는 속곳 입곡.
 @1 어, 속곳은 어떤 속곳?
 # 속곳은 옛날 난 그거 안 입어 봤는다.
 @1 응.
 # 옛날 올케로 해녀 속곳, 해녀 속곳.
 @1 예.
 # 그런 거 입어, 할망덜.
 @3 소중의?
 # 으, 소중의.
 @1 해녀들 물웃예.
 # 어.
 @1 그거 입곡.
 # 그거 만들엉 입주, 팬티도 안 입어, 소중의 멘들앙.
 @1 으.
 # 난 계도 우린 소중의 안 입엇어.
 @1 어.
 # 난 나대로 만드니깐 팬티 만들앙 입엇지.
 @1 아, 켜 그거 입곡.
 # 소중의 헐 중도 난 몰라.
 @1 아, 그다음엔 치메, 아 밑에 굴중의?
 # 굴중의, 적삼.
 @1 적삼 입곡.
 # 어, 것뿐이주게.
 @1 그 우에 치메.
 # 우에 치메 입어근예. 열심히 입어 어른들은.
 @1 치멘 열심히 입어? 하하하. 어디 가젠 허민 꼭 치메 둘러?
 # 으, 치멘 둘러사 헤.

아기 옷

@1 어. 애기들은 무신 옷 입읍니까?
 # 애기덜은 무시겨 입어게, 그자 아무걸 베로 해근예 멘들앙 기자 적삼 멘들앙 주민 그
 거 입엉 아정 텅기주게.
 @1 애기 처음 태어났을 때는?
 # 저 붓땃옷.

@1 붓땃웃예. 그건 어땡 현 웃이꽈?
 # 그거 붓땃웃이.
 @1 무신 천으로?
 # 베로.
 @1 아 것도 베로.
 # 으, 베로 허민이 붓땃웃을 허민이.
 @1 소매는?
 # 소매는 전필해.
 @1 전필이 뉘 말이우꽈?
 # 이 소매 지러기를 길게.
 @1 아.
 @3 손보다 길게?
 # 으.
 @1 어느 만이?
 # 이 손 막아질 정도로 혀, 영.
 @1 막아질 정도로.
 # 요만 혀여.
 @1 그거 혀고, 이디, 이디.
 # 이 뒤도 터, 여기. 트꼭 것이 붓땃웃.
 @1 여기 그 곶도 메살 거 아니우꽈?
 # 어, 곶 멩. 곶 헤여근에 친 헤근에 요디 영 행 흐쉴 돌아메근에 거 즐라메곶.
 @1 으.
 # 거 삼 일 입지는 거.
 @1 삼 일만 입지는 거, 음. 혹시 저 아들, 딸 붓디창웃 데끼지 안헤근에 나뉘디가?
 # 아이고, 어느 때 데껴 빗주.
 @1 하하하.
 # 우리, 우리집이가 화재를 만나났어.
 @1 으.
 # 거 나중이라주만은 허주만은 거 궤에 낫두난 화재 만나 부난.
 @3 아야.
 # 우리 씨할마님이가 우리 큰뉘, 큰뉘한테는 우리 저 어무니 집에서가 옛날엔 빌명 입졌
 어, 붓땃웃은.
 @1 아.
 # 친정엔 간 나부니깐 우리 어무니가 간 빌어당 입지곶.
 @1 으.
 # 따시 우리 둘째 나니깐 우리 씨할머니가 베 헨에 거 붓땃웃을 해주더라고.
 @1 으.
 # 경행 나뉘당 불타빋어.

@1 그거 낫뒷당 어디 시험 보레 갈 때도 어디 영 답아간덴 곱읍디다?
으, 안 댜.
@1 안 댜? 하하하.
야, 그거이 정월 초흐를 날 난 사름 붓뎃웃 혜영 댜덴 헤도이 그거 행 가도 안 댜렌.
@1, 2 하하하.
@1 아 시험 보레 갈 때.
으, 안 댜렌.
@1 아 정월 초흐룻날 난.
으, 남저아이가 정월 초흐루 난 아이가 잇엇어이.
@1 으.
계난 그 아이 붓뎃웃을 빌영 허민 좋넨 행 가도 안 댜렌.
@2 아이고, 아이고.
@1 삼춘네 자식덜은 그런 거 안 헤 줘도 다 잘 댜지 안헤수과?
그런 건이.
@1,2 하하하.
우리는 나는 솔직히 시험 보레 갈 때라도 이거 시험 보레 감신가 현 생각 안 헤뵈져.
@1 어, 다 공부 잘 헤 부난.
아이고, 못 살아 노니깐 공부허는 게 싫어. 이제는 나가 우리 손주덜은 아마도 지네 아
빠만이 못 허곡 현디.
@1 으.
못 혈 거 가타 뵈어.
@1 응.
영 생각엔 내가 그런 뉘 모진 마음을 먹으니깐 자식덜이 영 뵈신가 현 생각도 들어져.
@3 무사마씨?
하, 공부허는 거 너미 어려우니깐 난 싫어.
@1, 2 음.
너무 싫어.
@1 경해도 다들 알아근에 잘허지 안헨?
어, 경허는디 아빠는 내뵈어, 내뵈어 헤도.
@1 으.
난 싫언. 너미 어려완 등록금 줄바로 못 내어 주지.
@1 으.
딱시 이제 못 헤주지, 먹을 거 못 헤주지, 지금 우리 딸이나 아들이나 우리 어무니 잘
안 헤줘 부난 건가 생각사 들어신진 몰라도.
@1 으.
너미 힘이 드니까 책가방 앓앙 마당터레 문 던져 불어.
@2 아이고.
@3 공부허지 말렌?

@1 경해도 공부만 허켄예?

경해도 막 올명 이제 밧디 출려 가 불민 그대로 가.

@1 으.

경해도 자이허고 우리 우로 딸이 두 개니깐 딸 두 개는 솔직이 너미 힘들게 헛어.

@1, 2 으.

경해도 그, 둘째도 잘해도 짓도 대학도 못 시겨주곡.

@1 응.

큰딸은 너미 특이허게 잘허니깐.

@1 으.

특이헌 사름이니깐 자기대로 허니깐 책가방 앓아근에 팍 앓아근에. 밤에 이제 우리가 어둑영 오잖아, 일허레 강.

@1 으.

어둑어 오민 그 밑에 아이덜이 두 개가 있어. 이제 자이에 자네 오빠에 헝 두 개가 잇곡, 따시 그 우로 두 개가 국민학교 텅길 때, 책가방 앓아근에 그 시험 뺑은에 허민 그 이제 문제 냉 오민 그거 허젠 왕 봐. 밧디 강 와근에 이제 그거 저녁 먹영 설거지 헤 두곡 그거 허젠 허민 따시 나가 또 저녁 먹어된, 헝 게 뒷날 밧디 헝 게 잇잖아. 겨민 열 받아 근에 책가방 앓앙 확, 숙제허는 거 앓앙 마당더레 탁.

@2 공부허지 말렌.

@1 옛날엔게 일허렌.

아이고 너미 일허여야주.

@1 그니깐.

너무, 너무 계난 나가 야, 이거 나가 이제야 생각이 너무나 잘못헤진 거로구나.

@1, 2 으.

호상옷

@1 혹시 호상옷 이런 것들도 헤낫수과?

으.

@1 삼춘이 직접?

으, 그거 뭐 허곡 그자, 그자, 그자 옷추룩 허는 거라. 경허는디 그 뭐, 요즘덜은, 옛날은 기자 집에서 호상을 허면 그자 그 큰옷 기자 입단 거 입지면은.

@1 응.

그걸로 뵈주만은 요즘은 뭐 목에도 논다, 뭐, 뒤편에도 현다 허멍, 몰라 그건.

@2 으.

@1 아, 옛날에는 호상옷 그렇게 다 종류 여러 가지가 아니라낫구나예?

아니엇지. 몰라 탄 디덜은 그래도 우리 세계는 그자 보면은 그자 침, 입단 거, 창옷.

@1 으.

큰옷, 두루메기, 중의적삼.

@1 으.

저 기자 경헨 입어근에.
 @3 입어근에.
 # 적삼덜 경헨 입혀근에 헛주만은.
 @1 으.
 # 요즘은 장의사 허는 거 보니까.
 @1 으.
 # 그분이 경헨. 다 집이서 우리 씨어머니ㄱ진 다 집이서 헛어.
 @1 음. 게른 씨어머니 돌아가실 때 생각허민예?
 # 으.
 @1 돌아가신 그 분헌테 차례 차례로 뭘부터 입혀마씨?
 # 뭘 입져?
 @1 제일 쏘곶에 뭘부터 입져?
 # 내의.
 @1 내의.
 # 으, 그다음.
 @1 그다음은.
 # 이제 적삼.
 @1 적삼.
 # 으, 그다음은 저구리.
 @1 저고리.
 # 으, 그다음은 저, 두루메기.
 @1 두루메기.
 # 으, 그다음 장옷.
 @1 장옷, 예.
 # 으.
 @1 맨 마지막에가 장옷.
 # 으.
 @1 예. 밑에는?
 # 밑에, 밑에는.
 @1 치매.
 # 저, 내의.
 @1 내의.
 # 으.
 @1 그다음?
 # 다음은 바지.
 @1 바지.
 # 중의.
 @1 중의.

으, 중의. 중의 다음은 바지.
 @2 바지.
 @1 바지.
 # 그다음은 치마, 쪽치마.
 @2 음.
 @1 쪽치마.
 # 으, 그다음 치마.
 @1 치마
 # 으, 경 행 입어난 거, 두루메기여 체얌은 제일 먼저 입히는 것가, 이제.
 @1 내의부터.
 # 내의부터 입혀.
 @1 으, 그다음에 치, 아, 바지.
 # 저구리, 적삼 입히꼭.
 @1 으.
 # 이제 또 그다음은 창옷 입히고.
 @1 으.
 # 이제 또 그 장옷 입지고.
 @1 으.
 # 경혜근에.
 @1 여자는 창옷 아니고 장옷예?
 # 장옷.
 @1 장옷.
 # 창옷, 여자들 창옷, 장옷이 있어.
 @1 아, 그믄.
 # 두 개.
 @1 두 개 다 입집니까?
 # 으, 두 개 입져.
 @1 이 호상옷 헐 때 두 개 다 입져?
 # 으, 두 개 다 입져.
 @1 어.
 # 요즘은 경 아녀도 그.
 @1 옛날은 다 입전예?
 # 옛날은 다.
 @1 음. 이, 그, 호상옷은 베로 허는 거파, 멩지로 허는 거파?
 # 멩지로.
 @1 다 멩지로?
 # 으.
 @1 문딱?

으, 우리 옥안 보난 이거 다 멍지.
 @1 어.
 # 육지덜은 베 해도 여기는.
 @1 어.
 # 몰라 판 디는 어명사.
 @1 으.
 # 우리 옥고 보니깐 다 멍지.
 @3 아니, 베, 그 동네는 베 헛덴 허는디.
 # 베 해도, 베웃 베랑 안 허연.
 @1 으.
 # 이 베 창웃 ㄱ튼 거. 베창웃 ㄱ튼 거 입지는 디는 잇어.
 @1 으.
 # 베정벙이.
 @1 으.
 # 그런 건 입혀.
 @1 아, 엇이민 입히는 거? 멍지 엇이민?
 # 어.
 @1 일부러는 아니고?
 # 일부러는 안 해, 일부러.
 @1 어.
 @3 계난 멍주가 제일 최고렌 생각해근에 명주로 허는 거파?
 # 으.
 @3 베보다도 좋덴 생각헌 거?
 # 베보다도 멍주로 허주게.
 @3 어.
 @1 그다음에 영 손도 영 싸곡.
 # 손 싸는 거? 손 싸는 거. 것은 창오지로 해.
 @1 창오지로.
 # 아. 거 손 싸는 건, 저 그 천으로 허곡.
 @1 천으로 허곡.
 # 으, 그 손 저, 막는 것은 저, 창오지로 해.
 @1 손으론 어떻 막는 거파?
 # 이, 손, 이것 ㄱ라 아이고, 군, 소미에 이, 적삼에 우이 오게 손 막아지게시리.
 @1 그 미신.
 # 돌아, 천을 막아.
 @1 한삼?
 # 어, 한삼.
 @1 한삼.

맞아. 잘 아네. 거 잊어불언. 한삼 들앙.
 @1 한삼은 종이로?
 # 아니.
 @1 한삼도 천으로예, 멩지로예?
 # 어, 멩지로.
 @1 으.
 # 그 옷, 것에 따라 베옷 허민 베옷. 그 적삼에 부짱.
 @1 적삼에 부짱.
 # 으.
 @1 따로 영 끼우는 게 아니고 적삼에.
 # 으, 적삼에 부짱.
 @1 길게 허는 거지예?
 # 으.
 @1 으, 음. 경허곡.
 # 따시 그 손 싸는 건 창오지로, 그 영장.
 @1 아, 한삼 잇고, 안에는 창오지로 손을 영 싸?
 # 손덜, 손 싸는 게 잇어.
 @1 어.
 @3 뭐 어떤 모양으로 헉니까? 병어리 장갑처럼 헉니까, 아니면?
 # 아이, 아이, 기자.
 @3 네모나케?
 # 네모나게시리 헤근에 손 싸.
 @3 아, 네모나게.
 @1 음.
 @3 아예, 앞뒤로 전부로.
 # 으.
 @3 장갑처럼 씨게끔?
 @1 봉투예, 봉투처럼 끼우는 거라.
 # 으, 봉투처럼 기자 이 손 안네 놔.
 @3 걸 창오지?
 @1 창오지로.
 # 으.
 @1 이디 무꺼 계믄?
 # 기자 무꺼식은, 조금 무꺼, 끈도 엇어, 영 영.
 @1 어.
 # 기냥 들여만 놔.
 @1 창오지에 손 찌르곡, 한삼으로 영.
 # 으, 경 막아지고 경허여.

@1 어, 막아진 거.
경 허여.
@3 그다음 신발.
@1 발.
신발은 초신 사당 신지지.
@3 초신.
@1 보선 신지곡.
으, 보선 신지고.
@1 그 우에 초신 신지고.
어, 경허단 메치를 허면 신 안 신져.
@1 아, 신 안 신져?
그대로 메치허잖아. 보선 신져.
@1 그냥 보선만 신져예?
으.
@1 음, 아까.
@3 그다음 베개.
@1 잠깐만예, 아까 뭐해분다고? 메치 헛다고?
메치. 무끄는 걸 메치엔 헤.
@3 메치베?
@1 아.
@3 그니깐 끈을.
@1 거기 이렇게 무끌 때, 시, 시체를 영 묶는 걸 얘기허는 거잖아예?
어, 거 메치.
@1 아, 메치.
@3 건 베로 허잖아, 삼베예?
으, 삼베.
@1 그거 헐 때 신발을 데껴부는 거라?
어, 그거 허기 전에 딱시 그걸 헐, 헐 때는 마지막이니까 신발을 창오지로 만들앙게.
@1 아, 창오지로.
으.
@3 발바다만?
으, 발바닥. 영 행 이, 꼭 이것 닳지, 영 특 이레 말앙.
@1 바닥에만?
으, 영 헤영 발바닥만. 그 보선 우터레.
@1 보선 우터레 신져.
으.
@1 게른 영 신 흐킴 올라오게? 신발처럼 만드는 거라?
으.

@3 위에 끈 달아근에.
 # 그자, 저, 그자 저 그자 저 카바, 카바, 카바.
 @1 가방?
 @2 카바, 카바.
 @1 카바, 카바.
 # 으.
 @2 카바.
 @1 으, 카바추룩, 창호지로?
 # 으, 창호지로 경 헤여.
 @1 머리에, 머리에. 머리엔 뭐 안 써와?
 # 머리에는 그 검은 호상.
 @2 으.
 @1 검은 호상.
 @3 남자, 여자, 둘 다 검은 호상마씨?
 # 으, 다 검은 호상. 이젠 다 흰 거 해도 기자 검은 호상.
 @3 안에는 빨간색이고예?
 # 안네는 빨간색도 허곡, 흰색도 허곡, 건.
 @1 아.
 # 안에는.
 @3 거는 무사 색을 딸, 다르게 험신고?
 # 몰라, 거 기자 경 안네 경 딱시 그렇지 아년 디는, 다 시기에 따라, 때에 따라 그 집안덜.
 @3 검은 호상인 경우는 남자덜 똑같읍니까? 모양이?
 # 으, 모양은 꼭같아.
 @3 꼭같애? 색깔도 똑같고예?
 # 으, 색깔도 똑같아, 호상.
 @3 음.
 @1 이거 호상 썩은 다음에 또 무신거 영 싸?
 # 으?
 @1 아니면 썩 다음에 호상 썩워?
 # 저 호상 썩와냥 베로 무끄주게, 베.
 @1 그건 전체 다 같이 무끄는 거지예?
 # 으, 다 같이 무끄는 거.
 @1 게문 얼굴 그냥 호상 영 썩읍니까?
 # 어.
 @1 아.
 @3 베개 같은 것도 필요허고.
 # 베개는 저 몰레 답아.
 @1 몰레 답아.

몰래 답는 디고 촌혹.
 @1 찬혹.
 # 어, 찬혹.
 @1 찰혹, 찰혹.
 # 어, 찬혹.
 @1 응.
 # 찬혹 파당 몰래 답곡.
 @1 아.
 # 딱시 이 해변더렌.
 @3 몰래가 뭐마씨?
 @1 모래, 모래.
 @3 아, 모래.
 # 해변은 모래 답아도.
 @1 으.
 # 이, 우리는 찬, 찬혹 헤다가.
 @3 혹, 혹?
 # 멩지로, 멩지로 헤근에 베개를 만들야.
 @1 어.
 @3 갱 그 안에 혹을 넣는 거구나?
 @1 음.
 @2 하하하. 으.
 # 거 베개 안네 찬혹을 답아. 경허곡 그 관도 짜면은.
 @1 으.
 # 요즘은 그대로 허주만은 그 관 밑에 촌혹을 다 블라.
 @2 아.
 @1 발라?
 @3 혹을?
 # 촌혹을.
 @1 물 헤근에?
 # 으.
 @1 물 영 끼와근에? 이디 영영.
 # 으. 물 끼왕 그 찬혹을 빨강허게 발라.
 @1 발르는 거라, 바닥에.
 # 으, 그 틈난 디.
 @1 어.
 # 다 발라 경허주만은 요즘은 경 안 허여.
 @1 음.
 # 옛날엔 경 허여.

@1 그다음에는 다 옷, 다 입지니까.
으.
@1 아까 영 싸근에.
으, 베로 싸.
@1 베로 짱, 그다음 아까.
@3 메치베?
메치베.
@1 메치베로 무꺼, 멧 밧디 무꺼?
열두 밧디.
@1 열두 밧디.
@2 어.
@1 열두 밧디 무껍 그다음 관드레 영 들이치는 거라예?
어.
@1 그, 관에는 또 무신거 놓니까?
관에는 옛날에는 거 돌아가신 어른덜 옷 잇잖아.
@1 예, 입어난 거?
어, 입어난 옷덜 해근에 막 놓주, 이젠 옷을 아이 놔도.
@1 으.
옷 해근에 다 놔. 게민 옷 놀 때는 모시는 아이 놓잖아.
@1 아, 거기도 모시는 안 놔?
모시 안 놔.
@3 무사마씨?
@1 아까.
머리 흰덴 허명게.
@3 아, 머리 흰덴.
@1 허허. 게난 호상옷만이 아니고.
@3 으, 그런 것도 안 넣는구나.
옷덜 다 놔, 옷덜.
@1 으.
이제는 아이 놔도, 입단 옷덜 베, 그전인 베옷들이 주로 아니라.
@1 예.
켁 베옷, 멩주옷 기자 미녕옷 행 미녕옷은 춤 놈이 흐쩍 어른들이 꺼리메.
@1 아.
베옷은 놔.
@3 무사마씨?
@1 어.
멩지는 이, 빼에 좋지 아년덴.
@2 으.

@3 명주가?
 # 아니, 저, 베, 미녕이.
 @3 미녕이.
 @1 미녕이.
 # 경 허난 베옷허곡 이제, 멩지웃 ㄹ튼 거 놓는 것은 어른덜이 막 그것은 다 좇아내라, 다 좇아내라, 허멍.
 @2, 3 아.
 # 걸 다 놔.
 @2 다 노라.
 # 미녕웃은 어차피 옛이 관은 채와얄 거난 놓주.
 @1 음. 옷, 옷이 옛어근에 채우지 못허민 다른 것도 놔도?
 # 산디짚.
 @1 아, 산디짚 놓니까?
 # 어, 경헌디 또 이 옛날엔 경 옷들 다 놓단, 요 중간터렌 가가난 기자 옷을 놓지 아녕 다 산디짚이 경 좋덴.
 @1, 2 음.
 # 우리 겨난 우리, 우리도 이제 일가에 어른들이 많으니깐 우리 일가 사름이 육지 장사를 다녀. 경 자꾸자꾸 이제 어른덜이 많으니까 육지서 산디짚이 어렵더라고.
 @1 으.
 # 어려우난에.
 @1 나룩짚이라도 허주게.
 # 경 나룩짚을 흔, 흔 텡이를 육지서 사서 와신디, 빌어 와신디 허난.
 @1 어.
 # 그걸 다 쩌에.
 @1 어.
 # 거 북데기 쳐 뒀에 이런 데 돌아 멧단에.
 @1 일부러 장만헨에?
 # 으.
 @1 음.
 # 경헨 놔뒀어. 그걸로 친촉덜 장나민 그거 가져당 옆이 놓곡.
 @1 음.
 # 옷덜 놓지 아녕.
 @1 음.
 # 이제 미녕웃, 베옷이 옛이니깐.
 @1 예, 예.
 # 그거 해근에 낫주.

상제 옷

@1 어. 그 죽은 사름 옷은 경허곡. 상제덜 옷은 어땡?

상제덜 옷은 뭐 그전애사 다 만들앗지.

@1 예.

만들단에 이젠 뭐 다 상.

@1 옛날 만들 때 말 곶아 줍센 허는 거지.

만들면은 베 헤영.

@1 베 헤영. 그 큰 상제 옷이영 죽은, 저 다른 사위 옷덜 트납니께예?

사위 옷, 이 이제는 우리 세계서는 트나질 아녀곡.

@1 으.

사위, 사위 옷은 딱시.

@1 으.

큰상제 옷도, 아이, 저 아덜덜 옷은 이제 그 창옷 거치록 허곡. 사위 옷은 쪼금 이레 나오잖아.

@1 우머니가 영 길게예. 으, 으, 으.

경행 나와.

@1 그것만 트납니까?

으, 그거 트나주.

@1 뒤에 뭐 영, 어불복.

뒤에 뭐 어불복 부찌는 것은 사위는 안 부찌.

@1 아, 아덜만?

아덜만 부찌곡. 딱시 거 건대 잇잖아.

@1 예.

건대도 거, 대건.

@2 으.

대건, 소건이 잇잖아.

@1 큰 거, 죽은 거파?

으, 거 건대 이디 영 행.

@1 세우는 거?

으, 세우는 거, 으.

@1 옆에 영 세우는 거?

으, 그건 아덜덜만 허곡.

@1 아 이건 아덜덜만 허곡.

사위는 그거 없어.

@1 음. 그걸 대건이엔 곶옵니까?

으, 대건.

@1 세우는 거?

으, 세우는 거, 거 대건.

@1 음.
그거 두 개지, 소견이엔 현 건, 이, 이레 느리오는 거.
@1 예, 예. 아 건대 영 행 무끄는 거예?
으, 으.
@1 이것만 이시민 소견.
어, 건 소견. 대건.
@1 이디 세우는 것까지 이시민.
으, 대건.
@1 대건. 음. 겐 아덜, 아덜은 경해근에 쓰곡.
사위영.
@1 사위영 경 쓰곡. 여자, 여자는?
여자는 기자 보통 건대.
@1 건대에다가 치메 저고리?
으, 다 ㄴ타.
@1 베로?
어, 베고 기자 뭐 요즘 기자.
@1 옛날은?
옛날은 거 치메, 치메적삼.
@1 치메허곡 적삼예?
으.
@1 음.
적삼덜은 이녁덜이 허곡 치메덜은 거 상가에서 헤 주잖아.
@1 것도 다 베로?
베로, 우잇 건 뭐 거 아무거라도 입곡.
@1 치메는 베로 꼭 허곡?
으, 베로.
@1 우잇 건 아무거나?
으, 아무거나 입고.
@1 어.
경허주. 쪽치메 입어근에 기자, 거, 뭐 허리에 굴루 델 것도 잇어. 쪽치메 입영 기자
우이 치메. 베치메 입으민 저고리 입영 걸로.
@1 어, 거 아버지 돌아가실 때영, 어무니 돌아가실 때영 거 허는 방법이 다르텐 헨게만은.
무시거 달라?
@1 바느질허는 게.
아이, 다르지 아녀.
@1 안 영 감치기도 허곡, 안은.
@3 단.
@1 치맛단 영 안으로 영.

아이, 경.
 @1 안 허여?
 # 요즘은, 옛날에는 다 이제 다 이제 것도 구별을 헛주만은.
 @1 옛날 구별헛 땐 어떻 헛나수과?
 # 옛날에는 기자 거, 다 따로따로 입저근에 헛주만은.
 @1 으.
 # 이젠 다 헛디 폐와냥 다 헛디 엮이잖아. 내의만 내비뿡 내의만 딱로 냅 입형이.
 @1 아니, 아니. 우리 저 상제들 입을 옷.
 # 아, 상제덜 입을 옷은 기자, 옛날?
 @1 으.
 # 옛날은 기자 치메만 헛 주지.
 @1 아니, 계난 어무니 돌아가실 땐 치메 감치곡, 아버지 돌아가실 땐 뭘 이렇게.
 # 아, 아방 돌아간 때는 알을 풀영.
 @1 어, 알 풀영.
 # 알 풀영 감치곡.
 @1 으, 어떻 돌아간 때?
 # 어떻 돌아간 땐 꼬부리곡.
 @1 꼬부령 단 해근에예.
 # 따시 이제 아들 상제도 어무니 돌아가면은 이런 디 우를 주윙 뒤집곡.
 @1 우를?
 # 어, 두건을.
 @1 두건을.
 # 두건을 요렇게 주면은.
 @1 응.
 # 이걸 이렇게 뒤집영 쓰곡.
 @1 예, 예.
 @2 으.
 # 따시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이것을 뒤집어도 요렇게 헛서 일로 또 바느질 혼 번을 더 헛.
 @1 우이로? 밖에서 한 번 더?
 @3 위로 보이게끔? 바느질이 보이게끔?
 # 으, 바늘 보이게.
 @1 그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 아버지 돌아가신 때. 딱시 그렇게, 원칙은 이렇게 꼬부려서 줍는 건디. 딱시 기자 이렇게 헛 영 폐와냥 헛어.
 @1 아, 그믐 영 접어진 거 보곡, 아버진가.
 # 으, 아버진가, 어무닌가.
 @1 어무닌가 알아질로구나예.
 # 따시 어무니 돌아가신 때는 이 띠를 허곡.

@1 아, 이 띠.
 # 어.
 @1 예.
 # 아버지 돌아가신 때는 이제 띠를 아니 허곡.
 @1 남자덜마씨?
 # 으, 남자 상제덜.
 @1 아.
 # 그걸로 구분허지.
 @2 오.
 @3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띠를.
 @1 안 하고.
 # 으, 아버지 돌아갓을 땐 띠를 아녀곡.
 @1 어무니만 허는구나.
 @2 오.
 # 어머니 헐 때는 띠를 허곡.
 @1 어, 아까 두건은 아덜, 아덜 상제영 저 사위 상제영 다 똑그치 우로 줍니까?
 # 우로 주우주만은 아니, 사위 상제는 그자, 그자, 그자 평범헌 두건 줘.
 @1 아, 아덜 상제만.
 # 으, 아덜 상제만 거 아방 죽으면은 허곡.
 @1 큰상제만 아니면 아덜이 다섯 개다 허면.
 # 다, 다.
 @1 다?
 # 으.
 @1 아.
 # 다.
 @1 다 우로 영 준.
 # 으.
 @1 두건을 쓰는구나예, 음. 그 두건 솔기도 영 옆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곡 험디다?
 # 거 뒤우로, 저 상제는 옆으로 가곡.
 @1 상제는 옆으로 가고.
 # 으, 그자 복친은 뒤우로 가곡.
 @1 아, 복친은 뒤우로 가고.
 # 으.

‘복친’ 옷

@1 음, 남자 복친덜은 두건만 씩니까?
 # 두건만 쓰지, 행경.
 @1 행경도 헤?

행경은 이제 수복친이엔 해근에 사촌 간덜.

@1 아, 수복친.

으, 수복친.

@1 으, 사촌 간덜.

으, 그디 이제.

@1 행경허고 띠도 해?

띠허고.

@1 행경허고 띠허고.

으.

@2 수복친이란 게 외가는 아니?

외가는 아니, 친정.

@2 친가에예, 예. 사촌.

@1 음.

사촌이난 이제 그 수복친.

@1 으, 여자 복친덜은?

여자 복친은 수건 주주.

@1 미신 천으로?

베.

@1 베로예, 베수건예.

으.

@1 그건 어느 정도?

베수건, 흔 발 석 자.

@1 흔 발 석 자.

아니, 흔 발, 흔 발.

@1 흔 발.

흔 발허민 석 자 뉘잖아.

@1 아, 흔 발이 석 자 뉘니깐.

으, 기자 석 자 해근에.

@1 어, 경행 복친 복수건 행 주는구나예.

어. 딱시 허지 못헌덴 미녕 행도 주곡.

@1 으.

딱시 광목도 행 주곡.

@1 아. 요즘은 다 그냥 몸빼 하나씩.

으, 몸빼 하나.

@1 으.

옛날은 다 수건.

@1 수건으로 줏구나예, 음.

모자

@1 모자는 혹시 옛날에 여름에는 보통 무신 모자 썩 텅겨나수과?

모자, 페랭이.

@1 페랭이 무신 걸로 멘들아?

옛날은 우린 대페랭이.

@1 대페랭이.

@3 으, 대나무로?

@1 대페랭이는.

대나무 행.

@1 깨엇은에?

깨엇 허는 거.

@1 아, 저 구덕허듯이 얇게?

으, 얇게 깨어근에.

@1 깨어근에.

으.

@1 그거 혹시 직접 즐아낫수과?

으?

@1 직접, 그거 대페랭이 멘들아나마썸?

아니, 멘드, 거 아무나 못 멘들아.

@1 아.

거 폰, 우리가 사당 쓰주.

@1 사당 썸수과?

으.

@1 아니, 이, 성산 쪽은 대페랭이를 제일 많이 헛다고 허든데.

어, 그거 아무나 안 헛.

@1 아.

@3 다 사당 쓴 거마썸?

으, 사당 썸.

@3 만드는 사람 잇고?

으, 만드는 사람 있어.

@3 동네에?

@1 지금도 혹시 멘들아난 사람 이신가?

몰라. 나 알건 이는 죽어베신디.

@1 으, 이거 페랭이도 그냥 저 우리 지금 쓰는 밀낭페랭이나, 보리낭페랭이추룩 만듭니
까? 아니면 샷갓추룩 행 만듭니까?

아이, 샷갓추룩 안 허근에, 갓 잇잖아.

@1 예.

@3 갓.

갓 닳아.
 @1 아, 갓처럼 이렇게 만드는구나예?
 # 어. 갓처럼 만들주.
 @1 음, 대페랭이를?
 # 음, 대페랭이.
 @1 이진 대페랭이는 구덕보다 더 가는 거우파?
 # 아이구, 완전히 가늘아.
 @1 완전 가늘아?
 @2 어.
 @1 구덕보다 더 가늘게 해 가지고. 음.
 # 구덕허고는 뭐.
 @2 ㄴ는대구덕.
 # ㄴ대구덕보담도 더 ㄴ늘아.
 @1 거의 막 썰처럼?
 # 계난 아마 썰갑 닳아.
 @3 갓처럼, 갓.
 # 갓, 갓 닳아.
 @3 갓 두께처럼 갓처럼 얇게 해근에예.
 # 계난 그건 아무나 못 허기로, 요거.
 @1 계문 밧디 갈 때 쓰는 거 아니네.
 # 밧디 갈 때 써.
 @1 밧디 갈 때 써?
 # 으.
 @3 아까왕 써지쿠과?
 @1 계난.
 # 뭐 아까와. 메느리쫼 헤오면은.
 @1 으.
 # 이것도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디, 좋은 페랭이, 굿인 페랭이 있어.
 @1 으.
 # 빗난 거.
 @1 어.
 # 열두, 짓도 열두 갠가? 으답, 으답. 놀 으답 개.
 @1 으.
 # 으답 개, 열 갠가 허곡, 으숫 개, 놀 으숫 개짜리는 굿은 거.
 @1 음.
 # (기침) 으답 개, 열 깰 거라.
 @1 음.
 # 존 건 열 갠가?

@1 음.
그건 확실히 몰라, 경혈 때는. (기침) 이 새 메뉴리, 부제칩 사름덜. 새 메뉴리 그거 사
당 줘. (기침)

@1 메뉴리가 어멍헌티, 어멍이 메뉴리헌티?
씨어멍이 메뉴리헌테.

@3 어.
@1 씨어멍이 메뉴리헌티 페렝이 흐나 선물허는 거꽈?
으.

@1 일 하영 허렌? 하하하.
몰라, 그거이.

@3 일 갈 때 쓰렌.
주 세화장이 쫘 가민 거 이실 거라.

@3 어디마씨?
주 세화.

@1 주 세환 어디꽈?
저 성산, 저 주 세화엔 헌 디 잇잖아, 세화.

@2 구좌 세화?
으, 구좌. 구좌 세화.

@2 아 거기 주 세화렌 불릿수과?
으. 거기가 그 페렝이가 실런지 몰라.

@3 지금도?
(기침) 아, 몰라.

@1 물 조금만.
거 실런지 몰를 거라.

@1 으.
거.

@1 성산장에 안 가곡, 세화장에 갑니까?
으, 서화장, 성산장에도 잘 아이 날 거라, 요즘은.

@1 으, 본 적이 엇어.
본 적 엇일 거라.

@1 으.
난산이드레 가시면은 난산이 산간이 가시믄 그것이 실 거라.

@1 아, 그쪽에 대페렝이 많이 헤넛텐?
많이.

@1 예.
(잡담)

@1 으, 대페렝이를 짜 가지고.
갓 닻으게.

@1 갓 닳게예, 음.
막 커, 갓보담 막 넓, 막 넓.
@1 주로 여자덜이 쓰는 거파, 주로 남자?
여자도 쓰곡 남자도 쓰곡.
@1 여자도 쓰고, 남자도 쓰고. 밧디 일헐 때 간 때.
으, 밧디 일허러 간 때.
@1 어, 어디 외방 갈 땐 안 쓰고?
으, 외방 갈 때는 그거, 밧디 그늘로 쓰는 거.
@1 음, 건 여름에 쓰는 거고, 겨울엔 뭐 씽니까?
어, 겨울에는 겨울에는 뭐, 페렝이 별로 쓴 거 잇어 웨어.
@1 페렝이 말고 따른 거 뜻뜻하게 뭐.
뜻뜻하게 저, 감티.
@3 감티.
@1 감티, 건 무신 걸로 멘든 감티파?
천으로 멘들아.
@1 아, 가죽 아니고?
@3 천으로 만든다고?
가죽감티 쓰는 사름이 거 할망덜 부жат칩 할망덜이나 가죽감티로 쓰지.
@2 어.
@1 천으로 감티는 어떻 어떻게 만듭니까?
천으로, 어떻 만들어, 그자 저, 영 뭐, 고녕이 감텡이추룩 주워근에 쓰는 사름도 잇곡,
수건, 수건 쓰곡.
@1 아 고녕이 감티엔 굴읍니까?
으, 고녕이 감티 해근에 영 행 씨근에 이추룩 해근에, 영.
@1 하하하. 그문 요디 영 어깨까지 더껴져?
어깨까지 더끄는 사름도 잇고, 경 아녀민 쩌르게 행.
@1 쩌르게 헨 사름도.
건 할망덜이나 허곡. 젊은 사름은 수건게, 춤 수건.
@1 수건.
어, 할망덜도 수건을 많이 쓰주.
@1 어디 외방 갈 때도 수건 씽니까?
으, 외방 갈 때 수건 쓰지. 할망덜 수건덜, 광목 수건 해근에 막 헤영헌 광목수건 행 씨.
@1 음.
여기 코골이 헤영 여기 등얼까지 다 등기게 해근에, 가다 할망덜은.
@1 그.
@2 가다 할망.
@1 그, 상갓집에서 복수건 주는 것추룩 그런, 그런 복수건으로마씨?
으, 그추룩헌 수건. 경 행 막 광목 막 발래영 헤영케 발렌 수건.

@1 어.

타올 수건이 별로 없어.

@1 그지, 옛날에는예.

우리도 밧디 가젠 허민 광목이나 미녕이나.

@1 으.

아무저라도 데가리에 영 싸 이 아굴턱에 즐라 메영.

@1 으. 하하하.

신발

@1 마지막으로 신발은 어떤 거 신엇수과?

신발은 체암 초신을 신어.

@1 으.

초신을 신으면은 초신도 곱게 헨 거 잇고, 궂게 존 거 잇잖아.

@1 예.

게민 밧디 갈 때는 밧디 가면은 초신을 신으면은 아침 이슬이 지잖아.

@1 예.

경허면은 이슬진 때나 비 온 때나 그것을 신으면은 이디가 물어 붙어.

@1 뒤에.

으.

@1 뒤치기.

물어 붙면은 그것을 손에 신영 나갈 때는 그걸 신지만은 밧디 가민은 그걸 들렁 뎡겨, 맨발에.

@2 하하하.

@1 신 아까왕, 아님 아팡?

아팡, 아팡.

@1 아.

이디 밀어비아.

@1 밀어비아, 제일 뒤치기를 밀어비는 거지예?

초신 알지?

@1 예, 예, 예.

이디 밀어비아.

@3 뒤에 뭐 깔 거나, 경 안 험니까?

아이고 깔긴.

@3 아, 옆에 영, 영.

@1 감아근예.

@3 감양은예 뭐.

아, 감양도 안 헤.

@1 아.

감은 거 경. 감은 것은 밧디 안 신어 텡겨. 거 어른덜이 막 굽게 헤근에이.
 @1 으. 밧디 갈 초신은 딱난 거?
 # 밧디 갈 초신은 따시.
 @1 다른 걸로?
 # 으, 굽게 짜, 굽게 만들앙 그거 헤근에 신어근에 강 짓이민 막 이디 아프잖아.
 @1, 3 으.
 # 경허민이 그걸 들러 아정 출밭으로 검질메레 가.
 @1 으.
 # 경허단, 경허단 이젠.
 @1 출밭으로 갓텐 현 말은?
 @2 지나간 거.
 @1 일부러?
 # 일부러 그 밧디를 넘어가야.
 @2 넘어가야 하니깐.
 # 검질멜 밧 넘어가얏 거니깐, 어땡?
 @2 하하하.
 # 그거 신으민 이디 아프고.
 @1 으.
 # 디물영 가지. 경허단 거 검은 고무신 나왔져.
 @1, 3 으.
 # 거 고무신, 거 고무신도 아무나 못 신었어.
 @2 삼춘 몇 살 때쯤 검은 고무신이 나온 거파?
 # 검은 고무신 나건 디는 우리 흥, 검은 고무신 나건 디는 좀 오랏주게.
 @2 계난 사삼 지나기 전이, 해방 전이 나완?
 # 사삼 전이 검은 고무신 나완.
 @1 으.
 # 경해도 거 사지들을 못 허니깐 초신을 신었지.
 @2 으.
 # 쟁 어디 영 가젠 허곡, 어디 가젠 허면은 거 검은 고무신은 잇어야주게.
 @1, 2 으.
 #그런 때나 신곡, 밧디 갈 땐 초신 신영.
 @2 하하하.
 @1 으.
 @3 겨울에도 초신 신고마씨?
 # 겨울엔, 겨울에도 초신 신어야지. 겨울에는 초신, 저 집이서는 초신을 신주만은, 신곡 헛주만은, 거 따시 남신이 잇었어, 어른덜은.
 @1 예.
 # 남신 신어 아정 텡기고.

@1 남신은 어떻 헛 거짜?
 @3 겨울에?
 # 겨울에. 남신은 남토막으로 신을 판 거지.
 @1 아 밑에 영 밭도 잇곡?
 # 밭도. 장화 거추룩 뭉 및 부짱 헤여.
 @1 음.
 # 요런 거민 기자, 일로 및 부짱 요껴정 기자 다.
 @1 흐뎡 영 높은 거지예?
 # 으, 높아, 높아. 그거 신어 텅기당 구마리도 거끄곡.
 @1 경허니깐, 구마리 거끌 거 닷아.
 @2 아이고. 하하하.
 # 그것도 신곡.
 @1 어.
 # 고무신도 흐썰 신곡.
 @1 어. 혹시 가족으로 뉘 신은 엇수과?
 # 가족도 잇주게, 잇어도 가족은 막 하르방덜.
 @2 으.
 @1 음.
 # 거 막 하르방덜은 거 소가족 헤근에 막 밀영 어떻 행덜 헨덴 헤도 그건 몰라.
 @1 음. 창신은 미신 신이과?
 # 창신이, 그 소가족 신일 거라.
 @1 아.
 # 몰라, 거 창신.
 @1 아니, 여자들도 밑에 징 박아근에 신엇덴 거명헌 신 신어났덴.
 # 것도 소가족 신덜일 테주.
 @1 아.
 # 창신, 창신.
 @1 음.
 # 우리 나 살아난 동네도 막 노인네 흐 분은 그 소가족신이엔 허명 신언.
 @3 그 사름은 어디마씨? 잘사는 사름?
 # 잘살명 말명 기자 하르방덜 기자.
 @1 하하하.
 @3 아, 옛날 하르방덜. 따뜻허난 신은 거 아니예?
 # 어, 기자 당신덜이 헤지난에.
 @1 으.
 @3 사냥헛던 사름들인가?
 # 경행덜 신주. 예, 사는 건 뭉, 게민 그 초신도 거 신다가 또 뒤집어.
 @1 음.

뒤집엉 신어.
 @2 놀 나와 가민예.
 @1 예.
 # 거 놀 나와 가민 뒤집어 신잖아.
 @1 음, 그믐 하나, 초신 하나 허민 얼마나 신읍니까?
 # 막 오래 신지. 그것도 못 신으면 들렁 아경 땡기다 보믐.
 @1 하하하. 놀 나올 때까지 신어?
 # 으.
 @1 놀 다 나오기 전에 뉘싸야 뉘텐 헨게만은.
 # 으. 나오기 전에 또 얼마 안 신언 놀이 나와.
 @1 아.
 @3 일 년에 하나씩은 신어집니까?
 # 아이고, 하나로 못 신지.
 @3 아.
 @1 신은 누게가 사줍, 헤줍니까? 멘들아 줍니까?
 # 아버지 신 사름은 아버지가, 엇인 사람은 이녁대로, 저, 이녁대로도 삼곡.
 @1 어.
 # 따시 사당도 신곡. 경혜 가난 우리는 조금 헤여 땡기단 고무신이 나왔주.
 @1 어.
 # 고무신을 많이 신엇주게, 검은 고무신, 검은 코신.
 @1 초신은 미신걸로 멘들아마씨?
 # 초, 초신?
 @1 으.
 # 산디찝.
 @1 산디찝으로. 무장 산디찝이구나예? 산디가, 산디를 하영 갈아사크라.
 # 하영 갈아.
 @1 으.
 # 건 산디찝이곡 그, 따시 그 고운 신은 꼭.
 @1 꼭.
 # 으, 칩.
 @1 어, 칩.
 # 칩 헤근에 그거 쏘아근에 어떻 행 물색 나게, 노랑게 헤근에 그건 완전 새각신 신.
 @1 아.
 @2 오.
 @1 모양은 초신인데.
 # 으.
 @1 꼭으로 행 만든 거구나예?
 @3 꼭? 칩.

@1 음.

@2 그 칩줄 그 행 막 까늘게?

으, 으, 까늘게 해근에, 거 막 이빠, 솔직이.

@1 으. 새각시 신으로 일부러 해 가지고.

으, 일부러 새각시 신.

@1 거 물들이지 안해도 그거 색깔이?

으, 노랑, 뭐 물 들어곡 안 들어는 건 몰라도, 새각시 신덜 행.

@1 어.

경 해근에 완전 이빠, 건.

@1 으, 그.

경허단 대충 이제 우리 흐쓸 옥으난에 그냥 고무신 신었어.

@1, 2 으.

@1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물들이기

옛날은 도고리서 뺏는 거라.

@1 예, 남도고리?

으, 남도고리서 뺏아근에 그 천 놘근에 베 낱. 베 놘근에 그거 막 뺏아 놘근에 막 놀려. 막 놀령은에 탁탁 털엉 널민 뒤는 거. 거 무시거.

@1 하하하. 탁탁 뺏아근에 그냥 널민 뒤는 거?

어.

@1 물에, 물에 안 해도?

아이, 물에 안 해여. 지금은 그 감물을 짜지만은 옛날은 그 감을 뺏는 거야, 도고리에 서이. 남도고리에서 건 낭마계로 탁탁 두드령 뺏앙 이제 그레 천을 놘. 천 낱 막 놀령. 놀려근에 빨아낱. 이제 놀리민 그 감물이 들 거 아니? 들면은 그걸 탁탁 털어. 털어근에 널민 뒤는 거.

@3 어디 그늘에 말립니까? 햇볕에?

아니, 뻗디.

@3 뻗디?

그늘에 들리민 석어.

@1 아, 썩어 불어?

어.

@1 옷은 뒤싸근에?

뒤쌍 들여.

@1 거니깐 천으로 안 하고?

천으로 허여도 털민 뒤.

@1 으. 보통 천으로 안 허고 옷 멘들아난 다음에 허지?

아니, 천으로 해.

@3 천으로 해?
 # 요 천으로두 허곡 만들앙도 해.
 @1 옛날엔 주로 만들앙 다음에, 옷을 만든 다음에예?
 # 주로 만들앙 허주. 계민, 계민 뉘쌍, 뉘쌍 놔도 뉘고 그자 놔뉘쌍에 뉘쌍 노민 좀 깨끗은 해.
 @1 음.
 # 경해근에 그걸 잘 털어.
 @1 음.
 # 탁탁 털어근에 돌 우이 널민 안 뉘.
 @1 음.
 # 돌 우이 널면은 그 감물이 다 이, 그 돌에 부터 불면은 얼룩얼룩 해.
 @1, @3 아.
 # 경허민.
 @1 거민 어디다가 널어?
 # 거 베에 걸쳐.
 @1 빨랫줄 해근에?
 # 으. 경 아녀민 어디 그 놀 잇잖아이.
 @1 예.
 # 그 놀로 일러 놔. 경 헛다근에 이제 그거 그거 몰르면은 물을 적저.
 @1 음.
 # 거 빨아 불면은 그 물이 가잖아.
 @1 예.
 # 물을 툭 적저근에 물을 짐박짐박허게 적저근에 꼭꼭 누르떠근에, 누르떠근에 이제 또 시 건정 널러. 계가문 막 빨강허는 거야.
 @1 멧 번이나 경험니까?
 # 거 복두, 복두룩. 빨강힐 때.
 @1 색깔이 나올 때까지?
 # 나와, 빨강해.
 # 흔 흔 멧 번만 허민 거 나와. 색이 빨가. 뉘 그거지, 뉘 감옷 별거 없어.
 @1 감 말고는 옛날에 흑시 뉘 물 들여난 거 엿수과?
 # 옛날에 저 멧게낭.
 @1 멧게낭으로 물, 물들엿수과?
 # 어.
 @1 건 무신 색이 나오니까?
 # 것도 갈색 나와.
 @1 아, 건 어떻행은에 허는 거마씨?
 # 건 숲아근에.
 @1 낭으로? 열매로?

저 열매.
 @1 멩게 열매?
 # 낭, 그 낭 불러도 뉘.
 @1 아, 멩게 불러? 낭 불러?
 # 뿌리가 좋아. 뿌리 헤다근에 숲앙.
 @1 아, 뿌리가 좋아마씨?
 # 어.
 @1 뿌리를 썰아?
 # 숲아근에, 거 숲으멍 천두 낭 숲아, ㄱ치.
 @1 같이?
 # 으. 천 낭 숲아근에 거 널민 뉘는 거.
 @1 음.
 # 그것은 흔 번만 널민 뉘.
 @1 아, 감보다 더 쉽다예?
 @3 색깔이, 색깔이 뉘니까? 멩게가 뉘?
 # 거 감 색깔 또시.
 @1 멩게낭, 청미래덩굴이라고.
 @2 동골동골동골헌 거.
 @3 빨간 거? 아.
 @1 열매는 빨간색이지예?
 # 어어, 또시 또꼬리낭 잇잖아.
 @1 또꼬리낭도 험니까?
 # 으. 또꼬리낭도 헤. 또꼬리낭도 그치룩 험 숲으민 뉘.
 @1 또꼬리낭은 짚레꽃. 또꼬리낭은 뉘로 헤?
 # 가시 돋은 거. 가시 돋은 거.
 @1 이거는 뿌리로 헤? 아니면 열매로 헤?
 # 뿌리로 헤. 것도 뿌리로.
 @2 아아.
 @1 다 뿌리로?
 # 멩게낭 뿌리로. 뿌리로 헤 가.
 @1 또꼬리낭 뿌리나 멩게낭 뿌리로?
 # 으, 뿌리로 헤 봐. 노랑헤. 저 감색 나와.
 @1 이거 둘 다? 음. 아까 멩게낭은 열매도 험다고?
 # 열매는 그건 몰라.
 @3 망개구나, 망개. 아, 망개.
 @ 망개예요? 아.
 @1 멩게낭하고 멩게낭 뿌리나 또꼬리낭 뿌리로 같이 낭 숲는 거라예?
 # 게민 뉘. 옷 옛날은 거베끼 안 헤 뉘.

요새 숙이여 무시거여 해도 그거 행.
 @1 뭐 쪽 같은 거는 제주도에서 안 헵니까? 쪽 염색?
 # 쪽은 무시거?
 @1 흐뎡 이런 색깔 나오게 남색 나오게 허는 거.
 # 아이, 거 옛날은 엇어. 지금서사 헵주만은.
 @1 게문 거명헌 물은 어뎡 들이는 거파?
 # 검은물, 검은물 사당 들이주.
 @1 어디 강 사당?
 # 물장시 잇어. 잇어낫주.
 @3 검은물?
 @1 돌아옵니까?
 # 물 사랭들도 막 멩기고. 도비장시, 도비장시 행.
 @1 아, 도비장시가 물감도 풀아?
 # 어, 어, 어.
 @2 바능 놓고, 물감 놓고. 경행 쳇빋 놓고.
 @1 경행 와근에 검은물허고, 빨간물허고 영 다 푸는 거파?
 # 물들 막 풀주게. 물들 막 앓앙 와.
 @3 아니, 솟으로는 안 헤 받?
 # 솟으론 안 헤 받.
 @3 솟, 솟 그거.
 # 안 헤 받.
 @3 안 허고.
 @1 게문 그 물 사당, 그다음에 어뎡 헤?
 # 사당은에 거 물에 낱 카근에 솟디 낱 물 뜨뜻허게 데우, 더우면은 그걸 그 물을 비왕.
 비와근에 그 천을 적정. 천에 적정.
 @2 물에 그냥?
 @1 물에 같이 쫘는 게 아니고?
 # 쫘아야 헤.
 @1 아, 쫘아야 해?
 # 막 거 잘 쫘아야 물이 잘 들고, 두루 쫘으면 벗어정 안 뉘.
 @2 물에 그냥 ㄱ루 캥 그냥 해도 뉘니까?
 # 으, 그자.
 @2 뭐 ㄱ루 천에 쌍 풀어낱 허지 앓고?
 # 아니, 아니. 그자 비왕은에 빙빙 젓어근에.
 @2 음음, 녹계예?
 # 녹으면은 천 노면은 천 낱. 거 잘 쫘으면은 두루 쫘으면 벗어지고. 이 도꼬리낱 멩계
 낱도 두루 쫘으면 벗어져. 게난 잘 쫘음이엔 허는.
 # 벗어져.

감은 숲지 안행 기자.

@1 음.

감은 기자 뽕앙 탁탁 털민 뉘. 털영 널영 기자, 물 적정 널민. 이거 물 적실 때도 영 막 밀지 말곡. 꼭꼭 눌러근영 헤오민 그 감물이 차츰차츰 빠지잖아. 감물 두루 빠진 때는 두루 들른 거 놔두면은 검어 버려, 검어.

@2 그, 그 똥고리낭이나 멩게낭도 갈색 나는데, 감색 나는 건데 그걸로 들인 거랑 감으로 들인 거랑 뭐가 트납니까?

저 이것이 희미해.

@2 어, 희미해. 예, 똥고리낭에 논 게.

예. 똥고리낭이영 이것이.

@1 감옷은 뼈덕지잖아마씨?

바짝허지.

@1 이것도 바짝해?

아니.

@1 이진 안 하고, 색깔만 나는 거구나예.

색깔만 나.

@1 음.

물색은 감물이 제일.

@1 계난 밧디 갈 때 어디 영 가시라도 안 굽히젠 허민 감물이 젤이구나예?

어, 감물이 제일.

@1 이런, 이런 거는 그렇게는 안 뉘는구나예.

밧디 갈 때 입는 짓은 감물이. 이것은 그자, 그자 광목옷 입는 거랑 ㄴ타.

@1 아.

@3 색깔만.

으 색깔만, 물색만. 요즘 물, 물감 들이는 거.

@1 예, 물감 들이는 거추룩.

그것 닳지.

@3 거른 그 동네에서 이 아까 멩게낭하고 똥고리낭?

음.

@3 이거 염색은 많이 헤난마씨?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름 그자 ㅎ는 사름은 ㅎ곡. 감이 엇잖아, 어렵잖아. 엇인 때난.

@3 그니까예, 동네에서 많이 헤낫수과? 이, 이걸로 염색을 많이 헤낫수과?

많인 아니, 그자. 가끔 ㅎ는 사름은 ㅎ고 안 ㅎ는 사름은 안 ㅎ고.

@3 이걸로는 그거 어디에도 헤 받? 삼베에도? 베에도 헤난?

아무것에라도 허주. 삼베고 미녕이고. 기자. 광목이고.

@3 아, 근데 다 뭐 다 이것저것 다 하고?

그자 옛날은 감, 미녕, 베베끼는 엇이난.

@1 음, 음, 음, 음.

@3 경헌디 이제 감물 염색헛을 때는 그제 뵈뵈헛고?

이것은 그자.

@3 아이네는 이제 삼베에 헛도 이렇게 뵈뵈은 안 헛 거주예? 부드러운예?

아니, 아니. 부드러운워.

@3 부드럽게예. 아.

@1 잘 물어봐신게이. 안 물어보른 큰일 날 뵈 헛신게. 감만 이시카부덴 헛신디.

@2 나 뿌리하는 줄은 몰랐어요. 어, 뿌린 몰란.

@3 보통 뿌리 껍질 이런 것도 많이 허거든?

@2 아, 그래요?

@1 요즘은 막 치자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디.

요즘덜은 뭇 뭇 속이여 무신 거옌들 헛도. 옛날은 그런 것이 생각이 낫어게, 그자 버물 지 안허민 좋은 거. 감, 그자 주로 감.

@3 색깔도 어둡고 허난 그냥.

5.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

- 조사 일시: 2021년 7월 30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순자 @3 김보향 @4 고순희 @5 권미소 @6 현혜림
- 제보자: #1 송심자 #2 강성자

(2)

- 조사 일시: 2021년 11월 1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권미소
- 제보자: #1 송순원 #2 김설자

- **조사 일시:** 2021년 7월 30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순자 @3 김보향 @4 고순희 @5 권미소 @6 현혜림
- **제보자:** #1 송심자, #2 강성자

제보자 정보

- #2 예, 저는 강성자.
 @1 강성자 선생님하고, 또 한 분은?
 #2 송심자.
 @1 송심자.
 @3 삼촌.
 @1 삼촌.

풋감 빵기

- @2 지금 과정은 뭐하는 거마씨?
 #1 감 뺏는 거마씀.
 @2 계란 감 타당은에 뺏이는 거구나예.
 #1 예, 예.
 @1 거 뺏일 때 흠끔 주의해야 될 건 잇수과?
 #1 주의할 거는 잇고예.
 @1 예.
 #1 이거 저, 감 이거 물 튀민 계란 옷 저 이 감물 들인 옷을 입어사주, 경 아녀믄 이거 물 튀민예.
 @3 안 벗어져.
 #1 저, 물 안 벗입니다.
 @3 아.
 #1 거고 요거 이축 영영 헤가민 요거, 요거, 요거 봅서. 이거, 이거, 이거 얼마나 이거 곱닥허게. 씨, 씨.
 #2 감 씨.
 #1 아이털 이거 봉가 먹으레 막 읍주게.
 @3 아, 먹어마씨, 감 씨를?
 #2 감 씨 막 먹주.
 #1 아이들 옛날 저 간식거리 잇일 땐. 감 뺏지, 뺏아가민. 아이털 요레 도리도리 앓아근 앵예.
 #2 아이털 쪼락지지 안혀근에 감, 이거는.

#1 경한다.

@2 경행 똥도 못 싸고?

#1 요새 보난에 무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풋감이엔 허는디 언니, 성님. 이거양 이거 풋감이엔 허는디 곤는 거 보난양. 저 풋감이난에 풋감이엔 험덴 곤는 사름 이십디다. 물론 그거 무신 플렛덴 현 말은 아니우다만은. 옛날은 그 옛 어른덜 할머니 곤는 거 보난 풋고 추추룩 쪼끌락허난 풋감이엔 험디다게.

#2 그거를게, 요새 아이털사 알아게. 파랑허난게 풋감이주게.

#1 맞아, 맞아, 맞아.

#2 안 익엇덴 헤영.

@2 안 익엇덴 헤영.

@1 막 좀질게 뵈아야 뵈니까? 하나 먹어 보고.

#2 어.

#1 아, 잘도 쫌득쫌득 맛 좋수다. 쪼락지지도 안허고.

@3 쪼락지파?

#1 안 쪼락지우다게.

#2 아이고, 쪼리 닳다.

@3 안 쪼락져?

@1 우리도 하나 먹어 보게.

#1 경험서게.

@1 하하하.

#2 하나 뵈아줘.

@2 하나 봉강은에 줌서.

@1 하나 먹어 봐도 뵈마씨? 크으. 고맙습니다.

#1 감이 아직 줄아 부난예양. 원래 감은양, 처서에가 제일 저 타기 조읍니다. 무사냐민 처서 ㄱ리 안팎으로 처서 ㄱ리 뵈사 이제 그 물이 과즙이 저 제일 하영 나온덴 험주게.

#2 향 올라올 때.

#1 건다가 흐쉴 일찍 타 부난예양. 촬영허레 오켄 헤 부난 인칙 타 벼수궤게.

@3, 4 하하하.

@1 요거, 요기도 요기도 안 뵈은에 그냥 험니까?

#2 그것도. 딱 하민은.

@3 아, 너무 좋다.

#1 거난 처서 ㄱ리에 저 감 타.

@1 처서 ㄱ리에.

#1 경허민 감물 들이민 옷도 잘 몰르곡.

@1 예.

#1 처섯ㄱ리에. 아직 처서가.

#2 팔월 이십, 이십삼일.

@2 팔월 이십삼일.

#1 팔월 이십삼일이난 아직 멀었주게.

@3 멀어신게.

@1 계난.

#1 아니, 경해도 요새들도 허긴 험니다만. 감이 흐쩔 더 클 거주.

@1 거난 감 흐끔 더 크게, 크민 험 거마씨? 원래는?

#2 경허주만은 옛날같이 기다려점서? 그냥.

#1 맞주게.

‘덩드렁마께’

@1 음. 그거, 이거 뺏는 거는 마께는 무신 마께엥 굴옵니까?

#1 이거.

#2 덩드렁마께.

#1 덩드렁마께. 이거양. 집이서 우리 하르버지가.

@1 예.

#1 옛날 이거 저 나대로 험에 다 이거, 이거, 다 손으로 만든 거. 이거.

@1 아하.

#1 이거 소뭇 벌러져 가난 이거 또 우리 집 애기아방이 못 다 박안.

@1 음.

#1 덩드렁마께.

@1 아.

#1 요샌 다 기계로 만들암실 거라이.

돌확

@1 예, 그 밑에, 밑에 건마씨?

#1 이진? 돌혹, 혹, 혹. 돌혹.

@1 음, 음.

#1 영허민 저 김치험 때 마농도 뺏곡.

#2 음. 고치도 뺏곡, 그냥.

#1 으, 고치도 뺏곡.

@2 건디 어떻 그 돌혹에 쉼엔 헛수광?

#1 예게.

@2 무사?

#1 이거양 저, 우리 제춌들은 고망 뽕뽕뽕뽕 뜰라지지 안험니까? 경허민예, 그계양.

@1 그레 들어가 불어?

#1 들어가 불곡. 또 이게 벌러점수게, 하도 이거 흐 백 년 가까이 씨 가난.

@4 음.

#1 거난 이거 저 우리 아버지가 요거 저 놈두민 이거 벌러져 불켜 험에 이거 쉼엔 험 거 주게. 거민 이제 이디 쉼엔 불르민 이디가 멘질멘질헤근엥에.

@2 예.
#1 돌 트멍에 무시거 안 들어가고.
@2 계난.
#1 겐디 원래 이거 쎄멘 허지 말아사주게이.
#1 우리 쎄멘 안 한 것도 저디 하수다.
@2 알앗수다, 건 나중에 또 저기 한 번 보고. 이 소쿠리는 언제적 만든 건고?
#1 아이구, 이것도 멧 십 년 똬주.
@2 멧 십 년 똬? 으.
#2 다 할머니덜 쓰던 거 아니라.
#1 으, 다 썩난 거.
@2 계난예. 성읍이나 오난예 옛날 거 그대로 이렇게 이어온 거 아니?
#1 성읍에 왓젠 다 잇는 거 아니우다. 아이고, 우리 집베끼 엇수다.
@2 아이고, 기구나.
@1, 3 하하하.
#2 아이고, 진짜, 그거는 정말 이 집이나 안 오면은 엇어.
@3 인정하쿠다.
@1 인정하쿠다. 하하하.
#1 그냥, 그만, 고만 행.
#2 음.
@1 그만. 음.
#1 이제랑 성님 뺏읍서.
#2 나가 뺏을게, 이젠. 나가.
#1 나 울어사주. 어깨 아팠 못 허쿠다.
@1 하하하.
#1 영 해근에이.
@1 예.
#1 이걸 이제 감물 들이민.
@1 음.
#1 이제는 저 믱사기들 곶아근앵에 이거를, 이거를 다 저 찌꺼기 문딱 곶라똥 물만 허주
만은 옛날엔 이거채 막 문데져주게. 경허어나민 이제 이 쭈신이.
@1 예.
#1 베 험벽에 싸근앵에 저 난간이나 마리, 마리 이제 칠허곡. 또 브른구덕. 브른구덕 칠
허곡 허민 색깔도 곱닥허곡 막 곱주게. 질기곡. 구덕이 막 질겨.
@2 음. 음.
#1 거난 이 감이 이것도 봐봐. 도구리도 이거, 이거 도구리 흔 백오십 년도 넘은 걸 거라.
@2 음.
#1 건, 이거 감 허난에 이렇게 허는 거지, 경 아녀시민 좀 먹언 다 엇어져 빗어. 감 들어
가난에 현 거주. 벌써 다 엇어전.

갈옷

@1 옛날부터 감은 무사 옷에 들여근에 입어수파? 어떻 알아신고? 저 존 거?

#1 존 거?

@1 음.

#2 누계가.

#1 사람은 실수하면은, 실수허멍 알아저가는 거주게. 아맹해도 감 타 먹단에 감물 들이난 에 빠지지도 안허곡 거 바짝허난에 헛주만은.

@1 음.

#1 흐쓸 유식허게 굴젠 허민 옛날 중국서 그 어부가.

@1 음.

#1 감물 그 썰에 영 현 디다가 그제 낚시줄로 씻는데 질기게 그렇게 씻다고.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곡. 음.

@1 음. 계난 감물, 감물 들인 그 옷이 좋은 점을 한 번 곱아 줘서.

#1 감물 들이민 일단은 제주도 옷이라,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물도 어려운 때 맨날 맨 날 밧디 강 검질메곡 일허멍 그때마다 어떻 옷 빨앙 입지도 못허곡. 건디 이진 물 이거 보 면은 알주만은 흑 색깔이주게. 경혜근에 비누칠 안 혜근에 그자 밧디 강 일하당 와근엥에 그자 대강대강 영 형 세수라도 혜난 물에라도 탁 와근엥에 팍팍 폐와근엥에 탁 걸쳐놋당 또 돛날은 밧디 갈 때 입엥 가고.

#2 냄새도 안 나. 계도. 경 허민.

@1 냄새도 안 나고.

#1 경허곡 또 하나는 이게 감물을 바짝 행 입으면 아이고, 들어강 검질메곡 으름에 그 일허젠 허민 뚝이 잘잘 허민이 옷이 달라부트주게. 건디 이거는 감물 세게 허면은 옷이 달라부트질 안허여.

#2 소락소락형.

#1 경허곡 또 시원헤여.

@1 음.

#1 시원허곡 또. 공부허는 사람들 말을, 말씀에 의하면은 뭐, 뭐 방충 뭐, 뭐 어찌구 이 거라 저거라 그거는 학술적인 얘기고. 우리 기자 살아가명 우리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옛날 에 물이 어려웠던 그런 제주도에서 그래도 코쿨허게 그치룩 서답 안 해도 대강 이렇게 행 굽만 혜근엥 해도 들황 입엥 잇엇다는 거. 또 몸에 달라부트지 앓는다는 거. 또 이거는 또 감물 들여 노면 질기잖아. 질기면은 옷도 이것도 나 이거 지금 입은 것도 이거 세 불, 이거 감물을 흐 이삼 년에 흐 번씩 혜근엥에 감물 덧물 들여근엥 입주만은. 입당 버치민 이젠 이걸로 옛날엔 얘기 기저귀도 허곡.

@1 음.

#1 또 구덕에 곱아근엥에 소락허주게, 얘기가게.

@1 예.

#1 거 요새 무신 습진이영 무신 뭐여 얘기덜 키우는 사람들 곤는 거 보민 그런 것이 옛 날 얘기 잇엇어게.

@1 예.

#1 애기구덕에 검질 영 낄안근에 그 우티 이런 거 헤근앵에 어멍 아방 입던 옷 특 행 그레 녹정 내불민 기자 오즘도 싸민 알드레 갈갈갈 알드레 새곡계.

@1 음.

#1 그 애기들이 피부병에 걸릴 수가 엇주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민.

@1 음.

#1 계근에 허곡계. 경허당 또 그거조차도 쓰당 혈민은 걸레허곡. 난 계난 이 감도이. 아무데나 심그지 안헤근에 그 돛통 옆이 통시 옆이 저, 저 심그, 심그주게.

@1 예.

#1 경허면은 이제 별도로 걸름을 안 헤도 이제 뿌리 뽀으멍 그 통시에 그 영양분을 빨아 먹영, 계영 감냥이 잘 크곡 열매도 잘 열아.

@1 음.

#1 거곡 또 더운 여름엔 또 도새기 그늘도 뒹곡. 거난에.

@1 일석이조네.

#1 경허난 거 저, 옛날 집 옆이 보면은 저 물 손아지게 허지 말아근에. 저.

@1 하하하.

#1 걸랑 편집해 불고.

#1 경형 허민은 그 통시 옆이 그 감냥을 심그주게, 일부러덜.

@1 음.

#1 경허면 별도로 거름 혈 필요가 없주게. 뿌리 번어가멍 이제 그 통시에 영양분을 빨아 먹영.

#2 감도 거름해사 잘도 뒹어. 경허난.

#1 경허난에 감도 하영 올곡, 도새기 그늘도 뒹곡.

@1 예.

#1 경헤근에 뭐 요새 유식헌 말로 일석이조엔 허는 거주. 또 무시거 물어볼 거 잇어?

@1 예, 이거 ㅈ, 이거 감물 들이는 거 허젠 허민 준비해살 게 뭐, 뭐 잇어마씨?

#1 이거 바로 ㄱ는 거. 이거, 그드레.

@1 예.

#1 요샌, 요새 사름덜 허는 거 보난 감을 믹사기에 곶안에 그걸 주맹기에 난에 그 저 짤 순인가 뿔로 짜는 거 닥안게. 경허민 곱닥허주만은.

@1 하하하. 예.

#1 경헌디 요새 이 풋감이 막 비싸. 경허고 허는, 이 여는, 이 낭 이신 디가 별로 엇어.

@1 아.

#1 경 허민은 육지 그 단감도 들어와.

@1 아.

#1 흔 콘테나에 얼마 현 디다가 우리가 물을 들여 보민 그거는 이, 이, 이 감물 들이는 게 이 탄닌산이라는 그거 때문에 우리 꼬락진 것이 탄닌산 때문에 경허는 건디. 그것이 모 자라기 때문에 이 풋감으로 영 물들인 건 옷이 바짝허곡 색깔도 별경헌 게 발류민.

@1 음.

#1 경헌디 육짓단감으로 해근엥에 물 짜근엥에 그 물들인 거는 헬랑헬랑헬랑헤여근엥에 혼 일 년이나 입으면 또 물들여사꼭 막 차이나메. 그거는 이제 쪼락지질 안헤. 탄닌산이 약 해주.

@1 음.

#1 으, 그런 차이가 있어. 거난 이제 옛날부터도 이제 제주선 이 풋감으로. 거난 이 풋감 남 심그는 건 먹젠 심그는 것도 아니고 이 물 들영 입젠. 옛날은 다 남자나 여자나 느나 옛이 아이들도 문딱 이 감물 들영 옷을 입젓주게. 경허난에 경허곡. 요샌 패션이여 무시 거여 험주만은.

@1 하하하.

#1 그뎨 다 일웃. 어쨌든 감옷은 일웃이라. 거난 감옷이엔 허는 것도 이제 갈옷이엔도 허곡 감옷이엔도 허주만은. 감으로 물 들이난 감옷이고, 또 물 들이민 이런 갈색깔 나난에 갈옷이고. 으, 그렇게 생각허믄 뉘 거.

@2 계난 이 성읍에선 옛날 삼촌들은 감옷이엔 헛수과, 갈옷이엔 헛수과?

#1 갈옷, 감옷이엔 안 헛어. 갈옷이엔. 갈옷.

@2 갈옷이렌.

#1 감물 들여근엥 갈옷들 멩글앙 입주게, 헤여근엥에.

@1 예. 쟁 다 뺏은 다음에 무시거 험 거짜?

#2 뺏인 다음에, 이제는 이제는.

#1 그만 뺏아.

#2 그만 뺏아.

#1 그만 뺏아근엥에 옛날식으로 허곡 현대식으로도 허곡 두 가지로 헤 볼.

@1 (웃음)

#1 옛날식은 영 행 허민. 그 감물 저레 쥐 보라.

@5 예.

#1 서끄는 걸랑 찍지 말곡게.

@1 예.

#1 이걸 하영 뺏아야 뉘는 때문에이, 물이 안 나오주게이. 거난 이거 미리 영 형 놔둔 거라. 언니 그거 집어 줘서. 영 해근엥에 옛날식은 이거를 영 행 여기서 막 주물러. 경허민 바짝허주게.

감물 들이기

@2 그렇게 허는 과정은 무신 거 험덴 험니까?

#2 이거 감물 들이는 거.

#1 이거 감물 들인덴 헤. 이거는 별 그 단계 말이 있어.

@2 감 뺏앙 감물 들이는 거.

#1 으, 거곡 감물 들인덴 허곡. 이제 이걸 다 해근엥에 뺏디 놔근엥에 물에 적젓다근엥에 또 들르민 또 물에 적정 허는 걸 발룬덴 허주.

@1 어느 정도, 그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1 이거 물. 이거.
#2 다 젖어야주게.
#1 다 젖어야주.
#2 골고루 이제 피멍 막.
#1 이걸 옛날 식이라. 음.
@1 그믐 감 쭉시 막 옷에 묻으켜예.
@2 다 털곡, 다 털곡.
#1 으, 이것이 그거주게. 자국이 있언. 요샌 영 안 허주게. 물만 딱 짜근에 허는 때문에.
@1 음.
#1 탁탁 털어근에 넣어. 경행 바짝허메.
@1 어떤 딴 잘 들어가고 어떤 딴 잘 안 들어가곡.
#1 아니, 아니.
@1 영도 허는 거 닳은디?
#1 아니, 아니. 막 주물르민 잘 뒀어.
#2 지난 그거를 잘 주물러사주. 경 안 허면은 안 들주게.
@2 계란 이렇게 행은에 물 들이는 거잖아양? 그다음에 널명 발레고 허는데 또 와서 물 적시잖아. 그거 하는 과정은 뭐렌 꼴아?
#2 발레는 거. 짓도 발레는 거.
@2 그 발레는 거는 햇빛에 너는 거고.
@1 너는 거고. 물 또 적시는 거는?
@2 물들이는 거?
#1 그런 거는 그런 말 엇인디.
#2 물 적성 널렌. 음. 음.
@2 물 적성예. 물 적성 널렌 헐 테주.
@1 그렇게 막 주무르는 걸 뭐, 뭐 헤 불라 영 안 험니까?
#1 여기선 기자 감물 들어덴 허주. 문데기주, 이거.
@2 잘 문데기라.
#1 음, 잘 문데기라. 저 감물 잘 들게 잘 저 문데기라.
@2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이제 들기 시작하네.
@1 그니까.
@2 풋감이난양. 저럴 때 감 씨 좃어 먹는 거 아니?
#2 어, 이럴 때도.
@2 하하하.
#2 흥나씩 삐죽삐죽 나오믄은.
@2 예.
@1 어, 어느 만이 허민 똥저 현 거 어떻?
#2 알아집니다게. 다 젓이민게.

@1 다 젖어민.
 @2 풀고루 다 이제이.
 #2 빌착허민.
 @2 빌착허민.
 @1 빌착허민, 음.
 @2 날 좋수다, 오늘.
 #2 오닐 날씨 잘 택해신게.
 @1 예, 비 오카 부덴 걱정해신디.
 #2 오후부턴 온텐.
 @1 오후부턴 온텐?
 #2 으, 으, 으.

말리기

@1 게른 이거 널어야 될 건데 못 널겠네.
 #2 아이고, 이거 이거 말릴 때사 비 안 오주.
 @1 하하하.
 @2 금방예.
 @1 금방.
 @2 이거 메칠 말려마씨? 이렇게 해서 몇 번 물 바랭은에 널려?
 #1 옛날에는.
 @1 으.
 #1 이치룩 해근앵에 그뎨 ㄹ치룩 그뎨 옛날은게, 저 집이 그치룩 들 날이 엇엇주게.
 @2 예.
 #1 해변드렌 밧디 가근앵 검질메당은에 물때 뉘민 가근앵에 물에도 들어사 뉘곡.
 @1 음.
 #1 또 밧디도 강 검질메고. 이 감물 들일 때가 물론 처서엔 허주만은 여름에는게 농서가 다 검질메는 게 농서주게. 경허난 이젠 이걸 허면은 이제사 무신 잔디밧이여 무신 무시거여 그때는 다 거자가 초가집이 사난 초가집이 탁 저 지붕 위에 널영 내비어.
 @1 아, 지붕 위에?
 #1 게민 밤이 이슬 맞곡.
 @2 이슬 맞아야 색깔이 곱텐예?
 #1 으으. 지붕 우이. 경허민 그 초가집 이제 생각행 보민 그 초가 지붕에이. 감물 들여근 앵에 그 그 발라가는 게. 이제난 이제 이거 이거 심으주만.
 @1 음.
 #1 이제 흔 이삼일 영 헤가민 이게 별경헤 가주게. 거민 지붕 우에, 초가집 지붕 우에 그 감물 들인 그 옷, 저 몸빼, 이 바지나.
 @1 음.
 #1 아님 이런 천들이 별경허게 익은, 그 그 색깔 변한 것이 삭 잇으면은.

@1 음.

#1 기가 막혔주, 음. 초가 지붕에.

@1 불러 불지 안해?

#1 아메도 무시거 지들르주게.

@1 음.

@2 하하하.

#1 지들라. 날아가지 안허게.

@1 게 천으로 험니까? 옷 멘들아근에 험니까?

#1 멘들양도 허곡 천으로도 허곡. 경허곡 또 나 이제 그 아까 벌써 벗어점시네. 이제 두 불, 세불 이제 저 경허곡이. 경허곡이 초불 헐 때는 감물 들이민 오래 거주만은 두불, 세불 헤 가민 빨리 벗어져 불어.

@1 음.

#1 응. 게영 그자 이치룩 헬랑헬랑 헤 불민 또 옷 입기가 뭐허난에 이제 바짝허게 헝 입 곡, 색깔 옷을 들영 입젠 두불, 세불 험주만은 그때 돼가민 색깔도 곱지 안허곡 빨리 또 흐 물흐물헤져 불고. 거른 이제 이런 것들도 들이곡. 또 이런 천 들이곡.

#2 요셋말로 허른 이거 들이른 코팅뒤 부는 거라.

@1 (웃음)

@2 예예.

#2 코팅뒤 부는 거.

@2 모르는 말이 엇어.

@1 예예.

경험담

@2 계난 삼춘네는 이렇게 물 들이는 거 언제적부터 헨?

#1 우린 우리 할무니.

@2 음.

#1 나 시집오난. 성님, 나 시집오난양 할무니가양. 베에 그때는 이제는 그 저 물을 짜근 영 허민예 아메도 이치룩 헨 거보단 약허주게. 이치룩허민 바짝헤영.

#2 바짝헝.

#1 아니 세상에 나 그 스물두 살에 시집오난에 그 어린어린헌 슬에양. 어린어린헌 슬에 그 이런 광목도 아니고, 베에 이런 물을 들여 노난예, 꺼꺼지킴디다게.

#2 으. 바짝헝. 베예. 으, 으.

#1 경현 요만이 헨 반바지를 만들안에 나안티 생각헨에 할마니가 이 감물을 들영 나 입 으렌 허난 아이고, 이디 굵어 불언양, 그 어린 슬이라노난. 나 스물두 설이라노난 경 헝 이 디 다 굵어전에양 정말 피 안 남뿐 헤수다게. 켜에 할머니한틴 입언다? 허민 예, 입엇수다 헤근에 헤도에 입지 못헤영. 계난 할머니가 곤는 말이 그거이 경형 입어사 2로우민이 손 으로 안 굵어도 그 옷 헤근영에 영영 굵어지곡 씨원허곡 막 조은다 허명. 윈 잊어불어지지 안합니다.

#2 경허곡계 요 우에 짚은게 스뭇게.

#1 요 우에 짚곡. 애기덜게 여름에 이거 헤근엥에 애기덜 건드령허게시리 헤근엥에 더꺼 주곡계. 이거 진짜 쓸뎡이가 얼마나 하수과계. 저 그 무시거짜, 애기 데려근엥에 밧디 검질 메레 가민 그늘막. 그늘막힐 때도.

#2 그늘에서. 천막ㄹ치.

#1 천막ㄹ치 헤 주곡.

#1 아이고, 감물 들인 것이 거자 참 생활허는 디 거자주, 거자라.

@2 경해도 성읍이난 그계 쪽 이어져 오는 거 아니라양?

#1 이만헌 디 엇어, 이젠.

#2 성읍이랑 말앙 할머니랑 ㄹ치 사니까 더 그 옛날 그 식으로 이제 더 허는 거주.

#1 우리 할머니가 만으로 백 세 뉘 돌아가섯주게.

#2 백 세 뉘.

@2 아이, 역사네.

#1 우리 씨할머니가. 나 으든, 으든 넷에, 나 시집왕 보난 으든넷이란게 에에, 살믄 얼마 나 살 거라. 잘 모셔사주.

@1 하하하.

#1 원원. 뒷날, 뒷해 뉘도 펜지롱 뒷해 뉘도.

@1 하하.

#1 결국은 만으로 백 살 뉘 돌아가시지 안헤신가?

#2 쉼ㄹ치 그뎡 잠시헛주.

#1 예구, 그뎡 막 고생이렌 생각헛주만은 그뎡 다 베운 거라. 예이고, 난 할머니한테 잘도 고마와.

@2 게니까 그난 성읍만 허민 선생님만 좇암수게.

#2 게난 어른덜허고 산 게 나중에는 그계 다 공부라.

@1 재산이라. 예.

#2 살 때야 얼마나 힘들게 살앗어게.

#1 아이고, 그뎡 전기도 엇곡, 수도도 엇곡.

감 털기

@2 자, 이렇게 허면 감 턴텐 헤?

#1 감 털어. 털어.

@1 감 털어.

@2 감 잘 털라.

@1 뭐 부튼 건 무신거엔 곶아? 뭐 부텃수과? 그디.

#2 감 부텃주게.

#1 감 계우살. 계우살.

@1 감 무신 거? 계우살?

#1 계우살.

@1 아, 계우살 부텃텐 곤는구나예.

#1 이것덜게.

@2 찌꺼기렌 안 허고?

#2 에이, 계우살.

#2 계난 이것도 안 털영 내볼른은 여기가 더 시커메져. 더 색깔이 진해져.

#1 벌써 여기 거메전.

@2 꺼명헌 감물 들엿구나.

@1 아이고, 아이고.

(감 터는 중)

#1 그 담요 털듯이 털어 봅서.

#2 옛날사 이치룩 행덜 다 허지 안헛어.

@1 이거 뭐허는 거마씨?

#1 감물, 감 쭈세기 털어내는 거.

@1 아깐 계우살이렌 헛게. 이진 쭈생이?

#1 쭈생이. 똬어. 강 널게.

@1 흐꼼만 이십서예.

#1 계민 이제 이거 내일쭈 뉘가민 별경헤 가.

#2 게 가민 물 적성 널곡.

#1 적경 물리곡.

널기

@2 어디에 널 거파?

(중략)

@2 이거 무시거 허는 거마씨?

#1 양?

@1 무시거?

#2 발레는 거.

@2 발레젠 너는 거.

#1 계민 이제 별경헤 갈 거.

(중략)

#1 언니 이거 폐왓십서. 나 몸빼 하나 들영 오크메.

(중략)

@2 헛던 거 다시 허고, 다시 허고이.

#1 예.

@2 지금 이진 옷 멘들아진 걸로 험수다예.

#1 예, 이진 저 상복. 상복 그 저, 저 영장나민 주는 것덜 모양 낫다근엿에 감물 들영 밧 일허레 갈 때 입주게.

@2 거난 완전히 이제 다른 덴 다 버려 부는데.

#1 거꼭 이건 감물 들연 입어났주만은 우리집 아방 하도 밧디 텅기명 매날 입어 노난 색 이 바레연. 색도 바렛주만은 이것이 막 약해져 불언게. 바짜해야 뚝도 안 찰 건디. 이거 막 바레 불언, 이치룩. 거난 이제 또 들이는 거주.

@1 입단 거 들여도 괜찮아마씨?

#1 예, 그냥 저 색은 초불 들이는 거추룩 곱진 안허주게.

@2 거난 옷이 너무 멜락허니까 허는 거구나, 이제.

#2 흐쓸 약허주만은.

@1 풀 맥이는 거추룩?

@2 음음. 풀 허는 거추룩.

#2 흐쓸 그, 흐쓸 그자 뻗뻗허주.

#1 언니 이건 빨랫줄에 널어 븍서예.

#2 으.

@3 아이고, 우리 삼춘 고무신. 곱다. 하하하.

@1 꽃도 그려지고.

@3 아이고, 이거 작품인게. 꽃 그려진 거.

#1 이거는 요번에 금년에 풀 현, 감물 현 거.

@2 경허난 색깔이 이치룩 행.

#2 경헌디 이제 보들보들허게. 아주 씨원허주.

#1 저디 강 털어 븍서.

@2 헛던 거는 약허게 헤도 뉘고이. 이 감 쯤시, 이거는 뭐 또 따로 뉘로 쓰기도 험니까?

#1 예, 아까 곶아수게.

@1 마루 따끈덴.

@2 응?

#1 이거 저 가져왔수게. 베 험벅.

@3 나 이거 한 말, 한 말 여기 놔도 뉘쿠짜?

#1 안 뉘어.

@3 안 뉘어? 족아?

#1 저기 들인 거 앗앙 갑서, 갈 때랑.

@3 아, 예. 고맙수다. 하하하.

@2 자꾸 말리명은예. 응.

@5 앗앙 가카마씨?

#1 아니, 널 거. 아니 널 거. 탁탁 털엉. 강 털엉 널렌 험서예. 옷들 조심헤여.

감 찌꺼기 활용

@2 마루 따끌 때 썸구나.

#1 더 뵗아사 뉘 건디 뵗을 시간 엇어 부난. 이젤랑 이결랑 앗아뉘.

@6 제가 뵗으까요?

#1 아냐, 뉘. 이레 답아근예.

@2 응. 우에. 계난 이렇게 헤 갖고 그 저 뺏아난 거.
전 해근에 이거 허민 이거 물 나누게.
@2 물예.
#1 물 나면 물 안 나더라도.
@2 음.
#1 이거 마리, 난간이나 마리 강 영 해근엔에.
@4 아. 경해근엔에.
@3 아.
#1 영허민 이것이 벤질반질 허멍 감이 워낙 질긴 거라노난.
@2 응.
#1 이것도 감물 칠허지 안헤시민 벌써 다 좀 먹엉 다 삭아 베실 거.
@2 맞아. 거난 원래 좀 먹엇던 것도이.
#1 계난 이치룩 자꾸 헤 줘야 뉘. 이렇게. 마라도 칠허곡.
@4 마루도?
#1 옛날 마리가게, 다 낭으로 뉘 거 아니라게.
@2 예, 빈작빈작헌 게.
@3 궤 헤도 뉘니까? 궤? 궤?
#1 으? 궤도 헤도 뉘고.
@3 응.
#1 경허곡 브른바구리. 브른바구리도 허곡.
@3 아, 좋다.
#1 브른바구리 이제 나가 가져당 헐 거주만은.
@2 맞아. 음.
#1 그난 이치룩 반질반질허멍 이제 오래가는 거주. 구덕 앓다근에 칠헤사켜. 구덕 앓당 칠허는 거 베여 주주이.
@2, 3 네.
@2 계니까 이게 쓸모가 많네.
(중략)
@2 험벽으로도 하고 종이로도 하는데.
#1 옛날은 저 험벽으로도 킬르고, 쉼엔 종이로도 허고.
@2 종이로, 종이로 허지.
#1 이건 종이. 이런 저 마께들도 저 좀 먹지 안허젠 허민 자꾸 이런 거 헤 줘야 뉘.
@2 아.
@1 그거 무시거 허는 거마씨?
#1 이것도 덩드렁마께.
@1 덩드렁마께에도 칠헤야 뉘?
#1 아, 칠허믈 오래 거주게.
@2 오래 가니까.

#1 좀 안 먹주게, 좀 안 먹어.
 @1 아, 마께에도 칠허곡. 또 어디에도 칠헤?
 #1 이제 구덕에도 칠허곡.
 @1 구덕에도 칠허곡?
 #1 마리에도 칠허곡.
 @1 구덕은 그민 저 종이 블라난 다음에?
 #1 으, 블라난 다음에.
 @1 음.
 #2 게믄 저것도 진짜[진짜] 이빠.
 @1 아.
 #2 색깔이 아주 갈색 나와.
 #1 이거 오래 가주게, 좀 안 먹영.
 @2 어.
 @1 감이 쓸모가 진짜 많은 거네.
 #1 응. 그 옛날은 이 풋감도.
 @1 응.
 #1 저 단지에 담아근에 뜨거운 물 비와근엥에 율랑들 저 먹어났어, 먹을 거 엇을 때들은.
 #2 맞아. 경허는 거.
 @1 아, 먹기도 하고.
 #2 울큰감.
 @1 울큰감?
 #2 응, 울큰감.
 @1 건 간식으로? 아님 반찬으로?
 #1 간식으로게, 아이들. 아이들 먹을 거 엇이난.
 @2 아아. 거 무신거 무신거 놔근에?
 #1 아니.
 #2 그냥 소금물에.
 @1 그냥 소금물에 저 풋감을 담가?
 #2 응.
 @1 풋감이영?
 #1 흐 일뤼 담아났수파?
 #2 응, 한 한 일주일만 잇으민 삭아, 그계.
 @1 으.
 #2 거민 그 찌라운 맛이 엇어져.
 @1 어.
 #1 영 허민 반들반들허곡 막 오래가주, 좀 안 먹영.
 @1 예. 이것도 색깔, 게민 발강하게 됩니까?
 #1 벳디 놔 똥.

@2 계난 저거 불그룽헤신게.
 @1 옷만 덴드는 줄 알아신디.
 @2 거 썬뎨 종이에 불란?
 #1 겐디 이거 아는 사람 나베끼 엇어.
 @1 나베끼 엇어?
 #1 아, 정말. 이렇게 활용허는 법을 아는 건 나베끼 엇어. 기자 감물 들이는 거베끼 몰라.
 @2 그러니까.
 #1 거난 나가 홀룽헌 거주.
 @2 예.
 (모두 하하하)
 @2 아, 성읍에서 제일 홀룽허지 안허여?
 #1 에이, 성읍리서민 뉘? 제주도엔 곶아사주.
 @2 아, 제주도에서?
 @3 아, 예예.
 @2 아이고, 우리 저기 서방님보단 더 홀룽허구나.
 #2 아니, 분야가 다르주.
 @2 아하.
 @3 홀룽하신 말씀입니다. 그지예? 분야가 다르지예?
 #2 분야가 다르지.
 @2 아, 멋져, 멋져.
 @1 혹시 그럼 감 맥인 구덕은 다르게 불르는 말 이수파?
 #1 응?
 @1 그럼 감 맥이민 또 무신 구덕이엔 곶으는?
 #1 아니, 아니. 그런 건 엇곡. 그자 브른구덕에.
 @1 응, 그냥 브른구덕에.
 #1 브른구덕에 이거 칠허민.
 @1 으.
 @2 저 오래 가곡.
 #1 좀도 안 먹곡. 좀 안 먹는 거지, 좀 안 먹는 거.
 @2 예, 색깔도 곱곡.
 #2 이레 더 칠헤라, 이레.
 @1 그건 무신 종이 불른 거마씨?
 #1 이거, 저 썬뎨 종이.
 @1 썬뎨 종이.
 #1 옛날 방 불르는 거.
 @1 방바닥, 옛날 방바닥 헐 때도?
 #1 옛날은 저 방이 구들에 이거 썬뎨 종이로 불랑 그 우에 유지름, 유지름허민 반들반들.
 #2 유지름도 허곡 콩지름, 콩도. 겐디 요새는 쌀포대, 쌀포대 썬엿 걸로 헤도 뉘.

@2 예예.

@1 아.

@2 그제 쉼엔 종이주게이.

#1 겐 나도양, 무신거 포장지 거튼 거 안 데껴 붙어. 불르는 거 이시카 부덴.

#2 아, 그거는 버리지 말아야 뉘. 웨냐면 쓸 데가 많아.

@2 우리 집인 김 구는 거 씩니다, 그걸로.

#1 양?

@2 김 굴 때.

#2 나는 그런 거 그런 거 뒷다가 제사 음식할 때, 전 부칠 때. 그냥.

@2 아.

@2 우리 어머니.

#2 으, 기름이 기름이 빠져.

@1 뜯을 생각 안 행 그냥 맨날 데껴 부는다.

@2 우리는 팔천 김, 김, 기름 칠할 때.

#1 뉘트. 영 형 발라 노민 별경헌게.

@1 반짝반짝 험신게.

@2 자, 물 들이는 건 꺾나수파?

#1 이제랑 감 타레 갑서.

@2 예.

- 조사 일시: 2021년 11월 1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권미소
- 제보자: #1 송순원 #2 김설자

제보자 정보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일월 십육일 화요일이고 여기는 표선면 성읍리에 왔습니다. 어르신 이름부터 곱아 줘서, 이름은? 송.

#1 송.

@1 순.

#1 순원.

@1 예, 몇 년생마씨?

#1 삼칠 년.

@1 삼칠 년생. 무신 띠?

#1 쥐.

@1 쥐띠, 예.

짚신 삼기

@1 오늘은 초신 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젠 와신디예. 초신은 삼젠 허민 뒤편부터 준비해 근에 차근차근에 어떻 행 만드는 거여 해근에 얘기해 주민 될 거.

#1 초신을 삼으자고 허면은.

@1 예.

#1 제일 준비되는 게 이게, 이게, 이게 네 가달인디.

@1 예.

#1 밑에 노가. 이게 이걸 보고 신늘이라고 허여.

@1 예.

#1 신늘. 게민 신늘은 자기 발로 흔 발이민 신 흔짜를 삼아.

@1 아, 이게 흔 발로.

#1 어.

@1 흔 발예.

#1 자기 발, 자기 발 흔 발.

@1 예.

@2 으.

#1 이렇게 해서 흔 발이민 요거를 요렇게 연결을 허주, 요렇게. 요렇게 연결헤영 신을 삼는다.

@1 예.
 #1 연결해놔근에.
 @2 저거 연결한 거 이수다, 옆에.
 #1 게메 요렇게 허면은 요렇게 허면 네 개가 뒤잖아.
 @1, 2 예.
 #1 요렇게.
 @1 아, 딱 네 개가 뒤네.
 #1 어.
 @1 음.
 #1 이렇게 허면은 요거를 요랑, 헤영 이 신을 삼주게.
 @1 예.
 #1 신을 삼으민 이덜로부터 삼아근에 허는디 요거는 뭐엔 허면은 신깍이라고 허여.
 @1 신깍, 예.
 #1 어. 신깍을 게난 영 미룻 행 비병 낫다근에 따로 비벼놔다가 하는 사람도 잇곡.
 @1 예.
 #1 그렇지 아녕 저 어디 드르에 다니는 신 삼을 때는.
 @1 예.
 #1 빨리 헐라고.
 @1 예.
 #1 그대로 혼 도리 이렇게 즐아강 신깍 만들어뒤 또 이렇게 즐아오곡 헤.
 @3 아.
 #1 그렇게 헤서 신, 이걸 짜는 거고. 이거는 신들벙이라고 헤. 아, 저 이거, 신, 이거.

짚신 부분 명칭

@1 신들벙이?
 #1 으, 뒤치기, 이거 이거 요거는 신뒤치기라고 허곡.
 @1 예.
 #1 요거는 신들벙이.
 @1 응.
 #1 이거 요거 요거는 신깍이라고 헤여, 신깍.
 @2 아, 위에도 깍이구나예?
 #1 아, 요거, 요거.
 @2 응.
 #1 요거를 처음은 요렇게 안 깨난 거주게.
 @2 으.
 #1 깨난 건디 이걸 깨면서 이걸 일부러 만들어, 이걸 이렇게.
 @1, 2 음.
 #1 갱 이거 신.

@1 요 앞에 요것만 신깍이 아니고 위에까지 신깍이라?
 @2 이것도 신깍, 요것도 신깍.
 #1 아니, 아니. 이거는 신깍이고.
 @1, 2 으.
 #1 이거는, 으 이것도 신깍.
 @1 위엿 것도 신깍.
 @2 신깍.
 #1 들른 거.
 @1 으. 그다음 그거 영 벗어지지 아녀게 무끄는 것도 잇수게?
 #1 무끄는 건 이거 아니라?
 @1 흐끔 풀어 봅서.
 #1 이게 길어.
 @1 예.
 #1 이렇게 심으면은 요거 두 개를 낵 요렇게 무끄주게.
 @1 음, 그 무끄는 건 무신거엔 곱읍니까?
 #1 이건 신들벙이.
 @2 신.
 @1 무끄는 게 신들벙이?
 #1 으.
 @2 아까 뒤에는 뭐라고?
 #1 이거는 신깍. 이, 뒤치기.
 @1 음.
 @2 흐하하하.
 @1 똑같애, 똑같애. 삼춘.
 #1 이렇게 허면은 안 벗어지지.
 @1 어.
 @2 예.
 @1 신들벙이로 무끄는 거예? 요딘 뒤엔 곱읍니까? 요딘.
 #1 이거?
 @1 음.
 @2 아까 뒤렌 곱아신디.
 @1 신들벙이렌 곱아신디.
 #1 으, 이거.
 @1 이게 신들벙이라고.
 #1 이거, 이거는 신들벙이가 맞는디, 뒤치기.
 @1 이건 뒤치기고.
 #1 이, 요건 요건 뒤치기고.
 @1 음.

#1 신들벙이고, 이거는 신짜이고.

@1 음, 요게 신짜이고, 음.

#1 이거는, 이거는.

@1 위엿 거는? 음.

#1 이게.

@1 딱, 예. 뭐 생각 안 나시는 모양이라.

#1 으, 요건 생각이 안 나. 요, 요, 요, 노 이름을 모르겠네, 뭘엔 헤난 건지.

@1 예, 예.

@2 음.

@1 게른 요거 아까 요걸로 신들을 요걸로 허는 거잖아예?

#1 으, 신들.

신날 삼기

@1 그른 요거 네 개 뒤편 이진 어디 이신 철이우파? 바닥에 다 깔리는 철이우파? 요 바닥에?

#1 요게, 으, 게난.

@1 이 사이에?

#1 예, 이디 신틀에다가.

@1 예.

#1 네 개를 꿰엿 허리에 무꿍 짜주게.

@1 아.

#1 게난 요, 요거는 신 저 무꿍 게 이디 오는 거고.

@1 예.

#1 이디 신틀에 강 깨엿 허는 거.

@2 자, 보민 삼춘 요거 쪼끌락허게 메어 부난 이진데, 요 길이만큼 안 뒬는 거잖아예?

#1 으.

@2 원래는 여디까지 올 거 아니?

#1 어.

@2 게민 신 길이는 요만큼이고 요거 뒬에까지 왕 요거 올라오는 거 아니파예?

#1 어, 어, 거.

@2 그지예?

#1 어.

@2 그민 여기 놀이 이만큼 길엿 요거 두 개 무꿍고 행 한쪽은 일로 가고, 한쪽은 영 여
꿍 일로 가고, 놀이 이만큼 올라온 거 아니?

#1 으, 놀이 이꺼정 올라온 거주.

@1 여기서 꺾나는 거?

#1 신놀이, 으.

@1 신놀이?

@2 게민 이진 옆쪽 올라온 거에 꿩.
#1 응.
@2 꿩 영행 앞에서 온 거랑 이르는 거.
@1 으.
@2 그든 요거 불르는 일름은 트로 생각이 안 나?
@1 으.
#1 으, 생각 안 나.
@2 예, 예, 예.
#1 요거 신, 신, 요거진베낀 생각이 안 나.
@1 뒤치기베낀예.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아까 저 날은 어떻게 만드는 거마씨? 신들은?
#1 신들은 저 뭘로 허느냐면은. 미삐쟁이렌 허믈 몰라?
@2 알아.
@1 알아마씨.
#1 뭐라? 억새.
@1 억새.
#1 으.
@2 요정도 허큰게.
#1 으, 억새 피어갈 적에 마지막 나와, 나오는 게 미삐쟁이라.
@1 음.
#1 그거를 딱 뽑으면 그 미삐쟁이 떨어 불민은 딱 뒤이가 그 억새 이파리 훑나가 남주게.
@1 줄기가? 썩 줄기예?
#1 그거를 물류왕 글로 노 꼬와서 신들을 허는다.
@1 으.
#1 신들이 왜냐면 그게 문지러와서 이 신 삼아근에 영 쥬울 적에 잘 쥬와져.
@1, 2 아.
#1 그 문지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꼭 신들을 놓주게.
@1 문지러운 건 어땡 헛 거마씨?
#1 민질민질, 잘 쥬와진다.
@1 아 민질민질허다고?
#1 미끄럽주, 줌.
@1 음. 게믈.
@2 요 정도부터 길이 헛 거 같애.
#1 으, 으, 으.
@2 예? 이 정도.
@1 그 미삐쟁이로 해서.
@2 영 허리에 무껴.
@1 저렇게 꼬은 거마씨?
#1 으, 으, 으.

@1 이렇게 꼬아서? 지금 신사라고.
 #1 이진 신사라고 꼬앙 헛는다.
 @1 예.
 #1 신사라는 툄랑툄랑헤여. 그거는 이디가 영 잡아도 좀 벗벳헤여.
 @1 아.
 #1 그, 그, 미삐쟁이로 끈 거는.
 @1 예. 그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멧 줄 꼬아신게마씨예? 이거 지금 보니깐.
 #1 이거?
 @1 아니 이거, 으, 이렇게 비빈 거, 어.
 #1 꼬아가면서 헨 거.
 #2 영, 영허주, 영. 이만이 노꼭.
 @1 으.
 #2 영 질어, 늘 거 해당 막 두드려.
 @1 맞아, 두드리는 거.
 #1 으, 툄룹주게.
 #2 툄류왕 깨어, 쟁 끈 거.
 @1 음.
 @2 계난 이거는 신사라고 헨 거난.
 #1 으.
 @2 신사라 어딿 거 행 왕 영 장만허는 디서부떠 얘기를 곶아 봅서.
 #1 이거 신사라는 어딿 거냐면은.
 @2 예.
 #1 제주도 안네 신사라가 이, 그전에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고 허니깐, 왜정 때.
 @1 으.
 #1 일본 놈덜이 이 신사라 종자를 가져 와서 여깃 사람 보고 심어서 일 년에 흐 번 가 호[오]마다 베를 멧 밭씩 행 바찌렌 헤낫주기게.
 @1 아.
 #1 그, 저, 베에 닷베 헐라고.
 @1 예.
 #1 쟁 베 행 받젠 그때 사용허단 일본 해방 뉘니까 벨로 필요치 안허니깐덜 다 신사라 씨를 종자를 잇이 헤불엇는다. 이게 어딿냐면은 저 교래리, 교래리 우에 그 미신.
 #2 돌.
 #1 아, 저 돌문화원.
 @1, 2 응.
 #1 거기 잇어.
 @1 아.
 #1 거기 잇는다, 나도 그디 건축헐 때 강 헐 때 보니깐 잇는다, 거기 다니는 그 직원 성 읍릿아이[따이]가 잇는다 가이가 이결 부탁허니깐 계민 조금 헤단 안네쿠텐 헨 이거 헤가지

고 이걸 헛주.

재료 준비

@2 거난 줄기를 비엿 온 거?

#1 어.

@2 퍼렁헌 걸 그냥 비엿 왕.

#1 어, 비엿 오민 여기서 두드려.

@2 예.

#1 막, 막, 마께로 덩드렁에 낱 두드려.

@2 퍼렁헐 때 두드립니까?

#1 으, 퍼렁헐 때.

@2 아 들렁 두드.

#1 들렁 두드리는 거보단 젓엿 두드리는 게.

#2 허허허.

@2 어느 게 좋아? 들렁 두드리는 거, 퍼렁헐 때 두드리는 거?

#2 아, 퍼렁헐 때 기냥, 즉시.

@2 즉시.

#1 경, 경해야 들르는 거 재기 몰라.

@2 음.

#2 널어야.

@2 음.

#2 들렁 널어야 깨엿.

@1 음.

@2 음, 일단은 퍼렁헐 때 두드렁 넓작하게 하는구나.

#1, 2 응.

@2 경헐 다음에 그거 들르민 이제 하나씩 하나씩.

#1 으, 깨어야주.

@2 다 깎 거예.

#1 으.

@2 깨는 건 그거 다 손으로 헉니까?

#1 으, 손으로.

#2 손으로.

@2 그거 들리민 영영 비비명 깨지는 안허고?

#1 아니, 아니.

@2 그냥 손으로 하나 다 하나.

#1 미릿 다 깨어낱.

@2 다 깨낱, 젓을 때 들릴 때?

#1 아니, 아니 들러낱.

@2 물러남.
 #1 물러남 깨어 쉽, 깨기가 좋아.
 @2 예, 예.
 #1 막 물르지 아널 때 혼 절반 이상만 몰류민 깨영 널영 재기 물르주게.
 @2 으, 으, 으. 계민 그 깨영 널영 물론 후제는 두드리는 거 엇어?
 #1 아, 잇어.
 @2 그것도 또 두드려?
 #1 물령 쓸 때, 이거 쓸 때는 또 두드려야 뉘어.
 @2 응.
 #1 경 아녀민 뺏뺏혀여.
 #2 계난 지금은 이거는 저걸로 허는 거주게, 나룩찍.
 @2 으, 나룩찍.
 @1 맞아.
 @2 예, 맞아.
 #1 이거 저는 거는 벳집으로 허는 거 맞아.
 @1 음.
 #1 이 깝도 벳집으로 허고.
 #2 나룩찍으로 허는 건이.
 @2 근데 나룩찍으로 헐 때도 높은 더 질긴 거로 해야 뉘덴 행.
 #2 짓도 질어야.
 @2 으, 높은 더 질긴 걸로 해야 헉디다만은.
 #1 계난 그계.
 @1 높은 미삐쟁이 허고.
 #1 미삐쟁이.
 @2 미삐쟁이로 허고, 그지예? 경행 나룩찍 옆엿 거 허드라도.
 #1 으, 나룩찍 계난 신깝도 나룩찍 그, 썩트머릿 거 짤라근예.
 @2 예.
 #1 썩트머리 마지막 썩트머릿 걸 짤랑 그걸로 보비주.
 @2 으.
 #1 신깝을.
 @1 음.
 @2 마지막 밋 트명이라 한 건 밑에 걸 얘기허는 거?
 @1 제일 마지막 거.
 #1 마지막 거.
 @2 끝엿 거예?
 #1 이거 그 고고리 나와난 디.
 @2 고고리 나와난 딛 거. 부드러운 걸로.
 #1 으, 그딛 걸로 헤근예.

@2 어, 예. 경 신사라 다 틀려수다. 경 다 장만헨.
#1 으.
@2 깨어왕 장만헨 그다음 영 이제 놀 놀 거?
#1 응.
@2 으, 놀 놀아, 놀.
@1 놀부터.
#1 놀 끈텐 허주 또.
@2 응, 놀 꼬아, 음.
@1 놀은 꼬는 게 아니고, 깎을 꼬는 거 아니파?
#1 깎은 비비주게.
@1 아 깎은 비비고.
#1 손으로 비비민 손가락으로.
@1 아 손가락으로 비벼? 깎은 영 비비고.
#1 으.
@2 놀은?
#1 놀은 이 손바닥으로.
@1 손바닥으로.
@2 게민 놀은 영 손바닥으로 비비는데 그거 길이는 어느만큼 헤여?
#1 아 거는, 뭐.
@2 막 질게 행 놔둬?
#1 영 헤영 아, 거는.
@2 이런 거.
#1 짧르, 건 길게 헤낫당 짧르멍 쓰는 거난.
@2 게난 영영 웅크리멍 질게 계속 놀을 행 놔두는 거구나예? 짧르 길이 재지 안행.
#1 어.
@2 경 만들 때야 길이 흐 발치 행.
#1 어, 으, 그렇주게.
@2 으.
#1 신 삼을 땀 그 사름 키가 큰 사름이든 족은 사름이든 자기 발로 흐 발이든 자기 신 발이 딱 맞아.
@2 으, 으.
@1 음.
@2 경 이제, 이제 놀 꼬아, 꼬아수다예? 놀 꼬곡. 깎도 꼬, 비병 놔들 거 아니예?
#1 어.
@2 깎은 어느 질이만큼 행 비빔니까?
#1 거시기 흐 뿔, 흐 뿔허고 요결로 하나 더 노민 뉘어.
@1 흐 뿔하고?
#1 요결로 하나, 하나 더 낭 요, 한 요 정도 뉘주게.

@1 흐 뽐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길이.
 #1 요 손가락 하나 질이 더 노면은 요 정도 뒤어.
 @2 으.
 #1 게든 그걸 허민 비밀 때는 이걸 꼬부리민 흐나가.
 @2 요정도 뒤겐다예, 흐 뽐 채 안 뒤겐다예, 반만큼예?
 #1 흐 뽐 안 뒤주게.
 @2 예, 예, 예, 예.
 @1 갱 그거 땡 개나 깝은?
 #1 그거?
 @1 행 놔듭니까?
 #1 이게 이 옛날 저 드르에 다닐 때는 보통 흐, 그자 한 짝에 스무 개.
 @1 음.
 #1 스무 개쯤 부찌는 디 집이서 놀 때 신는 신발은 흐 삼십 개 이상 부찌.
 @2 어.
 @1 아, 더 많이 부찌, 음. 이진 이진 지금 땡 개나 헨 거마씨?
 #1 이거는 흐 열다섯, 열 땡 개쯤 땡 거라.
 @2 이거 스무 개.
 @1 아, 양쪽으로 스무 개?
 @2 양쪽에 열 개, 열 개.
 @1 으, 근데 드르에 갈 땡 저게 한쪽에 서른 개? 아, 집에서 신을 땡 한쪽에 서른 개?
 #1 어 한쪽에 서른 갠디.
 @1 그믂 육십 개나 뒤어?
 #1 그게 웨 허냐믂 이 사이광 사이가 신 신어도 딱 부뜨니깐, 이 양말이 안 보일 정도로 딱 부떠.
 @1, 2 아, 촘촘허게.
 #1 떡까허게 부찌주.
 @1 으.
 #1 이거는 저 흐 도리씩 건너가면서 부찢 거고.
 @1 예.
 #1 그거는 매 도리마다 부찢니깐 떡까헤여, 신깝이.
 @2 게난 여자 신발, 남자 신발도 깝 들어가는 개수 트나지 아녀?
 #1 벨로 차이는 엇는디.
 @2 으.
 #1 여자 신발이 더 저 이 남자 거보단 떡까로와 저.
 @2 아, 곱게 허젠 허난.
 #1 으, 곱게 헤여야주.
 @2 더 떡까로워 여자 게.
 #1 여자들 여자 초신 신영 시집 가낫잖아.

@2 으.

@1 옛날에, 으.

#1 그때 저 새각시 신발만 삼는 하르방 성읍리에 살아났어.

@1, 2 으.

#1 그 어디서 외방서도 막 맞춰 가주게.

@2 으.

@1 아.

@2 어떻 트납니까?

#1 으?

@2 새각시 신발은.

#1 아 곱게 만들어, 그 하르방은.

@2 아 곱게 만들어?

#1 바로.

@1 물들염 해?

#1 이디 영 신깍이엔 저, 이디 미시거 잇어 이, 신꼴. 신꼴이엔 현 게.

@1 예.

#1 답아낭 이디 낭 놔근에 딱 이걸 막 뭐 칼, 데칼 닳은 걸로 딱 문질령 깨끗하게 만들주.

@1 아.

@3 음.

@1 재료는 똑같고?

#1 어, 재료는 똑같은디. 게난 이게 새각시 신발 신을 때 이디가 영 오그라지는 게 없어.

@1, 2 으.

#1 바짝해근에.

@1 음.

#1 경허게 만들안 그 풀주게.

@1 거난 이 신발에는 늘은 네 개 들어간 거마씨?

#1 어, 어. 이게 네 개라.

@1 예, 거난 늘은 보통 다 네 개만 들어가는 거라?

#1 다 네 개.

@1 아, 신늘은 다 네 개? 남자 신발이든 여자 신발이든.

#1 어.

@1, 2 얘기 신발도.

#1 건 마찬가지.

@1 쟁 신늘 네 개 해 낭 요디 나룩쪽으로 영영 짜명예?

#1 어.

@1 지금 밑에 창 만든 거 아니우파예? 그믄 요 깍이영 요거 이 바닥창이영 어떻 연결해 마씨?

#1 이거?

@1 요, 요거, 요거영 요거는 어떻 연결해마씨? 요기 연결은?
 #1 이거이 이렇게 행 네 가달이 이실 경우에.
 @1 예.
 #1 영 행 이실 때 일로 여기는 영 절기 시작하면은.
 @1 예.
 @2 짝 노명.
 #1 이 절아 오는 게 이디 딱 오면은 짝을 이디 부찌주게.
 @2 으.
 #1 계영 부짱 올로 영 왕 영 절와당 영 데와다근에 영 돌아가곡 허주게, 멧 번.
 @2 음.
 #1 경허믄 짝을 부찌지는 건디.
 @1 아.
 @2 계난 앞엿 거 절어낭 여기 짝 노명.
 #1 으.
 @2 다시 절고.
 #1 으.
 @2 짝 노명 절고, 짝 노명 절고. 여기까진 짝 노명 저는 거라예.
 #1 어.
 @2 거믄 여기 딱 펼쳐진 상태, 예.
 @1 으, 으.
 #1 계난 이진 저 뭐인가 드르에 텅기명 신을 거난에 이 사이를.
 @1 으.
 #1 흔 번씩 더 절아근에 신짝을 부찌주게.
 @1, 2 으, 으, 으.
 #1 경 아녀시믄 매 도리에 부찌시믄 이추룩 데짝.
 @2 계난 매 도리에 붙이면 촘촘허게 뉘는 거.
 @1 으.
 @2 집에서 신는 건.
 @1 으.
 #1 경헤.
 @2 경 짝 낱 즐고, 짝 낱 즐고. 여기 와가지고는 그냥 절당 여기 옆짝 낱 절고 여기까
 지 쪽쪽쪽 오는 거. 경 늘 요롱게 요롱게 요롱게 감, 삭암저, 감아가명 올라왕 이제 여기서
 는 옆짝 끼우고 이제 여기서는 다시.
 #1 이디 전문간계, 잘 알암네.
 (모두 하하하)
 @2 나 이거 주민 절아지쿠다.
 @1 하하하
 #1 아 진짜.

@2 거민 여기, 여기까지 왔수다예? 이제 옆쪽 끼운 걸로 요기는 그 구멍 신차세로, 신차 세렌 험니까?

#1 으, 신, 신, 신차세?

@2 어, 영 바농 끼우는 거, 대낭.

@1 대낭으로 뒤 잇는 거.

#1 대낭으로 뒤 거?

@2 예, 끼우는 거. 영 고망에 끼우젠 허민 뭐가 이십디다? 도구가.

#1 고냥, 고냥 뜰르는 게 있어.

@2 어, 고냥 뜰르는 거예. 거민 여기 끼웁 이제는 이 깍들예.

#1 으.

@2 영 줄 이으멍 하나 잇고, 하나 잇고, 잇고, 잇고 쪽 이어왕 연결허는 거?

#1 계난 이, 이 베는 이거, 이것이 이거라.

@2 응.

#1 이레, ㄱ튼 건디.

@1, 2 응.

#1 대나무엔 현 거는. 대나무가 이시면은.

@2 응.

#1 이 ㄱ작 엇는 디.

@1 불펜 님은 거, 이런 거.

@2 요런 거.

@1 응.

#1 ㄱ작 엇는 덜로 짤라, 양쪽엘 다.

@2 어.

#1 경혜영 현 짹으로 올로 고냥을 뜰랑 베를, 요걸 깨주.

@2 아 요거는 요거다.

#1 경혜영 대낭 꺾[깨]와가가든 이게 썰이 자연이 따라가.

@2 아.

#1 경혜영 이걸 깨는 거.

@2 아.

@1 음.

@2 요거는 필요엇수과? 요런 거.

#1 뭐라?

@2 낭.

@1 아까 대나무로 뒤 거.

@2 코, 코, 코바농처럼 낭 ㄱ찍허게 허는 거. 대바농 뒤 건 이거.

@1 음.

@2 끼울 때는 이거고, 요건 요런 데 구멍에 영 끼우젠 허민 영 담젠 허민.

#1 신.

@2 필요 있어?
 #1 신치기라고 있어, 저, 이 낭으로 멘든 거.
 @2 나무로 만든 거예.
 @1 건 신치기?
 @2 신치기? 신차세?
 #1 신차세엔도 뉘.
 @2 으.
 @1 아니, 이디 성읍리서 곤던 말.
 #1 우리 성읍리선 신치기라고.
 @1 신치기라고.
 @2 신치기, 신치기, 으.
 #1 다 제주도 안네서도 말이 틀려.
 @1 으 이건 모슬포.
 @2 모실포, 대정 거.
 @1 모슬포 가근에 물어본 거.
 #1 모실포 가민 뉘악세기 보고 짐제기엔 허는디.
 @2 짐제기.
 #1 으.
 @2 예, 예.
 #1 맞지?
 #2 예, 짐제기도 나옵니다.
 #1 이디 성읍리선 뉘악, 뉘악세기.
 @2 으, 뉘악세기, 거기서도 뉘악세기 나오고.
 @1 으.
 @3 호호.
 @2 짐제긴 일부.
 #1 짐제기엔 허드라고.
 @1 아.
 @2 대략 짐작허는 거렌.
 @1 그 요거 아까 저 산에서는 바로 깎을 바로 거기서 해근에 만들어근엔도 해수께.
 @2 그니깐.
 @1 아, 바로?
 #1 으, 으. 절아, 절아가명 헤여.
 @1 예, 그니깐 그거는 미신 신이렌 딱로 곤는 말 이수과?
 #1 거 저, 이 뉘헌 신 삼을 때 그걸 허는고 허니깐, 옛날은 상을 만나면.
 @1 응.
 #1 남저들이 탄 신을 안 신어.
 @1 예.

#1 상제가 신는 신발이 있어.
 @1 예.
 #1 세각신이라고 했어.
 @1 세각신.
 #1 흔 짝에 깎.
 @1 세 개단.
 #1 세, 세 개씩만 부짱.
 @2 절아근에.
 #1 여자 상제나 남자 상제나 신주.
 @1 예에.
 #1 경허단 그 대소상까지 헤영 신당. 대소상에 그.
 @1 낫나민.
 #1 북, 북을 벗으면 그것까지 흠치 슬아부는다.
 @1 아.
 #1 그게 따루 허는 신.
 @1 그게 세각신?
 @2 으.
 @1 어, 양쪽에 깎이 세 개 이신다는 말이구나예.
 #1 세 개씩만 부짱, 세 개씩만 부짱.
 @1 으, 세 개씩만 부짱.
 #1 그건 절아가명 부짱주.
 @2 음. 세각신. 또 각신 이름 뭐 이수과? 이거는 뜯각신이엔 불러?
 #1 아이.
 @2 그런 말 엇어? 촌각신 그런 말도 엇고?
 #1 촌각신이란 말도 난 들어보진 아녀.
 @2 영 이영 허는 거 뭐렌 불러?
 @1 그게 툃각신, 아까, 예 붓각신.
 @2 붓각신, 으, 으, 으.
 #1 아, 붓각신이엔 헨 말은 나도 들어봤는데.
 @2 으, 붓각신이엔 헨 말은 들어보고?
 @1 예.
 @2 세각신, 으.
 @1 게난 이거는 다 신사라로 헨 거짜? 전체 다 신사라?
 #1 으.
 @1 음.
 #1 재료 행 신사라베긴 재료가 엇엇젠 허난, 미신.
 @1 아.
 #1 꼭 그 사람이 헤오난 그걸로 헷지, 경 안 헤시민.

@1 계난예. 지난 번에 전화허난 재료가 엇어 영혜근예.
 @2 으.
 @1 예? 혼번 시연헤주시믄 안 뉘쿠과? 헛더니, 재료가 엇어, 재료 상 와, 영헨.
 @2 으.
 (모두 하하하)
 @2 나가 재료 장만헤 보주.
 @1 미신 신사라 키우젠?
 @2 하하하하 놉잇 거 비어당예.
 @1 하하하.
 #1 아, 저 어디 가믄 빌어올 순 잇어.
 @1 으, 들문화공원?
 #1 으.
 @1 음.
 #1 그디 직원이 요자기도 필요허텐 허믄 헤오쿠다 헨 나 필요엇덴 헨.
 @2 그 물리는 중간에도 막 두드립니까?
 #1 아니, 아니.
 @2 올 하나 하나 나오젠 허난.
 #1 혼번 두드려근예 널영 내비민 지냥으로 몰루주게.
 @1 이견 미신겘로 감안마씨?
 #1 건 칩.
 @1 칩?
 @2 으.
 @1 칩을 어떻게?
 @2 아, ** 신게.
 #1 칩을.
 @1 으.
 @2 껍질.
 #1 봄에 가근에 봄, 이견 봄에베낀 안 나와.
 @1 으.
 #1 봄에 가근에 한 사월말, 오월, 오월덜에 가근에 칩을 헤영 딱 둘로 쩌경 껍데기 깨영.
 @1, 2 으.
 #1 껍데기만 떼, 이거 껍데기 떼어다 낫당 현 거주게.
 @2 응.
 #1 계난 신사라 허는 사람들은 봄 나면 이거 해당 물령 놔두주.
 @2 계난 그거 불르는 이름은 엇어?
 #1 이거?
 @2 무슨 줄이렌 행? 엇어?
 @1 그냥 꼭?

#1 이거, 으, 꼭. 꼭으로베낀 헐 게 엇어.
 @1 음. 그 이디 막 발뒤치기 벗겨지고 허민 미신거 영 감아주지 아녘니까?
 #1 이디?
 @1 으.
 #1 이디 감아쥬 신언 우리도 어린 때 신어나긴 해신디.
 @1 예.
 #1 그제 대개 이, 저 아침에 드르에 가근에 이슬진 때.
 @1 예.
 #1 그때 뉘가민 이 신이 바짝허주게, 놀, 신놀이.
 @1 예.
 #1 바짝허면은 신, 뒤, 뒤치기가 아파.
 @1 아.
 #1 경헐 때 헛는디 뉘, 그 뉘에사 헤나신지, 무신.
 @1 음.
 #1 어린 때에 헤난 거.
 @1 머리카락도 헛텐 허는 사람도 잇고.
 #1 머리카락?
 @1 으.
 #1 그런 거 현 사름은 못 보고.
 @1 예.
 #1 미시거 이따근에 저 미신.
 @1 험벅, 험박 감양.
 #1 험벅, 험벅.
 @1 예.
 #1 험벅 감양 신는 사람들은 우리도 봐낫어.
 @1 예, 예, 예.
 @2 게난 그 새각시 신발 헐 때 예쁜 물들인 험벅 ㄱ치 놔가지고 저기 신작.
 #1 신발에.
 @2 으. 깝 안 헤난?
 #1 그런 걸로는 아녀고.
 @2 아, 다.
 #1 그, 저 벳집 ㄱ트머릿 걸.
 @1, 2 예.
 #1 그걸 뜯으면은 요만씩 길이가 뉘어.
 @1, 2 예.
 #1 허면은 그걸 잿물에 낵 솥아.
 @2 어.
 #1 잿물에 낵 솥아근에, 빨아근에 또 솥곡 또 솥곡 세 번을 솥으민 빨갱게 고와.

@2 아.
#1 그게 새각시 신발 삼을 때 경혜여.
@1 아.
@2 아, 경 잿물에 솟아나민 곱기도 허주만은 부드럽기도 허겟다예?
#1 으, 으, 으. 고와, 고와.
@1 으.
#1 계곡 이 오월장마에도 장마, 마가 안 들고.
@2 으음.
@1 신발에.
@2 음.
@1 곰팡이 안 핀덴 현 말이파?
#1 으.
@1 음.
@2 계란 삼춘은 이거 신발 만든 게 후제사 배원 현 거파? 어린 땀 보기만 현 거고?
#1 아이, 어린 땀 우리가 총각인 때부떠 그때는 고무신이 엇이난.
@2 어.
#1 열 멧 설꺄지는 하르바지가 산 때난 하르바지가 절아쥬 신어났는다.
@2 으.
#1 열네 설 난 하르바지가 돌아가셔 부난에.
@1 으.
#1 우리 하르바지가 칠월덜에 돌아가시고, 선덜 스물나흘날, 선덜보름날에 성읍리 습격이, 일차 습격이 들었어.
@1 아.
@2 음.
#1 갱 하르바지가 칠월덜에 돌아가셔 부난. 그다음은 나대로 삼으멍 살앗주.
@2 멧 설꺄지 초신을 신엇수과?
#1 나?
@2 음.
#1 초신 신건 디가 혼 스물 념더록 신엇어.
@1, 2 어.
@2 삼춘 오십.
@1 육십 년대까지.
@2 어, 경 고무신을 신은 게 그러면은 스물 멧 뉘사.
#1 으.
@2 고무신을 처음 신은 거? 어. 계문 이거 초신 한 번 신으민예, 한번 즐민 요거 현 곁로 며틀이나 신어져?
#1 이거? 이거 잘 삼으민 혼 털은 신어.
@1, 2 음.

#1 쟁 이거 한번 신다근에 이디 다이어근에.
 @1, 2 으.
 #1 신들이 보이난에 뒤집엉 신주게.
 @2, 3 으.
 #1 이거 신 데쌍 신넌 헨에.
 @1 신 데싸근에.
 #1 데쌍 신어낫주, 데쌍 신어낫어.
 @1 음.
 @2 계민 들에 갈 때도 초신 신고.
 #1 어.
 @2 비운 날은?
 #1 비운 날도 초신 신주, 무시거 신어게.
 @2 다른 낭신은 안 신어판?
 #1 나막신은 겨울에.
 @2 겨울에.
 #1 나막신은 우리 어린 때부떠 신곡.
 @2 신고.
 #1 으.
 @2 나막신도 고무신 나오기 전까지 즐장 신어져신가?
 #1 예, 예, 나막신은.
 @1 으.
 #1 겨울에 쟁 나막신 엇이른 어디 가질 못허주.
 @2 어, 여기에 겨울 눈 올 때 이거 밑에 뭐파? 뭐 뉘가지고 눈에 빠지지 말렌 허는 것도 해난?
 #1 아으, 그거 저 육지 사름덜.
 @2 설, 설피.
 #1 설, 설, 설빈인가 무시거.
 @2 어, 여기는 산 지경이난.
 #1 강원도 지경 많이 허주만은 여기선 그런 건 아녀.
 @2 삼춘 그런 건 안 해반예.
 @1 음.
 @2 예, 그럼 삼춘 여기서 가족신 같은 것도 안 신어보고?
 #1 가족신 하르방덜 신어 텅긴 거 봤는디.
 @2 으.
 #1 난 신어보진 아녀고.
 @2 신어보진 안허고, 보기만 허고예.
 #1 으.
 @2 이야, 뉘게 늦게까지 초신 신엇다예? 으, 계민 혼 열 몇 살서부떠 스물 몇 설까지는

삼촌이 직접 다 삼아신게.

#1 으, 나가 스물두 설에 군인가난애.

@2 예.

#1 그때꺼진

@2 스물두 설 군인가기 전까지는 초신 신은 거라.

@3 으.

@2 계민 그때도 지금은 요거 신사라지만 그때는 역새, 미비쟁이로 현 현 거?

#1 미비쟁이, 노는 미비쟁이고 저는 거는.

@2 산디쪽으로.

#1 산딜 여기는 가니깐 그때는.

@1, 2 으.

#1 산디쪽이 하낫주게.

@2 으, 으, 으, 으, 산디쪽으로.

나막신

@1 나막신도 혹시 집에서 만들아난마씨?

#1 우린 나막신 파는 하르방이 잇어낫주, 성읍.

@1 어.

#1 그 하르방은 나막신 전문적으로 허는 하르방인디.

@1, 2 으.

#1 그 하르방은 가민 나무 아정 강 나막신 파줍센 허면은.

@2 으.

#1 영 발, 영 췌어보도 아녀.

@1 어.

#1 영 눈으로 영 뵙 알아서 영 허민 짝 맞게 만들아.

@1 어.

@2 그 하르방 성함이 어떻 됩수과?

#1 강 찌디.

@1 돌아가신 거 아니?

#1 돌아가신 디 오랏주. (전화)

@2 계민 그 누구 하르부지. (생략)

@1 계난 남신, 나막신이엔 해낫수과, 남신이엔?

#1 나막신이엔 헛주.

@1 나막신예. 그거 허젠 허민 계민 낭은 어떻 낭으로 헤근예?

#1 낭은 종낭이엔 허는디 그 낭이 제일 계볶고.

@1 아.

#1 좋아.

@2 종낭.

#1 보통 그런 낭으로 헛주.
 @1 종낭예.
 #1 그거 엇인 사름은 마주목이엔 행은에 몽퀴낭.
 @1 음 몽쿠실낭.
 #1 으, 그걸로도 헛주만은 종낭이 좋아.
 @1 음. 그거 그른 그 영 통으로 요만큼 뚜, 뭐 이만이 어땡 뚜꺼운 거 행 가정 가야 뉼 거 아니우파, 그디예?
 #1 이만은 슬져야 뉼어.
 @1 계난 그만 슬, 현 걸로예. 가정 가민 그 다음엔 그건 어땡 헤마씨? 파?
 #1 그건 하르방이 목수가 알앙 혈 거난, 뭐 앓다만 주민 알앙 허주.
 @2 계민 그 하르, 성읍리에 나막신 허는 하르방은 그 하르방밖에 엇어난?
 #1 으.
 @2 그 여기 한〇〇 하르방은.
 #1 한〇〇 하르방은.
 @2 나중에사 현 거?
 #1 나막신은 저, 잘 파도 못허여.
 @2 그니깐 어쨌든.
 #1 한〇〇이 하르방은 어땡 헤여 알아?
 @2 거기도 조사헤나수다, 근데 그거는.
 #1 한〇〇.
 @2 예, 예.
 #1 한〇〇 아방이 저 진평이에 살단에.
 @2 으.
 #1 스습사건에 성읍리 완 살앗지만은.
 @2 원래는 성읍리 아니?
 #1 원래 저 진평.
 @2 진평이 어디라?
 #1 저 제동목장 안네 잇어.
 @2 아, 경행 거기 살단 여기 성읍리 온 거구나, 계난.
 #1 으, 사삼사건에 이디 왔주.
 @1 음.
 @2 아 경행 그런 거 만드는 거 나중에사 베운 거지예? 그 어르신은예?
 #1 으.
 @2 나막신이여, 바구니여 한 거예?
 #1 그 하르방이 거기 살명 이실 거라, 그때 하르방허고 탄 사람하고 둘러만 그디 살아나 난예.
 @2 으, 음, 음, 음.
 #1 저 제동목장 안에.

@1 으음. 나막신은 안 벗겨져마씨? 신발 벗겨져볼지 안해?
 #1 잘 벗어지진 안해.
 @1 계고 여기 안에 뒤치기나 이런 데 영.
 #1 이 뒤치기 모양으로 이디 영 들어가게.
 @1 오목허게.
 #1 으.
 @1 아.
 #1 다 그, 파.
 @1 그믐 가이도 여기 뒤치기 아프켜예? 벗겨지켜예.
 #1 예으, 경 미신 나막신 신영.
 @2 막 오래 다니는 거 아니?
 @1 음.
 #1 저 동네 어디 놀레 텅길 때나 좀 신겨.
 @1 호호.
 @2 초신 신어난 다음에 어떤 신 나, 나왕 신엇수과? 고무신?
 #1 고무신이주게.
 @2 어떤 고무신?
 #1 체암은 붉은 고무신이 나왔어, 붉은 거.
 @2 으, 검은 거 아니고, 붉은 거?
 #1 검은 거는 중간에사 나오기 시작했주.
 @1, 2 어.
 #1 우리 어린 때는 불그롱헌 거.
 @2 예.
 @1 음. 비싸지 안해?
 #1 빗나신디 말아신디 무사.
 @1 하하.
 @2 모양은 지금 신는 고무신하고 똑같고?
 #1 비슷, 비슷한 헛는다.
 @1 음. 고무신 영 들렁 학교 가고 헤수과?
 #1 여자 고무신 요새 저 나오는 거 보면은 남자 거, 여자 거가 옛날은 확실히 구분이 뉘 낫는다 지금 거는 벨로 구분이 안 뉘어 나와.
 @1, 2 으.
 #1 흰 고무신은 여자 게 확실히 구별이 뉘어 나왔는다.
 @1 예.
 #1 검은 고무신은 기자 여자도 신곡 남자도 신곡 시장에서 푸는 거 보믄 그렇게 허드라.
 @1 음.

가족신

@1 가족신은 아까 곧다근에 말아신디, 어른, 저기 뭐 아까 새각시 신발 말, 초신으로 삼은 거 말고도 가막창신 해근에.

#1 가막창신이엔 현 것도 우리 보기도 봐났어.

@1 예.

#1 봐긴 봐나도 우린 그런 거 행 신어보진 아녀고.

@1 음.

#1 가막창신이엔 현 게 보긴, 보기만 잘사는 사람덜 시집갈 때 가막창신.

@1 신엇텐, 으.

#1 그거 보긴 봐났는디 신어보진 못허고.

@1 으, 이던 뭐 저 사농허는 사름덜예? 가족으로 해근에 신발도 해근에 장화처럼 행 신어났수과? 이디 사농헌 사람?

#2 이디 창고에 강 옛날 꿰도 찍영 가라.

@1 예, 알았수다. 하하.

#1 아 그거는 그런 거는 안 해봤는디, 우리.

@1 쪼기 같은 거라도.

#1 초신 이 겨울에는 뭘 좋아, 저, 장화 모양으로 맥신이라고 해서 절양 신어났어.

@1 무신 걸로?

@2 맥으로?

#1 아니, 산디쪽으로.

@1 아, 산디쪽으로?

@2 그거 맥신이엔 굴안?

#1 으, 맥신.

@2 으.

@1 어.

#1 그거 이거 즐앙.

@1 장화처럼?

@2 어.

#1 이꺼지 오게시리 절앙.

@1 아, 목까지.

@2 보선이 뒤편, 보선 모양으로 올라오게.

@1 어.

@2 장화처럼.

@1 맥신? 산디쪽으로.

#1 우린 그건 즐앙 신어 봤어.

@2 계민 그거 즐을 때도 맥으로 허면 여기 눈 뵙으면 젓어 볼 거잖아.

#1 어.

@2 거기에 밑에.

@1 밑에 창에.
 @2 안 달안? 뭐 안 댐? 낭.
 #1 창이야 미신 옛날은 양말은 베랑 엇고 보선, 보선.
 @2 으.
 #1 사나이는.
 @2 밖에 헤가지고.
 #1 보선 신언 신주계.
 @2 아, 보선 신언. 신고 밖에는 뭐 안 대고? 아.
 @1 뭐 징 박거나 이렇게?
 #1 아니.
 @1 그런 거 엇이? 음.
 #2 나막신?
 @2 맥신.
 #1 맥신이렌 헨 게 잇어났어, 맥신.
 @2 계난 저런 보선 모양처럼 똬 거라예.
 #1 어, 어.
 @1 보선추룩.
 @2 보선추룩.
 @1 산디쪽으로 절안, 으.
 #2 하하하. ** 보선이 뜻아.
 @3 흐흐흐.
 @2 맞아, 맥신.
 #1 잘 아네. 이디 전문가네.
 @2 예, 전문가 허쿠다, 이제 한번 즈는 것만 배우민예.
 #1 맥신까지 아는 거 보난.
 @2 예.
 @1 맥신 처음 들으멘마씨, 저는.
 @2 맥신, 한사울 어르신이.
 @1 아, 얘기해 줘?
 @2 맥신 꼴아쥬.
 @1 음.
 #1 으.
 @1 그믐 신 종류는 아까 초신, 고무신, 나막신, 가죽.
 #1 가죽신이엔 헨 거는 옛날 하르방덜 사울이 부친은 고무 저 가죽, 가죽보선신도 잇곡
 그 하르방허고 우리 같이 토벌을 뎡겨봤는디.
 @2 으.
 #1 가죽웃이 잇더라고, 가죽웃.
 @1 아.

@2 음.

#1 계난 이 하르방은 가죽옷 입영 영 굽으민은 가시가 안 걸리거든.

@1 하하.

#1 가시니깐.

@1 예.

#1 허는디 우린 영 굽영 가도 가시에 걸렝 재기 못 가가민 재기 안 왓젠 그 하르방은 막
앞이 강 사들암서 막 욱허멍 헤낫어.

@1 아.

#1 우리 ㄱ치 토벌도 오래 텅겨낫주게.

@1 음, 토벌은 미신 토벌?

#1 그 하르방은 사삼사건 당시에게.

@1 아.

#1 한라산 토벌 다닐 때에.

@1 음.

#1 한라산 이 남한, 남쪽은 그 하르방 모르는 디가 없어.

@1 어.

#1 계난 밤에도 가다근에 큰 나무 강 툃허게 이렇게 안아봐서 이거 지형이 어디다 이렇
게 얘기헤.

@1 아, 나무만 안아봐 가지고.

#1 그렇게 얘기헐 정도라.

@1 음.

#1 그런 하르방이난 토벌대들이 질 안내자로.

@1 예.

#1 질 안내자로 그 하르방을 토벌 간 때 꼭 선발대로 들앙 텅기주.

@1 예. 그믄 그건 노리가죽인가?

#1 노리가죽인지 뭐인 가죽인지 몰르고 기자.

@1 음.

#1 그 가죽옷 헨에 영 입언 꼭 하드라고.

@1 음.

패랭이

@1 패랭이도 삼춘, 영 좋아?

#1 좋아져.

@1 절아지지예? 패랭이.

#1 밀집패랭이 절앙 써낫주.

@1 거난 밀집패랭이 허젠 허민 어땡 헝 멘들어마씨?

#1 밀집 ㄱ트머릿 거 따근에.

@1 어.

#1 일곱 겹[겹]을 헤사 그걸 따.
 @2 일곱 겹?
 #1 일곱 겹[겹]을 해야 판넨 허니깐.
 @2 으, 일곱 겹 행 판넨 현 말은 무슨 말이우짜?
 #1 그 일곱 겹[겹] 헤근에 따라 이쪽이 이만이 넓게 나오잖아, 이렇게 좋아야.
 @2 어, 아, 일곱 겹을 넣영.
 #1 으, 일곱 겹을 놔서.
 @2 아, 줄기 일곱 개를 딱딱딱딱 일곱 개를 낳 영 늘, 늘 꼬는 거?
 #1 늘 꼬는 거라게 저.
 @2 아, 영.
 #1 손으로 저는 거주.
 @2 아, 예, 예. 일곱 개를.
 @1 머리 따는 거주록.
 #1 으.
 @1 예, 예.
 #1 그거 따는 거주게.
 @1 어.
 #1 갱행 그.
 @1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 꼭대기에는 뭐 무슨 생이방석, 까마귀방석 영 현 거 잇수과?
 #1 그걸로 흠치 기자 저 시작할 때부터 주어져, 만들어져.
 @1 아, 그든 제일 처음에 그거를 아까 일곱 겹[겹]으로 헤근에 막 길게 이케 꼬양 놔두는 거과? 다?
 #1 아니, 계난게 어떤 땐 기자 흔 두어 발 그거 절아지민 그것도 페랭이 주워동 또 모질리민 또 절곡 허명 헛주, 자꾸 그 흔 번에 이 자락낭은 허지 아녕.
 @2 계민 즈는 거는 페랭이 만들 대는 길게 절기만 한 거?
 #1 으.
 @2 갱행 그거 영 뱅뱅뱅 감아가명 바농질, 영 바농질 주는 거?
 #1 어.
 @2 어.
 #1 바농, 바농으로 영 못아줬주.
 @2 못아주는 거예. 일곱 겹으로 행 길게 이것도 길이 재지 안행 쪽.
 #1 아, 기자 뭐 그건 무조건 모양 절아야 뉘어.
 @2 이으명 이으명, 으, 으, 으.
 @1 처음 시작할 땐 어땜 헤근에 시작합니다?
 #1 모저 꼭대기부터 시작해여.
 @1 여기 꼭대기서부터예.
 #1 으, 꼭대기부터 절아와, 주어, 시작해영 주어가주.
 @1 이렇게 영영 돌리명은예. 이것도 영 요긴 미신거여 곤곡, 밑엔 뉘엔 허는 거 이수과?

#1 으, 이견 모저 망이고, 이견 모저 전이고.
 @1 어, 이견 망이고, 요건 전이고예? 요저 요렇게 차양 뒤는 건예? 그건 다른 거랑 다 똑같네.
 @2 어, 여기 가운데는?
 @1 요 가운데는?
 @2 가운데는?
 #1 가운데는 미시거 없어, 이게.
 @2 어.
 #1 뭐 잇어?
 @1 음.
 @2 아, 뭐 잇어?
 #1 으.
 @1 그믄 요렇게 꺼꺼지는 부분은 만들 때 좀 힘들지 아녘니까?
 #1 어, 거기 가믄 굿어.
 @1 요기 꺼꺼지는 디랑 요긴 이렇게 뒤 데.
 #1 그디 영 꺼꺼질 때.
 @1 으.
 #1 그디가 흐뎡 굿주.
 @1 건 어떻 헤근에 해야 험니까?
 #1 그거는 이디는 평상시에는 뵙 동글허게 주워 오당.
 @1 응.
 #1 이디 왕 이렇게 벌리기 시작헿은 이걸 막 늦춰 가믄 줘야 뒤어.
 @1, 2 음.
 #1 막 늦춰 가믄 주우면은 이게 흐뎡 벌어지주게.
 @1, 2 음.
 #1 경헿 줍지 안헿은 안 뒤어.
 @1 음. 쟁 주로 여름에는 페렝이 많이 썰지예?
 #1 으, 여름엔 페렝이베낀 쓸게 잇주게. 여저들은 샷갓.
 @1 아, 여기는 샷갓도 써수과?
 #1 성웁이 샷갓 즈는 하르방이 잇어낫주.
 @1 아, 샷갓은 대로?
 #1 으.
 @1 대샷갓? 음.
 @2 샷갓 즈는 하르방은 툃난 하르방? 아까? 나막신 허는 하르방이영.
 #1 아으, 틀리주.
 @2 틀려, 틀려?
 #1 거.
 @2 샷갓만 전문적으로.

#1 샷갓 즈는 전문적으로 허는 하르방이 잇어났주.
 @1 음, 이젠.
 #1 예, 그 하르방 아덜은 잇주만은 그 하르방 아덜은 헐 중.
 @1 안 헤?
 #1 자기가 만들켄 헤지켄 허명도 안 헤여.
 @1, 2 어. 몰라.
 @2 그 하르방 아덜은 몇 살 난 사람이우파?
 #1 시방 혼.
 @2 시방 혼.
 #1 팔십, 팔십구?
 @1 나이 많이 들엇네.
 @2 이름, 이름 어떻 됩수과?
 #1 문○○.
 #2 누게?
 @2 어?
 #1 문○○.
 @2 문○○?
 #2 동갑인가?
 @1 음.
 @2 문○○?
 #1 문○○.
 @2 음.
 @1 이제 살암수과?
 #1 으, 일반에 살아.
 @2, 3 일반.
 @1 일반, 이던 몇 반이우파?
 #1 우린, 이디?
 @1 응.
 #1 이던 칠반.
 @1 칠반.
 @2 하하하.
 @1 넓구나예, 몇 반까지 이수과?
 #1 구반까지 잇어.
 @1 아, 잘도 넓구나, 성읍도예? 계난 여름 모잔 주로 페렝이허곡 샷갓예?
 #1 응.
 @1 페렝이는 밀낭으로만 헉니까? 다른 거로는 안 헤?
 #1 아, 저 지녕이보리로도 허여.
 @2 지녕이보리, 아.

@1 아, 그거, 그거는 그게 더 좋음[줍]니까? 밀낭이 좋음[줍]니까?
 #1 밀낭이 좋아, 질겨.
 @1, 2 아.
 @1 보리낭으로 현 건 햅빔 야려?
 #1 으, 야려.
 @1 음.
 #2 페랭이 안 좋아 볍디가? 미신.
 #1 페랭인 무사 안 좋아? 미신. 저 사람 씨집오기 전에 원 초신을, 초신을 다.
 @2 처지 못힐 때.
 @1 여자 삼춘 건 안 해 줬구나게. 흐나 좋아 줍서게.
 #1 이디 씨집 오난에 메누리 시집온 때 첫 해 해 주는 게 샷갓이라.
 @1 아, 선물로?
 #1 어?
 #2 건 샷갓이주.
 #1 샷갓, 계난.
 #2 페랭인 안 해뵈주게.
 #1 샷갓 해주민 여자는 페랭이가 필요 엇거든.
 @2 아.
 @1 아, 계난 씨집 오민 검질 하영 메렌 샷갓 선물헌 거파?
 @2 아.
 #1 씨집 오는 해에 첫 번을 해주는 게 샷갓이라. 씨집이서.
 @2 아.
 #2 사람마다.
 #1 것도 조금 사는 집이라야지 경 아년 집은 해주지도 아녀.
 @1 이디, 이디 성읍리만 경 험니까? 표선도 경 험니까?
 #1 표선이는 아녀고.
 @1 성읍리만.
 @2 아.
 @1 계난 그 샷갓 씨근에 일허렌 허는 말이주예? 예? 허허허.
 #2 허허허.
 @2 계난 샷갓 받앙 그거 씨볶디가?
 @1 샷갓 받은 생인게.
 #2 받음은 미신.
 #1 우리 집이 메누리들은 다 받아실 거라.
 #2 예예.
 @1, 3 하하하.
 #1 아 나가 샷갓, 샷갓 흐나 가져오면은.
 @2 으.

#1 쉼 짚엄 밧 흐루 갈아줘야 돼어.
 @2 아.
 #1 그렇게 까격이 뉘, 비싸.
 @1 오호.
 @3 음.
 @1 밧 흐루 갈아준 갑[깍]으로.
 #1 으.
 @1 샷갓 하나 강 반앙 오는 거구나예.
 #2 하하하.
 #1 으, 나 그 집이 밧 갈레 멧 번을 갖다왔주.
 @2 맞아, 맞아.
 #2 건두와게, 거 쓰든.
 @1 아, 건두와?
 #1 건듭곡 비 와도 비 안 맞곡.
 @1, 3 음.
 @2 샷갓만 써수과, 거기 막 뉘 저기 천이나 영 돌렁 써수과?
 #1 샷갓 우이.
 @2 샷갓 우이.
 #2 무시거 더끄주.
 #1 샷갓 우이 저.
 @1 수건?
 #1 옛날은 제라허게 잘허는 사름은 뉘 허느냐면은.
 @2 응.
 #1 창호지 잇잖아.
 @1 예.
 @2 맞아, 으.
 #1 창호지에 유, 그.
 @1 지름?
 #1 지름 행 맞침 절라.
 @1, 2 으.
 #1 그걸로 샷갓 꼭지를 싸놨어.
 @2 음.
 @1 아.
 #1 샷갓 밧도, 밧지 말라고. 비도 크게 허민, 비도 안 들어.
 @1 음.
 @2 어, 삼춘 아까 바농쌍지에 불른 종이 옛날에는 경헨 블라나지 안헤연?
 @1 유지름.
 #2 유지름 옛날 불른 거 그때 기냥.

@2 그냥 그거, 그거? 어.
 @1, 3 음.
 #2 계난 샷갓이엔 헌 건 이 쏘곶에 망이 또르 만들주게.
 @2 음.
 @1 아, 그건 미신겔로 만들어진 거?
 #1 거?
 #2 그거 영영영.
 #1 대나무로 만들어.
 @1 대나무로.
 #2 고양이.
 @1 고양이.
 #1 그, 거기서 다 만들어주주.
 #2 다 만들어줘.
 @2 음.
 #1 건 머리에 맞게시리.
 @1 여기 영 딱 맞게, 딱 들어가게.
 @2 음. 그거 썩 머리 아프지 아녘니까?
 #1 아으, 아프지 아녘고.
 #2 아니 흐 * 씩 베지 아녀.
 @2 베지 안허여.
 #1 무겍지 아녀난.
 @1, 3 음.
 #1 그 대이, 대를 멧 개를이 그 기술자가 떼내는고 허니깐.
 @2 어.
 #1 제일 췌 번 꺾데기 쪽으로 떼넝 샷갓이 제일 비싸.
 @1 아.
 @2 가벼워?
 #1 이거 두 번차 그.
 @1 꺾질은.
 #1 꺾질 부짱 떼넝 거는 가격도 좀 싸.
 @2, 3 어.
 #1 그건 좀 여리주. 체엄 나온 게 서대샷갓이라고 해서 비싸주.
 @1 서대샷갓.
 @2 제일 꺾질.
 #1 부짱 게 질겨.
 @1, 2 으.
 #1 그게.
 @2 그게 서대샷갓이렌 험니까?

#1 으, 서대삿갓.

@1 음.

#1 비싸, 거는.

@2 이름은 들어봐신디.

@1 응.

@2 서대삿갓인 줄 몰랐지만. 진짜인지 모르겄고, 확인.

@1 확인.

@2 예.

겨울 모자

@1 그다음에 겨울에는 모자는 뭐 썬마씨? 여기는.

#1 여긴 무신 베랑 쓸 게 잇어?

@1 경해도 눈도 하영 오고 허믄.

#1 계난.

@1 뭐, 뭐, 휘양이라도.

#1 눈도, 눈도 하영 오편 허면은 어디 갓어게? 그자 집이서 맥이나 즐앗주.

@3 예.

#1 경해도 눈도 하영 오편 허면은 어디 갓어게? 그자 집이서 맥이나 즐앗주. 부자칩이덜은 거 늣, 맥 즈는 사람 빌어당 일부러 맥 즈는 사람 빌어당 겨울엔 즐아.

@1 어.

#1 곡식덜 놓젠.

@1 예. 것도 다 나룩쪽으로?

#1 으, 아 이디.

@1 산디찍.

#2 상방이 영 헤근앵에.

#1 부섭 박아.

#2 부섭.

#1 삼방에.

@1 부섭 박아근에?

#1 어. 거기서 앓아근에 맥도 좃곡.

#2 나무 허영 그디서 불살랑 즐아.

@1 어.

#2 상방이서.

@1 으.

#2 계난 이, 저 주방도 흔디.

@1 응.

#2 흔디 안네 흔디 기자 이런 상방이민 이견 주방.

@1 응.

#2 불살랏주.

@1 상방이 저디, 저디파? 부억 가는 디?

#2 아니, 상방이 마리주게.

@1 마리가 상방이지예? 예.

#1 마리 위쪽에 부섭 박아근예.

#2 계난 우린 부억 저디 따루 탄 칸에 헛단.

@1 어.

#2 이제 나이도 들고 허난 저거 방이주게, 방.

@1 어.

#2 방 기자.

#1 방 헛당 부억으로 만든 지가 한 삼 년.

@1 음.

@2 얼마 안 뒀구나?

#1 저, 저쪽에 큰 부억이 잇주.

@1 예, 계난 그.

#2 이제 밥헤먹을 만이만 아무것도 허지 아녀고.

@1 겨울에 뭐 천으로라도 영 쓰는 거 엇수과?

#1 우린 베랑.

@1 아니면 그 뭐 짐승 가죽으로나 이런 걸로 노리가죽으로 뭐.

#1 거 늑신네들은 행 쓰는다.

#2 것도 안 헤여.

#1 젊은 사람들은.

@1 아.

#1 겨울 젊은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아녀주, 겨울에.

@1 예.

#1 집에서 쉼출이나 주고, 그자.

우장

@1 저, 쉼 보레 갈 때 우장.

#1 건 비을 때.

@1 음.

#1 우장.

@1 우장은 어떻 행 허는 겨우파?

#1 우장 어떻 허여? 새, 새 불랑, 이파리 불랑은예. 새 이파리 영 너울 불르는 거를 거 너울 불람젠 헤여.

@1, 2 어.

#1 계난 너울 불랑 그거 불라근예 그걸 우장 짜주.

@3 음.

@2 맨 겉엿 것만 불러녕 허는 거? 떼어녕 허는 거?
 #1 이파리, 어, 이파리, 이파리 쪽으로.
 @2 이파리 쪽으로.
 #1 대나무에 심어근에 확 홀트민 거 이파리만 떼져.
 @2 어.
 #1 경혜여근에 그걸로 우장 짜는 거주.
 @1 우장 짜젠 허민 그 어땡 행 영영영 어땡 여끄는 거파?
 #1 그, 우장을 짜명 곶아사주.
 (모두 웃음)
 #1 매날 곶아봐도, 미신.
 @2 그민 그 우장 안에 들어가는 그, 노도.
 @1 그물 닳은 거.
 @2 영 꼬아 놔둬니까?
 #1 꼬아근에 허주.
 @2 어, 꼬아 놔뵤 이제 새 행 여기 영 노명 영영영.
 #1 그거는 우장 짜는 거는 그자 흐, 흐 발 정도씩 짜, 저, 꼬아.
 @2 아.
 #1 꼬양 길면은 이거 자꾸 땡겨내질 못허니깐.
 @2 어.
 #1 흐 발 정도 헤근에 다 써져가민 다시 부짱 허고, 부짱 허곡 허주.
 @2, 3 음.
 @1 그 안에 들어가는 노를?
 @2 어.
 @1, 3 음.
 @2 꼬아 낫당예?
 @1 그 우장 하나 멘들젠 허민 새는 어느 만이 잇어야 뉘마씨?
 #1 새 허민 열 단 쫘 더 뉘어. 열다섯 단은 들어가얏 거라.
 @1 어.
 @2 하나예? 우장 하나예?
 #1 으.
 @2 껍질만 벳겨녕 허는 거난.
 #1 껍질 벳겨내 뵤자, 흐 줌, 요만이도 안 헤여.
 @2 어.
 #1 흐 단 헤봐야.
 @2 아.
 #1 얼마 안 헤여.
 @1 음.
 @2 열다섯 단, 아이고.

@1 그믐 그 안에 들어가는 노는 무신 걸로 험니까?
 #1 거는 저 미로도 꼬꼭, 신사라로도 꼬꼭 허주.
 @1 아.
 #1 옛날은 이 야속헌 하르방털은 뭇총 험, 이, 그늘게 꼬안 헤낫어.
 @1 아, 우장 안에 그.
 #1 어.
 @1 그물같이 허는 거를? 음.
 @2 음. 신발 험 때는 그 노 꼬는 거 뭇총으로 안 헤뵈수과?
 #1 안 헤뵈.
 @2 그건 안 험? 우장만?
 @1 음.
 @2 우장허는 것만? 음.
 @1 신발하고 모자만 일단 여쭈뵈는데. 혹시 다른 거 여쭈뵈 볼 거 잇습니까?
 @2 없습니다.

궤

@2 아까 저기 궤 사진 찍으렘 허는 거.
 #2 으.
 @2 그거 뭇 보관헤난 거과?
 #1 옷도.
 @2 예.
 #2 옷, 불좌근엿에 그 안네엿 뭇 불르주게, 불랑 옷 노는 건디.
 @2 음.
 #2 이젠 내부난에게.
 @2 내부난에 옛날에는 저런 궤에밖에 옷 놀 데 엿어 부난.
 #1 저게 우리 하르바지 시절에 쓰단 거라.
 @1, 2 음.
 #1 켜디 지금꺼지도 꼬딱 안 험어.
 @2 게니깐 낭이 좋으난.
 #1 으. 옛날 낭이니까.
 @2 으, 옛날 무슨 낭으로 만든 거 닳으우과?
 #1 저게 굴무기 아니라게.
 @2 굴무기 아니라예? 궤 옷 보관허는 걸로 하나 뵈으시겠습니까?
 @3 예.
 @2 예, 그믐 옷 보관헌다는 구술을 쫓 더 얻으십시오.
 (모두 하하하)
 @1 처음부터 저기 놔두지 안헤실 거 아니우과? 이 집이, 집안에 놔두지 안헤난?
 @2 어디?

#1 저게.
 @1 음.
 #1 우리 아버지네가 그 하르바지한테 물린 게 저게 두 갠디.
 @1 음.
 #1 저런 게 두 갠디. 우리 아버지네가 이젠 큰아들이 장계가게 뉘날 주고.
 @1 어.
 #1 그다음은 나가 두 번째니깐 나를 하나 주고 헛어.
 @1 음.
 #1 계난 나는 또 자식을 장계 보내니깐 줘버리고.
 @3 음.
 #1 저거는 우리 큰형수님이 살단에 쓰단 사용허단.
 @1, 3 아.
 #1 요 흐, 돌아가신 지가 흐 덜쯤은 뉘어. 계니깐 그 자식덜은 시에 사느디 필요엇수덴 셋아버지 이거 가져 갑센 허난 아정 왓주.
 @1 아.
 @2 저거 대계 오래된 건데.
 #1 골동품이엔 허난.
 @1 예, 나라시든 가정 가켜.
 @3 하하하.
 @2 잘 남깁서, 잘 남깁서.
 @1 으.
 @2 옛날엔 영 집드레 궤 어디, 어디쯤에 궤를 영 보관해놔수과?
 #2 사름마다 궤도 **.
 #1 시렁이라고 해서 이디 구들레 시렁을 만들어, 궤 우에 시렁을 만들어놔주.
 #2 시렁 위에 노민 다 보이게 놔.
 @2 여기는 시렁이엔 헤수다예?
 #1 예.
 @2 시렁.
 #1 빈지엔도 허곡.
 @2 빈지엔도 허고. 백장은 안 허고?
 #1 백장이엔도 곱아.
 @2 백장도 헤? 뉘를 더 많이 곱아? 시렁을 더 많이 곱아?
 #1 백장이엔 헤여. 이 성읍리서 백장이엔 하영 곱아.
 @2 그지예? 백장이 나옴디다예.
 @3 음.
 @2 시렁, 그민 여기 굴목짓는 디 영행 턱저가지고 여기가 백장이 이실 거잖아예?
 #1 어.
 @2 계민 거기에 궤를 보관헛엇던 거. 췌문 열어봅서예? 췌문 열어보난 거기에 뉘 이수

과? 삼촌.

#2 시방?

@1 아니.

@2 아니 옛날에.

#2 아, 그디 경 옷 놓는 거주게, 옷.

@2 예, 옷은 그냥 담아놔? 아니면 뭐에?

#2 개명 기자.

@2 으.

#2 포따리에 쌍도 넣곡, 그건 이녀 믋음이주.

@1 음. 아까 꺼낸 옷들 만약에 옛날이라시믄 다 궤에 놀 거 아니?

#2 으, 으, 으. 궤에 놀 거주.

@3 음.

#2 에이고.

@3 삼촌 시집을 때 장만한 궤도 이실 거 아니우짜?

@1 시집을 때 궤 행 완?

#2 아니, 그때도 궤 아널 때.

@1, 3 아널 때.

@2 이미 지난 거. 으, 궤 지난 거.

제보자 정보

@1 삼촌 여기서, 여기서는 혹시 저기 베 짜고 이런 것도 헤낫수과?

#2 아니.

@1 베 짜고 이런 건 안 헤난?

#2 저 의[으]귀리서 일로 서쪽드렌 헤도 이던 안 헤.

#1 성읍리도 저 미녕은 쫘 짜낫어, 미녕.

@1 아 미녕은 옛날에 짜나수과?

#1 으.

#2 미녕 짜나신가? 몰라.

#1 미녕.

@1 삼촌은 안 헤난?

#1 우리 어무니도 미녕을 흐뎡 짜는 걸 나가 어릴 때 봐나신디.

@1 어.

#1 베 거튼 건 이던 잘 안 헤보고.

@1 아니 겐디 가시리만 가도 삼.

#1 어, 헤낫어.

@1 삼, 삼 헤낫덴 헉디다?

#1 어, 헤낫어.

@1 예. 이 동넨 안 헤낫구나예?

#2 안 헛어.
 #1 성읍리는 별로.
 #2 의[으]귀리는 다 헛어.
 @1 의귀린 해난?
 #2 으, 베, 베도 짜꼭 멩지도.
 #1 이디가 원래 고향이 위귀리난.
 @1 어, 삼춘은 원래 의귀리.
 #2 ** 때, 경혜 부난 그때 완.
 @1 음.
 #2 흐흐.
 @1 여자 삼춘은 이름 미신거꽈? 이름 뭐, 삼춘?
 #2 미시거 헛 거?
 @1 허허허.
 #2 김설자.
 @1 김설자. 삼춘은?
 @2 사십 년생.
 @1 사십 년생.
 @3 완전 고우시지 안헤요?
 @1 으.
 @3 진짜 고와.
 #2 에이고, 뭐, 고와?
 @3 얼굴 진짜 고와.
 #1 아, 고우난 나신디 씨집을 왓주.
 (모두 하하하)
 @2 깔끔헛 살림도 완전 잘 살고예? 예.
 @1 어, 어.

반질고리

#2 몰라, 몇 살에 헤신지.
 @1 이거 누가 사근에 헛은에 불타수과?
 #2 이거 그때 처년 때부난 몰라, 이거 어느 때사 불라져신가?
 @1 돈 줘 산?
 #2 으, 구덕은 산 거주게.
 @1 구덕, 구덕은 산 거?
 #2 으.
 @1 짠 거 아니고?
 #2 으, 구덕은 상 불른 거주게.
 @1 으, 으.

@2 삼촌 종이 블라수다예? 천 안 블랑예.
#2 으, 종이, 종이.
@1 종이 블란예.
@2 으, 백지, 벽지.
@1 으.
#2 몰라 시집온 후에 블라져신디 말아신디.
@1 허허. 쟁 이거, 이거 뭐 허는, 뭐허는 거파?
#2 옛날엔 바농쌍지주게 시방도 바농쌍지.
@1 으.
#1 가위도 농곡.
@1 예, 가위도 농곡.
#2 바농도 농곡.
@1 바농도 농곡.
#2 실도 농곡.
@1 요건 무신겨우파, 요건?
#2 바농, 바농 꿇주게, 이거.
#1 도망가지 못허게.
@1 쟁 이름이 뭐라, 이건?
#2 이거 썰 꿍는 거.
@1 썰 꿍는 거. 허허허.
#2 하하하.
@1 즐레? 바농 즐레?
#2 으, 으.
@1 예? 크.
@3 저거 내 건데, 내가 쓸 건데.
@1 으. 이 바농쌍지 안에는 무신거 무신거 들어가는 겨우파?
#2 이거 무신건디, 바농.
@1 바농예.
#2 이거 이진 저 무시거 고무줄게.
@1 어.
#2 고무줄.
@1 아, 고무줄.
#2 옷도 사당 입단 이 허리가 늘리민 고무줄.
@1 맞아.
#2 이디 밑에도.
@1 달고예?
#2 으.
@1 음, 경허는 거. 천들도 막 이신게예?

#2 으.

@1 험벽덜예? 씨난 거예. 크, 이딘 무신거 답아수과?

#2 이진 단추.

@1 단추. 아이고, 예쁜 단추들 완전 많아.

#2 히히히. 이거 다 영 아무나 모듬지 아녀. (웃음)

바지저고리

@2 이거 누게 결혼식 때?

#1 나 거. 나 결혼식 때.

@2 삼촌 결혼식 때 입어난 거라?

#1 으.

@1 히.

#2 무시거?

@1 그럼 언제 거?

#1 결혼식, 결혼할 때.

#2 이거 막 오래뒀주게, 이거.

@1 삼촌 결혼할 때 입은 거마씨?

@3 이거를?

@1 거믄 몇 년 뒀 거파? 이거?

#1 이거? 흐 육십 년.

@1 하.

#1 이 옷 만든 지가 흐 육십 년.

@1 육십년 뒀 거?

@2 어머, 진짜 잘 왔다.

@1 어. 우린 짹신만 물어보켄 허멍 와신디, 지금.

@2 으.

@1 히히, 다른 디예, 강 사진 찍으멍예 남자 옷이 엇엉은예.

#2 아, 이거 뒀긴 뒀도 드문드문 빨앙 입엇주게.

@2 이거 입어난 거파?

#1 어, 어.

@2 예.

#1 이거 우에 입는 거.

@2 맞수다.

@1 예. 경해도 만든 게 오래뒀 거지.

#2 으, 으. 만든 게 오랜 거. 계난 이젠 한복 안 입으난 그냥 갱 내뒀주게.
퍼렁헌 거?

마고자

@1 저 퍼렁헌 건 이름 무신거봐? 그건.

#1 이건 저 미신.

#2 저구리.

#1 아으, 저구리.

@1 저구리 우에 입는 거? 마고자?

@2 마고자.

#1 마고자, 맞아.

#2 으, 으, 으. 마고자 맞추게. 아이덜토 하. 이거 다 아이덜.

@1 허허허.

사진

#2 사위도.

@1 예, 예, 예.

#2 더러 안 왓주, 경해도.

@1 어, 이건 언젠데마씨?

#2 몰라, 이것이 팔순 혈 땀가?

@1 하, 팔순 혈 때?

@2 그지.

#2 으.

@2 결혼혈 때가 아니라?

@1 아니, 이거.

@2 아.

#2 팔순 닳은, 칠순 닳은. 이거 입언 나올 때 이건 또 도지사 행 찍은 거.

@3 색깔 딱난데?

@2 색깔 트난데?

바지

@1 다님 색은 트난 걸로 허는 거봐?

#2 몰라.

@1 몰라, 허허허.

@2 색깔 맞춘 거 아니?

#2 예그, 옛날이난 잇어 불엇주게.

#1 다님이엔 허는데.

@2 으.

#1 허, 허리에 메는 허리띠도 잇어나실 건디.

@2 허리띠 엇수다.

#1 어?

@2 허리띠 벗어.
 #1 벗어?
 @2 으.
 #1 벗일 리가 잇는데.
 @2 벗일 리가 잇는데.
 #1 허리띠 벗입디다.
 @2 으. 이젠가? 아 양말이구나. (모두 웃음)
 #2 마후라는 잇고?
 @2 마후란 잇고. 마후라랑 두루막이랑 ㄹ치 짝젠.
 #2 허리띠 벗언게.
 @2 그다음은 사구 년생?
 #1 사공 년.
 @1 사공 년.
 @2 으.

두루마기

@1 계난 이 두루막은 언제 입는 거마씨?
 #1 이거?
 @1 으.
 #1 정월 초하룻날 세배 텅일 때 입곡.
 @1 아.
 #1 여기는.
 @1 으.
 #1 결혼허든 결혼허는 헤에 뒷을 허느냐면은 이 사나이는 포제 제관을 허여.
 @1 예.
 #1 그때 입을라고 이걸 만드는 거라.
 @1 아.
 #2 무사게, 옛날 제서 때도 입엇주.
 #1 아 제사 때도 입엇주만은 대게 결혼식 때 만들 때는 그거를 기준으로 만들어.
 @1 으.
 #1 우린 군대에 잇어 부난에 그때 제관을 못헛저.
 @1 도복은 안 허고, 이거 두루마기로 현 거마씨? 도복은 개인이 갖고 잇는 게 아니고?
 #1 공동으로 만들어 논 게 잇어.
 @1 아.
 #1 마을에.
 @1 예, 예, 예.
 #2 계도 웃은 개어나신구라 저기.
 @1 하하하.

@2 주름 잡혀진 대로.
(모두 하하하)

갈증의

@1 자, 갈증의.

@3 우와, 우와.

@1 이걸 언제 멘든 거마씨?

#1 이걸 만든건 지는.

#2 이걸 흐뭇 오래뒀주.

@1 계난.

#2 오랜 걸로 도렌 허난.

@1 오랜 걸로 으. 경해도 옆이 여기 주머니도 다 만들고.

#1 이거 한 이십 년 뒀실 거라.

@1 으.

#1 전국예술축제 갈 때 이거 만든 거라.

@2 계난 이거 삼촌대로 미싱 박은 거 아님 만들어진 거, 산 거?

#1 시에서, 시에서 이거 맞춰서 해온 거라.

@1 아.

@2 맞춘 해온 거.

#1 단체로.

@1 그니깐 주머니도 있고.

@2 우옛 게.

@1 으.

@2 우옛 게 집에서 만든 게 아니.

#1 나가 전국예술축회에 예순일곱 번을 다녀왔는디.

@1 으.

#1 성읍리 팀으로 네 번 가오고.

@1 예.

#1 제주시 팀으로 세 번을 가왔어.

@2 아.

@1 크, 어, 하난 허리띠네.

#1 건 허리띠고.

#2 계도이 감옷도 새건 때에 고양이 입언 뚝을 안 내와주, 새건 때에.

@2 고양이 입언.

#2 뚝을 내와부민 거명해비어.

@1 어.

#2 으, 새거 때엔 뚝 안 내영 입어나사.

@1 으.

#2 저 빨아가도 이추록 색이 나주.
 @1 거명해 불러.
 #2 으.
 @2 고양이 입언.
 #2 으, 새건 때에 뜸나쁜 안 벗어져.
 @1, 3 아.
 #2 시커명.
 @1 하.
 @2 노래 가사 속에서만 고양이 들어신디 직접 듣네, 고양이 입언. 아니 노래가사 그 삼춘.
 #1 제주도 사투리가 그거 아니라.
 @2 네, 네, 네.
 #2 고양이.
 @2 고양이 출렁 입언 어디.
 #1 고양이 출리라.
 @2 예.
 #2 하하하.
 #1 어디 가젠 허민 고양이 출리라.
 @2 예.
 @1 우린 궤양.
 @2 어, 맞아, 궤양.
 @1 하하하, 궤양.
 @2 아이고, 이것도 우알 같이 찍게.
 @3 야인 어디다 하는 거예요?
 @1 목도리 아닐까요?
 #1 목도리.
 @2 목도리.
 #2 득가리에 쓰는 거주, 목도리라.
 @1 대가리에 쓰는 거파?
 #1 아, 경기혈 때.
 @1 아, 아. 머리에.
 #1 머리, 머리.
 @1 머리에 쓰는 거, 음.
 #2 수건, 수건 대리 쓰는 거.
 @1 음. 아, 색깔이 다르구나이. 그난 모양 내근에 찍는, 만든 거네.
 @2 전문, 의복 집에서 만든 거.
 @1 그니깐, 으. 그냥 집에서 만든 게 아닌 게 딱 알겠네.
 #1 이거 시에서 만든 거.
 @1 계난. (사진 촬영 중)

@2 잘 보관해수다예? 완전 딱딱, 한벌로 딱딱 맞게, 딱 꺼내멘.
 #2 허허허.
 @2 이?
 @1 으.
 @2 순서대로 딱딱 담앙 놔두니깐.
 #1 거 보통 할망 아니다.
 @1 그니깐.
 #2 허허허.
 @2 집 보난 알아지커라.
 @1 깨끗, 예?
 @2 보통 할머니가 아니우다. 창고 보난예, 이런 창고가 엇입디다.
 (모두 하하하)
 @1 늬이 집 창고 막 거미줄이영 막 이신디, 여기 창곤 완전 깨끗.
 @3 오, 이진 색깔이 예쁘네요. 다른 색깔이네요.
 @1 여기 밑에랑이 뒤편 예쁘게 만들엇다이.
 @3 바지 먼저 찍고 갈게요.
 @1, 2 네.
 #2 음 이거는 표선이 살명 우리 고모가 바농와치라.
 @1 아아.
 #2 이진 우리 고모가 현 거.
 @1 아 고모가 바느질와치?
 @2 누게봐?
 #2 이젠 죽어비언. 표선이 알아집니까, 무사?
 @2 표선이 바농질와치.
 #2 어뎡 창문 동네 사름들 왕 보민 이거 하, 이거 창고 깨끗허다 잘 곶아. 하하하.
 @1 으, 창고가 영 깨끗한 디가 엇어.
 #2 엇어.
 @1 삼춘 매날 쓸고 닦고 허난.
 #2 *** 허난게.
 @2 나 나중에 영 입언 텅긴다는 얘기.
 @1 같웃으로? 생활 한복 아니고? (생략)

아기 옷

#2 얘기 으둡 개 낫어, 으둡 개. 어떻게 행 흐나 가 부난 일곱 개.
 @2 일곱 개. 계민 야이 누게 낄 때, 몇 번째 낄 때 입은, 입힌 거?
 #2 아 그자 체얌 낄 때 입언 자꾸 입긴 입엄주게.
 @2 계난 처음 낄 때 헛던 거?
 #2 으, 따시 난 입곡.

@2 췌 애기 날 때 삼촌 멧 살 때 췌 애기 낫어? 큰아이 난 때.
#2 큰, 큰아이 난 땐 이월뎡에 나난 몰라, 윈. 밤에 나져신가?
@2 아니, 그니깐 멧 년도에, 멧 살에, 삼촌?
#2 거 모르켜, 잊어비언.
@2 시집은 멧 살에 왓덴 헛지, 아까?
#2 시집은 스물두 설에 와신디.
@2 멧 헤 지난 난?
#2 스물세 설에 나실 거라.
@2 스물세 설에 난 거예.
#2 으.
@2 스물세 설에 낭.
#2 유월뎡에 음력으로 유월 그물영 나난에.
@2 어. 계민 이거 삼촌 냥으로 만든 거? 아님 누게가 만들어준 거?
#2 아이, 나냥으로 만들어실 거라.
@2 삼촌으로 만든 거. 그럼 췌 애기 날 때.
#2 아으, 계난 이거 오죽 오랬어게.
@2 계난게, 지금 스물셋에 낳아 가지고 스물세 설.
#2 스물세 설에 나난에 멧 설 뵈 거라 팔십 세 슬이난.
@2 계난 육십 년 뵈 거.
#2 흐.
@2 이거 육십 년 뵈 거, 야이.
#2 무신 생각으로사 놔뵈져신디 몰라.
@2 육십 년 뵈 겁니다, 큰아이 낫을 때.
@1 흐.
@2 만들어서 입혀서 계속 쪽 입혔습디다.
@1 아하.
@2 계민 이거 다 손바놓으로 만들엇다예?
#2 으, 손으로 만든, 야이 난 때주, 야이.
@1, 2 어느 아이?
#2 하하하.
@1 큰아뎡, 아, 아들 성젠디 큰아뎡 거?
#2 어, 아뎡 성젠디 요것도 사위, 요것도 사위.
@1 으.
#2 요것도 사위. 사위 두 개는 엇어, 흐난 일본 가 불고 부산 잇고.
@1 아, 거난 아뎡, 아뎡 두 개에 뵈 세 개?
#2 뵈 다섯 개.
@1 뵈 다섯 개?
@2 일곱 개래요, 일곱 개.

#2 이거 하나 두 개, 다섯 개.
 @1 지난 일곱 개 다 이걸로 키운 거?
 #2 어.
 @2 계민 삼촌, 보민예. 요거 요렇게 더 잘르게 해난? 더 질게 해난?
 @1 길게 안 하고?
 #2 이거게, 삼일 입으면 말암주게.
 @1 으.
 @2 삼일 입으면 만 거예.
 @1 음.
 #2 다 혈 필요 엇주게.
 @2 계민 허리 돌르는 것도 안 행 그냥 이거 그대로예?
 #2 몰라, 어떻게 이거 나뉘져신지 모르켜.
 @1 음.
 @2 계난 유물이우다.
 @1 베, 베로 헌 거예?
 #2 베, 베.
 @2 무사 이런 베옷을 삼일 동안 입혔수과?
 #1 저 살 가려우난 입진 거라.
 #2 처음 나난.
 @2 처음 나민.
 #2 아이고, 애기 놔뉘 난 물을, 애기 난 핏게로 못 헌 거난.
 @2 으.
 #2 그때 허벅으로 지난해. 물에 아홉 번을 질어다놔뉘. 저 아방넨 저 동강네 담으러 가
 부난.
 @2 응.
 #2 수놓엉.
 @2 응.
 #2 낮전으론 우리가 담곡 낮후젠 ** 헌 거난.
 @2 응.
 #2 거 이제 밥해연에 인부 하나 빌곡 헌에 또 인부 하나 빌언 밧디 가신디.
 @1 응.
 #2 가난 아무래도 안 뉘직헤여, 애기 남직헿.
 @1, 2 으.
 #2 겐에 애기, 애기 놔뉘에 또 뉘데기 좃으러 간 거라.
 @1 아.
 @2 나뉘에 또 일허러 갔다고?
 #2 으.
 @2 아이고.

@1 ㄱ루 칸 것도 안 먹언에?
#2 으.
@1 ㄱ물ㄱ루?
#2 계난에 우리 시어멍 ㄱ물 혼 사발 아정 곶안에 ㄱ루캄젠 강 보난 애기 어멍이 엇인 거라.
@2 애기는 내베될?
#2 애긴 내벳주게.
@2 하하하하.
#2 쟁 애기 나난게 계난 강알도 마스쿠허고 입도 마스쿠허곡 헨에.
@2 어.
#2 뺏테기 좃으러 갖주게.
@1 하.
@2 나 못 살켜게.
@1 진짜.
#2 아니, 벳은 막 나고이.
@1, 2 어.
#2 그 영 뺏테기 영 도려와 나시난에 그 테를 톨뤄야 헛을 거니깐.
@1 응.
#2 아시날 강 톨 놀엿주게.
@1 응.
#2 계난 테가 톨르니깐.
11 테가 톨르는 게 무신거?
@2 애기 테, 테.
@1 아, 애기테? 뺏테기 테.
#2 바닥에 톨, 톨.
@1 아, 테왓.
#2 으, 으, 걸 톨뤄야 헛을 거 아니?
@1 어.
#2 계난 이거 이서게, 엇날 화투 칭 들러 부난 아무것도 엇어.
@1 하하하.
@2 화투 칭 들러먹어 부난.
#2 놀음게. 하하하.
@1 이거 손바느질로 다 헛네.
@2 계난 이거 아이 일곱 개 다 입헛수과? 우잇만 입헛수과?
@1 삼일만?
#2 으답 개 입헛주게, 헛나 가 부난.
@1 헛나 가불언.
@2 아이 다 입현? 삼일만?

#2 으, 으.

@2 그니깐 애기 낱 바로 입히는 거짜, 메칠 지난?

#2 바로.

@2 으, 바로.

@1 으.

#2 맨처음.

#2 처음만예.

@1 으.

#2 여덟 개를 다 입힌 거. 아이고, 니 장허다, 속았저.

#2 하하하.

@1 야이 뭐 시험보러 갈 때 영 어디 소곶에 낱 가민.

#2 으, 으.

@1 좋덴, 그런 말도 곱읍디다.

#2 으, 으, 으. 경헨에 경 허난 이거 놔둬서 놔뒀진 생이라.

@1 게난 누게 아들이나 딸이나 시험보러 갈 때 소곶에 낱 갖수과?

#2 몰라 낱 가져신디.

(모두 웃음)

@2 보관은 헤신디 낱 가신지 아닌지 몰라? 어? 보관은 헤 놓고? (생략)

6.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

- 조사 일시: 2021년 7월 18일
- 조사 장소: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노인복지회관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 제보자: #1 정복순 #2 고해생

(2)

- 조사 일시: 2021년 8월 1일
- 조사 장소: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노인복지회관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김순자
- 제보자: #1 정복순 #2 고해생 #3 김순애

(3)

- 조사 일시: 2021년 6월 24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 제보자: #1 송인권

- **조사 일시:** 2021년 7월 18일
- **조사 장소:**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노인복지회관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 **제보자:** #1 정복순 #2 고해생

제보자 정보

- @1 삼촌 성함이 어떻게 돼서마씨?
 #1 정복순.
 @1 정복순 삼촌. 삼촌은 몇 년생?
 #1 사사년.
 @1 사사년 정복순 삼촌. 그다음 요기 앉은 삼촌은?
 #1 나이 물었수다.
 @1 삼촌은 몇 살마씨?
 #1 이지금 으답.
 #2 여든으답.
 #1 여든여덟.
 @1 여든 여덟. 삼촌 이름은?
 #2 오해생. 나 귀마구리 알아듣지 못허여.
 @1 아. 예.
 #1 귀 많이 막아부난 크게 곱아야.
 @2 계민 삼촌이 주가 뒤킨계.
 #2 나 이름 쓰나마나라. 무신거옴 곱아도 알아듣지 못허여.
 #1 참가자 이름 쓰는 거.

웃감 종류

- @1 오늘 웃에 대해 여쭙볼 건데예 옛날에 옛날 삼촌네 젊엇을 때는 웃감 종류가 지금처럼 막 많지 안헤실 거 아니파예, 옛날에 무신 웃감, 무신 웃감 이서났수과?
 #1 미녕, 미녕 알지?
 @1 예.
 #1 미녕. 광목.
 @1 광목.
 #1 멍지.
 @1 멍지.
 #1 토페.
 @1 토페. 아, 경 이서나수과?

#1 거 영 처근에 삼 삼아근에 이디서 삼 이렇게 이렇게 이빨로 영영혜근엥에 여기서 삼 삼앙 잣물에 숲앙. 저 물, 냇물에 가근엥에 마께로 막 두드리멍 빨아당 이젠 그것도 따시 이젠 막 치장허영 숲앙. 그거 이젠 따시 들락근엥에 이젠 날 존 날에 마당에서 마당에 검 질 하나토 엇이 다 판씩 이제 비치락으로 썰어뵤. 이젠 저기 앓고 이디서 이제 문 그 가시 리플 쭈어근에 영 집비엔 현 거 이서. 비치락 영.

@1 무신거엔 현 거?

#1 집비.

@1 집비.

#1 응, 영혜영 잡아근엥에 작작작 허민 그거 저 푸숨인 거 다, 이제 감춰져. 경허민 깨끗 현 실 뒤편 그거허영 이제 바다에 그 채 서경.

@1 응.

#1 그거 허여근엥에 이제 막 대 막텅이에 영 노멍 영영 뱅뱅 감아근에 이젠 정제엔 현 디가 있어.

@1 응.

#1 요새 그뜨민 부억. 정제에서 이젠 기계 틀 메와근엥에 그 저 솔박 닳은 그 낭으로 멘 든 거 꼬리 그레 놔근엥에 영 혜영 현 번 둥기곡 또 영혜영 현 번 둥기곡 경혜멍 혜영 그 베 차고 미녕 차곡 헤낫주.

@1 응. 이 동네선 베 하영 헤나수과?

#1 베도 허고 토페, 거멍현 토페, 삼으로 현 거. 그거 허곡 누에 질탕 멩지 허곡 헤낫주.

명주

@1 다 헤나신게예. 여러 가지 이신디 멩지부터 물어보쿠다예. 멩지 헤난 거부터예.

#1 멩지는 누에 질루멍 허는 거.

@1 응.

#1 뽕남썩 주어근엥에 그 누에 쟈젠현 거 허여근에 그거 현 바둑에 얼마. 현 바둑이 네 귀방장현 것이 그걸 허영 끼왕 오면 요거 요만, 요디서 요만썩현 게 현 바둑.

@1 응.

#1 또 요만썩에 오민 두 바둑. 이제 하영 질루젠 허민 세 바둑, 네 바둑기진 질루주. 현 사름이.

@1 네.

#1 계난 우리가 그거 혜영 이제 세 바둑, 네 바둑허면 뽕남고지 저 산에, 저 물찰, 말찰 현 디 알아? 몰르주.

@1 물찰오름.

#1 물찰오름 그런 디 강 우리가 저 옛날 멩텅이.

@1 예.

#1 저 산디쪽으로 절아근엥에 영 현 거 멩텅이엔 현 거 이서. 요새 사름덜 표준말로 망 텅이, 망텅이 허주만은 우린 멩텅이.

@1 응. 멩텅이.

#1 응. 경혜근영에 그거 아정 강 잔뜩허게시리 발로 불르명 그거 꺼꺼냥 지어근영에 이제 이디 오랑 마당에 왕 탁허게, 이디 오민 어둑주. 집이 오민.

@1 응.

#1 마당에 탁 풀영에 놔두민 그게 문 이슬 맞앙 소들앗단 게 다 일어서.

@1 아.

#1 살아나민 그거 문 누에 이제 다, 훑어, 누에가 훑으면 가지 차 주고 이제 쟈쟈현 때는 문 칼로 즈질이 썰영, 채로.

@1 예.

#1 채로 썰영근영에 이제 슬슬허게시리 누에 우트레 뿌리민 그거 먹으명 츄츄츄츄 커가. 경행 막 고주어리 뒤민 이제 그 무시거 모양으로 과자 방지 모양으로. 그게 고주어리 집을 짓어.

@1 고주어리가 뭐?

#1 고주어리. 그 누에 집 짓은 거라 고주어리, 고주어리.

@1 아.

#1 경행 이제 그걸 이제 또 냄비에 물 놔근영에 이제 그 고주어리 놔근영에 딸려근영에 영영허민 거미줄 닳은 게 나와. 경허민 그 거미줄 헤여근영에 이제 헤영 영영헤근에 저 물레로 헤영 감아근에 그추룩 헤여근에 멩지실 빠근영에 그거 좇으는 거엔 헤낫주.

@1 예.

#1 좇아근영에 그걸로 헤근에 이젠 낫사 집비로 헤여근영에 가시리풀 췌 그거 헤여근영에 쪽쪽 미쳐근영에 허영 그거 막텅이 영 새새 놔근영에 영영행 감아근영에 이만인 현 거 해당. 이거 기계민 이디서 초신 이디 노곳 돌아메영 착허게시리 흔 번 놓민 이레 등경 영 허영 흔번 영 등기고 이착 손으로 또 영 낡 영 놓민 영헤영 흔 번 등경 허곡. 경허명 멩지 차났어. 우리 할머니네가 나는 안 현디. 그 부름씨는 나가 헛지, 어린 때.

@1 거난 삼춘은 무신 부름씨까지 헤낫수가? 뽕 타레, 뽕잎 타레 갖다오고.

#1 부름씨 안 현 거 없어. 멘네 갈앙 멘네 타당 그거 이젠 물레에 불랑 이젠 저 소게 테우는 디 강 그 저 빈떡 모양으로 요만씩 지러기 현 거 해당 이젠 또 미시거니 미녕실 그 좇는 그것에 놔근영에 조릉조릉행, 조르릉조르릉헤근영에 실 멘들앙 미녕 차고. 우리 할머니네가 그렇게 했어.

누에 기르기

@1 누에부터 차근차근 허쿠다예. 누에는 어디 가근에 받아오는 거?

#1 누에는 그때에 저 미시거니 이 서귀포 거 무시거니, 거 무신 박물관인가 뭐 그디서 이제 헤영 신청허민 갖다줘.

@1 아, 흔 바둑엔 멧 개나 들어가는 거파?

#1 흔 바둑에 흔 천 개 들어가주.

@1 아. 아이고 막 하영 들어가는구나.

#1 아주 좁쌀 방울 닳주게.

@1 흔 바둑이 얼만큼 허여? 크기가.

#1 흐 바둑이가 요거라 요거. 흐 바둑이 요거. 게민 네귀방장헌 거 흐 세 개, 네 개 해야 흐 사름 질파. 경허민 작게 질루민 두 바둑, 세 바둑이민 뉘고 많이 허는 사름은 흐 다섯 바둑, 열 바둑. 많이 업으로 허는 사름덜은 그렇게 허고. 우리는 작게 기자 이녁 사용힐 만이.

@1 그믐 집이 방에서 질파?

#1 방에서. 경허근에 방에서 헤영 그거 막.

@1 이디 옆에 벽에 무신거 설치헤근에 험니까?

#1 아, 그거는 올를 때 뉘야.

@1 아, 건 올를 때 뉘야.

#1 올를 때 뉘야 그 저 새 요만씩 짤라근엥에 이제 노곳에 꼭꼭허게시리 그걸 다와근엥에 그걸 멘들앙 저 무시거 모양으로 멘들야. 앙상허게시리. 경허민 그레 다 올라가민 이제 고주어리 그 므 이녁네냥으로 실 흘치명 집 짓어근엥에 고주어리가 뉘는 거.

@1 아. 새로.

#1 이디 저 무시거 평과자 모양.

@1 응, 새로 만듭니까?

#1 새로. 새 헤영 기냥 헤영 허민 그게 앙상허주게.

@1 응.

#1 게민 영영 탈탈 털 때 뉘민 꼬아져, 문딱.

@1 채반이나 이런 식으로 안허고, 차룽으로 안 허고?

#1 차룽으로 허는 사름도 잇주만은 차룽으론 멧 개 못허지.

@1 아.

#1 겨난 그 그 새 헤영 하이튼 무시거니 노곳에 헤근엥에 그거 짤러근엥에 영 허민.

@1 어느만이 큰 거파?

#1 이렇게 이렇게 설치져. 겨난 그게 막 커.

@1 아.

#1 여라 가지. 흐 그거 허젠 허민 열 줄도 더 해야 뉘어. 흐 방에서 그걸 헤영 그걸 해야 누에 올라난 디 영 놓면 방도 덜 츠지허곡 영 높이, 높이 요디서 이디서 헤영 영 이만큼.

@1 층층이 허는 거파? 아니민.

#1 응. 층층이.

@1 아, 층층이.

#1 경허민 이 넓이에서 이디서 흐 칭, 영 흐 칭, 두 칭 올라가 경헤영 막 노프게 헤영.

@1 거 다 새로 짜근에?

#1 응. 새.

@1 나무로 틀도 헤근에 험니까?

#1 아니, 아니.

@1 다 새로. 거믐 무너져 불지 안헤?

#1 무너지지 안허여. 얼마 무겹지 안헌 겨난.

@1 그거 무신거엔 곤는 이름은 엇어났수과?

#1 누에꼬치, 누에꼬치 해놔주.

@1 아니, 그 새로 짠 거.

#1 새로 짠 건 새집. 누엣집.

@1 응. 게른 누에는 줌도 몇 번 잔덴 헨게마는.

#1 그거 육십 일 만이도 될 수 잇고. 잘 돼민 육십 일, 칠십 일 돼야 되고 허여.

@1 보통 육십 일이나 칠십 일 질루민.

#1 하이튼 두 들 건즘 올라야.

@1 아, 가이 잠 잣당 일어나민 막 먹고 또 자고 영 현덴.

#1 응, 혼즘 자고 두즘 자고 영허주게. 혼즘 자고 두즘 자고 경허주. 혼즘 장 깨곡, 두즘 장 깨고. 그거 혼 다섯 번.

@1 아, 다섯 번이나 자?

#1 응, 경허민 고주가 돼어, 고주어리가.

@1 경허민 고주어리가 돼어.

#1 경헤영 허민 저거 허젠 허민 혼 들 돼야, 올린 후제도 혼 들 돼야 고주어리가 돼어. 제라허게 고주어리 돼젠 허민.

@1 아, 제라허게 돼젠 허민. 그 뽕입은 뽕낭은 집에서 안 질타나수과?

#1 아이고, 집에서 질룬 뽕남 행 허는 사름은 벨로 드물고. 초기에 애긴 때 허는 거는 이 스방에 산전에여 어디 가근에 이제 질구덕을 아경 갖든 멩텅일 아경 갖든 강 흐썸씩 헤당 주고. 완전 한밥 먹을 땐 하영 먹을 때난 저 고지 가야 헤 오주, 이 스방엔 경 이녁냥으로 갈양 허는 딴 벨로 엇주게.

@1 아. 한밥 먹을 땐 어명헌 때과?

#1 한밥 먹을 땐 완전 누에가 흙을 때.

@1 아. 젤 마지막. 막 큰 다음에.

#1 마지막 한밥 먹을 때. 경헤영 고주어리 돼젠 허민 그 누에가 노릿노릿헤 가.

@1 아, 색깔이.

#1 색깔이 변헤 가.

@1 응, 원래 하얀색인데

#1 응, 파란색인데.

@1 파란색인데?

#1 응. 경헤영 그거 실 그 집 짓을 때 돼가민 노릿노릿헤 가. 게른 고주어리 돼엄저, 돼엄저.

@1 아.

#2 경허민 아이덜은 고주어리 봉가 먹젠.

@1 봉가 먹젠.

#1 건 실 짓을 때.

@1 실 짓을 때.

#2 막 맛좋아.

#1 냄비에 솟디 낭근에 실 짓을 때. 멩지실 뽑을 때.

#2 실 짓을 때.
 #1 그거 실 다 뽑으면 그 고주어리가 멘들락하게 나오지.
 @1 아. 거난 그거 집 짓어근에 가이가 집 짓어근에 한 달 정도 더 잇어야 된다고예.
 #1 어.
 @1 그믐 이젠 숲아근에 실 빨 때 뵈저 허는 건 어땡 알아?
 #1 거 날짜가 다 이실 거라. 정확허겐 몰라도. 정확허겐 몰라도 날짜가 다 잇주게.
 @1 경헝 솟디 놔근에 숲으민.
 #1 숲앙 그 무시거 그 거시기로 영영 험가민 그 실이 지랑지랑지랑허게시리 다 올라오주.
 그 잣는 더레, 꼬리터레. 경혜영 그거 실 다 나오민 고주어리가 멘들락하게 벗어지는 거.
 @1 그믐 그거 좃어먹는 거라?
 #1 그거 좃어먹는 거.
 @1 맛좋아?
 #1 맛좋주게. 요새게 번데기, 번데기 허멍 허는 거 그거나 마찬가지로.
 #2 따시 앓아농곡 따시 새 거 앓아농곡 허민 실 많이 부떠가주. 둘러가민 게나제나 나오
 주. 고주어리.
 #1 계난 요새 번데기, 번데기 허멍 사먹는 게 그거.
 @1 그건 그냥 다 먹어도 뵈? 먹지 못허겐 안 해?
 #1 다 먹어도 뵈.
 #2 막 고주어리 좃어먹젠.
 #1 그 꺾테기만 영 그거 허영 무시거니 그 머리팍 닳은 거 영 짝 찢라불민 꼭 누르뜨민
 그 저 우유 닳은 게 그 다 뵈냐, 탕탕헌 게 요새 개살 모양.
 @1 아.
 #1 쪽허게 나와. 영 놀르민. 경허민 그거 아이덜 얼마든지 먹어.
 @1 꺾테긴 안 먹고 안에 것만 먹어?
 #1 응. 꺾테긴 안 먹고.
 @1 아, 속에 잇는 것만, 빨아먹는 거구나예.
 #1 응, 거 아이덜 재미로 막 먹주.
 @1 아, 재미로. 그거 아까 실 영영 돌리는 요건 이름은 엇수과? 흑시. 냄비에서 실 영
 빼근에.
 #1 멍지실 뽑는 그 기계가 저 무시거 물레냐, 무시거니.
 @1 이것도 물레엔 곶아?
 #2 실 나오민 감아지는 기계가 잇주.
 #1 기계 잇어.
 #2 둘러가민 이디로 영허민 영영 둘러가민.
 @1 이레 영영 둘러가민 실은 어디 감아질 철이과?
 #1 실 그 기계에.
 @1 똥글랑허게.
 #1 둘러는 그 동골랑헌 그거에.

@1 아, 요기. 거기에 영 실 감아지민, 다 감아졌어. 계문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 빠근에.
#1 빼야주.
@1 그다음엔?
#1 그다음엔 톨좌사주게.
@1 이 상태로?
#1 응. 톨좌근엥에 이제 하람남이엔 현 거 재 숲앙은엥에 불 케왕 그 잣물로 헤근엥에 이 멩지실을 숲아.
@1 무신 낭?
#1 하람낭.
@1 하람낭은 어떻헌 낭이파?
#1 하람낭 우리 옛날에 비누 엇인 때 그 숲, 그 이파리로 헿 머리 곰곡 헤낫주.
@1 아, 그거 이 동네 하수과?
#1 내에 가민 이서.
@1 아, 내에 가민.
#1 저 췌이파리론 허민 옛날 어른덜 니 많이 인다고 옛날에 아이덜 니가 불춤만춤 엇이 일어났어. 머리에 쉬가 헤영허곡. 몰래 줍아논 거 모냥. 경허난 그 췌입으론 뵈 수 이시민 아니 곰고 그 하람낭 이파리로만 곰앗주. 그 하람낭 이파리 영 보비민 막 버곰 나주.
@2 하릅낭?
#1 옛날에 비누 엇일 때난.
@1 그거 하람낭 아까 숲아근에, 낭을 숲을 거파?
#1 아니, 낭을 불 케왕.
@1 불 케왕.
#1 재 멘들앙.
@1 재 멘들앙. 낭으로예.
#1 응, 재 멘들앙 그 불경에 이제 물 카근엥에 멩지 실 뇌근엥에 막 숲고 이젠 또 멩지 이젠 기계로 헿 짜민 그 하람낭 불 진어근엥에 물 허민 그 멩지 노이는 거 노이는 거 헤낫주.
@1 응, 건 실 헿 때 아니고 다 멘든 다음에예.
#1 건 짜 논 다음에 그 무시거 이불을 멘드나 옷을 멘드나 허젠 허민 그걸 그 하람낭 불 케운 재를 낭 이제 숲으논 거?라 멩지 노이는 거 멩지 노이는 거 헤낫주게.
@1 응, 그 재는 그냥 바로 저 천에 ㄱ치 놓민 색깔 더러워질 거 아니파?
#1 아니
@1 영 무신 주멩기에라도.
#1 아, 경허민 그거 빨주게, 내에 강.
@1 아, 주멩기에 따로 싸근에 안 허고?
#1 아니. 옛날엔 주멩기도 안 허고 기자 물 강.
@1 재에 그냥 물 강.
#1 응, 재에 물 강 솟디 낭 바글바글 숲앙 내에 강 빨앗주.
@1 아, 계문 경 만든 멩지는 아까 토멩지 이런 건가?

#1 토멩지엔 곱앗주. 이디서 짠 것ㄴ라.

@1 이디서 짠 건 토멩지. 그다음 다른 거는, 다 노인 건?

#1 응?

@1 노인 다음에는?

#1 노인 다음에 그 토멩지허영 그냥 물들여근엔에 이불 허구정 허민 이불 허곡, 그대로 허영 풀 맥영 이제 하르방덜이나 이제 우리 애기덜 옷이나 허젠 허민 저 바지도 멘들곡, 옛날엔 바지엔 안헤영 중의, 중의 허영, 중의도 멘들곡. 스나이 어른덜 이제 바지 멘들곡, 또 적삼 멘들곡 그걸로 쫓기 멘들곡 헛주.

@1 응. 그믄 저 노이지 안헌 멩진 무신 멩지?

#1 그거 토멩지. 노이지 안헌 건 토멩지.

@1 그것도 토멩지. 노인 것도 토멩지.

#1 노인 거는 그 곤 거엔, 좋은 거엔 경행 노인 멩지엔 곱아났어.

@1 아, 노인 멩지엔 곱아난예. 그 멩지도 마당에서 영 메고 헉니까?

#1 응, 메고. 그 멩지도 다 마찬가지로.

@1 똑ㄴ타? 멩지나 베나.

#1 베나 멩지나 원 똑ㄴ뜬 거.

@1 아. 방법은 다 똑ㄴ타.

#1 그 헉는 방법은 똑ㄴ뜬 거.

#1 그 가시리풀 맥영 그 저 이 실에 영 많이 아경 텅겨가민 실에 무시거 가릿가릿헌 그 뉘가 잇주게. 경허민 그걸 캄프라치 시기젠 그 풀 맥이는 거.

@1 아. 게믄 아까 저 실 멘들아근예에, 베 짜기 전이 그 실을 먼저 영 베 뉘.

#1 꼬리 멘드는 거?

@1 아니 새, 옛새, 멩지도 한 새, 두 새 허지 안헉니까?

#1 응. 게난 옷새 멩지.

@1 거난 옷새 멩지 이렇게 허젠 허민 새줏는 건 어뎡 행.

#1 새줏는 거는 아니 게난 요만이 너부길 헉 거 아니라. 이디 저 꼭지에 무시거 저 바놓 꾀 님은 거 꼭지에 돌아. 경허민 그걸 이디 짚르곡 이디 짚르곡 헤근엔에 요디까지 차와지 민 또 실 메기민 또 이레 빠근에 그 저 대막텅인가 무시걸 빠근엔에 또 이레 짚러근에 둥 기곡.

#2 허리에 창.

@1 응, 건 찰 때 허는 거고. 처음에 뉘 때.

#1 뉘 때 경헤영 허여. 그 찰 때 허는 것이 허리에 메영 허는 거라.

날기

@1 맞아마씨. 처음에 메기 전에 나는 거부터 헉니까?

#1 늑는 거부떠 허는 거주.

@1 늑는 거부터 차례로.

#1 게 늑는 거부떠 만일에 저, 저디가 이제 원더거지민 이제 이디는 또 대막텅이 영 새

놔근엥에 허는 거. 경혜영 그 ㅼ디 무시거니, 새 영 지꾸자꾸헤야 뉼 거 아니?

@1 예.

#1 경허민 그거 헤여근에 풀 맥이민 이레 둘라가는 냥 쓸쓸 등기명 감아.

@1 응.

#1 경헿 감아근엥에 다 헤지민 서른 자민 서른 자, 마흔 자민 마흔 자 지러기.

@1 응.

#1 경혜근엥에 다 그거 흔 헤지민 이제 가다스끼혜근에.

@1 가다쓰낱 무신거과?

#1 마무리허는 거. 하하하.

@1 하하하.

#1 마무리허는 거. 경혜근에 이젠 차는 디 갓당 메우는 거주게. 기계트레.

@1 응. 그거 헸 때 밑에 불도 살좌?

#1 아니.

@1 흐뎡 빨리 들르렌.

#1 아니 아니. 문딱 벅디서 들랑. 썩지 안허게 다 들랑.

@1 풀칠허민 이거 풀칠헌 거 빨리 둘라살 거 아니?

#1 풀칠헌 거 둘라. 그, 날 존 날 허면. 다 헤가민 둘라.

@1 아, 밑에 무신 불 살르지 안허고.

#1 불 안 살라도 다 둘라. 날 존 날 허민.

#2 꼬리 감아근엥에 영 찰르는 것이 그 꼬리 감은 거 놔근에, 흔 번은 이레 가곡. 발 흔 번 느리민 이레 들어가곡.

@1 그, 날 때 영 생낱 이런 거 닳은 거에 놔근에 ㄹ레착에 놔근에, 지둘좌근에 허는 거 이수게. 그거 무신거과? 이름.

#1 그거 풀리 헸 때 허는 거게. 그 저 무시거니 그갓ㄹ라 놀.

@1 응.

#1 놀. 그거 새, 저 새 좇는 갓ㄹ라 놀, 놀 허는디 그 ㄹ레착 낱 허는 게 그게 그거. 그 영 무시거 ㅼ디 새 모양으로 지꾸자꾸 영 좇허민 꼬리 이레 가곡 헤여근에 영 등기곡 허는 거주. 신착 돌아메영 이녁 신어두서.

베매기

@1 짜는 건 흐뎡 잇당 허고 메는 거부터. 메고 날고.

#1 ㄹ사 메는 거 그거. 저 가시리풀 썩근엥에 그거 불르는 게 그게 메는 거라. 새 좇앙.

@1 거난 새 좇는 건 어뎡헿 허는 거라.

#1 ㄹ사 그 말이라. 저기서 이제 본 바닥이 이시면 이레 영 놀아왕 실 놀아와근엥에 기 차진 건 잇곡 경혜영 풀 맥영 직직허게 풀 맥여근엥에 이디서 저 마당문ㄹ지 가근엥에 허민. 길주게 서른 자민 서른 자, 마흔 자민 마흔 자. 그거 기준허영.

@1 그 ㅼ디에다가 실 다 끼와마씨?

#1 응.

@1 거 어떻 끼와.

#1 그걸 영 뭐니 지꾸자꾸를 해야 될 거. 영허곡 영허곡 허민 그 꼬리 영 ㅅ디 영 갖히 민 일로 꼬리가 갖다왔다 해야 될 거난. 경허난 요레 갈 때 혼 번 등기고 또 이디서 이레 갈 때 또 혼 번 등기고 경헤영 발을 갖다왔다 해야. 이 발로 조정허는 거 그거.

@1 예.

#1 등기민 탁허게 혼 번 차고. 또 저레 가민 또 영 오민 또 이레 한번 탁 차고.

무명

@1 응, 게민 이번엔 미녕예.

#1 미녕도 똑ㄴ쁜 거. 원리는.

@1 응, 미녕은 멩지. 아 미녕은 멘네 뿌려살 거 아니꽈예?

#1 응.

@1 키와근에예.

#1 멘네.

@1 멘넨 멩 월 달에 뿌립니까?

#1 멘네 이지금 가을 들민 이 팔뿔 나민 음력 팔뿔 나민 그게 고장 피영 히득히득히득히 주게.

@1 아.

#1 경허민 그거 따다가 그 물레에서 이제 그 씨 불라. 경행은앵에 저기 가근에 저 이불 허는디 이불 소개허는디 강 그거 전기떡ㄴ치 헤다근앵에 그거 이제 또 물레에서 지릉지릉 갖을 거주.

@1 응.

#1 영 등겨가민 실 막 나와. 조룩조룩허게 영영 돌려가민. 경허민 그 이만인 현 왕 미시 거 저 망데기 닳은 것에 빙빙 감아지멍 그 실 다 나와.

@1 하하하. 예.

#1 영영 헤가민.

@1 멘네부터. 멘네 키우는 거부터예. 씨 뿌릴 때는 혹시 다른 거에 서경 험니까?

#1 아니, 아니. 씨 기냥 싱거.

@1 그냥 씨 싱거. ㅎ나씩 싱거?

#1 ㅎ나씩 싱거.

@1 가이 크민 멘네 그 소개 타레 갈 때예. 다 익지 안헌 건 타먹기도 허고.

#1 우리 그 ㄴ레 타먹으멍 헤 살아났주.

@1 게난예.

#1 ㄴ레 타먹어불민 막 욱 들으멍.

@1 무사 욱 들엇어?

#1 그것이 그 저 ㄴ 소개혈 거 다 따먹어 비엇젠.

@1 아.

#1 할망안티 막 욱들멍.

@1 그거 타레 갈 땐 무신거 들렁 갑니까?
 #1 바구릴 아정 갖든 차롱을 아정 갖든 헤사주게.
 @1 아. 그거 흔 차롱만.
 #1 출바구리, 이디서 ㄹ뜨민 우리 구덕. 출바구리, 출바구리 헤.
 @1 출바구리.
 #1 친 헤영 이디 허리에 창. 경헤영 타놓곡 헛주.
 @1 게민 요거 하나만 탕 올 거파?
 #1 헛나만 탈 거라? 그디 소게 핀 것사 다 타사주.
 @1 게난. 이거 하나 타근에.
 #1 멩텅이, 멩텅이엔 현 거.
 @1 아, 멩텅이에 담양.
 #1 구덕 아지곡 멩텅이 아지곡 행 강은영에 땅은영에 멩텅이에 담양 지영 오곡.
 @1 그거 가정오민 집이 왕 물려?
 #1 그거 멘네 그 물레에서 ㄹ 그 썬 뽑아야 뉘어. 영영 맥이명.
 @1 물리지 안허고 그냥 헤?
 #1 아니, 아니. 그냥 북삭허게시리 지대로 ㄹ 소게가 다 나온 거난.
 @1 응.
 #1 경헤근영에 이제 그 멘네 썬 물레에 영 맥이명 영영 헤가민 썬 씨대로 소겐 소게대로 나와. 경허민 저디 아저가민 ㄹ 막텅이로 두드리명 지네가 다 알양 헤줘.

씨아

@1 그 영 멘네 맥이는 그 기계는 물레엔 곱습니까?
 #1 물레. 응. 동글랑현 거 이제 막텅인가 뉘엔 곱오민 알아들을 거니. 낭을 다듬이 마께 모양으로 멘든 거 이제 이디 영헤근영에 멘들아. 경허민 이제 즈룩 이디 멘들민 이거 영영 둘러가민 그레 그 멘네 그 핀 걸 영 썬썬 물려가민 썬 이녁 앞드레 떨어지고 소게는 저 뒤 물레 등얼러레 떨어지고.
 @1 영 돌리는 단 이진 즈룩이엔 곱고.
 #1 응, 즈룩.
 @1 아까 영 낭 두 개 영 뉘 거는 요거 뉘엔 곱습니까? 뉘엔 곱는 말 엇수과?
 #1 곱는 말 무신거. 그 물레에.
 @1 이거 영 돌아가명 빠지는 거주예?
 #1 어, 어. 그 물레.
 @1 요건 뉘엔 곱아?
 #1 물렛살, 물렛살.
 @1 물렛살 예. 요 물렛살 옆쪽에 여기는, 요 돌리는 디 말고.
 #1 돌리는 디 말고 그거 무시거엔 안 곱아봐신디.
 @1 뉘 귀엔 곱진 안 험니까?
 #1 아니.

@1 경은 안 곴아. 밋테 곴앙 안지는 건.

#1 곴앙 안지는 거 무신거 방석?

@1 아니. 물레.

@2 판때기.

#1 아 그 곴앙 앓는 거 엇어.

@1 아, 곴앙 앓는 거 엇어? 막 움직여 불지 안해?

#1 그냥 그자 널짜판 닳은 거 영 멘든 것에 그 낭토막 우이 그 다듬이에 그거 현 거 두 개 메왕, 이거 두 개 메왕 이 알트레 쑥쑥 드리몰민 둘러가민 헛주.

@1 아 밑에는 그거 움직이지 안허게 허는 거 엇어.

#1 움직이지 안허게 다 그 장치헨 이신 거난. 경 막 무겁지 안허고.

잣기

@1 게믄 이거 다 헤근에 물레에 헤근에 다 빠민 그다음엔 뭐해? 가이를 소게를.

#1 소게 꺾사 곴으난게 저 서귀포 이불 멘드는 그 소게공장에 아저가민 우리 전기떡 닳게 멘들앙 주민 아정오랑.

@1 전기떡 닳게 만든 건 뉘엔 곴아?

#1 거 무신거 소젓빈, 소젓빈 헤나난. 몰라.

@1 무신 거 소게?

#1 소젓빈, 소젓빈.

@1 아. 빈떡이엔 허는 말인가? 소젓빈.

#1 몰라. 영 빈떡 닳은 거난사 경 곴아신디 몰라도.

@1 삼춘넌 전기떡이엔 곴아라. 아까예.

#1 우린 전기떡이엔 곴는디 전기떡 꺾 멘드난에 경 곴아신디 몰라도 소젓빈, 소젓빈.

@1 소젓빈, 소젓빈. 응.

#1 경헨 그거 아정왕 이제 또 실 좇는 것에 이젠 영영 둘러가민 그 실이 그 이만인 현 것에 뱅뱅 감아지주게.

@1 그 감아지는 건 어디에 감아진텐 험니까?

#1 아니 그 멘든 거 영 몽텡이가 요만큼 저 감기게 현 건디 막 크게시리 실로 북 멘들듯이.

@1 예.

#1 북 멘들듯이 그걸 막 크게 멘들아. 이만큼 요만큼허게시리.

@1 예.

#1 경허민 그레 그 실 잣아가민 그레 문 감아지민 이제 그것 또 엇어가민 그 빈 거 갈 른 걸 그 빈떡 닳은 걸 영 잇영 또 동기곡 헤가민 실이 자동적으로 잇어져.

@1 응.

#1 경헨은앵예.

@1 그거 실 영 잣을 때 여기 가레기엔 안 험니까?

#1 가레기.

@1 가레기에 감아지는 거 아니.

#1 응.
 @1 쟁 어디 감아지는 거봐?
 #1 그 원터거지에.
 @1 무신거 원터거지?
 #1 원터거지에 이만인 현 항굴레 닳은 그.
 @1 항굴레 닳은 거.
 #1 응, 그것에 해근에 빙빙 감아지주. 잣아가민.
 @1 예.
 #1 기계로 자동적으로 감아져. 영영 해가민. 일름이 뿔산디 몰라도.
 @1 일름은 뿔산지 모르겠고예. 가레기에 감아진텐.
 #1 가레기에는 저 미시거니 그 저 에 그 멩지 차는 것ㄴ라 꼬리. 그 가레기 허는 거는 꼬리, 꼬리 멘드는 거.
 @1 응, 꼬리 멘드는 거.
 #1 복디 이레 들어갓닥 나왓닥허는 그 쏘곶에 그 저 배 모양으로 멘든 디레 꼬리 놔근엥 에 이레 흔 번 저레 흔 번 행 짜는 거.

무명 종류

@1 미녕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무신 미녕, 무신 미녕?
 #1 아니.
 @1 그민 아까 옛새 미녕, 일곱새 미녕 허는 말은?
 #1 옷새 미녕 아니 그거 옷새 미녕이 아니고 토페 무시거 그런 거.
 @1 그건 베고. 미녕이 막 즈질게 짜민 여기 촘촘허게 막 예 실이 하영 들어가민 곱고 무사 실 흐곶 듕성듕성 들어가민 하영 안 들어가민.
 #1 그런 거 엇어.
 @1 그런 거 엇어마씨?
 #1 그런 거 엇어. 미녕은 흔 부류주.
 @1 미녕은 흔 부류. 이것도 노입니까? 미녕도. 솥아?
 #1 아니.
 @1 이건 안 솥아. 미녕은 안 솥아예.
 #1 저 멩지만 솥주. 멩지허곡 베.
 @1 예.
 #1 베는 짜기 전이 솥으고, 멩지는 짜도 솥으곡 노이는 거주. 노인다, 노인다 행.
 @1 미녕은 무신 옷 만들앙 입어났수과?
 #1 미녕, 갈중이도 멘들앙 입고 적삼도 멘들앙 입곡 또 꺾은 물 들영 겨울에는 저고리도 멘들앙 입고. 또 그거 행은엥에 이 강알 튼 정벙이, 고장중의, 고장중의 허멍 그거 행 멘들 앙 입고.
 @1 응.
 #1 몸빼엔 허는 소린 새시대 나사 몸빼, 몸빼 헛주, 중의, 정벙이.

#2 감 들여근에.

#1 증의, 정병이. 옛날 어른덜 증의, 정병이.

@1 응.

#1 경헛주. 요새사 몸빼, 몸빼 험주.

모시

@1 모시도 해낫수과? 제주도 모신 엇지예?

#1 모신 잘 안 허주.

@1 모시로 경해도 옷은 만들앙 입읍니께예. 무신 옷 만들어?

#1 모시 사당 모시 멘들앙 입어나도 모시 이 스방에선 잘 안 헤.

@1 아.

#1 멍지덜은 집집마다 웬만허민 헛주마는 누에 질루는 거.

@1 응.

#1 멍지 허는 집이도 벨로 하영 엇어났저.

@1 경해도 남자어른덜 모시 창옷이영 모시 두루막이영 헛 입지 안헤?

#1 그 저 그런 거는 맞추앙, 미승집이.

@1 아.

#1 미승허는 집이 한복칩이 맞창.

@1 팔월멩질쫘 뒤민 모시 두루막덜 입영.

#1 응. 멍지가 하영 입엇주. 멍지. 멍지 두루막, 멍지 증의적삼, 쫘께, 그거 깎지.

@1 응.

#1 정병이 정병이 허멍.

@1 모신 하영 안 헛구나예?

#1 왜 모신 하영 안 헤시닌 허민 그때 시절엔 오십대 삶이 어려우난, 오십대가 많이 살 았다고. 경허난 이제 주기미 옷을 헛라고. 죽으면 입지나 관에 담으나 헛라고 그 모시옷은 잘 안 허고 모시옷은 허민 그 저 즈손덜이 쫘 쳐가면 저 즈손덜이 펜안 안헌텐. 모시옷은 관 속에 놓도 안허고 입지지도 안허여. 게난 멍지옷이나 미녕옷 그든 것도 좋고, 멍지옷 그런 거 광목 그런 거.

@1 자기가 입다근에 그걸로 죽영 갈 때.

#1 관에 그 저 시체만 허민 그 관이 골랑 이레 저레 착착허난에 어디 메영 갈 때라도 문 으레 갈 때라도 경허난 그걸 양쪽에 궤와. 그걸로 시체 움직거리지 안허게. 경헤영 그런 거 엇인 사름은 이제 나륙쫘, 산뒤쫘. 이디선 산뒤쫘. 산뒤쫘 두드려근영에 마께로 헤여근에 이제 피와. 그거 허영 관 소꿍에 담고 헤낫어, 엇인 사름은.

@1 아까 삼춘 주게미 옷이엔 헛 게마는 주게미 옷이.

#1 죽는 사름 옷.

@1 그게 호상옷?

#1 아니.

@1 그건 아니고.

#1 호상옷은 아니고. 그 관 소꿉에 담을라면.
 @1 옆에 놀 걸로.
 #1 놀 거.
 @1 걸 주게미 옷이엔 골아?
 #1 응. 경혜영 그런 거 잇이면 이제 산뒤쪽 이제 저 마계로 못아근엿에 피와근엿에 양쪽에 놔근에. 경혜났주.
 @1 그 양쪽에 놓는 거를 다른 말로 곤진 안허고? 보공 영허는 말.
 #1 보공.
 @1 맞지예. 보공.
 #1 보공 놓는 거.
 @1 보공 놓는 거. 게민 주게미 옷은 뭐라?
 #1 게 죽는 사름 옷.
 @1 아, 죽는 사름 옷.
 #1 입어난 사름 옷.
 @1 아, 입어난 옷.
 #1 입어난 그 죽은 사름 입어난 걸 그레 놓나 이 말이주. 산 때 이제 성헌 때 입어난 걸 그레 놓나 이 말이주.
 #2 나이롱은 아이 놓주게.
 @1 나이롱은 놓민 안뒤예.
 #1 응. 나이롱도 낱 안 뒤고 모시도 낱 안뒤고. 모시는 더 안 뒤어. 나이롱은 왜 안 놓느냐 허민 나이롱은 안 썩는 따문.
 #2 저고리를 하도 마음에 들언 할망이 헨디 할망 죽으난 그걸 입젧어. 입젧 묻어신디 천리를 허게 뒤연 보난 안 썩엇더라고.
 #1 썩지 안허여. 나이롱은 절대 안 썩어. 비니루 멧 년 낱당 파내엿 봐. 비니루 썩어? 그 거 녀시라.

삼

@1 게민 이번엔 삼예. 삼도 여기서 많이 키왓주예?
 #1 삼은 우리 실피 씨지근이 자파리헧주.
 @1 아.
 #1 삼 갈앙.
 @1 삼 밧디 갈아?
 #1 우연에 갈앙.
 @1 우연에 갈아.
 #1 응, 우리 이거 집이민 이 집 엠에 것ㄹ라 우연, 우연허주.
 @1 응, 얼만이 갈아?
 #1 요 방 두 개만이.
 @1 우연이 잘도 널른게.

#1 요 방 두 개만이 충분허주.
#2 하. 그것도 벳기민 막 허주.
@1 삼은 씨 뿌리는 거주예.
#1 응. 경혜영 이 천장 미칠 만씩 크주게.
@1 아, 이자락 큼니까?
#1 응. 경허민 그거 이제 비영 그거 비영은영에 이제 독독 두드려 가민 그제 먼 소굽에
벳다귀는 나오곡 꺾데기 나오곡 허민 그거 작작 이제 짜어근영에 그거 허영 잣물에 또 그
것도 숲아. 숲아근영에 이제 그걸 냇물에 강 빨아당 마계질허멍 빨아당 그걸 이젠 베 걸영
들랑. 이제 눈을 오나 비가 오나 허민 그거 영 독무릅 걷영 앓앙 그 삼았어. 이빨로 짹짹
홀트멍 경혜영 그걸 씨지근이 자파리헛주.
@1 응.
#1 우리 할머니가 그 멩지도 차고 미녕도 차곡 토페도 차난.
@1 예. 자 그 삼 씨 뿌려근영에 가이를 키우젠 허민 뭐 검질 같은, 걸름 같은 건 안 줘?
#1 걸름 벨로 안 허고.
@1 검질도 안 매 줘?
#1 옛날에 무신 비료가 서서? 미시거 서서? 검질은 메고.
@1 검질은 메고.
#1 제완지 닳은 그 검질은 메고. 옛날엔 비료 엇이난 쉼걸름 기자 꿀앙 내불면, 쉼걸름
헛살 비영 내불민 그제 걸름이주.
@1 아.
#1 경혜영 막 키도 커. 그 쉼걸름 꿀민.
@1 응, 쟁 막 크민 아까 짤랑 말리지 안헤?
#1 아니 놀 건 때 헤야.
@1 놀 건 때 헤야 뉘.
#1 놀 건 때 헤야 꺾데기가 잘 벗어.
@1 아, 놀 건 때 두드려마씨?
#1 응. 경혜근영에 꺾데기 벳겨.
@1 그걸. 밑에 무신거 놓고, 뉘로 두드려?
#1 아, 우리 이디 새 두드리는 무시거니 그 저.
@1 덩드렁?
#1 던드렁, 던드렁, 던드렁 헛주게.
@1 예, 던드렁으로.
#1 잘 아네. 던드렁마께.
@1 응, 던드렁마께.
#1 그걸로 헹 독독.
@1 밑에 던드렁 놓고?
#1 요건 던드렁이민 이 우트레 낱 독독 두드려.
@1 영헹 독독 두드려. 그거 전체 이만큼 긴 거를 다 두드릅니까?

#1 응.
 @1 아니민 이 밑에만.
 #1 해야, 두드려야 껍데기가 잘 벗어.
 @1 아. 전체를 다 두드려.
 #1 응, 경 안허민 영 벗겨가다가 짜져 붙어. 그게 꼬차져.
 @1 그믐 다 두드령 껍질을 영 벗겨.
 #1 응.
 @1 다 껍질 벗기민 그다음 요건 어떻게?
 #1 경헤영 그거 자 하람낭 ㄴ사 곁은 말 하람낭 끈어다근엥에 재 불 습으민.
 @1 숲아?
 #1 그거 불 습앙 불 때어가민 재가 나오거든. 재가 나오민 그거 이제 큰 솥디 놔근에 그
 잣물 허영 숲아.
 @1 계믐 야이가 두드리긴 헛주마는 막 큰, 긴 건디 솥디 영 사려놔?
 #1 사려놔.
 @1 영 무꺼근에? 아니민.
 #1 영 무꺼근엥에 솥드레 영 노명 허민 그계 동그락케 사려져.
 @1 아.
 #1 그거 막 긴 거난 영영 흔 번에 무신 앓당 툃허게 놓질 안 허고.
 @1 계난.
 #1 이렇게 이렇게 사려져. 경 놔가민.
 @2 계난 그거 거죽 벗길 때 영영헝 줄 나란히 뒤게 헝 한 무끔씩 영 무끔구나.
 #1 흔 무끔씩. 많이 무끄민 안 뒤고.
 @2 한 요정도 헝 무끔?
 #1 이녁 가져덩이기 좋게. 경헝 이제 빨앙 오민 그거 무끈 채로 세답베 헤근에 이레 가
 림 갈라근에 툃툃 걸쳐. 경허민 재기 몰라, 빨리.
 @1 쟁 다 들르민 그다음엔 무릅에서 영영.
 #1 응.
 @1 갈라근에?
 #1 영영 헤가민 그계 갈라져. 영영 이빨로 영 흘터가민.
 @1 이빨로, 아.
 #1 흘터가민 이제 갈라져 가민 영헝 손으로 헤영 그레 이제 영헝 쪽허게시리 이 독무리
 로 영허민 노 파져.
 @1 아.
 #1 잇어. 잇음을 잇어져.
 @1 이 독무릅으로 허는 건 잘라진 두 개를 영 잇는 거파?
 #1 응. 잇는 거.
 @1 실 잇는 거.
 #1 실 잇는 거. 그거 잇영 차롱이나 무시거 이디 낳은엥에 뱅뱅 동글랑허게시리 허영 영

잇엉 농곡 잇엉 놓고 경허는 거.

@2 잇으멍 영 차롱에서 험니까?

#1 응. 차롱드레 영 우리가 잇으민 영 놓주게.

@1 동글랑허게 그냥 놓기만 허는 거짜?

#1 허꺼지민 안 됩니까.

@1 그니까.

#1 경혜근에 다 헤지민 그거 헤영 저 미시거니 저 그것이라 뭐엔 허느니. ㄹ레착 ㄴ근엥 에 저디서 이디 우리 실 아저가곡 아저오곡 허멍 그거 ㄴ ㄴ디에 새 잇어근엥에 이제 가져 가곡 가져오곡 헤근엥에 이디 사름 하나 앓곡 저디 사름 ㄹ레착 옆에 하나 앓곡 헤영 그 ㄴ디 새 잇어근엥에 이제 이레 앓당 안네곡 또 이디서 허민 또 저레 아정가멍 새 그 곶냥 으로 새 ㄴ디 곶망으로 이제 그 실 꿩듯 저 바농귀 꿩듯.

@1 예.

#1 경혜근에 저디 아정강 또 이레 아저오멍 또 바농귀 꿩듯 이레 아정왕 또 이디서 또 저레 가젠 허곡. 경행 다헤지민 그 가시리풀을 칠허주.

@2 삼춘이 거기 싯곡 여기 ㄹ레착이 이수다예.

#1 거기 ㄹ레착 그디 사름이 하나 있어.

@2 그민 ㄴ디집은 한 요 정도 행 ㄴ. 요기 곶냥에 끼우멍 글로 가곡 곶냥에 끼우멍 일 로 가곡 곶냥에 끼우멍 다시 글로 가곡.

#1 응. 경해야 이것가 요렇게 잣히민 이디 곶망 꼬리 들어가게 곶망 나곡. 요렇게 잣히 민 또 이디서 이레 오게 곶망 나곡 경해야 경혜영 등기곡 차고 해야 될 거. 겨난 꼬리가 이레 가불 때는 꼬리가 영허민 이디가 구멍 나잖아. 영 저 새가 영 사크라지민 경허민 꼬 리 이레 갈 때는 탁 등경 또 이레 허민 또 이착 손으로 영 탁 헤근에 요렇게 등경허고 경 허주.

@2 응.

#1 페까라와.

@1 페까라와.

#1 페까라와. 쉽지 안허여.

@1 아까 삼은 먼저 실 험 때 삶곡 그다음에 멍지는 다 찬 다음에 삶곡예? 천 멘들아냥예?

#1 응.

@1 삼은 만들어 ㄴ근에 천으로, 천 다 만든 다음엔 안 삶을 거구나예.

#1 건 안 삶아. 토페, 토페 허멍.

@1 그제 토페.

#1 김시룽허주.

@1 제주도에서 멘든 게 토페마씨?

#1 응.

@1 그 토페는 걸론 무신거 만들앙 입어?

#1 것도 이 등지젠가 무신 어른덜 하르방덜 이제 적삼도 멘들고 꿩계도 멘들곡 이 정병 이도 멘들곡 여름에. 겨울엔 얼영 못 입는 겨난 여름옷.

@1 거난예. 지금 입으신 이 옷이. 이것도. 이젠 뭘로 멘든 거?
 #1 이거 멩지.
 @1 건 멩지.
 #1 멩지에 물들인 거.
 @1 아.
 #1 멩지에 감물 들인 거.
 @1 비싼 옷에 감물 들였수과?
 #1 복수건으로 만든 거. 켤당 칩이 이제 어른이 돌아가나 어멍허민 가민 켤당털 이 복수
 건 하나씩 주메.
 @1 예, 예.
 #1 거 버려볼지 못허민 그거 메왕 낫당 이런 것도 행 입꼭 또 어깨마리만 잇게시리 헤영
 뚝바데 멘들앙 입꼭 헛주.
 @1 어깨마리.
 #1 난닝구.
 @1 아, 어깨마리만 이신 건 뚝바데.
 #1 난닝구.
 @1 난닝구. 이제 말허민 난닝구.
 #1 난닝구 직접 말허젠 허민.
 @1 지금 입으신 건?
 #1 이젠 뚝바데.
 @1 등지게 이젠?
 #1 등지게.
 @1 이젠 등지게.
 #1 하하하 등지게.

남자 옷

@1 옛날에 남자 어른들 입어난 옷은 무신 옷 무신 옷 어디 웨방이도 가젠 허민.
 #1 웨방 가젠 허민.
 @1 무신 옷 입영 가수과?
 #1 적삼에 찌께.
 @1 젤 소곱엔 아까 뚝바데? 먼저 입어?
 #1 젤 소곱엔 저 거시기.
 @1 안 입어 런닝구?
 #1 난닝구 대신 그 무신거게 저, 궂사 나 곧지 안헤냐?
 @1 뚝바데.
 #1 뚝바데. 그거 난닝구 대신 그거 입고 그다음은 적삼.
 @1 적삼 입고.
 #1 적삼. 풀 긴 거.

@1 풀 긴 거.

#1 그다음은 쫓께. 그다음은 아랜 정벙이.

@1 정벙이 입고.

#1 응. 겨울에는 바지, 바지하고 여름엔.

@1 중의하고 정벙인 뭐가 다른 거?

#1 그거 ㄱ튼 건디 중의엔도 큰고 정벙이엔도 큰고.

@1 아.

#1 여저 중의, 남저덜 건 정벙이. 그 공장이 그 공장이라도.

@1 하하하. 쟁 그거 입고 우에 뭐 두루마기나 이런 거.

#1 두루막.

@1 두루막 입어마씨?

#1 응, 두루막 어디 큰일칩이라도 가젠 허민 두루막 남저덜.

여자 옷

#1 여저덜은 적삼 하나 겨울에는 멩지적삼이나 베적삼이나 하나 입곡 치마나 행 입으민
걸로 곳.

@1 끝인디

#1 치메 치메허주. 치마도 이거.

@1 치메 안에는 무신거 입어?

#1 치메 안에 속치메엔 현 거 잇주.

@1 속치메 입고 그다음엔

#1 그다음에 꺾데기 뭐 천, 멩지 치메나 경 안허민 베치메.

@1 아니, 아니. 속에, 속에.

#1 소곶에 바지, 정벙이.

@1 팬티 이런 거. 정벙이.

#1 살마다.

@1 살마다 입고 그다음?

#1 그다음은 정벙이 입고.

@1 정벙이 입고.

#1 그다음 치메 입고.

@1 그다음 치메 입고. 응.

#1 계난 저 말만, 이 큰는 것만 딱난 거주, 요새에 그 입는 거 똑ㄱ튼 거. 똑ㄱ튼 거.

아기 옷

@1 애기덜은 무신 거 입젿수과?

#1 애기덜토 마찬가지로. 애기덜토 쩌글락허게시리 정벙이민. 겨울에는 정벙이 멘들앙 애기
는 강알 막지 안허영 터근에. 경행 어깨마리 돌아근앵에 입져주고 여름 이 흐쉴 역아가민
강알 막앙 멘들앙 입져주고. 살마다 모냥. 요새 저 무시거.

@1 반바지?

#1 반바지 모양. 경행 입져주곡 해신디, 요새 사름덜은 거 멘들앙 입지지도 안혀여. 나깁지도 그거 우리 애기덜 거 멘들명 입졌는디 사보질 못했주, 사지 못헿 그자 거 멘들명 입졌는디 요새 사름덜은 거 멘들명 입지지도 안혀여.

@1 아, 그건 어디 단추 다는 거짜? 아니민 끈 다는 거?

#1 고무줄 담앙 아래 건 입지고 우인 또 난닝구 모양 그냥 헿 멘들앙 입지곡 헿주.

@1 애기 곧 날 때 입지는 건 무신거짜?

#1 무시거니 뱃 무시거, 땃적삼인가 무신.

@1 땃적삼. 붓디창옷 영 안 곤고.

#1 붓디창옷, 붓디창옷이엔도 곤곡,

@1 땃적삼이엔도 곤고.

#1 응, 땃적삼이엔도 곤고

@1 그거는 다른 옷하고 흐뎡 다른 게 뭐마씨?

#1 다른 거 엇일걸.

@1 소매는 어떻허고? 소매 흐뎡 질게.

#1 스미 질게 허주게. 그 붓디창옷인가 붓땃옷은.

@1 응. 붓땃옷은.

#1 아기덜 입을 거. 겨고 그건 똑 베로만 멘들아.

@1 아, 베로만.

#1 거 무사 베로만 멘드냐면 등어리 굵어지렌. 그 애기덜 등어리 굵지 못허지 안허민 응 응허명 영영 헤가민 지대로 굵어지렌.

@1 아.

#1 그걸 입져야 그 피부병이 엇어진텐 허고 경헤났어.

@1 그거는 메칠이나 입지는 거짜?

#1 흐 그거 흐 일주일.

@1 흐 일주일 그 일주일 입져나민 거 데껴볼 거짜?

#1 아니, 그건 언제까지 놔둘 거주.

@1 아, 큰 애기 입지고 두 번째 애기 입지고.

#1 응. 다 입져사주 이녁 나질 때까지.

@1 아. 늬의 집이 것도 빌려당도.

#1 빌려당 입는 집이도 이서, 애기 잘 못 질루는 집인 애기 잘 키우는 집이 거 빌려당 입곡 경행 입지곡 해났주. 이 애기구덕도 애기 잘 키우는 집이 그 구덕을 빌려당 일부러 녹져나곡 헤.

@1 삼춘도 어디 빌려줘났수과? 애기 잘 키우난.

#1 어, 나 육지까지 가났어. 우리 메누리 저 성네 집이 가났어. 애길 경 키우질 못헿젠 나민 키우지 못헿젠 허명.

@1 애기 구덕을 빌려줘?

#1 응, 구덕을 그 상자리, 베로 헿 상자리 멘들고 헿 거 육지까지 가났어. 이제도 이서,

공장에. 돌아매언.

@1 거 저 대구덕이지예?

#1 대구덕.

@1 아까 상자린 뭐?

#1 베, 베.

@1 베로 어떻 행 멘드는 거?

#1 일로 절로 영 등겨근엥에 일로 등경 께 문들곡 께물곡 엽뎡이로 허곡 노로 이제 상자린 노로 멘들아. 이제 그 우에 베 헤여근에 베 양쪽 그 버리줄 메듯. 거 저 알르레 쳐지 지 말렌. 경헨 메어근에 헤여났어. 그 애기구덕이 공장에 이제도 창고에 걸어진 잇저.

@2 대구덕이 아직도 신 거라?

#1 응.

@2 사진 찍어사쿠다.

@1 그 붓디창, 붓뎡옷은 어디 시험 보레 갈 때도 옷 소곱에 담양 가민 좋덴 헤라.

#1 응, 경헨덴 헤도 우리 아이덜은 경.

@1 경은 안 헤보고.

#1 그건 안 헤봤어. 붓디창옷도 요작이까지 놔뎡단에 케와 붙엇저.

@1 아이고 케와붙디가?

@2 아이고 아깝다. 셔시민.

버선

@1 보선은 옛날에 양말 엇이난 보선 헤수게예?

#1 보선.

@1 보선은 이것도 만들젠 허민 무신 본이나.

#1 본 이서.

@1 본 이서?

#1 응, 우리대로 멘들앙. 그 본 이녁 발에 맞게 멘들아. 경헨 그거 놔근엥에 광목이고 미녕이고 이제 그 본 놔근엥에 2새로 돌아가명 3아근에 그거 행 기자 손으로 허는 사름은 손으로 허고, 미승에 허는 사름은 미승에 허고 경허명 우리 멘들명 헛주.

@1 아, 이 보선도 요 앞에는 무신거여, 뒤에 무신거여.

#1 앞코지, 뒤척이

@1 앞코지, 뒤척이. 그다음에 요기 영 흐뎡 들어간 디, 벗어지지 말렌.

#1 애뜯.

@1 애뜯. 애뜯 잇고. 그다음 요기 들어가는 딘, 목, 버선목?

#1 보선목

@1 보선목. 요딘?

#1 보선창.

@1 보선창. 혹시 요 우에 요기도 이수과? 이름?

#1 으으.

@1 그런 말은 엇어예.

#1 그런 말은.

단추

@1 응. 단추는 옛날에 이런 단추들 엇어났수게. 삼춘은 무신길로 단추헙디가?

#1 별므작.

@1 이런 단추 없을 때예.

#1 거시기 저 형겹 해근엿에 뱅뱅 그 바놓으로 헤영 그거 감좌. 이제 그거 ㄹ는ㄹ는허게 멘들아근엿에 그거 행 우리, 우리도 막 그 별므작 믹좌났어.

@1 아, 해납디가?

#1 응.

#2 우리 별므작 잘 해났저.

#1 옛날에 우리 저 물에 들레 땡길 때에 속곳. 요새에 옛날엔 소중의, 소중의 헛어. 그 속곳ㄹ라. 경허민 그거 열두 밧디 메어근엿에 우리 입어났저.

@1 아, 여기 단추가 열두 개짜?

#1 응. 으섯 개, 으섯 개.

#2 속곳, 속곳.

@1 응, 속곳.

#1 소중의, 소중의.

@1 요기 여섯 개, 요기 여섯 개.

#1 응.

@1 막 하영 해신게예.

#1 응, 저 댓 개씩 헤영 다섯 개씩 헤영 허는 사름도 잇는디 그 슬 보이지 말젠 경 막 좃게 돌아났저.

@1 아.

#1 경헤영 곱 헤영 탁 둘러근엿에 메영. 우리 물에 들레 땡길 때 느랴 경헤났저.

#2 지금은 경행 입는 사름 엇어.

#1 엇주게.

@1 물에 들레 가는 그 소중의 말고, 평상시에도 여자덜은 속곳을 만들영 입엇수과?

#1 응.

@1 거 똑같아? 아니민 흐곶 달라?

#1 달라. 그 기냥 우이 것만 행은예.

@2 여기 없이?

#1 응? 아니 어깨마리만 잇게. 난닝구 모냥.

@1 난닝구 모냥. 밑에 속곳은?

#1 밑에.

@1 따로따로?

#1 응. 따로따로. 뽕스, 뽕스 허멍.

@1 지난 물에 들 때는 붙어잇수게.

#1 물에 드는 거 딱주게.

@1 아, 달라예, 평상시 입는 거영예?

#1 저 물에 들지 안해도 이 존등 배우지 말젠 소중의 옛날엔 소중의, 소중의 허명 소중 의들을 다 입엇주. 물에 들레 안 텡긴 사름도.

@1 아, 비슷한 거. 지금 물에 드는 옷이영 물옷이영 비슷한 걸로.

#1 똑ㄱ튼 거.

@1 아.

#1 이디 저 처대, 처대허명 이 삼각구 난 거를 요것가 거시기면은 이렇게 이렇게 헛주. 그 속곳 바데. 요렇게 경행 삼각구 나게 헤영.

@1 이디 영 들어간 요기 대는 건가?

#1 응. 그거 허영 이제 뒤에영 앞에영 부찌민 반뜩허주.

@1 이게 처대?

#1 응.

@1 요기가 처대예.

#1 응. 이 뒷바데 처대.

@1 아, 뒷바데 처대. 앞에 뒤에 똑같아? 앞판이영 뒤판이영?

#1 앞판이영 ㄱ따.

@1 아.

#1 경헤영 해야 옷 뿐이 잇주. 경 안허민 뿐이 없어.

물옷

@1 응. 물옷 말 나오난예 아까 소중기, 삼춘 소중기엔 곱아라예.

#1 소중의, 소중의.

@1 소중의. 삼춘넌 소중의엔 곱안게. 계난 소중의는 그 요기가 처대.

#1 응. 처대.

@1 요기 다리 들어가는 딴 무신거엔 곱아.

#1 다리, 그냥 다리.

@1 그냥 다리. 요기 다리 끼우는 거예.

#1 응.

@1 그다음 요기 앞판 요디는? 여긴 허리?

#1 허리 이거.

@1 허린 이거고. 그문 요기 끈 하나, 어느 짝으로 답니까? 이짝으로 답니까? 이짝으로 답니까?

#1 끈 양쪽에 다 들안 우린 입엇어. 몰라.

@1 아이고 두 개로 다 달앗수과?

#1 응.

@1 아. 양쪽에 두 개 다 달고. 요기 잇고 요기 처지에, 요기 가달.

#1 대부분은 하나만 들안 입는 사름은 하나만 들안.
 @1 응, 거니까.
 #1 하나만 드는 건 영 삼각구지게. 요만쪽에 허곡 또 뒤엔 가민 요레 돌아오게 허고.
 @1 아, 안 벗어지게.
 #1 응, 안 벗어지게. 벗어지지 안허게.
 @1 그니까예 반대로 이렇게 달아근에예.
 #1 응.
 @1 그 아까 돌막작, 별막작은.
 #1 별막작.
 @1 별막작은 어느 짝에 허는 거파? 오른짝이파, 왼짝이파?
 #1 아, 우린 이쪽에 들아났는디.
 @1 오른쪽에 들아났구나예.
 #1 메기 좋게.
 @1 아, 메기 좋게.
 #1 이녀 손버릇이.
 @1 게믄 요기 영 달고 요기 달고예.
 #1 응.
 @1 요 우에 아까 이 끈은 무신거엔 끈는 말 엇수과?
 #1 엇어, 그냥 끈나끼.
 @1 끈아기?
 #1 끈, 끈.
 @1 그냥 끈?
 #1 응. 끈나끼.
 @1 어튼 딘 메큰이여, 메친이여.
 #1 메큰이여, 메친이여 끈나끼여.
 @1 아니, 이디 토산이서 끈는 말.
 #1 토산이서 끈는 거 메친이엔도 끈고.
 @1 메친이엔도 곶아?
 #1 메친이엔도 곶아.
 @1 아, 요기 이쪽은 들마기, 별막작 허는 디난 요기는 무신 곶이여 무신 곶이여 영 허는 말 엇수과?
 #1 엇어.
 @1 산곶이여, 죽은곶이여.
 #1 아니, 아니. 그런 말 엇어.
 @1 암곶이여, 수곶이여.
 #1 아니, 그런 말 엇어.
 @1 그런 말 엇어예. 그믄 그 소중의는 무신걸로 무신 천으로 멘드는 거라?
 #1 광목으로 대중 만들고. 미녕으로 대중 만들고 물들영 검은물 들영.

@1 검은물 들염.

#1 또 흰 차 입구정허민 기자 헤영케 입고 헤영케 입는 거는 옛날에 비누 엇이난 빨기가 어려우난 경허난 그 검정물 들염. 물레 사단 장에 간.

@1 장에 강 물레 사단.

#2 광목에 검은 물 들염.

@1 광목에 검은 물 들염.

#2 우리 손으로도 문탁 미승에 안행 손으로 쥐났어. 속곳.

#1 우리 손으로 다 헛주. 미승에 가젠 허민 저 표선이나 가야 미승질허는 사름 이시난.

@1 이딘 집이 미싱 엇수과?

#1 아이고, 이제는 흰 멧 집이 하나씩 잇주마는 옛날에는 미승허는 사름 미승 이신 사름은 완전 그건 대부제칩이주.

@1 아, 대부제칩.

#1 우리 문 손으로만 헨 살앗주. 손으로 문 뒷바농질 멧침허명. 우리 소중원가 무신 그거 헤근에 물에 들레 가민 영 봐근에 아이고 뒷바농질도 곱닥허게 이쁘게 헛저.

@2 아, 잘헛저.

#1 곱닥허게 헛저. 이쁘게 헛젠 안행 곱닥허게 아이고 곱닥허게 잘도 헛저.

@1 소중의 말고 물에 들 땐 혹시 뭐 써났수과?

#1 수건.

@1 그냥 수건?

#1 응. 저 광목 수건.

@1 광목 수건. 뭐 무신 호품 이서 가난 머저 닳은 거 영헌 것도 막 헿 써십디다.

#1 아, 아니. 그건 우리 헿 땐 안 쓰난 모르고.

@1 아. 광목 수건은 벗어져 불지 안헤?

#1 안 벗어져.

@1 앞으로도 영 무꺼?

#1 아니, 그냥 영.

@1 뒤로만.

#1 기냥 수건 쓰듯. 경헤영 이거 눈 이민 이거 눈친 아니라? 눈친이민 영헤영 이레 무끄민.

@1 눈친이 이시난.

#1 눈친이 이시난 안 벗어져. 경행 눈 앞드레 동경 영 써불민. 쳇번은 이추룩 쪼끌락헌 눈 허다가 중간 뒤편에 이제 전체 영 많이 보이는 눈, 큰눈. 그거 헿에 허다가 이제 물질 설르건디 나 막 오래엇주. 열여섯에부터 물질은 헿 시작 허난에 흰 서른땀 나도록은 헛주. 경허다가 설러불엇주. 이 유채 보리 나가난에 저르도 엇고.

@1 예.

#1 또 요새 ㄴ찌 생복 값이여, 구쟁기 값이여 하영 줍시민 헤여짐사 헤신지 몰를 건디.

@1 맞아.

#1 그때는 아방네 친구 왕 잡아와도 아방네 친구덜 술, 멧 개 돌아왕 술 멧 개 치와불민 매기.

@1 하하하.

#1 경허명 허난에 시끄르완에 설럿주. 유채 보리 힘 시작허난 헤보질 안헨.

@1 아.

#1 옛날에는 메역 강 혼 짐, 저 알토산 바당에 강 메역 혼 짐 헤영 오민 버치게 지영 와도 동네에 흐끔씩 안네당 보민 들룰 거 었어. 다 나누당 보민.

@1 아.

#1 이 우리 이디 스물네 가위 살았는디 혼 짐 지영 버치게 지영 와도 그 스물네 가위 다 테우당 보민 없어.

@1 하하하

@2 아이고 아까운 거.

#1 경헤영 흐끔 헤영 들루와근앵에 그때에 저 메역 혼 근에 오 원. 삼 원, 칠 원, 십 원도 안 쥘 경헨 때에 나가 메역 헤단에 메역 일 년 구물민 혼 칭, 경허민 돈 잘허민 혼 이만 원, 삼만 원.

@1 아.

#1 경해도 그거 헤연도 나 저, 첸 이 삼춘사 알암신디 몰람신디 몰라도 고 당시엔 헨디 그거 부젠 경해도 우리 사는 집터 그거 헨 사고 해서.

@2 아이고 메역 헨 밧 사고.

#1 그때는 밧 혼 핑에 하영 가민 십 원, 이십 원, 삼십 원 허난.

@2 이만 원이민 완전 큰 돈 번 거네.

#1 경허난 이만 원 버슬민 막 하영 번 거.

@1 경허난.

#1 저 우리 지금 사는 집터가 저거 삼백 평인디 이만, 저 칠십 원씩 헨에 이만천 원인가 쥘 저거 사쥘어.

@1 미역 혼 헤 허민 집터는 사지켜예.

#1 응, 갱헨 저거 이제는 당취 그 갑으로 멩함도 못 들이주. 우리 저거 그것도 이제 풀젠 허민 저것도 십만 원, 십만 원이 뭐여 백만 원 건즘 갈 건디, 혼 핑에.

갈옷

@1 갈옷은 이제 물들이젠 허민 이제쥘 물들일 철 뵈수과?

#1 응, 이지금 들일, 흐끔 이서야.

@1 흐끔 더 이서야 뵈.

#1 응, 그 감이 역아야, 흐썰 훑어야.

@1 응, 감물 들일 거라예, 허젠 허민.

#1 혼 이제 혼 열흘.

@1 열흘.

#1 앞으로 혼 열흘 이시민 감물 들여.

@1 아, 그믄 허젠 허민 어떻헨니까? 그건.

#1 뵈아.

@1 자, 감 따다근에.
 #1 감 따당 이제 기계 이신 사름은 기계에 곶앙.
 @1 기계 엇인 사름은.
 #1 저 무신 기계 해도 뉘어 요새엔 저.
 #2 마께로 짙어근에.
 #1 거시기 우리 그 무시저 ㄴ는.
 @1 믹서기.
 #1 믹서기, 그걸로도 뉘어.
 @1 이제는 믹서기 해도 옛날에는.
 #1 옛날에는 마께로 그 방에혹 이신 사름은 방에혹에서 뺏고, 경 안헌 사름은 도고리엔
 헌 거 이서 남도고리. 남으로 행 판 도고리 이서. 낭푼이 모냥. 판 거 이신디 그거 아녀민
 또 기자 들에도 돌 놔근에 이제 두드리주.
 @1 돌에 돌좌근에?
 #1 응. 돌에 놔근에. 돌에 낭 돌로 못아.
 @1 아, 돌로 못앙. 응.
 #1 경헝 우린 방에 그 혹 이시난 방엿귀로 허여근엿에 뵈져근에 헛는디 그거 엇인 사름
 은 돌에 돌 낭도 뺏아.
 @1 아, 쟁 뺏은 다음에 그다음 어땡 헤?
 #1 쟁헝 천으로 물 짜근에.
 @1 아, 물 짱. 찌꺼진 엇이.
 #1 찌꺼진 데껴 불고.
 @1 데껴 불고 물로만예.
 #1 응.
 @1 물로만 헝 그다음에.
 #1 그다음에 몰루민 뉘 거주. 뉘.
 @1 옷을 그레 영 낭 어땡.
 #1 놔근에 조물조물허영. 이젠 그걸 다헤지민 베에 낭 두드려.
 @1 아, 돌르기 전이.
 #1 응, 돌르기 전이 그거, 그 주름술 폐와지렌 꼬글락꼬글락헌 거 폐와지렌. 이젠 손질
 잘헤근에 발레민 것도 좋아. 경헌디 꼬글락꼬글락허게 그대로 헝은 안 좋아, 보기가.
 @1 거난 말리기 전에 먼저 영 두드령.
 #1 응 말리기 전에 그 천을 멘작허게 주름살 엇이 폐왕 들좌야 그게 존 거, 잘 헌 거.
 @1 그문 그거 빨랫줄에다 넙니까? 아니민 테역뵈디.
 #1 빨랫줄에도 넙고 아래도 넙고. 그거는 뉘 뵈이 이신 사름은 아래도 넙어도 뉘고. 경 안
 허민 빨랫줄 메영 빨랫줄터레 미시걸로 헤영 접경, 이 접제기 나건디도 얼마 오래진 안헌디.
 @1 그거 흥번만 영 넙민 뉘는 거 아니잖아예.
 #1 물 자꾸, 물 적지명 넙어사.
 @1 거 메칠이나 넙어?

#1 그거 재기 발면 이슬 맞곡 헤영 이슬 발리곡 헤여근에 허민 흐 보름이민 발강게 잘
돌라. 잘 발아.

@1 아이고 오래 너는구나.

#1 내어놔다 들여놔다 허는 거난.

@1 아까 이슬 발르는 건 어평헌 거과?

#1 밤이.

@1 밤이 어평?

#1 밤이 널영 놔두민 이슬 맞곡 뒷날 벳 나민 벳 맞곡, 경허민.

@2 계난 비 안 오민 들이지 안해도 뉘어?

#1 응, 비 안 오민 안 들여도 뉘고. 그 비 오카부텐 들이는 거주. 비 안 오민 밤이슬 맞
곡 허민 감물이 더 고와.

@1 아.

#2 영 폐왕 이슬 맞이민 것이 더 발강케 고와.

#1 더 고와. 겐디 요새 감들이는 거 신식 사름덜 허는 거 보난 그 감물 닳은 거 사당 들
여근에 감 들염선게.

@1 하하하.

#1 계난 건 생전 안 벤허주게. 빨아도. 겐디 감웃은 오래 가민 헤영허주. 그 물 발앙. 나
도 이거 챗번은 곱닥헨게 물 발아가난에 히도 아니 히도.

@1 발암신게. 흐 번 더 헤도 뉘 건가?

#1 응, 이젠 흐 번 더 허민 저 곱진 안헤여. 꺼명허주.

@1 아, 거명헤 불어.

#1 다시 두불 이추룩 입당 들이민 꺼명허주 곱지 안헤여, 빨강 안 헤여. 물들여난 거는
벤허지 안허고 물 안 들인 거는 발앙 따시 들이민 꺼명헤.

목자웃

@1 아. 이딘 흐품 산촌이난 사냥허레 다니는 사름들도 털로 만든 옷도 입고 헤낫수과?
남자 어른덜.

#1 응,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 이 노리 가죽 모저도 헨 써난 하르방도 있고.

@1 응, 이제도 산 하르방 엿수과?

#1 이제 엿어.

@1 다 죽어 불언?

#1 이젠 그런 사름 다 죽어 부난 엿어.

@1 옷도 쪼끼 같은 거영.

#1 쪼끼 ㄹ똥 그 저 이만이 온 거. 도빠ㄹ찌.

@1 도빠ㄹ찌.

#1 경헤영 입는 사름도 이서났어. 경헌디 그런 어른덜 다 죽어 부난.

@1 아, 그건 털이 밖에 가, 영 밖에 털이 이서?

#1 밖에 가게.

@1 아니민 털이 안에 들어가.

#1 아니 아니. 그 털은 밖에 가게 허고 형겍으론 안네 허곡.

@1 응.

#1 저디 앓앗주마는 저디 앓은 하르방 저 아저씨네 하르방이 노리감티, 노리감티 허멍 노리 깎데기로 멘든 모저 써낫어.

@1 회장님?

#1 아니, 저디 흥 하르방 잇주. 요작이 아니 와난 하르방.

@1 아, 아니 와난 하르방. 신발도 가죽으로도 만들어낫수과?

#1 응, 신발도 가죽으로도 멘들앙 신고.

@1 노리 가죽으로?

#1 응. 경헨 신어낫어.

@1 그런 신발은 무슨 신발이엔 낄는 말 이수과?

#1 아니 그 무시저 가죽신, 가죽신 헤낫주.

@1 그냥 가죽신.

#1 가죽신, 가죽신. 가죽신, 가죽신도 허고 저 남으로, 남으로 헤영 신 멘들앙 그 아막신 아막신 허멍. 그 남신.

@1 응 남신예.

#1 그거, 그거 행도 신은 사름도 이서나고. 비 온 때에 그거 신으민 좋덴. 경헨나고 헛 주. 옛날에는 어른털이나 아이털이나 다 그 산뒤쪽으로 현 그 초신, 그것만 신엇주. 고무신 나건디도 오래지 안허연.

우장

@1 예, 비 올 때 입는 우장?

#1 우장.

@1 우장도 입어낫수과?

#1 어, 우장 우리 멜 중 알아.

@2 멜 중 알아.

#1 우리도 못일 중 알아.

@1 삼춘도 못아낫수과?

#1 응, 그 실, 그 저 새 뻥데기 영 짹짹 불라근앵에 내비뒤근에 노 파근앵에 허민 그 새 영헿 츄츄츄츄 헿 거슴나게 헤나민 느랍지 모양으로 헿 우장.

@1 건 어떻게 할 때 쓰는 거?

#1 안엔 따드락따드락.

@1 안에는 어떻게?

#1 안에는 그 못아난 그 머 낄지도 못허켜.

@2 매듭들.

#1 그거 허민 따드락따드락 입으민 까실까실.

@1 아, 그냥 입으민.

#1 응. 경해. 배꽃디로는 누람지 모냥 비 암만 와도 비 안 들고. 저 새 골른 거를 영 알 르레 가게 츠츠츠 올라가난애. 우리 안 해본 거 벨로 엇다.

@1 하하하. 우장은 어떤 때 입는 거짜?

#1 비 온 때.

@1 비 온 때 어디 가젠 허민?

#1 쉼 ㄱ꾸렐 가든지, 어디 동네칩일 가든지 허젠 허민 거 우산이난.

@1 아.

#1 요새 우산.

@1 동네칩이 갈 때도 입어?

#1 게 비, 옷 적지지 말젠 허민 패랭이 쓰곡.

#2 그땐 우산도 엇엇주게. 우산 이섯어?

패랭이

@1 계난애.

#1 우산 대신 우이 패랭이 쓰고.

@1 우이 패랭이 쓰고.

#1 밀짚패랭이.

@1 밀짚으로.

#1 밀짚 다와근애에 이녁냥으로 바농으로 다 멘들아.

@1 이디도 밀 해낫수과?

#1 응, 밀도 이서나고 보리도 이서나고 문 이서나고.

@1 밀짚으로 현 패랭이가 더 좋아? 질겨?

#1 응.

@1 밀짚패랭이 어떻게 만드는 거짜?

#1 밀짚패랭이 영 다와근에게.

@1 처음에 무신.

#1 다섯 곱으로 행 영영영 다와근애.

@1 다섯 곱으로.

#1 응. 다와가민 이 알르게 막 쳐 하영 해근애 거 뱅뱅뱅 감아돌아서 바농으로 행 뱅뱅 돌아가명 첫번은 망 멘들곡 그다음은 전 멘들곡 전은 요만큼. 널르게 허젠 허민 요만큼.

#2 보리짚 해근애.

@1 요기가 망, 요디가 전.

#1 이것가 전.

@1 이것가 전.

#1 요것가 망.

@1 요것가 망. 요 우애 꼭대기는.

#1 게 망.

@1 아니, 요거 망이난 요 우애 곤는 말 엇어?

#1 시작하는 디 게난 망.
 @1 아.
 @2 전체가 망이구나.
 @1 무신 생이방석이여 가메기방석이여 헨게마는.
 #1 그런 거 엇어.
 @1 그런 거 엇어.
 #1 그런 말은 안 곧고. 기냥 기자 망 멘들아 낭 전, 전도 멘들고.
 @1 아, 여긴 망, 요긴 전예.
 #1 여긴 저 망. 요 독지레 영 느람지ㄹ찌 해논 건 전.
 @1 따로 따로 만들앙 붙여?
 #1 아니.
 @1 ㄹ찌 흠치.
 #1 그냥 저 주어가명. 이녁냥으로 만들어. 전은.
 @2 아까 다섯 가닥으로 한텐 해신디 밀찍 이 대 하나에 다섯 가닥을 내가지고 영 줄을 거꽈? 아니민.
 #1 응. 경혜여근엿에 츄츄 잇음 잇으멍 돌아갈 거주.
 @2 응.
 @1 아니 다섯 개로 모양을 만들어서.
 #1 경헿 잇음 부찌멍 돌아갈 거.
 @1 거난 밀찍 찍이 다섯 가닥 아니?
 #1 응.
 @1 처음 시작할 때 다섯 개로 영 줄앙, 영 모양 만들앙 영 만들곡 영 만들곡 해근에.
 #1 응. 경헿 그거 저 그 밀찍 지러기가 쫄라가민 이레 잇어살 거주.
 @1 예.
 #1 잇어근에 츄츄츄츄 기냥 돌아갈 거주.
 @2 게난 요거 밀대면 껍 쓸 거 아니고 이게 하나?
 #1 응.
 @2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영헿 다섯 개를 꼬아갈 거?
 #1 응.
 @2 예.
 #1 경헿 거.
 @1 머리는 보통 세 가닥으로 땀니께. 우리 머리 딸 땀 세 가닥이잖아. 근데 밀찍은.
 #1 응, 세 가닥으론 안 땀.
 @1 다섯 가닥으로.
 #1 응. 세 가닥으론 안 땀. 경헿은엿에 그거 츄츄츄츄 잇음 부찌멍 길게 짜근엿에 이젠 혈만이 해지민 그거 망 멘들아근에 이젠 빙빙 돌아가명 주영 망 혈만이 영 써보민 이녁 머리에 맞게 해지민 이젠 이제부땀 전 만들 거.
 @1 응.

#1 영 세와근에.

@1 그거 뭐 틀이나 이런 거 잇진 안허고?

#1 아니.

@1 그런 건 엇이 그냥.

#1 짐작으로.

@1 짐작으로.

#1 이녀 눈짐작으로. 계난 기술이 좋주.

혼례복

@1 계난. 결혼식 헐 때는 무신 옷 입어근에 해난마씨?

#1 우리 저고리, 저고리치메주. 무시거 헛어.

@1 멍지 치메저고리?

#1 멍지 치메저고리.

@1 멘사포 쓰고?

#1 멘사폰 이섯어? 우리 헐 땐 사진도 안 찍으난 몰라.

@1 사진 안 찍읍디가?

#1 안 찍언.

@1 아, 삼춘네보다 흐뎡 뒤에부턴 예식장에서도 찍어라.

#1 어, 우리보단 뒤에서부턴 뒷해부떠는 저 미시거니 화물차. 감저 시경 멩기는 화물차 그거 험 시작허단에 또 츠츠 이서가난에 뭐 택시여 무신 허멍 헛주. 우리 헐 땐 사진도 안 찍으난 몰라.

@1 삼춘네 아까 사십사 년생. 흐 사오 년만 이서도 사람덜 예식장에서 결혼허고.

#1 응, 사오 년만 이서시민 사진 찍고 저 감저 타는 차라도 헤볼 건디. 뉘께로 헐 때난.

@1 아, 삼춘 뉘께 헤수과?

#1 뉘께로 허곡 족두리 쓰곡 저 건지 여찌곡.

신부 옷

@1 아이고, 삼춘은 건지 여찌곡 족두리 쓰곡 헝 헛디가?

@2 옷은?

@1 치메저고리 아까.

#1 옷은 멍지 치메저고리.

@1 멍지 치메저고리에 건지허곡 족두리 쓰곡

#1 응. 건지허곡 족두리 쓰곡. 뉘께.

@1 뉘께 타곡. 건진 어뎡 헝 멘드는 거마씨?

#1 건지는 저 머리 긴 거, 긴 거 양쪽으로 요디 꺾은 헝벅 헤근엥에 잇은 거 잇어. 경허 민 건지는 영헤근에 이레 뱅뱅 감아.

@1 건진 이녀 거 이서? 늣이 거 빌어당?

#1 늣이 거 빌어당. 이녀 것가 어디 서?

@1 거난. 늬이 거 빌어당.
 #1 이녁 짓도 이성 머리 길게 허민 기창 허는 사름도 잇주마는 경 그 머리 길게 헤영 기창 험 정도로 뉘게 살았어게.
 @1 응. 그든 그건 마을에 하나씩 이신 거파? 아니민 거 이신 삼춘.
 #1 마을에 하나씩 그때 족두리접이 잇었어. 거난 족두리 빌려쥬 샅 받곡 허는 접이 이섯 주. 경헌디 그거 험 전이 시집 가부난에.
 @2 아.
 @1 뉘 술에 시집갑디가?
 #1 ㄹ 스물에.
 @1 아, ㄹ 스물에. 그든 사십사 년생 오십사 년, 육십사 년에 결혼헛네. 짓도 막 빨리 결혼헌 짓도 아난데.
 #1 그때 시절엔 빨리 결혼헌 거 아니주. 그때 시절엔.
 @1 거난.
 #1 스물넷 나가민 늬은 새각시엔 헤났어.
 @1 응.
 #2 늬은 처녀엔 헛주.
 #1 스물넷 나가민 늬은 새각시, 늬은 새각시 헤났주게. 처녀엔은 곶았어?
 @1 삼춘은 이디 원래 토산?
 #1 원래 토산.
 @1 토산에 결혼헌 거?
 #1 토산에 살안 토산에 결혼헌 거.
 @1 어디 멀리 아니고 가까운 집.
 #1 가까운 디.
 @1 그든 뉘 탕은에 새서방은 뉘 탕 오고. 멀지 안헤도.
 #1 응, 뉘 탕 오고.
 @1 뉘께 탕 가고?
 #1 뉘께 탕 가고 경헛주. 요새 옛날에는 새서방이 가시어멍 재기 보민 숨벗어진텐 뉘 탕 새서방은 요새에 선재 저 저런 거라도 영 대로 줌지곡 폐우곡 허는 선재 잇잖여.
 @1 예.
 #1 그거 험 딱허게 앞이 막고.
 @1 아까 무사 막는다고 가시어멍 어뉘?
 #1 가시어멍 재기 보민 숨벗어정.
 @1 숨벗어지는 게 뉘?
 #1 브리기 실러. 바리기 싫어. 보기가 싫어. 숨벗어져.
 @1 숨벗어져. 누게가 숨벗어져?
 #1 가시어멍이 그 사위를 보면 따시 보구정 안 허덴.
 @1 아. 새각시 들앙가, 지뉘.
 #1 뉘 들앙 가는 새서방이 보기 싫어. 경험 헤났젠 그 입 막앗젠 눈을 막앗젠 곤나.

@1 아.

#1 새서방이.

@1 새서방이.

#1 또 여자는 그 새서방 올 시간 뒤통만 안고팡에 강 곱져근에 그 새서방 보민 숨벗어진 덴 경혜근엥에 고팡에 강 곱젓다근에 이제 그 밥상 새서방 밥상 받아나민 나왕 출령 뒤희 탕 가곡 헛주.

@1 하하하.

#1 요새는 뭐 가기도 전이 막 오랑 밥도 먹고 돌아뎡기당 결혼식 해도 아무 상도 안허는 디 경혜났어.

@1 치메저고리 입고 뒤희 장옷 같은 건 안 입어?

#1 장옷도 씨고 대가리에.

@1 대가리에 씨고, 헛난 입고.

#1 헛난 입고 경혜여.

@1 삼춘도 경헛?

#1 응. 하난 입고 헛난 대멩이에 씨고.

@1 대멩이에 씨고. 그믐 장옷은 어떤 모양, 어떤?

#1 파란 거, 파란 거.

@1 파란 거.

#1 이디는 짓허곡 이 곳동은 빨간 꼭두선 저 뒤희 먹저지 그런 거 헤근에 너미 빨간 건 허민 곳넛. 보기 곳넛. 먹저지 색깔 헛은엥에 곳동 놓곡 짓허곡.

@1 먹저지?

#1 먹저지. 그 색깔이 어느 거니?

@1 자주색 비슷한 건가?

@2 요거.

#1 요 색 비스름헛 거.

@2 먹저지가 뒤희?

#1 먹저지엔 허는 이런 색.

@2 이걸 먹저지 색이렌 헤여?

#1 응. 먹저지 옛날에.

@1 먹자주 이런 거 아니?

@2 응 그런 거 같다.

@1 여기 짓하고 곳동은 먹저지로 놓고. 이디는 퍼렁헛 색으로.

#1 응.

@1 그거 이제도 싣수과?

#1 아니 나 태와비언. 꺾 스물에, 꺾 스물에 시집가난에 그루후제 막 커져신 꺾라 아니 앓아내언 보난 원 끼우지도 못허는 거 아니.

@1 하하하.

#1 경허난 이제 썩레기 케우는디 우리 케우는 디 이시난 그디 간 케와 비서.

@1 슬, 슬쩍실 테주게. 키야 뭐 얼마 커시쿠과?
 #1 응, 겨난 그땐 ㄱ늘고 키도 크지 안헤나신고라 아니 앓아내영 입으난 끼와져? 못 끼와. 졸름도 헐 뿐더러. 몸땡이가 들어가질 안허여.
 @1 줄어 붙어신, 줄어들어 붙어신가? 옷이.
 #1 줄어든 게 아니고 내가 *** 큰 거. 슬져불곡 큰 거.
 @1 아니 시집갈 때 헤난 그 장옷으로 죽영 갈 때도 헌텐 헉디다.
 #1 죽어 갈 때 헌디 요새 얘기덜 그런 거 놔줘게. 안 놔주고 장애자신디 다 멧경 내불민 이런 저 무시거니 저런 저, 저.
 @1 화장지.
 #1 화장지. 그런 길로 대게 놓는 거 닥안게.
 @1 예, 맞아.
 #1 계난 그건 사람 죽영 쳐져가면 펄뚝 뒤어. 저거는.
 @1 뭐 뒤어?
 #1 펄뚝 뒤어, 펄뚝. 흑 편 거 닥아. 죽 쏜 거ㄱ찌.
 @1 예, 예. 물 젓이민.
 #1 경헌디 우리는 이제 만일에 나가 이제 죽으민 화장질 닳든 아무걸 닳든 저 화장실에 강 케와불민 말 겨난 건 필요엇인 거고. 우리 얘기덜 뜰림엇이 케울 겨난 뒤.
 @1 그 장옷은 나 거가 이실 철이파, 늪이 거 빌려당 허는 거파?
 #1 아니 나 겨난 케와 비엿주, 늪이 것사 케와져게.
 @1 계난예. 머리에 쓰는 것도 나 거? 두 개 헨?
 #1 아니 그거는 빌어온 거.
 @1 아, 하나는 빌어오고 하나는 입고. 나가 헨 입고.
 #1 계난 늪이 거는 주어불고 나 거는 놔뒤단에 입어보난에 당취 윈, 풀이 안 들어가난에 입을 수가 없어.
 @1 건 나가 만든 거파? 친정어머니가.
 #1 나가 멘든 거.
 @1 친정어머니 멘들어준 거 아니고.
 #1 아니 나가 만든 거. 누에 질환 나가 만든 거.
 @2 아이고.
 @1 삼춘이 직접 누에 질환에?
 #1 응.
 @1 직접 차고?
 #1 아니, 짜는 거는 할망이 짜고.
 @1 응.
 #1 쟁헨 멘들안에 누에 질환 멘들안 나 우리 동생도 저 조선옷 그거 정뽕이 저 바지저고 리 이제 후루메, 두루마기ㄱ지 다 멘들안에 장게보내고, 그거 장게 문 보내고, 나 헨 이불 두 채 허고 장옷 멘들고 문딱 헤어도 그 멧지가 남아. 겨난 이제 할망 거ㄱ지 헤연 놔뒤났는디 그거 놔뒤시민 마 물들여근영에 이지금 이쁘게시리 멘들앙 아무걸 입어도 입긴 입을

건디.

@1 후루메허고 두루막은 어떻 트난 거마씨?

#1 아, 두루막은 베끼디 입는 거, 후루메는 안네 입는 거, 남저덜.

@1 모양은 두루막이영 ㄱ뜨디.

#1 응, 비슷한 건디, 비슷한 건디 안네 입는 거 베끼디 입는 거. 흥뎌 치수가 크고 작은 차이.

@1 그믐 후루메 먼저 입고 두루막을 입는 거짜?

#1 응 후루메 먼저 입곡 두루막 막꿏데.

@1 그믐 아니 저 바지저고리 입고, 쯤끼 입고, 그다음 후루메 입고.

#1 후루메 입고 두루막.

@1 두루막 입고.

#1 두루막은 이 베끼디 이디 저 푼체가 들러.

@1 푼체가 들렸어.

#1 응, ㄱ뜨 건 ㄱ뜨 거라도. 그 제사할 때라도 앗아냉 입으민 보기가 좋아.

@1 푼체가 들렸덴 말은 뒤에 따로 한 겹이 더 잇단 얘기짜?

#1 응, 게고 크게 흥주. 그 베끼디 입는 거는. ㄱ뜨 모양은 ㄱ뜨 모양이라도.

@1 시집갈 때 그 멩지치메저고리는 친정에서 해주는 거짜?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짜?

#1 친정에서.

@1 시어머닌 안 해주?

#1 시어머 한복 해주긴 해주는디 경 멩지로 허진 안허고.

@1 아, 멩지론 아니고.

#1 나 갈 때는 저 시어머니가 헛젠 현 거 옛날에 저 흥콩.

@1 응?

#1 흥콩. 흥콩이엔 현 일름이 이서났어. 그 한복 허는 거. 한복 멘드는 천이.

@2 기지 이름, 천 이름이.

#1 기지 이름이 흥콩.

@1 건 어떻힌 천이짜?

#1 그 저 멘작히게 비단ㄱ찌 현 건디 뚜꺼와.

@1 아.

#1 안네는 색동 뉘고 베끼디는 ㄱ뜨 문양이라도 색깔만 트난 것도 잇고 검정 것도 잇고 파란 것도 잇고 빨간 것 잇고 요런 색깔도 잇고 검정 그 흥콩도 으라 가지난.

@1 그걸로 헿 치메 저고리 헿 입어?

#1 응. 치메저고리 헤여 줘션게.

@1 응. 노래 불림신게 저기.

@2 응 밧 갈암신게, 밧 불람신게.

@1 그 입고. 신발은 혹시 다른 거 신엇수과? 시집갈 때.

#1 아, 신발은 고무신.

@1 그냥 고무신.

#1 그때 새각시 신발 고무신 아주 양반이주.

@1 신발은 시집이서 해줘?

#1 아니, 무신 시집이서 신발 해 줘.

@1 안 해 줘?

#1 응, 옛날에는 통치메, 저 유동통치메엔 우리 저 어디 놀러 멩일 때엔 흰 저고리에 흰 양단 저고리에 호박단 저고리 그런 거 입어봤주. 비로도 치메, 춘추 비로도 치메, 또 보선 해근에 보선 이디 해영헌 보선 행 요디까지 목제기 오게 행 감정 신발 코신.

@1 응.

#1 그거 행은앵에 신영 나강 완전 대한량이랏주.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1 아, 보선을 이디까지 올라오게.

#1 응, 이디까지 올라오게 해영헌 보선 해근에 껌정 신에 춘추 비로도 치메에 노린 양단 저고리 행 입으면 이뻏주. 그거 입어봤어, 흐 번.

@1 요 양말 이렇게 목 길게 올라오는 양말은 무신 양말이엔 곱습니까? 무신 보선이엔?

#1 무신 보선이엔.

@1 다르게 안 불러?

#1 통보선.

@1 통보선.

#1 응, 통보선.

신랑 옷

@1 아까 신랑은, 신부는 경 입고 신랑은, 새서방은 어떻 입어?

#1 신랑은 멩지 저 멩지 바지에, 멩지 저고리에 멩지 췌께나 경 안허민 광목 췌께나, 경 해영 검은 후루메.

@1 검은 후루메, 그다음?

#1 거뿐.

@1 남자들 입는 그 뭐 사모관대 이런 거 이수계.

#1 아, 사모관대는 그건 빌어와야 허는 거난. 건 샅 내야 뒸는 거.

@1 아, 샅 내는 거예.

#1 응.

@1 그 아까 족두리도 샅 내고.

#1 응, 사모관대도 샅 내고.

@1 사모관대도 샅 내고.

#1 새서방 거.

@1 새서방 거. 사모관대는 옷은 무슨 색이파?

#1 그거 에 저런 색깔 비스름헌 거.

@1 퍼런 색?

#1 응. 그런 거 비스름헌 거.

@1 이거 비스름헌 색 허고, 신발도 거기.

#1 신발 그 저 가죽신발 모양으로 해도 가죽은 아닌디 그거 헤영 이만이 크게시리 헤영 근엥에 남저 신발로 멘들앙. 이디까지 목제기 오게.

@1 장화추룩?

#1 장화추룩 경헝 멘들앙 헛주.

@1 머리에도 뭐 써?

#1 머리엔 사모관대 영 이디 늘개 듣정.

@1 늘개 듣저근에.

#1 뒤에 늘개 듣정.

@1 그거 다혜근에 마을에서 하나씩 샅 내영 빌리는 거.

#1 샅 내영, 샅 내와났주 이녁신딘 엇어. 그 접꾼이 다 이섯어. 저 책음혜근엥에 빌려주 꼭 들여놓곡.

@1 그건 이 마을에 하나씩 이신 거짜?

#1 응.

@1 토산 일리에 하나?

#1 응.

@1 옛날엔 토산 일리 이리 합쳐정 이서났지예?

#1 응.

@1 그믐 토산에 하나.

#1 하나.

@1 그믐 혼 마을에 결혼을 ㄹ튼 날 하나베끼 못허켜예.

#1 게믐 뜯 마을에 강 빌어와야지.

@1 아, 뜯 마을에 강. ㄹ튼 날 허게 뉘민.

#1 혼 날 허게 뉘민 뜯 마을에 강 빌어와야.

@1 응, 그믐 가마, 뉘께허고 족도리허고 다 세트로 빌려줘?

#1 뉘께도 ㄹ튼 날 뉘게 뉘민 뜯 마을에 강 뉘께도 빌어오고.

@1 거난 그거 ㄹ치 흙치 다 빌려주는 거짜? 빌려주는 사름이.

#1 응, 새서방칩이민 새서방 것만 빌어가고 경.

@1 아, 새각시는.

#1 아니, 새서방이 새각시 뉘께까지 다 샅 내는 거.

@1 그지.

#1 거 아정 가사 새각시 ㄹ사을 거난.

@1 그믐 족두리는 따로 헤?

#1 족두리도 다 그디서가 헤.

@1 그디서 흙치 다 행.

#1 응.

@1 새서방네, 새서방이 샅 냉.

#1 새서방이 다 책음져알 거난.

‘홍세미녕’

@1 그 결혼할 때 함에다가 뭐 홍세미녕이여 뭐.

#1 아, 그런 거 잘허영 허는 집인 그 여장, 여장이엔 헌 거 그거 이제 이 사름하고 이 사름하고 이제 죽기 생전 이제 침 혼인을 헌다 허는 근거 써놓고 이제 멩지 잘허는 사름은 멩지도 놓고 경혜여근엥에 그 꿩계, 그 함에 함이 있어. 그 문세 놓는 함.

@1 예.

#1 그거 혜영 그 안트레 다 들여놓곡 잘허는 집인 가민 애기 날 그 기저귀 이제 저 뭐 니. 것ㄴ라 뭐엔 허느니?

@1 시렁목?

#1 시라목.

@1 시라목.

#1 그거 혜영 혼 필 농곡, 또 광목 혜영 혼 필 농곡 경혜났어..

@1 아.

#1 멩지도 놓고.

@1 광목도 놓고 멩지도 놓고.

#1 잘허는 집인.

@1 시라목도 놓고.

#1 응. 못허는 집인 제우 허는 행적만 혜영 광목에 저 멩지 생각허민 멩지 혼 필 놓고 쟁 안 허민 엇고. 난 멩지도 혼 필 못 받아본 사름.

@1 하하하.

#1 엇인.

@1 엇인 집이 시집가부난.

#1 엇인 집이 시집가부난.

@1 게문 그거를 나중에 거 무신거 행은에 멘들양은에 허는 거파?

#1 그거 애기 나쁜 지성귀도 멘들곡 애기 웃도 멘들곡 허렌 그걸 논 거주.

@1 어쁜 딴 보선도 행 저 쁘당덜 테우곡.

#1 쁘디 보선이나 그런 거 허는 거는 그 함에 놓질 안행은에 쁘당덜 선물로 허는 거고.

@1 아. 그냥 다른 데서 받은 걸로 허는 거구나 그진.

#1 응.

@1 그디 함에 들어있는 걸로 허는 거 아니고.

#1 함에 들어있는 걸로 허는 거 아니.

@1 아. 쟁 쁘당덜 보선 하나씩 혜근에 테우고.

#1 그거 허는 거는 이녁집이서 이녁이 허는 거주. 이제 새서방 어멍이 허든지, 새각시 어멍이 허든지. 새각시침인 새각시 어멍이 그 이녁네 쁘당 주는 거. 새서방침인 새서방침이 쁘당 허는 거. 새서방 어멍이. 경허는 거주 그 함에 걸로 혜영 허는 건 아니.

@1 새각시가 허는 게 아니고.

#1 새각시가 허는 게 아니고.

@1 아.

#1 새각시가 돈 이시민 어명신디레 보태영 험센이라도 허주마는.

@1 응.

#1 새각시가 돈 잊이민 못허는 거난게.

남자 상복

@1 응, 이번엔 누구 돌아가션예. 돌아가시민 상복헝덜 입을 거 아니파예? 삼춘도 가근에 상복 만들어주곡 헛주예?

#1 응, 건디 요새는 그런 거 잊어.

@1 요새는 다 그 어디서 만들어주는.

#1 저 그.

@1 장례식장에서 다 행.

#1 장례식장드레 다 해근에 멧겨부난.

@1 맞아, 경허는디. 옛날엔 어디 누게 돌아가섯저 허민 가근에 다 만들어 줏수게예?

#1 다 만들어 주곡 이녁도 쓸만헌 딘 쓰곡 헛주게.

@1 거 만들젠 허민 어떻힙니까?

#1 만들젠 허민 어떻허는 거? 두건 멘들곡 수건 멘들곡 창옷 멘들곡 상제들 입을 그 상제옷 멘들곡 헛주.

@1 게른 상제옷부터예. 상제옷은 남자 상제옷 먼저 만들께예. 남자 상제도 사위 상제영 아덜 상제영 옷이.

#1 뜨나.

@1 어떻 다릅니까?

#1 우잇 것가 뜨나.

@1 어떻 뜨나?

#1 우리 저레 시터렌 어떻사 허는지 몰라도 우리 촌에 이지금.

@1 토산.

#1 풍습은, 우리 토산 풍습은 아덜 상제는 이디 주머니 없이.

@1 이디 잊이.

#1 잊이 허고. 사위 상제는 이디 주머니 잊게 허고.

@1 이디 주머니 이만이 헌 게 주머니.

#1 주머니 잊게 허는 건 웨냐허면 것도 쪼건이 다 잊어. 손수건이라도 헝 그레 톡 드리 치게.

@1 아, 아덜 건?

#1 아덜 건 그거 안 허여.

@1 아, 아덜은 손수건.

#1 소님으로, 사위는 소님으로.

@1 사위 손님으로. 그믄 요것만 다릅니까? 아들 거영.

#1 응, 것만 달라.

@1 등에 뒬.

#1 등에 허는 건 큰상제.
 @1 아, 큰상제만 업을복 해.
 #1 응.
 @1 업을복이엔 험니까 날개엔 험니까?
 #1 날개. 그 저 그 ㄴ똥 말.
 @1 아, ㄴ똥 말. 아니 이디 토산리서 ㄴ는 말.
 #1 계난 큰상제는 이디 저 하얀 창호지 해근에 영행 저 옛날엔 삼년상 허게 뉘민 세 개 허고, 이제 삼년상 안허난 ㅎ나베끼 안 허는 거 닐아. 삼년상 허민 이년 뉘민 ㅎ나 빼아불 곡 삼년 뉘게 뉘민 삼년 그 제사 넘어나민 헤영 ㄴ찌 행 불사라 불곡 경.
 @1 창호지를 이디 영.
 #1 창호지로 헤영 멘들주게 그 두렁띠.
 @1 두렁띠. 요기 띠를?
 #1 응, 두건 우이.
 @1 두건띠.
 #1 두건 우이.
 @2 그거 짊으로 만드는 거 아니꽈? 노끈 헤가지고 영.
 #1 안에 노끈해근영에 헤영 풀 맥영.
 @2 예.
 #1 풀 맥영 멘들아. 베끗딜로 창호지 감앙 경행은영에 멘들아근에 삼년상 흘 사름은 세 띠를 멘들고 경 안힐 사름은 두 개만 허고.
 @1 아까 ㅎ나만 아니고?
 #1 ㅎ나만은 요새사 ㅎ나만 험주.
 @2 두건 우이 그거 들르는 건디 삼년상이민 세 줄이나 세 개나.
 #1 응, 세 개, 세 개. 쥬디 옛날에는 경헤낫는디 요즘에는 그런 사름 없어. 그런 집이 없어.
 @1 이거는 여기 허는 거는 아까 두렁띠엔 ㄴ아신디.
 #1 응.
 @1 두렁띠를 짊으로 ㅎ 다음에 그 위에 종이로 감아?
 #1 창호지.
 @1 창호지로 감아?
 #1 창호지로 풀 맥여.
 @1 풀 맥영 감아?
 #1 경헤영 우이 건대 ㄴ찌
 @1 요기 우에 영 쓰는 거.
 #1 우이 그 건대.
 @1 이거 건대.
 #1 경헤영 이제 남저 상제는 경허곡. 여자상제는 기자 저 무시거만 멘들아. 노끈으로만 영행 멘들앙. 이제 이디 머리창 ㄴ찌 양쪽에 들리지 안허여?
 @1 응.

#1 경허난 그치룩 헤영 허고.
 @1 아, 남자 상제는 창호지로 감앙.
 #1 응, 경허나신디 요새는 경허는 디 엇어. 아무디 강 봐도.
 @1 아까 뒤에 그 날개엔 험니까? 업을복이엔 험니까? 이디서는.
 #1 업을복.
 @1 이디서는 업을복이엔 헤?
 #1 업을복이엔도 허고 날개엔도 허난. 몰라.
 @1 이디 토산리 삼춘덜 곤는 말.
 #1 이디 업을복인가 뭐.
 @1 하하하. 그거 큰상제만 허여?
 #1 아니 거난 생각 잇는 대로 허는 거.
 @1 아까 큰상제만 헌텐.
 #1 큰상제만 허는 집인 큰상제만 허고.
 @1 아, 그른 남자 상제 요기 다리에 영 허는 건?
 #1 거 저 무시거 행경.
 @1 행경. 행경은 우에만 끈 이수과, 밑에도.
 #1 아니 아니 우이만.
 @1 우이만 끈 이서예.
 #1 응, 졸라메영
 @1 졸라메영예. 행경은 상제들만 허는 거파?
 #1 상제덜만, 스나이 상제덜만.
 @1 스나이 상제만.
 #1 또 복친 상제도 이디 저.
 @1 끈 하나 메고.
 #1 응. 끈 하나 메꼭 이거 줘. 두건허고.
 @1 응, 행경.
 #1 세 개.
 @1 거난. 그른 어느 친척까지 그거 허는 거라? 멧 춘까지?
 #1 흐 우리 혈 때깁장은 흐 열 춘깁진 췌는다.
 @1 열춘깁지.
 #1 요새에는 스춘 오춘, 오춘 주젠 허민 막 생각헤야 허는 거.
 @1 아, 사춘까지만.
 #1 응, 스춘깁지. 요새 간단헌 때난. 오춘깁지 허젠 허민 막 생각헤야.
 @1 아.
 #1 겐디 옛날에 우리 혈 때는 오춘이 스춘깁치 가까왔는디 요즘에는 그거 안 닻아. 오춘은 이녁 부모나 다름엇는 건디 그렇게 생각을 안 헤.
 @1 응.
 #1 겨난 침 어제가 옛날이라.

@2 어제가 옛날이라.

#1 우리 시하르바님 돌아갈 때 뭐 팔춘ㄱ지는 완전 이 행경 띠 세 가지 다 줬주. 두건, 행경, 이제 그 무시거 다 줬는디 요즘에는 그거 엇인 거 닢아. 두건 하나 주민 걸로 낫. 두건도 생각허난 줬주. 옛날엔 저 무시거니 저 가까운 것ㄱ라 뭐엔 허느니.

@1 복친.

#1 이웃스촌.

@1 이웃사촌.

#1 아니 이웃사촌 저 그런 사름도 복을 줬는디.

@1 아.

#1 친헌 사름은. 그 친헌 그 밑에서 줬는디 요즘에는 그런 거 엇어.

두건

@1 두건도 성복허기 전이 우에 터진 두건 쓰다근에 헌덴 헨게마는 그거 어평 헌 거꽈?

#1 우이 터진 거는 급허난에 그냥 두루 감앗다가 그때는 삼 헤영 딱 감앗는디 요새는 나 이릉끈으로 감는 거 닢안게. 삼이 어디서?

@1 계난.

#1 계난 급허난 그건 급헌 밑에서 이제 그 줍지 안헤근영에 창옷도 혼착은 입고 혼착은 안 입곡 경허지 안헤여.

@1 예.

#1 계난 건 급헌 밋테서. 경헤연 헌덴 허는 밑에서 그거 경 허는디. 이제 성복허젠 허민 그 채영 아니 감앗단 것도 두건 멘들앙 쓰고 된 허는 거주게.

@1 그거, 그거는 밖으로 영 감칩니까?

#1 응.

@1 아니민 꼬블려근에.

#1 아니. 그 남저 상제 경헌 거는 베끼덜로.

@1 베끼덜로.

#1 응. 엽쟁이. 영 복친 상제는 반뜩허게 허는디 그냥 남저상제 이 우리 아덜 상제덜은 엽텡이 채어난 그릇대로 그냥 엽텡이로 줘.

@1 엽텡이로. 응.

#1 복친덜은 반뜩허게 허고.

@1 거난 그 준 게 뒤로 간덴 허는 말이지예. 반뜩허게예.

#1 응, 응. 그 실밥이 반뜩허게 헌 거는 복친 두건.

@1 복친 두건.

#1 엽텡이로 헌 거는 아덜 상제 두건.

@1 아.

#1 거 다 이유가 잇젠.

@1 무신, 이유가 무신거꽈?

#1 거 몰라.

@1 하하하.

#1 폐적으로 우린 건 몰른디 이유가 잇텐. 그 급허게시리 감은 것도 급헌 뜻이엔 허고. 혼착 입곡 혼착 안 입은 것도 것도 급헌, 아이고 빨리 가사컬 행 혼착은 입곡 혼착은 잇어 비영 안 입곡 허는 뜻이엔.

@1 응.

#1 거난 들은 말이주 미신 우리 거 알아.

@1 사위 상제도 똑ㄴ타?

#1 응, 사위 상제는 똑ㄴ뜨고.

@1 이 솔기가 요기 와?

#1 아니, 아니. 사위 상제는.

@1 복친이영 똑ㄴ타?

#1 응.

@1 아덜 상제영 다르고?

#1 ㄴ트지 안허여.

@1 응. 게믄.

#1 경헌디 요새는 아덜이나 사위나 그거 허는 거 그 누게 알지 못허난 그 장애자덜 아져 온 거 그대로 쓰는 거난 걸 분간을 몰르는 거 님아.

@1 맞아마씨.

#1 계난 그대로 써.

@1 맞아, 몰라근에.

#1 몰라. 계난 그자 그런 대로 넘어가민 뉘 거.

@1 하하하.

#1 시대에 따라서.

@1 상복 만들젠 허민 누게가 영 왕 말라줘?

#1 옛날에는 그 동네 친헌 바농질꾼이 왕 거 ㄴ 뉘라주민 이젠 떡이영 미시거 헤근엥 그디 그 수고비. 그걸 아져가났어. 공정으로.

@1 공정으로.

#1 응. 경행 아져가났는디 요즘엔 그런 거 없어. 장애자덜 행 다 아정왕 헤부는디 어디 옷허는 사름이 이서?

@1 옷 허는 사름이 왕 영 말라주민.

#1 그 옷헌 사름마다 허는 게 아니고 그디 주장자가 헤근에 옷을 그 생 그 물건을 헤영 옷 허게 멘들아준 사름신디만 공정도 아져가고.

@1 아.

#1 옛날에는 퉈 상제 이제 ㄴ 그 제물떡 헤오민 그거 헤영 공정 다 헤나난에 고기 썰어 준 도감신디 허고 터 이제 봐준 지관신디 허고 또 그 죽은 어른 이제 그 관 멘들아근엥에 그 소꿍에 들여냥 ㄴ 멘들아준 그 공정허고 공정이 핫주.

@1 공정은 언제 행은에 갖다주는 거마씨? 다 낄나민?

#1 아니. 낄나기 전에 이제 일푯날 아침은 다 행은엥에 이제 공정으로 나뉘.

@1 아.

#1 그 똥 상제덜이영 문.

@1 떡 가져오민.

#1 제물떡을 해여오면. 그거 해근에 일똥날 아침은 문딱 해근에.

@1 테와.

#1 수고헌 사름덜신디 문 지영. 그 공정을 문 아져갓주.

@1 아.

#1 겐디 요새에 경 안해도 뉘주.

@1 응.

#1 요새 딱로 뉘 손봐주는 사름 이제 만일 예를 들영 우리 어머이 돌아갓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갓든 간에 그때는 사름 빌어근에 일부러 손보는 사름 빌어근에 이제 관도 짜고 그 광중 그 문을 디 광중도 달루곡 경허난 공정이 이섯고 헛주마는 요새엔 지관덜 아니해도 장애자가 다 허난에. 돈만 쥐불민 원 만사가 오케이고 아무것도 험 중 몰라도 뉘고.

여자 상복

@1 여자 상제는 상복 치메는 무신걸로 행은에 입읍니까? 상제.

#1 옛날에는 베로 해연 헛는디, 몰라 요새에 베로 험실 거라.

@1 밑에 치메는 베치메 허고 위에는?

#1 위에는 그냥.

@1 위에도 베로?

#1 그 저 무시거 광목, 광목 그 돈 부지 받아늘 궤와 멘들곡 행 광목적삼 멘들아선개. 적삼.

@1 옛날에도 광목적삼 헛수과? 베적삼 안 허고?

#1 아니 옛날에는 베 허영은영에 우이 허는 사름 이시민 허고 엇이민 저고리 입언에 아래 베치메만 입영 건대 쓰곡 행 상제질 헛주. 어디 옛날에 경 그 하간 거 경 우잇웃 입고 행 해여?

@1 아.

#1 옛날엔 엇이난, 엇이난. 이신 요 중간에서부터 여자덜토 그 우이 창웃, 창웃허명 그 저고리 멘들앙 입엇주. 옛날에 험 때는 당취.

@1 아, 치메만.

#1 아래 베치메만 해여근에 기냥 저고리 입영 살곡 여름엔 적삼 입영 살곡.

@1 우에 건대는 쓰곡예?

#1 응, 건대는 쓰곡. 겨울에나 여름에나 뉘 건 건댄 똑ㄴ든 거.

@1 아.

#1 경험 살앗주. 요새엔 이시난덜 돈만 내민 첨 그 집 난 막 우스개 부쩌근영에 부지 받아 놀 궤와 엇이난 궤와ㄴ지 다 멘들앙 나왔젠 허명 나 우스개 허명.

@1 맞아, 요디 계와 이서.

#1 응. 부지 주민 그 무시거 주는 거 이제 흔착 궤와에 놓고.

@1 상품권.

#1 응, 상품권 놓고 흔착 귀와엔 부지 배왕 농곡, 밭앙 농곡. 경허난 요새 완전 상제라도 고급이주.

@1 응. 그 저 복친들한테 친척들한테에 뭐 수건, 복수건. 아까 옷 만들앙 입은 그것도 행은에

#1 복수건 줏주게.

@1 그 두건 허는 거추룩 똑ㄴ치 사촌까지?

#1 응, 똑ㄴ치. 두건 줄 만헌디 두건 주곡 수건 줄 만헌디 수건 주고.

@1 응. 남자어른하고 여자어른안티 따로 주는 거 아니마씨?

#1 아니 게메 두건 줄 헌던 두건도 주곡 두가시민 두건 주곡 각신 수건 주곡 영헌 말이주.

@1 게난. 이젠 몸빼도 주는디 옛날엔.

#1 이젠 웬만헌 딴 몸빼 주는 거 다했어. 치메 대신.

@1 아, 옛날엔 거 복치메 입는 친척이파?

#1 응, 치마 대신 요새 몸빼 주는 게. 몸빼 주는 게 그 치메 대신. 상복 대신.

@1 그믄 그거 대신 흔 사촌까지는 게믄 그거 입을 거구나예?

#1 응. 겐디 요새 영 허는 거 보난 사촌 넘어도 그 몸빼 주는 거 다했어.

@1 게난 흔품 하영 주는 거 다했어.

#1 친헌 디는 기자 기자 그럭저럭 해부는 거 다했어.

@1 게믄 몸빼 나오기 전인 치메로예?

#1 치메.

@1 베치메, 광목치메?

#1 응, 아니 게난에 막 그저 스춘 아니랑은 치메도 안 줘 수건만 주고 헛주. 흔 ㄴ리는, 우리 헐 시절에.

@1 예.

#1 경헌디 요즘에는 스춘이고 오춘이고 다 그 광목 몸빼를 널어진 거 다했어. 그걸로. 아 게난 그거 주난 좋음[죤]은 허고 그 바지 가달 트멍에 텅이지 아녕 기자 그거 입으난 보기도 좋고 신식으로 허난.

@1 신식으로.

부조

#1 응, 게난 건 좋고. 옛날에 우리 헐 ㄴ리에는 돈부지도 엇영 저 제물떡.

@1 응.

#1 집이서 맨든 상웨떡이나 경 안허민 저디 강 빵떡 사오나 경혜영 그 제물떡으로 헛주. 돈부진 엇어나고 경헌디 이 중간 뒤난에 돈부지도 잇고 저 오천원서부떠 만원ㄴ지 이서 가다가 이젠 부지도 썬어감선게.

@1 응, 오만 원권 나오난에. 오만 원씩 해야 뒤어, 이제.

#1 삼만 원짜리가 쥔 족은 거 다했어.

@1 이젠 삼만 원이 막에 작은 거.

#1 삼만 원이 보통 족은 거 닳아.
 @1 옛날엔 만 원 부지도 헤나신디 맞아.
 #1 오천 원, 삼천 원, 이천 원 그런 부지 헐 때 우린 일을 넘겨부난에 몰라.
 @2 몰라. 하하하.
 @1 나도예 만 원 부지 생각 남수다게. 옛날에 만 원씩 해근에.
 #1 만 원헐 때도 거 막 크게 나온 때.
 @1 거난예, 젠디 요즘에는예 오만 원, 십만 원 보통.
 #1 응, 경허난 완전 친헌 이제 스춘 간에는 십만 원 부진 보통이고.
 @1 요즘예.
 #1 또 친구끼리도 막 친헌끼리 오만 원 보통이고.
 @1 예.
 #1 경헌 거 닳은 게 영 허는 거 보난.
 @1 맞아.
 #1 계난 부지가 너미 썩어.
 @1 돈 가치가 떨어져 불언.
 #1 돈 까치가 엇임으로.
 @1 맞아.
 #1 요새엔 십만 원 해도 미시거 어디 강 써볼 디가 없어. 영 계산해 보민. 돈 백만 원을 헤봐야 열흘을 못 써. 옛날에는 돈 백만 원허민 밤 하나 사당 남앗는다.
 @1 계난마씨.
 #1 요즘에는 당취. 경허난 젊은이덜이 걱정 안 헐 수가 없어. 학생이나 두 개쯤 이신 집 이 썩은 원 직장이나 엇인 사름은 대골치라.
 @1 맞아.
 #1 경허난 싸와간다 틀어간다 이혼한다 험주게.
 (잡담)

수의

@1 아까 얘기하던 거 붙여근에 이번엔 호상옷에 대해 물어보쿠다예. 호상옷, 죽영 갈 때 입는 옷.
 #1 죽영 갈 때 입는 옷 무시거 멍지 멍지 잘 찰리는 사름은 멍지.
 @1 응.
 #1 또 그다음은 저 뭐니 베. 그거주.
 @1 삼춘도 행 놔둬디가, 옷?
 #1 난 이지금 신식으로 헨 놔뒀저.
 @1 신식으로 어떤 거파?
 #1 창호지로 멘든 천으로.
 @1 창호지로 만든 천으로 그건 뭐라?
 #1 헤영헌 거. 물에 놓민 훌훌하게 지냥으로 녹곡. 불 슬민 헤영케 ㄱ루 잿ㄱ루 떨어지

꼭 허는 거.

@1 멍지 안 허고?

#1 나이롱 안 허난예. 그것도 나이롱 들어간 건 영 케우민 보글보글보글 지름ㄱ찌 허주 게. 겐디 경 안헤여. 그건 케우민 기냥 저 재 낭쌌 손 거ㄱ찌 재 나와. 게난 그런 걸로 멘 들안 놔뵤.

@1 아 멍지로 안 허고?

#1 응. 멍지도 잘못 걸리민 그 좋은 멍지엔 해도 케와보민 잘못 걸리민 나이롱 서꺼진 게 이서. 경허민 케우민 꼬골락꼬골락허멍 지름이 드룩드룩 털어져. 게난 그거는 썩지 아 녀, 별로.

@1 아, 창호지 닳은 건 무신 천이엔 험니까?

#1 아니, 기냥 창호지로 멘든 천이엔 허난 뵤산디 몰라, 비단 닳은 거.

@1 아, 생긴 건 비단 닳게 생겨신디.

#1 헤양헌 게 저 판 쳐졌어. 뭘 저 미신 비단 판 모양으로 네귀, 동글랑동글랑 네귀방장 판 쳐진 거라. 게난 건 아주 이뻐. 헤 논 것도 헤양.

@1 언제 험디가?

#1 거 흐곤디 흐 에 흐 스 년. 흐 스 년 뵤엄저.

@1 옛날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네 험 땐 다 멍지.

#1 다 멍지.

@1 멍지로예.

#1 다 멍지. 저 표선이 미승집이 강 맞촤.

@1 표선이 미승집은 어디꽈?

#1 그 할망 죽어 빗주 이제.

@1 죽어 불언?

#1 응. 죽어 불언.

@1 이젠 게민 이 동네 수의허는 할머니 엇수과?

#1 엇어. 겨고 이서도 필요 엇고.

@1 하긴예 이젠 다 그냥 장례식장 강 헤부난예.

#1 다 이젠 저 애기털이 다 그 뵤에 들어노난예 난 뵤 이제 옷 헤영 놔두민 그 옷 입지 렌 권유랑 죽결랑 입지렌 권유사 헤보주만은 입질티 말티.

@1 하하하, 하긴.

#1 죽으민 눈 곰아불민 그결로 꺾이주 무신.

@1 맞아, 입질티 말티. 장례식장 가면 거기서 그냥 바로 헤버리면 요즘은예. 그 옷 가지 레 이디 왔다가명예.

@2 게도 곶앙 놔둬서예.

#1 아, 곶앙 놔두는 거. 영헨 영 놔뵤시난 만일에 나 죽어불민 이거 앗다다근앵예 죽어 가건 입지라. 죽기 전에랑 이제 요 옷 입지라. 걸어갈, 저승 걸어갈 때 입영 가살 거난 요 옷 입지라 헤영 곶암주마는 거 급허민 경 헤 줄티 말티.

@1 맞아. 저승, 아 죽어갈 때 입는 옷도 따로 잇고.

#1 죽어갈 때 목심 산 때에 다른 옷을 입정 그 옷을 입을 만헌 걸 입정 놔둬야 저승 걸 어가명 입영 가는 거.

@1 아.

#1 계난 그건 분실 알아야 돼어. 그 병원 옷 입영 가지 말고.

@1 아, 병원 옷 입영 가지 말고.

#1 계난 요새 그 플라근영에 내불민.

@1 몰랐지.

#1 목심 끊어져사 그 병원 옷 뱃기고.

@1 맞아.

#1 경험주 어디 경. 난 우리 친정어멍 돌아갈 때도 우리 친정어멍 아주 정든 옷 그거 이쁜 거 입전에 이제 돌아가게 헛주게.

@1 응.

#1 경허난 어머니신디 그 말은 못 알아도 다 귀에 이제 영행 이 귀트레 대영 알아도 다 알아들어. 말은 못 알아도.

@1 예, 예.

#1 겨난 우리 어머니신디 귀에 대연에 이제 어머니 원헌 옷 입전에 이지금 입고 보선도 신지고 신도 신지난 이제 이렇게 혜영은에 곱게 돌아가십서 험에 나가 귀에 들연에 이제.

@1 알아수과?

#1 큰고 애기덜 상에 섭섭헌 일이라도 잇으면 다 풀어정 돌아갑서. 경험에 이제 나가 다 말헛주, 귀에 대연.

@1 아.

#1 경허난 이제 그치룩 알아들어신고라 그 힌트가 있어. 그 저 팽상에 뵈다가 털어전 폴을 꺼꺼신디 그 한복을 입지젠 허난 똑허는 소리가 나더라고. 허난에 이제 어머니 귀에 대연 어머니 정든 옷을 입지젠 허난 영험시난 어머니가 이해를 허고 이제 섭섭헌 일이 잇꼭 을큰헌 일이 이서도 다 풀어정 이제 애기덜 다 건강허게 펜안허게 혜줍서 혜연에 그걸 이제 나가 막 불복을 허난에 그걸 힌트를 준 거라. 좋다고, 경허는 힌트라. 말은 못 알아도. 경험에 이제 혜신디 어머니 돌아간 후제 다 즈손덜도 다 펜안허고.

@1 아.

#1 이제 우리 조케가 배 탐신디 배에 텅이는 디도 뭐 안즉ㄱ지 뭐 무신 일이 엇고 건강 허게 잘 텅기고. 계난 할머니 돌아간 후제 이제 삼 년 넘엇는디 돌아간 후제 다 펜안허고.

@1 아. 계난 죽영 관에 놀 때 입는 옷이 잇고, 환자 옷 입지 말앙 죽영 갈 때 입는.

#1 계난 건 애기덜이 정신 출령 허민 웰 거. 쟁 안행 기자 이녁네 바쁘텐 돌아헛기당 어멍 다 이제 메기람젠 험 돌아왕 보민 벌써 시간은 늦어분 거.

@1 맞아.

#1 늦어분 거. 계난 젊은 사람덜은 그거를 연심에 뵈, 머리에 뵈 놔둬야 좋은 거라. 만일에 부모가 잇든 원 아무가 잇든 간에. 경허난 그거 경 정신 출령 혜줄 애기덜토 드물어.

@1 맞아.

#1 우리 애기덜토 바쁘텐 돌아헛기당 보민 무신 어느 때사 갈티.

@1 게메마씨. 응. 그 호상은 머리에 영 쓰는 것도 있고 옷도에 밑에, 안에부터 차근차근 다 입읍디다.

#1 다 입져. 차근차근.

@1 거난 밑에, 안에 뭐부터예. 뽕바데 뭐 이런 거부터.

#1 응, 다 입져.

@1 적삼 입고 막 이렇게예.

#1 응.

@1 요기 머리에 쓰는 건 무신거엔 골안게마는.

#1 호상 껌은호상.

@1 껌은호상.

#1 응, 껌은호상. 영 쓰민 영 얼굴 가리는 거.

@1 얼굴 영 가리는 거. 밖엔 검은 색이고 안에는 별경헌 색인가?

#1 아니, 우리는 그냥 껌정색 그대로.

@1 껌정색 그대로. 머리에 싸우고 손에도 막 영 장갑 닳은 거 째디다.

#1 응, 그거게 손톱 발톱 문딱 헤놓는 것도 있고 그 손도 끼우곡 이제 문 허는 게 이서.

@1 응. 그거 무신거엔 곤는 말은 잘 몰르고?

#1 응. 그거 그 줄라메는 거 무시거 문 다 돌아줘.

@1 아. 남자 옷이영 여자 옷도.

#1 천금, 지금.

@1 천금 지금은 무신거파?

#1 천금, 지금이여 무신 천금 지금 아래 깎는 거 더끄는 거.

@1 아, 깎는 거 더끄는 거. 신발도 있고.

#1 신발도 종이로 멘드는.

@1 종이로.

#1 옛날에는 그 저 목시 빌영 허민 문 종이로 창호지로 멘들앗는디 요즘에는 몰라, 요즘에는 그 장애자 멧경 내불민 뿔으로사 멘드는지.

@1 하하하. 삼춘네가 영 잘 곶앙 놔뒤사.

#1 우리는 그 베로 멘든 신이 이서. 아막신 닳은 거.

@1 아, 베로 멘든 거.

#1 그 저 옷 멘들 때 멘드난. 아막신 닳은 거.

@1 아막신은 나막신?

#1 나막신 닳은 거 코신 이서.

@1 남신?

#1 코신.

@1 코신 닳은 거 남신 닳은 거?

#1 남신 닳은 건디 코신 꺾 멘들 거. 여자 신. 그거 멘들안 이서.

@1 응. 남자 호상옷이영 여자 호상옷이영 트납니까?

#1 딱나주게. 깃사 당연히 딱나주게. 여자 옷허곡 남저 옷허곡 당연히 딱주게.

@1 응. 그냥 치메저고리.
#1 여자 옷은 이제 우리 입는 한복 그런 거고. 남저 옷은 남저 입는 한복 그런 거고. 다 딱주게.
@1 치메저고리 입고 우에 창옷 입고 여잔예.
#1 응. 창옷.
@1 남잔?
#1 남저도 마찬가지로.
@1 남잔 바지저고리 입고.
#1 바지저고리 입곡 후루메 입곡 베꿏디 창옷, 두루메기. 그런 거 입고.
@1 창옷허고 두루메기는 ㄴ쁜 거꽼?
#1 두루메기나 창옷이나 ㄴ쁜 거.
@1 아, 두루메기나 창옷이나 ㄴ쁜 거. 후루메 입고 두루메나 창옷 입고.
#1 응, ㄴ쁜 거. 베꿏디.
@1 ㄴ쁜 거.
#1 게난 요새덜은 다 장애자에 멧기난 뒤 그런 거 이서도 뒤고 엇어도 뒤고. 막 싡 거 행 왕 비싼 거엔 해도 기냥.
@1 몰랑 그냥예.
#1 몰랑 기냥.
@1 맞아.
#1 장애자덜은 물론 헐헐 거 행 오주, 무신. 비싼 거 행 오진 안허난예. 비싼 거우다 행 허민 비싼 거 도렌 허민 그 값만 줘 불 거주. 몰랑.
@1 옛날예 호상옷은 허젠 허민 윤들에 허렌 헉디다.
#1 윤들에.
@1 무사 윤들에 허는 거?
#1 이지금도 윤들에.
@1 이지금도 윤들에.
#1 이지금도 윤들에.
@1 윤들에 허는 게 좋덴?
#1 윤들에 허는 게 좋덴.
@1 응. 쟁 삼춘도 윤들에 헉디가?
#1 윤들에 헤서. 옷 헐 놔둔 사름덜 다 윤들에 헉주.
@1 아.
#1 날 가는 거 들 가는 거 몰른덴. 거 행 놔두민 재기 안 죽영 오래 산덴 헉게 재기 안 죽을 거라?
@1 아. 윤들에 허민 늘 가는 거, 달 가는 거 몰른덴.
#1 날 가는 거 달 가는 거 몰라.
@1 아.
#1 날 가는 거 달 가는 거 몰라.

@1 경혜근에 오래 산텐 허는 말로.
 #1 멩 진텐 허는 말로.
 @1 경헝 윤들에 허는 거파?
 #1 경헌텐 헝게.
 @1 응. 아까 모시웃은 헝 입으민 뉘 머리 흰다, 영헌텐.
 #1 응, 머리 흰다. 또 좀 인 거 놓민 도둑쟁이 난다.
 @1 아, 자손 중에 도둑쟁이 난다.
 #1 응. 경. 계난 좀 먹은 거 뉘 수 이시민 안 헝 좋은[존] 거라도. 영 폐왕 보면 좀 먹은 건 알아져. 고망이 좀 솟솟 뜰라지는 게 있어. 저 무시거 지기려분 거 모냐.
 @1 무신 거 모냐?
 #1 무시거 저 즘승이 이빨로 영 찌그려분 거 모냐.
 @1 아.
 #1 그런 게 있어. 그 올발이. 계난 그건 좀 친 거.
 @1 아.
 #1 계난 좀 친 건 뉘 수 시민 멩심헝 놓지 말곡 입지지 말곡.
 @1 아.
 #1 계난 무신 우리 저승 간 봤어?
 @1 하하하.
 #1 어른덜 곤는 거 들언
 @2 맞수다.
 @1 계난 맞아.
 #1 어른덜 곤는 소리 들었주. 계난 좀친 거는 절대 놓지 말라. 이제 도둑쟁이 난다. 저 미시거 잘못 뉘민 이 즘손덜이 펜안 안 헌텐. 경허난 뉘 수 시민 멩심허영 그런 거 저런 거 잘 보멍 놓지 말렌.
 @1 응. 옷도 멘들아낫수과?
 #2 무신거 또 불칸 거 그런 거 놓지 말렌 허는디.
 @1 아, 불칸 것도 놓지 말렌. 응.

재단

@1 옷도 삼춘 이거 입어난 거 옷 멘들젠 허민 처음에 어떻 헝 멘드는 거파?
 #1 어떻 헝 멘들아? 기냥 짐작 삼아 그냥 천 놘근엿에 이녁 짐작 삼아 그새로 깃양 기자 줌만 허민 뉘주.
 @1 짐작 어떻 헝 허는 거라, 무신거 영 본이라도 이서야 뉘 거 아니?
 #1 아니 우린 본 안 놘 봤어. 안직ㄱ지. 만일에 이거 기민 기냥 이거 사름이 요거민 이녁 입을 만큼 칫수가 요만이 허민 나 칫수에 맞일 거라. 저만이 허민 나 칫수에 맞일 거라 헤영 그거 짐작헝 헝주. 경 뿐 노멍 안 헤봤어.
 @1 이거 요기 양착에 이거 이몸이엔 곤는가?
 #1 이몸.

@1 이몸 두 개 허고 등판도 허고.
#1 똑그튼 거주 무신.
@1 아, 소매, 소매는 부쳐근에 헨 거파?
#1 응, 소민 이진 부짱. 경헌디 이거는 안 부찌도 뉼 거. 흐끔 너비 넓으난.
@1 아. 그든 영 마르는 건 본 잇는 게 아니라 그냥 짐작으로 헿 잘르는 거구나예.
#1 짐작으로. 눈짐작으로. 나 요거 허민 요만이 허민 나가 입을 거라.
@1 아, 애기 아방이나 아이덜 것도?
#1 아이덜 것도 기자 눈짐작으로.
@1 눈짐작으로.
#1 눈짐작으로 이거 영행은앵에
@1 벗엿.
#1 벗엿. 이거 이거 멩지가 복수건이 두 개난에 이거 영 꼬부려난에 이거 두 개 복수건 두 개난 영행 꼬부려난 기자 ㄱ새로 숨박숨박 ㄱ안 헿주 경 그거 노명 헿어?
@1 아이고. 눈짐작이 좋은 어른이여. 어뎡 그걸 눈짐작으로 헿니까?
#1 눈짐작으로 헿주 무신, 경헿 눈짐작으로 이거 복수건 두 개 꼬부려난 아래 기난 기차 벼두고 이진 영 꼬부려냥 이거 단혜연에 이거 고망 뜰란 단추 드난 입을 거주. 무신거 딱 난 거 이서?
@1 하하하.
#1 이거 딱 복수건 두 개. 복수건 두 개난 알로 ㄱ차분 거, 이거, 기난.
@1 응.
#1 원 그것만이주 무시거. 계난 이진 복수건이난 이디 진동 잇지 안허연 그대로 허고.
@1 응. 어느 게 진동이파?
#1 이거 이거 독지.
@1 응, 거기가 진동.
#1 이거 이거 이디 경 안허민 이디 잇어야 뉼 건디, 스미 멘들젠 허민.
@1 맞아. 맞아.
#1 경헌디 기자 이거 긴 거난 일로 기차부난 꼬부려난 주난 게 이거 무시거, 눈짐작으로 헿 거주. 경 판 노명 경 하간 가위 노명 헿어?
@1 하하하. 옛날 저고린 앞에 앞섭, 일름도.
#1 앞섭, 짓, 동전.
@1 응.
#1 경허민 뉼는 거.
@1 섭도 앞섭도 안에 잇고 밖에 잇고.
#1 안앞섭, 요거.
@1 응, 밧앞섭.
#1 요건 밧앞섭. 웬쪽더레 간 거는 안앞섭, 베끗디레 간 거는 밧앞섭.
@1 밧앞섭, 여긴 진동.
#1 응.

@1 이던 무신거엔 큰 말 엇수과?

#1 스미.

@1 스미. 요기 요기 밑에.

#1 배알.

@1 이던 배알. 요기 밑에.

#1 밑엔 무신거 도련.

@1 도련. 요긴 곳동.

#1 응. 계난 이거 짓, 무시거 동전, 짓 우인 동전. 짓 아래는 앞섭, 안앞섭, 밧앞섭.

혼적삼

@1 아까 호상옷 헐 때 그거 안 물어봤수다. 혼적삼.

#1 혼적삼.

@1 그건 어떻 헐 거파?

#1 그거 어떤 거라. 기냥 적삼 풀만, 이거 풀만 기리민 뉘 겨주.

@1 응.

#1 풀만 기릴 거 뭐 이녁 아무거라도 입던 거 불룸만 허민 뉘 겨난, 그거는.

@1 그냥 자기 입던 걸로 헐니까?

#1 응, 정든 걸로 헤영은에.

@1 정든 걸로.

#1 응. 이거 이제 오늘 하직이난 요거 아정 갑서, 갑서, 세 번.

@1 세 번. 이름 불르는 거파?

#1 응. 아니.

@1 복, 복허여?

#1 저 무신 생, 무신 생 허주게.

@1 아, 무신 생, 무신 생.

#1 기축생이민 기축생 행. 경허는 겨주.

@1 혼적삼엔 이디 뒤에 짓바데, 뭐지?

#1 혼적삼 든 저 동전도 틀어 불곡, 곰도 다 틀어 불곡 흐는 거.

@1 뒤에 등바데는 이서야 뉘 거 아니마씨?

#1 등바데 무신 등바데.

@1 뒤에. 여기 뒤에 이디.

#1 등바데 무신.

@1 혼적삼 이디 영 뒤에 영 적삼은 뒤에 영.

#1 아니 입단 적삼이난 무시거 그냥 ㄹ똥 겨주.

@1 아. ㄹ똥 거.

#1 응.

@1 따로 혼적삼으로 행 놔두는 거 아니고.

#1 아니.

@1 그냥.

#1 이녀 입단 거.

@1 이녀 입단 걸로. 응. 원래 자기 입던 것도 적삼은 여기 뒤에 요기 영 혼 단 영 놓지 안협니까?

#1 아, 이거 저 짓바데.

@1 응, 짓바데.

#1 짓바데 그건 부튼 냥 잇주게.

@1 거난예, 그 짓바데 밑에 영 뜰어야 뉘? 혼적삼 헐 때.

#1 아니, 아니. 거 그대로.

@1 그대로.

#1 곱만. 곱은 왜 뜰시벤 허난.

@1 곱은 뜰고.

#1 곱은 잘못헤 텡기당 이 발을 걸리나 무시거 허영 씨러진덴.

@1 아.

#1 정신 엇이난. 혼미헤영. 경허난 경험젠 뜻이 무신 뜻이퀸 어른덜안티 물으난.

@1 아.

#1 이 치멧곱이나 이 단추나 다 끊어부는 게 경험 끈어 비엄젠. 주게미웃 저 관에 놓는 것도 다 끈 끊영 놓주, 저 준 거민 그냥 실밥으로 뜰곡 단추 그튼 거 민 뜰영 놓주 그냥 안 뉘.

@1 응. 그거 만들 때 미싱으로 협디가?

#1 손으로.

@1 손바느질로.

#1 아, 이견 미승으로.

@1 미승으로예.

#1 이견 미승으로.

바느질 방법

@1 옛날 손바느질헐 때는 바느질허는 방법도, 텡침이여, 뉘 뒷바농질이여 헐 게마는.

#1 뒷바농질, 뒷바농질.

@1 뒷바농질이영.

#1 우린 텡침이엔 꼴아낫주.

@1 똑ㄱ튼 거?

#1 응, 똑ㄱ튼 거. 텡침이나 뒷바농질이나 똑ㄱ튼 거. 뒷바농질은 무사닌 허민 여기서 기냥 호아가는 거는 앞으로 썩썩 호아가는디 텡침허는 건 이 뒤트레 돌아왕 또 영 주어가는 게 ㄱ튼 뉘에도.

@1 응, 응.

#1 겨난 이걸 영헤영 허민 요것가 호아 가는 건 앞으로 즈근즈근 영 호앙 가는 건디 이 건 또 영헤영 이레 또 주어야.

@1 아.

#1 뉘는 거난 뒷바농질. 경혜영 덩침허는 거.

@1 생각났수다. 아까 또 안 물어본 거 또. 상제옷에 아방 죽어실 때영 어멍 죽어실 때영 단 허는 게 트나텐 곱읍디다.

#1 트나주게.

@1 어멍 트납니까?

#1 아방 죽은 때는 기냥 저 거시기 풀영 허고 감청.

@1 그냥 감침만 허고.

#1 응. 어멍 죽은 때는 영혜영은영에 꼬부려냥 단 허고, 경허는 거.

@1 건 남자 상제 옷이나 여자 상제 옷이나 똑ㄴ치.

#1 응. ㄴ따.

@1 어므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다른 건 이 단 허는 것만 다릅니까? 다른 건 엇수과?

#1 응. 다른 건 엇어. 이 단 허는 것만.

@1 응.

#1 어멍 죽은 땐 영행.

@1 거 무사 경헌텐 현 말 이수가?

#1 어멍은 단정허고 바농질 잘허난 거고. 아방은 그런 거 혈 증 모르난. 거 혈 줄 모르난 스나이텔이난.

@1 하하하. 스나이텔이난.

#1 경허는 거주.

@2 다 이유가 이서.

#1 이유가 다 이신 거.

웃감 손질

@1 그 웃감 손질 허는 거 물어볼 건데예. 팔뉘 멩질이나 정월 멩질 돌아와 가민 식구들 웃덜도 다 행 입지곡 해야 될 거 아니파예. 경허젠 허민 어멍 손질행 준비행 놔두젠 허민 어멍 험니까?

#1 그거 ㄴ 빨아근영에 풀질행은영에 다릴 사름은 다리곡 기자 개어냥 또 발로 불랑도 뉘어. 게난 발로 불랑도 뉘고 다림질 허는 사름은 옛날 다리웨 잇주.

@1 응.

#1 양펜으로 등겨. 이제 저 선생이 등기곡 나가 다리곡 혈 수도 잇곡. 저 선생이 또 나 신디레 등기렌 행 또 다릴 수 잇고 허난, 경행도 허곡.

@1 응.

#1 또 다듬이질 허영 막 허영 옹게 두드리멍 허는 사름도 잇고 건 여라 질. 나 허고정 현 냥 허는 거난.

@1 삼춘은 어멍 헤납디가?

#1 나는 다리웨질 헨 헤낫주. 불르지 안허영.

@1 다루웨는 슷불 낳?

#1 응, 숯불 낱 허고 와이롱 이서났어.
 @1 아이고.
 #1 와이롱으로 헨 다리고.
 @1 와이롱은 전기로 헹 허는 거 아니?
 #1 아니, 숯불 살황 안네 낱.
 @1 아, 것도 와이롱이엔 곱습니까?
 #1 응. 거 와이롱.
 @1 와이롱허고 다루웬 뭐가 트나?
 #1 다리웨는 도세기 다리 닳은 게 다리웨고 와이롱은 이디 숯불 놔근엿에 두껍 더껍 우
 이 즈룩 든아근엿에 허는 게 와이롱이고.
 @2 그 밑에 지금 다리미처럼 생겼지예?
 #1 응, 이지금 저 전기 다리미추룩 생긴 거.
 @1 생기긴 생겼는데.
 #1 그 다리웨엔 헨 건 똑 저 냄비 닳은 건디 냄비 닳은 건디 즈룩 든은 거라. 경행은에
 반뜩헌 거 동글락헌 거 반뜩헌 건디 그것에 불 담아낱 다리곡. 건 양펜으로 동겨야. 그 다
 리웨질 허는 건.
 @1 아, 이 바닥에 놔근에 허는 게 아니고.
 #1 바닥에 낱 허질 안행 바닥에 낱 허민 졸바로 잘 못헤.
 @1 아.
 #1 경허민 서로 동겨야 그계 잘 다녀져.
 @1 응.
 #1 겨고 옷이나 무시겨 맨들 땐.
 @1 윤디.
 #1 윤디 그 저 화리에 숯불 살황 그거 숯불에 이제 구워 두라서 다 허민 그걸로 윤디로
 싹싹 다녀근엿에 동전도 들곡 경헨.
 @1 응. 건 윤디.
 #1 윤디.
 @1 다루웨 그다음 아까 아이롱.
 #1 와이롱.
 @1 와이롱. 이렇게 세 개가 잇구나예?
 #1 응. 이지금 그 와이롱 ㄱ란 일름이 뉘엔사 곱암신디 몰라.
 @1 그거 혹시 놔둬디가? 집이.
 #1 아니, 엇어.
 @1 다 데껴볶디가?
 #1 다 데껴빚주.
 @1 아이고, 흥뵂 놔두주.
 #1 겐디 우리 죽은메누리가 박물관사 출리젠 험신디 옛날 나 씨 텡기단 거 흥썰 무시겨
 막 데껴 불젠 헨 거 놔두난에 아져갓어.

@1 족은메누리가?

#1 응. 시에서 저 근대구덕. 그 대로 멘든 차롱 또 그 옛날 사라 그런 거 문 아저갓어.

@1 요즘엔 그런 게 더 비싸.

#1 겨난 난 데껴 불젠 허난 느 아저갈타 허난 데껴불지 말앙 놔둬센만 겨난 아저갓어. 아저가건디 이거 두 해 똥서. 근대구덕도 서너 개 헌 거 다 아저가고 차롱도 제사멍질 때 썩난 것덜 문딱 아저간. 이제 차롱 흔 착베끼 엇다. 허나베끼, 흔 불베끼 엇다.

@1 응. 그 애기 아방 옷, 멩질 때 입을 옷 허젠 허민 풀도 멕여야 뉼 거 아니파예?

#1 으게, 옛날엔 경헛는디 우리 애기 아방은 제스 때나 기냥이나 작업복 허나민 만사가 오케난 그런 거 안 헤. 후루메도 입젠 안 헐 거, 제사 때에도. 겨난 원 빨래질 허젠 안 허고 좋아.

@1 아. 옛날엔 그거 허는 디선 풀도 풀 만들엉 헤실 거 아니파?

#1 응.

@1 무신걸로 풀헤?

#1 저 쓸 딸려근엥에 그 저 무시거니 형겅에 싸근에 물 짱.

@1 아.

#1 경헛근엥에 풀 허고 헛주.

@1 쓸, 쓸로예.

#1 쓸 솥앙, 곤쓸 솥앙.

@1 곤쓸 솥앙.

#1 요새엔 나룩쓸이나 잇저, 옛날엔 산뒤쓸 솥아근에.

@1 게메예.

#1 경헛 그거 허여근엥에 베 헛벅이나 멩지 헛벅이나 쌍 그 주멩기 멘들앙 그거 이젠 그레 놔근엥에 막 놀려, 놀려가민 풀풀헌 물이 나와. 경허민 이젠 그거 뉼엥직허민 기냥 물 놓곡 아니 뉼어근엥에 기냥 뉼엥직허민 물 맞이민 그냥 허곡. 겐디 기냥 헛은 풀이 너무 썩어.

@1 아.

#1 겨난 물 흐끔 낭 헤사 이 형겅이, 옷이 믱랑믹랑허주. 게민 다리민 딱 좋아.

염색

@1 응. 염색은 물레 사다근에 헛니까?

#1 물레 사당 소금 놓곡 물 놔근에 그 옷에 양에 따라. 하영 놔도 안 뉼곡 족영 놔도 안 뉼곡.

@1 물렌 어디 강 사당 허는 거라? 누게 풀레 와?

#1 아니, 저 장에 오일장에 가민 그 물레 장시가 이서. 물레 장시가 이시민 그거 이녁 옷에 따라 흥 만이 사오민 뉼어.

@1 아, 경헛 그냥 낭 솥디 낭 끌리민 뉼어.

#1 응. 소금 놓곡.

@1 오래 솥아야 뉼니까?

#1 오래 삶아사 돼지. 바글바글 삶아사.
 @1 아, 쟁 그냥 널민 돼어?
 #1 아, 경헝 널엇당 물 빠지민 빨아근엥에 손질해야주.
 @1 그거 말고는 감, 감물 들이는 거 말고 다른 건 물 안 들여놔수과?
 #1 무사 이추룩헌 몸빼 헝 입젠 해도 들이곡.
 @1 무신거 들여?
 #1 검은물을 들이나 물색 아무거라도 이녁 들이구정 헌 거.
 @1 아니, 그냥 뭐 치지, 치자나 이런 거 쪽이나 이런 거 식물로는 물 안 들여?
 #1 치자는 노랑 물이나 들이젠 허민 치자물도 헝 해보고.
 @1 치자물도 해놔수과?
 #1 응.
 @1 것도 그냥 끌리민 돼어?
 #1 건 안 끌려도 돼어.
 @1 건 어뎡 헝 허는 거짜?
 #1 기냥 생차. 뽕앙이라도 물 짜놓민 돼어.
 @1 아, 치자는 열매로 허는 거짜?
 #1 열매. 치지, 치지 허멍 그 치지 그 저 가릿가릿, 열매 꼭대기가 가릿가릿헤영 세 가지. 세 가달에 벌겨져.
 @1 예.
 #1 그거 헤다근엥에 이제 삐져근에 거 헝겍에 쌍 물 짜놔근에 노랑 물 들이젠 허민 경.
 @1 건 안 삶아도 돼는 거.
 #1 응.
 @1 그다음 또 무신거 물들입니까?
 #1 그다음은 삶으는 거 검은 물이나 붉은 물이나 파랑 물이나.
 @1 꼭이나 이런 건 안 해?
 #1 꼭은 벨로 안 해보고. 꼭물은 벨로 안 해보고 그 치지물 해보고 꺾은 물 그런 거 삶으는 거 해보고 헛주.

베틀

@1 아. 그 천 만들 때 헛던 아까예 그거 이수계. 베클. 옛날에 집이 베클 이서놔수과?
 #1 우리 할머니 허단 거. 그거 어느 고등 불어 빗주. 그자 이서? 문화재칩이서 아저갓주.
 @1 문화재칩이 쥐수과?
 #1 옛날에.
 @1 아, 옛날에.
 #1 이거 멧 년. 흔 삼십 년 뵈주. 그거 아저가불 건디. 제주시예 박물관에서 완 아저가부실 테주.
 @1 그거 베 짜난 거지예?
 #1 베틀.

@1 베틀예. 베틀에도 아까 복도 잇고예 ㅼ디도 잇고.

#1 ㅼ디 다 잇는 거.

@1 응, 그런 이름 여러 가지 고아줍서. 꼬리 놓는 건 뭐?

#1 꼬리 놓는.

@1 꼬릿박.

#1 꼬리 놓는 것ㄴ라 뭐엔 헛저마는 것도 잇어볼고. 꼬릿박슨가 뭐 그것가 뭐엔 고아낫 저마는 것도 몰르고.

@1 ㅼ디도 ㅼ디 잇고 ㅼ디집도 이서?

#1 아니 그냥 ㅼ디.

@1 그냥 ㅼ디. 허리에 영 차는 건 무신거엔 고는 말 이수과?

#1 그거 이 신착, 초신착 꿰어근엔에 등젓다 낫다 허는 거 그거 새 서끄는 거.

@1 이름이 따로 엇어?

#1 따로 엇인 거 닳은디. 몰라 딱로 이서도.

@1 이디 영 감는 것도.

#1 아, 그거는 그거 멩지 짜근엔에 혼 자 짜지민 이레 디리물앙 영영 감으민 혼 필 두 필 허는 거 그거허고 거베끼 무시거.

@1 이디 잉에 건다 영허는 말도 헨 게마는.

#1 몰라. 그것도.

@1 그건 몰르고예.

바느질 도구

@1 바느질 허젠 허민 집이에 바농이영 실이영 영 놔두는 요건 뭐엔 고읍니까?

#1 바농상지.

@1 바농상지. 삼춘 바농상지.

#1 바농절레.

@1 절렌 뭐과?

#1 절렌 영 머리꺼럭 답아근에 영 동글랑허게 멘든 거.

@1 응.

#1 경헤영 그 구덕 바위트레 돌아메영 그 바농도 찢르곡 경허는 거. 것ㄴ라 바농절레.

@1 그것ㄴ라 바농절레.

#1 응. 바농상지.

@1 바농상지 잇고 바농절레 잇고.

#1 응.

@1 바농상진 무신걸로 멘든 거라?

#1 거 대로.

@1 대로.

#1 계난 건 이녁 자유.

@1 이녁 자유.

#1 응 험벽, 구덕 멘들앙 허구정 허민 험벽 구덕 멘들고 젠디 대부분은 대로 멘든 쪼끌 락헌 그 뭐니 송동바구린가.

@1 송동바구리.

#1 응. 송동바구린가.

@1 뚜경도 이서?

#1 뚜경도 멘들구정 허민 멘들곡 말구정 허민 말고. 그건 자유.

@1 아, 그 소꿉이 무신거 즐레 말고 뭐 이신 철이파?

#1 그디 무시거 형겹덜게, 옷 몰라난 그 옷사오레긴가 뭐 그거.

@1 무신거?

#1 옷사오레기.

@1 옷사오레기. 그계.

#1 물건 옷 몰라난 사오레기.

@1 아, 험벽 남은 거를.

#1 험벽 남은 거.

@1 사오레기엔 곱읍니까?

#1 응. 그것도 놓고 실뭉텅이도 놓고 그것 저것 히지령헌 거 놓는 거라 바농상지엔 헤 낫주.

@1 바농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1 9개. 이불 바농.

@1 이불 바농은 큰 거.

#1 손바농.

@1 손바농은 작은 거. 두 종류?

#1 아이 막 작은 것도 이서. 서너 종류가 돼주. 아주 작은 거.

@1 아주 작은 건 뭐 수 놀 때 허는 건가?

#1 아니 손바농질힐 때도 막 그 눈 붉은 사름은 작은 바농으로 해야 허기가 좋아. 게난 뒷바농질 허는 게 그 작은 바농으로 해야 빨리빨리 헤지곡.

@1 더 고와.

#1 응, 좋아.

@1 바농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실도 여러 개 이실 거고.

#1 응. 실도 여라 가지. 파란 거, 빨간 거, 하얀 거, 껌정 거, 옥색, 자주색 문딱 이서.

@1 주로 많이 쓰는 건.

#1 옷에 따라랑 잇는 사름이 하주게.

@1 주로 젤 하영 허는 거는 미녕실?

#1 미녕실, 미녕실. 주로 하영 허는 게 미녕실. 보통으로 허는 게.

@1 예. 미녕실은 풀 때 영 팔자로 영 뒤편에 이신 거 그냥 실 풀니까?

#1 실, 무신거니.

@1 뭐 도레기에 감아지지 안행.

#1 도레기에 감아지지 안헌 거. 영 동머리에 끼왕 감는 거.

@1 거니까 그건 무신 하나는 무신거엔 굳는 말 엇수과?
 #1 그런 거 나 몰라.
 @1 그든 그거 흔 타래 영 사오민 그거 해근에 영영 감아근에예
 #1 실 흔, 흔 가림.
 @1 흔 가림.
 #1 흔 타는 그 흔 가림짜리 열 개.
 @1 흔 가림은 요거 하나?
 #1 응.
 @1 요거 팔자로 뉘 거 하나. 그게 흔 가림.
 #1 거 흔 가림. 그거 열 개민 흔 타.
 @1 아, 그거 열 개민 흔 타.
 #1 응.
 @1 응. 쟁 요 흔 가림 사오민 영 실패에 감으민 막 하영 뉘 거 아니짜예?
 #1 막 바농질 매날 허는 사름은 거 하도 아녀. 메틀 가도 아녀.
 @1 아.
 #1 애기 옷덜이나 막 계속 멘들앙 비 온 날 쯤은 앓이민 거 흔 타도 족아. 옛날에 우리.
 @1 손 다예 헤싸지켜.
 #1 응. 게민 손 이디 끼우는 게 잇어. 쉼.
 @1 거 뉘엔 곶아.
 #1 쉼로 뉘는 거. 그 손 무시거 바농질허는 디 끼우는 것ㄴ라 뉘엔 것도 곶아났저마는 나 잇어비언.
 @1 요기 가운데 손가락에 끼웁니까?
 #1 응.
 @1 왼쪽 손, 오른쪽 손? 어디 끼와?
 #1 이 왼쪽 사용허는 사름사.
 @1 오른쪽 사용허는 사름.
 #1 왼쪽. 왼쪽 사용허는 사름 이거.
 @1 오른쪽 사용허는 사름은 오른쪽에.
 #1 오른쪽 사용허는 사름은 요것에.
 @1 아, 요기 세 개.
 #1 왼쪽 사용허는 사름은 또 요것에. 상손ㄴ렉에.
 @1 상손가락에. 보통 오른쪽으로 허난 오른쪽 상손가락에 이거 달켜예. 그거예, 골무엔 허나, 험신가? 골미, 골메?
 #1 골민가 뉘가 몰르크라.
 @1 쉼로 뉘 거예?
 #1 응. 쉼로 뉘 거. 손봉오리에 끼우민 뉘는 거.
 @1 손봉오리에 끼우는 거.
 #1 응. 손봉오리 끼우는 거 아니허민 이디 바농으로 손 고망 나, 바농귀로 찢러 불민.

@1 어.
 #1 계난 하영 맨날 허는 사름은 거 끼와야.
 @1 응, 바농 영 녹슬민 어떻힙니까?
 #1 거 속돌 이서. 그 바농 ㄴ는 속돌.
 @1 응.
 #1 바당에 가민 그 헤영헌 속돌이 있어.
 @1 예.
 #1 계민 그거 요만인 현 거 봉가오민 그것에 이렇게 곱아.
 @1 곱아.
 #1 영영 밍게 가민 곱아져.
 @1 머리에도 영영허고?
 #1 응, 머리에 영영헌 거보단 그게 훨씬 좋아. 잘 곱아져. 보민 거.
 @1 예. 그 녹슨 걸 보민텐 곱습니까?
 #1 으, 으.
 @1 보미는 건 바농만 보밉니까? 아니민 쉼로 댜 건 다 보민텐 곱습니까?
 #1 바농만 보미질 아녕 쉼로 댜 건 다 보며. 녹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1 녹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 보민텐 곱는 거구나예.
 #1 응.
 @1 ㄴ새도 이서야 댜 거 아니?
 #1 ㄴ새.
 @1 ㄴ새예.
 #1 ㄴ새. 하세미여 무신. 하세민 일본말이고.
 @1 하세미가 무신 거라?
 #1 하세미가 ㄴ새.
 @1 하세미가 ㄴ새.
 #1 응. 하세미엔 곱는 건 건 일본말이고.
 @1 일본말이고.

신발

@1 그다음에 신발.
 #1 신발이 신발이주, 무시거라.
 @1 하하. 옛날 신어난 신발. 아까 흐끔씩 다 곱아줘수다마는.
 #1 옛날 신어난 신발.
 @1 쥘 하영 신는 건 초신.
 #1 초신, 남신.
 @1 남신. 쥘 하영 신는 게 초신, 남신예.
 #1 응.
 @1 초신도 만드는 거 영 옆이서 봐납디가?

#1 흐, 우리 깝 보빌 충도 알아.
 @1 깝 보빌 충도 알아. 모르는 것도 엇어 우리 삼춘.
 #1 깝 보비는 것도 알아.
 @1 깝 보비는 건 어떻 행 허는 거짜?
 #1 영영 보병 영 테우민 요디 고망이 베통허게 낭 똑허게 노 끈 거 모양 뉘어.
 @1 어.
 #1 경허민 그 고망더레 노 ㄱ늘게 꼬양 속속속속 계와가다근엥에 그거 흑흑 흘트민 신뿐 이 뉘어.
 @1 응. 무신걸로 허는 거라?
 #1 미로. 미 그 저 역새.
 @1 예.
 #1 그거 역새 뽑아다근에 그거 저 소곱에 뺨다귀는 빼어비두곡 그거 헤영 물좌. 물랑 이젠 물에 숲아.
 @1 응.
 #1 숲아근엥에 이제 그거 노 짜. 이렇게 꼬양 새끼 꼬듯. 꼬아근에 허는 거.
 @1 예 그걸로 신 다 멘들아?
 #1 응. 경행 신 멘들아.
 @1 창만 그걸로, 놀만 그걸로 허는 게 아니고?
 #1 응. 창도 멘들곡 놀도 멘드는데 놀은 손으로 보벼야 뉘어.
 @1 어떻?
 #1 이렇게, 이렇게.
 @1 이렇게.
 #1 응. 이렇게.
 @1 거 뉘로? 것도 미로?
 #1 것도 미로. 경해근엥에 그 고망 영영 밀어근에 요렇게 허민 거 희안허게시리 고망이 나게 테와져. 노 끈 거ㄱ치.
 @1 응.
 #1 경해근에 그 노터레 고망난 드레 쓱쓱쓱쓱허게시리 찢러 강 이제 흘타근엥에 뒤척이 멘들곡 앞이 터지게시리 멘들구정 허민 앞이 터지게 멘들고. 계난 이 뒤척이 멘들민 일로 고망 나.
 @1 산뒤쪽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1 산뒤쪽으로 만드는 것도 잇주마는 산뒤쪽으로 허는 건 오래 못 신주게. 북삭해근에.
 @1 예.
 #1 그 미로 멘든 거는 아주 곱고 물이나 들여놓민 진짜로 보기 좋아.
 @1 아까 삶아가지고.
 #1 응.
 @1 속에, 속에 껍질만.
 #1 껍데기만.

@1 껌데기만예.
#1 응, 껌데기만.
@1 젤 밖에 껌데기, 중간 껌데기.
#1 중간 껌데기나 원 그거는 ㄴ쁜 거.
@1 아.
#1 그 무신 이중 삼중은 아니고. 그 소곱에 배설만 배설만 뺑 데껴동.
@1 배설만 뺑 데껴똥. 껌질로 숭아근에.
#1 응. 경혜영 저 던드렁 마께로 두드려. 피와근에 노 꼬곡.
@1 응, 노 꼬곡. 경혜근에 멘드는 거라.
#1 응.
@1 신당 흐뎡 혈민 데쌍도 신엇덴.
#1 아이고, 데쌍 신는 건 초신이 아니주.
@1 건 무신거짜 게민.
#1 초신 아니주게. 깍신, 깍신 허명 보벼근에 멘드는 건 깍신. 경허명 헤나신디 그 거시기 멘들앙 허는 거는 데쌍 신지 못허여. 혈민 데껴부는 거주, 버려부는 거주.
@1 응. 그 깍신 그게 깍신?
#1 응.
@1 그믄 깍신 말고 다른 건 뭐라?
#1 다른 거 미신거 이서게 남신. 남신, 깍신 그거주.
@1 초신.
#1 초신이 그 깍신이라.
@1 초신이 깍신이라.
#1 응. 초신이 깍신이라.
@1 아니 다른 디서는 산뒤쪽으로도 헛저.
#1 산뒤쪽으로도 허곡 미로도 허곡.
@1 저 무신거 뭐 신사라로도 헛저.
#1 신사라도 허고. 그건 여라 질. 겐디 물건은 똑ㄴ쁜 물건이라.
@1 아.
#1 그 재료만 뜨나는 거지, 공장은 똑 ㄴ쁜 거. 하하하.
@1 미로 현 게 젤 좋은 거짜?
#1 응. 미로 허고 저 삼으로 현 게 질김은 허지.
@1 삼으로도 헛니까?
#1 삼으로도 헤여.
@1 삼으로 어떻 헝은에 허는 거라?
#1 물을 안 탄덴 해서 질겨. 미도.
@1 아까 옷 만드는 그 삼으로.
#1 응.
@1 그것도 신발도 만들어?

#1 신발도 만들어.
 @1 여긴 삼이 많이 나니까 그걸로 신발 만들었구나예.
 #1 신발도 만들꼭 그걸로 멘든 게 또 발도 덜 아프고.
 @1 아.
 #1 그 미로 현 게 발은 더 아프고, 삐닥삐닥 헤영, 세영.
 @1 삼이 젤 좋구나 거문예.
 #1 응, 삼이 젤 좋아.
 @1 다른 동네 삼이 엇이난 삼으로 헛젠 현 말을 못 들어신디
 #1 엇고.
 @1 이던 삼으로 허는구나예. 만드는 방법은 똑ㄴ따?
 #1 만드는 방법은 똑ㄴ쁜 거.
 @1 아까 삼 숲앙 돌린 걸로 그냥 만드는 거라?
 #1 응, 응. 그거 보벼. 깍을 보벼.
 @1 삼 삶아근에 널영 말렸잖아예. 그거를 보벼가지고?
 #1 응, 응. 영 손으로 보벼.
 @1 손으로 영영 보벼. 경헤근에 걸로. 건 막 가늘 거 아니?
 #1 두티가 우리 ㄴ만시라. 두티가 요거 보비면은 쉼 거 같다. 이거 보비른 딱 맞아. 이렇
 게 헤영 영 보병 이렇게 허면은 영허민 요기 고망이 나잖아.
 @1 예.
 #1 이렇게 허면. 이거 노 파지는 거 아니여?
 @1 예.
 #1 경허민 요디 고망이 안 나? 고망 나지.
 @1 예.
 #1 게민 이레 이제 요런 거 노끈으로 꼭꼭꼭꼭 찢러근앵에 이제 발 지러기에 맞춰근에
 허면 요거 앞칙이, 요거 뒤칙이 허민 뒤에 왕 마무리 시겨. 앞칙이로 멘들앙 이렇게 왕.
 @1 삼은 막 가늘지 안헉니까? 더 이거보다.
 #1 게난 가는 그건 흑게 헐 수도 잇고 ㄴ늘게 헐 수도 잇는 거.
 @1 아.
 #1 일리는 똑ㄴ뜨난. 손으로 보비는 거난 일리는 똑ㄴ쁜 거. 이렇게 이렇게.
 @1 응. 흑시 삼으로 만든 초신은 다르게 이름 곤진 안헉니까?
 #1 삼으로 만든 거는 부드러와.
 @1 부드러와.
 #1 신이.
 @1 오래 가기도 헤?
 #1 오래 가기도 허고. 미로 만든 게 젤 세어.
 @1 미로 만든 게 젤 세고.
 #1 응, 신어보면.
 @1 뒤칙이 아프지 안헤, 막 뱃겨지꼭.

#1 계난 벳겨지곡 막 아파. 경허민 우리 머리꺼럭 이제 이만씩 긴 머리꺼럭 곳앙 놔두민 그거 헤영 뒤척이 영영 감아근에 허곡 헤낫주.

@1 털 아프게.

#1 응. 털 아프게. 이 뒤척이에 껌데기 헤지면 거명헌 피가 탁탁 나.

@1 거난 우리 새신발 신으민.

#1 계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헤근에 이디 허면 이것가 우트레 갈 거 아니라? 영혈 거.

@1 계민 깍이 뉘는 거구나예.

#1 경헤근에 이거 깍신 깍신 헤낫주. 계난 이거 이레 짹허게 허영 이디 오면 뒤척이 오면 마무리헤여. 겨민 이 뒤척이 마무리헌 디서가 쉼어. 낭코지ㄴ찌.

@1 거니까.

#1 경허민 이제 머리꺼럭을 이레 발 아니 아프게 허젠 허민 머리꺼럭을 감안 우리 신어 낫어.

@1 응. 형겁도 감읍디다.

#1 형겁도 감고 헌디 머리꺼럭이 쉼 좋아.

@1 머리꺼럭이 쉼 좋아.

#1 머리꺼럭은 물이 가도 물이 직직 빠지고 형겁은 허면 이디 물 젖으면 빨리 안 빠져. 물이 말르질 안헤.

@1 맞아. 맞아.

#1 빨리 안 달라. 계난 우리 경험은 그렇게 헨 헛는디 몰라.

@1 머리꺼럭이 쉼 좋으크라.

#1 응. 머리꺼럭이 쉼 좋아.

@1 머리꺼럭은 버리지 말앙 모양 놔둬야 뉘켜예? 이디 굴러뎡기는 거 다 모양.

#1 머리꺼럭으로 못허는 게 이서게?

@1 계난 아까 절레에도 놓고.

#1 바농절레 멘들앙 이쁜 험벅 헤근에 바농절레 행 영 곳동 놔근앵에 허민 완전 이빠.

@1 하하하.

#1 요것가 바농절레가 요 두티 헤서 톱글랑허게 허면은 읍로 파란 거 헤근에 색동 놔근에 허민 완전 이빠. 경헤영 이디 고장 농곡 행 허민 완전 바농절레가 침 앓앙 놀암직이 이빠.

@1 앓앙 놀암직이.

#1 앓앙 놀암직이 이빠. 우리 옛날에 이추룩 허명 깍신 멘들앙 신엇주.

@1 시집갈 때도 초신 예쁘게 삼아근에 줘낫저 헹게마는.

#1 견디 초신 삼앙 아정가 보진 안허고. 우리 시절엔 그땐 흐뎡 올라운 때난 신식이 흐 쓸 나 갈 때난.

@1 남신은 어뎡 행 파는 거마씨?

#1 남신은 남 요만큼 그 신 지력시만인 헤근앵에 이 속으로 파민 뉘 거. 베꽃덜로 치레 단장 행 이쁘게 멘들아 낱 안네 끌로 헤근에 딱딱허게시리 팡. 마계질 행.

@1 그거 신어납디가?

#1 남신은 우리 할으부지네 신어도 나는 안 신어보고. 초신은 씨지근이 신고.

@1 아. 초신은 하영 신엇구나예.
 #1 초신은 고무신 엇이난 신고 부지런이. 초신 신영 외갓칩이 저디 가쟁 허민 그거 신영 가당 보민 발뒤척이 해정 거명헌 피가 닥닥 나민.
 @1 외갓칩 어디파?
 #1 저 세화 일리.
 @1 세화 일리.
 #1 경허민 하르방 웨하르방이 가근엿에 허민 불쌍허뎡 이젠 그 머리꺼럭 허영 깍신 뒤척 이터레 문 감아주곡 영헤난. 우리 웨하르방네 돌아간디 막 오랏주마는.
 @1 가족신도 이서낫수과?
 #1 가족신도 이서낫주. 가족신은 영헤영 주면 이디가 이렇게 코지 나. 이렇게. 영행 허민.
 @1 보선추록.
 #1 보선추록. 경헤영 신는 거. 이 곳사 인척이도 굴앗주마는 저디 가족신 신어난 하르방 손지가 앓았어.
 @1 아. 결혼식 헐 때나 아니면예 가막창신이렌 여자들 신어난 것도 이서나지 안헛수과?
 #1 어. 가막창신 이서낫어.
 @1 짓도 가족 아니?
 #1 짓도 가족. 가족. 형겍으로도 멘들안 헛주마는 형겍으론 저 비 온 때나 그런 땀 굿고 그 형겍도 무시거 저 뭐 미치는 짓가 이서. 형겍신 멘들앙.
 @1 예.
 #1 그 빠닥허게 멘드는 물감이 잇던데. 겨난 그겍로 허는 거는 비 온 때도 잘 안 좋고 그 나막신이엔 헐 거는 가족으로 만든 거는 거 짓도 문 무치는 거. 그 저 물 아이 들게. 저 무신 풀 미치는 짓모냥 문 미천게. 예교 모냥으로. 겨난 그추록.
 @1 응. 아교, 아교풀.
 #1 응. 겨난 이제 들어난 짓도 봐난 짓도 다 잊어부난 몰라.
 @1 짚신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1 여라 개 잇주게.
 @1 어떻게?
 #1 이쁘게 허영 신구정 허민 이쁘게 헤영. 물감 들영 신구정 허민 물감도 들영 신고.
 @1 아니 그 깍 내영 깍이 깍 내와근에 허는 짓도 잇고 안 행은에 허는 짓도 잇덴.
 #1 아니, 깍 메왕 허는 건 똑ㄴ따.
 @1 아, 똑ㄴ따.
 #1 응, 초신은 똑ㄴ때. 그 폐선이 아니 어디 저 서귀포시장에라도 그 깍신 강 봐. 똑ㄴ 때. 이 저 멘드는 물곰만 딱난 거지.
 @1 아니, 상제덜 신는 그 초신.
 #1 아이 계난 똑ㄴ따.
 @1 똑같아. 상제덜 신는 건 깍이 흥뽀뽀 잇수게. 멧 개 엇인.
 #1 그건 물자 족게 들젠 허난 멧 개 엇인 거주. 똑ㄴ따.
 @1 아, 똑ㄴ따.

#1 응, 똑ㄴ따. 그거는 쉽게 허곡 물자 하영 안 들게 허젠 그 드망드망 허난 깍이 얼마 안 드는 거주.

모자

@1 모자도 이 동네 혹시 대페랭이 해낫수과?

#1 대페랭이. 그 대페랭이엔 현 게 저 무신 거 아닌가?

@1 대나무로.

#1 삿갓.

@1 예, 삿갓.

#1 삿갓 페랭이.

@1 아, 삿갓 페랭이. 이디 난산리 동네.

#1 난산리 동네는 잘헤여.

@1 그니까 그 동네 많이 현덴.

#1 겐디 이 동네는 그런 거 허는 거 엇어.

@1 아.

#1 그런 거 허는 어른이 엇어.

@1 난산리 옛날부터 그 대페랭이 해낫수과?

#1 옛날부터 그건 잘 허고.

@1 지금도 허는 어른 살아신가?

#1 몰라, 그건 몰르고. 허는 어른이 죽엇주. 나이가 이거 백세 넘을 건디 그 삿갓 멘드는 하르방이.

@1 그믄 이 동네선 그디서 사당 써수과?

#1 사당 쓰는 사름은 호시로 사당 쓰고 검질 땀 때도 더우면 밀짚페랭이 쓰민 더우난 삿갓은 흐쉴 건드렁허주. 건드렁헌디 흐뵂 무겨와. 경헌디 벧 가리는 거는 좋주.

@1 흐뵂 시원헤?

#1 응. 가다, 호시로 허는 사름은 사당 쓰고 우리 님은 사름은 밀짚페랭이도 이녁냥으로 멘들명 쓰난에.

@1 그냥 삿갓 모양이파?

#1 응, 삿갓 모양.

@1 그냥 이렇게 웬? 그냥 페랭이추룩 생긴 게 아니고.

#1 응. 페랭이추룩 생긴 게 아니고. 안네 그 대나무로 헤영은영에 머리 둘레 모자식으로 헝은영에 이 원판은 허고 경허민 그 머리가 잘 아프는 사름은 그 대막랭이로 눌러 비엄젠 허명 잘 안 써. 우리도 원 ㅁ음에 안 맞던디.

@1 하하하. 별롭디가?

#1 밀짚모저만이 펜안허질 못헤여. 무겍고.

@1 밀짚모자는 아까 밀로 허고. 보리냥으로도 험니까?

#1 보리냥으로도 허고. 이녁 건 허구정헌 냥. 겐디 밀짚으로 현 게 좋아. 보리냥으로 현 것보다.

@1 흐뭇 질긴가?
#1 으, 질김도 허곡 보기도 좋고.
@1 보리낭이 흐뭇 약해?
#1 약하고 풍그러와근영에 보기가 흔엇이 좋진 안해.
@1 풍그러운 건 어떤 거파?
#1 넓작넓작허덴. 넓으덴 간격이.
@1 간격이.
#1 그 전, 전은 간격이.
@1 여기 전에 잇는 간격이 넓어서.
#1 아니 우리 밀짚으로 현 거는 간격이 요만이베끼 안 허주게.
@1 밀짚이 흐뭇 가느파?
#1 가느난. 겨난 요만이베끼 안 허고 보릿대로 현 거는 요만이 넓어.
@1 보리낭이 흐뭇 뚜꺼원에.
#1 응, 응. 겨곡 고양 헤지지, 이쁘게 헤지질 아녀. 그 밀낭으로 현 거는 이쁘게 허여지
는디 겨난 밀낭으로 현 게 좋음도 허고. 보리낭으로 현 거 보단 질기고 ㄱ튼 값에.
@1 응. 뭐 이딴 그 정동이나 이런 걸로 안 만들어났수과?
#1 아니.
@1 정동벌립 영헌 말. 정당벌립.
#1 정당벌립. 정당.
@1 정당줄로.
#1 정당줄로 허는 건 꼭 그런 거. 정당줄로 허는 거는 벨로 안 헛어. 글체는 헤봤지.
@1 정당줄로 글체는 만드는디.
#1 응. 정당줄로 글체는 헤봤주마는 페랭인 아니 만들어봤어.
@1 저디 한림 쪽엔 가난에 정당으로도 페랭이 만들안 씩디다.
#1 페랭이 멘들안. 우리 동네는 정당으로 잘 안해. 글체도 우리 하르방이나 정당 걷어당
글체 절앗주, 다른 사름덜은 벨로 안 허고. 우리 하르버지, 친정하르버지나 그런 거 헛주.
정당줄로 글체 만드는 것도 좋아.
@1 난산리는 대나무가 하영 이서나신가? 무사 그 난산리서 대페랭이를, 대삿갓을 헤신고.
#1 난산리 뎃고단이란.
@1 무신겨난?
#1 뎃고단이란.
@1 그디가 뎃고단이파?
#1 응. 대 한 동네. 대가 많이 잇는 동네.
@1 난산리만. 이 동네선 난산리만 그거 하영 허는 동네파?
#1 응. 겨난 그 손매가 잇는 사름이 그런 것도 허는 거주. 아무나 못헤여. 겨난 건 손매
이신 사름이 기술 손이 이시난 현 거주.
@1 응. 여름에는 보통 페랭이나 삿갓.
#1 응, 페랭이나 삿갓 현디 우리 동네는 보통 페랭이.

@1 페랭이. 샷갓도 많이 안 허고.
 #1 샷갓은 사와야 쓸 거난 샷갓 쓰는 사름은 가다쟁이 할망이나 하르방.
 @1 주로 페랭이 쓰고 페랭이 아니민 수건.
 #1 응. 우리 옛날에 페랭이 재기 허지 못헌 때는 고사리, 검질 메레 가민 고사리 저 글
 갱이로 기창 머리에 그 고사리 낱 수건으로 이렇게 행 써낫어.
 @1 고사리를 안에 놓고.
 #1 응.
 @1 수건을 밖에.
 #1 수건을 밖으로 헤영 영 헤영 졸라메영.
 @1 흐뎡 시원허렌.
 #1 응, 게민 고사리수건도 좋아.
 @1 고사리수건.
 #1 게민 시원허여.
 @1 안 털어져 불어 고사리?
 #1 안 털어져. 거 요령껏 쓰민 뉘난에.
 @1 오.
 #1 안 털어져.
 @1 경헤야 흐뎡 영 여기 틈 벌어정 시원힐 건가, 바람 들어오고.
 #1 시원헤여.
 @1 응.
 #1 쟁 물르민 또 새로 기창 또 허고.
 @1 뭐가 물르민?
 #1 고사리가 물라 불 거 아니라. 사름 열로도 허곡 뵈기 열로, 태양으로도 허곡 허민 물
 르민 물른 건 앓양 데껴 비동 또 늘고사리 끼차근엥에 머리에 낱 또 그 수건으로 쓰고. 경
 허민 어둑도록 사노롱허여근엥에 덤지 안행 좋아.
 @1 흐뎡 시원허렌.
 #1 시원허렌. 페랭이가 안 썩 간 땀.
 @1 페랭이 안 썩 간 땀에.
 #1 쟁 헛주.
 @1 겨울에는 무신 모자 써?
 #1 겨울엔 포대기.
 @1 포대기?
 #1 포대기. 요새에덜은 겨울에 쓰는 모저 이시난 헛주마는 포대기 영 삼각구 나게 꺼꺼
 근엥에 요렇게 행 썩주.
 @1 하하하. 맞아 그런 거 많이 썩어. 사진 보면.
 #1 어, 영 헛주게. 무신 벨 거 이섯어.
 @1 모자 땀들아근에 쓰는 사름들도 잊지 안헤?
 #1 아이 그땀 모자 땀들앙 쓰는 사름 없엇어. 요새 ㄱ뜨민 땀들앙 씌사 허주.

@1 요디 어깨까지 영 덮어지는 거.
#1 건 휘양.
@1 휘양.
#1 건 하르방덜 쓰는 거.
@1 아, 하르방덜 쓰는 거.
#1 요디 감, 산곡대기 터지와근에.
@1 여기 터지와?
#1 응.
@1 여기 무사 터지우는 거라?
#1 브름 들어가렌.
@1 겨울인디.
#1 겨울이라도 거 숨골.
@1 아, 숨골. 하영 아니고 흐뎡만 터주는.
#1 흐뎡만 요만큼 터주왔어.
@1 아, 경혜근에 어깨까지 영 더꺼지게. 건 그냥 형겍으로 만드는 거?
#1 형겍으로도 만들곡 뭐 무시거 노리털로도 만들곡.
@1 아.
#1 노리가죽.
@1 노리가죽으로도.
#1 끄도 허곡 헛주.
@1 건 휘양이엔 곱읍니까?
#1 응. 험뎡으로 멘든, 꺾은 험뎡으로 행 멘들앙 쓴 하르방덜이 하났어.
@1 응. 아, 애기덜도 비슷한 거 헤십디다.
#1 응, 애기덜도 마찬가지로. 원 크고 작은 거 그거 차이주. ㄱ뎡 거.
@1 응. 탕건이나 이런 건 안헤났지예? 망건이나 이런 건예.
#1 망건 탕건도 쓰는 사름은 췌고.
@1 쓰는 사름덜은 췌수과?
#1 어, 쓰는 하르방덜은 췌고.
@1 응, 공부헌 하르방덜.
#1 응, 베슬와치덜.
@1 베슬아치덜. 걸 만들진 안헛지예?
#1 사단 쓰곡 헛주.
@1 사단 췌지예. 이디 어디 조천드레 가민 거 만들어났텐 허는다.
#1 응, 응.
@1 옛날에 사용하던.
#1 탕건 쓰곡 허는 하르방덜사 완전 이름난 하르방덜.
@1 하하하.
#1 간다 허는 하르방덜이주.

@1 옛날에 옷감하고 생각허민 요즘 옷감은 어떻 현 거 닳으꽈? 옛날 옷이영 이제 옷이영 생각허민.

#1 옛날 옷이영 이제 옷이영 생각허민 이제 옷이 신식이주 무신, 고급이주 무신.

@1 고급이라도 이런 건 안 좋아라 영허는 건 옛수과?

#1 허나 아니, 허나 좋으민 허난 굿게 뉼 거난 다 좋을 순 옛이난 옛날 거 피부 나쁘지 안행 좋고.

@1 피부에 좋고.

#1 요즘에는 어떤 물건이라도 나이롱 그 물건이 안 들어간 게 옛어부난 보기에산 뜻허지만 옛날 물건만은 못허주. 피부에.

@1 맞아.

#1 받안 좋지 안허여. 게난 흐 굿 좋으민 흐 굿은 굿인 거. 건 당연현 거.

경험담

@1 옷이랑 관련해서 옷 만들엇거나 빨래하거나 물들이거나 이런 거 허명 혹시 재미난 일 옛어났수과? 기억에 남는 거. 옛날에.

#1 옛어.

@1 어머니네 헐 때 어평허단 욱들어났저.

#1 아니, 욱도 안 들어보고 그런 거 옛어.

@1 무신거 만들어신디 예쁘게 만들안에 늣 자랑허고 막 헛저 영현 거 옛수과?

#1 그런 거 옛어. 옛날에 나 저 적삼이엔 현 거 미녕으로 멘들안 주난 너미 쿵에 그거 도련 둘라뉼에 나냥으로 눈짐작으로 헨 두블 멘들안 입어난 건 이서. 게난 그건 잘헛젠 헨게. 거 눈짐작으로 헤도 잘헛저, 나뉼 경허드라. 그건 잇어.

@1 삼춘은 손재주가 이신 거 닳아.

#1 눈짐작으로 헤도.

@1 눈짐작으로 그게 아무나 헤지는 거꽈게.

#1 게난에 그거 둘라돈 두블 헨 입어난 그건 잘헛저, 나뉼 허명. 나뉼이엔 현 거 무신 말인 중 알아?

@2 어머니가 곤는 말 아니?

@1 어머니 아니어도 곤아. 할머니도.

#1 어평 아닌 할망도 곤주.

@1 그냥 여자 아이안테만 허는 거 아니꽈예.

#1 뉼신디만. 뉼손지나 뉼이나 허난. 나뉼 그건 잘 멘들안 입엇저, 몸에 맞안. 그말은 들어났어.

@1 나뉼은 욱헐 뉼 안 쓰지예?

#1 욱헐 뉼 나뉼이엔은 안 허주게.

@1 거난 칭찬헐 때만예.

#1 응, 칭찬헐 때만 쓰주. 경 안허민 저 빌어먹을 년이엔을 허나 저 망할년이엔을 허나 경허주.

@1 하하하. 계난예, 아꼐덴 허는 말로 아이고 나뜰.
 #1 못생긴 년이엔을 허나. 경허주. 나뜰이엔 현 건 그건 칭찬허고 이쁘덴 소리.
 @1 계난예.
 #1 ㅎ쫌허민 옥허젠 허민 저 백정년, 저 망할년. 경헌디 그런 옥은 안 들어봣어, 안직깁지. 그런 옥헐 사름도 엇주마는.
 @1 옷 만들면서 막 가장 힘들엇던 거. 옷이랑 관련해서.
 #1 무시거 ㅎ엇이 힘든 게 잇어. 나월 옷 멘드는 거 힘든 건 엇엇어.
 @1 엇엇어.
 #1 나 멘드는 건 원원 몰라. 나 멘드는 건 힘든 게 엇어나난.
 @1 언제부터 애들 거 사근에 입젓수과?
 #1 상 입지건디가 우리 큰놈 국민학교 일학년 부뜰 때부떠 산 입짐은 헛주.
 @1 큰아뜰 뭇 설인디?
 #1 큰아뜰 이제 오십일곱.
 @1 오십일곱. 거난 ㅎ 사십 년, 오십 년 뵈구나예.
 #1 어.
 @1 오십년 전부터 ㅎ꼼씩 여기.
 #1 어, 학교 뎡기젠 허난.
 @1 거난. 응.
 #1 계난 비니루 잠바가 그때 일등이라났어.
 @1 비니루 잠바.
 #1 잠바. 그거 쳇번으로 간 사단 입전. 학교, 국민학교 부찌젠 허난 그거허고 모저허고 쳇 번으로 사단 원 입지고 씨우고. 쟁헤연 가난 그제 그때 일등.
 @1 아.
 #1 사진 그거 찍언 놔뵈주마는 일등. 하하하. 그 사진 잇어, 이제.
 @1 그때가 쥘 그거 유행하던 거엿구나.
 #1 유행이 아니고 쳇번으로 나온 거. 계난 그거는 아주 잘 헛엇어. 지나간 거 그걸 보면. 경 안허면 그 전이는 멘들명 느랑 입엇주.
 @1 멘들명 입지고 입고예.
 #1 정벙이, 우이 난닝구 닳은 거 경 안허민 겨울에 풀 요만이 오게시리 헤영 경헐 멘들고.
 @1 이디 토산린 옷 만들어주는 할망은 엇어났수과? 옷 만드는 할망은 한복 만드는.
 #1 이딘 엇엇어.
 @1 표선이만 이서 닳수과?
 @2 계민 새각시옷 같은 거 허는 거 다 이녁 집이서?
 #1 이녁 집이서 멘들곡 경 안허민 치레허구정 현 사름은 미승허는 디 강 맞추고.
 @2 맞추고.
 #1 경헛주. 대부분은 이녁집이서 멘들안 입엇주. 나도 우리 집이서 기냥 우리대로 만들안 입어신디 난 맞춥보질 안헐. 침 이녁 눈짐작으로 멘들명 입엇주. 시집갈 때 입는 것도 손바 놓질헐 입엉 가도 아무 통도 안 허고. 하하하.

@1 그게 더 좋은 거지.
 #1 손으로 멘들안 입영 간.
 @1 더 힘들게예.
 #1 나 갈 때는 저 옥영목 치마. 그거 행 이제 손으로 행 멘들안 입었주.
 @1 시집갈 때 거랑 옛날 것덜 옷 혹시 집이 놔둔 건 엇수과?
 #1 엇어.
 @1 다 테와불엇수과?
 #1 다 테와불언 엇주. 시집갈 때 헤난 거 이제 이불 그 요 아래 꼬는 거 그건 이서.
 @1 이불 꺾데기.
 #1 꺾데기가 아니고 소게.
 @1 소게 응.
 #1 그건 이서. 그거는 짚앙 녹지 아녀난 뭐 기자 요새 기자 아무거나 카페트고 아무거고 기자 짚앙 등그난에 그런 거 필요가 엇이난.
 @1 아.
 #1 아 계난 케와불젠 허난 그거는 아깝고.
 @2 삼춘 농사지영 그 솜 현 거파?
 #1 농사지영 현 거. 멘네 헤연.
 @2 멘네 행예.
 @1 거난 아까왕 못 던지지.
 #1 못 던져. 계난 그거 하나만 이서, 원.
 @1 테우민 또 새솜 닳아.
 #1 응, 그거 시집갈 때 이불 테우난 두 개 멘들단도 남안게.
 @1 맞아, 옛날엔 막 뚜껍게 헤낫잖아.
 #1 뚜껍게 헤나난. 계난 그거 하나 테완에 이불 두 개 멘들아도 남으난에 이젠 방석인가 멘드난 방석도 소용엇고 이젠. 그거 저 어디 서귀포 소게 테우는 디 간 이불 멘드는 디 간 헤연에 두 개 멘들아 와신디 두 개 멘들아도 요새 이불로 생각허민 두꺼와.
 @1 맞아.
 #1 계난 그거 더껌서. 겨울에 멩질, 설멩질에나 왕 아이덜 흥번씩 더껌주. 경허난 저 메 누리나 아덜은 아 이거 슬아븍서게 이거 멧 년 뉘 거파게. 이제 칠십년 다 뉘수게게. 칠십년 넘은 거주게. 칠 십년 넘은 거주게, 이제. 육십년이 다 뉘 거주.
 @1 경해도 테우민 새 거라. 솜은예. 나이롱 아니니까.
 #1 나이롱 아니난. 계난 테껴불기가 아까와.
 @1 맞아.
 #1 그때는 이불 개어 놓민 딱 네귀가 반드허게시리 부떠야 허게 현 때라. 계난 요 너부기는 딱 이거. 이불 개어논 그것도 이거. 딱 귀때기가 맞게시리 그때는 헛어. 들쭉날쭉을 아년. 요새는 돌리 뉘 등글어 나카부덴산디 요를 이만큼 넓게 험선게. 경헌디 우리 헛 때는 원 너비가 딱 이거라.
 @1 거 두 사름 누렌 그거파? 흥 사름 누렌 그거파?

#1 두 사름 누민 보짜허주. 게난 두 사름이 뉘 다정허게 누라고 그렇게.

@1 하하하.

#1 널르면 이녁만씩 등글 거난 다정허게 누라고 그추룩 헛넌. 할망 하르방덜 곤는 거 보면. 무사 이렇계.

@1 족계.

#1 응, 족계 헝 딱 이불 개어놓민 네귀가 반득허게 헛수젠 허난에 돌리가 누면 딱 폭허 계시리 슬부짱 뉘야 정이 가깝나고. 다 그계.

@1 뜻이 잇어.

#1 이유가 잇고 뜻이 이신 말이라. 들어보니. 겐디 요새는 뭐 요가 무신 이불만이 넓고. 게난 겨곤 옛날에 사름덜은 벨로 경 아니해도 요새 사름덜은 시집도 안 간 때부터 정들멍 간 거난. 시집 장계 안 간 때부떠 정들멍 간 거난.

@1 하하하. 오늘 의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 **조사 일시:** 2021년 8월 1일
- **조사 장소:**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노인복지회관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김순자
- **제보자:** #1 정복순 #2 고해생 #3 김순애

제보자 정보

- @3 삼촌 이름 어떻 댜수과?
 #3 김순애.
 @3 김순애. 몇 년생마씨?
 #3 사삼 년생인디 한나 우난에 댜 년생인고?
 @3 사삼 년생으로 댜 거. 무슨 띠.
 #3 원숭이 띠.
 @3 원래 이 동네우짜? 어디서 시집옴디가?
 #3 시집은 원래 이 동넨디.
 @3 응, 웃토산. 웃토산도 어느 동네?
 #1 원숭이 띠가 아니여.
 #3 아니지, 저 거시기 염소 띠주.
 #1 염소 띠.
 @3 염소 띠. 염소 띠 알앗수다.
 #3 양띠.

‘고장중의’

- @3 게난 이 옷은 이거 이름은 무신거 이거?
 #1 거 뉘라 고장중의.
 #3 고장중의엔 허는 거. 고장중의엔 헤나지 안헤신가.
 #1 응, 고장중의.
 @3 고장중의예. 이거 누게가 멘들아 준 거마씨?
 #1 친정어명.
 #3 친정어머니가.
 @3 친정어머니는 댜 살 차이? 삼촌 허고.
 #3 아이고 일찍 돌아가부난이 우리 첨 어머니.
 #1 아니 댜 살 차이만 알민 댜 겠.
 @3 삼촌 댜 설에 시집간? 이건 댜 설에 멘들아 준 거?
 #3 스물 허나냐, 두 개냐. 스물둘 댜 철인가?
 #1 스물 셋이주.

#3 아니 아니 셋까장 안 갖수다. 우리 큰딸이 이제 뽕띠. 오십일곱. 가이가 간 뒷해 나난.

@3 뒷해 난. 그때 육십사년 결혼. 게른 삼춘 이거는 친정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잖아예?
그때 누에 질루명 이거를 짠 거? 멩지.

#3 이거를 우리 어린 땀디 막 어려도 그 산에 올라가민은 누에 먹는 이파리가 뽕남이 막 해주게. 겨민 그거를 강 막 마다리에 담양 정왕 사름은 못 누어도 누에 올리곡 꼬치 냅젠 허민은 경 누에를 첨 몸에 오르다시피 그 누에를 그 씨지근히 그 썰 빠나민 거 저 뭐엔 허 나 뽕데기도 막 먹어나고.

@3 아. 게난 삼춘은 뽕 저기, 뽕남 해갓고 뽕썩 저기.

#3 뽕썩을 강, 농사허질 안행 산에 강 해왔주게.

@3 예, 경행 툄으레 땡견예.

#3 산에 강. 느랑 툄앙 저와, 저당 땡여.

@3 삼춘은 멩지는 안 차 보고. 누에는 질와 보고.

#3 누에만 질랐주. 멩지는 짜는 건 몰르고.

@3 짜는 건 몰르고.

#3 영헤근에 어머니 허는 거 저 심바람만 행 비질허명 썰 내민 멩지썰 내민 그거를 막 질게시리.

@3 막 놀아.

#3 막 영 메주, 메어.

@3 메어.

#3 비치락 닳은 걸로 메어근엔에 그 저 풀을 맥이명 실을 골르게 힘으로 영 찍찍허게 밀 어가명 행 감주. 짜는 거 경헤영 감아근엔에 그 클에 아저가면은 짜는 사름도 있고, 기자 이녀냥으로 짜는 사름은 하영 짜지 못허고. ○○ 어멍 산 때는 기계난에 기계로 짜는 사름은 푹푹푹푹허민 영 푹푹푹푹헤민 영영허명 재기 짜는디.

@3 삼춘 저기 마스크 벗영 허게. 경행은에 어멍헙디가?

#3 경헨 짜곡 기자 저 경 안허민 감양 혼자 혼자만 짜는 거는 이런 디 감양은엔에 흥번 영 멩지썰을 영행 미시걸로 저 들이치민 영 두드리곡 또 흥번 두드려 나민 또 영허명 기추 룩허명 짜주게.

@3 응, 게난 이거 어머니가 짠 걸로 해갓고 삼춘 시집갈 때.

#3 아니, 우리 어머니냥으로 메는 아정 가도 짜진 안 헨 거. 기계허는 딜로 아저간.

@3 아, 실만 메영은에 가져는 강.

#3 흐끔 빨리 허는 거. 사름으로 헤도 빨리 허는 거.

#2 ○○ 어멍 산 때

#3 ○○ 어멍이 하영 헛수게.

#2 그 어른 차논 멩지 우리 집이 잊저 지금.

#3 게메 그 어른이 그 영 기계 메와근엔에 흥번 푹 두드리민 토깍토깍허는디 영 흥번 행 혼자 허는 건 오래 걸려근엔에 많이 짜지를 못헤. 게난 멘만 아저간 거. 짜게시리.

@3 실만 메영예. 실만 메어근에 이제 헨 건디. 이 고장중의는 용도가 뭐우파? 이 고장중의 소꿉에는 아무것도 안 입어?

#1 소중의엔 현 거 이서.

@3 소중의 입언.

#3 잇주게 이신디 그걸 소중의도 다 이런 단추 메어근에 단추 클르민 떼지주 흔착이. 그 추룩헌 거를 입어근에 헛주게.

@3 이거 입고예. 거난 이거 오줌싸게 현 거 보난 이제.

#3 오줌 싸곡 퐁 싸곡.

@3 옷 안 벗게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멍지로 한 거라예. 이 고장중의는 멍지로 하고 허리는 옥영목으로 행은에 허리 해신게예. 혹시 이 고장중의 멘들젠 허면 멍지가 어느 정도 들엇젠 허는 말을 들어봅디가?

#3 그거는 뭐 알아지크라. 얼마 든텐 험니까?

@3 고장중의 허젠 허민. 물론 걸랑 게문 내불고. 게문 이거는 고장중의. 삼춘 저승옷으로 어머니가 시집올 때 만들어준 거.

#3 만들어 준 거.

@3 그다음에 요거는.

#3 그거는 이거 우이 입는 거.

@3 고장중의 우에 입는.

#3 입어근에 올로 그 벗질 아녀고 이거를 끈을 다 클르지 아녀고 일로 영 견어근에 또 이걸 하하하.

#1 영둥이 나오게.

#3 영둥이 나오게시리 해근에 일로 다 너르지 안행 이걸 경헨 널브게 영헌 고장중의.

@3 예, 계난 이 굴중의를 이거 굴예. 바짓굴 아니우파양.

#3 응.

@3 이 굴중의 다리 흔착으로 베르쌍.

#3 기자 영 베르쌍근에 이거를 영.

@3 그냥 내왕은에, 고장중의 내왕은에 오줌 싸고.

#3 오줌 싸곡 허는 거.

@3 거난 고장중의는 허지만은 일헐 때 일헐 때는 이거만 입어근에 아까 독다림 해갖고.

#3 아, 그거는.

#1 일헐 땀 이거 안 입어.

#3 이거 일헐 때는 입질 안헌디 그 어른은 옛날 할망이라나신디.

#1 어디 저 고렘갈 때나 잔칫집이 갈 때나 이런 때나 입곡.

#3 그 일허게 뉘난에 그 어른도 오래 산 어른이주마는 이건 완전 옛날 식인디 그 할망이 일을 허게 뉘난 감을 들여갖고 그.

@3 굴중이에?

#3 그 굴중이에 감 들여갖고 이디 영헨 다림 천에 헨 텅기는 걸 우리 어린 때 봐낫주게.

@3 예, 예.

#3 겨난 이런 거를 그 막 옛날에나 헛주 이런 거 경 입는 거는 우린 경 막 안 봐신디 그 할망 허나.

@3 그렇지. 예, 삼촌네는 그렇지. 젊은 축에 속허난예. 쟁 이렇게 해서 굴중의. 굴중의 해갖고 허는디 굴중의는 이거 옥영목으로.

#3 옥영목.

@3 옥영목으로 이제 해고. 무사 밖에 갈 때 이런 이 굴중의 우에 치마 입영 나가고 영 허지 안헐수과? 어른덜.

#1 경헐주게.

#3 경헐주게. 해신테주게.

@3 속바지치룩예.

#3 경헐 게 아니고 경헐주게.

@3 여기는 이렇게 주름 맞정은에 만든덴 허드라예, 요렇게.

#3 널르지 안허게 허리에 맞게 허젠 허민 그추룩 현 생이라.

@3 허리가 잘도 널른 게. 다른 거 이거 허릿곰.

#3 다 크게 만들안.

@3 다

#3 응. 다 커, 입으민.

@3 옷을 거난 삼촌 저기보단 크게 만들앗구나.

#3 아니우다. 만딱 커, 커.

@3 옷을 크게. 돌아가실 때 만약에.

#1 우터레 안 입영 이디 즈른 즈등에 입을 거난.

@3 여기는 고장중의 위에 굴중의를 입고 그다음에 아까 적삼. 저기 속바지는 엇수과?

#3 속바지는.

#1 속바지는 엇인게.

@3 엇고.

#3 속바지가 저 무시걸로 베로 현 거 이신디 그거는 그거꺄장은 안 해난 생이라.

@3 이거 어머니가 해준 거는 이거예.

#3 응, 이거.

혼적삼

@3 이거고, 이거는 무시거?

#1 혼적삼.

#3 혼적삼. 죽으민 혼 불르는 거.

@3 계난 그 시집갈 때 이렇게 혼적삼을 여기서 해줍니까?

#3 아니, 옛날엔 해나신고라.

#1 허는 사름도 잇고 안 허는 사름은 안허고.

#3 옛날 올케 옛날 식은 이거 그 도 가문으로 강 잘 허노렌 허영 우리 어무니도 그 우리 본래 할으부지 옛날 때 흐쌀 침 간덴 허는 집이라난 생이라. 겨난 그거 따란에 이거를 죽 영 갈 때 입으렌 영 해준 거주. 이추룩 행.

#2 경헌디 이 소꿉에 입는 적삼을 한숨 돌아근앵에 멘들앙 이추룩.

#3 한숨, 혼숨인가 무시거 들앙.
 #2 한숨 드는 적삼이 이서.
 #1 한숨 드는 거 이거.
 @3 응.
 #1 저거 한숨 드는 거.
 @3 한숨 드는 거.
 #1 한숨이엔 현 게 요디서 요만인 현 지러기가.
 #2 이건 혼적삼이고. 손 베리지 못허게.
 #3 아니 무시거산디 손 바리지 못허게 더꺼지는 건가 뭐 깎는 거 풀도메 ㄹ치 이실 거라.
 켜디 나 이것만 대중 아전 완에.
 @3 예, 거난 나중에 한번 베려봅서. 게난 어쨌든 이거는 혼적삼용으로 헤갓고 그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 앞에 그 차룽에 영 놓는 그거 아니라예.
 #1 응, 혼 불러다냥 그거 차룽에 놓는 거.
 @3 응, 놓는 거예. 혼적삼예. 게난 이것도 옥영목이네. 깨끗헌 거 보니까.
 #2 이거 입는 건 아니. 입지는 거 아니.
 #3 겨난 옛날 것광 차이가.
 @3 야 이거. 잘도 좋다 천. 이거는.
 #1 옥영목, 옥광목.
 @3 이건 옥광목이우파, 옥영목이우파? 삼춘.
 #1 옥광목.
 @3 게니까 옥광목 같애.
 #1 옥영목은 흐쉴 얹아.
 @3 예. 옥광목이라 이거 반짝반짝. 멩지 같애.
 #1 응, 저 옥영목, 옥광목 허민 옥광목은 흐쉴 두텁고 술이 이서. 옥영목은 알팍허고.
 @3 허영만 허고.
 #3 이 멩지도 봅서게. 이거 어디 요즘 멩지.
 @3 게난 이거 옥광목 반짝반짝 옥광목이라. 옥영목 아니고예. 옥광목, 이것도 옥광목.
 #1 이것도 옥광목. 옥영목은 알팍허고 헤영만.
 #3 요거, 요거.
 #1 이것가 옥영목일 거여, 안 논 거.

저고리

@3 자 그다음에 이거는 멩지 저고리.
 #1 멩지 저고리.
 @3 멩지 저고리. 이것도 이제 저승웃으로 만들어 준 거고.
 #3 저승웃으로.
 @3 그다음에 아까 멩지 치메. 이거 멩지 치메. 이렇게 행은예예.
 #1 거 혼불.

@3 요것도 옥광목으로 해갖고 허리 저기를 만들어 준 거고.

#1 그거에 그거 혼블인게.

@3 아까 한삼은.

#1 한삼은 저 옥영목으로도 허곡

@3 손 막는 거.

#3 아무걸로도 손. 요디 입는 거 아니꽈?

#1 어게.

#3 계난 어느 것가 쫄르지 안허께.

@3 길어.

#3 길어. 길어.

#1 겨난 충분허게 멘들아신게. 키가 다 큰 때 멘들아신게.

장옷

@3 삼춘 이거는 이름 뭐?

#3 다 입어나근엿에 입는 거.

@3 이건 이름 뭐렌 헷디가?

#3 이거는 장옷.

@3 장옷예. 장옷은 옛날에 이렇게 꼭 이렇게 논 건 뭐렌 헤? 이추룩 색깔.

#1 꾀동, 꾀동.

@3 꾀동, 꾀동허고 여기는?

#1 짓도 꾀동.

#3 다 꾀동 논 거주.

@3 뭐 섭 저기 꾀동 식으로 이렇게예, 자주색허고 이렇게 놓는 이유는 무산고? 색깔?

#1 거 아멩헤도 저승옷으로 잘 알아지게 헤실 테주.

#3 계난 이유가 몰라.

#1 노민 이쁘주게. 이쁘게 허렌 경.

@3 이쁘게 허렌예.

#1 이쁘게 보이렌 경 현 거 아니?

@3 무사 새각시털도 옛날 결혼헿 때 해주면 저고리 색깔허고 주황색 치마에 이런 색 저 고리 헤근에 입히지 안헿니까?

#1 계난 이쁘게 허젠 경털 헤실 테주게 할망털이, 잘헤춤으로.

@3 잘헤주느라고. 예 알앗수다. 삼춘 이런 거 일름들은 이거 뭐렌 헤 이 동네선.

#1, 3 곶, 곶.

@3 곶. 여기는?

#1 안앞섭, 밧앞섭.

@3 이건 안앞섭.

#1 아니 저거 안네 간 게 안앞섭.

@3 이건 밧앞섭. 이거는 안 앞섭.

#1 응.
 @3 섭이라예? 요기는?
 #1 그거는 저 미시거니 동전.
 #3 동전 논 거.
 #1 그 파란 거.
 @3 이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전.
 #1 파란색은 동전.
 #3 동전. 건 짓.
 #1 그거는 짓바, 짓.
 @3 짓. 올로 요까지 짓 헤신게예. 그다음에 여기 잇잖으파 여기. 영혼이 들어가는 데.
 #1 짓바데.
 @3 짓바데예. 요기에 영혼이 들어간덴 허는 거 아니.
 #1 응.
 @3 그다음에 여기는?
 #3 숨이주.
 @3 이진 뒀렌 헤?
 #1 옷스미.
 @3 옷스미.
 #3 창옷숨. 스미.
 @3 창옷, 창옷숨 험니까?
 #1 옷스미.
 @3 옷스민데. 이 여기는 이름 뒀렌 헤? 여기 이렇게.
 #1 배알.
 @3 배알. 여기는 배알예. 그다음에 이 밋테는 뒀렌 헤?
 #1 아래 동전.
 @3 아니. 단.
 #1 아래 단.
 @3 이진 단.
 #1 아랫단.
 @3 여기는 배알.
 #1 응, 배알.
 @3 그다음에 이 옆에 여기는 뒀렌 헤? 여기허믄 이렇게 뒀지 안험니까? 요기.
 #1 계난 저 뒀니?
 @3 진동.
 #1 진동.
 #3 진동.
 @3 진동예, 그다음에 진동 말고 옷 이렇게 하면 이 부분 잇지 않으파? 이거, 여기.
 #1 도련.

@3 도련은 여기고. 이게 도련, 이몸을, 이몸 이런 말 안합니까?

#1 이몸.

@3 이몸 험디게예. 이몸.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몸 이렇게 허는 거예. 여기를 동전으로 다 천으로 헤신게. 우리 다른 때는 동전 다는데예.

#1 짓도 ㄴ쁜 거, 동전도 ㄴ쁜 거.

@3 아까 이게 밧앞섭, 안앞섭, 짓, 동전.

#1 짓, 동전.

@3 이거는?

#1 별ㄴ작 저.

@3 별ㄴ작.

#3 별ㄴ작 단추.

@3 별ㄴ작, 곱, 별ㄴ작 요거를 뭐렌 헤?

#1 코걸이 아니?

#3 코, 콧걸이.

@3 콧걸이. 콧걸이에 요렇게 헤갓고 콧걸이 험 때 요렇게 놓는 걸 뭐렌 험니까?

#1 건 몰라.

@3 바데.

#1 바데엔 곶아신가? 몰라.

@3 바데 이런 말 안 들언?

#1 아니.

@3 그다음에

@1 잠깐 요게 요게 짓바데. 요기는. 요거는?

#1 저쟁이알.

#3 저쟁이알.

@1 저쟁이알.

@3 저쟁이알. 그니까 이 저쟁이알하고 요 저기 짓하고 여기 다 바데를 논 거라예?

#1 응.

@3 저쟁이알에도 바데를 낫구나예.

#1 그 오그라지지 말렌.

@3 오그라지지 말렌예. 요렇게 이제.

#1 옷이 뿐이 좋으라고 논 거.

바지

@3 그다음에 아래옷에도 보면 이게 바지라고 생각행예 그러면 여기 이 아래 요렇게 따로 놓지 안험수과? 이거. 이걸 뭐렌 헤?

#1 새, 새 무시거니.

#3 짓ㄴ라 저.

#1 아니, 아니 저 뭐냐.

@3 처지 이런 말은 안 헛수과?
 #1 아니, 셋.
 @1 셋복?
 #1 뭘엔 헛저마는.
 @3 셋복은 바지 저기고.
 #1 셋복. 처대.
 @1 처대.
 #1 처지.
 @3 처지.
 #1 처지 하여튼 그거주. 따로 이름 이서.
 @3 셋복 진셋복 남자털 거 그런 거 얘기를 허는 거고. 그다음 바데 놓는 데가 여기도 이거 두겹으로 허는 거 아니라예. 이렇게 아래 처지 허는 덴예. 설문대 할망이 요거 헐 거 엇영은에 저기 헛덴 허는디.
 #1 응, 응.
 @3 그다음 이렇게 논 것들은 뭘렌 헛니까?
 #1 주름, 주름.
 @3 주름 맞진 거.
 #1, 3 주름 맞진 거.
 @3 응. 주름 맞진 거예.
 #1 그거 허리에 맞게 허젠 허난 거 줄임으로 경현 거여.
 @3 응, 줄임으로예. 그다음에 이 부분.
 #1 뽀도 좋고.
 @3 삼춘 이 부분은 허리.
 #1 허리.
 @3 응, 이거는?
 #1 곱.
 #3 곱, 허릿곱.
 @3 허릿곱, 허릿곱 헤갓고 이렇게 하는 거예.
 #1 옛날에 헤난 거 다 잊어빚저.
 @3 그다음에 삼춘. 요렇게 허면 지금 이 부분은 뭘렌 헤?
 #3 단이주.
 @3 단예.
 #3 알단.
 @3 그다음에 이렇게 옷허고 옷허고 연결하면 이렇게 뉘잖아. 이거 뭘렌 헤? 이렇게 이거 준 거.
 #1 상실밥. 상실밥 아닌가?
 @3 상실밥은.
 #3 상실밥 뉘주게.

#1 상실밥이주.
 @3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간 게 상실밥이렌 험니까? 이것 ㄹ라? 이렇게 시접헌 거.
 #1 상실밥 아니, 이거. 베끼디영 ㄹ튼 거주.
 @3 이거.
 #1 이거 영 주어남에 이디 뉘싸난 영 헌 거난에 이거 양쪽드레 뉘싼에 다린 거난 윤디로 다린 거라.
 @3 응, 윤디로 다린 거. 이런 것 ㄹ라 상실밥이렌 험니까?
 #1 응. 우리 이디선 경 곺아나신디.
 @3 아, 이거 두 개 쉼은에 딱 벌린 거예.
 #1 이 상실밥 맞지.
 @3 이렇게 헌 거예.
 #1 응.
 @3 아 게믄 이 안에 이 천 이거를 상실밥이렌 헤? 이렇게 헌 거를?
 #1 응, 어디 오그라진 디가 없잖아.
 @3 예, 예. 응, 게믄 이렇게 준 게
 #1 꼬짜허텐 헨 상실밥.
 @3 이게 상실밥 아니?
 #1 꼬짜헌 것가 상실밥이라.
 @3 이게 상실밥이지.
 #1 그게 ㄹ튼 거.
 @1 그니까 이거 이 천.
 #1 그 천 ㄹ튼 거.
 #3 천은 ㄹ튼 천이난. ㄹ튼 천인디 주언에 안트레 모아지카 부텐 영 양쪽에.
 #1 양쪽더레 갈라난 다린 거. 보기 좋게 힘으로.
 #3 멘짜허게 힘으로 다린 거주게.
 @3 이 옆에 헌 거를 상실밥이렌 허는 거구나.
 #1 응.
 @3 알았수다. 또 물어볼 거?
 @1 요기, 요기. 이 장옷에 요디 양쪽에 요거 이수게. 요거. 뉘렌 곺읍니까? 요긴.
 #3 부짚 거.
 @1 응.
 @3 이거 폭 멧 개 영 부짚잖아예?
 @1 아니 이 폭 말고 옆에 삼각형 뉘 거.
 #3 저쟁이알로 부짚 거.
 #1 셋북.
 @3 아 요거, 요거. 삼각형 뉘 거.
 @1 예, 삼각형 뉘 거.
 #1 셋북.

@3 셋복.
 @1 뭐 무, 미 영허는 말 헨게마는.
 #1 셋복. 여기엔 셋복이엔 허는디.
 @1 셋복이엔 곱읍니까?
 @3 셋복은 바지에도 작은 거는 셋복이고 큰 거는 뭐렌 헤?
 #3 상복.
 @3 큰 거는 상복.
 #1 응, 상복. 경혜여. 오그라지지 안혜영 이 저 미시런허게시리 미신 식으로 뉘 건 하이
 든 그걸로 우린 곱아나신디 다른 디는 몰라. 다른 지역은.
 @3 여기는 이제 셋복, 상복. 아니면 큰셋복, 작은셋복.
 #3 경 뉘 거주게.
 @3 경 얘기도 하잖아예? 다른 디 뭐렌 헤?
 @1 미. 무, 표준어는 무인데.
 #1 셋복이엔도 허곡.
 @3 미렌 현 말은 안 들어판?
 #1 아니 미렌 현 말도 들어보긴 들어봐신디.
 @1 두루마기에도 이신디.
 #1 경헌디 셋복이엔만 이디선 잘해.
 @1 아, 이디선 셋복이엔만예.
 @3 셋복, 알앗수다.
 @1 안에 고름 이거.
 #3 안네 곱은.
 #1 이런 거 곱는 것도 다 이녁 고단만씩 곱는 거.
 @3 맞수다.
 @1 맞아마씨.
 #3 이거 저 별겨지지, 무시거 허지 말렌 안에 저.
 @1 거난 이건 무신거엔 무신 곱름이엔 곱읍니까?
 #3 안넛곱.
 #1 젓곱, 젓곱.
 @1 젓곱. 젓곱. 응.
 #1 안네 젓곱.
 @3 젓곱. 이 밖에 거는 그냥.
 #1 그냥 곱름.
 @3 이건 곱름예 이건 젓곱.
 #1 안네 들어가는 건 다 젓곱.
 @1 응.
 @3 이 저기 깃을 짓 헛잖아예. 짓혜면 이 안에 거는 뭐렌 헤?
 #1 안깃, 밧깃.

@3 안짓 밧짓. 거의 나온 거 같은데. 여기는 젓바데를 이거엔 안 험저예?
 #1 젓바데 그디 놔실 건디. 안 놔신가?
 @3 안 놔수다. 이거 접이니까 안 논 거 닐아.
 @1 적삼에만. 적삼에만.
 #1 낡 허는 사름은 꼭 놔.
 @3 흘으로만 뉘 거예.
 #1 이 저 이 뒤에도 바데 놓는 사름 안 놓는 사름 허주.
 #3 바데 놓는 거 잇곡 안 논 거 잇고.
 @3 안 논 거 잇고예.
 #1 짓바데, 안바데 헤여근에 놓는 사름 안 놓는 사름.
 @3 예, 여기도 이제 안쪽에.
 #1 저갱이 아랜 톱 바데 놓는 사름은 놓고.
 @3 예, 여기는 이제 들마기 이제 하고예.
 #3 두루마기.
 @3 두루마기. 이거는 장옷.
 #3 장옷.
 #1 안에 입는 건 두루막. 바꿨디 입는 건 장옷.
 @3 거난 두루막은 엇입디가?
 #3 두루막긴 엇고.
 @3 엇고. 이거 장옷으로 헤갓고예. 예 알앗수다. 거난 이거 저승옷으로 헤서 멘들앙 놔
 둔 거.
 #3 응, 저승옷으로. 이거 저승옷으로 멘들아 준 거주게.
 @1 시집을 댐 안 썩, 안 입은 거마씨?
 #3 아, 입어보진 안허연.
 @3 현대식으로. 현대식으로 결혼헨.
 @1 아.
 @3 면사포 헤근에 그땐 치마저고리 입영 멘사포 쓴 거 아니?
 #3 응.
 @3 그땐 치마저고리는 엇수과?
 #3 그것가 멩지 입긴 입엇어. 멩지 치마는. 소꿉에는 그 옛날 민나이롱. 민나이롱 멘짜헌
 그 헤영헌 그걸 거라.
 @3 거 입어난 저고리는 엇어? 집에.
 #3 그 문딱 케와빋주.
 @3 거난 입은 거는 멩지도 입어난 거는 다 케와볼고.
 #3 아니. 멩지 입어난 거는 썩진 안헤주마는 이불 같은 것만 멩지로 옛날엔 우리는 시집
 갈 때 멩지 이불을 많이 헛주게. 이녁냥으로 저 누예를 질루니까. 멩지 이불을 그땐 두 채
 허고 요가 세 개, 멩지로만.
 @3 멩지로만.

#1 멩지로 허영 깰레이블도 허고.
#3 그때 경해도 깰레이블도 저 미승칩 오늘 돌아가신.
#1 오늘 죽은 할망.
#3 그 하르방 잘도 그것가 놔뒤사 진짜 진품인디.
#1 나 요자기깁장 놔뒀단 태와불언.
#3 그거 양 진짜 곱게시리 노변에 올케 무시거 노명 헨.
#1 이불너비 만이, 이불너비만이 헨.
#3 그때덜 마 그냥 누워근에 감앙 좋곡 모지렌 거 엇이 무신 뭇 이불이 경 하영 나온 때
라. 우리 하르방 기자 막 기자 여름에 뱅뱅뱅 감안 뉘 허단 보난 것도양 그차지는 겁디다
게. 소곶에 이런 광목 담앙.
@3 광목 담앙은에.
#3 광목 담앙 멩지 고비 두 고비 정 멩지로만 두 고비 정 막 지깅 노빈 거라.
@3 응, 깰레이블예.
#3 깰레이블로. 파릇헌 거 막 무늬 노명 노벼낫주게.
@3 아이고게. 그거 놔뒤시민 진짜.
#3 그거는 완전 나 올큰허영 진짜 아니 그 무시겿 허젠.
#1 깰레이블 그 곱동 요런 걸로 헤영 곱동 놓고 헨에.
#3 곱동 놔근앵에 막.
@3 분홍색깔 곱동 낡.
#2 옛날엔 잘헤낫저. 그런 거.
@3 계난 그거 이신 집 엇일 건가?
#2 멩지에 물들여근에 깰레 이불.
#3 그거 이신 집이 엇어. 그것도 그때 흐 디주, 하지 안헤. 흐 때 다.
#1 흐 시절이주. 그때 넘으난에. 이거 어느 때라게. 우리 친정엔 육십 년도 넘은난에.
#3 막 그거 헨디 잘헤주곡 막 미시거헨 디베끼 다 흐 사름이 엇주게. 요즘이나 마찬가지.
#1 이녁냥으로 누에 질루난 그거 헤영 갓주. 그때 흐 사름이 ○○이 어멍허고.
#3 ○○이 어멍은 그 옷 입언도 갓주게.
@3 예, 이거 삼춘이 이제 개야쿠다.
#1 요추룩 파란 물 들연에 곱동 난에 저 깰레 저고리.
#3 깰레저고리 입언 시집갓주게.
@1 깰레저고리.
#1 누비저고리엔 헤낫주.
#3 다 들어뵈주게. 겐디 이런 거 다 현 사름이 엇언게 계난.
#1 엇어, 그때 ○○이 어멍만 그때 누비저고리 헨 입언 시집갓주.
#3 아, 난 이거 계난 저 바진가, 무신거 가달 별경 싸는 거 이거 침.
@3 고장중의예.
#1 그 무시거 저 거시기 헨 끈어놓메. 이 손톱이나 발톱이나 머리카락이나.
@3 응.

#3 이제는 다 만들주게.
 #1 그런 거 허영 접진덴.
 @3 아, 옛날에는 이 혼적삼에 접진다고.
 #1 접진덴 드리몰앙.
 @3 아.
 #1 머리카락 하나라도 끼차긴앵예.
 @3 여기 담아 놓는 거예
 #1 혼으로.
 @3 혼으로. 근데 요즘은 주맹기 다 멘들아근예.
 #1 예. 요즘에는 다 만들어. 발톱 손톱 논 거 열두 개 다.
 #3 주맹기 다 만들앙. 거 놔볼민 케와비엄주게.
 @3 열두 개 다 멘들앙예. 그렇구나. 게난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뭐허지 말렌 허잖아예.
 #1 이 저 혼 불를 땀 이.
 @3 이거 다 풀어내야.
 #1 응, 다 끈어불곡 저 고망도 끈어불곡 해야 되는 거.
 @3 이거예. 게난 벌^ㅁ작이영 이.
 #3 응, 코.
 @3 코영 다 끈어예. 혼 불를 땀예
 #3 단추고망.
 @3 단추고망. 단추고망 다 벌러불고 여기로 손톱이영 이런 거 담아놓고.
 @1 아까 스미엔도 허고 습이엔도 험니까? 그냥 습.
 #1 스미.
 @1 옷습 영은 안헤?
 #3 옷습.
 @1 옷습이엔도. 미 안 부찌고 그냥 옷습.
 #1 옷습.
 @1 아, 영도 글아마씨. 옷습.
 #1 ** 경허난.
 @3 옷스미 영도 허고 옷습 영도 헤?
 #1 옷스미엔도 허고 옷습도 허곡.
 @3 옷습은 나중에 또 한 번 확인하고.
 @1 응. 다른 데도 한 번.
 @3 아까 한삼, 한삼은 손 배우지 말렌 행은예 한삼 허는 거지 았으파?
 #3 응, 손 뻗지 안허게 험으로.
 @3 예. 이거 입은 다음 이쪽에 한삼 헤갓고.
 #1 이레 부찌. 예를 들어근예 이것가 그 한삼 들 적삼이민 이레 부찌. 안으로.
 @3 안으로 행예.
 #1 안으로 톡허게시리 행 영 땡겨도 벗어지지 말렌. 이디 영.

@3 벗어지지 말렌. 부쳐부는 경우 잇더라고.

#3 부쳐부는 거 잇주게.

#1 부찌나 경 안허민 저.

@3 따로 행은에.

#1 거시기 저 뉘 바놓으로 행 호우는 거 ㄱ추룩 행 멧 바놓행 걸.

@3 걸치고.

#1 걸쳐.

@3 그렇게 하고예. 실물이 이서야 말이 하영 나올 수가 이서.

(생략)

#3 거 입영 제사허곡 해낫주게 요즘들은 후루메만 입영 험주마는 우리 이제 하르방은 계속 멧 년도 ㄱ장이나, 혼 칠십 ㄱ장은 그거 입어실 거라. 절헐 때마다 거 입언. 개노난 그거를.

@3 도복예.

#3 그 풀해근영에 옛날 할망덜은 윤디로 다리명 부찌난에 그거를 다 뜯어지난 미승으로 돌아가명 해난 츠레로만 다 박은 거라.

@3 삼춘이.

#3 돌돌 박안에. 거 멧 번사 빨아신디 몰라. 빨아근영에 기냥 무신 손을 졸바로 봐졌어. 풀그룩만 ㅎ쉴 해근영에 영 발로 블라근영에 그 무신 그 다리민가 윤디. 요즘은 침 다리미도 좋은 거 헛저. 옛날은 이상헌 다리미라 낫주게. 계난.

@3 솟 담양은에.

#1 낭푼이 닳은 거.

#3 응, 그추룩헌 거 해근영에 허멍.

#1 양제기 닳은 거.

#3 허단 거영 잇주, 하르방도. 죽영 갈 때 계난 옷 요즘은 상 허켄 해도 아덜 ㄱ라 메 옷 미신 저.

#1 아, 거난 거 족지 안허난 다행이여.

#3 막 켌, 우리 집잇 아방도 저 족어나실 건디 지금 몸 불곡 헌디 막 기자 걸탁허게시리.

@3 크게 만들엇구나.

#1 크게 만들어 줘나신게.

#3 계난 먹물이영 기자 바지에도양 바지도 멧 번사 빨아나져신디 바지엔양 먹물 잘 안지는 겁디다.

#1 먹물 잘 안 지난에게.

#3 먹물도 경 꺼뭇꺼뭇허게 잇곡 허난에 이추룩헌 거도 입영 가젠 허난 에이 강 슬아불 거. 경허멍 하하하.

@3 아, 쟁은에 그것도 나중에 찍어야크라.

#3 거 잇주 있어.

@3 다음에 올 땡랑 다음주에 올 때랑 가정웁서.

#3 아, 계민 보내주.

@3 예.

#3 먹물 원 스룻 바지썸은 먹물이 거 멧 번 빨아봐도 경 안 텡.
#1 먹물 안 저.
@3 알앗수다.

- 조사 일시: 2021년 6월 24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 제보자: #1 송인권

제보자 정보

@1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1 정인권.

@1 정인권 선생님이시고, 나이는 혹시 몇 년생이시파?

#1 저 한 나이가 왔다갔다 허는디.

@1 예, 원래 호적상의 나이는?

#1 지금 걸로 보면은 칠십삼 세로 보민 뉘마씨.

@1 아, 칠십삼 세예. 게난 무신 띠마씨?

#1 뉘 이 띠도 뉘고 저 띠도 뉘고 두 가지로 뉘부니까 지금 쓰는 것만 곶아야 뉘 거 아 니파?

@2 몇 년생이파?

@1 예, 예.

#1 사십팔 년생으로 허민 뉘 거 닳아마씨.

@1 사십팔 년생.

#1 정확한 건 아니 닳읍디다.

@1 개띠파?

#1 아납주마씨.

@1 토끼띠?

#1 쥐.

@1 아, 쥐띠.

#1 연생으로 허민 쥐띠.

@1 예. 그 우장 멘들엇덴 허는 말 들어신디 이거는 언제부터 선생님 헤낫수파? 옛날에 헤난 거 생각허민.

#1 옛날에 어렸을 때마썸.

@1 아.

#1 어렸을 때. 역은 다음에는 안 허고. 아예, 필요 잇이니까.

@1 예, 예.

#1 그때 왜 그거를 많이 만들엇냐 허면은 이 저 소 말.

@1 예.

#1 그때 말로 뉘엔 허냐 허면 돌음ㄴ쉬엔 험니다, 돌음ㄴ쉬. ㄴ쉬엔 헤, ㄴ쉬.

@1 ㄴ썸디 아까 무슨 ㄴ쉬마씨?

#1 돌음인디 돌음.
 @1 아, 돌음 짓는 거? 예, 예.
 #1 모다낚근에 허는 걸 돌음이엔 골아나십주마썸.
 @1 예, 예.
 #1 계난 그 저 지금 ㄹ추룩 날씨도 좋지 안 헛수다, 그때는 막 날씨도 비도 많이 오고 헤가지고 그 우장이 엇이면은.
 @1 음.
 #1 쫄쫄 젖어근에.
 @1 아.
 #1 그 텅가지 못 해수게.
 @1 예예.
 #1 경헛어. 건 꼭 필요한 필수품이주마씨. 경해서 걸 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어 십주.
 @1 계난 그건 누게안테 배웁디가?
 #1 뭐 하르부지덜 삼춘, 셋아부지, 족은아부지 뭐 많지 안허파게.
 @1 예.
 #1 뭐 저 배울 수, 저 헤 볼 수베끼 없는 그런 환경.
 @1 계난 아버지 할아버지가 허는 거 보멍 옆이서 보멍 ㄹ치 헛 만든 거구나예?
 #1 쥬 나중꺼지 만든 것이 우장 말고 골체엔 현 거 잇지 안허파?
 @1 예, 예. 골체.
 #1 그것이 쥬 나중까지 만들앗수다.
 @1 아.
 #1 건 웨 만들었느냐 허민 우리 토산으로 보면은 그 쟁기리, 무우말랭이.
 @1 예, 예.
 #1 요것이 쥬 나중까지 헛수다. 가시리보다는.
 @1 아, 예.
 #1 계난 그거 헛 때 걸 꼭 필요로 헛주마씨.
 @1 아.
 #1 골체가.
 @1 예. 그거 쟁기리 영 날를 때 쓰는 거파?
 #1 무우, 늬삐엔 허지 안헛니까?
 @1 예, 예.
 #1 그것도 날르고 쟁기리 썸 것도 날르고 야튼 다양헛주마씨, 다양. 일허는 데는 없어서는 안 쥬, 손으로 영 접앙 갈 순 없지 안허파?
 @1 예. 콘테나 나기 전이구나예?
 #1 아이고, 콘테난 우리가 막 큰 다음에 나고 토산이 밀감이 쥬 나중에 헛수다게.
 @1 아.
 #1 그렇게 뤼게 뤼 이유가 잇는 겁주마씨.

@1 예, 예.

#1 서귀포는 뉘는데 이쪽은 안 뉘는 것은 조금 거는 왜곡된 걸로 보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추워서 안 뉘다 이거라.

@1 아, 남원까지는 뉘는디예.

#1 그니까 어쨌든 서귀포 쪽에는 뉘는데, 뉘으니까 뉘는데 여기는 추워서 안 뉘다 해가지고 뭐 진짜 그.

@1 이젠 시에도 허는디 무신.

#1 이제는 시에가 아니고 육지꺼지 가지 안헙니까. 뭐 기온, 온도 차이 뉘는 것도 잊지 않은. 계난 그건 난 그 정도로 바깥으로 정보를 잘 몰랐다 사름덜이.

@1 예, 예. 그런 것도 잇수, 처음 시작허는 거니까예.

#1 계난 바나나 역시도 쥘 나중에 헛수다.

@1 예.

#1 하여튼 이 지역으로는 조금 안 뉘텐 허는, 그거 부정적인 많이.

@1 예.

#1 나도 그렇게 헛수다. 서귀포 아는 분이 나이 든, 나보다 몇 살 많은 분이 있어 가지고 의논을 해 봐십주마씨.

@1 예, 예.

#1 지금 시기가 좀, 좀 바나나 허는 걸로 보면 막차 타는 그 시기인데.

@1 허카말카?

#1 착수를 허야 뉘 거냐 마느냐. 아 지금 험 시기가 아니다. 아, 허야 뉘지. 지금 와보민 당연히. 허야 뉘는 걸 그 말 듣고 못 허는 거야. 계난 아 허다 보니까 나이도 들어부니까 이제 또 이쪽 애로, 저쪽 애로.

@1 맞아마씨.

#1 계난 이거 좀 덧붙여 가지고 얘기허는데, 그 말에 대해서.

@1 예.

#1 우리 조카가 육지 살다가 들어온 조카가 잇는데 한번은 와 가지고 저 아버지 제주도 왕 살젠 험수다. 계민 어떻 험 살 거냐? 그뎨 보리 같고 유채 같고 험 때라마씨.

@1 예.

#1 보리 같고 유채 같고, 저 하우스는 빠른 사름 약간 시작험 뎨데. 보리 같고 유채 같고 험 생각 가지믄 들어오지 말라.

@1 음.

#1 여기 들어오면은 저 생각대로는 못 가도 남 가는 대로는 가야 뉘다.

@1 예.

#1 그러지 안 허파?

@1 예, 맞습니다.

#1 젊은 사름 들어오멍 이제 늙 허는 대로 이제 유채 같고 보리 같고.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1 예, 예.

#1 그런 예가 있을 정도로 최근까지도 춤 어두워십주마씨.

@1 예.

#1 그렇게 해영 살았수다. 어쨌든 간에. 우장 곧단 다른 쪽으로 갔수다만은.

@1 계남마씨. 거난 선생님은 저기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션마씨?

#1 학교는 잘 못 나왔수다. 학교 못 나오고 그 저 옛날은 중앙 강의록 있어잖우파?

@1 예.

#1 그걸로 대신 헛수다. 뭐 집 형편도 안 좋았주만, 경해서.

@1 여기 뭐 중학교 초등학교 여기는 나오션마씨?

#1 예, 초등학교 나오고 표선중학교 뭐 다니단 설러볼고 계남 입장이 그 정도 뉘수다게.

@1 예, 예.

#1 그거 이해 뉘 건가 몰라양.

@1 이해허주마씨.

#1 아니, 초등학교 다니명 밧 같고 출 비곡 헛 걸 이해 뉘니까?

@1 당연히 이해뉘주마씨. 경헛주마씨, 옛날에는.

#1 하하하.

@1 저희 때야 안 헛주만은 저희 아버지 세대덜이야 다 경헛주마씨.

@2 유채 비레 다녀났수다. 보리 방학도 헤났고.

#1 어디 와납디가?

@2 구좌우다.

#1 아, 계남 어디 와납디가, 비레?

@2 아니, 동네에서.

#1 동네에서.

@1 집이서.

#1 아, 그땐 어디파, 황새왓.

@1 예.

#1 그쪽 분들 여기 생기리 허레 많이 왓수다, 진짜.

@1 음.

#1 거의 다, 생기리 때 뉘든 거의 다 완에.

@1 예.

#1 집에 며정 살명.

띠 장만

@1 예, 예. 다시 우장 얘기로 돌아가서 우장은 허젠 허민 우선 새부터 허레 가야 뉘 거 아니파예?

#1 물론 그럽주.

@1 예. 새 허레 가난 말 흐끔 곶아줍서. 어떻 강 헛 와신지?

#1 아, 그 새.

@1 어떤 게 좋은 건지.

#1 새는예.
 @1 예.
 #1 집 일기 존 게 존 건디, 집 이는 게 목적이니까.
 @1 예.
 #1 계난 너미 여깃말로 허민 걸러진, 미양.
 @1 쓰러진.
 #1 너미 긴 거 그런 건 저 걸러진덴, 자빠진덴 허는 걸 걸러진덴 허지 안헙니까. 경허믄
 썩어양, 썩어.
 @1 아.
 #1 겨난 적당이, 예를 들어 한 일 메다 정도 뉘 것이 쥬 알맞은 건디 새가.
 @1 아, 일 메다 정도만 뉘민 뉘는 것파?
 #1 예. 것이 쥬 알맞은 거라마씨.
 @1 아, 아.
 #1 썩도 잇고 남뎡이도 조금 잇곡.
 @1 예.
 #1 계난 그 막 긴 거는 일 메다 이상 뉘 가면은 남뎡이만 더 많고 썩은 흐뎡 약헤마씨,
 약헤. 기니까.
 @1 음.
 #1 또 이 저 썩른 거 잇지 안 허파? 썩른 거.
 @1 예.
 #1 이보다 흐썰 긴 거 흐 반 메다양, 그 정도 뉘 거는 저 각단이엔 헙주, 각단. 각단은
 그 용도가 잇어마썩.
 @1 예.
 #1 이견 뭐이냐 줄 놓는 거.
 @1 음.
 #1 긴 새로 줄 노면은 이 저 좋을 거 닻아도 약헤마씨 약헤. 남뎡이만 들어가 부니까.
 @1 아.
 #1 이거 이파리가 들어가야 질긴 건디.
 @1 예.
 #1 그래서 저 각단은 줄 놓는 용.
 @1 예.
 #1 약간 일 메다 정도 뉘 거는 집 이는 용.
 @1 음.
 #1 그 나머지 것은 밀감으로 허민 파찌고. 하하하.
 @1 하하하, 예.
 #1 그렇게 헛수다.

띠 베기

@1 계민 그 새 강 어떻 비영 왓수파?

#1 그것도예 그 수놓음 잊지 안허파, 수놓음.

@1 예.

#1 어느 집은 메칠날, 어느 집은 메칠날 해 가지고 서로 수놓지 안허면은 저 막 일거리가 만합니다, 저저. 새 비는 것도.

@1 무신, 뭐 호미를 가져 갑니까?

#1 호미로.

@1 낫?

#1 호미 그냥.

@1 즘호미로?

#1 예, 즘호미로.

@1 아.

#1 게서 그 비어가는 냥 요거를 무꺼 불지 안허면은.

@1 예.

#1 브름 포딱허민 문딱 서꺼 불어.

@1 아, 들리지 안행 그냥 바로 무릅니까?

#1 아니 새가 익었지 안허우파, 야튼?

@1 아, 익었으니까.

#1 젖은 거, 털 익은 거면은 몰라야, 몰랑 혈 정도면은 거 쓰지 못헤마씨. 약헤 가지고. 계니까 그 익을 때꺼지 놔뒀당.

@1 예.

#1 늦당 보민 눈도 맞곡 험니다계.

@1 음.

#1 계난 눈 경 맞게 안 허고 경허영 그 사이에 ㄱ리를 잘 봐근에 야튼.

@2 비는 시기가 겨울 접어들어사, 초겨울 늦가을.

#1 계난 가을 중으로 보민 뽕주마썸, 가을 중.

@2 예, 예.

@1 추수 다 헤뒤근에?

#1 예, 예.

@1 곡식 다 장만헤 뒤근에?

#1 예, 쪼금 한가한 시기로 봐야 뽕주.

@1 예, 예. 켜 사람덜 헤근에 ㄱ치.

#1 쟁헤여근에 거 뭐 각단은 각단대로 비고.

@1 예.

#1 집 일 새는 집 일 새대로 비곡 따로따로 헤근에 뭐 건 그 사름네 집이 와근에 필요헌 거니까. 그 사름네 집이 왕 놀궂장 다 놀어지면은 끝나는 겁주마씨. 켜 탄 사름네 집이 가고.

@1 이거 무끄젠 허민 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 묶는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파?

#1 묶는 건 새로 합니다, 새로. 그 새로.
 @1 예, 각단으로.
 #1 아니, 아니.
 @1 그 새로.
 #1 그 새로 허여근에 그.
 @1 그냥 새와마씨.
 #1 기술적으로 이걸 꼽니다. 줄 2추록 꼬우는데.
 @1 예.
 #1 줄은 두 개로 하지 안합니까?
 @1 예.
 #1 요 무끄는 것은 하나로 협주마씨.
 @1 음.
 #1 요렇게 꼬와 가지고. 이거 현품이 이시민 뉘는데 요거 새라고 해 가지고.
 @1 종이라도 흐끔.
 #1 요걸 새라고 해 가지고.
 @1 예.
 #1 요렇게 마주 놔근에 데와마씨.
 @1 예, 예.
 #1 데왕 삭삭삭 허면 이거 베가 뉘는 거라.
 @1 이거 뭐 기구가 있어야 뉘니까?
 #1 아니, 손으로 그냥.
 @1 손으로예. 몇 개나 영 잡앙 협니까?
 #1 아니 계난 그 사름이 기술자가 뉘는 거 아니파, 일단양?
 @1 예.
 #1 짐작 삼아 이렇게 허면은 요 정도 뉘 거우다. 그거 새로 보면. 요걸 영 데와근에, 우 리말로 데왕.
 @1 데왕예.
 #1 영 데왕 허면은 요거 단이면, 안 뉘겠다.
 @2 예, 요거 단이우다.
 #1 단이면은 요렇게.
 @2 무꺼.
 #1 짹 허게 돌려 놔.
 @1 예.
 @2 알아지쿠다.
 #1 경허면은 요쪽에 것이 이레 올라오고 요쪽에 것이 요레 올라올 거 아니파?
 @1 예.
 #1 계민 이거 마주 이제 요렇게 영 데와근에 영 찢르는 거라.
 @1 아. 따로 께를 마련하지 않고예?

#1 예게.
 @2 계난 출 무끄는 거랑 ㄱ튼 거라예?
 #1 거의 비슷한 거우다. 그거는 요렇게 저, 출은 요렇게 해 가지고 내와 가는 거고 요거는 저 영 들러근에 두 개 영 마주치민 뉘는 거니까. 비슷하긴 헌디 쪼금 다르주마씨.
 @2 거 지계렌 곶읍니까?
 #1 예?
 @2 자기 계로 무꾼덴 행 지계렌 그런 말은 안 허고?
 #1 지계 무시거 얘기는 별도로 안 해낫수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헨에 허는 겁주마씨 작업을.
 @1 예, 예.
 #1 경헛수다.
 @1 계난 각단은 따로 헛니까, 아니민?
 #1 같이, 같이.
 @1 그 밭에 긴 것도 잇고 작은 것도 잇어마씨?
 #1 계난 그 수확헛 때만 각단 ㄱ로 무끄고 새 ㄱ로 무끄고 요렇게.
 @1 예.
 #1 같이 해근에 와야 ㄱ치 놔뒗당 작업을 헛 거니까.
 @1 계난 밭을 새를 키우는 밭을 따로 해근에 헛수과?
 #1 예게.
 @1 일부러 영?
 #1 예게. 그때는 출 빌 밭허고 새밭허고 다릅주마씨.
 @1 예, 예.
 #1 계난 이 출 비는 밭은 쪼금 안 좋은 밭에 뉘는디 새왓은 쪼금 땅 든밭이라 뉘여.
 @1 아.
 #1 출 나는 밭은 새 안 낱니다. 출왓.
 @1 아.
 #1 기러기가 길어야 되니까.
 @2 새왓이 좋은 밭이구나.
 #1 예, 좋은 밭마씨. 그 물도 쪼م 앓고. 새왓이 완전 좋은 밭. 계난 출밭허고 ㄱ찌 낱 앓 길 헛 수 엇수다.
 @1 계민 이거는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1 예, 자연적으로
 @1 자연적으로 나는 거 아니파예?
 #1 예.
 @1 계문 그 새 나난 ㄱ 계속 새 나고 출 나난 밭은 계속 출만 나고. 씨 안 뿌리고 따로 그냥? 어떻헛 그계 거기서 자라기 시작헛신지.
 #1 계난 그 보면은예.
 @1 예.

#1 조금 그것도 힘이 있는 땅이라야 조금씩, 조금씩 뭉 흑도 모여다 놓고 요런 식으로 뒀던 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겁주.

@2 계난 새 자꾸 비어난 밭이 새가 막 안 자라면 각단 뒀다는 말도 들어나신디 그런 건 아니짜?

#1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2 계난 죽장 새털이 경 잘 나마씨?

#1 예, 예. 잘 나십주.

@1 땃 년 이런 거, 해결이도 엇고?

#1 아니 그런 거 엇고 계속 잘 나니까.

@1 아.

#1 계난 좋은 밭이냐 조금 안 좋은 밭이냐 허는 것은 그 짐작해 보민 다 아는 거고.

@1 계민 이디 집 짓젠 허면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밭 말고 새왓은 허나씩은 다 잇어났수짜?

#1 거의 다 잇었다고 봐야 험주마씨.

@1 아.

#1 거의 다. 겐디 좋은 밭 잇느냐, 조금 나쁜 밭 잇느냐에 차이는, 거 뭉 지금도 똑같은 거고.

@1 네, 네.

#1 밀감 맛 좋은 밭, 맛 굿는 밭 이런 식으로 그축 험니다.

@1 새만 이신 거 아니고 새 옆에 다른 겐질도?

#1 많이 이십주마씨게.

@1 계난 무신 잡풀덜이 하영?

#1 어웁.

@1 아.

#1 어웁이.

@1 골라내야 뒀니까?

#1 당연히 골라내압주. 계난 어웁은 내뵈니다, 내벼. 내뵈다근에 필요허민 강 비어당 허는 거고 거 쓸모에 따라. 계난 어웁은 지금 ㄱ트면 그때 당시는 그냥 내뵈는다.

@1 으.

#1 지금 ㄱ트면 그 어웁 뿌리 잇지 안허짜, 이걸 파 불면은 더 좋앗을 텐데 이거를 못헌 거라.

@1 아. 안 자라고예.

#1 그냥 자연스럽게 잇는 대로 내뵈고. 그렇게 봐압주마씨.

@1 계민 아까 말씀하신 그 한 십일월쯤 뒀서, 양력 십일월쯤 뒀 가지고?

#1 아, 양력 십일월 넘을 거 같애.

@1 아, 양력 십이월쯤?

#1 이제 저 음력으로 동짓덜.

@1 아, 십이월 정도, 양력으론 흔 십이월 정도 뒀예?

#1 예, 좀 왓다갓다 기간 허지 안험니까?

@1 예, 예. 그즘 똤 가지고 새 비레 가게 해근에 오늘은 느네 밧디 글라 영 해근에예?
 #1 계난 미리 다 약속을 험주게.
 @1 예. 경헝 갈 때는 계민 줌호미만 하나만 들렁 가진 안헝 거 아니짜, 똤 들렁 갑니까?
 #1 이거예, 참 우리는 시작헝 것이 언제냐 허면은.
 @1 음.
 #1 그 쉼 질메 잇지 안 허짜, 쉼질메.
 @1 예.
 #1 마차 나오기 전에.
 @1 예.
 #1 마차 그때 없진 안헝수다게 잇긴 잇엇는데.
 @1 예.
 #1 조금 준비 잘 똤 집에는 잇엇고 그렇지 않은 집인 집집마다 엇엇기 때문에 그 저 쉼 등어리에 지는 것에 지어 올 정도면 쟁장히 오래지 안허짜?
 @1 예.
 #1 그루후제 마차 나오니까, 쉼 마차, 쉼 마차.
 @1 예, 바퀴가 쉼로 똤 거예?
 #1 쉼로 똤 거. 그걸로 허다가 바뀐 게 고무타이야로 허다가 그다음 경운기 나온다, 우리 세똤 얼마나 거쳤수짜?
 @1 계난예. 쉼질메 헝 때 말 곶아줍서. 하하하.
 #1 쉼질메 헝 때 무신거부터 곶읍니까?
 @1 무시거 가정 갈 거짜? 갈 거여, 오늘 갈 거여 허민 똤 점심도 싸고 어똤?
 #1 예, 점심은 대부분 그때 믱물범벅.
 @1 음.
 #1 쉼 간단헝 거거든. 반찬 없이 그냥 김치만 노민 똤니까.
 @1 아.
 #1 쉼 간단해근에 헝는데 어쨌든 밧에 먼 데 가는, 대부분 먼 데 갓주, 그때. 먼 데 가는 경우는 막 일찍 출려야 똤.
 @1 예, 새백이.
 #1 그때 각지불을 출려근에 밧 먹어근에 밧 바레지 못헝, 자기 밧.
 @1 예.
 #1 바레지 못허는 디 그자, 그똤 무신 도로가 그 저 돌 아니짜, 돌 도로. 돌 탕탕 차명 갓수다.
 @1 예.
 #1 계난 그 실감 안 날 거지예?
 @1 예.
 #1 우리는 거 실감 납주마씨. 다 꺾어밧기 때문에.
 @2 고무신 신영?
 #1 고무신 신은 사름은 조금 저 출린 사름이고.

@1 음.
 #1 그 저 무시거 초신 또 뭐 일허레 갈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엇주만은 나막신.
 @1 어.
 #1 일허레 갈 땐 그것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초신 같은 거 신고 조금 잘
 출린 사름은 고무신.
 @1 음.
 @2 계난 삼춘 거 초신 거 막 어릴 때 아니꽈? 삼춘 사십팔 년생이면?
 #1 막 어릴, 막 어릴 땐디도 그 우리가 그 신고 다니고 남신도 신고 다니고 별짓을 다
 헤시니까.
 @1 아니 저 칠십 댜데 구십 대처럼 말씀하시는 거 님아.
 #1 우리가 겪엇기 때문에.
 @1 계니까마씨. 아니 요즘에 칠십 대 어르신덜은 그런 거 하나토 모르시거든마썸.
 #1 계난 그 사름덜은 환경이 쁼찬헌 사름덜이고.
 @1 시에 사는 사름덜이구나게.
 #1 시에꺼지 아니고 여기 살아도.
 @1 예.
 #1 여기 살아도 부짖집 사름덜은.
 @1 못 헛구나.
 #1 안 헛주마씨. 쟈디 우리는 그런 걸 안 허면은 못 살게 뵈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엇이.
 @2 계난 삼춘도 경 초신이나 나막신 신영 밧디 다녀났어?
 #1 신은 정도가 아니고 만들기도 하고.
 @1 예.
 #1 곡췌엔 헌 거 잇지 안 허꽈, 곡췌 영 파내는 거.
 @1 파내는 거.
 #1 예, 그거 곡췌엔 허영 그걸로 다 파명 그, 그 정도만 곶으쿠다.
 @1 아니, 계난 ㅁ뵈 밧뵈 헝 싸근에.
 @2 가정 갈 거.
 @1 그거 호미 허고, 호미 말고 또 뵈.
 @2 신들도 챙겨 가고.
 @1 갈아야 뵈 거난예. 신들도 챙기고 또? 또 무시거 챙깁니까?
 #1 그 저 가면은 브딘 더레 지어다 놓젠 뵈 날라 놓민 뵈겝주만은 베, 베.
 @1 예.
 #1 베 헤사 막 먼 디, ㅁ뵈 밧디라도 먼 디는 지어 와사지 썸 곶 어려웁주마씨.
 @1 아, 췌에도 시끄주만은 사름 짐으로?
 #1 흔 밧더레, 흔 밧더레 앓다 뵈사.
 @1 모임으로.
 #1 계난 그런 경우는 썸 드문 경우주만은 그런 경우도 잇영.
 @1 베도 흔뵈 챙기고. 경헤여근에 아침 새백이 가민 처음엔 가민 어뵈 시작헛니까?

#1 아침 가민게 새, 처음 시작하는 디가 잊지 안히파게?
 @1 예.
 #1 게문 각단이 이시민 각단 비어 뒤근에 각단 비영 무꺼 됨 앓아 됨 질 내왕 새밭더레 가근에 새 비영 각단은 나중에 험주게. 비상품이니까.
 @1 예, 예.
 #1 상품을 우선해야 됨난. 그축 해근에게.
 @1 이것도 출 잘 비는 사름 잇고 못 비는 사름 이실 거 아니파?
 #1 모든 건 다 그거 아니파?
 @1 계난.
 #1 잘 비는 사름이 잇고, 똑같애마씨.
 @1 예, 예.
 #1 사름이라는게.
 @1 이것도 쫄쫄런히 영 상 ㄱ찌 영 비어 갑니까?
 #1 예, 흐 줄로, 흐 줄로 쪽 히게 이녁만씩.
 @1 검질 메는 것추룩예?
 #1 예, 검질 메는 것추룩. 계난 거기서 이 손이 빠른 사름은.
 @1 예.
 #1 진짜 잘 비어.
 @2 계난 몇 단 정도, 잘 비는 사름이? 몇 단이렌 부릅니까, 못이렌 부릅니까, 삼춘.
 #1 못이엔도 허고 몇 단이엔도 허고 요런 식으로 허는데.
 @2 예, 몇 바리.
 #1 출 비는 거 기준으로 허면은 출은 열 바리 기준 허는데, 거 반도 못 비어, 요 반도. 손으로 비기 때문에.
 @1 아, 출은 낮으로 비고.
 #1 예, 박박 걷어 부는 겁주.
 @1 예, 예.
 #1 우리 출 비는 것도 일등이랏어. 솔직히 그건 자신이 자랑허는 것 같수다만은.
 @1 아.
 #1 계난 생기리 험 때도 쁼참고 밧 갈 때도 쁼참고 농사엔 험 것은.
 @1 일 잘허섯구나예.
 #1 하여튼 뭐 못한다고 허진 안험 정도.
 @1 게문 그 가이를 비어가민, 한 사름은 비고 한 사름은 무릅니까?
 #1 한 사름 무끄지는 안 허는데 그 보멍.
 @1 으.
 #1 이거 흐 밧 비어 가민 무끄지 안허민 아까 곶앗주만은 브름 불어근에 파딱 헤 불민 문딱 서껴져 벼. 경허난 그걸 방지허기 위해서 브름 엇인 날은 흐썰 더 비고.
 @1 으.
 #1 브름 흐썰이라도 푹푹푹험 날은 비멍 바로 무끄지 안 허민. 무끄멍 바로 놓아야

뒤여. 비는 사름이랑 비어 가고 무끄는 사름은 무꺼 가고 허게시리.

@1 그럼 비는 사름 멧 사름, 무끄는 사름 멧 사름 정도 험니까?

#1 아니, 무끄는 사름은 쪼금베끼 안 험주게. 비는 사름 열 사름이민 무끄는 사름 두어 사름 해근에 이 줄도 무끄고 이 줄도 무끄고 봐 가명.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일험수다.

@1 경험 다 무끄민 이제 다 모다 놔근에 쉼 시끌 거 아니파예? 그 새는 혼 바리가 멧 못 정도 뒤마씨?

#1 출 삼십 못 그런 식으로만 알아 불민 뒤여마씨.

@1 출은 삼십 못인디 새는? 새도 비슷해마씨?

#1 비슷허긴 허는데 그제 쪼금 들쭉날쭉허는 거 같애. 뒤 열두 단이 혼 바리 허는 사름 도 있고 열다섯 단이 혼 바리 허는 사름도. 게난 그건 뒤.

@2 게난 어쨌든 출보다는 단도?

#1 예, 예 긴 거라부난. 그렇게만 이해허민 뒤 거 닳아마씨.

@1 출은 서른 못이 혼 바리에?

#1 예.

띠 가리기

@1 겐 쉼에 시꺼근에 내려오면 그다음엔 이디 놀 늣니까?

#1 예, 와근에.

@1 마당에?

#1 마당에 늣든 우연에 늣니다. 대부분 다 우연에 늣어, 우연에.

@1 우연은 뒤 따로 해근에 출놀, 곡석놀.

#1 예, 그 자리가.

@1 으라 개?

#1 우연이엔 현 게 이 지역만.

@1 우연이엔 험신게마씨.

#1 예, 우연이엔 현 거, 우연. 가까운 디 잇텐 헤가지고 그추록 얘기해근에 거 언제나 사름 저 집집마다 우연팍이 잇어나십주. 거 엇이면은 무슨 저 봄 나면은 뒤 채소 같은 것도 못 가니까 그런 거 허기 위해서 저 놀 늣엇다근에 뒤 그땐 집집마다 다 쉼 잇어짚우파?

@1 예.

#1 숫자에 따라 쪼금씩 다르주만은 그 엇이면은 안 뒤 정도로 그 해근에 허민 출놀 그 자리가 잇어야 뒤니까. 게난 꼭 잇엇수다. 그 우연팍이엔 족든 크든 쪼금 차이주.

@1 게난 새는 새끼리 영 험 놔두는 거파?

#1 험 놔두는 겍주.

@1 집, 원래 지봉 일기 위헤근에 허는 거짚아예. 지봉은 해마다 일언마씨?

#1 예, 해마다.

@1 게문 해마다 그걸 험 와야 허겟다예.

#1 해마다.

@1 지봉은 새 험 온 다음에 허니까 일월 달쭝 허는 거구나, 십일월 말이나예?

#1 하여튼 일월이나 하여튼 봄 안에.
 @1 예.
 #1 봄 안네.
 @1 음.
 #1 봄 넘어가면은 더워 가니까 덜 더울 때 현다는 그 뜻이 잇는 거라마씨.
 @1 계민 그때까지 그냥 놀멍 놔둬니까?
 #1 놀멍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주. 물 들멍 썩어볼민 못 쓰니까.
 @1 어멍 해야 관리 잘허는 것파?
 #1 계난 그거 집 잘 이는 식으로. 놀 누는 사름이 잘 놀어야 돼여.
 @1 아.
 #1 그 요렇게 돌아가멍 허는디 요걸 잘 누는 거를 거술룬덴 허는데.
 @1 거술루.
 #1 거술루다. 이거 저 뱅 허게시리 허는 거를, 천막 치민 탁 해볼민 끝나는 건데 이거는 새로만 순전히 새로만. 그 사람 자질에 달려 잇는 거니까. 잘허고 못 허는 게.
 @1 예.
 #1 계니까 그런.
 @1 놀굽 같은 것도 어멍 돌멩이라도 좇어 낡?
 #1 낡.
 @1 낡으로예.
 #1 낡가쟁이덜 대부분 헛어. 물 들지 말아야 뉘난.
 @1 예, 예. 쟈 다 쌓은 다음에 위에 무신거 더릅니까? 느람쥐?
 #1 예, 잘 출린 사람은 느람쥐도 더끄고.
 @1 으.
 #1 그렇지 앓은 사름은 그냥 그 새로 폐와근에게.
 @2 거스리는 거.
 #1 예, 거술루는 거.
 @1 거술루는 거.
 #1 계난 그 막끗데 허는 거를 거술룬덴.
 @2 예.
 @1 우에 주쟁이도 이런 거 안 더끄고마씨?
 #1 주쟁이는 대부분 그 저 곡식 놀에 더졌고.
 @1 아.
 #1 출놀에나 새놀에는 그.
 @1 필요엇구나예.
 #1 그 재료로, 그 재료로. 계난 대부분 경 썩수다.
 @1 예.
 #1 그 느람쥐 역시도 그 저 곡식놀에 대부분 썩고.
 @1 아.

#1 우리 누람쥐도 많이 잤수다.

재료 준비하기

@1 계근 이제 쉼 보레 가젠 허든 우장을 만들어 볼 거라예? 샌 다 헤영 와시난. 그든 처음에 우장 흐뎜 만들어 보게 허민 뉘부터 준비헙니까?

#1 제일 준비헤야 뉘 게 처음 게 저 노.

@1 예.

#1 노 2라 전에 좀 잘 현 사름은 치레헌덴 허지 안헙니까, 치레.

@1 예, 치레.

#1 잘허는 사름은 미, 미삐쟁이엔 얘기헙는다.

@1 예, 예.

@2 미 뵈아당.

#1 것이 쉼 질겨.

@1 아.

#1 또 비슷허게 허는 게 그 신사라.

@1 예.

#1 계난 재료가 쉼 잘 출린 사름은 요 미허고 신사라.

@1 음. 그걸로 무신 거 만드는 거마씨?

#1 노 이거, 그림으로 그리민 뉘 건가?

@1 예.

#1 요게 이렇게 허민 메라는 게 여기 동골락동골락헤.

@1 예.

#1 계난 여기 이 노가 미삐쟁이나 그.

@1 예, 신사라.

#1 신사라로 만든 건데 요기 이제는 새 잊지 안허파, 새?

@1 예.

#1 새를 그거 블름이엔 헌디 새를 이렇게 저 이파리 쪽에서 남뎡이 쪽으로 뉘 이런 거 대근에 영 허면은 그것이 싹 나가. 남뎡이가.

@1 예.

#1 계민 남뎡인 빵 데껴 불고 계난 꼬리가 양쪽 뉘는 거라. 요쪽도 처음 꼬리니까 꼬리가 남고 요건 요렇게 뼈다귀 빠부니까 꼬리가 뉘고.

@1 예.

#1 계난 이 양쪽 다 물이 반다는 거라, 요렇게 허면은. 이해가 안 뉘수파?

@2 모르쿠다.

@1 물이 반다고마씨?

#1 물이 발아야 뉘 거 아니파?

@1 네네, 비 안 들어오게.

#1 물이 발아야 뉘 거 아니파?

@1 으.

#1 계난 이진 계난 잘허는 사름 못 허는 사름도 있어. 요거 역시도. 계난 그 사람 솜씨에 따라근에 멋지게 만들고.

@1 계난 요기 메는 거, 무끄는 거마씨?

#1 계난 요기 이 현품이 이시민 뉘는데 요, 요 노를 헨에 이 만들어 논 거 잊지 안허파?

@1 예.

#1 메달아 논 거.

@1 예.

#1 여기 이젠 새 만든 거를 요렇게 꼬부려근에 매달앙 또 무껴야 뉘, 요런 식으로.

@1 예.

#1 이해가 안 뉘여?

@1 어뎡 풀 뽑아 왕. 아니 풀, 새 남뎡이 떼 불믄 영 영 갈라질 거 아니파?

#1 갈라지는데 야튼 처음 풀이 잇엇던 거 잊지 안허파?

@1 예, 처음 풀이 하나주마씨 안 갈라져 가지고예.

#1 으, 우이 잇고.

@1 예. 나중에 뼈다귀 빠 분 것이 꼬리가 또 뉘는 거 아니파?

@2 예, 예.

#1 새로 보면은?

@1 예, 예.

#1 계민 요거를 요렇게.

@1 반으로 접어?

#1 으, 접으면은 양쪽 다 물이 반다 이겁주.

@1 예, 맞습니다.

#1 두 꼬리 다. 남뎡이가 엇이니까.

@1 예, 예.

#1 계난 요거 요렇게.

@1 걸쳐마씨 거기다가?

#1 요렇게 꼬부려근에 또 무껴야 뉘. 이런 노끈으로. 계난 계속 헤가지고 허면은 이렇게 길게 뉘다는 거주.

@2 계난 미리 신사라나 미삐쟁이로 영 노는 꼬양 놔뉘야 뉘는 건게예.

#1 예, 예. 거 준비헿 놔뉘야.

@2 예, 예. 그거 먼저 헤난 다음.

#1 새.

@2 새를 속에 거 빼멍 접으멍 그거 영 영 연결시켄?

#1 예.

@1 계믄 처음에 이 아까 신사라나 미로 영 틀을 만들어 놓는 것파, 그물같이?

#1 아니.

@2 아니, 아니.

#1 신사라하고 미는.
 @2 노끈만.
 #1 노끈만 만드는 거라.
 @1 음.
 @2 계난 그거 장만하는 것도 골아 줘야 뉘예. 그거 신사라 행 오면 물령 두드리는 얘기도 있지 안허파?
 #1 예.
 @2 그것도 해 줘야 뉘.
 #1 계난 요 총괄적인 걸 가지고 ㄹ슴 준비헌텐 해, ㄹ슴 준비.
 @1 아.
 #1 재료.
 @2 맞수다.
 #1 ㄹ슴 준비헌텐 허는 건데.
 @1 으.
 #1 이 미도 빵 오면은 이걸.
 @2 들려.
 #1 으, 그냥 몰라야 뉘, 기냥. 기냥 몰르면은 이것이 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나오는다.
 @1 예, 예.
 #1 신사라는 아까 두드려근에 거.
 @2 이거 물젠 허민 그냥 못 허여.
 #1 두드려근에게 그.
 @2 물젠 허면 그냥 못 허여예?
 #1 두드려근에 깡.
 @1 깨영예?
 #1 깡텐 허는 거 알아지잖아?
 @2 예, 예.
 #1 존존허게시리 영 깡 쪼깡 나뉘다근에 허는디 영 미를 같이 서깡 허는 사름도 잇주마씨.
 @1 아, 아.
 #1 신사라허고 같이.
 @1 음.
 #1 신사라는 길고 미는 짧은 거니까. 계난 이거 반반 놔가지고 이렇게 꼬아. 쟈디 그 저미가 그 물황 놔두면은 미비쟁이엔 현 거 나와, 하얀 거.
 @1 예.
 #1 하얀 것을 뉘에 쓰느냐?
 @1 예.
 #1 불, 화싱, 화싱.
 @1 예.

#1 불, 그, 그, 그때는 하여튼 발에 갈 때 그 불이 엇영은 안 돼.
 @2 삼촌 뭐렌 골앗수파, 화싱, 화승?
 #1 화승. 계난 그런 식으로 다용도로 썼던 거고예.
 @1 예, 예.
 #1 그다음 무시거 필요허파?
 @1 아까 노 꼬는 거를.
 @2 노 꼬는 거는 미비쟁이는 그냥 물리기만 하고 신사라만 두드령 물리는 거고?
 #1 미, 미도 깨어야 해.
 @2 깨어야.
 #1 안 깨면은 그 저 흠치 이렇게 허면은 노가 안 나와. ㄱ늘게 깨 놔사 그 노가 나오주.
 @1 예.
 @2 계난 영 만들 때, 노 풀 때 물 묻히거나 경은 안 험니까? 바싹 말령?
 #1 아니, 바싹 말령은 노가 안 돼여.
 @2 안 돼여.
 #1 저 끈어져 베어근예.
 @2 맞아.
 #1 영 허면은. 계난 그 적당히 그 사름 일허는 사름이 요 정도민 좋겟다 행 츠근허게시
 리 멘들아야.
 @2 아.
 #1 츠근허게.
 @2 예.
 #1 그렇게 해근예 야튼 서끄는 방식도 그 사름이 알앙 허는 거고 계난 그 사름이 완전
 기술자가 되는 거주.
 @2 노 끈 굽기는 요것만이 험니까?
 #1 아니.
 @2 이것보다 더 굽어?
 #1 아니, ㄱ늘아, ㄱ늘아.
 @2 ㄱ늘아.
 #1 계난 요것이 흐 서너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1 음.
 #1 요것이 다 마치젠 허민 ㄱ는 것도 들어가고 흐폼 슬진 것도 들어가고 막 슬진 것도
 들어가고 계난이 다 해 놓면은 델빵, 그 저 무끈 거 잊지 안허파?
 @1 예.
 #1 요렇게 행 무끄듯이 요것을 쥘 슬진 거여야.
 @2 으, 맨 우에 가는 거.
 #1 요렇게 행 무끄는 거 잊저. 무끄는 거.
 @1 예, 망또추룩예.
 #1 계난 요거 자꾸 자꾸 요라 번 무끄당 보민 이거 야려질 거니까 질기게 허기 위해서

조금 슬지게 한다 이 말이주.

@1 무끄는 끈만예?

#1 으, 무끄는 끈만. 젤 나중에.

@1 예, 예.

#1 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조금 슬진 걸로 허긴 허는디 막 슬진 거보단 막 ㄹ늘게 시리 행 여러 겹씩 돌려 가지고 허는 거고.

@2 계민 그 노를 준비할 때, ㄹ심을 준비할 때 노를 꼬아 둘 거잖아예? 그 노를 질게 영 영 뱅뱅 모양 꼬아 둘 거 아니면 적당한 이 길이만큼 이거는 우에 쓸 거, 이거는 밑에 쓸 거 행 마련허는 거파?

#1 아니 건 그때 필요한 대로.

@2 필요한 대로.

#1 젤 필요한 것이, 많이 여겨 가는 것이, 젤 필요한 거니까 거는 뭐 자기가 시간 난 때 마다 ㅎ쓸 꼬양 동그라만 만들주.

@1 예.

#1 영 감아근에 놔 뒷당.

@2 질게 꼬명예.

#1 막 질게 뭐 이녁 시간 이신 때마다 행 놔뒷당 이거 만들 때에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잘르명 쓰는 거라. 잘르명 이어근에 뒀니까.

@1 예.

#1 그축행 허는 거마씨.

@1 켜 새는 이게 한 단으로만 헤 가지고 안 뉘 거 아니파, 짧으니까?

#1 이거 여러 단 해야 뉘니다.

@1 몇 단 정도 헤근에 허는 거파?

#1 몇 단이 확실헌 건 아니고 그 사람 그.

@1 키에 맞게.

#1 크게 만들젠 허면 더 들고, 죽게 멘들면 덜 들고. 계난 요 정도만 만드는 사름도 있고 요, 요, 영 허게 만드는 사름도 있고 계난 막 자기 필요에 따라근에 허니까 뭐 조금 차이가 납주마씨.

@1 보통 삼춘 헛던 거?

#1 한 서넛 단.

@1 서넛 단 이렇게 내려오는 거파?

#1 아니, 건 무신 말고? 내려온다?

@1 아.

#1 아니, 난 아까 못, 새 못을 얘기허는 걸로 아는디.

@1 아, 새 못이 서너 못, 서너 못이 필요하다고?

#1 예, 예.

@1 아니 저는 뭐냐하면 이디 길이가, 새 길이가 짧으니까 이 정도밖에 오십 미리, 오십 미터 허면 요 정도밖에 안 뉘 거 아니파예? 일 미터 반이면?

#1 오십 센치.
 @1 오십 센치면 요기까지베끼 안 올텐데.
 #1 계난 어쨌든 켈 즐라도 요 정돈 해야 뉼.
 @1 그니까 그럴려면 이제 한 단 이렇게 들어가야 뉼는 거 아니꽈?
 #1 새를?
 @1 예, 새를 요기 한 단하고 요기 한 단 이렇게 해야 뉼는 거 아니마씨? 보통 요기까지 내려오는 새는 엇일 거 아니꽈?
 #1 아니, 새를 그렇게 허면은. 좀 헛갈리는 부분인디.
 @1 예, 예.
 #1 요걸 저 똑ㄱ튼 새를 가지고 영 블라가지고 요, 요기서 그 저 단을 자꾸 만들어. 요렇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같은 방식으로.
 @1 예, 예.
 #1 요렇게 이어 간다 그거지, 이어 가.
 @1 예, 예.
 #1 요렇게 이어 가면은 이것이 저 갑옷 같은 그런 그 속에 보뉼.
 @2 아, 예.
 #1 계난 요걸 계속 오는 거라, 자기가 기장 맞게끔. 길게 만들젠 허면 많이 만들고.
 @1 예, 예.
 #1 짧게 만들젠 허면 쪼금 족영 만들고 뉼 한 이십 줄에서 삼십 줄 그 사이로 보뉼 뉼는 데 이 줄 만들어 논 게.
 @1 음.
 @2 계난 이게 노인디.
 #1 으.
 @2 노에 이렇게 새를 이어 가뉼 연결을 할 거라예.
 #1 으, 새를.
 @2 계난 이거 처음에 이거는 우에 부분이 기준이 뉼는 거고.
 #1 으, 시작, 시작.
 @2 새로, 여기 새로 이어질 거고.
 #1 계속.
 @2 또 여기 행 여기 이어질 거고. 또 영 행 여기 이어질 거고?
 #1 야튼 계속 이어 가는 거, 계속.
 @2 아.
 #1 계난 요 노, 요 노줄 흥나가 흥 줄이렌 보뉼 뉼여, 흥 줄.
 @2 음.
 #1 계난 여기 이은 것이 뉼쪽에서는 물이 바는 거지.
 @1 예, 예.
 #1 안에는 노줄이 잇고.
 @1 보이고예.

#1 으, 노줄이 잇고.

@1 예.

#1 새끼줄.

코 놓기

@1 게든 보통 남자, 성인 남자가 입젠 허민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견 코나 이런 건 아니지예?

#1 코엔 허민 뉘마씨. 코라마씨.

@1 몇 코 정도 행 놔야 뉘는 거파?

#1 최소한도 삼십 코.

@1 으.

#1 쪼끔 많이 허면 오십 코 저 그물망 그런 식으로 허민 똑ㄱ튼 건디 저거 방식은.

@1 아.

#1 그물망에 새 들면은 그거 모양이 뉘는 건데, 만들어 가는 것은. 무끄는 것도 똑ㄱ트고.

뉘기

@1 음. 고정시키젠 허민 뉘, 뉘로 무끄는 거마씨?

#1 아니, 새는 그냥 빗물만 밧게시리 요거 넣는 거고.

@1 예, 예.

#1 그 노끈으로 계속 무껴 가는 거라.

@1 아.

#1 노끈으로 계속 무껴.

@1 고정시키는 것도.

#1 예, 노끈으로 무껴 가는 거라.

@1 만들엄수다, 어떻 어떻?

@2 이거는 새가 뉘 거고예. 예를 들면 이게 말아정 이시민 이게 노끈이 뉘는 거잖아예?

#1 으, 으.

@2 영 말아정 이시민 여기에 연결을 하는데 아까 접는덴 헛잖아예?

#1 예, 예.

@2 게난 영 연결허명 영 접아 가명 이게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이게 밖으로 갈 거 같애.

#1 아니, 그 새 접은 것은 두 개 다 바깥으로 가.

@2 아, 두 개 다 바깥으로 가게. 게민 영 뉘는 거구나.

#1 안네와 바깥이 구분 뉘어 있는 거니까. 거 무끄명도.

@2 예. 이거는 노라 노. 새가 이렇게 이시민 노가 이렇게 연결뉘명 밑으로 이어지명.

#1 계속 요렇게 갖닥 요렇게 갖닥 헌다는 겁주.

@2 아. 흐뎡은 이해헤질 거 가트우다.

#1 하하하.

@2 더 만들카?

@1 아니. 혹시 이거 언제 한 번 만들어 주시민 안 됩마씨? 만들어진 건 옛수과? 만들앙 놔둔 건 옛수과?

#1 아니, 그 필요 안 허니까 안 만드는 거지.

@1 아.

#1 필요 안 허니까 안 만들어 두지. 거 무신 옛날 옛날 그 멧 십 년 전이만.

@1 하하하.

#1 그자 그때 헛던 거 알고 있는 거 기억허는 거뿐이주.

@1 아까 선생님 그리신 거는 뭐마씨? 요거허고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서.

#1 이거는 만들어 놓 것이 바깥에 새가 나가지 안 됩니까?

@1 예.

#1 이 안네는 그물망 ㄱ추룩 안넌 잇다는 거지. 켜 이렇게 뒤집어 쓸 거 아니파?

@1 예, 예.

#1 계민 요 깃이엔 허주. 이것이 없는 상태라. 몸체 그냥 요것만인 거고. 요걸 또 새로 만들앙 요걸 달아야 돼, 달아야. 부쳐야 돼.

@1 아. 요 우에 거 따로 만듭니까?

#1 요건 따로 만들앙 부쳐야 돼. 계난 기냥 만들앙 썩 텅기는 사름도 잇고 요건. 계난 요거 부치는 건 잘허는 사람, 고급으로.

@1 아.

#1 요것만 해근에 썩 텅기는, 대부분 그추룩 헛주.

@1 예, 예. 요 깃은 계민 어떻 만드는 거파?

#1 요것도 계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디 계난 요 깃 만드는 것은 더 공들어마씨.

@1 아.

#1 더 공든텐 허민 됩는다.

@1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게예?

#1 아, 계난 이진 저 새로 이렇게 짜근에 내려와근에 이것에 이어근에 ㄱ튼 그 뭐가 돼야 헛 거 아니파, 어울림이. 계난 그것을 부쳐주는 거주마씨.

@1 아.

#1 이레 물 안 들어오게.

@1 뭐 명석이나 저 구덕 즈는 거추룩 허는 거파?

#1 그거 허고는 조금 다른 거마씨.

@1 아.

#1 하하하.

@1 모양이 이렇게 뻗길래.

#1 계난 쉽게 행 만들어 놓 건디.

@1 음.

#1 이렇게 행 탁 꼬부러지게 해근에.

@1 밑에 건 영 망또추룩 요건 요 우터 영 막아지는 걸 따로 만든텐 허는 거 아니예?

#1 예, 따로 만들어, 따로. 계난 요것만 행 썩 텅기는 사름 대부분 많앗수다게. 요거 허

젠 허민 또 공들어야 됩니까.

@1 예, 예.

#1 무시거 또 잇수파?

@1 이거 게믄 한번 입어나민 젓을 거 아니파예?

#1 젓은 젓은 그자 영 영 돌아멩 놔두면은 햇빛 흐쫄만 맞으면은 건 몰르니까. 막 젓지 않은 거난, 속에꺼정 물 안 드니까.

@1 바는 거난예.

#1 예.

우장 관리

@2 멧 년 입으쿠다.

#1 이거 흐나 만들면은 멧 십 년 입어, 멧 십 년.

@1 아.

#1 계난 그 사름이 관리를 잘못헿 썩어 불면은 얼마 안 가고.

@1 아.

#1 관리 잘허는 사름은 그 안에 무시거 노아근에 헿 옷 거튼 거 놔근에 보관을 잘허주.

@1 헿 옷을 안에 놔근에 보관허는 거마씨?

#1 아, 헿 옷 놔야 그 습기도 빨아들이고 이렇게 헿 거 아니파?

@1 신문지그치.

#1 이거 향시 이거 입영 뎡기는 거 아니고 비 오는 날만 입영 뎡기니까 겨울도 지나야 뎡고.

@1 어디 뎡 창고에도 걸영 놔두고 영허는 건 아니고마씨?

#1 옛날에 창고엔 헿 거 엇엇는데 쉼막에, 쉼막에. 그냥 쉼막에.

@1 예, 쉼막에.

#1 쉼막에 영 출 주는 디 해근에 영 뎡 공쟁이 여라 개 만들앙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베도 걸고 무신 벨 거 다 걸어십주마씨.

@1 게믄 이거 흐뎡 뜰어지거나 흐뎡 이 한 부분만 썩거나 이러면 다시 고쳐근에도 헿 거 아니파?

#1 보수 허영, 보수.

@1 예, 보수에. 게믄 그 부분만 보수도 헤지는 거파?

#1 예, 저 꿩기 잡는 사름덜 보면은 그 그물 뜰어지면은 보수 안 헷니까?

@1 예, 맞아마씨.

#1 그거와 똑, 그 우장과 그물이란 차이지 같은 거라마씨. 요 보수 됩니까. 요레 대여근 에 요렇게 여끄믄, 건 좀 기술적인 거주만은. 뎡 큰 기술들은 아니고 그냥. 거 못 허는 사름은 못 허니까.

@2 이거 만들 때 따로 도구는 필요엇다예?

#1 특별한 거는 엇고.

@2 뎡 날카로운 거, 끼우젠 허면?

#1 으, 깎는 것이 그 저, 뭐 수공이 같진 몰라도 대막텅이, 대막텅이.
 @2 예, 예.
 #1 대막텅이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까까가지고 코쟁이 내와.
 @2 예.
 #1 반대쪽으로는 약간 깨여.
 @1 예.
 #1 노끈 들어가게.
 @1 예, 예.
 #1 계민 뿔 거 아니파게 이렇게 끼우든.
 @1 바농추룩마씨?
 #1 바농추룩, 바농추룩.
 @1 아.
 #1 계난 이거 바깥에 나오지 아녀게, 노출 안 허게 허젠 허민게 약간 끼여야 뿔 거 아니파?
 @1 어.
 #1 경행 노끈 끼와근에 이렇게 주면은. 계난 어찌면 그것도 기술적으로 생각을 잘헌 거라.
 @1 그걸 혹시 뉘엔, 바농이나 이런 말 근지 안헙니까?
 @2 대바농?
 #1 으, 대바농.
 @1 대바농?
 #1 으, 대바농. 계난 뉘 그물 그런 거 헐 때 저 보수허는 그 기구도 잇긴 잇는데.
 @1 예.
 @2 계난 노가 그 거기 쓰는 노가 완전 얇은 거구나.
 #1 으, 얇은 거주마씨.
 @1 그물거치 나올 거니까예?
 #1 얇은 거주마씨. 질김만 허민 뉘니까.
 @2 질김만 허민 뉘니까.
 #1 이거 슬질수록 무거워. 사람이 막 오래도록 그 영 썩 텅겨야 뉘는 건데 한번 입영 나가민 하루종일 썩 텅겨야 뉘니까 그거 뉘.
 @2 계난 삼춘 그 초신도 만들엇텐 허난 초신에 요기 늘 들어가는 굽기랑 ㄱ트파?
 #1 거의 뉘 비슷비슷허주.
 @2 그럼, 예 예. 그럼 그림 그려지쿠다.
 #1 하하하.

짚신

@1 초신도 막 하영 즐아났지예?
 #1 건 저는 게 아니고 만든덴 허는 건데.
 @1 아, 건 만든데.
 #1 저는 건 뉘, 뉘 가지고 허느냐, 멩텅이. 멩텅이 저는 건 저는 거엔 허고.

@1 예.
 #1 하여튼 요 용도에 따라 다 이름도 달르고.
 @1 초신 만드는 것도 영 쪽 한 번 설명해 주십서.
 #1 초신은 뭐냐 그 저 멘들면은 들어가는 그 기구가 있어야 돼. 그 나무로 만든.
 @1 골 같은 거마씨?
 #1 나무로 해근에.
 @2 끼우는 거.
 #1 늘려 줘. 그런 것이 있는데 요거는 우장보다 조금 더 기술을 요해.
 @1 아, 예.
 #1 존존존존현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우장은 이렇게 이렇게 여겨 가문 조금 쉬운디 게 난 그런 점이 조금 차이나마씨.
 @1 젤 처음 만들젠 허민 초신은 무신거부터 허는 거마씨.
 #1 그 아래 무시걸 멘들아 놔사 우에 옆에 부짚 거 아니파?
 @1 그니까 아래.
 #1 바닥.
 @1 바닥허젠 허민 무신거부터 험니까? 늘부터 멘드는 거마씨?
 #1 물론 늘입주. 늘 안 들어강은 그 저 짝을 못 끼우니까. 짝으로 다 헛수게, 산디 짝이 나 뭐 무슨 그런 것이. 게난 요렇게 다 놓아근에 이 앞으로는 흰, 흰 하나 두 개쯤은 양쪽으로 약간 줄여.
 @1 예.
 #1 사름 발추룩.
 @1 예.
 #1 줄여근에 요렇게 넓혀 가는 거우다. 경허영 요렇게 사름 발거추룩 멘듭니다. 어쨌든간에.
 @1 게난 늘은 가운데 하나, 이렇게 노끈만 허고.
 #1 그, 그 그 사람 발에 맞게시리.
 @1 멧 개 정도?
 #1 세 개, 네 개.
 @1 예.
 #1 뭐 다섯 개까지 놓는다.
 @1 예.
 #1 게난 그 안에서 뭐 발 족은 사름은 젤 족영 놓고 발 흠뻐 넓은 사름은 넓게 놓고.
 @1 게난 늘 놓고 거기를 짝으로 짜 가지고 허는 거지예?
 #1 짝으로 짜, 짝으로.
 @1 그걸 바닥이엔 골읍니까?
 #1 창, 창.
 @1 창 먼저 째?
 #1 예.
 @1 그다음에는 창 짜지민?

#1 창 짜지민 옆이 거 허여근에 들아근에. 옆이 것이 더 어려와마씨.
 @1 옆인 건 무시거엔 굴릅니까?
 #1 그것이라 저 깎이엔도 허고 뭐 여라 가지 이름이 있는데.
 @1 으으, 깎예?
 #1 예.
 @1 깎은 영 올라오는 거마씨?
 #1 요렇게 해근에 거 만들어야, 발을 영 발을 영 줌.
 @1 이런 깎은 뗏, 뗏 줄 정도 행.
 #1 그거 역시도 뭐.
 @1 요 앞이만 이신 거 아니파, 전체 다 험니까?
 #1 이 뒤깎까지. 앞깎, 뒤깎 문딱 허지 안 허민게 저 신질 못허지 안험니까?
 @1 예.
 #1 신젠 허면은 뒤깎이 켈 오래 가게 허젠 허면은 쏘끔 슬지게 허곡 허는디 앞깎도 마찬가지로. 앞깎 고망 내운 디 말고 흐끔 질기게 허긴 험니다.
 @1 아.
 #1 계난 앞깎 뒤깎이 다 중요한 거주만은.
 @1 예, 예. 켈 켈 우에 마무리는 또?
 #1 마무리는 여기에 요런 식으로 노끈 슬지게 행 요렇게 낵.
 @1 으.
 #1 계민 그 그.
 @1 거 이레 쥐 봅서.
 #1 이걸 노엔 험주마씨. 요렇게 해근에 요기 갖다근에 창에 만들어 논 거허고 부찌는 거라.
 @1 음. 계민 요건 뭤엔 허고, 요건 깎인 거잖아예?
 #1 예.
 @1 밑에는 창이고 요건 깎이고 요건 뭤파?
 #1 이진 바위 그냥.
 @1 바위. 음.
 #1 바위 돌른덴 행, 바위 돌른다 허는 거는 뭤친다는 말인디.
 @1 예, 예.
 #1 바위 그런 식으로 해근에.
 @1 계민 요거 따로 따로 짤 다음에.
 #1 하나씩 하나씩.
 @1 영행 부찌는 거구나예.
 #1 조조조조 부찌 가압주.
 @1 이거 영 벗어지지 아녀게 무끄는 끈도 잇수파?
 #1 이거 이거 창 만들 때 꺾 해근에 놓아야 뉘여.
 @1 끈을 마씨?
 #1 끈을 꺾 낵. 이걸 하나 노민 흐 줄 헤가고 하나 노민 또 흐 줄 헤가고 같이, 같이

여겨 가야 따로 허는 게 아니고. 계난 그 더 어려와, 어려와.

삼태기

@1 아까 골체도 헤낫덴 허멍마씨? 골체는 어떻게 멘드는 거파?

#1 골체도, 골체는 또 우장보다 더 쉽곡.

@1 아. 젤 쉬운 게 골체파?

#1 으, 젤 쉬운 게 골체.

@1 골체는 무신?

@2 뭐로?

#1 골체는 재료가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민 뉘는다.

@1 아, 예.

#1 젤 처음 쓴 재료는 그 대.

@1 아, 대나무로예. 예, 예.

#1 그것이 왜 젤 많이 쓰느냐 허면은 물이 잘 안 젖어. 물 젖어도 금방 몰라 불고.

@1 예.

#1 물, 대나무 소곱에는 물이 안 들어가잖아.

@1 예.

#1 겐디 다른 재료들은 저 저 존쟁이엔 현 것도 있고 칩 잇잖아, 칩. 잇는디 그건 다 물 들어.

@1 아.

@2 정동은 안 험니까?

#1 정동이 그 저 그거이주게. 존쟁이. 존쟁이가 정동이라. 정동모자.

@2 예, 예.

#1 그거 존쟁이엔 허메, 이디션.

@1 아, 으름.

#1 으름 열매 허는 거.

@1 그게 그거파?

#1 그게 그거. 똑ㄴ튼 건데 이름, 이름만 약간씩 지역마다 달르더라고 보니까.

@1 정동모자 그거주.

#1 계난 그거 그거는 조금 고급스러운 그 재료에 들어가고 대나무는 대체적으로 다 쓰는 거에 들어가고.

@1 예.

#1 칩은.

@2 껌겨져 불어.

#1 아니 껌겨지지 아녕 저 젤 오래 써.

@1 아, 칩이 젤 오래 써마씨?

#1 으, 관리, 썩지 아녀면은.

@2 아, 기파?

#1 으, 쓰기도 좋고 꺼꺼지지도 아녀고.
 @1 칩이 젤 존 거네예, 칩으로 허는 게.
 #1 계난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름주마씨. 관리 잘 허면은 젤 존 거고.
 @1 예.
 #1 계난 오래도록 쓰는 거는 대나무 가트고.
 @1 음.
 #1 계난 대나무는 물 안 들어가니까 일단.
 @1 예, 예.
 #1 것도 물 젓어 불민 썩어 부는 거니까.
 @1 음.
 #1 계난 그 관리 차이로.
 @1 예. 그건 허젠 허민 요기 이렇게 뭐 손잡이 잇는 거 잇어야 될 거 아니꽈, 낭이라도 우에?
 #1 거 당연히 잇어야주.
 @1 그건 무신 낭으로 헉니까?
 #1 그건 뭐 저 낭 종류가 하도 하는디 대부분 종냥이 꾸짜꾸짜 올라가잖아.
 @1 아.
 #1 종냥으로 많이 썩고 이 저 벌레냥.
 @1 예.
 #1 마계벌레냥이엔 현 거 잇수다.
 @1 예, 예.
 #1 마계벌레냥이 쪽쪽 잘 번잡아이.
 @1 예, 예.
 #1 그것도 많이 쓰고 예. 굽으로 허는 사름은 다른 거 허는 거 잇는데.
 @1 음.
 #1 그 쉼 줄대 만드는 재료가 있어. 쉼 줄대 알아집니까?
 @2 쉼 줄대. 줄.
 #1 줄덴디 거 밧 갈 때 이렇게 그 저 쉼 명에에 요렇게 메 가지고 등기는 것이 그 줄대엔 헛는데.
 @1 예.
 #1 줄대엔 헛는데.
 @1 예.
 #1 그 만드는 것이 좀 질겨예.
 @1 무신걸로 만드는 거꽈?
 @2 가린석 곤는 견게예?
 @1 아니, 그 한줄.
 @2 아, 여기 한줄?
 #1 소 목에 요렇게.

@1 요기서부터 가린석까지 이어져 잇는.
 #1 그것이 켈 질긴 건데. 그거는 쪼금 허레 가는 게 쉽지 안허여. 허레 가는 게.
 @1 산에 강 행 오는 거파?
 #1 고지 강 헤 오는 거.
 @1 고지 강 행 오는 거.
 #1 여기는 엇이니까. 계난 일름이 뉘파, 그거?
 @2 줄 이름?
 #1 아, 줄?
 @1 으.
 #1 줄대엔 허주, 줄대엔.
 @1 아니, 아니. 무신 낭으로 허냐고?
 #1 계난 그계 그 쥬쟁이 비슷허킨 비슷헌 건데.
 @1 으, 줄 벌어 가는.
 #1 정당줄이엔도 허고 뉘 여라 가지 그 부치는 이름이 잇긴 헌데 그 뉘.
 @1 쥬 그거 허민 글체 영 흐꿈 영 안으로 영 들어 갑니께.
 #1 으.
 @1 평평허게 아니고. 안으로 영 숙여지게 허젠 허믈 어뉘 기술이 필요헌 거파?
 #1 그 사뉘 만드는 방식. 빼작허게 뉘민 요렇게 간단허게 뉘고.
 @1 예.
 #1 오무락허게는 더 들어가게 뉘고.
 @1 아. 그계 어떤 기술이 필요헌 거마씨.
 #1 기술이라고 허기는 그렇고 그 사뉘 저 성뉘에 맞게. 그 사뉘 만드는 게 잇을 거 아니
 파? 계난 그거에 따라 크계도 뉘고 알계도 뉘고 그런 식으로.
 @1 글체에 들어가는 그 나무도, 그것도 어음이렌 부릅니까?
 #1 으, 어음. 바위, 바윗낭이엔도 허곡 뉘 여라가지 허는데 어음이엔도 허긴 허고 헌디
 그거는 쪼금 해녀덜 그거 험 뉘 때 그걸 그런 식으로.
 @1 글체험 때는?
 #1 예염.
 @1 아, 예염. 아 옆에라고
 #1 옆에라고 허는 말을 글체에염 대부분 여기서는 부르는데.
 @1 여기선 글체에염이엔 부르는구나예.

패랭이

@1 아까 우장으로 다시 돌아가민 우장 입을 때는 모자는 뉘 씌니까?
 #1 그때는 그 저 밀짚모자 패랭이.
 @1 밀낭으로 만든 거마씨?
 #1 으, 밀짚으로 만든 거. 패랭이. 그거 안 쓰면은 일단 물이 들어가니까 건 뉘 헌 패랭
 이라도 꼭 써야 뉘여. 경헤야 흐썰 덜 방지뉘니까.

@1 밀낭으로도 페렝이 만드셔났을 거 닐아예?

#1 만든 정도가 아니고 엄청 만들었주. 그거 안 만들면, 안 만들면은 비 맛이명 텅겨야
뉘니까게.

@1 그건 페렝이는 밀낭이 쥘 좁니까?

#1 재료가 거베긴 엇이니까.

@1 아.

#1 보리쥘, 나중에 보리쥘도 썻는데 밀쥘이 쥘쥘 질겨마썸. 경허고 흐쥘 길고. 계난 이
거 이거 다 쥘. 뉘 모릅니까 무사. 페렝이 지금 페렝이 보면은 빙빙 돌아가지 안 험니까게.

@2 예.

#1 요거를 요 남뉘이 흐나쥘 흐나쥘 경헤사. 쥘 거라, 쥘 거. 손으로. 경험 쥘근에 질게
멘들아 뉘근에 뵁뵁 돌리명 바농으로 다 쥘.

@1 음. 쥘 처음 시작허는 데를 뉘라고 얘기허는 건 엇수과?

#1 이름 따로는 엇고.

@1 이름은 엇고.

#1 이름 따로는 엇고. 그 저 뉘냐 그 대구덕 만들 때는 그 생이방석이엔 허는데 페렝이
는 그냥 시작허는.

@1 정동 허는 데 가난 까마귀방석이렌 곱읍디다.

#1 여기선 그런.

@1 처음에 시작허는 거.

#1 그런 건 안 부쳐 받. 계난 이런 식으로 헤근에.

@1 예.

#1 이렇게 허면은 이거 하나 끼면은 시작이 뉘는 거주. 또 이렇게 끼면은 시작이 이걸
헤가지고 이제는.

@1 똑같아.

#1 요렇게 여껴 가는 거 흐나쥘 흐나쥘.

@1 까마귀방석이랑.

#1 거 똑같은 거지. 이름만 다른 거지.

@1 정동, 정동모자 하는 거처럼.

@2 줄 긴 걸로 영 영 영 영 돌아가명.

#1 예, 가명 바농으로 주워 가명 허민 페렝이. 뉘 크게 만들고정 허민 많이 허곡 작게
만들고정 허민 뉘 모자 거추룩 만들아도 뉘고.

@1 페렝이도 흑시 이런 꼭데기영 옆이영 이디 창이영, 썻이영 이름이 다 잇수과, 흑시?
이딘 무신거엔 곱고 이딘 무신거엔 곱고 허는 거 엇수과?

#1 바깳데는 그자 망이엔 곱아, 망.

@1 이게 망?

#1 으.

@1 여기는?

#1 건 기냥 몸체.

@1 여기는 그냥 몸체.
 #1 그렇게 험 거베끼는.
 @1 꼭대기 여기는?
 #1 소독이엔도 하고 뭐 꼭대기엔도 하고.
 @1 아, 소독이엔도 곱습니까, 소독?
 #1 예.
 @1 음.
 #1 꼭대기엔도 하고.
 @1 계난 이렇게 만약 이시민예, 여긴 소독 요긴 망 요긴?
 #1 여긴 그냥 몸체.
 @1 몸체.
 #1 몸체는 확실히 모르는데 몸체는 확실히.
 @1 계난 요기서부터 영 영 영 짜 올 거 아니파예? 이거 험 때는 다른 필요한 도구는 엇 수파?
 #1 바농.
 @1 바농만 이시민 뉘마씨?
 #1 바농하고 여끈 거.
 @1 줄 여끈 거예?
 #1 으.
 @1 실도 잇지?
 #1 어게, 물론 바농이 이시니까 실이, 바농 가는데 실 안 가?
 @1 바농은 우리 바농질허는 그 바농이파?
 #1 예, 그 바농.
 @1 다르진 안해마씨?
 #1 너미 슬져도 이거 저 깨져가민 곳으니까.
 @1 예.
 @2 아, 경 가는 걸로 허는구나. 바농질험 때.
 #1 으.
 @2 아, 예.
 #1 계난 질기게 허젠 허민 뭐 질긴 노 해근에 허긴 헛주만은 그거는 특별허게 하고.
 @1 실은 바농질험 때 실로 헉니까? 다른 실이 이신 게 아니고?
 #1 그때 실이 혼 두 가지, 세 가지 잇엇던 거 닻은데. 무명실도 잇고 그 삼으로 만든 실도 잇고.
 @1 아. 어떤 게 좋습니까?
 #1 아, 계난 무명실이, 저 뭐야 멩지실, 멩지실.
 @1 예, 예.
 #1 요것이 젤 질기주. 멩지실이.
 @1 아, 질겨.

#1 질긴 거를 그땐 요했기 때문에.

@1 예, 예. 게민 페렝이 쓰고 우장 입고 밑에는, 신발은?

#1 신발은 그냥 뭘 평상, 신는 거 그냥.

@1 아까 째신, 초신 그냥 신는 거봐?

#1 이신 사람 이신 대로.

@1 아.

#1 고무신 이신 사람은 고무신 잇는 사람은 고무신 신고.

@1 예.

#1 엇인 사람은 자기, 뭘 엇이니까 어땡 아무저라도 신영 가야지. 맨발에는 안 허니까.

@1 아까 비 올 때는 남신도 하영, 어디 쉼 보레 갈 때는 흑시 안 신읍니까?

#1 아, 신어얍주마씨. 신엇어마씨. 거 막 오래지 안헛수다. 우린 막 신영 땡겨시난. 신영 땡기명.

@1 어디 놔두지 안헛수파, 데끼지 안헛? 흐나 이시민.

#1 발도 ㄴ무끄고.

@1 발도 ㄴ무끄고.

#1 티글락허민게.

@1 예.

#1 하하하.

‘남신’

@1 그 남신은 만들젠 허믄 남, 어디 강 남 봉가다근에.

#1 남은 뭘 쉬운 거니까 젤.

@1 예. 그믄 그냥 전체가 한 덩어리파?

#1 한 덩어리.

@1 다리도 밑에 짓도 부치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지예?

#1 예, 한 덩어리.

@2 무신 남 씹니까?

#1 부치면은 그게 털어져부니까. 쉽게.

@1 전체가 한 덩어리예?

#1 남 쓴 거는.

@2 상관 엇어?

#1 크게 상관은 엇는디 젤 질긴 것이 저 똥쿠실남이엔 잇잖아?

@1 예.

#1 그거 젤 많이 썬수다.

@1 아.

@2 똥쿠실나무예?

#1 살결도 좋고 가볍고 오래 가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 여기서 구허기도 또 쉽고. 지금은 뭘 기차부니까 엇는디.

@1 예. 게문 요만이헌 텅어리 하나 가정 왕 곡췌 허고, 곡췌로만 팝니까, 뭐 다른 거?
 #1 아이 거 뭐 곡췌 출린 사람은 곡췌로 허고 경 안헌 사름은 끌로 허고 뭐 여라가지
 잇는 대로 허는 겁주. 게난 하나 가지고 양쪽으로 뉘니까 깨면.
 @1 아.
 #1 가운데로 나누면은 딱 맞아, 원.
 @1 아.
 #1 양쪽으로.
 @1 요만헌 낭 하나 가정왕 반으로 깨어근에.
 #1 양쪽.
 @1 양쪽 뉘는 거구나예. 그문 저 밑엔 등글랑허고 우엔 평평헌 테가 위로 가게 헵니까?
 #1 평평헌 디 우에 가야 발 들어갈 거 아니라?
 @1 게난예.
 #1 하하하. 건 뭐 굴으나마나 건 흰헌 거고.
 @1 연필로나 뭐 그림 그려근에 헵니까?
 #1 그린 것도 엇고 뭐 짐작, 그 사람 짐작 삼양 이렇게 허면 또 맞아, 그놈의 게.
 @1 아니 발이라도 어떻 영 행 그리듯이 경 안 행 그냥 짐작으로만.
 #1 예, 그땐 뭐 잘 만드는 그 그 솜씨대로만 가는 거니까 뭐 규정에 딱 맞춰 허는 거면
 은 그리꼭 대곡 다 허주만은.
 @1 예. 그문 다 파내는 거 아니파예? 끌로, 끌 같은 걸로?
 #1 끌로도 많이 팠고 뭐 자귀 거튼 거로도 팠고 뭐 뭐 다양헵주, 다양. 칼로, 젤 나중에
 는 줄바로 헌 사름은 가끔.
 @1 게난 어떻 영 맨짝허게라도 헤야 뉘 거 아니파?
 #1 그거 칼로 나중에.
 @1 아.
 #1 빼빠도 그땐 엇엇고.
 @1 빼빠라도 이시민 밑 건디.
 #1 그거야 당연히.
 @2 칼로 그거 다 다스린 거.
 @1 음. 지금 생각허민 그 남신을 신으민 지금 무슨 하이힐처럼, 여자 구두추룩 걸어다니
 기 막 불편헿 건 같은디.
 #1 불편헌 정도가 아니우다게. 그거 침 맨발에 뉘길 수가 엇이니까 만들영 신엇주. 그
 버침도 허곡 그땐 돌, 아까도 굴앗주마은 질레 돌이 한한헌디 가단 돌 탁 걸리민 자빠집니
 다게.
 @1 게난마씨. 밑에도 이렇게 턱이 이시니까.
 #1 예, 양쪽 턱이 두 개 아니파?
 @1 예, 예.
 #1 게난에 그거에 걸렁 많이 자빠지고 거야 야튼 어느 때가 젤 그 당시로 필요허게 썼냐
 허면 비 오는 날.

@1 예.

#1 비 오는 날은 물이 안 드니까 일단. 하하하. 조심 조심행 가면은.

@1 예.

#1 짝신은 바로 바로 물 드니까게 조금, 계는 그 차이가 좀 있어십주. 씬에 따라.

@1 여기 대페랭인 안 해놔수파?

#1 대페랭이도 잇긴 잇엇는디 건.

@1 샷갓이나?

#1 계메 그거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엇주.

@1 아. 이쪽에 표선 쪽에 그거 대페랭이 하영 해놔저 허는 말 들어난 거 님은디 아니파?

#1 하여튼 이 스방엔 엇어놔수다.

@1 아, 이 스방엔 엇수파?

#1 켜 여기서 그때 당시로 쥔 잘 헛던 게 방에 파는 거예, 방에 파는 거.

@2 둘?

#1 아니, 나무로.

@1 남방에마씨.

#1 남방에.

@1 음.

#1 그거 약간 우시개 같은 얘기가 잇는다.

@1 예.

토산리 당팻당장 이야기

#1 흑시나 그 저 그 말 들어봐신디 물론디 전설로 보면은 토산리 당팻당장이엔 현 분이, 흑시나 들어본 거 엇수파?

@1 안 들어봐마씨.

#1 그거 알아야, 들엇어야 허는다.

@2 우리 조사허레 올 거우다, 토산리. 들으레 올 거우다. 곱읍서, 먼저 곱읍서.

@1 하하하.

@2 사전 공부햐수다, 오늘.

#1 당팻당장에 대해 가지고 역사가 좀 깊어예.

@1 아, 예.

#1 역사가 깊어. 그 당팻당장이란 말을 부친 것은.

@1 으.

#1 그 당 잇지 안 허파, 당.

@1 토산당예.

#1 그 당팻디 살아났다는 거라, 그 하르부지가.

@1 아.

#1 계난 그 당팻디 살안, 살은 것만 곱은 게 아니고, 당장이란 건 그때 당시론 좀 쉰 거 를 말헛던 님아.

@1 그 당에서 장인가?
#1 아니, 아니.
@1 건 아니파?
#1 당팻이엔 현 건 당이 맞는디 당장이란 건 지금 향교에 가면 장이 장이 무슨 말 부치잖아. 이름.
@1 예, 예. 훈장님 뭐 이런 거마씨?
#1 예. 훈장꺼진 안 가고 당장이란 건 조금 센 사람한테 부쩍 그 뭐 그때 이름이엔 허는 건가. 그런 식으로 부쩍는데. 이거 이렇게 가도 될 거파?
@1 예, 예.
#1 역사가 긴 때문에.
@1 예, 괜찮습니다. 시간 많이 있습니다.
#1 아니, 나도 시간이 잇는 사름인디.
@1 죄송합니다.
#1 시작해 노민 길 거 같아 가지고.
@1 아.
#1 짧게만 하나 협주.
@1 예, 짧게만.
#1 아까 방에 나와 부니까.
@1 예.
#1 이 분이 지금 저 그 하르방 다음 아방 사 대짜가 지금 잇는디 그 손자.
@1 예, 예.
#1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살고 있어요.
@1 아.
#1 계난 그 나 들은 말로, 그 자기 하르부지 뭐를 들으레 오니까 조금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라. 그 자손이.
@1 아, 무사마씨?
#1 나는 그게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뉘. 자기 조상이 뭐 잘헌 일 이시민 그걸 알려야 뉘는 게 맞는 거지, 감추는 거라.
@1 뭐가 좀 불편헌?
#1 아니, 그 사람 생각에는.
@1 그니까.
#1 다른 사람은 다 좋텐 허는디, 계난 그 뭐 최근에 잇엇던 일이디 여기 저 우에 가면은 소스름 잇잖여, 소스름.
@1 예.
#1 소스름도 모르면은 어렵겠는데. 그 옆에 큰동산이엔 현 디 잇어. 큰동산 옆에 힘을 그때 얼마나 센. 야튼 힘세다는 말은 나가 지금 강조허젠 허난 그말 곧는디.
@1 예.
#1 마께돌이엔 현 돌이 잇는데 엄청 뭐 멧 사름 들러도 못 들를 돌을.

@2 들러 붙었구나.

#1 큰 돌 위에 들린 놔둔 거라.

@1 음.

#1 놔뒀는데 요 한 몇 년 전에는 가시 사람이 그 저 트랙타, 트랙타로 오뎀 들러 가분 거라. 지금 잊주게, 그 돌이.

@1 예, 예. 그 사람 들러단. 계난 그거 그 ㄴ만이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 닐는데 그 사람 들러가 부니까 이제 그 사람 돌이 뒀는 건지 몰르겠는데 법적으로는.

@1 경허민 안 뒀주마씨. 마을 건데.

#1 아, 계난 난 그 처음 들리는 사람이 어찌면은 임자가 있나,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떤 말을 허니까 허문 변호사한테 한 번 자문을 받아 봐라. 그 들러간 사람 그디 앓다 노렌 허던가 이런 식으로 헛는데. 그 방에를 그 만들다가.

@1 예.

#1 그 저 옛날은, 지금은 잡상인이엔 허는디 지금은 도비상귀엔 허지 안헛니까?

@1 예, 예.

#1 바늘 싹 무신 열레기, 야튼 여러 가지 해근에게 정 텅기명 풀아난 사람 있어.

@1 예, 예.

#1 그 사람이 지나가당 보니까 그 방에를 막 파고 잇거든 그 하르부지가. 계난 이렇게 해 가지고 구경허는데 너도 흥 번 씨 보렌 헛 씩우니까 일어나지 못헌 거라, 그 사람. 그 도비상귀가.

@1 예.

#1 하하하. 살려 줍서, 살려 줍서 헛에 그걸 들렀다는데 그 하르부지는 그 정도 무거운 거를 머리에 씨 보멍 그 방에혹이 머리 닐지 안허여.

@1 예.

#1 머리에 씨 보멍 그걸 팅다는 거라.

@1 모자추룩.

#1 모자추룩. 계난 얼마나 셋냐 이 말이주. 그걸 강조허는 거주, 나는.

@1 예, 목디스크 오겠는데. 하하하.

#1 그분이 그렇게 셴 건데 여러 가지 잇는데 그걸 다 얘기허기는 어렵다 이 말이지. 시간적으로.

@1 계난 그분 이름이 당팃당장이팃?

#1 으, 맞아.

@1 힘셴 사람?

#1 하여튼 본명은 잇을 테지만은 그 본명은 지금 모르고 그 당팃당장이라는 걸로만 유명해 가지고.

@1 토산리의 유명허신 분이구나예, 전설 속에예?

#1 예, 막 유명헌, 막 유명헌.

@1 아.

#1 계난 다시 흥나만 곱을게.

@1 예, 예.

#1 세텐 헌 걸 강조허젠 허니까. 이제 그 어무니가 돌아가시니까, 겨울에 겨울에.

@1 으.

#1 옛날엔 등짐으로 다 젖잖아요?

@1 예.

#1 짐을, 장밧디 가는 것도.

@1 예, 예.

#1 계난 다 가정 가다가 남은 게 술, 술 허벅인데 정 갈 사람이 엇이니까 상준데도 불구하고 계민 나가 들고 가겠다. 계난 장밧디 가명 흔착에 방장대 지고 흔착엔 술허벅을 들고 가명.

@1 예.

#1 거기 갈 때까지 다 먹어 뱃다는 거라.

@1 하하하.

#1 상주를 쥐얏 건데. 그 눈 우이 가명.

@1 예.

#1 계난 그것도 어찌면 우, 조금 웃을려고 것도 부찐 거 같은데 설마 다 먹었으랴?

@1 으.

#1 그 사람도 생각이 이실 거 아니라. 아, 오늘 가민 상주덜 대접헤얏 건디.

@1 맞아마씨.

#1 그렇게 하여튼 세엿다.

@1 술도 세구나예, 먹어도 취허지도 안허고?

#1 취허지도 안허는데 그 생전 살명 그분이 배 ㄹ득게 밥을 못 먹어 뱃다는 거라.

@1 아.

#1 얼마나 많이 먹었냐? 시루떡도 찌 놓면은 흔 시루떡 그냥 혼자 다 먹어 불고. 그 ㄹ메기주, ㄹ메기. ㄹ메기도 잡양 오면은 그 열어야 뉘잖아. 열지 안 허영 다 씹어 먹어.

@2 전설 속의 인물인게.

@1 그러니까.

#1 아, 계난 이분이 그 하나두 개가 아니라니까. 그 정도만 곱아야지.

경험담

@1 예. 그 혹시 그 우장 만드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랑 그거 만들어난 혹은 입고 나가서 추억이라든가 재밌었던 일이라든가 혹시 있으면?

#1 재밌었던 것은 이제 그 날이 흐썰 막 좋지도 안 허고 막 굳지도 안 헛는데 하나만 들렁 간 거주. 우선 비 올 거라 생각헿 준비헌 것이. 우산 들렁 가듯.

@1 예, 예.

#1 들렁 가는데 비 와 부니까 하르부지허고 내허고 같이 써야 뉘.

@1 예. 영화 찍어야 뉘큰게.

#1 계난 그거 뭐 페렱이는 다 쓰는 거니까 쓰고 그거 외하르부지 얘기를 허느냐 허면은

침 서러운 애긴디 나 한 살 때 사삼사건 일어나 가지고 어쨌든 부모가 없어요, 나가.

@1 아, 돌아가셨구나예?

#1 그래서 할아버지.

@1 할아버지하고 사셨구나.

#1 하르부지하고 살고 할머니가 거 어머니처럼 지금도 막 기억이 생생헌데.

@1 그래서 그런 경험덜을 하신 거구나게, 예.

#1 어려웠다 어려웠다 하는 말을 많이.

@1 경행 하르부지랑 같이 그 우장 훔나에 ㄴ치 행 썩 옹디가?

#1 썩 텅겨주마씨.

@1 썩 보레 텅길 때.

#1 썩는 저물양 ㄴ파야 됩니까.

@1 아.

#1 썩 ㄴ꾼덴 합니다. ㄴ꾼덴.

@1 예, 썩 ㄴ꾸는 거예.

#1 보는 거를 썩 ㄴ꾼덴 허여. 도망가지 못허게시리.

@1 계난 하르부지영 ㄴ치 훔 우장 썩에.

#1 날 졸 때까지 썩 잊어야 됩난게.

@1 예.

#1 짓지 안허젠 허민. 그런 식으로 헛수다. 거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식으로.

@1 아. 아이덜 건 훔 족게 만들쿠다예, 계민예?

#1 아이덜 거는 거의 헛수다. 계난 썩 족게 만들아근에 좀 역은 사름도 필요허면은 그냥 우에는 갖춰지니까 쓰고.

@1 예, 예.

#1 기자 조금 길게 현 사름은 길게 행.

@1 밑에 바지는, 밑엔 건 따로 없지예?

#1 따로 헛수다. 우장은 따로 헛수다.

@1 음.

#1 대부분 갈옷 입영 텅겨시난.

@1 아. 또 혹시 질문 사항이?

@2 어쨌든 우장을 만들영 늠안테 풀거나 아니지예, 다 자기가 필요행?

#1 예, 필요헌 대로만.

@2 그지예.

#1 잘 만드는 사름안티 강 멘들아 도렌 해근에 그때 뭐 얼마 주든 건 수공비 줘야 됩니까. 그때 당시로. 그런 식으로 행 살앗주 무신 따로 만들영 풀꼭 그건 헛수다.

@2 계민 여기 토산리에 예전에 삼춘은 삼춘 거 만들영 써낫주만은 초신이라든지 그런 거 전문적으로 허는 사람도 헛헛수파?

#1 전문은 아니고 그 기술 존, 솜씨 존 사람.

@2 예.

#1 그 사람한테 부탁했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서로가.

@1 혹시 솜씨 존 어른 중에 하나라수파?

#1 아니 나는 그때 아이니까. 솜씨 좋은 축에 들지 못하고.

@2 그지예, 허는 거 영 보고.

#1 예.

@2 그민 그때는 그 사람덜한테 영 부탁하면은 저기 샅은 솔로 주는 거라? 갖다 주는 거라, 고맙수다 허는 거라?

#1 계난 그 관계. 관계, 관계.

@2 으.

#1 부탁하는 사람하고 만들어 주는 사람 관계. 냉정헌 관계면은 잘 물어야 돼고.

@2 예.

#1 그렇지 않은 관계면 그냥 멘들아 주고.

@2 예.

#1 지금도 난 같은 걸로 보는데 살아가는 것은.

@2 예.

#1 그때나 이때나 뭐 인심은 그때가 훨씬 좋았주만은.

@1 예, 예.

@2 네, 고맙습니다.

7. 제주시 일도1동

- 조사 일시: 2021년 7월 1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고순희
- 제보자: #1 송희순 #2 박문선

- 조사 일시: 2021년 7월 1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2 김보향 @3 고순희
- 제보자: #1 송희순 #2 박문선

제보자 정보

@1 오늘을 칠월 일일이고 오늘 동문통에 한복 만드시고 수의 만드시는 선생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어르신 성함은 어떻게 뵈셔마씨?

#1 송 자, 희 자, 순 자.

@1 송희순 어르신예?

#1 예.

@1 올해 연세는 어떻게 뵈셔수과?

#1 예.

@1 몇 년생?

#1 우리 나이로 팔십셋. 삼십구 년생.

@1 삼십구 년생. 무신 해치마씨?

#1 토끼띠.

@1 토끼띠? 토끼띠.

@2 네.

@1 하하하. 원래 제주도 제주시서 태어났수과?

#1 아니, 함덕, 함덕.

@1 아, 원래 함덕. 함덕. 우리 시어머니도 함덕인디.

#1 누구론고?

@2 누구론고?

@1 강○○라고?

#1 아고, 많이 듣긴 들어났자 아는 사람인디.

@1 으.

#1 얼른 기억이 안 나지.

@1 아, 동생도 있었는데, 동생 이름이, 이모 이름이 뭐드라만은? 하하하. 강, 강 형제 중에 강○○.

#1 ○○이도 아는 사람인디.

@1 예, 그 집안마씨.

#1 어느 도나린고, 기억이.

@1 예, 예. 아, 함덕 분이시구나, 예.

#1 우리 여녕거리털은 대개 다 알쥬. 쟤디 요지금은 강 보믄 다털 없어.

@1 그지, 함덕 안 사니까예.
 #1 나와 분 지가 워낙 오래 부니까.
 @1 언제 계남 제주시로 이사오디가?
 #1 제주시로 이사오건 데, 예, 한 오십 년.
 @1 아. 마흔 한, 마흔, 서른 삼십 대에 나오셨구나예?
 #1 삼십 댐 아니라도 거의 사십 대.
 @1 으, 아이덜 학교 보내고 허젠 허난 이쪽으로 나오디가?
 #1 것도 아니지. 하도 못 먹으니까.
 @1 으.
 #1 돈 벌어서, 애덜 하도 굶으니까 이제 밥 먹게, 밥이라도 헤 줘 불라고.
 @1 허허허.
 #1 우리 여기 웨사촌 언니가 사니까 막 고생헌텐 소릴 들어 가지고.
 @1 음.
 #1 시장에 칸 하나 빌어 노크메 와서 바느질헤 보라.
 @1 아, 여기 동문시장에 그러면?
 #1 동문시장에 완 으. 바느질을 헛는데.
 @1 으.
 #1 시장 안에서는 일 년 헛나?
 @1 으.
 #1 일 년 헤 가지고 이제 바꿨데 나강 주단 집이서가 바느질 잘 현다고 해서 손님을 보 내 줘. 저 고영자 상회허고 옛날 상회에서. 경행 보내 주니까 이제 가인 집으로 저 칠성통 일반 집 빌어 가지고 거기서.
 (잡담)
 @1 계남 학교는 옛날에 어디까지?
 #1 못 헛어. 아무것도 못 헛어.
 @1 아.
 #1 학교 텅겨 보질 못헛어.
 @1 아. 옛날엔예.
 #1 아니 옛날이 아니라도 나 원래 태 설은 땅은 저 교래리.
 @1 아, 원래.
 #1 우리 아버님네는 함덕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 우리 하르부지 살 때 귀향을 보내버리니까.
 @1 으.
 #1 나 혼차만, 딸이 다섯 갠디 나 혼차만 거기에서 태어났어.
 @1 아. 원래 고향은 함덕인데?
 #1 함덕인데.
 @1 그디 강 태어나신디 그걸 태 슬은 땅이엔 곱읍니까?
 #1 으. 거기서 태를 사랏거든, 나 난 태를.
 @1 아.

#1 태를 사르니까 태 사른 땅은 드리.
 @1 예, 드리.
 #1 사삼사건에 내려왔주.
 @1 아, 기구나예.
 #1 사삼사건에 내려오니까 아홉 설.
 @1 으.
 #1 아홉 설이난 학교를 아버지는 보낼라고 막 헛는데 학교를 가기는 갖어. 갖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일곱 설짜린데 나는 그러다 보니까 열 설이 뻗어.
 @1 예.
 #1 열 설에 학교 가니까 그냥 저 어멍 왔저.
 @1 하하, 놀리는 걸로.
 #1 으, 막. 나가 한쪽 장애가, 다리가 장애가 있으니까 저 쫄쫄쫄쫄하는 아이 왔저, 쫄쫄, 쫄쫄. 그것에, 이제 같았으면 거 아무것도 아닌데.
 @1 그 나이에는데?
 #1 그 나이에는 그거를 버쳐 가지고. 영원히 죽어도 안 텅기켄. 게난 우리 아버지 허는 말이 그러면 공부만이 다가 아니고.
 @1 으.
 #1 곳곳허게 사는 것만 베와라. 고정허게 사는 식만 배우면은 공부가 경 아주 많이 큰 건 아니라고 경헤영 공부를 못 헛지.
 @1 으.
 #1 그리고 국민학생덜 강 공부허는 거 보문 요런 마도, 마도 창에 저 바껏데 요로큼 넓어.
 @1 으.
 #1 그러문 그디 강 앞양 공부를 허는 거, 학생덜 보멍 거기서 손가락으로, 뭐 경 안허면 유리 조각 가정 강 기억 허문 기억 썩 같이 그디서 기억 허고 니은 허문 니은 썩 니은 허고.
 @1 누게 곶아 주지 안해도?
 #1 으. 그렇게 헛서 하나하나 좀 베와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참 착허덴 맨날 우리 집이 오라고, 맨날 우리 집이 오렌.
 @1 으.
 #1 겐 그디 강 그자 워낙 막 노인덜 노인 양반덜, 게난 이제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밥헤 드리고 죽 꿩여 주고. 고등어죽 꿩영 허문 잘도 느 꿩인 거 맛종덴 허멍 그거 꿩영 안네고 경허면서 하나하나 배운 게 한글허고 아라비아 숫자는 그때 깨우천.
 @1 예. 겐, 바농질, 바느질은 언제부터 헿 시작헌 거파?
 #1 바느질은 어릴 때부터 헛어.
 @1 음.
 #1 어릴 때부터 헛는데 학실히 남으 거 받아서 허는 거는 열여덟 설부터.
 @1 음. 그 전에는 게민 어떻헤근예? 어무니네 허는 거 뵙 헌 거파?
 #1 그때엔 그냥 한복덜 허영 막 곱게 입는 거 보문 이제 나도 이제, 언니들이 바느질을 잘헤여.

@1 아.

#1 어머니도 잘했고. 계난 그거를 자꾸 헤 도련 허믄 안 헤 주니까 한 번은 팔월 멩질은 뉘고 형 보고 헤 달렌 허니까 여기서는 소 먹을 출 빈다고.

@1 으.

#1 출 비레 매날 뉘겨 가지고 바빵 못 허켄 안 헤 주니까 전부 원단을 짤라 가지고 다 이제 그 저고리 갖다 놓고 이제 우이로 인두질 해서 우이로 다 도련을 꺾어서 손골 놔 가지고 옷을 만들언 입었어. 입으난 저 함덕 오일장에 가시난 포목 장사들이 야, 요 죽은년 보라. 함덕서는 도나리 여기서나 저기서나 나가 죽은, 그 집의 죽은년.

@1 죽은년이라?

#1 죽은년. “아이고, 요 죽은년 지냥으로 옷 행 입영 나온 거 보라. 나온 거 보라.” 그게 바느질을 헛어.

@1 으.

#1 경혜근에.

@1 그게 멧 설 때쯤이파?

#1 그게 열여덟.

@1 그게 열여덟, 으.

#1 경행 하다가 한 스물 살쯤 뉘니까 아니, 열여덟 그렇게 허면서 저 제주도 양재학원 잇어났어. 고○○ 선생이 찰령 허는데 예, 일 회는 끝나고 이 회차 나가 들어왕 양재학원을 헛거든요.

@1 으.

#1 그 양재학원 헤 가지고, 졸업헤 가지고 함덕 가서 양장점을 출령 교복을 헛어.

@2 하하하.

#1 교복을 허는데 교복 허렌 안 오고.

@1 으.

#1 동넛 할망 하르방뉘이 갈중의 적삼만 멘들아 달렌 맨날 그냥 오는 게.

@1 하하하. 양장 행 와신디.

#1 양장, 학생뉘 받기도 바쁘데 갈중의 적삼만 헤 도련 허면은, 밤에는 이제 갈중의 적삼 헤 드리고. 그렇게 허다 보니까 이제 색시옷을 허기 시작헛어.

@1 으.

#1 계난 이제 계속 색시옷이 막 때 밀리는 거라, 밤낮.

@1 아.

#1 경현 것이 이제 양장은 멀어 불고.

@1 어, 허허허.

#1 이젠 한복. 이젠 혼섯옷뉘, 호상 거튼 것뉘 이제 쪽 이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나 이제 호상 같은 것도 딴 사람은 못 헤도 나는 그냥 곁에서 바느질은 허니까 말로만 어무니가 어뉘 어뉘 허영 만들라 허민 그추룩 행 만들언 쪽 현 것이 바느질을 헛쥬.

@1 계난 주로 집에서, 저기 한복이랑 관련뉘 건 어무니한테서 많이 배우셨네예?

#1 그렇쥬, 어무니. 형.

@1 어무니하고 성예?

#1 형.

@1 계난 딸 중에 막내파?

#1 막내.

@1 음.

#1 딸 다섯 중에서 막내.

@1 딸 다섯에서 막내. 겐 주로 옛날에는 갈중의 적삼 같은 거 하고?

#1 옛날에는 갈중의 적삼, 이제 미녕 나오면 그걸로 물들영 갈중의 적삼, 기냥 겨울엔 그냥 그걸로 안팎 허영 고장중의, 단속곳 그런 거 허영 이제 노인덜토 입고 어린 애기덜토 똥고망 터진 옷 발랑 발랑 발랑 입영 뎅기는 그런 것덜 계속헤영 입고 그다음에는 땃이 나왔나 허면 그 무명으로 골무명이라고 골을 지게.

@1 아.

#1 색깔로 삼 색깔 골을 놔 가지고, 그 골을 해서 무명을 무명으로 짚어. 그게 별다르다고 헤영 그냥 치마에 저고리에 그걸로 이제 한참 헤연 낫나난 그다음은 유행은 나 한 삼십 오 세쯤 뒤엿을 거여. 그다음 유행은 아주 멋지고 좋은 거 나왔텐 허영 미리단.

@1 미리단?

#1 미리단이라고 아주 곱게 무명으로 빠도 곱게, 요지금 현대식 이제 짜는 식처럼 그렇게 해서 나와. 이젠 그 미리단으로 계속 한복을 멘들았죠, 멘들안 그거 만들면서 명주가 나오기 시작을 헛어.

@1 아.

#1 멩주덜이.

@1 옛날엔.

#1 그전에는 명주가 있어도 간혹 나오니까 좀처럼 사람 눈에 켜리지를 안헛지만은 글로 부떠는 이젠 멩주가 많이 널어졌쥬. 겐 이제 그걸로 장옷 뉘, 도복, 호상.

무명

@1 옛날에 삼춘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열여덜 살 때쯤이렌 생각허면 그때는 옷감이 주로 미녕이라났수과?

#1 주로 무명.

@1 무명이엔 곧앗수과, 미녕이엔 곧앗수과?

#1 무명.

@1 미녕이렌 곧진 안허고?

#1 미녕이 아니고 무명.

@1 음.

@2 그거 다 육지서 들어오는 거마씨?

#1 아니, 제주서도 짜고 육지서도 짜고 우리 대한민국 그거 전부 안 나오는 디가 엇어.

@2 계난 삼춘은 그거 짜보진 안허고?

#1 짜보진 안허고.

@2 들어오는 걸로 옷 만든 거라예?
 #1 여기서 짜는 사람도 잊었어.
 @2 예.
 #1 겐디예. 여기서 짜는 사람덜은 어른들이고.
 @2 음.
 #1 우리 어머니네 여녕거리.
 @1 예.
 #1 우리까지는 그런 거, 짜는 거는 봤지만은 짜 보진 안했어.
 @1 그 미녕도 종류가, 무명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잊어났수파, 옛날에?
 #1 아니. 미녕하고 골미녕뿐. 그다음은 광목.
 @1 어. 미녕도 막 종류, 옛새 미녕, 일곱새 미녕.
 #1 아, 그렇지계. 합수는 요지금 세상이나 마찬가지로. 이 오합, 육합 이추록 행, 좀 두텁게 울을 빠고 얇으게 울을 빠고 그런 건 있었지.
 @1 아, 그걸 합수엔 곱습니까?
 #1 합수, 옛날은. 육 합수, 오 합수.
 @1 오 합수 무명, 육 합수 미녕, 무명 이렇게 곱습니까?
 #1 으, 그렇게 했지.
 @1 그 무명도 빨지 안헐 때는 뽕뽕하고 뭔가 이렇게 빨면, 빨아근에 손질하면 또 다르다고 해서 뭐 토목, 생목 영허는 말도 잊은게만은.
 #1 토목, 생목도 잊었는데, 토목, 생목은 삶지 안행 나온 거. 그건 생주로 나온 거.
 @1 아, 생주로 나온 거, 으 으.
 #1 생주로 나왔는데 그게 뽕고 허믄 저 목화솜이거든.
 @1 예, 예.
 #1 목화솜인디 어떻게 짜서 경 뽕뽕하게 생주로 나왔는지 그것까지 몰르크라.
 @1 으.
 #1 그게 목화솜이면 아무리 빠도 할랑할랑해야 뽕 텐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하여튼 그냥 시커멓고 그냥 뽕뽕하게 나와나시난. 계난 그런 거는 주로 뭐 헛는고 허면 이불.
 @1 아, 이불 헐 때 쓰는 거구나예?
 #1 으. 옷을 안 허고 이불, 요 그런 거를 많이 헛주.
 @1 그럼 옛날 그 무명으로는 무슨 옷, 무슨 옷 만들양 입어난마씨?
 #1 무명으로는 안 허는 옷이 엇었주. 그것뿐이니까, 기지가. 거뿐이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뭐 그냥 어린 애기덜토 강알 터진 중의 발랑발랑, 여자 것덜토 뭐 고장중의, 뭐 단속곳 다 그걸로. 몸빼, 치마, 저고리.
 @1 아, 다 그걸로예? 주로예?
 #1 몸빼도 이제는 우와기주만은.
 @1 으.
 #1 그때는 몸빼에다가 길이를 길게. 한 육십오 센치 길이. 그렇게 놔 가지고 길게 허영 이까지 더꺼지게 우와게처럼 경 헤영 저고리 겨울에는 저고리 여름엔 홉걸로 허영 적삼.

@1 예.

#1 경허명 다 입었고.

명주

@1 으음. 그믐 그다음에 멩지, 명주 나오기 시작헌 게 겨난?

#1 명주 나오기 시작은 현디 명주는 일반으로는 잘 안 입고.

@1 음.

#1 그냥 대개는 수의.

@1 예.

#1 대개는 수의로만 입었주. 이 어느 순간에 명주가 특수가공이 들어간 특수가공 나온 후에는 계속 그냥 우리 이지금 일반 옷처럼.

@1 예, 예.

#1 경헨 나와 부난예.

@1 겨난 멩지로는 주로 혼서복 허고 수의, 호상옷 허고.

#1 호상옷 허고 수의, 수의 허는 거는 특수가공 처리가 안 뉼 거고 일반옷 허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대구서 공장이 나 가지고.

@1 음.

#1 특수가공 처리를 헛나 봐. 나 눈으로 안 봐도이, 생각이.

@1 선이, 영 느낌이 다를 거 닐아.

#1 생각이. 경헨 특수가공 나오기 시작허니까 이제. 옛날은 물색 명주가 나오민 하루 이틀만 앓아 멩기면 바라 버려.

@1 색깔이?

#1 색깔이. 그렇게 그렇게 빨리. 겨난 이제 가만히 생각헿 보믄 민물에 그냥 물감을 타 가지고 그냥 담갓당 건진 거 아닌가?

@1 아.

#1 보지는 안헛는데 경 허니까 금방 헤서 발지. 그렇지 앓으믄 그게 삶으면서 헨 거믄 그렇게 발질 안허지. 경헿 한참 뉼기 시작헌 후에부터는 인자 그렇게 바는 게 좀 덜 헤지. 지금도.

@1 으.

#1 특수 가공 안 나왕 그냥 명주는 호상옷, 수의 허는 명주는 달라요.

@1 음.

#1 지금도. 이제 워낙 이제 잘 가냥덜을 허니까 그렇지.

@1 음.

#1 어디 뉬이나 트명으로 들어오는 디는 그냥 헤영케 바라 불지.

명주 종류

@1 멩지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무신 멩지, 무신 멩지 영 곤는?

#1 멩지 여러 개 뉼 토멩지허고 기계 멩, 기계 명주허고 여러 종류가 없는데 뉼 생지 잇고.

@1 으.

#1 그냥 워엔 엇고 이제 다듬아 가지고 가공 튀엿 나오는 명주가 잇고.

@1 게민 생주가 가공 안 뉼 거파?

#1 가공 안 뉼서 그것도, 그것도 나가, 그거 허는 걸 안 봐서 모르는데, 명주도 짠 명주 올은 부드럽거든.

@1 으.

#1 경헌디 그 생지엔 현 거는 뵁뵁해. 겐 그거꺼지는 어떻게 나오는 걸 몰르크라.

@1 으.

#1 생주는 뵁뵁허고 그냥 즉사는 그냥 일반 멩주로 그냥 할랑할랑하고. 그것에서 특수가 공 처리를 허엿 잘 다듬으면은 흥두께니 그렇게 나오는 거.

@1 아까 토멩지엔도?

#1 토멩지는 손으로 짠 멩지.

@1 아.

#1 손으로 짠 멩지는 토멩지. 우리 제주도 사름덜도 막 가는 올도 손으로 짜낫어. 게난 그거 보고는 토멩지.

@1 예.

#1 게난 이제 영 보든 멩지에 토지, 토지 행 나오는 게 지금은 토지 행 나와도 기계에서 행 나오는 거 잇고 손으로 짜는 명주는 아주 엇어지지 안허엿 짜긴 짜는데, 이제 사름덜이 그거를 잘 안 짜젠 허니까 보니까 기계주도 토멩지엔 행 좀 올을 굵게 빠져 나오는 거 같아.

@1 아, 그민 가격은 토멩지가 더 비쌘니까?

#1 완전 비싸주.

@1 사람이 허는 거난예?

#1 완전 비싸주, 토멩지가.

@1 옛날엔 아니언?

#1 옛날은 기냥 토멩지허고 분지베끼 엇엿주께. 생멩주는 애당초 여름에 치마 적삼이나 생멩주 이제 생각허건 헤여 보든 그건 뵁뵁허고 흥뵁 얇게 헤 가지고 치마 허고 적삼허고 더울 때 입을라고 생주를 뽑았나 봐.

@1 아.

#1 그렇게 헤서 경 뵁뵁허게 뽑은 거 같아. 거 기냥 가공허엿 나오는 걸 삶아서 나오는 거는 생주 나오지 안허는디 토지가 잇고, 분지가 있어, 또.

@1 분진 무신거마씨?

#1 분지는 제일 싸구리를 쥘 머리털 거추룩 얇게 뽑아서.

@1 어.

#1 나오는 겐데 그 누에 꼬치서 그제 좀 흥뵁 안 좋은 걸로 올을 뽑았나 봐.

@1 으.

#1 경허면 막 얇게 허면은 그냥 밀가루 생밀가루를 물에 타 가지고.

@1 예.

#1 그걸 풀을 행, 썬계.

@1 아.

#1 그렇게 행 넣어 들류왕 그냥 어느 정도만 떼령 나오주. 나오면은 미신 호상을 허당 보면 이디 가루가 헤영.

@1 밀가루가 남아 있어 가지고?

@2 하하하.

#1 밀가루가 바늘구멍에 툭 툭 툭 허믄 다 나와 가지고.

@2 아.

#1 경 허믄 옛날 어른덜 이제도 그게 있어.

@2 아.

#1 이제도 이 싹 거 취급허는 허는 그거를 써요.

@2 아.

#1 겐디 놔두면 할망덜 아이고 좀먹어 벳저, 어뎡 행 좋고 헨 게.

@2 밀가루?

#1 그거 밀가루가 싹 밀가루로 헤 노니까 그것에 좀이 생겨서 다 먹어 부는 거. 고비, 고비마다. 계난 그거 다 먹어 불면, 좀먹어 불면, 좀먹어 분 거 입정 돌아가신 분 입지면은 후대가 끊어진단. 그래.

@1 다시 한 번 곶아 줍서, 좀먹은 호상?

#1 좀먹은 호상을 입영, 죽은 사름을 입지면 그 사람 묻으면은 그 사람 아래는 후대가 엇인덴, 끊어진덴.

@1 아, 후대가 끊어진덴.

#1 으, 건 분명헤여.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끊어졌어.

@1 아, 진짜마씨?

#1 으, 우리 아버지도.

@1 음.

#1 우리 아버지도, 난 처녀 때니까 분시 몰란 우리 아버지 환갑에 나가 처녀 때는 뭐 허 명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계난 이제 옛날엔 그 환갑에 그 호상을 허면 막 동네 사름덜 모 다 낵 호상 하고 멘들명.

@2 같이 하명.

#1 뉘지 잡양 막 잔치허명 호상을 헤 드렸는데 분진 거를 몰랐거든. 그 분지를 어떤 사름이 쓰는고 허믄.

@1 으.

#1 그 육지서 온, 저 강원도 분들 대구 분들 지영 텡겨, 그거를.

@2 아, 붓집으로.

#1 붓집으로 지영 텡기명 촌에 강 멩지 삼서, 멩지 삼서 허영 멩질 사면, 싸면 그거를, 이 어른덜 경 텡기는 건 전부 분지. 계난 그거를 상 호상을 다 행 놔뉘주게. 겐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십 년 전에 예순으섯에 돌아가서 부난 그 호상을 꼽닥허게 입영 가고.

@1 으.

#1 아버지는 일흔으섯 낵 십년 만이 돌아가셨는데 아, 밤이 호상을 입지젠, 밤이 시간이 나.

@1 으.

#1 경행 이제 호상을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탁탁 터니까, 옛날은 전깃불도 없었주만은 그루 후부면 전기 썬. 베롱 베롱 베롱 전깃불덜이 비취. 계난 저거 무시건고 행 보난 좀 다 먹언.

@1 아이고.

#1 좀 다 먹언, 민짜 좀먹언 그 구멍이 헛는데 이제 ㄱ타시민 그런 소릴 들어서민 입지 지 말던가 다른 아무거라도 입정.

@2 아.

#1 경 안 허민 확 판 걸 맞창이라도, 뭐 옛날엔 이녀 믿음대로난 한 삼일 영장이 늦창이라도 행 입지주만은 분시 몰를 때난 할 수 엇이 그냥 입현 돌아가섯주게.

@1 아.

#1 돌아가섯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 형 아덜이 아덜로 양제로 삼앗주. 삼앗는데 저 일본 이신 우리 아버지도 또, 우리 오라방도 딸만 두 개. 계난 대가 끊어지는 거. 계난 나가 옛말만 하면 호상이랑 굿인 거 입지지 말고.

@1 어.

#1 평생 곱게 나뉘 일천 고생 다 허명 허영 워 죽영 곱닥허게 헤영 가지 못행 허술헤게. 요지금 사름덜은 예, 슬아 불 거 뭐, 그냥 아무거나.

@1 하하하.

#1 음. 요렇게, 요렇게 생각허는 사름덜은 참 어리석은 사름 같아. 예, 죽도록 고생헤 낱 그거 하나, 이 사름은 시집갈 때 한 번 호서, 죽을 때 한 번 호서 두 번베끼 엇덴 허주게.

@1 예.

#1 경허난 그 시집갈 때 입어난 장옷을 죽을 때는 장옷 그냥 당신이 입영 가주. 그거 청 실흥싹 딱 구색이 맞은 거거든.

@1 아.

#1 계난.

모시

@1 제주도에도 모시가 옛날에도 잇어났수과?

#1 모시 안 찢어.

@1 모시 안 짜도 모시로 옷은 행 입지예?

#1 아이고, 뭐 다 행 입주게. 모시사 제주도서 *** 젤 빠른 디 아니.

@1 아. 옛날에도 모시 적삼, 치메?

#1 계난 모시 적삼, 모시 치만 산 때는 입어도 죽영은 못 놔.

@1 아, 건 무사마씨.

#1 자손덜이 머리 흰머리 난텐.

@1 아.

#1 모시 들어가면 하얀 머리 난텐 절대 죽음에는 안 놔.

@1 산 때 입어도예?

#1 산 때는 입어도. 베는, 베 제일차로 들어가주.
 @1 아.
 #1 베는. 멩지는 한 번 손이 걸리진 거고.
 @1 예.
 #1 베는 그냥 자연에서 직접 뽑은 거. 경혜 부난 베가 우선, 몸에는 젤 좋은 거.
 @1 아, 그럼 호상은 베로도?
 #1 베로 허믄 최고 좋지.
 @1 아. 멩지보다도?
 #1 아이고, 걸 말이라고. 게난 우리 제주도 사름만 싹 거 입젠 멩지가 낫주. 육지 사름은 멩지를 안 헛어.
 @1 육지선 베로예?
 #1 전부 베로.
 @1 음.
 #1 게난 직접 삼베에서 한꺼번에 반 거거든.
 @1 예.
 #1 멩지는 누에를 흔 번.
 @2 걸쳐서.
 #1 으, 목숨을 한 번 걸쳐 나오기, 경허기 때문에 건 이차 가는 거고 베는 일차로 가는 거.
 @1 경헿 모시로 주로 옷 헿 입는 거는 무슨 옷, 무슨 옷 헿 입을 수 잇어마씨?
 #1 거야, 여자 ㄱ트민 치마 적삼.
 @1 음.
 #1 못허는 것이 엿주. 뭐 단속곳 ㄱ튼 것도 그냥.
 @1 모시로도.
 #1 쫌, 쫌 뚜터운 걸로.
 @1 아.
 #1 다 허여, 그걸로도. 그냥 똑같이.
 @1 두루마기나 이런 옷도?
 #1 여자 건 아니라도 남자 건.
 @1 남자, 으.
 #1 여자는 모시로 두루막 허영.
 @1 으.
 #1 남자는 제 볼 때 입는 거기 때문에 제복이기 때문에 모시로 여름에 헤영케 입젠 허믄.
 @1 겐 팔월 멩질 때도 모시 두루막덜 입고.
 #1 그렇지계.
 @1 어른덜 막 다녀난 거 닙아마씨, 옛날에.
 #1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린 지금도 입어.
 @1 아, 지금도 입어마씨?
 #1 지금도 입어.

@1 음.

#1 계난 나 죽어 불민 몰라도 나 살 때까지는 그냥 손지덜 거 하르방 거 아들덜 거 다리 당 보민 멩질 전날은 허리 휘어져.

@1 이제도?

#1 어, 이제도. 우리 집이 애들은 상 노래도 그냥 뭐, 따비갈라 옷이엔 헤근에게, 거 따비갈라 옷이엔 허주, 저런 바지.

@1 이런 바지?

#1 이런 바지보고.

@1 따비갈라 옷.

#1 따비갈라 옷이엔.

@1 허허.

#1 헤, 밧 갈 때 입는 옷이라고.

@2 따비갈라?

#1 밧 갈 때 입는 옷이라고.

@1 따비?

#1 으.

@1 아.

#1 경형 절대 그런 거 입영 상 노래 가, 못 간텐 허여.

@1 겐 지금도 한복 입어근에 험니까?

#1 이제도 한복 입어.

@1 그럼 팔월 멩질엔 모시로?

#1 팔월 멩지에 모시로. 모시나 베나.

@1 정월 멩질엔?

#1 정월 멩질엔 양단.

@1 양단.

#1 뭐 이녁 입고 싶은 대로 실크 뭐 마음대로 입는 거. 지금 뭐 시세가 좋으난 벨 게, 벨 기지가 다 나오는다.

@1 그럼 제 볼 때는 우에 무신 거 입읍니까?

#1 어, 후루메.

@1 후루메. 두루막 허고 후루멘 다른 거마씨?

#1 두루, 저번에도 그 소리헨게만은.

@1 물어 받?

@3 옛날에, 우리.

#1 두루막은 흘거, 우리 제주도 말로, 육지서는 모르겠는데 한 겹짜리는 두루막이렌 허고 두 겹짜리는 후루메엔 헛거든.

@1 아.

#1 겻는데 선생님은 그게 그거 아니우파? 그게 그거주. 나도 닭긴 현디 겐디 이름은 틀리긴 틀려야 뉘.

@1 적삼이영 저고리도 트나게 곤는 거주.
 #1 으, 안팓이 잇고 안팓 엇는 거 허고 틀리긴 틀려.
 @1 그럼 베로는 어떤 옷 행 입는 거파?
 #1 꼭갈아.
 @1 꼭갈아?
 #1 으, 꼭갈아. 남자는 중의적삼.
 @1 으.
 #1 후루메.
 @1 으.
 #1 후루메가 아니고 두루막.
 @1 두루막. 흘겹으로?
 #1 흘겹으로.
 @1 아, 두루막 베로도 두루막 행 입는구나예?
 #1 아이고, 거 좋지. 두루막 웨로는 또 흐끔 직함 잇는 어른, 높은 어른덜은 두루막 허고 그 웨로 도복.
 @1 아, 도복.
 #1 날개 돋은 옷 그것이 큰옷이엔 헤영 제 볼 때 그거로 입주게.
 @1 아, 도복은 제복, 제 볼 때 입는 거구나예?
 #1 으, 제 볼 때.
 @1 큰옷이영 도복이영 똑ㄴ튼 말이파?
 #1 으, 큰옷이 도복.
 @1 큰옷이 도복예? 거 남자덜만 입는 거지예?
 #1 남자덜만 입는 거. 겐디 큰옷이 도복뿐만이 아니고 또 장삼이라고 있어.
 @1 어.
 #1 건 후루메에 요것만 달린 거.
 @1 어.
 #1 이것만 크게 달린 거는 장삼. 없는 사람은 또 그렇게 장삼으로 만들영도 입고.
 @1 남자 옷인데?
 #1 남자 옷인디, 남자.
 @1 아, 후루메 비슷허게 뉘신디?
 #1 으. 장삼.
 @1 요기만 영?
 #1 으, 등긴 거.
 @1 등긴 거, 음.

남자 옷 종류

@1 게민 옷 종류에 대해서 여쭙보겠는데 남자 옷예, 옛날에 어디, 옛날 삼춘 혼 서른 정도 뉘 때에 입어난 옷이라예. 젤 소꿉이서부터 뉘 지금은 넌닝구 입엄주만은 옛날은 젤 속

에 남저덜, 안에 무신저 입읍니까?

#1 옛날에 그걸로 난닝구 만들언 입엇주.

@1 아, 밖에 입는 적삼이영 똑ㄴ튼 걸로 난닝구 만들엇구나예?

#1 으, 똑ㄴ튼 걸 허던가 경 안 허민 좀 째 거 훑은 썬을 허던가. 다 그덜베끼, 기체가
엇이난 것덜베끼 못 입을 거 아니?

@1 그것도 난닝구렌 곱읍니까? 옛날엔 다른 말로 곱앗수파?

#1 아니, 옛날도, 몰라. 몰라도 나가 잇어붙엇는지 몰라도 옛날도 년닝구.

@1 밑에, 밑에 팬티는?

#1 팬티는 그냥 제주도 말로 반스.

@1 반스예?

#1 으.

@1 반스 입고, 년닝구 입고.

#1 년닝구 입고.

@1 그다음에 여름에는 적삼 입고.

#1 적삼 입고.

@1 바지, 밑에는?

#1 으, 중의 입고.

@1 중의 입고.

#1 으.

@1 그다음 어디 외방이라도 가젠 허민 우이 무시거?

#1 외방 가젠 허면은 쪼끼.

@1 아, 쪼끼.

#1 으, 후루메는 안 입고.

@1 으.

#1 이제 쪼끼 이제 남자덜은 보게트 죽건 살건 담배 피와야 돼니까.

@1 하하하.

#1 계난 쪼끼.

@1 쪼끼까지만 입어?

#1 으, 쪼끼까지만. 어디 큰일에 영장이 낫저 허든가 대소상 칩이 갈 때는 후루메를 돌
돌 뭉크령 뒷손 쳐 아저근에게 뒷손에 잡아 아정 강 저 어른은 빈차 왓신가? 어뎡 제 보젠
정 행 왓신고 허면은 탁 상 앞이 강 상 탁 탁탁 털엉, 후루메 가정 갓당.

@1 하하하.

#1 경행 입엉 그냥 절허영 이제 톨톨 나오민 들앙, 경허영 이제 갈 때 가정 가고.

@1 으.

#1 옛날에 경헛주.

@1 계난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1 겨울에도 똑같애. 내나 마찬가지로.

@1 어.

#1 바지저고리.

@1 예.

#1 중의적삼광 바지저고리광.

@1 그거민 뉘는 거?

#1 으, 으. 후루메도 이젠 두루막이 아니고 후루메.

@1 예.

#1 그 식으로 그냥. ㄴ대로.

@1 으. 밑에 저 대님도 차고예?

#1 당연히 다님이 있고. 다님뿐이 아니고 행경을 해야주.

@1 아, 예.

#1 큰일칩이 갈 때는 행경을 꼭 해야 뉘.

@1 큰일칩 갈 때는 행경 허고예?

#1 으.

@1 버선 신고예?

#1 보선 신고 행경 허고.

여자 옷 종류

@1 여자, 이번엔 여자예. 여자 어른이 어디 저 어디 큰일칩이 갈 거라예. 경허젠 허민 그 삼춘도 속에, 옛날에 여자, 여자분도 넌닝구 입엇수파?

#1 소곶에 아무것도 안 입어.

@1 아.

#1 이제 고장 중일 입던가 단속곳을 입던가 건 겨울 여름에 따라서 이제 겹겨 훌거뿐인 데 똑가트주게.

@1 으.

#1 이제 소중기 입곡.

@1 으.

#1 그 우에 단속곳 입곡.

@1 으.

#1 그 우에 치마 입고.

@1 으.

#1 그 우에 적삼, 겨울이든 저고리.

@1 적삼 혹은 저고리예?

#1 으.

@1 계난 아까 단속곳 말고 고장중의는 여름 거, 계문?

#1 고장중의는 겨울 거라도.

@1 아, 겨울 거.

#1 고장중의는 영 길고 강알이 터진 거.

@1 아.

#1 젠디 단속곳도 옛날에 강알이 터지었는데 웨겍이고 졸른 거.

@1 아. 게민 여름에는 단속곳 입어서쿠다예?

#1 그렇주, 단속곳 입엇주.

@1 그믄 치마저고리 입고 그 우터레 뭐 안 걸칩니까?

#1 으, 아무것도 안 걸쳐.

@1 여자는?

#1 으, 여자는 안 걸쳐.

아이 옷

@1 으. 그다음에는 아이덜 아까 아이덜예, 강알 터진 옷도 잇고 험니께. 그 바진 혹시 무신 바지엔 험니까?

#1 계난 그건 그냥, 글썽 거 무슨 바지엔 험신고? 것도 생각남 직허다만은.

#2 고장중의라 허지 안했어요?

#1 아니, 애기덜 건 고장중의렌 안 험어. 그거 무슨 코바지엔 험는데이.

@1 강알 터진 바지, 개구멍 바지 뭐 이렇게는 많이들 애기하는데.

#1 개구멍은 제주도 거.

@1 제주도 건 아니라예.

@2 강알 터진 바지, 그냥.

#1 아니 강알 터진 바지도 기고, 무슨.

@1 또 다르게 곤는 말?

#1 무슨 꼬쟁이 바지라고, 무슨 꼬쟁이 바지라고 험는데 생각이 안 나네.

@1 흐끔 잇당 생각나 걸랑 곶아 줍서예. 애기는, 애기 태어나민 처음에 붓디창옷 입진텐예?

#1 붓디창옷이 아니고, 붓딛저고리.

@1 붓딛저고리, 예.

#1 창옷이엔 현 건 언제나 무릅 알더레 내려가야 창옷이 뉘고.

@1 저고리는 우에. 으음. 계난 처음에 입지는 건 붓딛저고리.

#1 붓딛저고리. 웨 입히냐.

@1 으.

#1 이제 베는 까슬까슬허거든.

@1 예.

#1 계난 애기덜 몸을 굽어 췌 그걸로 이제 입정 삼일만 입지면은 일후에 커나도 근지롭지 안헌덴.

@1 아.

#1 그거 안 입진 애기는 근지롭고, 그거 입진 애기는 안 근지로운덴.

@1 게민 베로 험 멘든 거파, 그건?

#1 베로 험 만드는 거.

@1 겨울에도 베로 멘듭니까?

#1 겨울에도 그거 입혀.

@1 어. 삼 일만 입히민 뉘마씨?
 #1 삼 일만 입혀.
 @1 으. 붓디저고리는 다른 저고리영 흐뎡 뉘가 다텔니까?
 #1 다를 것도 것도 엇주. 그냥 만들기, 허접이 옷추룩 바로 허접이 옷처럼 멘들앙 승녕 승녕 만들앙 삼일 입형 마는 거난 이런 디 바우도 안 허고, 걸론.
 @1 으.
 #1 이런 디도 바우도 안 허고.
 @1 으.
 #1 난 다 바우 허영 멘들아났저만은.
 @1 음.
 #1 그추룩 행 그냥 입지는 거. 그냥 그걸로도 꼭꼭 찢러 불렌.
 @2 아, 바우로도 꼭꼭 찢러 불렌. 솔, 솔을?
 #1 으.
 @1 이거 소매, 소매도 막 길게.
 #1 으.
 @1 굽어 불지 못허게.
 #1 손 굽지 못허게.
 @1 소매 길게 허고?
 #1 으, 소매 길게.
 @1 뉘, 이런 디 아무것도, 짓이나 아무것도 안 허고예?
 #1 짓 아무 것도 안 헌디 옷 고름만 두 개. 영 흠청 이깁지 돌아오주.
 @1 예. 한 바퀴 돌아예?
 #1 으아니 앞섭이 이깁지 오면 이깁지 돌아오주.
 @1 앞섭이 흐뎡 길구나예?
 #1 더퍼.
 @1 더퍼지게.
 #1 으, 으. 그추룩 행 이제 고름 질게 행 일로 하난 오곡 쪽른 건 여디 잇고 행 여기서 이제 메어지주.
 @1 삼춘 애기털 입저난 거 아직도 잇수과?
 #1 입저난 거 잇어도 툄털 애기날 때 가져단 어디사 불어신디 몰른디 손지털 이제 가문 입지젠 다 멘들아 낫주. 흐 여남은 별.
 @1 하하하.
 #1 계난 작년 재작년인가.
 @1 으.
 #1 웨손손이 하나 태어나난 그거 행 멘들아났단 주난 어 할무니 이제 이거 안 입혀요. 모두 하하하.
 #1 이거 찢러 불어 가지고 애기 부드러운 솔.
 @1 으.

#1 그래도 이걸 입혀야 된다 허난 조산원에 가져 가난 그거 입히는 거엔 헨 그거 할머니 입히는 거냐고 막 경해도 베 좋은 거니까 괜찮다고 해서 입졌어요.

@1 증손 댈 철이파, 계난?

#1 아니, 손손. 손손.

@1 으,

#1 응, 증손 맞아.

@ 증손예, 손지에 손지. 손손이엔 허는구나예?

#1 으. 손손. 나 손지가 문딱 행 이제 스물둘.

@2 와.

#1 이제 하나 나쁜 스물셋. 손손까지.

@1 아니 자식이?

#1 너 오누이에.

@1 너 오누이에. 손지가, 아까?

#1 손지가 스물셋. 이제 하나 배어서 이제 팔월에 하나 낳 거 이시난 스물셋.

@1 으음.

#1 나 판 건 부자가 아닌데 애기덜은 부자.

@2 아, 아.

#1 그거 부자.

@1 아이구, 손 솜씨 좋은 것도 솜씨 부자 아니파?

@2 맞아, 맞아.

@1 아무나 못 해.

#1 아니 헐라고 해서 안 허는 거지.

@1 으.

#1 다 헐라고 열심히 허면 다 헤여. 여기 사장님 기똥나게 잘해.

@1 아.

#1 영 몇 마디만 영 이야기헤 쥘 놔두민.

@1 알아근에.

#1 잘해. 계난 헐라고만 딱 마음을 먹으면은 다 헤여. 못 헐 거 없어.

바지 부분 명칭

@1 이번에 바지저고리 이런 치마 이런 데 부분 명칭 좀 여쭙 볼려고예. 옛날 제주도에 서 곶아난 말로. 육깃말로 표준말로 말고. 바지도 저기 보임신게. 한복 바지.

#1 으, 바지민 바지지, 뭐.

@1 아니, 바지에 뭐 상복 잇고 뭐 셋복 이런 거 잇수께. 큰셋복, 작은셋복?

@2 모름질헐 때.

#1 아아, 그거는 재단헐 때.

@1 으, 으.

#1 만들어 논 게 아니고, 으.

@1 어디가 큰셋복 뉘 철이파?
 #1 큰셋복은 아래서 우꺼지 요렇게 삼각정 올라가는 게 기고.
 @1 으.
 #1 적은셋복은 여기서 요렇게 이거 혼 도막, 이거 혼 도막 끊어진 게 적은셋복이주.
 @1 적은셋복. 그럼 큰셋복하고 죽은셋복만 이시민 뉘니까?
 #1 상복도 있어야주.
 @1 상복.
 #1 상복이 둘.
 @1 상복이 두 개.
 #1 죽은셋복이 둘.
 @1 죽은셋복이 두 개.
 #1 큰셋복이 둘.
 @1 큰셋복이 둘.
 #1 허리.
 @1 허리. 그민 그거 일곱 개 이시민 뉘 철이파?
 #1 일곱 개만 이시민 뉘어? 허리띠.
 @1 허리띠. 또?
 #1 다님.
 @1 다님.
 #1 양쪽 두 개.
 @1 으. 다님 차는 디는 따로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뉘?
 #1 안 만들고. 옛날은 그냥 다님으로 무경 입어야 곱고.
 @1 요즘엔 단추로 그냥 영 헤도예?
 #1 으, 요지금은 단추로 헤. 계난 한복 입는 모양이 아니고 요즘 개량복이니 뉘니 한복이 아니주게.
 @1 음.
 #1 건 이름덜을.
 @1 으.
 #1 너무 잘못 부찌는 거.
 @1 아.
 #1 그 사람덜은 돈 벌기 위해서 물론이지만은 헤도.
 @1 음, 음.
 #1 요지금들 개량 한복 허영 아이고 곱다, 새각시덜도 다 그거 입고.
 @1 맞아마씨.
 #1 또 주책 박아지게 새각시 어명, 새시방 어명.
 @1 어.
 #1 그거를 어떤 딴 강 보믄 탁 입영.
 @1 아.

#1 그건 예의범절이 아니라.

@2 아.

#1 예절에 건 어긋난 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주. 이 아덜 풀 때 딸 팔 때 거추
룩 사람 일생에 나 가지고 큰 행사는 이게 제일 큰. 집을 사고 밧을 사고 아무 것도 아니
고 자식 팔 때가 가장 큰 행산데.

@1 으.

#1 그럴 때 예절을 못 궂추면은 그건 아니주게.

@ 아.

#1 다 잔칫옷도 옛 법이 있어. 하늘허고 땅. 가리치는 게. 남자는 푸린 색 여자는 푸린 색.

@1 오. 그 신랑, 아덜 풀 때 어멍이 입는 한복 색은?

#1 푸린 색.

@1 예, 예.

#1 딸 풀 때 어멍은 붉은 색.

@1 붉은 색예.

#1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은 높고 땅은 나잡넨 옛날은 남자덜도 여
자를 막 두드리고.

@1 맞아, 맞아.

#1 계난 천벌 받앙 이젠 꺼꾸로.

@1 하하하.

#1 꺼꾸로 뵈주게.

저고리 부분 명칭

@1 으. 바지는 경허고 저고리는 계민 무신 거 무신 거 험니까?

#1 저고린.

@1 뭉를 때.

#1 뭉를 때.

@1 으, 으. 이몸?

#1 이몸 양짜.

@1 이몸 양짜 잇고 그다음?

#1 풀 양짜.

@1 풀 양짜 잇고.

#1 앞이 밧섭, 안섭.

@1 밧섭, 안섭.

#1 깃.

@1 깃.

#1 웃고름 둘.

@1 웃고름 두 개. 겨민 뵈 철이짜?

#1 으, 겨민 뵈 철.

@1 소미는 하나 통으로 돼 잇는 거지예?

#1 으, 통으로 돼 잇는 거주게.

@1 으, 으. 경히고.

#1 짓도 베 모시는 두 조각에 들어가지만은 그거를 ㄱ찌 따로 비교힐 수는 엇주게. 그냥 소매 하나면 보통 하나로 들어가야.

@1 음. 베 모시 힐 때는?

#1 베 모시 힐 때는 하바가 좁으니까.

@1 하바가 죽으난.

#1 으.

@1 두 개 부쳐근예.

#1 으, 두 개 부쳐. 두 개가 들어가지.

치마 부분 명칭

@1 겨른 바지하고 저고리 뻬고. 여자 치마하고 저고리는? 치마는?

#1 치마는 예, 베던 모시던 뭐 요지금.

@1 뻬ت 폭 잇어야?

#1 요지금 사람덜은 호상도 시장 사름덜은 여섯 폭을 부쳐 줘. 그거는 안 뻬는 거.

@1 어.

#1 저 일곱 폭을 부쳐야 우리가 입어 보른 깍을 탁 심으면 뒤에 메로(?)가 고와야 뻬는 데 여섯 폭을 부치면 다 돌아가 붙어.

@2 아. 이렇게 잡았을 때.

#1 으.

@2 폭이 넉넉해야.

#1 그렇지 앞에 건 돌아가지 말아야 뻬는데 다 돌아가. 게난 우리는 폭 일곱 폭을 부쳐. 베던 명주던 모시던.

@1 으.

#1 겐디 요 시장 사름덜은 다. 그러니까 멩주 적게 들엄젠.

@1 아끼젠예.

#1 우린 여섯 필 가지면은 큰 사람은 손수건 다섯 개가 안 나와.

@1 음. 호상힐 때?

#1 호상힐 때. 적은 사람은 손수건 열 개, 열두 개, 열세 개 그렇게 나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섯 필도 다 안 들어간덴.

@1 아.

#1 이불 만드는 식도 원 이불로 안 만들고 기냥 이게 멩지가 두 개면 기냥 두 개 영 낡 우알로 낡 영 드르르 허게 영 박앙 뒤집으면 이불 요. 그렇게 뻬. 우리는 폭 반씩 부치고 우에 거는 두 폭씩 부치고 영 헤영 원 츠레로 이불을 딱 만들어 주는데 시장에는 그렇게 안 만들어. 그냥.

@1 치메는 그럼 여섯 폭, 아 일곱 폭 허고.

#1 일곱 폭 허고.
@1 우에 허리.
#1 허리 하나 하고.
@1 허리 하나 하고.
#1 웃고름 둘.
@1 허리에 골름예?
#1 으.

여자 저고리 명칭

@1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예? 그다음에 저고리는, 여자 저고리는?
#1 여자 저고리 마찬가지로 아니?
@1 이몸허고 소미허고 앞섭.
#1 으, 앞섭.
@1 안섭, 밧섭 그다음엔 골름.
#1 웃고름만 두 개 틀리지 다른 건 안팎 똑같이, 뭐. 안에는 웃고름이 안 부트는 거니까.
@1 예, 예.
#1 켄디 기지가 뭐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웃고름 두 개만 겹풀에 부뜨는 거.
@1 음. 두루마기는? 두루마기는 옆에 영 부치는 거 무신거엔 끈는 거 잇수파?
#1 옆에 미가.
@1 으.
#1 남자 거는 그냥 일반 웃으로?
@1 으.
#1 일반 웃으로는 미가 한쪽에 두 개씩 네 개.
@1 음. 앞뒤로?
#1 아니, 이짜, 이짜.
@1 이짜, 이짜.
#1 원 이몸이 두 개. 이짜 하나 이짜 하나 이몸 둘.
@1 그다음에 미도 두 개씩.
#1 미는 한 착에 두 개씩 네 개.
@1 으.
#1 밧섭 하나, 안섭 하나.
@1 밧섭 하나, 안섭 하나.
#1 깃.
@1 그다음 소매.
#1 맞아, 소매. 소매 둘허고 그다음은 깃, 그다음은 웃고름 둘.
@1 으, 경허민 뉼 철예?
#1 그렇게 들어가민 뉼 거.

버선 부분 명칭

@1 보선도 이것도 이거 이름이 잇수파? 앞에는 코지엔 허고?

#1 당코 버선도 잇고.

@1 당코 보선은 무신거마씨?

#1 당코 보선은.

@1 예.

#1 저 코에다가 복숭아 가다 놔.

@1 무신 가다?

#1 복숭아 가다.

@1 복숭아 가다.

@2 아.

#1 코에.

@1 그다음에 여기 앞코지, 뒤치기?

#1 으.

@1 경허는 말 이수께. 안 벗어지게 뒤치기 우에 턱지게 험니까? 거 무신거엔 곤는 말 잇수파?

#1 애틡.

@1 애틡. 그거 안으로 영 살짝, 흐끔 영 들어가게 험 만들어야 돼지예?

#1 으, 쪽 들어가주. 흐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쪽 들어강 뒤치기가 그디 짝 들어강 탁 들어가 붙어사 벗어지지 안허주.

@1 으.

#1 그거 보선 우습게 봐도 잘못 만들면 신평 ㄱ치 나와.

@1 맞아. 신평 벗을 때 벗어져 붙어예?

#1 이지금 나이론 버선덜 나왕덜 짧은 사름덜 신평 좋덴 신평민 신평 벗을 때 맨날 나와.

@1 맞아, 맞아.

#1 애틡 엇어 붙든.

@1 애틡 엇어 붙든예. 영 신평는 앞, 신평는 앞 부분은 뭐 부르는 말 이신평가마씨? 뭐 부리? 아니면, 목 보선 목?

#1 보선목이주, 우에. 부리는 엇고.

@1 밑에 발창은?

#1 발창은 발창베끼 더 잇어?

@1 보선창? 보선목, 보선창?

#1 보선목은.

@1 으.

#1 우에가 보선목이고.

@1 으.

#1 이 애틡 우이로가.

@1 으, 으. 그 앞에 이디 앞에 요런 데는 뭐엔 곤는 거 잇수파?

#1 으, 그런 디 뭐엔 곤는데이.
 @1 으.
 #1 그것이 무슨 솔이지.
 @1 표준어론 뭇니까?
 #1 그게 무슨 솔이지?
 @1 앞에, 앞에. 버선 앞에. 요렇게 뒤면.
 @3 보선등이렌 많이 하는데.
 @1 여기 등?
 @3 예.
 @1 으.
 @3 발등처럼.
 @1 수늑은 무신 거짜, 수늑.
 #1 수늑도 애톡이 수늑.
 @1 아, 애톡이?
 #1 으.
 @3 애톡.
 @1 여기가 애톡, 여기가 애톡인데 여긴 표준어로 뭐예요?
 @3 표준어로 수늑이렌도 해.
 @1 아, 표준어로 수늑이렌 해요?
 #1 맞아, 애톡은 우리 쓰는 말이라.
 @1 제주도 말이 애톡이라.
 #1 으, 맞아, 맞아. 견디 저, 앞에는 난 처음 듣네.
 @1 보선등?
 @3 으, 보선등.
 @1 으. 기구나예.
 #1 맞아, 저것도 발등 뒤니까이.
 @1 으. 단추도예, 옛날에는 지금 삼춘 입은 옷에 단추덜도예, 거 무슨 단추엔 험니까?
 #1 들막작.
 @1 들모작. 보통 들모작으로 해수짜?
 #1 옛날사 아무것도 엇영 들막작 헛주, 다.
 @1 아.
 #1 여자 남자 험 거 엇이 들막작.
 @1 아. 게도 쪼끼나 이런 딴 험콤 영?
 #1 것도 달막작.
 @1 아, 것도.
 #1 으, 죽음에, 호상만 쪼끼에는 끄넉지.
 @1 아.
 #1 막작은 끌르지 못한다고 못 넣주. 경허문 까늘게 반앙 끄넉지.

@1 아, 끄덕지.

#1 으. 끈으로.

갈옷

@1 그다음에 갈옷 같은 것도 멘들어놔수파?

#1 갈옷, 갈옷은 완전 왕이주. (모두 하하하.)

#1 옛날엔 갈옷베끼 안 하시난?

@1 계난예. 옛날엔예.

#1 갈옷 흐 별 헤 주면 밧 흐루 갈아 줘.

@2 아, 하하하.

@1 밧 흐루 갈아 줘.

#1 이제 ㄱ트른 엄청 흐루 갈면 완전 돈이 비싸는데 옛날은 그게 잘도 싸. 흐 불만 헤 주라, 밧 갈아 주마, 밧 갈아 주마.

@1 아.

#1 그거 흐 불 헤 주민 밧 갈아 줘.

@1 밧 가는 것보다 옷 멘드는 게 더 힘들 거 닐은디.

#1 아니 경해도 옷 멘들아 주민 검질메 주켄 헤영 다 옷 해주민 다 검질 사흘씩. 옷 흐 별 헤 주민 삼 일씩 검질.

@1 삼 일씩.

@2 밧 가는 건 흐루고 검질메는 건 삼 일?

#1 삼 일.

@2 아, 예.

#1 옛날 보리쌀 흐 말에 천삼백 원 헐 때. 그 식이라.

@2 보리쌀 흐 말에 천삼백 원 헐 때.

@1 쌀로 받으민 얼마나 받는 거파? 옷 한 벌 헤 주민?

#1 솔로 받으민 두 뉘.

@1 아, 두 뉘. 쌀 두 뉘. 보리쌀로?

#1 보리쌀로 두 뉘, 옛날. 보리쌀이든 좁쌀이든 그냥 일당은 두 뉘엔 허여.

@1 그 갈옷 만들 때 그 아까 얘기한 한복 만들 때영 흐꿈 다른 거 잇수과? 남자 한복이영.

#1 남자 한복은 다르지.

@1 아, 뭐가 달라마씨?

#1 선비웃으로가 아니고, 우리 한복은 선비웃이거든 남자 거는.

@1 으.

#1 켜데 갈옷은 선비웃이 아니고 일로, 일복으로 원래 나와.

@1 으.

#1 앞섭이 없고 그냥 장식으로 여기다가 요지금 거.

@1 예, 예.

#1 원장 같은 사름덜 그렇게 많이 입어. 그런 식으로.

@1 으.

#1 양쪽에 보게트 달리고 여기 보게트 하나 달리고.

@1 우에도?

#1 우에는 무산고 허나 담배 들어갈 디.

@1 그놈에 담배는.

#1 딱 담배갑.

@1 크기가?

#1 크기가 딱. 그추룩 허고 아래 양쪽으로 두 개 들어가고.

@1 아, 우에 들어가고. 바지도 계난 상복 그런 거 안 행 만들고.

#1 똑같아.

@1 아, 바진 똑같아.

#1 으, 상복 아니 몰르면 그 미, 작은미, 큰미 잇기 때문에 옷이 안 뒤어.

@1 작은미, 큰미가 뭐마씨?

#1 바지에 아래 바지에. 미, 미. 아까 작은 폭 큰 폭.

@1 아, 아까 셋복, 큰셋복, 작은셋복?

#1 으, 으. 작은셋복 헛 거.

@1 그거 미엔 꿰옵니까?

#1 어. 그거 안 들어가민 뒤질 안허여.

@1 으.

#1 큰 복이 들어 가야 뒤, 똑ㄹ타.

@1 들어가야 뒤.

#1 으.

@1 바지는 똑ㄹ치 허고?

#1 으.

@1 우에 저고리가 헛폼 다르구나예?

#1 저구리가 달라.

@1 여자털은 치메 입엉, 치메로 갈웃은 안 헤실 거 아니꽈?

#1 치마로 갈웃은, 그냥 더우면 폭 막 적게 낵, 네 폭 낵.

@1 으.

#1 그냥 이제 거트면 잠옷처럼 그냥 등글고 그냥 집이 들어질 때 놀 때 입젠 그렇게는 행 입어도 판 식은 엇엇어.

@1 건 뒤 밧디 갈 때, 일헛 때는 입을 저기 여자 바지는 무시거라, 갈중의로 허젠 허민.

#1 갈중의로 허젠 허민 저 무시거게 무명.

@1 으.

#1 무명 겨울에고 여름에고 무명.

@1 으.

#1 경허단 중간에 베 나오기 시작허난 훗은 베 시작허난 이젠 그거 헤단 이제 감 들영, 베에 그냥은 밧디서 못 입으난, 풀 허명 못 입으니까 감물 들영.

@1 음. 계란 여자 밧디 갈 때 바지 입진 안 허고마씨?
 #1 아니, 몸빼. 바지는 안 입고.
 @1 몸빼? 계민 갈중의로 몸빼를?
 #1 갈물 들영 몸빼.
 @1 아, 몸빼로.
 #1 옛날은 소중기도 감물 들영.
 @1 아.
 #1 경 삶으멍 못 입으니까 그냥 거멍, 시커멍허게 행 입언.
 @1 굴중의는 무신거꽈?
 #1 굴중의가 갈중의 아니?
 @1 하하하.
 #1 갈중인데 이게 너버.
 @1 으, 으.
 #1 팍 퍼지게.
 @1 으.
 #1 젠디 그거는 일복은 아니.
 @1 일본은 아니?
 #1 건 일복은 아니. 어디 높은 어른덜은 어디 저 장밧디라도 가젠 허믄 그 굴중일 입영
 굴중의 우에다가 치마를 입엇주게.
 @1 으.
 #1 속치마 대리.
 @1 아.
 #1 아래 팍 퍼지니까.
 @1 치마 바지처럼예.
 #1 속치마처럼.

목자웃

@1 음. 혹시 사냥 가는, 사냥허는 사름덜 봐납디가?
 #1 무시거 허는 사람?
 @1 사농바치, 꿩 사냥허고 노리 사냥허레 가는 사람.
 #1 어.
 @1 그 사름덜은 그 가족으로 행도 옷 입어났수꽈?
 #1 아, 옛날사 가족옷 많이 입엇주게. 노루 가족, 노루 잡앙 노루 가족 달황 이녁으로 달
 황 켜리 잇는 냥 입어. 보선도 그걸로.
 @1 아, 삼춘도 그런 거 허는 사름덜 봐났구나예?
 #1 우리 아버지가 거 잘행 입영 사냥을 잘 다녀났어.
 @1 어떠난 잘 알암신고 허난.
 @2 아.

#1 강 노리 잡앙 왕 노리 거적 벧경.
 @1 으.
 #1 그추룩 행 말리왕.
 @1 으.
 #1 그걸로 이젠 미싱은 안 들어가니까 손으로, 손바늘로, 손바느질허영 경허영 보선처럼
 이까지 올라오게 허영 길게 보선처럼 허게 신발이 돼, 그게.
 @1 아.
 #1 그렇게 허영 신영 곁은 소꿉에 가고.
 @1 으.
 #1 곁 없는 건 바깥디 가게. 경허영 사냥허레 땡기주게.
 @1 아.
 #1 경허영 눈 올 때는 뭐, 뭐가 있어. 이지금 뭘엔 곧나, 영 타는 거. 영 영.
 @1 동글랑헌 거?
 #1 으, 동글랑헌 거.
 @2 그 우에 발 끼웁?
 #1 으, 막 저 다렛줄로 막 이레 영키고 저레 영키고. 그거 끼어근에 경행 사냥 가는 거주.
 @1 으. 우에 옷도 경행 입습니까, 게?
 #1 옷은 그거는 대개는 우에 걸치는 거 후루메처럼 해도 아무것도 없이.
 @1 으.
 #1 그냥 영 멘작허영 뒤에 앞판 행 소매만 부짱 그냥 특 입영 그냥 앞에 끈 양쪽에 하나
 씩 달앙 기사 특 무짱 펄렁펄렁.
 @1 아.
 #1 그렇게 땡기데, 크게 허영 팍 돌아오게끔 행.
 @1 어.
 #1 또 띠 헤영 무끄는 사람은 띠 헤영.
 @1 띠 헤영.
 #1 띠 헤영 가운디.
 @1 쪼끼 아니고 후루메추룩예?
 #1 후루메처럼.
 @1 으.
 #1 옷이 아니고.
 @1 아.
 #1 바지나 저고리나 아니고.
 @1 예, 예.
 @2 그건 여기 깃 같은 것도 안 만들고 그냥 짜르기만 행?
 #1 기냥, 기냥 이렇게 허면서 그냥 애기 무시저 갓난애기.
 @1 붓디.
 #1 붓디저고리처럼 이디 막 돌아오게끔.

@2 예, 겹쳐지게만 행.

#1 으, 겹쳐지게만 헤영 끈 하나 들앙 경행 입영 펄렁 펄렁 데기거나. 경 안 허민 너미 펄렁거리면은 띠를.

@2 허리띠.

#1 으, 허리띠를 헤영 허거나.

@1 아까 신발은 곁이 안에 들어가게 헌덴 헤신디.

@ 옷도 안에 들어가.

@1 아, 옷도 곁이 안에 들어가게.

#1 으, 이제는 거풀이 일로 털이 나는데.

@1 일로 털이.

#1 으, 옛날엔 털이 안으로.

@1 경헤야 뜻뜻허니까?

#1 으, 하등에 곁 베끼던 필요가 엇거든. 요즘털은 모양 불라고 거지.

@1 예. 음. 그거는 그 곁질, 그 가죽 뱃겨근에 거 장만허는 게 잘도 힘들켜예?

#1 아니 그냥 바짝 달라.

@1 으.

#1 뭇사 뿌려신디 하여튼 뿌리면서 자꾸 달려. 물 뿌린 거 같아.

@1 으.

#1 물 뿌령 자꾸 손질허멍 자꾸 이렇게 이렇게 영 막.

@1 무신걸로?

#1 그냥 손으로 이거 기냥 쥐멍 이것이 저 그.

@1 가죽이난.

#1 노리 가죽 거트민 그냥 이렇게 막 달라.

@1 아, 그거.

#1 부드럽게.

@1 으.

#1 부드럽게.

@1 음, 걸 달룬덴 곤는구나예?

#1 으, 달뤼. 막 뱃뱃허거든 그냥 물류와 노면.

@1 예.

#1 계난 그 뱃뱃 안 허게 짜꾸 이레 밀고 저레 밀고.

@2 계난 그거 안팎을 다 달루는 거라?

#1 으.

@2 곁 잇는 거랑 안쪽 가죽.

#1 으, 곁 ㄹ치 부뜨난게.

@2 아.

#1 계난 곁로 안 허고 그냥 안으로 그냥 막.

@1 안으로예.

#1 안으로 꺼져 낡.

@1 그거 일반 바넝으로는 못 허큰게마씨. 꺼져져 불크라. 바넝이예?

#1 아니, 경 경 뽁뽁허게 안 나와. 경허단 보든.

@1 아. 특별헌 바넝이 이신 게 아니구나예?

#1 특별헌 바넝이 엇엇주게. 옛날은 다 이불 끼웁는 바넝.

@1 으.

#1 바느질허는 바넝이 아니고 이불 끼웁는 바넝 그런 거 밖에는. 계난 송곳 헤여 낡 이 이 보선은 경 안 달릅거든. 뽁뽁허게 신어야 됩니까. 송곳 헤다 낡 송곳으로 구멍 뽁랑 바늘을.

@1 아. 지금 가죽신 만들듯?

#1 으, 맞아, 맞아.

@1 음.

#1 그렇지.

@1 그 신발은 무신 신발이엔 큰는 말 잇수과, 흑시?

#1 으, 잇어. 그게 무슨.

@1 뤼엔 꼴웁니까, 선생님? 가죽신. 탄 생각하고 잇엇구나, 가죽신. 다른 말은 엇어?

#1 아니야, 잇어.

@1 잇어.

#1 잇어도 생각이 안 나겠는데.

@1 신발은 경허고 우에 허고.

@2 미투리?

@1 아니 미투리는 초신.

@3 초신 모양이고.

@1 발레 그런 거 아니었나?

#1 아니, 발레도 아니고.

@3 그거는 발목에 하는 거고 그냥.

@1 그냥 가죽신. 그다음엔.

#1 가죽신이엔도 허고 가막창신이엔도 헤신가?

@1 으.

@2 가막창신.

#1 으.

@3 가막창신은 막 박아진 거주게.

@1 밑에 징 박은 거. 으, 으.

#1 경헌 거 닳아. 옛날 가막창신, 가막창신 헌 거 닳아.

@1 까만색이면 가막창신이라고 했을 수도.

우장

@1 그다음에 도롱이, 우장? 우장도 그믐 산에 갈, 쉼 보레 가고 헐 때, 비 올 때 입는 옷.

#1 건 우장.
 @1 예, 우장예?
 #1 으.
 @1 아버지 그런 것도 입어났수과?
 #1 그렇지계, 짜곡계. 나도 거 짤 중 알아.
 @3 지금도마씨?
 #1 으, 새로. 줄도 잘 놔.
 @3 아이, 막 잘행계.
 @2 아.
 #1 나 줄도 노면 남자덜 꺼럭 고즐고즐 허지만 난 민짜 놔.
 @1 그 우장은 안에 코 놔야 뉘는 거 아니파예?
 #1 으. 코 놔야.
 @1 그 코는 무신걸로 만들앙 험니까? 옛날에 만들 때.
 @2 질긴 거.
 @1 그냥 새로 허민 안 뉘 거 아니.
 #1 아니, 새로가 아니고 무슨 줄로 헛저만은. 도렛줄도 아니고, 칩.
 @1 으. 칩으로?
 #1 칩덜 낵 헤신가? 칩 아니 뿌리가 아니고. 칩.
 @1 줄기 달뤄 가지고.
 #1 으, 줄기 달뤄 가지고.
 @1 아, 아.
 #1 그거꺼진 잘 기억이 안 나.
 @1 그 안에 영 그물추룩 영 짜는 거마씨?
 #1 그계 아니고 짚으로 다가 노끈 꼬앙 짠 거 가트다.
 @1 아, 따로 잇는 게 아니고?
 #1 따로 잇는 게 아니고.
 @ 으.
 #1 칩으로 노끈 꼬앙 노끈을 막 이제 슬지게 끈 거 막 그늘게 끈 거 허주계.
 @1 으.
 #1 겐 칩을 잘 때리면 질겨.
 @1 으.
 #1 이제 물 옷정 이제 막 마께로 팡팡팡팡 두드령 푹삭푹삭허든 여리카 부텐 헤도 질겨.
 @1 아.
 #1 그걸로 노끈, 거 노끈으로 헨 현 거 닳은계.
 @1 칩으로?
 #1 으. 아, 칩이 아니고.
 @1 짝으로 그냥?
 #1 짝으로.

@1 새?
 #1 새.
 @1 그냥 새로. 음.
 #1 그 ㄱ튼 종류로. 딴 거 들어가질 안헐어.
 @1 음. 겐 그 그물에 새를 영 끼웁은에 고정하는 거파?
 #1 그물에 새를 꺾는 게 아니주게.
 @1 게믄?
 #1 예를 들어 이거 새면은.
 @1 으.
 #1 것도 이제 설명허젠 허난 잇어 불엇저.
 @1 하하하.
 #1 이렇게 이게 여러 개믄 이렇게 낡. 영 흐 번 짱 꺾겨 놔뵤 또 하나 낡.
 @1 으.
 #1 또 짱 꺾겨 놔뵤 뵤 뵤 돌아가명.
 @1 아.
 #1 경헝 짜는 거주. 경헝 막 짜 가민 상곡지로 가 가민 막 쪽게 이제 짱 일론 이제 특 이제 모가지에만 이제 들어가게끔 똑똑똑똑 다 안터레, 안터레가 아니고 베짖더레 다 꺾끄면.
 @1 으.
 #1 이거는 새가 베짖더레 강 비 오면 잘잘잘잘 뵤고.
 @1 우이서 밑으로 짜는 게 아니고 밑에서 우이로 짜는 거마씨?
 #1 밑에서 우이로 짜.
 @1 밑에서 위로. 경헝 나중에 모가지 매듭 지워 버리던지?
 #1 매듭 지우는 게 아니고 꺾겨 노면서 저 대구덕 짜근에 영 바우 꺾겨 놓듯이 경헝 베짖더레 꺾겨 노면서 짜근에게 마무리를 허지게.
 @1 으.
 #1 이제 짜렌 허믄 대답을 잘 헤도.
 (모두 하하하)

물웃

@1 함덕이난 물웃도 해녀덜 잇는 물웃도 만들어났수과?
 #1 으, 그 속곳 그거야게 밥 먹듯.
 @1 그거 흐나 멘들아 줍서 허민 어떻 헝 멘드는 거파?
 #1 어떻 헝 멘들아 우리 소중이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만들뵤 어깨만 잇어.
 @1 아, 끈.
 #1 허리 우이만.
 @1 으.
 #1 끈뿐이 아니고 이 허리가 잇어야지. 소중기는 허리만 잇주만은 이걸 우이꺼지 허리가 잇어야지.

@1 아. 이디도 계난 여기가.
#1 꾸썈허여, 꾸썈.
@1 이디까지가 다 허리.
#1 으, 허리.
@1 그다음에 이디서 이디?
#1 그건 소중기 원착.
@1 처지엔 곧지 안헙니까?
#1 으, 처지 맞아.
@1 밋?
#1 밋이 아니고, 밋은 밑에가 밑이고 으, 처지.
@1 잘 그리멘, 잘 그리멘.
#1 진짜.
@1 이거 허리?
#1 으, 진짜 잘 그린다이.
@1 그다음에 여기는 처지?
#1 그딘 처지 맞아.
@1 예, 그다음에 이쪽 굴허고 이쪽 굴허고 요기는 들마기. 달모작?
#1 으, 으. 들모작.
@1 들모작은 멧 개나 헙니까?
#1 들모작 다섯 개.
@1 다섯 개, 여섯 개?
#1 다섯 개 든 거 닐다.
@1 다섯 개. 밑에 두 개, 세 개 우에 두 개?
#1 으, 밑에 세 개. 아니 아니 으섯 개 으섯 개.
@1 으섯 개.
#1 밑에 세 개 우에 세 개.
@1 으, 경허고 이썈 그 들모작 잇는 그썈 펜이 요거는 흑시 뭐엔 굴읍니까? 요 강알허고 요 강알 두 개 이신 철 아니짜예?
#1 으.
@1 요디는?
#1 강알이라 다리지.
@1 다리. 이거 굴? 굴이엔도 굴읍니까?
#1 으, 굴 아래, 건 알단이 굴. 이 단이 굴.
@1 알단이 굴.
#1 다리 나가는 게.
@1 으, 으. 요건 다리고예?
#1 으.
@1 이 굴도 흑시 이 굴허고 이 굴허고 이름 다릅니까?

#1 그건 다르게는 안 써 봤는디 젠디 옷은 다르게 만들어.
 @1 으.
 #1 이착이 크거든.
 @1 아, 크기가 달라마씨?
 #1 크기가 달라. 경해야 조금이 들막작을 들면은.
 @1 그지, 그지. 여유 잇게. 으, 으, 으. 혹시 이거 산굴, 죽은굴이여, 암굴이여 수쿨이여 영 허는 말 들어 봅디가?
 #1 아니 경 헤낫어.
 @1 경 헤낫어?
 #1 헤난디.
 @1 으, 정확히게는 모르크라예?
 #1 잘 모르겠는디.
 @1 그거 속곳 멘들아나건디 나 처녀 때만 계속 멘들아낫어.
 #1 으. 요건 무시거엔 글읍니까?
 @1 어깨 이신 거, 끈?
 #1 아니, 건 어깨말이 끈.
 @1 어깨말이 끈?
 #1 으, 말게 끈.
 @1 말게 끈?
 #1 으.
 @1 혹시 뭐 메끈이여 메친이여 영허는 말은 안 써?
 #1 메친은 속곳에 메친, 메친이엔도 헐 거 닥으다.
 @1 아.
 #1 속곳에 메친. 메친이엔도 헐 거 닥으다.
 @1 그민 이거 만들젠 허민 어떻 헤근에 헤야 뉘는 거마씨? 처음에 짜를 때부터?
 #1 짜를 때는 아래 이 삼각을 문쳐 잡아야지.
 @1 아, 요거를 먼저.
 #1 으, 이거를 예를 들영 이게 두 손이 뉘야 뉘어. 이러큼 두 손이 뉘면 한 손은 요로큼 놓고.
 @1 으.
 #1 요로큼 놓고 한 손은 요로큼 우이로 놓고. 이렇게 헤여야 요로큼 허민 이디가 네모 바르게.
 @1 그민 하나는 이디 다리 끼울 철이파? 가운디 삼각형이 처지?
 #1 으, 아니. 으, 이레 다리 끼울 거, 흔짝은. 흔짝은 영 막아지거든.
 @1 으.
 #1 일로 막아지면.
 @1 으.
 #1 영 막아지면 한 다리 일로 딱 끼와 두고 이짝은 그냥 포 더끄듯 더끄민 뉘는 거. 이

건 터지니까.

@1 음.

#1 이러کم 터지니까 포 더끄듯 더끄민 뉘는 거. 이거 이렇게 주어지면은 일로는 이제 강
알이 들어가고.

@1 으.

#1 일로는 영 터지니까 그냥 일로 다리 디물르고 이거 기냥 내베도 확 아프면.

@3 이거 원래 할 때 길어 가지고 영 부터 잇는 거.

@1 으.

#1 이착은 부터 잇는 거.

@3 부터 잇고 여기는 떨어진 거. 이쪽은 나중에 요거 만들 때 연결하는.

@1 그민 들마긴 어디 들 칠이파?

#1 들마긴 여기 터진 디.

@1 터진 디예?

#1 으.

@1 여기가 터진 디?

#1 으.

@1 여기 들막작 세 개 달 거예?

#1 으.

@1 여기 들막작 세 개 달고 여긴 처지. 그다음 여기 허린 따로 행 달 거예?

#1 허리는 이 우에.

@1 허리 어디 그디 달 철?

#1 허리 말고 처지는 이게 처지지게.

@1 아. 따로 그럼 행 부칠 거파?

#1 이게 처진데.

@1 예.

#1 이렇게 요 하바를 놔 가지고 요거 이 하바를 놔 가지고.

@1 으.

#1 요렇게 요 하바를 놔 가지고.

@1 으.

#1 요렇게 귀 맞창 영 딱 끈으면 이거이 딱 들어가게 뉘 있어, 영 맞게.

@1 아.

#1 이게 처지.

@1 그계 처지. 음.

#1 일로 허리 들고.

@1 허리 들고.

#1 일로 계난 소중의는 허리를 요만큼 드는데 속곳은 허리를 길게 돌아주주.

@1 아.

#1 경행 이제 메친만 메끈만 달아.

@1 으. 삼춘도 메끈이엔 골암서, 이제.

(모두 하하하.)

#1 이제사 생각, 이제사 생각 난.

@1 아깐 몰르켄 헤신디.

#1 이제사 생각 나.

@1 계난예, 말 곧당 보난예.

#1 아이고, 이거 헤나건디 멧 해라게. 한 오십 년 뵈었으니까.

가족 장만

#1 바짝허게.

@2 아, 몰아지지 안허게?

#1 으, 몰아지지 안허게 몰류와.

@1 예.

#1 몰류와 낱 바짝허면은 이제, 하튼 물 같아.

@1 으.

#1 이제 입에 물어 푹푹 부려 막 이렇게 달루주, 그걸.

@2 아. 그냥 바짝 말리멍 물 뿌리멍 말리멍.

#1 말룬 다음예. 말룬 다음예.

@1 으, 한 번 말린 다음예?

@2 으.

#1 막 젖지 않을 정도로 물 입에 물멍 팍 팍 부려 낱 막 달룽 이젠 또 널어 한 번 발겨 난 거는 또 안 발겨.

@2 으, 으.

#1 널멍 또 이젠 또 바람 들어가면 이젠 또 부렁. 계난 또 영 허믄 좀 부드럽게 옷 힐 정도로 그 정도꺼지 헤멍.

@2 계난 가족 달룰 때 다른 도구는 안 쓰고 그냥 손으로만?

#1 아니, 손으로, 손으로.

@2 손으로만, 예.

#1 절대.

@2 으.

#1 다른 건 안 행 막 손으로. 우에 강 앓아듬서 막 심멍 그냥 밀고 그추룩 헤 가믄 가족 이 좀 부드러와.

@3 노루만 헤낫수과? 다른 가족은?

#1 다른 가족은, 우린 노무베끼 잡아 보질 안허난 다른 가족은 헛는지 말았는지 뭐.

@3 건디 막 모자 같은 거는 오소리 가족 잇잖아예? 족제비 이런 걸로도 많이 헤낫거든예.

#1 거는 거는 완전 멧쟁이덜이고.

@3 아, 그냥.

#1 완전 멧쟁이덜이고.

@3 노루가 가죽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음.
 @3 얇고 부드러워서 바느질하기는 제일 쉬운 거예요.
 @2 으.
 @3 소 이런 게 엄청.
 #1 족제비 같은 거는 완전 그건 자기냥으로 만들지도 안하고 돈 주명털 만들어놨어.
 @2 고급으로.
 @3 팔기도 하고.
 @1 거 지달이, 지달이엔 안 해놔수과?
 #1 무사 지달이도 오소리털도 헛주. 오소리털은 왜냐하면 혼엇이 만들 것이 엇이난 오소리는 딱 구녕이 잡혀졌나 봐.
 @3 모자 만드는.
 #1 모자에.
 @2 아, 가죽도 얼마 안 돼고?
 @3 머리 하나.
 #1 구녕이 딱 갖췄나 봐.
 @2 아.
 #1 경행 바느질 얼마안 안 험다고 이제 그런 것털 해 쓰주.
 @2 아.
 @1 삼촌 신어난 그 가죽신은 이디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파?
 #1 아 막 겨울에 신는 거난 막 이꺼지 올라오게 행 신엇주.
 @1 부추처럼, 장화처럼 음. 초신처럼 아니고예?
 #1 초신처럼이 아니고.
 @1 어.
 #1 초신처럼 신는 것도 나막창신이라고 잇어.
 @1 으.
 #1 나무로 만든 거.
 @1 아.
 #1 옛날은 영 곡쇄 닳을 거 허영 복복 기계 메왕 굽영.
 @1 어, 어.
 #1 그거 허영 신으면 또 뒤통기 다 벗겨져, 경 아프고.
 @1 으.
 #1 경허단 어느 누계가 서울서 온 거 보니까 헤영현 운동화를 신언 온 거라.
 @1 헤, 하하하.
 #1 게난 그냥 저 벨 세상에 낫다고 저것만 혼 번 신어 봐시민 신어 봐시민 헤연 뭐 이삼 년 안에 그것털이 짝.
 @1 고무신도 아니고 운동화를?
 #1 고무신도 아니고 운동화를. 고무신은.

@1 으.
 #1 좀 먼치 났어, 검정 고무신.
 @1 음.
 #1 그보단 먼치 났어. 운동화가 나중에 난. 학생이 완 신언 왔을 거라. 경혜 부난 그냥 스뭇 저런 신발이 어딴냐고. 옛날 오죽 불쌍하게 살았어제.
 @1 아까 그 가죽 신발은 우에 끈으로 영 무릅니까?
 #1 아니. 끈으로 무끄는 건 또 여름에 신는 건 또, 이제 거트면 요꺼지 오는 운동화처럼.
 @1 어. 농구화처럼?
 #1 그치록 행 이제. 경혜근에 이젠 끈으로 무경.
 @1 내려가지 안허게 무끄는 거짜, 끈은?
 #1 켄디 내려가지 아녀게, 보선처럼 내려가지 아녀게 수늑 딱 맞게 이녁 발에 맞게 헤여, 그건
 @1 어. 그민 신을 때 힘들겠다예?
 #1 아니, 경도 안 허주게.
 @1 어.
 #1 보선이게 요로콧 아까 그런게게.
 @1 예 예.
 #1 경허영 들어갈 거니까 쑥 들어가게 뒤엇주.
 @2 으.
 #1 경허영 영 탁 세우민 안 벗어지게. 이 수늑으로 딱 쩡겨정.
 @1 음.
 #1 계난 이디허고 이디가 맞아 줘야.
 @1 예, 예.
 #1 켄디 영 들어갈 땀 숙영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1 으. 그민 밑에 창, 밑에 창이 흐뭇 뚜껍게 뭔가를 헤 줘니까?
 #1 창이 없이 그냥 그걸로 보선 직접 준다니까.
 @1 어.
 #2 버선처럼 만드니까.
 #1 보선처럼 이이.
 @1 가죽으로 보선처럼 만든 거네예?
 #1 으.
 @1 으음.
 #1 보선추룩.
 @3 가죽도 워낙 질기니까 경행 해도.
 #1 그냥 낡 보선으로 쑥 줘낭 그냥 때려 박기만 헤여.
 @1 어.
 @3 똑같이 보선이랑 똑같이.
 @1 똑같이 만들어?

@3 아깐 두껍긴 해도 게도 신을 때. 보통 그거는 노루 가죽으로 많이 헤예, 신발. 워냐면 소가죽 같은 경우도 하긴 하는데 소가죽 같은 경우는 워낙에 두꺼워 버리니까 밑바닥을 중간 바닥이 가운데를 연결하는 거잖아?

@2 으.

@3 버선으로.

@2 으.

@3 두꺼워 버리니까.

@2 아프겠다.

@3 조금 발이 아프거든요. 노루 가죽은 부드러우니까 실도 좀 얇고 헝 요렇게 헛을 때 부드러우난 노루 가죽을 많이 사용을 하고 가죽을 없을 때는 소가죽으로도 많이 허주게.

#1 아니, 그렇고 보선 줄 때 그냥 그 가죽실로 허여. 그 가죽.

@3 그니까, 그 가죽으로.

#1 잘라근에.

@1 실을?

@3 실이 아니고 가죽으로. 가죽으로 허니까 더 두꺼워지는 거지.

@1 아.

@3 우리 가죽끈 있잖아예?

@1 예, 예.

@3 그렇게 만들앙 가죽을 짧게 짜른 다음에 실로 쓰는 거지.

@1 아.

@3 그 뭐 헛 때는, 제가 그 조사헛 때는 그쪽에서 하는 거는 바늘이 뭐 긴 바늘이 없으니까 바늘도 막 귀했잖아예.

#1 그렇지계.

@3 없으니까 그 우산살 같은 거 잇잖아.

#1 으, 맞아, 맞아.

@2 우산살로 이렇게 헤근에 헛덴 허더라고.

#1 우산살로 헤영 그 송곳으로 고망 뜯랑.

@2 우산살로.

#1 우산살로.

@3 바늘이 없는 거라.

#1 맞아. 경허단 나중에는 이젠 두터운 바늘이 나왔어.

@3 그걸로 하고.

@1 창을 버선처럼 안 하고 평평하게 하면 뵈 텐데 워 버선처럼 하는 거?

#1 펜펜허게 허면은 발, 발 모양을 이렇게 둥글면은 만들기가 더 힘들주계.

@1 아, 거리를 꼬매야 됩니까?

#1 으, 옆으로 돌아가면서 꼬매야 됩니까.

@3 모양내기가 힘들지.

@2 그 가죽신 신을 때 눈 우이 걸을 때는 아까 이거 설피 같은 거 낭 신영 걸엇잖아예?

#1 으, 으.
 @3 짚신이나.
 @2 짚신이나 어쨌든 영 낭으로 만든 영 우에 끼웁예?
 #1 으.
 @2 평상시 신을 때는 그냥 이것만?
 @3 이것도 신고 이것도 같이 행 신고.
 @2 이것도 신고 이것도 같이 신고.
 #1 평상시에는.
 @2 신을 일 엇수과?
 #1 신을 크게 일이 잘 안 하여. 그 눈 올 때만 그걸 신지.
 @2 이걸 뭘엔 불러놨수과? 나 설피텐 곱아져신디. 하하하.
 @1 거 아까 이름 생각 안 남텐 곱안.
 @2 어.
 @1 거 무신 걸 아까 멘든텐 곱아신디. 꼭이나 무신걸로.
 @3 나무로, 나무줄기.
 #1 나무줄기로 멘들아신가 헛는데 지금 생각헨 보니까 아니야.
 @1 무신걸로 멘들아?
 @3 칩 말고.
 @2 정동줄?
 #1 아, 그건 우장?
 @1 우장 말고 아까?
 #1 신발?
 @1 가죽 신발.
 #1 가죽 신발은 가죽으로.
 @2 아니.
 @1 신발 밑에.
 @2 밑에 대는 거.
 @1 밑에 빠지지 안허게.
 #1 계난 그걸 몰르켄 허난, 그걸.
 @3 나무줄기로.
 #1 나무로 안 만들고.
 @2 줄기, 나무줄기.
 #1 으.
 @1 계난 꼭줄이나.
 #1 드렛줄 같은 거.
 @1 드렛줄, 으.
 #1 다렛줄 같은, 젤 다렛줄을 많이 써.
 @1 으.

#1 다렛줄이 팡팡허거든.
 @1 건 영 두드리지 안헤근에 그냥?
 #1 안 두드려. 안 두드려.
 @1 지금으로 허면 아이젠 아냐?
 @3 으. 기지, 기지.
 @1 등산갈 때 밑에.
 #1 으, 맞아, 맞아.
 @2 아이젠.
 @1 아이젠이지, 옛날 아이젠.
 #1 켄디 그거 꺾죽도 다 벳경 헤영케 헤영 만들어, 그제.
 @1 아. 그거 신발이영 그거영 안 벳겨지게 허젠 허민 끈으로 무꿍니까?
 #1 끈이 아니고 영 영 끈이 뒤편에 발이 딱 들어가면 탁 걸려지게.
 @3 만들어 가지고 발만 딱 끼우게.
 @1 정말 아이젠이네.
 모두 하하하.
 #1 옛날 사름덜이 배웁지 안허난 허주, 머리는 아주.
 @2 그렇지.
 @1 어느 나라 말이고? 일본말이우꽈?
 #2 일본말이지.
 #1 옛날은 일본 뒤죽박죽 헨 써나난 건가? 게메.
 @1 이딘 카오스엔 곤는구나예. 응. 이디 밑에는?
 #1 건 도련.
 @1 도련. 요디는?
 #1 건 배알이.
 @1 배알이? 음.
 #1 배알이엔 허는디, 여기는.
 @1 아 이디, 이디.
 @3 배래, 배래.
 #1 건 웃고름.
 @1 표준말은 배랜디.
 @3 아, 배알이.
 #1 배알이.
 @1 배알이.
 #1 계난 배래나 배알이나 마찬가지로, 사투리고 표준어뿐이지.
 @1 거난 배알 아니꽈, 배알이?
 #1 배알이.
 @1 음.
 #1 이것보고 배알이. 것보고 거 배알이 잘 허라게.

@1 아.
 #1 곱게, 잘 돌르라게.
 @1 예. 요디, 요디는?
 #1 건 진동.
 @1 진동. 이견 똑ㄴ타. 어, 나머지는 다른 거 없지 않아?
 #1 다 똑같은게, 뭐.
 @1 예, 예, 예. 나머지 똑같아. 이름이 다른 게이. 삼촌 저기 옷 사진 흐뭇 찍어도 뵈니까? 삼촌, 누가 만든 거마씨? 저건.
 @3 여기 사장님 아니?
 #2 같이, 저기 헤 가지고.
 @3 같이, 공동작품.
 @1 음.
 #2 매주마다, 주일마다.
 @1 응.
 #2 조금씩, 조금씩 해요.
 @2 성함 들어 두셔야 돼겠어요.
 @1 예, 예, 그렇구나. 저건 두루마기마씨, 아니면 후루메마씨?
 #1 후루메지. 껌깁, 저건 껌깁니깐. 얇으게 보염주.
 @1 아.
 #1 저건 바느질이 완전 껌깁로 나오는 거니깐 안팎 잇는 거.
 @1 음, 저건 후루메.
 @3 후루메.
 @1 저, 어.
 @3 그러면 두루마기는 흘, 흘이잖아예?
 @1 음.
 @3 흘이면 바데는 다 할 거 아니?
 #1 으.
 @3 어깨바데, 접바데.
 #1 어깨바데, 접바데.
 @3 경혜근에 두루마기.
 #1 응 그게 두루마기.
 @3 그다음에 그 후루메는 그냥 접으로.
 #1 아무것도, 접.
 @3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1 음.
 #1 것적 안 꼭같이 들어가는 거보고 후루메.
 @1 응, 저건 다 멩지, 아, 멩주인 거지예?
 #1 으, 다 멩주주.

@1 음. 여기, 여기, 저고리는 모시 아니?
 #1 건 모시.
 @1 하얀 저고린 모시 닮다. 삼춘 입은 거예?
 #1 어, 저건 한삼모시.
 @1 한삼모시? 모신 한삼 걸 제일 쳐 줘니까?
 @3 알아주지.
 #1 최고.
 @1 최고, 음.
 #1 최고, 최고.
 @1 명주는 어뎃게 최곤가?
 #1 이제 적삼허젠 허믄 삼십 만 원 더 맥혀.
 @1 으, 모시로.
 #1 으.

신부 예복

@1 음. 결혼식 허젠 허민 신부 옷은예? 새각시 옷은예? 무신거, 무신거 행은에 만들어 줘니까?
 #1 무신거 만들어, 치마허고, 저고리허고.
 @1 응.
 #1 후루메.
 @1 아, 두루마기도 만들어 줘니까?
 #1 두루마기가 아니고.
 @1 장옷?
 #1 후루메.
 @1 후루메.
 @2 후루메.
 @1 으, 후루메를 만들어 줘니까?
 #1 후루메허고, 어. 쓱적세, 쓱치마.
 @1 으.
 #1 바지.
 @1 으.
 #1 쓱저고리.
 @1 으.
 #1 어 거뿐이주.
 @1 으, 장옷은?
 #1 미시거?
 @3 장옷.
 #1 장옷은 옛날엔 장옷을 헐는데, 요지금은 후루메.

@1 아, 아.
 @2 음.
 @1 옛날엔 장옷.
 #1 원법은 장옷이.
 @1, 2 음.
 #1 혼섯옷이 법이고.
 @1 음, 나도 생각허난 결혼할 때 두루마기 하나 한 것 같아마썸, 으.
 #1 요지금 신식.
 @1 신식예, 으.
 #1 옛날 건 장옷.
 @2 하하하.
 @1 장옷은 허젠 허민 그 천이 얼마나 들어가마씨? 여자 장옷 하나 하젠 하민.
 #1 멩지 혼 필.
 @1 멩지 혼 필. 남자거나 비슷허구나예?
 #1 남자 거도 혼 필.
 @1 음, 그든 그, 장옷은 다른 옷이랑 좀 다른 게, 이런 뒤 솜, 배알이 다르거나 흐꼼 뒤 길이가 다르거나 이렇게, 어떻게 다릅니까?
 #1 아니, 길어도 쪼금 길고.
 @1 음. 두루막보단 길고예.
 #1 으, 배알이도 후루메는 배알이가 엇곡, 이거는 장삼이 잇거든.
 @3 배알이가 잇고.
 @2 으.
 @3 여기가 넓어.
 #1 으, 넓고.
 @1 딱 디 가난 우머니엔 꼴안게만은.
 #1 으.
 @1 우머니엔?
 #1 으, 우머니엔도 허여.
 @1 아, 우머니엔도 험니까?
 #1 으.
 @1 우머니가 이렇게 넓고예.
 #1 잇고, 장옷은 법이 있어.
 @1 어.
 #1 여자, 남자.
 @2 음.
 @1 어떤 법이?
 #1 향시 한 색깔만 안 허거든.
 @1 응.

#1 세 단이 들어가야 돼어.
 @2 으.
 @1 아, 색동 허는 거추룩?
 #1 색동 허는 것처럼 첫 번은 흰 색깔을 하든가 노린 색깔을 하든가.
 @1 으.
 #1 무.
 @1 으.
 #1 아무것도 없다.
 @1 으.
 #1 그다음은 파란 색깔.
 @1 으.
 #1 남자.
 @1 으.
 #1 그다음은 빨간 색깔 여자.
 @1 으.
 #1 이게 꼭 들어가야 돼.
 @1 아, 색깔이, 여러 가지로.
 #1 색깔이, 세 가지로.
 @1 그니깐 요 끝에가, 끝에 요 세 개를 넣어야 되는 거구나예?
 #1 세 가지를.
 @1 음.
 #1 아주 끝에는 백색.
 @1 제일 끝에는 백색.
 #1 으.
 @1 소매, 여기 소매보다 더 길게 험니까?
 #1 어느 소매보다?
 @1 우리 사람 소매보다, 우리 그냥 입는 소매보다, 나 소매 나온, 팔 안 나오게.
 #1 아니, 소매광 딱 맞추돼.
 @1 아.
 #1 이 흰 거는 길주.
 @1 그 흰 건 무신거옴?
 #1 이렇게 포 영.
 @1 계난 그거.
 #1 한삼.
 @1 한삼, 음.
 #1 이렇게 들어가게끔.
 @1 아.
 #1 들어가믄 이 귀 여기 팍 차게끔.

@1 음, 계난 소매까지 오고, 소매 밖에 하얀색으로 또.
#1 으.
@1 하는 거구나예?
#1 으, 하얀 색깔로.
@1 이거는 그른 여기다 다는 건 아니고, 따로 이렇게 뒤편에 있는 거파?
#1 아니, 같이.
@1 옷에 달려있는 거파?
#1 달려 있어. 적삼에는 따로 달리주게.
@1 으.
#1 적삼에는 한삼을 따로 달리는데, 장옷에는 같이.
@1 아, 붙어 있어마씨?
#1 으, 이게 7타야 영 들어가니깐.
@1 음.
#1 알이.
@1 음, 그른 요디 세 개 단, 세 단 요렇게 한 다음에 끝에다가 한삼을 또 다는 거라예?
#1 으.
@1 으, 그른 요거 트나고, 길어도 흐뎌 길잖아예?
#1 길주.
@1 후루메보단.
#1 후루메보단은 아무리 아니 놔도 한 치든 몇 센치?
#2 어, 오점오 센치, 선생님 자료.
#1 그럼 한 십 센치 정도는 더 놔야주.
@1 음. 밑엔 흐뎌 더 길구나예.
#1 으.
@1 거난 씨집갈 땀 치메저고리허고, 아간 장옷 하나 헤 주는 거파?
#1 으, 장옷.
@1 옛날 삼춘털은 하난 입고 하난 쓰고 헛저, 헨게만은.
#1 그랫주, 옛날은 하난 씻주.
@1 음.
#1 경헌디, 쓰는, 쓰는 옷은.
@1 음.
#1 맞짓.
@3 맞짓.
#1 맞짓, 후루메에다가 후루메다가 장삼만 달리고 깃이 맞짓.
@1 아.
@3 경헤야 영 허게 똑같잖아.
@2 음.
@3 경 안 하든 영 뒤편 볼게.

@1 음, 요렇게 되는, 으. 맞짓.
#1 으, 맞짓.
@1 어.
#1 계난 치마허리로도 쓰는 사람이 잇주게.
@1 어.
#1 치마로.
@1 맞아, 치마 모양으로예.
@2 어.
@1 텔레비전에 볼 때는.
@2 어.
@1 치마 같이 생긴 거 썩.
#1 간단히 쓰는 거는 기냥 여기서도 기자 나가젠 허믄 그 치마라도 안네라게.
@1 아, 썩은에 나가라고, 음. 그믄 삼춘은 저, 결혼할 때 그런 옷 입엉 험디가? 웨딩드레스 입으섯수과?
#1 아니, 옛날엔 한복, 흰 한복.
@2 흰 한복, 으.
@1 흰 한복, 멩지, 저고리, 치메저고리.
#1 에이, 짓도 아니고 뽀뿌린 치마저고리.
@2 뽀뿌린. 하하. 뽀뿌리.
@1 뽀뿌리.
#1 옛날 일산 뽀뿌린 치마저구리 입으믄 최고급 뉘.
@1 아, 뉘 유동치메 뉘 그런 식으로.
@3 어. 하하하.
@1 그런 말은 헤나신디.
#1 아니, 흰 거는 뽀뿌린이 최고.
@2 신주꾸유동. 하하하.
@1 신주꾸유동.
#1 신주꾸유동, 으. 신주꾸유동은 일본.
@1 예, 예, 그믄.
@2 뽀뿌린.
@1 족두리 씽디가, 멘사포 씽디가?
#1 아이고, 그것에라도 다 멘사포 써. 흰옷에.
@2 어.
@1 삼춘네 결혼한 때 다 한복에 멘사포 쓰는 거라예.
#1 멘사포 전부. 으, 느나힐 거 엇이.
@1 으. 그믄 어뉘, 언제까지 언니들을 생가헤 보믄 언제까지 족두리 쓴 거 닙우과? 언니들은 족두리 써신가?
#1 그렇주, 다 썩주.

@1 삼촌 바로 우에 언니가 몇 설 차이우파?
 #1 다섯 나 차이.
 @1 다섯 나 차이.
 #1 그 언니까진 안 썸.
 @1 그 언니가 안 썸고.
 #1 그 우에 언니.
 @2 으.
 @1 그 우에 언니는?
 #1 이제 살아시른 구십 세 난 언니는 족두리 썼어.
 @1 아, 옷은 똑같은데 족두리만.
 #1 으, 똑같아. 똑같은데, 족두리만 쓰고 아니, 옷도 틀리지, 장옷허꼭 청실홍실.
 @1 아.
 @2 음.
 #1 빨간 치마에 초록 저구리.
 @1 하얀 거 안 입고?
 #1 하얀 거 안 입고.
 @1 으.
 #1 옛날은 다 족두리.
 @1 으.
 @2 족두리 씨는, 쓰는 시대는 장옷 입는 그 시대라예?
 #1 으, 맞아.
 @2 예, 예. 하얀 치메저고리 입고 나서야.
 #1 으, 맞아요.
 @2 그 면사포 쓰고, 예.
 @3 드레스 비슷비슷하게이.
 @1 그니깐 하얀색으로 일부러.
 @2 으.
 #2 근데 우리 이, 저, 고모들은 지금 막내 고모가 칠십오 세 정도 뻗거든요.
 @1 으.
 #2 근데 그때도 족두리 썼어요. 족두리도 하고 또 저기 면사포도 하고 그러더라우요.
 @2 더 신식인게.
 @3 폐백혈 때.
 #1 아니, 이제도, 이제도 요거 허는 사람은 나 포목점 혈 때까지도 했어.
 @1 아.
 #1 그렇게 족두리 웨로 이제 아, 족두리 아니고 드레스 웨로 그거 한 벌 허켄 헨 이중으로.
 @2 맞아요.
 #1 폐백 들일 때는 의무적으로 그걸, 걸 입어야 뉘는 거주, 원칙은.
 @1 음, 그문 신발은 뉘 신어?

#1 신발은 뭐 고무신 아니?
 @2 고무신?
 @1 하얀 고무신?
 #1 하얀 고무신이 아니고 그 옛날은 그것도 창신이, 창신이렌 했어.
 @2 창신.
 @1 아, 가족으로 만들었구나예.
 #1 가족으로 만들뻬, 요지금 신식처럼 그 이제 복숭아 코 놓고.
 @1 어.
 #1 그렇게 만들었주게.
 @1 으.
 #1 가족으로 허긴 허뻬.
 @1 고무신추록.
 #1 고무신처럼.
 @1 으.
 #1 이제 나이롱 고무신덜 막 뒤 높은 거 나는 그런 식으로.
 @1 아. 그 밑엔 뭐 박아야 뉘큰게마씨, 가족으로 그냥 바로 안 뉘 거 아니?
 #1 바로 고무신으로 나와.
 @1 으.
 #1 알창도 고대로.
 @1 아니, 고무신 말고 아까 가족신.
 #1 가족신이라도 고대로 나와.
 @2 고무신 모양으로, 으.
 @1 오.
 @3 그래도 밑창은 다른 거 아니파?
 #1 아니, 똑같아.
 @3 밑창도 위에랑 똑같이? 아.
 #1 으.
 @3 뭐, 고무 같은 걸로 안 뉘고?
 #1 고무.
 #2 아니지 가족으로 헤 가지고.
 #1 가족은 가족인데.
 #2 위에도 가족으로 헤 가지고 그 가족에도 또 예쁘게 하려면 수도 놓고.
 @3 아니, 옛날에는.
 #1 으.
 @3 옛날 신발 가족신을 보면 위에는 가족으로 하고, 오십 년대 이후에는 밑에 이제 고무타이어 같은 거 잇잖아예. 고무가 나오면서 그걸 짤라 가지고, 워낙 튼튼하니까 걸 짤라 가지고 가족신을 여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 못 같은 거 박아근예.
 @2 으.

@3 경허난 흑시나 그런 건가 해근에.
 @2 으, 그때 신발 그거 자기 신발이엇수과? 아님 빌령 신는 거엇수과? 그 자기 신발?
 #1 다 그때는 샷주. 빌리는 식이란 게 엇엇어.
 @2 엇어, 으.
 #1 견디 옆이 사름이 씨집가믄 치수가 맞으면은 어려운 사람은 미리 부탁행 그런 걸 빌령 신기도 헛지.
 @2 어.
 #1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옷도 다 빌엇지.
 @2 으.
 #1 장옷도, 나 장옷 입언 결혼헌 사름이 드물엇지, 제주도에서는.
 @2 으.
 #1 많이 이웃집 거를 많이 빌엇주.
 @1 으, 마을 흑시, 마을에서 빌려주는 것도 잇어나수과?
 #1 엇어, 일체 엇어.
 @1 아.
 #1 마을에서 빌려주는 거는.
 @1 어.
 #1 상요.
 @1 아, 상여? 죽엇을 때?
 #1 어, 죽엇을 때가 아니고, 시집갈 때도 그거를 가마.
 @1 아, 가마, 으.
 #2 아니 우리 고향에는 마을에서 하나 잇더라고, 기본.
 @2 남자들.
 #2 자기 거 헤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은 없는 사람은 거기서 병풍이고 같은 것도 다 빌려다가.
 @1 예, 예.
 #1 제주도는 엇엇어.
 @1 쟁 시집갈 때 타는 그 가마 아까 무신거렌 꼴앗수과? 상요?
 #1 으, 가마 소리를 안 나왕, 상유, 장, 저 죽은 사람.
 @2 아, 가마 소리가.
 @1 아, 잘못 꼴아져구나예.
 @3 하하하.
 @1 가마 소리 잇어불언, 으.
 @2 으. 하하하.
 #1 가마 소리 잇어불언.
 @1 계난 씨집갈 때, 삼춘은 가마 탄 건 아니잖아.
 #1 아니주게, 가마랑마랑 우린 아무것도 안 탄.
 @1 차 이실 때 아니 그뻐?

#1 으, 택시 탔주. 하하하.
 @1 함덕이 뉘게, 부유한.
 @2 잘 사는 지역.
 @1 잘 사는 지역.
 #1 우리, 우리 그 시절은 다 차 탔주, 흥뎌 먼 디는.
 @3 어.
 #1 차 타도 검은 차 타지 말라, 흰 차 타라. 흰 차 타든 영장 나시냐, 검은 차 타라.
 @1 하하하.
 #1 아이고, 뉘 식구 여럿이, 뉘 경 행.
 @2 어른들 동네 어른들 많으민.
 @1 으.
 #1 으, 막 기냥.
 @1 배가 산으로 가는. 그든 신랑은 어떻 어떤 옷 입어수과?
 #1 신랑은 그냥 내나 마찬가지로 이제 입듯 정복 입주, 무슨.
 @1 아니, 양복 입지 않고, 한복 입을 때.
 #1 한복 입엉 결혼헌 남자는 건, 원, 건 원래 옛날 우리 기냥 이 한복 입듯이, 기냥 꼭같이. 바지, 저구리.
 @1 응, 우에 뉘?
 #1 우에는 쉼자.
 @3 쉼자.
 @1 쉼자는 뉘마씨?
 #1 쉼자는 뉘엔 허코.
 @1 어떤, 어떤.
 #1 앞 갈래 둘, 뒷 갈래 둘.
 @1 으.
 #1 요거 장삼만 잇는 거.
 @1 응.
 @3 두루마기 ***예.
 @1 도복, 도복이영 다른 거짜?
 #1 달르주.
 @3 다르지.
 @1 아.
 #1 도복은 직함 잇는 사람 아니면, 원래 아무리 부자도 못 입혀.
 @1 직함 잇는 사람?
 #1 직함.
 @3 명함.
 @1 직함, 음.
 @3 위치.

#1 이제 그트른 대통령이나.
 @1 아.
 #1 국회의원이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은 원래 못 입게 댜.
 @1 음, 도복은?
 #1 도복은.
 @1 거 제 볼 때는 입잖아.
 #1 제 볼 때도 노픈 사람밖에 못 입엇주, 이제는 아무라도 개나 새나 다 입는데.
 @1 으.
 #1 이젠 죽는 사람도 개나 새나 어린 아이도 다 입히는데.
 @1 하하하.
 #1 그 전에는 아니 입혔지.
 @3 쪼끼, 이런 거잖아예. 쪼끼, 쪼끼.
 #1 으, 그게 췌자.
 @1 음.
 @3 췌 두루마기 형텐데.
 #1 으.
 @2 소매 없이.
 @3 이 소매 없는 거.
 #1 소매는 없뉜.
 @2 여기 겹쳐지지도 않으큰게.
 #1 저기다가 웃고름은 잇어.
 @1 어.
 @2 예, 웃고름은 있고, 거의 맞깃처럼.
 @1 그뉜 그 우에 큰웃은 안 입읍니까? 사모관대 이런 거 허는 거처럼.
 @3 이렇게 안에 입고 곁에 입고.
 @1 두루마기 우에다가 요렇게 입지는 거?
 #1 으.
 @1 으, 으.
 @3 쪼끼렌 생각하믜.
 #1 이게, 이게 사모관대나 다름 엇인 웃.
 @1 아.
 #1 저것에 뉜.
 @2 췌자.
 @1 아니, 옛날 그 결혼식할 때 입는 남자들 웃도 무사 막 파란색으로 헤 가지고.
 @2 여기 벨트 메곡.
 @1 어, 이렇게 여기 대 여기 허리띠.
 @2 관복.
 @1 관복.

@2 으.
#1 그건 관복이주게.
@1 아.
@2 음.
#1 건 잔칫옷이 아니.
@1 아 건 잔칫옷 아니?
#1 아니, 관복. 이것에다가.
@1 으.
#1 예, 흠 하나만 늘리면 암행어사.
@1, 2 어.
@3 손에 들으니깐.
#1 계난.
#2 옛날.
@1 선제?
#1 흠.
@1 흠, 음.
#1 근데 잔치, 결혼할 때도 남자 영 부채 영 들곡.
#1 그거 대리 드는 거, 흠 대리 그 부채를 들르는 거.
@1 어, 계난.
#1 워냐허믄 입 막으렌, 입 막으렌.
@1 입 막으렌.
@2 하하하.
@1 무사, 말허지 말렌?
#1 으, 헛뉜 소리 허지 말렌 장게가는 사름. 하하하.
@1 그니깐 이런 관복은 결혼힐 때 안 입어났수과?
#1 으 맞아, 결혼힐 때?
@1 으.
#1 관복은.
@1 옛날 남자들.
#1 아니, 몰라, 우리 댐.
@1 지금, 웨.
#1 이제덜은 저거 입어.
@1 사모관대 허면 그렇게 입는데.
#1 지금덜은 저거 입는데, 옛날은 저렇게 입엇당 큰일나지.
@3 중국에 왕덜이 입엇던 옷이거든.
#1 아니, 우리 제주도는 큰일나.
@2 족두리 썩 시집가는 시대에 남자들은 저런 옷이 뉘엇더라구요.
#2 그렇지.

@2 족두리 썩, 예, 예, 예.
 #1 아니, 족두리 썩 시집가는 사람이라도 제주도는 저 옷은 못 입언.
 @1 안 입언?
 @2 으.
 @3 이게 쉽게 뒤흔 수 없는 옷이거든.
 @2 어, 그래서 마을에서 하나 장만행.
 @3 청옷이렌 허주게, 청도복. 청도복.
 #1 으, 청도복 맞아.
 @3 청색 도복.
 @1 으.
 #1 저 도복에다가.
 @1 모자, 으.
 #1 뭐 그냥 용 무늬를 띠던가 목단 무늬를 큰 왕이.
 #2 왕이.
 #1 입는 옷.
 @1 예. 쟁 여자 족두리 쓰던 시절에, 남자들은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안 써마씨? 지금은 막.
 #1 찢주게.
 @1 드라마 보면 영.
 #1 아니, 찢어.
 @1 어.
 #1 저 상복 저, 두건 영 두 개만 잇는 거추룩.
 @1 으.
 #1 그게 뭐지?
 #2 사모관대라고.
 #1 아 맞아, 그게 사모관대.
 @1, 2 으.
 #1 그거 생각이, 그거 보고 사모관대, 맞아.
 @1 육짓말 표준어랑 같은 그냥 사모관대에.
 #1 사모관대.
 @1 신발도 그 결혼식할 때 남자 신발은 고무신 안 신곡.
 #1 아, 창신.
 @1 그때도 창신예, 남자덜은.
 #1 어, 그 시절이 창신이주게.
 @1 거난 남자들 신발은 고무신처럼 밑에까지 오는 게 아니라 장화추룩 우에 올라오는 거파?
 #1 쪼끔은 요만큼은 올라온 거 닳은데.
 @1 어, 것도 창신예.
 #1 운동화, 운동화 높은 거처럼.

@1 음.

#1 그렇게 신는 거 같아.

남자 상복

@1 으. 그럼 이번에는 그 누계 죽언예, 영장난.

#1 으.

@1 그믐 이제, 그디 복친들 입을 옷들예, 복친이영 상주영.

#1 으.

@1 상제, 상제 입는 것부떠예. 상제들 옷 입젠 허민. 남자 상제영, 여자 상제영 상복해
취살 거 아니우파예? 쟁 누계 죽엇저 허민 그디 강 옷도 만들어줘 봅디까?

#1 흐, 것도 몰르레.

@2 몰르레.

@1 기술자니깐 가서 몰르레 강예.

#1 몰르민 베 흔 필 쥐, 좋은 베 흔 필 쥐.

@1,2 어.

#1 기냥 죽으나 사나 그건 가정 가야 뉘텐.

@2 어.

@1 쟁 그 누계 영장난 집이 가근에 몰르레 가민 이제 삼춘이예, 누계 죽엇저.

#1 으.

@1 삼춘 모시레 왓어.

#1 으.

@1 게믐 삼춘이 딱 가민 뭐부떠 험니까?

#1 뭐부떠 허여게, 남자 도복부떠 저, 미시거 상복부떠 만들주게.

@1 으, 남자 상복 만들젠 허민 베로 옛날도.

#1 베로.

@1 베로 허지예?

#1 으.

@1 베로 헤 가지고 영, 다 영 손으로 그림, 연필로 그려줘? 가위로 영 쪽쪽쪽 잘라줘?

#1 아이, 그냥 치수 노명 사름 키 보명 그냥 맞게만 다 몰라만 주는 거, 뭐.

@1 으.

#1 앞뒷가지.

@1 으.

#1 이 소매 양쪽.

@1 으.

#1 섭, 무 네 개.

@1 으.

#1 이렇게 헝 기자 싹싹 비명 내노면은 이제 상제, 당상제는 상주는 어깨에다가 늘개를
부찌거든, 따로.

@1 으, 큰 상제만?
#1 아니.
@1 큰아덜만?
#1 아덜덜은 다.
@1 아덜덜은 다.
#1 사우덜은 복친으로 그런 거 하나토 안 부찐 거, 그냥.
@1 어.
#1 기냥 두루막 거치룩, 그렇게 된 거.
@1 뒤에 이신 거, 그거 놀개엔 험니까?
#1 으, 놀개.
@1 아.
#1 그거는 이제 당부모, 당자식만.
@1 아, 그 상제 옷들도 어머니 죽엇을 때랑 아버지 죽엇을 때 다르텐 허던데.
#1 어머니 죽을 때는 단을 박고.
@1 으.
#1 알단을.
@1 예.
#1 아버지 죽을 때는 풀어.
@1 으.
@3 단을 몇 번 박아마씨? 몇 번 접어근에?
#1 단을 기냥 우리 이 옷, 이 옷 허듯이 접엉.
@1 예.
@3 한 번? 아님 두 번?
#1 아니, 꺼꺼냥 거렁거렁 안 혀게, 또 두 번 그냥.
@3 두 번.
@1 으.
#1 그렇게 박곡.
@1 어무니 옷 헐 때만 박는 거구나예?
#1 어무니 옷 헐 때.
@1 아부지 옷 헐 때는?
#1 아부지 옷.
@1 영 감치는, 감침이라도 허여?
#1 거렁거렁 허카 부텐 감치는 법은 없는데, 훗은 썰로 그거 올 빠지지 말렌 듸성듸성.
@1, 2 으.
#1 그러지, 그건 법은 아니.
@1 아, 그 사위 상제하고 아덜 상제하고 아까 뒤에 날개 부찐 거 말고도 또 옷이 다릅
니까?
#1 아니라라.

@1 똑ㄱ타?
#1 똑ㄱ타. 복친허고 사우는 ㄱ타.
@1 으.
#1 계난 사우는 복친.
@1 으, 사우는 아덜 아니고 복친.
#1 으.
@1 상제가 아니구나. 하하하.
#1 으, 이거는 똑ㄱ타.
@1 아.
#1 상제나 복친이나 똑같은데 우리 제주도 웃은.
@1 예.
#1 겐디 어덜 웃인가, 이게 기냥 저고리추룩 곤작헌 디도 잇긴 잇어.
@2 으.
#1 우리 제주도는 똑같아, 이거는.
@1 으.
#1 웨냐믄 수건도 땀수건 이건 대개는 호상도 마찬가지로, 땀수건 기냥 손쉽게 담으렘 이거 이 사들을 만드는 거주게.
@1 으.
#1 거난 사우는 복친. 오죽 헤사 옛날도 흐뎡허민 에이고 사우는 복친만씩 헌 것이 왕 큰소리쳐.
@1 하하하. 사위는 친척이, 아, 자식이 아니구나이.
@3 맞은게. 하하하.
#1 비석에도 안 놓는 집은 안 놔.
@1 으.
#1 사우는.
@1 예.
#1 경허단 만약에 이혼허게 뉘믄 어지럽텐.
@1 으.
#1 안 넣는 딴 안 놔.
@1 게믄 쪽에 바지나 이런 건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 거.
#1 으, 아무 거라도 입어도 뉘.
@1 우에, 우에 그것만예.
#1 으.
@1 그건 무신.
#1 아니, 바지저구리도 증의적삼 흰 걸 원래는 입어.
@1 아, 베로 뉘 건 아니고예.
#1 기냥 쓰봉이나 뉘나, 베로 아무 거라도 한복이면.
@1 아.

#1 한복이면 아무 거라도 뒀어. 겐디 쓰봉 입곡 무시거 입곡 그런 건.
 @1 안 허고예.
 #1 안 허곡.
 @1 상복 그거 남자 입고, 뒀 허리띠도 이실 철이우짜?
 #1 띠 잇주.
 @1 띠 잇고, 행경도 잇고?
 #1 행경도 잇고, 띠허고 행경은 부트는 건 저 큰옷에는.
 @1 아. 그믐 남자 상제들도 행경 다 험니까? 복친덜.
 #1 행경은 느나 엇이 해여.
 @1 아.
 #1 겐디 복친덜토 그 저 상복 주지 못허영 식구 한 딴 행경 하나씩만 줘.
 @1 으, 복친은?
 #1 복친은 행경허곡 띠.
 @1 행경하고 띠예.
 #1 으, 띠 하나씩만.
 @1 하나씩, 두건허고.
 @2 두건.
 #1 으, 두건은 이디 저기.
 @1 다 주는 거난예.
 @2 으.
 #1 으.
 @1 두건도 그, 큰아덜 상제 두건허고 다른 아덜 상제.
 #1 아덜은 똑가트게 우이를 때려 박고.
 @1 때려 박는 건 어뎡 허는 거짜?
 #1 기냥 만들어 낡 우의로 또 바느질을 허주게.
 @1 으.
 @3 접어근예?
 #1 짓도 굳작 이제, 영 허믈 이제 일로 박앙.
 @1 으.
 #1 영 뒤집으면 영 뒤집어 낡 또.
 @3 한 번 더?
 #1 으.
 @1 아덜덜 거는?
 #1 아덜덜은.
 @1 어. 복친덜은.
 #1 복친덜은 기냥 일로 주영 뒤집으면 걸로 낱.
 @3 아.
 @1 으, 그 결혼, 그 아들 입관허기 전이는 통두건, 우에 터진 두건 헌텐 험디다.

#1 으, 터진 두건, 터진 두건. 입관허기 전에는.
 @1 예, 입관허기 전에는.
 #1 아직은 부모가 목숨이 완전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르니깐.
 @1 어.
 #1 막아 붙지 말라고 해서 통두건 써.
 @1 아, 이건 아까 통두건이엔.
 #1 으, 통두건.
 @1 통두건예. 경헛단 나중에 입관해나믄.
 #1 으, 완전히 돌아가셨다 허는.
 @3 막아 붙 거?
 #1 으, 인정이 뉘면은 막아 붙고.
 @1 어, 그믄 아까 아떨 상젿 거는 이 우이로 이렇게 행 줍니까? 그믄.
 #1 아니, 기냥 주워 낱 데쌍.
 @1 아, 주워 낱 데쌍 다시 또 우이로.
 #1 으, 뒤집영 우이로 썰밥 끄똥 뉄 더덕더덕 나게.
 @3 밖으로 보이게시리.
 #1 으.
 @1 그 요기, 요기 이마에도 영 접어근에도 허고 그냥 퍼근에도 허고.
 #1 아, 다 접지, 펍는 건 없어.
 @1 아, 다 접영예.
 #1 으, 그거는 이유 물란허고 땀 때문에.
 @1 으, 복친 두건하고, 상제 두건하고 그 우 접는 것만 다르고 다 똑같고예?
 #1 다 똑ㄱ타.
 @1 음 그 솔기가 여기 뒤로도 오고 옆으로도 오고 헌텐 헨게마는.
 #1 원래는 뒤로 가야 뉘는데.
 @1 으.
 #1 요지금 사름덜은 옆으로 봐, 게난 건 법은 몰르크라.
 @2 으.
 @1 옛날은 뒤로 해낫구나예?
 #1 옛날은 거 뒤우로 반드시 강 두건이 딱 꺼껴져낭 이디가 그똥이 썩 나야 이게 살 거 든.
 @1 으, 으.
 #1 젠디 요지금은 옆으로 가.
 @1 으.
 #1 건디 그거는.
 @1 두건 쓰고 요기 미신 영 동글랑헌 거영 씽니께, 영.
 #1 으.
 @1 그건 미시거엔 곱읍니까?

#1 계메 것도 얼른 생각 안 나.

@1 으, 건대?

#1 맞아, 건대.

@1 요디 건대에, 아까 삼춘 영 헛던 위에 요기 영 썰.

#1 그거는 흘이고.

@1 이진 흘, 흘?

#1 으.

@1 음, 여기 건대 허고, 띠 허고예, 남자 다 뉘 거 닳지예?

#1 계난 요것에 요것은 기냥 건대로만 써.

@1 다 흠치예, 부찌근예예. 으, 계민 여자 상제예?

#1 으.

여자 상복

@1 딸이영 메누리영예, 상복은 어떻 트납니까? 다 똑같습니까?

#1 틀리지 않아, 여자 거는 다 똑같아.

@2 으.

@1 다 똑같아? 아, 치마?

#1 으, 치마.

@1 치마에 위에는?

#1 저구리.

@1 저구리.

#1 저구리가 아니고 긴 거.

@1 긴 거예, 계난.

#1 겐디 저고리로 봐야지, 옛법은 저고리야.

@1 으.

#1 요지금은 허리 나오지 말렌 그거주, 옛날은 저구리.

@1 음. 요즘은 치마도 요기 그냥 허리에 여기 이렇게 뒹게 허는디.

#1 으, 손쉬웁게게. 옛날은게 차례차례 입젠 허든게 요지금은게, 간단히게 쉬웁게.

@1 으, 으, 치마에.

#1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 거.

@1 아, 우엿 계예.

#1 으.

@1 허리 보이면 안 뉘니깐.

#1 으, 으, 으.

@1 갱 치마에 저고리 그거 입고, 머리에 무신거 영, 건대 험니께, 여자도.

#1 건대. 으, 여자도.

@1 뭐, 저.

#1 어 동글란 거.

@1 천 하나 영 행 손수건 닦은 거 낭예.
#1 으, 맞아.
@1 요디 건대 행은에 끈 영 무경.
#1 짓도 기냥 건대 아니?
@1 예, 건대. 하하하. 건대영 ㄹ치 남자 거영 똑ㄹ치 건대엔 끈는 거지예?
#1 으, 짓도 건대.
@1 그다음 여자도 허리띠 이신 철이우파, 상복에도?
#1 그렇주, 긴 건 허리띠가 잇어야 뉘. 무산고 허난 단추가 아무것도 없으니깐 걸 감아 놓고 무껴줘야.
@1 네, 네, 네. 여자 상복도 다 뉘고, 복친들 헐 거는?
#1 똑같아.
@1 두건하고, 행경하고 허리띠.
#1 으.
@1 남자는, 여자는? 요즘은.
#1 여자는 치마 하나.
@1 요즘 몸빼 줍디다만은 옛날은 치마 젓수과?
#1 몸빼는 법이 아니고 치마.
@1 하하하. 옛날은 치마.
#1 몸빼 입언 절법은 엇주게.
@1 아.
#1 여자가 몸빼 입언 절법은 엇어, 치마 입어야 절을 허주.
@1 겐 옛날은 치메, 치마 줍나구나예.
#1 다 치마주게.
@2 그 머리, 수건 안 줍나수과? 베수건.
#1 건 치마 못 주는 디.
@2 어, 치마 못 주는 디.
#1 건 이제 또 저 흐뎡 더 거리가 먼 복친덜.
@2 으. 게민 남자덜한테 하면 두건에 해당할 거구나예.
#1 으, 두건 ㄹ튼 거. 도나리 사름도 친하면 주고.
@2 으.
@1 그다음 요 머리창. 머리창은 언제, 언제부떠 행 언제까지 끼는 거우파?
#1 옛날사 삼 년 썻주만은.
@1 으, 그 저.
#1 성복허는 날로부떠 삼 년.
@1 아.
#1 겐디 이젠 아주 엇어 분 거 아니?
@2 으. 하하하.
@1 게메, 이젠 안 허드라예? 으, 요기 단추, 요기 리본 하나 기냥 달기도 허는데.

#1 이젠 아주 아니, 여자들은 이제도 허긴 해도.

@1 으.

#1 그냥 그 자리에서게, 이젠 뭐 삭망이나 뭐 안 혀난 그냥 벗어 낱 그디서 슬앙 그자 다 삼 년 꾀난 걸로 헤영.

'호상옷'

@1 으, 상복은 다 꾀났고, 이제 삼춘 혀는 호상옷. 호상옷은 종류가 막 여러 개 이십디 다예? 무신거, 무신거 잇어마씨?

#1 아, 여러 사람 게 아니고, 한 사람 것에 여러 개.

@1 머리부떠 머리엔 무신거 씨웁니까?

@3 남자 몇 개, 여자 몇 개.

@1 으.

@3 개수부떠.

#1 개수부떠?

@1, 3 하하하.

@2 속에 입는 것부떠.

#1 세영 놔뒀어, 세영.

@1 차례대로 입어보게마씨, 남자, 남자 돌아가신 남자 어른이 돌아가섯어예.

#1 으.

@1 입지는 건 뭇부터 입지, 제일 안네는 뭇부터 입집니까?

#1 제일 안네는 판스.

@1 으, 판스.

#1 그다음은 엄뒀.

@1 엄뒀가 뭇마씨?

#1 엄뒀는 띠.

@1 아, 띠.

#1 난닝구처럼 원래 입히는.

@1 남자 어른.

#1 허리, 허리 빠지지 말렌.

@1 으, 남자 어른 것도 엄뒀 헉니까?

#1 아, 여자든 남자든 건 엄뒀.

@1 으, 그다음.

#1 아니 엄뒀가 아니고 과도, 과도.

@1 과도.

#1 으, 엄뒀는 엄뒀저고리고 그건 턱받이.

@2 과도?

@3 과도.

#1 과도.

@1 과두하고, 그다음?
 #1 그다음은 엄뒤저고리.
 @1 엄뒤저고리?
 #1 으, 그거보고 턱받이라고 허주, 턱받이.
 @1 무사, 무사 턱받이마씨?
 #1 그게 이렇게 팔 달렸거든.
 @1 으.
 #1 이 팔엔 소미 넣주게.
 @1 으.
 #1 사람은 죽영 영 녹지면은 관이 탄탄해야 돼는데.
 @1 으.
 #1 옛날엔 영 가당 흔들어 불면 고개가 영 비틀어지면 등신 자손 난텐 허여.
 @1 아.
 #1 으, 목 병신 자손, 다리 병신 자손.
 @1 으.
 #1 그렇게 난다고 허영 팡팡 움직거리지 못허게 허는데, 다른 디털은 다 옷으로, 현 옷으로 찜겨 담는데, 이거는 영 풀에 숨 논 거니깐 요걸 영 양짜 영 허든 움직거리지 못허게 딱 넣어, 넣지.
 @1 목베갸데.
 @2 목바데.
 #1 으, 턱받인데 요지금 사름덜은 베웁기를 어떻게 베왓냐믄 걸 얼굴에다 씌와.
 @2 으.
 #1 검은호상도 잇는데.
 @1 으.
 #1 그걸 얼굴에다가 그냥 그 숨 논 걸 답답허게 탁 씌와 된 그냥 검은호상을 씌웁더라고.
 @1 으.
 #1 경헨 나가 이진 아니다.
 @1 으.
 #1 판 거는 다 헤여도 이거는 턱받이를 헤야지. 이 얼굴을, 예를 들영 살앗텐 허든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답답허겠냐.
 @1 예, 예.
 #1 계난 허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서울 가서 베와왔습니다.
 @1 예.
 #1 계난 베왓으면 판 사름이랑 하고 우리 언니랑 그냥 이거 허지 말자, 경헨 이젠 난 못허게 헨 안 헛거든.
 @1 그다음은 미신거 입질 겨우파?
 #1 그다음은.
 @1 으.

#1 예, 그다음은 증의적삼.
 @1 증의적삼.
 #1 그다음은 바지저고리.
 @1 바지저고리.
 #1 그다음은 후루메.
 @1 후루메.
 #1 그다음은 도복.
 @1 도복. 꽃?
 #1 꽃이주, 뒤.
 @3 소품으로, 장갑?
 #1 으, 그다음은 맞아, 검은호상.
 @1 검은호상, 머리에 쓰는 거지예?
 #1 으, 머리에 쓰는 거. 그다음은 악수.
 @1 악수. 악수엔 험니까? 악수?
 #1 악수.
 @1 악수예, 이 악수허는 거랑 똑같구나? 으. 머리, 손.
 #1 웨냐허든 검은호상 머리에다가 씨와 불지. 사람 눈은 소도리쟁이, 손은, 도둑, 도둑, 도둑놈이야.
 @1, 2 으.
 #1 그러니깐 눈을 늪이 거 보양 욕심내지 말렌 검은호상 씨와 불곡.
 @1 아.
 #1 손은 강 언저 오지 말렌 검은 겐로 씨와 불고. 도둑질.
 @1 아, 손도 검은 거로 혜수과? 옛날에.
 #1 으, 검은 거. 옛날이 아닌 지금도 검은 거주.
 @1 아, 머리로 검은호상, 검은 겐로 쓰고 손도 검은 겐로?
 #1 손도.
 @1 그다음 발에는?
 #1 발에는 신, 보선허곡 으, 꽃신 신는 거주.
 @1 아, 보선허고 신발은 꽃신 신웁니까?
 #1 으.
 @1 꽃신으로?
 #1 으, 비단신.
 @1 비단신? 신도 만들어?
 #1 으, 만들어.
 @1 어.
 @3 발창에는?
 #1 똑같은 겐로, 베. 안은 베.
 @3 베로, 삼베, 삼베.

#1 올 안은 베.
 @1 신발은 베로.
 #1 으.
 @3 발바닥예.
 #1 삼베는 엮는 사람은 기냥 그걸로 다 만드는 사람.
 @1 무사 바닥만 삼베로?
 #1 비단이 좀 흔들흔들허니깐.
 @1 뽕뽕.
 #1 베가 옛날은 우산 안도 다 베로 헛어. 술에 간 거는, 슬더레 부턴 거는 베를 쓴다 헤가지고 멩지는 아까도 말헛지만은 한 곳이 내리니깐.
 @1 어.
 #1 우선 술에 가는 건, 베, 삼베.
 @1 으.
 #1 검은호상에도 안은 다 베로 헛어.
 @1 아, 베가 사람 몸에 가장 가까운 거.
 #1 육신에는 제일 지장이 없는 거.
 @1 으. 계민 다 뉼 철이우파? 이제?
 #1 으, 다 뉼지 뉼.
 @3 그다음에 손싸개. 아, 손가락, 손톱, 손톱 싸는 거.
 @1 손톱, 손톱 까깁 놓는 거.
 #1 아, 맞아, 손주머니.
 @1 손주머니, 으.
 #1 손톱주머니, 손톱주머니.
 @1 손톱주머니.
 #1 손톱뿐이라게, 손톱, 발톱.
 @1 주머닌 몇 개 헛니까?
 #1 머리. 세 개, 머리 하나.
 @1 으, 머리 하나.
 #1 손 하나.
 @1 손 하나.
 #1 발 하나.
 @1 아, 그다음에 다 뉼나? 그다음에 이 싸는 것도?
 #1 대림포.
 @1 대림포하고, 하나로만 찻니까?
 #1 으, 하나.
 @1 무끄는 건?
 #1 무끄는 건 삼베.
 @1 건 그냥 이름 엷수과?

#1 메칫베.
 @2 으.
 @1 메친베.
 @3 메칫베.
 @1 메칫베? 메칫베.
 #1 옛날은 그게 한 필 들었는데, 이제는 반 필 들어가.
 @1 아.
 #1 웨냐하믄 예, 전부 싸는 대림포가 있어 부난.
 @1 으, 옛날은 대림포 벗어나수과?
 @2 으.
 #1 대림포 엇이 베로 다 싹거든.
 @1 어.
 #1 계난 이젠 베로는 우알로 낡 이렇게 낡 이제 세 겹, 네 겹씩 헤영 삼사십이 열두 개
 짤랑 열두 메에 무꺼만 주면 뉘는 거.
 @1 열두 개로 허는구나예.
 @2 으, 열두 메.
 #1 열두 메로, 계난 흐뭇 허믄 열두 메 무꺼 놔도 춤말 못 헌다, 우리 제주도 할망덜은.
 @2 열두 메.
 @1 그건 미신 뜻이우파? 죽영 가도.
 #1 죽어도 춤말을 허지 말라, 죽영.
 @1 아, 죽어도.
 #1 열두 메에 무꺼도 춤말 허는 사람은 춤말을 헌다.
 @3 춤말?
 @1 사실? 참말, 으, 으, 으.
 #1 남의 말.
 #2 겸손해라, 이 말이죠.
 @1 으.
 #1 놈의 말.
 @1 놈의 말.
 #1 으.
 @3 죽으니깐.
 #1 저사람 어찌고, 저찌고 죽일 년, 잡을 년, 예, 요런 식 허지 말라.
 #2 무덤 갈지라도 갈 때까지도 말, 저기 겸손해라.
 @2 춤말이 아니네.
 @1 다른 뜻이네.
 @3 좋은 말이 아니라.
 @1 어, 어, 어. 아까 삼춘 메친베, 메칫베?
 #1 메칫베, 메칫베 헛는데, 우리는.

@1 메칫베, 메칫베 헤예, 으. 그민 다 뉘 철예. 그민 이번엔 여자.
 @3 베개, 베개. 하하하.
 @1 아, 베개 안 골았구나.
 #1 아, 맞아.
 @2 이불.
 @1 이불도 안 골았구나.
 @3 하하하.
 @1 베개허고.
 #1 이불, 요.
 @1 이불하고 요.
 #1 으.
 @1 이불, 요는 다른 말로?
 @2 천금지금?
 @1 뉘엔 골읍니까?
 #1 천금지금, 맞아.
 @1 천금지금 맞아?
 #1 으.
 @3 이불 안에는 그 뉘 넣엄수과? 솜?
 #1 으, 명지솜, 난.
 @3 명지솜? 목화솜?
 #1 명지솜, 절대 목화솜 넣을 필요가 엇주게.
 @3 으, 명주솜.
 @1 멩지솜이 비싸지 안헤?
 #1 비싸도 낚야지.
 #2 얼마 많이 안 넣으니까.
 @1 어, 이불하고 요에 둘 다?
 #1 으.
 @1 안에다 멩지솜.
 @2 으.
 #1 사 만 원어치 들어가민 좋아.
 @1, 2 하하하.
 #1 좀 두텁게 낚사.
 @1 베개에도 멩지솜?
 #1 아니, 베개에서는.
 @1 으.
 #1 저, 놓지 아녀주만은. 난 기자 호상 허멍 그 쪼각 다 담주.
 @3 쪼가리, 쪼가리.
 @1 아.

#1 명주 쪼가리.
#2 명주 자투리.
@1 으, 으, 으, 형겡.
@3 다른 건 안 놔놔수과? 뭐 흑이나.
#1 아니, 그것에 담양 모자란 건 그디 갓당 쓸을 담으나 뭐를 담으렌 허주. 만약 족거들
랑 쌀 같은 거.
@1 으.
#1 쌀 담는 게 제일 좋아. 군량미 삼백 석 지고 가는 게 원래는 제일.
@1 하하하. 으. 여자는 뭐가 다릅니까? 여기 남자 거에서. 치마저고리만 다른가?
#1 그렇주, 또, 똑같은데, 치마저고리만 다르지. 뭐 반스, 소중의.
@1 아 썩치마?
#1 우머니. 아이, 썩치마는 호상엔 썩치마 법은 엇어.
@1 아, 썩치마는 엇고.
#1 겐디 육지는 잇는 거 닳은게.
@3 치마를 두 개 입잖아예?
#1 치마 두 개가 잇어.
@1 치마 두 개예.
@3 게문 흘치마, 겹치마?
#1 으.
#2 속옷도 두 개 아니?
#1 아니, 원래는 명주는 전부 다 흘치마여.
@2 바지 두 개.
#1 겹치마가 엇어.
@3 겹치마 안 하고?
#1 으.
@1 겹치마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어떻게?
#1 흘치마 두 개.
@3 흘치마 두 개?
@1 흘치마 두 개.
#1 으, 게난 요지금 사름덜은 허리에 하나를 박아 붙잖아.
@3 그니깐.
#1 으.
@3 하나로 헤근에 그 흘치마 두 개를 연결하는데.
@1 이렇게 뒤는 거야? 그러면.
@3 허리는 하나예요.
@1 그니깐.
@3 두 겹이 뒤잖아, 두겹잖아.
#1 게난 그 식은 절대 말아야 뒤.

@1 어.
 #1 여름에도 입곡 겨울에도 입어야 허난, 허리는 딱로 해 줘야지.
 @1 아.
 #1 고장중의허곡 단속곳도 허리 하나로 달아 분다고.
 @1 으.
 @3 그런 데 잇더라고, 하나로 해 가지고예.
 #1 아이, 시장엔 전부.
 @1 아.
 @3 연결해근에, 아예.
 #1 켄디 나는 꼭 두 개 달아 줘.
 @1 잠깐만예, 여자 거 다시 해 보게예. 첫 번째 고장중의.
 #1 어.
 @1 그다음 두 번째는?
 #1 단속곳.
 @1 단속곳, 그다음.
 #1 아, 쳇 변으로 허멘?
 @1 으.
 #1 거든 속곳 먼저.
 @1 제일 처음은 속곳예. 속곳을 제일 처음 입고 그다음에는 고장중의, 단속곳.
 #1 단속곳.
 @1 그다음은?
 #1 그다음은 과도.
 @1 과도.
 @3 과도.
 @1 으, 삼춘은 과도엔 자꾸 굴암신게.
 #1 으, 우린 과도를 과두가 아니고 과도.
 @1 예, 예, 과도예. 삼춘 낄는 말로, 그다음?
 #1 그다음은 엄뒤저고리.
 @1 엄뒤저고리, 그다음?
 #1 그다음은 치마적삼.
 @1 치마적삼, 그다음?
 #1 치마저고리.
 @1 치마저고리. 건 이건 둘 다 흘접으로예?
 #1 으.
 @1 저고리는 두 겹?
 #1 저고리는 두 겹.
 @1 으, 으.
 #1 어, 치마적삼은 흐 겹이지.

@1 예, 적삼은 혼 겹이고, 저고리는 두 겹예.
 #1 으.
 @1 그다음?
 #1 그다음 장옷.
 @1 장옷, 그다음?
 #1 그다음은 검은호상내나 다 마찬가지로 아니?
 @1 아까 얼굴엔 검은호상, 머리엔 검은호상.
 @3 악수.
 @1 악수, 버선, 신발. 남자 신발, 여자 신발 달라?
 #1 똑같아.
 @1 똑같아예.
 #1 만들기만 틀리지.
 @1 아, 모양만 달라?
 #1 모양만 다르지.
 @1 크기나 이런 거 조금 달르고?
 #1 크기도 다 달르고.
 @1 으.
 #1 그 사람 몽수에 따라.
 @1 으, 몽수에 따라예. 그다음 손톱주머니, 그다음 세 개하고 대립포허고 베개, 이불, 요.
 #1 요.
 @1 여자도 똑같이예?
 #1 으, 똑같이.
 @1 음, 갱 이렇게 호상 하나 허젠 허민 남자 거나, 여자 거나 그 들어가는 명주 필수는 똑ㄹ릅니까?
 #1 똑같아.
 @1 아.
 #1 저 남자 것은 뒷에 많이 들어가는고 허믄. 사람이 크, 아멩헤도 여자보담 크니깐 많이 들어가고.
 @1 으.
 #1 여자는 족아도 단속곳이 더 부떠 붙어.
 @2 으.
 #1 단속곳이 아니고 고장중의 가 더 부떠 붙어.
 @3 하나, 두 개?
 #1 고장중의에다가 거의 혼 필 들어가, 안팎.
 @1 아, 고장중의가 경 하영 들어갑니까?
 #1 으.
 @2 안팎 이신 거?
 @1 으.

#1 가달 찌진 거.
 @2 으.
 @1 아.
 #1 그것에 많이 들어가. 거의 흔 필 다 들어가, 큰 사람 다 들어가.
 @1 으, 계민 보통 멧 필 정도 들어갑니까? 하나 허젠 허민.
 #1 계난 여섯 필. 우리 허는 식으로 허면 여섯 필 들어가면.
 @2 으.
 #1 적은 사람은.
 @2 으.
 #1 손수건 흔 다섯 개쯤. 아, 큰 사람은 다섯 개쯤.
 @1 어.
 #1 사람이 적은 사람은 흔 열 개, 열두 개 그렇게 나와.
 @1 으, 아까 손수건은 안 꺾아신디, 손수건 나왓신게.
 @2 잇어야 될 거.
 @1 예? 손수건도 잇어야 될 거예?
 #1 잇어야 뉘주게.
 @2 어.
 @1 손수건은 어디 놓니까?
 #1 관 우에.
 @1 관 우에?
 #1 으, 제일 우에, 다 옷 다 입혀냥.
 @1 으.
 #1 자손덜 강 이제 열두 메에 무꾼 걸 애기덜이 클러 놔야주게.
 @1 으.
 #1 이 믫디 믫디 무꾼 거 다 클럼시메 편안허게 갑서, 그러고.
 @1 으.
 #1 우리 애기덜 잘 뉘게 헤 줍서 허멍 다 클러 놓으멍 땀 따깡 갑센, 그거 다 클른 다음
 에 그 우에 기냥 툃툃 놓주게.
 @2 으.
 @1 아, 관 더뜨기 전에 이거, 무꾼 거 풀은 다음에 손수건을.
 @2 푼 다음에.
 #1 으, 더뜨기 전에.
 @3 요런, 요런 가슴에마씨?
 #1 으, 가슴에. 기냥 막 수정 한 딴 막 발까지 놓아가주게.
 @3 겹치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놓는 거구나.
 #1 아니 그냥 겹쳐도 놓고 그냥 옆더레 놓는 딴, 막 식구 한 디덜은 막 설남은씩 뉘난게.
 @1 아, 그난 삼춘이 만들어 준 손수건 말고도.
 #1 만들지를 아녀고 짤름만 허민 뉘어.

@1, 2 아.

#1 손수건도 옆 박으면 안 돼.

@2 으.

@1 아, 옆 박으면 안 돼? 그든 혼 열 개 만들어 주민예, 만약에 서른 사람이 놓으면 나머지 스무 개 그냥 그냥대로 지네대로 만드는 거우파?

#1 아니, 기냥 그디서 다, 저, 호상에 다 해 낚, 거 주인이.

@1 으.

#1 이녁 즈손덜 멧 개 놓을 거를 준비하면 허고 안 노면은 놓당 설러 불주게, 놀 사람 잇어도.

@2 으.

#1 근디 당사식덜허고 손자 ㄱ튼 사람들은 우선 불령 문쳐 놓거든.

@1 아, 계난 헐 때 미리 굴암구나예, 우리 손수건 혼 멧 개 해 줍서예, 영해근예.

#1 아니 굴아도 해놔야 돼.

@2 으.

#1 젠디 경 곤는 사람이 손수건 생각허는 사람이 드물어.

@1 몰르주마씨게.

#1 그때사 막 끊으레 와. 우리 비단집헐 때도 손수건 헐 거 멧지에 영 멧 자.

@1 해 줍센.

#1 어, 멧 자 줍서, 멧 자 줍서.

@1 으.

#1 어, 거기 안 들어간 거 잇네, 혼적삼.

@1 혼적삼.

#1 으, 두 개 다, 남자 거, 여자 거 헐 거 엇이 혼적삼.

@1 으, 혼적삼은 어떻 그냥 적삼하고 뭐가 다릅니까?

#1 광목으로 그냥 적삼 혼 불르는 거.

@1 으, 건 죽으면 어디 지붕 위에 올라강 허는 거지예?

#1 어, 맞아. 누게 보 허는 거.

@1 그거는 아까 무신걸로 멘든다고마씨?

#1 광목으로.

@1 광목으로, 혼적삼 광목으로 만드는 거구나예?

@2 으.

#1 가정 가는 거는 혼적삼하고 멧전베끼 엇어.

@1 멧전은?

#1 멧전.

@1 으, 멧전은 어떤 거파?

#1 예를 들면은 문패 썩 가는 거, 자기.

@1 어, 어.

#1 자기 이름.

@1 관 우에 더끄는 거예? (기침)
#1 빨간 것에.
@1 빨간 것에 흰 글씨?
#1 으, 계난 그거허고 혼작삼베끼 관 우이 놓는 건 것밖에 엇어. 거하고 동심녀 둘.
@1 아까 무시거?
@2 동심?
#1 으, 동심녀 둘.
@1 동심녀?
@3 원래 동심결이렌 허는디.
@1 으, 그니깐.
#1 동심절? 전?
@3 동심결.
#1 아, 동심결 맞아, 으.
@1 동심결이렌 글읍니까?
@3 하하하.
#1 으, 맞아, 맞아.
@1 동심줄, 동심절 얘기허는데.
#1 동심결이 맞아.
@1 결이 맞아?
#1 으.
@3 표준어형.
#1 거 형제 간 저 사례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죽영 가문 죽영 간 형제들 이시믄 사례사 쓸 건지 어뎡헌지 몰라도 형제간 사례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동심녀를 못이거든.
@1 으.
#1 저, 노랑 것에 꺾정 거 헤영 툄툄툄 말아 가지고 영 삼발나게 동심녀를 못아.
@3 매듭 지왕.
#1 매듭 지왕 그치룩 헤영.
@1 하나만 놓니까?
#1 아니, 양쪽에.
@1 아 관허민 양쪽에?
#1 양쪽에.
@1 가운데 시체 잇으면 양쪽에다가?
#1 으, 양쪽에. 것도 멩지 반 필 들어가.
@1, 2 어.
#1 그것에 검은호상허민 딱 흔 필 들어가.
@1 어. 그민 이게 아까 동심결을 양쪽에 두 개.
#1 양쪽에, 으.
@1 두 개 다 노란 색이우파?

#1 노란 것에 껌정 것에.
 @1 으.
 #1 쟁 껌정 것에 흔 돌려 못하고, 노란 거 흔 돌려 못앙.
 @1 으.
 #1 두 개를 한 쌍으로 낱 이제 동심결로 무끄주게.
 @1 으.
 #1 쟁 양쪽에.
 @1 그걸 양쪽에예? 으. 아까 혼적삼은 그냥 적삼하고 헝폼 다른 점이 이수과?
 #1 똑같은데, 동전허고 옷 고름만 있으면 뜯어 버려.
 @2 으.
 @1 아, 뜯어 버려. 으. 뒤에 저기 뭐, 바데, 짓바데?
 #1 짓바데는 원래 적삼.
 @1 여기 뒤에, 뭐 혼적삼은 뒤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허는데.
 #1 아, 적삼에는 다 바데하고 겨드랑바데 잇지.
 @2 으.
 @1 하하하. 아, 여기 겨드랑바데하고.
 #1 으.
 @1 여기, 여긴? 등바데?
 #1 짓바데라고.
 @1 짓바데예.
 #1 으.
 @1 그 혼적삼은 특별히 짓바데를 뭐 이렇게 바느질 안 해야 된다 영헌 말도 들어전게만
 은 아니파?
 #1 바느질 안 허민 어땡 부찌?
 @1 아니, 위에는 붙이고 아래는 터야 된다고, 아니 그니깐 어느 정도만.
 #1 다 트주, 무사 우린 일반 옷덜토 전부 다 터.
 @1 아, 등판에 붙이.
 #1 요기, 양쪽만 부찌고, 요거 깃 달 때 거기만 부찌지는 것뿐이주.
 @1 밑에는 다 터져잇어마씨?
 #1 다 터.
 @1 음, 원래예? 일부러 혼적삼만 경허는 게 아니고?
 #1 으, 아니고, 경해야 모든 거 풀려지는 거, 안 풀려지는 거 헐 것 잇이 빨앙 풀허면 싹
 다려지게끔.
 @1 으. 게문.
 #1 그게 하나 떨어진 게 잇어.
 @1 뭐마씨?
 #1 저 엄뒤저고리에.
 @1 예.

#1 양쪽 귀에다가 구멍이 나거든.
 @1 예.
 #1 이 구멍은 분명게 뚫어줘야 돼.
 @1 뚫어줘야 돼?
 #1 풀러줘야 돼.
 @1 어.
 @2 언제 뚫어야 돼?
 @1 아.
 #1 바느질할 때.
 @1 엄뒤저고리에.
 @2 아.
 #1 바느질하는 사람이 뚫어줘야 돼, 그거.
 @2 어.
 @1 어, 귀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고?
 #1 으.
 @1 구멍,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마씨?
 #1 으, 양쪽에.
 @1 음.
 #1 요렇게 팔이 영 부들 거 아니? 이거 저구리에 영 풀이 부뜨면은.
 @1 예.
 #1 요 사이로 구멍을 조금씩 양쪽에 다 떠 줘, 요만이.
 @1 으.
 #1 이거 막아 붙은 귀 막은 자손 난텐.
 @1 아.
 @2 하하하.
 @1 엄뒤저구리에?
 #1 엄뒤저구리에.
 @1 음. 뭐 귀 같은 것도 막읍니까? 안 막앙 그냥.
 @3 솜으로 안 막아마씨?
 @1 솜으로 막지 아녘니까?
 #1 막지.
 @1 으.
 #1 막는 디, 법이 엄뒤저구리를 다 막아, 솜 막아 붙면 귀 막은 자손 난텐.
 @1 저고리에서예?
 #1 으.
 @1 게믄 호상웃도 다 뻘고.

바느질 방법

@1 이제는 재단과 염색, 바느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수과? 손바느질하는 거는.

#1 모르겠는데, 난.

@1 하하하. 삼춘 허는 거.

#1 나 나허는 식밖에.

@1 예, 삼춘 허는 거.

#2 우리 뭐 뒤박기 안 하고 매듭 꼭 안 무끄는 거, 그런 거.

#1 아, 그런 거야 잊지.

@3 그러니깐 바느질, 흠질. 예를 들어 흠질, 감침질 지금 이런 거 물어보는 거든마씨.

#1 어, 그냥 감침질.

@1 그냥 호는 거예? 제일 쉽게 허는 거예?

#1 어.

@1 호는 거엔 곱습니까?

#1 으, 그냥 호는 거.

@1 으, 호는 거. 그다음 단단하게 박젠 허민?

#1 단단하게 박젠 허민, 찡, 한번 찡길 뿐이지, 돌아가진 못허여.

@1 아. 호상할 때는 호상할 때는 뒷바농질 안 허는구나예?

#1 으, 뒷바농질 부모 죽건 헤여, 돌아온덴.

@1, 2, 3 하하하.

#1 하하. 돌아온덴.

@1 어.

#1 난 문탁 죽어분 후에서 알아 부난. 하하. 헤 보지 못헤연. 우리 하르방 죽거들랑 경헤 보젠.

@2 하하.

@1 하하. 그, 호상 헐 때는 매듭도 안 지는 거파? 바농질헐 때?

#1 매듭 안 지와, 클러지게끔.

@1 아.

#1 원 안 지왕은 안 돼니깐 클러지게끔, 속 빠지게끔.

@1 음, 바느질헐 때 그 처음, 매듭도 헤근예?

#1 으. 그거 체시드레 가문 클르렌 헌덴.

@1 아하. 하하. 그다음에 그냥 호상헐 때 말고 일반 바느질할 때는 호는 거 하고, 뒷바농질하고.

#1 마음대로 돼지 거야.

@1 예, 주로 많이 쓰는 게 호는 거랑 뒷바농질이우파?

#1 으, 뒷바느질은 헤 줘야 단단허주게.

@1 어.

#1 계난 이디는 뒷바느질 못 허는 대리, 그냥 우린 이녁 생각에서 한 번 찡기거든.

@1 흥번 찡기는 게 어떻 허는 거?

#1 들어가난 구멍에 또 디물랑 빠는 거.
 @1 아, 그건 뭐엔 곤는 바농질.
 #1 그건 기냥 탁허면 기냥.
 @1 풀어져?
 #1 으, 영 부짚 것도 딱 땡기믄 그냥 떼어지주게.
 @1 어.
 #1 쪼기는 거는.
 @1 음.
 #1 경허는디 뒷바농질은 허믄 안 떼지잖아, 경헤 부난. 게난 원래는 쪼기는 법도 아닐 거라만은 게도 이 안 쪼기믄 안 뒤어.

바느질 도구

@1 으, 그다음에 저 바농, 바농질 바농상지?
 #1 으.
 @1 바농들렝이? 뭐렌 험니까?
 #1 바늘 상자.
 @1 바늘 상자?
 #1 으.
 @1 찌거, 찌거는 여기 사장님 건가?
 #1 으.
 @1 하하하. 저기도 보이고.
 @2 저기 더 예쁜 거 이수다. 하하하.
 @1 아 삼춘 옛날엔 저런 바농 상자에 무신걸로 멘들아진 바농상자 썩난마씨?
 #1 바늘상자 난 안 썩 봤어.
 @1 안 썩 뵈? 게믄 바농이영 썩 어디 뵈듭니까?
 #1 아 그냥 미싱 위에 뵈둬서 쓰지.
 @3 하하하.
 #2 미싱 없을 때에.
 @1 미싱 나기 전이, 예.
 @2 어, 손바느질할 때.
 #2 옛날에는.
 #1 난, 미싱 나기 전에는 그냥 세 살에 다리 아프니깐 우리 어무니가 그냥 재산 하나 풀 안 그냥 미싱을, 손미싱을 사 노난.
 @3 아.
 @1 어렸을 때부터 미싱 잇어났구나예? 음.
 #1 기냥 세 살에부떠 미싱을 잇어났어. 경헤 부난 바늘상자는.
 #2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는 그 쌀이나 뭐 비싼, 저 쌀이나 뭐 잇거든요. 그걸을 껍질 벅겨 가지고 ***이. 요즘에 말하는 라탄처럼.

@2 여꺼서?

#2 여꺼서.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바늘꽃이는 또 손뜨개를 이렇게 이렇게 뜨개를 헤 가지고 속에다가 머리카락 옛날엔 머리 길고 하니깐 속에 빵빵하게 예쁘게 헤 가지고.

@1 삼춘도 헤나실 거라예? 머리카락 담아근에.

#1 아, 그런 거야 그냥 멘들아근에 이녁 쓰기 좋게 썼지, 원 법칙상으론 그건 나온 건 엇고.

#2 아이, 법이 아니고.

@1 하하하. 예, 삼춘 써난 게 법이지. 그 머리카락 담는 건 뭐엔 곱습니까?

#1 기냥 바늘주머니엔 허주, 뭐엔 곱아?

@1 바늘주머니?

#1 저 상자는 안 써 본디. 주머니는 여러 개 써 봤어.

@1, 2 으.

#1 주머니는 이디도 달고, 아래도 들고, 옆에도 놓고 밑에도 놓곡 영 쓰니깐.

@2 으.

#1 써 봤는디.

@1 바농 영 끼워 놔두는 거예?

#1 으, 요 중간부떠는 뜯들 풀 때는 저 상자를 헤연 씨집을 보넛어, 바늘상자를.

@2 아.

@1 딸 시집갈 때도.

#2 옛날엔 기본이 바늘상자가 있었어요.

#1 저게 이불에 들락이.

@2 아.

#1 으, 이불에 들락.

@1 아, 우리 집에 짓도 그때 건가?

@2 하하하.

@1 하하하. 뭔가 하나 있었는데.

#1 어, 진품명품에 가. 하하하.

@2 저런 거에 알록달록 색깔 들어간 거야.

@1 형접으로 뉘이, 이렇게 좀 안에는.

@2 형접으로 뉘?

@3 결혼할 때 이불 같은 거 사면 그거 서비스로 주지 안헛니까?

#1 아, 맞아.

@1 그렇게 받았나 봐.

#1 계난 이불 험 때.

@3 바늘상지, 바늘상지.

#2 그 안에도 줄자도 있고, 바늘도 있고, 실도 있고 다 잇잖아?

@3 이것저것 넣어서 주잖아, 맞아.

@1 음. 삼춘은 그때 옛날에 할 때 바농상자에 무신거, 무신거 놔둬디가? 바농상자 엇어

도 필요한 게 뭐마씨? 바느질할 때.

#1 바늘질할 땐 게메, 그 머리 담양 주머니만 있으면 돼.

@1 바늘주머니?

#1 으.

@1 바늘주머니하고.

@3 가위도 있어야주게.

@1 바늘도 있어야 되고.

#1 아, 그렇주. 바늘이야.

@1 하하하. 싹도 있어야 되고.

#1 아, 바늘이야 바늘광 싹 ㄹ치 들랑.

#2 어디다 담았냐? 이 말씀.

#1 아,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낫았어.

@1 하하하. 바늘하고 싹하고 아까 바늘주머니?

#1 으.

@1 가위. ㄹ새?

#1 으, 가위.

@1 으, 가위. 골무는 안 쓰셨어요?

#2 가위, 송곳.

#1 일체, 골무 거튼 거. 그런 것도 저런 상자에 안 넣이. 그자 그 이런 상자 나온 거 그 자 그런 것에 좇엉 낫주.

@1 으.

#1 저런 바늘상자는 안 써 받.

@1 으.

#2 저건 바늘상자는 아니지만은.

#1 요건 바늘상잔게, 이건 미신 갈대로 만든 거 가트다.

@1 으.

#2 옛날, 저거, 저.

#1 저건 대로 만든 거라.

#2 그 웨 한지로 붙였어요, 옛날에 대에다가.

#1 대로 만들엉 한지로 부졌어. 대 그릇이 남잖아.

@1 그 팔월 멩질 허젠 허민 삼춘, 옷, 옷 장만허는 거 이수게예.

#1 으.

@1 푸답해근에 마련행 놔두는 거.

#1 으.

@1 풀칠허곡 허는 거예, 풀 맥이고, 그거 허젠 허는 순서대로 혼 번 곶아 줍서.

#1 그거 무신거 순서가 있어, 모시나 입으믄, 모시허고 광목은 입으면은 건 당연히 풀질 헤영. 풀 쌀가루 헤영 풀 수웁.

@1 응.

#1 맥영 시들시들허면.
 @1 으.
 #1 들여당 꼭꼭 밟았다근에게 다 고루고루 촉촉허믈 쓱쓱 잡아땡겨 발로, 개어 낱 발로 쓱쓱쓱 툴왕 이젠 그다음에는 쓱 다리믈 새 거 거치록.
 @1 응.
 @3 쌀풀로마씨?
 #1 쌀풀이라야 허주.
 @3 예, 밥으로 밥 지엿은에 아니면은?
 #1 아 밥도 좋주만은 밥은 허젠 허믈 곳잖아, 계난.
 @2 ㄱ루?
 @3 쌀가루로?
 #1 쌀가루로 허주게.
 @3 아.
 #1 경허영 밥허게 됴믈 난 밥 거려 낱 죽을 썬.
 @1, 2 으.
 #1 경헨 쌀 풀어지게 해낱 경헨 밥허는데.
 @1 그거 헿 주머니에 영 짜근에 헿니까?
 #1 어, 주머니에 싸. 풀주머니에 쌍 싹싹 물에 놀려 낱.
 @1 예.
 #1 영 들러봐 가지고.
 @1 으.
 #1 어느 정도 손에 영허영 좀 민질민질헿 정도민, 뿌적뿌적 부플 정도는 아니고.
 @1 아.
 #1 민질민질헿 정도면은.
 @1 응.
 #1 모시 거튼 거 얹은 거는 쪼끔 쉼뚝 허게 허믈 쪼끔 더 쉼뚝 헤영 부비고. 광목 거튼 거는 쪼끔 여트게 허면은 민질민질헿 정도만 허면은 광목 헤영.
 @1 쟁 옷을 그디 낱 영영영 낱 헤마씨?
 #1 어, 대야에 낱 싹싹싹싹 부비어근에 싹 짱 쟁 넣어.
 @1 영 짜민 안 뵈 거 아니꽈?
 #1 무사 안 뵈어?
 @1 그뚝 나지 안헤?
 #1 물리울 건디, 물리우믈 그뚝 안 나?
 @1 그믈 영 짜근에.
 #1 으, 탁탁 털영.
 @1 탁탁 털영.
 #1 서답줄 낱.
 @1 빨랫줄에 넣어?

#1 어, 빨랫줄에 넣어.
 @1 썩 흠뻑 축축할 때 들여근에, 발로 밟고.
 #1 으.
 @1 다듬이 두드리는 건 언제 허는 거짜?
 #1 그거는 명주.
 @3 명주.
 @1 명주는.
 #1 으, 명주 팔월 나가면 뭐 유월덜 유월절기만 넘으면.
 @1 으.
 #1 이제 풀헤영 다듬기 시작이주.
 @1 으.
 #1 옛날은 명주, 경도 양단.
 @1 으.
 #1 양단 저고리덜, 일본 텅기는 사람덜은 경도 양단 헤여 왕 허믄 이제 ㄱ추륙, 건 드러
 해도 곱지 안헤여.
 @1 으.
 #1 깨끗이 빨앙 풀헤영 이젠 죽금살금 두드리주, 때리주.
 @1 아 그믄 아까 저 발로 밟는 대신에 그때 두드리는 거짜?
 #1 아니 발로 밟으는 건 밟아 낱 손봐 놔사 때리지.
 @1 아.
 #1 으, 기냥 무턱대고 그냥 꾸겨 낱 때릴 순 없잖아. 차근차근 잘 개영 그때 딱딱 두드
 려낱.
 @1 으.
 #1 그때부떠는 때리기 시작허지.
 @1 발로 밟은 다음에 그다음에 때리는 거구나예?
 #1 으, 그렇주.
 @1 이거 무신거로 때립니까?
 #1 흥두께.
 @1 흥두께?
 #1 으.
 @1 제주똥말로 옛날 곱아난 말.
 #1 다듬이마께.
 @1 다듬이마께.
 #1 으.
 @1 요 밑에 이신 건? 영 감아근에.
 #1 건 흥두께.
 @1 이건 흥두께?
 #1 응.

@1 응 쟁 이걸로 영 두드리는 거구나예, 감는 건 낭이파?
#1 거 낭이주게.
@1 어, 낭이구나예. 나중에는 돌도 나와수과?
#1 돌은 아래 판이, 다듬이판이 돌.
@1 판이 돌이고 영 감는 건 낭이고예.
#1 으, 낭이고.
@1 경행.
#1 다듬이판도 나무로 많이 나왔주.
@1 어.
#1 경허단 중간부떠 돌판이 나왔주.
@1 음.
#1 우리집이 돌판도 다 있어.
@2 삼촌네 집에도 흔 번 가사큰게. 하하하.
@3 사진도 찍어야 뉘덴 헤 부난.
#1 아니 경해도 어디 박아진 거 몰라.
@1 어디 박아진 거. 옛날 헤난 것덜 엇수과?
#1 옛날 헤난 거 미시것이 있어.
@1 다듬이마께나 뉘.
#1 다듬이마께사 잇주만은.
@1 미싱도 옛날 이실 거 아니파?
#1 엇어.
@1 지금 미싱 말고.
#1 엇어, 다 이제 미싱이지. 옛날 미싱 써져?
@1 언제, 지금 이신 지금 쓰는 미싱은 언제 산 거파? 집이 신 거.
#1 아이고 경 해도 사건 던 오랏주.
@1 하하하.
#1 사건 디는.
@3 오십 년?
#1 한 사오십 년 뉘주.
#2 이게, 이게 오랜 미싱이에요.
#1 이게 오랜 거주, 이게.
@1 몇 년 뉘 거마씨?
#2 우리 시어머니 쓰던 거라서 한.
#1 이거 태어난 때나 나와실 거라게.
#2 육십 년 넘어뉘.
@1 어.
#2 저것도 영국에서.
#1 육십 년이 아니고 백 년도 넘어실 거라게.

#2 그니깐 사온 때에.
 #1 맞아, 이 미싱은 진짜 존 거.
 #2 아, 육십 년 델 뵈구나, 애기 아빠.
 #1 이거 옛날 신가, 신가 해 가지고.
 @1 어.
 @2 신가 미싱이 유명헌 미싱이꽈?
 #1 으.
 @2 어.
 #1 신가 미싱이 일본에서 나온 건디 이게 땀이 제일 고와.
 @1 아.
 #1 이것에서 모시 적삼 허면.
 @1 으.
 #1 틀림없어. 실수가 안 뵈.
 @1 아.
 #1 도련도 콧 제와지고. 요지금 미싱은 이렇게 걸려만, 엉거엉거 엉거엉거만 주는 거든,
 이걸 우알이 콧콧 팽겨져 썰이.
 @2 으.
 #1 땀이 고와 이걸.
 @1 계난 삼춘, 지금 쓰는 미싱은 경해도.
 #1 이런 미싱은 하도 쓰단 보난 다 뵈난.
 @1 데껴 붙언?
 #1 네 뎡가 다 친척덜 다 쥐 불곡.
 @1 어.
 #1 뭐 이젠 건 요지금 미싱, 이런 발 써져게. 모다 걸영 모다 미싱덜 빨라, 빨라야 돈 벌
 거난. 하하하.
 @1 하하하. 하긴예.
 @3 저건 수동이거든요.
 @1 발로 이렇게 허는 거예, 응.
 #1 이걸.
 @3 양발, 양발로 허는 거.
 @1 옛날에 우리 집에도 잇어나신디, 미싱.
 #1 다 옛날은 그거주게.
 @1 그니까예.
 @3 저게 그거거든.

염색

@1 으, 다음 염색. 그 아까 갈증의 입젠 허민 감, 감물 들여놔수게?
 #1 으.

@1 감물 들이는 것도 해놔수과?
 #1 감물 들 중 모르는 사람이 있어게.
 @1 우리, 우리, 우리. 헐 중 몰라. 하하하.
 #1 예, 경해도 허든 해져.
 @1 이제 이제 흐끔 이시든 헐 철이우파?
 #1 그렇주, 이제 앞으로 나갈 차례주.
 @1 장마 끝나민 헐 건가? 이제 장마가 늦어 가지고.
 #1 장마허고 관계 엇이 거의 뉘지 안헤신가?
 #2 감이 이제 풋감이 어느 정도 뉘면.
 #1 훑엇던데.
 #2 하도 오래뉘 가지고.
 #1 텔레비에 나온 거 보난 훑엇던데. 난 경 아녀도 아이고 감들이젠 유월절기만 넘으면 헤여.
 @1 유월 절기가 언제마씨?
 #1 몰라, 절긴 언제.
 @1 음력으로.
 #1 언제 들어왓신지사.
 @1 아, 들어올 때 이수과?
 #1 건 책력 이서야 보난.
 @1 책력 이서야 보는 거구나예.
 @2 유월절.
 @1 유월절예. 유월 절기 들어오민 이제 감물들이는 거구나예.
 #1 때가 뉘 거, 감물들일 때가 뉘 거.
 @1 계난 이거 감 따다근에 영 뺏아?
 #1 도고통에서 뺏아.
 @1 도고통에서?
 #1 도고통 아니면 우리 도고리 엇이난 큰 도가리, 도고리엔 허는가?
 @1 으, 도고리.
 #2 옛날 돌, 돌, 절구, 절구통에다가.
 #1 아니, 절구통 말고 큰 나무로 만든.
 @1 남방예?
 #1 남방에도 아니고 도고리.
 @1 도고리.
 #1 으, 도고리에서 기냥 막 덩두렁마께 알아?
 @1 예게, 덩두렁마께.
 #1 덩두렁마께로 막 뺏아.
 @1 뺏아.
 #1 물 조금 즐락즐락 그레 지치멍 막 뺏앙 가볍게 짱.

@1 으.

#1 그 물.

@3 소선거?

#1 으, 소서 맞아.

@3 소서?

#1 으.

@3 음력으로 오 월 이십팔 일날.

#1 으, 소서 그 절기 드는 날.

@3 예, 소서 아니른 대서.

#1 아니, 소서.

@3 소서 아니?

#1 소서에 들어와.

@3 소서에 해야지, 대서는 좀 늦은 거 닷고.

@1 으, 그래서 다 못아근에 물 흐끔씩 노명에는.

#1 으, 물 흐끔씩 노명 뵙아. 이제 그 천으로 와자작하게 짱 물 나오면 그 물을 이젠 그 이녀 감옷 헐 것에 꼭꼭 적정.

@1 아, 껍데긴 껍데기영 찌꺼긴.

#1 던져두고.

@1 다 짜근에 물만.

#1 으, 으, 물만. 경헐 이젠 강 벳 바른 디 가근영에 저 서답줄에 걸영은 안 뵘어.

@1 아.

#1 반 디, 안 반 디 헤여.

@1 아, 반 디, 안 반 디 헤 부난.

#1 어, 응. 게난 펜작헐 디 뇌야 벌그롱허게 발거든.

@1 어.

#1 경허른 이제 바짝 물르른 거뵘당 또 물 푹 푹갓당 또 건정 이제 물 빠지민 이제 또 경 세 번만.

@1 세 번?

#1 응. 세 번만 허면은 맞지. 옛날은 벌경게 헛주만은 지금은 맞지 좋아.

@1 응.

#1 옛날은 흐 다섯 번 헤진 거 같아. 겨난 막 붉당 버치른 검게.

@1 응.

#1 때 묻은 거 물르게끔 막 옛날은 헝 입어시난.

@1 그 감 말고 다른 것도 물들이, 옛날에 물들이젠 허른 어뵘 헤난마씨? 이젠 다 헝 나 왓주만은.

#1 옛날은 나 물들이는 사람 아니난 건 모르것는데, 물들이는 데 강 들어왔거든.

@1 아, 물감 사당 집이서 끌렷젠 허는 말도 잇언게만은 경은 안 헝디가?

#1 아니, 옛날엔 물들이는 사름이 잇었어.

@1 아, 어디 장에 가민?
 #1 오일장에 가면 큰 가마솥디 헤영 이제 알로 불 때어둬서 이제 물들일 사람 가져가는 대로 다 들여 줘, 들여.
 @1 게민 우리 무명천 하나 영 뭐 흔 필이라도 강 행 이거 물 들여 줘서, 영 허는 거파?
 #1 으, 무슨 색깔 헤 도렌 허면은 그냥 그디서 그 색깔로 싹 들여.
 @1 옷으로 물들이는 게 아니고 천으로 들이는 거지예?
 #1 옷, 옷 입단 것도 들이구정 현 사름은 강 들어곡.
 @1 아.
 #1 천도 강 들이구정현 사람 들이고, 옷 입단 것들도 들이는 사람 옛날은 많았주게.
 @1 으.
 #1 흰 거 때 안 저 가민 강 이제 검은 색깔, 주루 검은 색깔, 껌정 색깔.
 @3 검은색은 뭘로 염색헤신가마씨?
 #1 그게 알 게 뭐여.
 @1 화학.
 @3 화학?
 #1 화학이주게.
 @3 어, 어.
 @1 그냥 천연 염료로 뭐 무슨 풀이나 이런 걸로 뭐 물들여보진 아넵디가? 감 말고는?
 #1 그런 걸로는 안 헤 봤어.
 @1 요즘엔 무슨 뭐 치자로도 한다, 뭐 뭘로도 한다.
 #1 치자로는 나도 잘 허지.
 @1 안 헤 봤덴 허명 다 헤나신게게.
 #1 건 기본.
 @1 치자하고 감은 기본?
 #1 응 치자 잘허지, 치자 삼베 ㄱ튼 거.
 @1 예.
 #1 이런 모시 거튼 거 색깔 조금 내왕 입구정힐 때는.
 @3 홍화, 홍화, 홍화.
 #1 홍화는 안 헤 봤어.
 #2 옛날 어르신은 치자하고, 송옥하고, 홍화하고는.
 #1 송옥은 뭐?
 @3 나무, 나무.
 #2 빨간 색깔 나오는.
 @1 응.
 #1 으, 치자는 많이 써.
 @1 치자는 어떻 행 허는 거파? 무신걸로.
 #1 아니 치자는 기냥 사당 ** 까 노른 쏘곶에 껌장현 것만 나오면 먹자주 색깔, 그거 나오면 기자 힘벽에 쌍 쪽쪽 물에 등강 누비믄 어느 정도 색깔, 이녁에 알맞은 색깔 나오

면 기냥 옷 속에 등장. 경헨 싹허게 짱 한꺼번에 풀 맥여야 오래 가.

@1 으.

#1 들류왕 풀 맥이지 말고 젖을 때 한꺼번에 풀 맥영 싹 널면은.

@1 으, 계난 치자 낭이나 꽃이나 이런 걸로 허는 게 아니라, 물감 사당 허는구나?

#1 아니, 아니, 열매, 치자 열매.

@1 치자 열매.

#1 열매, 영 계부계(?)처럼.

#2 마당에 엄청 많이 열어요, 열매 이렇게 공원 같은 데 피는 그런 게 아니고.

@1 응.

#1 나무냐?

#2 나무예요.

@1 아니, 요정도, 요정도밖에.

#2 우리 마당에 잇었는데 죽었어, 엄청 크니깐은.

#1 으, 맞아 거.

#2 근데 저거는 식용이라서 음식에도 넣어 먹고 옛날엔.

@3 약으로도 많이 쓰잖아, 우리 그 한약방 이런 데 가면.

#2 우리 어혈 같은 거 푸는 데도.

@3 이렇게 이렇게 생긴거 말려 가지고예.

@1 계른 이거 놔근에 삶으면 뉘는 거마씨?

#1 삶지 아녀.

@1 삶지도 안해?

#1 으, 모시같은 건 삶지 아녀, 그냥.

@1 아, 그냥예. (잡담)

#1 그러니깐 자꾸 들여야 뉘. 한 세 번에 한 번씩은.

@1 아 한 번 들영 끝나는 게 아니고.

#1 응, 한 서너 번 빨아가민 그냥 희어가. 겐 자꾸 들여야 뉘.

@1 아, 물이.

#1 맞아, 요거 낱 삶으면 천연 염색 뉘 거.

@2 응, 응.

@3 빨강계.

@1 도구는 없을 것 같고. 신발도 얘기를 했고.

모자

@1 모자, 옛날엔 모자 무신 모자 써낫수과?

#1 누가?

@1 삼촌네 어렸을 때, 아니 삼촌네 젊었을 때.

#1 우린 모자 써본 적이 엇어.

@1 계민 모자 안 쓰민 어땡? 다 수건?

@2 밧디 강 일허젠 허민 어른들.
 #1 어, 수건.
 @2 응.
 #1 그늘수건으로.
 @1 응.
 #1 그늘수건으로 그냥 수건 죽으나사나.
 @1 그늘수건.
 #1 마후라도 엇엇어, 옛날엔.
 @1 그늘수건은 무사 그늘수건?
 #1 뱃 나니깐 그늘지렌.
 @1 예.
 #1 요렇게 영 긴 거, 요렇게 헤영 우이만 영 무끄주게. 경허믄 이디 귀는 영 나오곡.
 @1 페랭이추룩?
 #1 펠락허게 아니, 그냥 퍼랭이도 엇이 옛날은 막 옛날은 퍼랭이도 엇언. 중간에 보리
 갈기 시작허난 그거 보릿대로 페랭이를 짜명 만들엇주.
 @1 응.
 #1 막 옛날은 페랭이도 엇곡.
 @1 그냥 수건만예?
 #1 수건만.
 @1 응, 그늘수건, 예?
 #1 그늘수건, 그늘치렌.
 @1 그늘치렌.
 #1 응.
 @1 여름엔 수건이고 겨울에도 수건이파?
 #1 겨울에도 그 수건, 겨울엔 이제 맞수건으로 무꺼, 뜻이렌.
 @2 응.
 @1 맞수건?
 @3 머리에.
 #1 맞수건이라고 마지막 무꺼 분다고 허영 다.
 @1 응.
 #1 품뎡이 두 개를.
 @1 예, 예, 예.
 #1 이제.
 @1 마지막 귀를?
 #1 응 쳇 번 여름 수건은 요디만 요렇게 무끄거든.
 @1 예.
 #1 요렇게 무끄믄 영 뉘곡, 겨울 수건은 요렇게.
 @1, 2 아.

#1 막 무꺼 버려.
 @2 으.
 @3 바람 안 들어오게.
 @1 그 아까 그 상 났을 때 주는 그 복친, 복수건처럼.
 #1 복수건은 막 길게 주워.
 @1 응.
 #1 웨냐허믄 죽영 가는 사람이 산 사름 명이라도 질렌.
 @1 아.
 #1 그래서 석 자 세 치를 주거든.
 @1 예.
 #1 건디 요지금 경 안 주워 두 자 지레기 행 마주 썩 설러부는데.
 @1 으.
 #1 경헤영 길게 헤영 이제 이디 코 나게시리.
 @1 응.
 #1 코 나게시리.
 @1 무쨌예?
 #1 잡아텡경 무끄주.
 @1 그다음 그렇게 그런 광목으로 험니까? 아님 지금 우리 쓰는 타올.
 #1 돈 엇인 사름은 광목도 허고.
 @1 응.
 #1 돈 이신 사름은 베도 허고 타올 ㄹ튼 거는, 거는 팜 다끄렌 주는 수건.
 @2 으.
 @1 계난 이럴 때 허는 수건은.
 #1 으.
 @1 주로 광목이나 베로 해근에 허는 거짜?
 #1 으.
 @1 밧디 강 일헐 때도?
 #1 으.
 @1 어디 외방 갈 때도 수건 썩 갑니까?
 #1 외방 갈 땐 으, 외방 갈 땐 이젠 그 광목 빨앙 숲앙 문짝 흥두께에 다듬앙 풀 헤영 다듬앙 스몏 헤영케 뻥뻥뻥뻥하게 헤영 이제 거 석 자 세 치 낱 이제 귀나게 헤영 뒤이론 이제 헤영 그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제 걸어가민 들렁들렁 끄트머리 양쪽에 허게끔 경 헤영.
 @1 어.
 #1 경 헤연 할망덜 썩 가고.
 @1 응.
 #1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 다 노, 늙신네들.
 @1 혹시 겨울에 따뜻하게 할라고 뭐 이렇게 쓰는 건 엇어나수과?
 #1 옛날은 그런 건 엇어나신디.

@1 응, 아까 가죽옷 헛텐 허난 혹시 가죽으로 뭐 모자 만들고?
 #1 그런 것도 엇어, 남자들은 가죽으로.
 @1 아 남자들은 만들언 씨낫수과?
 #1 어, 남자들이야 뭐, 가죽모자, 가죽, 그것보고 뭐, 아이고 그 모자. 얼른 생각, 투, 투.
 @2 감, 감티?
 @3 감투, 감투, 감투 말고?
 #1 감투 말고, 에이고 뭐렌 해낫저만은, 투영이? 아니, 아이고.
 @1 생각 안 나.
 @3 감테, 감테.
 @1 아까 아버지,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 사냥허는 사람들만 쓰는 거파? 보통 남자들.
 #1 아니 일반 기냥 노는 늙신네들 다 부모덜토 다 헤영 씨와.
 @1 건 어떻게 생긴 거마씨?
 #1 머리에 브름 들어가지 말렌.
 @1 으.
 #1 그냥 요지금 요디 요로콤, 요로콤 행 귀 막고 허는 모자.
 @1 으.
 #1 이? 그 옛날식 모자가 이제 그 모자가 그 모자.
 @1 응, 우리가 알고 잇는 감티 같은데.
 #1 일로 영 행 무끄게끔.
 @1 귀 나오게 아님, 귀 막아지게?
 #1 아니, 귀 막아지게.
 @1 귀 막아지게.
 #1 영 허영 이추룩허영 뒤는 영 또 둥글게 허영 올로 톡.
 @1 이게 다 가죽이파?
 #1 다 가죽.
 @1 아 노리가죽?
 #1 노리가죽.
 @1 으.
 #1 뭐, 소가죽으로덜토 막 나온덴 헤도 우린 그런 건 안 보고 그냥 우리 제주도에선 노루베끼 안 잡으니깐.
 @1 응.
 #1 그자 노루가죽덜.
 #2 옛날엔 귀헛으니깐 소도, 소 한 마리 잇으면 부자잖아요.
 #1 맞아.
 @1 으.
 #1 아니 막 옛날은 경 안 헛어. 우리 대에는이 소들이 많으니깐 막 양제도 주고 해낫어.
 @1 양제 주는 건 무신겨우파?
 @2 소를?

#1 소를.

@1 응, 늬이 집이?

#1 이제 소가 이녁집에 많으믄 어려운 집 이시믄 소 하나 양제 줍서 허믄.

@1 응.

#1 암술 하나 줘.

@1 응.

#1 주면 그 사름이 길루명 새끼 배영.

@1 응.

#1 나면 쌍둥이 나면 하나씩 갈르고.

@1 쌍둥이 안 나민?

#1 쌍둥이 안 낳 하나 나면 우선 가져간 사름 하나 하고.

@1 아.

#1 나중에 난 건 또 입자신디 하나 오고.

@1 아.

#1 그거 보고 양제.

@1 그거 양제 주는 거렌 허는구나예? 응.

#1 경혜영 엇인 사름덜은 경혜영 막 소 부자덜토 뒤고 경 혜낫어.

@1 아, 모자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경험담

@1 아, 그럼 마지막으로 삼촌 오랫동안 옷 만드는 일했는데, 옷 만드는 일을 이제 헤 보
난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안 좋다, 허는 거 이수과?

#1 난 다 좋아.

@2 하하하.

@1 다시, 다시 저 태어남 허렌 혜도?

#1 난 경혜도 옷은 만들 거.

@2 아.

@1 아, 막 손 아프고 뒤 눈 아프고 안 험니까?

#1 아파도.

@1 음.

#1 아파도 좋아.

@1 음, 어떤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마씨? 옷 만들어서?

#1 옷 만들어서 잘 뒤 때.

@1 어.

#1 진짜 썰 한 번 아니 무꺼지고 그냥 싹 플렁 만들 때는 야, 오늘 참 재수가 좋다.

@2 아, 잘 만들어질 때.

#1 잘 만들어질 때 재수가 좋다.

@1 저는 오십베끼 안 뒤신디도 눈 어둑어근에 바농도 못 끼우는다.

@3 하하하.

@1 삼촌은 어떻 팔십 나도록 그거 바농질을 해점수과?

#1 아니, 바늘은 기냥 짐작으로 기냥 바늘귀 같은 거는.

@3 한 번에 끼워, 짝.

@1 못 끼웁 안경 벗고 해야 돼. 영 헤영.

#1 아니, 나 바늘은.

@1 으.

#1 시장 안네 바느질하는 사람도 그 바늘 안 써. 것보다 조금 큰 거. 그 귀 꿰지 못허켄. 켄디 난 제일 작은 거, 제일 까는 거 쓰니깐.

@1 아.

#1 제일 작은 거 써도 경해도 그냥.

@1 어떻 끼웁수과? 눈 안 어둡습수과?

#1 아니, 기냥 어떻 허든 기냥 꿰지는디.

@3 이게 오래하니깐 느낌이 있나 봐. 그러면 눈이 잘 예를 들어서 안 보여도.

#1 으, 요사이로만 찢르민.

@1 으.

#1 구멍만 바르게 딱, 구멍 영 보민 귀 난 딴 낚지근허거든.

@1 응, 응.

#1 안 난 딴 영 도톰헌 디로 잡앙 영 허든 어느 정도. 게도 어느 정도 보이기는 보이지, 번쩍 안 보영 찢르는 건 아니라도 게도 짐작이 많아.

@1 아, 이젠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지예? 손재주가.

@2 바농질 잘허는 거.

@1 어.

#1 글썄, 모르겠는데.

@2 모르겠는데.

@1 어, 어무니가 잘하니깐 선생님도 잘허는 거 아니파?

#1 옛날엔 다 잘허지 안헤신가?

@2 하하하.

@1 나 옛날에 태어나시든 큰일날 뻔.

#1 아니, 아니 옛날 어른덜은 못헌 어른이 없었어. 옛날 어른들은 다 이녁으로 헛주.

@3 게도 곱게 할 수 있냐, 허기야 다 헛주. 곱게헛 수 있냐 경 안 행 막.

#1 그거는 모르겠는데.

@3 이상하게 헛느냐 허는 거지.

경험담

#1 아니, 나 제주학원 이 회로 들어간 그 학원을 양자학원을 졸업헤신디.

@1 응.

#1 아, 이 학원에 양장을 배우레 들어갔는데, 요놈으 ○○○ 선생이 맨날 한복을 그 짝

한복을 입어 텅기주게, 한복만 만들어 도렌 그 기지를 가져 들려. 하하하.

@1 운명이네. 하하. 삼춘은 한복 헐 운명인게마씨.

@3 아, 양장 선생이다.

#1 아, 양장 선생님인데 양장 안 입고 한복만 입어 텅기는 선생인데.

@3 한복해 주렌 헨마씨?

#1 한복만 해 도렌 매날 가져들어 텅겨.

@1 응.

#1 경허단 보난 양장은 싹 잊어볼곡, 경허단 보난.

@1, 2 하하하.

#1 이 오십 센치, 이 뭐 센치로 허는 거를 통 몰르고 나 자만 기냥 육십 센치거나 헤영 그 자로 익숙어지니깐.

@1 응.

#1 다른 거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 그 글자에 대한 것밖에.

#2 근데 손생님, 그 ○○○ 선생님한테 배우셨어요?

#1 ○○ 맞아.

@3 아, ○○○ 선생님한테 배완마씨?

#1 ○○○, 으.

@3 어, 이 회?

#1 그 선생이 삼자라.

#2 그 선생하고 어 저기에서 여성회관 옛날에 나가면은 그 선생님하고 저는 같은 강사를 했었어요. 저는 자수 강사를 하고 그 선생이 한복 그때.

#1 몸피도 똑 ** 반 헐 거 가트다.

#2 그분이 좀 옛날 지식인이라. 집안이 좋아 가지고 오빠도 그 판사도 있고 그랬었어요.

#1 으.

#2 근데 그분이 장애가 있으니깐 똑똑하고 그래 가지고, 그분 장애 잇잖아요.

#1 뭐가 잇어?

#2 아니, 목발 짚고 다녀.

#1 아아, 그 ○○○. 아니, 아니, 아니.

@3 누구마씨?

#1 ○○○ 선생이라고.

@3 누구?

@1 ○○○.

@3 ○○○.

#1 ○○○ 제주도에서는 제일 문처 헛어. ○○○ 선생님은 그 사름은 조금 독한 사름이라.

#2 그분은 이제.

@3 ○○○.

#2 으,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지.

#1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지.

#2 으.

@3 ○○○ 선생님은 원래 한복하시던 분이시.

#2 한복했어요.

@3 책도 쓰고.

@2 고맙습니다.

@1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 조사 일시: 2021년 6월 11일
- 조사 장소: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경로당
- 조사자: @1 김미진 @2 고순희
- 제보자: # 박성지

- 조사 일시: 2021년 6월 11일
- 조사 장소: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경로당
- 조사자: @1 김미진 @2 고순희
- 제보자: # 박성지

제보자 정보

@1 여기는 조천읍 와흘리이고 삼춘 이름은 무신거마씨? 한번 더 글아 줘서.

박성지.

@1 박성지 삼춘, 삼춘은 올해 나이가 어떻 뭐마씨?

새해 구십.

@1 새해.

삼삼년 구월 십삼 일생.

@1 아, 원래 고향은 어디?

이디서 태어난 이디서 일생 감주.

@1 원래 고향도 여긴디 시집도 이쪽으로 온 거. 와흘이 그럼 완전 본토백이구나예. 학교는 혹시 어디까지 땡겼수과?

학교 땡겨졌어게. 못 땡겼주게. 학교 무땡에도 못 가왔주.

@1 경헝, 일제시대 때 뭐 일본말도 헝뵈 배완?

그 일본말도게 곧 뵈젠 헝단 그 일본 사름이 그 하도 싸울 때난 공출을 허렌 헝어.

@1 음.

공출은 보리도 헤영 바치곡, 감저뵈데기.

@1 응, 응.

그거 헤영 그냥 우리 못 먹어도 헤영 그 흑에 널영 그거 몰좌근엥에 멧 톤씩 강 바찌렌 헝에 그거 허연 바찌레 간 바찌단 남안 우리 아버지네가 남은 거 추가로 더 바찌된 왓어. 바찌된 오고, 집이 완 남은 거를 사름으로 뵈젠 허른 헝드니까 소.

@1 응.

말 잘 들어. 그레 그는 거.

@1 응.

경 헝 소 메완 감저뵈데기를 우리 먹젠 믱음 낫주게, 우리도게. 그 남은 걸 쥐된 왓시난. 아, 경헝 뵈노렌 허난 이젠 읍사무소엔 헤도 그뵈 멘.

@1 응.

그뵈 서기 이름이 뭐냐 허른 박〇〇 이젠 직원이엔 헤도. 그뵈 서기가 박〇〇이엔 한 아저씨라났어. 아니커라 뵈노렌 허난 완 박박 씨는 거라. 겨난 사실 헝 대로 영 정 허연 남은 거 추가로 다 바치고 남은 거 이거 우리도 배고프곡 헝 걸 먹어살 겨난 좀 봐주렌 헤도 안 봐주는 거라.

@1 응.

경혜영, 간 계만은 그디 강 서류가 다 이시난 그냥 무효뎌 거 우리 실컷 먹었주. 경혜 먹고, 일본 글을 배우렌 혜연 지금 한글이른 가가거겨고 현 거이.

@1 응.

그거 본문을 다 못 배웠어. 어머니 아버지 인사, 아침 인사, 저녁 인사 그거 뻗 뭣 말로 뻗곡 인사 뻗고 할아버지, 언니, 동생 현 거 그거 현에 뻗단 그냥 해방뎌 분 거 아니?

@1 아.

해방뎌 부난 그자 이거 해방뎌었주 현연 경 정 영 허단 보난 어릴 때난 게 뭉 무신 경이젯아이 ㄹ치 으망지게 헤젯어?

@1 흐흐흐흐.

경혜 허단 이젠 해방뎌었저 현연 왕왕혜 이젠 스뭉 귀뎌 들르뎌 침 만세 불르뎌 현연, 경 허난 그다음엔 이젠 본말 우리글을 배우렌 헛어.

@1 응

우리글을 뻗는디 우리 우이 언니들은 삼 학년이랴고 우리는 또 이 학년이랴어.

@1 예.

계난 삼 학년만 헤시른 우리도 받침뻗을 알앙 한글 그런 대로 몰라도 아는 척 행 살 건디. 그 받침뻗을 글을 뻗들젠 흐는디 나는 알주만은 상대방은 몰라. 왜 몰르냐믄 시웃 바짖 거 지웃 바짖 거 이거를 구뻗을 못 헤어.

@1 아.

다 뻗지 못현 상태난.

@1 예, 예, 예.

경 허뎌 헤도 이제 그걸로 간판도 보곡, 차 버스도 보곡 혜영 몰라도 아는 척 혜영 시에 가는 거라.

@1 하하하하.

경혜 허단 이젠 그 육이오사뻗은 난 이젠 왕왕혜 현 거 아니. 곱으레뎌 뎡긴다, 이제 국이 데싸전 현디. 난 어릴 때난 나를 심어가도 안허곡 아무것도 안 현는디. 아방 어디 가시니 오라방 어디 가시니.

@1 응.

그뎡 아방, 아버지 아방이렌 헛 때난. 아방 어디 갔어? 오라방 어디 갔어? 계믄 그거에 질련 나도 아버지영 계속 곱은 거라. 숨은 거라. 경혜 숨단 현뻗은 조를 비어뎌에 ㄹ실이난 시월뎌에 비어단 조 비레 가진, 더러 고고리 툃앙 왕 모엿단 거 현연에 그 불 카는 날 아침은 쉼 메완 그때도 아침 일찍 일어난 그 조 까까단 난간에 무뎡에 마리에 그거헛 놔 두곡 우리 하르바뎌이 있어, 우리 하르바뎌이 이신디 하르바뎌은 늣엇곡 현난 우리 ㄹ라만 재기 내뻗어 뎡 들으라 들으라 혜영 이디 와흘 곱이 이서. 그 곱에뎌 거의 문뎡 마을 사름 곱아 부난 집뎌은 그자 문뎡 케와분 거 아니?

@1 사삼 때?

응?

@1 사삼 때?

육이오사변 때.

@1 아, 육이오사변 때?

육이오사변 때. 쟁 크쿨이 케와 부난 이젠 게도 영 해뚜룩헌 거라도 입엇자 감웃 잇잖 아 그때. 감웃 우알 입은 거 이선 허난 이젠 갈 디털은 엇고 켜당 좇앙 가는 사름 이제 아는 사름 좇앙 가는 사름헌 우리도 이젠 하르바님 친구가 신촌에 사난 그디 간에 이불도 주곡 뭐 사발이 시카 이거 뭐 말도 못허는 거라. 옛날 초가집 막 오랜 거 케와 부난이 뭐 좇어 아질 것도 엇곡, 좇일 어이도 엇곡.

@1 응.

경헨에, 현디 우리 하르바님은 그냥 숨어 붙엇어. 우리 보내돈 그래도. 숨어 부난 붙부껴 부난 그냥 불탄 그날 돌아가시곡. 경헨 신촌덜 느려간 허난 또 이젠 다 저 어디 다 나오렌 헤연 그자 식구가 하나 죽으나 다 나오렌 헤연, 아이곡 어른이곡 신촌 학교에 문딱 나오렌 헨 집이 사람 시민 걸리민 죽을 거주게. 쟈 문딱 나강 눈 곰앙 그냥 운동장에 문딱 영헨 앓전 돌아상 바레져 무시거 허여.

@1 응.

계난 총 허민 팡허믄 그자 다 죽을 거라.

@1 아.

겨난 그자 그변이나 팡 허카 저변이나 팡 허카 눈 텅 어드레 브레도 못허고. 밤이주만은.

@1 응.

옆이 딱딱 부병 들어사곡, 경헤연 이젠 그자 그변 꾀날 건가 저변 꾀날 건가 헤영 현디. 어떤 순경 하나가 나산에 한 마디 허켄 헨, 한 마디 허는 거라. 뭇 말 허냐믄 백성 없는. 이제 국민이주만은 백성 없는 나라로 뭇 험 것곤. 이 백성덜 다 죽여 똥 뭇 험 것곤. 그 말 흐 뭇디 허난 죽이질 아녜어.

@1 응.

죽이질 아녀난 그냥 이젠 다 산 거라. 사난 성 썩 등으로 돌 지명 이것사 다 들엇주만은 헤도. 경헨에 성들 썩 헨 살단 이젠 이 산간 사름덜은 대흘리레 가렌 헛어. 계난 대흘리레 갔어. 우리 여길 오질 못헤연. 대흘리레 간 또 이젠 그디 함바집이엔 헨에 기냥 살단 또 건 가인적으로 담만 다완 역새 비어단 영 얽연 살, 칸칸 헨에 요디 흐 사람 요디 흐 집이 허연 산 상태난 요디서 애기 불 방대허단 가단 오룩허게 케와 붙연.

@1 혁.

겨난 또 신촌 느려갔어, 우린. 또 신촌 느려갔단 재건헌텐 허난 올라완에 집 켜끄만허게 헨 방도 엇곡 헤연 사는디 그때에 음, 박정희 대통령.

@1 응.

그 어른이 나완에, 이 새뭇을 사업으로 막 질덜도 넓허렌 허곡 저 농장에 그 저 농사 아이 짓는 받덜 그것덜 개간허렌 헨에 개간허는 사름 밀카루 흐 푸데씩 팡팡 주멍덜 헤연.

@1 응.

경헨 어떻 어떻덜 그냥 살앗어. 헤연 살단, 이젠 또 그 시국에 남저가 다 죽어 붙엇어, 젊은 사름은. 다 죽어 부난 남자덜이 엇엇어. 계난 군인 가 불고 허난 엇이난 침 집 짓는디 우리도 다 나산 지봉에 올라산 다 허곡 흑질허곡 다 허멍 허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집 짓

을 재료도 내줬고 돈도 줬고. 경헨 집 짓던 살단 이젠 살아져 가난 이젠 영 새로 짓던 사는 거주. 겐 사는디 그때에 우리 하르바님이 우리 할마님이 먼저 돌아가셔 부난 우리 어머니님이 모셨어. 헨디 그 한복을 옛날은이.

@1 응.

한복을 허는디 우리 어머니도 솜씨가 좋아. 솜씨가 좋앙 허곡 우리 하르바님도 솜씨가 경 좋앙 그 옛날 초신 잇잖아. 짚신. 그거를이 기가 맥히게 삼아.

@1 아.

겨난 이 가름에 할망덜 건 아무라도 못 허여 어려왕. 보통 신으는 것도 어려운데 산뒤 째 소독 쫄랑 노란물 들영 크고 죽은 거 문딱 선별허는 거라. 그 소독을, 그거 선별헤영 노란물 들영 훤은 건 훤은 것대로 준 건 준 것대로 영 바우 하얀 길로 감앙 저 나무 영 갈 앙 맞는 거 발 닦은 거 시난 그거 신 낱 허믄이 기가 맥히게 허여. 경허멍 허곡 우리 어머니는 한복허는 거 보곡 하르버지 한복하는 거 보곡 나 옷을 만들젠 허믄 우리 어머니는 커 오는 아이난 좀 치마를 길게 만들젠 허곡.

@1 예.

또 어려도 또 나도 흐쉴 벨라지긴 헛어.

@1 하하.

경허난 긴 거를 그때 그 옛날 치메저고리 거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말 입어 낫주. 겨난 흐쉴 쫄르게 허젠 허믄, 단이영 우영 문딱 헤 낱 이거 영 허렌 허멍 허당 알게 몰르게 그 걸 쫄르게 헤 붙어 나가.

@1 하하하하.

경허믄 어머니는 이건 잘못헛젠 허믄 우리 하르바님은 딱 지집아이들 치메 질믄 중기 닳나.

@1 어.

중기렌 현 건 이제 바보 물명헌다 이거라. 옛날말로 중기 닳나 현 건. 그거를 하르바님이 경 이빠서 말해 주는 거라. 경허단 보난 바농질은 그냥 뭐 누게 시겨주도 안 허곡 경정헌 거라. 경허난 결혼헛 때도 뉘곡.

@1 겨난 몇 살 때쯤에부터 바농 잡안에 영 헛디가?

흐 으남은 설부떠.

@1 흐 으남은 설부떠. 아이고.

으남은 설부떠 헛고, 열세 설엔 그냥 밧일 계속 검질메러 계속 텅젓곡. 겨난 비나 오곡 이 팔뿔 돌아왕 가을 등겨가믄 빨래덜, 이불 빨래나 무시거나덜 다 허영 풀덜 헤연 다듬이 행들 헛주게. 경헤연 그거 허는 거 봤단 군인 가 부난 그때도 삼 년을 더 살았어. 그때 군인들이. 오래 살고 허난.

@1 결혼, 결혼헛에 군대 간?

응.

@1 응, 몇 살 때 결혼헛디가? 삼춘은?

나 한 갓주, 스물둘에.

@1 스물둘에 결혼헛.

그때 남자가 엇엇어. 남자가 엇엇고 스물들에 결혼헤연.

@1 군대 가 불언?

구월들에 결혼헤연, 십일월달에 군인 갖추. 경혜 부난 그루후젠 재건허렌 헨 이디 완 그자 살아가는 게 탕간, 탕간 헛곡, 또 양태엔 헨 거 펜펜헨 거에 낱 양태 허는 사람은 또 양태 헛곡. 주민만씩 허는디 경허멍 탕간 헤영도 벌고 계란 하나 옛날 아이 먹엉 친정에 살멍 아방은 군인 가 불곡 시집인 집이 켜끄만허난 나 잘 디도 엇어. 겨난 안 강 친정에 살멍 비에기 득 사다 낱 득세기 내왕 풀곡 탕간 행 풀곡 겨른 어머니도 그거 문딱 모앗당 주어.

@1 응.

화장품도 사다 주곡 허멍. 경헨 사는 게 이젠 또 나도 계속 친정에만 살멍 그렇곡 허 난 이젠 방 빌언에 이젠 딱로 나완 사는디 탕간 헛곡 또 친구들은 결혼허게 뉘가난 누게 헐 사름도 베랑 엇고 허난 그래도 머리 ㄱ튼 거 게도 헛쌀 얼굴 좀 헤살 거 아니? 겨난 친구덜 머리허는 거 화장허는 거 그때는 음, 건지는 아녜어.

@1 응.

건지헌 사름은 전혀 엇엇고, 머리 크게 뚱뚱허게 여근영에 딱로 만든 거이, 이레 역은 낱즈 헤영 빈네 찰르곡 머리 땡겨난 거 요 너비엔 헨 거 빨강헨 거 요만헨 거 그거 고비청 요레 톱 더끄고.

@1 그거 이름 뭐라고?

땡기.

@1 그냥 땡기?

머릿땡기. 경허멍 허여가난 또 이젠 옷 만들 사름이 엇인 거라 이디서. 옷 만들 사름 엇이난게, 것도 저 어디 탄 데 가른 영업자신디 가른 삭도 비싸주게. 겨난 그때 얼마씩 받진 못헤도 얼마 받아진 것도 모르커라 건. 헨디, 반값은 받았주, 나도게. 경허멍 옷 만들어 주곡. 옷도 미싱이나 셔시른 허주마는 거 손으로 윤디 화리에 불살라둬서 요만헨 거 영 딱 뜻헛게 헤영 낱당 흥번 주어가른 꼬불청 쏙 다려 불곡, 게 아녀른 곱질 아녀. 경허멍 흥연 살앗주. 경헨 살단 그자 살단 보난 이 정체고.

@1 겨난 바농질허는 건 어무니안테 배운 거구나예.

응?

@1 어무닌 막 그런 거 잘헤난 어른?

아, 잘헤여.

@ 뭐 저기 저 뭐 호상옷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건 안 하고?

호상은 나대로는 안 허곡 어디 상나믄.

@1 복옷 만들어주레.

응, 상나믄 가른 두건도 허라, 복옷 몰라 논 것도 허라 허영 허난. 큰일 동네에 잔칠 허나 뭐 상을 하나 헤도이 설거지를 나가 안 흥연. 가른 그런 디 앗앙 잔치집에 가른 신부 조름에 신랑 조름에 따까노렌 허영 안 허지. 상난 디 가른 또 바농질허렌 행 안 허지. 경혜 가난 이제 그 중국베들을 많이 낱어.

@1 아.

겨난 그거 그렇게 싹엇어, 처음에. 싸난 나도 어려우난 경 딱딱 살 형편도 안 뉘어도 허여논 옷 입젠 허민 돈이 곱도 더 들어. 응, 진품이 더 들어.

@1 응.

경헝 그거 천 사당 나냥으로 그자 멘들앙 하나 외출복 허젠 폴도 길곡 에리, 에리는 제대로 뉘지 안허연 제대로 안 뉘도 어디 부주헝 때 외출헝 때 입젠 헝에, 그거 헤 낯 흐 번 입어 받. 이제 요즘도 영 아프난 이젠 걷지 못허난 입도 못헝 거. 문딱 내난 이젠 빨안 풀 헤연 문딱 방에 걸엇주, 이제.

@1 지금 걸려 잇어?

응, 흐 번씩 입어뵙 버릴 걸랑 버리곡 나 저싱 강 입을 걸랑 케와 도렌 헝 싸고 허젠.

@1 겨난, 이제 막 정리헝수과?

아이, 옷. 걷지 못허난 어떻 헤.

@1 응, 그 옛날에 삼춘이 직접 만든 옷들? 직접 삼춘이 만든 거 아니믄 어디 강 사온 거?

아이, 만든 거, 만든 거.

@1 집이 가사큰게. 강 삼춘 만든 옷도 한번 보곡. 미싱도 잇인 거 닳아라예, 아직예. 안 버리고.

발미싱게. 경허단 어려완 것도 노시 못 사난 저 시에 우리 육춘동세 허단 거 주언게, 그거 안에 살 때는 발미싱으로 그냥 헤신디 안에 아드네 살젠 허난 좁안 허고 또 나도 앓 앙 와사 그건 또 버리구정 안 허영, 사온 옷도 안 맞으믄 흐쉴 늦추곡 족으믄 그레 대영 만들곡 허명 즈엽이 세어 노난 할망이. 경허젠 허난 거 미싱, 손미싱 만들안 허단 그 무똥 에 낯 그것도 저것도 못허고.

@1 겨난, 입구에 딱 문 열어신디 보난. 응, 잇언게마씨.

옷감 종류

@1 이제는 막 옷도 막 한디, 옛날에는 옷감이에, 옷 만드는 감이 몇 개 잇어나수게? 무신 종류 무신 종류 옷감 잇어나수과? 옛날엔.

쳇자 저 신부 옷덜 양단.

@1 양단, 응.

그다음에 비루도.

@1 비루도, 응.

그다음 유동.

@1 응, 유동치메예.

응, 유동치메도 고와.

@1 겨난. 할무니들 보믄 유동치메 헝은에 시집갓텐 그 말 자꾸 곤드라고마씨.

유동치메가 아이고 저, 유동치메에 저고리, 양단저고리 비루도는 또 우알 비루도.

@1 아, 건 더 좋은 거? 비루도가 제일 좋은 거?

아이, 양단이 문저 허난 양단이 좋은 거주게. 양단은 저싱 가도 호상으로 입을 거.

@1 아.

입을 건디 그때는 또 이 옷 스미가 지금 흐는 것ㄴ찌 이쁘질 아녜어.

@1 응.

이디가 헐디. 그 시기 넘으난 걸 버리질 말 건디. 그 시기 넘으난 이디가 이렇게 헤영 이빠.

@1 응.

한복덜 영 입영 여자덜 춤이나 출 때쯤은 여기가 그렇게 이빠. 이 도련도 길지 안헐곡 이빠, 겨난. 경 헤가난 이거는 입을 형펜이 안 뒤어. 겨난 문딱 버려 불엇주게.

@1 응, 갹 시집을 때 행 헐 옷덜 다 데껴 붙디가?

응, 하나토 엇어. 비루돈 또 튼언에 이젠 목도리 헐명 헐 설러 불곡.

@1 하하하.

경허연 허엇주.

@1 응, 그문 그거 말고 평상시에 입는 거는 뭐예? 뭐 미녕도 잇일 거고.

이제 더 좋은 거 아이 낭 그 옛날게 불칸 올라올 땐 미녕으로 몸빼엔 헤근앵에 여디 곱 들앙 헤 나신디 그거는 외출 입기가 뒤허난 쓰봉식으로, 쓰봉식으로 헐디 손으로 허곡 허문 이 밋이랑 무시거랑 이 저 허리랑 헐쓸 더 못 헤어. 경허난 손 바놓질허젠 허난 이 알은 이렇게 이 바지로 트곡 우이는 고무 뉘, 이렇게. 고무 뉘 우이 행 입어 불문 그냥 그 거 막 큰 외출복으로 헤연 입엇주게. 보선, 양발 엇이난, 신부 옷덜 헐 때도 보선 헤영, 보선ㄱ장 허렌 허문 보선ㄱ장 다 만들앗주.

@1 옛날에 생각하문 요즘에는예, 옷도 하고 옷감도예.

너무 하지.

@1 너미 하지예.

너무 하주. 꼴을 나우가 셔?

@1 옷감도 데껴 불지 안헤근앵에 입엇던 거 튼영 또 멘들고 막 영 행 입어났잖아예. 옛날엔예.

아이고, 또 겨난 어려우난 아방 입단 바지, 길잖아.

@1 응.

무릅이 헐주게. 허난 일로 이레 짤랑 반바질 멘들아, 애기 거. 반바지 멘들아근앵에 또 이젠 우인 고무 농곡 아래 헐쓸 영행 헐민 반바지 뒤어, 뒤영 그거 애기들 그거 다 입지 곡, 우리 남동생ㄱ장 그런 거 다 멘들안 입헐곡, 또 우리 어머니가 경 손매가 종앙 잘허여 게. 잘허곡 또 나도 경허는 거 보난 허여지고 헐 때 우이 거는 또 천이 엇잖아.

@1 응.

겨민 장에 강 또 풀던 자치가 잇어.

@1 예.

끄트머리. 그런 거 사당 또 우이 거 만들고. 이발도 중학교 때ㄱ장은 문딱 나가 헐고.

@1 아.

하르방 이발도 문딱 나가 헐단 가고. 젊은 때는 아녜주만은.

명주·무명

@1 예, 멍지도 잇어났지예? 그 비루도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멍지로들 많이 허지 안헐수과?

응, 멩지.

@1 멩지도 이 동네서도 흑시 누에 질루멍 헤낫수과?

응?

@1 누에도 질루고 헤난?

그거 이디서는 잘 안 헨, 어디 저 남군더레나 헤신가?

@1 아, 이디서는 그런 거 키우진 안헤?

누에덜 허염덴 헤영 누에 키우는 거는 우리 고모네가 우리 조꿏디서 허는 거 벌레라 게, 거이.

@1 응응.

허는 건 봐나신디 누에 그 멩지 짜는 거는 못 봤고.

@1 아.

저 남군더레 어디 저 동쪽더레 건 헤실 거라.

@1 그믄 멩지 천으로는 보통 옛날엔 무신 옷 무신 옷 멘들아낫수과? 멩지로는? 더 옛날 에는 멩지 치메저고리 헨에 시집갓저 영허는 말도 험디다, 예. 유동치메 이런 거 나오기 전 에는.

그전에 헨 거는 몰라.

@1 응.

그전에 헨 거는 몰르곡 그자 저고리도 그 이젯 저고리 것추룩 허는다, 이 짓이 지금 꺾 짜 지금 짓꺾 짜 헨 거를 나가 못 봤어.

@1 아.

그거는 우리 어린 적에 태어나기 전에 허여난 건 쟁이라. 그건, 전혀 안 봐난 거 그 짓 생김생이를 헨 걸 보믄 겨난 거 나 태어나기 전에 몰른 때 헨 거주게. 나 안 때 헨 거 는 그걸 허여신디. 허고 보고 헤신디.

@1 짓이 어떻 트나마씨?

짓이? 짓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뉘지 아녜어게. 코지 영 헿은앵에, 요거 이거 저드랭이 레 가게 하고, 동전 헤영 요레 넘짜허게 헤영 곱지도 안허게 허영 들곡 이거 허곡 이거 앞 섭이렌 헤영 이레 허곡.

@1 견디.

옛날은 지 중간에 그 꺾사 이렇게 헿젠 헨디. 그 식으로 허되 그것만이 헿쌀 곱진 아 녀게 헿주. 왜 곱지 아녜냐 허믄 동전이 넘엇어. 지금 거꺾 짜.

@1 아, 요만큼 얇은 게 아니고?

응, 짓도 막 게멍게멍 헤가난 짓도 사치로 그렇게 만든 거주게. 견디 영 입고 나믄 이 뼈 짓도. 견디 이제 젊은 사름덜 입는 건 난이 원 이뼈 보이질 아녀. 게난 나도 이제 손질 못 풀아신디 손지 풀 때 뉘 아팡 가질런디 말런디 몰라도 만약 참석헤지게 뉘믄 그전에 헿 단 거 입영 거주, 나 이거 그냥 쥐도 안 입으켜.

@1 요즘 거?

응.

@1 멩진 안 헤낫고. 미녕도 흑시 이 동네 험니까?

미녕도 안 허곡.

목화

@1 미녕도 안 하고. 멘네도 안 갈아?

멘넨 같았어.

@1 아, 멘네는 그냥.

멘네덜은 하영 갈곡 우리 아버지네도 흔 밧씩 갈안에 그거 풀어나고. 현디 이 가차운 디서 나가 알건디는 미녕 짜는 거는 엇어.

@1 아, 멘네는 헤도. 미녕은 안 찾구나예.

풀았지, 그냥 풀았어.

@1 아, 멘네로, 멘네로. 솜으로 풀았구나예.

돈벌이로.

@1 음.

쟁 풀른 그거 까는 기계가 있어, 키. 쟁 깡 현디 내중에 막 우리 옥안은 보난 저 삼양 에 잇엇어. 솜 만드느, 솜공장, 솜 만드느 디, 그디서 강 이불 더프단 거 것도 빨앙 가른 곱닥허게 만들곡, 새 멘네도 가른.

@1 무신 것도 가민?

멘네라 멘네.

@1 아까 새 벵이도 가민?

새 멘네렌 현 거는.

@1 아, 새 멘네.

저 뭐냐, 천 만드느 재료.

@1 예, 예, 예, 예.

종자라 종자, 꽃나무ㄴ찌 꽃나무ㄴ찌 줌 깧작깧작허게 생킨 거 어린 때는 그 솜 뉘 열 매를 요만큼 현 때 탕 먹으른 그렇게 맛 좋아. 겨난 거 탕 먹기도 헤나곡 그거 새른 막 크 른 벵 맞아가른 이렇게 갈라지는 거라.

@1 응.

갈라지른 하얗게 이쁘거든?

@1 예.

경허른 그거 솜만 영 빠는디 처음에 빨 때는 멧 번 빨 때깧장은 곱게 나오는 디 마주 막에 가가면은 요디 썩도 거명현 거 부뜨곡 이쁘질 아녀. 파치니까.

@1 한 번만 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튼읍니까?

문저 난 거 떼영 헤영 행 예버지른 그거 뽕곡, 그다음 또 벌어지면 또 뽕곡 멧 불을 타야주게.

@1 아, 같은 꼭지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흔 나무에서.

@1 흔 나무에서. 음.

썩에 나풀나풀 허주, 흔썰 훑어.

무명 종류

@1 예, 예, 그 미녕도 종류가 여러 개 있수과? 무슨 일곱새 미녕이여 으답새 미녕이여 영 헨 게마는.

미녕 거는 잘 몰르커라.

@1 아, 그믄 토목, 생목 영 허는 거 허는 말 있수과? 짓도 자세히 모르겠고예. 그 뭐 지 쳇미녕이여 누인 미녕이여 이런 거는?

밀 미녕?

@1 누인 미녕. 누인 미녕. 숲아근에 재 낵 숲앙, 빨아근에 영 널민 하양헤지고 영 문지 락헤진텐 헨게마는.

응, 그거는 나가 아는 상태는 때를 잘 안 지잖아게. 면이 이제 때가 잘 안 저, 지금도. 옛날ㄴ찌, 옷이 한 곱게 입으난이주, 옛날ㄴ찌 막 때 문히멍 흐 헤 빨지 못허게 입영은 때가 안 가면은 양젯물이 있어.

@1 응.

양젯물 놔근영에, 흐불 물에 강 빨아당 양젯물 낵 이젠 폭 숲앙 그거 이제 물에 왕 빨 앙 빨앙, 멧 번 빨아 너는 거라. 게믄 헤영 헤져, 그거.

@1 음, 그 갈중의도 미녕으로 만드는, 만들영 허는 거주예?

응, 미녕.

@1 응, 그믄 미녕으로 갈중의 행 입곡, 또 다른 무신 옷 행 입는 거파?

게 엇인 사름 거 뒛고, 이불. 호칭덜, 그거 허곡. 광목으로 현 사름 광목허곡 광목으로 허단 이젠 또 더러움 타가난 가라몽이렌 현 거 있어.

@1 가라몽.

응, 가라몽이렌 현 거는 이제 지 입은 무니ㄴ치룩이 이렇게 이렇게 현 무니덜 싣주게. 그거 가라몽이엔 헨 그걸로 저 뭐냐, 요.

@1 예.

그거 호칭덜 껍테기덜 다 그거 허곡, 이불도 그거 허곡.

‘홍세미녕’

@1 음. 그 결혼식 헐 때 홍세미녕이엔 현 것도 잇텐 험디다?

거 광목 끈어낵 홍세.

@1 그건 어떻 헤근영에 허는 거파? 무사 하는 거 그건?

게메 그거 무산지 그 결혼은 허게 뒛른 홍세 우선 짝으로 헤영 주어. 그때가 흐 멧 잘 헤신곤 몰르켜. 현디 어쨌든 나가 받아본 거는 흐 열 자쯤은 허영 그 홍세렌 행 주는 거라. 게난 그거 반안 낵당 예를 들렁 오늘을 결혼허나 이제, 동지선들 낵 결혼허게 뒛른 저 구 정 때 뒛른 보선을 헤엇어 시집이 선물.

@1 아, 누구누구 주는 거파? 그거 보선은.

건 가족덜게.

@1 아.

우선 할머니 시민 할머니, 시아바지믄 시아바지, 시동생덜 그ㄴ지 이녀 부조 받은 거는

걸로 보선도 해 놓지, 남자 이신 딴 양발 경해도 양발 사놓지 보선 쥐 놓지, 겨난 그 흥세 미녕 준 거를 그거 빨앙 낫당 그걸로 만들안 선물을 헛어.

@1 아, 보선 만들앙.

응, 양발은 나 돈이로 상 그레 양발 흔 베, 흔 베는 아니여 또. 양발 흔 베, 버선 흔 베 이건 부부. 보통 부부.

@1 예. 나 결혼할 땐예, 무슨 시령목 닳은 거, 기저귀 천 닳은 거 줍디다? 답읍디다, 그레? 그거 무사 답아신고? 영 허명 해신디.

그것이 저 뭐주게, ㄱ사 곶은 거. 그땐 광목 허단 거 벨로 필요치 아녀 가난 또 그걸 시라목으로 헌 거주.

@1 시라목으로. 음, 음, 나 결혼헛 땐 답읍디다게, 함에 영헛에. 어디 가 붙어신지도 몰르쿠다마는. 이건 무사 답는 건고 헛주마씨.

그것도 아마 정성으로 허는 거라.

@1 아. 쟁 옛날에 천 엇이난예. 그런 거라도 잇이민 옷이라도 만들어 입고예.

그런 거베끼 엇이난 게. 겨난, 응 나도 그것도 터러 잇엇구나. 그거 잇이난 거 낫단에 애기 나난 애기 샷바, 흔 멧 개 헛주 흔 멧 개. 족으난게. 족으난 샷바 멧 개 멘들앙 외출 헛 때는 그거 아정 가곡, 경 아녀믄 헌 옷들 입단 거 우리 세대는.

@1 예.

우리 세대는 하르방 옷이고, 할망 옷이고 헌 거 옷 짤랑 비니루 조각 헤도, 그땐 비니루 조각 잇영 요만인 궁둥이 아래 놓앙 이 헌 옷 대영 그 강알러레 놓앙, 아래.

@1 아래, 흘리지 않게예.

흘리지 않게. 경허명 허곡, 경허단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밀가루 남 시작허난 그 밀가루 푸대 막 풀아 그걸.

@1 응.

겨믄 그거 멧 장 사당덜 그냥 빨아 두영 그 아까 그 양젓물 낱 솥앙 경헛 헤영게 헤영 그것도 외출 가는 거 애기 기저귀 허곡.

@1 모시로도 옷 헛 입을니께예. 요즘도, 막 고급 옷 아니파예, 여름에.

옷은 고급인디, 죽영은 못 입넨 허주.

@1 아.

이젠 경 안 헤도 뭐 머리가 헤영허는디 옛날은 즈손덜 머리 희게 난덴이, 경헤영 그 모시옷을 죽영 가도 암만 아까와도 아니 낱. 쟌디 베옷은 낱.

@1 아,

계난 아까 나가 나 만든 옷 바지저고리가게 서너 볼 허곡, 또 허뜩이 우이 거 난닝구 영 수정이 엇이 그냥 그자 심심허른 싸니까게. 이젠 비쌌어. 이젠 비싼디 싸난게 시간 나른 사당 그자 일 삼아 그걸 막 이것저것 허여신디 그것이, 이젠 그걸 막 비싸 붙언.

@1 응.

싸 부난 경 헛곡. 옷 만드는 상태도 또 이제 베옷도이, 아무나 못 입어. 뵈이 나쁘냐믄 풀헤야지.

@1 맞아.

풀해도 잘 똑똑 손 바근엔에, 똑똑 영 불량 행 빠짝 들루왓당 이젠 그거 다려야지. 겨난 경 아무나 다 입고정 해도 것도이 너무 힘들어.

모시

@1 하하하하. 게 모시옷으로는 주로 무신 옷 만들앙 입어났수과?

치마저고리.

@1 모시로 치메저고리.

막 고와. 죽영만 못 입주.

@1 외방 갈 때 입는 거지예?

응.

@1 남자들 두루막도 해주고?

응. 두루막 해도게, 저 뺏고, 호상은 안 뺏주게.

@1 응, 모시도 이디 어디 육지 모시 오는 거지예? 이디서 모시허고 영은 안 헛지예?

모시도 이디서 잘 아이 나실 거라.

@1 베도 이디서 나는 디도 잇어났수과? 삼 해근에 키우는 디 잇어났수과?

원 것ㄱ장 대답은 잘 못허크라.

@1 아. 그건.

이 근처나 셔 나시믄 들어나주만은 해도이 저 남문광 동쪽드레 안 헤시민, 현디 그 뭐냐 미녕 짜는 거, 베 짜는 거.

@1 응, 응, 응.

그거는 저 남군더레 헤실 거라.

@1 아.

주로 이 근처 허는 건 이 젊은 때 허는 건 탕간, 양태, 심들이 헛주게. 겨난 들총 길게 키운 거 장이 간 오일장이 간 흐 돈에 얼마씩 헤영 사당.

@1 흐 돈은 얼마이?

흐 돈이믄게 저 이제 저울로 허믄, 키로로 허믄게 멧 점, 멧 점 그거주게.

@1 응.

경헤연 사당 그 탕간 헤영 풀멍 그걸로.

탕건

@1 주로 탕건 많이 해났구나예? 이 동넨예?

응, 탕간 허는 사람 핫주.

@1 탕건은 허젠 허믄 어떻 행 허는 거파? 아까 그거 말총 사다근에.

가다가 잇주게.

@1 예. 뭇엔 곱읍니까? 무신 가다? 그 가다보고?

탕간골.

@1 탕간골. 응, 탕간골에다가.

머리통만인 현 거, 요만현 거.

@1 낭으로 된 거예.

응, 그거 헤영, 조금 특 지게 헤영 요레 헤영 무시거 그 낭으로 뭐 짤라낭 또 영 노른 딱 부찌게 맞게 헤 낭 그거를 처음 헤 갈 때는 야이 부찌는 거를 떨어 낫당 이레 헤 가근 영에 허른 이젠 요만큼 헤 가른 그디 뭐 땡기는 게 있어. 연발이렌 헨 게. 그걸로 물 적정 쏠쏠 헤가른 올라오거든, 우트레. 이 우트레 올라가른 올라가 가른은 요거 요 우이 상통이 거 낫당 요레 낭 쪽 씨우른 그냥 모저가 뉘 부는 거라.

@1 응.

뉘는디 다 뉘면은 건 츠불이라. 혼불, 첫불 헤 논 거. 경 헤노른 이젠 그건 또 이젠 ㄱ루 놔근영에 또 우이레 곱게 짜.

@1 두불 짜는 거파?

응, 두불 짜. 두불 짜근영에 이 앞이는 또 이렇게 곱게 영 흐쏠 모양낸다고. 영 헤근영에 감곡, 경 헤연 헛주.

@1 집에 탕진골도 있어났수과?

셔난디 엇어.

@1 이제 다 데껴 붙언?

뭐 싹 걸로 알았어게.

@1 그 탕진골 놓젠 허민 탕진골 밑에 무신거.

바구니 잇주게.

@1 응.

대바구니, 똥똥이가 요만은 헛어. 기장은 요만인 허고.

@1 응.

어쨌든 발에 낭 앓앙 일허기 좋을 정도로 그 허난 요 지레긴 보통헛주, 요 지레기.

@1 구덕으로 헛수과? 저 쳇망으로, 체로 안 하고?

구덕에다 못 헤여.

@1 그니까 뭐 체.

구덕 짜는 대나무로 짜는디.

@1 아, 구덕이 아니고?

탕간허는 바구니는 딱로 짜는 거라, 요 둘레에.

@1 예.

그 탕간골이 둥그니까 혼드니까.

@1 그 뭐 나까오리 모자 같은 거 깔아근에 헛텐 골안게마는 그건 안 헛니까?

아, 거 깔주게.

@1 거난예.

그 탕간 바구니. 요렇게 영 만들어 노면은 이 중간엔 끄네기로 얽어. 담을 거 엇이고, 또 담앙 좋지도 안허고 허난 얽영, 마주막엔 영 헤연 얽어 노른 요레다가 그 저 뉘고 ㄱ사 모자, 그거 헤연 놔놔근 그레 탕간골 특허게 놓앙 짜는 거주.

@1 음, 응. 그 양태허는 그 바구니추룩 만드는 거파? 양태 밑에, 양태판이 밑에.

것보단 ㄱ늘아.

@1 아, 짓보단 깎는다. 근데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마씨?
응, 대구덕 잇지이?
@1 예, 예.
그것 2치 짜는디 깎고 좀 높은 거.
@1 아, 지난 양태 할 때도 그런 거 허드라고마씨. 저 구덕 두 개 부짚 것추록 행은에 생긴 거.
응 이 아래 받혀사주, 이디 판이 놓젠 허민 받혀사. 견디 탕간허는 그 바구니보다는 커, 그계.
@1 음.
양태가 넓으니까계. 이만큼헌 거 노난. 겨난 그건 좀 크고, 탕간허는 거는 똑 요만큼 허영, 중간에.
@1 그건 뭐, 낚는 말은 엇수과? 무신 바구니엔 낚는 말은 엇수과?
쳇더귀엔 우리.
@1 그냥 쳇더귀. 쳇더귀는 보통 그 체에 대체, 얼멍이 허는 대체예, 체 그 옆에 나무로 그거 요렇게 쌓아 가지고 하던데 그렇겐 안 헛구나예?
그것도 잇어났어.
@1 기지예.
응.
@1 나무로 뉘 거. 쳇망예, 쳇더귀.
그거 멧 개.
@1 응, 그거 멧 개 영 해근에.
그것이 아마 나 생각에는 처음 체질허멍 쓰다가 좀 망가져 가면은.
@1 그니까.
그거 모엿당 멧 칭을 요만씩 해영, 이어 낡 이디 또 뉘로 행 중강 무경 허곡, 걸로 헛어.
@1 처음엔 그걸로 해신디 나중엔 구덕을 따로?
그거 엇어가난사 그 대나무로 헛신디 그거 헛어.
@1 아, 그난 처음엔 그거 허단에 구덕을 나중에 짚구나, 맞춰근에예.
응, 맞칭, 맞칭.
@1 응, 그거 허젠 허민 그 바농이나 뭐 이런 것도 잇어야 될 거 아니파? 어멍 영.
송곳 잇잖아, 지금 도라이바 지금.
@1 아, 예. 거 딱로 이름 엇어?
송곳.
@1 그냥 송곳. 그거 일일이 흐나씩 영 끼우는 거파?
탕간?
@1 응.
바농으로.
@1 바농으로.
바농으로, 이게 탕간골이거든.

@1 응.

탕간골이든 이거 쳇더귀 그 낯 헛어. 영허든 이디도 가달 뜨는디 어떻게 뜨냐든 그 총진 걸로 헤여근엥에 요만큼 무껴.

@1 응.

고무줄로 무끄든 무경, 그 탕간골에 이렇게 씌와.

@1 응.

씌와 가지고, 이 쳇더귀를 이레 낯 허든 이건 아니라이. 읍로 이레 그 탕간골이낯 이걸 나 앞드레 오게 헤근에 무경, 브근 줄라멩 무껴, 무껴 낯 이제 바농에 거 총 꿩엥 시작을 허는 거라, 일로.

@1 응.

시작을 헤영 요영 꿩어 낯 요영 행 잡아 텡기곡, 요영 허곡 요영 행 줍아 텡기곡 경 헤영 뱅뱅 들멩 뱅뱅 들멩 헤 강 요 너빈 짜지는 거라.

@1 응.

짜면은 이젠 이거를 저 뭐냐 미는 거 잇어.

@1 예, 아까 연발.

응, 연발. 연발을 뒤로 멘들앗냐면 소뿔로.

@1 아, 소뿔로. 음.

옛날 그 큰 쉼뿔로.

@1 예, 예.

그거 까깡 현 것ㄴ라 연발이엔 헛주게.

@1 응.

겨난 그거 이제 꺼꼐로 놀 거라. 미쟁 허든 영헿 낯. 이레 등겨오쟁 허든. 이디 여우가 잇주게, 일로 시작헤 부난. 여우가 시난 그거 영 물 적져근엥에 썩 디물앙 심엥 종긱종긱 썩 썩 등겨가든 올라와. 올라왕 요ㄴ장 올라오든 이젠 또 탕간 실이 잇어. 이거 걸러메는 거.

@1 아, 실이 또 따로 잇어마씨?

응.

@1 건 뿔로 멘든 거라?

썩로 멘든 거.

@1 아, 멩지, 아니 무멩실?

응 미녕실.

@1 우리 바농질허는 썩.

응, 그거 보다 흐썩 훗은 거.

@1 예, 예, 이불허는 거.

노슬실이지.

@1 노슬실? 이불허는 것보단 더 굶은 거?

이불허는 걸로서 또 곱잡앙 또 썩 거라.

@1 아.

베ㄴ찌 썩 거. 슬진 거지, 쉽게 말허민 슬진 거. 그거 영 걸러메엥 또 이젠 우이 거

마주막 마무리허젠 허믄 그 걸려멘 상태에서 또 짜는 거라.

@1 응.

또 짜냥, 이디 마주막에 그 이디 거 들랏당, 그 요디 낫당 허고렌 현 거.

@1 응.

그거 헤영 요레 씩우믄 제라헌 가다가 뉘 부는 거라. 우이 거.

@1 응.

우트레 영 가다 뉘곡, 올론 또 특지어근엥에 좀 보기에 멋지고.

@1 그믄 그 탕건 하나 허젠 허민 메칠이나 헤야 뉘니까?

건 손 빨랑 잘허는 사름은 흔 오일도 가곡.

@1 아, 오일에 하나 만들어져?

오일 아이 걸렁 허는 사름도 싯곡. 열흘 걸리는 사름, 일주일 걸리는 사름.

@1 그거 허민 누게 왕 받으레 오는 사름 받으레 옴니까?

조천장에.

@1 조천장에 강 푸는 거파? 하나씩 가정 가진 앓을 거 아니? 누게 영 반앙 가근엥 풀진 안헤?

가차우난 그런 건 엇어. 이녁으로덜, 이녁으로덜.

@1 나 거, 나가 강 풀아?

두 개믄 두 개, 다섯 개믄 다섯 개. 모여냥 목돈 만들젠.

@1 응.

어려운 사름은 하나 헤도 놓앙 풀곡, 두 개도 강 풀곡 허는디게 무시건 어떻게. 모영 큰돈 만들앙 필요허게 쓰젠 허믄 흔 열 개나 행 모영 낱 강 풀믄 돈이 하난게 여우 신 사름은 무신거 사기도 허곡.

@1 그 조천장에 탕건 받는 사름이 잇어났수과?

응.

@1 그믄 하나에 얼마씩 행 풀니까? 그때, 그때 돈으로 얼마나 받아집디가?

아이구, 게메 건 몰르켜.

@1 그거 하나 풀민 무신거 뉘 허나 사지거나 이런 거 아니우파? 쓸 뉘는 헛고, 뉘. 정확허게 모르크라? 응, 쟁 그 탕건하는 거는 보통 어느 시기에 많이 헛마씨? 몇 월 달쯤에?

건 농사 많이 허는 사름은 농사질 시기는 못 헤영 비나 와야 하는 거곡.

@1 응.

경 안 헤영 그냥 이제 그자 홀어멍 정도 헤영 농사 아이 지곡, 그레 저레 산 사름은 뉘 사시철 허는 거지.

@1 아.

사시철, 다른 거 돈별이 엇곡 농사헛 땅도 엇곡 쪼끔 잇더레도 그거 밧가는 거 아방이나 엇이민 빌영 허곡 허믄 복잡헤 베영 그냥 안 헤영 그냥 그것만 오로지 허는 사람도 싯고. 겨난 그거 헤영 탕간 풀앙 강 또 재를 사오는 거라. 말총을 저울영. 경헤영 그자 계속 사시철 허는 거 이거.

@1 응. 이 동넨 탕건만 헛수과? 망건은 안 허고? 멩긴?

멍긴도 해 나신가? 윈 거깁장은 즈세히 몰르크라.

@1 삼춘은 탕건만 헛구나예.

응.

남자 옷 종류

@1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옷 종류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요즘에야 다 나오주 마는 옛날에 입었던 옷이라예. 남자 옷은 옛날 남자 옷 어디 외방 가젠 허민 속에서부터예, 무신거 차례대로 무신거 입을 거짜?

외출허젠 허민?

@1 응. 속에 난닝구 입어? 난닝구 닳은 거 비슷한 거 잇어났수과? 따른 이름?

아니, 난닝구 입엇주, 난닝구.

@1 그때도 난닝구?

난닝구 입기 전에는 뭇 입어신고.

@1 그믄 난닝구 입곡, 그다음 무신거 입읍니과? 남자 삼춘털은.

저고리게, 홰 거.

@1 홰 거, 응. 홰 거 저고리 먼저 입곡.

흔나로 흔나로만 만든 거.

@1 저고리 입곡, 그다음은 무신거 입어, 그 우트레?

그거 입엉 헨디 쪼끼.

@1 아, 쪼끼.

쪼끼 입곡, 바지 입곡 조문 가는 거라.

@1 응, 아. 뭇 두루마기나 이런 거 안 허고? 쪼끼만 입어?

그거 험 때는 어디 상난 디.

@1 아. 상난 디 갈 때만 두루마기 입어?

친척집이 늙으 집인 뭇 이 동네에서나 웃어른 좀 뭇헌 어른털은 입엉 가는디 경 안 허 민 보통 그냥 바지저고리 입엉 가곡.

@1 아. 여름에 입는 거 겨울에 입는 거 트날 거 아니과예?

트나주게.

@1 여름엔 흔 겹짜리 홰겹 입어도 겨울엔 어떻?

봄 거는 봄 거대로 얇롭게 허곡. 또 안 바쳐도 알루운 걸로 놓곡.

@1 응.

여름에는 단순히 홰 거고. 겨울에는 또 두꺼운 걸로 안팓허곡, 바지저고리는 솜을 놔.

@1 아, 우에 건 안 놓고?

우에 짓도 놓고, 아래 짓도 놔, 노인네털은.

@1 우에 짓도 놓곡 아래 짓도 놓곡, 그 솜 논 저고리는 무신 저고리엔 곱읍니까?

뭇 기냥 겨울 저고리난게. 저고리바지 입언, 뭇 저고리엔은 안 허여. 겨울 나믄 그자 그 뜻인 거, 봄 나믄 쪼끔 뜻인 거, 여름 나믄 홰 거 그거주.

여자 옷 종류

@1 응, 여자는 게문? 여자는?

여자도게 치마.

@1 치마.

치마허곡, 그 굴중의렌 현 거.

@1 굴중의 먼저, 아니 속곳 먼저 입고.

속곳 먼저 입고,

@1 그다음.

굴중의.

@1 굴중의 입고, 그다음 치메 입고, 저고리 입곡?

응.

@1 어. 그른 굴중의는 저 어디 일헐 때나 집에서는 치마 안 입어근에 굴중의만 입어도 이십니파?

굴중의는, 굴중의는 흰 거 그 치마저고리 입을 때 입는 것이 잇곡, 겨울 들으른 또 집 이 들 때 잇지 안허여. 거난 줌자리 그튼 때 입엇곡, 속곳이엔 현 건 이제 팬티로 입으난 현디 이 우리 옥은 후제는 어려우난 건. 불케와 된 아무것도 엇어 부난 뒤 속곳 출리명 기냥 뒤 베끼디 감옷만도 입으른 이디 고무 행 무끄른 여기 봐지기도 허고이, 그렇게 헛어.

@1 아, 그른 또 어디 가젠 허른 치마저고리만 입지 안행 우에 더 입는 것도 잇수과? 여자도?

엇어, 엇어.

@1 그런 건 엇어난예.

마고자는 흐쓸 더 늦은 때에.

@1 아, 더 이따가? 나중에?

늦은 때에, 그건 막 부제, 마마님덜이나 입엇고.

@1 마마님덜이나. 이건 보통 어디 갈 때 입는 거고, 집 그냥.

그루후제 줌 여우 잇어가난 신부덜토 또, 마고지 저고리 해연, 두루막도 해췌고.

@1 저 집이선 게민 주로 무슨 옷 입어?

집이서?

@1 어디 외방, 어디 놈이 집 갈 때 말고,

게 집이서 허른게, 거 저 젊은 아이덜은 뭐 잇잖아게 그때도 그 우와기. 이젠 그뻐 우와기지.

@1 아.

지금은 마이라고 허주마는. 우와기 입곡, 아래에 몸빼나 입곡, 또 흐김 더 뭐허른 멋잇곡 줌 여우 신 사름은 쓰봉이렌 행 입어가곡 허당 이젠 쓰봉도게 넓은 거여 좁은 거여.

@1 하하하하.

할망덜토 좁은 거 입어 불고.

@1 몸뻐 언제 입어진 거 닳으과?

처음부터 입엇지, 처음부터.

@1 아.

흐쉴 옥안 옷 입기 시작하난. 처음부터.

@1 응. 애기는 처음 태어나면 무슨 옷 입어마씨?

붓디저고리엔 헌 거, 배 저고리.

@1 그건 어떻 행 멘드는 거마씨?

건 아무 뿐도 엇어. 왜 거를 입지나믄이 애기가 그 배 안네 오래 잇어나믄 이제는 그냥 자꾸 시쳐주지마는 옛날은 사흘 뒤영 모욕시기곡 일주일 뒤영 모욕시키곡 해 가믄 그루 후젠 또 흐쉴 정신 못 출린 사름은 게 메칠에 흔 번도 가곡, 경 정 헛주게.

@1 응.

경헌디 그 붓딛저고리엔 헌 거를 베로 왜 왕상한 거 입져신고 허믄 등 ㄱ라왕.

@1 아.

애기털 등 ㄱ랍넝 꼭 그 옷을 입졌어.

@1 응, 그건 스미도 막 영 질게 행 멘듭디다마는.

손으로 허우뜰어 부난. 손이 나오면은 뜰어 불 거난.

@1 응, 그런 건 이런 디 짓이나 이런 거 안 달지예?

짓 들주.

@1 아, 짓 돌아마씨?

응, 모양만 엇엇주.

@1 아, 모양은 엇어도?

계난 우리 입는 저고리 ㄱ치 문딱 생기긴 헌 거라. 이디도 다 부찌고, 이것도 잇곡, 고름도 다 잇곡 허는디 질곡 모양 내는 게 없어.

@1 응, 곱도 흐곱 영 길게 험니까?

하난 길곡 하난 쫄르곡.

@1 그믄 긴 건 영 한 바퀴 돌려근에 무끄는 거?

이 뒤로 돌려 왕 이디로 돌령 왕 요디 입곡.

@1 어디짜에 게 긴 거짜? 바깳데 이신 게 긴 거짜? 밖에 이신 게 길어야.

이것이.

@1 이것이, 응.

이걸로 영 돌려당 율로 왕 요디 걸로 영 행 무끄는 거. 경허곡 또 여름에들은 애기 옷 벗으난 베부레기.

@1 베부레기. 그건 어떻 행 어떻헌 거짜?

베부레기게, 천 허영 요만곱이 헤영 요 기지 요 기장죵 헤영 애기 이렇게 맞게끄름 헤영 거 막 쉬와. 끈 헤영 메친이엔 허영 끈 이디 돌아근앵에, 어깨레 끈만 돌아메곡, 뒤에 또 끈 ㄱ늘게 헤영 앞으로 배 막아지게 허영 뒤에서 끷넛기 흔 멧 개 들앙 즐라메영.

@1 밑에 바지 이렇게 통은 엇고, 강알은 엇고?

아이, 건 으름에 이 애기 으름에.

@1 치마처럼 똬?

응, 배만, 배만.

@1 아, 배만 가리는 거. 음, 그게 아까 무신거라마씨? 이름이.

베부러기.

@1 베부러기? 아, 애기 때. 요즘엔 막 애기털 기저귀 같고 허젠 허민 밑에도 영 단추달
앙 드드드득 이렇게 뜰어지거든마씨. 강알터진바지 뭐 이런 것도 애기들 입지꼭 해나수과?

응, 우리 애기난 때에도.

@1 응, 그건 어떻게?

빠찌게 빠찌.

@1 빠찌?

빠찌, 속내의로 현 거. 빠찌디 그 애기들 오줌 누기 좋으렌 강알 터진 것도 잇곡, 이제
건 알주게.

@1 예.

여기도 저 단추 들앙 끼와근앵에 허는 것도 잇고, 또 그 늑 잇영 헤가문 그냥 통차 거
헤영, 입지꼭 베끼곡.

@1 아, 치마처럼?

응.

@1 통 안 만들어근에? 바지통 안 만들영?

아니, 아니, 바지로 만들주게.

단추

@1 아, 바지로 만들영? 음. 단추는 옛날에 막 많이 지금처럼 막 단추가 많지 안허난, 옛
날에는 어떤 걸로 단추헨마씨?

막작단추.

@1 막작단추는 뭘로 멘드는 거과?

공들어, 것도.

@1 공들어.

친, 요게 미녕이면은 요 넓인 허게 길게 짤랑, 걸 지금은 미싱으로 헛주마는 똑바로 헤
여와근앵에 바놓 헤영 실로 곱줍앙 팽팽 감쳐.

@1 응.

이제 막작단추 이신 저고리가 허나 잇어, 나가 집이.

@1 아, 집이 가사크라. 삼촌네 집이.

그거 헤영, 막작단추 멘들앙. 겐디 잇어불영 헤질티 말티 몰르켜마는 헤도.

@1 막작단추 말고는 다른 단추들은 잇어났수과?

다른 단추 모르크라. 잇엇어.

@1 그 한복에 같은 데, 한복 같은 데는 무사 막 호박단추 이런 것처럼 헤 가지고 마고
자 같은 데는, 쪼끼나 마고자 같은 덴, 영 등긴 것들도 험니께, 요즘에는.

거는 그 만들앙 나온 거주게.

@1 응, 거난 그런 단추는.

옛날 천으로 만들어난 건 못 봤어, 나.

@1 아, 그 천으로 만든 거 말고 그런 단추들도 풀아놔수과?
풀주게, 풀아. 무신 저 딸기처럼 현 거이 뺨드글락허게시리 영.

@1 그니까.

물색.

@1 그런 단추 한복에 뿐으로 행 요새 다는디 옛날에도 그런 거 해난? 옛날엔 그런 거 엇어난?

옛날 몰르크라, 나 아는 건 엇어.

@1 응.

나 어린 때는 몰르주마는.

바지 부분 명칭

@1 응, 바지, 치메, 바지저고리 그 각 부분 명칭을 물어볼 건데예, 바지도 남자 바지도 허민 뭐 저 폭이 여러 개 잇수게, 여기 무슨 셋복, 큰 셋복. 무신 복 무신 복이엔 곱읍니까? 큰셋복 작은셋복 영 허는 거 잇수과?

요건 큰새폭.

@1 큰새폭.

요거는 작은새폭.

@1 이건 작은새폭, 이건 표준어로 서울 사름들 쓰는 말이고, 제주도 사름들이 쓰는 말. 이디 와홀 사름들이 쓰는 말, 물어보는 거.

새폭 이거, 우리도 이거베끼 몰라.

@1 요던 뭐엔 곱아?

상복.

@1 여긴 상복, 음. 요건 허리?

허리.

@1 응, 그다음?

또 저 다님.

@1 다님 나중예, 밑에 찰 거예.

요디 요 영 헤영, 요렇게 요 영 헤근영에 다님 요만이 넓게 잡앙 다님 꼭 꿰영 리봉식으로 짓도 곱게 메른 이빠, 요짜더레 메거든.

@1 응. 이거 바지 큰사폭 작은, 큰셋복 작은셋복 허젠 허민 천으로 행 짜를 땀 어떻 행, 마를 땀 어떻 행 말라야, 영 짤라근에 해야 뿔 거 아니파예, 맞추젠 허민. 보통 어떻행 헤마씨?

아, 게메 그것이.

저고리 부분 명칭

@1 게른 이거 저고리. 저고린 이디 이던 이름이 다 잇수게예, 요게 짓.

게, 스미, 이몸 젤 문저 이몸을 문저 맨들주.

@1 아. 제일 문저 이몸 만들고예. 응, 그다음.

그 다음은 스미. 또 그 다음은 이거 앞섭.

@1 그건 앞섭.

#1 안앞섭, 짓, 동전은 맨 마지막에.

@1 아, 이 아까 안에는 안앞섭, 요 밖에는? 그냥 앞섭?

이건 밧앞섭,

@1 아, 밧앞섭, 안에 건 안앞섭. 음, 그 다음에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무신거엔 곧는 말 잇수과? 표준어론 진동 영 허는다.

아, 진동, 진동.

@1 아 이디서도 제주도에서도 진동?

응, 진동. 것베끼 몰라.

@1 그럼 요기 요디 밑엔? 요기 밑에는?

배알.

@1 배알예, 그다음 요거는 그냥 고름?

응.

@1 곶, 고름?

곶.

@1 곶. 예, 요 밑엔 아까 도련이렌, 예.

도련.

@1 짓도 표준어랑 똑같고. 그다음 요 뒤에 여기 뭐 바데도 영 답니까?

짓바데.

@1 짓바데예.

건 홰웃에 아까 겨울에 솜웃 입곡, 여름 나쁜.

@1 예, 홰웃 입고.

이 어깨가이 여기 거 없으믄 늘어진다고 빨리 헐어, 계난 받침으로.

@1 뽕, 다는 거추룩, 뽕 넣어주는 거구나.

요 넓은 허영 뒤에만 부껴.

@1 음. 저 무신거 보난 요디도 이디도 막 영 영 홰웃, 홰저고리 같은 텐 요기도 뭐 답디 다? 겨드랑이에도? 짓바데 헤가지고? 요기 영 드는 것도 이십디다? 그런 건 안 헤뵈?

거 허여보진 아년. 이 배알 받는 거, 이거 배알이엔 허주, 배알이. 이런 디 영헌 것도 잇엇주. 헤도 나 그건 만들어 보도 안허고.

@1 아, 배알 밑이 받는 것도 잇어나수과?

응.

@1 음.

만들어 보도 안허곡, 경 하영 입엇지도 안허곡.

@1 요건 저 두루마기. 두루마기도 이름이 예, 아까추룩 예, 요건 이뭉. 요건 스미.

이거 꼭 ㄱ뜨 거. 앞섭, 안앞섭, 이거 새폭.

@1 이건 새폭이엔 굴읍니까?

응.

@1 어딘 가난 미엔 곶안게마는. 옆에, 옆에.
 # 몰라, 이거 미엔 헤신디. 어쨌든 이 새폭 난 기자.
 @1 음, 새폭예. 이디도 두루마기에도 다 요거 짓히고 동전.
 # 응.
 @1 이디는 스미. 그다음 여자 거예. 여자 옷, 여자 저고리, 여자 저고린 남자 저고리영 뭐가 달라 마씨?
 # 이 자체도 달르곡, 이 자체도 달르곡.
 @1 아, 여기 약간 영 곡선으로 뒤편게? 똥글랑허게 뒤편게?
 # 기장이 짧으곡.
 @1 아, 기장이 짧으고예.
 # 남자는, 아까 거 어디 가시니?
 @1 여기, 여기 잇수다.
 # 이거는 일자로 뒤편고
 @1 아.
 # 야이는 좀 이렇게 뒤편잖아.
 @1 똥그랑허게예.
 # 아니, 베시기 요렇게. 요렇게 헨디 이제 나가 만들야 난 저고리는 이 배알이 이쁘게 헤 영 요레 와가사 더 영허게시리 헤영 입으른 어디 놀레 강 옛날 춤출 때는 이렇게 들르른 잘도 이빠. 잘도.
 @1 음.
 # 경 허다가 옛날 걸 훗아가난 이제 이 앞섭이 이 짓이 이렇게 헤낫주. 나 알앙 헐 때깁 장은. 이렇게 헤신디 지금은 또 요레 짝짝허게 헛잖아.
 @1 아.
 # 요레 코쟁이지게 요거 깃허여낭 요 곶은 또 요알로 저드랭이깁장 헤영 들안에 요디 곶을 왕 메고.
 @1 응.
 # 헨디 우리 알안, 나 뽕곡 우리 입어나곡 헨 거는 이 상태로 만든디 곶이 똑바로 이디 들앗어.
 @1 응.
 # 전디 곶게 허젠 허른 물 덜여근영에 광목에도 이 빨간 물도 잇곡, 옛날도 잇엇어. 염색이.
 @1 예 예.
 # 겨난 덜영 입곡, 또 요 곶동.
 @1 응 곶동예.
 # 응, 요디 요만큼 헤영 물색으로 헤영 들곡.
 @1 보통 무신 색으로 곶동 헛니까?
 # 그건 자기 자유. 저 빨간 거나, 파란 거나 건 자유.
 @1 빨간 거나, 음. 그다음에는 여기도 앞섭 잇고, 여자저고리에도 이디 깃바데 헛니까? 흘 거에는?

여자 저구리?
 @1 응. 흘 거에는.
 # 잇주.
 @1 아, 흘 거에는?
 # 적삼.
 @1 아, 적삼에는 요기도 젓바데 허는구나예.
 # 이견 저고리고.
 @1 아, 응. 응.
 # 적삼이렌 허른 옛날 할망 곱 든 것도 있고, 안 든 것도 있어.
 @1 아, 적삼에는.
 # 응, 경헌디 거 흐 곱으로 허니까 뒤가 늘어지꼭 늘어정 빨믈게 일로, 일로 먼저 닳아 지거든. 퓌 나곡 무시거 허난 겨난 그 젓바데 여자 거고 남자 거고 놔난.

버선 부분 명칭

@1 아. 그다음엔 아까 보선.
 # 보선도 나도 이거 멘들아낫주게.
 @1 계난예, 보선도 여기 이름이 다 잇수게.
 # 보선 일름? 보선 일름은 몰르켜라.
 @1 아, 보선코, 보선뒤치기.
 # 응, 보선 그 이거 보선코허고 보선뒤치기사게.
 @1 코엔 험니까, 코지엔 험니까?
 # 코지, 코지.
 @1 아, 코지예. 앞코지? 그냥 코지?
 # 보선코지.
 @1 보선코지.
 # 응.
 @1 그다음에 이딘 뒤치기 아니민 뒤축? 그냥 뒤치기? 뒤치기 우이 흐뵂 영.
 # 뒤톡.
 @1 뒤톡이엔 곱읍니까? 아니, 이딘 이딘 이딘 뒤곶치라고 뵂. 이견 표준어. 서울 사름들은 경 곱는디 우린 무신거엔 곱는가 알아보렌. 쟁 물어보레 왓주마씨. 삼춘넌 무신거엔 곱 앓수과?
 # 게메 이거 잘 몰르켜.
 @1 그믐 그 여기 흐뵂 톡 들어간 데 이수게. 들어간 디 영영 벳겨지지 말렌. 그건 무신 거엔 곱아?
 # 발치기.
 @1 발치기?
 # 발톡, 발톡.
 @1 요기, 요기 톡 요기에.

응, 발탁 요디.
 @1 여긴 발탁이엔 곱습니까?
 # 발탁.
 @1 여기 흥끔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안 벗겨지주예. 보선도예.
 # 안 벗겨지주.
 @1 그냥 일자로 헤 붙은 벗겨질 거 아니예.
 # 응, 벗어지주게.
 @1 거난 요거 영 허는 거를 발탁이엔 곤는구나예, 응. 이디 이디는 수늑이여 여긴 뭐 보선목이여 이런 말 허는디 그런 말은 안 험니까? 화목이여.
 # 이건 다 이거 이신게게. 보선목.
 @1 응, 응,
 # 건디 야 일름은 잘 몰르켜. 우린 그자 보선톡.
 @1 보선톡이엔만 곤는디, 음. 판 디 가난 애톡이엔 곱읍디다. 애톡.
 # 몰르켜라.
 @1 그렇겐 안 허는구나예. 그냥 보선톡.
 # 건 나 들어보도 아녀고 그자 나 어머니 허는 거 받 산 거뿐이고.
 @1 거난, 다른 동넨 경 곤는 거고, 이 동네선 그냥 보선톡, 삼춘네 집이선 그냥 보선톡 이엔예.
 # 응,

갈웃

@1 거믄 그렇게 하면 뉘 거. 그다음 갈웃. 갈중원 어뎡 행 멘드는 거마씨?
 # 갈중원 한복 2치 마찬가지로주게.
 @1 그믄 감 물들이는 건 어뎡 행 허는 거라?
 # 물 드는 건 감 따당.
 @1 언제 이제 험 때 뉘수과?
 # 이제 감 쯤썸 이시민 들일 거주.
 @1 응, 그믄.
 # 계난게, 바지 이대로 만들어 낵.
 @1 다 만들어 낵.
 # 광목 사당, 뉘 지금은 만들앙 풀주마는.
 @1 응, 응.
 # 광목 사당 바지 만들앙.
 @1 응.
 # 또 이 저고리덜토 행 입어.
 @1 예, 예.
 # 길게.
 @1 응, 응.

남방 비시름케 헨에. 나도 그거 허연 감 쪼께랑 우알로 다 헤 낫당 다 주어 불었어.
일 못 해가난.

@1 하하하.

헨디 에리를 나가 잘 못 헤여.

@1 아아.

에리 잘 못 허난 이제 집이 외출복 허젠 흰 베로 하나 만들안에 우와기로 쉽게 허든
우와기로 만드노렌 헨 게 이 에리가 못 헨 거라.

@1 음.

못 헨 거꼭 또 여기도 잘 안 뒤고 헤도 어쨌든 난 돈 들이지 말젠.

@1 응, 응.

돈 들이지 말젠 그자 나 안. 헤지는 것갓장 헤연에 이젠 입지 아년 것도 내부난 막 누
런 버물엇언게 빨앙 저싱갈 때랑 쌍 이거 슬아 도렌 허젠 풀헨 다 헤 난.

@1 이젠 준비헬구나예, 허나씩 정리헬예.

걷지 못허난게.

@1 저번이 와실 때 수술헤사 뒤켄 막 헬선게마는.

견디 수술을 못허게 뒤게.

@1 음. 검사는 헤보고?

응, 세 밧디 병원 강 엑스레이 찍으난 두 밧던 가난 재수술 방법베끼 엇덴. 나이들어
부난 수술헬도 남 보기 비치롭곡.

@1 무신.

어뎡 뒤 것도 몰르곡, 또 아이덜은 수술허영 아뎡이나 어뎡 흐뎡 더 살킨 살아얄 견디
깨어나지 못허든 어뎡허콘도 헬수덴 허뎡 허난.

@1 맞아.

깨어나는 거는 관계가 엇이난, 일루 아래만 헬 거난.

@1 그때 부분, 부분 마취헌덴.

경허난 나도 허여보주게, 힘드난게.

@1 다리 아판예.

힘드난 헤보젠 허구 헌디, 저 법원 옆이 우리병원이엔 헨 디 셔고나.

@1 응.

아, 그디 아들 조름에 돌아 아전 간 그디 간 엑스레이 찍으난 아, 이 무릎 아래가 이
디가 인공 꿩이난 탄 디 간 허난 그자 이디 손가락에 들고 나게 헤영게 늘어져 분 거라.
닿아져 분 거라.

@1 아.

많이 닿아지난 탄 방법은 엇고, 수술허렌 헤연 헤신디 한마음병원 가도 경헨 나와신디
그 우리병원이엔 헨 디 가난 엑스레이도 공들이 찍언게마는이 이것이 수술헌 것이 이거 흰
허게 보여 이게, 보이는데 이레 빼 닿아지는 것이이 기냥 이렇게 이렇게 닿아져 분 거라.

@1 아.

옛날 저 창 잇지이.

@1 예.

흐끔 알지이. 소지문덜 헐 때 영 짤르게. 것처럼 뉘분 거라. 이디. 카메라에 찍언.

@1 하하하하하.

경혜 부난.

@1 경 행 못헌 거?

응.

@1 수술헐지도 모르켄 허멍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 번 허게 뉘난 여러 번 행 살아질 거라게.

@1 계난.

겨난 이제 수술도 못 허곡, 이젠 그자 몰라죽을 판이라.

@1 아니, 아파도게, 어뎡 아이구, 침.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늘도 비 오는디 약 타곡 허젠 오후에랑 가카 허단 오후에 왕 허른 또 영 그자 경 정 말 곤다 보른 늦어 불 거고. 아침이 또 비가 막 크지 아니곤데 가 난 지팽이 지프는 걸 서투는 거라. 이층 올라가야 계단을 올라야 헐 건디 올라간 뒷발이 올라간 지팽이를 이걸로 영 올라가곡 이렇게 돌아가사 병원 안터레 갈 건디 이디 첫 계단 인디 영 지프난 미끄러와 분 거라. 찌르허난 아니 요덜 이 계단에 간 바락 올리난, 아이고 속이 느착헐게. 아이고 이젠 침 제라허게 벌을 받암저. 이거 부러져 노른 이젠 오른손으로 못 쓰곡 어뎡 헤영 좋곤 헐. 피 나카부텐 게도 가만히 눌런 한참 잇어도 원 누게 병원터레 오는 사름이라도 시카부텐 허난 엇언, 엇언 허난 헐 낫단 헐디 이젠 어뎡 올라가사주긴 헤 연. 어뎡어뎡 올라간 보난 어뎡 우이 가족만 뱃겨져선게.

@1 아까 감웃허는 거, 갈웃허는 거예, 다시 잘 물어보쿠다예. 자 감 탄예, 그다음 어뎡 헤?

감 땅은엥에게 물 흐쓸 하영 나민 물에 시치는 거라, 걱정.

@1 예, 물에 시쳐. 그다음.

경혜영 이젠 뺏는 기계가 잇어.

@1 응, 옛날에 엇일 뎡?

음, 엇인 때는 저 다라이 잇잖아. 나무 다라.

@1 예.

마께.

@1 응.

나무마께 알아?

@1 예, 알주마씨. 빨래헐 때도 허는 마께도 잇고.

그것도이 그거 말고 그냥 옛날.

@1 덩드렁.

덩드렁마께.

@1 응.

산도집 때령 저 신 삼으는 거.

@1 응.

그걸로 뺏아근엥에 그 감옷으로 짜는 거라. 율로 흐 번 짜곡 율로 흐 번 짜곡 헤영 그 거 쩍질아 낵 또 감물만은 허면 너무 세어.

@1 아.

벗세여. 겨난 물 쪼끔 놓앙.

@1 아, 물 흐끔 낵.

경헤연 그걸 이젠 막 주물르는 거라. 골르로. 막 주물라근 물을 쩍질아. 쩍질아 분 상태에서 막 비벼야 뉘어. 그 물 좀 간 디 잇고, 짜분 디 잇거든.

@1 예.

계난 그걸 골고로 가게코름 헤여근에 막 손에 부병 영 비벼근엥에 이젠 나란히 고비지게 말아.

@1 아.

꼬불꼬불허게 헤영 바짝 달라 불문이 물랑 물 적저도 안 풀어져.

@1 어.

겨난 그거 나란히 잘 영 너미 바짝 들르기 전에 촉촉헌 때에 쓱쓱 발르게 다 손 뺑동기는 거라, 조곤조곤. 기장이랑 옆이랑 다 일절헤 낵 그걸 차곡차곡 개는 거라. 개어 낵 이젠 멧 장 헤 낵 그걸 뒤 수건이던가 뒤 감옷이던가 그레 더평 발로 조곤조곤 블라.

@1 아.

촉촉헌 때에.

@1 예.

겨른 나란히 헤져. 겨른 이젠 그걸 들루는 거라. 바짝 들루왕 쪼끔 고부려진 데 잇거든. 겨른 그거 또 다른디 왕 발루게시리 곱게 뎡겨낵 발르게 헤 낵 들름 시작허든 바짝 들뤄나든 따시는 꼬부려지지 안허여.

@1 응.

꼬부려져도 이빠. 영 페우민.

@1 예.

경허영 물 적정 멧 번 넘어가든 빨강헤지곡, 이젠 더 쉽게 허젠 염색이 있어, 또.

@1 약예. 물감.

염색 사당 또, 먼저 염색헤 낵 감물 흐솔 행 비비든은 오래 발레지 안허여도 뉘어.

@1 응, 옛날에 겨른 그거 발레젠 허민예, 약 놓지 안행 그냥 헐 때는 며칠이나 발레야 뉘마씨?

아마 흐 일툰 여드레는 벳 마쳐살 거라.

@1 아, 경 막 오래 헤야 뉘는 거구나예.

것도 너미 햇빛을 너미 맞아 불어도이 겁어.

@1 아.

이쁘질 안허여, 옷이. 색이 변헤 부는 거라. 견디 그 늬으 게이 얼른 벗어지지 안허여. 막 헐영 다 헐영 닳아지기 전이논이, 그 검은 기가 잇영 곱질 아녀. 겨난 어느 정도 영 헤 보멍 벳 많이 난 때도 싯곡 늦게 낵 때도 이시곡 겨난 건 자기 보면서 요 정도면 뉘겿다 허든 아녀든 뉘는 거.

@1 거 아까 감 무칠 때는 옷 데쌍은에 허는 거파?
 # 응, 헌옷 입곡 뉘쓰곡 행.
 @1 헌옷 입곡?
 # 감 염색헤지른 얼룩얼룩 보기 싫어.
 @1 아, 튀어 가지고?
 # 응, 이 입은 옷이.
 @1 응, 그래서 헌옷 입어근엥에 해야 뉘는 거구나.
 # 응, 경흐난 버릴 옷이나 또 뒤집엥 입으나 경 헤사.
 @1 아. 그럼 요기 영 주물럭주물럭허는 이 옷은, 이 옷도 뉘싸근에 헤? 안 뉘쌍헤도 돼?
 # 데쌍헤 낱 그, 뭐냐. 감 주시가 잘 안 뉘믄 부떠.
 @1 아.
 # 겨난 데쌍 헤여 낱 가르청 막 손 방은엥에 나란히 꼬부러지지 말게 헤영 그걸 발렘 시작헤사주. 꾸부린 거 손 잘 아이 보믄 이제는 그런 거 저런 거 분시 몰랑덜 허주마는 옛날은 아이고, 여펜이 손팔광.
 @1 하하하, 무신거? 광?
 # 여펜이 솜씨광.
 @1 솜씨 아까 뉘엔 곱읍디가? 제주도말로. 손팔광?
 # 손팔광.
 @1 손팔?
 # 응. 아이고 손팔광.
 @1 아 경 곤는구나예. 하하하.
 # 아니게 지금 멘짜흐게 이쁘게 다란 옷 광 그냥 빨앙 꾸겨지는 옷이 잇거든.
 @1 응.
 # 경 헌 것광게 허믄 이젿 사름보단 옛날은 그것덜 옛날 할망들은 더 튀잖아. 내미령.
 @1 하하하.
 # 바농질 못 허는 거 흐쉴 잘 아이 보곡.
 @1 아.
 # 옛날은 바농질허는 것도 흐꼼 알아줘.

목자옷

@1 아. 그 이던 흐꼼 산촌이난 옛날에 막 사냥허는 사름덜예, 옷은 흐꼼 뉘 가족으로도 멘들고 영 헤낫수과? 뉘 가족으로 모자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이 동네에. 흐꼼.
 # 보긴 봐 나도, 이디서 만드는 건 아이 봤어.
 @1 아, 보긴 봐납디가? 그런 거 썩 멩기는 사름이영 입엥 멩기는 사름이영.
 # 영 사진에도 보곡게 테레비에도 보곡 헤영 그런 거 보난.
 @1 아니. 이 동네 사름 중에.
 # 아이, 그런 거 엇어.
 @1 이 동네 사냥허는 사냥헿 그런 옷 입엥 멩기는 사름.

아니 사냥털은 가끔 우리 아버지네도 영 겨울 들মন이, 재미로 텅겅어. 현디 뭐 가죽옷 입곡 그런 모자 씨곡은 안 허더라.

@1 신발은 혹시 가죽신발 잊어났수과? 신발도 가죽신발 아니고 초신 그냥?

아, 난 그런 거 안 봐뵤.

@1 안 봐뵤예. 음.

이땅 그 책에 기린 것털 그런 거 봄뿐이주, 이 동네 살면서 나가 아는 상태는 그런 거 몰라.

우장

@1 아. 그 비 올 때 산에 쉼 보레 갈 때 입으는 옷.

우장.

@1 우장에. 우장은 무신 걸로 멘드는 거마씨?

새로.

@1 아, 새로.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네나 우리 아버지네나 짜주게. 짱 입엇어 그진. 나는 안 입어봐도 입언.

@1 그진 손 뒤편 안에 뒤편 그물 같은 거 해야 돼? 그냥 다 손으로 짜는 거?

새를 이진 텅가리잖아. 이렌 벌어지고 이파리 짓고름 ㄹ치 허믄. 요 중간으로 가운데 ㄹ작을 꺼끄는 거라.

@1 응.

꺼깁 이렇게 갖혀 불면은 이디 그 새 이파리는 남곡 가운데 대는 나와 부는 거라.

@1 응.

경 헤영 그렇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낡 거꺼 낡 재료를 만들어 낡 새끼 꼬아.

@1 응.

깎는 거. 새끼 꼬앙 그걸로 영 헤영 요 영 행 낡 영 꼬부려근앵에 영 냉경 빠지지 말 게 멘들곡 멘들곡 멘들곡 헤가믄 차츰차츰 옷이 돼는 거라.

@1 음. 그진 영 망또추룩 영 씨우, 쓰기만 하는 거지예.

스미는 엇곡 여기만 잇거든.

@1 응.

겨난 그냥 영 행 걸영 낫당 입게 돼믄 톱 들러 씨영 어깨로 걸청.

@1 이디 뭐 무끄는 건 엇어? 끈으로라도 무꺼살 거 아니?

뭐 잇어야주게.

@1 하하하.

바람 불믄 여기.

@1 단추 ㄹ튼 건 엇일 거 아니파예?

단추 엇주게. 무신 그냥 꼬네기 정도계.

물웃

@1 그냥 끄네기 정도. 어. 그 이던 웃드르난 해녀들 입는 물웃은 안 만들어났지예?

건 안 혀봤어.

@1 그 물웃은 안 해도 저기 속곳도 그추록 만들앙 입어났수과?

적삼.

@1 적삼 말고 속에. 속웃.

게메 속에 적삼.

@1 응, 적삼 속에 속곳 입을 때.

응. 속곳 입곡 그 저고리게. 흘 걸로.

@1 응.

에리도 엇곡, 그냥 간단히 만들앙. 그런 것덜.

@1 응, 거난 해녀들 입는 물웃예. 그거를 속에예, 속웃으로 입어났수과?

입엇지게.

@1 친도 달고?

친?

@1 응, 여기 끈 달앙?

끈?

@1 응.

게 끈은 여기 끈 엇이 그 이렇게 머리만 들어가게 만든 사름은 허곡 경 아녀믄 여기 끈 안 혀민 벗어정 헤져게.

@1 응.

끈을 드나 단추를 드나 다 헛주게.

@1 응.

이거 우리 동네 사름은 거 입어보지 아녀곡.

@1 아, 물웃 안 입어 받? 음, 음.

바당에 안 령기주게 그때는.

@1 아, 거난.

바다에 갓자 뭐 구쟁기나 뭐 잡아당 먹게는 해도 그 해녀질은 못 헛주게. 혀염시믄 우 린 험을 잘 쳐.

@1 아. 웃드르 사름인디?

이이 연뫼이 엄청 좋아.

@1 아.

이젠 제끄만해도.

@1 아, 요기, 요기 운동장 옆에 응, 응, 응.

왕창 넓어났어.

@1 아.

겨믄 모욕허렐 오면은 해지는 줄 모르는 거라. 엇어정 헤여, 갈라정 험 옆으로 헤여. 험 험을 잘 쳐.

@1 하하하하.

젠디 이 새 사름덜은 못 헤어도 저 바당에나 강 해도 우리 또래는 남자나 여자나이 헤 업 못 치는 사름이 엇어, 여기서.

@1 오. 여기 물이 널러났구나예.

아휴, 엄청 좋아. 널르고이 지프기도 허고 현디. 저 운동장을 허쟁 허난 족으난 물을 메완 길 만들고 헨 지금 기념으로만 영헨 냉겨도 지금도 일곱시 넘으므이 그 연못에 붉은 물 푸린 물 뭐 엄청 이쁘게 다 장치해 낫어.

@1 지금 해 낫다고.

바우에.

@1 음, 아까 차 세웠던 데, 운동장 앞에. 음.

젠디 이디 사름 해녀질 허당, 해녀질 허당 여기 왕 산 사름은 잇주마는, 여기 사름 해 녀 현 사름은 엇어.

@1 거난 그 옷을 평상시에 해녀질 안 해도 그냥 속옷으로 입진 안 헛구나예.

@2 적삼.

@1 적삼 말고 속에 입는 거. 끈 영 달리곡, 영 현 거 잇수게. 해녀 입는 거.

아니 허는 사름은 몰라 입엇사신디 어땡사신디. 그깃장은 몰르큰게.

@1 아, 삼춘은 그거 안 입어났구나예.

안 입엇주게.

@1 그냥, 그냥.

그냥 정식으로 입을 옷만 만들안 입엇주. 거 해녀덜 속에 들어강 현 거는 건 우리 필 요 엇이난에게.

@1 아 그난 그걸 속옷으로 입엇다고 허드라고마씨. 팬티 대신에.

속곳으로 입어실 거라.

@1 그난 그건 안 해났구나예.

안 허난.

신부 옷

@1 결혼할 때에, 삼춘, 결혼식할 거라예. 그든 결혼식할 때 그 옷을 새각신 무신 옷 무 신 옷 입읍니파? 젤 속에 속옷 입고, 속곳 입고. 적삼 입고.

옛날에는 브레자가 엇엇거든.

@1 응.

겨난 미녕으로나 광목으로나이 만들안 이걸 막 튼튼 짚어.

@1 아, 그건 곤는 말은 엇고?

응?

@1 뭐엔 곤는 말은 엇고?

일름은 엇고.

@1 아, 일름은 엇고?

일름은 엇고, 부끄러우니까.

@1 응.
부끄러우니까 우리 나름대로 요 너비, 요 너빈 혜계 혜근앵에 그걸 만들앙 끈 들앙 하
짜 입앵 그걸.
@1 끈도 들앙.
응. 어깨마리게.
@1 어깨마리추룩예.
경햏영 끈 들앙 그거 두어 개 입곡, 난닝구 입곡, 또 속저고리 입곡.
@1 응. 그다음? 밖에?
밖에는게, 제라햏 옷 입어사주.
@1 제라햏 옷이 무신거파?
치메저고리 입어살 거 아니?
@1 치마저고리 입고, 그 위에는?
장옷게.
@1 장옷 입고예, 음. 아까 치메저고린 꼴아신디 치메가 치메를 곤당 말앗더라고. 치메
예, 요거, 요게 아까 어깨마리?
어깨마리.
@1 어깨마리 엇인 것도 옛날엔 어깨마리 엇이 해낫지예?
허리치마.
@1 건 허리치마. 음. 그믄.
이 어깨마리는 중간에서 나왔지.
@1 아.
우리 결혼햏 때 이 치마에 이거는 엇어난. 속치마에.
@1 음, 속치마엔 잇고.
속치마엔 잇고,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 허리 든 상태에서 곶.
@1 응.
곶 햏영, 요디 왕 푹햏게 무짱 뒤 길게도 안 나오곡.
@1 응.
경햏디 이진 속치메주 속치메.
@1 음, 이렇게 치마에 햏젠 햏민 보통 멧 푹 정도 햏근에 치메 보통 만들앙 입어낫수
과? 새각시 치메 말고 보통.
미녕이나 베나 햏 경우는 으섯 푹.
@1 아, 으섯 푹.
응, 옛날엔 으덱 푹 치마엔 햏도 으섯 푹 햏야주.
@1 보통은 여섯 푹이고.
그 넓은 거는 두 푹 반.
@1 더 부찌는 거?
넓은 거.
@1 아.

넓은 폭은 두 개 반착.

@1 아, 넓은 폭은 두 개 반착이른 뉘고?

응.

@1 음. 새각시 치메는 그른 멧 폭 험니까?

속치마?

@1 아니, 새각시. 입는 치메는 멧 폭짜리?

아, 것도 마찬가지로.

@1 아, 여섯 폭. 똑ㄱ타.

응.

@1 음, 그른 여긴 허리 요거는 이견 뭐엔 곶아? 위에서 아래로?

이견 아무것도 아니. 치메 기장이주게.

@1 치메 기장. 요 밑에는? 치멧단?

치멧단.

@1 응, 요것도 안자락 겉자락 험니까?

응.

@1 어느 짝이 안으로 가야 뉘니까?

이젠이 웬각덜허는 따문 해도 이 안쪽은 이쪽에.

@1 응.

아니, 안쪽은 이 뒤으로 요레 오게 허고.

@ 응.

밧쪽은 일로 영 헤여다근엿에 고름광 치메광 흐꿈 영 헤영 올리른 요디 뵙허게 올라오
곡 허른 이뵙.

@1 응. 계난 오른쪽으로 영 행 가정왕 이렇게 허는 거짜?

응, 우리 혈 때는 이거 원칙이주. 헌디.

@1 아, 원칙. 오른쪽으로 영예.

우리도 웬각을 입엇어.

@1 어떤 때?

아이 결혼헤연게 젊은 때덜게, 늙덜 입어가난게 건 허연 입엇주게. 헌디 옛날 법식은
이 속에 털이는 이 안쪽으로 요레 오게 허고, 요레 오게 헌디 알로 너무 질영 보기 싫으카
부덴 허리레 쯤 담아 불어.

@1 음.

이 이거를 이 안네 가는 거, 요레 오는 거를 살짝 흐쉴 담아 흐 요만큼 더 들어가게. 담
아근 밧각이엔 헌 건 이견 밧각 영헤 오른 이레 오른 곶 메여오고, 이디 왕 곶 뉘 거 아니?

@1 예.

곶 크게 아녀메. 요디 왕 똑기 메곡 이 치메각 해당 요 영 들령 허곡 익숙헌 사름은
또 이 치메 고름이랑 요 각이랑 해당 확 들령 입곡, 서툰 사름은 고름 메여 낡 야이 따로
등겨당 영 허곡.

@1 음. 아, 계난 안각.

뱃깅.
 @1 안깅 뱃깅 허는구나예.
 # 응.
 @1 뱃깅이 보통 오른쪽으로 오게 행은에 입어났고, 옛날에는.
 # 건디 중간엔 멋으로들 다 웬깅들 입었어.
 @1 아.
 # 나도 웬깅 입었어. 젊을 땐 놀레 텅길 땐.
 @1 건 뽀으로 입는 거구나예. 유행인가?
 # 건 자유, 자유.
 @1 자유. 어.
 # 윈 법칙은 이 오른쪽으로 이레 와사.
 @1 아. 그믐 그 신부 결혼힐 땐 입는 옷 특별한 건 장옷이네예.
 # 장옷.
 @1 나머지는 그냥 다 똑ㄱ트고예.
 # 장옷은 또 그 옛날 노인네덜 저심옷이거든 지금 수의.
 @1 아, 예.
 # 건디 이뻐 그게 이디.
 @2 색동 막 들어갑니까?
 # 응. 색동 들민.
 @1 장옷에 아.
 # 그거 헤 노믐 것도 빌린 것도 복 받넨 헤영이, 못 헤논 사름은 헤도, 헤 논 사름은 잘 빌려 줘.
 @1 삼춘도 결혼행 올 때 장옷 입은은엔에 결혼행 왓수과? 시집왓수과?
 # 장옷 입고 가마 타고 헛주.
 @1 아, 장옷 입고 가마 타고.
 # 차도 타렌 헛어 그때.
 @1 아, 차도 이신 때파?
 # 응, 신춘서게 늬의 집 살명게, 소개 느려간게 젊은 사름들을 다 잡아가 불언 엇었어.
 @1 응.
 # 겨난 여자 아니, 남자 흐나에 여자 흐 도루무깅이엔 헤났어.
 @1 하하하.
 # 남자 엇어 부난. 열두 뱃디서 증진 뉘 나가 일성 늬언 잘 살지도 못허곡.
 @1 하하하. 이제라시민 혼자 살걸. 혼자 살아도 잘 살걸 무사 경 시집을.
 # 아이고, 게메. 열두 번째 증진 뉘 가난 경 잘 살안.
 @1 경행 대신에 아들똥들 잘 키왓수게.
 # 아들똥 뉘 키운 것뿐이주, 돈 번 것도이 어땡, 어땡 당허명이 뉘 보증 앓나.
 @1 맞아.
 # 땅도 사난 또, 분할 안 현 거, 회천 사름인디 예를 들어 구천 평이난 이것 반착이라고

구천평이라 하지.

@1 응.

그 바우에 이것이 일로 이레 구천 평이고 이거 큰 도로라.

@1 응, 응.

도룬디, 이 구천 평에 부튼 땅이 똑 네모나게 영 해영, 밧 멧 개가 잇었어. 밧 멧 개가 이시난 요 밧도 이제 이디 노인회 총문디 그디 밧이고, 그다음은 또 우리 밧이고 그 다음은 회천밧이고, 그다음도 또 회천밧이고 현디. 그냥 그 큰 도로에 그 밧이 이렇게 행 그레 구천 평 뉘 밧에 질은 이거 현디 이 질 바우 발라 일로 트로 이렇게 이렇게 밧이 시난 구천 평에 옛날이난 그 밧이 부튼 중 알았어?

@1 하하하.

전혀 몰랐거든게. 게 몰란 그 밧을 그 박정희 대통령덜 개간해 가난 그 밀가루덜 막 줄 때에 그걸 우리 땅이 옛이난 걸 사젠 허연 놈 산 거를 헨 사신디 게난 그뎨 뭐 이 무시 짓고? 땅만 샅주, 명의를 누게 이름 이신 거 뭐 분할헌 거, 그거 옛엇어게, 옛이난.

@1 응.

삼십오 년을 그 땅을 그대로 해 먹었어. 해 먹은디 내중엔 결국은 그걸 이전을 허게 뉘엔. 이전을 허게 뉘난 우리 집 아방 허는 말이 이젠 못 허메, 못 허메.

@1 응.

아, 뉘 따문 이젠 못헐 말이우짜, 못헐 말이우짜? 현디. 겨난 나는 몰라도 밧 사기도 나가 간 샅곡, 현디 그 분할 아이 된 거를 몰랐고 베끼딜로 우리 집 아방은 들으난 분할 아년 말을 들은 거라. 들으난 안 뉘다 안 뉘다 허는 거라, 해도 그레도 허젠, 경헤연 이디 이 벤호사가 우리 스촌동생인게 글로 간 이젠 법에 소송을 헌 거 아이라, 이거 영 정 영 정 헨에 헌 건디 이걸 어떻 허느니 허난 헤여 봅서 허연. 경헨 그걸.

@1 장옷은 그냥 두루마기영 흐끔 트납니께예.

벨루 딱난 건 옛인디게, 큰 두루마기 감 옷으로 아년 뿐이고.

@1 응.

바지저고린 똑ㄴ튼 가다고.

@1 아니, 아니. 장옷, 장옷. 여자 시집갈 때, 결혼헐 때 입는 장옷.

장옷?

@1 어, 어, 어.

장옷 그 할무니들 입을 수의.

@1 응.

그거 빌영 입곡, 족도리.

@1 응.

견디 그 족도리 이신 디는 장옷에는 옛어신가? 윈 것도 몰르켜. 현디 족두리 예쁘게 썩주게.

@1 응.

견지허는 시긴 옛어 부난 그런 건 전혀 봐 보질 아넛곡, 뒤에 낭즈 허젠 허민 나 머리, 본인 머리 허곡 또 딱로 머리 맞는 거, 좋은 머리 옛날은 머리 좋은 사름덜 머리 비영

뺨을 샅젠 곱아. 옛날 어른들.

@1 아,

뺨 산 사름 하.

@1 머리 길렁 그거 풀아근에?

응, 머리가 한 사름은 속 질렁 해근엿에 요디 곡지 요만이 멘들앙 길이가 허믈 머리가 약헌 사름덜 사당도 허곡.

@1 음.

또 지금 곤듯이 결혼허 때에 큰 낭즈 허젠 허믈.

@1 응.

그거 풀멍덜 헤영 머리 풀앙 뺨도 사고렌 허주게. 뺨도 사고렌.

@1 장옷은 이디 소매가 막 집니까?

응, 도폭ㄴ찌.

@1 도폭ㄴ찌. 이디 무신거옴 곱아, 이거? 뭐 우머니옴?

우머니.

@1 여자 것도 우머니옴 곱옵니까? 장옷도?

응, 우머니.

@1 아, 요기 우머니.

기장만 흐쉴 짚을 뿐이주, 남자 거광 똑같아.

@1 아.

이 장옷도이.

@1 예예.

남자는 도폭.

@1 남자는 도폭, 여자는 장옷예. 그 여자 장옷은 아까 요디.

색동.

@1 회동?

색동계.

@1 색동예. 색동, 색동. 무신 색 무신 색 헿 들옵니까?

게, 노랑 거 파랑 거.

@1 아, 종류별로.

하양 거, 남색, 골고루. 고와.

@1 그믈 요기 요긴 짓은? 짓도 허고.

짓도 헿주게.

@1 동전도 허고.

응.

@1 응. 요기 색깔은 이믈은 무신 색으로 헿? 이믈은?

푸린 거나.

@1 푸린 거.

붉은 거나.

@1 붉은 것도 헐니까?
 # 분홍색이나.
 @1 아, 여러 가지가 있구나. 푸린 것만 봐 나신디. 음, 그건.
 # 견디 푸린 게 하.
 @1 게난 푸린 게 하예.
 # 분홍은 가끔 어찌다 보주, 잘 엇어.
 @1 게문 하난 경 입곡, 하난 영 쓰고? 안 써?
 # 쓰긴 쓴텐 허는디 우리 헐 때는 써보진 안허연.
 @1 게난 그 결혼헐 때 장옷 입영 결혼헐디가? 족두리 쓰고?
 # 응.
 @1 그거 혹시 사진도 이수과?
 # 사진, 어떻허는 사진?
 @1 하하하.
 @2 찍어 놓은 사진.
 # 옷도 빌영 늬으 옷 빌영 결혼헐 때에 사진이랑마랑.
 @1 응.
 # 겐디 그것이 질 섭섭헤여.
 @1 응, 거난 결혼사진 엇이난예. 신발은 무신 거 신옵니까? 새각신.
 # 고무신.
 @1 아, 고무신. 고무신 난 때구나예.
 # 코고무신 난 때.
 @1 하얀 거, 검은 거?
 # 하얀 거.
 @1 하얀 거, 음.
 # 고무신은 막 하영 난 때주.
 @1 아.
 # 보통 신영 땡김만 보통도 헉쓸 어려와도 보통도 그냥 그런 대로 신엇고.
 @1 응.
 # 우리도 결혼헤연 이 개월만이 군인가난 췌 휴가 올 때에 고무신 흰 고무신 산 완.
 @1 선물로?
 # 선물로.

신랑 옷

@1 하하, 그문 이제 새신랑은 무신 옷 입옵니까?
 # 양복계.
 @1 아니 양복, 새각신 장옷 입고 새서방은 양복 입어? 아까 도폭 입지 안헤?
 # 도폭 안 입엇어.
 @1 아, 도폭 안 입어? 뭐 사모관대 허고 영 그런 건 안 헨?

아, 사모관대 입엇구나. 침.
 @1 계난. 장옷 입어시민 이 사모관대 입어야지.
 # 검은 거.
 @1 무신 색깔?
 # 검은 거.
 @1 검은 거?
 # 곤색.
 @1 아, 곤색.
 # 사모관대.
 @1 사모관대는 어디 빌영 입읍니까?
 # 빌영, 다 빌주. 다 빌어.
 @1 거 빌려주는 디 이서? 따로? 마을마다?
 # 아니, 아까 식으로 게 그 뭐냐. 호상.
 @1 응응.
 # 그 식으로 허여 논 거난 빌려줘.
 @1 아 그것도 호상으로 다 자기 거가 이수과? 할아버지네 거?
 # 할아버지들도이 좀 그 뽕곡 뒹헌 할아버지들은게, 이거 썩 제사 때에도이 우리 할아버지도 보른 도폭 멩지로 헌 거 듬색이 입영 이디 끈 빨간 걸로 영 살레기 길게 놓곡 갓 탕간 씨곡 그 위에 갓 씨곡.
 @1 응.
 # 갓은 거 양태로 만든 거라.
 @1 예예.
 # 그거 허곡 헤영 제 보주게. 제사 때.
 @1 아.
 # 계난 그런 식으로 헤 논 거고, 그 족두리는 것도 자세히 몰르커라. 만들어 낯에 들어가 명사 씨신디.
 @1 응.
 # 걸 몰르커라. 헌디 족두리 쓰곡 그 장옷 입곡 차를 탈 거냐.
 @1 응.
 # 가말 탈 거냐 허난, 원 영 생각헨 보난 차는 그래도 내중에도 탈 수가 이실 거고.
 @2 가마?
 # 가마 탕주, 가마.

상복

@1 계른 이번엔 누계 돌아가션예. 누계 돌아가시민 이제 강 친척들이 강 다 옷 만들어 줍니께, 상제 옷이영 예 그 상복이영 이런 거 만듭니께.
 # 응, 만드는데 이젠 다 사 부난 만들진 안허여.
 @1 아, 옛날엔.

만들앙 허게 뉘든.

@1 옛날에 만들 때, 만들 때 자 이 집이 동네 누게 이 동네 누게 죽었어예. 경행 삼촌 왕은에 옷 만들아 도렌 들앙 강 그럼 뉘부터 험니까? 딱 가민.

재단허는 어른이 잇어, 요디.

@1 아, 재단 잘허는 어른이 잇수과? 이 동네?

응.

@1 아. 난 삼촌이 제일 잘허는 어른인 줄 알았지.

아니 옷 만드는 거이, 거 신부 옷 ㄱ튼 거는 내가 헤신디.

@1 아.

바지저고리 미싱 쓰꼭 그런 그 저 뉘냐, 도폭 그런 거는 허는 어른 잇어.

@1 아, 기구나예. 그든 다 그 어른이 왕 몰라 쫓어. 그다음엔 어떻 헤?

몰라 준 것사 허주게.

@1 어떻 험 험니까?

메. 아니게, 이거 차례 알거든게, 다 헤 논 거.

@1 하하하.

딱 재단 헤 노든, 그건 그건 알주기. 현디 재단도 흐쉴 베와가단에 살림 살명 좀 복잡 헤 가난.

@1 응.

재단도 안 헤난. 허젠 허민 허주마는 재단허는 거 어른 잇어. 흐 어른 돌아가셔 붙엇고, 이제 살안 잇주.

@1 아까 잇수과? 노인당에 오섯수과? 경로당에? 안 오션 오늘은?

와서신가?

@1 하하하. 그 어른은 이름 뉘짜?

이○○.

@1 이○○?

이○○.

@1 이○○ 어른. 음, 그 어른은 동갑이과? 비슷한 또래과?

아니, 언니.

@1 아, 삼촌보다 언니.

세 슬 차이. 우리 친목.

@1 구십 넘엇네.

구십셋인가.

@1 아이고. 경 행 아직도 정정허시고? 흐뵈 아팠수과?

크게 아프진 안혀도 나이 깎으로 오몽을 못 헤여. 허난 이디도 텅기긴 텅겨.

@1 응.

현디 가 봐 허든. 이 신부 옷 ㄱ튼 거는 아녜고.

@1 복옷은?

감옷 ㄱ튼 거이 감옷 만들아 주든 검질도 왕 메주주게.

@1 아.
겨난, 나도 저 베풀 ㄱ튼 건 친구들이랑 아는 디랑 만들어 도렌 헤영.
@1 응.
곱겐 못 헤도 기술자신디 가든 샅도 비싸고 나는 반값도 아이 받주게.
@1 하하하.
그냥도 못 헤 주곡 실값이나 받았주. 겐디 이 어른은 재단을 헤.
@1 아, 상복혈 때 그 남자, 아들 상제 큰상제 입는 옷허고 뭐 사위 입는 옷허고도 트난 덴, 다르덴 험디다예.
응 건, 뒤에 무신거 부쳐.
@1 무신거 부쳐? 부치는 거 뭐엔 곺아?
조각 부쳐.
@1 이름 엇어?
일름 신디.
@1 그거 혹시 뭐 업을복이엔 험니까? 아니, 날개?
몰르커라.
@1 몰르커라. 그, 그, 그, 그 뒤에 부찌는 게 큰 상제 옷?
응.
@1 아델 상제?
응.
@1 큰상제만 그거 입어 아니든 작은상제 다 그거 입어?
큰상제만 입어.
@1 큰상제만 입곡, 음. 그다음 사위 옷이영 아델 옷이영 다르곡?
사위 옷, 사위 옷은 꼭ㄱ튼디 그 부찌는 것만 엇어.
@1 아, 그든 큰아들 것만 트나고 나머진 다 똑같애. 사위 거나 아들 거나. 요디 우머니 도 트나덴 험디다. 어디 가난. 그 동네만 트난 거구나.
건 복옷. 건 두루마기 식으로 적당히 험디 이제 다 그냥 ㄱ따.
@1 아, 이젠 ㄱ튼디. 옛날애, 옛날애.
옛날엔 틀려사신디사.
@1 하하하. 잘 기억 안 나는구나. 그든 머리에 영 쓰는 것도 잇수게. 두건 말고. 영 예 영영.
건대.
@1 건대, 응. 두건 쓰고 건대 허고예. 그 두건도.
남즈 상제는 건대 쓰곡 여자도 쓰긴 허주마는 이젠이 복잡헤영 그자 간단히, 간단히 혈 때난 이제 여자 안 쓰주.
@1 아. 여자 상제 그 건대 허는데 안에 무신 거 영 천.
손수건ㄱ찌.
@1 손수건같이예, 그건 뭐엔 그냥 손수건이엔 곺아? 뭐엔 곺는 건 엇어?
거 무시거 일름 벨로 엇어.

@1 아.

이디 것만 건대엔 허난 네모나게 헤영 게 그레 낡 그 우트레 씨.

@1 아.

그거 일름 엇일 거라.

@1 음, 아까 그 상복 만들 때도 여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랑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랑 만들 때 바느질하는 게 다릅니까? 단 영 감치는 거나?

감치는 거? 옛날 잊어실 거라.

@1 음, 두건도 트난.

아니, 아니. 당 상제는 꼬부려 놓칠 아녀곡 그냥 이렇게 끈어진 상태에서 감추곡, 복친은 이렇게 꼬부려 낡 풀어지지 말게 영.

‘복친’ 옷

@1 아, 복친은. 복친들도 상복 입읍니까?

입주게, 옛날에.

@1 아, 다는 아니고 몇 명?

큰아방 아들, 작은아방 아들 잇잖아게.

@1 예,

스춘덜. 옛날 다 입엇주게. 난 원 저 셋시아주방 아덜덜, 작은시아주방 아덜덜토 일절 난 아년 하르방 돌아가신 때, 그자 당 상제덜만 애기덜만 헤연.

@1 응. 요즘은 다 당 상제덜만 허는디.

헨 설러 불엇주마는. 스춘 누게 큰아버지 돌아가신 때 셋아버지 돌아가신 때 조케들 거를 주주게, 지금도 줘서. 주는 사름은 현디.

@1 아, 기과? 우리는 뭐만 주던데. 하지만.

응?

@1 몸빼 하나씩 주던데. 여자.

건 여자니까.

@1 아.

남자.

@1 남자들은 상복 입어났구나예.

큰아덜 하난 쥐살 거주게.

@1 음.

견디 난 안 줬어, 건. 그거 현 옛날은 어깨에 메영 저 먼 디 그 소리 허명이 막 그냥 힘들게 힘들게 모셔갈 때는 그 복옷덜 입영 길게 상 가른 잘도 보기 좋아.

@1 아.

허주마는 이젠 병원에서 뭐.

@1 차 탕,

이틀도 뒹억 사흘도 뒹억 사, 사오 일깃장은 걸리주마는 그 안에서 무시거 흐쉴 입당 설러 불 거 무시거 복잡허게. 설러 불주.

@1 하하하. 그 저 여자 상제, 아까 남자 상제 옷, 옷은예, 뭐 특별한 다른 거 엇어마씨?
우머니가 이만이허게 현다거나 아니면 뭐.

우머니 다 그거.

@1 그거, 뭐 이디 이디 끈도.

띠는 다 잇고.

@1 띠는 다 잇고예. 음.

띠 다 실 거라.

@1 그 친척들한테 아까 우리는 그 몸빼 바지 받아신디 옛날엔 몸빼 바지 아니고 다른
거 줘 낫지예?

치메.

@1 아, 치메. 우엔 안 입고 치메만?

우에도 여우 신 사람은 우알 주곡 엇인 사람은.

@1 거 복치메엔 곱습니까?

복치메.

@1 복치메는 미녕으로 헤 아니믄 베로 헤?

건 미녕이나 베나.

@1 아, 이제 지금 몸뻐 미녕, 미녕 몸빼.

현디 몸빼로 대목허주게 몸빼로.

@1 겨난 지금.

침, 미녕 베, 아, 광목으로 허주 광목으로.

@1 아, 광목으로. 음.

바농질이 쉽잖아게.

@1 아, 상제는 베를 입잖아예. 베옷 입지 안헐니까? 근데 저 친척들은 복친이엔 헐니까?

복친.

@1 복친덜은 그냥 광목으로? 응.

여우 이성 자랑 비슴이나 다름 엇이 허는 사람은 조케덜도 베치마로 주고.

@1 아.

경 안현 사람은 이제 광목치메 주고.

@1 음.

광목치메주단 이젠 바지로 주고 경 험주.

@1 겨난. 수건도 줘디다, 옛날에.

두건 줘주게.

@1 두건, 남자는 두건이고 여잔 뭐 복수건.

복수건 건 남군에.

@1 아, 이던 안 허는구나예.

이던 안 허여.

@1 이던 그믄 무신거 줘니까?

아무것도 안 헤영 상제들만 머릿창 들어당 설러 불곡 그냥 바지나 치메나 입영 절허믄

끗나 불주.

‘머리창’

@1 아. 머리창은 몇 년이나 해야 되는 거마씨?

옛날 대소상 헐 때는 예를 들었 오늘 돌아가시면 내년 이때깁장. 또 내년 이때깁장 소상 아, 장사 끝나든 소상허곡 대상허곡 그디 담제허곡 허주게. 경허는디 이젠 거 그날 다 축 고해 불염서.

@1 거난 원래 머리창은 원래 삼 년이나 이 년, 이 년 쓰는 거구나예.

흐루쫌 험주게, 이 년 씨는 디 이 년 써야 뵈 건디.

@1 아.

이 년 씨곡 저 담제헐 때는 썸 들이곡 헤나신디.

@1 썸 들이는 건 뭘?

머리창 대신 그 썸을 들이더라.

@1 아.

@2 그냥 썸마씨?

응. 대소상 끝남 담제가 있어.

@1 예, 담제 끝나든 썸을 여기다 머리 그 머리핀에다가 끼워? 머리창 헛던?

아, 상제만게.

@1 아, 상제만. 그든 머리창에 헛던 그 저 천 빼뒤근에 썸로 그디 끼우는 거꽈?

응. 머리창 헛 거는 모엿당 대소상 끝남 그 복옷들 슬 때는 그냥 슬아 부는 거고.

@1 응.

이제 머리창은 게 당 상제나 그 장지에 갈 때깁장 썸당게, 집에 오든 그디서 슬아 불주.

@1 하하하. 호상웃은 저 저승웃은 헛 뇌둬디가?

샷주, 샷주.

@1 사수꽈? 하하하. 삼춘이 직접 안 하고 샷구나? 거난 저승웃은 무신거 무신거 이신 거꽈? 웃이?

다 헛 오느렌 나 헤싸보도 안 허곡 난 하얀 걸로 좋아 베언에.

@1 무신 천으로 헛디가?

인주엔 헛에 헛주, 인주.

@1 인주? 음.

@2 인조.

현디 보긴이 헤영케 살락현 게 잘도 이쁘더라. 경헛 그거 헛 왓주.

@1 아. 게든 치메저고리 허고, 건 무시거 막 장갑 ㄱ튼 것도 이시곡 헛디다?

하여튼 헛 덴 헛 거 다 실 거라. 까보지도 안허고.

@1 하하하. 까보지도 안허고.

보여주는 거만 봤주.

바느질 방법

@1 아. 옛날에 바느질할 때는 그 바느질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잇수게? 뭐 호, 호는 것도 잇고, 감추는 것도 잇고.

뒷바느질.

@1 뒷바느질은 어떻게 거파?

흔 번 영 걸려냥.

@1 응.

다시 걸려는 거에서 반 걸리곡, 이거 반 걸리곡 허는 거 뒷바느질이고.

@1 응.

또 감추는 거는 그냥 영 헤영 뱅뱅 감추는 거곡.

@1 응.

호는 거는 또 이거 영 헤영 이레 단 멘들아 낭 영 헤영 호는 거곡.

@1 응. 시치는 것도 이수과?

응?

@1 시끄는 거?

시키는 거?

@1 응, 시침질.

거 뭐라 몰라.

@1 좀 영 크게 이렇게.

@2 이불 같은 거 시치는 거.

@1 요만큼, 아니 이만큼 아니 요만큼 크게 행은에 들어갓당 영.

아, 것도 잇주게. 이불허는 거.

@1 그거 이름은 뭐엔 굴아? 뭐허는 거엔 굴아? 엇어? 따로 곧는 말 엇어?

건 이불힐 땐 뭐 그냥 크게 헤나난 거 일름 들어진 거 엇어.

@1 응. 혹시 땡침은 뭐마씨? 땡침 헌텐도 굴안게.

땡티?

@1 땡침. 그런 말은 안 들어 환예.

땡침.

@1 땡침헌다 영헌 말헨게마는. 그런 말 안 허는구나.

옷감 손질

@1 그다음에는 아까 옷감 손질허는 거. 풀뵝영은에 모시저고리라도 행은에 허젠 허민 어땡 행은에 풀 뵝이는 거? 무신 풀 써근에 헤?

쓸풀이나.

@1 아, 음.

쌀풀.

@1 쌀 죽 썬 아니면 가루로?

죽 썬. 아 밥도 뉘주마는 죽 썬사 편허주게.

@2 아.
 # 죽 썰, 주머니에 놀령.

@1 아.
 # 그 물 해야 원칙이고, 또 이제 기냥 우리 나도 베옷 입엄주마는 밀꺾루 낱 썩엄 어느 정도 허면 뒤흐다 헤영 노른 그자 손만 잘 보른 뒤어.

@1 그른 그 풀 썩언예, 그른 그 풀 썩 걸 어떻게?
 # 풀 썩 거게, 그 천에 어느 정도 허른 썰고 약헌 게 잇거든.

@1 응.
 # 풀이 두꺼우면은 더 바짝허고 약허면은 좀 힘이 엇고.

@1 음.
 # 계난 그거 어느 정도 뒤른 뒤 거다 헤영 짐작 삼앙 그냥 허영 나란히 손만 잘 보른 뒤어. 손만.

@1 음. 쟁.
 # 발르게, 올 발르게.

@1 풀 뚱인 다음에 그다음엔 널어마씨?
 # 널영.

@1 빨랫줄에?
 # 응, 보들보들 헤가거든.

@1 응, 응.
 # 경헤가른 그걸 내루왕 썩썩 막 툀라 불어도이 손질허기가 꺾어. 발르질 안허영 안 뒤.

@1 아.
 # 축축 어느 정도 허게 뒤른 내루왕 올 발라 기자 썩썩 등기곡 일로 등기곡 경 차근차근 개어 나.

@1 응.
 # 감웃 개영 불르는 듯이 개어 낱 영 멧 개 해 낱 이디 수건 낱앙 발로 썩썩 불르른 나란히 페와져. 나란히 페와지근 이젠 바싹 툀려살 거 아니?

@1 예.
 # 또 널다가 보면은 좀 비틀어진 디가 잇어.

@1 예.
 # 경허른 또 그거 그런 대로 널어 둬서 썩썩 흐썩 손 뺑 바싹 툀루른 이젠 다리미도 그 물 뿌려지는 거 시난 허곡 또 거 엇이른 옛날은 입으로 뿌령.

@1 물 뿌려지는 다리미. 물 뿌려지는 다리미 엇일 땐 옛날엔 무신걸로 헤수과?
 # 다리미.

@1 그때도 다리미?
 # 응.

@2 인두, 인두.
 @1 영 숯 놔근에 허는 거 이수게.
 # 밥사발 닦은 요만큼 헌 거.

@1 겨난, 짓도 다리미라, 이름이? 다루웨?

응, 다루웨.

@1 응, 응, 다루웨.

나보담 알암신게.

@1 아니, 다른 동네에서 겨 겨난 여기서도 혹시 겨 험신가 행.

다루웨, 다루웨.

@1 다루웨예.

다루웨, 경혜영 그거에 솟불 살랑 어느 정도 짓도 막 뜨거우믄 안 뒤거든. 겨난 그자 헤보멍 적당히 혜영 쪽쪽 낱 밀믄 쪽 다려지고.

@1 다루에 말고 인두는 어떻 헐 때 허는 거?

윤디?

@1 응, 윤디는 어떻헐 때 허는 거파?

건 옷 만들 때에.

@1 아, 건 만들 때만.

응, 만들 때에 이거, 젤 먼저 여기 영 행 영 저 가게 뒤믄 영 혜영 쪽쪽 영 곱으로 영 반뜩허게 헤 낱 영 갈라정 놋근영에 쪽 행 다리믄 곱닥허곶 발르게.

@1 이디 짓이나 이런 디 헐 때도 윤디 쓴텐 헐 게마는, 겨 안 험니까?

그거 들어사주게.

@1 윤디 이서야 요디 영 행예 잘에. 겨난 다루에로만 허지 안허곶, 겨치 쓰는구나.

윤디 이서사.

@1 윤디도 겨치예.

겨난 윤디도 어드레 데껴 붙언 엇어 붙고.

도구

@1 바농질헐 때는 그 바농, 바농이영 실이영 영 담앙 놋두는 거 이수게.

바농상지.

@1 바농상지 이수과 집이? 다 데껴 붙어수과?

엇어.

@1 어서. 바농상지 안에 무신거 무신거 담앙 놋둬니까 보통, 바농하고.

그게 그 바농질허는 종류게.

@1 응. 이름이 무신거 무신거 이수과?

게 바농실 대목 실패.

@1 실패.

가위.

@1 가위. 옛날 말로, 겨새엔 안 허곶? 가위?

겨새.

@1 겨새 또, 영 손에 끼우는 거.

응 그거, 난 거 헤보도 안혀도 거 잇주, 잇어.

@1 아. 안 해 봤구나. 안 허고예.
 # 그런 거 정도 해영 농곡 대목 실.
 @2 골무.
 # 실, 실도계, 검은 실도 농곡, 흰 실도 농곡, 즈진 거 농곡, 훑은 거 농곡.
 @1 바농도 여러 종류?
 # 바농은 여러 종류 아니.
 @1 하나든 뭐어?
 # 이불허는 바농만 크주.
 @1 음, 이불허는 바농 큰 바농은 따로 곤는 말 엇수과?
 # 딱로 이서.
 @1 무신 거엔 곶아? 무신 바농이엔 곶아?
 # 이불 바농.
 @1 아, 이불 바농. 음.
 # 이젠 산 이불 셔 부난 거이, 바농 그 손바농질허는 거 사난 그거 하나씩 난에 거 일제엔 헨 사난 두어 개 이신디. 썬 곳이 엇어.
 @1 하하하.
 # 요만큼 진 거.
 @1 그 바농 오래 안 쓰고 허민 막 녹슬어 붙니께.
 # 그 일제엔 현 거는 녹을 안 쓸어.
 @1 아.
 # 막 오래영 잘못헤사주, 녹 안 슬어.
 @1 응, 그믄 흐뭇 무끼거나 잘 안 들민 어떻 헤? 바농질허당 잘 바농 안 들어강.
 # 속돌이엔 현 것이 잇어, 옛날.
 @1 거, 무신 어떻?
 # 옛날은 돌, 돌, 돌인디 좀 딱난 것이 이서. 요만한 거, 그거 이 영 밀문 녹슨 것도 벗어지고.
 @1 아.
 # 코쟁이 닳아지곡 꺼꺼지는 수가 잇어.
 @1 아, 너무 녹슬게 너무 하영 깔아 불민.
 # 아니, 오래 쓰다가 보믄.
 @1 아,
 # 꺼꺼지는 수도 잇어.
 @1 거믄 다시 밀영 코쟁이 만들어?
 # 경도 행 씨곡, 녹썬 거.
 @1 녹썬 걸 보민텐도 험니까?
 # 보민 거.
 @1 예, 보민 거예. 그 바농 영 찢렁, 찢르는 거 이수게. 건 뭐엔 곶아?
 # 바농참?

@1 바농쌈? 아니 바농.
게메 바농 찢르는 거.
@ 응, 찢르는 거.
바농쌈.
@1 바농쌈. 바농쌈 안에 무신거 답습니까? 솜 답아?
머리털도 담곡.
@1 아, 머리털. 무사 머리털 답습니까?
녹을 안 썰거든.
@1 아.
머리털 허기 전에는 저 나무에 하얀 거 씨와지는 거 백네엔 현 게 있어.
@1 무신거? 백네?
백네.
@1 무신 나무?
밧디 가른이.
@1 어떤 나무에 생겨?
그거 크지 안해. 그 낭은 쩌끌락헌 거에.
@1 응.
옛날 출발 허당 보든 그 낭이 원 일름 잇어불영 못 곶으켜.
@1 응.
그런 낭이 시른 그거 톨앙 왕이 복산헌 거라 그거. 짓도 녹 안 슬어.
@1 아.
그런 거 담앙 주머니 요만은 허게 헤영 곱게 허는 사름은 날궤찌 톨다진 사름은 영 현 거에 낭 이디 저 뵈고? 가사리 부짱 곱주, 짓도.
@1 예.
경허곡, 경 아녀른 그자 주머니 요렇게 멘들앙 담앙 그레 찢르곡.
@1 응. 무사 옛날 어른들 바농질허당 머리 영 영예. 썰영 허고.
민지럽주, 머리에 기름 잇잖아, 기름.
@1 거니까 바늘을 영 영 영 헤근앵에 허드라고마씨.
안 걸려, 안 걸려. 잘 들어가.
@1 아, 그게 잘 들어가. 기름 잇어 가지고.
천이 두꺼운 거는이. 그 바늘이 잘 안 들어.
@1 아.
경 머리에 영 허든 머리에 게 옛날은 동백기름이.
@1 예.
나도 이젠 그거 머리 엇어 부난, 블라도.
@1 아이구, 머리 하수다게. 아직은.
경 허는 거.

신발

@1 응. 신발은 무신 신발 옛날에 많이 신었수과?

초신계.

@1 초신. 음.

짚신.

@1 초신은 주로 아버지가.

그거 신곡, 여름에는 조리엔 해근엔에.

@2 조리?

그거 짚으로이 여기 까락 엇이, 그자 이 발창만 만들앙 끈 들앙도 신고.

@1 오, 지금 슬리퍼추룩.

또 나막신 잇어.

@1 응.

나무로이.

@1 응.

건 비 온 때 눈 온 때 신으는 건디. 것도 나도 신어 봤주.

@1 아.

우리 아버지가 걸 만들아.

@1 응.

만들안에 헛고, 그 계다엔 현 거는 제국 때사 난 것 닐아. 확실힌 몰라도 나가 생각에.

@2 계다는 일본, 일본, 일본 신발이주게.

@1 응, 응.

제국 때에 그 일본 사름들이 계다 신언 현 거 봤당,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받 만들안에 이제 썸영, 썸영인디 옛날에는 두른돌장이엔 헛어, 그디가.

@1 두른돌장?

응, 두른돌장, 조천장, 함덕장 현디 시엿장꺾장도 나도 멧 번 텡젯주마는 해도 건 멀어 부난 잘 못 텡젯고, 두른돌장 건 막 어린 때.

@1 응.

두른돌장 함덕장 허믄 그 두른돌장에 그거 어머니영 폴레 가났어.

@1 뭐, 계다?

계다를.

@1 아, 아버지가 만들어 주면?

응.

@1 오.

건 제국 때 난 거.

@1 응.

건 아마 건 일본 사름덜 현 거 받에 손매가 이시난 만든 것 닐아, 우리 아버지가 저 산에 초기 잇잖아. 그 초기덜토.

@1 헤났구나.

@2 버섯?

돈 신 사름은 일본 사름이 완 헛어.

@1 예.

겨난 그 초기가 내가 먹엇어.

@1 응.

먹어서 그걸 어디 밧디나 강 산에나 강 이젠 변을 볼 거 아니? 보게 됬믄 거 초기 냄새가 난덴.

@1 응.

경 행 그 냄새를 좇넨 헤영 그디 강 일을 헤도 초기를 흐쓸 앗앙 읍센 허주. 나가 분시 몰란.

@1 하하하.

안 됬덴.

@1 응.

그 벤 본 거에 냄새 마취근에 다 좇앙 못 앗앙 온덴 헨디 경행 그 초기왓디 강 일을 헛어. 돈 별젠.

@1 응.

돈 벌 게 엇잖아게, 옛날.

@1 예, 예.

용시나 행베긴 헨디. 용시허곡 그디 강 참 벌영 용돈 사난 무신 큰 부젠 아니라도 생활에 경 어려운 건 몰르게 살앗주게. 이 시국 나 부난 케와 부난 헛주. 경헤연 헐 때에 아까 그 일본사름 신은 걸 봐 난 생이라.

@1 응.

겨난 그 낭 행 왕 두 개에 깨영 발 멘들곡 끈 들곡 헤영 어머니영 ㄱ찌 폴레 땡겨주.

@1 음. 아까 조리는 게다영 흐끔 다릅니까? 생긴 건 비슷하지 안헤?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리는.

@1 초신.

산도찝, 나룩찝으로 만든 거고.

@1 아.

게다는 낭으로 만든 거고.

@1 낭으로 만든 거고. 음, 그 만든 모양은 흐끔 비슷헨디 재료가 틀리구나예.

응. 재료가 틀리주.

@1 겨난 조리는 옛날에도 이서난 거?

응.

@1 일본 사름들 오기 전에도.

모자

@1 모자는 무신거 썩 땡겨났수과? 옛날에?

모자, 옛날 모자 썩 거 몰르커라.

@1 페랭이.
 # 페랭이 건 무척 잘 만들았어 나가.
 @1 아. 삼촌이 직접 멘들앗수과? 페랭이.
 # 밀을 갈주게, 그때 밀.
 @1 아, 이디 밀 갈아놔구나예.
 # 밀, 보리, 것보리, 살보리 갈게 뉘든 그 밀집이 질겨.
 @1 응.
 # 겨난 밀집을 그 소독을 막작 우이 마지막 거 허든 길어.
 @1 응.
 # 그거 짤랑 처음은 혼불로 헤 가단 영 헤 보난 쫄라 낭 선별을 헤여, 그거를.
 @1 아.
 # 그 또래로만 큰 건 큰 거, 중에 건 중에 거, 작은 건 작은 거 헤영. 그걸 헤영 멧 개로 짜느냐 허든 그 밀집을 일곱 개라야 뉘어.
 @1 아, 경 하영?
 # 응. 일곱 개든 그걸 요디 영 쫄라 무경 어뎡 행 시작 행 짜게 뉘든.
 @1 응.
 # 큰 건 큰 것대로 짜꼭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짜게 헤영 그 밀집모저를 침 기가 맥히게 짜 젓주.
 @1 아.
 # 남잔 나까오리로 헤영 만들앙 다 아부지도 씨꼭.
 @1 오.
 # 또 기냥 보통 밀집으로 헤도, 기가 맥히꼭.
 @1 응, 그건 이 우에부터 멘듭니까? 아니든 요 태양?
 # 우에부터, 우에부터.
 @1 우에부터. 우에 톱글랑헌 거부터 먼저 멘들아?
 # 응.
 @1 그거 톱글랑 헌거 뉘엔 곤는 말 이수과?
 # 망, 페랭이 망.
 @1 페랭이 망?
 # 응, 페랭이 망.
 @1 망은 요 우에 것만이짜? 요기 요기까지 망 아니?
 # 건 전, 페랭이 전이고게.
 @1 어느 게 전? 아 이게 망, 이게 천?
 # 응.
 @1 그럼 여기 여기 태양은?
 # 전.
 @1 아, 이게 전. 요 우에 건 망.
 # 망.

@1 망 중에 이 우이 꼭대기는? 엇어?
건 그냥 망이라고만 허난.
@1 그것 자체가 망이구나예. 응. 그든 그 망에 젤 우에 처음에 퐁글랑허게 먼저 만들고, 그다음엔 차차차차.
거 꼭지로 허영이 흐쓸 늦춰가명 요레 조여가명 허영 헤가명 납지락허게 츠츠츠츠 돌려 노명 헤가든 그 모절 침 기가 맥히게 멘들앗저.
@1 음. 그 모저 무신거엔 곱습니까?
그 밀찝모자.
@1 밀찝모자. 하하하.
건 밀찝모자.
@1 건 이젯말이고, 옛날 말은?
게메 옛날 말 밀찝, 페렝이.
@1 밀낭페렝이?
응, 밀낭페렝이.
@1 아. 보리낭페렝이도 만들어?
보리낭페렝이, 보리낭으로 허당 그 밀찝이 좋아.
@1 음, 더 질겨예.
질기고.
@1 음. 샷갓도 헤? 샷갓도 만들어? 샷갓.
아이, 만들진 안허고 써 봤어.
@1 아, 쓰긴 헤신디 만들어보진 안헨?
응. 샷갓은 저 멘촌, 도련드레가 잘 멘들주.
@1 아. 멘촌에서 멘든 거 장에 강 사오는 거구나예. 겨울에는? 여름엔 그거 쓰꼭 겨울엔 무신거 써?
겨울엔 모저가 베랑 엇엇주. 그것도 일본 사름 폰 받 허여실 거라. 쓰강이엔 헤영.
@1 무신거엔 헨?
쓰깁.
@1 쓰깁?
응, 쓰깁 모저렌 헝 이거 이 넓이를 요만큼 길게 허는 거라.
@1 응.
일자로 곧작허게 길게 만들앙 그걸 트로 막 만들어, 만들어 낵 그걸 두 개에 꼬부리는 거라.
@1 응.
꼬부리든 이만헝 거 아니?
@1 예.
겨난 머리 들어가는 디 요만큼은 일로 주워.
@1 응.
주문 일로 영 들르든 이디 모자라. 이건 또 이 목으로 영 더꺼정 듯아.

@1 아.
 # 것베낀 몰라.
 @1 아, 그건 무신걸로, 무신 천으로 멘듭니까?
 # 건 아무 천이라도.
 @1 아.
 # 두껍 행 듯입도 듯주.
 @1 아, 계난 요기 영 요기까지 더껴집니까?
 # 응, 이 독지 더껴지곡 이 목도 막아지곡. 이 앞만 터정.
 @1 어.
 # 겨난 그거 뵈단 얘기 나난 모절 만들고 특받이.
 @1 응.
 # 늘치름 허는 거, 아 그런 걸 잘 허여져, 허구정만.
 @1 하하하.
 # 겨난 그 특받이도 이쁘게.
 @1 응.
 # 모저도 또 이제 이디 더껴지게 헤 뵈 모저만 영 헤영 저 오리털 잇잖아.
 @1 예.
 # 아, 토끼털.
 @1 토끼털.
 # 그거 헤영 이레 헤영 허믄 그렇게 고와.
 @1 하하하. 애긴 좋겿다. 삼춘네 아들, 딸은 예쁜 옷 입고 다녔겿네.
 # 이발도 보기 싫게 아녜주게.

경험담

@1 삼춘은 그 옷 만드는 일 옛날에 해난 거가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앗던 거 님아마 씨? 이녁냥으로 헤지니까예.
 # 아, 무시거 좋고 굿은 거 생각 엇어. 그런 거.
 @1 하하하.
 # 계속 영업으로 헤시믄이, 어떤 물건이 잘 나가난 요걸 헤사 돈도 더 받곡 더 팔려질 건가 허주마는 그자 오로지 나 입을 거 허곡 동네서 허믄 이거 헤주라게 허믄 나 이쁘게 못 험니다. 아이구, 좋다게. 좋다게. 경 헤영 허곡 험뿐이주, 무신.
 @1 음. 그거 만들.
 # 겐디 요눔이 손이 즈엽이 세어 노난 그걸 현 겨주.
 @1 즈엽이 뭐파? 즈엽이?
 # 게 이 복잡헌 걸 문직구정 허난게.
 @1 하하하. 그게 즈엽이파?
 # 아이, 손매주, 손매.
 @1 아, 손매. 손재주가 좋아 가지고예.

뭐 곱게 만드는 거 늙어도 이젠 무신 꼴만 좋아해지곡.
 @1 아.
 # 안집이라노난 이젠 도로변에 뭘 젊을 때는 도로변에 집 짓엉 시원히 보곡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오든 물도 주곡 밥도 주곡 그땐 커핀 엇인 때난.
 @1 예.
 # 경허멍 살아시든 험디 그계 경 안 뉘어.
 @1 안에 집이 옛날엔 더 좋은 집이라낫수계. 아니라?
 # 아니, 초상 살아난 터에 집 지엉 험디.
 @1 거난.
 # 그거를 싫어, 나가 믱음으론. 도로벤에 짓엉계 영 가당도 들어오곡 친구랑 넘어가는 사람이랑 오든.
 @1 응.
 # 믱음으론 물도 주곡 밥도 주곡.
 @1 하고 싶엇는데.
 # 응. 그렇게 허멍 살고 싶엇는데 그것이 안 뉘어.
 @1 응.
 # 우리 아버지네 할아버님네 어린 때 살 때는 빙신.
 @1 응?
 # 빙신.
 @1 그계 뭐라?
 # 지금 장애인 잇잖아.
 @1 아. 예, 예.
 # 그런 사람 뵙 웃지 말곡.
 @1 응.
 # 동녕바치, 거지.
 @1 예.
 # 그런 사람 오든 꼭 밥 주곡.
 @1 응.
 # 그때에 나 익은 때, 나 익은 때 알아지는 것만 조천물을 두 번을 먹어낫어.
 @1 응?
 # 물. 물.
 @1 미신 물?
 # 먹는 물. 막 ㄱ물앙 이 에염에도 물 뵙따 불언계.
 @1 아, 그디 물 질레 그디까지 가난?
 # 조천 물 질어단.
 @1 아.
 # 나 아인 때 경 행 흐 번 질어당 먹어난 거 알아지고.
 @1 응.

결혼혜연 산 후제 엇언 조천물 질어단 흔 번 먹어나곡 헛어.

@1 응.

경헌디도 우리 아버진 헌 말은 꼭 물도 주곡.

@1 응.

우선 밥도 줘야주마는 밥은 못 줘도 물은 조천 강 질어온 물이라도 꼭 주렌 허멍 해도.

@1 응.

경해도 애기들 잘 안 뉘언.

@1 하하하. 이만이만 허믄 말주.

복 받을 말이라게.

@1 복 받아실 겨우다게. 이만이만 허믄 말주.

못 받안.

@1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네가이 므음썸가 경 중앙.

@1 응, 거난 삼춘 건강하게 영 살암수게.

물이라도 시청 먹젠 허곡 늬이 거 밧디 간 오단에 나가 수박을 논디 수박을 먹구정 헤
렌 우리 아버지가.

@1 응.

혜연 수박을 타레 간 보난 수박이 자랑자랑 다 은 한창 은 상텐디 수박을 하나 못생긴
거 못난이 거랑 타 먹영 먹주젠 혜연 가난 못난이가 엇이난 아까왕 그냥 오로렌 헌 거라.

@1 응.

그 말을 날라 곤는 거 아니?

@1 응.

아, 경해도 발른 거라도 하나 탕 먹영 오카 부덴 헌디.

@1 응.

여름에, 여름에 이제 수박 먹지 안 험서게. 이젠 먹는디 그 수박이 아시 어려왕 우리
아버지는 농사 많이 허주게. 해도 그뎨 밧이 멀어사신디 아니사 심은 때산디 건 몰르는디
수박 먹젠 가난 아까왕 못 탄 먹영 왓저 헌 거라. 게 경해도 하나 타 먹영 오카 부덴 헌디.

@1 하하하.

시월 나난 돌아가신 거 아니?

@1 응.

못이 박혀, 막이. 못이 박혀.

@1 응.

저고리

@1 이 옷은 언제 멘든 거마씨?

멧 년 뉘주, 것도.

@1 이거 무신 천이파? 이거?

응?

@1 천은 무신 천?
베, 베.
@1 이거 베. 어디 시난?
중국베, 중국베 다.
@1 중국베 산?
중국서 이디 온 거.
@1 이거 삼춘 만들 때, 이거 염색은 무신걸로 해수과?
감색. 염색 현 거 산.
@1 감색 염색된 천을 산 거?
염색현 천을 산 현 거. 그때가 이 색이 막 유행할 때랏주. 감옷덜 유행 될 때.
@1 갱 들마긴 삼춘이 만든 거?
경헨 천 산 그냥 나냥으로 현 거.
@1 들메기도 삼춘이 만든 거냐고?
응.
@1 요기 요거는 무사 영 네모나게 행 만든 거?
짓도 뿐 나게 늠덜 경허난 뵈, 짓도.
@1 요기 경해도 영 허리도 낫저.
응.
@1 허리라인 들어가게.
멋지게 경 좁은 거주.
@1 요디 영 솔기도.
흐살 들어간 펜이주, 살짝.
@1 흐폼 여유 엇이 딱 맞게 헛저예.
경혜사 허는 옷이주.
@1 이렇게 뒤어 잇는 데 솔기를 감춰지는 이렇게 막는 짓도 잇잖아예?
@2 깨끼바느질.
헐 수 잇어.
@1 그건 뭤엔 곶아?
동고실인가?
@1 동고실. 아 이런 거 이렇게 뒤게. 바위 밖에 안 나오게.
이거 보통 영 허는 건디 저저 만든 후제 품이 늦엇어, 늦언. 계난 좁안 쥐 부난 거 제 대로 안 뒤 거지. 꺫사 실밥이 나온 거.
@1 어떻게 헛다고?
품이 늦언, 입으난. 늦이난 만든 후제 이걸 이렇게 좁아 가지고 주엇어. 쥐 뒤 찢라 분 거라. 경허난 영 뒤 거. 경 아니민 요렇게 뒤 건디. 이렇게 뒤단 건디 허리가 늦언 헐락허난.
@1 늦인 건 헐락현 거?
응. 품이 큰 거주게.

‘난닝구’

@1 이것도 삼춘이 만든 거?

이거 이거 다 멘든 거주게. 어깨마리랑.

@1 어깨마린 어느 거?

난닝구, 난닝구.

@1 어느 게 어깨마리파?

이것도 기, 이것도 기. 이걸 이 옷에 입젠 하얀 걸로 허고.

@1 이게 어깨마리?

난닝구.

@1 이거 난닝구, 어깨마리?

난닝구, 난닝구.

@1 속에 입으는 거?

거 입어사 이거 입을 거주게.

@1 이거 난닝구는 일부러 요기 요렇게 여러 개 헌 건 아니지예?

일부러는 헌 거는 아니고 천에 맞게 주름 헐 여우 나는 냥 헤 부난 경헌 거.

@1 천 부족해서 그냥.

요게 존 거. 요게. 요건 요거에 맞춘 흰 거 입젠 헌 거.

@2 안에 입고, 곁에 입고.

@1 야이가 세트.

그게 제라헌 거주. 야이영 가이영 흰 걸로 입젠 허고 이걸 만들단 천 남으른 나 시원 하게 입젠 헌 거고.

@1 그걸 그냥 난닝구엔 곁읍니까?

응, 난닝구게.

@1 이것도 베짜?

베, 줌진 베.

@1 요 에리는 안 허는 건디, 약간.

허는 건디도 나가 헐 줄을 몰란 제대로 허지 못한 거.

@2 경해도 잘헤신게마씨.

@1 요즘 식이네, 신식이네. 이걸 만든 지 얼마나 뻬수과?

일고으담 해 뻬주.

@1 일고으담 해씩이나 뻬수과?

응. 더 뻬주, 더.

@2 어깨마리 얇으난 이게.

짓바데.

@1 이게 짓바데. 이거 얇으니까 짓바데까지 다 헛구나예.

응, 무너지카 부덴.

@1 이거 막 공들영 멘든 건게.

나 기술론 공들연 헌 거주.

바지

@1 바지는 엷수과? 바지.

바지 이거, 바지는 벨로. 고무줄 바지.

@1 경해도 바지도 하나 짚어 보게.

어디 땡기지 못허난 시장에도 이거 입영 가름이 아이고, 할머니 시원헌 거 입엇저, 시원헌 거 입엇저. 병원에 가도 경허고. 곱진 안해도 시원헤, 이게. 경허곡 풀허곡 이거 빨앙이 풀허곡 다리곡 허기로 아무나 이거 다 입구정해도 입질 못헤.

@1 이거는 언제 멘든 거과? 몇 년이나 입엇수과?

갓도 댓 해 뵈주.

@1 이것도 천 사당 따로 만든 거.

응. 천 사당 낱 만든 거.

@1 이걸 사폭은 안 허고 그냥 현 거네예. 상복 이런 거 안 하고예.

아니라, 네 폭이라. 네 폭.

@1 큰셋복, 작은셋복 이런 거 안 허고예.

아니, 건 엷어.

@1 경해도 밑엔 요거 뵈 헛수다.

족으난 거 밋이주게, 밋. 나가 히프가 커 부난.

@1 일부러 부친 거.

응. 일부러 부찐 거. 막 굿언 그거 부찌젠 허난.

@2 경헤시쿠다게. 젤 어려운 부분에.

@1 주머니도 돌아신게.

주머니 셔사주게. 하나라도.

@1 하나, 이쪽만 돌아신게.

하나만 헛주게. 허기 굿언, 복잡허난.

@1 경해도 엉덩이에도 부찌신게.

이거 입어나믄이.

@1 이거 무시 부천?

아니, 아니. 팬티가 입으면은 보여, 보여. 영 앞이 사믄 흰허게 보여. 게난 긴 팬티 히치브 입은 거 대신 입젠 부찐 거.

@1 안에 비치지 않게, 보이지 않게.

뵈 입은 거 가트주게. 경허민.

@1 엉덩이쪽만.

속에 속웃 입엇네. 게난 팬티만 입영 이거 입어도 뵈어.

@1 거난, 안 보이게.

@2 이거 패턴 없이 만드는 거지예, 종이로 영, 본.

아니, 아니. 짐작으로. 문딱 기자 눈짐작으로 그자 짐작으로 현 거.

@1 본 이신 거 아니고예.

이 품 크고 족은 거만 맞추멍 헛주. 문딱 기자 짐작으로 현 거.

@1 이런 옷은 이름 뭐엔 걸옵니까?

뭐 그자 모시 저고리 모시 바지 헨 입었주. 에리가 잇고 주머니 이서시민 마이식으로 뒤킨 헨 건디 이건 마이도 아니고 저고리도 아니고 그자.

@1 에리 엇인 게 유행이라니까 삼춘.

이 에리를 못 만드난 이걸 헨 거주게. 겐디 이것도 어려와. 발르게 하지 못헿 이것도이.

'머리싱'

@2 이거 머리카락 아니예?

머리 이거 머리싱이라 그계. 머리 그거 이 속에 낵 올렸어. 머리 옛날. 경혈 때에 이거 허여논 건디 바농 녹실지 안허난 이걸로 해분 거주.

@1 원래 뭐는 아니고. 바농줄렌 아니고.

머리싱인디, 머리니까. 머리 올리는 머리싱인디 경헿 만든 건디 머리털 바농이 녹실지 안허난 거 헿 거. 이 실덜게 막 손지 한복허명 문.

@2 이진 다 현대 건계. 이거 누구 머리꽈?

나 머리. 이 가운디 영 올렷 머리 이렇게 올리민 이빠. 중간에 그런 거 막 유행 뒤킬어.

재봉틀

@1 삼춘 미싱은 얼마나 뒤킨 거?

흔 삼십 년 뒤킨 거라. 중고 우리 육춘 동세가 쥘. 빌어온 거.

@1 원래는 이 미싱 아니고 다른 거 썻지예?

원래 미싱 엇이 살안 손바농질만 헿어. 손바농질만 허단 저거 사난 이런 거 만들앗주. 아기 옷덜 동생 옷덜 문딱 손으로 손바농질로. 신부 옷덜도 문딱 손으로.

@1 이젠 호상옷도 다 미싱으로 하던데.

게 미싱 엇이난계. 나가 미싱 못 산.

9.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조사 일시: 2021년 6월 11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 김보향
- 제보자: # 양은순

- 조사 일시: 2021년 6월 11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 김보향
- 제보자: # 양은순

제보자 정보

@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수파?

양은순

@ 몇 년생마썸?

삼십사 년생.

@ 삼십스 년생?

으.

@ 쟁 죽장 여기서, 여기서 자라신 거파?

응. 나 일 구에서 나고.

@ 으.

일 구에서 일 보고 행 요짜 집이 살당 그 집은 막 묵은 집이난 내베될 이거이 우리 밧 이주게. 이디 집 짓언에 살명 허당 우리 집이 아저썸 두 해만이 돌아가셔 부난 돌아가시건 디가 한 이십 년 거의 똬어.

@ 아, 여기 이사온 지 두 해만에 돌아가셴?

으, 거난 원래 집은 바로 옆이라난.

@ 여기가 함덕 일구?

일구. 응 여기가 일구. 함덕 서일길 이십삼 번.

@ 예, 하하하. 기억력 잘도 좋으시큰게.

아니, 계난 그런 건 다 곁을 수 잇어.

@ 계난 아저씨도, 남자 삼춘도 여기 ㄱ튼 동네 벗이라수파?

남자는이, 우리 아저씨는이 저 곱은다리엔 현 디 저 산간.

@ 으, 알쿠다.

거기 살당 거 사삼사건에 불캉 내려오난 우리 친정 집이가 저 성창가에라났주게이.

@ 으.

그 성창가 즈꿏디 왕 살앗어.

@ 으.

왕 일 년쯤 사나마나 난 얼굴도 몰랐어.

@ 으.

스물에 나가 시집오난. 경헌디 우리 아버지는 그 스삼사건에 남자털 다 죽어 부난 새 시방 구허영 뜰 못 보카 부덴 아무 데라도 풀아분 거라.

@ 하하하.

계난 이제 ㄱ트면 흙치 살지 안헛주게. 이제 ㄱ트면 흙치 살지 안허영 도망갓주. 경헌 디 이제 스무 설이라노난 아무 분시 물론 때난에.

@ 어.

시집인 왕 열흘 처낙, 열흘 처낙 친정에 살민 흐를 처낙은 시집에 왕 자근에 물 질어 놓고 무시거 헤 똥. 그때 물 질어 놀 때난. 물 질어 놓고 헤 똥 기냥 강 또 집이 강 열흘 을 살아.

@ 시집와신디.

시집와신디

@ 친정 강 살았어?

으, 친정에 강 살아.

@ 무사?

시집이 살구정을 안 허여.

@ 아.

집이 왕 보면 하도 그냥 집이 더러웁곡 그 옛날 집 막 헐튼어진 집 산 완에 우리 시어 머니 시아버지가 그 산에서 불칸 내려오난게 경헌 집베끼 더 빌어질 것가게. 경허난 경헌디 완 사난게 막 살고 싶지 안헤근에 친정에 강 살민 게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진 가지 안 험텐 소릴 절대 안 허여.

@ 으.

시집이 가지 안험텐 소릴 절대 안 허여. 여름엔 모기 막 파씩파씩 여기 오면 물고이. 그땐 모기장들도 엇일 때난.

@ 으.

우리 어머니는 제국시대에 군인 저 모실포 군 주둔혈 때난 그 해방똥난에 그기 강 장 서를, 그 군인 쓰단 것들을 상 와근에 이디 왕 풀았어.

@ 으.

걸영 강, 우리 큰언니허곡. 갱 걸영가근에 그거 상 오랑 풀명 현에 허난 모기장을 구 들 하나에 하나씩 다. 우리 집인 그런 거 다 허주게. 경허민 모기 하나 물리질 안허주게.

@ 음, 삼춘넌 막 잘 살아났구나?

응. 우리 친정엔 막 잘 살고.

@ 잘 살고예.

우리 아버진 막 육지 장사만 땡기명 하간 거 허난 잘 살았주게. 게고 너넌 잘 몰르 거 여만은 양정규 국회의원 알아지냐?

@ 예, 예.

알아져?

@ 알아집니다.

육 회꺼지 헤신디.

@ 예, 예.

그거이 우리 사촌오빠라.

@ 아, 기라. 하하하. 쟁 삼촌 학교는 헛디가?
 # 초등학교만 헛주게.
 @ 초등학교.
 # 그 중학교 들어가젠 허난 그때 우리 셋오빠가 사삼사건에 심언 죽여 붙었지. 우리 작
 은오빠 학생인디 군대 심으난 군대 보냈지. 헤 부난 차마이 나가 중학교 강 허쿠덴 말을
 못 헛어. 경 안 헤시든 헛주, 나도. 경헌.
 @ 삼촌 연령이 국민학교 현 디도 드물주마썸.
 # 으.
 @ 여잔 안 보냈지.
 # 잘 엇어.
 @ 잘 엇어예.
 # 잘 엇어. 우리 동네도 여자 두 갠가 세 갠가베끼 엇어.
 @ 맞아, 맞아.
 # 경헌 난 참 잘 살안 허곡 현디 우리 아버지가 경 스나이 구허지 못허카 부덴 경 아무
 디라도 풀안 헤부난. 일본만 돌아나젠 막 헛주게. 우리 오빠 일본 간 살고텔 허난.
 @ 아.
 # 경헌 일본만 돌아나블젠 헤도 어떻 허단 보단 그 얘기 하나 생기난이 그 얘기 하나 나
 난 따시 두 번째 두 설 문이로 따시 얘기를 또 가진 거라. 계난 이것들 내버텨 어떻헨 가
 넌 못허크라라.
 @ 얘기 생겨 부난?
 # 으, 얘기텔 잇어 부난.
 @ 얘기가 멧 개파?
 # 아텔 세 개, 딸 하나.
 @ 아.
 # 계난 이제 큰아텔이 예순으텡이주게.
 @ 아.
 # 셋아텔은 예순으섯이고. 딸은 예순넷이고 이제 막둥이 죽은아텔이 신하나.
 @ 삼촌 머리 막 좋으켜. 그거 다 기억헿 이신 거 보난예. 겐 죽장 여기만 살고 어디 다
 른 디 강 살아보지 안헿예.
 # 안 살아.
 @ 부모님, 삼촌네 어무니 아버지도 죽장 함덕서 살앗수파?
 # 으, 거기서 살당 그냥 돌아가섯주.
 @ 삼촌 영 바농질허는 것들은 언제서부터 바농질허는 일들을 헛수파?
 # 어린 때부터이 어무니가 그 바농질을 허난 그거 허는 거 보명이 초등학교 멧길 때 요
 만인 허게시리 나가 저고릴 만들어이.
 @ 그거는 장난으로 만든 거?
 # 장난으로 만든 거. 새각시 옷이엔 허영 색동으로 헿, 우리 어무니가 색동으로 헿 나 저
 고릴 입히주게.

@ 으.
 # 경험 허난 그걸 보멍 저고릴 행 만들안 낫단 나 시집가사 걸 던져 불었어.
 @ 하하하. 그거 어릴 때 만든 거?
 # 으, 어릴 때.
 @ 손으로 영?
 # 으, 다 손으로. 겨고 우리 어머니가이 미싱도 그뻐 엇인 때난 우리 어머니 손으로만 그 바농질을 경 허더라고.
 @ 아.
 # 쪼끔이라도 허단 이 앞섭이 틀어지나 어떻 허민이 그걸 틀어근에 새로 고짜야 헤여.
 @ 으.
 # 실밥 하나라도 틀어지민 안 뉘덴 허주, 우리 어무닌.
 @ 그럼 어무니는, 삼춘네 어무니는 그렇게 옷을 손으로 다 만들멍 식구들 거 다 만들었어?
 # 식구들 거만 만들었어게. 호상도 다 허곡 새각시 새서방 옷 다 허고.
 @ 아, 기마씨? 계민 바농와치라신게?
 # 으.
 @ 계민 동네에서.
 # 으 호상, 옛날은이 육십 뉘어가민 날 봐근에게, 좋은 날 봐근에게 이젠 우리 호상 허쿠 덴 우리 집이 왕 옷 몰라줍서 허민 강 문딱 몰라쥬근에 그거 다 허고 경헤났주.
 @ 계난 어무니 농사는 안 헛수파?
 # 무사 농사도 허고.
 @ 농사도 허고, 그것도 허고?
 # 으. 계곡 새각시, 이제 거트민 미용사주. 새각시 머리 허레 강 그 경헤근에 다 방패머 리 헤근에 새각시. 그때는 방패머리 허멍 새각시도 보내났어.
 @ 음. 그걸 방패머리렌 굴암수다예, 삼춘은예.
 # 방패머리엔 헤났주, 옛날.
 @ 뜯머리 한 거예?
 # 으, 으 이디 영 머리 다운 걸로 빙허게 돌아가멍 이만이허게시리 현 거. 그것이 우리 어무니 허단 내중에라가난 흐뵂 신식 뉘난 이젠 이디 낭저, 큰 비네 영 쫓아근에 크게 이 만이 낭저 헤근에.
 @ 계난 삼춘도 시집갈 때 그런 머리 행 갖수파?
 # 아니.
 @ 삼춘은 어떤 머리 행 간?
 # 그냥, 그냥 그냥 낭저 머리. 낭저 머리라도 그런 큰 머린 안 허연.
 @ 자기 머리로만?
 # 자기 머리로만은 안 허고 나 머린 족아 부난.
 @ 으.
 # 족아 부난 머리 그 들레머리 헤단.
 @ 계난 방패머리랑 들레머리는 트난 거라예?

으.

@ 계민 방패머린 막 크게 허는 거?

으.

@ 그걸 방패머리렌 허고.

들레머리는이 그 방패머리 만드는 거.

@ 으.

다와근에 크게시리 만드는 거. 그것이 방패머리주게.

@ 삼춘 들레머리는 어떻 허는 거?

들레머린 그 낭저로만 멧 개 헤근에게 낭저 그 중간에 허민 낭저 그냥 이디 족은 빈네 헤근에게 요만큼만 행 이레.

@ 계민 낭저 혈 때도, 들레 혈 때는 뜯머리를 갖당 부치는 거지예?

으.

@ 그 낭저를예. 자기 머리만 안 행예.

으.

@ 아, 큰 머리 허는 거랑 영 들레 허는 거랑. 계난 삼춘 결혼혈 때 여기는 치마저고리 입엇수파?

치마저고리 입언. 장옷 입고.

@ 장옷 입고. 거 잇당 또 물어보쿠다. 그 결혼사진이 잇수파?

잇어난디 뭐 어디사 신디 알아지크라?

@ 나중에 삼춘 못 찾으겔랑 아이덜 올 때랑 한 번 앨범 찾아봐 봅서예. 옛날 삼춘 결혼 혈 때 결혼사진이 이신지?

결혼사진 데껴 불진 안 헤져실 거라.

@ 이실 거라. 어딘가 이실 거라. 아드님한테 왓을 때 물어봐 영 찾앙 놔두면 우리 그것 도 사진 찍영 가젠. 나중에라도 또 오쿠다.

계메 ㄱ만 셔 보라 저디.

@ 지금 안 헤도.

안 헤도 뉘어?

@ 지금, 잇당 사진 찍을 때 한번 봐 봅서. 그때랑 보고예. 기민 삼춘이 직접 영 옷을 만 들기 시작한 건 언제 헛수파?

계난 결혼허난. 결혼헤연 시집완에 허난 우리 시어무니가이.

@ 음.

우리 시아바지 옷을 만들렌 허연. 하이고, 이거 나 만들어보지도 안 현디 어떻 허영 좋 코? 겐 어무니신딜 아정 갖어. 아정 가난 어무니가 영 영 행 만들렌 다 베와 주는 거라.

@ 으.

계난 글후제 시아바지 옷도 쪽 허게시리 다 만들안 끼완 내놓고이.

@ 으.

이십 대에.

@ 이십 대에?

으, 이십 대에 다 만들안 끼완 내놓고 풀헤연 다듬안에 경 다 헛주게.
 @ 겐 어무니가 영 영 허렌 허난 금방 만들어집디가?
 # 으. 자꾸 봐나난 헤전게.
 @ 자꾸 봐나난.
 # 거 남저 옷은 더 쉬와. 여저 옷보담.
 @ 삼춘은 영 집이서 입을 거만 현 거? 집의 식구덜 거만?
 # 으.
 @ 늬의 거, 늬의 거 영?
 # 늬의 건 안 허연.
 @ 늬의 거 안 허여. 아이덜 옷도 멘들영 입히고?
 # 으, 아이덜 옷도이 교복도 다 만들명 입혀낫어.
 @ 교복도 만들어집니까?
 # 으, 교복도 만들어낫어. 미녕으로 검은 미녕 행.
 @ 미녕에 물들영?
 # 검은물 들인 거.
 @ 검은 물 들인 거. 그걸로 교복도 직접 만들고. 그 바농질, 옛날에 어무니 바농질행 바농질 삭을 받아난 거 가트짜? 아니?
 # 몰라 그 호상은 행 받아난디사.
 @ 기억허는 건 잊고?
 # 그런 건 잊어난.
 @ 바농질허영, 바농질 일 허영 좋은 거와 나쁜 거가 뭐가 잇수짜?
 # 좋고 나쁜 건 잊어, 그냥 보통인가만 생각했주.
 @ 예.
 # 경 그것이 특별허게 허는 건 증은 몰르고. 그 생각은 안 허고.
 @ 옷 만들명 삼춘 봐난 거라든지 혹시 영 기억나는 게 잇수짜? 그런 거 따로 잊어?
 # 기억나는 거 무시거 경 기억나는 거 잊어?
 @ 잇당 말근당 보민 또 나올 거우다.
 # 으.
 @ 게민예, 우리 옛날예예, 지금은 막 옷덜이 핫잖아예. 옛날에 옷감, 옷궤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어낫수짜?
 # 옛날엔이 여자 옷은이 속곳허고.
 @ 옷 종류?
 # 으, 속곳허고 단속곳이엔 현 건 바지궤추룩 허영이 바지궤추룩 허영, 그건 강알 막아신가 어떻헤신가 잘 몰른디 이디 영 허리로 즐라메고이. 또 바지는이 바지는 안팎 놔.
 @ 으.
 # 안팎 낡 바지 멩글앙 이렇게 포 끼와지게시리 헤, 그 바지를이.
 @ 으.
 # 밑에는이. 경행 끼와지게 행 오즘 놀 때 영 그거 걷어근에게.

@ 영 헤쓰면?
으, 헤쓰면.
@ 가달 쥐 불지 안허게.
으.
@ 터전예?
으, 터진 거. 경헌 거 헤낫주게.
@ 그 바지를 뭐렌 불러났어.
것이 바지.
@ 그게 바지. 계민 안에 속곳 입영 그 바지 입영?
속곳 입영, 단속곳 입어.
@ 단속곳 입어.
단속곳 입영 바지 입어.
@ 우에?
겐 속치메 입고, 치메 입고.
@ 치메 입고, 으. 우이는 뭐 입어?
우인 저고리 입고.
@ 저고리만 입어. 안에?
저고리만 입어. 속적삼 입곡.
@ 속적삼 입고예. 그거 말고 옷감 종류? 옛날 옷 만들젠 허민 옷 기지가 잇잖아예?
으, 나도 저디 감옷 현 거 한 벌 잇저?
@ 아, 감옷. 하하하. 그것도 잇당 사진 찍으쿠다. 예, 예. 우리 멩지도 잇고 미녕도 잇어
나지 안헛수파?
으.
@ 옛날, 옛날 삼춘 어렸을 때예.
으.
@ 멩지 미녕 말고 옷 만들영 입엇던 거 또 이신가?
멩지 말고 옷 만들영 입은 거, 옛날엔 멩지허고 광목, 웨양목.
@ 웨양목.
으, 웨양목을 얇은 거.
@ 웨양목.
웨양목허고이 또시 광목허고 또 것베끼 엇어났어, 멩지허고.
@ 멩지허고?
으.
@ 계민 이 함덕 동네에는 멩지 허젠 영 누에도 질루고 헤신가?
그런 건 안 헤봤저.
@ 그런 건 안 헤낫어예. 계민 멘네, 미녕 허젠 목화, 목화 질루고도 헤나신가?
아니, 이불 목환 이불숨 허젠 목화덜 헤낫주.
@ 이불숨 허젠.

으, 우리도 이불솜 헨 그걸로 시집을 때.
 @ 계민 목화 농사도 해났구나?
 # 으, 목화 농사도 헛주.
 @ 목화 농사 헨 실은 빠지 안헤난?
 # 아니 그런 건 안 헤난.
 @ 그건 안 허고 단지 이불솜 허젠?
 # 으.
 @ 계민 삼춘 어릴 때 목화 질뤄난 거 기억남수파?
 # 으. 목화사계 밧디 갈민 뉘주. 멘네 씨 헤영 갈앙.
 @ 예, 멘네 씨 헨. 언제쯤 멘네 씨를 뿌립니까?
 # 그거이 가을에 뿌려나실 거라. 가을에 뿌령이 봄 나가민 올매가 요만씩 허주게. 요만씩 헨 주렁주렁주렁허게 부떠.
 @ 어.
 # 경허민 그것이 이젠 벳을 맞곡 막 뉘 헤 가민 네 갑, 네 갑으로 벌러정어.
 @ 으.
 # 네 갑으로 벌러정 소게가 밑으로 주랑주랑주랑 나오주게. 계민 그거 툃툃툃툃 툃아 와.
 @ 음.
 # 경헤단 씨, 씨 까는 기계가 잇어어.
 @ 그걸 뉘렌 불러? 기억 나?
 # 것이.
 @ 씨 불러는 물레?
 # 아니.
 @ 그런 거 안 헤?
 # 우리 집이도 잇어, 잇어났주, 우리 친정에도.
 @ 친정에도 잇어난?
 # 으, 그거 우리 아버지가 사완에 육지 장서 텡기난어.
 @ 으.
 # 짓그라.
 @ 아버진 어떤 장서를 헛던 거? 막 이것저것?
 # 으. 벨, 저 큰 배를 허연이 육지에 혼 해에 네 번을 가이. 간 두어 텡씩 살앙 와. 혼 번 가문.
 @ 으.
 # 육지 가근에게, 강원도 가문 멘테.
 @ 으.
 # 멘테, 바당에 강 멘테 잡으는 그거 상, 서울 장에 강, 장에 강 헤영 그걸 폴아. 자꾸 그걸 허멍 또 집이 오젠 허문 그 멘테를 몰라. 배에서 다 몰령, 우리 집이 석 섬 드는 향 이, 굽 터진 향이 잇어났어, 큰 거. 우리 어린 때는 그디 영 손도 들어가지 안허주게. 경헌 향에 왕 하날 낡 놔두민 그덜 무시거.

@ 멩테 들룬 거?

으, 들룬 거. 이제 멘테 들린 거주게.

@ 으.

경헌 거 무시거 발에 어퍼근에 영행 올라강 이제 영 거꾸로 강 안넝, 학교 강 와근에 게 저 검질불에 이렇게 구웁이 흐쉴 그냥 기시림만 허영 덩드렁마께로 이제 덩드렁에 낀 닥닥닥 허게 두드렁 허민 걸 복삭허게 못아질 거 아니? 경허른 장에 찍엉 먹으민이 것베 끼 반찬이 엇어.

@ 아고, 삼춘넝 그런 고급 음식도 먹어났구나게.

그런 것만 먹어나난.

@ 하하하.

그거 허영 떡곡 우리 오빠.

@ 계민 항에 ㄱ득 답아논 건 집이 사름덜 먹젠?

집이 사름만. 경행 이제 그거 다 먹을 정도 뉘민 무신 칠산 바당도 가곡이. 또 무신 어덜 바당도 가고 잇어불언 몰라. 네 번을 텡겨. 경허른 강 올 땐 징어리, 징어리도 올 땐 막 소금에, 건 으름이라. 오 월털에이. 징어리 막 가마니에 담양 소금 막 절여근에 와. 오 민 보리 빌 땐 그 징어리 아정 강 구렌 허민 보릿낭으로 구워질 거라? 경해도 보릿낭으로 어떻행 막 구워. 경해도 막 맛좋아, 징어리가. 경행 맛좋앙 먹고. 어떤 때 가민, 조기왓디 가민 조기 강 경 행 오곡.

@ 음.

막 으라 가지 해여.

@ 그 배 탕 강 그 저기 그걸 나끄는 거 아니면 그걸 상 오는 거?

상 오는 거. 상 왕 ㄱ디 왕 끷는 거.

@ 끷는 거. 계민 상 왕 제주도에서도 풀앗수꽂?

아니, 제주도 아니. 서울서.

@ 풀당, 다른 디서 풀당 우리 먹을 것만 가정 온 거?

으, 경해났주게. 경허고 또 올 때믄이 그디서 쫄도 흐 가마니씩 상 오곡이 이디서 곤 썰 보젠 허른 힘들엇주, 옛날엔. 저 식게 먹으레 가렌 허민 막 곤밥 흐 손가락 얻어 먹젠 막 가났주, 그땐. 경헝 땐디 그런 곤썰 흐 가마니씩 상 오곡 경허명 우리 아바진 막 잘살아 낫어.

@ 아, 삼춘 곤밥도 배블리 먹어시쿠다, 어렸을 때?

아니, 막 배블린 안 먹엇주만은 가끔 먹엇주게.

@ 아.

쟈 육지 강 오민 고기 막 그냥 갈라당. 그땐 제서 때나 멩질 때나 흐끔 흐 점씩 먹어 봤주, 먹어질 때라?

@ 그지.

경허민 오민 이제 고기 다리차로 갈라다근에 숲아근에, 돛베에서, 숲앙 떡곡.

@ 계난 농서는 막 크게 짓지 안헝구나.

농사도 밧이 우린 영 우영팻이라부난이, 요 함덕 들어오는 디 알아지지?

@ 예, 예.

그디 비석 집 잊지이.

@ 예, 예.

비석 집 다음에 집 이신 것이 다 우리 어머니네 밭이라. 그거 다 우리 어머니네 밭인디 이제 스 층짜리도 우리 조케네가 짓고 또 삼 층짜리도 짓곡 저펜작엔 집 두 거리 친 늬신디 풀아불고. 저펜 짝에도 아시네신디 풀아불고. 경헨에 구백 멧 팽산디 현 거고이 그추 룩 현 밭덜만 잊어.

@ 아, 집 즈꿋디예?

으.

@ 가까운 디.

가까운 디. 경허난 농사도 잘 뉘어.

@ 그 농사만 짓고 허난 아버지 나가 불 땀 어무닌 바농질허멍 살았구나.

바농질도 허고 밭디, 밭덧일도 허고.

@ 밭덧일도 허고.

밭디 또 요 신흥 가는 디도 경 큰밭도 문착헌 밭 잊어나고. 요디 서찐머리도 천스백 평짜리 경 큰 밭 잊어나고 췌질도 경 잊어나고 밭이 으라 개 잊어났어.

목화

@ 그 목화 농사는 삼춘 얼마나, 삼춘 시집 보낼 때까지도 목화 농사를 한 거라?

나 시집간 후제도 헛주게.

@ 후제도 현 거예? 다 이불 헐 걸로 현 거라예?

이불 헐 걸로만.

@ 뭐 목화 따레 다니멍 재미난 일 기억나는 거 엇수파?

엇어. 그디 가문 목화 그 아직 익기 전인이 그 열매 깡 먹는 거, 거 맛좋아.

@ 으, 그 드레예?

드레. 그거 막 까멍 떡곡. 멘네씨앗이엔, 멘네씨앗이엔 헤 그.

@ 기계를?

기계를.

@ 씨아를 경 불렀구나.

멘네씨앗이엔 행이, 기계.

@ 멘네씨앗.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헤영 낭 두 갈래 행 영 부찌주게.

@ 예.

영 부찌민 영 돌려가민 이것이 마주 돌아. 계민 요것이 마주 돌민 이레 대민 그 멘넨.

@ 이거 봐지쿠파?

이거주, 이거.

@ 이거주.

이거 허민 요레 대영이. 영 영 영 영 헤가민 뒤터렌 소게 나가고 썬 이 앞더레.

@ 계민 소개 탕 와가지고 이거에 다 씨 볼볼 거예?
다 씨.
@ 이걸 멘네씨아라고 불러?
으, 멘네씨앗이렌 해나실 거라.
@ 삼춘 이거 씨 볼르는 물레라고는 안 헨?
으.
@ 안 헨예. 멘네씨아. 그민 자 멘네 타 왓수다예.
으, 저것이 멘, 숨 만드는 것이 멘네주게.
@ 맞수다. 멘네 탕 왕 집이서 물립니까?
집이서 물려사주게. 벳디 막 물령 팔려사 팔려도 오후에쫘은 불 딱시게 해 낡 그디서
헤사 잘 팔아근에 멘네씨앗이 잘 씨가 벳겨지주게. 겐 돌아정 느시 나가지 아녀.
@ 으, 안 말령은?
으, 안 말령은.
@ 겐 잘 들르민 잘 나가?
으. 툃툃툃툃 털어 텡.
@ 이걸로 씨 볼라난 다음에 그다음에 뉘 할 거?
그다음엔이 집이서 태울, 저 공장엔 그때 채 아니 난 때난. 집이서 활 닳은 거이. 이렇
게 헨 것이 있어났어. 영 놓아근에 이렇게 만들앙이. 줄 이디, 줄 이레 메영.
@ 음.
경헌 것이 있어난디.
@ 요런 건 아니? 이런 거.
그런 거 아니. 계민 그걸로 탁탁탁탁 치믄이 북삭허게 태와져.
@ 아, 태우는 기계?
태우는 것이 잇이난.
@ 네모나게 생겼수과?
아니, 아니.
@ 활ㄱ추룩, 툃 활ㄱ추룩 생겼어.
어. 영헌 건디 영헌 건디 영 낡은 웬작 손에 심곡이 그 실 닳은 걸 태우는 실은 영헨
이시믄 걸로 탁탁탁탁 헤가믄 윈 그 실이 두 곱산디 혼 곱산딘 그건 몰르크라. 탁탁탁탁
태우민.
@ 실로 영 줍아 텡기는 거?
아니 등기질 아녀고 손으로 탁탁탁탁 걸리멍 영 쳐.
@ 예.
경허민 그 숨에 가근에 부닥치민 숨이 탁탁탁탁 때리민 그 숨이 북삭허게 태와져.
@ 일어나? 계난 숨 우리 멘네 타 가지고 씨 볼르는 요 영 영경 잇잖아예. 이 태우민 야
이를 사이에 공기를 넣으멍 영 부풀게 히잖아예? 그걸 태운텐 허는 거예?
으, 으.
@ 아, 실로 헨 탁탁탁탁 허멍 영 부풀어나.

경헤낫저.
 @ 아, 예.
 # 경도 허고 대막뎡이 이젠 영 행 혼 서너 곱에 깨영이 그 대막뎡이 탁탁탁탁 때려가민 또 경.
 @ 솜이 이저민 이거 이신 걸로 탁탁탁탁 때려 가민 부풀어 올라?
 # 으, 부풀어 올라. 경허민 요거튼 건 맞춰근에 만들고.
 @ 아, 게민 태우는 게 기계 나기 전이는 다 집이서 경헤낫구나.
 # 경헤낫주게.
 @ 영 영 영 영 태우명 요 크기만큼 네모나게 만들어?
 # 으.
 @ 이불도?
 # 이불 크기만큼 만들고.
 @ 그거 알게 이렇게 폐와 가지고 네모나게 만들 거 아니?
 # 으. 거 영행 저 얇게 태와근에 쪽 허게 폐와. 밑에 저 초석 깔앙이.
 @ 초석 깔앙.
 # 초석 깔앙.
 @ 영 놓고, 영 폐우고.
 # 으, 태왕 쪽 허게 폐와근에 초석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 들앙 허민 납작힐 거 아니?
 @ 예, 예.
 # 경허민 그걸로 이불 만들앗주.
 @ 이불 만들 때는 그거 한 장 놓고?
 # 으.
 @ 우이 또 놓고 또 놓고 행 두겹게 힐 때는 막 많이 놓고?
 # 으.
 @ 경행 이불 뒤는 거?
 # 경허는 거.
 @ 태우는 게 경행 납작허게 펼치는 걸 태우는 거렌 힐 거라예.
 # 태우는 거.
 @ 게민 이불 만드는 거 어렵지 안허다예?
 # 어렵지 아녀.
 @ 예, 예. 경행 이 솜을 다 낫수다예. 솜 이렇게 다 행 이게, 이게 요라.
 # 으.
 @ 그민 여기에 뭐 씩워야 될 거 아니?
 # 으.
 @ 뭐 씩웁니까? 속 껍질 씩워 얇으게?
 # 으, 얇으게 이젠 무신 그뎡 시라목이엔 행 그런 거 행 씩와.
 @ 씩와.
 # 겐 요 만들어.

@ 요 만들어. 경 우에는 다시 뭐 요 포, 이불포 만들고?
 # 이불포가 아니고 그냥 요, 요 꺼적히고 안 허고. 겨민 웨묵으론 안 허고 우인 요판은 무신.

@ 예쁘게 행.
 # 예쁜 무신 명주나 경 안 허민 비단이나.

@ 비단이나. 아, 예. 삼춘 시집갈 때도 경행 이불을 만들어 줍디가?
 # 어떻사 헤신디 그걸 몰라도 그땐 솜 태우는 공장이 나나신가 어떻헤신가 몰르켜.

@ 겐 이불 몇 채나 행 시집갓수과, 삼춘?
 # 그땐 흔 차씩 행 갈 때.

@ 흔 차씩.
 # 요도 하나 이불도 하나 경헐 땀디 우리 어머니은 이불 두 차허고이 요 흔 차허고이 이불을 세 차 만들앗어. 얇은 이불, 봄 나민 더플 거꺼지 행 세 차 만들고 또 깔레이불, 이제 도 나신디 이신가? 아니 그건 다 끈어지고 탄 거로구나.

@ 깔레이불.
 # 깔레이불 멩지로이 누변에이, 누비는 사름신디 강 누벼단 만들안.

@ 그거 잇어?
 # 엇어, 그건. 다 끈어졌주게.

@ 다 끈어전.
 # 그추룩 헤영 만들안 이젠 시집은 가젠 허난 난 어머니신디 아버지신디, 우리 아바진 성질이 급헤 노난 무시거엔 허민 화들짝 용심 나주. 계난 어무니신디 나 시집 안 가쿠다, 나 시집 안 가쿠다. 나 시집 절대 안 갈 거난 알앙 험서양, 알앙 험서양. 궤기 먹고정 허건 통세 도세기라도 잡앙 떡주, 나 시집 보녕 도세기 잡앙 떡젠 험젠 막 그추룩 행 어떻신디 허난에.

@ 하하하.
 # 갓당이라도 오라, 갓당이라도 오라.

@ 어무니가 경 얘기허멘?
 # 으, 경허영 막. 경헐 이젠 시집가젠 허난 이불도 흔 차만 놓서양 무시거도 하나만 놓서예, 요도 하나만 놓서예 경허명 헐에 이불 두 차허고 요 하나허고 베게 두 개 낫어. 계난 이불 흔 차도 아니 놓고 깔레이불도 아니 놓고, 사 와도.

@ 으.
 # 겐 아니 낫에 헐 시집은 완 막 오랜 후제사 그 이불도 또 간 가정 완.

@ 하하하.
 # 깔레이불도 가져 오고.

@ 아. 경헤낫구나. 혼수는 그것만 헐 가난? 더 안 헐? 이불만 헐?
 # 으.

@ 예.
 # 이불만 헐주게. 그 시절에 무신, 이불 흔 채, 요 흔 채 헤도 거 잘헐주.

@ 그럼 이 함덕리 동네에서 삼춘네는 목화 영 농사 지어나신디 다른 집덜도 목화는 하

영 헤수과?

으, 목화 하영 헛주.

@ 하영 헤난. 으, 으. 게난 옷 허는 디는 엇고 거의 다 이불 허젠 현 거구나?

으, 이불 허젠 헛주, 실 허는 디, 실 빠는 딘 엇어났어.

@ 실 빠는 딘 엇어났어예. 혹시 삼, 함덕에 삼베, 삼?

삼베 그런 베 허는 디도 엇고.

@ 엇고예. 모시 허는 거?

모시 허는 것도 엇고.

남자 옷

@ 엇고예. 게민 우리 아까, 옷 만드는 거는 미녕이나 멩지나 잇어났고 우리 옷 종류 남자 옷서부터 곱아보게마씨. 남자 팽상시에, 아버지 입어난 거 한번 생각해 봅서예.

으.

@ 뭘 입어났수과, 아버지가?

우리 아바진 하도 우리 어무니가 바농질 잘 헤 부난 잘 출려났주게.

@ 으.

저, 겨울에는이 뽀시기 무신거.

@ 으.

무시거엔 허느니, 것ㄴ라. 웨양목.

@ 으.

웨양목으로 영 바지 행 입곡.

@ 으.

또 솜 낱 멩지 바지 현 거.

@ 으, 웨양목?

으, 즈진즈진현 웨양목이. 그런 걸로 바지행 입곡 또 겨울은 나민 멩지 바지. 멩지에 솜 낱.

@ 으.

솜 놓고 이젠 저고리도 솜 놓고 행 멩지 저고리 행. 경행 입곡, 여름에는 모시, 모시헤 근에게 속에도 요만이 오는 반스 말고 요만이 오는 저 무시거.

@ 속곳? 남자?

남자. 시찌부 바지.

@ 시찌부 바지. 옛날엔 살마다엔 곱앗수과?

으, 살마다엔. 게난 그거 헤근에게 질게시리 요만이 오게시리. 게민 그 모신 흰헤게 바레지게 헛어. 그거 입으면 바레지질 안허여. 게민 그거 행 입곡 헤영 성장에 아척 새백인 사름이 쪽 허게 나라비허영 남자덜 막 왕 앓앙 놀아.

@ 으.

아척 일찌거니, 조반 먹기 전이.

@ 성창이 어디과?

으?

@ 성창이 어디파?

성창 배, 배 메는 앞이.

@ 예, 예. 선착장, 성창. 예예. 배 메는 디?

배 메는 앞에. 겐 그디 높은 담 울타리 행 집 이시난 그 뒤깁에덜 오랑 다 앓주게. 경허민 우리 아바진 모시옷 헤영케 입곡 흰 나까오리 씨고 흰 구두 신곡 경행 그디 강 앓아.

@ 으, 멋쟁이구나.

경허민 이젠 어머니 아버지라 왕 밥 자십센 헤볼라 허민 이제 가근에 아버지 왕 밥 자십서 경허민, 기여. 경헤근에 왕 허민 경헤나난 요디 금성상회 성 그 목욕탕 헤나지 안헛사, 금성 상회?

@ 으.

그디 성이 우리보다 흰 네나 우산디 다섯이나 우산디 기라. 그디 죽어 불었주만은 그 어른 산 때 누이네 아버지, 그 삼촌 이신 댄이 진짜 멋쟁이라났어. 저 하영헌 모시에 흰 나까오리 씨곡 흰 구두 신곡 헤근에 나도 흔 번 켜 어른이 뉘민 정 헤 봐시민 허단 그 어른 그추룩 헤영 텡겅어.

@ 아, 그추룩 헤영 텡겅어?

으. 우리 아버지 뿐 따란에.

@ 아버지 그때 구두 신어졌수파?

구두 신언.

@ 고무신 아니고?

구두 신언.

@ 구두 신언? 아.

그 시절에도 구두 신언 텡겅어.

@ 기구나. 모자 나까오리 쓰고.

나까오리.

@ 나까오리가 어떤 모자파?

나까오리 동글랑행 이 태양 동골랑행 영 헤진 거. 이디 영 움막 들어가게 헨에.

@ 그거 완전 멋쟁이 모자다예? 그걸 나까오리렌 헤?

으.

@ 아, 경 딱 썩.

으.

@ 여름엔 경헛고.

경허고 겨울엔 또 겨울 나까오리 쓰고, 뚜꺼운 거.

@ 음.

그거 씨곡 그냥 멩지 바지 숨 논 거 입곡 우이 숨 논 저고리 행 입곡.

@ 게민 삼촌, 남자예, 겨울에, 아버지 겨울에 입을 거예. 속에서부터 다 곴아 보게.

속에 그뎨이 우리 아버지 육지 텡길 때난 내일 입엇어, 쪽.

@ 아, 내일 입엇어?

내일 육지서 산 완 입어신디 어떻게신디 몰라도 내일 입더라고.
 @ 게민 내의 안 입을 때? 겨울 말고, 가을에?
 # 으, 가을에.
 @ 바지저고리 입을 때 맨 안에는 뭐 입엇수짜?
 # 맨 아래는 바지.
 @ 바지. 살마다 안 입고?
 # 살마다 입고계.
 @ 살마다 입고. 그다음은 바지 입고 그다음?
 # 그다음 저고리 입곡.
 @ 그다음 저고리 입고.
 # 쫓끼 입고.
 @ 우이 마고자 같은 거 안 입어?
 # 마고자 그땐 엇인 때.
 @ 그땐 엇인 때. 어디 멀리 나가젠 허민 두루마기나?
 # 두루막 입언.
 @ 두루막 입언.
 # 검은 두루막 흰 두루막 다 잇어났어.
 @ 다 잇어났어, 예. 그 우리 제사 지낼 때 입는 건 뭐렌 꼴옵니까?
 # 도폭.
 @ 도폭.
 # 도폭도 우리 아버지 헨이 일 볼 때, 그 포제 헨 때민이, 포제관으로 가민이 그 도폭
 툇 입언 가근에게 절허고.
 @ 으.
 # 헤낫주. 하늘 색깔 멩지로 헤근에.
 @ 하늘색 멩지로 헤근에?
 # 으. 이디 우머니, 주머니 이만이 등기계.
 @ 이거 뭐렌 헤? 우머니, 주머니?
 # 우머니주.
 @ 우머니.
 # 우머니 들렌 그 도폭이난.
 @ 두루마기랑.
 # 두루마기는 요멘이베끼 안 허는디.
 @ 예.
 # 그건 우머니 들린 도폭.
 @ 도폭. 그민 도폭이랑 두루마긴 이것만 트나?
 # 으.
 @ 다른 건 트난 거 엇어?
 # 다른 건 트난 거 엇어.

@ 이 폭도?
 # 폭은 넓어.
 @ 뭐가 넓어?
 # 품이 넓어.
 @ 그니까.
 # 이디, 이디이.
 @ 으.
 # 그 옆에 허는, 옆에 허는 것이 두루메긴 두 폭베끼 안 허는디 겐디 이건 네 깬 부찌.
 @ 맞수다. 그 도폭은 네 개 부찌고 옆에예. 여기 앞에 뒤에 헤 놓고 두루마기는 두 개 부찌는 거?
 # 으.
 @ 도폭은 여기 세 개 부치는?
 # 네 개.
 @ 네 개 부찌는 거. 게민 폭이 더 넓어예?
 # 넓어.
 @ 예, 예. 이따 마름질허는 거 또 물어보고, 남자 옷은 또 엇수파, 그거 말고?
 # 그거 말고 엇어.
 @ 마고자는 아버지 안 입어난? 나중에서 입언?
 # 나중에서 입엇주게. 마고젠. 나중에 입엇어.
 @ 내의는 언제부터 입은 거 닻으파?
 # 나 어린 때부터 입엇어.
 @ 시집가기 전이부터 입엇어?
 # 으, 입엇어.
 @ 예고 내의 입어났구나.
 # 내의 입엇어. 어떡난 어른덜 내의 이신고 우린 엇인다. 우리 그때게 살마다 하나만 입 영 검은 치메 띠 둘러근에 흰 무신 적삼닻은 저고리산디 입어근에 그 눈 오는디도 게다 싯 곡 헤영 한질로 든당 게다 친 하나 끈어지민이 그거 흔짜 손에 췌영 그냥.

여자 옷

@ 하하하. 삼춘 경 옷 입은 게 언제까지 영 치마저고리를 입어났수파?
 # 치마저고린 우리 시집간 후제궂장도 입엇주.
 @ 시집간 후제도 입어났어?
 # 나 물, 시집강 후제도 물질명도 항상 유동치메이 파랑헌 유동치메. 요궂장 오는 유동치메에 통치메.
 @ 으.
 # 그것에 저고리 입곡 경행 물 질어났저, 나 빨래허레 가명도 그거 허영. 또 허리 치메 이 알로 확허게시리 감아근에 그건 저 무신 치메고 그건, 그 기지궂라 무시거엔 현다만은. 나이론으로 뵈 거이.

@ 으.

그런 걸로 치매 해근에 확 허게 허리로 감앙 윈 그땐 몸빼 아이 난 때.

@ 몸빼 아이 난 때.

아이 난 때난 그냥 영행 확 허게시리 감아근에, 탄 사름덜 막 갈증이 입언 땡겼어.

@ 으.

경헌디 이런 딜로 확 허게, 확 허게 감앙 즌등이 행 물 질고 빨래허레 가 오고 경헛어.

@ 계난 어쨌든 밖에, 올레 바깳디 나가젠 허민 치마를 돌렀구나.

으.

@ 집 안에서는 벗어 불고?

으. 아니, 안에서는, 안에서는 해 벗엇주게. 저 그 몸빼 입을 때도, 몸빼 입을 때도 경헛어. 겨고 우리 어머니 그 옛날 우리 어린 때부터 갈증의 우터레 밧디 가젠 허민 갈증의 우터레 치매 확 허게 입엉 가.

@ 으.

입엉 강 담 우터레 톡허게 걸쳐 똥 “죽은년아, 나 밧디 감저이. 조반 행 오라이.” 나가 육남매서 막내주게. 경허난 겨른 이제 어무니 밧디 가 불민 밥 헤여근에 가정 강 “어머니 밥 헨 왓수다.” 허민 “그여, 그레 앓아 노라.” 앓아 노민 이제 그거 먹는 동안은 검질이라도 메렌 허주만은 안 허여.

@ 으.

그냥 앓아 시라 행 밥 먹엉 이제랑 설렁 가라.

@ 아, 검질메렌 안 시켄?

안 시켜.

@ 어이고. 하하하.

경허단 시집은 오난게 그냥 이것도 못햐저 저것도 못햐저, 시어명안티. 계난 나가 시어 명 미왕 살고정을 안 헤라, 그때.

@ 아. 경헛구나.

밧디 강 검질메 똥 오랜 허민 그 새백이 곱은다리 가근에게 검질메당 오민 “얼마나 메 시?” 허민 “아무 디로 아무만이 메수다.” 허민 자단 왓어?

@ 하하하.

즐단 왓어? 경허난 살고정을 헐 것가?

@ 으. 맞수다, 맞수다.

경해도 얘기 때문에 나가 이 얘기덜 내베 된 가민 그땐 웨할망 집이만 가, 얘기덜이이. 계난 웨할망 집이 갓닥 왓닥 허명, 이 한질로 헤영 가민 늣덜이 아이고, 저 예펜 이 얘기덜 내베 된 어디 도망갓젠 경헌 그 소리 안 들젠 나가 산 거라.

여자 옷 종류

@ 음. 그 소리 안 들젠 산 거라. 맞수다. 계민 아까 여자 옷 잇는 거 곶아신디 다 곶아 보게, 여자 옷이 여자 옷 종류에는 뭐 뭐 잇수파? 어머니 입엇던 거예. 아까 맨 안에는 뭐 입엇수파?

안에 속치메 입엇주게.
 @ 속치마. 아니, 팬티서부터.
 # 팬티서부터?
 @ 아니, 속곳, 속곳.
 # 속곳 입곡이, 저 바자마.
 @ 바자마.
 # 바자마 입곡, 이제 속치메 입고.
 @ 으.
 # 치마 입고.
 @ 치마 입고. 지금이야 바자마렌 불르지만은 옛날에도 바자마렌 불럿수파?
 # 바지, 바지.
 @ 혹시 그거 중의는 엇엇수파?
 # 중의ㄴ라도 바지엔 허곡이 바지ㄴ라도 중의엔 헛어, 우리 옛날에.
 @ 으. 그민 안에 속곳 입엉.
 # 바지는 안팎 이신 것ㄴ라 바지엔 허고. 흘것ㄴ란 중의렌 허고.
 @ 안팎 이신 거는 바지렌 큰고 안에 속 안 땡 그냥 한 겹으로 흘겹으로 땡 건.
 # 으, 그건 중의.
 @ 중의엔 허고예? 그민 안에 속곳 입엇수다예?
 # 으.
 @ 그다음 중의 입엇수다예. 그 우이 치마 입을 거?
 # 으.
 @ 속치마, 겹치마?
 # 으.
 @ 어디 나갈 때 속치마 딱로 입고 겹에 것도 딱로 입고.
 # 으.
 @ 우이는?
 # 우이는 저고리 입곡.
 @ 저고리 안에?
 # 저고리 안에 적삼.
 @ 적삼 입고, 우이 저고리 입고.
 # 으.
 @ 여자는 겨울에 우에 적삼, 저고리 우이 뭐 또 입는 거 엇어?
 # 엇엇어, 우리는.
 @ 엇어. 남자추룩, 두루막추룩 현 거 엇엇어?
 # 엇어.
 @ 엇엇어. 시집갈 때는 그 우에 뭐 입어낫잖아예? 장옷예?
 # 으, 장옷.
 @ 건 잇당 물어보기로 허고 그럼, 애기털은 뭐 입져낫수과, 아이털?

아이털은, 아이털도 그런 식으로 입엇주게.

@ 똑ㄱ치?

으, 팬티허고 쓰봉 하나. 검은 쓰봉 저 무시걸로 현 거. 미녕으로 현 거. 검은 쓰봉 하나 입고.

@ 으.

속엔 그냥 웨목으로 내의 하나 만들앙. 만들앙 그런 거 입형 우터렌 우와기 입히고.

@ 우와기 옛날에?

우와기엔 현 건 학생복이주.

@ 으, 학생복처럼 헤가지고 한복 저고리추룩은 아니예? 학생복추룩 행 입혀난 거?

몰라, 그 전엔 막 옛날엔 저고리 입어실 테주. 학생이라도. 우리 오빠네 어린 때쯤은 경헤나실 거라.

아기 옷

@ 삼촌 애기 때 뭐 입어난 거 기억 안 남수파? 삼촌 어렸을 때 뭐 입어났수파?

어렸을 땐이 우리 흰 예닐곱살 나난 우리 스촌 오빠가 한 박사 아방이라났주게. 겐디 그 스슴사전에 죽어 부난 현디 우리 큰고모 아덜이랏주게. 경현디 족은년아, 입은 옷 무신 옷? 색동저고리. 경 곶아났어. 색동저고리렌. 누게 헤 준 거? 어무니 헤 준 거. 그거 잇어 불어지지 안허여, 색동저고리 헤난 거.

@ 계난.

우리 어머님이 바농질을 잘허난이 저고리 쪽 허명 솜 노명 겨울엔 입지곡이 봄은 나쁜 그냥 두건만 행 입곡. 여름은 나쁜 모시 행 입히고 경헤났저게.

@ 삼촌네 옷 막 잘행 입혀났구나? 어무니가예?

으.

@ 삼촌 그 결혼헤 가지고 애기 났을 때 곧 애기 나민 입지는 옷이 잇잖아예? 무슨 옷 입져났수파, 옛날에?

거 배넛저고리엔 헤근에게.

@ 지금이야 배넛저고리엔 허주만은 그땐?

그때도 배넛저고리엔 헤났어.

@ 그때도 배넛저고리엔 헤난?

으. 그때도 배넛저고리 헤났주.

@ 아, 기파?

그거 만들아. 웨목으로.

@ 뭐로 만들아?

웨목으로 그냥 만들아.

@ 웨목이 뭐파?

웨목이 그거 광목가?

@ 광목?

으.

@ 광목으로 만들어 입현?
으.
@ 삼춘은 베옷은 안 만들양 입혔수파?
아, 곧 난 때 베옷. 베로 행.
@ 베로 행예? 곧 난 때.
곧 난 땐 배로.
@ 곧 난 메칠만이 그 옷을 입지는 거라?
그거 흔, 흔 보름은 입져신가?
@ 보름은 입언?
으.
@ 낱자마자 입지는 거 아니잖아?
으, 목욕시경.
@ 목욕시경예. 목욕시경 한 보름은 그거 입형 그다음에는 그거랑 똑같이 광목으로 만들
양 입힌 거?
으.
@ 아. 그 베로 만든 옷을 불리는 일름 생각 안 남수파? 배넛저고리엔 불런?
배넛저고리엔 불러실 거라.
@ 붓땃옷?
으, 으 붓땃저고리.
@ 붓땃저고리.
으, 붓땃저고리.
@ 그지예, 경 불렀지예? 삼춘이 만들영 입혔수파, 아니면 아이털 그 큰 아이털 거 할무
니가 만들어 줬수파?
우리 어무니가 만들어 줘실 거라.
@ 또 아이털 그 왜 애기 때는 오줌 잘 못 가리민 여기를 영, 여기 꼬메지 안행 여기 터
지운 바지들 잇지 안허여.
그런 거, 그런 거 안 입고 지성치메엔 행이 치메 ㄱ추룩 맨들아근에 그냥 영 행.
@ 허리만 둘렁예?
으.
@ 예, 예.
그런 거 입어났주.
@ 그거 지성치메렌 불러난?
으, 지성치메.
@ 예, 좋수다. 강알 터진 바지 안 입져난?
강알 터진 것도 입어났저.
@ 예, 맞수다.
강알 터진, 우리 아이털 헐 땐 강알 터진 바지도 입꼭 그루후제 흐뵂 잇어가난 말째라
가난 저 사당, 그때 메리아스가 날 때난 강알 터진 메리아스 그런 거 사단 입지고 경헛주

게. 죽은아덜 날 때쯤은 그런 거 사단 입혀실 거라.

@ 큰아덜 입힐 때 뭐 입혀놨수꽂?

그건 지성치메베깁.

@ 지성치메. 그 지성치메를 남자 아이도 입진 거?

어. 남자 애기고, 무시거고 입히지.

@ 예. 남자아이도예.

저고리 부분 명칭

@ 우리 치마 보면 치마 만들 때 이것저것 옷에 영 이름이 잇잖아예? 부분 명칭이예? 예를 들면 남자 옷 보게예. 이거 남자 저고리우다예.

으.

@ 바레점지예?

으.

@ 남자저고리민 앞이 여기 뭐 불르는 일름덜이 잇잖아?

게.

@ 요거 뒤편 불릅니까, 곱아봅서.

이건 이건 이몸, 이몸인디 두깁이영 다 부뎛주게.

@ 으.

두깁이영 다 부뎛 이몸이고, 이건 소메고.

@ 이 이몸이 율로 접어젓는데 앞뒤가 다 부뎛 거라예?

으.

@ 길게.

부뎛 거.

@ 부뎛 거.

영이 들른 뎛 멩주민이 영 행 두 개 딱 꺼꺼 낡, 꺼꺼 뉘근에게 몰르주게. 경허민 이 것이 이몸 들른 거엔 허고.

@ 예, 여기도 이몸 들른 거.

이몸 들른 거. 이건 소메.

@ 이건 소메, 이것도 소메.

요건 짓, 요 헤영헌 건 짓.

@ 짓.

요건 또시 동전.

@ 동전 들 거예?

으.

@ 앞에 오는 이 부분을 뒤편 곱릅니까?

그건 앞섬.

@ 앞섬.

요건 ㄱ름.

@ ㄱ름. 앞섭 말고 안에는?
 # 안엔 안앞섭.
 @ 안앞섭. 앞섭, 안앞섭. 이 밑에 부분을 뭐렌 불르는 이름은?
 # 도련.
 @ 도련. 여기를 불르는 이름이 있어?
 # 그건.
 @ 여기 어깨 이 부분?
 # 그건 무시거.
 @ 엇어? 기민 요기 옆에 옆선은? 불르는 일름이 있어?
 # 거 불르는 일름이 엇인 거 답아.
 @ 예, 좋수다. 이거 저고리에?
 # 으.

바지 부분 명칭

@ 바지 보게, 바지. 바지는, 바지는 여기는?
 # 허리.
 @ 허리. 여기는?
 # 그건 저 상복이렌 허는가?
 @ 상복 여기는?
 # 그건.
 @ 셋복?
 # 으. 셋복, 큰셋복 작은셋복. 요거 요거 작은셋복.
 @ 맞수다. 요기는 큰셋복, 요기는 작은셋복.
 # 으.
 @ 여기 상복.
 # 으.
 @ 계민 우리 재단허게 뉘면 영 옆에 가는, 여기 옆에 가는 상복이 두 개 이실 거고.
 # 으, 두 개.
 @ 여기 큰셋복?
 # 으, 큰셋복허고 요건 작은셋복.
 @ 계민 큰셋복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 아니, 계난 혼 번에 두 개 꼬불령 만들아.
 @ 꼬불령 만드는 거?
 # 으, 꼬불령. 기지가 넓으면 꼬불령 만들고 멩지 거튼 건 두 개, 두 겹이라사 뉘어, 꼬불령 두 개.
 @ 두 겹이라사 뉘어, 멩지는.
 # 으. 안쪽, 베깃쪽 헤근에.
 @ 예, 예.

저고리 부분 명칭

@ 아까는 남자 옷 헛고예, 이거는 여자 옷이라예.

으.

@ 여자 옷도 아까처럼 다 불리는 이름이 잇잖아예, 여기에예?

이뎡이여.

@ 어디가 이뎡?

이 한복판애가 이뎡이지, 이것이, 이것이 이뎡 이건 소메.

@ 소메.

요건 짓.

@ 짓.

요건 동전.

@ 동전.

요건 밧섭.

@ 밧섭.

요 안에 들어간 건 안앞섭.

@ 으. 밧섭이 뭐고 안섭이 뭐짜? 안섭이 아니고 앞섭?

앞섭은 아튼 이건 앞이 허난 앞섭이엔 허는 거고.

@ 으, 으.

이건 밧앞섭이엔 현 거 딱시 두 번째 곧는 말이고.

@ 으.

안앞섭이엔 현 건 요것에 들어진 거, 요거. 안터레 들어간 것에.

@ 그러면 영 허면 이 안에 게 안앞섭.

으, 것이 안앞섭.

@ 이건 앞섭?

어, 그건 밧앞섭.

@ 밧앞섭.

말힐 땐 밧앞섭이엔 허영 옷 힐 땐 경허주만은 옷 만들은 그냥 앞섭.

@ 예, 게민 밧앞섭이랑 앞섭이랑 ㄱ튼 말?

으, ㄱ튼 말.

@ 예, 예. 밧앞섭 또는 앞섭, 안앞섭.

으, 안앞섭.

@ 게민 영허민 이거 밧앞섭이라예, 요 면을 불리는 이름은 엇어?

게 그것이 안앞섭이주게.

@ 여기는 들어가는 디는?

들어가는 디 족은 앞섭을 부찌느네.

@ 으.

그것이 안앞섭이라.

@ 어떻 뉘는 거냐 허면, 어떻 뉘는 거냐 허면 저거 저거 저거, 적삼. 이걸 저고리라고 헤?

으.
 @ 여기가 우에예?
 # 거 이것이 우에라?
 @ 으.
 # 이것이 안네주.
 @ 으, 이거 안네예, 이거 우에예.
 # 여기 부친 것이 밧앞섭.
 @ 으, 여기가 밧앞섭.
 # 또 여기도 부친 건 안앞섭.
 @ 안앞섭. 그니까 나는, 이걸 굳는 말은 없는 거?
 # 아니 엇어.
 @ 엇는 거. 예, 게민 뵈수다. 예, 예.
 # 엇어.
 @ 그럼 여기 고름예?
 # 으.
 @ 고름 어느 쪽이 질 거파?
 # 고름?
 @ 으.
 # 요것이 긴 거주.
 @ 요게. 영허민 웬착?
 # 으.
 @ 웬착이 질 거. 요게 진 거예?
 # 으.
 @ 요건 짝른 거.
 # 짝른 거.
 @ 영 행 웬착이 진 거라예?
 # 으.

치마 부분 명칭

@ 이게 치마라. 치메도 종류가 있지 안허파? 여기 터진 거랑 안 터진 거랑?
 # 통치메가 있고 들름 치메가 있고. 영 터진 건 들름 치메엔 허고.
 @ 들름 치메.
 # 통치메 다 막아 분 거.
 @ 막아분 거. 으, 으 기민 여기는 치마 헐 때 요건 뭐렌 불러?
 # 주름.
 @ 으. 여기가 주름. 여기는 뭐, 이거 이몸이렌 불리는 것처럼 그런 것 엇수파?
 # 그런 건 엇어.
 @ 그런 건 엇어예? 여기가 폭이 뵈 거고예?

으, 폭이 났 거.
 @ 치마 헐 때는 보통 3슴 얼마나 낡 험니까?
 # 건 무시걸? 3심을?
 @ 으, 얼마나 들어?
 # 저 멩지하고 베하고 또 모시하고 그건 열두 자.
 @ 열두 자. 치마 다 똑같애? 멩지나 미녕이나 베나 열두 자가 들어갈 거?
 # 경허민 저기 9섯 폭.
 @ 9섯 폭. 거 9섯 폭. 통치마 헐 때나 돌름 치미 헐 때나?
 # 것도 9섯 폭 들어가고이. 폭을 크게 허젠 허민 열두 폭도 낡 허느네.
 @ 으, 어떤 옷에는 폭을 크게 험니까?
 # 어떻사 헤신디 몰라. 옛날엔 우리 어머니 헐 땐 열두 폭 치메, 열두 폭 치멘 경 말헤 난 말만.
 @ 계난 시집갈 때 막 폭 널르게 허진 안허여?
 # 나 갈 땐 그냥 9섯 폭 치메.
 @ 여섯 폭 치메, 예.
 # 이제 그 유동치메 3튼 건 세 폭으로.
 @ 아, 세 폭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 두루메기우다예.
 # 으, 두루마긴게.

두루마기 부분 명칭

@ 두루마기. 두루마기인 경우에는 불르는 이름이 마찬가지?
 # 으, 것도 마찬가지. 저고리나 마찬가지.
 @ 저고리나 마찬가지.
 # 견디 요거 셋복만 잇주, 셋복.
 @ 이 옆에 부찌는 걸 셋복이라?
 # 으, 이거 셋복.
 @ 두루마기는 아까 셋복이? 도폭이랑 달라신디?
 # 으, 도폭은 요것이 하나 더 부찌야.
 @ 더예. 겐 네 개, 네 개가 들어가고?
 # 으.
 @ 네 개렌 험니까?
 # 네 개.
 @ 으, 두루마긴 두 개가 들어가고?
 # 으.
 @ 여기예. 셋복이 더 들어가는 거.
 # 아이, 3만씨 보라. 이권이 헛 복 앞으로 앞으로 보건디 헛 복 아니가?
 @ 으.
 # 견디 그 뒤에 하나3장 난 두 개로 난 말을 허는 거주.

@ 맞수다.
 # 겐 이거 두 쪽 또 도폭은 요거 네 개.
 @ 게니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허난 네 개가 될 거? 예, 맞수다. 여기는?
 # 보선.
 @ 게민 여기 오른쪽 왼쪽 허게 뒤편 총 배가 뒤편?
 # 으.
 @ 두루마기가 네 개가 될 거고, 도폭이 여덟 개가 되는 거네. 하나 둘 셋 넷.
 # 게민 이걸 하나로 세야주, 이걸 하나로.
 @ 아, 이걸 하나로?
 # 으. 하나로 세민 이젠 저 아까 무시거엔 나 곁아져니?
 @ 셋북.
 # 셋북을 이걸 두 개로 될 거, 이거 두 개로.
 @ 예, 예.
 # 두 개로만 뒤편.

버선 부분 명칭

@ 이거는, 이거는 뭐?
 # 보선.
 @ 보선은 불르는 이름이 어떻 뉘니까?
 # 보선 불르는 거 마찬가지로.
 @ 여기 앞이?
 # 앞이 코.
 @ 여기 들어가는 디 잇지예?
 # 그건 툭.
 @ 툭. 요기는.
 # 치기.
 @ 치기.
 # 뒤치기.
 @ 뒤치기. 요 아래 들어가는 건 잇어?
 # 그것도, 그것도 툭이주, 툭.
 @ 밑에 들어가는 것도 툭. 요기는?
 # 건 목.
 @ 목이렌 헐 거예?
 # 으.
 @ 보선도 본 영 그려 가지고 험니까?
 # 으, 본 그령. 본 그령 그것에 본 딱.
 @ 본 딱 헐 허는 거예. 옷덜 부분 명칭이엇고예.

단추

@ 이제는 단추 물어볼게마씨, 단추. 옛날 삼촌 어릴 때 어무니가 옷 만들 때 단추덜이 있어나신가?

건 몰라.

@ 몰라. 아버지 옷 보면은 단추?

단추 있어.

@ 단추 있어.

단추 사단 돌아나실 거라.

@ 사단 돌아나실 거라. 삼촌이 옷 멘들 때는 어땜 헛수짜?

나 헛 때도 사단 들앗주, 단추.

@ 사단 들앗주. 어떤 단추덜이 잇어났어?

겐 것에 맞은 단추. 큰 단추 큰옷에 허는 건 큰 단추 들고 작은 옷에 헛 건 작은 단추 들고.

@ 어, 어. 아까 삼촌네 어무니가 옷 멘들 때 여기는 미녕이나 멩지나 안 해낫잖아예?

무사 해낫주게.

@ 그니까, 그니까 옷은 해나신디.

으.

@ 그 천은 어디 강 사당 해신고?

천은 그 포목 장시안티 사단.

@ 여기 팔러 옵니까, 장시덜이?

으. 아니 장을, 장이 잇어났어, 그때도. 게민 장이 포목 장시가 와.

@ 아, 장에 가 가지고 그 옷 ㄹ심덜을 사단예.

조천장 허단 이젠 함덕장 허난 함덕으로.

@ 함덕장이 삼촌 어릴 때도 잇어난?

아니, 우리 옥은 후제사 잇엇어.

@ 옥은 후제사. 시집간 후제사?

으.

@ 그 전에는 조천장에.

시집가기 전이 잇어나신가?

@ 으, 으.

그건 잘 몰르켜. 시집간 후제사 잇어신디 시집가기 전이 잇어신디. 시집가지 전이 잇엇어.

@ 음.

웨냐허면이 장을이 개업허젠 허난 미싱 아경 가근엿에 속곳 살마다 같은 거, 속곳 같은 걸 다 멘들더라고계.

@ 어디서?

장에서. 미싱, 미싱으로.

@ 미싱으로.

게민 장에서이 해녀덜 속곳도 잇주만은 그 소망인데 쳇 장날에 그걸 멘들아. 경허민

속곳털 만드는 사람이 막 하. 계민 속곳털 만들어놔주게.

@ 어.

원 돈은 얼마사 받아신디 몰라.

@ 아, 아,

몰르고 미싱 가정 강 속곳 만들어놔어.

@ 미싱 가정 강 속곳 장에서 만들어?

으.

@ 경행 그거 그디서 풀 거?

푸는 것이 아니고 누게 맞추민, 거기서. 나 것도 헤 도라, 나 것도 헤 도라.

@ 아.

첫 장 개업허는 날은이 그거 재수가 존텐 행 그거 속곳털을 경 만들더라고.

@ 아, 장 개업허는 날?

개업허는 날.

@ 아, 장 여는 날.

첫 장 여는 날 이제 농협, 중앙농협 이제 함덕 잊지 안허느냐게. 지서 앞이? 그디가 거 바다물이라놔어.

@ 으.

젠디 그 바다물을 메완에 오일장을 만들앗거든.

@ 으.

계민 그거 우리 처년 때 만든 거라, 그거이. 계민 이젠 우리 올케언니 미싱산디 우리 큰언니 미싱산디 가정 간에 날라 만들렌 행 나 다 만들어놔저.

@ 아, 첫 장에 속곳을 만들면 재수 좋다고?

그디서도 만들곡 요디 이제 또 집 짓어벳주만은, 칼호텔 짓은 디.

@ 으.

그디가 이제 밧이라놔주게. 젠디 이제 그디 설러 부난 그디서 이제 두 번째 장을 띄시 사게 뗏어. 그뎨 우리 결혼헌 후에. 나도 저 미싱 아정강 헤난 거 닳다. 저 미싱 아정 간에 속곳털 만들어난 거 닳다. 반스 만들어 도렌 헌 사름, 속곳 만들어 도렌 헌 사름이 하, 반스보다.

@ 아, 계민 첫 장에서 강 그걸 사 입는 사름이 재수 좋은 거?

으. 것이 재수 좋은 거난 그거 허영털 입엇주게.

@ 그민 삼춘은 거기 강 만들앙 폰 건게.

몰라, 거 만든 품만 받았주.

@ 하하하. 맞수다. 만든 품만예. 계민 그 단추털은 사당 돌아신디 삼춘 아까 만든 단추 잇잖아예?

으, 들마기.

@ 그런 들마기는 무슨 옷에 돌아놔수꽈?

그런 건 적삼예.

@ 적삼예 또?

적삼에 허곡.

@ 아까 속곳에도 들고예?

으, 속곳에도 들고, 속곳에도 이런 율이 다 돌아. 그런 율이. 혼 착 가달 체, 체지계시 리 멘드느네게, 속곳은.

@ 으.

그민 그 들마기 멩청 그디 세 개씩 돌아.

@ 어.

요디꺼장 허민 다섯 개씩 들곡. 이 어깨꺼지 허민, 어깨마리.

물웃

@ 어, 계난 속곳 먼저 물어보쿠다예. 해녀들 입었던 속곳예.

으.

@ 속곳 허게 뒀면 여기 있는 거 뭐렌 불러?

거 어깨마리.

@ 어깨마리.

부떠. 부떠, 부떠.

@ 부떠. 여기 속곳에서부떠.

으, 요기서부떠 이 우터레 영 만들주게. 계민 딱로 떼영 만들어, 만들 땐.

@ 으.

경헝 부찌. 경허민 어깨마리에 속곳에 부청.

@ 아, 삼춘은 어깨가 두 개가 이신 속곳 만들어났구나.

으, 그런 것도 만들고 그냥 허리만 이신 것도 만들고.

@ 허리만 이신 거는 우리 물질힐 때 입는 거 아니라예?

아니.

@ 그냥 입는 속곳을 얘기허는 거라예?

그냥.

@ 물질힐 때 입는 속곳인 경우에는 여기 옛날에 큰 친 하나만 있어나지 안허연?

친 두 개. 하나 이신 것도 있고 두 개 이신 것도 있고.

@ 아. 두 개 이신 어깨마리를 많이 만들어났구나. 여기는 터정 있어예?

으, 오른쪽엔 터정.

@ 오른쪽 터정 이신디 단추를 몇 개 답니까?

아래 세 개 들고 우이 두 개 들고.

@ 아래 세 개 들고 우이 두 개 들고. 우이 두 개만 돌아도 뒀?

으, 두 개 돌아나실 거라. 몰라, 원. 나 시집갈 때도 경헌 옷 입언에 시집왔저게. 겨난 이 첫 날 처낙 옷을 뺏기젠 허난 뺏겨져? 그걸이 꺼꾸로 느다 입언에.

@ 으?

꺼꾸로 느다 입었어.

@ 으.

이쪽으로 입고, 이쪽으로 입고.

@ 두 개를 입언?

으.

@ 무사?

경행 팬티 입고.

@ 무사?

옷을 벗어 주지 안허젠.

@ 하하하. 아, 진짜?

겐 열흘 넘어서 혼디 상대해낫주. 우리 열흘 전인 옷 벗지 안해낫어. 꺼꾸로 느다 입어 불영. 게민 어평헌 중을 알아게. 꺼꾸로 느다 입어 불민 암만 새스방이 옷을 벗기젠 해도 못 벗기지. 이디도 벗기젠 행 보민 막고 저디도 행 벗기젠 허민 막아지고. 경행 팬티 입곡 해불민.

@ 게난 삼촌네는 속곳을 물질힐 때 입는 속곳추룩 다 어깨까지 이신 속곳을 만들영 입어난 거?

으.

@ 요기까지만 오는 속곳이 아니고?

아니. 그런 건 안 입어 보고.

@ 그런 건 안 입어 보고.

그런 거 우리 어머니네가 입어낫어.

흔레복

@ 게민 그 시집갈 때 입어난 옷을 곶아 볍서예. 맨 우에, 맨 안에 속곳을 두 개 입엇어, 삼촌이 시집갈 때. 그다음에 흐흐흐, 원래는 요기 터진 옷인디 이거 하나 입영 뒤집영 이쪽 터진 것도 입곡.

으.

@ 또 그다음엔 뭐 입언?

저 반스. 흰 반스. 이만이 오는 거.

@ 그 밑에만 입는 반스예. 반스렌 부를 거파, 중의렌 부를 거파?

중의 아니. 반스. 시치부 반스.

@ 게민 속곳 입영 다시 반스 입영 또 그다음 뭐 입어.

경행 중의, 그때 중의엔 헛지. 바자마 보고이.

@ 으, 바자마.

그거 입어.

@ 으, 중의 입어.

경해 노민 새시방이 벗기젠 허민 벗겨질 거라, 못 벗기주.

@ 경 중의 위에 다시 속치마 입고.

속치메 입고, 치메 입고.

@ 치메 입고. 위에 적삼 입고.

적삼 입고 저고리 입고.
 @ 또 저고리 입고 그리고 나서 그 우이?
 # 그 우이 입은 거 엇어.
 @ 장옷, 아까.
 # 으. 장옷 건 시집갈 때.
 @ 으, 시집갈 때예. 보통 때는 그렇게만 입고 시집갈 때 장옷 입고예.
 # 으.
 @ 예, 예. 단추는 아까 들마기는, 들마기는 속곳에도 들고, 적삼에도 들고.
 # 적삼에도 들고. 다른 데 들마기 드는 거 옷은 엇수짜?
 # 다른 거 들마기 드는 거 엇어.
 @ 엇어예.
 # 적삼 그 해녀덜 입을 때이 적삼은 해근에 그 윗으로 그걸 끼게 허나 게 안 허민 이 앞
 으로 끼게 허나 그딘 들마기 다 들앙 헛어.
 @ 그 해녀들 입는 물적삼예?
 # 으, 물적삼.
 @ 물적삼도 앞으로 들마기 들지 안허고 옆으로 들마기 들기도 허여?
 # 으, 경헤났어.

갈옷

@ 경헤났어? 예. 이제는 갈옷 물어보쿠다. 갈옷이 뭐짜?
 # 감옷이라 갈옷이엔 허주.
 @ 감옷이렌 불러난 삼춘은?
 # 아니, 갈옷이엔 불르주게.
 @ 갈옷이엔 불러난. 갈옷은 어떻 멘들아났어?
 # 어떻 멘글아? 그것사 간단허주게.
 @ 으, 만들어 봄서.
 # 저디 무사 나.
 @ 이십디다.
 # 잇언예. 그것이 갈옷이주게.
 @ 삼춘은 물들일 때 옷을 멘글아 가지고 물을 들엿수짜, 아니민?
 # 저저?
 @ 으.
 # 저건 멘글안 물들인 걸 거라.
 @ 저걸로 말고 옛날예?
 # 옛날예?
 @ 으, 옛날예 멘들 땐 어떻 멘글아났수짜? 그 멘드는 방법을 곶아 봄서.
 # 옛날예 멘글 땐 물 아이 든 거 그대로 멘들아근에 기자.
 @ 으.

간단히여.
 @ 감물들이는 거부터 곶아 봅서게.
 # 감물은이.
 @ 으.
 # 이제 그 웨목 해당이 빨아.
 @ 웨목은 그냥 상 오는 거?
 # 그냥 사단 그걸 막 빨아. 빨앙 물좌, 물황 이젠 감 뺏아. 물 약간 놔근에 뺏아근에 뺏
 인 감을 옷 딱 허게 폐와 낡이 툭 툭 툭 툭 곶고루 놓주게. 곶고루 노민 곶 돌아.
 @ 감 뺏인 거를 놔가지고 몰아.
 # 물앙 그걸 막 부벼. 부비민 다 젓주게.
 @ 으.
 # 젓으민 그 감물에 다 젓어. 경행 오래 오래 해야 뒤어, 그거. 오래 헤영 물령, 저 저
 물앙 말째 이제 털어. 탁 털영 보민 다 젓어 곶고루이. 탁 털영 젓으민 탁 탁 탁 허게 털
 어 베뒤 이젠 베끼디 보리남을 깎나 무시거 허영 그냥 널푼허게 널어.
 @ 으.
 # 널영 막 돌르기 전에 손 보아.
 @ 어떻 손 보는 거라?
 # 쪼그라들지 안허게 걷어다 놔근에 이제 막 늘류명 다 경행 손 봐근에.
 @ 두드리거나 허지는 앓고?
 # 으, 두드리지 안허여.
 @ 영 영 손으로.
 # 손으로 영 영 영 영 곶고루 등기명 손 봐근에 이제 툭 툭 딱시 널어. 경행 돌르민 이
 제 돌르주게. 물론 후젠 물 적정 널영 돌르민 딱시 물 적정 널고 사흘만 허민 별경허영 감
 옷 뒤는 거.
 @ 음. 물 적정 널고 돌르민 다시 물 적정 널고.
 # 으.
 @ 경 몇 번을 헐 거라.
 # 으, 경허민 별경헤지주게.
 @ 뵈디 널어도 뒤 거라?
 # 뵈디 널어사.
 @ 뵈디 널어사.
 # 으, 그늘에 널민 안 뒤어.
 @ 그늘에 널민 안 뒤. 막 여름에, 그거 여름에 헐 건디 뵈 막 췌 디?
 # 어, 췌 디 널어사 허는 거.
 @ 췌 디 널어사 허는 거. 경 물 다 들엿수다. 이제는 어떻 헐 거?
 # 이제 입을 거주.
 @ 입을 거? 옷 멘들어야지.
 # 으, 옷 만들앙 입을 거 경허민.

@ 계난 물들영 옷 멘드는 걸 하영 헛수파, 옷 멘들어 낡 물들이는 걸 하영 헛수파?
 # 물들이는 건 경 하영 헤지진 안허고 감옷 감물들여 놔근에게 옷 멘들앗주게, 감옷은 다.
 @ 아.
 # 나신디 감, 감물들인 기지도 있어. 저 몸빼 하나 헛 건.
 @ 물들여 낡 옷을 멘든 거라예?
 # 물들여 낡.
 @ 무사 감옷을 멘들앙 입어신고예?
 # 풀도 안 헛고이 그거 빨아도, 저 버물어도 버물 잘 타지도 안허고.
 @ 으.
 # 계민 그냥 물에 강 빨앙 딱딱 두드령 빨아근에 그냥 물르민 입으민 편찍허고 경허난.
 풀도 안 헛고게.
 @ 계난 좋아? 감옷이 경?
 # 으, 몸에 부뜨지도 안허고, 땀에 부뜨지도 안허주.
 @ 보통 감옷 경 물들이민 밧디 텅길 때만 입엇수파, 아니면은?
 # 집이서도 입곡.
 @ 집이서도 입고. 그민 어디 놀레 텅길 때도 입고?
 # 으, 놀레 텅길 때도 입어. 우리도 놀레 텅길 때 감옷 많이 입엇저. 난 입단 문딱 데껴 불엇주.
 @ 나중에야 막 뽀으로 놀레 텅길 때 입엇주만은 옛날에도 그 몸빼 입영 나중에 뭐 식계 먹으레나 잔치 먹으레도 가집니까?
 # 으.
 @ 켜찬허여?
 # 경헛주게, 옛날은.
 @ 아, 옛날에 경 허연.
 # 으, 켜 몸빼 우터레 치메 걸치는 사름 치메 걸쳐. 우리 어머님 꼭 치메 걸쳐났저. 밧디 가명도 치메 걸치곡 그냥 어디 올레 베끼디만 가젠 헛도 치메 걸쳐 가.
 @ 으, 계민 갈옷 우에도 치메 걸치는구나.
 # 갈옷 우터레 치메 걸치고.
 @ 예, 예. 그 예전에 여기에 그 그 저기 쉼 보레 텅기는 사름덜, 아니면 돌테우리들 그 사람들 입는 옷이 잇어났수파?
 # 거 갈옷 아니, 거 갈옷 입어.
 @ 갈옷 입어?
 # 어, 다 갈옷 입어.
 @ 그 사름들도 갈옷 입어?
 # 다 갈옷 입어.
 @ 계난 어쨌든 일허러 텅길 때 갈옷을 하영 입어신게.
 # 아이고, 옛날사 갈옷 아니민 입을 게 엇엇주게.

목자웃

- @ 계난 그 쉼 보레 텅기는 사름덜 보면 영 비 올 때 쓰는 거 잇잖아?
우장.
@ 우장. 그거 우장이렌 꼴앗수파?
으, 우장. 저 새로 여편에 만든 거. 거 우장.
@ 새로 여경 멘든 거예. 그 우장은 길이가 얼마이 와?
길이 입으민 이만이 와.
@ 그민 그에 하나? 하나로 뒤어 잇어?
다 하나로.
@ 하나로 뒤어 잇어. 그것도 아무나 멘들아집니까?
못 허여.
@ 누게가 멘드는 거라, 그런 건?
거 멘드는 사름덜은 잘 멘들아도 우린 몰라, 어명사 멘들아신디.
@ 몰라예.
우리 써나지도 안허고 그자 늬 입은 것만, 쓴 것만.
@ 그거 우장이렌만 곧고 도롱이렌 말은 안 써났구나?
그런 말은.
@ 몰라예. 우장 여기에 걸치고. 어깨에 걸치는 거파?
어깨에. 어깨에 걸쳐. 이디 막 넓어.
@ 이디 널러예. 우이는 뒤 씌니까?
우이는 무슨 페랭이.
@ 페랭이. 페랭이 같은 거 쓰고. 다른 모자는 엇어? 페랭이 말고는?
다른 모잔 엇어.
@ 그거는 산에 텅기는 사름덜, 쉼 보레 텅기는 사름들 입는 옷이고예?
그런 옷이주게.

물웃

- @ 아까 해녀들은, 아까 해녀렌 꼴앗수파, 뒤렌 꼴앗수파?
줌수엔도 꼴고 해녀엔 해 꼴앗주.
@ 해녀엔 해 꼴안. 해녀덜은 아까 속곳 입고 또 우이 뒤 입어났어.
속적삼.
@ 속적삼.
적삼 하나 행 톡 허게 부뜨게 입어, 몸에 딱 부뜨게 허영.
@ 그거 속적삼이엔 부를 거 물적삼이엔 부를 거?
물적삼.
@ 물적삼. 안에 속곳 입고 우이 물적삼 입을 거?
으.
@ 아니면 물적삼 입은 우이?

아니, 적삼 우티 입고.
 @ 적삼 우티 입고. 보면 그 속곳도에 영 이름이 잇잖아예? 여기 하나만 이실 때.
 # 이런 거 걸친 거 잘 입어, 해녀덜.
 @ 이 끈을 뭐렌 꼴옵니까?
 # 건 모르크라, 무슨 끈산디.
 @ 무슨 끈산디. 게난 우리 더 옛날에는, 우리 더 옛날에는 해녀 옷이 영 하나만 잇어나지 안해?
 # 해녀 이건 그냥 저 거세기주게. 그냥 속곳이주. 속곳은 이추룩 행 입어.
 @ 속곳은 이렇게 입어?
 # 우리 어머니네도 이추룩 행 입어났어, 다.
 @ 속곳에도 다 영 끈 달아?
 # 아, 끈은 안 들앙.
 @ 그지? 없지?
 # 으, 엇어. 켌디 해녀덜 입을 땀 요것이 돌아근에.
 @ 예, 이 끈 들고 삼춘네이 여기 두 개 든 걸 더 하영 입엇구나, 어깨마리로 행.
 # 아니, 우리 물질해나샤게. 우리도 물에, 물엔 들어났어. 조문힐 땀이 조문 틀 때 가근에 메역 터당 이녁 먹을 건 해낫저게. 성장에 사난 그냥 어릴 때부터 바당에, 올레가 물이라.
 @ 으.
 # 올레가 물이난 그 물에 강 빠지민 휘주게. 경허민 우리 어무닌 이레 올라오라, 이레 올라오라. 아니 올라오민 돌세기로 막 맞추명.
 @ 아, 하지 말렌?
 # 으, 그 물에 가근에게.
 @ 빠지카부텐?
 # 뭐 휘엄젠 경 해낫주. 경이나 해낫주, 물에 경.
 @ 해나지 안허연? 예, 예.
 # 해나지는 안해 부난 몰라.
 @ 여기 불르는 일름이 잇수과? 여기를 뭐렌 불르는 걸 몰라? 여기도 몰르고예?
 # 으.
 @ 예, 예 알앗수다. 해녀 이거 속곳 입고 물적삼 입고 머리에는 뭐 쓸 거?
 # 저 수건.
 @ 그거 그냥 물수건이렌 불러?
 # 물수건.
 @ 물수건예.
 # 웨목으로 현 물수건이 경 쓰주게. 그냥 수건은 못 써. 무거웁.
 @ 으.
 # 물에 চে영 나가 불렌.
 @ 으, 물에 চে영 나가 불렌. 아까 우리 결혼힐 때 옷 결혼사진 봐신디 삼춘네는 경 치마 저고리 입영 결혼헛잖아예?

으.

신랑 옷

@ 삼촌이 입은 옷은 아까 다 꼴아신디 남자들은 뭐 입었수파?

멍지옷.

@ 아까 남자 삼촌 입은 옷도 봤수다. 머리에도 쓰고.

멍지옷 입곡, 두루막 입곡.

@ 그것도 다 멘드는 거?

다 멘들앗주.

@ 여기 보민 이디 메는 것도 잇고 남자 옷덜 잇어.

으, 그런 거 잇어.

@ 신발도 잇고.

허리띠덜. 허리띠엔 허주게.

@ 계난 그거 빌령 쓰는 거 아니고 집집마다 그거 헐 때 멘들아?

멘들아실 거라.

@ 멘들아실 거라.

건 나가 남자 아니라부난.

@ 하하하. 계난 남자 삼촌 결혼헐 때 어떻 헐 줄 몰라?

몰르주게. 말도 안 꼴앙 아덜 두 개, 두 개 나사 군인 가 온 중도 알아신디. 군인 가 온 중도 몰라. 저건 어떻 허난 군인도 안 심영 감신고? 저것만 군인 가 불민 나가 막 밍음 풀어 낭 살 건디 허단 보난이.

@ 어머, 어떻헐 거?

두 개, 아덜 두 개 나사 군인 가 온 중도 알안.

@ 아, 기파? 아덜 두 개는 어떻 나져어, 경 살명.

어떻사 행 나신지 몰르주.

신부 옷

@ 예, 계난 신랑 입는 옷은 잘 몰르고? 어떻헐 입어져신지? 그 신부 입는 옷, 유동치메에.

양단저고리.

@ 양단저고리. 그건 친정에서 헤 주는 거파, 시집이서 헤 주는 거파?

친정에서.

@ 친정에서? 어디 가난 두 벌 헌데 험디다.

으, 강 왕, 친정에서 두 벌 허주게. 강 왕 꼴아 입을 거.

@ 계난 친정에서 하나 헤 주고, 시댁에서 하나 헤 주는 거 아니?

아니, 친정에서 두 개 허고 시집이서 하나.

@ 친정에서 두 개 허고 시집이서 하나. 그거 결혼허는 날 가 가지고 꼴아입어 또?

으.

@ 시댁에서 헤 준 걸로?

으, 그거 곶아 입고 집이 오민 또 이녁 집이 거 입고.
 @ 집이 오민 이녁 집이 거 입고. 아까 우이 장옷 입었잖아예?
 # 장옷은 빌영 입어.
 @ 우이 입는 건 하나만 해, 두 개 해?
 # 하나, 하나.
 @ 우이 쓰진 안허고?
 # 쓰진 안해. 거 막 옛날에 썼주.
 @ 삼춘 때는 쓰지 안허고? 계민 삼춘 걸영 왓수파, 꿩계 탕 왓수파?
 # 막 즈꿏디라도이 가메 탄.
 @ 가마 탄.
 # 막 즈꿏디랏저, 우린.
 @ 그니까. 요기서 요기난예. 가마 타고?
 # 가마 탄 시집갓주게. 겐 그 하인덜이 동산, 이녁 동산 가젠 허민 동산 굴렁 누리민 굴렁, 동산 굴렁, 동산 굴렁 허난 그냥 알려레 놔 부난 하하하. 시집은 간 거라.
 @ 하하하. 동산 굴렁 동산 굴렁 허난 그냥 금방 와 붙언.
 # 으, 즈꿏디 우이, 이 집이 시집을 안 오고 우리 그 성창에서이 영짓동산이엔 현 디 그 우리 집 두깁으로 영 돌아간 디가 잇어났어.
 @ 으.
 # 계난 그디 살았어게, 우리 시어명네가. 계난 동산 굴렁, 동산 굴렁 두 번 허난 간 놔 부난.
 @ 계난 결혼 가는 거 닳지 안헛겓다예?
 # 가는 거 닳지 안해.
 @ 닳지 안해. 웃겨, 하하하.
 # 결혼사 헤신디 무시겓사 헤신디 그자 부모덜 시키난 시키는 대로 들은 거뿐이주.
 @ 아.
 # 계난 우리 처년 뎨이 우리 동창덜 막 연애 펜지영 무시거 거추룩 헤도 우리 아버지가 연애허는 사름은 막 죽일 년으로 생각만 헤여. 영 말허는 거 보민. 요 누게 집이 딸은 연애 험젠 헤라. 누게 집이 딸은 연애험젠 헤라. 연애 펜질 왓다 갓다 허민 성창 바우로 영 돌아 오단 보민 누게가 연애 펜지 가져당 아이신디 보내어. 보내영 영 보민 연애 펜지민 물더레, 팍 허게 치정 물더레 데껴 붙고 경만 헤낫주.
 @ 음.
 # 경만 허단 이딘 새시방도 몰르고 연애 펜지가 무시거라 아무것도 몰른 디 시집가렌 허단 아니 가켄 막 그냥 어명신디 아니 가켄 헨 그 연애 펜지 허단 저 새시방은, 그디 누이가 우리 큰성 메누리로 왓어. 경행 헤신디 우리 동창덜 모인 때 가민 쳇 번 심영 악수허젠 막 허주게. 계민 악수허주, 악수헤근에 아이고 오랜만이우텐 사돈님 허명 웃이명 하하하. 경행 헤낫저게.
 @ 계난 이게 장옷이잖아예, 영 생긴게예?
 # 장옷.

@ 색 바랜 겨우다만은. 이런 건 아니, 이런 건 옛날에 안 봐놨수파?

무사게 난 영헌 거 입언 헛주게.

@ 영헌 거 입엇수파? 이것도 장웃이렌 해났어?

것이 장웃이주게.

@ 소매가 영 뒤편 잇어?

으.

@ 계민예, 요런 건 어떻허파? 다 똑ㄴ튼 거?

똑ㄴ타. 이건 너미 쫄르다. 장웃 흐끔 요만이 오메.

@ 아, 소매가 이만큼 내려와?

으.

@ 계민 영 뒤편 거예?

으.

@ 옛날에 그 시집을 때 입어난 장웃을 나중에 죽을 때 입는덴도 험디다만은.

으, 경헌텐 해도 우리 빌어단 입엇저게.

@ 빌어단 입어난. 치마저고리는 나 거 히고?

으, 장웃 하나만 빌어단.

‘호상웃’

@ 빌어단 입고. 예. 우리 사람들 돌아가시면, 어른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사름덜 허는 거 호상웃이렌 허잖아예?

으, 호상웃.

@ 호상웃은 삼춘도 다 준비해 낫덴 해신디.

낫단 저추룩 행 낫단 마딱 다 불태와불엇주.

@ 영 색깔 이신 거 행 낫단?

색깔 이신 거 행 낫단이, 치메고, 저고리고 색깔 이신 걸로 행 낫단 불태와 불엇어. 이젠 색깔 이신 거 입지 잘 안 헌텐 해근에 예, 불태와 불라, 이걸랑 불태와 됴.

@ 그건 누계가 해 준 거라난? 색깔 이신 건?

건 우리 큰언니가.

@ 큰언니가 삼춘 것도 해 준 거?

으, 신에, 신에.

@ 삼춘 신에?

으. 게도 줌도 아니 먹고이. 작년, 재작년이 태와 불엇어.

@ 경행 베로 새로 헌 거?

으.

@ 베웃 멘든 거 보민 여자 거 안에서부터 입는 거 츠츠츠 굴아 줌서. 뭐 뭐 이십디 까, 보난?

저 우리가 맞창 헌 것ㄴ추룩은 엇어라.

@ 아.

그냥 팬티이, 팬티엔 헌 것이 이만이 오게시리 이만이 온 거 하나 허고이 증의로 헨에 쓰봉거추룩 헌 증의로 헌 거 하나허고이 또 그다음엔 바지로 헨 안팍 낱에이 바지로 헨 하나허곡 경헨에.

@ 우이 건?

우이 건 적삼, 적삼허고 저고리허고.

@ 으.

그건 것털만 잇지, 소소헌 것털은 엇어.

@ 치메도 속치메, 겹치메 따로 잇을 거 아니?

으, 트로.

@ 저고리도, 저고리도.

두 개.

@ 두 개예, 속저고리, 겹저고리.

계난 안팍 놔 불엇어라.

@ 계난 속저고리는 안팍 엇일 거고.

으, 속저고리는.

@ 겹저고리는 안팍 이실 거고.

으, 안팍 잇어도 그냥 안이영 속저고리영 그찌 끼완에 만들어 불언.

@ 아예 끼완 만들어 불언?

으, 으.

@ 아, 아. 계민 하나로 만들어 불언?

으, 하나로 만들어 불언.

@ 그거 잇고 우이 두루마기 잇고?

두루막 잇고.

@ 얼굴에 씌우는 거 잇지예?

으.

@ 그런 거 뭐렌.

계도 검은호상은 엇어.

@ 검은호상은 엇언예.

검은호상은 엇인디 난 검은호상 문딱 슬아 불언 말째엔 보난 저거 폐완 보난 검은호상은 엇인 거라게. 계민 놔뒤실 건디, 놔들 건디.

@ 계민 이거 씌우는 것도 다 베로 만들어십디가?

으, 베로 만들안.

@ 여기 손에 찌는 걸 뭐렌 험니까?

손, 손토메.

@ 손토메는 주머니고, 손에 씌우는 악수?

악순가?

@ 손에 씌우는 장갑 같은 거?

으.

@ 것도 있고?
그냥 주머니 ㄹ추룩 멘들안게.
@ 아, 장갑추룩 아니고 그냥 주머니추룩 만들어?
주머니 ㄹ추룩 멘들아.
@ 그거 손토메렌 허여?
으.
@ 거기에 주머니 다섯 개 영 영 영 영 잇는 건 엇어?
그런 거 있어.
@ 거기에 뭐 헤 놓는 거?
거 손톱 끈어 놓는 거.
@ 손톱 끈어 놓는 거예, 그것 다섯 개 들어 잇어예?
으.
@ 그것도 있고, 베개 잇어?
베개 그냥.
@ 이불?
으, 베개 있고 이불 잇어.
@ 베개 있고 이불 잇어예. 그민 다 들어가는 건제.
다 들어가긴 다 들어가. 경헌디 이거 멩지로 만들앙 허는 건 이 허리가 잇주게. 허리에 감는 거.
@ 예.
그것이 있고, 겐디 그것도 엇고이 또 대렴포, 대렴포가 잇어이. 대렴포가 잇는디 대렴포도 엇고.
@ 대렴포가 어떤 거라?
대렴포는 우이 더프는 거.
@ 계난 영 십자로 만들어정? 아니, 그냥 이불? 이불, 요는?
천금지금. 천금지금이고. 대렴포는 우이 더평 그냥 포데기거치 크게 더프는 거.
@ 예, 예.
것이 엇어라.
@ 아, 포데기로 행 더프는 거. 그거 말고 그 우리 옷 다 입은 후제 싸는 거.
싸는 거. 그것이 대렴플 거라.
@ 그지예, 그제 대렴포라예.
으.
@ 싹 다음에 영 무끌 거잖아?
으.
@ 그제 대렴포라예. 원래 대렴포가 영 뒤편 잇지 안헙니까? 영 십자 모양으로?
건 무끄기 전에 허는 거.
@ 무끄기 전에 허는 거.
머리레 탁허게 어평.

@ 어평예.

그건 이실 거라, 그건 이신 거 똑 닮아라.

@ 아.

그거 말고이 다 무꺼 낡 우터레 탁 허게 더뜨게시리 허주게. 계난 어떤 사름덜은 치메도 더뜨고이 경허여. 난 베치마 하나 만들안 입어났주.

@ 으.

입언 베치메 곱게시리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땐가 베 흐 빌 쥘게. 베 그 때 네 빌을 쥐. 네 빌을 쥘 아방 찍시 흐나 나 찍시 흐나 허난 아방은 큰옷행 입곡 난 걸로 치메 만들안 입곡 우리 아덜덜 성제 난 때난 아덜덜 찍시, 궂 낭, 셋아덜은, 셋아덜은 궂 난 땐가? 죽은아덜이 궂 난 때구나. 성제 찍시도 흐 빌씩을 쥐. 경허난 그것도 낫단덜 아덜덜 흐 빌씩 어느제라니 쥘어.

@ 으.

주고. 저 죽은아덜궂장 나 찍시에 온 걸로 헨에 그것도 주고 나도 흐 빌 저 죽거들랑 무끄는 베이.

@ 으.

궂궂라 무신거엔 허느니? 무끄는 베.

@ 예, 영 무끄는 거.

그거 허렌 헨 낯 저디 놔둔디 거 이제 거시기나 해불민 족을 거고 헨 보난 저 사온 것에 그거 다 낫어라.

@ 아, 무끄는 베도?

그 찍시 흐 필 낫언게.

@ 계난 베로 영 그 호상옷을 만들기 시작헌 게 이제사과?

으, 얼마 오래지 안헐어.

@ 얼마 오래지 안헐어. 원래 옛날에는.

옛날엔 멩지로만 헐주게.

@ 그지예. 베 들어가민 안 뵈텐 헐어예?

아니, 안 뵈텐은 안 허고 멩지로만 허는 걸로 헐 멩지가 좋텐 헌디 멩준 허난에 좋질 안헐텐. 얼굴에 문탁 박아지고 무시거 허연에. 저 베론 허민 다 썩넨.

@ 음.

그것이 그 드르에 모신가 모시가 아니고 무시것고? 궂궂라?

@ 삼?

삼으로 판에 현 거난 다 썩어 불민 멘짜헐 아무것도 엇넨.

@ 음.

겐 그것이 경 좋텐.

상복

@ 경헐 그걸로 헐구나. 계난 그거는 호상옷이고, 돌아가시면 아덜들이랑 딸들이랑 메뉴리들이 입는 옷은 뵈렌 곱습니까, 그 영장헐 때?

그거? 그건 무시거엔 허여.
 @ 상복?
 # 상복이엔 허주.
 @ 상복이야말로 베로 만들 거 아니?
 # 치메이, 나도 치메 네 개 베로 멘들앙 낱 있어.
 @ 으, 베치메.
 # 베치메 만들안 중국베로 행 잇고 우이 건 아이 만들엇저. 우이 건 그때나 강 상 입으
 렌 허주.
 @ 으, 그 베치메 누게 입을 거라?
 # 메누리 세 개허고 뜯허고.
 @ 하하하. 아들덜 꺾 안 만들고?
 # 아들덜 건 있어.
 @ 아들덜 건 있어?
 # 저 아버지에 입어난 거 있어?
 @ 아, 아버지에 입어난 거 놔뒀구나.
 # 다 놔둔다. 베 좋은 건이, 우리 아버지 입어난 것이, 우리 집의 아방에, 우리 아버지
 입어난 거 낫단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난 입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난 그거 입고 다 헨
 입단 우리 큰아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난 큰아덜이 입엇저, 그거.
 @ 음. 게민 그것도 물린 지 대개 오래뒀 거다예?
 # 으, 오랜 거.
 @ 할아버지 돌아가신 때 입어난 거난.
 # 우리,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때 헨 건 막 오랫동안.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수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수파?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간 아버지 신, 아니 예순넛에.
 @ 아버지가 예순넛에? 그때 삼춘이 멧인지는 잘 모르고예?
 # 으.
 @ 어머니는 멧에 돌아가셨어?
 # 어머니는 게메 으든넛인가 셋인가? 야튼 으든은 넘엇어.
 @ 계난 삼춘이 사십 대에 돌아갓수다. 어무니가 마흔한 살에 낱아시난. 계난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부터 입영 어무니 돌아가실 때도 입고, 할무니 돌아가실 때도 입고, 아버지 돌
 아가실 때도 입고 계속 물리는 거?
 # 계속 물린.
 @ 좋습니다. 게민 나중에 삼춘 저기 호상웃 찍으레 올 때 그 상복도 찍어도 뒤쿠다예?
 낱 존 낱 왕예?
 # 으. 상복 하나 잇저게. 우리 큰아덜 입어난 거 하나만 잇저. 다른 아들 건 다 지네냥으
 로 아저가렌 행.
 @ 아, 지네냥으로 아저가렌 헨. 좋수다게. 큰아덜 거.
 # 으, 큰아들 거만 행 있어. 큰아들 건 하르방 입단 거고 다른 아들 건 저 우리 시어머

님,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신 때 입어난 거.

@ 아, 시어머니 돌아가신 때. 예, 예. 계난 우리 돌아가시난 아덜 상복이랑 사위 상복이랑 ㄴ릅니까?

ㄴ타.

@ 똑같애?

알단만이, 알단은 아버지 돌아가시민 알을 풀어. 실을 풀고 어머니 돌아가시민 이젠 영 집어근에 바우 멘들아근엿에 입곡 경허는디 사우는 그때만큼은 가시아방이 돌아가시민 영 꺼경이, 영 꺼꺼근에 단 헤영.

@ 요기도 트나지 안허여, 아덜 거랑 사위 거랑?

안 트나.

@ 안 뜨나?

다 ㄴ타 그진.

@ 사위 건 막 이디 넓은텐 험디다.

아니, 똑ㄴ따. 이딘 똑ㄴ따.

@ 두건도 아덜 거랑 사위 거랑 트나고.

음, 두건 즈는 거만.

@ 즈는 거. 어떻 즈는 거라?

이 우이 즈는 걸 그냥 꺼끄지 안허여.

@ 아버지 거랑 어무니 거랑 트난 거파?

아니, 아니. 사위 것만.

@ 사위 것만.

사위 것만이 저 다른, 그냥 거시기덜 복친덜 입는 거 영 ㄴ찌 노민 이것이 영 허민 이 걸 영 즈아사 허느네, 양쪽으로 즈아근에 주어근에 헤사느네. 사위 거는 접안.

@ 계난 여기 안이우다예. 먼저 접영 야이 뒤집영 곁으로 헤 가지고 곁으로 뒤집어진 거 다시.

이것이이 이것이 거시기 거트민이 기지 ㄴ트민이 이디 그냥 보통 거세기덜 저 친족덜 입는, 쓰는 두건은이 일로 영 주영 뉘싸 부느네이.

@ 으.

뉘싸부는디 상제 입는, 상제 쓰는 건 이거 꼬블리지 안허영 그대로 줘. 그대로 줘 우이만. 그대로 줘근에 꺼꺼근에 쓰주게.

@ 뒤집지 안행 우이로 영 줘?

견디 사우 것은 뒤집어.

@ 뒤집영 주영 뒤집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박아.

아니.

@ 다시 안 박아?

으.

@ 계난 복친덜 두건이랑 사위 두건은 ㄴ트구나.

ㄴ타.

@ ㄱ타. 어땜 돌아가실 때랑 아방 돌아가실 때랑 뭐 틀리지 안험니까?
건 틀리지 안허여.
@ 틀리지 안허여. 게민 남저 상복은 이 뒤에, 아들덜 거 뒤에 뭐 들리지도 안허여?
들려, 들려.
@ 뭐 들려?
군 힘벽 베 요만치데기 현 거.
@ 예.
그거 영 부짱.
@ 그거 뭐렌 부릅니까?
그거 무시것사 부르는데 모르켜.
@ 놀개렌 불러.
몰라.
@ 그런 거 몰라?
그런 건 몰라.
@ 게민 아덜 거에는 다 부터?
다 부째.
@ 큰아덜만이 아니고?
아니, 다 부째.
@ 사위 건 부터?
아니 부째.
@ 안 부째예. 게민 이건 트난 거예. 모자에 보면 두건 우에 아들덜은 이거 잇지 안허여?
으, 이거 아덜도 잇고 사우도 잇어, 거.
@ 다 잇어. 똑같애? 이거?
으, 그건 다 ㄱ타.
@ 아, 이건 다 ㄱ타. 기구나. 이제는 여자 거 가쿠다예.
으.
@ 딸은 어땜 입읍니까?
딸도 ㄱ치 그냥.
@ 여자는 밑에는 무슨 치마?
베치마 다.
@ 우이는?
우이도 베 거 올라나 광목 거 올리나.
@ 베치마 입고.
으.
광목으로 우에 옷 입고예. 게민 딸이랑 메누리랑 ㄱ타?
ㄱ타.
@ 바느질허는 것도 트나지 안험니까?
다 ㄱ타.

@ 머리에 씨는 건?
머리에 씨는 것도 다 ㄱ튼다게. 메누리히고 뜯히고.
@ 뭐 씹니까, 머리에?
머리에 뭐 씨. 뭐 거시기로 영 끈 거. 무시짓고 그거. 칩으로 끈 건가 무시거.
@ 칩으로 끈 거파, 아니면 산디쪽으로 끈 거파?
산디쪽으로 끈 것산디.
@ 예.
그거 끈 거 머리에 썩 경행 그 바우에 험벅덜 그 베 험벅덜 줄줄런히 들린 거난.
@ 으, 베 험벅덜 줄줄런히 들령. 계난 요거예.
으.
@ 이거 뭐렌 불러? 건대렌 불러?
으.
@ 계민 이거는 이진 남자 것파, 여자 것파? ㄱ튼니까?
이진 남자 거 닳다.
@ 남자 거 닳다? 어떻 걸 알아져?
아니, 이디 이디 영 베로 들린 것이 엇인게.
@ 아. 여자는 베로 영 들려, ㄱ네기가.
ㄱ네기 영 졸 졸 졸 졸 흔 멧 개 들려.
@ 남자 건 안 들령 이거 두건 우에 영 쓰는 거예?
몰라 남저도 그런 거 들리는 디사 어떻게 허는 디사.
@ 음. 맞수다. 건대. 그 상났을 때 복친덜한테 나눠줍니께, 두건을?
으,
@ 두건을 멧 촌꺼지 나눠 줍니까?
아이 친족은 다 나눠준다.
@ 사촌, 육촌 상관 엇어.
으, 그런 거 필요 엇어 팔촌꺼장 친족은 다.
@ 친족은 다 나눠 줘?
으, 늬도 다 주는다.
@ 여자덜도 몸빼 나눠 줍니께.
으, 여저덜도 몸빼 나눠 주는다 스촌만 스촌꺼장만 나눠 줘.
@ 몸빼는 스촌꺼지만 나눠 줘, 으. 남자덜 보면 여기 두른 거 뭐렌 곶아?
그것 ㄱ라 무시거엔 현다만은 것도 잊어블엇저.
@ 행경?
행경.
@ 어, 이거는 멧 촌까지 나눠 줘?
남저덜은 스촌꺼장은 허는 딴 허고 안 허는 딴 안 허여.
@ 으, 허는 딴 허곡.
이진 상제덜은 다 허주게.

@ 상제덜은 허고예. 게민 스춘 뉘면 행경허고 두건만 써, 남자인 경우에?
 # 복옷 헤 주주게, 복옷.
 @ 스춘도 복옷 험니까?
 # 스춘도 복옷. 우리 집의 하르방 돌아가신 때도 만딱 스춘 다 헤 췌저.
 @ 복옷이렌 허는 건 상제 입는 거영 똑ㄴ트게.
 # 상제 입는 거영 ㄴ타.
 @ ㄴ타? 아, 스춘덜도 다 입어? 상제덜만이 아니고?
 # 다 입어. 꼬마덜꺼장 다 췌어.
 @ 아, 기파? 우린 두건만, 두건허고 이것만 헛수다.
 # 이젠 다 안 험저게. 그냥 당 상제만 입곡 스춘덜은 두건만 씌주.
 @ 게민 여기는 아버지 돌아가셔실 때나 어머니 돌아가셔실 때나 두건을 즈는 방법이 트
 나지 안헤.
 # 게메게. 뜯나텐 나가 안 골암샤? 우이 꺼그지 안허영 그냥 허고 또 거시기?
 @ 누게 거가, 아방 거가? 아방 돌아가실 때 어뎡 험니까?
 # 아방 돌아가실 때. 경헝 꺼끄지 안헝 허곡이 이 실밥도 똑 두깁으로 나오게시리 허영
 두깁으로 나오게 험신가, 여기서 험신가 한복판으로 나오게시리 실밥을 헛어.
 @ 으,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 으.
 @ 어무니 돌아가실 뎡?
 # 어무니 돌아가실 뎡 상젠 경허영 써실 거여. 몰라,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뎡사 헤신디.
 @ 하하하. 예, 알앗수다. 어쨌든 아버지 돌아가실 때랑 어무니 돌아가실 때랑 틀려예?
 # 틀려?
 @ 그니까 삼춘안티 묻는 거?
 # 아니, 난 그거 틀린 걸 확실히 몰르크라.
 @ 예, 예. 알앗수다. 돌아가실 때 보면은 삼춘 아까 사진에도 영 나와십디다만은 우리
 제사 지내는데 앞이 영 놓는 거 잇잖아예? 지팡이도 잇고 산디짹.
 # 산디짹 무꾼 것도 잇고.
 @ 산디짹 무꾼 걸 뉘렌 곶읍니까? 북세기, 짹동?
 # 짹, 짹 무시거엔 헨다만은 것ㄴ라.
 @ 짹세기?
 # 짹세기엔 헤신가?
 @ 짹동, 북세기?
 # 아니, 짹 무시거라.
 @ 짹 무시거라. 짹세기, 짹세미?
 # 으.
 @ 잘 기억 안 나예?
 # 으.
 @ 그것도 영 몇 마디 무끄는 거 잇어?

것도 몰라.
 @ 그 지팡이는 어무니 돌아가실 때랑 아버지 돌아가실 때랑 종류가 트나텐 헙디다예.
 # 아버지 험 땀 땀나텐 해도 멧 모작 허는 건 그건 나도 몰라.
 @ 아니, 지팡이 나무 종류가 트나텐 허는디.
 # 아, 그건 머구낭 잇고이, 머구낭이 잇고 또 저.
 @ 대나무?
 # 아버지 으, 대나무가 잇고 아버지 돌아가민 머구낭으로 허곡 어무니 돌아가민 대나무로 헤신가?
 @ 꺼꾸로. 꺼꾸로 어무니가 머구낭.
 # 어무니가 머구낭, 응.
 @ 으.
 # 하여튼 땀나게시리 헤났어.
 @ 어쨌든 대나무허고 머귀낭.
 # 머구낭허고 대나무허고.
 @ 예, 예. 이제는 모름질허는 거 가 볼게예. 바지 들르젠 허민, 바지 만들젠 허민 영 종이 짤랑 들라야 될 거 아니?
 # 우리 어무니넨이 종이 짤랑 안 현다.
 @ 그니까 천 영 짤랑 들라야 될 거 아니?
 # 게메 천 즐르는 디.
 @ 어떻 헙디가?
 # 우린 그냥 그 바지들이 대개 그 바진 현 거 허영 아저다 뇌근에 그거 허영 대개 보아 근에 들라났주만은 우리 어머니넨 자로 딱딱 허게시리 멧 자 멧 치 그런 걸로 헤근에 헤나 부난 몰라.
 @ 삼춘은 현 옷 봐 가지고 그거 보명 영 비슷하게 짤랑 허고 어무니는 그런 거 잇이 그냥?
 # 그런 거 잇이 자로 뇌근에 올로 올로 우리가 말허는 거로는 멧 센치.
 @ 으.
 # 계난 멧 치 멧 자 영 헤근에 품 놓고 이 알단은 멧 치 멧 자 영 헤근에, 경 뇌근에 바지 딱 즐라.
 @ 경헝 딱 잘랑 허민 뵤디가?
 # 으, 경허난 옷이 경 곱게 나와.
 @ 곱게 나와. 삼춘 아까 바지 명칭 꼴을 때 보난 여기가, 여기가 상복예. 여기 옆에 들어가는 거예? 젠 여기 큰 셋복?
 # 으.
 @ 족은 셋복?
 # 으.
 @ 그거 므를 때 삼춘은 그냥 본 보명 썩른 거? 바지 보명 썩른 거?
 # 바지 우리 험 때사 바지덜 경 아방덜이 입어나샤계.
 @ 계난 안 만들야났구나.

만들어나진 안했주. 만든 거 그거 빨아근에 그냥 호메는 것만 헛주.

@ 으.

물르는 건 안 해 봤어.

바느질 방법

@ 물르는 건 안 해 봤예? 계민 이제 바느질 방법 물어보쿠다, 바느질. 바느질도 막 여러 종류가 잇잖아예? 영 찰찰하게 허는 것도 있고, 왓당 뒤로 왓당 허는 것도 있고.

으.

@ 가이 일름이 뭐짜?

뒷바느질.

@ 뒷바느질.

뒷바느질 영 미싱에 박으는 거 ㄱ추룩 허젠 허민 뒷바느질. 겐 즘질게 즘질게 허영 똑 미싱에 박은 거 닳아, 영 어평 보민이.

@ 으.

우리 어머니 경행 허더라고 뒷바느질허명.

@ 뒷바느질허명. 그냥 듬성듬성 허는 거는 뉘렌 꼴앗수짜?

그냥 그건 그냥 바늘질.

@ 그냥 바늘질. 호우는 거렌 안 꼴아난?

호우는 거?

@ 으.

호우는 거엔 꼴아도 그건 무시건 중 몰라.

@ 아, 예. 예.

그 말은 들어나긴 들어나도.

@ 영 밑에 바늘으로 밑에를 요거처럼 영 영 돌리명?

으, 그건 저.

@ 이거추룩, 이거 현 거추룩.

그건 무시거엔 현다만은.

@ 감치는 거?

음, 감침바늘.

@ 밑단 풀어지지 안허게. 계난 영 호우는 것도 있고 뒷바느질허는 것도 있고 영 감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잇수짜, 바느질?

엇어.

@ 엇어. 뭐가 쥘 어려웁니까, 바느질허는 거? 뭐가 쥘 튼튼해?

뒷바느질.

@ 뒷바느질 튼튼해예. 뭐가 쥘 쉬웁니까?

그냥 보통 바느질이 쥘 쉽주.

옷감 손질

@ 그냥 영 영 영 영 영 허는 거? 보통 바농질이엔 꼴아? 예. 옷감 손질허젠 허민 옛날 아부지 옷 헐 때 그거 입어나민 빨고 그거 다듬고.

잘도 그거 골치 아파났저, 옛날에. 계남 흥짓대에 감안 우리 어머니가 그 멧지름이 빨앙 풀 헤영 축축하게 물르민이 이젠 손 뺄 문딱 손 봐나근에이 흥짓대에 낱 감아.

@ 으.

흥짓대에 낱 감앙 다듬이를 허여. 계민 다듬인, 우리 다듬이 잘 헤났저. 이거 와닥닥와닥닥 허여근에 경헤영 다듬이 허젠 허민 흥짓대만 돌리렌 허여.

@ 음.

우리 어무니. 언니덜이영 올케덜이영은 그냥 무조건 다듬이질만 허고 난 영 흥짓대만 돌리렌 허민 흥짓대 어떻 헤영 피들랑허민 손이 어떻사 아픈지.

@ 맞아.

잘도 아파 경허민. 그추룩 헝 허곡, 경헝 감앙 두드렁 헝 손 뺄 다 흥짓대 감으민 마지막이라이.

@ 으.

경헝 감앙 두드렁 내노민이 빈질빈질허주게. 멧주가이 민질민질민질허여. 계민 특 허게 개영 낱당 옷 허고.

@ 옷 허고. 그거는 옷 허기 전에 다듬이질허는 거고 옷 빨젠 허민 어떻허여?

빨젠 허민 그냥 빨주, 어떻허여.

@ 비누 잇어, 그때. 옛날에?

비누 엇어.

@ 엇어.

비누 엇영 무시것에 빨아신고 나도 잘 모르켜.

@ 잘 모르켜. 물만 묻히진 안헤실 건디예. 계민 삼춘은 잿물 헝?

잿물 잇어났주게.

@ 계민 그거 어떻헝 뺨디가?

그거 물에 캅.

@ 뭘 물에 캅?

잿물을 물에 캅.

@ 어, 재를 물에 캅예?

재 물에 캅 헐 때도 잇고 잿물 사당이, 잿물이 잇어났어, 잿물이엔 현 거.

@ 아, 잿물도 폼니까?

풀주게.

@ 아, 아.

계민 그거 사다근에 그 웨목 거튼 건이 헤영허게시리 허젠 허민 잿물 헤단 헤야 헤. 잿물 사단 물에 캅 경헝 그것예.

@ 미지근헌 물, 석석헌 물에 아니면 딱딱헌 물에?

으, 흐썸 딱신 물에 낱 경헝 복작복작헝도 때가 지고 안 허민 그냥 숲아.

@ 잿물에 솟아?
으, 잿물에 솟아. 잿물에 솟으면 헤영헌다게.
@ 으, 잿물에 솟앙 경헝 헝굽니까?
으게, 헝굉 빨아야주, 잘 빨아야주. 두어 번 빨아야 뒤.
@ 으, 삼춘네는 집이서 빨레허지는 안헤실 거 아니?
아니, 집이서 안 헝. 우린 바닷가 엠이라부난 물이 가차웁주게. 계난 물에 강 빨아.
@ 물에 강 빨아. 나는 물에?
으, 나는 물에 강.
@ 그 잿물 헝 때도 솟도 가정 가고?
아니, 솟은 집이서 솟앙 가주.
@ 아, 집이서 솟앙 강 그디서 빨앙 왕.
빨앙 왕 집이 왕 그것에 낵 솟앙 겐 딱시 물에 강 딱시 빨아.
@ 아, 물에 강 딱시 빨고. 경헝 그건 널민 뵈 거?
으.
@ 경 빨레헤난 것도 다듬이질허고 헝니까?
으. 경헝 헤영케시리 빨앙, 멧 번 빨아 낵 흐민 또 풀헤영, 풀헤영 딱시 다듬이질허주게.
@ 음.
이불안도 다 경헝 다듬이질헝어. 이불안 헤낫저.
@ 이불안 헝 때사 이불은 그냥 천이니까 흥깃대 감앙 다듬이 헝 거주만은 옷은 멘든 거는.
그 바지 그이 이추룩헌 밧 이신 바지 헝 거는 그건이 손 잘 안 보민 틀어정 안 뵈어.
헝 짝이 늘어나 불어.
@ 그지예. 그거는 영 흥깃대에 감앙 다듬이질 못 헝 거잖아?
무사 허여.
@ 여기 실밥 때려 불면은 그거.
아이, 실밥이 엇주게. 실밥 킬킬이 다 뜯어 부난.
@ 계난, 계난 삼춘 서답헝 때 옷 바지 이신 거 다 뜯어 낵 서답할 거?
으.
@ 계난 경 곶아 줘야지. 하하하.
튼영.
@ 다 튼영예. 계난 저고리도 빨젠 허민 우리는 그냥 옷 만들어진 대로 그냥 빨잖아. 옛날엔 아니라예?
으, 옛날엔 아니.
@ 다 튼영예.
이 앞섭도 다 뜯영.
@ 앞섭도 다 튼영 그거 잿물에 솟앙 빨아 낵 흥깃대에 감앙 다 다듬이질헝 다시 할 거.
만들어사.
@ 다시 만들어사. 기라. 옷 손질헤젠 다 경헝 거라예? 예, 예.
겐 우리 어머니넌 노는 시간이 엇엇어. 그 옛날엔. 그거 그냥 빨저 풀허저 다듬이질허

저. 팔월은 나민이 막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가이 저녁 댐 댐민 항상 저녁 때덜 그 다듬이질을 허주게. 계민 저녁 때쯤 댐민 와닥닥 와닥닥 행 우리 어무닌 바농질 헤 노난 그 다듬이 경 잘 헤 노난 에이구 저 ○○ 어명네 집이 다듬이 소리 보라?

@ 음.

우리 오빠 이름이 ○○라낫주. ○○네 집이.

@ 동주.

○○.

@ ○?

아. 우리 오빠덜 이름은 다 ○ 자 돌림이난이 ○○ 우리 큰오빠가 젤, 젤 우이라. 오빠덜 ○○, ○○ 셋오빠, ○○ 작은오빠, 따시 이제 스춘오빠덜은이 ○○, ○○.

@ 으.

또 양○○이.

@ 으.

○○ 하하하.

@ 예, 예.

기냥 그런 ○ 제 돌림으로 만딱, 흔 열 멧이나 댐어, ○ 자 돌림으로 댐 것이.

@ 겐 ○○네 집이 다듬이 소리가 들렘구나, 험구나.

으, 동착에 저 ○○네 집이 다듬이 소리 보라. 경행 막 헌덴.

@ 아, 동착에, 계난 아침이?

동착이엔 현 건이 선창이 이렇게 댐지 안헤사?

@ 예.

이건 동착에 이시난 동쪽 선창. 요딘 서쪽에 이시난 서쪽 성창. 계난.

@ 동착에?

으, 동착에. 우리 집이 이신 디ᄇ란 동착이엔 허주게. 계난 동착에 ○○네 집이 다듬이 소리 보라, 다듬이 소리 보라. 경허명.

@ 계난 그런 서답허고 옷 장만허는 거를 팔월 멧질 전이 경 하영 헛구나?

으.

@ 멧질 때 입을려고?

멧질 때 입을 거.

@ 멧질 때 입을 거예. 계난 이거 다듬이질허젠 허민 흥짓대도 잇어야 댐고.

계메 흥짓대도 잇고이, 다듬이판도 큰 거라낫저. 이만이 이만은 허여, 흥짓대보단 약간 쫄르주. 흥짓댄 이만이허고 경허민 그 다듬이판은 나무로 댐 거, 춤낭으로 댐 거이 그 우이서 경 다듬이질을 허여.

@ 그 다듬이 판을 댐렌 불럿수꽈? 그냥 다듬이판이렌 곱앗수꽈?

아니, 아니.

@ 안반?

안반.

@ 으, 안반예. 계민 안반 폭은 얼마나 헤?

폭 요만이.
 @ 폭은 요만이 하고 길이는 이게 너비라예?
 # 으.
 @ 길이는 이 정도.
 # 아이, 그 정도 더 뒤어.
 @ 더 뒤. 이 정도?
 # 이 정도 뒤어, 이 정도.
 @ 그럼 흥짓대는 안반보다 더 길어야 뒤? 그민 우리 옷 감을 때 안반 너비만큼 옷을 감는 거라예?
 # 으.
 @ 우리 흥짓대 잡고 영 영 영 영 험시민 삼춘이 옆이서 돌려줍구나.
 # 돌려줍주.
 @ 이쪽에 누구 잇고 이쪽에 누구 잇고?
 # 아니.
 @ 혼자만?
 # 으.
 @ 영 돌리민 영 영 영 영 다듬이질허고. 아, 흥짓대가 더 길엇구나.
 # 흥짓대가 긴 걸로 알아. 나가 영 심영, 그 안반보단 베끼더레 나오게 험 심영 헤나난.
 @ 삼춘 여기 보난 삼춘 다듬잇방망이 이신 거 닥읍니다.
 # 으, 잇어.
 @ 예, 찍영 가쿠다. 하하하.
 # 문여도 왕 찍어갓저게.
 @ 문여 누게가 왕 찍어갓디가?
 # 문여 와낫젠, 와난 사름 오켄 허명.
 @ 아. 예, 예.
 # 윤디도 두 개나 잇어, 우리 집이.
 @ 윤디도 찍영 갈 거. 게난 윤디는 언제 쓰는 거꽈?
 # 그건이 옷 험 때마다 써. 우리 어무니 옷 험 때마다 쓰고 나도 경 많이 써낫어. 윤딘 이 불 화리에 영 딱뚝한 디레 낫당, 낫당 이런 짓 험 때도 싹 허게 윤디로 놀리민 짓이 오 그라정 뒤곡이. 실밥 허는 것도 그 윤디로 싹 허게시리 놀리민 뒤곡.
 @ 게난 옷 험 때 허는 게 서답험 허는 게 아니고 옷 멘들 때 허는 거라?
 # 멘들 때.
 @ 바농질헤낭 그걸로 쪽.
 # 옷 멘들 때게.
 @ 으, 멘들 때. 윤디 써난 거. 그 윤디 말고 큰 거, 다리웨는 안 써낫수꽈?
 # 무사 그 윤디말고 그거 저 이제 이제 거트민 아이룽.
 @ 으. 아이룬.
 # 아이룬인디 그땐 그것 ㄴ라 무시거엔 헤낫저만은.

@ 다리워?
으, 다리워.
@ 예.
다리워엔 행 그, 우리 어무닌 이제 날ㄴ라 옷 심으렌 행 다리워질 맨날 잘 헤낫어, 아무튼지.
@ 영 심읍서.
영 심엉이. 영 심으렌 행.
@ 멩심행 잘 땡기라, 땡기라 영 헐 거예?
으, 경헐 거주.
@ 영 심은 차로예?
경 허는 거.
@ 게민 이 다리워는 이제사 전기 꼽안 허는 거주만은 옛날은 이 다리워는 어떤 거랏수파?
동골랑헌 것에 즈룩 이만인 들령이 그 즈룩 심영 그 다리워 속에 불 살땡, 솟에 불 살땡 그레 놔. 경헐 짹짹 허게시리.
@ 게난 똑 모양이 지금 후라이팬?
으, 후라이팬 닳은 거.
@ 후라이팬 계란.
족은 거.
@ 족은 거예. 겐 거기 후라이팬 위에 솟 올령 낳 영 심으민 영 영. 이거 잘못헐 여기 거 불통 털어정?
그레 털어지지 안허여. 영 통이 흐뎡 영 기퍼 부난.
@ 기퍼? 게민 냄빈게, 냄비.
으, 냄비 닳아.
@ 하하하.
냄비보다는 게도 흐뎡 야트고.
@ 아니라, 후라이팬이라. 넓이 딱 보민예.
후라이팬 닳아.
@ 거기에 영 영 영 영 헐 거. 그것도 잇어나고예?
그거 니량 잇어난 우리도 이디 신 때 나가 그거 헐 살아신가?
@ 음.
옷 다령 입젠 허난 그거 헤단 헤나실 거라.
@ 음.
글후젠 아이론 헐예. 아이론도 일본 거, 이젠 나 이제도 일본 거 썸서.
@ 음. 옛날서부터 써난 거?
백 볼트짜리.
@ 백 볼트짜리? 그것도 짹 가쿠다예. 아이롱예.
백 볼트짜린디 그 무시것에 꼽아사 뉘어.
@ 예, 예.

이백 볼트짜리에 꼽아사.

염색

@ 예, 예. 전환기에 꼽아사. 그거 손질할 때이고, 아까 염색하는 거, 감물들이는 거는 곶
앗고 삼춘 물 사단 물들여놔잖아예? 물감 사단예?

이제도 나 물 사단 들이는 거 있어.

@ 예, 옛날에 물감 들일 때는 어떻 들여놔수파?

옛날에 물들일 땐이.

@ 으.

우리 어머니가이 멩지에 경 물을 들이더라고. 멩지에 물을 경 들이더라고. 멩지에 물들
이는, 물 헤영이 물감 헤영 무신 셋복 님은 것에이, 그런 것에 쌍 쌍 벵 허게 우이 영 돌
려. 경헝 물더레, 메지근헌 물더레 이거 셋사라민 영 헌 것에 낡 카근에 영 영 영 영 흔들
흔들 흔들 헤 가민 그거 다 풀어져. 풀어경 주생이 있어, 경해도 그 소곱에이. 그 주생이가
강 그 기지더레 가민 그냥 붉은 디 푸린 디 헤 불영 안 뉘주게. 그추룩 헝 허젠 경헤 낡
이젠 그 멩지름이 이거 다라 하나 노민이 이거 다 풀어 놔.

@ 으.

풀어 낡 날라 영 잡으레 허여. 잡으민 이제 우리 어무닌 그 물에 적지명 영 영 영
영 앞더레 등겨 놔이.

@ 아, 한꺼번에 팍 놓는 게 아니고?

경허민 안 뉘어.

@ 안 뉘어.

흐끔씩. 그냥 이디 영 다 풀영 날라 쉼헝 헝이.

@ 이거 멩지우다. 이거 차례로 헝 거. 영 허민.

영 허민이.

@ 이진 다라이.

이진, 이진 물, 물색 칸 다라고 이진 아무것도 아니 칸 다라지.

@ 예, 예.

경허민 영 낡, 요 영 놔근에 영 영 영 영 영헤영 영 영 영 영 앞더레 등기명 이디서
영 헤사 이제 물들이는 것도 경헤사 물들여지주, 게 안 허민.

@ 아, 한꺼번에 팍 답아 불민.

안 뉘, 안 뉘.

@ 안 뉘는 거.

안 뉘다.

@ 예, 예. 알쿠다. 그민 우리 물감 상 오는 게 ㄱ루로 뉘 것파?

ㄱ루로 뉘 거.

@ 아, ㄱ루로 뉘 거 그림 이거 ㄱ루우다예. 물감을 여기 낡 이거 무경, 무경 그냥 ㄱ루
를 물에 타는 게 아니고 무경, 여기 다라에 물은 딱뚝한 물이파?

메지근헌 물.

@ 미지근, 메지근한 물. 여기 낱 이거 영 푸는 거라?
 # 손으로 영 즈으멍.
 @ 즈으멍 플리렌.
 # 으.
 @ 영 영 행 여기 물감 타 놓고 경행 한 번만 그 과정을 하면 물들여지는 거?
 # 으, 들여져. 경해 낱이 거 솟아여 뒤.
 @ 아, 예. 예. 경행 그거 물 다 현 걸 어디에서 솟아?
 # 저 냄비에라도 놔근에, 솟이나 냄비에나 낱 솟아야 뒤.
 @ 으, 솟앙?
 # 으, 현 번 솟앙 이젠 꺼내어.
 @ 꺼내어.
 # 겐 물에 이젠 행귀.
 @ 행귀.
 # 물에 이젠 두어 번 행과 뒤 경행 널민 이제 뒤는 거.
 @ 아, 예. 염색허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아, 염색허는 걸 몰라났구나.
 @ 예, 예.
 # 물론 사람 하. 우리만이 현 사람도 물론 사람덜 하. 경허민 팍 허게 등강 허난에 막 얼룩베기 지고 어떻헛젠 허권데.
 @ 경허난 여기에 풀지 안허민 맞수다. 여기에 다라에 ㄱ루 카불민 풀어지지 안헛 거 닐아, 잘.
 # 안 허여.
 @ 골고루도 안 뒤 거 닐아.
 # 으, 골고루도 안 뒤고.
 @ 여기에 풀어 낱예.
 # ㄱ루라도 경해사주.
 @ 경행 물들인 걸 솟에 현 번 솟아.
 # 으, 솟아.
 @ 솟는 건 몇 분 정도 곧 솟아냅니까? 흐뎡 더 불 솟아야 뒤 거?
 # 현 이 분쯤 솟아야 뒤어.
 @ 솟아야 뒤어. 경행 건져낸 두어 번 행퀘 널 거. 염색허는 옷은, 삼춘도 염색 많이 헤 낫잖아?
 # 으.
 @ 어떤 옷들 염색헛 입엇수파?
 # 난 모시옷.
 @ 모시옷. 아까 색깔 들인 거 모시옷들. 삼춘 속곳 같은 건 많이 안 헤났구나.
 # 속곳도 헤낫, 헤나기사 헤낫저만은 난 속곳 경 하영.
 @ 안 헤나고예. 아이덜 교복도 만들어났다메?

교복도 만들어놔주게.
@ 그것도 물들영 현 거?
으, 검은물 들영.

도구

@ 검은물 들영. 예, 예. 아까 우리 실 멘드는 도구들은 잘 모르고 삼춘 아까 멘네 씨앗?
으, 멘네씨앗.
@ 멘네씨앗 그것만 아는 거라예? 그거 아까 이름들 알아지쿠과?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낄앙 앉아야 돼어.
@ 이거 낄앙 앉아야 돼.
낄앙 앉아서주. 게 안 허민 이것이 도망가 불주게.
@ 도망가 불어. 게민 여기 끼울 거라예? 요 두 개 사이에.
요 두 개 사이에 이제 멘네 잡아어.
@ 으.
멘넬 잡앙 이거 영 영 이거 돌려 가민 막 잘 들른 건 씨 툃툃하게 떨어지명.
@ 앞더레 털어질 거, 뒤로 털어질 거?
앞더레 털어지명.
@ 나 앞더레 털어질 거.
뒤터레, 뒤터렌 소개가 나가.
@ 으, 소개가 나가.
또 질겨근에 뭐 현 거 이디가 먹영 나가질 안허여.
@ 아. 아, 여기 먹영, 감아정예?
으.
@ 나가지 안헤여.
나가지 안허여.
@ 그건 잘 안 몰른 거?
안 몰른 거.
@ 안 몰른 거.
잘 몰라사.
@ 잘 몰라사. 그럼 이 판을 뭐렌 불르는 건 몰라?
그거 판은 몰라.
@ 이거 뭐렌 불러?
건 손잡이주.
@ 손잡이엔 불럿수파, 즈룩이렌 불럿수파?
즈룩이렌 불르는 거 몰라.
@ 손잡이라예. 여기 신식인게. 요거 불르는 낭 이름 몰라예?
으.

@ 요것도 몰르고예.
 # 짓도 몰라.
 @ 예, 예. 이것만 봐놔지예? 이런 도구는 안 봐놔지예?
 # 이거는 안 봐봤어. 이거 썰 아니가, 썰.
 @ 썰 빠는 거. 계민 이 동네 실 허는 거는 안 헤놔어?
 # 엇어.

바느질 도구

@ 예, 예. 이제 바느질허젠 허민 아까 우리 바느상지 다 봐신디 바느상지 안에 들어가는 도구덜이 뭐 뭐 잇수꽂? 이름덜을 불러 봅서.

그.
 @ 바느질허젠 허민 필요힌 게?
 # ㄴ새, 싹패.
 @ ㄴ새, 싹패 또? 바느도 셔야 될 거고.
 # 으, 바느도 잇어야 될 거고.
 @ 으.
 # 그거 말앙 무시거.
 @ 바느 아까 보명예?
 # 으, 보미영 ㄴ는 건 저 무시거 속돌.
 @ 속돌. 그 속돌은 상 오는 거 어디 강 좃엉 오는 거?
 # 저건 바당서 좃어 온 거.
 @ 속돌에 영 영 영 영 곶 거.
 # 으, 이거 속돌이민 속돌에 영 영 영 영 곶민 다 벗어져.
 @ 예, 예. 바느상지 보면 바느 꼽는 저거 잇수다예.
 # 으.
 @ 그거는 뭐렌 불럿수꽂?
 # 그건 무시거엔 불려져시?
 @ 요거, 요거.
 # 바느참지라, 저거.
 @ 바느참지라, 저거.
 # 바느쫄레, 바느쫄레.
 @ 예, 바느쫄레렌 헐 거. 바느질허젠 손 아프지 말렌 끼우는 건?
 # 골미가죽.
 @ 골미가죽?
 # 으.
 @ 골미렌도 허고 골미가죽이렌도 허고?
 # 으, 가죽으로 멘드난 가죽이렌 현 생이라.
 @ 삼춘, 그 골미가 옛날에 췌로 된 골미는 안 써난?

그런 거, 난 그런 건 안 써났어. 우리 어무니넨 써났어.
 @ 어무니넨 써난예. 경행 가죽으로 뉘 거 골미. 또 또 영 재젠 허민 옷 만들 때 재젠 허민 뉘가 있어야 뉘? 자?
 # 자.
 @ 으, 으.
 # 자 있어야 뉘고.
 @ 자는 보통 길이가 얼마나 뉘니까?
 # 저거 두 자민 일 미단가?
 @ 두 자. 두 자짜리 길이, 이 칸 하나를 뉘렌 곶아? 바농예. 잣대에?
 # 잣대에?
 @ 으, 치?
 # 으, 흔 치, 두 치.
 @ 흔 치, 두 치. 흔 치가 뉘 개면 흔 자?
 # 열 개.
 @ 열 개. 그민 아까 거 열 개 길인게?
 # 으, 열 개 길이.
 @ 보통 오십 센치 조금 안 뉘 거 가트우다.
 # 으.
 @ 흔 치. 흔 치가 열 개예?
 # 으.
 @ 이 치는 뉘로 재났수파, 삼춘?
 # 으?
 @ 이 치, 이 길이. 옛날에는 이 잣대도 상 오지 안허영 집이서 만들어났잖아.
 # 저거 만든 거, 저거 우리 아버지 만들어 준 거여, 저것도.
 @ 아버지가 만들어 준 거?
 # 으, 우리 아버지 만들어 줬어.
 @ 무신 낭으로 만든 거파?
 # 무신 낭으로 만든 건 몰라.
 @ 계민 어무니 쓰단 거 물린 거 아니면 그냥 삼춘 곶로 만들어 준 거?
 # 나신디로 만들어 준 곶 거라. 몰라, 저건 어머니 쓰단 것산디. 나신디 왕 하나 꺾꺾어. 어떤 것산디.
 @ 아.
 # 계난 저건 어머니 쓰단 곶 거라.
 @ 어머니 쓰단 곶 거라예. 계민 이거 치 보면 옛날에는 이 치가 성냥개비 길이렌 험디다.
 # 으, 성냥개비 길이 뉘어.
 @ 흔 치. 자 있어야 뉘 거고예. 흥짓대도 잇고. 이거는 그냥 방망이렌 곶을 거?
 # 다듬이.
 @ 다듬이.

다듬이마께.
 @ 다듬이마께, 예. 맞수다. 다듬이마께, 흥짓대, 다리는 거 윤디.
 # 윤디.
 @ 윤디 밑에 노는 판도 있어?
 # 있어. 것도 나신디 있저.
 @ 하하하.
 # 윤디판. 윤디판 엇영은 나도 못 살아.
 @ 윤디판 엇영은 못 살앙예. 윤디판도 잇고예. 삼춘, 이거 다리웨도 헤났고.
 # 다루웨도.
 @ 다시 한번, 다.
 # 다루웨.
 @ 다루웨.
 # 그건 영 불 살랑 낱 다리는 것이 다루웨고.
 @ 게민 옛날 옷 만들 때 윤디 허민 옆에 화릿불도.
 # 화릿불 있어야, 꼭 화릿불 있어야.
 @ 꼭 화릿불 있어야. 화릿불 잇젠 허민 화리도 있어야 뉘쿠다.
 # 으, 그럼. 화리 있어야주.
 @ 어떤 화리 잇어났수파, 삼춘넨?
 # 그냥.
 @ 동그랑헌 거?
 # 동그랑헌 화리.
 @ 그거 무슨 화리렌 불르는 이름 엇어?
 # 정동화리.
 @ 정동화리도 잇어난예? 정동화리도 보민 영 발 이십디다예?
 # 발 잇어.
 @ 발 몇 개나 잇어?
 # 네 개.
 @ 네 개 이신 거파?
 # 네 갠가 세 갠가?
 @ 세 개 닳아.
 # 으, 세 개 닳다.
 @ 예, 영 동그랑헿예?
 # 으, 바우에 영 납작허고.
 @ 바우에 영 납작허고. 그 납작헌 디 윤디 딱 걸쳐 놓고.
 # 으, 걸쳐 놓고.
 @ 그 다리웨에 슷 놓젠 허민 여기서 영 집영 놔야 뉘잖아?
 # 으.
 @ 요거 뉘렌 불리난?

불하시.
 @ 하시렌 불러난?
 # 으.
 @ 일본말 씻구나게.
 # 일본말, 옛날엔 다 일본말 헛주게.
 @ 예. 이거 부젓가락, 불젓가락 그런 말 안 쓰고예?
 # 그런 말 안 씻어.
 @ 불하시?
 # 불하시.
 @ 예, 좋수다. 경행 다리미 써난 거. 흥짓대는 엇어 불고? 흥짓대는 어땡 생겼어?
 # 흥짓대는 요만큼 부루기 허여이. 요만큼 부루기 허영 요만큼 기레기 헨다게. 요만큼 기레기 허영 그 저 거시기 판에 낡 감을 때 영.
 @ 보통 천 보면.
 # 천 낡.
 @ 천 하면 이 폭이.
 # 으, 그 폭 뒤희주게.
 @ 이 폭이잖아?
 # 으.
 @ 이 폭 하나 뉼 겨우다.
 # 그 정도 뉼는 것도 있고.
 @ 보통 감젠 허민 요거보다 더 나와야 뉼 거 아니?
 # 으. 더 나와야.
 @ 이거보다 더 커야 뉼예. 이 폭이 얼마나 뉼는 건진 몰라?
 # 건 몰라.
 @ 건 몰라예. 보통 이거 한 폭. 이것보단 더 넓어야 뉼 거 닳아.
 # 아니. 이 정도, 웨목은 이 정도 뉼곡이.
 @ 으, 뉼가 넓읍니까?
 # 웨목은 두 곱을 쳐사 거 흥짓대에 감주게.
 @ 아, 넓어 부난.
 # 넓어 부난 두 곱을 쳐사고 멩지는 웨폭으로 멩준 이거보다 좁주게.
 @ 아, 멩주는 폭이 좁고 웨목은 폭이 넓은 흥짓대 감을 때 웨목은 접영 두 곱으로 허고 또 광목 같은 건 안 헤?
 # 게 광목이 웨목이주게.
 @ 아, 광목이 웨목이파?
 # 으.
 @ 광목 있고, 웨목 있고 다른 건 안 헤 받?
 # 다른 건 엇어.

신발

@ 다른 건 있어. 예, 두 개. 이제는 신발 물어보쿠다, 신발. 지금 말고 옛날 신어난 신 뭐가 이신고?

고무신베끼 더 있어?

@ 고무신 신기 전에, 고무신 나기 전이?

초신.

@ 초신. 초신 신어납디가?

으, 우리도 초신 신영 학교도 다녀나고.

@ 으, 학교 다닐 때 초신 신어. 시집갈 때는 무슨 신 신었수파?

고무신 신언.

@ 고무신 자기 거 신은 거?

자기 거 신었주.

@ 어떤 고무신 신었수파?

하얀 고무신.

@ 하얀 고무신. 그 시집갈 때로 생각해 보면 그 전에도 집어서 고무신 신어졌수파?

으. 학교 할 때도 고무신 신어났저, 우리.

@ 초등학교 갈 때도 고무신 신어난?

으.

@ 고무신 빨리 왔다예.

검은, 검은 반화 그런 고무신도 신어났주만은 흰 고무신을 우리 오빠가 일본서, 일본 다닐 때난 허여 왔어라게. 경허난 흰 고무신 신영 다녔주.

@ 오빠가 일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헛주.

@ 헛? 일본서 학교 헛수파?

아니, 학콘 여기서.

@ 여기서 해도.

조천, 조천초등학교 헛어, 옛날. 우리 큰오빠도 우리 셋오빠도.

@ 계난 여기 일본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일제시절에 일본 강 돈 벌레 왔다 갔다 헛?

음.

@ 일허러?

일허레 가낫주게.

@ 일헤레.

배 허연에, 배 헤연 텅길 때난 이녁 배난.

@ 이녁 배로?

이녁 배난.

@ 오라방이 배가 있어난? 아아.

우리 아버지가 사 줬주게.

@ 아버지가 배 헛었으니까.

으.

@ 그민 혹시 그 배로 사람들 시경 왔다 갔다 했수파, 그건 아니?

아니. 계난이 그때 제국시대 그 배 산이 그 배 이름은 무시거랏저만은 배 이름은 잃어 불었어. 우리 아버지 배는 삼신환, 난 생전 잊어붙어지지 안혀여. 삼신환 배.

@ 아.

경헌디 그 배 사난에 일본 강 장서허명이 그디서 일본서 집을 시경 이레 갖닥 저레 갖닥 해났어.

@ 아. 오라방도 장사했구나. 일본서 물건 행 왕 여기 왕 풀고.

여긴 안 오고 일본서 원, 외국사 텅겨신디 건 몰르고. 경헌디 흔 번이나 멧 년에 흔 번이나 이디 와.

@ 으.

올 때 일본서 그 고무신을이 여자 고무신을 행 와근에 주민 우리도 학교에 그거 신으민 아, 너 고무신 신엇다이.

@ 다 초신 신영 다닐 때?

으.

@ 야, 어디 시난?

우리 오빠 헤 왓져. 야, 오빠 이시난 고무신도 신영 텅기고. 다 그때 초신 신고 계다신을 때.

@ 으.

경허명 헌디 그 고무신이 경 아리더라고.

@ 으.

흐끔 신으난 짹짹 짜져.

@ 음.

으라 배 가정 와도 경 헤라게.

@ 음. 그 고무신이 하얀 고무신?

하얀 고무신.

@ 우리 한복 입을 때 신는 그 고무신?

으.

@ 그다음 우리 일헐 때 신는 검정고무신, 그런 고무신은 언제 나왔수파?

그것도 그때.

@ 그것도 그때. 그거는 좀 덜 야리잖아.

으, 그거는 질겨.

@ 그건 질겨. 하얀 고무신이 야려.

그건 우리 아이덜 클 때 그런 걸로 신영 텅겨져.

@ 검은 고무신.

검은 단화엔 허느냐 것ㄴ라 무시거엔.

@ 반화?

검은 단화엔.

@ 그 고무신을?
으.
@ 으.
검은 고무신.
@ 맞수다. 검은 단화. 삼촌, 가족신 같은 건 안 봐 봤수파?
보긴 해낫주만은 신어 보지 안헐.
@ 신어 보진 안해. 누계 신은 걸 봐난?
우리 아버지 신은 걸 봐나신가?
@ 그 남자 삼촌 장가갈 때 가족신, 거 바리지 안헐지예? 뭐 신어신지?
아니, 그건 봤어.
@ 그건 봤어.
가족신, 건 가족신.
@ 예, 여기 옷에 가족신. 예, 그건 봤? 하하하.
으, 가족신은 봤.
@ 예, 나막신은 알아지쿠과?
나막신은 나도 신언 텅겨난디.
@ 어떤 때 나막신을?
비 올 때, 비 올 때 나막신 신영.
@ 나막신 곶앗수파, 남신이렌 곶앗수파?
남신이엔도 헛주만은 나막신이엔 헛주, 나막신.
@ 비 올 때.
눈 올 때.
@ 눈 올 때. 그 학교도 나막신 신영 가난?
으.
@ 고무신 신기 전에?
으, 건 그전에.
@ 그 전에, 예. 나막신 신영 걸을 만헐디가?
그땐 걸을 만헐주게. 어땡허여, 게다 신영 텅길 때난.
@ 게다 신고, 초신 신고 나막신 신을 때 어느 게 젤 편헐디가?
편헐은이 저 초신이 젤 편헤여.
@ 초신이 젤 편헤여. 여기 발 벗겨지고 안 허여?
아니, 흠뻑 아프긴 해도 게도 초신이 편허긴 허여. 게다가 또 편허긴 헌디 흠쉴 허민
그 친 끈어지민이 질레에서도, 겨울에쯤은 친 끈어지면 눈 우이로 맨발로 텅겨세.
@ 신 들렁예. 그거 데껴 불진 못허여.
데껴 불민 따신 신지 못헐 거난.
@ 하하하. 그거 가져왕 다시 연결헐 신을 거.
으.
@ 짚신 만드느, 그 초신 멘드느 것도 봐봣디가?

으, 우리 아버지넨 느랏 초신 삼아났저.
 @ 아버지도 삼아난?
 # 으, 초신도 삼아났어.
 @ 아. 그 초신을 삼춘 몇 살 때까지 신은 거 닐아?
 # 흔 열다섯꺼장이나 신어신가?
 @ 고무신 신을 때도 초신 신엇구나?
 # 으.
 @ 초등학교 졸업헐 때까지도 영?
 # 으. 초등학교 졸업 우리 열일곱 나사 졸업, 초등학교 졸업헐저.
 @ 예.
 # 웨냐허면이 흔나 졸업 놔볼엇지. 몸이 약해났어. 겐 아홉설에 가도 몸 약헝 안 부찌 줘. 겐 우리 아버지 갈치 이만씩 갈치로 강 두 못을 허여단, 두 못이민 스무 개주게. 거 해 단 송 교장 신 때 그디ㄱ장 가져가도 안 뉘더라게.
 @ 아, 부찌 달렌 갈치를 사 갓구나.
 # 으, 으. 선물로.
 @ 선물로. 뇌물인게, 뇌물.
 # 뇌물이주게. 경해도 안 뉘어. 저 몸 약해 부난에 아홉 설에 그뎨 아홉 설엔가 으덱 설 엔가 아튼 그때 해 가도 몸 약허텐 안 뉘영이 열 설 나사 학교 들어갓어.
 @ 열 설 나사.
 # 경헝 열일곱에 졸업헨?
 @ 으. 중간에 놀아신게. 안 놀안?
 # 중간엔.
 @ 열 설 가시민 육학년까지.
 # 저기 신흥 학교 간 헛에, 신흥 학교.
 @ 함덕에 들어간?
 # 가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이 신흥 강 두 해 헛어.
 @ 신흥 강 두 해 허고?
 # 경헝 함덕 완에.
 @ 함덕 왕 다시 일 학년부터?
 # 아니, 삼 학년으로.
 @ 으. 삼 학년으로.
 # 헤방뉘난 삼 학년으로.
 @ 무사 신흥으로 들어갓수파?
 # 여기서 안 부찌줘 부난.
 @ 아, 안 부찌줘 부난.
 # 강습 학교.
 @ 아, 강습 학교. 아, 예. 짚신도 모양이 막 트난 것털이 잇지 안허여? 똑같애?
 # 아니라. 막 흠게시리 줄아진 것도 잇고이 또 막 즘질게시리 즘질게 허여근에 헤진 것

도 있고. 즈질게 흰 건 무신 산디점으로 안 행 무신 뜯 걸로 흰 걸 거라.

@ 예쁜 색깔 넣어 가지고 그런 것도 봐납디가?

으, 노린 색깔 노명.

@ 노린 색깔 노명 경 그 짚신 불리는 이름 같은 거 들어난 거 생각 안 나?

그때는 뜯 이름 불러나도 잊어붙언 몰르크라.

모자

@ 그 옛날에 모자 종류, 모자에는 어떤 모자들 있어났수파?

어떤 모자?

@ 패랭이 말고?

센도우 모저.

@ 센도우?

센도우 모저엔 흰 건 아까 우리 오빠, 둘째 오빠 영 썩 사진 찍은 거 엇어나? 그것이 센도우모저라.

@ 센도우모저.

센도우 모저하고 나까오리 모저하고. 또 것그라 납작헌 모저그라 무시거렌 헤라.

@ 일헐 때 무슨 모저 써났수파?

페랭이 모저.

@ 페랭이 써났고예? 여기 겨울에 딱시게 영 솜 낱 허는 거?

귀, 그건 귀깍장 더퍼지는 거이. 그것도 이름은 몰르크라.

@ 여름에는 뭐 써나신고? 여름엔 주장 페랭이라?

페랭이.

@ 그 페랭이 여자털도 써났수파?

여자털 마딱 그 페랭이 다 썩주. 또 그 삿갓 닳은 거, 삿갓이엔 허여, 거보고이. 중국 여름에 쓰는 거이. 그런 모자 사단 잘 써났어, 우리 어무니네.

@ 삿갓도 써나고예, 겨울에는 아까 솜 낱 귀 더꺼지는 거 쓰고.

으, 또 그거 말고 보꼬스킨이엔 허는 거. 일본말.

@ 그게 귀 더퍼지는 거 아니?

으. 귀 더퍼지는 거. 이깍장 막.

@ 이깍지 더퍼지는 거.

보꼬스킨. 거 일본말로 보꼬스킨 어떻게신고 허난 저 무시것고 싸움 나민 그 곱으렌 헌 말이주게. 보꼬스킨이엔 헌 것이. 보꼬 헐 때 쓰렌 헌 보꼬스킨.

@ 하하하. 영 쓰렌 보꼬스킨 영 곱읍디가?

으. 옛날엔 보꼬스킨이엔 헤났저.

@ 그거 써나고. 이 함덕더레 조천더레 양태나 탕건 같은 거 막 헤나지 안헐수파?

무사 막 헤났주. 헤나도 난 몰라. 그거 허는 거 잘 안 봐나 부난.

@ 여긴 탕건인가, 양태는 저 서쪽이고?

으. 아니, 우리 함덕은 탕건.

@ 함덕은 탕건.
나도 탕건 느랏 헤나신디.
@ 탕건 헤낫어?
느랏 헤낫어?
@ 으. 게민 알큰게.
헝 풀고.
@ 헝 풀고.
조천 장에 강 풀고.
@ 조천 장에 강 풀고. 멧 설에 탕건을 만들어 볍디가?
처년 때 탕건 허고 애기 난 후제꺼장 애기구덕꺼지 발로 흥글멍 탕건 헤낫주.
@ 잘 알큰게.
으, 탕건사 잘 알주게.
@ 이거 탕건이주게.
탕건. 이제도 허렌 허민 허주, 무신.
@ 기파? 이 탕건은, 이거 하나 만들젠 허민 얼마나 걸려?
제기 허는 사름은 이틀에 하나도 허고, 사흘에 하나도 허곡.
@ 삼춘은?
난 흔 나흘에 하나나.
@ 못 헤낫구나.
으, 학교 멧기고 헤 부난게. 학교 멧기난 후제사 베완 허젠 허난 경 잘 못 허주게.
@ 아, 나중에서. 게민 이거는 필로 멘드는 거파?
저 들충.
@ 들충. 들충은 어디 강 가정 와?
들충 푸는 사름이 잇어.
@ 잇어. 이 동네에 가정 와?
동네도 가정 오곡 몰라 우리 올케덜이 강 사오난 어떻사 헝 사와신디. 게민 이거 만들 때는 혼자 집이서 만듭니까, 아니면 영 모여 앗앙?
@ 모여 앗앙. 어디에?
탕건칭 모여 앗앙, 아무 집이라도.
@ 탕건칭이렌 부를 거?
으, 탕건칭.
@ 게민 그 탕건칭은 탕건을 만드는 집을 탕건칭이렌 허는 거?
아니, 만드는 집이 아니고 모여 앗는 집.
@ 모여 앗는 집.
탕건 헝 때 모여 앗는 집.
@ 그 집 누구네 집이서 헝 거라?
동네 아무 집이라도 허는 집이 가민.
@ 오닐은 이 집 강 허당 내일은 이 집 강 허고?

아니, 아니.
 @ 아니지예, 딱 정혜정 잊지예?
 # 으, 정혜정 있어.
 @ 으, 누구네 집 허영 정혜정 있어.
 # 우리 경헌 디 강 헤보진 안허고 집이서만 헤낫저. 올케, 우리 올케. 올케 언니허고.
 @ 삼촌보다 우이 세대에는 다 그런 탕전청에 강.
 # 우리 언니네는 다 탕전청에 강.
 @ 보통 누구네 집을 탕전청 헉니까?
 # 그때 멩중이 어멍네 집이엔 헤근에 그디 강 헤귀렌 현다.
 @ 무사 그디 강 현 거?
 # 그디 경 탕전 허는 사름이 잘 모여.
 @ 잘 모여. 그디 사름이 내어 주는 거, 그 집을.
 # 으.
 @ 내어 쥬 샳을 받으니까?
 # 아니, 샳 받지 안허영 그냥 이녀도 허고 그 간 사름덜.
 @ 어쨌든 사랑방인게. 지금 뉘 뉘 노는 사름덜.
 # 노는 사름덜 하토 험 때 모영 허는 식으로.
 @ 그런 식인 거라예. 그냥 개인 집이.
 # 으, 개인 집인디.
 @ 개인 집이 우리 집이 놀러 오라 험 ㄴ찌 벅험 허게 험.
 # 경허단 밤이 그냥 그디 뉘 자고.
 @ 뉘 자고, 예.
 # 경허렌 허귀렌 현다.
 @ 경허귀렌예, 시집가기 전에.
 # 시집가기 전에.
 @ 모영. 게난 그걸 탕전청이엔 글을 거. 탕전 허젠 허민 이 몰총을 손질헤야 뉘 거 아니?
 # 탕전 허젠 허민 물에 컷당.
 @ 총을?
 # 으, 총을 물에 컷당 탁 허게시리 영 뵙으민 물도 다 짜지근 입에 물영 딱 허게시리.
 @ 으, 그거 험 때 뉘 뉘 잇어야 뉘니까, 탕전 짜젠 허민?
 # 탕전 허젠 허민 저 무시겄고, 무시거엔 허느니?
 @ 요런 거?
 # 으, 이것 ㄴ라 쳇바귀.
 @ 쳇바귀?
 # 으, 탕전 쳇바귀.
 @ 이거 잇어야 뉘 거라예?
 # 으, 그거 잇어야 뉘어.
 @ 나무로 뉘 거?

으, 나무로 뉘 거예?
 @ 영 끼윙.
 # 이 나무로 뉘민 영 허민 거 이젠 그 멩긴꼐.
 @ 멩긴꼐.
 # 멩긴꼐이엔 허는 거, 탕건꼐이주, 탕건꼐.
 @ 으.
 # 탕건꼐 이레 톡 허게 낡, 집어 놔근에 영 허멍, 영 영 허멍 이건 거시기 잡곡이, 바늘
 잡곡 이쪽으론 저 총 잡곡.
 @ 총 잡곡.
 # 영 행 영 영.
 @ 이거 오른손은 바늘 잡고?
 # 으.
 @ 이건 총 잡고 게민 여기에 멩긴꼐이 있어?
 # 으, 멩긴꼐.
 @ 이 나무 우에 다시 멩긴꼐이 있어?
 # 으.
 @ 멩긴꼐은 어떻 생견?
 # 탕근꼐, 탕근꼐. 탕근 허는 걸 탕근꼐이고 멩긴 허는 건 멩긴꼐이고.
 @ 어.
 # 게난 탕근꼐 나도 있어난디 어디 간 데껴붙어신디 엇어라, 우리 집이.
 @ 찾아 봅서예.
 # 엇어, 엇어.
 @ 엇어.
 # 저 묵은 집이서 행 그때부터 엇인건디.
 @ 으. 거 삼춘 멧 설 때까지 탕건을 경 만들어 본 거 닐아?
 # 애기 하나 나도록. 두 개 난엔 안 헤실 거라. 하나 나도록베끼. 두 개 난 뉘, 두 개 난
 애기가 흐뎡 어느 정도 그자 영 죽이라도 먹을 정도 뉘난 밧이만 매날 뉘겨 부난.
 @ 하나 난 때가 삼춘 멧 살 때 하나를 낫어?
 # 스물둘에.
 @ 스물둘에. 그럼 그때까지 탕건 헛던 거?
 # 으, 스물셋까지 헛주게, 그거.
 @ 게민 이거 허젠 허민, 탕건 멘들젠 허민 이거 허고, 이거 이름 뉘?
 # 그건 쳇베귀.
 @ 쳇베귀 잇고 탕건꼐 잇고.
 # 으.
 @ 바농?
 # 바농.
 @ 바농 하나?

바놓 하나.

@ 그것만 이시민 맨들아지는 거?

어.

@ 그것만 이시민 만들이지주게. 이 들충은 물에만 담강 놔 두민 뵈 거?

으.

@ 두들지 안해도 뵈니까?

아니, 아니.

@ 물에 얼마?

들충은이 허민 그 살 때 쫄른 건 다 뽑아 뵈 진 것만 아경 왕 풀주게. 경허민 물에 등강 사발에 이렇게 사발 낱 그디 충을 등강 뵈 허게 사령 놔 뵈. 쟁허민 영 흑허게 하나 뽑아내영 영 허영 꼭 허게 꺾어근에 이젠 이디 낱 이시는 건, 잇을 수 잇주게. 경행 잇영 영 헤근에 영 영 행 영 영 등기는. 쟁행 뵈뵈 뵈뵈 들령 쳇베귀에서 저 탕건꼴을 뵈뵈 들러 노명.

@ 으.

경행 허주게.

@ 게민 우리 이거 만들 때 어느 걸 쥘 먼저 만드는 거? 요 밑에 거를?

아니. 이건이 이진 이상허다 이거 알더레 영 등긴 건 엇어. 쟁쟁허게 이추룩 현 거 허 영 일로 짱 그냥 우터레 올라가주. 쟁 우터레 올라강 요디 가민 저 무시거, 무시거엔 허느 니 것ᄁ라 등경이, 실 걸어근에 등경 요리 뵈쪽뵈쪽허게시리 무시것이 잇어. 못 닦은 거이.

@ 으.

낭뵈 닦은 거.

@ 으.

그건 다 허게 뵈민 우리로 딱 끼웁는 것이 또 잇주게. 경헌디 그거 허기 전이 이젠 이 것ᄁ란 무시거엔 현다만은 늘랑, 탕건 탕건 쳇 번 늘루는 것ᄁ란 무시거엔 현다만은 나 것도 잇어블엇저게. 탕건 쳇 번 허는 건 늘랑.

@ 늘랑.

늘랑.

@ 뵈 늘루는 거?

실, 실 걸영 실 걸영이 이걸이 저 물 적지뵈 썩 썩허게시리 이제.

@ 물 적시는 이유가 늘어나게?

늘어나게 헤근에 그 새덜엔이 무시것고 저 옛날엔 아이덜 그 책받침 허는 거. 그런 거 허영 요만큼 너베게 허영 질게시리 혼 뵈 지레기 혼뵈 더 뵈게시리 현 거 허영 놔근에 그 레 손 영 낱 짹짹 등겨.

@ 으.

경 등기뵈 이디 실 걸어.

@ 아.

실 걸영 이젠 이레 다 집어 메어. 경행 뵈 허게 돌아가뵈 다 늘루민이 요것이 요만이 짜진 것이 썩허게 영 올라오주게.

@ 다 짜지민.

짜지민 요만큼 올라와. 올라오민 이제 그디서 이제 우이서 이젠 또 짜는 거라이. 것이 꺼내어근에 짜민 이 칭에 가근에 무시거엔 해낫저만은 근질 못허켜. 이 징에 가민 이것이 툃 지주게. 영 돌아강 해낫 이것이 영 특정 들어가지 안허느냐?

@ 예, 예. 밑에 거는 넓고 우이 건 좁아지명 한 바퀴 돌아강 툃 경 이디 들어가고?

경허주게. 게난 영 행 그것ㄴ라.

@ 여기가 넓은 거고 여기가 툃진 거우다. 경 줄어들어?

경헌 것가?

@ 예, 예.

게난 이제 경허민 이딘 가민 이젠 혼 코씩 앞인 줄여. 앞인 가민 두 코, 두 콜 혼 코씩이라 멘길아이. 멘길앙 또 이제 그걸 또시 요만큼 짜이. 짜민 저 우턴 강 마지막에 이제 그 우이 씩웁는 거 해근앵에 영행 두껍 더끄는 거 잇주게. 게민 그걸 툃허게 더껍 그냥 우칭만 늘화 됨 그냥 그 총으로 다 감춰.

@ 우이 두껍 더끄는 거는 우리 지금 대바농 같은 거. 그런 거 아니? 두껍 더끄는 건 어떤 거?

그냥 그 탕근풀이영 꼭ㄴ튼 거.

@ 꼭ㄴ튼 거.

으, 꼭ㄴ튼 거 우이 더끄게만 알칭 늘롭게만 알칭 늘롭젠 허민 못이 잇어사 그레 강 걸러멜 거난 경 해 부난 경헌 생이라라게.

@ 예, 예. 나중에 이거 풀어 보명 몰르민 또 물어보레 오쿠다예. 게난 여기는 탕건만 현 거라이? 양태 안 해난예?

양태 안 헨.

@ 망건 안 헨?

그런 거 안 헤.

@ 그런 거 안 헤예. 예, 예. 알앗수다. 오늘 여기까지 허쿠다.

옷 종류

@ 삼춘 만든 모시옷들 언제 만든 거파?

이거?

@ 으, 저 하얀 거들이영.

오래엇어. 혼 십 년 똬저. 십 년 넘어실 거라.

@ 십 년 넘은 거예? 삼춘이 다 직접 만든 거예?

저거 나냥으로 다 만든 거.

@ 그 단추 잇잖아예? 단추가 아니라, 뭐라, 그런 거 뭐렌 불러?

들마기.

@ 들마기.

들마기도 나 며칠 줄 알아.

@ 아, 들마기도 삼춘이 직접 만든 거?

으.
 @ 그민 영 하는 건 들마기잖아예?
 # 으.
 @ 끼우는 구멍은 뭐엔 부릅니까?
 # 건 구멍 이름 엇어.
 @ 이름 엇어예?
 # 으.
 @ 동글랑헌 것만 들마기렌 헌 거.
 # 으, 으.
 @ 그민 그 들마기도 삼춘이 다, 다 헌 거?
 # 어디사 놔져신디 못 좇으켜이.
 @ 계난 저 옷 다 삼춘이 만든 거라예?
 # 거 다 나냥으로 만든 거여게, 미싱, 저 미싱에서.
 @ 물들인 거 잇수다. 보라 색깔 나는 거?
 # 으, 거 물들인 거.
 @ 그거 무슨 걸로 물들인 거라?
 # 그냥 물 사단, 물감 사단.
 @ 물감 사단, 예. 노란 거는 그냥 베로 만든 거예?
 # 으. 건 베로 만든 거.
 @ 그건 물들인 거 아니?
 # 아니. 그건 베로 만든 거.
 @ 이 미싱 누계가 준 거라고?
 # 준 것이 아니고 산 거.
 @ 으, 누계안티?
 # 일본서 온 우리 육촌 고모안티이.
 @ 음.
 # 막 멋쟁이랏저게.
 @ 음.
 # 그 고모안티 일본서 완 어떻헌 사는 거 어려우난 풀켄 헨, 저거 일본서 저 미싱 췌 번 날 때 산 거렌.
 @ 음.
 # 겐에 일 년인가 이 년인가베끼 안 뵈젠. 겐 그거 풀켄 헨에.

웃감

@ 계난 그분은 일본서 언제 들어온 거라? 옛날 실패들, 너무 좋아, 너무 예뻐. 하하하.
 # 저디 그런 거 막 핫어, 나안티.
 @ 바농상지 잇수과?
 # 으.

@ 바농상지도 보여 줘서.
 # 몸빼 못 좇으켜.
 @ 몸빼 못 좇으켜. 좇아 봅서.
 # 엇어, 엇어. 에이, 이 소곱에 뇌똥. 이거 나냥으로 만든 거. 이 몸빼 멘들앙 입은 거 뽕 저 상도 아인 경 우리 집이 멧 천 번 좇아왕 몸빼만 만들어 줘센. 나 녀의 거 못 만든 덴 경 해불엇주.
 @ 이거 만든 거라고?
 # 이거 나 만든 거.
 @ 이거 무슨 천인디?
 # 그거 인주.
 @ 인주천은 사단?
 # 사단.
 @ 이거는 멧 년 똥 거파?
 # 것도 혼 십 년 똥실 거라.
 @ 십 년 똥실 거라. 이제도 입엉 텅깁니까?
 # 으.
 @ 요것도 삼춘이 만든 들메기?
 # 으. ㄱ만 시라 나 바농상지 아져다 주주.

‘바농상지’

@ 예, 바농상지 앓앙 읍서. 이거 똥렌 불르는 거?
 # 바농상지, 이거 이거 ㄱ는대구덕이엔 헛주게, 옛날에. ㄱ는대구덕 떡 허영이 그것에 담 앙 텅기는 거.
 @ 음. ㄱ는대구덕 떡 허영 담앙 텅기는 거예. 이거 삼춘이 영 부쳤수다.
 # 으, 그거 나 부쩍.
 @ 예.
 # 오래어 가난 이 바우로 문딱 뜯어전.
 @ 뜯어전, 뜯어전. 이걸 똥렌 부릅니까?
 # 그건 바농즐레.
 @ 바농즐레. 무사 영 바농즐레를 바농상지에 무껍 뇌똥수파?
 # 바농 이거 이디 껍세게.
 @ 껍세. 게난 이거 잘 알아지렌 영 무껍 뇌똥?
 # 털어지지 안허게시리.
 @ 털어지지 안허게시리.

‘속들’

@ 이거 똥파?
 # 속들.

@ 예. 속돌도 있고. 속돌은 뭐 헐 때 쓰는 거?

바농 보미민 곶앙 쓰는 거.

@ 곶앙 쓰는 거예, 바농 보미민. 삼춘, 잘도 튼튼헌 어른이여. 이런 거 비닐봉지 하나씩 허명 다 츠근츠근 담아 낫.

이디도 영 담앙 놔세, 이거.

@ 음.

문딱 이거 바늘이라이. 미승 바농허고 그냥 바농허고 다 이 소곱에 담안.

바늘 종류

@ 음, 맞수다. 삼춘 굵기에 따라 다른 거 쓰멘?

무시거?

@ 굵기 다른 거?

굵기가 무시것고?

@ 아까 몇 호 몇 호 곶안게.

으, 십일 호허고 십이 호가 잇주게. 십이 호는 즈진 옷 헐 때.

@ 으.

즈진 옷 헐 때 쓰곡.

@ 예를 들면?

십사 호는 보통 쓰는 거고.

@ 이거 다른게. 굵기 달라?

다르지 안헐 거라. 나중에 사 왕 보난 다 ㄱ튼 거라라.

@ ㄱ튼 건게.

이젿 바농털은 보미지 안허여. 옛날 바늘은 보미언 저 속돌이영 다 허연 쓰단 낫주만 은. 이거 골미도 있고.

골무

@ 골미도 있고. 이디도 골미 나온 거 이십디다.

나 으라 개 멘들안 놔뉘.

@ 골미도 삼춘이 멘든 거?

나 만들안.

@ 가족으로 헝 멘들언.

저 가족으로 안 허민이 영 두꺼운 거 헐 때 이디 아팜 못 허여.

@ 골미 어디 째니까?

여기, 여기.

@ 거기 째는 거예.

자석

@ 이 자석은 무사 놔뉘수파?

그 자석은 무시거 일러먹을 때 좇젠.
@ 바농 일러먹을 때 좇젠.

기타

@ 여기는 삼춘 고녕이포렌 허는 거 엇수짜?
무사 엇어게. 그 고녕이.
@ 고녕이포가 어떤 걸 고녕이포렌 헤?
이 비 오논디 그것 강 보아지느냐? 저디 마당에 어디 실 거여만은.
@ 아, 바농질헐 때 쓰는 거 고녕이포 말고 다른 거 고녕이포엔 헤?
포?
@ 으, 다른 거 고녕이포?
난 고녕이풀이엔 험젠.
@ 아니, 아니.
고녕이폰 몰라.
@ 몰라예.
고녕이폰 머리에 쓰는 것이 고녕이포엔 헤연 곶아났주.
@ 머리에 씨는 걸 곶아난. 영 모아둔 천조가리 뭐 헐 때 쓸 거라?
이제 쓸 일 엇영 나 천 조가리 이만이헌 포파리에 헐 우리 스춘아시 저 리라한복 있어 나세이?
@ 으.
리라한복 허는 아이가 우리 스춘아시라났주게. 그 한복 허명이 모연 놔둔 거 아저단 방석도 으남은 개 멘들고 벨거 나 다 만들어났저.
@ 계난예, 그런 거 모아가지고 뭐 만들 때 췌어예?
으, 경허단 나 영 아파가난 준 건 다 버려 불고 저디 좋은 건만 멧 개 놔뵤.

수의 옷감

이디 수의 헤단 이거 다 논 거.
@ 뭐 헤단?
수의.
@ 아.
나 죽으민 입영 갈 수의.
@ 삼춘이 만들지 안허연?
안 허연. 우리 큰언니가 만들안에이 나 오십에 멘들아 놓안. 헌디 만딱 물색으로 만들 앓어이. 장웃이여 무시거여. 계난 이젠 물색 안 입을 때난 막 나가 보기 뷔언이 그건 슬아 베뵤 베로 만든 거 사단 낱.
@ 수의를 베로 만들엇수짜?
이젠 수의 베로 만든덴.
@ 원래 베 안 허잖아, 옛날은.

비싸 부난 안 헛주게. 계난 멩지론 혼 이백만 원이민 허고 이견 이백오십만 원.
 @ 아, 계민 이제야 만들어신게.
 # 이제사, 이제사. 작년에.
 @ 작년에.
 # 재작년에.
 @ 이거는 사진 찍젠 꺼내민 안 뒤어? 오늘 말고.
 # 게 아무 때라도 왕 찍어 가.
 @ 이거 우리 오늘, 오늘은 습기 차 부난에 날 좋은 날 와 가지고 찍으쿠다.
 # 경허라. 저 가위도이 우리집이 아저씨 육십에 일본 간이 가위 하나 상 읍서 허난에 저
 거 일본 돈이로 이십만 원 쥘 산 거라, 저거.
 @ 아.
 # 아니 일본 돈이 아니고, 이만 원.
 @ 계니까 일본 돈으로 이만 엔. 겐 우리나라 돈으로 이십만 원.
 # 이십만 원.
 @ 아고.
 # 경헨 상 우리 사춘아시안티 옷 집이 앗앙 강 이거 누게 살 사름 잇건 폴아 도라 허난
 이제 다 사 부난 엇수다.
 @ 으.
 # 경헨 나 씨블엄주. 이것도 일본 2새주.
 @ 음. 저게 이만 원짜리?
 # 이만 원짜리.

기름통

@ 이거는 뭐 허는 거?
 # 기름 놓는 거.
 @ 기름 놓는 거, 여기예.

환갑 사진

@ 이거 누게짜?
 # 우리 아버지, 어무니.
 @ 친정아버지, 어무니?
 # 으.
 @ 이거 몇 살 때인 거 같애?
 # 육십하나예.
 @ 아, 진짜. 환갑.
 # 환갑에 찍은 거.
 @ 아버지가 몇 년 생이라?
 # 몇 년생인 줄 몰라.

@ 계민 이 환갑에 삼촌은 몇 설이파?
 # 그것도 잘 모르고이.
 @ 으.
 # 아버지, 나가 우리 어무니 마흔하나에 낫젠 허주게.
 @ 마흔 하나에 나신디 육십하나에, 오케이, 오케이. 거 계산허민 뉘 거. 이견 누게?
 # 짓도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 돌아가신 댜게예?
 # 으, 돌아가신 때 그냥.
 @ 돌아가신 때, 삼촌 몇 살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수파?
 # 그것도 잘 계산을 못 허여. 그땐이 밧디만 댜겨 노난이 뉘 설에 돌아간 거 그것도 계산을 못 허연게.
 @ 계산 못 허여.
 # 어머니 돌아가신 해 후년도 계산 못 허고.
 @ 아이 몇 설 때인 거 가트파? 그것도 몰라?
 # 우리 어무니 돌아가신 때가 혼 으든두 개쫘 뉘 댜가, 어뉘한 댜가?
 @ 어무니가 여든두 살쫘 뉘 때? 네. 이거는 누게네?
 # 이거 우리 아덜덜.
 @ 아덜덜.
 # 아덜허고 뉘.
 @ 이거 삼촌?
 # 으. 완전 고왔구나. 완전 고완.

일상 옷

나 거시기 생일도 삼스 년생이 아니고 삼삼 년생이라.
 @ 쟈디 일 년 늦게 올린 거?
 # 으, 일 년 늦게 올린 거. 이제 으든아홉 아나가.
 @ 계니까 어무니 마흔한 살 때 삼촌을 낳은 거.
 # 으, 마흔하나에 나난 우리 어머니가 예순하나엔 나도 돌아온 동갑 뉘어근에.
 @ 마흔하나에 삼십사 년이니까 천팔백구십 몇 년도야이. 아까 육십일 세면은 오십 년대, 이거 환갑잔치 오십 년대 찍은 거.
 # 우리 아버지가 멋져낫주게. 시업이영 딱 허게. 저 이것이 나까오리 모자라이.
 @ 맞아 이게 나까오리 모자라예. 신발 봐 봐, 이거 구두 아니라? 구두?
 # 구두.
 @ 고무신은 아니라.
 # 고무신 아니.
 @ 아. 영행 나까오리 모자 한복에 딱 썩 다녀낫구나.
 # 두루마기 검은 두루마기 입곡 으름엔이 흰 모시, 적삼에 흰 모시, 증의에 흰 구두에 경험 헛젠. 난 경험 짓도 몰른디 금성상회 성 나신더레 삼촌님 산 때 그쫘룩 험난 난 똑

그추룩 헝 텅기젠 헛저. 경헌디 이젠 경헝 텅겨점저. 경헤났저.

결혼식 사진

@ 봄서예, 삼춘 이거 결혼헝 때 이거 우에 입엇잖아?

으.

@ 이거 뉘헝 불러?

장웃, 장웃.

@ 안엔 뉘 입엇수파?

안엔 치메저고리.

@ 치메저고리 입고 그뉘 시집갈 때 뉘 헝 주잖아, 치메저고리 헝 주잖아?

그뉘 유동치메에 양단저고리에이. 그뉘 양단도 잘 엇인 때라이. 유동치메도 신주꾸 유동치메에 이디 엇인 때라이. 켜디 우리 큰오빠가 일본서 보내언에 신주꾸 유동치메 입엇어.

@ 신주꾸 유동치메. 히히히. 신주꾸 유동치메헝 곶아난?

으, 신주꾸 유동치메 헝.

@ 여기 다 뉘수다예. 이거는 아부지 거는, 남자, 시집장가 갈 때 이런 웃은 뉘헝 불러난? 남자 웃은?

남저 웃?

@ 으.

무신 것산디 잇어불언.

@ 이거 시집간 집이서 찍은 거?

으.

@ 옛날 시집갈 때 다 영 쳐 가지고 헝던 거예?

으, 팽풍 천에.

@ 삼춘 삼십사 년생으로 허민 스물살에 시집간 거?

나 스무살에 시집가세.

@ 오십사 년도 결혼사진. 게민 아까 이거 환갑 사진은 삼춘 시집간 후제?

으, 시집간 후에.

@ 이거 시집간 후에. 시집간 몇 년 혼지 잘 몰라예?

것도 몰라.

10.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 조사 일시: 2021년 6월 1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 제보자: #1 홍달표 #2 송월순 #3 안인옥

- 조사 일시: 2021년 6월 16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미진
- 제보자: #1 홍달표 #2 송월순 #3 안인옥

정동 장만

#2 마디가 눈이라.

@1 어.

#2 게문 저.

#1 순, 순.

#2 저걸로.

@1 응.

#1 눈이 아니라 순.

#2 꺼끌로 줘가지고 이거 훑어, 이렇게.

@1 하아.

#2 이게 정동 훑트는 거.

@1 잠깐만예.

#3 이것도 같이.

@1 같이, 예.

@1 지금 하는 건 뭐 하시는 거마씨?

#3 여기 가운데.

#2 아까 눈 떴는 거.

#3 마디에 녁쿨이 있어요, 마디에 눈이.

#2 아까 눈 떴는 거. 정동.

#1 ○○○에 유튜브에 나왔는디 스십스 분짜리 그렇게 장시간 나와선게. 스십스 분 동안 그거 엄청난 시간 아니? 저거.

#3 이렇게 하면 여기에 눈이 있어요, 눈이.

#2 다 이실 거우다.

#1 아이, ○○○.

@1 양태하는 ○○○마씨?

#1 응, ○○○. 거 유튜브에 나왔는디 스십스 분짜리 장장 혼 시간 거 나완 기냥 나가 빼단 놔뒀신디 유튜브에.

#2 아, 잘했수다.

#3 이거 여기 하면 여기 알게 모르게 눈이 있어 갖고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1 우리 이제 우리 조직이니까.

#3 물 담가야 벗겨져요. 거 안 허면 안 벗겨지고.
 @1 응.
 #3 저 허는 과정이.
 #2 저 눈을 다 털어차야, 털어차야.
 @1 응.
 #3 쉽지가 안 해요, 진짜. 그래서 비싸는 거예요.
 @1 어.
 @1 아.
 #2 이렇게 문드락이 고와.
 @1 아.
 #3 장소가 좁죠? 찍기가예? 불편할 거 같아.
 @1 아니요, 나오고 있습니다.
 #2 하영 찢지예?
 #1 아이고, 하영 찢저.
 #2 이거 요디 이제.
 #1 요디 이추룩 짜야지, 이추룩.
 #2 이추룩?
 #1 이추룩 짜야 돼어.
 #2 짜수게, 경헌디 야의만.
 #1 이견 영 꾸겨진 건이.
 #2 응. 밀리지 말아?
 @1 그다음 순서 해도 될 거마씨. 이거 한 다음에?
 #3 이거 한 다음에 이젠 이거를.
 @1 응.
 #2 요추룩 짜야 될 건디 요추룩 아주버니, 이추룩.
 #3 차곡차곡해서 아버지 말린, 헤 논 것이 없는데, 이거 다듬앙.
 #1 아, 이추룩 잘 다듬앙 바짝헌 거고.
 #2 응, 게난 이추룩 해야 될 건디.
 #1 게메 영 뉘.
 #3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다 다듬아요.
 @1 아.
 #3 다 다듬고 여기에서 큰 거 작은 거로 골려서.
 @1 응.
 #2 그디가 흠뻐 오무릇해야 될 건디.
 (잡담)
 @1 애랑 애랑 이름을 다르게 부르진 않죠?
 #3 네, 네.
 #1 그냥 정등?

#3 네?
#1 그냥 정동?
#3 정동.
@1 그냥 정동예.
#3 예, 예.
@1 이름 뭐, 다듬으면 그다음 이름 다르게 부르진 않죠?
#3 아니, 다르게 안 불러.
@1 예, 예. 그냥 다 정동예?
#3 예, 예.
@1 응.
#1 처음부터 이거 영 꾸부리지 안허게 행은에 이 정도만 나와도 좋아.
#2 저번에 정동 빌딩 간 거 즐바른 거 허영 다시 하나랑 막 곱게 짜젠 해신디.
#1 어, 경허여.
#2 안 됩신게.
#1 무사?
#2 이것도 막 곱게 짜젠 해신디 잘 곱지 안허여.
#1 아니, 모양.
#2 굵게 굵게 짜젠 해신디, 안뒤, 안뒤어.
#1 그레 놔뒤신디.
@1 야의도 하나 찍어볼까요? 다 완성품이 이거잖아예?
#2 완성품 영영 하얀 실로 현 걸로 찍으세요.
@1 아, 이게 더?
#2 이게 옛날.
@1 더 즘진 거?
#2 이 싹이 하얀 실로 허는 게.
@1 응.
#2 이걸로 허믄 이게 보이지 안허영 줌 ** 안 뒤.
@1 응.
#2 이쁘게 헛다고.
@1 아 요즘.
#2 이 띠가 아니고 저 하얀 걸로 해야 뒤어.
@1 응.
#1 도면 이거 그려 놔뒤신디 이거, 이 옆으로 누웠 이, 이렇게 뒤야 뒤주. 요렇게 뒤 거.
길이허곡 ****.
@1 응.
#2 요거 칠 센치.
#1 도면을 다 그렸어.
@1 도면을 다 그리셨구나?

#2 둘 나뉘 헤부니깐.

@1 절편이 아니고 곤떡이파? 우에 거?

#1 응, 곤떡.

@1 아.

#1 이거 이거. 이것이 곤떡, 이거.

@1 어느 건 절편이파? 그믄.

#1 절벤은 요거 요거 꺼꺼진 디. 여기 절벤. 절벤은 일로 영 꺼꺼진덴 행 절벤이주. 꺼꺼진덴 행. 이제, 이제.

@1 아.

#1 저 꿍을 절 자 헤영 꺼꺼진덴 행은에 절벤 거. 거 옛날 하르방덜 멘든 거. 이것은 절벤이고 이건 곤떡이엔 허고 요건 망이고.

(잡담)

#1 요디 가믄 요기 쏘곶에 팍띠가 잇어, 팍띠, 이 팍띠엔 행은에 여기 삭아불엄잖아.

#3 삼춘 이걸로 빨리 짚서.

#1 사잡으로 현 거.

#3 삼춘 그걸로 빨리 시작해봐, 이거. 허허허.

부분 명칭 1

@1 계난 요기 까마귀방석은 어느 거라?

#1 이거 까마귀방석 이거.

#3 이거.

@1 요 안엿 게 까마귀방석?

#3 이거 까마귀방석.

@1 아 이게 까마귀방석.

#1 어, 걸로 시작허는 거.

@1 이게 시작하는 거, 까마귀방석.

#1 거 나 적은 거 거시기 복사행 가근에.

@1 아, 이거요?

#1 거 재료, 재료 같은 거 재료헌 게 이제 규격은 아닌디 재료 적영 놔둔디, 허여근에 복사해근에 주크메.

@1 요 가운데 요게 까마귀방석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3 그기가 시작.

#1 그거는 뭐 이 ㄱ찌 통틀영.

@1 으.

#1 올로 요사이는 저 곤떡.

@1 요기까지가 곤떡.

#1 요거, 요거 이 꺼끈다 헤서 이거는 이진, 이 선 이것이 행, 이거, 이진디. 이것이 바로 저 절벤 요것이. 이거 이것이.

@1 예, 예, 예.
 #1 이거 굵은 걸로 짜면 곱닥해여.
 #3 그다음은 요거 놓고 찍으세요.
 @1 예, 예. 자, 그다음 순서, 그다음 순서는?
 #2 짜는 거는 계도 다른 건 다 요거 사각꺼지 헐 때까지 잘헐수계게.
 #1 응.
 #2 요거, 칠 센치 요거, 이것만 널게 똥주.
 #1 이것도 이제 이걸 들어간 게 이추록 말앙 튀어나게시리.
 #2 튀어나게? 알아수다.
 #1 계곡.
 #2 다음엔 튀어나게 허쿠다.
 @1 이렇게 안에 들어갓텐 잘못똥대요?
 #1 이거 만들 때랑이 저 뽀드헌 거, 계믄 뉀 들어각나와 허질 안허여 그진.
 @1 응.
 #1 뽀드 사용허여.
 @1 계믄 요게, 요게 곤떡.
 #1 아 요게 절벤.
 @1 요게 절벤.
 #1 절벤 안네, 요 절벤이엔 헌 건 요, 요거 하나만.
 @1 선 하나만예?
 #1 응, 요 선이 땃 사갑바위엔 허는디, 사갑바위.
 @1 요기선 요 선이 절벤인 거파?
 #1 응, 것이 절벤.
 @1 아, 이 선이 절벤.
 # 응, 이것이 절벤이고 여기로 이제 꺼꺼져 내려간다 헿 절벤.
 @1 아.
 #1 꺼꺼경 내려간다 헤서 절벤.
 @1 아. 요기서부터 꺼꺼져 내려가는 거우파?
 #1 응. 꺼꺼져 내려가는 거, 어.
 @1 요기는 뉼렌 곶아마씨?
 #1 요긴 망. 울로 이거 전부 통틀영인에 망.
 @1 통틀영 망.
 #1 통틀영 망.
 @1 예. 그다음 아까?
 #1 계 이것이 천.
 @1 요긴 천, 예.
 #1 요건 바위.
 @1 요건 바위.

#1 뒤집으면 요거는 땀띠.
 @1 땀띠?
 #1 땀띠.
 @1 아, 요건 땀띠엔 낄읍니까?
 #1 예, 땀띠.
 @1 응.
 #1 이거 사갑바위 사갑으로 행.
 @1 사갑바위 뭐파?
 # 으?
 @1 사갑바위는?
 #1 이것이 사갑으로 짠 거, 이게 네 개로 짠 거.
 @1 음.
 #2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1 요거 사갑, 셋으로 짜는디, 이거는 네 개로 짠 거.
 #2 여기 다 날이 하난데, 이 지금 짜는 거는 이 짜는 게 세 갑, 세 개로 짜고 사 갑은 네 가달로 하나에 네 번을 왔다갔다 헤여.
 @1 음.
 #2 그렇게 허니까 사갑.
 @1 응, 응.
 #2 요렇게 되는 거고.
 @1 응.
 #2 요거는 삼 갑. 이 늘 하나에 이거 세 개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1 음, 게문 어디가 사 갑이고 어디가 삼 갑이라?
 #2 요건 사 갑.
 @1 아까 그 절벤은 사 갑이고예?
 #2 응. 요거는 이제 이렇게 허면 요게, 이, 이거 놀이잖아예?
 @1 예.
 #2 이거 기둥이라 기둥, 쉽게 말허면. 이거, 이거 하나에 이거를 세 번 왔다가야 돼어, 이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하나 더 놓곡 요걸 요.
 @1 네 개. 네 줄, 음.
 #2 네 줄로 짜른 요렇게 튀어나근예.
 @1 아, 음.
 #2 처음보는 사람 아멩 낄아도 몰라.
 @1 하하하. 어제 막 공부헌덴 행 와신디.
 #1 하하하.
 #2 아멩 낄아도 몰라.
 #1 허허, 저 갑은 사람이나 알지.
 @1 아까 계난 그 땀띠는 사 갑마씨?

#1 이, 이, 이진 사 갑 네 가달로.

@1 아, 그디, 요긴 네 가달로.

#1 요것도 네 갑, 요것이 세 갑으로 짠 거 요거고.

@1 예.

#1 한 가달 부찌민 이것이 나와.

@1 아, 흐끔 튀어나오는구나예?

#1 응, 계난 요것더래 이거 나오고 요딘, 요긴 그대로 뒤고.

@1 응.

#1 똑같이 뒤곡 한 가달 짜른 여기마저 요디와 똑같이 나고 똑같이. 한 가달 더 들어 가
믄. 계믄 이것이 네 개로 짠 건 이것이 땀띠엔 헤근에 저거 헤사 이디 거칠지 안헤, 이거
허믄.

@1 응.

#1 거칠지 안헤 이거 짜야.

@1 예.

#1 이걸로 좀 우리말로 거칠고.

도구 1

@1 도구도 찍을까? 도구?

#3 예, 도구.

#1 아, 아, 도구, 도구.

@1 가워.

#2 이거 다퇴.

@1 이거 다퇴.

#2 예.

@1 삼춘 다 꺼냄수다.

#1 하하. 자도 들어가고 또 요, 요 자도 시고. 이거 아주망 자.

#2 고풀집디강?

#1 아, 저거이 나 곀아주크메 어떻 허냐믄 이거를이 쓸때랑 영 느리우고 영 텅이면은 들
어가지 아녕 들어갈 때만 영 쪽 물리믄 요 문드러지지 아녀. 영 들어가지 못헐 때 경 아년
때라근에 막 영 낵 씨게 헤야 허, 싹 내려가믄이.

#2 하나 사도 뒤 거주마는 고풀주켄 헤연.

#1 이, 이, 이거 억지로 헤부난 영헌 거라, 이거. 영헝 발 헤영 허민 뒤어, 이거.

#2 예.

#1 영헝 허민 이 싹 허민 저절로 들어가는디.

@1 줄자도 필요한 거 중에 하나파?

#1 어.

#2 이것도 재고.

#1 고정헐 때랑 싹 올려볼믄 고정뒤곡 이 들어갈 때랑 영헝 내려와근에.

#2 우리 아주버니 이 머리띠, 둘레.

@1 응.

#2 이제 멧 센치 머리가 크기.

@1 응.

#2 둘레 크기 현 거 췌로 다 만들안 센치 다 적고 똥그란 췌에다가.

@1 예.

#2 이실 걸 여기. 똥그란 췌에다가. 게믄 또 오십육이믄 오십육, 오십팔 뉘믄 쪼금 늘리 왕 고정시키게끔. 오십구는 또 늘렁.

#1 그거보담도 이거, 이거. 이런 자를 쓰주, 이런 자. 이런 자 써. 하하하.

@1 아, 애는 이름이 뭐마씨? 이거 뉘엔 굴아마씨?

#1 이진 요거허고 ㄹ튼 건디.

@1 예.

#1 이거, 이거는 이진 다투개엔 허주, 다투개. 이디 짜는데 웅상웅상허믄 막 밀렁 찌깍허 게. 다투개.

@1 이름 뭐마씨?

#1 다투개.

@1 다투개.

#1 다, 다, 다투준덴 해근에.

@1 아, 다투개.

#1 예, 다투개, 다투주는 거.

@1 다투주는 거.

#1 찌깍허게.

@1 찌깍허게.

#1 다투개.

@1 응.

#2 이 짤 구멍 안 나게끔.

#1 이것이 삐작허게 밀려주는 거, 밀려주는 거, 다투개 영 다투.

#3 아버님 이걸로 가마귀방석 만듭서 또.

(모두 하하하)

#3 만드는 걸 찍읍서게.

@1 예.

#2 장마에 왕 하나 베왕 가야 뉘어, 여름에. 나도 오크메.

'가마귀방석' 만들기

#1 이걸 허젠 허믄.

@1 예.

#1 우선 이렇게, 이렇게 해근에. 이렇게 영행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놓고서 이젠, 이젠 두 개 해여근에. 두 개허고 또 이제 두 개하고 이렇게 이렇게 끼웁곡.

@1 음.

#1 또 그다음은 여기 여덟 개 문젠디, 여덟 가달이 이거 더 숫자가 많아서네.

#2 잘 이쁘게 앓앙 험서.

#1 이제 이렇게, 이렇게 허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3 아버지 그거 발에 놔야 돼? 상에서 놔 예쁘게 하든 안 돼?

#1 어? 상에, 상에.

@1 발이 이서야.

#1 상에선 아이 뒤편. 발이 게도 쥘지민 뒤편. 이렇게 해서, 이젠 이렇게 헤블든 막 조여, 조여. 이렇게 막 조여근에. 최대한 막 조여 쥘게. 가마귀방석. 하하 이거 더 쥘와야 돼어, 더 쥘와사.

@1 더 쥘와서.

#1 응, 아주 영성해.

#3 아버지가 가마귀방석 만듭서.

@1 계난 가마귀방석 험 때 사용하신 이 도구는 뭐마씨?

#3 없어요, 손으로만.

@1 아니, 아까 요거? 칼 닳은 거.

#1 아 이거, 이거.

#3 그거는 굳이 필요 없어요.

#2 아니 날 줄 때.

#1 이거, 이거 날 줄 때만.

#2 날 줄 때만.

#3 가마귀방석 만들 때는.

#1 이거 이거 고망 툴라서 이거 날 쥘는 거.

@1 아, 경찰 때 쓰는 거구나예?

#3 아버지, 가마귀방석 만들 때는 필요 안 헌텐 험서.

@1 필요없고, 응.

#1 이 가마귀방석하고 이거 아무 사용 소용 엇곡, 손으로만.

@1 아, 손으로만.

#1 그다음에 이젠 이것이 이렇게 발 이렇게 두 개씩 발겨서 시작하면은.

#3 예, 그다음 아버지 한번 시작해봅서.

#1 요, 요런 식으로 나와, 요런 식으로.

@1 아.

#1 두 개, 두 개 허든 그다음에 요거 지나면은 하나씩 갈랑 해주면은 이렇게 하나씩 갈랑 행. 그다음부터는.

#2 아버지 자, 책상 위에서 한번 영행 짜는 연습을 해야 사진 찍을 거 아니파?

(모두 하하하)

#2 아니, 아니 이거 가는 거 이수다게.

#1 어?

#2 오늘 헌 걸로, 제일 가는 거.

#1 아니 굵어.

#3 아니 젤 가는 거 이수다. 엇수과? 저기 막 하수다, 뽕앙 해줄게.

#1 아이, 내볼라.

#3 젤 가는 걸로. 잘 곱읍서.

#1 요기는 이제 요거 헐 때는.

#3 젤 처음에는.

#1 두 개를 행은에 이게 두 가달이거든. 영 꾸불여근에 이렇게 시작허영.

#3 젤 처음에는 이제 영해근에 잘.

#2 나도 눈이 나빠노난 원.

‘곤떡’ 만들기

@1 제일 처음에는 두 가달, 가마귀방석 만든 다음에 그다음 두 가달로 벌렁.

#1 두 가달로 이젠 이거 작성해 가는 게 제품해 가는 거.

@1 아.

#1 이거 두 개씩 영 갈랑 이렇게 갈르고.

@1 두 개 갈르고.

#1 이 그다음에 여기서 가고.

#3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1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허고. 또 이제 이거 두 가달 뒤편고.

@1 지금 만드는 게 곤떡 멘드는 거마씨?

#1 지금 곤떡을 들어가는 거.

@1 아.

#1 게문 요다음에 어떻 허느냐면 요것이 이걸, 예, 이거 어디가시니? 이거, 다퇴개.

#2 다이개 요거.

#3 아버지 책상 우에서 헉서. 책상 우에서.

#1 예, 다퇴개 이거나 이거 ㄱ튼 건디. 이거에다가 이젠 이것이 영 다이주. 다퇴개니까.

@1 아 다퇴개로 가카이.

#1 으, 다퇴개로 이렇게 이 집 다이는 거, 다퇴개.

@1 예.

#3 촌촌허게.

@1 응.

#1 이거 ㄴ 사투리 씨명 곱으렌 허난.

@1 사투리 씨명 곱아주셔야 될 거. 옛날식으로 우리, 우리 곱아난 말로.

#1 하하. 사투리 씨명 곱아줘야.

@1 예.

(잡담)

#3 이것도예, 제일 가는 걸로, 제일 가는 걸로. 맨 처음에는 최대한 제일 가는 걸로.

#2 이 맨 처음힐 때는 가는 걸로 정동 해당 켈 가는 걸로. 멧 가지로 이렇게 분리헿 낭 놔뵤당 이제.

#1 이거, 이거 처음엔 켈 가장 가는 걸로 헿사 차츰차츰 이제 훗은 걸로 이제 나갑니다, 훗은 걸로. 맨 처음 이렇게 헿야 가는 걸로 헿야 이디도 이쁘곡.

#2 이건 다 늘인게, 훗은 거.

#1 다 늘이라? 다 슬진 거 이거.

@1 아, 슬진 건 늘이고예.

#1, 2 예.

@1 가는 걸로 짜가는 거구나예?

#1 늘은 슬진 걸로.

#2 여기서 일등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짜야 뵤, 이거.

#1 계난 이것이 막 훗은, 훗은 때문에 이거 곱진 안허여, 이제 시범허는 거니까 그렇고.

@1 으.

#1 시범을 보이니깐 그렇고, 이거.

@1 최고로 가는 걸로 짜는 거난 곤떡이렌 곱암신가?

#1 아니, 아니, 아니.

#2 아니, 건 아니.

#1 이건이 바닥이, 바닥이.

#2 경 헿야만이 예빠.

#1 이 바닥이 곱라서 그거 아니고, 바닥이 그 멍칭.

@1 음.

#1 멍칭, 멍칭. 우리 옛날에 하르방뵤 곤뵤 말로 곤떡이엔 허난 곤떡이엔 힐 수베끼. 나 일름 지을 수도 엿고.

#2 요즘 아이뵤은 곤떡도 몰를 거라.

@1 모르주마씨게 요즘 아이뵤은.

#1 곤떡 뵤 동그란 거 잇잖아, 동그란 거.

#2 게도 요즘 아이뵤 거 모릅니다게.

@1 먹어보질 안헿수게게.

#2 이제 곤떡은 엿주.

@1 안 먹으니깐.

#2 식게에도 안 허여.

@1 으.

#2 곤떡.

@1 송편밖에 안 하니깐.

#2 송편도 집이서 허지도 안하고 맞좌.

@1 다 맞추지, 누게가 집이서 헿니까, 이제. 허허허.

#1 이제 집이서 떡도 아녀곡. 옛날 ㄹ치 막 모영 앗앙 그때가 침 저 길 **주. 요즘은 뵤 사당도 헿불곡 허민 혼 엿이 앗앙 놀 틈도 엿곡, 막 헿불뵤. 앗앙, 모여 앗앙 노는 것이 멍

질 기분이.

#2 그게 집안 친인척이 모여지는 맛이 엇는디 이젠 그게 엇어마씨.

@1 맞아마씨.

날 주기

#1 이제 이거 여덟 개 줄아, 여덟 개, 열여덟 개.

#2 늘?

#1 으.

#2 요건, 요건.

#1 이건 시범해사 허니깐.

@1 날은 멧 개로 아까 허는 거마씨?

#1 아까는 저, 여덟 개, 여덟 갠딘 두 개씩 허민.

#2 늘.

#1 두 개 합치민.

#2 늘, 늘 이거.

#1 이거 여덟 개민 이것이 하나씩 하든 열여섯 개지.

@1 예, 두 개씩, 음.

#1 예, 이거 처음 꾸불영 이 두 개씩 영 꾸부린 것이 꾸불이민 이것이 네 개가 뒤풀어, 하나 꾸불이민.

@1 예.

#1 두 개 씩 합쳐 현 거니까 쟁 그든 네 개, 네 개 허든 스스십육 열여섯 개가 뒀다.

@1 응.

#1 이제 요걸 요 뒤로 짜면은 어떻게 뒀냐면 이제 늘줄 거 와사?

#2 예. 예, 예.

#1 이거.

#2 요거 찰르쿠다.

#1 이, 송, 송곳.

#3 송곳? 아버지 저쪽 송곳.

#1 이거 이제 요 다음에 어떻게 뒀냐면 이걸 가령, 이렇게 해서.

@1 갈라?

#1 갈라.

#3 예, 가운데 갈르는다.

#1 이제 어뜨케 허냐든.

#3 가운데 갈라.

#2 이거.

#1 뜯 사름덜은 영 아녀는다.

@1 응.

#1 이젠 특별히 나만 영 굴아줘. 짜르지 말아.

#2 졸리지 말아?
 #1 짜르른 영허는 따문 저추룩 생긴 거, 짜르지 말아.
 #2 계난 정동 애킴에.
 #1 으. 아니, 아니 이거 짜르지 말앙 꾸불영 찢러줘야 돼어, 영 꾸불영.
 #2 아 여기 주는 건 꾸불영.
 #1 여기, 여기 허지 말앙 꾸불영 찢러줘야 돼어.
 #2 아아, 알아수다, 잘못헨. 응.
 #1 영허는 따문 저추룩 생기는 거주게.
 @1 응.
 #1 꾸불영 찢러, 영 꾸불영이. 꾸불영 찢르젠 허믄 요거 어뎡 돼나믄 이젠 요거 이제 요 두 개씩 갈라 가, 두 개씩.
 #2 잘못 생각헨.
 #1 갈라 가다가 이디 또 요거 요디 와서 따시 이거 두 개 꾸불여 주고. 다시 끼웁고, 이 짜르지 말앙 영 꾸불영.
 #3 아버지 그냥 하난 길고 하난 짧게 그냥 영 해봅서, 나중에 잇으믄 돼니깐.
 #1 맞아.
 #3 예, 예. 허기 좋게.
 #1 허기 좋게 잇영 허게이.
 #3 예 경헤 낡 짧은 건 이으믄 돼니깐.
 #1 이렇게 해근에 이제 이렇게 갈르민 곱아서.
 #2 즈냥 정신.
 #1 이거 이거 그디 경헤부난 더 막 꾸불여져난게.
 #2 이 장마엔 혼 이틀 이디 와사쿠다.
 #1 무사?
 #2 저거 시작허연 또 새로 짜게.
 #1 경헤여.
 #2 나 이번에 아주버니 준 정동 허연 흘탄 즈진 거 막 곱러놔뵈수다, 이제.
 #1 어.
 #2 거 또 하나 막 곱닥허게 짜주게.
 #1 겨난이 정동은 나그치 저추룩 막 이 하영 행 놔뵈주, 이 **에 흘탕 놔뵈어.
 #2 난 더 하영 흘탄 놔뵈수다.
 #1 흘탄 놔뵈근에 이제 이거를 이제 삼등으로 이제 막 굵은 거, ㄱ는 거, 슬진 거 해근 에, 이 갈랑. 갈랑 경헤사 꼭ㄱ트주게 모자, 꼭ㄱ타 붙어. 경헨 따루따루 허믄 틀러.
 #3 이거 다듬아 놓고 같이 섞어서 하나만 나쁜 거 나와도 안 돼니까 곱고루 가계곰 그렇 게 다 만들어 놓고 시작.
 #1 곱고루 고루 가야 이 ㄱ저가 이제 ㄱ저 짠 거나 나중에 짠 거나 꼭ㄱ튼 메두리가 돼 주게.
 @1 응.

#1 쟁 하나씩, 두 개씩 헤블른 아이 뒤편, 다 틀려근에. 계난 대여섯 개 이제 아덜덜 야 네덜 모저.

#2 나도 하나 짜줍서예?

#1 이 모저 보이는 짜도렌 허난 이디 큰.

#2 이 장마에 하나 짜사마씨.

#3 다섯 개.

#1 아니, 나 짜게 뒤편 다섯 갠 짜사.

#2 계난 그 장마에가 더 쉬울 거난.

@1 짜기 좋습니까? 장마에가?

#2 예.

#1 장마.

#2 마르지 아녀.

#3 이게에 여름엔 햇빛이 나잖아예, 말라버려. 계민 손이 다 벗겨져.

@1 응.

#1 장마가 어떤 장만지 모르고.

#3 거른 물 적젓당 놓곡, 물 적젓당 놓곡 이렇게 허면서 짜야 뒤편.

@1 음.

#3 예, 아버지 이것도.

@1 하나씩 더 끼우는 거구나예? 날줄을예?

#3 예, 날 주는 거.

#1 날 주는 거. 멧 번씩 이젠 멧 번씩 갈라주는 거.

@1 날 하나씩 주는 거, 음.

#1 겨른 이거 갈르른 열여섯 개가 뒤편, 다 허믈.

@1 응.

#1 이것이 전부허면 나중엔 삼백육십 개 날이 뒤편. 막 썩트머리에.

@1 아.

#1 삼백육십 개 침, 막 썩트머리에.

@1 아, 계속 노명은예.

#1 계속 늘 이렇게 줘야 뒤편.

@1 늘을 계속 늘리는 거구나예?

#2 으, 여기 오믈 삼백육십 개라.

@1 아.

#1 삼백육십 개.

@1 아, 시작은 여덜 개로 헤신디.

#2 예, 여기 요 요 날이 다.

도구 2

@1 응. 쟁 지금 그 사용허는 건 그냥 송곳이엔 곱습니까?

#1 이거 송곳.
 @1 송곳인데 흐뎡 특이하게 생겼수다? 두 개, 날도 두 개고.
 #2 만든 거난제, 우리 아주버니가.
 #1 이거 이거 원래 하나, 하나.
 @1 예, 보통은 영 하나로 이렇게 송곳이 생겼는다.
 #1 하나로 뉘 건디 난, 웨냐면 이걸로 행 ㄱ늘앙 잘 아이 들어갈 때 이걸 ㄱ는 거 허고, 그걸 두 개 멘들앗주게.
 @1 아, 두께가 틀리구나, 응.
 #1 요걸로 안 들어가민 요걸로 질러근에 들어가게끔 허지.
 @1 응, 경허젠 일부러 만드신 거구나예?
 #1 일부러 이 두 가질 사용허게, 다 나 멘든 거, 춤.
 #2 이것도 다 만든 거. 요거. 아까 나 다이, 다이개 어디 간? 옛날 낭으로 만든 거 이거.
 #1 다투개 이거, 이거.
 #2 나 다이개, 이거, 이것도 만들어준 거.
 #1 거 ㅼ디집, ㅼ디집으로 멘든 거라, 옛날예.
 #2 우리 아주버니가 만든 거, 이거.
 @1 무신걸로 만들어서마씨?
 #1 이거 ㅼ디집 옛날 영 들각들각 미녕 차는 거.
 @1 이제 ㅼ디집엿 거마씨?
 #1 그, 그, 그 ㅼ디집 나무로 현 거는 워낙 옛날 낭 존 나무주기게.
 @1 응.
 #1 ㅼ디집. 탈각탈각 미녕 찰 때 흐는 거.
 @1 예, 예, 알아요.
 #1 거 ㅼ디집 거 짤란 멘든 거.
 @1 아, 이게 완전 옛날 건데?
 #1 어, 아주 저런 나무 없어, 이젠.
 #2 이젠 그런 낭 엿텐, 엿어, 엿어 진짜.
 @1 응.
 #2 구경도 못헤.
 @1 아까 다이개엔 험니까 다투개엔 험니까?
 #1 다투개, 다투개.
 @1 다투개가 맞는 거예.
 #1 다투개고 이걸 송곳.
 @1 응.
 #2 아, 이추룩, 양? 그제 이것도 이추룩 짤디 여기도 오므라들언, 나 거. 요 어평허코?
 정동은 아까왕. 뜯으카 말카 이거?
 #1 어느 거? 거이 페우지 못허여.
 #2 그냥 짜불카?

#1 이디, 이것이 잇잖여 꾸불영, 꾸불임광 뜨로 헨 것광 막 틀려.
#2 우리 손지덜 왕 돌아논 거 베려반.
(모두 하하하)
#2 할망 짜가난 즈끗디 앓앗당 이거 든 들령.
@1 이거는 손잡이가 길고 이거는 좀 짧은데 혹시 어떤 게 더 편헤마씨?
#3 관계 엇어마씨, 그거는.
@1 응.
#3 그거는 차이가 엇고.
@1 차이가 엇고, 음.
#3 나무가 잇는 걸로 그렇게 만드어진 거난양.
@1 어.
#2 뜯젠 뭐허고 이거 내불켜, 이거. 다른 걸로 짱.
@1 삼춘 요거, 여기도 뭐 숨메엔 굴읍니까? 이거 이렇게 박젠 허민 이거, 이거.
#1 그거 다투개 통틀영.
@1 그냥 통틀영 다투개, 요기는?
#1 요거 옛날은 췌가 아니고.
@1 예.
#1 이제 이거 나무주, 나무.
@1 예, 요것도 나무로 뉘난마씨?
#1 나무로 멘들앗주. 나가 이거 멘들안 췌로 허니깐 단단헌 거고. 나무로 이추록 영 까
깡 이추록 이렇게 헨 멘들앗주. 옛날에.
@1 아, 옛날엔 다 나무로.
#1 예, 췌가 아니고 나무.
@1 응.
#1 이제 이디 난 췌로 멘들안. 나무로 쪽 나강 꼭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멘들앙 행.
@1 아.
#1 췌만인 못허주게.
@1 기주마씨, 예.
#1 췌로 멘들아분 거.
@1 응.
#2 이 정동은 언제 물 등가시?
#1 이거 어제 즈낙에.
#2 어제 저녁이.
@1 줄자.
#3 계난 아버지 시작헌 걸로 가마귀방석 만듭서.
@1 애도 자 아니야?
#3 계난예 이거 허젠 허믈양, 집이 ㅋ쿨허지 안헙니다게.
@1 응, 맞아마씨.

#3 문지도 놀아뎡기고 누게 와도 손님들 접대 못 하고. 이거 시작허믄 이거는 3만이 앉
앙 해야 됩마씨.

@1 응.

#3 왓다갓다허당 보믄 이거 톨랑예, 또 물 적지고 경허당 보믄 못 허여, 멧 개, 흐루. 멧
도리도 못 돌고.

모자 짜기

@1 멧, 그 곤떡은 멧 도리나 돌리민 곤떡 뉘는 거마씨?

#1 곤떡, 저거양 이디 저 규격인디 곤떡, 곤떡 이디 영 가민 이것이 칠 전. 칠 전 허믄
이제 저, 저, 저.

#2 칠 전은 칠 센치.

#1 거세기 저, 가, 저, 허허.

#2 스 갑?

#1 절변.

@1 절벤, 응.

#1 절벤이 딱 칠 센치민 절벤 멘들앙 그다음 영 츠츠츠츠츠 내려가.

@1 아, 계난 칠 센치 허는 거마씨? 아까 칠 전이라고.

#1 칠 전, 칠 전 칠 센치.

@1 아, 칠 전이 칠 센치?

#1 예. 칠 전이엔도 허곡 칠 센치엔도 허고.

@1 아.

#1 지금은 칠 전이엔 곤는다, 칠 센치, 칠 센치.

#3 아니 옛날에가 칠 전이엔.

#2 옛날에가 칠 전.

#3 예.

#1 옛날은.

@1 응.

#1 칠 센치, 칠 센치곡 이젠 칠 전이엔.

@1 아.

#1 이렇게도 흐 다음엔 이제, 이제 삼 갑으로 짜가, 삼 갑. 쟁 여기가 하나씩, 하나씩 두
개 말고 이젠 하나씩 갈라가.

@1 음.

#1 두 개 말고 하나씩.

@1 음, 아까는 두 개씩 무껴서 갖는데.

#1 두 개씩 무껴 갖는데 이젠 하나씩 갈라진 여기부떠 하나씩 갈라가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1 아, 음 요기랑 요기랑 다르구나예?

#1 달라, 이거. 이거, 이거 두 개로 행 또 갈르고 또 갈르고 현 거고. 이젠 이젠 다 같은

다음에 이제 하나씩 뉘가든 이렇게 이제 한 가달로 쪽 나가, 이디.

@1 어.

#1 두 개도 안 합치고 한 가달로만.

@1 어, 그든 계속 늘려 갑니까?

#1 계속, 계속 이디 왕 요디 강 찢렁 다시 요디 이제 넓은 건 따시 농곡 농곡.

@1 아.

#1 이 간격, 간격이 넓으면 그디 늘 하나 놓고 늘 하나 놓고 계속 이렇게 나가근에. 이렇게 뉘든 이제 이 두 가달로 짠 거허고 이 세 가달로 짠 거 틀리잖여.

@1 예, 다른 게마씨, 예.

#1 겐디 요거 헐 때는 네 가달, 네 가달.

@1 네 가달로.

#1 네 가달 들어가든 아 요디 한 바쿠 돌아 놓고.

@1 음. 요건 늘이엔 헨게마는 요건 뉘엔 험니까?

건 날, 날 거.

@1 날이고 그건?

#1 ㄴ심이엔 곶아, ㄴ심. 하하.

@1 어느 게 ㄴ심?

#1 이것이 ㄴ심.

@1 아 그게 ㄴ심.

#1 이게 날이고.

@1 음.

#1 ㄴ심 거 옛날 스투리주게.

@1 삼 갑. 예.

#1 스투리.

@1 삼 갑, 사 갑 헐 때 허는 게 ㄴ심이파?

#1 ㄴ심, ㄴ심이엔 헤여.

@1 아. 이젠 헤근에 이 모자 하나 짜젠 허민 메칠이나 헤마씨?

이거양, 저거 허주만은 대략양, 나 시간 계산해 보민 약 팔십 시간.

@1 아.

#1 모자 하나.

@1 어.

#1 계난 이제 흐를, 요 흐를 흐 응답 시간 잡곡 열흘. 열흘 계산해야.

@1 으, 열흘.

#2 경 쉬지 안행 짜야.

@1 쉬지 안행 짜민예?

#1 어, 어, 경헤여. 응답 시간 잡곡 쉬지 안행 계속 짜면은 열흘 잡으면은 팔십 시간 대략 그거, 그거.

@1 아, 한 열흘에서 십오일 잡고.

#1 예. 열흘, 열흘 계산허믄 응답 시간 열흘 계산해근에.
 @1 음.
 #1 계산해근에 허민 팔십 시간 낭 그렇게 대략 계산헌 거.
 @1 음.
 #1 이거 어떻 행 밤도, 밤도 이제 해근에 부찌 짜민 빠르주게, 밤이, 밤.
 @1 예, 밤도 짜민?
 #1 계속 짜민 귀롭고 이제.
 #2 옛날 토산봉 이실 때는양 밤이 나도 아기 구덕 혼글명 짜수다게.
 #1 바쁘민 밤 부짱 짜고 빠르주게, 아멩해도 시간이 더 뒹허니깐.
 @1 응.
 #1 이 밤 부치젠 허믄 참 부제지 지금은 못 허주만은 옛날쯤 헤시믄 밤 부짱 모영 짜곡
 허믄 혼 일주일 넘으믄 하나 멘들 수 잇어.
 @1 응.
 #1 지금은 막 손도 뜨고 눈도 나쁘곡.
 #3 옛날엔 이 동넨양 이거 부업으로 헤나수게.
 #1 이거 이제.
 #3 아무도 안 헤마씨.
 #2 이젠 쪽파 나옴으로 헤서 수입이 이게 적으니깐.
 #3 계곡 이게 토산품도 없어져부니깐 판로가 비싸니깐 이게 잘 안 험니다게.
 #2 재료도 엇고게.
 @1 응.
 #3 옛날엔 신희부부영 토산품 잇을 때가. 이거 행 왕 말령 이추록 허젠.
 #2 우리 이거 다 발로 애기구덕 흔들명 짬.
 @1 예.
 #3 나 잊어불지 아넵니다, 삼춘. 그때 당시 쌀 한 말에 오천팔백 원 험 때라. 하나 짜긴
 에양 쓸 혼 말 반양.
 #2 콩늬물 삼백 원어치 상.
 @1 동그라미 하나 더 부찌사큰게마씨, 이젠예? 삼천 원어치 사야.
 #2 나 큰아버지네 집이 아기구덕 질곡. 아기 안고 허영 이거 아기구덕에 다 담양, 짬 거.
 경험 나 큰아버지네 집에 갓잠아, 처음엔.
 @1 음.
 #2 에고 그땐 무사 경 어렵게도 살아져신디사.
 #1 옛날은 그추록 안 허민 못 살앗주기에.
 #2 예게.
 @1 음. (중략)

제보자 정보

@1 예, 오늘 유월 십육일 수요일이고 여기는 귀덕일리 성로동. 맞지예?

#3 예.

@1 여기 선생님 홍달표 선생님이시고.

#1 조교 송월순.

@1 아.

#1 송월순.

@1 송월순 조교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은?

#3 그냥 학생.

#2 전수 장학생.

#1 전수 장학생.

#3 아직 장학생 안 됐어요.

@1 며느님, 며느님마씨?

#1, 3 예.

#2 며누리, 며누리.

@1 성함이?

#3 안인옥.

@1 안인옥 선생님. 예.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작업하시구나예.

(잡담)

#3 아버지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두 가달로 갈랑 험지예?

#1 응, 영 갈르는데 이렇게 요, 요, 요걸 요거하고 요거 영 위엿 거, 위엿 거대로 영 갈라.

#3 으, 경행예.

#1 어, 갈르는 디도 우엿 거랑은에 저레 밀리고 이거 이추록 또 갈르지 말고, 가르지 말고, 이렇게 행 우엿 건 우엿 거더레, 이제 저레 저쪽으로. 경허믄 다음 꿰기가 좋곡.

#3 거믄 여기부터 시작허는 걸로 여기 매듭행 놔두쿠다예? 어딘지 모르니깐.

#1 시작?

#3 예. 잘 모르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1 시작은 아 그걸로도 뉘어, 그걸로도 뉘는다. 나 이거 하근거 무신거 짤 때 짜다근에 그레 짤러근에 영 표시허주게. 이런 거나 미신거나 이런 거라도 막 쪽은 거 영 특 표시헛 당 경 들랑.

#3 난예, 이거 옛날에 해부난 위엿 건 위엿 거 대로. 상 하나 가정 와야 뉘는데. 이레 상 가져올게요. 큰상 갖당 놔야.

#1 큰상 이레 가져 오라.

#3 예. 이렇게 놔야 요렇게 해야 아버님 위에서 이렇게.

@1 응.

#2 완전 오늘은 그냥 다 벌러놔 좋네.

@1 홍달표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일은 시작헌 거마씨?

#1 아 이거 저, 나가 이제 우리 오춘님이 왕 허라, 허라 행 이제 막 행 자꾸 나도 바쁘고 혜수다만은 나가 현 것이 흐 오십 살 거의 뉘영 시작헛수다게.

@1 아 흐뵂 늦게 시작하섯구나예?

#1 늦게나, 뭐, 그 전에 또 우리 오춘님이 일본 간 살아수다예.

@1 예.

#1 일본간 열여섯에 간 살다가, 살다가 이제 저, 이차대전, 세계이차대전이 난. 거 히로시마 원자폭탄 뉘지 안헤수광?

@1 예.

#1 계난 이 일본 놈덜이 소화천왕이 천구백스오십년 아 저 팔월, 팔월, 아니, 팔월 십오일? 팔월 십오일 낮 열두 시에 항복선언헛어마썸.

@1 예.

#1 일본천왕이. 경헤가지고 그때부떠는 우리 한국도 일본으로부떠 헤방뉘고.

@1 응.

#1 쟁 그때 우리 오춘님이 그 후로 이제 일본 망허고 이제 뭐 허니깐 헐 일도 별로 엇곡 허니깐 귀국헤여마썸.

@1 아, 일본에 계셧구나예?

#1 예, 일본에 열여섯에 간에 그때 헤방 뉘어야만 여기 완에 왕 헐 것도 엇곡. 쟁 아녀시믄 이거 실제 그 분 아녀시믄 이거 이제 또 발굴도 아이 뉘실 건디.

@1 예.

#1 그전이 이제 내가 젊엇을 때 보면은 이제 나 혼 대여섯 살 때썸 보믄 이것들 이제 허레 이제 웃어른덜 보믄 그 비올 때나 미시거 모영 ㄱ치 앓아근에 짚어마썸. 짜는데 한 서너 이상썸 허는디 그 후젠 뭐 쯤 쟁 별로 엇고 그것이 시*인지 그 분도 돌아가고 허니깐 이것이 완전히 길이 없어전마썸.

@1 예.

#1 이제 후계자도 웃고 전에 허는 사름도 엇고. 완전 없어전에 우리 오춘님이 그걸 알앗다가 이제 여기 귀국헤 가지고 돈벌인 엇곡 요 뭐 엇고 헐 것이 이거를 시작해서 그때 생 각헐.

@1 응.

#1 시작헐 이제 허니깐 이제 대학교수 그 김○○ 선생이라고.

@1 예.

#1 잇엇수다.

@1 예, 잇엇습니다.

#1 그분이 이제 이디 완에 그분허고 이제 우리 오춘님 처가가 저디 그 집이 김씨라수다.

@1 아.

#1 이제 그디 우리 여편 삼촌이, 이제, 이제 돌아가션에 허는디 그 후엔 썸 사름이 왓수 다만은 쟁 그분이 이제 완에 이제 발굴헐에 이제 우리 오춘님이 이제 지사님으로부떠 인정 서 받곡 헐에 이제 허단 날보고 오랑 허라, 허라. 하하. 이제 들어근에 그때 그 허엿는디 마흔다섯썸부떠 헐에 그자 그럭저럭 헛는디 그건 신경 안 쓰고.

@1 응.

#1 그 후젠 허는디 이거, 이거, 이것보담도 썸 나 이제 문딱 이거.

#2 가늘아서 이거 흐썸 땡겨전.

#1 이걸로 이거는 구차해서 나 벽두리에 이렇게 메달아 둔 건디. 일본 ㄱ튼 거 증절모자 라마썸.

@1 예.

#1 나까오리, 나까오리엔 일본 증절모잔디.

@1 응.

#1 이거, 이것이 음청 그때 인기 좋아수다, 이거.

@1 아.

#1 인기 좋안 뭐 이걸 멘들기 바쁘기 따문, 우리 동네가.

@1 모양도 약간 특이하게 뻤네, 이게.

#1 온통, 온통 이걸로 헛는디 허엿는디 뭘 무슨 ***, 부부 각시니깐 별로주만은 아 게 니깐 이 조합에서가 이제 이거 저 오성똥 분이 아이고 이제 이 조합에서 문딱 이수 받아근 에 폴아먹켄 헛. 거 모자도 이디 앞으로 갈 거 뒤으루 가고 ㅁ쉬 태왕 꺼굴로 메달아 단 것도 하, 꼭.

@1 허허.

#1 꺼굴로 멘들아.

#2 그땐 만오천 원, 이만 원.

#1 이 앞이가 태양 헛 건디 뒤에가 영 이 뒤에가 길쪽이 나와 불게 멘들아 불언에 그런 것도 싣고. 이젠 허허.

@1 일부러 찌그러지게 헛 거지예?

#1 예?

@1 이거 일부러 찌그러지게 만든 거지예?

#1 아, 일부러 멘든 거마씨, 일부러, 일부러.

@1 여기예?

#1 구썩허게, 구썩허게 이거 나베끼 엇수다, 이런 거.

#2 아무나 못 썩.

#1 나베끼 엇인디 이거 부썩 헛 건디 이걸 경헛 이제 엄청나게 인기 좋안 조합에서 이거 문딱 우리 동넛 거 헛 하, 많이 이제 거두와 가니깐 폴질 못헤연. 폴지 못헛 좋지 안헛 것도 싣고. 뭇헛 것도 싣고 허니깐 폴지 못헛 게난 조합에선 이제, 으, 이 남군 조합이 문딱 그때 당시에 뭇 어떻 헛는지 몰르쿠다, 못 경헛디 그 후제는 그렇게 인기 좋단 것이 차츰 차츰차츰 이제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은 꼭꼭 삽니다. 사는디 그 워 사람들은 별로 아이 사 고, 저 값이[깍시]도 많이 올라가 불고.

@1 예.

경험담

#1 이거, 이거, 이것이 나 썩 번째 멘드는 것이 여기 썩 손길이가 여기 이신디. 이것이 제일, 이거 제일 처음 멘든 거우다, 이거.

@1 우와.

#1 제일 처음 멘든 거, 이거 헛 근 스십 년 똤는 거, 이거 스십 년.

@1 이야.
#1 이거 맨 첫손, 이거.
@1 제일 처음 헨 거?
#1 예, 이거 스십 년 뒀 거우다.
@1 음.
#2 이추록 허영 두바쿠 늘 **. 아까 준 거 어디 간?
#3 이거 아니?
#2 이거?
#3 응.
@1 이게 제일 처음 만드신 거마씨?
#1 예, 제일 첫손.
@1 언제, 몇 살쯤에 만드신 거우파?
#1 흔 오십 전후 닳아, 기억은 딱 없고 오십 전후.
@1 오십 전후에 만드신 거마씨?
#1 예, 계난 이 마흔아, 아홉엔가 이젠 쉬은인가.
@1 응.
#1 그때 시작헨 나 이제양 이, 저, 읍에도 근무해나수다게.
@1 아.
#1 읍에도 흔 십 년간 근무, 또 리서기도 해나고.
@1 응.
#1 이장서리도 마타나곡. 이제 새마을 지도자도 뭐허어나고.
@1 아.
#1 뭐 허어나고 여기 영 상도 받아나고.
@1 아.
#1 겨곡 여러 가지 그자 영영 헿 어울렁 지내다 보니깐 침 흔 쉬남은 뒀엄직허게 뒀는다.
@1 음.
#1 겐디 침 이거는 이추록 가격은 나왓수다, 나완.
#2 구십 넘어근에 지금까지.
@1 예. 아까 요거는 삼춘?
#1 예.
@1 요거는 뿐, 뿐 부린 거마씨? 일부러?
#1 어느 거?
@1 이거, 이거.
#3 저 우통에 뿐 부린 거?
#1 아 일부러, 일부러 가달 낸 거.
#3 일부러 모양낸 거.
#1 이거, 이것도 보문 이거 이, 저, 이, 가달 놔불어신디.
@1 예.

#1 가달 놔신디 이거 좋아히는 사람 싣고, 좋아 안 히는 사람 싣고.
 @1 아.
 #1 이거 처음이난 가달 낡 이렇게 멘든 거.
 @1 이렇게 멘든 거보단 이게 더 비싼 거지예?
 #1 아으.
 @1 손이 더 많이 가지 아넵니까?
 #1 이게 공이 훨씬 더 많이 가.
 @1 아.
 #1 이거는 이제 한 삼사일은 멘들고, 이걸 열흘.
 @1 아 이게 좀 더 공들이는 거마씨?
 #1 하, 이것이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1 음.
 #1 또 이디양? 흐 바쿠 돌젠 허믄.
 @1 음.
 #1 그 반 시간도 못 돌려.
 @1 아.
 #1 반 시간도 더 돌아. 일로 흐 바쿠 돌젠 허믄.
 #2 한 바퀴 스십 분 걸려.
 #1 아, 예. 이 막 돌아갈수록 꺾테 갈수록 점점 더 오래 걸려.
 @1 아.
 #1 막 승 돌아내사 이거.
 @1 예.
 #1 갱 이거는 경 모영 삼백육십 놀이 뒤주만 이걸 그렇게 안 행 빠르곡.
 @1 응.
 #2 ○○아 이추록 허영 이거 날 영 꺼깁 두 개씩. 아까 나 쫄라부난 욱들엇저만은 그.
 #1 아, 건 잇으믄 뒤어.
 @1 하하.
 #1 잇으믄 뒤어.

부분 명칭 2

@1 삼춘 아까 이걸 뒤엔 곱읍디가?
 #1 땀띠.
 @1 땀띠.
 #1 땀.
 @1 그니깐 땀띠 나는 거추록.
 #1 예, 예, 계난 이디.
 @1 그 땀띠랑 똑같아마씨?
 #1 경허난 이렇게 허믄 저 이디 거칠지 아녀고. 거칠지 아녀.

#2 여기가 그 땀 나면은.
#3 이마에.
#2 이마에 여기 흐뭇 들리지렌 요거 사 갑 진 거 같애.
@1 아.
#2 쟁 땀띠렌.
@1 아.
#1 계난 이디.
@1 땀띠 나지 말라고? 하하하.
#1 이것이, 이것이 요기보담 이것이.
#2 땀 내려오는 걸 중단시켜주메.
#1 사 갑 이것이 덜 거치러워. 여긴, 여긴 거칠고 덜 거치러워, 이진.
@1 아 사 갑으로 허면 흐뭇 덜 거치러웁니까?
#1 예. 덜 거치러워, 거칠지 아녀.
@1 음.
#1 여긴 거치러워도.
@1 음.
#2 경헌 거 같애.
@1 음, 그 다른 데서 저희 막 훑아보단 보난 사갑바위엔 현 건? 사갑바위.
#1 바위엔 현 건 이걸 바위렌 허는디.
@1 바위 이거고, 사갑바위는 어디?
#1 사갑바위 이거 네 개, 네 개로 짠 거 사갑바위.
@1 예.
#1 또 여기 이디 그, 저, 요 거세기 여긴 절벤이나 꼭ㄱ타, 절벤.
@1 아.
#1 절벤 것도 녀 줄로 허고 이것도 녀 줄로 허고.
@1 게문 요게 사갑바위, 요것도 사갑바위마씨?
#1 이진 사갑바윈디 이거 요 사갑바위 허믄 영 튀어 나오는디.
@1 예.
#1 이 안으로 보면은 이 석 줄로 멘든 거.
@1 예, 거믄 삼 갑이네.
#1 이 녀 줄로 멘들믄 이 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1 응.
#1 이레 안 나온 거 보니깐 이진 석 줄로 멘들아분 거난 이 스갑바위가 삼갑바위.
@1 이진 그냥 삼갑바위.
#1 삼갑바위베끼 아이 뉘는 거.
@1 응, 그믄 바위는 사갑으로 보통 험니까?
#1 사갑으로 허믄 우알 이렇게 나와, 우알. 쟁 공정은 더 들주. 더 드는데.
@1 예.

#1 거즘 모르는 사람은 몰라.
 @1 응.
 #1 쟁 요것도 확실히 낫주게.
 @1 요거는 그믐?
 #1 이거는 허허. 이거는 스갑바위.
 @1 아 이게 스갑바위?
 #1 이, 이것이 나오잖아, 이거, 이거.
 @1 아.
 #1 이거 일로도 뒤편 일로도 뒤편.
 @1 아.
 #1 것이 네 가달로 허니깐 경 뒤편. 이건 없잖아.
 @1 예, 예.
 #1 계난 이게 삼갑바위.
 @1 응. 이게 트나구나예?
 #1 예. 이런 거 엇잖아, 이런 거.
 @1 예, 예, 예.
 #1 이것이 엇고, 이거는 이 바위 알려레 바깥에도 있고.
 @1 응.
 #1 것이 네 가달로 짜니깐.
 @1 예.
 #1 시 가달로 짜니깐 이거베끼 아이 뒬는 거.
 @1 응. 그 망은 그러면 요 망은 몇 갑으로 짜는 거마씨?
 #1 이 망은 세 갑.
 @1 건 세 갑으로?
 #1 세 갑으로만 계난 쪽 세 갑, 요거. 세 갑으로 안 짠 던 요거허고, 요, 요, 요디도 요디도.
 @1 접히는 부분예.
 #1 요디도, 예, 이것도 짬을 허주만은 요디도 허곡 또.
 @1 요 끝에 하고, 응.
 #1 네 가달로 짜는디. 요기도 허고 요디도 허곡, 요거하고.
 @1 예.
 #1 거뿐.
 @1 절벤허고.
 #1 절벤허고.
 @1 땀띠허고.
 #1 땀띠허고.
 @1 바위.
 #1 이제 바위.

@1 어. 거기는 세 갑이 아니라 네 갑.
 #1 네 개로 짜는디 이거는 세갑바위가 아니라 삼갑바위.
 @1 이걸 삼갑바위, 예.
 #1 이 네 개로 짜는 건 사갑바위.
 @1 음 그믐 이거 한 번 영 도는 걸 한 도리 돈 덴 합니까?
 #1 한 도리도 뉘고 두 도리도 뉘는데.
 @1 예.
 #1 경 허질 아녀, 이거 원래 기본적으로 한 도리, 옛날.
 @1 예. 게믐 요기, 요기까지 곤떡은 혼 멧 도리나 돌민 요만이 만들어지는 거마씨?
 #1 그건양, 이, 저.
 #2 멧 도리?
 #1 이거, 이거, 이거 굶기에 따랑 틀립니다.
 @1 아.
 #1 이거 가늘면은 여러 개 들어가고 굶으면은.
 @1 응.
 #1 이 허는 건 도리 셀 순 엇곡.
 @1 아.
 #2 정동 가늘어야.
 #1 가늘면은 하영 들어가고 이제 이것이 굶으면은 바로 밀려나가고.
 (잡담)

정동 모자의 종류

@1 게믐 이게 가는, 가는 걸수록 더 촘촘하게 뉘겠다예?
 #1 예, 예. 가늘수록 더.
 @1 더 비싸마씨?
 #1 예, 게니깐양 처음부터 이 가는 것이 촘촘촘촘 이제 막 가면 이제 어떻 허믐 난 경운양 이젠 여기가 든든해야 뉘니깐 꺼꿀로 이디 굶은 걸로 시작행 이딘 가는 걸로 나와 불어마씨.
 @1 아.
 #1 단단허게.
 @1 다 똑같은 걸로 허는 게 아니구나예?
 #1 다들 이젠 요깃장은 그렇게 허고 울로부떠는 나 하는 건 똥 사름은 경 아녀지만은 나는 여기 단단허라고 이젠 요 오히려 막 슬진 걸로 뽕앙 여기 못 쓰곡 촘촘촘 가는 걸로 쟁 마무리허는 거, 나는.
 @1 음, 아.
 #1 경허면은 요기가 든든허고.
 @1 아, 요기가 든든허고.
 #1 이것이 이제 든든해지는 거.

@1 음. 그럼 요기도 삼 갑, 요기도 삼 갑인 철이우파?
#1 예, 다 삼 갑, 다 스갑 붙는 바위는 이제.
@1 예, 튀어나온 데예?
#1 절벤 부위하고 요 땀띠하고 요디, 요디.
@1 음.
#1 저 거세기 이제, 뭐. 이, 저 바위.
@1 아이도 저기 좋은, 흠뻐 비싼 거 혹은 잘한 거, 좋은 거가 있고.
#2 아이고, 예.
#1 예.
@1 흠뻐싼 게 이실 거 아니라예?
#1 제품에 따라 틀려.
@1 예, 그건 기준이 뭐마씨?
#2 정동 가늘면은.
@1 응.
#2 더 이쁘곡 보기 좋고 헐디.
#3 정동, 정동에 따라.
#1 그렇지.
@1 정동 굵기에 따라서?
#2 이것도 굵은 거, 굵은 거.
#3 색깔, 굵기.
@1 어.
#1 이 색깔은양 얼룩얼룩얼룩 또 이제 햇빛 맞추믄 색깔 다.
@1 저 색이영 이 색이영 틀리다예?
#1 아, 저건 햇빛.
#2 이것도 다 짜난.
#1 짜냥.
#2 밤에 한 이삼일 햇빛 맞춰 놔두믄.
#1 햇빛 맞으면 이 색깔 노랗게 변해블어.
@1 아.
#1 저 아멩 꺼뭇꺼뭇헤도.
@1 음.
#1 햇빛 맞으면 이렇게 노랗게 변해블어.
#2 겨곡 옛날 어른덜이 이거를 웨 저, 선호햇냐면은 이거 쓰고 비 아무리 와도 비가 안 들어와 얼굴에.
#3 구멍이 촘촘헿.
@1 아.
#2 비가 엇어.
#1 이거 원래 꽃자왈 들어가믄.

#2 베짖디레 다 떨어져.
 #1 꽃자왈 들어강 이 대가리만 질르른 이제 가시도 벗어나고.
 @1 가시도 안 들어오고?
 #2 응.
 @1 음.
 #1 안 들어와, 대가리만 가시고 뒹고 쑥쑥 들어가.
 #2 나 우리 집이 저런 일반 모자.
 @1 예.
 #2 정동, 저, 고사리 꺼끄레 땡이명 혼 이십 년 쓰난 이 앞이 여기 다 터져서.
 @1 응.
 #2 가시자왈 행 가도.
 #3 걸리지 안혀여.
 #2 가시에 걸리지 안혜. 무조건 머리부터 쳐들어가도.
 @1 음. 허허허.
 #2 이디 모자도 안 벗어지지, 거난 여기가 다 가시나무에 다 걸려가지고 다 헤어져도 못 버려.
 #1 이, 이, 마르른 나무 일종 뒹부니깐 단단허주기게.
 @1 아. 게른 요걸로 아까 실로 이렇게 허신다고 하셨는데.
 #2 예, 면실.
 #1 이건 이건의.
 @1 예.
 #1 거 옛날엔 이제 이런 면실, 무우레 잇잖우파?
 @1 예, 예, 예.
 #1 알지예? 그걸 이제 그거 무우레로 막 영 꼬양은에 이거 옛날엔 요새 닳은 싹이 엇어 시니깐 걸로 꼬양 이걸 멘들안 헤낫어마쌌, 옛날은. 무우레, 무우레실로.
 @1 응, 요 끈 달젠 허난 멘든 거파?
 #1 끈을 든 무우레 옛날 짠 거 아니난.
 @1 이거랑 이어졌네.
 #3 불러나지 아녀게.
 @1 그니깐 요기에 이영은에 끈을 이렇게 집어놔 가지고 끈 만든 거네예?
 #1 예.
 @1 응, 요렇게 안 하고 요것처럼 요렇게.
 #1 아 이건, 이건, 이건, 그걸로 안 허른 규격위반, 규격위반.
 @1 규격위반?
 #1 어, 원래 이렇게 해야 뉘지. 이거 허른 저, 정동벌립이 아이 뉘어.
 @1 하하하.
 #1 규격위반.
 #2 규격위반.

#1 원래 옛날부터 이 허용된 것이 순수한 거기 때문에.
 @1 응.
 #1 이거 이제 옛날 것에 이거 부찌른 안 돼어, 이진.
 @1 아까 삼춘은 혜선계만은?
 #1 아니 그진.
 #3 삼춘대로 현 거.
 #2 아니, 이거. 짜다가 그냥 내버리든 이것이 부서져.
 @1 어.
 #2 부서지니깐 이것에 담양 물 담글 수 잇잖아. 다라에다가 물 담글려면은 이거를 다 족게 축소시킨 거지.
 @1 음.
 #2 이렇게 현 거지, 이거.
 @1 아. 하하하.
 #2 이렇게 행 다라에 들어가게끔.
 @1 아니, 요기, 요기.
 #2 아 그진 불법, 건 맞아, 불법.
 #1 임시 아이 짤 땀 이거 행 놔두곡.
 #2 아, 난 이거를 얘기험시카부덴.
 @1 그진 뿐인 줄 알안.
 #3 아, 불법.
 @1 것도 불법?
 #2 으, 맞아, 불법이.
 @1 아니 요깃 것도 불법?
 #2 어느 거?
 @1 요디 바우엣 것도?
 #2 아니 그진 임시로 현 거.
 #1 아니 요건 불법이, 요것이.
 #2 아까 얘기허듯이 짜당 놔둔 거, 이거 날 꺼끄, 부서지거든.
 @1 어.
 #2 안 부서지게끔 행 이렇게 간편하게 행 놔뒀당 물 담글 때에 다라 안네에 들어가게끔 족게현 거고.
 @1 응.
 #2 이렇게 큰 거 물 담그젠 허든 곳잖아.
 @1 맞아마씨, 맞아마씨.
 #2 계난 보관헐, 저, 짜당 놔두는 건 항상 이축헐 놔두거든.
 @1 아.
 #2 이추룩 행 놔뒀야.
 @1 가이가 흐뎡 트나다 생각해신디.

#2 아아. 아니 이걸 다 안 짠 거지. 이거 다 풀언, 아까 거, 이거.
 @1 응, 계난 요깃 거는 요긴 이걸 뒤편 끈는 말은 엇수과?
 #1 띠.
 @1 띠? 아, 요건 띠엔 끈는구나예.
 #1 띠, 띠.
 @1 음. 그다음에 요기 허는 게 힘들어마씨, 여기 하는 게 힘들어마씨?
 #2 우에.
 #1 요, 요, 요디. 이게 제일. 이 부위가 막음대로 잘 안 뒤편, 이 우이.
 @1 요렇게 뒤편이면 이 날수가 달라야 뒤편 건데.
 #1 이 모양허고 이 모양 틀리잖어.
 @1 예, 예.
 #1 쫄딱허고 이걸 영 똥그러게.
 @1 예.
 #1 가급적으로 이렇게 헤줘야 뒤편지, 이걸 이젠 모양을 보기가.
 @1 저게 더 멋잇어 보이는데. 허허허.
 #1 저거?
 @1 예.
 #1 그 육지에 거 샷갓, 대샷갓 꼭거치 그 모양 뒤편.
 #2 갓 뒤편.
 @1 어.
 #1 샷갓 뒤편.
 #2 이거 똥그스름헤야 뒤편데.
 @1 아니 요즘 사름덜은 저게 더 멋지덴 허크라.
 #2 저거는 잘못 짚덴 육들언.
 (모두 하하하)
 @1 이렇게 뽀록허게 안 헛다고.
 #2 보유자님 앞이 육들언. 여기 이거 너무 쫄락허게 헛덴, 제주똥말로. 영 똥그스름허지 안허언.

정동 모자 규격

#1 이거 뒤편냐면 이게, 이게. 이것도, 이것도 이거 칠 전이 넘거든.
 @1 칠 전이 넘어예.
 #1 칠 전 넘어.
 @1 으.
 #1 넘고 이제 아까 줄자 이레 주라, 줄자.
 #3 줄자?
 #1 이거 보면은 이거 규격이 셔.
 #2 건디.

#1 규격이 이신디 이거, 이거 보면은 여기서 요, 요 우에꺼지 재면은 십일 전이 나와야 돼, 십일 전.

@1 아, 십일 전.

#1 이거 이렇게 짜서 일로 일직선이 십일 전이 돼야 되고. 이제 여기서 영 행은에 이제 나 같은 경운 여기꺼지 딱허믄 십팔 전이 이제 나오면은 좋은 거꼭 십팔 전이 아니 낫주, 이십 전, 이추룩 허믄 십팔 전이 아이주, 막 졸락헌 건 십팔 전이 아이 나와.

@1 음.

#1 여기가 영 썩허게 나가믄 십팔 전 나오주. 정상 이런 정도로 이것이 더 나가주게.

@1 예, 예.

#1 여기가 부푸니깐.

@1 음.

#1 경 아녕 쫄닥허믄 이 센터가 덜 맥혀.

@1 아.

#1 계난 딱 재믄 여기서 십팔 전 나오면은.

@1 아.

#1 여기서 십일 전 허믄 것이.

@1 요기부터 요기까진 십팔 전.

#1 아, 십팔 전.

@1 요기서 요기까진 칠 전.

#1 아, 요건 칠 전.

@1 그다음에 아까 요기서 여기는 십일 전?

#1 아 그것이.

#3 머리마다 틀려.

#1 십팔 전으로 영 뒤킨 뒹는디 그거는 이제 머리 크기에 따라 다른 거.

@1 아.

#1 머리 크기랑 관계엇고.

@1 아까 십일 전은 무신거라?

#1 요거 요것이 십오 전.

@1 아 요기서 요기까진 십오 전.

#1 요기서 요꺼장 십오 전.

#2 십오 센치.

#1 예.

@1 아까 십일 전이엔 곱은 것도 잇어신디.

#1 십일 전은 요, 요, 요 높이, 요기서.

@1 키가 십일 전.

#1 정확히 높이.

@1 여기서 여기까지가?

#1 으, 으, 으. 이 수평, 수평 높이가 십일 전이고.

@1 십일 전.
#1 겨민 이제 동글락하게 짜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재민 여기 딱 십팔 전.
@1 아.
#1 젠디 요건 십팔 전이 아이 나와.
@1 하하.
#1 이추록 딱해 부니깐
@1 요기는마씨?
#1 이 십오 전.
@1 여기는 십오 전예. 음. 계난 이 날수가 요 곳테 가민 그때 아까 몇 이렌 곶아.
#1 삼백육십.
@1 삼백육십 개예.
#1 예, 삼백육십 개.
@1 아, 우리 날수영 똑같다예? 삼백육십오일 허는 거랑.
#2 삼백육십 개하고.
@1 응.
#1 이것이 그자 대충허는 것보단 즘질믄양 더 나갈 수도 잇어마썸.
@1 아.
#1 이디 즘진 놀이 즘질고 허민.
@1 예.
#1 이 놀이 더 훤으민 덜 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음.
#1 훤은 걸로 짜니깐 이 모양이고.
@1 아, 이거는 훤은 걸로 짠 거마씨?
#1 아, 훤은 걸로 짜부난 그 모양. 처음 배우는 거꼭 그러니깐 그거고.
@1 어.
#3 거 재료가 이제는 힘드니깐, 없으니깐.
@1 으, 맞아.
#3 굶을 수, 힘들어.
#1 이진 난 집이서 막 밧디 강 농사짓고 어디 현 거난.
@1 쓰신 거구나, 응.
#1 농사짓고 허난 니스칠헤불언.
@1 아 그래서 요 곳테 마무리가, 바우가 흐뎡 다른 게마씨.
#1 이거 저, 거세기.
@1 뭐 칠헤져신게.
#1 이제 무신거 무신거 칠헤불언, 거세기 침골.
@1 침골. 하하하.
#1 침골 찢러불언, 이디 다이지 아녀게. 나 밧디서.
@1 밧디서 썩 뎡기젠.

#1 아. 쟁 툃툃 톡들면은 자꾸 나가기 때문에 거 떨어지지 아녀게 침골 무쳐불언.

@1 응 경허난 영 뵈구나게.

#1 아, 경허난 경 뵈. 겨난 떨어지지 아녀. 하하하. 이 무신 폴아볼 거도 아니난, 씨영 텅기는 겨난 밧디.

도구 3

@1 아까 도구에서예? 만드는 도구에서 삼춘.

#1 예.

@1 필요헌 게 아까 님개허고?

#1 님개허고 송곳.

@1 송곳허고.

#1 가위.

@1 가위허고.

#3 즐자.

#1 요 짜르는 것에 저 뵈 영 이제 잊저, 그거.

@1 이겨 뵈마씨?

#1 이겨? 이겨 이제 집게엔 허고 일름 난 몰르는다.

@1 그냥 집게?

#1 겐디 이걸 어떻게 사용허냐면 이디 놀을 마무리할 때 잘릅니다, 마무리할 때.

@1 아, 마무리할 때.

#1 예, 예. 이걸로 짜르고 이걸로 잘르믄 거칠어양. 거친디.

@1 예, 예.

#1 바짝부짱 잘르젠 허믄 미끈허게 걸리지 아녀게.

@1 어.

#1 이겨. 이겨보담 더 큰 걸로도 질영 아이 뵈고.

@1 응.

#1 이것이 마치 좋은 거.

@1 게난.

#1 좋은 거 바짝 잘르믄 뵈고 큰 것도 이제 튀어나와 이런 거 큰 거라도.

@1 응, 칼도 필요헤마씨?

#3 예.

@1 필요헌 거 송곳허고. 아님 송곳 아까 삼춘이 만든 거 어디 셔?

#1 아, 아, 송곳.

@1 두 개짜리.

#1 아 요겨, 요겨?

@1 두 개짜리. 요겨 하고.

#3 칼.

@1 칼도 필요헤?

#1, 3 예.
 @1 칼은 어디?
 #1 칼은 거 엇인가? 나 칼 보라, 멘든 거 어디 이실 거여.
 @1 이거?
 #3 여기.
 #1 아니, 아니.
 #3 아 이거?
 #1 이것이 나 멘든 건디 저거 이것이 췌툽, 췌툽. 췌툽을 이걸로 멘든 건디.
 @1 아.
 #1 이거 영 행 이렇게 놀이 부짱 어디 굶은 거 이시민 툽툽 짤라근에 질잉 뭐 허단 보문.
 @1 응.
 #1 남제기 나무 툽 짤라근에 영.
 @1 아, 게든 필요한 게 요롱게, 이렇게 필요, 요거 필요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필요합니까?
 #1 요거 시난 이진 필요 엇고.
 @1 아, 즐자 이시믄 뉘마씨? 이진 엇어도 뉘?
 #1 예, 예.
 @1 이진 엇어도 뉘고. 게난 다투개, 송곳, 칼, 자, 가위, 이진 집게?
 #1 집게.
 @1 집게. 이렇게 필요한 거마씨?
 #1 예. 난 인제 그디 저 뉘 우산줄광 또.
 @1 미신거마씨?
 #1 그, 그디.
 #2 정동 걷으레 갈 때 쓰는 거.
 #1 우산 필요한 거 뉘냐면.
 @1 응.
 #1 아 그거.
 @1 이거? 이진 뉘마씨?
 #1 이진, 이진 이진 이거 헐 때에 요디 짤렁.
 @1 아, 송곳허고 좀 다르우다? 가운데 구멍 뚫려전.
 #1 요거 요거 이거 마무리칠 때도 요, 요거 헐 때 이제 정동을 헛주마씨.
 @1 예.
 #1 이거 짤러근에게 이거 헤근에 꿰영 영 허는 거, 이거. 딱 사름은 이런 거 엇수다, 나만 있어.
 @1 아, 이진, 이진 무신거렌 곱읍니까?
 #1 허허.
 @1 이름 몰라? 이름은 엇어? 야이 송곳이랑 비슷한데 요 가운데가예? 구멍이 나있어.
 #3 구멍이 나있어.

#1 경, 경 삐죽해야 이거 일로 영 들어갈 거 아니우꽈?
 @1 예, 예.
 #1 영 들어가근에 꼽주게.
 @1 아.
 #1 어, 그거, 그거.
 @1 음.
 #1 일로 아이 뒤편 이걸 영 꼽앙 영허믄 이걸로 그냥 쓱 질르믄 그냥.
 @1 요런 거 하나 끼와근에예?
 #1 예, 쓱허믄 그냥 바로 들어가 붙어.
 @1 어.
 #1 그 이걸로 그냥 이 송곳으로 고망 툄라불믄 아멩도 걸려, 걸려.
 @1 이름.
 #1 이것이 이 나베끼 엇은 거 이거.
 @1 아하, 삼춘 특허? 이거는. 예.
 #1 특헌 아니주만은 그냥 편리허게 멘드는 거.
 @1 그제 그거주마씨.
 #1 예.
 @1 그 흑시 뉘 마름대엔 현 건 뉘꽈?
 #1 으?
 @1 마름대?
 #1 마름대?
 @1 그런 거 필요 엇어마씨?
 #2 그건 여긴 마름댄 엇어.
 @1 글그랭이.
 #1 으?
 @1 글그랭이.
 #1 글그랭이, 아, 글그랭인.
 #2 글그랭이 그건 정동 걷으러 가는 거.
 #3 정동 걷으러 갈 때.
 #1 이 정동 걷으러 갈 때에.
 #3 가면 이렇게 밭에 이렇게 잇는 거를.
 #1 그것이, 그것이.
 @1 글쟁이처럼 뉘 거?
 #1 저디 놔두난 엇언게.
 #2 두 개, 두 개 나 거 거정 오크라. 영 허영 우산대에 이 길게.
 @1 응, 응.
 #2 어멍허느냐면은.
 #1 글쟁이 ㄴ치 뉘 건디이, 두 개로만.

#2 이디가 두 개잖아. 한번 굽으젠 허면은 이디가 췌 코쟁이 영 헤영 허믄 이거를 이 굽 어내면 이게 이만씩 긴 거난 올라와.

@1 아.

#2 거믄 이거 영 훌터근에.

#1 그거 이제.

@1 아.

#1 글쟁이는 여러 개주만은.

@1 예, 글쟁이는 발이.

#1 이거는 딱 두 가달.

@1 아.

#1 딱 두 가달 헤근에 이거 뭐냐면은 글쟁이엔 현 거는 그, 저, 산에 가면양 그 이 딱 영 부속 저 **로 번어가는 거 몰라마썸. 영 보믄 언뜻 봐지믄 굽어불믄 그냥 나와마씨.

@1 응.

#1 쟁 그거를 이제 저.

#2 글쟁이 거정 텅이젠 허믄 불편하고.

@1 맞아마씨.

#1 글쟁이 그건 너미 걸리는데, 두 가달 쟁.

@1 두 가달만 허는구나예?

#1 우산, 우산.

#2 우산대 같은 거 떼영.

@1 어.

#2 다 우리 아주버님 만들어쥬, 나도.

#1 아 저디.

@1 음.

#2 꼭 *추룩 영 이 췌로 요렇게 만들어 쟁 아까처럼 헤영 쫘 길게 허영.

@1 아.

#2 굽엇닥 앓앗닥 못 허잖아.

@1 맞아마씨.

정동줄 걷기

#3 근디 출왓디 강 보면.

#2 굽어둡서 그걸로 이렇게 허면 밑에 짝 번어가잖아 그걸 올려와야 뤼.

#3 출왓테 눈에 안 보이잖아예? 이거 이렇게 굽으다 보면 정동줄이 올라와.

#1 걸려, 썸.

#3 그걸 들고 쫘을 찾아가.

@1 응.

#3 이 한 줄 보이면 이거를 잡고 쫘을 찾아가면 칙 같이 그 줄레에 이제 번어 잇어요.

@1 아.

#2 찾아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영 허믄 굽영 올라올 거 아니? 올라오믄 이거 영 좁아텨
기믄 그 곳이 이만씩 나와, 이추륙.

@1 이런 거는 나무 타근에 올라가지 아녀마씨?

#3 그런 건 못헤요.

#1 아, 나무 탕도 올라강양.

#2 산담에도 잇고.

#1 그, 그런 디 저 자을 올라가믄 탕 올라갑니다. 올라강 나왔던 뉘 그냥 구작 밑으로
변으믄 미끄럽고 현디 나무에 강 오그라진 건 사용 못 헤.

@1 쓰지 못헤.

#1 으, 사용 못 헤.

@1 아, 땅바닥에 기어간 것만.

#1 땅바닥에 싹 부뎡 그냥 쑥 나가믄 이 담 부뜨는디는 이 이파리 옆으로 발도 쟁기고
경행 변어지는다.

@1 응.

#2 즈진 거 이거 다 끌려논 거?

#3 아니.

#2 아니 계난.

@1 이진 계믄 몇 월달에 가근에 행 와마씨?

#1 예?

@1 멧 월달쯤에?

#1 이거 옛날엔양, 그 저 옛날 저디 어른들 헐 때는, 이, 2만셔 자. 그 어디니 미신 검
악 넘어간 디.

@1 출 할 때?

#1 검악 넘어간디, 출 말고.

@1 검악 넘어간디 저지?

#2 아니, 저 우터레 산 우터레.

@1 어디? 애월?

#1 아 그디 일름 그 뉘여만은.

@1 솔도?

#1 검악 말고, 솔도 말고. 저.

#3 동광? 서광? 동광?

#1 아 동광 말고, 부락 이름 말고.

@1 예.

#3 대천동?

#1 꽃자왈이다.

#2 대천동, 대천동.

#1 남산이 꽃자왈, 남산이 꽃자왈.

@1 아. 남산이 꽃자왈.

#2, 3 대천동, 대천동.

#1 남산이 꽃자왈인디 검약 넘어가믄 잇는디 그디 거기가 워낙 많앗주마씨, 옛날은. 뜯디 아이 강 그즈막에.

#3 아니 아버지 나 대천동도 가나수다.

#2 우리 동쪽에.

#1 아 그거는 그 요즘이고 그 옛날은 거기서만 헛어, 옛날은.

@1 응.

#2 우리 갈 땐 어떻 가난 줄 알아? 요 중동네, 알동네 사름이 트럭이 잇어.

@1 응.

#2 트럭에 겨믄 한 삼사십 명 모여.

@1 응.

#2 갱 우린 밥 싸고 이거 허고 글갱이 이거 다 가지고 만반에 준비를 행 가. 가면은 갈 때엔 처음엔 만오천 원 허단 이만 원.

@1 흐.

#2 경해근에 그 차에 한 삼사십 명 타고 가. 강 올 때엔 또 불령 모여져야 올 거 아니? 그땐 핸드폰 가져서, 뒤편서게.

#1 계난.

#2 거믄 불르믄 그 차에 다 모영 와. 잇어볼지도 안헤. 여기 저 누게우팡? ○○각시. 가믄 ○○이 경 꼴앗잖아. 길레서 저 춤웨 풀아난 행실머리, 흐흐. 불러도 빨리 나오지 아녀영.

@1 아.

#2 다른 사람 다 나와신디 어떻 행 빨리 오지 아녕. 그 사름 하나 때문계. 몇 십 명이 기다렸잖아게.

@1 음.

#2 막 경 행 곶아났어.

#1 계난 그, 저, 그, 저, 허허, 그디 또 잇어 불어시네. 남산이 꽃자왈. 남산이 꽃자왈 그기 허당 뒤 그기도 돈딱 이제 뒤 없어져 가니깐 뜯 디로 간 대천동 이제 남군더레 막 저레 나강 경 그축헛주. 그 전인 남산이 꽃자왈서만 채취헤난. 거 어느 시절이냐믄 이제 저 출 이제 비기 직전 무렵에 그땐 헤났고 지금은 아무 때라도.

@1 아.

#1 요 후제도 뒤 허고 이젠. 겐디 이젠 막 헤가난 말려부난 지금은 엇고. 이디 한 가지 베와줄 거 잇는디, 이제.

#3 우리 아버지 계메, 백 살 넘도록 살안. 이거 영 짜민 이거 말르민 손이 아파요.

@1 응.

#3 계난 물 적지명, 물 갖다 놓고.

#1 이것이 이 물건 뒤주기계.

정동 키우기

@1 그거 무신거마씨?

#1 이거 정동, 정동 이제 묘종.
 @1 아, 이거 묘종.
 #1 아, 정동 묘종인디 이거 헛는다. 야이 보레 강 싱그렌 허난 이거 거세기.
 @1 밧디서도 키와져마씨?
 #2 응, 키와요.
 @1 아, 밧디서 키웁니까?
 #1 예.
 #2 우리 텃밭에도 문 키웁서 이제.
 #1 이것이 이제 가근에 밧에 싱거근에 키우는다 이거 묘종, 이거 헨 헨 건디.
 @1 응, 그냥 이거 씨 밧아근에 묘종으로 아니, 씨 밧앙 묘종으로?
 #1 씨 밧앙 헨 거고양 요, 요, 순 난더레 묻으믄 요거 밧 나와근에 그 짚랑도 그냥도 허고.
 @1 어.
 #1 이진, 이진 씨로 헨 거.
 @1 이진 씨로 헨 거.
 #1 뵈까 아닐까 해근에 그냥 이제 허여밧는다 이거 뵈영 나신게.
 @1 와.
 #1 계난이.
 #2 이 커가명 요것이.
 @1 응.
 #2 막 뱅뱅 감아져게.
 @1 응.
 #1 이거, 이것도 이제 감아지기 시작헨. 뵈 부쩍. 계난 이 아랜 멀리 떼어내불믄 그냥 구
 짝 번어가는다 이 상태론 막 감아정 올라가. 허허.
 #2 그거 떼민 그 테와진 거 떼어주민.
 #1 이거 흐 칙줄 불리쫂 무신거 닳아라. 경허난 그거 사다근에 헿 빨리 헿 갈라줘사, 갈
 라근에.
 #3 예, 오늘.
 @1 경헿 이거 묘종 해근에 밧디 강 묻으는 거마씨?
 #1 예 밧디 가근에 심영.
 @1 이거 짚라근에?
 #2 으.
 #1 겨난 이걸 이걸 허여야 저디 산에 아이 가근에 저 뵈 허지. 이거 안 허영 산에.
 #2 이거 저거 한번 싱그면은 딱 먼저.
 @1 예전에도 또 안 싱거도 뵈?
 #2 안 싱거도 뵈. 이거 아까 눈 잇엇지?
 @1 예, 예.
 #2 그 눈 잇는 데로 흑 이렇게 헿 묻영 저 나두면은.
 @1 뿌리 나와?

#2 거기서 밭 변영 나와.

@1 음.

#1 이걸 이걸 진짜 이걸 이렇게가 저저 거세기 이파리가 나오는 것인데. 이거 이런 디가근에 이파리 꼭 이파리 나온 부분더래 영 블라야 든 흑 더평 뽕리가 생겨.

@1 아.

#1 흑 더평 내블른 지나가는 거.

#2 이 장마에 모영 짜. 흔 이틀 모여지민 짜, 경헨.

#1 경 아지망헌티 막 허주렌 강 밧디 ***, 이거 험주게.

@1 어.

#2 아버지 앞이 교육 반앙 하나 이런 식으로 짜.

#1 계난 우리 아지망 저디 문딱 박아블른 그디 잔디 엇고 옆이 거디 또 허믄.

#2 나는 어떤 건 막 잘 크고 어떤 건 원 안 크고.

@1 어느 정도 키우면 쓸만 헤마씨?

#3 삼춘 이걸 무산고? 놀이 이으는 거 우에 올라가게 허연?

#2 어느 거?

@1 야네가 어느 정도 크면 이 정도 뒸는 거마씨?

#1 이거양 크기 시작허믄 금방 자랍니다.

@1 아.

#1 막 빨리 자라, 금방. 이거 허믄 이거 막 길면은 한 사 메다, 스 메다 가마씨. 긴 것덜은.

@1 응, 그믄 이거.

#1 막 이거 가달치명, 가달치명.

@1 이거 봄이 싱그믄 가을에 이거 헤지는 거마씨?

#2 응.

#1 예, 이것이 이거 막 굳지 아녕 이시믄 몰랑몰랑허믄 이디 그냥 약헤영 아이 똥니다. 겨난 어느 정도 이 꼬트머리라도 굳어져사.

@1 아.

#1 경허난 이제 이거 여름, 가을쯤 훗가을에 잡으믄 좋읍니다, 그거. 그디 꼬트머리 물러 지지 아녀고 그자.

#2 계난 구월에 현 거는 이렇게 물 담가도 촉촉하고.

@1 응.

#2 또 미리 낵 줄 빨리 큰 거는 번으면은 굵고 뽕세고.

@1 아.

#2 그렇게 헹 뽕센 거는 이런 거라.

@1 날로.

#2 이 날로 쓰고.

@1 어.

#2 또 나중에 요렇게 요 꼬트머리 요런 거는 골라놨당 여기 시작할 때 가는 걸로 짜주고.

정동 보관

@1 음. 그든 이거 행 와근에 요렇게 만들젠 허면 것도 오래 걸리지예?

#1 이, 이거 영 혼 여름이민 막 겁니다, 혼 여름이든.

#2 이거 걷어오면.

#3 이거를 밧디서 케오면 이거 널어야잖아, 지붕 위에 널엇잖아, 이거 지붕 위에.

#2 이거 케어오면은 예전엔 초가집 잇곡 이렇게 헐 땀 지붕에.

#3 놀 우트레, 놀 우에.

#2 이런 바닥에라도 널엉.

#3 그냥 널엉 뒤집으멍.

#2 이만큼씩 무껴와, 한 사름이 강. 헨 오면은 아까 이거 뭐허듯이 짝 펴 널어노면은 비 맞치지 말고, 햇빛에, 이슬에 맞으면서 색깔이 흐뎡 나. 처음 말리면 시커멓허거든.

@1 응.

#2 헌데 조금 이슬 맞고, 햇빛 맞고 헤 가면은 색이 이제 검은색이 벗어남 노리스룸헌 색깔 나.

@1 응.

#2 게든 다시 또 이제 그걸 잘 말르면은 사리 지영, 아까 사리 예쁘게 지어는 거.

@1 예, 예.

#2 사리 지영 보관헸다가.

@1 응.

#2 여긴 해마다 우리 아주버님은 저 뭐 좀약 뭐 놓는데 나는 그 바퀴벌레약 여름 나면 두 번 세 번 뿌려줘. 그거 저장헌 디.

@1 아.

#2 좀먹지 말렌.

#1 아, 바퀴벌레약 씨엄저.

(모두 하하하)

#2 좀약 놔선게. 경헨.

#1 좀약은 안 씨반.

#2 쓸 때에는 다시 겨울에는 한 이틀 물 담강 이렇게 손질허지만은. 여름에는 하룻밤만 담가도 물이 이 저 온도가 아무래도 여름에는 하룻밤만 담가도 손 아까 흘트는 거 손보기가 수월헤.

@1 음.

#1 이견예.

#2 겨울엔 추우니깐 이게 뽀뽀허거든. 장마에 촉촉허게 짜기 좋곡.

#1 약 칠허지 아녀고 그 전에는 ** 보관헸다가 햇빛에 물렁 속속속. 햇빛 속에 놔신디 지금은 뭐 그렇게 아녀고 이젠 예에 귀찮으고 허니깐 저 바퀴벌레 약 싹 뿌렷.

#2 으, 막 좋아.

#1 우리 집사름 신 때는 신문지 기름 들어가니깐 신문지로 싸근에 것도 아이 들어. 신문지, 신문지 기름 들어간 거니깐.

@1 응.

#1 그것도 아이 들어가근에 젠디 이 여름엔 이디 꼭 여름엔 꼭 햇빛에 꼭 맞춰 보관햇는디. 햇빛으로 관계엇이 저 거세기 바퀴벌레약 싹 뿌리든 필요 엇이, 그냥.

#2 으.

@1 음. 그든 주로 이거 옛날에는 장마철에 많이 만들언마씨?

#1 예. 장마철에가양.

#3 제일 하기가 좋아.

#1 왜 허기 좋냐면은 이것이 몰르지 아녀마썸.

@1 아.

#1 므르지 아녀근에 항상 된다. *브름 나근에 하여튼 금방 몰르든 *** 물 적정 물 타고 물 타고. 근디 장마철엔 경 안 헨.

#3 물 타 논 거 가정올 거 잘못햇수다.

@1 하하. 계난.

#3 가져올게요. 이거 물 담그명.

@1 물 담그명은에.

#1 이 세멘끼리, 세멘끼리에 강.

#3 옛날 세멘끼리.

#1 아이 옛날 거 말앙 그디 세수허는 걸로 허라게.

@1 이거 그든 이젠 작년엔 준비해 놓은 정동으로 올리.

#2 으.

@1 올리 저, 장마철에 이거 허는 겨우파?

#1 젠디양 이거는 막 오랜 정동인디, 오랜 정동인디.

@1 응.

#1 우리 아주망 하지 아녀는디. 이제 나 이제 해준 걸로 어느 정도 사용한 거 닳아마씨.

@1 응.

#1 저디 사진도 이신디 막 이거 정동 거튼 거 아주망 사진 찍은 거 잇언게, 헤, 정동 금방 헨 거 막 어깨에 멘 거.

@1 하하.

#1 거 사진 어디 셔는디 그게.

@1 응.

(잡담)

경험담

#3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구요. 야이도 이제 말르잖아요. 말라버리면 안 뉘니깐 손 아프니깐.

@1 응.

#3 거든 이것도.

#1 손 아프기도 허주만은 뿌러지기가 쉬워.

#3 꺼꺼져요.

#2 나예 이거 짜당 손에 염증 혈관에 염증 생겼덴예, 병원에 갔다 와수다.

@1 아이고, 경허크라마씨.

#1 부드럽게 아주 곱고. 거칠게 이제 뭘 때 허든 모자 아니 곱나.

@1 아, 여기 진짜 멋진 거 이신게마씨. 이거 누구 거봐?

#3 아버님 멘든 거.

#1 여기서 쓰는 거 아니고 가정 사용하는 거.

@1 아, 쓰는 거 아니마씨?

#1 이 즈룩도 그 나이롱으로 뉘 거, 꺼꺼정. 그저 빠이브 자루로 멘든 거 그거.

@1 아.

#1 거 원래 나이롱으로 뉘 건디 다 뿌러져 엇어져 부난.

@1 이거 여기서 쓰는 거 아니고?

#1 아이, 쓰는 거 아니.

(잡담)

#1 나 가윈 이거, 나 가윈 이거.

@1 아, 삼춘 가위 따로.

#1 이거.

@1 이거 전정가위, 미깡 따는 가윈디? 이거 미깡 따는 건디?

#1 쪼그만 거 사용해. 이추룩 적은 건 가위 커.

#3 계난 손에 익숙허든 다 뉘어.

@1 미깡 탈 때 쓰는 건디 이거?

#2 아무것도계.

@1 허허허.

#2 눈에 익으든.

@1 예, 예.

#2 손에 익으든.

#3 이 정도 양푼이 물까지 준비뉘든 다 뉘 거, 제라허계.

@1 게니까마씨. 영 허니깐 나는 마무리를 이렇게 헨 건 줄 알안.

#1 아, 이진양.

@1 하하.

#1 짜다근예 이제 읍길 댐 이령계양 이거 저 물 등강, 등그기가 좋습니다, 영.

#3 물 담그기가.

#1 물 등그기가 막 일등.

#2 이거 찢라져볼든 이어야 뉘.

@1 이렇게 만들 때도 저렇게 물 담가야 뉘마씨?

#2 응.

@1 아, 실만 담그는 게 아니고?

#2 아이고 다 담가.

#1 여긴 물 아이 담가도 돼고.
 @1 여기만?
 #1 여기 사용하는 디만.
 #2 아, 요만큼 짚을 때는 요 굴레만 물 담가지게 허고 이견 안 담그고.
 #1 요딘 담글 필요가 엇고 사용하는 디만.
 #2 이견 이미 짜면서 물 담그멍 짜온 거난.
 @1 응, 거난 일부러 난 요기 바우를 멋지게 뿐 부린 거카부텐.
 #3 뻗뻗해.
 @1 처음 가져 오셨을 때.
 #1 이거 물 크기 좋곡. 그냥 이대로 큼보담.
 @1 예, 예, 예.
 #2 갱 이추룩 헤 논 거주게.
 #3 이게 쉬운 게 아니예요, 진짜.
 @1 진짜 예술이네.
 #3 이거 말라버리면 애가 꺼꺼져버리니까.
 @1 어.
 #3 진짜 비싸고.
 @1 나 어제 우리 서방한테 나 정동, 내일 갈 건디 하나 상 오카 헤신디.
 #3 엇수다, 살 거.
 @1 하하하. 아니 경헨 하나에 이십만 원 헌텐 헨계만은 어뎡 하나 사 영헨. 으,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 이런 거 만드신 거 보면, 아.
 #1 다 이거 솜씨우다, 솜씨.
 @1 거난예, 손재주도 좋아살 거 닳아예. 아무나 못 헐 거 닳아.
 #1 이거 손재주 완전히.
 @1 응.
 #1 머리도 들어가고 머릿속엔 요건 어떻게 허믄 좋게 나오코 머리도 써야 돼고.
 @1 난 이 집이 시집 와도 못 헤실 거 닳아마씨, 손재주가 엇어가지고.
 #1 허렌 허믄 어뎡헐 거라?
 @1 허렌 허믄.
 #2 옛날 같으믄 다 베왔어.
 @1 아니 이거 강 이거 하는 것만.
 #1 지금은 필요엇주만은양 어려우믄 헤집니다, 어려우믄.
 #2 우리 조카도 여기 시집 오난 지 친정에선 침 귀헌 딸이주만은 여기 시집 오난 정동 견으레도 가보고.
 @1 응.
 #2 정동 견으레 잘 다년.
 #1 어려우민양 다 허기 마련입니다.
 #2 정동 견으레 잘 다년, 애기 어린 때.

#3 더운디 강예, 여름에 가니깐.
 #2 애기 나면서.
 #3 보른예, 진짜 애기 젓 먹는 애기 놔똥이라도 가면 그 더위가 잇으믄. 난예 어무니들은 막 산드레 올라가도 난 더웁 그늘 시민 그늘에 강 누웁도 잇곡. 너무 더우니깐 막.
 @1 맞아마씨.
 #2 하필 이거 걷으러 더운 때 가야.
 @1 어, 출혈 때렌 허멍마씨, 아까.
 #3 예, 예, 팔월, 구월.
 @1 응.
 #2 게믄 출비기 전에 가야 뉘. 출비믄 그 짤라져.
 #3 짤라져.
 @1 아, 거난 출비기 전이.
 #1 출왓디 가믄 이제 출비믄 짤라져 불고.
 @1 예, 예, 예.
 #1 출, 그냥 글쟁이가 필요헌 것이 그거.
 @1 어.
 #1 이 출이 사고 허니깐 그걸로 굽은에 굽은 나오고.
 @1 예.
 #2 이추록 영.
 @1 이거 여러 개 찍엇어? 삼춘이 만든 거영, 여러 개 한꺼번에. 여기 여러 개. 쟁 주로 옛날에 이 모자를 쓰는 사람은 누게마씨? 누가 씨?
 #1 쟁디양 여기서는 아이 씻수다. 어디 가냐믄이 그 옛날 쟁의 대정이엔 굴앗어, 쟁의 대정 강 폴양 쟁의엔 현 건 지금 저디 이제 표선 같은 디.
 @1 예, 예.
 #1 그쪽을, 잇고.
 @1 성읍.
 #1 대정은 이 모슬포쪽에 쟁 쟁의 그 쪽에 남군이렌 해근에 쓸도 바짜오고 돈도 받곡. 여기선 안 썸.
 @1 여긴 안 썸마씨?
 #1 쟁 거기 가근에.
 @1 쟁의 대정 가근에.
 #1 물물교환허던가 돈 받앙.
 @1 요거 하나 가정 가믄 쌀 얼마나 받으니까?
 #3 그땐 이런 모자라났지.
 #2 지금 저 현대 모자로 저렇게 짜서.
 #3 토산품에 강, 거의 토산품에서 왕 가져갓어요.
 #2 이거 쟁등 엄청 많이 들어 이렇게 헤도.
 #3 토산품이요. 바구니도 짜고.

@1 이렇게 이렇게 짜젠 허면 무꺼 논 거, 사리?
 #2 응.
 @1 그거 몇 개나 드는 거마씨?
 #2 저거.
 @1 셀 수 있어?
 #2 아니 흐 두 개, 두 개 더 들어.
 @1 저 사리 저만큼 현 거 두 개? 음.
 #1 예, 요건 두 개 쪼금 더 들고.
 #2 난 요거 요만이 짜난 이거 아버지 준 정동 다 빌언 이거 봉강 다 이거 짠 거라 이거.
 @1 음.
 #2 이거른 짜질 거 허당 보른 모자렌 또 강 가정 오고.
 @1 이거 널게 짬수다, 더. 다른 거보단.
 #2 지금 영 허난 널게 보이는 거.
 @1 아, 기구나.
 #2 지금 이거.
 @1 음. 거난 옛날에는 저렇게만 짬 풀안마씨?
 #3 이건 남자 모자고 이건 여자 모자가 또 잇어마씨.
 @1 아.
 #1 여자 모자 위에 동그란 거.
 #3 동그란 거.
 #1 이디 동그랴게 똥 거.
 @1 음, 그른 저렇게 하다가 이젠 더 옛날은 이거 아니마씨?
 #1 아, 저거는 그냥 증절모자고 이건 돈 받았 풀아보기 위해 멘든 거고.
 @1 응.
 #1 이거는 우리 지정, 지정 이제 똥 거주게, 정동모자로.
 @1 문화재로 지정된 건 이건디.
 #1 으, 지정품.
 @1 옛날엔 풀 댄 저렇게 만들언 풀아난?
 #1 그냥.
 @1 뽀으로.
 #1 이제 풀아 먹는 거.
 @1 음.
 #1 저거는 지정품은 아니.
 @1 그니깐.
 #3 웬만한 사름, 제주도 사름은 여자 모자, 남자 모자 써서 밧디 갈 때도.
 @1 예.
 #3 그거 쓰고.
 @1 응.

#3 근데 이제는 재료 허기도 힘드니깐 이젠 부업 쪽으로 여기서도 허다가 쪽파 작업 하면서 이제 다 중단됐죠, 우리 아버님만.

@1 응.

#3 예, 계곡 또 재료도 밧이 다 개간해 버리니까 진짜 하기가 힘들어서.

@1 예. 선생님은 이거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계속 하신 이유가 뭐마씨?

#1 아, 그만두지 아녜 이유?

@1 으,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안 하는데.

#1 그만두젠 허젠 현 건 오래우다.

#2 보유자로 잇으니깐.

#1 쟁 난 집이 조금 이상케 허는, 이상케 꼬여간에 쪼금 기다리는 중인디 나 이제 막음 먹은 진 으라 해 돼수다.

@1 아니, 어렸을 때 옛날에.

#1 아, 옛날에?

@1 지금이야 그렇다 치고 옛날에 다른 사람들은 농사지었는데, 농사 안 짓고 계속.

#1 난 농사 많이 지어수다게.

#2 농사지으면서 이거 다 부업으로.

@1 음.

#3 부업으로, 부업으로.

#1 이젠 부업으로 현 거고. 이젠 이제 지정된 거 저걸로 하나씩 풀아 먹지 못허고. 이젠 막 나가니깐.

@1 아, 저건 많이 나가고.

#1 이젠 여자 모전 둥그렇게, 둥그렇게 이젠 손 각도가 더 많이 꺾겨져마씨. 이처럼 우이가.

@1 예, 우이가 많이 꺾겨졌네예.

#1 막 꺾겨져, 여자 건. 쟁디 둥그렇게.

@1 저게 더 짜기 힘들어마씨?

#1 이것이 더 힘들어.

@1 더 힘들어? 어.

#2 정동은 이것이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거는 저기 판로가 없는 거야.

@1 응.

#2 웨냐면은 우리가 짜서 해봐야 누가 사서 쓰지도 안허고.

#1 주로.

#2 일하면서도 이렇게 쓸 수 잇는 거고.

#1 저 이제 스님들, 스님.

#2 도에서 정해진.

#1 스님들이 많이 써 가 그디 저 그.

#2 보유자님허고 조교라서 전승시키려고 이게.

#1 스님들이.

#2 저 뭐히는 거지 이거 짤 필요가 엇주게 정동 들면서.
 @1 음.
 #2 보유자기 때문에.
 #1 이거, 이거 저 도에서 판 디서 이거 남암젠 해도 짜라 허는 거라. 자기네 돈 주니깐 짜라.
 @1 응.
 #1 젠디 뭐 짤 거 해 봤자.
 @1 지금도 근데 요렇게 만들어서 팔면 팔릴 것 같은데마씨?
 #1 이거마씨?
 #3 어느 거?
 @1 이런 거, 이런 거.
 #1 아 이거?
 @1 응.
 #1 사간 사람이 이수다.
 #2 비싸, 비싸.
 @1 비싸서.
 #1 예, 젠디, 경헌디.
 #2 재료도 엇고.
 #1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1 수지가 안 맞지예?
 #2 응.
 @1 수공도 많이 들고예?
 #2 많이 들어. 이젠 재료도 경.
 @1 비싸고예.
 #2 응.
 @1 응.
 #2 갱 우린 이제 보유자님이 이거를 도에서 지정된 거고 허니깐.
 @1 예.
 #2 별립으로 지정된 거니깐 이거를 전승시켜라. 매달 돈도 주꼭게. 전승시켜야주게. 정혜 진 거난. 지금 저 현대 모자는 재료 경 어디 팡팡 남시민 짱 몰라 멋으로 쓸 사람도 잇겠지.
 @1 예, 이실 거 닐아.
 #2 하지만 이젠 쪽파덜 좋고 돈 좋고 허난 이제 저런 거 짜명.
 @1 하하, 알겠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14-01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3
- 제주 전통 옷 구슬 자료집

시집을 때 입어난 장옷 죽영 가명도 입곡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726-5623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1
전화 064-723-758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3
- 제주 전통 옷 구슬 자료집

시집을 때 입어난 장옷 죽영 가명도 입곡

2021